韓國戰爭史

第 3 卷

國　防　部

洛東江防禦作戰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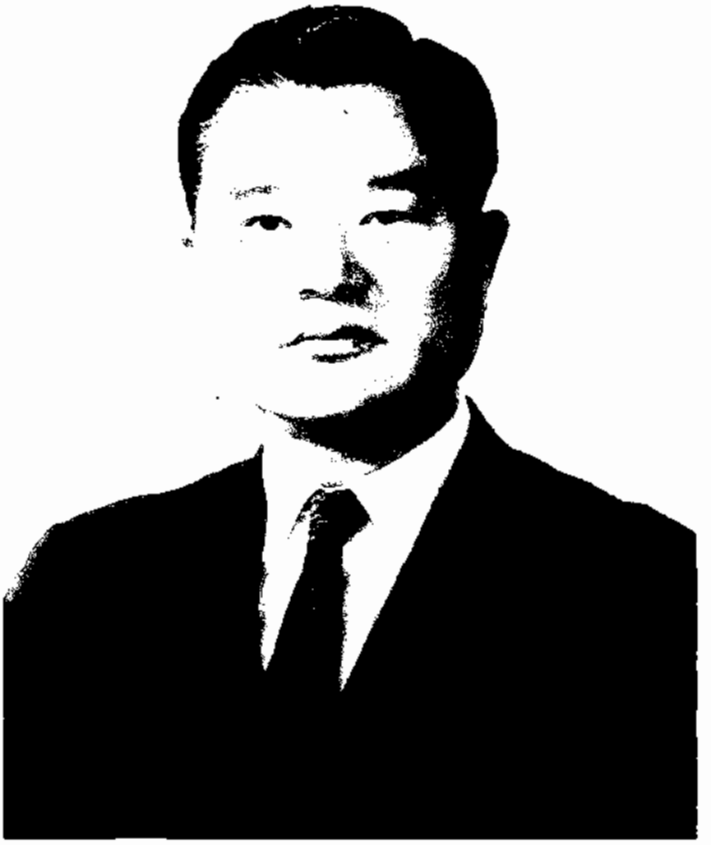
附 首都서울奪還作戰

1950.8.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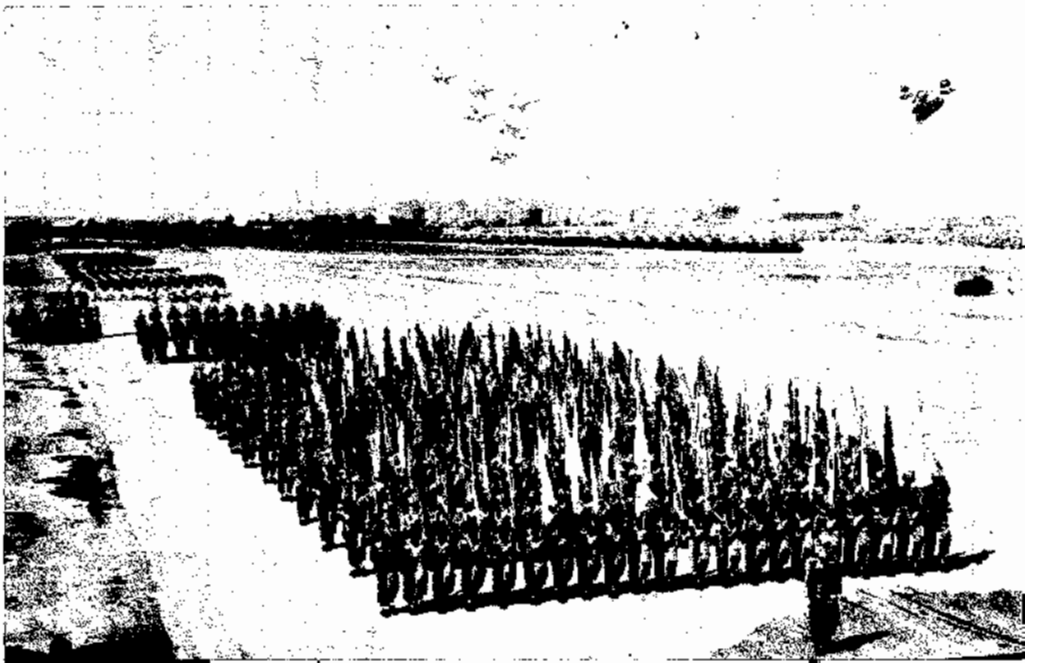
戰史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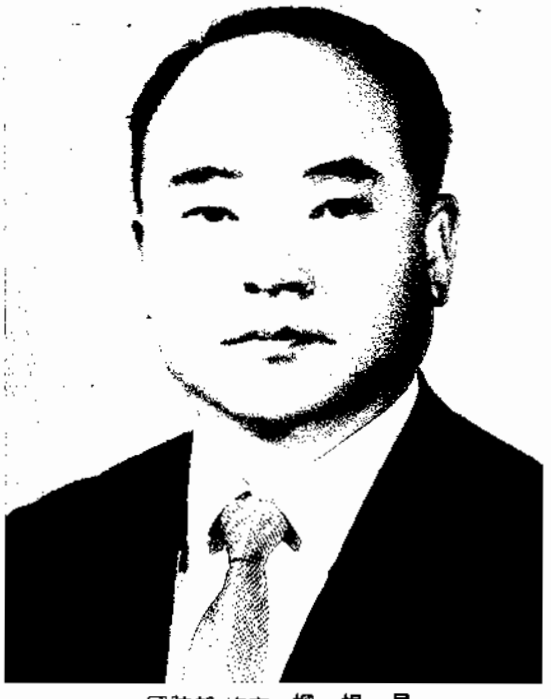


大統領　朴正熙



國防部　長官　丁　來　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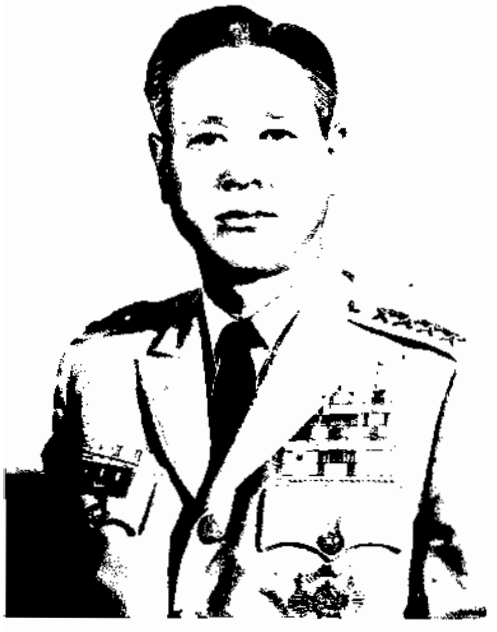


國防部 次官 柳 根 昌



合同參謀本部議長 陸軍大將 沈 興 善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徐 鐘 喆



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斗 萬



海兵隊司令官 海兵大將 鄭 光 鎬

序　　文

1970년은 우리가 北韓괴뢰집단으로부터 불의의 침략을 받은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20년전 동족상쟁을 강요 당하고 처절한 전화를 입었읍니다. 이 모든 희생은 정전으로 일단 매듭지어 졌으나 침략의 불티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또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北傀는 무력남침의 야욕이 분쇄되자 평화통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허위선전을 일삼아 오다가 수년전부터는 무력통일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남침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大韓民國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각종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도 온 국민이 단합하여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韓國전쟁을 체험한 국민과 영도자의 소산이라 하겠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韓國전쟁을 모르는 우리의 후진들에게 韓國전쟁에 관한 거짓 없는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공산주의의 잔악한 실태를 인식시키고 공산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朴正熙 대통령 각하께서는 공산침략의 가능성을 예견하시고 北傀의 어떠한 침략에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국력을 배양하여 북괴가 스스로 남침 야욕을 포기하도록 자주국방태세의 지표를 제시하시고 그 기틀을 갖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방지원의 대의를 위해 우리 국군을 越南에 파병하시는 한편 실전 체험을 통한 전투력 연마로서 北傀의 발호에 일침을 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외정세는 급변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취할 길은 자주국방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핵시대의 힘의 불균형을 틈타 제한전쟁은 세계곳곳에서 전개되고 있고 공산 北傀의 집요한 침략행위가 계속되는 한 적을 능가하는 자체능력 배양만이 20년전의 불행한 체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韓國전쟁사의 발간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읍니다.

20년이 흐른 오늘날, 과거의 체험을 되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 韓國 전쟁사 제3권을 편찬한 전사편찬위원장과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고난을 함께 나눈 우방참전 16개국 장병들에게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1970년 12월 21일

國防部長官 丁 來 赫

發 刊 辭

전사(戰史)는 우리에게 여러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찌하여 졌는가 하는 원인과 그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전술과 전략의 원칙을 예증(例證)할 뿐 아니라 군국대사(軍國大事)에 있어서의 흥망과 성쇠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수립의 방향과 정략운용의 묘체(妙諦)를 보여 주기도 하는 까닭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후손들에게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래(古來)로부터 병가(兵家)는 이것을 터득함으로써 자신의 전략과 전술 사상(思想)을 개발하였고 거성(巨星)은 이것을 교재로 삼아 좋은 참모를 양성한 결과, 빛나는 승리를 찾이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전사는 어떤 개인의 종군기록이나 회고록과도 달라서 군사학의 한 부문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학(史學)의 권위자라고 하여 곧 작전용병(作戰用兵)에 직결되는 이러한 전사를 서물리 다룰 수는 없는 것이기에 각군의 현역 장령(將領)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민간학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금년 5월부터 이 사람이 이 일을 위촉 받게 되었는 바, 당시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일이 매우 벅찬 것을 느꼈으나 소신(所信)대로 하여 보라는 상사(上司)의 깊은 이해에 힘 입게 되어 비록 미력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 밑에서 일할 것을 다짐하고 우선 요지(要旨)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 우리의 후예(後裔)를 위한 전사를 쓰는 것을 근본 태도로 삼고 민족적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자학성(自虐性)과 왕졸성(輓拙性)에서 탈피한다.

둘째 :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는 전사상자(戰死傷者)를 비롯한 참전자들의 증언과 일화들을 되도록 많이 수록하고 그 이름 석자라도 적어 넣도록 한다.

셋째 : 전투경과를 세밀하게 다루어 이것을 핵심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각 전투마다 독립성을 부여토록 한다.

넷째 : 요도(要圖)를 중요시하여 만들 것이며 누구나가 이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의한다.

다섯째 : 집필진을 강화하여 격조 높은 내용으로 엮되 부질없는 평론이나 실전과 유리(遊離)된 비판등을 삼가키로 한다.

여섯째 :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명(人名)과 지명(地名)같은 것과 필요한 것만은 한자를 쓰되 그밖의 것은 되도록 한글을 전용한다.

이러한 몇가지 방침아래 외람되지만 기간(旣刊) 제1, 제2권과는 그 체재(體裁)를 조금 바꾸어 가면서 본 위원회의 참신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제 제3권을 내어 놓게 되었으나 어쩐지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도 오히려 무거운 심정이 앞서기만하여 마치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는 그러한 느낌 뿐입니다. 우리가 장차 한줌의 흙이 되는 날 "이 전사(戰史)밖에 또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하는 중압감(重壓感)과 우리가 과연 능히 다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自責感)에 사로 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韓國 전쟁이 일어난지도 벌써 20년에 접어 들었으나 귀중한 전사자료는 그대로 외면된 채 하나 둘씩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으며 그나마 국내외에 걸쳐 광범하게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전한 용사들도 해마다 줄어가고 전사자의 유가족마저 날이 갈수록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 전쟁의 경험에서 전혀 소외된 채로 자라나고 있으니 어찌 안이한 마음으로만 있을 수 있겠읍니까? 더구나 두손들고 항복한 나라에서도 자기네의 패전기록을 엮기 위하여서 우리의 몇갑절이나 더한 애를 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우리의 전사에 대한 관념은 마땅히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초조한 감회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금년을 넘기기 전에 이 책을 내게 된 이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선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음을 이 기회에 널리 알려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먼저 援護處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원호대상 인사들의 명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보내 주셨으며, 在鄕軍人會에서는 회원명부를 빌려 주시어 복사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주셨읍니다. 또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에서는 현역 참전자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약력카드 수천장을 만드는데 직접 협력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을 큰 힘 들이지 않고 끝마칠 수 있었으며 星友俱樂部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간행물을 통하여 사료(史料)수집을 회원들에게 광고하여 주었읍니다. 또 合同參謀本部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부무관들을 통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얻도록 하여 주셨으며 최근 內務部에서는 전투경찰대에 관한 전사연구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 근무케도 하여 주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많은 참전자들이 자진하여 증언을 아끼지 않았아오니 우선 위의 모든 관계 인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협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美軍 관계의 전투는 중대급까지 다루면서도 우리 國軍의 것은 대부분이 대대규모 이상만을 기록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이 여간 안타깝고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제3권 내용에 대하여 혹시라도 어떠한 미비점이나 착오점을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 내 놓게 될 보유편(補遺篇)에서 빠짐없이 취급코자 하오니 언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나올 제4권이야말로 우리의 용사들이 鴨綠, 豆滿의 두 강반(江畔)까지 영광의 진격을 감행하였던 가장 광채있고 장쾌(壯快)한 수년이니만큼 우리의 승리의 대기록으로 길이 남겨야 될 것이며 그 뒤에 나올 한국전쟁사 각권과 UN군전사, 파월한국군전사와 그리고 후방전사에 이르기까지 더욱 생생하고 값진 것으로 엮어나가야 하겠기로 이 사람은 위원회의 모든 임원과 더불어 힘껏 밀고 나갈 작정이오니 여러 관계인사께서도 우리 임원들의 봉사일념을 가륵히 여기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간행에 있어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초과되기에 이르렀으나 국방부차관의 특별한 배려로서 무난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동시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전자 면담과 유가족 통신에 응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오며 전몰장병의 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1970년 12월 21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李 烱 錫

凡　　例

1. 이 제3권은 장차 UN전사와 후방전사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이미 제1, 제2권에서도 다짐한대로 개정판을 내게될 것을 미리 생각하여 종래와는 그 체제를 바꾼 것이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편찬상의 기본이 될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로 일괄하되 일련번호를 넣지 않는다.

나. 章은 作戰本位로 구성하되 개정될 제1, 제2권에 이어서 全般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다. 節 이하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 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節——1. 2. 3. 4. 5.

項——가. 나. 다. 라. 마.

目——(1) (2) (3) (4) (5)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에는 이를 생략키로 하고 卷과 篇의 표제는 漢字로써 章 이하와 區分한다. 篇과 첫 章사이에는 「槪說」을 넣고 章과 첫 節사이에는 「要旨」를 넣는다.

3. 槪說에서 취급할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期間 中에 있어서의 敵측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동향에 관한 대요

나. UN軍측의 군사동향의 대요

다. 國內外의 군사동향의 대요

라. 敵軍측의 작전구상

마. UN軍측의 작전구상

바. 我軍(육, 해, 공군 및 해병대)의 작전구상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인사이동과 그 動靜

아. 第3國의 동향에 관한 대요

자. 彼我兩軍의 편성, 장비등의 변천에 관한 사항

차. 戒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할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敵軍측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대요

나. UN軍측 兵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대요

다. 我軍의 육, 해, 공군 및 해병대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대요

라 주요한 지휘將領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

마. 작전상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바. 主要兵團의 편성과 隷屬, 배속 및 지원관계와 그 이동에 관한 사항

사. 彼我兩軍의 교육, 훈련 및 軍紀와 士氣에 관한 사항

자. 情報활동에 관한 사항

차. 民事, 救恤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5. 장차 발간될 UN전사 안에서 취급할 것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중복취급되는 것을 피하지 않기로 한다.

6. 순수한 후방전사에 속하는 사항은 가급적으로 本文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후방전사에 신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국군의 現用부호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그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뒷 것은 點線으로 표시한다.

나. 我軍과 UN軍 그리고 北傀軍과 中共軍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行軍路와 공격 및 돌격방향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시기와 장소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要圖에 註記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靑色, 敵軍은 赤色으로 區分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하여 본문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白線으로 구분한다.

例 : 我軍은 ➡ 敵軍은 ⇨



10. 漢字는 되도록 한글을 쓰기로 하였으나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및 左右)등은 漢字를 쓰도록 하고 한글의 綴字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기로 한다.

11. 되도록 慣用 兵術語를 쓰되 각군사이에 차이가 있는것은 그 所屬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개요의 앞뒤에 각각 전투전의 개황과 전투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작전명령, 작전지시, 각서등의 문서와 附表등은 본문에서 필요한 것만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는 부득이 이를 割愛키로 하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한 까닭이다.

14. 여러 章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전명령등은 附錄에서 일괄취급하되 본문 안에서 필요한 일부를 직접 그 要旨만을 취급키로 한다.

15.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너무도 적당치 않은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제1, 제2차등으로 그 전후를 구분키로 한다.

16. 團隊號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구분키로 한다.

가. 隷屬부대 ——본래의 편성부대

나. 配屬부대 ——임시로 지휘를 받는 부대

다. 支援부대 ---砲, 工兵, 전차 부대와 자동차부대등 한 兵科와 後方부대가 직접 지원할 때

라. 協同부대 ——인접부대와 UN軍부대

17. 外國의 人名, 地名등은 처음에 나올 때에만 그 原名을 併記하고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18. 이 제 3권에서는 편의상 洛東江 전선을 다음과 같이 구분키로 한다.

가. 東部지구 —— 浦項부터 安康까지

나. 西部지구 —— 倭館부터 馬山까지

다. 東北部지구 —— 永川부터 慶州까지

라. 中部지구 —— 義城부터 倭館까지

19. 我軍에 대하여서는 「退却」「撤收」등의 術語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退却은 고급지휘관의 명령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撤收도 또한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히 취급키로 한다.

20. 기타 細部에 관한 사항

가. 略語(준말)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장군」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등에는 일련번호를 붙여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 1950년 8월 15일 오후 3시 50분

50. 8. 15. 15. 50

마. 필요한 때에 부대 記號에 北傀軍을 NC. 中共軍을 CC. 로 표시하고 그밖의 UN軍은 일반 慣用法을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말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문교부안과 육군대학 규정부호 및 군특명검열반 발행인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사. 전사자 명단은 부득이 장교급 이상만을 넣기로 한다.

아.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권말에 첨부하였으며, 면담 및 그밖의 관계史料는 본문에 註記하고 본문 중에 넣지 않은 것 중 관계자료는 각 장 절 말에 小活字로 수록한다.

韓國戰爭史 第3卷 目次

序 文 國防部長官 丁 來 赫
發刊辭 戰史編纂委員會委員長 李 鉉 錫
凡 例

洛東江 防禦作戰期

附 서울奪還作戰

槪 說 ……(3)

第18章 洛東江 防禦線의 形成

要 旨……(17)
1. 洛東江 防禦線의 形成過程……(18)
2. 彼我의 兵力·配備狀況……(24)
3. 彼我의 後方狀況 ……(31)
4. 防禦線 形成期의 美國 軍備增強 ……(42)

第19章 洛東江 中部方面 作戰

要 旨……(47)
1. 義城 附近 戰鬪……(49)
2. 普賢山 附近戰鬪 ……(62)
3. 龍基洞 附近戰鬪 ……(99)
4. 軍威·義興附近戰鬪……(107)
5. 洛東江沿岸(洛井洞—海平洞—浦南洞) 附近戰鬪 ……(125)
6. 328高地 (一名 300高地) 戰鬪 ……(152)
7. 水岩山·遊鶴山 附近戰鬪 ……(162)
8. 多富洞附近戰鬪……(175)

第20章　洛東江 西部方面作戰（一）

要　旨……(197)
1. 倭舘·多富洞 附近戰鬪 ……(198)
2. 昌寧·靈山附近戰鬪……(218)
3. 馬山 西側方의 偵察戰……(251)
4. 킨(Kean) 特殊任務部隊의 反擊作戰 ……(265)
5. 킨(Kean) 特殊任務部隊의 解體와 再防禦……(280)
6. 韓國 海兵隊의 統營 奪還戰 ……(288)
7. 韓國 海兵隊의 釜門고개 防禦戰 ……(296)

第21章　反擊準備와 海空軍作戰

要　旨……(305)
1. 我軍의 反擊準備와 敵軍의 狀況 ……(307)
2. 韓國 및 UN 海軍의 活動 ……(331)
3. 韓美空軍의 活動 ……(352)

第22章　洛東江 東部方面 作戰

要　旨……(385)
1. 浦項 附近戰鬪 ……(387)
2. 杞溪·安康附近戰鬪……(416)
3. 慶州北方附近戰鬪……(434)
4. 韓國海軍陸戰隊의 活動 ……(451)
5. 美軍特殊任務部隊의 活動 ……(455)

第23章　洛東江 西部方面作戰（二）

要　旨……(467)
1. 倭舘·多富洞 附近戰鬪 ……(469)

2. 昌寧 附近戰鬪 ……(491)
3. 靈山 附近戰鬪 ……(497)
4. 馬山 西北方의 戰鬪……(511)

第24章 大邱 北東部方面 防禦作戰

要 旨……(529)
1. 梨山·八公山附近戰鬪……(531)
2. 新寧 附近戰鬪 ……(541)
3. 永川 附近戰鬪 ……(556)
4. 國立警察의 活動狀況 ……(588)
5. 大邱固守와 釜山으로의 撤收問題……(606)

第25章 仁川 上陸作戰

要 旨……(617)
1. 作戰計劃의 樹立過程 ……(619)
2. 作戰計劃의 準備過程 ……(635)
3. 作戰計劃의 實施過程 ……(651)
4. 本作戰에 關한 全般的考察……(677)

第26章 서울 奪還作戰

要 旨……(695)
1. 仁川 橋頭堡의 確保……(700)
2. 京仁 街道의 進擊作戰……(712)
3. 漢江渡河와 永登浦附近戰鬪 ……(729)
4. 서울 西側方의 突破戰……(742)
5. 서울 外廓에 對한 包圍戰 ……(755)
6. 서울 市街戰 ……(766)
7. 서울 近郊戰鬪와 防禦線의 完成 ……(795)
8. 空輸支援……(803)

狀 況 圖

1. 彼我 병력 배비도 ……(25)
2. 제16연대와 유격대의 방어전 ……(86)
3. 龍基洞부근 전투……(102)
4. 軍威·義興부근 전투……(112)
5. 洛東江 연안 부근 전투……(132)
6. 제12연대 洛井洞 부근 전투……(133)
7. 328高地 水岩山 遊鶴山 多富洞 부근 전투 ……(161)
8. 美 제24사단의 靈山부근 전투……(221)
9. 洛東江 돌출부에서 적 교두보파괴……(246)
10. 적 제4사단 및 제6사단의 우회작전 ……(253)
11. 체크(Check) 정찰대의 출몰 ……(257)
12.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 ……(269)
13. 북괴군의 제5차 작전계획……(327)
14. 南西海의 봉쇄작전 (1)……(333)
15. 南西海의 봉쇄작전 (2)……(334)
16.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후방 차단작전 ……(371)
17. 浦項 방어전……(393)
18. 浦項 부근 전투 ……(399)
19. 浦項 부근 약도 ……(406)
20. 杞溪·安康 부근 약도 ……(420)
21. 慶州 北方 부근 약도……(437)
22. 倭舘·多富洞 부근 전투 ……(472)
23. 栗山·八公山 부근 전투 ……(532)
24. 新寧 부근 전투 ……(543)
25. 제8사단 제9공병대대의 永川 탈환전……(564)
26. 항공 지원 계획 ……(628)
27. 해상 지원 계획 ……(631)
28. 德積島 작전……(643)
29. 靈興島 작전……(645)
30. 長沙洞 상륙……(650)
31. 상륙군 출항……(653)

32. 月尾島 상륙……(662)
33. Red Beach 상륙 ……(664)
34. 韓國 해병대 및 美 제5해병연대의 金浦 진출……(715)
35. 美 해병 제1연대의 공격 ……(721)
36. 美 해병 제1연대 永登浦 공격 1차……(724)
37. 美 해병 제1연대 永登浦 점령 2차……(736)
38. 美 해병 제5연대 및 韓國 해병대의 공격……(743)
39. 서울 西측방에서 적 주저항선돌파……(747)
40. 美 해병 제7연대의 진격 ……(767)
41. 美 해병대 및 美 보병 제7사단의 서울 시가전 ……(768)
42. 북괴군의 패주와 議政府 점령……(800)

附　　錄

1. 作戰命令 (1~109)……(811)
2. 訓　　令(110~173)……(885)
3. 戰歿者 名單(陸·海·空·海兵) ……(931)
4. 拉北者人名錄……(952)
5. 參考文獻……(967)
6. 年　　表……(969)
7. 索　　引……(981)

洛東江防禦作戰期

附 서울 奪還作戰

洛東江 防禦 作戰期

概 說

본권(本卷)에서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전투양상을 취급하였는데 우선 북괴(北傀)의 정황(情況)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남침전략(南侵戰略)의 핵심은 무력으로 손쉽게 大韓民國을 공산화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에 그 기반(基盤)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괴(北傀)는 8.15 해방 제 5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가지려고 하는 동시에 "남반부 무력해방"의 전승 축하마저 함께 대대적으로 거행하려는 야욕으로 늦어도 8월 15일 이내에 침공작전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전략적(政戰略的)인 계획은 커다란 오산(誤算)이었으며 또한 무모하고 허울 좋은 선전으로만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남침계획은 스탈린(J. Stalin)이나 金日成이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검토한 것이었으나 美國이 참전치 않으리라고 오판(誤判)을 함으로써 "남한 해방"의 침략 구호(口號)는 얼마 못가서 송두리채 사라지게 되고 급기야는 중공(中共)에게 구원(救援)을 요청하는 전락상(轉落相)을 보여 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군은 서전(緖戰)에서의 전승 여세(戰勝餘勢)를 몰아 韓國軍과 급거 참전한 美 지상군의 선봉부대들을 압박하면서 7월 말에는 盈德, 安東, 咸昌, 尙州, 金泉, 晋州를 연하는 선으로 침공하여 洛東江외선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심상 金日成으로서는 美國이 참전함으로써 그의 전쟁지도(戰爭指導)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이미 南韓의 4분의 3을 침략한 시기에 있어서 그의 종국적(終局的)인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金日成의 독전명령(7월 20일경 水安堡에서 "8월 15일 내에 釜山을 점령하라")에 혈안(血眼)이 되어버린 적의 최고 사령부 주구(走狗)들은 中部방면의 급속한 남침을 서둘기 위하여 개전당시 제 2군단장으로 있던 소장 金光俠을 기용하여 中部방면 연합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앞장 서게 하였다.

적의 작전기도는 8월 초에 韓, 美 양군이 洛東江선에서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할 시간

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급속한 추격작전으로 洛東江을 건너서 大邱, 釜山의 좁다란 지역에 압축코자 시도(試圖) 한 것이다. 따라서 각 부대는 그때까지 없었던 독전대(督戰隊)라는 살인(殺人)전문부대를 편성한 다음 뒤에서 총부리를 휘둘면서 8.15 안으로 원흉(元兇) 金日成의 야욕을 그대로 달성코자 무자비한 독전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적의 이른바 8월공세의 주공(主攻)은 大邱정면과 아군의 배치가 취약(脆弱)한 馬山정면에 지향(指向)하게되고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아 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 제 2 군단은 그 右측에서 左측으로 제15, 13, 1, 8, 12, 5사단 순으로 전개시킨 다음 大邱—永川—浦項을 점령하려는 것이었고, 또 적 제 1 군단은 南쪽에서 北쪽으로 제 6, 4, 10, 3 사단순으로 배열시켜 측방에서 密陽과 釜山을 점령하는 동시에 일부는 大邱 후방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적의 총공세는 8월 5일경에 洛東江을 건느면서 시작되었지만 韓, 美 양군의 미리 마련된 조직적인 저항과 공지합동(空地合同) 반격으로 말미암아 일대장벽(一大障壁)에 정면으로 부닥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洛東江 西部방면에 있던 적 제 1 군단에서는 그 예하에 있던 적 제 4 사단이 8월 11일에 美軍의 방어선을 뚫고 靈山에 침공(侵攻)하였으나 예비로 있던 美 제1해병여단의 역습을 받고 8월 18일에는 洛東江을 다시 건너 패주하고 말았다.

그리고 적 제 6 사단도 8월 7일에 킨(Kean) 부대(美 제25사단)의 6일간에 걸친 반격에 부닥쳐 晋州 東쪽과 泗川 부근까지 단숨에 퇴각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馬山 西측방의 산악지대로 침공(侵攻)하기에 이르렀다.

적 제 2 군단은 中部 및 東部방면에서 제 4 차 작전이 끝나는 8월 20일 현재로 그 정면(正面)이 倭館부근에서 多富洞—義興—普賢山—杞溪—浦項을 연하는 약 90km선에 겨우 진출하게 되었으나 이보다 앞서 작전의 실패를 보다못한 金日成은 8월 15일에 명령 제82호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要旨)에 이르기를,

"후방에 있는 전인민들은 생산을 배가하라. 그리고 육해군 전사 지휘관 및 남녀 빨치산·노동자·농민·문화활동가 등의 동무들은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라"

고 하였으며 이어서 작전상의 훈령에 부연하기를 백발백중의 사격술, 병기의 애호, 지휘통솔의 발전, 韓 美 양군의 격멸, 유격전의 강화 등 5개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침략종결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이무렵 平壤에는 郭沫若을 단장으로 하는 中共인민 대표단이 북괴의 침략전쟁 수행의

성과와 아울러 해방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북(入北)하고 있었다. 이들 대표단이 中共으로 돌아간 다음 8월 24일에 중공수상 周恩來는 성명을 통하여 말하기를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망하고 있는 중공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눈치를 보이게 되었다.

적의 소위 최고사령부에서는 金日成의 8.15 명령과 제4차작전(7.21~8.20)의 실패 등을 검토하고 다시 제5차작전방침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세우게 되었다.

첫째 : 사단과 기술병종을 강화시킨다.

둘째 : 더 많은 군수물자를 전선에 수송한다.

세째 : 작전 예비대를 전투에 투입시킨다.

넷째 : 元山과 仁川의 해안방어를 강화한다.

이와같은 방침을 근거로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면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玄風에서 倭舘에 이르는 洛東江 右岸을 견제시키는 동시에 제1, 제2군단이 西쪽과 北쪽에서 진격을 시작하여 大邱, 永川지역에서 아군을 포위하려는 것이된다.

제5차작전은 당초 그들의 남침계획에 없었던 이른바 발악적인 추가공세가 되었는데 그 편성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군단 장 중장 金 雄

固有 제2, 제4, 제6, 제10사단

新編 제7, 제9사단

기갑 제16여단(전차 43대) } 증원(增援)

보안 제104연대 /

총병력 50,850명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亨

固有 제1, 제3, 제5, 제8, 제12, 제13, 제15사단

新編기갑 제17여단(전차 40대) \

보안 제103연대 } 증원(增援)

기타 제73독립연대 /

총병력 51,000명

合計 101,850명

적의 총력을 집중한 9월 공세인 제 5차작전은 제 1 군단이 8월 31일 밤에 공격을 시작하였고, 제 2 군단은 뒤늦게 9월 2일 밤에 시작하였다.

洛東江전선의 美 제 2 사단 정면에 지향한 적 제 4 사단과 제 9 사단은 9월 2일에 靈山을 점령하였으나 역시 美 해병여단의 반격으로 격퇴되었고, 적 제 2 사단은 이때 昌寧정면에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적 제 6 사단도 咸安까지 밀고 들어 왔으나 美 제25사단에 의하여 격퇴 당하고 말았다.

적 제 2 군단은 倭館—多富洞—永川—安康—浦項을 고전끝에 점령하였으나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고, 적 제15사단은 永川에서 아군 제 2 군단의 반격으로 처참한 패배만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적 최고사령부의 총참모장인 중장 姜 健이 아군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폭사하고 말았는데 적에 대한 충격은 결코 적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이와 같이 적의 마지막 공격도 작전 개시 1주일만에는 이미 그 힘이 약화 됨으로써 공세작전의 계전(繼戰)능력을 잃고 있었으니 적은 마치 그림의 떡을 삼켜 보려고 덤비었던 격이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9월 22일에 적은 UN 군이 仁川상륙에 이어 서울로 전격적인 진격을 감행하자 모든 전선에서 일시에 총퇴각을 시작하여 마침내 남한 공산화라는 침략 야욕은 그 뜻을 이룩하지 못한채 패주회군(敗走回軍)이라는 처참한 길로 되돌아 가게 되었으니 이같은 광풍일과(狂風一過)의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막심하였다.

그들이 남침(南侵)한 지역에서 자행한 온갖 만행은 공산화(共產化)를 위한 정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이라는 미명(美名)에 비롯되었는데 우선 그들은 모든 大韓民國의 정치제도를 말살한 다음 공산조직과 대중전위단체를 부활시켜 이른바 해방전쟁 수행을 위하여 총동원 체제를 강압적으로 실천하기에 광분하였다. 이를 위하여 北韓에서 金日成의 직계인 李範淳이가 4,000명의 정치공작대원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선 다음, 이들을 각지역에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남노당(南勞黨)의 붕괴된 지하조직을 부활시키고자 지하당원과 빨치산, 그리고 투옥되었던 정치범들을 중심으로 조직에 착수하는 한편 각종 간부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조직과 훈련을 강화(強化)하였으며, 정책실현의 전위대인 직업동맹과 농민동맹, 그리고 민주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및 문화예술가동맹 등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南韓지구의 해방정책이란 대략 다음과 같은 7개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南韓 농민의 대중심리를 포섭하고자 7월 4일에 우선 토지개혁 실시령을 공포하고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시행하였는데 실시결과 1,267,800여호의 소작농(小作農)과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573,300여정보를 무상분배 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리고 현물세(2.7부)라는 미명아래 농작물의 수탈을 행하였는데 심지어는 호박, 감자, 고추 등을 하나 하나 세어 받아 갔고, 한편 인민군에게 보내는 성출미(誠出米) 헌납이라고 하여 80%를 수탈하였다. 그러므로 다소나마 뜻있는 농민들은 남의 땅을 거저 받아 거저 먹기 싫다고 비가 오고 美軍 비행기가 떠오는 것을 구실삼아 분배받은 토지를 돌보지 않은 형편이었으니 이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니겠는가?

2. 그들은 7월 14일에 침략지역내에서 이른바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날조된 정령(政令)를 발표하고 市, 郡, 面, 里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표면상 선거라고는 하지마는 이미 지명된 공산당원을 내세워 찬반 흑백함(黑白函)에다가 투표를 함에있어 공공연한 감시에 의하여 남로당원이 위원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그리고 내무서장(경찰) 등은 북로당원이 그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위원장은 다만 허수아비 노릇만하게 되었으니 그러고서도 그들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다.

3. 그들이 말한바 남조선 인민의용군의 강제동원은 金日成의 가장 잔인한 행위의 하나였다. 그는 침략지구에서 의용군(義勇軍)을 강제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군과 싸우게 하는 대리(代理)전쟁을 시키면서 그 원흉들은 뒤에서 총부리를 대고 감시 하였던 것이다. 즉 7월15일 경부터 의용군 모집이 자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적색 광신분자들이 나갔지만 다음부터는 16~50세까지의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연행 또는 색출하여 전선으로 몰아내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그의 연설에서 "몇 주일간 자진하여 의용군에 참가한 자가 40만명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강제 동원이었고 거의 모두가 전화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으니 죄 없이 죽고 명목없는 싸움터에 끌려 나간 젊은 생명들이 참으로 애처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4. 북괴 내각은 8월 7일에 소위 「노동법령」이라는 엉터리 법령을 발표하여 노동자와 기술자 그리고 사무원 등에 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한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이 노동법령은 기만수단이어서 이미 7월달에는 美 공군에 의하여 파괴된 도로와 교량의 수리 복구작업 그리고 식량과 탄약 및 부상자의 후송등을 위하여 각 里, 洞에 군사원호 노력대라는 것을 조직한 다음 부역(賦役)에 강제동원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동원은 美 공군

의 폭격과 기총소사 밑에서 감행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 작업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동원과 작업상의 혹사는 항상 총부리의 감시 아래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니 그리고서도 그들은 인민을 위한다고 기만선전을 하였던 것이다.

5. 그들의 남침이후의 군량미(軍糧米)는 침략지구안에서 징발하기로 되었는데 처음에는 도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식량을 배급하겠다고 허위선전을 한 다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반동분자의 가족을 제외한 가구(家口) 1인당 2홉 5작을 몇일간 주고 나서는 곧 중단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라는 것은 "모든 생산기업체가 전화(戰火)로 말미암아 폐쇄되었기 때문에 노는 자들은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원흉들의 식량정책은 곧 살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150만을 헤아리던 서울시민을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하였고 9월 초에 이르러 그 인구는 3분의 1인, 50만으로 줄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7월에 수확한 보리쌀을 위시한 잡곡 등과 농민의 유일한 부식인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을 모두 수탈하여 갔고 소, 돼지, 닭 등의 가축과 달걀등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강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댓가라는 것은 후방부대가 지불할 것이라는 현물차용증 종이쪽지 한장 뿐이었는데 실지로 후방부대로부터 그 댓가를 받은 사람이란 단 한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北韓에서 80만과 南韓의 의용군 40만을 전쟁에 동원하였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약탈한 것으로써 하루에 보리쌀과 잡곡으로된 주먹밥 한 덩어리뿐이었으니 그들의 사기(士氣)란 죽음과 굶주림을 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6. 다음은 주택(住宅)의 몰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북괴집단의 수도(首都)를 서울로 옮길 때 그들의 간부당원이 점유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단방법이 참으로 걸작이어서 처음에는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들에게 "이제는 통일이 되었으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곧 그들이 이른바 전출(轉出)이었다. 이리하여 순진하게도 막상 떠난 사람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정반대(正反對) 방향으로 가라고 해 놓고는 뒤따라가 도중에서 적당히 총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가족 중에 청년이 있으면 의용군으로 몰아갔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인민재판장에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처음에는 우선 주택과 가재(家財)를 몰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반동분자라는 딱인이 찍힌 자의 주택을 무조건 몰수하고 축출하는 것이었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날강도

이상의 비인간적 행위라고 하겠다.

7. 북괴가 침략지구에서 저지른 죄악 가운데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천인공노한 것은 무고한 양민에게 가하여진 학살행위였다. 그들이 이른바 반동분자라고 지목할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군경, 청년단체원, 교수, 지식인, 문화인, 지주, 재벌 등은 일제(日帝) 시대까지 소급하여 따지게 되었고 인민재판이라고하는 악랄한 술법으로 도처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애국자와 지성인등 죄없는 양민들을 학살하였던 것이다.

9월 하순 북괴군이 패주(敗走)할 때에 그들의 이러한 잔인성과 야만성은 여지없이 발휘되어 체포 또는 감금하였던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동시에 저명한 인사들을 北으로 납치하여 갔다. 이리하여 3개월 동안에 걸친 피살자가 모두 165,000명이나 되며, 납치자가 123,000명에 달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대충 말한 바 일곱까지 조항(條項)을 살펴 볼 때 우리는 공산주의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래도 실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소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은 모두 설마라고 할 것이다. 그들의 허울좋은 선전과 같이 공산주의란 근로 인민대중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끝내는 폭력과 무자비한 탄압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들 스스로가 적색(赤色)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악랄한 사상적본질(思想的本質)을 여실(如實)히 폭로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선량한 민중은 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제까지의 회색적인 분자들까지도 그들의 비인간(非人間)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국민들의 반공에 대한 적개심은 요원의 불길과 같이 일어 나게 되어 지금까지도 꺼질줄 모르고 타 오르고 있으니 그 원흉(元兇)의 무리들이 신의 책벌(責罰)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찌 그들과 공존(共存) 할 수 있으며 단일민족(單一民族)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넘어갈 수 있으랴.

이상으로써 북괴측에 관한 개요를 일별하였던 바 다음에는 아군측에 관하여 대충 살펴 보고자 한다.

8월 초에 韓, 美양군은 洛東江을 연하는 반구형선상(半矩形線上)에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지연작전상의 추이(推移)와 천연적인 하천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美國 지상군이 참전 당시 美 극동군사령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작전구상은 북괴군의 남진을 저지시키고자 美 제24사단으로 하여금 西부 주공(主攻) 방면의 적을 반격케 하는 동시에 제1기병사단을 仁川에 상륙시켜 적을 포위섬멸하려고 하였다. 그

러나 7월 20일 大田의 실함(失陷)과 더불어 적의 전력을 재평가 하게된 맥아더사령관은 당초의 구상을 변경하여 日本에 주둔하고 있는 나머지 2개사단(제25 및 제7사단)을 투입하여 洛東江선에서 우선 적의 침공을 막아내게 한 다음 곧 이어서 큰 규모의 공세이전(攻勢移轉)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韓. 美양군이 시간을 절약(節約)하기 위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美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우리 韓國軍은 전선의 中部 이동(以東)지구를 담당하여 고수(固守)에 가까운 지연작전을 계속하였지만 개전 이래의 타격과 아울러 방어정면이 넓고 종심이 없어서 최장거리 50 km에 달하는 철수를 감수(甘受)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美 제8군의 洛東江 西部방면은 적의 2차에 걸친 방어선 돌파를 끝내 격퇴시킴으로써 본래의 전선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9월 초의 공세때에 倭館—多富洞선에서 3~10 km의 전선을 뒤로 물러서게 하여 大邱 방어정면을 재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洛東江의 내선(內線) 방어지대에서 피아(彼我)간의 혈전이 거듭되고 있을 무렵 전선에 대한 병력의 긴급보충을 위하여 지원병들을 수용하고 단기훈련을 시키는 즉시 제1선에 참가시켰고 병역법에 의한 제2국민병의 등록을 서둘러 국가총동원태세를 더욱 확립하게 되었다.

한편 재일교포중에서도 조국의 위기를 구원(救援)코자 청년학도 의용군이 수차에 걸쳐 참전하게 되었으나 그 수효는 720명에 불과하였다.

美軍 역시 제24, 제25사단 및 제1기병사단 이외에도 美 본토에서 제2사단과 제1해병여단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과 6개 전차대대가 증강되었고 英國軍 여단이 韓國에 도착함으로써 병력과 장비면에서 북괴군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美·英 및 濠洲의 UN 공군기들은 연일 각 전선 및 적지 후방의 보급로, 물자집적소, 차량, 군사기지등에 전략폭격을 하였고 UN 해군함대와 韓國 해군은 東海, 西海 양쪽바다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면서 은밀히 활동하는 적의 소형선박을 포착 격침함으로써 적의 해상활동을 거의 봉쇄하여 버렸다.

8월 초에 美 제8군사령부에서는 적의 주공(主攻)이 大邱 北方에 지향되고 있음을 판단하였으나 새로운 증원부대(제7, 제9, 제10사단)가 어느 방향으로 증원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8군에서는 大邱北方의 압력을 감소

시키고자 馬山정면에서 개전이래 최초로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이 8월 7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감행된 끝에 목표의 80%를 달성한 다음 다시 철수하였다.

이러한 아군의 반격작전에도 불구하고 大邱방면에 대한 적의 압력은 여전하였으므로 8월 16일 倭舘 西측방의 적 집결지에 대하여 B-29폭격기 98대로써 융단폭격을 감행하였으나 그 폭격의 효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도리어 적의 박격포탄이 大邱시내에까지 떨어지게 되자 8월 18일에는 정부기관을 釜山으로 옮기게 되었다.

적의 9월초 공세에 직면한 아군은 9월 5일에 국방부를 비롯하여 美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모두 釜山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때에 공군본부만은 그대로 大邱에 머물러 있었고 해군본부는 鎭海에 있다가 釜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전황은 적이 蠶山에까지 침습(侵襲)하였으며 美 제1기병사단은 倭舘-多富洞선에서 최장거리 10km를 대번에 후퇴하였는가하면 아군지역에서도 永川과 安康 및 浦項이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등 가장 위기(危機)에 당면하게 된 때 이었다. 이러한 불리한 전황(戰況)에도 끝내 굴(屈)하지 않던 韓, 美양군은 최후의 총역량을 집중 발휘하여 치열한 저지작전과 반격전을 감행한 끝에 浦項을 제외한 지역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적의 최후발악적인 공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적은 그 공세의 종말단(終末端)에서 방황(彷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시기에 UN 공군기들은 평균 1일 연 600회에 걸쳐서 출격하여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적의 후방목표를 강타하였다. 우리의 해군과 UN해군함대도 전략상 요충점(要衝點)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섬(德積島, 永興島, 伊作島)들을 모두 장악하였다.

9월 15일 드디어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어서 28일의 首都 서울탈환으로 전세는 크게 역전되어 마침내 北으로의 총반격전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피아 양군의 무기와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8~9월의 공방전을 통하여 양쪽이 모두 美國과 蘇聯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였던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였는데 아군측에서는 새로 개발하여 7월말에 보급된 3.5인치 로케트포가 蘇聯製 T-34중형(中型)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美 공군의 Z전폭기인 F-80기가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여 거의 독무대를 이루면서 활약하였으나 적측에서는 새로운 장비의 출현은 기간중에 볼 수 없었다.

다음에는 국내의 정치동향에 관한 것으로서 9월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시동원체제 밑에

모든 시책을 강화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더욱 힘을 쓰게 되었다. 특히 기간중에 자진하여 사표를 내게 된 白性郁 내무부장관의 후임으로 美 군정 당시 경무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趙炳玉을 기용하게 되었고 또한 공보처장에 金活蘭을 임명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후에 급격히 팽창된 화폐를 통제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로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화폐와의 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9월 16일에는 이미 仁川시청이 정상업무를 시작하였고, 22일에는 육군본부가 大邱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뒤이어 29일에는 서울 中央廳에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首都를 李承晩 대통령에게 반환하는 수복식이 거행되었고 서울 市廳에서 정부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정치무대인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7월 27일 蘇聯의 말리크(Mallick) 대표가 안보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통고하여 왔는데 그들 대표는 1950년 1월에 中國대표의 출석을 거부한 이래 참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UN가맹국의 대부분이 美國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보다도 더 큰 이유는 8월 1일부터 윤번제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면 蘇聯대표가 안보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게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8월 1일에 말리크(Mallick)가 의장이 되었으나 이사회에 상정되었던 그의 제안은 모두 부결되기만 하였다. 그의 제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이사회에서 中國 대표를 추방하자는 것과 中共을 참석시키자는 것이고 또 북괴대표를 초청하자는 것과 蘇聯대표 결석중의 안보결의를 모두 철회하자는 요구등의 생떼만이었다. 그뿐 아니라 말리크(Mallick)는 태연스럽게 주장하기를 이번의 전쟁책임은 "大韓民國이 먼저 北韓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유발된 것이다."라고 터무니없는 모략중상을 되풀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9월 1일에 英國대표가 의장이 되면서부터 회의는 속개되어 결국 南北韓대표 초청문제는 北韓측이 주장하는 蘇聯대표 초청안을 부결하고 大韓民國대표만을 회의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韓國을 대표한 張勉 주미대사가 안보이사회에 출석하여 북괴의 침략진상과 蘇聯측의 배후조정 및 공산측의 침략정책을 낱낱이 폭로하는 동시에 UN의 최대한의 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에서는 9월 13일에 UN韓國수석대표에 林炳稷 외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대표에 金東成, 張澤相, 任永信 등이 뉴욕(New York)에서 개최되는 제 5차 국제연합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들 대표단은 美國 도착 즉시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을 위시하여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 합동참모회의의장 부래드리(Omar Nelson Bradley)원수, UN 美國대사 오스틴(Austin) 등의 요인들과 만나 韓國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韓國의 입장을 천명하는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에 들어서자 韓國사태의 화평교섭(和平交涉)의 실질적인 해결에 대하여 전세(戰勢)와 더불어 9월의 UN 총회에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으로 떠돌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8월 30일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38°선 돌파문제와 中共軍 개입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곧 트루만(Truman)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 : 美國은 韓國사태가 종식되는대로 臺灣海域에서 제 7함대를 철수시키고 臺灣문제는 대일(對日) 강화와 함께 해결할 것이며 다른 군대가 韓國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전면전쟁은 없을 것이다.

둘째 : 美國과 中共관계에 언급하여 中共개입을 경고한다.

세째 : 38°선에 관하여 그 돌파여부는 UN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대체로 이와같은 성명으로 승전(勝戰)의 자신을 피력한 것이며 동시에 종전(終戰)시의 국제적 위기에 대한 외교적인 포석(布石)으로 관측되었다.

북괴 남침후 7월부터 9월까지를 통하여 中共軍의 韓, 滿국경으로의 이동설이 계속 유포되고 있었으나 북괴군의 전세가 유리한 시기에 中共軍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였다. 그간의 관심은 中共의 티벳(Tibet) 침입설을 비롯하여 胡志明 정권과의 밀약에 의한 불령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에 대한 침공설, 버마(Burma)침공, 臺灣침공설 등이 비등(沸騰)하였다. 왜냐하면 中共은 韓國전쟁을 기화(奇貨)로 하여 위와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분규를 도발시킬 소지(素地)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중순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38°선 돌파문제와 관련하여 中共軍이 개입할 것이라는 국제적인 관측이 대두되었고 9월 20일 마샬(George Catlett Marshall) 美 국방장

관도 중공군의 일부가 월경(越境)하여 北韓에 침입하였다고 언명한 바 있었다. 이 당시에 印度의 소식통은 印度가 北京정권과 韓國문제의 평화해결을 교섭 중이라고 전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말 뿐이었지 실상 교섭행위는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9월 29일 UN에서는 38°선 월경의 권한을 UN군총사령관에게 부여하는 8개국 공동제안이 제출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써 피아 양군의 군사면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개황을 더듬어 보았는데 각 장 안에서는 전투상황만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 18 章

洛東江 防禦線의 形成

第 18 章 洛東江防禦線의 形成

要 旨

洛東江 방어선의 형성은 전황의 추이에 따라 작전상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인 洛東江선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그리고 東西 약 80km 南北 약 160km의 구형(矩形)의 중심이 얕은 한 줄기의 전선이기는 하나 북괴군이 남침한 이후 처음으로 韓·美연합군에게 있어 종래의 고립된 점의 전선을 지양하고 상호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연결된 전선이기도 하다.

또 이 방어선이 확보되고 유지되는 동안 각 사단은 장비의 소모와 결원의 보충을 할 수 있었고 韓國軍의 재편성도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하면 韓·美연합군은 차기 작전인 총 반격작전을 전개하기에 앞서 병력·배비를 새로이 하였고 보다 민활한 병참활동을 위하여 기구의 개편·정비를 단행하였으며 전력의 배양원(培養源)인 釜山 교두보 확보도 낙관하게 되었다.

한편 美國의 군비 증강에 따르는 증원부대의 내한과 막대한 양의 군수품 지원은 韓·美연합군의 분전과 함께 仁川 상륙작전을 위시하여 총 반격작전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도 역시 이 방어선내에서 이루어 졌다.

洛東江 방어선의 형성과 확보는 비단 南韓의 넓은 공간을 잠시나마 북괴군에게 점령하게 하였으나 총 반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방어선이었다.

洛東江 방어선이야말로 공산집단의 침략군인 북괴군을 자유 韓國에서 몰아내는데에 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 방어선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어의 참뜻은 반격을 위한 준비라는데 있으며 공격의 참뜻은 이 반격을 분쇄하는데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전훈을 남겨준 공방전의 한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洛東江 방어선이 선정되기에 앞서 만일의 전황을 고려하여 蔚山 東北쪽 17km 지점인 瑞洞里에서 慶尙北道界의 산맥을 지나 密陽 北방의 榆川과 西쪽 武安里의 능선을 따라 馬山 東北東고지를 잇는 90km의 이른바 데이비드슨(Davidson)선이라는 예비진지를 구축하였으나 공세 병력의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신속한 돌파 작전이 곤란하고 또 東北쪽 중앙부를 점유하고 있는 산악지대와 천연장애를 이루고 있는 洛東江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점과 최대의 방어는 최강의 반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전략전술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방어정면이 넓기는 하나 이 洛東江 방어선을 선정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그 형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1. 洛東江防禦線의 形成過程

洛東江 방어선은 대체로 두가지 요인(要因)에 의하여 형성되었는데 그 하나는 전황의 추이이고 다른 하나는 작전상에 영향을미치는 洛東江의 지형이다.

이 두가지 요인의 하나인 전황의 추이를 간추려 보면 북괴군의 불법 남침에 의하여 서울이 함락되고 漢江 저지선의 고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美國은 7월 1일 美 제24사단을 韓國 전선에 파견하였다. 당시 美軍의 작전목적은 南韓에서 북괴군을 격퇴하는데에 있었는데 우선 1개 사단으로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다음 1개사단으로 仁川 또는 群山 등지에 상륙하여 협공을 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처음 韓國전선에 출동한 美지상군은 美 제24사단으로서 이 사단의 임무는 될 수 있는 한 北쪽에서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공세작전에 필요한 기지(基地)를 설정하는 데에 있었으며 그 저지선으로써 平澤과 安城을 잇는 선을 선택하였다. 平澤과 安城을 잇는 선을 최초의 저지선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선은 깊숙히 내륙으로 들어 온 牙山灣에 의하여 南韓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이었기 때문이고 安城川의 장애도 다소 고려하였던 것이다. 또 平澤이 북괴군에게 점령 된다면 全羅南·北道를 거쳐 釜山으로 향하는 접근경로를 북괴군이 이용하게 되며 적의 주공이 전차를 선두로 경부본도(京釜本道)를 따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平澤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도 이 저지선의 확보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平澤에서 三陟에 이르는 전선은 약 200km나 되며 또 安城과 平澤을 잇는 선에는 전술적면에서 볼 때 방어하기 쉬운 지역은 거의 없었다. 이 저지선은 7월 6일에 북괴군에게 돌파되니 車嶺山脈선에서 될 수 있는 한의 시간을 얻어 가지고 다음의 錦江저지선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7월 13일 전 美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 받은 워커(Walker)중장은 錦江과 小白山脈을 잇는 선을 확보하고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 그 간에 공세에 필요한 병력을 집결시키려고 美 제24사단으로 하여금 錦江선을 방어케 하고 美 제25사단은 小白山脈에서 싸우고 있는 韓國軍을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한편 日本에서 韓國으로 이동 준비 중인 美 제1기병사단의 증원을 긴급히 서둘렀다. 그런데 이 錦江과 小白山脈을 잇는 저지선의 전정면은 270km나 되었으며 美 제24사단의 방어정면만 하더라도 50km였다.

7월 14일 북괴군은 檢群里부근의 錦江하류지점에서 기습 도하함으로 公州정면이 돌

파되었고 7월 16일에는 大坪里정면의 美 제24사단에하 제19연대가 북괴군에게 그 후방을 차단(遮斷)당하자 교란(攪亂)상태에 빠져 이 지구에서 철수하므로 중점을 두었던 서울·金山간의 국도정면이 또한 돌파되고 요긴한 錦江저지선은 짧은 3일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북괴군의 급격한 침공으로 말미암아 漢江저지선의 고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 錦江저지선이라도 유지되었더라면 洛東江방어선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서 반격작전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美 제22사단이 북괴군의 주공을 상대로 錦江저지선을 유지하려고 고전하고 있을 때 그 東쪽 지구에서는 서울, 龍仁, 鎭川, 淸州등지에서 북괴군과 격렬한 싸움을 전개한 首都, 제1, 제2사단 및 경찰대가 있었다. 그러나 美軍이 7월 12일 鳥致院에서 철수하게 되고 북괴군의 일부가 左측으로 공격하여 오므로 韓國軍은 淸州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중앙부 정면이며 小白山脈의 두 큰 재인 聞慶의 鳥嶺과 丹陽의 竹嶺에서는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용전하고 있어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으며 동해안에서는 제3사단이 盈德지구를 방어하고 있었다.

7월 16일 북괴군에 의하여 錦江저지선이 돌파되자 美軍은 교통의 중추(中樞)이자 전략상의 요충지(要衝地)인 大田을 사수하려고 하였다. 이 大田은 북괴군의 작전계획에 있어서도 제1단계 작전인 서울 점령에 이어 제2단계 작전의 목표였다.

7월 18일 워커(Walker)중장은 大田을 사수하려는 딘(Dean)소장의 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는데 워커(Walker)중장은 7월 13일 재한 전미군(在韓 全美軍)에 대한 지휘권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으로부터 인수 받아 錦江과 小白山脈을 잇는 선에서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7월 16일 錦江저지선이 무너지고 美 제19연대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소수병력으로 大田을 고수(固守)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 아래 딘(Dean)소장의 계획을 변경하게 하고 다만 18일 浦項에 도착할 美 제1기병사단이 大田부근에 진출 할 수 있을 시기인 20일까지 大田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20일에는 大田이 북괴군에게 점령되고 말았다. 錦江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大田이 적에게 점령된 지금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북괴군을 저지하고 또한 반격태세를 갖추어 반격전을 전개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작전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지형과 적의 병력 및 가능한 한도내의 적의 행동, 그리고 美 제25, 美 제1기병사단, 美 제29연대, 美 본국에서 내한 중인 해병여단 및 제2사단 전차대대의 증원 일정과 韓國軍의

재편성속도, 보급품의 양륙상황, 해·공군의 지원능력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한 연후 7월 17일 방어선을 洛東江과 盈德을 잇는 선으로 결정하고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북괴군의 전진을 小白山脈을 이용하여 저지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美 제8군은 韓國軍과 더불어 永同—咸昌—安東—盈德에 이르는 140km의 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지탱(持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洛東江선까지 철수하여 이 방어선을 고수함과 동시에 반격을 위한 병력을 집결시킬 생각이었다.

여기에 있어 美 제8군은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永同을, 그리고 美 제25사단으로 하여금 尙州정면을 각각 맡아서 방어케 하고 美 제24사단을 金泉, 軍威, 義城지구에 집결시켜 재편성케 하였다. 또 韓國軍의 재편성을 서둘러 당시의 8개 사단을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정비하고 咸昌—醴泉—安東—盈德의 산악지대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로서 7월 27일의 아군의 저지선은 盈德, 永同, 晋州를 잇는 240km에 달하는 반원형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저지선은 예비도 없는 외줄의 점선(點線)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허약한 저지선으로서 북괴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곤란하게 되어 7월 26일 워커(Walker) 중장은 韓國국민의 협력을 얻어 구축 중인 洛東江과 盈德을 잇는 선까지 적과 접전하면서 철수할 준비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사령부를 釜山으로 이동할 의견을 상부에 구신하였으나 7월 27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워커(Walker)중장 및 알몬드(Almond) 참모장 세 사람이 大邱에서 회담을 가진 다음, 현 진지를 고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韓·美연합군에게 불리하여 졌으며 특히 7월 30일 韓·美연합군의 주력이 金泉과 盈德을 잇는 전선에서 적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西쪽 남단 晋州지구가 위태롭게 되었고 釜山의 관문(關門)인 馬山의 방어가 시급(時急)하여 졌다. 만일에 馬山이 북괴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적은 여세를 몰아 釜山으로 쇄도(殺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곧 韓國에 도착할 美 증원부대가 상륙할 항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8장 제2절 "피아의 병력·배비상황" 참조)

이러한 馬山지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8월 1일 美 제8군은 韓·美연합군의 전 병력을 현 전선에서 洛東江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7월 26일에는 철수할 준비명령을 시달하고 뒤이어 29일에는 고수할 것을 지시하고 8월 1일에는 전군의 철수를 명령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워커(Walker)중장은 馬山지구 방어의 성부(成否)가 韓·美연합군의 운명을 결정

짓는 열쇠라고 확신하고 8월 1일 尙州정면을 방어하고 있던 美 제25사단을 馬山지구에 전용(轉用)함으로써 모든 전선을 洛東江선으로 철수시켜야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洛東江방어선이 형성케 되는데 당시의 전황은 불가불 洛東江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보아 온 전황의 추이와 함께 또 하나의 요인은 앞에서 말한대로 洛東江의 지형이다. 38°선 이남의 반격을 위한 방어선을 지형에 따라 선정한다면 北쪽으로부터 臨津江선, 漢江선, 平澤—安城—忠州—三陟선, 車嶺山脈선, 錦江선, 小白山脈선, 洛東江선이 방어에 적합한 선이되고 적이 전차부대와 같은 기동력을 이용하여 공격을 가하여 온다면 서쪽의 회랑(廻廊)을 따라야 하는데 회랑중 두 개는 東쪽과 西쪽의 해안선을 달리고 있는 도로와 철도연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간 루트, 즉 韓國의 중심부를 꿰뚫고 있는 京釜本道이다. 다시말하면 동해안도(東海岸道)와 서울과 釜山을 잇는 중앙도(中央道) 그리고 全羅道로 우회하는 삼로(三路)로서 이 세 경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하천(河川)과 산맥(山脈)이 교차되어 韓·美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적의 진격을 저지 하거나 또는 공격을 방어하기에 작전상 긴요한 선이 되어 있다. 洛東江선 이북의 모든 저지 내지 방어선을 상실한 당시에 있어서는 전황의 추이와 함께 방어에 적합한 지형인 洛東江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洛東江방어선의 중추부분을 이루고 있는 洛東江을 중심으로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을 살펴 보면 세 지구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는 韓國軍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洛東江의 東北部 즉 盈德—洛東里—倭館을 잇는 선인데 이 지구의 지형은 北으로부터 길게 뻗어 내려온 太白山脈의 영향을 받아 洛中部일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산이 우뚝 솟아 있는 산악지대이고 또한 安東부근에서 東東里—倭館을 잇는 西部에는 洛東江이 흐르고 있는데 韓國軍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곳 洛東江남안은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깎아 세운듯한 단애(斷崖) 혹은 매우 급한 경사(傾斜)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 사이에는 중, 소연봉(中, 小連峰)이 이어 있어 적의 도강작전을 저지하는 데에는 천연적인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은 美 지상군이 담당하고 있는 倭館에서 洛東江과 南江의 합류점에 자리 잡고 있는 南旨邑 사이를 흐르는 洛東江본류인데 洛東江은 西部의 小白山脈과 東部의 太白山脈 그리고 中央部를 흐르고 있는 강으로써 嶺南의 대동맥(大動脈)을 이루고 있으며 길이

는 525km로써 鴨綠江 다음가는 韓國 제2의 긴 강이다. 그 발원지는 東北部의 太白山脈이며 영남수원(嶺南水源)을 남김없이 모으면서 ㄴ자형으로 흘러 南旨邑을 교차점으로 南江과 갈라 지면서 하류지역인 金海郡일대에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고 釜山 西部인 南海에 흘러 들어간다. 특히 美 지상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본 줄기의 강 넓이는 400~800m, 물이 흐르는 부분은 200~400m이고 물 깊이는 2m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동서양안(東西兩岸)은 깎아 세운 듯한 산이 많고 언덕이나 평지가 거의 없어 기동력의 이용과 함께 도하가 어려워 방어하기에는 알맞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洛東江과 南江의 합류점에 자리잡고 있는 南旨邑에서 咸安·鎭東里를 거쳐 鎭海灣에 이르는 馬山정면의 환상로(環狀路)인데 鎭東·固城·統營지구 등 방어거점이 南海에 임하고 있음으로 전략상 해상으로부터의 후방지원이 지극히 용이할 것이며 鎭東 北방의 西北山과 固城 北방의 대곡산 그리고 551高地에 이어 統營半島의 519高地 및 천계산, 571高地, 553高地 등은 진지점령상 방어전투에 있어 지극히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洛東江방어선은 東北部의 산악지대와 西部의 洛東江, 그리고 南端의 南江 및 南海 등 천연적 장애물에 둘려 싸여 있는 東西 약 80km, 南北 약 160km의 구형(矩形)을 이루는 방어선이다.

그런데 이 洛東江방어선을 선정하기에 앞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釜山주변에 말하자면 해안의 상륙거점을 크게한 방어선을 확보할 것을 美 제8군에게 지시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여 美 제8군은 공병참모 데이비드슨(Garrison H. Davidson)준장으로 하여금 蔚山 東北方 17km지점인 瑞洞里(慶尙南北道界)에서 도경의 산맥을 지나 密陽 北方의 楡川과 西쪽 武安里의 능선을 따라 馬山의 東北東 고지를 잇는 정면 90km의 선에 예비진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예비진지는 洛東江방어선보다는 정면이 좁고 도경(道境)의 준엄한 산맥을 이용하게 되며 북괴군의 후방을 洛東江 도하점에서 차단하기 쉬운 이로운 점은 있었으나 반격작전에 있어 공세병력의 기동공간(機動空間)이 좁은 탓으로 신속한 돌파작전이 곤란하며 방어선의 중앙부를 점유(占有)하고 있는 해발 700~1,000m이상 되는 雲丹山(△1,240)과 高獻山(△1,033)등 산악지대는 韓·美연합군의 화력발휘를 곤란하게하는 반면에 북괴군의 침투공격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고 한편 延日비행장을 상실하게 되고 천연장애

를 이루고 있는 洛東江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술상의 불리와 大邱, 馬山, 浦項, 永川 등을 포기함으로써 南韓국민과 전투원에게 주는 정략상·심리상의 영향이 크다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나 洛東江방어선은 병력에 비해 방어정면이 넓다는 결함은 있으나 공세병력의 기동이 용이함으로 도처에서 수시로 반격할 수 있고 또 도하능력이 빈약한 북괴군에 대하여 洛東江의 천연장애를 이용할 수 있어 방어에 유리하며 大邱, 馬山, 浦項, 永川 등 주요도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또는 南韓 국민에게 주는 안정감 등 심리적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했다. 한편 전 방어지역에 이르는 환상도로가 비교적 발달되어 기동력을 이용하기 좋고 병참활동이 용이하여 군수지원이 민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상 보아 온 바와 같은 유리한 여러 점을 고려하여 좁으나 반격이 어려운 진지보다는 비록 넓다할지라도 반격이 용이한 진지에다가 하천의 장애를 이용할 수 있는 洛東江선을 방어선으로 선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우기 이 洛東江방어선의 형성과 확보는 仁川상륙작전을 위시한 총 반격작전을 전개하기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韓·美연합군에게 줄 것이라는 점도 고려에 넣을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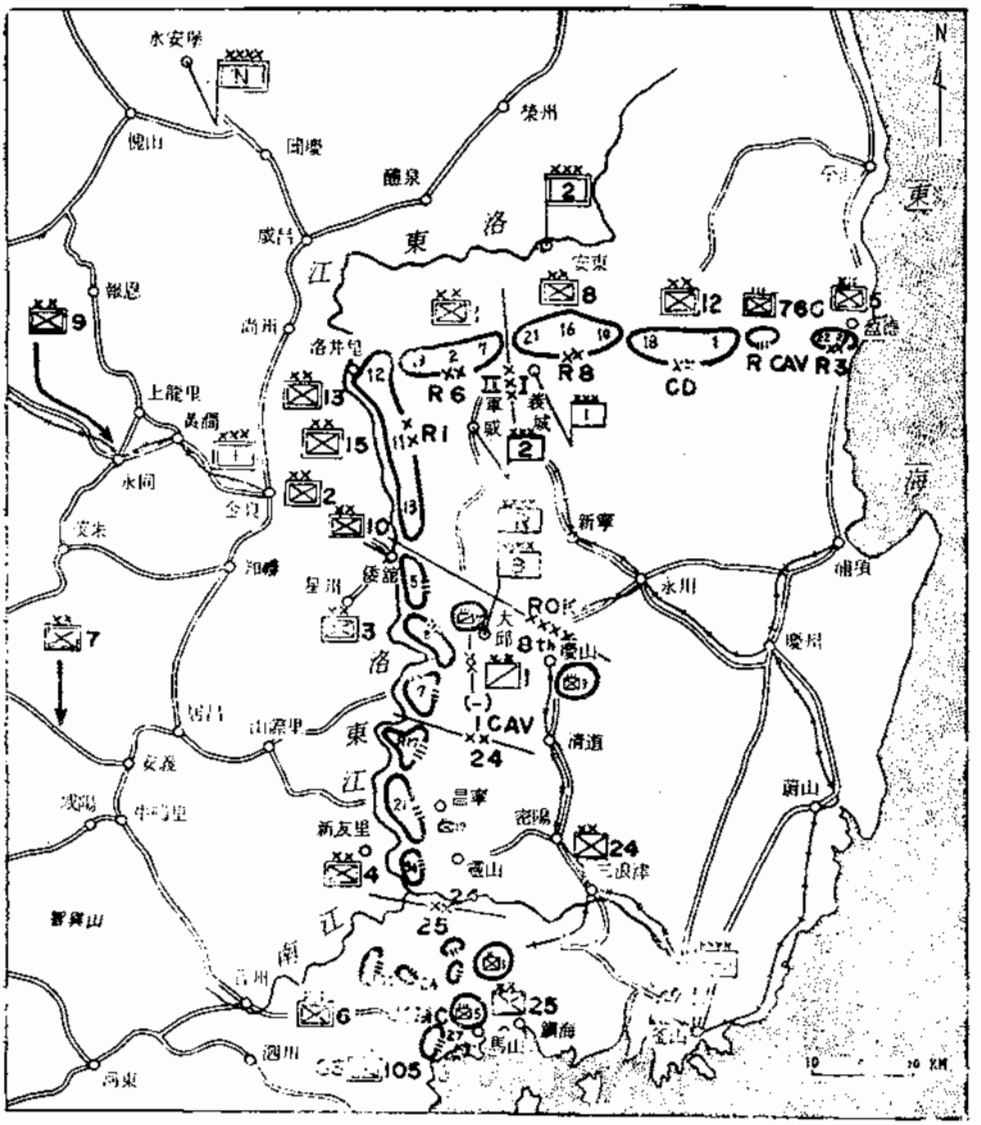
2. 彼我의 兵力·配備狀況 (50년 8월 1일 부터 50년 8월 4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 호
상 황 도 제 1 호

韓·美 연합군이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에 걸쳐 구축한 이른바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었을 때의 피아 지상군과 해 공군의 병력·배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이 방어선의 東쪽 한계선은 盈德에 인접한 東海이고 北쪽 외곽선(外郭線)은 盈德에서 洛東里·倭館에 이르는 선인데 北쪽 외곽선상에는 東海쪽에서 倭館을 향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韓國軍 제3사단, 제1군단예하 首都사단, 제8사단, 제 2 군단예하 제 6 사단, 제 1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西쪽 외곽선은 洛東江하천선으로써 그 남단은 洛東江과 南江이 합류하는 南旨邑이다. 이 西쪽 외곽선상에는 北으로부터 南으로 美 제8군예하 제 1 기병사단, 제24사단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南쪽 한계선은 韓國해협으로써 馬山전방의 咸安에서 鎭東里를 거쳐 鎭海灣에 이르는 외곽선이다. 이 선상에는 美 제 8 군예하 제25사단, 제5연대전투단과 제89전투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韓國軍이 담당하고 있는 東쪽에서부터 말하면 東에서 西로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제3사단의 제22연대와 제23연대 그리고 독립 제1대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단과 두 연대 지휘소는 江口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3사단과 독립 제1대대의 총 병력은 6,469명이었고 방어 정면의 폭은 16 km였으며 盈德·江口 전방이었다. 이 제3사단과 독립 제1대대와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괴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 (제10, 제11, 제12연대, 1개 포병연대)및 제766유격독립연대인데 총 병력은 약 7,500명이었다. 제3사단 왼쪽 인접부대는 首都사단인데 東쪽에서 西쪽으로 제 1 연대, 제18연대의 순이며 首都사단 제17연대는 7월29일 安東지구에서 洛東江지구 權彬里로 이동하였다. 首都사단의 2개 연대 병력은 5,778명이고 방어정면은 青松에서 九尾洞에 이르는 24km였다. 정면의 적은 북괴군 제2군단 예하 제12사단(제30·제31·제32연대, 1개 포병연대)이며 병력은 약 6,000명이다. 首都사단의 왼쪽 인접부대인 제8사단은 東에서 西로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순이며 사단 지휘소는 华頭洞, 제10연대는 松內洞, 제16연대는 군단 예비대로 新基洞, 제 21연대는 倉林洞에 각각 그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사단 병력은 8,154명, 방어정면은 九尾洞에서 上阿洞에 이르는 20km였다. 적은 북괴군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제1·제2·제3연대, 1개포병연대)이며 병력은 약 8,000명이었다.

상황도 제1호 8월 4일 피아 병력·배비 상황



韓國軍 제8사단 왼쪽 인접부대인 제6사단은 東에서 西로 제7연대, 제2연대, 제19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사단 지휘소는 桃源洞에, 제7연대는 雙溪洞에, 제2연대는 울성洞에, 제19연대는 雙溪洞 西南方고지에 각각 지휘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사단병력은 6,570명이고 방어정면은 上丙洞에서 洛井洞에 이르는 26km였다. 적은 북괴군 제2군단 예하 제13사단(제19·제21·제23연대, 1개포병연대)이며 병력은 약 9,000명이었다.

제6사단의 왼쪽 제1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洛東江의 하천선(河川線)을 따라 제12연대, 제11연대, 제15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단지휘소는 上場洞에, 제12연대는 多富洞에, 제11연대는 積林洞에, 제15연대는 台福洞에 각각 지휘소를 두었다. 병력은 7,660명이고 방어정면은 洛井洞에서 倭館에 이르는 42km였다. 이 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괴군 제2군단예하 제15사단(제45·제50·제56연대, 1개포병연대) 및 제13사단 일부병력이었으며 병력은 약 5,500명이었다.

韓國軍 제1사단 왼쪽 인접부대는 美 제1기병사단인데 北에서 南으로 洛東江선에 연하여 제5기병연대, 제8기병연대 그리고 사단 예비대인 제1대대를 제외한 제7기병연대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大邱에 있었고 병력은 약 10,300명이며 방어정면은 倭館에서 玄風에 이르는 35km였다. 이 기병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괴군 제1군단예하 제3사단(제7·제8·제9연대, 1개포병연대)이며 병력은 약 6,000명이다. 美 제1기병사단의 南쪽에 배치된 美 제24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이 사단에 배속된 韓國軍 首都사단예하 제17연대, 美 제21연대, 제34연대 순이었고 8월 4일 馬山에서 재정비한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8월 3일 美 제8군은 美 제25사단과 美 제24사단의 전투지경선(地境線)을 南江 분기점에서 東으로 洛東江선에 따라 선정하고 강 위쪽의 교량과 나루터의 책임은 美 제24사단장에게 부여하였다. 사단사령부는 전투전개가 끝나자 昌寧에서 密陽으로 옮겼고 사단의 병력은 韓國軍 제17연대병력을 포함하여 약 5,000명(韓國軍 병력 1,762명)이었다. 방어정면은 玄風에서 南江과 洛東江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南旨邑에 이르는 40km였다. 이 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괴군 제1군단예하 제4사단(제16제17, 18연대, 1개포병연대)이며 병력은 약 7,000명이었다.

洛東江방어선의 최남단을 담당하고 있는 美 제25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美 제35연대와 제24연대및 제27연대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 사이에 閔부대(閔機植대령이 지휘하는 부대), 吳부대(吳德俊중령이 지휘하는 부대), 해병대, 경찰대 등 韓國軍부대가 있었으며 이밖에 美 제5연대전투단과 제89전투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馬山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단병력과 제5연대전투단의 병력을 합치면 약 17,000명이며 방어정면은 南旨邑에서 鎭東里에 이르는 37km였다. 정면의 적은 북괴군 제1군단예하 제6사단(제13·제14·제15연대, 1개포병연대)과 북괴군 제105기갑사단예하 83차량화연대였으며 총병력 약 3,600명이었다. 피아 사단 이상 사령부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韓國軍에 있어서는 육군본부가 大邱에 있었으나 전방지휘소는 大邱北方 新寧에, 그리고 제1군단 사령부는

義城에, 제2군단사령부는 軍威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는데 美 제8군사령부는 大邱에 있었다. 한편 북괴군의 전선사령부는 水安堡에, 그리고 제1군단 사령부는 金泉에, 제2군단 사령부는 安東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피아 병력·배비상태에 있어 기동반격전(機動反擊戰)을 전개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비대를 보유하는 것이였다. 이 무렵 하와이(Hawaii)와 美 본토에서 증원부대가 韓國으로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7월 31일에는 美 제2사단사령부와 제2사단예하 제9연대가 釜山에 도착한 다음 곧 慶山에 배치되었고 8월 2일에는 美 제1임시해병여단이 도착한 후 역시 곧 馬山 정면에 진출하여 美 제8군의 예비가 되어 昌原에 배치되었다. 8월 5일에는 美 제2사단예하 제23연대가 釜山에 상륙하였으며 美 제8군의 예비로서 密陽에 배치되었다. 8월 7일에는 美 제6전차대대가 도착하여 美 제8군의 예비로 있다가 美 제24사단에 예속되었으며 같은 날 도착한 美 제70전투대대는 처음 美 제8군의 예비로 있다가 8월 12일 美 제1기병사단에 예속되었고 또한 美 제73전투대대는 慶州·大邱北방 전투를 지원하는 한편 병참선을 엄호하기 위하여 美 제8군의 예비로 있었다. 8월 16일에는 美 제2사단예하 제72전투대대가 8월 19일에는 美 제2사단예하 제38연대가 각각 釜山에 도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피아의 병력·배비상황 및 증원부대의 도착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2참조)

<표 1> 피아 지상군 병력·배비상황표

대 치 부 대	방 어 정 면	전 투 력
韓國 육군본부직할 제3사단	盈德, [illegible]정면 16km	제22, 제23연대 및 독립 제1대대 병력 6,469명
적 제Ⅱ군단 제5사단 및 766유격연대		제10, 제11, 제12연대, 1개포병연대 및 766유격연대 병력 약 7,500명
韓國 제Ⅰ군단 首都사단	青松에서 九尾洞 24km	제 1, 제18 연대 병력 5,778
적 제Ⅱ군단 제12사단		제30, 제31, 제32연대, 1개포병연대 병력 약 6,000명

대 치 부 대	방 어 정 면	전 투 력
韓國 제Ⅰ군단 제8사단	九尾洞에서 上阿洞 20km	제10, 제16, 제21연대 병력 8,154명
적 제Ⅰ군단 제8사단		제1, 제2, 제3연대, 1개포병연대 병력 약 8,000명
韓國 제Ⅱ군단 제6사단	上阿洞에서 洛井洞 26km	제2, 제7, 제19연대 병력 6,570명
적 제Ⅱ군단 제13사단		제19, 제21, 제23연대, 1개포병연대 병력 약 9,000명
韓國 제Ⅱ군단 제1사단	洛井洞에서 倭舘 42km	제11, 제12, 제15연대 병력 7,660명
적 제Ⅱ군단 제15사단 및 제13사단 일부		제45, 제50, 제56연대, 1개포병연대및 13사단일부병력 병력 약 5,500명
美 제8군 美 제1기병사단	倭舘에서 玄風 35km	제5, 제7, 제8연대 병력 약 10,300명
적 제Ⅰ군단 제3사단		제7, 제8, 제9연대, 1개포병연대 병력 약 6,000명
美 제8군 제24사단	玄風에서 南旨邑 40km	제19, 제21, 제34연대및 韓國軍 제17연대 병력 약 5,000명(韓軍國 1,762명)
적 제Ⅰ군단 제4사단		제16, 제17, 제18연대, 1개포병연대 병력 약 7,000명
美 제8군 제25사단 및 제5연대전투단	南旨邑에서 鎭東里 37km	제24, 제27, 제35연대 및 제5연대 전투단 병력 약 17,000명
적 제1군단 제6사단및 105기갑사단83차량화연대		제13, 제14, 제15연대 및 105기갑사단 83차량화연대 병력 약 3,600명

<표 2> 美 증원부대 도착 및 운용 상황표

釜山도착	증 원 부 대	출발지및일자	부 대 편 성 상 황	실 지 운 용
7.31	제5연대 전투단	美國 하와이 7. 23	3개대대 완전 편성 제89전차대대 A중대 M-4A-3 전차13대 배속	美 제24사단에 배속되어 馬山 西南부 鎭東里에 전개 그후 美 제25사단에 배속
7.31	제2사단 제9연대	美國 타코마 7.17	3개대대 완전편성 부대로서 105mm 도 1개 대대 배속	大邱東南방 16km 지점의 慶山에서 군예비
8. 3	임시 美 제1해병여단	美國 콩미치산디아고 7.11	여단본부와 제5 해병연대로 편성 전차와 항공기보유	馬山에서 군예비, 8.6咸安線에서 전개
8. 3	제89전차대대 주력	日本 요꼬하마	A중대는 제5연대 전투단에 배속	美 제25사단에 배속
8. 5	제2사단 제23연대	美國 타코마 7.22	3개대대 완전편성	大邱南방 慶山에서 예비로 있다가 8.16 玉凰지구에 전진
8. 7	제6전차대대	美國 샌프란시스코우 7. 23	전차학교의 교도대대로서 M-46 패톤 전차로 장비	韓國 도착후 군 예비, 후에 제24사단에 배속
〃	제70전차대대	〃	보병학교의 교도대대로서 M—4 셔멀 전차 및 M—26 퍼싱 전차로 장비	韓國도착후 군예비, 8월 12일 제1기병사단에 배속
〃	제73전차대대	〃	제1기병사단의 편성대대 M—26퍼싱 전차로 장비	慶州및 大邱북방 전투지원
8.16	제72전차대대		제2사단의 편성대대M—26퍼싱 전차로 장비	
8.19	제2사단 제38연대			密陽경유 8월 24일 사단주력과 합세

피아공군의 병력·배비상황을 보면 韓國 공군은 7월말 비행단과 항공기지사령부를 大邱비행장(K—2)에, 정찰비행대를 義城에 두고 적의 후방 차단 작전과 韓國軍 제1, 제2군단에 대한 정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4일 美 제5공군전방사령부(주美 제5공군)가 大邱로 이동하고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자 비행단을 大邱비행장(K—2)에서 鎭海비행장(K—10)으로, 정찰비행대를 義城에서 新寧으로 각각 이동하였는데 당시 병력은 1,509명이었다. 美 극동공군은 韓國전선에서 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과 제16공군의 일부 병력을 韓國으로 이동시켰다. 7월에 제6002기지대를 大邱에, 제602항공공병대대를 浦項에 각각 이동시켜 비행장 보수공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美 제13공군, 제12전폭대대를 7월 10일 大邱비행장에, 제5공군, 제35전폭대대 제45전투유격대대를 7월 16일 浦項에서 각각 이동시켜 작전을 개시하였다. 美 제5공군은 지상군 근접지원작전과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7월 24일 美 제5공군 전방사령부(駐韓 美 제5공군)를 大邱로 이동하였다. 駐韓 美 제5공군은 전투태세와 부대정비를 위하여 이미 韓國으로 이동한 제6002기지대를 제6002전투비행단으로 임시 개칭하고 제12전폭대대(Dallas 대대)와 제18전폭대대를 배속시켰다. 또한 제35전투요격전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浦項으로 이동한 제6131기지대를 제6131전투비행단으로 임시 개칭하고 제40전투요격대대와 제39전투요격대대를 배속시켰다. 駐韓 美 제5공군의 이와같은 조치로 8월초에는 2개 비행단에 4개 대대가 계속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북괴 공군은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기 이전 美 공군에 의하여 그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제공권(制空權)은 韓·美 공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3. 彼我의 後方狀況

韓·美연합군에게 있어서는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어 북괴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9월의 총반격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워지기 위하여 많은 증원부대의 내한(來韓)과 아울러 막대한 량의 군수물자지원이 필요하였으니 이른바 병참활동의 원활성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북괴군에게 있어서는 전선의 남하에 따라 병참선이 300km나 연장된 데에다가 제해, 제공권을 韓·美연합군에게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해상수송(海上輸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빈약한 육상수송(陸上輸送)마저 주간에는 매우 곤란하게 되니 기동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7월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괴군의 전력은 날이 갈 수록 소멸(消滅)되어갔고, 급내에는 韓·美연합군에게 仁川상륙에 따르는 완전주동권(完全主動權)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북괴군의 남침이 시작된 직후인 7월초에서 부터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된 8월초에 이르는 사이의 피아 후방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韓·美 연 합 군 의 후 방 상 황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韓國軍의 후방상황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大韓民國의 수립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 자주 국방 체제가 갖추어 지기전에 또 국내 군수자원의 결핍으로 후방지원의 대부분을 美國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을 때 北傀軍의 남침을 당하였으며 더우기 일정한 판단과 계획이 결여된 결과로서 빚어진 漢江철교의 폭파로 말미암아 막대한 량의 보급품과 부대장비를 남겨놓은 채 漢江을 분산도하(分散渡河)하여 남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탄약의 결핍과 연료의 고갈, 그리고 보충에 필요한 병기와 장비의 허약(虛弱)과 수송기관의 마비등 병참상 치명적인 악조건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6월 28일 水原비행장에 2대의 수송기가 UN 군지원의 제1착으로 탄약과 통신기재를 싣고 착륙함으로 후방부대의 정리 즉 각급 후방부대의 여러가지 시설의 소개

(疏開)와 병원과 보급소의 이동이 단행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계획성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맥아더 (Mac Arthur) 사령관은 美 극동공군에게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6월 28일에는 119톤의 탄약과 통신기재를 포함한 전량 200톤의 군수물자가 지원되었고 해상수송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 지기 이전의 7월 1일까지 매일 日本 다찌가와(立川)에 있는 美 공군기지에서 C—54 수송기에 의하여 150톤의 탄약등 군수물자가 지원 보급되었다.)

水原을 철수하여 大田, 大邱로 이동하는 기간 중 정비된 상태를 기초로 UN 군에 의하여 재편성 계획이 수립되어 韓國軍의 후방지원 체제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각 기술감실(技術監室)은 군무부대의 새로운 설치에 뒤이어 실무교육에 분주하였으며 후방지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곧 훈련과 교육에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일면교육(一面敎育)에 일면지원(一面支援)이라는 노력을 경주(傾注)하게 되었다. 7월 1일부터는 釜山港에 많은 보급품이 양륙되었고 국군 장병에게 즉각 보급할 수 있도록 집적(集積)되었다.

이 당시의 모든 집적소는 釜山과 大邱지구에 집중되었으며 7월중순부터 7월말까지의 기간중 驛邊보급소가 처음으로 창설되고 탄약보급소가 본격적인 보급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7월 1일 美 육군해상수송단(MSTS) 소속 키트리(Sergeant Keatly)호가 12문의 105mm 곡사포(M2)와 1,636톤의 탄약을 적재하고 日本 요꼬하마(橫濱) 北부두를 떠나 釜山港에 도착하였다. 이로부터 釜山港에는 연일 평균 20척의 선박으로 매일 1,660톤의 물자가 양륙되었고 7월 31일까지에 양륙된 총량은 309,000톤에 이르렀다)

7월말부터 9월중순까지의 반격 준비기간 중에 있어서는 정비된 후방지원제대(後支援梯隊)로 부터 새로운 장비의 보강(補強)과 건설적인 보급활동이 개시되었으며 이로부터 각급 전투부대는 전면공격을 위한 최소한의 전투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기 까지의 병참활동을 비롯하여 보급지원의 실태(實態)는 대략 다음과 같다.

병참상황 6월 25일 서울지구 보급창으로 하여금 龍山驛에 역변보급소(驛邊補給所)를 설치케 하고 일선 부대의 피복과 군량, 그리고 연료등속 모든 보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연 3일간의 후방지원은 육군본부의 후퇴작전과 함께 혼란속에 진행되었으며 더우기 漢江橋폭파로 인하여 자동차중대의 차량 총 대수 48대가 서울에 유기(遺棄)됨으로써 마침내 병참물자의 수송에 큰 지장을 가져 오게 되어 피복지급과 역두취사장설치, 그리고 각 전투부대에 대한 일선까지의 급식유지와 탄약운반등이 곤란하게 되었다. 다만 적기(敵機)의 간단없는 폭격에도 불구하고 永登浦에 있는 서울지구 보급창의 보급물자중 가장 긴급하였던 작업복, 내의, 군화등을 100%에 가깝게

후송하게 된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 한편 仁川보급창에서도 적의 침투에 앞서 모든 보급품의 후송작업을 전개하였으나 화차 운행의 불능과 선박 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없어 일부물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급물자는 남겨놓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7월 5일에 이르러서는 일선 전투사단에 대한 보급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급물자의 소개를 목적으로 서울지구보급창을 金泉에 두고 大田지구창과 더불어 보급의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각 사단병참부의 재 편성을 단행하고 그 진용을 강화하여 부대보급의 유기적이며 강력한 계통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피복에 있어서는 釜山에 육군피복창(陸軍被服廠)을 창설하고 차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생산에 전력을 다 하였으나 병참피복을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전 장비의 70%는 美製 군원물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말(糧粮)은 북괴군의 남침당초에는 군의 각 지구창에 보유하고 있었던 백미의 수량이 220,400가마였고 그 밖에 정맥(精麥)이 22,795가마였으나 철수당시에 그 중66% 즉 143,243가마를 유기(遺棄)하게 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부족량을 새로이 조변한 결과 573,847가마를 입수하게 되어 이로써 50년도의 군 주식용(主食用)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이밖에 취사용석기, 통조림, 건빵, 세탁비누등의 보급지원이 있었으나 유지(油脂) 등속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군사원조에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병기관계에 있어서는 1949년 7월 美軍이 철수할 때 이양받은 소수의 경병기(총포, 차량, 통신 기타 공병기재 등)와 지방에서 획득한 일제 병기물자등으로 장비를 충당할 정도였는데 북괴군의 남침을 당하자 富平병기창고에 보관된 총포(G.M.C. 2대분)를 군직할정비중대(軍直轄整備中隊)에 인계하여 보관토록 하였지만 6월 28일의 漢江橋 폭파로 말미암아 거의 망실케 되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을 때 7월 3일 M—1소총 990정이 大田비행장에 공수로 도착하여 이를 지급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韓國軍이 美軍으로 부터 지원받은 시초였다. 그중 100정을 首都사단에, 나머지 890정은 병기대대에서 인수하여 제1군단을 위시한 각부대에 보급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7월 6일에 있어서는 105mm 곡사포, 57mm대전차포 등 중화기가 제1군단 및 포병단에 지급되었고 7월 10일에는 또 다시 제2차로 M—1소총 590정 및 60mm 박격포 6문이 들어왔다. 대체로 7월 중순까지에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장비는 정비되었고 신설부대의 병기장비도 이에 따라 적절하게 충당케 되었다.

차량에 있어서는 초기 보유량이 1,566대였으며 1개 사단 평균 T/E 377대에 대하여 평

군 196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육군본부 직할부대가 약 1,200대, 창고중대의 재고 차량이 1,600대였다. 그러나 漢江을 도하한 후의 손실은 2,500대나 되었고 水原에서 大田으로 이동하기까지에는 美軍으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군은 자대 자급자족을 위하여 차량의 징발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차량 징발사용은 군의 기동장비를 보충하고 충족하는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었고 정상적인 보급계통에 의한 보급 할당이 아니고서는 군 전반의 기동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임시 조치로서 9월 16일에 일제트럭 도요다(豊田)가 釜山에 있는 제5창고중대에 입수되고 일선지구에 할당되었다. 탄약에 있어서는 철수작전에 따르는 漢江橋 폭파로 인하여 군 탄약의 80%에 가까운 수량이 소모(消耗)도 못하고 방치되었다가 6월 28일 탄약이 水原비행장에 공수됨으로 적기(敵機)의 내습(來襲)을 무릅쓰고 운반작업을 함으로써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大田에 도착하자 탄약 보급업무는 한층 더 분주하여지고 釜山에 입항(入港)한 탄약은 철도편으로 西大田역구내에 집적(集積)하였다. 여기에서부터 기지보급소(基地補給所)가 설치되어 각급 부대의 보급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공병관계에 있어서는 공병기재중 특히 폭파물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더우기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아 E.C.A.원조 또는 美軍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 서울을 철수한 다음 水原비행장에서 대전차지뢰(對戰車地雷, M—7) 96개와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의 양일간에 걸쳐 908개(약 50상자)를 美軍으로 부터 창고중대(倉庫中隊)에 추가보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7월 4일부터 제7사단을 비롯하여 漢江線에 대진(對陣)하고 있는 각 사단공병대와 제1공병단, 육군공병학교등에 300개의 지뢰(地雷)와 11,430개의 폭약, 그리고 500개의 도폭색(導爆索) 기타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육군본부가 大田에 도착한 후부터는 각 사단공병대대에서 사용되는 폭약의 수요는 약간 그 범위를 넓히고 공병의 활약이 다소 정상적으로 됨으로써 모든 공병자재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7월 14일 韓國에 상륙한 美 제24사단의 포진(布陣)이 끝난 다음부터는 韓國軍에 대한 美 군원이 활발히 실시되었다.

통신관계에 있어서는 북괴군이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에는 통신 보급시설이란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통신공창(通信工廠)의 애로는 실로 컸었다. 水原에서의 韓國軍 통신기재 장비는 1개사단이 불과 1개대대의 규정장비(T/E)보다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육군에 있어서는 육군본부가 大田에 이동한 다음부터는 통신공창중대정비공장(通信工廠中隊整備工

場)에서 정비완료한 기재를 보급충당할 수 있었는데 우선 제1군단의 장비가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일부 재고기재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된 시기에 있어서는 美 제520기지창은 釜山에 분창(分廠)을 설치하고 육로(陸路) 및 철도편(鐵道便)으로 많은 보급품을 수송해 오고 있었다. 한편 永同, 安東, 浦項등지에 전방보급소(前方補給所)를 설치하였으며 釜山으로 부터 들어오는 장비보급품은 통신공창(通信工廠) 및 大邱지구관계부대의 추력을 동원하여 장비가 미달한 제1군단 및 시급을 요하는 부대를 우선 순위에 따라 직접 추진 보급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북괴군의 남침을 당한 초기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걸쳐 매우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었으나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지원체계가 정비 되어갔고 보급활동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특히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된 전후에 있어 韓國軍의 특기할 만한 후방활동 중에서 수송관계를 들 수 있다.

수송관계에 있어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7월 16일 大田에서 釜山으로 이동한 철도수송본부(鐵道輸送本部)는 釜山의 4개 부두와 赤崎방면에 양륙되는 물자의 긴급수송을 위하여 철도 종업원들과 모든 힘을 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종래의 군 수송은 美軍관계와 국군관계를 국방부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7월 20일에는 수송의 일원화를 위하여 釜山에 설치된 연합군수송사령부(聯合軍輸送司令部)의 명령에 의하여 수송기구가 정리되었다. 大邱에는 지구수송부(地區輸送部)를 두고 浦項, 慶州, 永川선에 대한 수송을 조정하였으나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고장차량의 수리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고 또 기관차의 견인역량(牽引力量)조차 때로는 고려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휴식도 거의 없이 불철주야로 활동을 계속하여야만 되었다. 釜山기지에서는 하루평균 700량의 차량에 20,000톤의 물자를 수송하여야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하루 평균 60개 열차가 운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釜山—大邱간의 경부간선(京釜幹線)을 하루 평균 30~50개 열차를 배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운행 속에서도 梁山의 吐吞山을 근거지로삼고 출몰하는 적의 유격대에 의하여 院洞驛 같은 곳은 십지어 13여회나 피습을 당하기도 하였다.

東海南部線에 있는 浦項은 항구로서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10여 열차의 편성, 출발을 보는 중요한 시발역이다. 8월초에 和溪지구의 전투로 말미암아 R.T.O. 는 8월 10일에 慶州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수송로가 단축되기에 이르렀다. 적의 유격대는 安東—浦項, 永川—慶

州, 釜山一三浪津, 淸道一大邱間의 聖峴터널(상선2,323m 하선 2,530m)과 각 선의 교량을 파괴하고자 집요하게 공격하여 왔으나 적 유격대의 규모가 미약하였고 또한 우리 경비대의 기민한 반격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특히 聖峴터널은 적 유격대가 가장 중요시한 목표로서 그 파괴임무가 7월 중순에 적 제766유격독립연대에 부여된 주 임무였으나 8월중순 杞溪 北쪽에서 首都사단의 공격을 받고 섬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과감하게 전개된 철도 수송 활동에 대하여 8월 22일 李承晩대통령은 전체 철도종업원들에게 치하의 서한을 내리게 되었고 이보다 앞서 8월 10일에는 美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의 감사장이 있었다.

비단 모든 군수물자의 직접적인 생산보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온갖 능력을 다하여 韓國軍의 병참활동은 꾸준히 수행되었고 따라서 그 성과도 볼만한 것이 많았다. 다음에는 美軍의 병참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북괴의 침공을 당하게 되자 6월 30일에 루이스 에이 한트(Lewis A. Hunt)중령이 군수지원사령부를 편성하기 위하여 선발대와 함께 韓國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다음날인 7월 1일 극동군사령부는 美 제8군에게 주한 전 美軍과 UN 군의 군수지원의 책임을 부여하였으니 이로써 韓國軍의 보급지원 문제도 해결되었다. 7월 4일에는 극동군사령부 창설명령에 의하여 크럼프 가빈(Crump Garvin) 준장이 참모요원을 대동하고 釜山에 도착하여 부산기지사령부(釜山基地司令部)를 편성하였는데 그 뒤에 이 부대는 美 제8군에 의하여 재편성된 결과 7월 13일부로 釜山軍需支援司令部라고 공칭하게 되었다. (釜山軍需支援司令部는 1950년 9월 19일부터 韓國에서 군수지원을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第2軍需司令部였다)

원래 美 제8군은 日本 요꼬하마(橫濱)의 후방지휘소(後方指揮所)에 모든 군수지원의 임무를 부여하여 왔던 것이나 8월 25일 왈터 엘 웨이블(Walter L. Weible)소장 지휘하에 군수사령부(軍需司令部)를 창설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보급물자의 조달과 수송에 있어서 조달은 주로 日本에서 행하여졌지만 日本에 없는 것은 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에서나 또는 美본토에서 직접 지원되었고 수송에 있어서는 공수(空輸)혹은 선박(船舶)에 의한 해상수송(海上輸送)으로 釜山港에 양륙되었다.
이렇게 하여 釜山港에 양륙된 보급물자는 철도 및 차량에 의하여 곧 전선으로 추진보급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전쟁 초기의 보급물자는 그 대부분이 日本에 있던 재고품으로 충당되다 싶이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물품은 대전차지뢰(對戰車地雷)였다. 이는 당시 韓國軍이나 美軍에게 있어 북괴군의 T-34 전차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이로 인한 작전상의 곤란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전차지뢰(對戰車地雷)는 재고량이 가장 부족함으로 7월 6일부터는 日本에서 생산을 개시하여 7월 18일에는 제1차로 3,000개가 해상수송으로 釜山港에 양륙되었다. 또 대부분의 탄약은 日本에 비축되었던 것으로 충당되었으나 조명탄 같은 특수한 것은 따로 제조하게 되었다. 한편 병기에 있어서도 東京 병기창에서는 M4A3 중전차(中戰車)에 장치되어 있는 75mm포를 76mm로 개조하였고 105mm곡사포는 험준한 산봉우리가 많은 韓國의 지형에서 사용이 편리하게끔 앙각(仰角) 67°의 것으로 개량하였으며 37mm포를 싣고 있던 M15A1 반궤도차량(半軌道車輛)도 40mm포로 강화된 것으로 이것을 M19라고 개칭하였다. 이밖에 차량의 수리정비도 행하여 졌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는 월평균 4,000대의 차량이 韓國전선에 보급되었다. 급식에 있어서는 야전용 휴대식량이 필요하였으나 日本에만 약간의 재고가 있었음으로 美 본토에서 C 및 B 레이숀(ration)을 급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장비와 보급품의 조달로 인하여 日本경제계는 이른 바 특수(特殊)붐을 일으켜 부흥하게 되었고 일약 韓國전쟁에 있어서의 병참기지(兵站基地)로 등장하는 기관(奇觀)을 보이게 되였다. (日本에 있어 1950년~53년간의 발주총량은 23~24억$이었는데 이는 그간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 약 20억$를 메울 수가 있었고 한편 韓國전쟁 발발 후 1개년간의 생산 상승율은 46%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산 증가는 거의가 생산재 부문이었고 그결과 오늘날 볼 수 있는 중화공업화의 길이 트이었고 1951년의 철강 제1차 합리화 계획과 1952년의 전원개발 5개년계획에 따르는 대기업의 성행을 보게 되었다)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기 직전인 7월 31일까지 釜山港에 양륙된 장비보급품의 총량은 31만$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량의 보급물자는 해상수송 또는 공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해상수송은 해군이 담당하였는데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國家安全保障法)에 따라 군해상수송단(軍海上輸送團)을 해군성(海軍省)안에 두었고 서태평양지구(西太平洋地區)의 수송단(輸送團=MSTS)은 사령부를 日本 東京에 두었다. 韓國전쟁이 일어나자 초기에는 日本 선박과 日本人 선원으로 조직된 日本 해상통제기관(SCAJ)으로 하여금 韓國전선에 급송할 병력 및 물자의 수송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 기관은 12척의 수송선과 39척의 LST를 가지고 있었다. 그후 7월 10일에 이르러서는 군해상수송단은 수송선 70척을 확보하고 이중

52척을 韓國전선에 할당하니 총 톤수는 74,000톤에 달하였으며 釜山港에는 하루 평균 20척의 선박이 입항하였는데 7월말까지 230척이 입항하였고 214척이 출항하는 성황을 보이게 되었다.

공중수송에 있어서는 군항공수송단(MATS)의 확장과 함께 韓國전쟁 당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6월 25일 현재로 60대의 쌍발수송기는 그후 250대로 증가되었으며 C—75기 및 C—94기는 세개의 공중항로에 의하여 병력 및 긴급을 요하는 35RL(3.5인치 바주카(bazuka)포) 및 신 5인치 성형 로켓트(rocket)탄 등 보급물자를 美 본토에서 日本과 韓國에 수송하였다. 그 중 하나는 워싱턴 타코마(Washington Tacoma)의 미코드(Michord) 공군기지에서 아라스카(Alaska)의 앤코레이지 (Anchorage) 및 아류샨(Aleutian) 열도의 쉐야(Shehya)를 경유 東京까지 5,688마일을 30내지 33시간을 비행하는 항로와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우(San Fransisco)근방의 트레이비스(Travis)공군기지에서 호노루루(Honolulu)·웨이크(Wake)도를 경유 東京으로 6,718마일의 항로를 34시간 비행하는 항로와 그리고 캐리포오니아(California)에서 호노루루 및 존 스턴 크와이레인(John Ston Kwailein) 및 괌(Guam)도를 경유 東京으로 8,000마일 40여시간에 비행하는 항로의 셋이다. 그리고 日本에서 韓國으로 공수되는 항로는 아시야(芦屋)와 이다쯔케(板付)기지및 부레디(Brady)기지에서 출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한 량의 군수물자를 釜山港에 양륙시키고 많은 병력이 상륙할 수 있었다는 것은 美 해·공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무결(完全無缺)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탓이니 해공전략(海空戰略)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많은 군수 물자의 신속한 양륙과 전선에로의 추진보급이 북괴군을 洛東江방어선에서 저지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간과(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북 괴 군 의 후 방 상 황

洛東江방어선이 형성 될 무렵의 북괴군 병참기지는 滿州와 소련의 우라디보스톡(Vladivostok)였으며 전선의 남하에 따라 병참선은 더욱 길어졌다. 그런데 韓國의 교통망(交通網)은 北韓에서 수송되는 물자를 우선 서울을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남하한 북괴군에게 지원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滿洲에서 수송되는 보급품도 平壤을 거쳐 서울을 통과하여야 하였으며 우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淸津港, 元山港에 양륙된 군수품도

일단 서울을 거쳐 전선의 북괴군에게 보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은 북괴군의 병참상의 근거지이며 또한 출발점의 역할도 하였던 것인데 倭舘까지의 거리는 약 300km나 되었다. 당초 북괴군의 수송계획은 해상수송이 었으나 제해권의 상실로 불가불 빈약한 육상교통에 의하여야 되었음으로 수만명의 서울시민을 동원하여 漢江橋를 보수하고 부채꼴로 남하하는 보급로를 의지하여 전선 11개사단에 보급지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美제5공군의 간단없는 수송저지 폭격으로 주간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간신히 야간수송에 의존할 따름이었다. 美제5공군의 저지 폭격을 보면 7월 한달동안에 2,500대가 출격하였으며 서울 이남만 하여도 교량 280개소와 차량 1,435대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군은 이러한 공중저지 작전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수개의 열차와 수백대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최저한의 보급을 행하였으며 상당수의 전차(戰車)와 야포(野砲), 탄약(彈藥)등을 전선사단에 보급 지원하였다. 주간에 있어서는 자동차 열차등은 터널이라든가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놓았고 다리는 파괴된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야간에 이를 수리하고 자동차 열차등을 끄집어 내어 운행하였던 것이다. 美 공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야간폭격을 단행하게 되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간 수송작전마저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한편 8월초에 있어서의 북괴군은 보급지원을 위하여 보급사단(補給師團)인 제36사단을 金泉直指寺(金泉西方 10km)에서 창설하였다. 이 사단의 병력은 1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구성요원은 서울지구를 위시한 각 지방의 공산분자(共產分子)들이었으며 사단장은 북괴군 총좌 李成根(軍官學校1期)이었다. 이 보급사단은 京釜線의 全義—全東사이에 있는 2개의 폐쇄된 터널(길이 약 400m)을 보급창고로 사용하고 서울지방에서 수송된 보급물자를 우선 이곳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야간을 이용하여 많은 동원된 주민을 지휘하여 가면서 전투사단에 리레이식으로 보급하였던 것이니 그 꼴은 마치 어떠한 동물세계(動物世界)를 연상케 하는것이었다. 또 이 사단은 그뒤에 근위사단(近衛師團)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수송(輸送)과 보급(補給)에 골치를 앓았던 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단의 준동(蠢動)과 함께 도로·교량의 수리 및 식량·부상병의 수송등 보급수송에 동원된 주민의 수는 약 30만명이나 되었고 美 공군의 집중 폭격을 받는 위험한 장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북괴군의 강제노동은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 우리 국민들이 맛본 몇 천만배나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북괴군의 전투사단에 대한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기후의 한서(寒暑)와 지형(地形)의 건습(乾濕)여하를 불문하고 약 20kg의 하물을 하루밤 사이에 20~24km나 운반하게끔 강요 당하였던 것이며, 이 강제동원에 의한 수송방법은 하루 평균 400톤의 보급물자를 계속 일선에 보급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였는데 독재하(獨裁下)에 강요된 그들의 폭력적(暴力的)인 정체(正體)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좋은 실례라고 하겠다. 그리고 북괴군 1개사단의 하루 보급소요는 15톤정도였음으로 가벼운 보급품의 보급은 근대전에서 볼 수 없는 원시적 수송방법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차(戰車)등 직접 전투에 사용되는 기동기재, 보병수송용의 군용트럭과 탄약수송 및 무기보충을 위한 군용트럭등은 美 공군의 간단없는 폭격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될 전후시기에 있어서는 기동력의 부족과 수송수단의 두절(杜絶)이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美 공군의 전략폭격에 의하여 平壤조차장(操車場)과 병기창(兵器廠)을 비롯하여 괴뢰집단 제유(製油)능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元山제유소 및 興南합성화학공장, 羅津부두, 城津제철소, 鎭南浦 알미늄공장등 소위 북괴의 군수생산 시설의 중추신경(中樞神經)이 근본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지도록 파괴를 당하였으므로 길게 뻗치고 있던 전선(前線)의 전력(戰力)은 이미 그 한계점에 다달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병력소모에 따르는 보충이 어렵게 되었고 더우기 식량확보가 되지않아 급식부족(給食不足)으로 전투병력의 체력 저하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는 곧 사기저하의 주 원인이 되었다. 원래 북괴군은 구세기(舊世紀)의 전략방식(戰略方式)으로 식량을 침략지구에서 조달하여 보급하겠다는 치졸(稚拙)한 계획 밑에서 이 불의(不意)의 기습적(奇襲的)인 남침을 감행한 것으로 본다.

그 증거(證據)로서 북괴군은 우선 각지에 이른바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라는 것을 조직하고 이로 하여금 식량을 강탈케 하였던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보급로가 길어지고 무기와 탄약수송까지도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한알의 쌀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수탈은 심하여 졌으며 한편 사람의 강제동원(強制動員)도 그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북괴군의 식량 확보 정책에 대하여 침략지구 농민들이 반발을 일으키자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겠으니 식량을 내라."고까지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감언 이설에 대하여 침

략지구 농민들은 북괴군이 갖고 온 땅도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수탈하여 준다고 하니 달갑지가 않았을 뿐더러 북괴군의 약탈행위에 대하여 더욱 염증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모조리 산속이나 땅속깊이 은닉(隱匿)하기도 하였다. 전황의 추이가 불리하여지고 수송이 더욱 곤란하게되자 북괴군은 작전지구에서 현지조달을 하였으나 대부분이 산악지대(山岳地帶)이며 절량농가가 많은 형편이라 쌀의 입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괴군은 하는 수 없이 각 사단의 식량을 3분의 1 정량으로 낮추었는데 이러한 처사는 8월의 무더위에다가 야간행동을 강요 당한 북괴군 장병들에게 있어 극심한 체력의 저하와 함께 전투력을 약화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으니 군의 후방문제(後方問題)가 직접 전방전황(前方戰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히 짐작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되기 전의 북괴군 후방활동을 요약하여 본다면 무기와 탄약의 보충곤란과 식량보급 결핍(缺乏)에 겻들여 병력보충상의 애로(隘路) 그리고 초곡당초에 韓國軍보다도 우세하였던 기동력의 부족등인데 이러한 후방상황은 전투력 저열화(低劣化)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겠다.

4. 防禦線形成期의 美國軍備增强

제2차 세계대전 후 美國은 전시 동원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시 동원 해제 계획을 수립하고 물동원(物動員)의 해제와 인동원(人動員)의 복원계획(復員計劃)을 단행하였다.

이 동원 해제 계획의 실행에 따라 1946년 7월 1일에는 총 병력 420만명선에서 150만명선으로 대폭 감축되었고, 韓國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에 있어서는 육군 596,000명, 해군 379,600명, 공군 408,000명, 해병대 74,500명으로 그 총 병력은 1,458,100명이 되었다. 이것은 다만 징병제와 일반 예비병제에 의한 기간 요원만 확보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 같은 대대적인 병력 감축 조치에 의하여 국방예산의 지출도 억제되어 종전(終戰) 당시 총 군사비 약 900억 $이었던 것이 1946년에는 485억 $로 반감되었고 다시 이듬해인 1947년에는 181억 $로 삭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군의 남침이 시작되자 美國은 즉각 제3차 대전의 유발 가능성도 고려하여 군비동원을 서둘렀다.

美 육군은 전 장병의 반수에 대하여 동원명령을 내렸으며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기동부대를 편성하고 하와이(Hawaii)로 출항할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을 경계태세권 내에 넣었다.

한편 美國 서부육군사령부(西部陸軍司令部)는 3만여명의 지원병으로 하여금 방공태세를 강화케 하고 태평양연안(太平洋沿岸)에는 정찰기와 전투기를 배치하여 대공 경계도 아울러 강화하였다.

트루만(Truman) 美 대통령은 韓國사태를 중시하고 1950년 7월 19일 韓國문제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자유 세계의 공동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원조를 강화하고 美國의 군사력을 증대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북괴의 남침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韓國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력·기재·보급품을 가급적 조속히 맥아더(Mac Arthur)장군 휘하 군대에 보내고,

② 세계사태는 韓國에서 필요한 군사력 증강 이상으로 美國 군대의 규모 및 물질적 보급을 대폭 증가 시키기를 요구하고 있고,

③ 공동방위에서 美國과 협력하고 있는 자유세국을 원조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④ 병력 증대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의 육, 해, 공군 병력이상을 징집하는 것과 美國이 소요되는 병력 증가를 획득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로 선발, 징병하여 사용하기를 국방장관에게 허가하였다.

⑤ 필요로 하는 최대한도로 다수의 주(州) 방위군과 육, 해, 공군 정비병 및 예비역을 현역근무에 소집하여 병원(兵員)증가를 해결 하도록 국방장관에게 허가하고,

⑥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부 의장에게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 더욱 병력증가를 할 수 있도록 병력의 필요수요를 부단히 검토하기를 명령했다.(全文은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간행 「韓國戰亂一年誌」 pp. c93~c96참조)

는 등의 韓國사태에 대한 美國의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이 트루만(Truman)대통령의 특별교서의 내용은 급속히 실천에 옮겨져서 대규모인 동시에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 비상 태세의 편성과 정비를 즉각 단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케 한 것이니 지난날의 眞珠灣사건직전의 그것 보다도 더욱 강화되고 확충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즉 그 첫째 단계는 韓國사태, 그 자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대책이고, 둘째 단계는 소련의 태도 여하로 제3차 대전이 발생할런지도 모르겠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초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총 동원 태세의 확립이다. 첫째 단계의 정책으로 주목되는 조치는 트루만(Truman)대통령의 징집령이며 기타의 조치는 부분적인 산업동원이었다.

첫째단계의 병력동원에 있어 美國은 최대한의 주(州)방위군 및 육·해·공군의 동원을 위하여 예비역의 소집령을 내렸으며 한편 19세부터 25세까지의 975만명에게는 등록을 실시하였고 현 병력을 200만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7월 31일에 트루만(Truman)대통령은 주(州) 방위군 4개사단을 현역에 편입시키는 데에 서명하였으며 韓國사태가 악화되면 별도로 美國의 예비력과 국방군 250만명을 동원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군사비에 있어서도 연간 약 130억 $선까지 삭감되었던 것을 연간 약 350억 $선까지 증액하였으며 1951년 회계년도 추가 군사비 105억8697만600 $을 의회에 추가 요구하였다.

한편 美國정부는 산업 동원 계획도 수립하여 정부 관리하에 있는 3개 합성 고무 공장을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고 민간 선박 회사에게는 7,8월중에 그 소유 선박의 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시달하였다.

또 판 아메리칸, 노오스웨스트(Pan American, North West) 항공회사를 위시하여 기타 민간 항공회사에 병력과 부기·군수품 등의 수송을 하게끔 정부와 계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洛東江방어선이 형성될 시기에 있어 美國은 군비의 증강을 서둘렀으며 이로서 美 증원부대의 신속한 韓國전선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가 釜山港에 양륙되어 다음에 전개되는 총 반격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第 19 章

洛東江 中部方面 作戰

第19章 洛東江 中部方面 作戰

要 旨

이 장(章)에서는 8월간의 洛東江 中部(倭館以東—普賢山) 방면의 피아의 공방전을 다루었다.

大田이 실함(失陷)되던 7월 20일, 북괴의 赤壞방송은 美軍과 韓國軍을 8월 15일 안으로 韓半島에서 축출하고 말 것이라는 요지의 호언장담을 하였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침략야욕을 달성시키고자 적의 최고사령부에서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제4차 작전기간으로 결정하고 8월 15일 안에 釜山을 점령하고자 각 부대에 독전대를 편성하여 조속히 침략전을 종결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中部—東部전선을 담당한 적의 제2군단은 金武亭의 지휘 하에 사령부를 聞慶에 두고 7월말에 洛東江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적의 주공은 제3, 제15, 제13사단으로 金泉과 尙州에서 大邱로 집중하고, 제1, 제8사단은 永川을 거쳐 慶州에, 제12, 제5사단은 浦項을 각각 점령한 다음 釜山으로 진공하는 것이 적 제2군단 작전의 대요(大要)였다.

8월 1일 적의 제12사단은 安東을 점령하고 洛東江선에 진출하게 되자 아군은 계획된 洛東江 방어선으로 철수하여 이 선에서 적을 저지 섬멸하고 공세이전(移轉)을 기도하게 되었다. 적의 제2군단은 아군의 철수에 뒤이어 8월 초에 洛東江 대안에 진출하여 제12 및 제8사단은 8월 4~5일, 제1사단은 8월 6~8일, 제13사단은 8월 4~5일, 제15 및 제3사단은 8월 8~9일간에 각각 洛東江에서 도하를 끝내고 아군 제1및 제2군단의 방어 정면에 총공격을 하여 왔다.

이리하여 적은 8월 13일현재 제12 및 제8사단은 義城선에, 제1사단은 軍威에, 제13사단은 遊鶴山에, 제15 및 제3사단은 倭館 東北쪽 浦南洞, 仁同선에 각각 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의 침공이 늦어지자 金日成은 하는 수 없이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8월 15일에는 여하한 인이 있어도 大邱만을 해방시키라고 金武亭에게 독전과 질책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적 제2군단의 각 사단은 남침 이래 고병의 80%가 손실되어 진공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자 침략지에서 이른바 의용군을 강제로 동원하여 병력보충에 급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 밑에서 주공부대인 제3, 제15, 제13사단은 倭館, 多富洞선에서 아군 제1사단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8월말까지 촌보의 진출을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결령한 고지와 능선에서 아군에게 격파 당하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사단도 형세가 같았으니 즉 제1 및 제8사단도 架山, 烏林山선에서 고전을 하였고, 이른바 中共軍계 출신인 제12사단도 普賢山에 진출하였으나 아군 제8 및 首都사단의 저항에 부닥쳐 막대한 출혈을 강요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金武亭은 倭館, 多富洞의 주공

부대 가운데서 제15사단을 8월 20일경에 永川北쪽으로 전진(轉進)시켜 永川, 慶州, 釜山선으로 주공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9월1일에 시작한 최후의 발악적인 제5차작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기간 중 적은 신장된 보급로 때문에 병력, 보급, 병기, 탄약 등의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주야간에 걸친 美 공군의 후방차단 작전의 성과 때문이라고 본다. 더구나 적은 식량을 현지 약탈의 조달방법을 채택하여 하루에 잡곡으로 만든 주먹밥 한 개가 고작이었으며 매일 각 부대에서 발생하는 수 백명의 부상자는 치료약품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갔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의용군들은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하였고, 美 공군 전폭기의 폭격은 날로 심하여 적진은 네이팜탄의 폭격으로 불바다를 이루어 적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상(沮喪)되어 전의(戰意)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 다만 그들의 주구들만 미친듯이 독전을 강요하여 날뛰고 있었으나 洛東江을 넘을 때의 승리의 희망은 완전히 좌절되고만 것이다.

한편 아군은 8월 1일을 기하여 제2군단의 제1, 제6사단, 제1군단의 제8, 首都사단은 洛東江 방어선으로 계획된 철수작전 끝에 洛東江연안에 방어선을 형성하였으나 방어정면이 광대하여 전선의 연결이 안되고 종심진지를 가질 수가 없었다. 더구나 洛東江은 수심이 도섭에 용이하여 쉽게 도하를 허용하게 되어 아군은 점차 전선을 축소시키면서 지연전을 감행하여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방어전을 수행하였다.

이리하여 8월 12일에는 아군도 마지막으로 Y 방어선을 형성하여 제8사단은 普賢山, 제6사단은 新寧 北쪽, 제1사단은 倭館, 多富洞, 架山선의 산악지대에서 3개사단이 적의 6개사단을 상대로 일진일퇴의 혈투를 감행하여 진지를 고수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아군은 적에 비하여 포병화력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더구나 전차는 한 대도 없는 가운데 새로 보급된 3·5인치 로켓트포와 육탄공격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등 실로 장렬한 싸움을 하여 적의 전차는 사실상 달구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틈틈이 출현한 전차도 美 공군에 의하여 모두 파괴되었던 것이다.

아군도 예비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1사단과 제6사단의 간격에 제8사단의 제10연대, 독립기갑연대, 제7사단의 제5연대를 투입하여 적의 大邱 침투로를 봉쇄하는 등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병력의 보충은 아군도 후방지역에서 수 많은 애국 학생, 청년들이 전열에 가담하여 비록 10여일간의 단기 훈련을 마치고 제1선에 참가하였으나 적구(赤狗)섬멸에 용감하게 싸워 방어선을 고수하였다

작전 기간 중은 비가 간간이 오면서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 산악지대의 방어전투는 아군의 취약점이 많았다. 피아의 전투양상이 적은 야간침투공격이 위주였고 아군은 주간공격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고지와 능선의 쟁탈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는데 근접전투는 수류탄전이었다. 특히 기간 중에 적 제13사단의 포병연대장이 귀순한 것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8월말 현재 적군의 각 사단 병력은 평균 5,000명을 넘지 못하였는데 그 95%가 의용군 출신들이었다.

1. 義城附近戰鬪 (50년 8월 1일부터 50년 8월 1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 호
작명부록 제 1 호

가. 참전 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제 1 군단 장 소장 金 弘 一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成 佳
대령 崔 德 新
(8월 4일 이후)
제10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제16연대 장 중령 金 東 洙
〃 兪 義 濟
(8월 11일 이후)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제 1 대대 장 소령 林 益 淳
〃 대리 대위 蔡 命 新
(8月 8日 이후)
배 속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彬
총병력 8,154명
장 비

공냉식 기관총	21
수냉식 중기관총	23
0.5인치 기관포	20
60mm 박격포	27
2.36인치 로켓트포	201
57mm 대전차포	4
107 밀 유탄포	10
군단포	8

기타 소총 다수

적 군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亨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81연대 장 총좌 李 學 奎
제82연대 장 중좌 吳 勢 勳
제83연대 장 〃 吳 允 燮
포병연대 장 중좌 김 영 항
제12사단 장 소장 최 충 국
제30연대 장 대좌 崔 赫

제31연대 장 대좌 金 [illegible]
포병연대 장 〃 朴 [illegible] 영
총병력 16,000
장 비

기관단총	3,300
경기관총	505
중기관총	340
반전차총	250

고사기관총	25	76 사단포	43
120mm포	28	76 자동포	25
42mm포	75	122mm 곡사포	22
82mm박격포	145	기타 소총 다수	
76 연대포	18		

나. 전투 전의 개황

남하하는 북괴군의 제8사단과 제12사단을 맞아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준비하고 있던 아 제8사단은 1950년 7월 31일 19.00 제1군단 작명에 따라 安東으로부터 洛東江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작전에서 아 제8사단은 야음을 이용, 安東대교를 건너 남쪽 대안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는 동안 首都사단은 이를 엄호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단에서 영문으로 된 작명을 번역하고 이를 복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관계로 군단 작명이 사단을 거쳐 연대까지 전달되었을 때 어느 부대는 명령수령 후 실제의 시간 여유는 불과 한 시간 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 적 교란부대는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安東 시내까지 침투하여 주민의 민심과 아군의 사기를 자극하였고, 따라서 엄호의 임무를 띠고 있는 首都사단(제1연대 및 제1연대 1개대대)이 자체 작전에 바빴고 타부대 엄호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탓으로 제5사단의 철수작전은 혼란과 무질서한 가운데 수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安東대교가 아군 공병대에 의하여 폭파되므로서 미처 대교를 이용, 도하하지 못한 일부 부대는 철교를 따라 洛東江을 건느려 하였으나 이것마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적의 저격으로 말미암아 난관에 봉착하였고 따라서 많은 병사들은 무거운 짐을 땅에 묻고 강을 헤엄쳐 건너야만 되었다.

결국 아군의 安東철수작전은 상황의 긴박성과 철수시간의 부족, 그리고 상호부대간 협조의 결여와 엄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8월 15일까지 大邱를 강탈할 것을 목표로 강압을 계속하고 있던 북괴군은 이 작전에서 점차로 연장된 보급로에 따르는 지원 부진과 이로 인하여 사기의 저하를 가져 오게 되었으며, 반면 아군은 모든 전선을 다시 수습하여 우세한 항공지원 아래 일대 공세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운이 짝트기 시작하였다.

제8사단은 이와 같은 피아전선의 자연적인 추이 속에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거듭된 지연전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洛東江을 건느게 된 아군 제8사단은 즉시로 남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가능한대로 적의 도하를 저지코자 하였으나 사태는 아직도 아군에 불리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적에게 많은 손실을 강요하여야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義城지구의 싸움이 있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 할 것이다.

제8사단이 이곳에서 우세한 적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용전분투한 덕택으로 아군 전선은 비로소 균

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적의 공격 속도를 둔화시킬 수가 있었고 아군이 大邱를 지키는데와 다음의 공세작전을 준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8사단이 13일동안에 걸친 이 싸움의 경과 개요를 날자 순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8월 1일 : 이 날 02.00 군단작명(부록작명 제1호참조)에 따라 洛東江을 건넌 다음 그 남안으로 이동한 제8사단(李成佳 대령)은 지휘소를 安東 南쪽 12km 지점인 雲山에 설치하고 부대를 다시 수습 정비하였다. 이 때 각 연대의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분산된 제16연대는 연대장 金東洙 중령이 부대를 수습하여 CP를 新基洞에 설치한 다음 군단 예비가 되었다.

② 제21연대는 金容培 대령이 지휘하여 그 지휘소를 古下洞에 정하고 그 예하 제1대대를 제10연대의 좌익(左翼)에 연결하여 皆谷洞까지 배치하고 제2, 제3대대를 제1대대 左익과 연결지어 26高地를 연하는 일대에 배치 완료하고 洛東江 남안의 천연적인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③ 제10연대는 高根弘 중령 지휘아래 安東 西南方 5km 지점에 있는 서원리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부대 주력을 북방 1km 지점에 있는 무주부로부터 右측 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적 사단 주력과 대치하였다.

④ 사단 포병 제50포병대대는 鄭寅皖 중령이 지휘하였는데 105mm로 장비하고 月里洞에서 사단 전면을 일반 지원하고 있었다.

⑤ 그밖에 지원으로서는 美 전폭기 편대가 安東지역의 적을 목표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치열한 폭격을 가하였다.

8월 2일 : 이날 安東에 집결하였던 적 제12사단은 다만 도하정찰전을 시도하였을 뿐이고 전선은 평온한 상태이었다.

安東을 점령한 북괴군 제 12사단은 괴수 金日成으로부터 安東사단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醴泉에 침입한 북괴군 제8사단 제83연대는 鹽山을 거쳐 야간에 洛東江을 건너 부대간에 연결이 잘 안된 틈을 타서 침투한 다음 仁令洞 부근에서 사단 좌측방을 위협하게 되자 부대는 중과부적으로 불가불 다음 진지로 이동, 방어진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8월 3일 : 제8사단을 직접 지휘하고 있던 사단장 李成佳 대령은 이날 미명을 기하여 부대를 이동 배치할 것을 명령하고 제21연대(金容培 대령)의 제3대대를 못거리 雲山 左측 지대에, 그리고 제10연대(高根弘 중령) 제2대대를 龜尾洞 右측에 있는 322高地에 이동케 하는 동시에 사단 지휘소를 牛頭洞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10연대 지휘소는 後坪洞에 그리고 제21연대 지휘소는 長林洞에 각각 설치되었고 12.00에 이르러 군단 본부는 義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단 공병대는 지뢰장벽을 구축하여 적의 전차부대를 막아내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받고 곧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8월 4일 : 安東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북괴군은 이날 01.00에 洛東江을 은밀히 도하하기 시작하여 1개연대 병력은 首都사단 제1연대의 뒤를 따라 三巨里쪽으로 진출하였는데 당시 首都사단 제1연대는 義城을 향하여 남하하고 있었다. 05.00 어제 점령하였던 진지로부터 물러나게 된 제21연대 제3대대는 못거리-雲山을 연하는 선을 점령하였으며 제10연대 제3대대는 龜尾洞에서 토산 南방 1km 지점에 있는 고지를 연하는 일대를 점령한 다음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1개대대로 추산되는 적은 제21연대 전방인 한골에 침입하여 08.00에 엄호진지에 있던 아군 제3대대 전면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음으로 여기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仁令洞에 침입한 약 1개대대 병력의 적도 14.00에 못거리에서 아 제3대대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적의 양면공격을 당하게 된 제3대대는 악전고투(惡戰苦鬪)를 면할 수가 없었다. 또한 18.00에 적 1개대대는 아 제10연대 제2대대 정면에 공격을 가하여 왔음으로 아군은 과감히 싸워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이를 마침내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더우기 이날 특기할만한 사실은 지금까지 역경에서 부대를 지휘하여 온 李成佳 대령이 군단참모장으로 전보되고 군단참모장으로 있던 崔德新 대령이 제8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8월 5일 : ① 이날 02.00 적정에 따라 모든 부대는 엄호진지선에서 새로운 주저항선으로 이동하였으니 즉 제10연대는 그 예하 제1대대를 新基에서 노래골을 연하는 능선에 배치하고 제3대대는 제1대대 右익으로 425高地에서 524高地 일대에 배치하였다.

또한 엄호대대인 제2대대도 07.00에 이동하여 松內洞 北방 339高地에 배치하게 되었다.

② 04.00에 적 1개중대는 下外里에서 제1, 제3대대의 제한점으로 침투하려 하였으나 제1 및 제3대대의 과감한 협동작전으로 격퇴되기에 이르렀다.

③ 이날 08.00에 군단에서는 아군 각 부대에 대하여 일체 대공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이 아군의 표식을 역이용하므로서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이로 인하여 적절한 항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작전상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선의 左翼을 담당하여 온 제21연대의 1대대(林益浩 소령)는 326高地(香爐峰)에 위치하고 있었고 제2대대(李源益 소령)는 토곡(吐谷) 일대 능선에, 그리고 제3대대(李昌律 소령)는 그 중간인 323高地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다. 이때 적 1개대대는 10.00경에 못거리에서 제1대대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11.00경에는 일시 동 고지의 일부를 빼앗기는 바 되었으나 곧 재편성한 정예부대로써 반격을 가한 결과 다시 되찾고야 말았다. 그리고 제2대대와 제3대대 지역에서도 16.00경에 적의 공격을 받았으므로 피아간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단은 적의 전면적인 공격을 미리 대비하게 되어 군단 예비로 있던 제16연대(金東洙 중령)를 16.00에 중앙지대인 新基와 細村전선에 전진케 하여 새로운 반격을 위한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8월 6일 : 이미 말한대로 적의 강압을 받으면서 연일 남하, 이동만을 거듭하여 오던 제8사단은 이날 15.00에 美 전폭격기의 지원을 얻게 되어 전면에 걸쳐 총 반격전을 감행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크게 진출할 수가 없어 다만 현 진지를 확보할 따름이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산발적인 교전만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아군의 사기는 전세의 불리에 비하여 그다지 저하되지 않았으니 적은 제공권을 전혀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주요원인 이라고 볼 수 있다.

8월 7일 : ①이날 이른 아침인 02.00에 이르러 적은 제21연대(金容培 대령) 전면에 각종포의 엄호사격 밑에 대대적인 야간공격을 가하여 왔다. 그 결과 제1대대는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지를 사수하는 데에는 우선 성공하였으나 이 싸움에서 제3중대장 李澤根 중위는 부상을 입어 부대 지휘를 朴중위와 교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중대는 적의 심한 공격으로 더 이상 진지를 고수할 수가 없어 하나 하나 다음 진지로 물러나고 있었는데 이를 본 朴중위는 오른 손의 부상을 무릅쓰고 왼손으로 권총을 쏘면서 수 명의 본

부요원과 같이 용감하게 싸워 적을 격퇴시켰다.

② 04.00에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제2대대 전지가 돌파되자 진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제1대대(林益淳소령)도 언쇄적으로 진지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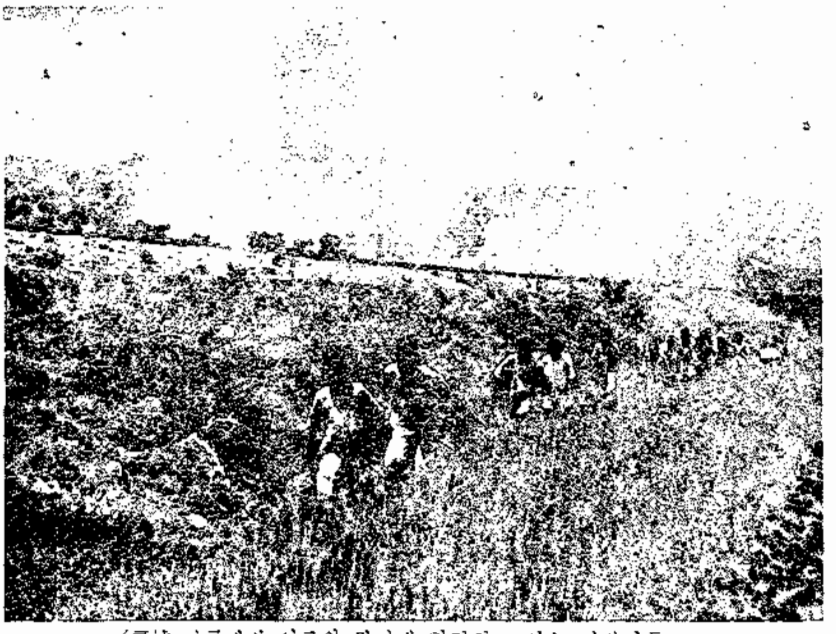
香爐峯에서 이동한 제1대대의 제2중대장 강중위는 대복골 北쪽 고지에서 부대를 이끌고 사주(四周)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 이른 아침의 어둠 속을 적 1개대대가 明진洞으로 이동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중대장 강중위는 즉시 이 적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포위공격을 결행하였으므로 불의의 공격을 받은 적은 황급하게 물러나기 시작하였으며 끝내 적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적을 격파하여 버린 중대장은 즉시 연대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상부에서는 칭찬은 커녕 오히려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대대장 (林益淳 중령)이 직접 생생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비로소 전과를 확인 받았는데 이 때 적의 손실은 7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1개중대가 분전 끝에 이룩한 빛나는 전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제대로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상급지휘관들의 잘못이라고도 하겠으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에 사단장 崔德新 대령은 義城지구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판단되는 香爐峯을 재탈환할 것을 결심하게 되고 제21연대(金容培대령)와 16연대(金東洙중령)에 대하여 전병력으로 香爐峯 탈환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08 00에 제16연대는 細村에서 香爐峯을 공격하였으며, 제21연대는 新基洞서방 약 1km지점에 있는 318高地에서 제16연대의 측방 엄호를 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었다.

③ 한편 제10연대(高根弘중령) 제1대대는 05.00시에 安東과 義城간의 도로를 따라 남하 중이던 적 1개대대의 공격을 받고 싸우게 되었으나 적의 강압으로 이 대대는 260高地를 물러나게 되고 곧 그 뒷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④ 제10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즉시 339高地에서 방어중인 제2대대로 하여금 09.00에 260高地를 향하여 역습을 단행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이날 07.00에 노래골 전방에는 적의 전차 4대와 차량 수대가 남하하여 왔음으로 이에 대하여 사단 공병 1개중대는 곧 노래골 도로상에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를 매설한 다음 제16연대와 협동하여 이 적을 몰아치기로 작정하였다.

10.00 제10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후방으로 일단 이동하였다가 다시 노래골을 향하



〈義城 지구에서 아군의 작전에 협력하고 있는 지방민들〉

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⑤ 10.50에 제10연대(高根弘 중령)는 그의 지휘소를 後坪洞에서 銀香洞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수습하는 동시에 전력을 강화하였다.

⑥ 07.00에 연대 지휘소를 長林洞에서 牛耳洞 서북방 1km 지점에 있는 方下洞에 옮긴 제21연대(金容培 대령)는 제2대대가 배치된 323高地와 제3대대가 배치된 沙器洞에서 각각 적 대대병력의 공격을 받아 분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8월 8일 : 이 당시 피아작전상으로 보아 공방(攻防)어느쪽을 위하여서도 절대로 확보할 가치가 있는 香積峯을 기필로 다시 탈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제16연대(중령 金東洙)는 이날 01.30에 제21연대의 제1대대(林益淳중령)를 새로이 배속받아 03.30을 기하여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군의 치열한 포사격에도 불구하고 적도 또한 계속적으로 포병 사격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아군의 공격제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군 포진지에까지 적탄이 집중하여 공격부대의 진출이 여의치 않았고 끝내는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하였으나 전세는 아군에게 불리하여 각 부대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싸움은 극히 치열하여 제21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중령과 부부대장 許源五대위는

부상을 입었고 蔡命新대위가 대대장을 대리하여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8월 9일 : 이와 같은 격전에도 불구하고 정세는 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 가운데 9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 01.00에 사단 지휘소를 일단 牛頭洞에서 鐵波洞으로 이동하였으나 적의 점진적인 남하로써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다시 義城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한편 제16연대를 지원 중이던 공병중대는 후퇴하는 도중 新基洞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부대는 하는 수 없이 분산된 채로 개별 행동으로 義城을 목표로 다시 집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8사단의 전병력은 제2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즉 제21연대(金容培 대령)는 槐山洞 고지대로 이동한 다음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제10연대(高根弘 중령)는 牛頭洞 좌우 지대로, 그리고 제16연대(金東洙 중령)를 右일선 담당부대로서 358高地 및 그右측으로 각각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날 14.00에 제8사단은 首都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새로이 배속된 제18연대를 제10연대와 제21연대 중간에 배치한 결과 제2선을 보다 강화 하게 되었다.

8월 10일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군은 탄력성있는 작전배치를 완료한 다음 이날 모든 부대는 01.00를 기하여 제2선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화력의 집중발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 하였다. 이로서 제2선에 배치된 각부대는 군단작명에 의하여 18.00부터 현전선에서 일대 반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제21연대는 鷹峰山(△386)을 목표로하여 槐山洞을 출발하고 제18연대는 香爐峯방면으로 그리고 제10연대는 新基와 銀香을 목표로 하여 진격하였으며 또한 제16연대는 銀香洞과 松里洞을 향해 각각 반격전을 감행키로 된 것이다.

8월 11일 : 전날부터 시작된 반격전은 각 연대마다 모두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제21연대는 이날 09.00에 제3대대를 주공으로 제1대대를 조공으로 하여 285高地를 공격한 결과 이를 무난히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제18연대는 05.00에 제1대대를 주공으로 제3대대를 조공으로 하여 長林洞을 공격한 결과 역시 이를 완전히 탈환하고 말았으며 계속 진격하여 16.00에는 323高地까지 진출하였으니 부대의 사기가 그야말로 충천하는듯 하였다.

이 무렵 제21연대도 鷹峰山에 육박하였고 제10연대도 역시 17.00경에 新基洞과 銀香洞까지 진출하였으니 마치 서로 경쟁하는 용호(龍虎)의 일군(一群)과도 같았다. 여기에 내어찌 뒤질소냐는듯이 제16연대는 이날 17.00경에 安靜洞과 395高地까지 진출하여 각부

대는 서로 선두를 다투는 격으로 계속 진격만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중요한 변동사항으로는 倉林洞까지 진출하였던 제18연대가 19.00에 군단 명령에 따라 그 원소속인 首都사단으로 복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제18연대가 담당하였던 지역을 분할하여 인수하였으며 제16연대장 金東洙 중령은 기갑연대 부연대장으로 나가게 되었으므로 그 후임으로는 같은 연대의 제1대대장 兪義濬중령이 부임하였다.

8월 12일 : 이날 01.00에 제10연대의 제3대대는 대대정면인 新基전방으로 이동하는 적 전차 3대를 발견하는 즉시로 57mm 대전차포로 집중사격을 퍼 부었으나 끝내 이를 격파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제16연대(兪義濬중령)는 04.00 松內洞에 출현한 적 1개중대의 병력과 교전 중이었고 03.00경에 제21연대의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鷹峰山頂에서 대대장 진두지휘 하에 육박공격을 감행한 끝에 이를 점령하고 계속 1km전방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제21연대의 제1대대(蔡命新대위)는 285高地를 출발하여 沙器洞 북쪽 366高地를 공격하였고 제2대대(李源益소령)는 302高地에서 323高地로 향하여 전진 중이었다. 이와 같이 활기를 띠고 계속 진격하자 여기에 굴하지 않으려고 최후발악을 하던 적은 366高地 및 323高地에서 각각 1개 대대병력으로 남진할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8월 13일 : 아군이 적의 약점을 노려서 일기아성(一氣呵成)으로 적의 진지를 점령하면 적은 또다시 반격할 허점을 엿보는등 그야말로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상황 속에서 적은 이날 02.30에 2개대대의 병력을 모아 본격적인 공격을 다시 꾀하여 왔기 때문에 제21연대는 사력을 다하여서 싸웠지만 일시 그들의 전진을 막아낼 수는 있었으나 진지를 더 이상 고수할 수가 없게 되어 후방으로 진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제10연대 정면에서도 적의 전차 3대를 선두로 한 약 1개연대의 병력이 공격하여 왔고 제61연대 정면에서도 역시 松內洞에서 적 2개대대의 병력이 우세한 힘으로 일제히 공격하여 왔기 때문에 각 연대는 이를 극력 저지 하려고 힘썼으나 중과부적과 장비의 열세로 끝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05.00에 전세는 아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義城에는 이미 적의 포 화력이 집중발휘 되었고 또한 각 연대와의 통신마저 두절되기에 이르러 전반적인 상황을 적시 적절히 판단할 수 없게 되자 사단장은 새로운 부대정리를 위하여 06.00에 義城 東南方 九山동을 경유 伐田으로 부대를 옮겨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급변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아군 제8사단 공병들은 교량과 도로를 따라 적 8사단 기갑부대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한 지뢰매설을 철저히 실시하였는데 적 공격 제대의 전투

에서 도로를 따라 남하 중이던 적 전차부대가 보기 좋게 이 지뢰지대에 걸려 전멸하게되므로 아군의 기동작전에 크게 유리하게 공헌하는 바가 되었다.

즉 아군 제8사단을 추적하던 북괴군 전차 2대가 아군 지뢰에 걸려 파괴되자 그들의 진격로를 막게 되었고 후속하던 3대의 전차와 자주포 1대는 하는 수 없이 전진을 멈추고 도리어 뒤 돌아 도망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마침 출격한 美 공군 F—51전폭기 편대가 이것을 포착하는 즉시 모조리 격파 분쇄 하고 말았던 것이니 그 광경은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통격(痛擊)을 당하게된 적 제8사단은 배속된 전차를 모조리 잃었고 약 1개대대 병력마저 상실하게 됨으로 1주일동안 부대를 재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궁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安東에서 洛東江을 건너 그 南岸에 급편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부터 義城을 철수할 때까지 아군 제3사단은 물밀듯이 침입하여 온 적군을 맞아 싸운 결과 병력의 부족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13일동안이나 지연작전에 힘써서 적의 공세를 막아 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의 높은 콧날을 문질러 놓은 것이고 그 안하무인의 못된 버릇을 고쳐 놓았던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더 이상 우리의 땅덩어리를 그들 침략군에게 짓 밟힐 수 없다는 의분심에서 우러난 결사 투쟁의 발로였던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아군 제8사단은 간혹 首都사단 제18연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타부대의 지원(支援)도 없이 安東—義城간의 주보급로를 중심으로 축차적으로 지연방어진지를 형성하고 방어와 공격을 서로 번갈아 단행하는 작전방식으로 수십차에 걸쳐 이를 반복하여 그들의 예봉(銳鋒)을 분쇄하는데 성공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당시 아군으로서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어 부대를 정돈할 수가 있었으며 적은 8월15일 大邱점령을 호언하여 왔으나 그 호언은 결국 한낱 실 없는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으며 釜山을 점령하려는 야망은 일장의 춘몽이 되어 버린 느낌이 짙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적을 날이 갈수록 초조하게 이끄는 반면 아군에게는 여유있는 작전으로 희망을 안겨 주는 계기를 만들었고 북괴군의 전의를 점차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군 제8사단은 분전 끝에 중과부족으로 부득이 義城지구를 적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쓰라린 경험을 맛 보기는 하였으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므로서 적의 작전지도를 교란하므로써 차기 작전을 피동적으로 소극화시키는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에 기록하는 普賢山지구의 전투 역시 일관된 이러한 아군의 작전방식이겠으나 永川에서 적은 드디어 기진맥진하고 말았으니 이는 오로지 아군 제8사단이 義城지구에서 적 8사단 주력을 막아 싸운 경험과 필승의 신념을 가진 결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교 훈

◇ 긴박한 상황아래서의 작명처리

제8사단의 긴박한 상황아래 洛東江을 건너고 남쪽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작명을 처리하는데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는것은 큰 실수였다. 항상 작명을 그 전달방법과 말단부대에 도달하는 시간등을 고려하고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전 준비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8사단과 같은 경우 작명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못 갖추게 되었다면 행동이전에 있어야 할 사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급선무인 행동직전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작명내용의 요약만이라도 속히 작부대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작명내용을 번역하고 부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탓으로 실제 싸워야 할 부대의 필요한 시간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 강을 건너는데 많은 희생을 초래케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전공자와 전과내용의 부대내 공시의 필요성

8월 7일 제21연대 제1대대장 林益浩 중령에 의한 갈중외의 중대는 남으로 이동하는 적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700여명의 적병에게 인명손실을 준 전과는 이 당시 제8사단에 있어서 제일큰 전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과는 지휘관만이 알고 있는 정도이고 그 전공을 널리 공포하지도 않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는 비단 보다도 저하된 장병의 사기를 고무하고 적의를 북돋아 주어야 할 그때의 정황으로서는 작전보다도 전공자를 높이 세워 그 전공내용을 전부대에 알려 누구나 이와 같은 전공을 세울 수 있다는 본보기를 제시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서 적을 대항하여 싸워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승리를 거둘것이며 싸움을 피하는 자는 적으로 부터 패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었으나 너무나도 상황에 쫓기고 있었던 탓으로 이와 같은 귀중한 사실의 전파을 그대로 묵살하고만 것이 아쉽기만 하다.

§ 참전자의 증언

제8사단 제16연대장 金義濬중령

(1964년11월19일. 대한엠일잡사실. 대·준장)

나는 安東전투가 끝나고 義城에 있었다. 義城에서 부대이동명령을 받았는데 심부름 하는 직원 저서너명을 보내려면 보병으로 부대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首都사단 작전과장 權泰日중위

(1965년 12월9일. 국방대학원. 대령)

義城에서 우리는 CP로 정한 국민학교 교정안까지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져 마치 기습을 받은 기분이었다.

제18연대 3대대 9중대 金相德중위

(1967년 4월17일. 항만사령부. 대령)

우리가 金林洞 방향으로 고지를 공격하니 적 1개중대는 아간에 소티를 내어 철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적이 있던 자리에 가 보니 일부 장비등을 유기한 채 였다. 우리 중대는 연대 좌일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적은 이미 주력부대가 아닌 후위부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제8사단 10연대 2대대 부관 白樂默중위

(1966년 7월7일. 1군사 G—1. 대령)

義城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잘 기억할 수는 없으나 安東과 義城간의 중간 즈음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장과의 무전연락으로 전회들은 다음 진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북괴군은 아군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며 그 관계로 우리는 지형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 중에 통신선을 따라 1시간가량 내려오니 새벽이 되었다. 이때 확인한 것은 그곳에 있어야 할 우리 부대가 다음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이다.

산 밑으로 내려와 어느 민가에 이르니 어떤 중대병력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에 아군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적병들이었다.

우리는 뒤 따르는 적으로 부터 사격을 받으면서 아군진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를 뒤 따르던 적병들은 아군에게 그 정체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어 아군은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

§ 참전자의 약력

李 成 佳

1946. 1. 15 육군중위 임관(군영반)
47. 12. 1 제1여단
48. 11. 25 제6여단
49. 8. 12 제16연대장
49. 7. 15 육군대령 진급
49. 10. 1 태백산전투사령관
49. 11. 29 중부지구 안동전투지휘소 참모장 겸무
50. 5. 5 참모학교 파견
50. 8. 22 육군준장 진급
50. 6. 10 제8사단장
51. 1. 14 안동전방지휘소장
51. 3. 3 제9사단장
51. 4. 27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
51. 9. 1 제7사단장
52. 8. 29 육군소장 진급
52. 12. 5 제2훈련소장
53. 8. 3 美 참모교파견

崔 德 新

1947. 3. 22 육군소령 임관(특별3기)
47. 3. 22 경비대총사령부
48. 12. 15 육군대령 진급
49. 1. 15 제3여단장
49. 6. 30 육군본부
50. 8. 2 제8사단장
50. 8. 27 제11사단장
50. 9. 20 육군준장 진급
50. 9. 12 육군본부 고급부관
51. 7. 15 육군예비사관학교장
51. 10. 23 육군대학 부총장
52. 1. 22 육군보병학교장
52. 8. 15 제1군단 부군단장
53. 1. 25 육군소장 진급
53. 8. 20 UN극동사 파견

高 根 弘

1946. 6. 15 육군소위 임관(육사1기)
46. 6. 15 제5연대 제2중대 소대장
46. 9. 27 제5연대 제2중대장
47. 5. 27 제5연대 제2대대장
48. 5. 24 제11연대
48. 9. 10 제13연대 제1대대장
49. 1. 12 제13연대 부연대장
49. 6. 1 육군중령 진급
50. 3. 15 제8사단 제10연대장대리
50. 8. 26 육군대령 진급
50. 11. 25 실종

兪 載 浦

1946. 12. 14 육군소위임관(육사2기)
49. 6. 11 제16연대 제1대대장
50. 5. 1 육군중령 진급
50. 8. 11 제8사단 제16연대장
50. 10. 20 육군대령 진급

51. 2. 28 제5사단 제27연대장
52. 4. 10 제7사단 제3연대장
53. 7. 10 제3군단 참모부장
53. 7. 10 제1훈련소 참모장

林 益 淳

1946. 9. 13 육군소위 임관(육사2기)
47. 6. 1 제4연대 제2대대작전주임
47. 8. 1 제8연대 중대장
48. 9. 17 제3특단 제3대대장
48. 10. 2 제5연대
49. 9. 1 제5연대 제1대대장
49. 12. 15 제25연대 제1대대장
50. 5. 1 육군중령 진급
50. 9. 21 제1연대 부연대장
50. 12. 11 제19연대장
51. 1. 15 육군대령 진급
52. 6. 15 제6사단 제30연대장
53. 5. 5 首都사단 부사단장

任 忠 植

1946. 6. 15 육군소위 임관(육사1기)
46. 12. 26 제3연대 F중대장
47. 9. 26 제3연대 작전주임
47. 10. 6 제3연대 제3대대장
47. 12. 22 제6연대
48. 10. 16 제6연대 부연대장
49. 3. 25 제12연대장
49. 9. 20 대백전투사령부 참모장
49. 11. 13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장
50. 8. 26 육군대령 진급
51. 2. 5 제3사단 제18연대장
51. 4. 27 제7사단 부사단장
51. 6. 30 제2사단 부사단장
52. 9. 1 육군준장 진급
52. 9. 5 제7사단장
53. 8. 19 헌병사령관

2. 普賢山附近戰鬪 (50년 8월 13일부터 50년 9월 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 호
상 황 도 제 2 호
부록작명 제2~43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 1 군단 장 소장 金 弘 一	제 1 연 대 장 대령 韓 信
제 8 사단 장 대령 崔 德 新	제 17 연 대 장 대령 金 熙 濬
李 成 佳(8월 22일이후)	제 18 연 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10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제 25 연 대 장 중령 俞 海 濟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제 1 유격대대 장 소령 鄭 憲
제 3 대대 장 소령 河 炳 來	제 1 중 대 장 중위 崔 周 鍾
제16연대 장 중령 俞 義 濟	제 2 유격대대 장 중령 金 龍 周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포병제50대대 장 중령 鄭 寅 暁
제 1 대대 장 대위 蔡 命 新(대리)	제7사단5연대 장 대령 崔 昌 彦
제 2 대대 장 소령 李 源 益	제 2 대 대 장 대위 李 昌 範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昌 律	해군육전대 장 중위 鄭 昌 龍
수도사단 장 대령 白 仁 燁	건설공병대대 장 중령 尹 泰 日
기갑연대 장 대령 劉 興 守	
대령 白 南 權(8월 13일이후)	

적 군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 766 부대 장 吳 振 宇
제 2 연 대 장 미 상	내무성부대 장 미 상
제 73 독립연대장 〃	병력 24,000
제 12 사 단 장 미 상	장비
제15사단장 소장 朴 成 哲	45mm 대전차포 39
제 45 연 대 장 미 상	120mm 박격포 20
제 49 연 대 장 미 상	82mm 박격포 40
제50연대장 총좌 李 乙 善	76mm 유단포 30

122mm 곡사포	18	장갑차	3
전차	5	마차	30
마필	70		

나. 전투 전의 개황(별책부도 제 3 호 No. 1 참조)

1) 적 정

普賢山을 중심으로 하는 九山洞—道坪洞—月梅洞—九岩洞—雲北山을 연하는 아군 방어 正面에서 적떨 분산을 당하게 된 적 제766부대의 남은 병력은 아군 경비망을 피하여 普賢山 北方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그들의 병력을 다시 집결시켜 주위 일대를 침범하고 있으면서 아군 후방으로의 침투를 노려 차기 공세를 위한 증원부대의 내도(來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당시 青松방면에 침입하였던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적 제766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青松에서 道坪을 경유 立岩으로 남하하여 왔다.

따라서 普賢山지구에 출몰하고 있던 적 제766부대의 잔여 병력도 立岩으로 남하 집결하고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과 합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8월 7일경 합동된 적은 立岩과 普賢山을 연하는 일대의 부락과 부근高地에 소수 병력을 남겨서 배치하여 놓고 유격전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효과적인 측면공격으로 普賢山 주변에 있는 아군의 방어진지를 돌파코자 하는 것이었다.

2) 제1유격대와 25연대의 전투

8월 7일 : 아군 후방으로 침투하려는 적정에 비추어 8월 6일 普賢山을 포위공격 끝에 적 유격대의 본거지를 점령한 제1유격대장 (鄭震소령)은 이날 上松洞에 있는 제2중대를 道坪洞에 급파하였으나 중대는 적을 포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원위치까지 복귀하고 말았다. 제1유격대대는 당시 육군본부가 동해안과 중부전선과의 사이에 생긴 허약지대를 메꾸기 위하여 편성된 부대로서 그 편성경위는 다음과 같다.

육본작전국장 姜文奉대령이 鄭震소령에게 예비군의 편성을 지시한 데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이 指示를 받은 鄭震소령은 大邱지구의 방위군 지대(支隊) 요원과 일부 학생지원병 200명을 인수한 다음 大邱 북명국민학교에서 이를 편성하였다. 6개 소총중대와 본부중대로 편성된 이 부대는 장비에 있어서는 일제(日製) 99식 소총이었고 소대장 분대장은 호국군 백속장교와 방위군장교 등 120명으로 충원되었던 것이다. 참모겸 중대장요원은 현지 임관한 崔周鍾중위, 朴俊鎬중위, 崔昌倫중위, 등의 요원으로 충원되었는데 이 대대는 大邱에서 편성하고 각개훈련을 마친 다음 新寧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처음으로 소총과 카빙소총을 지급 받고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대대는 8월초 M1소총의 조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普賢山지구에 투입되었으며 그 명칭은 적 유격부대에 대치시킨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것이다.

8월 8일 : 立岩에 침입한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杞溪방면으로 향하는 중간의 무명 고지에 배치되어 그들의 주력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05.00에 적 제12사단 주력부대는 아군과의 접촉없이 道朴洞을 거쳐 계속 立岩으로 남하 중이었다.

立岩에서 합동한 적 제12사단 일부병력과 제766부대 병력 약 1개 연대는 이곳에 지휘소를 설치한 다음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내洞전방 602高地에 배치하고 야포 4문으로 普賢山 南方에 포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아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602高地에서 약 1개중대 병력을 忠孝洞 부근에 있는 428高地를 향하여 남하 중이었다. 때마침 그 부근에 수색활동을 하던 아 해군 육전대(주1)와 제1201건설공병단의 1개소대(주2)가 이 적과 뜻하지 않게 서로 부딪치게 되어 잠시 서로 교전한 다음 아군의 정세를 살피면서 前山洞쪽으로 철수하였다.

普賢山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유격대대는 해군 육전대와 공병대가 忠孝洞 北方 芝洞 부근에서 적과 서로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1개분대의 수색대를 忠孝洞 방면에 파견하였다.

8월 9일 : 이날 10.00시경에 慈川에 있었던 鄭瀗소령은 육군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정통보와 적전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 즉 "항공정찰에 의하면 적 1개 연대병력이 芝洞에서 北方방면으로 남하 중이니 적을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鄭瀗소령은 급히 2개중대를 거느리고 騎龍山 南部를 횡단하여 12.30경 巴見洞에 도착 道路 左右 능선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적의 남하를 대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부대가 아직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더우기 적의 연대 규모 병력을 2개중대로서는 공격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기습의 효과를 노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적은 그가 미리 예측한 대로 13.30경 忠孝洞에서 아군 2개중대가 점령중인 곳을 그대로 통과하여 남하하여 왔다. 이때 적의 남하를 기다려 도로 좌우능선에 매복 대기 중인 그의 부대는 적의 행군대열이 중앙에 이르렀을 때 450명의 소총화력으로 일제히 집중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적은 이러한 불의의 기습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그 후속부대는 忠孝洞방면으로 즉시 퇴각하게 되었고 선두부대는 오히려 반격을 시도하였다가 아군의 협격(挾擊)으로 분산하게 되어 산중으로 잠입, 北쪽을 향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적은 약 2개중대가 섬멸되고 아군은 100정의 小火器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鄭소령은 계속 적을 추격하여 공격한 끝에 忠孝洞에 있는 高地를 점령하였고 16.00에는 제1유격대의 나머지 4개중대도 忠孝洞에 도착하게 되어 유격대는 또 다른 立岩방면 공격을 준비하였다.

(주 1) 해군육전대는 鄭昌龍중위가 지휘하는 제1중대로서 용호대(龍虎隊)로 명명되어 있었다. 이들 용호대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漆溪, 安康전투에 참가하여 육군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부록 제5.17호참조)

(주 2) 慈城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安東과 新寧사이의 보급로 확보와 도로 경비임무를 맡고 있던 尹泰日중령이 지휘하는 제1201건설공병단은 제1군단장 金弘一 소장의 명령으로 普賢山지구에서 보병의 할 수 있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다.

이때 金弘一 소장은 普賢山지구에 침투한 적 유격대를 복멸하기 위해서는 警察隊만으로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와 같은 아군의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 하루 전인 8일에 적정탐색을 위하여 커다란 기대 속에 출동한 바 있었던 수색 1개분대는 仁邱洞 北方의 촌락에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숨에 취해 있었음으로 적정을 조기에 판단할수 없게 된 일이 있었으나 이들은 전투 후 군령을 어긴 죄로 공개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확립되지 않았던 군율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8월 10일 : 한편 仁邱洞에 있는 제1유격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大邱에서 새편된 제25연대 제2대대(李門範 대위)는 이날 龍泉洞에 진출하여 이날밤부터 仁邱洞선에서 立岩方面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鄭濩少領의 제1유격대대도 忠孝洞의 무명고지를 출발하여 제25연대의 제2대대 공격에 호응하려고 芝洞쪽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이때 2개대대의 전투지경선은 도로로 구분되어 좌측은 제1유격대대가, 그리고 우측은 제25연대가 담당토록하였는데 그 두 부대의 공격목표는 제1유격대대가 544高地, 제25연대 제2대대가 602高地로 되어 있었다. 이날 18.00에 양대대는 忠孝洞 西北方 능선지대에서 출몰하는 소수의 적을 격퇴하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진출하였는데 적은 아군의 忠孝洞 北方으로의 진출에 따라 약 1개대대 병력을 芝洞 南方 428高地 東南方 능선일대에 배치하도록 하여 아군의 북상을 막아내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었다.

8월 11일 : 이날 제1유격대 및 제25연대 제2대대는 忠孝洞 東西 능선지대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적도 역시 이날 432高地에서 2개중대 증강된 병력으로 제1유격대대 전면으로 공격하여 왔다. 또한 적, 잔여 병력은 제25연대 2대대 공격목표인 602高地를 거쳐 제25연대 제2대대 우측으로 돌아서 雲柱山으로 남하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25연대의 제2대대는 적과 접촉없이 계속 전진하여 602高地를 확보한 다음 雲柱山으로 우회한 적을 추격하면서 杞溪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윽고 제1유격대대는 428高地를 점령한 다음 계속 진출하고 제1중대(崔周鍾중위)는 544高地를 前後 8차에 걸쳐 공격하는 동안 잔여병력이 불과 9명으로 줄어들어 공격이 힘들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전대대 병력을 투입할 것을 결심하고 삼면포위공격을 한 시간여에 걸쳐 감행한 끝에 적을 전멸한 다음 이를 끝내 점령하고야 말았으며 계속 진격하여 751高地와 水石峰의 능선을 확보하는 공을 세웠다.

544高地에서 아군 공격으로 물러나게 된 적은 煙火峯부근으로 분산 도주하였고 이들은 잔여병력과 합세 하골 440高地에서 아군 공격에 대비하려는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8월 12일 : 제1유격대대장 鄭濩소령은 이날 07.00에 440高地 일대의 적진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먼저 항공폭격을 요청하였으나 제때에 실시되지 않음으로 지상에서의 공격을 먼저 시작 하게되어 10.00에는 적과의 근접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때 늦게 출격한 미 전폭기 1개 편대가 네이팜탄등으로 포격을 가하여 피아간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원위치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항공지원만을 하늘같이 믿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 일례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밤 立岩쪽으로 수 많은 차량대열이 라이트를 켜놓은 채 논골 쪽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제1유격대대장은 육군본부로 부터 이미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군의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기갑연대의 일부병력이 青松쪽으로 이동하니 현지에서 제1유격대는 이들과 접촉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鄭소령은 남하하는 차량대열이 우군부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색대를 보낸 결과 그것은 놀랍게도 적의 차량 대열임이 밝혀졌다.

鄭소령은 여기에서 즉시 차량대열이 모두 아군화력권내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일시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이를 모두 격멸시키는 큰 공을 또다시 세웠던 것이다.

8월 13일 : 이날 날이 밝기 전에 전투현장을 확인한 결과 12대의 트럭이 여지없이 파괴되어 있었고 5대의 신품차량과 소련제 기관단총, 마필용 보급품등 두 트럭분이 있었다. 그리고 2문의 포가 파괴되어 있었고 그 부근에는 북괴군 소좌및 대위의 적 시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포로 진술에 의하면 이 차량들은 安東, 杞溪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적 제12사단의 보급차량임이 밝혀 졌다.

이 노획품들은 육군본부지시에 따라 大邱로 후송하였으나 그중 소련제 트럭 2대는 제1유격대의 보급용차량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3) 기갑연대의 싸움과 수도사단의 이동

8월 8일 : 道坪洞에서 立岩에 침입한 적 제12사단 주력은 杞溪로 남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8월 9일 : 제1군단장 金弘一소장은 이날 전황의 위급함을 판단하고 義城에서 재편 중인 기갑연대로 하여금 九山洞에 진출케하여 道坪洞부근의 적정을 수색하도록 命令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갑연대는 義城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九山洞에 진출한 다음 계속 전진하여 道坪洞 부근의 적적성을 수색하였는데 이곳에는 이미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이 배치되어 출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당시 재편 도상에 있던 기갑연대로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적을 공격하고 격퇴시키기가 곤난하다고 판단하게 된 劉興宇대령은 적을 공격하는 것을 일단 중지한 다음 차후에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九山洞으로 부대를 복귀시켜 동 주변에서 사주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8월 10일 : 이날 九山洞에 배치하고 있던 기갑연대는 道坪洞에 있던 적이 立岩으로 이동 남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즉시 연대 지휘소를 明堂洞에 설치하는 동시에 그 예하 제1대대를 道坪洞남방 361高地에서 북방으로 연하는 일대의 능선지대에 배치하여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는 한편 소수 인원으로 편성되었던 제2, 제3대대를 연대 지휘소 부근에 배치하여 사주(四周)경계토록 하여 차기 격공을 대비하게 하였다.

그후 道坪洞에 집결할 수 있었던 江原道 경찰 제3대대는 기갑연대 제1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九山洞으로 이동하여 제2101공병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제24사단 배속으로부터 해제된 제17연대는 군단작명에 따라 이날 九山洞에 진출하여 道坪부근의 아군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杞溪방면의 아군 전세가 위태롭게 되어 즉시 永川를 경유하여 安康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8월 11일 : 道坪洞 서남방 361高地의 능선 위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1대대는 계속 부근에서 적의 남하 공세를 저지하면서 다음 날에 이르기까지 철신 남쪽에서 활약 중인 水石寨의 제1유격대와 같이 작

기전면의 방어선에서 새로이 진지를 강화하여 적 공세에 대비하는 동시에 적후방교란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8월 12일 : 제1군단장은 義城방면에서 아 제8사단 전선이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군단작명으로 수도사단장 白仁燁대령에게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이 거느리는 연대주력을 義城에 집결시켜 다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준비케 하는 동시에 任忠植대령이 지휘하는 제18연대를 제8사단 배속에서 해제하고 道峰洞에 진출하여 동지역을 확보하면서 기갑연대를 지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8사단이 아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지역싸움에 참가한 부대는 제1유격대, 제25연대, 수도사단의 기갑연대, 제17연대(잠시), 제18연대였다.

다. 전투경과와 개요

(1) 8사단의 이동과 제2유격대의 전투(별책부도 제3호 No.2 참조)

8월 13일 : 군단작명 제56호(작명부록 제11호참조)에 따라 이날 15.00에 義城에서 後방으로 사단 지휘소를 옮긴 제8사단장 崔德新대령은 普賢山지구에 있어서의 모든 아군 작전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날 상황은 제1군단 전면에 새로이 적 제5사단이 東海岸에서 진입해 왔고 적 제12사단 주력이 杞溪에 돌입함으로써 아군 제3사단은 長沙洞으로 남하이동하여 전황은 최악의 사태를 빚어내려는 듯한 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이때 安康에 대기하고 있던 제17연대(金熙濬대령)와 어제 義城에서 남하하여 安康으로 이동한 수도사단 제1연대(韓 信대령)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安康에서 반격을 감행하였고 제8사단장은 예하 제10연대(高健弘중령)를 道峰洞 西쪽 山麓洞에, 그리고 제21연대(金容培대령)를 九山洞에, 제16연대(金義濟중령)를 慕溪洞에 각각 배치 함으로써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케 하여 적을 극력 막아내도록 하였다.

또한 이날 증원부대로 金龍周중령이 지휘하는 제2유격대대가 전투에 참가하여 水石峰의 제1유격대대와 서로 협력하여 계속 永川지구로 침투코자 노리고 있던 적에게 선수하고도 적절한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원래 金龍周중령이 지휘하는 제2유격대대는 7월하순에 南原에서 편성되었는데 金중령은 南原郡守의 협조를 얻어 이 지방의 청년들과 학생 그리고 피난민 중에서 자진하여 지원하는 약 1,000명의 장정을 모집하고 晋州여자중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목총으로 기초훈련을 실시한 다음 金海를 거쳐 龜浦국민학교로 이동하는 즉시 유격대대로 잠정 편성되

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기도 없는 이 부대는 사격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였다. 金중령은 釜山에서 以北출신 1개중대 병력을 또 다시 모아 부족되는 인원을 채우고 1개대대를 완전히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金중령은 다음으로 장비를 획득하고자 일부대원을 인솔하여 水川 노획무기창고에 가서 각종 장비를 얻은 결과 비로소 무기조작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과였기 때문에 훈련면에서나 장비면에서 부족한 바가 많았던 이 부대는 재 마침 제1군단 부군단장인 金白一준장의 우연한 부대시찰에서 병사가 받들어 총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받고 전투부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金중령은 부대를 또다시 水川으로 이동시켜 제1군단장 金백一소장을 맞아 실정을 호소하게 되었다.

사병 한 사람의 증원이 아쉬운 긴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金소장은 즉각 그들의 실정을 이해하고 杞溪北方 제25연대가 작전 중인 그 후방에 예비대로 배치할 것을 지시받아 비로소 작전행동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 무렵 제25연대는 적의 야간 기습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내게한 일이 생겼는데 적은 아 제25연대의 진지를 돌파하기 시작하였다.

아군진지를 돌파한 적은 공교롭게도 유격 제2대대 정면인 산밑 계곡진지에서 다시 재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하게 된 金龍周중령은 곧 적에 대한 과감한 공격을 단행키로 하고 전원에게 돌격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모든 화력을 총집중하여 불의의 기습을 감행하자 적은 당황하여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적을 종횡무적으로 쳐 부셔 완전히 격멸하고 많은 노획무기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로서 이 대대는 무장을 증강하게 되었고 또한 사기도 높이 앙양되었던 것이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金龍周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의 전투상보를 보고 丁一權총참모장과 작전국장 姜文奉대령이 이 부대에 와서 부대창설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데 대한 책망을 하기는 하였으나 잘 싸운데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육군본부에 귀환한 작전국장 姜대령은 정식으로 金龍周부대를 제2유격대대라는 부대명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부대전투서열에 다루게 되었다.

金龍周중령은 한국전쟁前에 이미 38유격대(일명 서울유격대)로 襄津지구와 智異山지구 그리고 濟州道지구등에서 공비토벌작전으로 그 용맹을 떨친 바 있다.

한편 이 당시 道坪洞서방 甘露洞에 배치된 제8사단 제10연대(高興弘 중령)는 연대지휘소를 甘露洞에두고 20,00에 제2대대를 道坪洞 북방인 靑松가도에 연한 408高地 및 東西능선 일대에, 제3대대를 靑松 南方 무명고지 및 능선일대에, 제1대대는 예비대로 연대지휘소 부근에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제21연대(金容培대령)도 제2, 제3대대를 九山洞 西北方 일대에 배치하여 義城부근에서 남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적 제8사단에 대비하였다.

慈溪洞에 이동배치되었던 제16연대(兪義濬중령)는 이어 제1대대를 벌발에 있는 사단지휘소 경비에 임하게 하는 한편 제2, 제3대대를 사단지휘소 주변에 분산시켜 침입을 시도하는 적 유격대에 대하여 원거리 수색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제3훈련소장으로 전임되고 丁南權대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2) 立岩점령과 적정탐색(별책부도 제 3호 No.2 참조)

8월 14일 제8사단(崔德新대령)의 지휘통제하에 있던 수도사단의 기갑연대(丁南權대령)와 제18연대(任忠植대령)는 종래의 방어태세에서 전환하여 立岩일대의 적을 격파하고 龍溪에 진출한 적 제12사단을 제1, 제2유격대와 협조하여 南北에서 협공하기 위하여 남하공세를 개시하였다.

기갑연대의 전병력은 474高地에, 제18연대의 제2대대는 361高地에, 그리고 제3대대는 道坪南方 568高地에 각각 이동배치하게 되었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文星洞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모든 공격태세를 갖추게 된 제18연대는 그 공격목표를 立岩 西南方과 東南쪽 능선지대에 두고 이날 날이 밝기 전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이때 道坪洞과 立岩 중간의 무명고지 능선지대에 약 1개중대 이상의 병력으로 저항을 하였으나 아군에 의하여 삽시간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 때에 제18연대 제3연대는 763高地를 무난히 확보하고 右측 제2대대와는 道坪洞에서 立岩으로 통하는 도로를 경계로하고 계속 진출하여 적과 접촉함이 없이 제2목표인 527高地와 제3목표인 483高地, 그리고 제4목표인 545高地를 연달아 점령하게 되었으니 마치 자기 것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는 격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날 18.00경에는 양산리에 진출하여 적정을 수색한 다음 제3대대는 전면에 있는 537高地 능선일대에 대대의 모든 병

력을 배치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361高地에 배치된 제2대대도 道仁洞과 立岩사이의 도로 우측으로 남하하여 717高地와 862高地 및 899高地를 거쳐, 제1유격대가 배치된 水石峰과 751高地 전면으로 돌아 544高地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니 또한 무인지경을 혼자 활보하는 격이 되었다.

여기에서 제18연대는 제1, 제2유격대대와 연결함으로써 立岩의 적에 대하여 우세한 입장에서서 압력을 가하는 바 되었다.

이때에 立岩에는 적 2개중대 병력이 산재하여 대비하고 있었으나 아군 공격에 당황한 적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군을 향해 다만 박격포 사격만을 무질서하게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18연대 제2대대는 화력이 약한 右측면으로 2개중대를 우회시켜 포위 공격하였는데 적은 아군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 杞溪방면으로 분산되어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2대대 및 제3대대는 20.00에 立岩전면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유리한 烽火峰을 점령한 연후에 부근 능선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삼엄한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기가 드높아지게 되자 계속해서 2개 대대는 立岩을 공격하였고, 537高地에 있는 제3대대는 立岩 右측에 그리고 烽火峰에 있는 제2대대는 그 左측에 목표를 두고 공격하여 이날 밤 중에 적 수중에 있던 立岩을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최후까지 아군에게 저항하던 적 제12사단의 일부병력은 겨우 아군 포위망을 뚫고 杞溪방면으로 간신히 남하, 퇴각하였으니 이를테면 악운이 거센 무리들이라고 하겠다.

한편 474高地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기갑연대도 제18연대가 立岩의 적을 격파하고 남진하자 이에 뒤질세라 곧 662高地를 돌파하고 다음 목표인 899高地로 진출하였으나 양부대의 분전 모습은 그야말로 장쾌하였다. 그런데 899高地에는 이외에도 立岩에서 퇴각한 적의 패잔병력과 제766부대의 일부가 합류한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군의 진출을 끝까지 저지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적은 아군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으므로 普賢山부근에서 그리고 또 水石峰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각자 분산되어 물러나고 말았는데 전세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기갑연대는 이를 계속 추격하여 포위 섬멸코자 분기(奮起)하였으나 이미 도망쳐 버린 적의 무리인지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최후목표인 논골의 440高地에

진출하여 곧 진지를 점령하는 동시에 적에 대한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는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비된 바 있음을 믿으라는 원칙을 그대로 지킨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8연대(任忠植대령) 본부와 기갑연대 본부는 그 예비대와 같이 야밤 중에 立岩으로 이동하여 CP를 각각 설치하였다.

한편 440高地에서 기갑연대를 지원하고 있던 제1, 제2유격대대는 杞溪로 향하는 적을 포착하여 鴛鴦洞北方에서 또다시 섬멸하고야 말았으며 동 대대의 수색대대는 적 후방을 습격하여 200여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모든 부대마다 서로 맹호일박(猛虎一搏)의 기세를 자랑하는 듯하였다.

한편 昌松남쪽에 진출하였던 제10연대 제2대대도 이날 14.30에 大前洞에 침입하여 오는 적을 발견하자마자 곧 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昌松방면으로 패주하게 만들었으며 또 이날 23.00에는 409高地에 배치된 제2대대의 1개중대도 564高地에 침입하는 적1개중대이상의 병력을 공격한 결과 격퇴시키고 말았다.

한편 제16연대(金義潛중령)는 제1대대를 사단 지휘소 경비에 계속 임하게 하는 동시에 제2, 제3대대를 九山洞과 道坪洞을 거쳐 18.00에 靈溪洞으로 이동케 한다음 南쪽의 무명고지 일대의 지역을 수색케 하였는데 이미 도망치는 선수가 되어 버린 적의 그림자도 찾을 수는 없었다.

그 뒤에 제8사단은 제16연대의 나머지 1개대대를 사단지휘소 부근으로 이동시켜 차기 공격에 대비시키는 한편 제21연대(金容培대령)의 제1, 제2대대를 九山洞에 집결시켜 다음 작전에 대비케 하였는데 제3대대(金昌律소령)만은 여전히 九山洞부근에서 준동하는 적 유격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3) 적 주력부대의 남하와 주저항선의 구축(별책부도 제 3 호 No.3 참조)

8월 15일 : 立岩을 확보하고 있던 제18연대(任忠植대령)는 이날 04.00에 제3대대를 예비로 하고 제1, 제2대대를 510高地와 440高地를 연하는 능선지대에서 杞溪방면의 적 제12사단에 대하여 공격을 재개하는 동시에 기갑연대(吳南權대령)도 立岩에서 602高地에 진지를 확보하고 靈柱山의 적을 공격하였다.

한편 이때 벌발에서는 제8사단 사령부의 경비에 임하고 있던 제16연대(金義潛중령), 제1대대가 01.20 이 연대 지휘소인 靈溪洞에 진출하여 주력대대와 같이 수색전을 전개하였

다. 제21연대도 이날 미명을 기하여 제3대대를 제외한 제1, 제2대대를 별발으로 이동시켜 차기공격에 대비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道坪洞에서 방어 중인 제10연대(高根弘중령)는 제3대대(河炳來소령)로 大前洞까지 진출시켰으나 증원된 적 1개연대의 반격으로 말미암아 원진지로 다시 철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한편 연대지휘소에 위치하고 있던 제1대대는 文居洞 左右 능선을 점령한 다음 적 유격대의 침입에 대비하는 바 있었다. 당시에 제8사단(崔德新대령)은 지금까지 九山洞과 道坪洞을 잇는 선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杞溪방면과 浦項지구의 아군 전황이 점차로 불리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또한 적 제8사단의 1개연대 병력이 義城에서 九山洞으로 남하하여 오기 때문에 제8사단장(崔德新대령)은 적 공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普賢山을 중심으로 左右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런 까닭으로 이날 14.00경에 사단사령부를 별발에서 慈川으로 이동케하는 동시에 제10연대(高根弘중령)는 甘隱洞에서 日見洞으로 그리고 예비대대도 역시 日見洞으로 각각 이동토록 명령하게 되었다.

한편 제16연대(兪義濬중령)도 雲溪洞에서 제1, 제3대대를 먼저 立岩으로 직행시킨 다음 제2대대는 575高地 측방을 수색하면서 立岩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또한 九山洞의 제21연대(金容培대령)는 제1, 제2대대를 별발으로 이동케 하는 동시에 李昌律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만은 九山洞 東北方 643高地에서 남하하는 적 제8사단 1개연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8월 16일 : 어제 立岩에 도착한 제16연대(兪義濬중령)는 544高地에서 水石峰과 普賢山 북방 838高地까지의 진지를 방어 중인 유격 제1, 제2대대 진지를 이날 인수하게 되었다.

제10연대(高根弘중령)도 日見洞에 집결하자 그 예하 제1, 제2대대를 군단 예비대로서 부근 능선지대에 배치하여 경비에 임하게 하였는데 제3대대(河炳來소령)는 이날 10.00에야 비로소 日見洞에 진출하여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10연대는 永川에서 증파된 江原道 경찰 제5대대를 새로 배속받아 621高地에서 788高地에 이르는 능선에 배치하는 동시에 趙在美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普賢山북방 高地를 중심으로한 838高地의 남방일대를 점령케 하였는데 제1대대(朴致玉소령)는 水石峰 左右 능선을 점령하였으며 河炳來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병력이 적었으므로 대기토록 하였다.



〈普賢山부근에서 善戰한 제21연대장과 그 참모들〉

제16연대(金義潛중령)에게 진지를 인계한 제1, 제2유격대대는 군단작명에 따라 제1군단 전방지휘소가 위치하고 있는 仁[illegible]洞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벌말에 집결한 제21연대(金容培대령)는 이날 오후 下松洞에 있는 연대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대대(李源益소령)를 좌측 제6사단과 제한점인 340高地와 594高地사이에 배치하였으며 제1대대(蔡命新대위)는 594高地에서 621高地사이에 배치하였다. 어제 633高地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12.00에 九山洞에서 남하 침투하는 적1개연대 병력과 서로 교전상태에 들어 가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때 적은 鎭溪洞까지 진출할 목적이었으나 이 제3대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음으로 그들의 진출기세는 좌절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8월 17일 : 이날 새로운 주저항선에 배치를 완료한 아군의 각 부대는 각기 인접부대와 협조하여 점령된 지역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각 연대는 소수병력으로 진지 전방에 대한 수색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普賢山 남쪽 日見洞에 배치되어 있던 제10연대(高根弘중령)는 부군단장인 金白一준장 지휘하여 杞溪지구 전투에 참가하게 되고 杞溪 北方으로 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그의 제1대대는 雲柱山에 침투한 적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때 仁邱洞에 집결하고 있던 제1, 제2, 유격대대도 杞溪지구로 침투한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1대대(鄭 燮소령)를 道德山과 미룡洞을 목표로 공격케 하고 이 지역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제2대대(金龍周 중령)도 공격을 개시하여 219高地를 점령한 다음 雲柱山을 공격 중인 제10연대(高弘根 중령)의 제1대대(朴致玉소령)와 더불어 적을 압축하고 있었다.

한편 이곳에서 浦項지구 전투사령관 휘하로 들어 가게 된 제1유격대대는 李成桂대령의 명령을 받고 道德山(△703)을 거쳐 杞溪로 진출하여 이를 점령토록 되어 있었다.

이 방면에서는 兪海濬중령이 지휘하는 제25연대의 전세(戰勢)가 불리하여졌으므로 제1, 제2유격대를 곧 여기에 참전케 하였는데 20.00에 행동을 시작한 제1유격대대는 다음 날인 18일 07.00에 杞溪에 진출하고 보니 이미 제17연대가 杞溪를 점령하고 있었다. 또 이날 제10연대는 23.00 군단작명에 따라 雲柱山을 공격 중인 제1대대를 제외하고 그 주력은 大邱방어전에서 아군 지원부대로 급거 日見洞에 집결한 다음 大邱로 金白一준장 지휘하에 이동하였으며 나머지 부대인 제1대대는 朴致玉소령의 지휘로써 雲柱山의 적을 몰아내고 九斤洞에 진출하였으니 일작일퇴의 전세(戰勢)에서도 아군은 종시 주동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 썼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8월 18일 : 제16연대장 兪義濬중령은 새로 보충 받은 1개대대 병력을 제3대대에 편입시켜 水石峰을 중심으로 그 우측인 光川里까지에 걸친 진지를 점령케 하였고 水石峰을 점령하였던 제1대대는 788高地와 839高地 사이를 점령 중이던 제2대대와 교대케 하였으므로 제2대대는 예비대가 되어 忠孝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날 15.30여 제16연대의 이와 같은 진지 변동으로 연대 지휘소를 日見洞에서 忠孝洞으로 옮기게 되었다.

특히 이날 18.00에는 杞溪를 공격 중이던 제2유격대대와 제25연대(兪海濬중령)를 지원하던 포병 1개중대가 忠孝洞에 진출하게 되고 새로이 제16연대를 지원하게 되니 그 전투력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한편 九山洞에서 남하를 시도하던 적 8사단의 1개연대는 九山洞으로부터 우회하여 아군 제21연대 제3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633高地에 재차 공격하여 왔으므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은 이에 대하여 일시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이 적을 九山洞北쪽으로 패퇴(敗退)케 하였다. 이렇게 아군의 집중사격으로 분산 격퇴된 적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그 뒤에 515高地에 대하여 또 다른 1개대대병력으로 龍馬山右측지구로 침투하여 오는 것이었으나

5, 6월의 쉬파리란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8월 19일 : 이와같은 끈질긴 적의 남하공세에 대비하여 昌寧山지구 고수의 임무를 담당한 아군 제8사단(雀德新대령)은 이날도 계속하여 주 저항선에서 진지를 강화하였는데 이날 제10연대 제1대대(朴致玉소령)는 九旨洞 일대에서 수색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군단 작명에 따라 내동으로 이동한 다음 大邱방어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대에 복귀차 출발하였다. 그리고 雲柱山을 압축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던 제1유격대대는 군단 명령에 따라 浦項지구 전투사령부로 부터 제8사단으로 배속변경을 하게 되어 곧 雲柱山에서 慈川으로 기동(機動)하게 되었다.

이날 24.00여 제16연대(金義濬중령)의 전초잠복조는 道坪洞에 이르는 중간지점에서 적 1개대대와 불시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연대장 金중령은 즉시로 제5, 제6중대를 출동시켜 잠복하고 있던 경계부대를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날 밤 어둠을 이용하여 적을 아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대 포위전을 전개하였으니 아군이 주동적으로 적을 농락하는 전국(戰局)으로 변해 갔던 것이다.

8월 20일 : 이와 같이 아군에게 코를 끌린 소 모양이 되어 버린 적의 1개대대는 잔꾀를 내어 아군의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제16연대의 제3대대 방어진지 정면으로 나타나게 되



〈적진을 향하여 105mm 포격을 가하고 있는 한국군 포병〉

었으니 마치 불길에 놀랜 미친 소격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아군은 치열한 포지원 아래 약 2개중대병력으로 이 적을 공격하여 이 적의 공격을 물리 칠 수 있었으나 더욱 발악하는 적은 점차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아군은 이 적의 전면적인 공격을 피하면서도 교묘한 기습공격을 계속하여 적의 저항을 축차적으로 분산상태에 몰아 넣고야 말았으니 발광하는 야생동물을 겨우 우리 속으로 몰아 넣은 격이 되었다.

한편 제21연대의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제9중대를 515고지에 경계부대로 배치한 다음 나머지 3개중대로써 계속 633高地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날 아군 부대의 서열 변동사항으로서는 慈川에 집결하고 있던 제1, 제2 유격대대가 大邱로 이동하고 그대신 江原道 경찰 제6, 제7대대가 제8사단 전선에 투입된 사실이다.

8월 21일 : 이날의 상황 중에서 특기할 것은 아군 제21연대의 담당진지 전면에서 약간의 교전이 있었을 뿐으로 그 밖에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九山洞에서 남하한 적 약 300명은 아군이 배설한 지뢰장벽에 걸려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침투가 저지되었다.

(4) 피아의 공방전(별책부도 제3호 No.4 참조)

8월 22일 : 이날 날이 밝기 전에 적 제12사단소속 1개대대 병력이 立岩 北쪽 方興里에 출현할 것을 탐지한 아군은 제16연대 (俞義濬중령)를 12.00 연대지휘소에 대기하고 있던 제2대대를 곧 출동시키는 동시에 사단의 전 포병화력을 집중 발휘토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즉각 포병화력을 이에 집중하게 되고 제2대대는 측방에서 이 적을 공격하고 적을 분쇄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제16연대는 포로 170여명과 사살 200여명, 그리고 적의 포와 전차 이외에도 노획무기는 무려 4트럭분을 넘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어 먼저 이 방면에서 제1유격대대가 거둔 전과 후 세번째로 승전의 개가를 높이 부르게 되었으므로 아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이미 적을 삼키는 듯하였다. (1964년 11月 19日 俞義濬중령, 대한영업감사실에서 증언)

이날 515高地를 점령하고 있던 제21연대의 제9중대(崔海龜중위)는 적의 큰 규모의 공격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 대대 예비대가 되었는데 적은 이러한 틈을 타서 515高地에 2개중대병력을 올려 놓아 또다시 뺏기지 않기를 기약하는 듯하였다.

제21연대 3대대장 李昌津소령은 이와 같은 적의 일시적인 성공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고, 또 다시 515高地의 적을 격멸코자 633高地에서 이동한 다음 魚鳳山에서 배치 중인 제10

중대(黃基鎭중위)와 제11중대(玉寅水중위)로 하여금 동시에 공격을 감행토록 엄명을 내리게 되었다.

10중대는 13.00여 569를 점령하고 제11중대는 같은 시간에 515高地를 공격하여 또다시 이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적은 거우 입에 물었던 고기덩어리를 삽시간에 다시 잃어버린 셈이었다. 그리하여 적은 다시 15.00경을 기하여 515高地에 침입하였던 약 1개중대의 병력으로 沙谷으로 우회하여 顧母山에 침투해 왔음으로 제21연대는 예비대로 있던 제9중대를 곧이 지역에 출동시켜 공격전을 감행케 하였다. 이때 569高地를 점령한 제10중대는 재탈재에, 그리고 515高地에 진출하였던 제11중대는 魚鳳山에 이동하여 각각 적의 공격에 다시 대비하게 되었으니 일진일퇴의 전세(戰勢)는 참으로 변화무쌍하였다.

8월 23일 : 方興里에서 제16연대 제2대대에 의하여 22일에 격퇴되었던 적은 이날 593高地에서 재차 진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2대대는 09.30를 기하여 계속 공격을 단행하게되고 11.30에 이르러 이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때 2대대 일부병력은 北方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으나 565高地 南쪽능선에서 재집결한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추격부대는 부득이 15.00경 다음 작전을 위하여 593高地로 이동하고 부근 진지의 강화와 사주경계에 임하였다.

한편 제21연대는 어제(8월 22일)부터 顧母山을 공격하고 있는 제9중대(崔泳鶴중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50에 재탈재의 제10중대를 증원시켜 공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서 제9, 제10의 양개중대는 16.00에 이르러 적진 300m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때 동연대 제2대대 정면인 金梧洞에 적 약 1개대대병력이 출현하여 不老洞에 연하는 도로를 따라 남하 중이었음으로 李源益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재빨리 金梧洞과 門峰山 사이를 향하여 진격하였으며 적 진로를 포격하는등 기민한 활동으로 적의 남하를 저지한 결과 北方으로 적을 격퇴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顧母山을 공격해 오던 제3대대의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23.00에 드디어 顧母山을 완전 점령하였으며 적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8월 24일 : 이와 같은 공방전을 연일 전개하던 중 이날 13.20경에 적 1개대대가 515高地와 569高地를 넘어서 진격하여 왔으므로 제9, 제10의 양개중대는 이 적을 맞아 피아간에 치열한 화력전과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군은 2배 이상이나 되는 적에게 압력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찬 반격전을 반복한 끝에 적의 많은 병력을 무

절러 드디어 적을 격퇴시켰다.

그후에도 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아군은 그때마다 용전을 되풀이한 결과 이들을 모조리 물리치게 되어 龜浦山은 여전히 아군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으며 적은 마침내 탈환할 엄두도 못내게 되었다.

이때 제11중대(孟賓水중위)도 역시 魚鳳山을 확보하고 있었으니 아군의 공격정신은 찬양할만한 것이었다.

이날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에서 새로 제8사단장으로 부임하게된 李成佳 대령은 사단작전 명령으로 제16, 제21연대로 하여금 계속 정면의 적을 추격케 하는 동시에 지원된 공병및 후방인원을 주진지와 엄호진지강화를 위하여 동원케 하는 한편 현 주저항선 전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케 하면서 주야간을 통한 엄중한 경계를 실시케 하여 적의 차후 공세에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엄호진지인 596高地을 수비하고 있던 제16연대(兪義濬중령) 2대대는 계속 부근일대에서 잔적격멸과 수색전을 감행하였는데 이때에 일부 수색대는 566高地까지 밀려 나가서는 적을 견제하고 그 기도를 탐지하기 위한 출몰자제(出沒自在)의 유격행동으로 적의 판단을 미궁에 빠지도록 종횡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17.00에 제16연대의 제2대대 예하의 제6, 제7중대는 565高地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적 1개대대에 요란적(擾亂的)인 기습 공격을 가한 다음 서서이 596高地에 복귀하였으며 또한 이날 13.00를 기해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각각 지원하여 적에 퍼 부운 포탄 세례는 보병들의 활동을 크게 도왔으니 아군이 주동의 태세를 견지하면서 차츰 지구와 견제작전의 본령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적 제15사단의 증원

8월 25일 : 이날이 되자 제8사단(李成佳대령) 정면의 잔적(殘敵)들은 아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끈질긴 남하기세를 보였으며 여기에 새로이 아군 제1사단 정면에서 준동하던 적 제15사단이 靑松쪽으로 부터 남하하여 이 부근 적들과 합동함으로서 다시 기세(氣勢)가 드높아진 그들은 그들대로의 공세를 취하기로 작정한듯이 보여 졌다.

이와 같은 적 제15사단의 전진(轉進)은 杞溪방면의 적 제12사단 주력과 동해안에서 활동 중인 적 제5사단과의 상호간의 협공작전을 지원하고 이 방면에서의 그들의 전력을 강화하여 단숨에 永川방면으로의 돌파를 기도한 적 전선사령부의 전략상 조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적정의 변동을 알아 차리게 된 아군은 곧 이에 대비하게 되었으며 아 제1군단이에게는 이날 04.00에 작명 제73호(작명부록 제31호 참조)를 하달하여 江原道 경찰 제3대대를 보충 받아 전선에 증원 배치하여 아군 전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아군 항공기는 06.30에서 07.15에 이르는 동안 대대적인 공중폭격을 단행하므로써 지상군을 직접지원하게 되어 아군의 주저항선 전면에서 우왕좌왕하여 출몰하던 적은 이 맹타로써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 제15사단은 10.00에 이르러 아군 제16연대(兪援沸중령) 방어진지 전면인 普賢山에서 立岩으로 이르는 일대로 진출하고 아군 방어선에 대한 침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황속에서 아군 제8사단(李成佳대령)은 군단작명 제72호(작명부록 제30호)에 따라 이적을 막아낼 목적으로 일부 부대를 이동하여 재배치를 단행하고 새로운 강력한 방어진지를 마련키로 하였다.

즉 이날 12.00에 江原道 경찰 제3대대를 제16연대에 배속키로 하고 제21연대의 2대대(李源益소령)는 門峰山의 방어정면을 제3대대 제1중대가 인계하여 담당토록 하는 동시에 普賢山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방어 중인 제16연대의 제1대대 진지를 대신 인수 받아 이를 굳게 지켰다.

제21연대는 또한 경찰 제5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839高地까지의 지역을 담당키로 하였으며, 한편 제 21연대의 제2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한 제16연대 제1대대는 立岩남방 烽火峰 일대의 능선에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으며 그밖의 각 대대는 전일의 진지를 그대로 지키면서 전면의 적과 대치토록 하였다.

남하 중인 적은 이날 13.30에 제21연대의 제1대대 정면인 594고지와 門峰山 일대에 집결하여 공격을 단행하려는 기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芝洞 일대에 배치된 아군의 포병대는 忠孝洞으로 이동한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면서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8월 26일 : 이날 05.00까지에 이미 공격 준비를 갖추게 된 적 제15사단은 2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으로써 아군 제21연대의 제2대대가 새로 점령된 普賢山 우측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왔다. 21연대 제2대대는 이에 응전하여 크게 싸운 끝에 진지를 끝까지 고수(固守)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적 포탄은 아군진지 후방에까지 수없이 떨어 졌기 때문에 아군 진중에서는 한때 혼란에 빠진 일도 있었으나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상하일치

하여 결전을 준비하였다.

이때 적 일부병력은 593高地로 우회하여 雲住山에 침입할 기세로 제16연대 전면인 烽火峰으로 진격하여 쳐들어 왔으며 이어 12.00에는 593高地 정면의 적은 공격력이 증원되었는지 거센 공격을 반복하여 왔고 496高地에 침입한 적 1개연대는 593高地를 우회하여 침공할 기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烽火峰의 제16연대의 제1대대는 그동쪽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고 적에 대비하였으나 남하하는 적은 4문의 포병지원을 얻어 아군진지에 대한 포격을 급히 가하여 왔다.

한편 어제(25일) 아군의 공격을 받고 下里坪부근으로 후퇴하였던 적은 약 1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12.30에 569高地에서 제21연대 제3대대가 배치된 願母山과 門峰山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나 제3대대의 제9중대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魚項山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점차 적의 공세 기미가 농후하여졌음으로 제21연대 제3대대의 제9, 제10중대는 부근의 적을 수색하기 위하여 魚項山을 출발하여 진출하고 있던 중 569高地에서 적 1개중대와 조우 교전하였다.

교전 중 적은 아군 공격에 몰려 633高地과 龍馬山부근으로 분산 퇴각하였기 때문에 제9중대는 龍馬山으로 제11중대는 633高地로 적을 추격하였다.

제16연대의 제2대대는 18.00 593고지에서 적과 계속 교전 중이었고 제1대대도 13.00 烽火峰 우회작전을 기도하는 적을 격파하면서 593高地의 제2대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8월 27일 : 이때 593高地의 제2대대는 후방으로 우회하는 적을 공격하였으나 적은 가진 희생을 무릅쓰고 아군의 장애물 지대를 돌파하면서 주력으로 烽火峰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부병력으로 立岩을 공격하는 한편 대대병력으로 烽火峰에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나 이날 아침 03.00 였다.

이리하여 烽火峰 부근에서는 적 1개연대병력이 집결하였고 이날 16.20에는 적 15사단의 일개대대 병력이 846高地에 나타나 계속 普賢山을 향하여 덤벼들고 있었다. 이리하여 제21연대장은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경찰 제5대대를 지휘하여 이에 대비키로 하였다.

이날 중과부적으로 선전 끝에 忠孝洞으로 이동하게 된 제16연대의 제1, 제2대대는 적을 東側方에서 공격하고 경찰 제3대대는 제16연대장이 지휘하여 일부병력을 烽火峰 東南方 602高地 일대에 배치하여 우측 杞溪지구에서 교전하는 제18연대(任忠植 대령)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한편 大邱로 이동하였던 제1유격대대(鄭 襲소령)가 이날 18.00에 군단명령으로 제8사단(李成佳대령)에 배속된 다음 제16연대장 지휘하에 忠老洞에 진출하여 사단의 예비대로 배치 되었다. 여기에서 적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846高地에 집결한 적 2개대대의 일부병력이 1,124高地로 이동하여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이때 이를 포착한 미 전폭기의 공중공격을 받아 격멸분산되었으나 적은 집요하게 제21연대 제2대대 정면으로 계속 공격할 기세를 보였다.

이날 19.40에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은 1,124高地의 적과 끝까지 대결하기 위하여 벌밭 北方에서 적을 격퇴한 바 있는 경찰 제5대대를 正覺洞으로 이동시켜 차기 작전에 대비케하면서 普賢山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한편 제21연대 제1대대는 594高地에서 621高地 西北方으로 진지를 옮겨 경계를 강화. 이와 동시에 제16연대 제1, 제2대대는 계속 烽火峰을 공격하고 있었다. 20.00여 최후의 전투 역량을 총집결하여 치열한 공격을 가한 결과 立岩 北方으로 드디어 적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하고 烽火峰을 다시 확보 할수 있었으며 이어서 곧 적으로부터 재역습을 미리 대비하게 되었다.

이때 제21연대 정면인 九山洞에 집결하고 있던 적 1개연대병력은 제21연대의 제3대대 진지인 633高地부근을 목표로 또다시 공격을 계속하여 왔다.

8월 28일 : 이날 01.00경에 제16연대 제3대대 제7중대는 846高地의 적을 기습한 다음,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였고 제1대대의 제2, 제3중대는 04.30경에 후속대로 증원된 적의 기습을 받게 되어 한때 지휘의 혼란을 이르키기도 하였다가 그후 곧 제1대대 주력은 烽火峰 南쪽 544高地로 이동하여 계속되는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한편 제2대대는 610고지 일대에서 계속 교전 중이었고 제3대대 제9중대는 565高地에서 남하하는 적 2개중대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각부대가 적과 교전을 계속하는 동안 적의 포탄은 제16연대 후방에까지 간단없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적의 공세는 더욱 그 기세를 높아 전반적인 정세는 결코 낙관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제16연대장(兪義濬중령)지휘 하에 있던 제1유격대대(鄭 襲소령)는 忠孝洞에서 烽火峰의 아군을 지원하면서 재목표인 440를 공격하여 06.00에 이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 뒤 박격포의 지원 하에 烽火峰 전방에 솟아 있는 540高地를 계속하

여 점령하는 즉시 이를 확보하는데 힘썼다. 이 제1유격대대는 계속하여 최종 목표인 烽火峰을 향하여 진격하였으나 의외에도 증강된 적 1개연대이상의 측방공격을 받아 더 이상의 진출을 단행할 수가 없어 544高地로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또한 제16연대 제1대대는 이때 544高地에서 경찰 제3대대가 점령 중인 602高地에 진출한 다음 이들과 합동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에 반하여 적은 846高地와 1,124高地에서 普賢山의 아군 진지를 계속 공격하여 왔는데 아군은 공중 지원아래 적을 저지하는데 최대의 힘을 다 경주하여 싸웠다.

이와 같은 적공격기도에 따라 제21연대의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634高地(魚鳳山)를 제1대대와 경찰에게 인계한 다음 普賢山 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2대대 진지로 이동하여 제2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하였다. 한편 제16연대의 제3대대는 날이 새기 전부터 정면으로 침투하는 적과 교전하고 있었으나 12.40경에 이르러 적의 압력이 더욱 커졌으므로 제9, 제10중대는 잠시 진지를 옮겨 751高地 西쪽 무명고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적은 여전히 2개대대의 병력으로 566高地를 거쳐 水石峰의 제11, 제12중대를 공격하여 왔으므로 중대는 하는 수 없이 西南方 능선으로 이동하였으나 제16연대의 제2대대는 烽火峰 西쪽 무명고지에서 751高地로 이동하여 포병 지원아래 水石峰을 공격한 다음 이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普賢山 北方에 위치하고 있는 제21연대 제3대대의 제10, 제12중대는 약 2배에 달하는 정면의 적을 공격하여 화력전끝에 이를 격파한 다음 1,124高地를 점령하고 계속 846高地로 진출하는 도중에 적의 반격을 받아 부득이 1,124高地 중복 능선으로 이동하였다. 그후에 재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전진이 여의치 않아 원위치로 다시 복귀하였으니 적의 최후발악의 치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普賢山은 계속하여 경찰 제5대대가 확보하고 있었고 제1유격대대는 544高地에서 분산된 병력을 재집결시켜 포병의 지원아래 烽火峰 660高地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이 대대는 집요하게 저항하는 적을 끝내 격파 하여버리고 이 高地를 점령하였으나 적은 아직도 후방진지에서 2시간동안에 걸쳐 포격을 가해 옴으로서 이에 따르는 아군의 사상도 또한 적지 않았으므로 22.00에 이 대대는 忠孝洞으로 그 진지를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야간에 있어서의 아군의 화력지원은 공지 모두가 적원치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16연대의 제2대대는 水石峰남방 751高地에서 水岩峰으로 진출하면서 적과 교전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751高地 西쪽 무명고지에서 제2대대와 같이 진출할 수 있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중단되고 南쪽 2km지점으로 이동하여 차기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 두 대대의 이와 같은 불리한 전황에 따라 제3대대도 역시 공격을 중단하고 751高地로 이동하여 재편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같은 반면에 적은 아군의 남하, 이동을 좋은 기회로 삼아 제16연대 지휘소에 이르기까지 포병사격을 더욱 치열하게 가하여 왔으므로 연대지휘소는 잠시 적 포격을 피해 日見洞으로 이동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8월 29일 : 이날 제16연대는 적의 포격이 잠간동안 중단되자 지휘소를 이날 03.00를 기하여 다시 忠孝洞으로 복귀시키는 동시에 예하 대대의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데 힘썼다. 그러므로 예하 제1대대는 602高地에서 502高地에 연하는 東쪽에서 경찰 제3대대와 합께 右측 인접부대인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연결을 지어 烽火峰 측방과 把溪지구에서 사단 전투지경선으로 침투하려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또한 제2, 제3대대는 751高地 능선지대에 배치되어 제9, 제11중대로 하여금 水石峰 남쪽과 839高地 東南方으로 침투하는 적을 일제히 공격하게 되었다.

忠孝洞에서 544高地로 진출한 제1유격대대는 예하 2개중대로서 烽火峰 전면의 적에 대하여 전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1개대대 병력으로 제16연대 제1대대 정면으로 진격하여 왔다.

제21연대의 제3대대는 1,124高地 南쪽 능선지대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증원된 2개대대 이상의 적의 압력을 받게 되어 하는 수 없이 普賢山으로 이동하여 경찰제5대대와 같이 高地 종복에 따라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 10.00경에 제16연대 제1대대는 602高地에서 적의 측방 공격을 받고 잠시 602高地 종복 능선까지 철수 이동하였다가 다시 반격을 감행하여 14.50에 602高地를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보다 먼저 이날 13.00에 제21연대는 지휘소를 下松洞에서 慈川으로 이동 완료하고 14.00에 연대 정면에 침투기세를 보이고 있던 적은 제16연대 정면으로 우회 중이었고 계속하여 九山洞에는 적 1개 연대 병력이 집결하여 공세를 준비하는듯이 보였다.

그리고 751高地 우측에 배치하여 烽火峰에서 우회 진격하는 적의 측면을 목표로 공격하고 있던 제16연대 제2대대는 적의 압력으로 하는 수 없이 忠孝洞으로 다시 이동하였고 제1유격대대는 烽火峰 공격을 위하여 441高地에 진출한 2개중대를 544高地에 이동시켜

병력을 정비한 후 水石峰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포병대의 화력지원을 얻어 제1, 제3중대를 주공으로 751高地의 제16연대 2대대진지를 경유, 水石峰 좌측능선을 따라 그리고 제2중대는 동우측 능선을 따라 각각 전진하였으니 이렇게 세곳으로 적의 포화를 뚫고 계속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싸움은 이날 종일 계속되었는데 18.00에 이르러서는 적과 더욱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751高地를 점령하고 계속 진출하여 19.00에는 水石峰 남방 능선까지 적을 격퇴시키고야 말았다. 한편 제16연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은 忠孝洞에서 일단 정비한 다음 제1유격대대를 지원하여 나머지 적을 무찔렀고 제3대대는 751高地에서 계속 방어 중이었다.

제16연대의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게 전개될 때 제21연대는 이날 15.00 제9, 제11중대를 연대지휘소가 위치하는 慈川洞에 집결케 하여 예비대로 삼았으며 제10, 제12중대도 09.00 각각 普賢山진지에서 門峰山으로 공격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너무도 끈기 있었던 탓으로 도중 능선 중간에 잠복하였다가 야간에 원대로 복귀하고 말았다.

8월 30일 : 水石峰을 공격하던 제16연대(兪載潛소령) 제1대대는 이날 01.00 2의 3중대는 정상을 점령하고 제1, 제2중대는 左右 능선을 각각 확보한 다음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03.50경에 적은 또다시 집요하게도 역습을 감행하여 왔으므로서 피아의 격전이 벌어졌으며 아군의 용전분투로 적을 또다시 격퇴하고 여전히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때 제21연대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계속하여 水石峰 좌측 진지에서 水石峰의 16연대 1대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602高地 제16연대 제1대대는 15.00경에 적의 증강된 1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이를 반격으로 물리쳐 보려고 하였으나 일부의 적이 측방에서 공격하여 왔음으로 이 대대는 선전 끝에 한때 적을 동고지 전방까지 격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세가 악화되어 원진지로 되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후 水石峰을 방어 중이던 유격 제1대대는 진지를 제16연대 제2대대에게 인계하고 사단 측면의 적으로 부터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忠孝洞으로 이동 배치되어 사단 예비대가 되었다.

(6) 적의 공세와 새로운 주저항선의 점령(별책부도 제3호 No.4 참조)

8월 31일 : 아군은 최대의 노력으로 작전에 임하여 적을 막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주저항선 정면에 대하여 끈기있는 공세를 취하였는데 적의 제15사단 지휘소를 立岩에

설치한 다음 인접 杞溪에 침입하게된 적 제12사단과 서로 호응하면서 아군 제16연대 전면으로 진격을 감행할 목적으로 이미 水石峰 烽火峰 南쪽지구까지 진출하여 왔으나 전세는 예측을 불허하는 형편이었다.

뿐만아니라 九山洞에 집결한 적의 1개연대는 아군 제21연대 제1대대와 門峰山을 점령하고 있던 제1중대 진지 정면으로 공격하여 왔고 아군은 적을 진지 앞에서 격파하면서 그 진출을 극력 저지하고 있었다.

이때 602高地를 공격하고 있던 제16연대 제1대대는 돌격하여 오는적과 치열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고 다시 이 고지에서 후방고지를 지키고 있던 유격대대와 협동하여 16.00에 602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때 적의 저항이 너무나 발악적이었음으로 일시 공격을 중지하고 22.00에는 각각 芝洞 南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566高地에서 재차 남하한 적 1개대대는 제16연대 제2대대 진지 正面에 진격하여 왔으며 그 일부병력으로 아군 진지의 중앙을 돌파코자 하게 되었으므로 아군은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 끝에 드디어 이를 격퇴하고 말았다. 같은 시간에 제21연대 제1대대도 621高地에 침투한 적 1개중대를 격퇴한 후 17.00에는 일부병력으로 판각산에 진격한 적을 격퇴하여 이 산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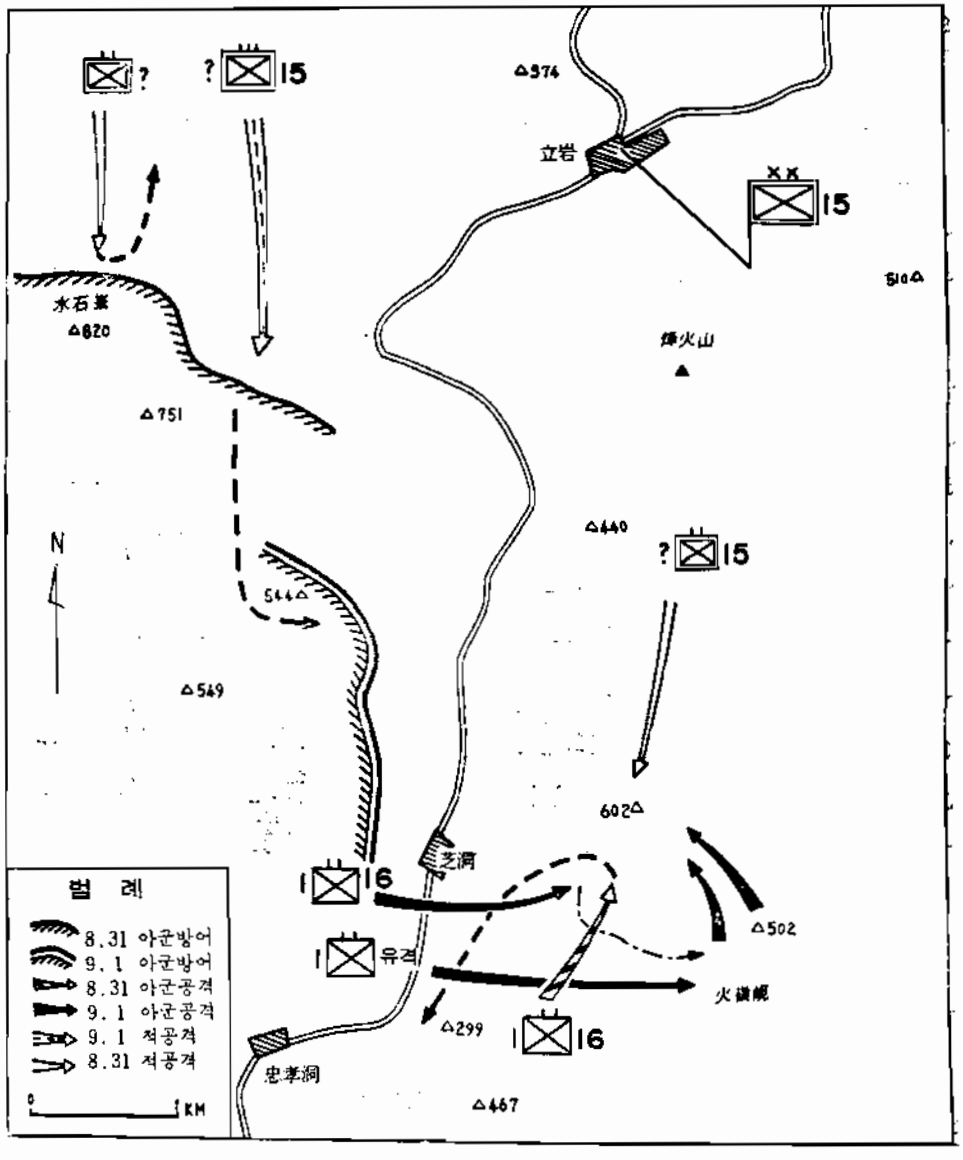
9월 1일 : 적 제15사단은 아군 제16연대 제1대대 正面인 烽火峰 및 602高地와 首都사단 제18연대 정면인 九旨洞에 각각 1개연대 병력으로 그리고 제16연대 제2, 제3대대 正面인 水石峰을 목표로 또한 1개연대 병력으로 각각 이른 아침을 이용,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그러나 제16연대 제2, 제3대대는 우세한 적과 서로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압력은 더욱 커지기만 하여 부득이 544高地로 이동하고 병력을 수습한 다음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제21연대 제1대대와 경찰 제5대대도 적의 침공을 막아 선전하고 있는 동안 이날 오후에 이르러 적의 활동은 立岩, 나동사이에서 더욱 활발하여 지기만 하였다.

제16연대 제1대대 및 제1유격대대는 602高地와 502高地에 진출한 적 1개연대를 격퇴하기 위하여 이날 날이 새기 전에 芝洞의 주저항선을 출발하고 제1대대는 602高地를 목표로, 그리고 유격제1대대는 502高地를 각각 진격 중 제16연대 제1대대는 602高地 전방능선에서 적과 부닥치게 되어 일대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증원으로 말미암아 대대는 하는 수 없이 502高地 쪽으로 기동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1대대는 10.00에 제1유격대대의 지원

상황도 제2호 제16연대와 유격대의 방어전(50. 8. 31~9. 1)



을 받게 되고 602高地에 대한 탈환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아군은 끝까지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제1유격대대를 1대대와 교대하여 다시 탈환 공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임무를 맡게된 제1유격대대는 진격 도중 불행하게도 美 전폭기의 과오로 오폭을 받게 되어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고 대대는 사기가 일시에 저하되어 공격 불능상태에 빠져 忠孝洞 428高地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니 매

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제1군단은 일로 증가되어가는 적과 더욱 치열해진 적의 진격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진지를 다시 정리하고 전력을 강화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21연대 제2대대(李源益소령)를 727高地 일대에, 그리고 제1대대(蔡命新대위)를 下外山 능선일대에, 또 나머지 제3대대(李昌律소령)를 제2대대 우측에서 騎龍山 일대에, 그리고 경찰 제1대대는 839高地을 점령토록 하는 동시에 나머지 지역인 水石峰남방에서 芝洞에 이르는 선에는 제16연대의 제2, 제3대대를, 428高地에는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날 17.00에 이르러 제21대연 제1대대의 일부병력들은 不老洞 부근에 진출하여 적정을 수색하는 동안 적은 23.00부터 魚鳳山과 門峰山 그리고 847高地에서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9월 2일 : 적은 새로 편성한 아군의 주저항선을 목표로 다시 공격하여 왔는데 아군은 적 제15사단과 道坪洞에서 남하한 적 제8사단 제73연대를 진지전에서 격멸하는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이날 08.00에 道洞과 葛川洞 일대에서 적 제73연대 2개대대병력이 출현하여 점차 제21연대 진지 정면에 진격하여 왔으며 또 이와 동시에 적 제15사단 주력은 葛洞방면과 602高地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전황속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水石峰 南방으로 철수하게 된 제16연대 제2, 제3대대는 예하 일부병력으로서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공격을 전개하여 08.00경에 水石峰을 완전히 확보하고 左右능선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진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不老洞 부근에서 수색 정찰 중이던 제21연대의 제1대대 수색대는 10.00시경에 633高地 魚鳳山에 침입한 적 제73연대의 일부 병력을 포착하여 격퇴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의 진격으로 18.00에 제16연대와의 협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제2대대는 734高地의 능선을 연하는 일대에, 그리고 제1대대는 590高地를 연하는 일대에 또 제3대대는 554高地 우측에서 普賢山 南방일대에 각각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적 제15사단은 적 제2군단의 작전 계획에 따라 18.00에는 전 전선에서 총공격을 시작하였으니 그 전세는 참으로 눈 코 뜰 사이없이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이제 여기에서 적의 계획의 대요(大要)를 살펴 본다면 그들은 먼저 洪川을 손에 넣은 다음 大邱를 단숨에 공함(攻陷)코자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당시에 적이 필사의 반공을 이

일전에서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이야 말로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19.00 현재로 제16연대 제3대대는 여전히 水石峰에 적과 대치 중이었고 제2대대는 504高地 南方을, 그리고 제1대대는 602高地에서 좌측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반격하므로써 피아 쌍방간에는 일진일퇴의 치열한 싸움을 거듭하였던 것인데 점차로 증강되는 적의 공격으로 아군은 忠孝洞으로 후퇴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16연대 지휘소는 군평으로 이동한 다음 제3대대를 연대지휘소부근에서 예비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7) 적의 최후공세(별책부도 제 3 호 No.5 참조)

적은 제5차 작전을 수행하기위하여 수일간 준비하면서 아전선의 취약지점에 돌파구를 만들고 일거에 큰 병력을 투입하며 그 목적을 달성코자 총공격을 시도하여 왔다. 이미 전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의 제15사단 주력은 9월 2일 24.00를 기하여 사실상 총공격을 시작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적 제12사단 주력은 아군 제8사단 방어진지를 돌파한 다음 雲柱山남방까지 이미 진출하였던 것이다.

적의 1개대대 병력은 玉山峰 190高地에 진출하여 安康과 永川사이의 도로를 차단하였고 적 제15사단 주력은 塔洞과 602高地를 거쳐 忠孝洞부근으로 진출하였으니 전황은 낙관할 수가 없었다.

9月 3日 : 이로 말미암아 제18연대는 이날 02.00에 지휘소를 九岩洞으로 이동시키고 예하대대를 그 근방인 雲柱山에서 仁邱洞에 배치하여 반격을 기도하였으나 적의 증가되는 돌파격과 직격속도로 말미암아 아군은 일시 분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12.00에 병력을 다시 수습할 수 있었으며 연대장 任忠植대령은 제1, 제2대대를 795高地 일대에 배치하여 杞溪에 침입한 적 제12사단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동시에 제3대대로 하여금 적의 행동에 대한 수색활동을 전개케 하였다.

제16연대(兪義濬중령)는 어제(9月 2日)에 있던 적의 공격으로 인해 18.00에 그 제1대대를 군평군방 467高地 일대에 그리고 제2대대를 549高地와 428高地간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케 하였으며 제3대대의 1개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케하는 한편 나머지 1개중대는 818高地를 공격케 하였으며 또 1개중대는 水石峰남방 무명高地에서 적정을 수색케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적은 煙火峰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주력부대를 계속 忠孝洞과 仁邱洞으로 향하는 도로좌우 능선으로 진출케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날 12.00에 이르러 적은 芝洞에 전차 수대를 투입하여 아군을 위협하였으나 제16연대 제1대대의 반격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즉시 立岩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공격이 반복되고 또 반복하여 계속되는 동안에 제21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그들의 담당 지역내를 계속 수색하고 있었고 제3대대는 818高地 일대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적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때에 경찰 제5대대는 737高地에 이동 배치되어 적정을 수색하고 있었다.

이날 16.00에 제16연대 제1, 제2대대는 602高地에서 忠孝洞으로 남하하는 적 1개 대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으며 반면 적 2개대대는 普賢山에 출현하여 제21연대 제3대대 진지 정면으로 압력을 가하여 왔다.

제3대대는 적의 공격을 극력 저지하였으나 원래 병력의 부족과 지형의 불리로 한때 아군은 곤란한 지경에 도달하였고 그후 병력을 재편한 결과 23.00에 반격으로 나가 적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아군은 738高地에 배치되었던 경찰 제5대대를 慈川으로 이동배치케 하고 있던 중 818高地로 침투하는 적을 발견하고 제16연대의 1개중대와 제1유격대대 및 제21연대 1개중대를 급파하여 이 적을 맞아 크게 싸운 결과 23.00에 마침내 격퇴하고 말았다.

大邱에서 증파된 제7사단 제5연대(崔昌彦중령)는 제8사단에 배속되어 그 제3대대를 水川에 그리고 제1대대는 정오경에 제16연대 제1대대의 진지를 교대하여 군평동북방의 467高地에 배치하였다.

또 그 나머지 제2대대는 20.00시에 仁邱洞연대지휘소에 진출했고 연대장은 제2대대장 李昌範 대위에게 현재 적과 접전 중인 제16연대 제2대대(忠孝洞)와 즉시 교대하라고 명령하였다.

李昌範대위는 연대장 崔昌彦중령에게 의견을 상신하기를 "지금은 야간이라 지형도 잘 모르고 또한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 중인 부대와 별안간 교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온 즉 명일(9월 4일)미명에 교대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보시다시피 비도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라는 요지의 것이었다.

연대장은 李대위의 의견라기보다는 차라리 항명에 가까운 이 의견을 듣고 마음 속으로 크게 불만이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건의가 결코 무리한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야간에 지형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부대 교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난점이 있는 데다가 적의 반격을 받게 된다면 진지를 확보하기 힘들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량이 넓은 연대장은 대대장의 이 건의를 그대로 받아 드려 仁邱洞 국민학교에서 다시 전력을 강화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李대위는 2개중대를 日見洞 방면의 외곽지에 배치한 다음 삼엄한 경계 속에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普賢山에서의 적의 공격은 그대로 계속되어 적은 602高地 및 502高地를 거쳐 忠孝洞북방에서 제5연대 제1대대 正面으로까지 진출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16연대 제1대대는 제5연대 제1대대와 서로 교대를 끝 마친 다음 연대지휘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적은 점차 忠孝洞으로 진출하여 제16연대 제2, 제3대대의 진지에 압박하였으므 이 대대들은 忠孝洞에서 騎龍山東쪽에 있는 741高地로 물러서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鄭夏소령에게 818高地에서 물러나게 된 제1유격대대를 제8사단 예비대와 같이 이날(9月 3日) 騎龍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당시 騎龍山의 西쪽능선에는 제21연대의 1개중대가 그리고 東쪽능선에는 제16연대의 1개중대가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鄭 夏소령은 사단장에게 건의하기를 "저의 판단으로서는 적의 주공이 산악지대보다도 전차부대를 선두로하고 있는 이상 양호한 기동로인 忠孝洞과 永川에 이르는 가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16연대가 騎龍山을 맡고 저의 대대가 도로를 맡아 적을 저지하겠읍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鄭소령의 건의는 제16연대의 전투력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16연대보다는 자기 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 적을 막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제16연대가 탈환 못하던 것을 그의 대대가 교대하여 탈환한 바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사단장은 鄭소령의 이러한 건의를 묵살하고 騎龍山에가서 배치된 전기 2개중대와 교대하라고 다시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1유격대대는 騎龍山으로 전진하였으나 이미 정상(頂上)은 적이 점령하고

있어 20.00에 고지 중복에 대대를 배치하고 적과 밤새도록 교전을 되풀이하는 수 밖에 없었다.

9月 4日 : 이날의 전황은 아군 제1유격대대 우측에 배치되었던 (741高地에서 忠孝洞 333高地에 이르는 능선) 제16연대 진지가 무너져 후방으로 이동 중이었고 다만 제2대대 및 제3대대병력 약 300명 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제1유격대대와 제16연대 일부 병력은 하는 수 없이 적의 포위망 속에 들게 되었다.

鄭소령은 제16연대 제3대대장과 협의하여 鄭소령이 선임지휘자가 되어 포위망을 강행돌파(強行突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돌파부대의 선두에는 제16연대의 제2대대의 약 100명이 앞장을 서게 되고 그 중간에는 제3대대 그리고 가장 후방에는 제1유격대대가 뒤따르면서 선두 철수부대를 옹호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포위망의 탈출은 적이 이미 405高地의 능선과 忠孝洞의 양개능선에 배치되어 집중사격을 퍼부었으므로 아군은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제16연대는 선두에서 그런대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으나 탈출할 때 통로상의 적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平川방면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뒤따르고 있던 제3대대는 이 골짜기에서 아깝게도 200여명의 전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한편 포위망 속에서 鄭소령은 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건의하고 또 상황을 보고하였다.

"우리 대대는 [illegible]洞북방 405高地에서 포위되어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아군의 포병대대의 105mm포가 유기되어 있으니 포도 철수시켜야 하고 또한 우리의 퇴로를 타개 할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즉시로 이 요청에 응하였으나 예하 각부대는 적의 공격으로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원부대를 급히 보낼 수가 없었다.

적은 사방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제1유격대대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적에게 육박전을 감행하여 혈로를 찾아 생사를 판가름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鄭소령은 적병과 육박전 끝에 오른팔의 중요 부분이 적 총검에 찔려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대대장 살아있다. 각개 행동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라."고 외쳤다.

이와 같은 역경속에서도 鄭소령은 14.00에 적의 추격을 받으면서 북부에 관통상을 입어 쓸어져 있는 송달준소위를 한팔로 끌다시피 하여 포위망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유격대대는 望亭洞 三街里에서 재집결하여 대대병력을 점검한 결과 편성 당시 총원 1800명이었던 것이 기간 중 많은 손실로 병력은 겨우 800명으로 줄어 들고 있었다.

普賢山을 방어중이던 제21연대 제3대대(李昌律소령)는 적 2개대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연대였던 제16연대의 이동으로 慈川선으로 남하이동하여 배치되고 연대지휘소는 慈川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날 (9月 4日) 03.00에 제5연대 제1대대는 적이 후방을 차단하면서 급히 포위공격을 강행하여 왔으므로 仁邱洞 남쪽으로 서로 분산된 채 철수하게 되었다.

연대장 崔대령은 仁邱洞지휘소에서 제2대대장 李대위에게 제1대대가 무너졌다고 알려주었으나 여기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2대대는 이미 사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2개중대를 도로 양편에 배치하여 적을 막아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적은 여기를 그대로 우회하여 仁邱洞 국민학교의 후방부대를 향하여 기습하는 것이었다.

李昌範대위는 대대를 향하여 곧 三歸洞의 앞고지로 이동하라고 소리치면서 그 자신도 역시 그 고지에 이르러 보니 날이 새면서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은 볼 수가 없었다. 이러는 동안 05.00에 李대위는 약 1개분대의 병력을 이끌고 잠시 동안 쉬고 있었는데 적 1개중대병력이 고지를 향하여 올라 오고 있었다. 李대위는 먼저 손 들라고 소리치는 적 한명을 사살하고 456高地 후방을 지키면서 대대를 수습하였다.

이날 10.00시에 崔昌彦중령은 제1 및 제2대대를 수습하여 다시 仁邱洞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당시 연대장은 제2대대장이 너무 피로하였으므로 부대대장 車龍浩대위로 하여금 대신 지휘케 하였는데 그는 용약정진(勇躍挺進)하여 적진에 뛰어 들어 진두지휘 하다가 공격 개시 1시간만에 仁邱洞에서 장열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육사 2기생으로 신라화랑에 못지 않는 꽃 같은 청년장교였다.

제5연대는 결국 적의 저항이 너무 완강하였으므로 공격을 잠시 멈추고 三梅洞 벌바위의 371高地에서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당시 제8사단의 오른 쪽 인접부대인 수도사단 제18연대도 증원되는 적의 압력을 받은

결과 그 지휘소를 九岩洞에서 金大洞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연대주력도 456高地와 517高地 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8사단 左익연대인 제21연대도 중앙과 우익 전선이 무너지게 되자 사단장명령에 의하여 慈川북방으로 물러나게되고 그 지휘소를 仙川洞에 두었다.

이로서 아군 제8사단은 드디어 普賢山방어선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永川北방에서 적 제15사단을 저지하게 되었다.(이하 永川지구전투 참조)

라. 전투 후의 개황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열세에 있던 아군이 8월 13일부터 9월 4일에 이르는 사이에 무려 이 지구에서 22일간이나 우세한 적을 억류하고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험준한 지세를 잘 이용한 아군진지가 견고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더 이상 적의 남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최후관두에 서게 된 아군의 정신자세가 굳건하여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는 필승의 신념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군은 사력을 다하여 이 普賢山지구에서 적을 격퇴하려고 매일 같이 안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원래 신편(新編)으로 인한 훈련부족과 병력 및 장비의 미약으로 적을 능가하지 못한 피아의 전력의 격차는 피할 수 없는 악전 고투만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고 드디어 이 부근방어선에서 아군은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普賢山지구전투에서 아제8사단을 비롯한 각부대들은 한 치의 땅과 하나의 지물(地物)도 그대로 적에게 내어 주지 않으리라는 결의 밑에 적으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연후에 비로소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적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적자경영의 능수가 되어버린 격이었다.

이와 같은 아군의 용전은 더구나 심리적으로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됨으로써 그들의 심정을 초조하게 만들게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적은 이 방면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들의 세력이 도리어 날이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에 아군은 그 전력을 증강시키고 적이 자랑하는 전차라도 능히 깨뜨릴 수 있다는 자신을 안겨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8월 15日 이후 적은 제15사단의 증원투입으로 전황은 극악의 사태를 초래하여 아군은 혈전을 거듭하게 되었지만 결코 아군은 普賢山지구에서 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승리할 수 없는 공산(公算)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普賢山지구의 싸움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볼 때 永川지구전투를 위한 전위(前衛)전이 되었으며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의 전투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적북괴군이 총력을 집중한 9월공세로 부득이 아군주력인 제8사단 예하 제16연대와 제21연대, 그리고 7사단 제5연대와 유격부대 그 밖에 경찰대대 등이 9월 4일을 기하여 인접부대와 연결작전을 위해 다음 진지로 이동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에 따라 절호(絶好)의 전기(戰機)를 포착(捕捉)하게 된 아군이 가능한 전병력으로써 永川지구에서 일대결전을 하게 된 것이다.

§ 교 훈

◇ 전투는 신념으로

빈약한 장비와 훈련이 아직도 미숙한 신병으로 구성된 유격대대가 적의 대대 이상되는 병력을 기습하여 여지없이 섬멸하였다는 사실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흥미있는 전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전쟁이란 단지 인원과 장비의 많고 적은 것만으로 따져서 그 승패여하를 결정짓는다고 할진대 이는 싸우기 전에 벌써 승패가 판가름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쟁학은 통계학자가 담당하여야 될 분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례는 우리들에게 이와 반대로 적은 병력과 빈약한 장비로서 능히 많은 적을 격파한 예를 보여 주고 있으니 여기에 전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金龍鳳·鄭濟대대의 전승은 결사적인 용기로써 많은 적중에 뛰어든 것이고 불의의 기습으로써 적의 의표에 나갈 수가 있었으며 능히 주동적 입장에서 피동적 금지에 빠진 적을 격파한 것이고 미약한 의표로서 장비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은 본시 주동이어야만 하고 필승의 신념이 있어야만 하며 먼저 싸우기전에 적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전의가 충만하여야 된다는 것과 장비의 정예와 병력의 다과여하는 그 다음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병력의 분할사용은 불가하다.

공격에 있어서는 항상 적보다도 우세한 병력을 집중발휘하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데 적과 대등한 병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이것을 분할하여 적보다도 열세한 병력으로 승리를 거두어 보려는 것은 항상 지기만하는 도박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으리라. 이 싸움에서 우리 쪽은 적보다도 열세한 병력으로 공격을 기도하거나 반격을 감행한 결과 시원치 못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전법을 반복하고 있으니 용병의 부적절의 일례가 될만도 하다. 지휘관이 승리보다도 오히려 여비대의 보유에만 정신을 쓴다는 것은 필승의 신념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야간의 산지공격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야간에 산지를 공격하여 성공하였다가도 적의 치열한 포병화력으로 다시 진지를 물러나게 되는 싸움을 여러번 반복하였는데 이는 고지의 정상만을 四周방어하면서 포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야간에는 선상에 병력을 집결하여 배치할 것이 아니라 팔분능선을 四周로 진지를 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아군의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정상을 점령하는 즉시로 팔분능선상에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야간에는 정상의 가치가 방어에 불리하고 오히려 공격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 참전자의 증언

제1유격대장 鄭 震 소령

(1970년 3월 6일 서울 清源里자택, 예비역 대령)

우리는 모두 1,800명의 인원으로 본부를 제외한 7개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大邱에서 편성되어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채 작전명령에 따라 普賢山 지구에서의 싸움에 참가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게 되었다.

육군본부와 동행에 따라 忠孝洞쪽으로 내려오

는 적을 맞아 쳐 부수기 위해 출동하였다. 훈련이 되지 않은 부대가 가능한 공격 방법이 있다면 불의에 적 중심부를 격파하는 일이었다. 적의 행군대열이 우리의 앞으로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적은 다시 북쪽으로 분산된 채 흩어졌다.

蓬火峰을 점령한 우리들은 다시 普賢에서 내려오는 아군의 기갑연대와 제18연대와 서로 접촉하기 위해 일단 자천(慈川)국민학교에 주둔한 다음 보현산에 적 1개중대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 2개중대로서 훈련점 부대를 전진시켜 普賢山을 무난히 점령하였다. 여기서 80mm 박격포 2문과 50mm 구경기관총 1정 그리고 경기 2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려 크게 사기를 높였다. 그후 우리 부대는 普賢山에 잠복병만을 남겨 놓고 새로이 식탄 보급을 받아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중에 적 보급차량대열을 발견하게 되어 우리는 많은 전과를 또 다시 올리게 되었다.

적이 우리 반대쪽에 배치된 상황 아래 노획한 차량을 끄집어 내기 위해 당시 운전을 할 줄 알았던 대대 S—3을 맡고 있는 박준오대위가 밤중에 망가지지 않은 5대 차량을 끄집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트럭에는 포탄과 식탄 그리고 각종 물자가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우리 대대는 가야전투와 보현전투를 끝낸 다음 제8사단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제16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기룡산에서 우리 대대는 적의 포위로 완전에 빠졌으나 철전 끝에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지만 큰 200명의 희생을 입었다.

제16연대 소대장 대리 金日貞 하사

(1965년 11월 17일, 39사단본부, 대위)

우리 소대가 중강로 1개소대로서 普賢山을 공격하는데 인원은 48명가량이었다. 이때 그 지형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으며 아마도 立岩부근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일곱번이나 고지를 점령하고 뺏기고 하였다.

여기서 적이 던진 수류탄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갔으나 우리 소대의 병력은 20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다음에 딴 2개소대로서 점령했다고 한다.

제8사단 16연대장 金義鴻 중령

(1964년 11월 19일 대한 염업주식회사 감사실 예비역 준장)

蓬城에서 우리는 적 15사단이 南下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立岩으로 빠졌다. 여기서 우리 연대는 매우 전과가 컸었는데 적은 모든 신병들로서 주간에도 아무 영분도 모르고 남하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과를 취재하기 위해 放送局기사가 나와 있었다. 立岩에서 싸운 우리는 다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普賢山에 다시 방어진을 쳤다.

제1유격대 중대장 朴俊鎬 중위

(예비역 대령)

제1유격대가 창설된 것은 이해 7월 20일 경이라고 생각한다. 편성요원은 피난민과 호국군 중에서 뽑았다.

장교가 유격대 요원 중 1,200명 가량 되었는데 모두 방위군 장교들로서 그래서 분대장까지 그들 장교들이 맡았고 현역장교라고는 崔潤鍾, 鄭鎭, 朴俊鎬, 崔昌鎬 네 사람 뿐이었다.

大邱 북성국민학교에서 우리들은 제식훈련을 1주일가량 했고 전투훈련은 단 2일 뿐이었으며

당시 내가 중대장겸 작전장교로 있었다. 장비를 받기는 신령에 있었던 동해지구사령부에서인데 실제로 받기는 永川에서이며 이때 수령한 무기는 M I이었다.

처음 전투는 내가 인솔하는 1개 중대로서 九山洞청사였는데 우리들이 들어가니 九山洞 앞에는 공병부대가 있었고 이들은 야간 싸움에서 적과 서로 머리를 만져 보며 백병전을 감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忠孝洞으로 들어가 △504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2.36인치 로켓포 5-6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기갑연대의 남하를 엄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적 보급차량을 습격하였고(본문참조) 여기서 3대의 차량을 얻었다.

우리 부대는 그 후 기계로 빠졌다가 가산전투에 참가하고 또 다시 忠孝洞쪽으로 와서 제16연대 진지를 인계 받았다.

騎龍山 전투 때에 나는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姜文奉대령에게 우리 부대를 8사단에서 빼달라고 건의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니 부대가 적으로부터 이미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제5연대장에게 원군을 달라고 애원하고 나중에는 사단장에게까지 요청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 가지고 보니 제16연대가 빠져 나오는데 우리 부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물었다. 나중에 나는 부상 당해 나오는 부대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 참전자의 약력

金 白 一

1546. 1. 15 임관(군영반)
46. 2. 26 제3연대 중대장
46. 3. 13 제3연대 대대장
46. 12. 23 제3연대장
47. 9. 20 OTC Ex OFF
48. 10. 23 제5여단장대리
49. 1. 15 제6여단장
49. 7. 16 육군보병학교장
50. 1. 15 제3사단장
50. 4. 20 육군본부 참모부장대리
50. 7. 12 육군준장 진급
50. 8. 2 제1군단 부군단장
50. 9. 1 제1군단장
51. 3. 28 실종

白 仁 烽

1946. 1. 15 陸軍소위임관(군영반)
48. 2. 10 제1연대
48. 7. 17 제4여단
48. 8. 5 제12연대장
48. 11. 26 제17연대장
49. 7. 15 육군대령진급
50. 8. 8 수도사단장
50. 9. 1 육군본부 정보국장
50. 10. 24 육군준장 진급
51. 1. 14 제1훈련소장
52. 1. 10 제6사단장
52. 11. 15 육군소장 진급
53. 5. 1 육군본부
54. 6. 5 제9사단장

劉 興 守

1946. 1. 15 육군소위임관(군영반)
49. 3. 3 제5여단
49. 5. 24 기갑연대 부연대장
49. 7. 30 기갑연대장
50. 5. 1 육군대령 진급

50. 8. 15 제3훈련소장
50. 9. 18 제7훈련소장
50. 9. 25 제11사단 제13연대장
50. 11. 11 제1사단 연대장
51. 8. 3 경북병사구사령관
51. 10. 21 육군본부 감찰감
52. 11. 10 제6사단 부사단장
53. 1. 11 제20사단장
53. 1. 25 육군준장 진급
53. 6. 10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白 南 權

1946. 3. 23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6. 4. 1 제5연대 제 소대장
47. 4. 3 제2연대 제2대대장
48. 2. 28 제8연대
49. 5. 29 제3사단 제5연대장
50. 5. 1 육군대령 진급
50. 8. 15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50. 10. 24 수도사단 부사단장
51. 5. 23 제3사단장
51. 5. 25 육군준장 진급
52. 10. 10 육군사관학교장
52. 11. 15 육군소장 진급
53. 5. 9 육군본부

韓 信

1946. 12. 14 육군소위 임관(육사 2기)
47. 6. 22 Hgkc 법무장교
48. 11. 29 제3여단 제8연대 제1대대장
49. 10. 8 수도사단 고급부관
49. 11. 30 제18연대 부연대장
50. 5. 1 제18연대장
50. 8. 8 제1연대장
50. 10. 25 제9사단 제29연대장
50. 11. 11 수도사단 제1연대장
51. 7. 23 제5훈단 독립제1연대장
51. 10. 20 제117연대장
52. 3. 10 보병학교 교수부전술과장
52. 8. 10 제5사단 참모장
53. 5. 5 제5사단 부사단장

金 熙 滿

1946. 12. 14 육군소위 임관(육사 2기)
47. 6. 1 제4연대 제1대대부관
47. 11. 22 제4연대 제1중대장
48. 6. 1 제12연대
49. 1. 6 제2여단
49. 3. 11 제17연대
49. 7. 5 제17연대장
50. 7. 8 육군대령 진급
50. 8. 7 제17연대장
51. 2. 1 제9연대장
51. 4. 17 육군보병학교 교무과장
51. 5. 8 경남지구위수사령부 기획차장
52. 1. 25 육군보병학교 학교학생연대장
52. 5. 30 제39연대장
52. 10. 8 제6사단 참모장
53. 6. 28 제6사단 부사단장

金 龍 周

1946. 6. 15 육군소위 임관(육사 1기)
46. 6. 15 제5연대 제 소대장
47. 9. 16 제5연대 제1대대 부대대장
48. 11. 12 총사령부
50. 2 25 육군보병학교 참모장
50. 8. 27 제8연대장
50. 10. 30 육군대령 진급
51. 1. 15 제1훈련소 부소장
52. 6. 16 제1훈련소 참모장
53. 1. 7 포병으로 전과

53. 2. 19 보병으로 전과
53. 2. 19 제6사단 부사단장
53. 6. 28 제25사단 부사단장

崔 昌 彦

1946. 5. 1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7. 1. 16 제4연대 제1대대장
47. 7. 16 제4연대 제2대대장
47. 7. 25 OTS B중대장
48. 10. 11 총사령부 공병단장
48. 12. 15 육군본부 공병감
49. 6. 20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49. 7. 1 육군참모학교 교관
49. 8. 12 제2사단 참모장
50. 1. 3 육군참모학교
50. 8. 26 육군대령 진급
50. 8. 27 5연대장
50. 9. 30 제7사단 부사단장
51. 4. 1 제2훈련소장
51. 7. 22 제6사단 부사단장
52. 6. 16 제1훈련소 부소장
53. 4. 28 육군준장(임시) 진급
53. 5. 1 수도사단장

3. 龍基洞附近戰鬪 (50년 8월 2일부터 50년 8월1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4호
상 황 도 제3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2군단 장 군장 劉載興	제19연대 장 대령 閔丙權
제6사단 장 군장 金鐘五	지 원 부 대
제2연대 장 대령 咸炳善	포병제16대대 장 소령 金聖
제7연대 장 대령 林富澤	

적 군

제2군단 장 중장 金武亭	제23연대 장 대좌 太炳烈
제13사단 장 소장 崔鏞鎭	지 원 부 대
제9연대 장 대좌 金炳喆	포병연대 장 미 상
제21연대 장 대좌 李成俊	

나. 전투 전의 개황

제6사단은 聞慶과 咸昌지구전투에서 전차를 동반한 적 제13사단과 대치하여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적의 작전을 지연시키는 한편 쇄도해 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다.

적은 咸昌을 점령한 다음 咸昌과 醴泉사이를 봉쇄(封鎖)할 야욕으로 공격을 해 왔으나 아군 제6사단은 적에 대하여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인접 제1사단 및 제8사단과 긴밀한 협조로서 店村과 咸昌을 연하는 선의 北쪽에서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이 지역의 싸움에서 玉女峯과 烏峯 그리고 烏井山을 사이에 두고 피아간에 2~3차에 걸쳐 공방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적은 하는 수 없이 洛東江 北쪽에서 부대를 재편성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적은 보급거리가 연장되어 보급지원이 부진하였고 UN군의 전략적 폭격으로 그 사기(士氣)는 저하 일로(一路)에 있었으며 병력의 대량 손실로 말미암아 강제 모병한 의용병에 의존하여야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군의 강력한 방어작전으로 적의 야욕이 좌절됨에 따라 적은 전의를 잃게되었

으나 8월 15일 해방기념일 행사를 大邱에서 거행하여야 한다는 金日成의 강요로 부대를 증원하여 일거에 洛東江을 도하한 다음 大邱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반면, 아군 제6사단은 계속되는 후퇴작전으로 개전초기에는 사기(士氣)가 저하되었으나 악전고투에서 체험한 전투경험과 UN군의 공중지원 등으로 점차 사기(士氣)는 높아져 가고 있었다.

이와같은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으려고 咸昌지역 방어선을 물러서서 洛東江 방어선의 일부인 龍基洞 지역으로 이동하여 洛東江의 천연적 장애물과 우세한 공군력을 이용, 일대격멸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陽谷洞 지역 전투(별책부도 제4호 No.1)

8월 1일 : 咸昌지역에서 지연전을 계속하고 있던 제6사단은 제2군단장 劉載興준장으로부터 龍基洞지역으로 이동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적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은 제19연대(関丙權대령)를 洛東江 南쪽의 주요고지에 이동 배치하여 제2 및 제7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계획 하였다.

8월 2일 : 제19연대(関丙權 대령)는 이날 04.00경 제1대대를 五仙藁(△352)에, 제2대대를 獨店山(△312)에, 그리고 제3대대를 烽火山(△400)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제19연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洛東江을 도하한 제2연대는 龍基洞에, 그리고 제7연대는 魯淵洞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으며 곧 다음 전투를 위한 제반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제6사단(金鐘五준장)의 西측은 제1사단 東측은 제8사단과 서로 인접하여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방수책(防守策)을 세운 다음 이 뜻을 전 예하부대에 시달하였다.

8월 3일 : 제2연대(咸炳善대령)는 이날 06.00경에 龍基洞에서 橋安洞과 307高地를 연하는 능선의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龍基洞 東北방 13km지점으로 이동하여 三春洞 능선일대를 점령한 다음 굳게 지키고 있었다. 또한 사단포병인 포병제16대대(金 聖 소령)의 각 포대는 연대지역에서 직접지원토록 배치하는 등 방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이때 洛東江 南단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던 제19연대(関丙權대령)는 야음을 이용하여 洛東江을 은밀히 도하한 적 약 1개대대의 병력과 서로 교전 중이었다. 적은 제19연대의 끈질긴 저항을 무릅쓰고 후속부대를 계속 증원하므로서 그 병력이 약 1개 연대로 증가 되었으며 그 중의 2개 대대 규모의 적은 제19연대 제3대대 東측방으로 우회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8월 4일 : 제2연대장(咸炳善대령)은 이날 06.00경에 남하 하는 적을 저지 격멸하라는 사단장(金鐵五준장)의 명령을 받고 즉시 307 高地에서 방어중인 제2대대를 安心洞 北쪽 고지로 이동 배치하여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한편 이날 07.00에 제7연대의 제2대대 및 제3대대는 제19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부대이동 중 294高地 전방에서 약 2개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불의에 기습을 당하여 분산되고 말았으나 기습의 효과는 이렇게 큰 것이었다. 또 제19대는 08.00에 적으로부터의 공격으로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제19연대장(閔丙權대령)은 사단장의 승인을 받고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南쪽으로 물러나던 중 제7연대 제2 및 제3대대를 모두 통합 지휘하여 龍基洞에 집결한 다음 곧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이날 13.00경에 이르러 제19연대는 제2대대를 龍基洞 2 km 北방에 제1 및 제3대대를 陽谷洞 일대능선에 배치하여 적의 진격을 막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약 1개연대 규모의 적은 전차 5대를 선두로 하여 남진을 계속하므로 제6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龍基洞에서 桃源洞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예하 제2연대는 渭城洞에, 제7연대는 雙溪洞에, 제19연대는 大興洞으로 각각 지휘소를 이동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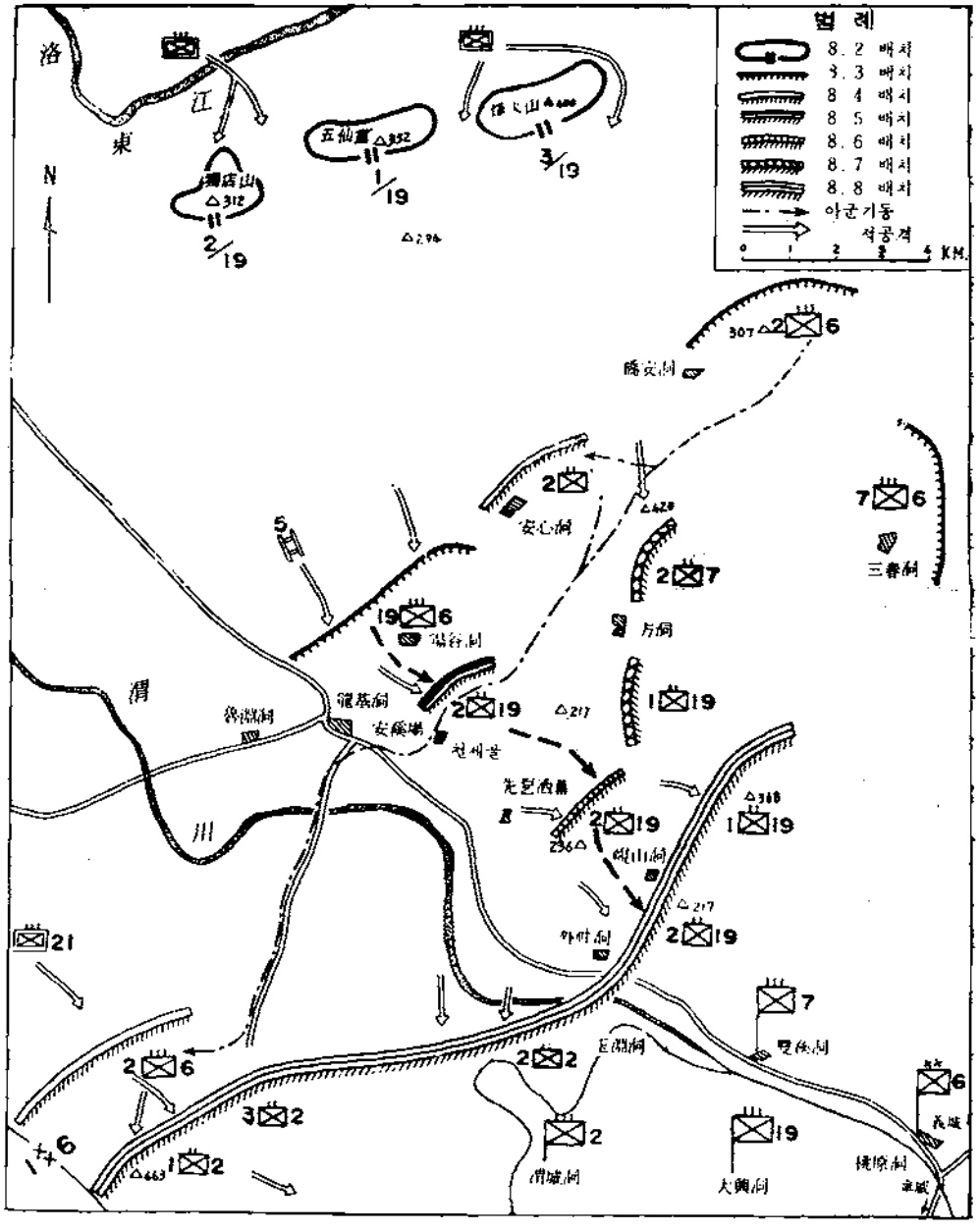
또한 橋安洞과 307高地 사이에 배치된 제2연대의 제1대대를 葛峴洞 北쪽능선에, 제3대대를 長局洞일대에, 그리고 安心洞에 있는 제2대대를 龍蛇洞에 이동하여 西측방을 고수토록 조치하였다.

8월 5일 : 龍基洞과 陽谷洞을 연하는 능선일대에서 방어중이던 제19연대는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확보하였으나 적은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9연대장(閔丙權대령)은 龍基洞 北쪽에서 방어중인 제2대대를 18.00경에 龍基洞 1km 南쪽에 위치하고 있는 천세골과 鳳陽洞일대로 이동 배치케 하였으며 사단장은 龍基洞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중인 제7연대의 제2 및 제3대대의 일부를 급파(急派)하여 적의 진출을 막아내도록 하였으나 적의 치열한 포위공격으로 22.00경에 이를 철수시킨 다음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적 제13사단의 제21연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제2연대의 제1 및 제3대대 지역을 돌파하려고 발악적인 공격을 하여 왔으나 아군의 제1사단과 협조하여 실시한 지연작전으로 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또한 제2연대의 제2대대는 玉淵洞 부근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한 다음 제19연대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연대 東측방을 방어하게 되었다.

8월 6일 : 陽谷洞 부근에서 방어 중이던 제19연대는 작일부터 계속되어 온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진지를 물러나게 되어 제1 및 제3대대는 각각 연대지휘소로 집결하는 즉시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제2대대는 14.30경 先覺酒幕 南쪽 고지로 이동하여 새로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제2연대의 제1대대는 적 1개 연대 이상의 규모인 부대가 계속 남하

상황도 제3호 前基洞부근전투 (50.8.2~12)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으로 보다 유리한 지역에서 지연작전을 전개코자 이날 18.00경에 463高地로 이동한 다음 급편(急編), 방어를 실시하게 되였는데 뒤에 제3대대의 작전을 지원하게 되였다.

(2) 先乏酒幕 지역 전투 (별책부도 제4호 No-2)

8월 7일 : 先乏酒幕 南쪽 고지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01.00경부터 약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격전을 거듭하던 끝에 外谷洞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한 다음 그곳 北쪽 고지를 점령하여 지키게 되었다. 적은 先乏酒幕을 거쳐 236高地에 접근하면서 산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사단 東측방을 막아낼 목적으로 제7연대의 제2대대를 方洞 東北방 지역에, 그리고 제19연대의 제1대대를 方洞 西측방 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12.00에는 제19연대 제1대대가 드디어 西北방 3km 前방에 있는 217高地를 점령하고 제2대대와 교전 중인 적의 측면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증원으로 말미암아 원 진지로 물러 서게 되었다.

제2대대는 적과 교전 중 外谷洞으로 물러나서 집결한 다음, 연대 예비대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제1대대는 제2대대가 예비대로 배치됨과 동시에 그 西측방이 노출 되였으므로 23.00경부터 368高地로 물러나서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제2연대의 제1 및 제3대대는 약 2개 대대 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격퇴하고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제7연대의 제2대대는 420高地를 공격중인 약 1개 연대 규모의 적과 크게 싸워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20.00경에 方洞 南쪽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8월 8일 : 雙溪洞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던 제7연대의 제3대대는 11.00에 現山洞 北쪽으로 이동배치하였으며,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제1대대 및 제7연대 제2대대의 2개 중대의 지원을 받아 先乏酒幕부근까지 진출한 약 2개 대대 규모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16.00경에 제19연대 제1 및 제2대대는 제7연대 제2대대의 2개중대와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약 1개 연대 규모의 적을 先乏酒幕 北쪽으로 격퇴하였다.

한편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23.00에 236高地를 점령하여 재 편성을 하고 있던 차에 패주하고 있던 적의 일부가 東측방으로 역습을 감행하여 왔으나 치열한 싸움 끝에

이를 격퇴하고 계속 진지를 강화하였다.

(3) 玉淵洞지역 전투 (별책부도 제4호 No.3)

8월 9일 : 236高地를 방어 중이던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약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철야 격전 끝에 적을 격퇴시키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날 03.00에 적은 증원병력을 다시 투입하여 재 공격을 시도함으로서 진지를 또 다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세(戰勢)에 따라서 사단장(金錫五준장)은 15.00에 제7연대(林富澤대령)를 鳳陽洞과 조동일대에, 그리고 제19연대(閔丙權대령)는 236高地에서 철수한 제2대대를 포함하여 조동과 外谷洞일대를 각각 점령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하는 한편 제2연대의 제2대대는 玉淵洞과 幕洞을 연하는 능선 일대에서 광정면방어를 하였으며 제19연대는 전면의 적과 지연전을 계속하였다.

8월 10일 : 약 1개 대대 규모의 적은 03.00부터 洛東江의 지류(支流)인 渭川을 건느기 시작하여 제2연대 제2대대의 방어진지로 은밀히 침투하여 幕洞과 玉淵洞사이로 급습(急襲)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제2연대의 제2대대장은 제5 및 제6중대를 장현동 南쪽 능선으로 이동 배치케 하여 雙溪洞 방향으로 남하하는 적을 막아내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2연대의 제3대대는 07.00부터 증강된 적 약 2개 대대와 교전중에 있었으나 그대로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8월 11일 : 적은 이날 01.20부터 주공을 제19연대 정면인 236高地로 지향하고 전 사단 정면에 걸쳐 일대공격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제7연대의 제1대대는 각종 화력을 집중발휘하여 제19연대를 극력 지원하였으며 제19연대장(閔丙權대령)은 제2 및 제3대대 사이에 있는 공간지역을 봉쇄(封鎖)하기 위하여 부대를 다시 조정 배치하였으나 적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제2대대는 02.15부터 통신이 두절되고 진지가 무너지게 되었고 제3대대는 적으로부터 협공(挾攻)을 당하여 일시나마 고전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제2대대는 05.00에 제7연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峴山洞으로 철수하여 217高地를 점령, 방어하게 되었다. 적은 제19연대 정면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일부병력을 291高地로 우회시키는 동시에 제7연대를 포위 공격하였으므로 이날 10.30부터 제7연대의 각 대대는 제19연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316高地로 이동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이때 제2연대 지휘소는 渭城洞으로부터 安嶺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8월 12일 : 제6사단은 이날 22.00부터 숫적으로 우세한 적과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전면

적인 철수를 단행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를 배치하였다.

제 7 연대 제 2 대대 鷹峰山
제 1 대대 不老洞
제 3 대대 城 洞
제 2 연대 제 2 대대 老杏洞
제 1 대대 道境洞
제 3 대대 靑路洞
제19연대 제 1 대대 山雲洞

그리고 제19연대 제2 및 제3대대는 邑內洞에 집결, 사단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은 제2연대 지휘소를 梨花洞에, 제7연대 지휘소를 錦梅洞에, 제19연대 지휘소를 邑內洞으로 각각 이동시켜 차기작전을 위한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각 연대는 진지를 강화하면서 적정탐색을 위하여 수색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전선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포격전만 계속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6사단은 지연전을 계속하는 동안 가용시간 및 병력의 부족 등으로 부대정비는 물론 방어진지를 완비하지 못한 채 계속 작전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사단장은 약 12km 南쪽에 위치한 鷹峰山과 山雲洞사이를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준비하여 적을 최대한 저지할 결심으로 부대를 이동 배치하는 한편 2개 대대의 예비대를 확보하여 놓고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지연전의 방책(方策)을 세우게 된 사단장은 적정탐색을 위한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제7연대의 제3대대를 軍威에 진출시켜 남하중인 적과 접적을 유지하여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를 하면서도 공세적인 작전활동을 펴게 되었다. 이 반면 적은 8월 15일 이전에 大邱를 점령하려는 야욕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으나 계속 부대를 증강하여 남하 중이었으므로 제6사단은 軍威와 義興사이에서 유리한 지형을 축차적으로 점령하면서 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을 유인(誘引)하여 소기(所期)의 목적인 지연전을 계속 감행할 계획이다.

§ 교 훈

◇ 전투경계선상의 약점

야간에 있어서 부대와 부대간의 공간을 방어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경계선상에 국지 경계병을 배치하거나 또는 부대를 다시 조정 배치하는 수도 있을 것이며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그 일례(一例)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약점에 대한 방어는 광정면을 담당한 부대일수록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19연대장(閔丙權대령)은 약 10km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하였지만 8월 10일의 야간방어에 있어서 제2대대와 제3대대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부대를 다시 조정 배치하므로서 적의 강력한 공격기세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천연 장애물의 이용

洛東江과 같은 천연적인 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6사단은 洛東江邊의 고지를 이용하여 엄호부대로서 1개 연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2개 연대는 洛東江 南쪽 12km지점에 있는 橋安洞과 307高地를 연하는 선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적은 洛東江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 큰 피해없이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남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 참전자의 증언

제19연대 분대장 任鎬濱 이등 중사

(1965. 8. 7. 제6사단사령부, 현역 준위)

우리 부대는 安溪場에서 국민학교 교정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 및 제2의 양개 대대가 적에게 포위될 상태에 있었으므로 철수가 어렵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부대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을 받고 1개 분대의 병력과 신품(新品)기관총 4정을 가지고 주간에 대체적인 화기위치를 정찰한 다음, 야간에 진지를 점령하고 화기를 배치하였다.

나는 적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광탄을 사용하였다. 이때 이영근중위가 찾아와서 제1 및 제2대대가 02.00부터 03.00사이에 꼭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돌아갔다.

나는 분대원을 격려하는 한편 지휘자로서의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대원과 같이 수차에 걸쳐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적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분전(奮戰)하였다. 그로 인하여 적의 포사격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영근중위가 달려와서 제1 및 제2대대가 완전히 철수하였으니 원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우리는 기쁜 반면 긴장이 풀려, 축 늘어져서 위생병의 부축을 받고 부대로 돌아갔다.

4. 軍威·義興附近戰鬪 (50년 8월 13일 부터 50년 8월 29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5 호
상 황 도 제 4 호
작명부록 제9.15.25호
훈령부록 제12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2군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6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1대대 장 소령 李 柱 亨
제2대대 장 소령 文 正 植
제3대대 장 소령 李 雲 山(8.26·전사)
제3대대 장 소령 宋 大 厚(8.29·보직)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제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3대대 장 소령 趙 漢 燮
제19연대 장 대령 閔 內 權(8.21·보직 변경)
제19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제1대대 장 소령 許 容 尤
제2대대 장 소령 金 濟 善(8.26·전사)
제2대대 장 대위 金 旭 豪(8.27·보직)
제3대대 장 소령 金 志 赫(8.26·부상)
배속 부대
閔부대 장 대령 閔 機 植(8.20·보직 변경)
제5연대 장 중령 李 暎 圭(8.26·전사)
제5연대 장 대령 崔 昌 彦(8.27·보직)
제1대대 장 미상
제2대대 장 소령 申 律 善
제3대대 장 미상
기갑연대장 대령 白 南 權
지원 부대
포병제16대대 장 소령 金 聖

적 군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1사단 장 소장 洪 林
제2연대 장 대좌 黃 石
제3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14연대 장 대좌 崔 昌 權
지원 부대
포병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81연대 장 중좌 李 學 來
제82연대 장 중좌 史 勢
제83연대 장 중좌 吳 充 燮
배속부대 제103연대 장 미상
지원 부대
포병연대 장 중좌 金 명 항

나. 전투 전의 개황

제6사단은 龍基洞 부근에서 적13제사단과 대치하여 지연전을 계속하는 동안 적의 공격기세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작전활동을 펴 적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즉 적이 점령한 217高地 및 236高地를 반격하여 양 고지를 확보하였으며 先乙酒幕 부근에 진출 중인 적 약 1개 연대 규모를 공격하여 적을 北쪽으로 격퇴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적은 洛東江으로 인한 공격의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야음을 이용, 연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洛東江을 도하하게 되었다.

적은 龍基洞 부근 전투에서 龍基洞과 陽谷洞, 그리고 先乙酒幕 방향으로 주공을 지향하여 軍威를 점령한 다음 적 제13사단을 뒤 따르면 적 제1사단을 西측방으로 투입하여 계속 남하 중 이었다.

또한 적은 軍威 義興 사이에 있는 험준한 산악(300~600m)을 이용하여 기습작전을 실시함으로써 大邱로 침입하려는 야욕을 실현하려 했다.

그러나 적은 龍基洞 부근전투에서 제6사단 (金鍾五준장)의 조직적인 지연전과 반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한 보급지원도 거의 현지조달에 의존하는 등 사기는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반면 아군 제6사단은 원활한 보급지원과 항공지원등으로 사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으며 전투의식은 더욱 고취되어 가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 개요

(1) 梅鳳山(△488)지역 전투(별책부도 제5호 No-1)

8월 13일 : 제6사단은 龍基洞부근 전투에서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오위洞, 峴山洞, 318地高를 연하는 선에서 방어하던 중 군단 작전명령 제12호를 받고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인접 제1 및 제8사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桃源里, 軍威, 義興을 경유하여 Y방어선의 일부인 鷹峰山과 山雲洞을 연한 일대로 철수하여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18.00에 華水洞으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사단 西측방에는 제1사단과, 그리고 東측방에는 제8사단과 인접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적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간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야간에는 경계초소를 증강하는 등 전투태세를 완비하는데 힘썼다. 또한 적을 기만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제7연대 제3대대를 402高地로 진출시켰으나 이날 09.00에 軍威에서 남하하던 약 2개대대 규모

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이 고지를 탈취 하지 못하고 저지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3대대(趙漢燮소령)는 21.45에 1개중대를 정면으로 1개중대를 右측 방향으로 우회케 하여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약 2시간동안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도 402고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24.00에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8월 14일 : 적은 오전중에 포격전을 계속하더니 13.00에 이르러 제7연대 제2 및 제3대대 정면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조직적인 방어작전으로 적을 진전(陣前)에서 저지하고 계속진지를 확보하는 한편 가용(可用)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적은 공격기세가 약화되어 15.00에 北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한편 아군 제7연대의 사기는 높아져 가고 있을 뿐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신력을 더욱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이날은 제7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적과의 접적없이 계속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8월 15일 : 이날 미명(未明)을 기하여 安東으로부터 軍威에 집결한 적 제1사단은 전차 3대를 앞세우고 제7연대 정면을 돌파할 기세로 일제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따라서 57번 도로를 左右로하여 배치되었던 제1 및 제3의 양개대대는 완강한 저항으로 적을 막았으나 우세한 적에게 대대간의 제한접을 돌파 당하여 제3대대는 並水洞 南쪽일대에, 그리고 제1대대는 內梨洞 南東쪽 일대에, 또 제2대대는 391高地일대에 각각 이동 배치되었다.

한편 군단장(劉載興준장)은 제7연대 상황의 긴급성을 우려하여 군단 작전명령 제14호로 제1사단예하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여 제7연대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적을 극력 저지코자 하였으나 제1사단 정면의 전황이 돌변하여 이부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19연대 제2대대(金濟善소령)를 제7연대의 서측방 492高地 일대에 이동 배치하였다.

제2연대 정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적 제7사단은 義城에서 禮安 방면으로 남하 중이었으며 적 제8사단예하 제81연대는 安東에서 남하한 적 제8사단사령부와 같이 義城을 경유하여 계속 남침 중이었다. 이날 14.00에 백장골에 집결한 적 제81연대의 일부는 아군 제2연대 제3대대 정면에서 수색활동을 계속하다가 제3대대(李熙山소령)와 포병 제16대대(金 聖소령)의 A포대의 포격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퇴각하게 되었다.

8월 16일 : 적 제1사단은 아군 제7연대 정면에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었으며 적 제8사단은 그 사령부를 義城에 설치하고 이날 여명(黎明)을 기하여 예하 제82 및 제 83의 양연대를 아군 제2연대(咸炳善대령)정면에 투입하여 공격하여 왔다.

아군 제7연대는 13.00에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진지를 물러나게 되어 연대장은 제1대대를 梅鳳山(△488)에, 그리고 제2대대를 365高地에, 또 제3대대를 水洛洞 지역으로 각각이동시켜 다시 배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진지를 점령한 제7연대는 원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반격준비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제19연대는 평온한 가운데 계속 진지를 강화하고 경계태세의 완벽을 기하고 있었다.

8월 17일 : 이날 아군 제2연대 정면에서 부터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작일 이후부터 소규모의 접전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단장(金鐘五준장)은 제7연대와 동일선상에서 방어토록 하기 위하여 이날 14.00에 제2연대를 철수하여 그의 제2대대를 羅湖洞 西北쪽으로부터 國通山(△ 336)西南쪽에, 또 제1대대를 國通山(△ 336)을 중심으로하는 甲狀谷 일대에, 그리고제3대대의 제10중대를 北洞 北쪽에 배치케 한 다음 그 나머지는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하여 예비대로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여명(黎明)을 기하여 梅鳳山(△488)까지 진출한 약 1개 대대규모의 적의 공격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제1(金龍培중령) 및 제3(趙漢燮소령)의 양개대대를 병행시켜 반격작전을 감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5.00에는 梅鳳山(△ 488)으로 부터 1km西北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365高地 北쪽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중 전차를 동반한 적 제14연대로 부터 공격을 받아 백병전을 전개하다가 20.00를 기하여 진지를 물러나게 되어 錦梅洞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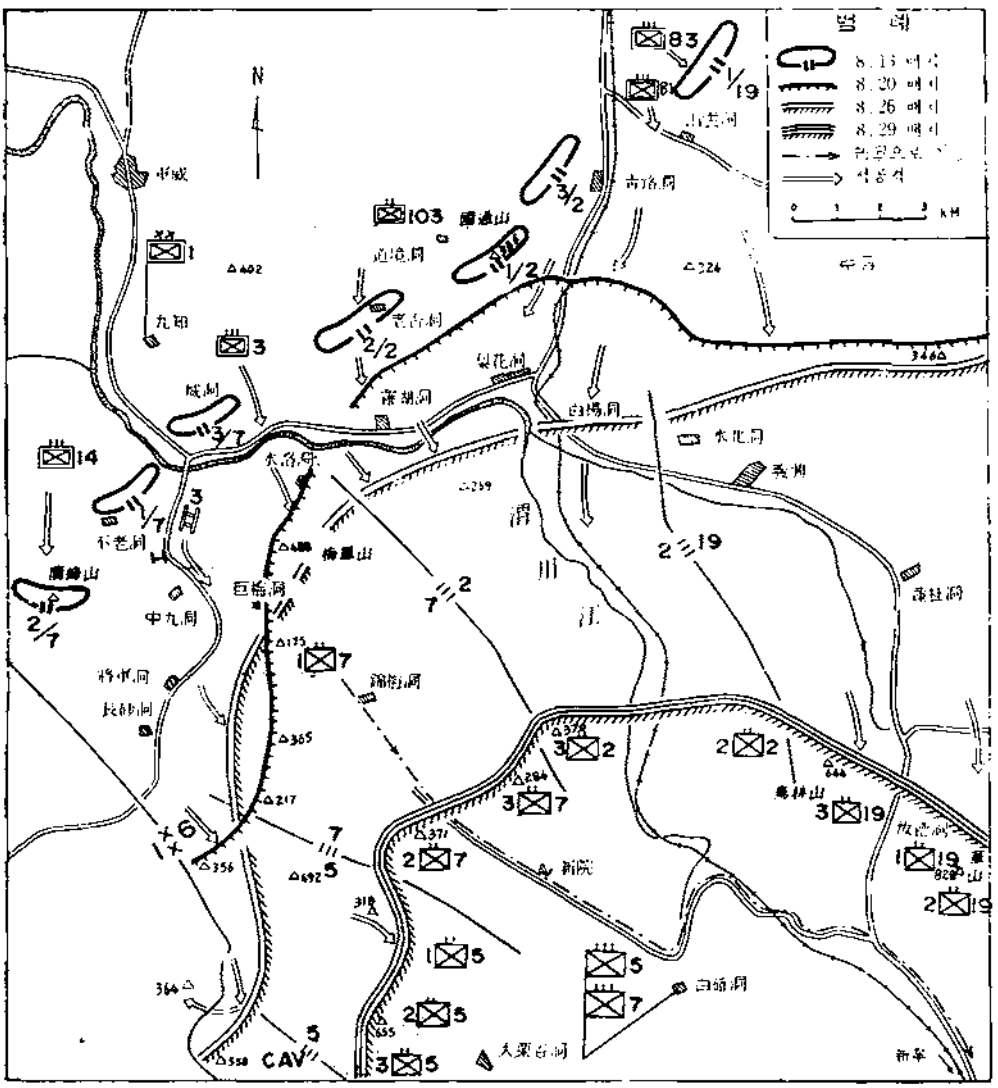
또한 제19연대의 제2대대(金濱善소령)는 제7연대의 제2대대의 철수로 말미암아 적으로 부터 東측방에서 위협을 받았으나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 東측방을 지키고 있던 제19연대의 제1대대(許容尤소령)는 적 제83연대의 1개 대대가 공격을 가하여 옴으로서 이 적과 약 2시간 동안에 걸친 격전을 벌여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니 이는 확고한 고수정신의 고양(高揚)을 뜻하는 것이다.

(2) 365高地 지역 전투(별책부도 제5호 No-2)

8월 18일 : 아군 제7연대의 제2대대(金鍾洙중령)는 이날 04.00에 포병 제16대대(金 聖 소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錦梅洞으로부터 반격을 시작하여 20.00에는 약 1개대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여전히 365高地를 확보하였다. 이날 14.00에 美전폭기 1개편대는 제2연대의 제1대대 정면으로 남하하는 적 전차 3대를 격파하였으며 義興 지역에서 예비대 임무를 맡고

상황도 제 4 호 軍威 義興 부근 전투 (1950. 8. 13~29)



있던 제19연대 제3대대는 제1대대 東측방인 346高地로 이동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2연대(咸炳善대령)는 약 1개연대 규모의 적과 교전하면서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7연대의 제2대대(金鍾洙중령)는 22.00경 492高地를 방어하고 있는 제19연대 제2대대와 합동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지역내의 적을 격퇴시키는 한편 將軍洞과 365高地를 연하는 산골자기에서 잠복하고 있던 적을 발견, 이를 섬멸하였다. 이와 같은 작전에서 제7연대는 30명의 적을 사살하고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8월 19일 : 적 제1사단의 제14연대 소속인 2개대대는 이날 여명(黎明)을 기하여 아군 제7연대의 주진지(主陣地)를 돌파코자 365高地를 확보하여 방어하고 있던 제2대대를 목표로 일시에 급습(急襲)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나 제2대대는 끝까지 버티면서 이 적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적의 압력을 받게 되자 20.00에 하는 수 없이 365高地 東쪽 錦梅洞 일대로 이동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1 및 제3대대는 적 1개 대대와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진지를 끝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水北洞 北쪽 고지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19연대(閔炳權대령)는 이날 04.00부터 陽地洞쪽으로부터 남침하는 적과 교전 중이었는데 적의 소수병력이 당돌하게도 계속 침투 하여 왔기 때문에 水北洞 부근에서 이를 포착, 섬멸하여 버렸으나 마치 등불에 뛰어든 부나비격이 되고 말았다.

이 당시 포병 제16대대의 B포대는 사라동에서 제2연대를, 그리고 C포대는 中洞에서 제19연대를 직접 지원하여 적에게 포탄세례를 퍼부었다.

8월 20일 : 이날 美전폭기의 대거 출격으로 전 전선에 걸쳐 적을 제압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적들이 거의 머리조차 들지 못하여 비교적 평온하였으나 08.20에 이르러 적 제14연대의 1개 대대는 아군 제19연대의 제2대대(金濟善소령)가 지키고 있던 492高地와 217高地의 중간으로 침투하여 측방을 위협함으로 10.00에 211高地 東南쪽까지 철수한 다음 11.00에 美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격을 시작하여 15.00에는 492高地 北쪽 능선을 점령한 다음 진지를 강화 하였다.

한편 이날 浦項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었던 閔부대(閔機植대령)는 新寧에 도착하여 제6사단과 제1사단 사이의 梅谷洞 계곡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여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1대대는 제19연대의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는 한편 그 제2대대는 大栗谷洞의 655高地를 점령 방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関부대는 그날로서 제5연대로 개칭되어 연대장에는 李映奎 중령이 임명되었으나 李 중령의 부임이 지연되었으므로 제7연대장(林富澤대령)의 지휘를 받아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 鳥林山 北方지역 전투(별책부도 제5호 No-3)

8월 21일 : 기갑연대장 白南曦 대령은 군단 작전명령 제17호를 받고 즉시 부대를 지휘하여 鷹秋洞으로 이동한 다음 제1사단과 제5연대 사이를 연결한 방어진지를 편성할 목적으로 558高地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15.00에 龍水洞으로 이동하였다.

적 제1사단의 제3연대는 아군 제7연대의 제 3대대 정면인 並水洞을 거쳐 남침하였고 적 제2연대는 아군 제6사단의 제2연대 정면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는데 적은 막대한 병력손실을 입었다.

한편 492高地일대에서 방어 중인 제5연대의 제1대대는 적제14연대의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의 공격을 받고 이날 미명(未明)부터 교전중 병력과 장비가 우세한 적에게 밀리는 바 되어 진지를 물러나 211高地 西측방으로 후퇴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한 끝에 08.00부터 반격을 시작한 결과 11.50에는 492高地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

또한 아군 제5연대의 제2대대는 커다란 싸움없이 527高地를 점령한 다음 곧 梅谷洞으로 진출하여 적 1개대대 미만과 20.00까지 교전하였다.

한편 제19연대의 제2대대(金濟善중령)는 제5연대의 제1대대에 방어임무를 인계한 다음 新花洞에 집결하였다가 원대로 복귀하였다.

이 당시 아군 제2연대의 제1대대(李桂享소령)는 적 약 1개중대의 양동(陽動)공격을 받고 杜谷洞까지 일시 물러났으나 그 뒤에 곧 대대의 일부병력으로써 반격을 단행하여 11.50에는 國通山(△366)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또, 아군 제19연대는 적 제83연대에게 진지를 빼앗기게 되었으나 아군측의 공중지원 및 포병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반격을 단행하여 20.00에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그 제1대대(許容尤소령)는 순중洞까지 그리고 제3대대(金志赫소령)는 桑洞까지 일거(一擧)에 진출하여 즉시 방어 진지를 점령하였다.

8월 22일 : 제5연대 제2대대는 적의 압력에 견디기가 어렵게 되자 06.00에 梅谷洞으로부터 527高地로 철수하여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梅鳳山(△488)방어 중이던 아군 제7연대의 제3대대(趙漢燮소령)는 적 제3연대의 1개대대 규모의 동등한 병력의 공격을 받고 07.50에 대대의 일부를 南쪽으로 철수하였다가 17.00에 美공군의 지원을 받아 반격을 감행하여 21.

50에 이高地(△488)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아군의 제2연대의 제1대대는 18.00에 적 제81연대의 증강(增強)된 1개대대의 반격을 받고 싸우다가 적의 압력에 밀리는 바 되어 남쪽능선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진지가 강화되고 공군력이 증강되자 낮보다는 밤을 이용한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었다.

8월 23일 : 이날 20.00에 孝令과 中九洞쪽으로부터 각종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약1개연대로 추산(推算)되는 적이 아군 제7연대의 제1(金龍培중령) 및 제2대대(金鍾洙중령)가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공격하여 왔으므로 아군은 전력(全力)을 다하여 막아내었고 적은 드디어 분산(分散)한 상태에 빠져 퇴각(退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21.00부터 공세로 이전(移轉)하여 많은 전과를 거둔 다음 다시 원진지로 복귀하게 되었다.

한편 아군 제5연대의 제1대대는 1개대대 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 적과 끝까지 싸워 결국 물리치고 말았다.

사단 서측방을 담당하고 있던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이날 18.00에 558高地를 공격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약 1개대대 규모의 적과 2시간에 걸친 육박전을 전개한 끝에 20.00에 이르러 이 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고 분산하여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21.00에는 558高地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제19연대는 적의 공격징후를 판단하고 이를 먼저 분쇄하기 위하여 제1 및 제2대대를 병행하여 324高地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순중洞 쪽으로 물러난 다음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또 아군 제2연대의 제3대대는 적과 소규모의 접전을 벌렸으나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은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적 제8사단은 사령부를 義城으로부터 梧路洞으로 이동하는등 그들의 공격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듯 하였다.

8월 24일 : 제2연대의 제1대대는 이날 04.00에 지난 22일 적에게 빼앗겼던 國通山(△336)을 다시 탈환하기 위하여 반격전을 감행(敢行)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치열한 육박전 끝에 격퇴하고 말았다.

그 뒤에 즉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많은 손실을 주었으므로 아군의 사기가 신로 떨치는듯 하였다.

그와 반면에 23.00에는 약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이 아군 제1연대의 제2대대 사이의

계한점으로 침투하여 梅鳳山(△488)을 점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밖의 지역에서는 포격과 수색전이 전개 되었을 뿐 대체적으로 평온하였으며 美공군 및 가용한 포병의 지원을 받게 된 제19연대(金益烈대령)는 남진을 꾀하는 적 제8사단의 기동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8월 25일 : 아군 제7연대의 제3대대(趙漢奎소령)는 지난 밤 23.00에 적에게 빼앗겼던 梅鳳山(△488)을 다시 탈취하기 위하여 제10중대의 일부병력은 야음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적진지에 침투시키고 주력은 각종 화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날 15.00에 기습(奇襲)적인 공격을 감행하므로서 적은 아군의 대부대의 공세작전으로 오인한 나머지 재빨리 분산도주하여 18.00에는 梅鳳山(△ 488)을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아군의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지난밤 22.00에 점령한 553高地 北쪽에 숨어 있던 잔적을 모조리 보는대로 격멸하고 말았다. 이 당시에 美공군의 지상군 지원작전이 활발하여지자 주간활동을 중지 당하고 있던 적 제8사단은 이날 아침 03.00를 기하여 아군 제2연대 정면에 대하여 그 예하 부대인 제81연대와 버속 부대인 제103연대를, 그리고 제 19연대(金益烈대령) 정면에는 적 제83연대를 각각 투입하는 동시에 전차를 앞세우고서 일제히 진격을 시작하여 왔다.



<3.5인치 로켓트포로 적진을 공타하는 국군용사>

아군 제6사단(金鍾五준장)은 적을 진전에서 저지격멸 하기로 작정한 다음 거의 3시간동안에 걸쳐 과감무쌍한 방어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끈질긴 압력으로 말미아마 06.00에는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각 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제2연대의 제1대대는 白楊洞 北쪽 1km지점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2대대는 당시에 배치선에서 東측방 일부를 약간 南쪽으로 조정 배치하였으며 제3대대는 269高地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연대지휘소는 城平洞 東측방 1km지점으로 물러나서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제19연대(金益烈대령)는 이날 09.00에 이르러 제2대대는 水北洞 北쪽高地로, 제1대대는 水北洞 東南쪽高地로, 또한 제3대대는 新德洞 北쪽高地로 각각 물러나서 부대를 정비한 다음, 또다시 반격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종일 치열한 싸움을 벌린 끝에 이날 20.40에 이르러 제1대대는 236高地를 다시 탈환하였으며 제2 및 제3대대는 동일선까지 다시 진출한 다음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8월 26일 : 적 제1사단은 그 사령부를 九知洞으로 이동하고 將軍洞과 馬斯洞에는 각각 문의 야포를, 그리고 高谷洞 東쪽 고지에는 박격포 12문을 배치하여 놓고 일제히 집중포격을 퍼부어 왔다.

아군 제6사단의 西측방을 담당하고 있던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이날 여명(黎明)을 기하여 西北방 300高地를 탈취하고져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원진지(△558)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군 제5연대 및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지휘소를 白確洞으로 동시에 옮겨 설치하였다.

아군 제2연대 정면으로 진격하고 있던 적은 03.00를 기하여 적 제1연대 및 제3연대를 아군의 제2연대의 제2 및 제3대대 정면으로 투입하여 공격을 가하여 왔음으로 제2 및 제3대대는 적의 진출을 저지하면서 제2대대를 羅湖洞 南쪽 269高地로, 제3대대는 義城洞 西南쪽 264高地로 물러나 진지를 확보하였으며 제1대대는 적의 전차로부터 측면공격을 받은 바 되어 義城洞 東南쪽에 있는 177高地로 물러났고 그리고 연대지휘소는 雲山洞에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제19연대는 03.00에 전차를 동반하는 적 제 83연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싸움을

벌리던 가운데 제2대대장(金錦洙소령)은 안깝게도 전사하고 제3대대장은 부상을 당하는 등 지휘관 이하 일부 병력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05.00에 제1대대는 中洞 北쪽에 있는 237高地로, 제2대대는 水北洞 南쪽능선으로, 제3대대는 [illegible] 北쪽으로부터 276高地를 연하는 선으로 각각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한 다음 부대를 다시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아군 제19연대 지휘소는 蓮花洞으로 이동하고 사단지휘소는 軍北洞 南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와같이 점차로 철수를 하면서도 지연전을 위한 방어작전단을 전개하여야 할 당시의 전황으로서는 적을 지연하는 수단의 일부로서 장애물을 급속하게 다량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육군 참모총장은 훈령 제33호(1950.8.14)를 하달하여 전선지구의 장애물설치 작업은 현지에서 보병과 모병, 그리고 공병장교가 공동정찰하여 그 장소를 선정하고 해당지구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명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공병부대에서는 이 훈령을 위반하고 현지 지휘관과의 사전 협조도 없이 제2연대(咸炳善대령) 및 제7연대(林富澤대령)지역에 있는 후방도로에 마음대로 지뢰를 매설하므로서 25일과 26일의 양일간에 걸쳐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25일은 제5연대장인 李暎奎 중령이하 5명이 전사하였고 공병장병 10여명이 중경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26일에는 제2연대의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 이하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당시 공병책임자인 崔昌植 대령은 그후의 군법회의 심문에서 "훈령을 위반한 공병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 역시 이것 또한 군이 발전하는 도정(道程)에 겪어야 할 필연적(必然的)인 사실의 하나라고 볼 수 밖에는 없으리라.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그 경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사단장 金鍾五 준장은 장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공병단 제9야전 공병대대(田敬鍾소령)의 제1 및 제2(朴厚俊중위)의 2개중대로 하여금 책임지역내에 있는 적의 주요접근예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여 적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25일에는 軍威로부터 新寧 사이의 도로와 그 左右측 고지에 지뢰를 매설하기 위하여 제2중대의 제1소대(張石鍾소위)가 지원 되었다. 제1소대는 그 지역에 대인지뢰 180발과 대전차지뢰 318발 가운데 80%를 매설하고 안전표식을 한 다음 도로상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머지 20%는 전선에서 작전하는 모든 부대가 철

수한 다음에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날 제6사단에 배속된 제5연대장 李暎奎중령은 새로 부임하여 사단장에게 신고(申告)를 한 다음 작전명령을 받고 지휘소로 가기 위하여 제7연대 후방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11.30경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지뢰지대를 경계하고 있던 보초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이 앞에는 지뢰가 매설되였으니 통과할 수 없읍니다." 하니까 李 중령은 운전수 보고 그대로 가라고 명령 하였다. 李 중령이 보초의 저지가 사실이 아닌줄 알고 지뢰매설지점을 통과하자 도로에 매설된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여 연대장을 수행하던 작전주임등 5명이 전사하였고 그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張소위이하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6일에는 제2연대가 전선(前線)에서 철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은 부대를 지휘하고 軍威郡 友保面 美垈洞 부근을 통과하다가 그 지역에 매설된 지뢰지대에 잘못 들어가서 대대장을 비롯하여 7명이 전사하였고 12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20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는 지뢰 매설지역을 경계하고 출입병력을 안전지대로 안내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은 嚴奎烈 하사와 車基鎬 이등중사등 2명의 보초가 전선부대가 철수하기도전에 초소를 무단이탈하여 원대로 복귀하므로서 08.00에 李雲山 소령과 대대본부요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표식없는 지뢰 매설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8월 27일 : 제5연대의 제1대대는 이날 01.00부터 약 1개대대 규모의적과 교전끝에 492高地 東南쪽에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이때에 李暎奎중령의 후임으로 崔昌彦대령이 부임하여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제7연대의 제2대대(金鍾洙중령)는 적 제1사단예하 제2연대의 1개대대 규모의 병력과 교전끝에 馬斯洞으로 이동한다음 공격준비를 끝내고 20.00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24.00에는 365高地를 재탈환하여 즉시 진지를 강화 하였다.

아군 제7연대의 제1대대는 院谷洞에서 남침하는 적을 막아내고자 巨梅洞 東측방 능선으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제3대대는 26일에 제2연대의 제2대대가 269高地로 이동 배치함으로서 東측방이 노출되어 水洛洞으로부터 梅鳳山(△488) 東측방 1km지점으로 이동하여 東西로 배치하게 되었다.

한편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이날 12.00에 山城에 침투한 적 약1개대대를 측면에서 기습을 감행하여 1시간에 걸친 전투를 벌린 끝에 드디어 적을 완전히 격파하였으며 264高地에서 방어 중인 제2연대의 제3대대는 이날 03.00에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07.00까지에

결처 치열한 전투로 이를 격퇴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작일 05.00에 제19연대가 義興 北쪽고지 일대로 전변 철수함으로서 계속 남침하는 적의 일부를 저지하고 있었다. 적으로부터 많은 타격을 받은 아군 제19연대는 미리 적의 대규모의 공격을 예상하고 지형적으로 유리한 진지에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義興 北쪽으로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17.00에는 제3대대를 鳥林山(△644) 北쪽 花田洞 南쪽 능선일대에, 제1대대는 錦陽洞 東南쪽 일대에, 제2대대는 玉女峰(△572) 南쪽에 각각 배치하고 연대 지휘소는 華水洞 南쪽 1km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적은 전차 5대를 앞세우고 제19연대를 추적하다가 義興 南쪽과 梨花洞 및 206高地 그리고 文德洞과 蓮德洞 南쪽 高地등에 각각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나타내어 공격을 계속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8월 28일 : 아군 제5연대의 제1대대는 27일밤 23.00부터 1개대대 규모의 적과 492高地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이날 14.40에 318高地로 물러나서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제2대대(申律湜소령)는 이날 예명부터 적의 소수병력과 서로 교전하던 끝에 이를 격퇴하고 말았다.

아군 제2연대의 제2대대(文正植소령)는 269高地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으나 제7연대 및 제19연대와 동일선상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17.00부터 鳥林山 西北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대대는 美城洞 東南쪽 능선에서 이날 03.00부터 약 1개대대 규모의 적과 격전 끝에 06.00에는 적을 완전히 격퇴하여 버렸다.

鳥林山 北쪽에 배치되어 있던 제19연대(金益烈대령)는 이날 02.00경부터 연대중앙을 위협하는 약 1개대대 규모의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제2대대(金旭鎭대위)를 上梧里에 위치한 150高地를 포함하여 그 西南쪽으로 배치 하였으며 제1대대는 인접대대와 긴밀한 협조밑에 적을 계속 저지하고 있었다. 또한 제3대대는 지난 27일 22.00부터 鳥林山(△644) 北쪽 능선에서 연대규모의 적으로부터 포위를 당하여 격전을 계속하던 중 이날 02.00에 진지를 물러나게 되었다.

8월 29일 : 적 제1사단은 적 제8사단과 동일선상까지 진출하기 위하여 아군 제7연대 정면에 여명(黎明) 공격을 시작하여 왔음으로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피아(彼我)의 병력상의 차이가 심한 이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치열한 방어전을 계속하였으나 적의 압력을 받아 현진지로 부터 물러나 제2대대는 371高地에, 제3대대는 284高地에 진지를

점령하고 제2연대 및 제19연대와 동일선상에서 적과 서로 닿서게 되었으며 제1대대(金龍培중령)는 사단 예비대가 되어 新寧 北쪽의 위기로 인하여 新寧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당시에 제5연대의 제1대대는 318高地에서 제7연대의 제2대대와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었던 것이며 제2대대는 655高地 東北方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적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558高地로 부터 東南쪽으로 물러나서 남침하는 적을 약 3시간동안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결과 적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퇴각하고 말았다.

한편 제19연대(金益烈대령)는 烏林山(△644)—華山(△828)선에 이르러 玉女峰(△572)—華北洞 사이를 막아내고 있던 중 28일 22.00경부터 적 제82 및 제83연대와 서로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이날 05.00에 그 제1대대는 722高地에, 제2대대는 華山(△828)에 각각 물러났으며 烏林山(△644)을 방어하고 있는 제3대대와 연결된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2연대(咸炳善대령)는 사단장 명령을 받고 이날 04.00에 264高地에서 방어중인 제3대대 (宋大厚소령)를 西측방 370高地로 이동 배치케 하고 제2대대(文正權소령)는 원당洞 東南쪽 능선에서 花本洞 東北쪽 고지로 이동 배치토록하여 烏林山(△644)부근에서 작전 중이던 아군 제19연대의 전세를 만회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아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는 동안 적은 많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부대를 재편성하는데 급급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大邱를 조기에 점령하려고 義興과 新寧 방향을 목표로하여 공세작전을 감행하던 적은 아군의 끈기있는 방어 활동에 의하여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전투력을 상실하므로서 烏林山(△644)을 연하는 北쪽에서 저지되기에 이르렀다.

적은 아군 제6사단 정면에 전차를 동반한 2개사단을 투입하여 주야간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아군의 지상군의 완강한 저항과 반격, 그리고 美공군의 대거출격으로 병력손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자 8월 23일 이후부터는 야간 작전만 하기로 그 방침을 바꾸게 된듯 하였다.

적은 이와같은 아군의 강력한 저항과 공중폭격에서 입은 인적, 물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나이어린 청소년을 강제동원하여 싸움터로 몰아내고 있었으며 또한 도로가 파괴되어 보급 추진이 곤란하게 되자 원주민을 동원(動員)하여 밤이 새도록 복구작업을 하게되었으니 적은 패배를 자인(自認)하게 된듯 하였다.

따라서 아군은 공중지원을 받아가며 주간 작전을 감행하는 반면 적은 야음의 이점을 이용하여 야

간공격활동을 증가하므로서 피아간 공방선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군 제6사단은 약 30km에 달하는 넓은 작전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는 약점과 야간 전투의 미숙등으로 말미암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아군은 乃林山(△644)을 연하는 방어선상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막아내면서 적극적인 지연작전을 실시하여 적에게 많은 출혈(出血)을 강요하였던 것이며 그 뒤에 義興 및 八公山 부근의 전투를 계기로 작전의 주도권을 아군이 장악하여 반격작전을 감행키로 한 것이다.

§. 교 훈

◇ 지연작전의 수단방법

제7연대의 제 3대대(過漢嶺 소령)는 城洞일대의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8월 13일 야음을 이용하여 402高地로 진출한 다음 軍威로부터 남침하는 2개 내대규모의 적을 공격하여 지연전을 감행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梅峴山(△488)을 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제10중대 일부병력을 적진에 침투시키고 기습적인 공격을 실시한 바 적은 이것을 아군의 대부대의 공격으로 오인하여 진지를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방어에 있어서 적을 지연하는 수단은 장애물의 이용과 화력의 발휘(發揮) 및 경계 제대(梯隊)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7연대의 제3대대는 남침하는 적을 선제공격하는 수단을 취하였다. 또한 적을 기만하는 수단은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동시에 아군의 기도를 은익(隱匿)하여 적을 아군의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 격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 공지협동작전의 필요성

적 제1사단은 8월 15일에 전차를 선두로하여 아군 제7연대 제1 및 제3대대 사이의 제한점을 돌파하였고, 26일에는 將軍洞과 高谷洞 東쪽 고지에 각종포 16문을 배열하여 포격을 가해 왔으나 아군은 포진지를 격파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적의 목표물은 항공기에 의하여 제압할 수 있었으나 공지협동작전기구의 미비 또는 운용절차의 미숙등으로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 방어정면과 병력의 배치

洛東江 방어선의 형성으로 아군은 개전이래 처음으로 연결된 전선에서 적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투를 하게되였다.

아군 제6사단의 방어정면은 광정면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1개연대의 방어정면이 거의 사단방어정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사단이나 연대는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여 종심(縱深)이 없는 일선 방어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병력손실이 증가됨에 따라 배치된 병력의 밀도는 희박하여 지게 만 하였다.

그러므로 적 2개사단은 어느 곳에서나 집중돌파를 시도하고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아군이 유리한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지를 편성한다 하여도 방어정면의 신장(伸張)으로 그 종심과 밀도가 없는 방어진지는 적에 의하여 쉽사리 돌파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군의 진지가 돌파되면 군단 또는 사단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전선의 방어부대를 급히 뽑아

서 임기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항시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방어지역 일부가 적에게 돌파되면 곧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적의 야간전법

洛東江 방어선이 형성되자 적은 그들이 개전이래 사용하던 전차부대에 의한 돌파작전과 포위공격, 그리고 우회침투 및 게리라활동 등 여러가지 술책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적은 정면공격으로 돌파를 기도하는 방법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랑인 전차가 거의 파괴되고 나서는 큰 활동을 못하였다.

8월 23일 이전까지는 美공군의 활약이 대단한 것이 못되어 적은 주간공격으로 능히 전투를 해올 수 있었으나 아군 공군의 근접지원이 활발하여지고 방어진지가 점차로 견고하여지자 그들은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의 공격방법은 주간 수색정찰로서 아군의 취약지점(주로 대대, 연대간의 전투지경선의 간격)을 탐색하였다가 야간에 침투하여 돌파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군의 진지는 자연이 연장되기에 이르렀으며 대대 및 연대간의 간격이 연결되지 않아서 적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 식중독(食中毒)

제2연대의 제2대대는 8월 15일이 해방 제5주년 기념일이라고 해서 대대에서 특별히 김밥을 만들어 각중대에 보냈는데 당시의 취사는 후방지구에서 동원된 노무자들이 맡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장교들은 김밥을 먹은 후 심한 복통을 일으켜 급기야 후송되었는데 조사결과 김밥속에 청산가리(靑酸加里)가 혼합된 것을 알고 취사장 요원들을 심문하여 좌익계열의 불순분자를 색출 처단하였다

특히 이와같은 독약은 장교용 급식에만 일부 혼합하였는데 당시 81mm 소대장이던 李龍雨 소위는 이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4개월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외 여러장교들이 희생된 바 있다.

이와같은 일례를 보아도 방첩활동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오열색출에 가일층 노력 하여야 하겠다.

◇ 전쟁군기 확립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발생한 지휘폭파사고를 살펴보면 전쟁군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겠다.

8월 25일 사고는 공병부대지휘관이 훈령을 위반하고 급변(急變)하는 전황(戰況)때문에 일방적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병을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장 李陝奎 중령이 보초의 경고를 일축하고 스스로 지뢰지대에 들어가게된 것은 지휘관들에게 전장(戰場)군기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였다. 또한 26일 사고는 부여된 경계임무를 져버리고 보초가 초소를 이탈한 데서 발생한 사고였다.

만일 소대장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초들은 초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휘관이 먼저 철수하고 2명의 보초만을 남겨 둠으로서 이들은 전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임무를 져 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할 때는 꼭 책임장교가 임명되어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장병은 부여된 제반임무를 목숨을 걸고 완수할 수 있는 철저한 군인정신이 있어야 할것이다.

§ 참전자의 증언

제19연대 제2대대장 金旭豪 대위

(1966.3.25육군본부 현역 준장)

鳥林山(△644)을 방어하고 있던 당시 대대지역에 적 1개대대가 공격을 가하여 제7중대 방어진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5 및 제6중대는 적을 계속 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제5 및 제6중대의 예비소대를 이용, 역습을 실시하여 제7중대 진지를 회복하였다. 진지를 탈취하고 보니까 적의 시체가 70구 정도 있었고 각종 화기는 약 한 트럭 가량 노획하였다. 이와같은 전과가 있은 뒤 부터는 병사들의 사기가 왕성하여 졌다.

義興 뒷고지에서 3일간 싸운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때 처음으로 아군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았고 또한 신병보충도 이때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개전초기 원주에서 출전할때는 90%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병력은 50%~60%였다. 심지어는 50%이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대도 있었다. 또한 대대본부에는 대대장과 작전장교 한명이 고작이었다. 적도 역시 고참병들을 잃고, 남하하면서 보충한 신병으로서 전투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제2연대 제2대대 제8중대 제3소대장 李龍雨 소위

(1966.11.1 제2군사령부 현역중령)

나는 3소대장으로서 81mm박격포 8문을 운용하고 있었다. 파지원부대와의 통신연락이 두절되어 소대장이 총성을 듣고 판단하여 포를 지원하였다. 그 무렵에는 포지원을 요청하는 부대도 없고 지원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그런데 한번은 적이 아군진지에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포사격을 실시한 바 공교롭게도 적 중대장의 다리가 절단되는 바람에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적이 도주한 예가 있다.

(3) 포병제16대대장 金 聖 소령

(1967.9.29 인천동양 화학·예비역준장)

제6사단을 지원하는 포병대대로서 義興과 梨花洞사이의 사라동부근에서 C포대는 제2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C포대 후방고지에 적 약 1개소대가 출현하여 포대장 鄭立敎대위는 격전끝에 전사하였는데 때마침 내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포1문을 뒤로 돌려 포격을 가한 바 적 10여명이 사살되고 나머지 적은 도주하고 말았다.

약 력

劉載興

1946. 1.15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6. 1.15 통위부 후방대대 보급대대장
48. 2.24 총사령부 군수처장
48. 3.22 제1여단 부여단장
48.10.11 제4여단장대리
48.12.15 육군대령 진급
49. 3. 2 제수도 전투사령관
49. 5.12 제6사단장
49. 5.31 육군준장 진급
50. 1.15 제2사단장
50. 6.10 제7사단장
50. 7.20 제2군단장
50. 9.13 육군소장 진급
50.10.24 육군본부 참모부장
50.12. 8 제2군단장
51. 1. 9 제3군단장겸무
51. 1.14 육군본부 참모차장
52. 5.19 육군중장 진급
52. 7.23 제2군단장
53. 2.18 육군본부 참모차장

金鍾五

1946. 1.15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9. 1. 3 제1연대장
49. 3.15 육군대령 진급
50. 6.10 제6사단장
50. 7.15 육군준장 진급
50.10.31 제9사단장
50.12. 8 육군본부 일반참모비서실장
51. 1. 9 안동전방지휘소장
51. 1.14 제1군단 참모장
51. 3.17 제3사단장
51. 5.26 육군본부 인사국장
52. 5.30 제9사단장
52. 9. 1 육군소장 진급
52.11.10 육군사관학교장
53. 1. 7 미육군사관학교 파견
53. 2.27 육군사관학교장

戚 炳善

1946. 1.15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6.10.16 제1연대 D중대장
47. 3. 1 제1연대 E중대장
48.12. 7 제2연대장
49. 6. 1 육군대령 진급
50. 1. 3 육군참모학교
50.10.20 육군준장 진급
50.11.11 제2사단장
52. 5.19 육군소장 진급
52. 7.29 육군 교육총감부 교육총감
53. 5. 9 육군본부
53. 8. 3 미육군참모학교파견

林 富澤

1946. 6.15 육군소위임관(육사 2기)
46.10.16 제1연대 보급장교
47. 5.16 제1연대 제1중대장
48. 6.18 제1연대 부관
49. 5.20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요원
49.12.19 제7연대장
50. 7.11 육군대령 진급
51. 2.28 제6사단 참모장
51. 3. 3 제6사단 부사단장
51. 7.27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51.11.17 제5사단 부사단장
52. 8.28 육군준장(임시)진급
52. 8.28 제11사단장
53. 1.25 육군준장 진급

金 益烈

1946. 1.15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6. 9 제5연대 중대장
47. 1 제5연대 제2대대장
47. 7 제9연대 대대장
48. 2 제9연대 부연대장
48. 6.18 제14연대장
48. 8.15 제13연대장
50. 8.22 제6사단 제19연대장
50.10.24 제11사단 부사단장
51. 3. 1 제5사단 부사단장

閔 機植

1946. 1.15 육군소위 임관(군영반)
46.12. 1 제2여단
48. 8. 1 총사령부
49. 8. 1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49.11.28 육군보병학교장
50. 7. 7 제7사단장
50. 9.15 대구방위사령관
50.10. 8 제5사단장
52. 1.22 육군대학 부총장
53. 1.15 제2교육여단장
53. 2. 9 제21사단장
53.10.20 육군준장 진급

5. 洛東江沿岸(洛井洞—海平洞—淸溪洞)附近戰鬪

(50년 8월 2일부터
50년 8월 1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6.7.8.호
상황도 제 5.6 호
작명부록 제 1.9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 2 군단	장	군상	劉	載	興	제13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振	暻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 2 대대	장	소령	安	光	燮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在	命	제 3 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제 2 대대	장	소령	李	斗	璜	제17포병대대	장	소령	朴	永	提
		소령	車	甲	俊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병력** : 제1사단 7,133명					
제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대령	朴	基	丙	**장비** : 105mm 곡사포 12문					
				(8. 8부-)		3.5인치 로켓트포 9문					
제 1 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60mm 박격포 28문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成	來	81mm 〃 21문					
제 3 대대	장	소령	朴	炳	洙	57mm대전차포 2문					

적 군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48연대	장	대좌	金	致	九
제19연대	장	대좌	金	炳	喆	제49연대	장		미	상	
제21연대	장	대좌	李	成	俊	제50연대	장	총좌	李	乙	善
제23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포병연대	장	중좌	鄭	鳳	鉒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 7 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 8 연대 장 대좌 金 貞 童
제 9 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포병연대 장 대좌 安 仁 成
병력 : 제13사단 9,500명
제15사단 6,000명
제 3 사단 6,000명
계 21,500명
장비 : 122mm 곡사포 39문
76mm 곡사포 72문
T-34 전차 20괘

나. 전투 전의 개황

咸昌 지구에서 적 제13사단의 진출을 막고 있던 아군 제1사단은 7월말일 현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성공리에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전반 전세(戰勢)의 변동에 따라 韓·美양군은 美 제8군사령관의 결심에 따라서 洛東江 방어선으로 돌려나 새로운 공세전이(攻勢轉移)를 하게 되었다.

당시 아군 제1사단의 左측에는 美 제25사단이 尙州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었고 右측에는 아군 제6사단이 인접하여 작전 중이 있었다. 육본작명 제94호(1950.8.2.03.00)에 의거하여 韓國군은 8월2일부터 3일밤까지 X선(상황도 제5호참조)南쪽의 적 진출을 막은 다음에 선정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아군 제1사단은 咸昌 지구에서 8월 1일 야간에 적과 접촉을 끊고 左측에 있는 美 제25사단의 엄호아래 尙州로 이동하였다. 8월 2일에 제12연대는 사단엄호부대가 되어 주력 부대의 철수를 도왔고 제13연대와 제11연대 그리고 제12연대 순위로 洛東里 나룻터에서 선척(船隻)으로 洛東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적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리하여 8월 3일 제13연대는 南쪽의 淸溪洞에서 仁洞을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11연대는



〈洛東里부근에서 洛東江을 건느는 제 1 사단의 장병들〉

善山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中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주력의 엄호임무를 끝낸 제12연대는 北부인 洛井洞에서 宮基洞에 옮겨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사단의 방어정면은 실로 41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이제까지 아군과 美軍은 큰 규모의 반격작전을 전개할 여유도 없이 다만 지연작전만을 계속하여 왔는데 洛東江을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인접부대 상호간에 긴밀히 연결된 진지를 확보한 다음 호기(好機)의 도래(到來)를 노려 과감한 일대 공세이전(攻勢移轉)으로 결전을 펴나가려고 하였다. 美 제8군사령관 워커중장은 자신의 작전상의 포부와 신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는 현재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철수, 후퇴도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전부대는 최대의 반격으로 작전의 우위(優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후까지 싸워서 한치의 땅도 적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양보함은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 전 장병은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동시에 전사한 전우의 보복을 하여야 한다" 이 일언이야 말로 장군다운, 숙 시원하고도 단호한 결단력과 임진무퇴(臨陣無退)의 군인정신이 충일한 필승의 기백이 넘쳐 흐르는 명 훈시의 한 토막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그의 대성일갈(大聲一喝)은 洛東江 방어선이 곧 최후의 핵심 보루임을 강조하면서 거의 사수(死守)의 명령이나 다를 바 없는 비장(悲壯)한 결의를 토로한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방어선이 곧 마지막 성패를 판가름하는 결전장이 될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다.

아군 제1사단의 뒤를 따라 威昌 지구에서 남하한 적 제13사단은 8월 3일현재로 尙州에 집결하여 그들의 병력보충과 부대정비를 서두르면서 洛東江에 정찰대를 파견하여 도하지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적 제15사단은 化寧場 지구에서 아군 제17연대에 의하여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섬멸적인 타격을 받은 다음 이를 수습하면서 金泉에 이르러 점령지에서 강제 모집한 이른바 의용군 1,500명을 보충받고 8월 5일에는 이미 龜尾 부근에 진출하여 역시 洛東江의 도하준비를 재촉하게 되었다. 적 제3사단은 大田을 점령한 뒤에 美 제1기병사단을 압박하면서 8월 2일에는 벌써 金泉을 점령하고 계속 남진하여 8월 5일경에는 星州 일대에 집결하는 즉시로 美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도하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적정으로 미루어 보아 아군 제1사단정면에는 거의 3개사단의 적 병력이 전개되어 大邱 방면에 주공(主攻)을 지향(指向)하는 작전 방침 아래 일거에 洛東江을 넘으려고 하였으니, 이는 과수 金泉城이가 이미 호언하듯이 8월 15일단으로 釜山까지를 모조리 석권하려는 그들의 작전 야도임을 알 수 있었다.

8월 3일에 방어선상에 진지편성과 부대 전개를 끝내게 된 아군 제1사단은 이미 기술한 바 정상방어정면의 4배에 해당하는 광정면을 담당하였는데 병력은 70%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화기는 30~40%로서 적의 우세한 병력과 장비 그리고 전차의 위협을 감안(勘案)한다면 여기에서 결전방어선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술상 곤란하였다. 따라서 각 연대는 거점(據點)방어의 방식으로 중요지점을 골라서 점령하였으며 적의 접근로는 洛井洞에서 倭館에 이르는 도로와 그리고 西측방의 여러곳에서

洛東江을 건너 뜻대로 기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北, 西의 양쪽에서 협공을 받을 전술상의 공산(公算)도 매우 컸던 것이다.

방어선 정면을 연하여 흐르는 洛東江은 강폭이 200 내지 400m이며 평균수위는 倭館 부근이 1.95m이며 최고수위는 7.35m였다. 따라서 연중 장마철을 제외하고서는 도섭(渡涉)이 여러 곳에서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아군 제1사단의 右측에는 아군 제6사단이 서로 인접하고 있었는데 부대 사이는 4km나 간격이 생기고 있었다. 이는 보유병력이 미약한데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左측에는 美 제1기병사단이 인접하여 연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전이래 역전을 거듭하여 온 아군 제1사단장병들은 3대 1이라는 열세한 병력과 10대 1이라는 빈약한 화력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방어전에서의 필승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기필코 적의 무리를 말살시킴으로서 조국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결의에 불타고 있었다. 이는 마치 용호(龍虎)가 서로 싸우려 할 때 요운(妖雲)이 짙어지고 성풍(醒風)이 장차 불어 오려는듯 하였다. 다음 항에서 일전(一戰)의 진상을 찾아 보고자 한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제1사단 제12연대의 상황 (상황도 제5및 6호, 별책부도 제7호 참조.)

8월 3일 : 제12연대는 아 제2군단의 경계부대로서 오전중에 洛東里 일대에서 洛東江을 건너게한 다음 제3대대를 洛井里의 167高地일대와 103高地를 점령하게 하고 제2대대는 宮基洞에 지휘소를 두고 連山津에서 178高地 사이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연대지휘소와 더불어 道開洞에 위치하여 부대정비를 하고 있었다.

17.00경에 연대장(金點坤중령)은 정보, 작전주임을 대동하고 필차로 제3대대가 배치된 진지를 시찰하고자 167高地하단의 절벽길을 도는 순간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적의 사격을 받았으나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다. 적은 이 사격을 신호로 해서 洛東里 일대의 모래사장에 거의 1개연대로 추정되는 병력으로 몰려 나오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연대장과 일행은 배수로를 이용해서 제3대대장(朴炳洙소령)을 만나 모든 중화기를 강기슭에로 옮겨 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적의 도하를 사격으로써 와해시키고 있을 무렵 때 마침 美 전투 폭격기 1개 편대가 상공을 비행하다 이를 발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전폭기는 네이팜탄과 기총소사로 거의 20분에 걸쳐 백사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적을 통쾌하게 무찔렀는데 이는 마치 개미떼가 불을 만나 타 죽은 것

과 같이 출비하게 널려져 있었다. 일부의 적은 부락으로 숨어 들었으나 이를 놓지지 않고 공격하는 바람에 적어도 2개대대 병력은 이곳에서 전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상 제12연대는 군단의 경계부대로서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나서 莊子峰에서 道開洞에 이르는 지대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은 단독으로 洛東江선에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적을 식별할수 있었는데 이때문에 사단에서는 명령대로 부대배치를 하지 않고 딴 데서 전투를 한다고 말이 많았다.(이상 내용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의 증언)

8월 4일 : 어제 치명적인 큰 손실을 입은 적은 미명을 기하여 1개대대로 추정되는 병력으로 강을 건너 아 제3대대 진지에 공격을 하여 왔다. 제3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도하부대를 저지하였으나 넓은 정면에서 공격을 하여 왔으므로 적의 일부 병력은 강을 건느는데 성공하였다. 적의 공격제대뒤에서는 독전대(督戰隊)가 미친듯이 독전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수심이 거의 목 부분까지 차고 있었기 때문에 도하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군은 강기슭에서 건너오는 적병들을 사격으로 명중시켜 결국 나머지 적들도 09.00경에 뒤로 분산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이날 해가질 무렵부터 중대병력의 적은 강변일대에서 도하지점을 찾기 위하여 수심(水深)을 측량하고 있었는데 20.00에는 洛東里 南쪽 7km지점인 農所洞 일대에서 중대병력으로 추정되는 적이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이를 발견한 제2대대 제5중대장 金俊植 대위는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를 격멸코자 하였으나 대대장은 각 중대에 사격목표를 미리 지시하고 사격신호에 의하여서만 일제사격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적의 병력은 모래사장에서 일단 대형을 수습한 다음 심중하게 우리의 제5중대가 배치된 제방으로 접근하여 왔다. 적의 부리들이 5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대대장 趙成來 소령의 사격신호가 비로소 내려지자 일제사격의 화력세례는 사정없이 적을 후려쳤다. 이러한 아군의 급습(急襲)에 당황하게 된 적은 분산하여 퇴각을 서로 다투었는데 백사장에는 많은 유기(遺棄)시체와 40여정의 무기를 내버린채 패퇴하고 말았다. (제5중대장 金俊植 대위의 증언)

한편 이날 아군 제6사단의 제2연대 제1대대가 龍基洞에서 14.00에 新谷洞 南쪽의 능선으로 철수하여 오자 제12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22.00에 上林洞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제11연대와 제13연대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사단의 예비대가 되었다.

8월 5일 : 七林洞에 집결을 완료한 연대주력은 이날 부대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 제13사단은 洛東里에서 洛東江을 건너 10.00에는 아군 제11연대의 정면에서 접촉을 하였으므로 사단장은 제12연대 제1대대(韓順華소령)를 제11연대에 배속시키게 되었다. 이에 하여 제1대대는 14.00에 松谷洞으로 북상하여 270高地선에 배치되어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하 제1대대 상황은 제11연대 상황을 참조)

8월 7일 : 사단장 白善燁 준장은 이날 제11연대의 상황이 불리하므로 七林洞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3대대(朴炳洙소령)를 梧里(오리골)로 진출시켜 제11연대를 증원시켰고 (제3대대 상황 제11연대 상황참조) 제2대대(崔成來소령)를 04.00에 玉溪洞으로 진출시켜 제13연대의 배비로 확보하였다.

8월 8일 : 제3대대는 제11연대의 지원임무를 끝내고 이날 17.00에 多富洞을 거쳐 道開洞에 집결하였다.

8월 9일 : 제3대대는 道開洞의 집결지에서 제13연대의 제1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05.00 水岩山쪽으로 진출하여 06.00 369高地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기동로가 제한되고 심한 경사로 말미암아 공격은 진전이 없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적의 전차가 아군



〈작전을 계획하는 제12연대장 朴基丙 대령과 그의 참모〉

진지와 공격제대에 대하여 포격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연대장 朴[illegible] 대령(8월 8일부임)과 부연대장 金[illegible] 중령은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한 끝에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369高地와 아군의 진지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특공대로 하여금 전차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당시 연대에는 새로운 병기인 3.5인치 로케트포가 3문이 처음으로 장비되었기 때문에 고병(高兵)들 가운데서 전차파괴 특공대를 편성하여 1주일에 걸친 특별훈련을 이미 끝내고 있었다. 따라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좋은 기회가 닥쳐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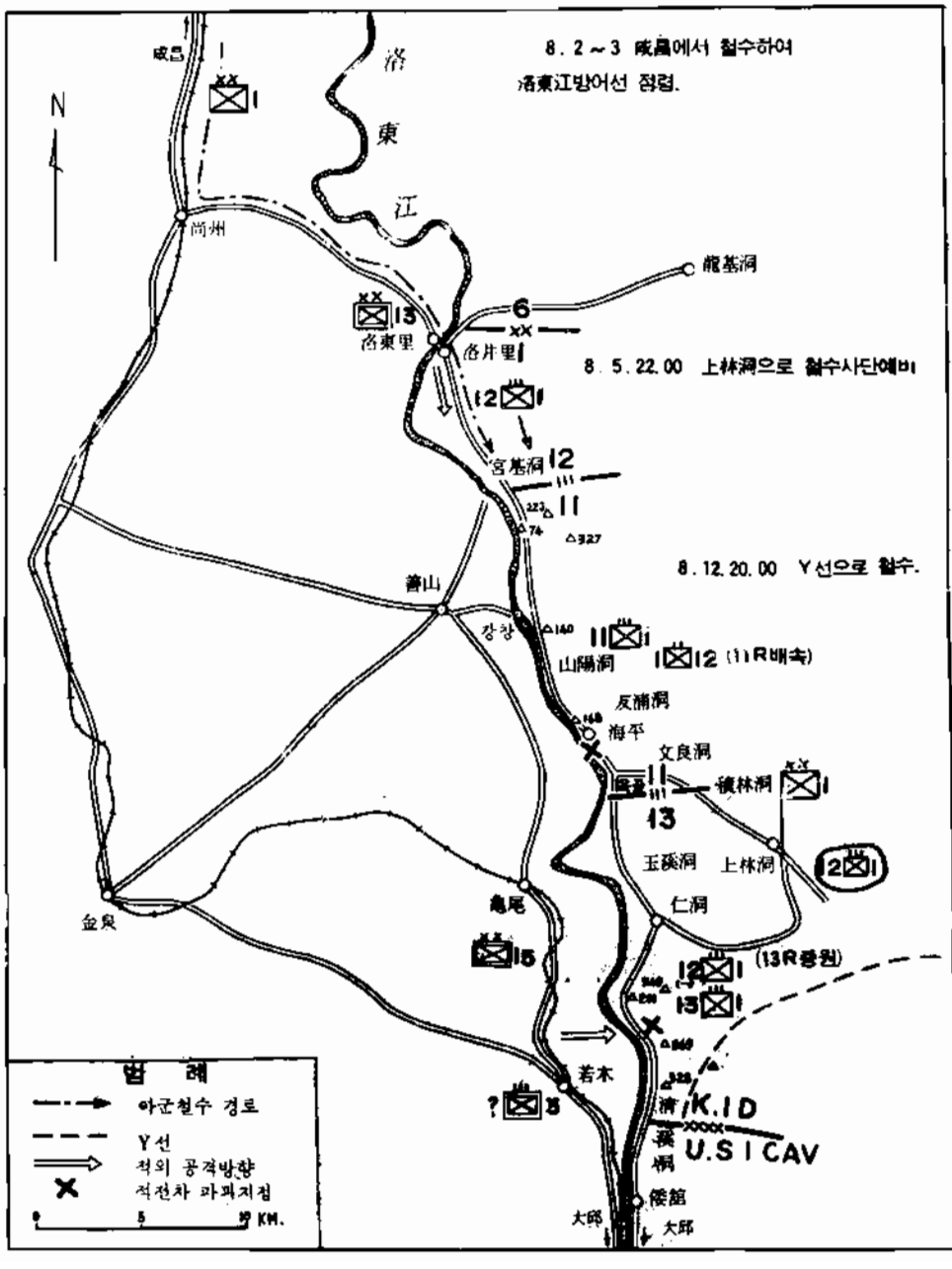
특공대의 총 지휘는 金成龍대위가 맡았고, 특공대장에 金[illegible]소위, 조장에 鄭永鎭, 宋孝鎬상사, 대원 9명, 계 12명이 3.5인치 로케트포 각 1문과 그리고 예비로 2.36인치 로케트포, 수류탄 소총등으로 장비하였다. 특공대는 12.30에 제3대대 관측소에서 제3대대장 朴[illegible]소령의 적정 설명을 듣고 전차가 도사리고 있는 [illegible] 국민학교를 목표로 기도를 비익(秘匿)하면서 접근하여 갔다.

대낮이지만 특공대원들은 평소의 훈련덕분인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학교운동장에서 50m지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제3대대장에게서 적정을 들을 때는 전차가 3대라고 하였는데, 막상 가까운 곳에서 보니 5대나 되었다. 이에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된 金[illegible]소위는 공격조를 전개시킨 다음에 14.00 일제이 제1탄을 각조의 목표전차에 대하여 3.5인치 로케트탄을 발사하였는데 모두가 명중하였다. 이어서 나머지의 전차에도 포탄을 명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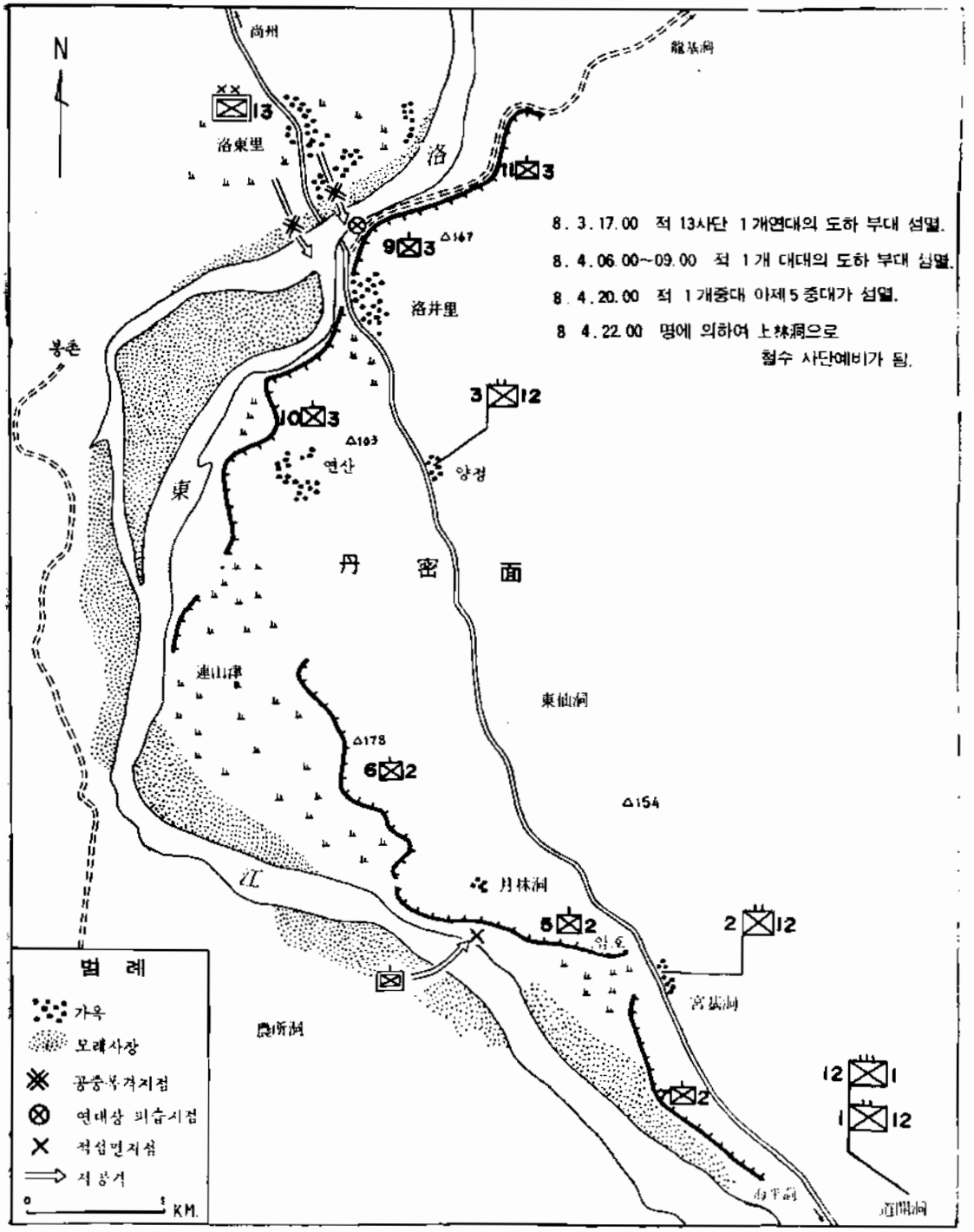


〈南渠국민학교 교정에서 아군 특공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된 적의 T-34 전차〉

상황도 제5호 洛東江연안부근전투(50. 8.3~12)



상황도 제6호 제12연대洛井洞 부근전투(50. 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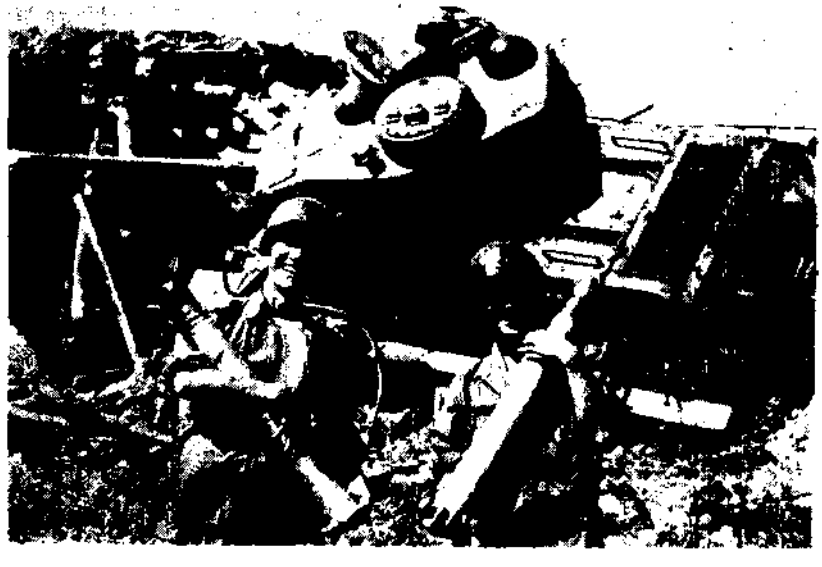


학교 교정의 정자나무밑에 적절하게 위장하고 있던 적의 전차 5대는 난데 없는 불벼락을 맞게 되니 2대의 전차는 화염을 뿜기 시작하였고 1대는 날새게 154高地쪽으로 도망 하였다. 鄭永側상사는 자기 조수 탄 전차에 뛰어 올라가 차내의 적병들에게 손들고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전차는 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급히 뛰어내려 사수(射手)에게 제2탄을 20m거리에서 무한궤도(無限軌道)에 명중시켜 드디어 파괴시키고 말았다.

한편 먼저 달아나던 전차도 제1탄을 포탑에 얻어 맞고 그대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154高地 밑에 있는 작은 목교(木橋)가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수저앉는 바람에 전차도 그대로 빠져서 전부되고 말았다. 이로써 4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1대를 노획하게 되었으니 특공대원의 민첩한 활동은 신기(神技)에 가까운 활동상(活動相)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언지위에서 이 광경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던 부연대장 金點出중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상에 달려가서 대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동시에 전차 안에서 무기와 문서등을 찾아내고 모두들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니 8월의 작사광선이 유난히도 밝았으며 청풍일진(淸風一陣)이 유별하게 시원하였던 것이다.

金元熙 소위는 이 공로로 소위에서 중위로 특진하였고 鄭永側, 朴孝鎭상사는 현지임관 소위로, 나머지대원들은 모두 2계급특진의 영예가 베풀어졌다. (연대장 朴基內대령, 부연대장 金點出 중령, 金成龍 대위, 金元熙소위, 鄭永側상사의 증언)



〈아 특공대의 로켓트포 공격을 받고 퇴각하다가 목교와 더불어 주저 앉은 적의 T-34전차〉

전차가 완전한 채로 노획되자 육군본부에서는 이를 후송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를 운전할 경험자도 없었고 또한 견인 차량도 없었으므로 후송할 수가 없었다.

美 공병대에서 일부 인원이 파견되었으나 여기는 치열한 전투지대니만큼 감히 들어 가지 못하였고, 美 공군에 소속된 니코라스(정보관계관)가 와서 전차의 내부 및 외부의 사진을 찍고 돌아간 다음, 후일 大邱 시내에서 전시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육군총참모장 丁一權 소장과 내무부 장관 趙炳玉이 연대를 방문하여 특공대의 활약을 극구 치하하였으니 군인은 우선 싸움에 나서야하고 또 일단 싸움에 나선 바에는 이와같은 용명무쌍한 일전(一戰)에 참가하여야만 보람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이와같은 쾌승을 얻는다면 그 이상의 영예가 없을 것이다.

이날 제3대대는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나서 369高地일대에 숨어 있던 잔적(殘敵)을 공격함으로써 적은 진격이 중단된 채로 수세(守勢)에 몰리게 되었고 제2대대도 또한 201高地로 진출하여 新基洞의 무명고지에 대하여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8월 10일 : 제2대대는 210高地에서 06.00에 369高地에 대하여 탈환공격을 시작하였으나 공격이 부진하여 좌절되었고, 제3대대는 08.00에 154高地에 대한 공격을 제13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포위공격을 시작하여 12.30에 무난하게 154高地를 완전 점령하였다. 이어서 적의 일부 병력이 과수원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0.5인치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으로 집결 중인 태반의 적을 섬멸시켰다.

이어서 제2, 제3대대는 14.00경 369高地의 적에 대하여 南쪽과 東쪽에서 협공하여 18.00경에 이를 점령하여 제13연대 제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였다. 그러나 적이 24.00경에 재차 반격하여 옴으로써 369高地는 적에게 빼앗기게 되어 제2, 제3대대는 제13연대 제1대대와 더불어 3차에 걸쳐 역습을 하였으나 야음 때문에 11일 03.00에 공격을 중지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8월 11일 : 이날 아침에 병력을 수습한 제2, 제3대대는 369高地에 대하여 10.45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2대대는 공격기동로가 좋지않아 전세가 불리하였으나 제3대대의 右측 공격제대와 긴밀한 협조로 14.30 369高地 北쪽 800m지점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적진에 육박하여 수류탄으로 근접전투를 전개하여 18.00에 369高地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각 대대는 나머지의 적을 洛東江쪽으로 격퇴시켜 퇴각하는 적을 놓칠세라 화력을 집중하여 태반 이상을 사살하였다.

8월 12일 : 369高地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연대는 이날 20.00에 제12연대는 제2군단작명 제12호(부록제 9 호)에 따라 水岩山과 遊鶴山의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자 제1대대는 多富洞을 거쳐 鶴山洞으로 이동 하였고, 제2, 제3대대는 水岩山 南쪽의 望亭洞으로 이동을 완료한 다음, 다음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2) 제1사단 제11연대의 상황 (상황도 제5호. 별책부도. 제6호 참조.)

8월 3일 : 洛東里에서 洛東江을 건넌 제11연대는 후속부대의 도하를 엄호하기 위하여 東北方의 渭川江 돌출부에 진출하여 샘띠 八輝洞 사이에서 경계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마지막으로 제12연대가 도하를 완료함으로써 오후에는 海平洞을 중심으로한 다음의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12연대 지휘소 仁德洞(善山郡 山東面)

제1대대 舟平洞에서 海平洞사이

제2대대 74高地一趙明山(△140)一山陽洞

제3대대 文良洞일대(신병대대라 3일간 예정으로 정비 훈련에 들어감)

8월 4일 : 적은 善山 부근에서 점차적으로 洛東江선에 진출하여 탐색을 하면서 아군 지역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전차포로 사격을 하여 왔을 뿐 도하할 징조(徵兆)는 없었다. 따라서 제11연대장 金東斌 대령은 적이 善山쪽에서 도하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방선에 부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는 신병들로 편성된 대대이기 때문에 연대지휘소 西쪽 2km지점에 있는 국민학교에 수용하여 3일간의 예정으로 정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이연대의 北쪽에 배치되어 있던 아군 제12연대가 후방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대가 된 탓으로 제11연대는 右側 인접부대인 아군 제6사단과도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남하하는 적 제13사단의 주력부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이날 밤에 洛東里에서 洛東江을 건너서게 된 적 제13사단의 1개연대는 아군과 접촉이 없는 가운데 이날 미명에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이미 10.00에는 제5중대가 점령하고 있던 74高地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제5중대는 우선 일제집중사격으로 이를 막았으나 원래 병력의 차가 현격(懸隔)하였으므로 점차 밀리는 바 되어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뒤에 있던 제6중대가 여기에 증원되어 협동공격을 감행함으로써 3시간에 걸친 교전끝에 드디어 적의 대대병력을 격파하고 14.00에는 74高地를 탈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

기의 목표를 탈환한 다음 제6중대는 원진지인 趙明山(△140)으로 다시 돌아 갔다.

이날 사단장은 제11연대의 전황이 매우 위급하므로 예비로 있던 제12연대 제1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시키게 되었는데 제11연대장은 이를 제2대대가 싸우고 있는 제1선에 증원함으로써 18.00에는 161高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8월 6일 : 적은 5일 23.00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제5, 제7중대가 지키고 있는 진지에 돌입하여 왔으므로 아군은 사격과 수류탄으로 끝까지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원시 압도적인 적의 병력때문에 01.00에는 진지를 내어 놓고 152高地선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니 질(質)에도 유한한 것이 상례인즉 역시 물량(物量)전법에는 그에 상당한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날 09.00에 재편성을 끝마치게 된 제5및 제7중대는 右측에서 공격하는 제12연대 제1대대와 합동으로 美 전투폭격기의 225高地 폭격과 105mm포의 직접지원을 받아가면서 10.00부터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5, 및 제7중대는 17.00에 이르기까지 돌격전을 반복한 끝에 74高地를 연하는 선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적은 18.00에 또다시 반격을 시도하여 3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적은 美 전폭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많은 손실을 입은 후 퇴각하고 말았다.

한편 右측에서 225高地를 공격하던 제12연대의 제1대대는 제11연대의 측방 지원을 받아가며 22.30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곧 진지보강 작업에 들어갔다.

8월 7일 : 적 제13사단은 주력 2개연대로서 01.00에 아군 제2대대와 제12연대 제1대대 진지에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가하여 왔는데 아군은 우선 집중화력으로써 3차에 걸친 공격으로 그때마다 격퇴시켰으나 백병전에 들어가게 되자 병력의 차가 많았던 탓으로 더 이상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다만 인적손실만을 가중하게 된다고 판단한 결과 05.00에 152高地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원래 지물(地物)이란 시물(死物)인지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바꿀만한 요지는 아니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현명한 방책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때 제12연대 제1대대도 225高地에서 물러나 327高地에 하게 되었으나 아군의 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도리어 이 고지를 이용하여 적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게 된 것을 만족하였던 것이다.

이날 08.00에 재편성을 끝마친 아군은 美 공군전폭기의 공중폭격에 뒤이어 곧 원진지를

공격하여 11.00에 이를 다시 탈환하였다. 그러나 적은 12.00에 아군 제5 및 제7중대가 점령한 152高地진지에 주공을 두고 역습을 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진지를 확보할 수 없어 金湖洞과 文浦洞선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한편 제1대대는 168高地와 海平洞 사이에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도하공격에 대비하였고 제3대대는 정비훈련을 마치고 文良洞 일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22.00에 적 제15사단의 대대규모의 병력이 강정 나룻터에서 강을 건너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北쪽에서는 적 제13사단의 주력부대가 전차를 수반하면서 반월형의 포위 태세를 갖춘다음 우선 치열한 포사격을 하면서 공격하여 왔다. 이리하여 그들은 海平洞의 아군 제1대대 후방으로 침입하게 되어 海平을 점령하였고 아군 제2대대는 적의 치열한 화력을 받고 매우 어려운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끝내 그 점령중인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날 제12연대 제3대대가 14.00에 上林洞에서 오리골(梧里)에 진출하여 제11연대 제3대대의 右측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8월 8일 : 이날 01.00이후에 적이 海平洞에 진출함으로써 제12연대 제1대대는 327高地에서 積林洞으로 물러났고 제11연대 제2대대는 168高地 일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13.00에 제12연대 제1대대는 동연대의 제3대대와 더불어 美공군전폭기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전정면(全正面)에서 반격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시간 뒤에는 161高地와 文浦洞선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었는데 적은 아 공군의 활동이 쉴새없이 계속되자 조직적인 전투를 포기하고 다만 야간 활동만을 노리게 되었다.

이 당시 적의 전차는 海平洞 일대에서 아 공군의 지원이 없는 틈을 타서 적의 보병부대를 지원하면서 아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14.00경에 적 전차 5대가 과수원에서 빠져나와 海平洞에 이르는 제방하천(堤防河川)을 따라 기동(機動)하여 오는것을 연대장 金東斌 대령의 지휘 아래 대전차포 소대장인 朴德源 중위가 직접 이를 사격하였다. 朴 중위는 곧 2門의 57mm 대전차포로 하여금 1200m거리에서 우선 제1, 제2번전차를 사격하여 각각 무한궤도(無限軌道)를 파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제3, 제4, 제5번전차에 대하여 명중탄을 집중시켰는데 제3번 전차는 어찌 되었는지 포신이 공중 높이 날아 갔으며 파괴된 전차에서는 적병들이 빠져 나와 쏜살같이 도주하였고 제5번차는 뒤로 방향을 바꾸어 급히 퇴각함으로써 이를 놓치게 되었다. 朴 중위는 대원 4명을 이끌고 파괴된 전차에 단숨으로 달려가 차안에서 다발총과 권총등의 무기를 노획하여 원위치로 돌아 왔는데 이때 마침 美공군의 제트전



〈지휘사고로 순직한 나달대령의 시체가 주민들에 의하여 車도 이송되고 있다.〉

록기 4대가 나타나서 발금 파괴한 전차에 대하여 로케트탄을 퍼부어 모두 열상(炎上)시키고 날 았다.

[illegible]이 적의 전차를 4대나 파괴하였다고 알려지자 UN한국[illegible]단 [illegible]표 나달대령과 런던타임즈지 기자(記者) 아이안 모리슨 런던 데일리 텔레그라프지기자 크리프퍼 버클리의 세 사람은 사진 취재차 8월 12일 현장으로 3/4돈차량으로 연대군수주임 金[illegible]대위의 안내로 들어오다가, 아군이 매설한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모두 순직하였다. 당시 도로상에는 적 전차의 남하에 대비하여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경계병이 배치되고 있었으나 경계병의 제지를 무릅쓰고 지나가다 급정거하는 찰라에 폭발하였던 것이다. (제11연대장 金東[illegible]대령의 증언)

부산일보 1950.8.9부 군 보도과 발표기사에 의하면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아 2905부대(제11연대)는 삼동지방의 적을 포착하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다음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적사살 1,200명 포로 9명, 대전차포 8문, 중기관총 4정, 아식보총 40정 [illegible]총 4정"

이날 오후에 제1대대가 제2대대의 좌측방으로 진출하자 19.15에 제2대대는 지역내의 적에 대하여 반격으로 전환하여 남아 있던 적들을 강변으로 격퇴 시켰다. 이로써 제1, 제2대대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의 호전으로 말미암아 제11연대를 지원하던 제12연대 제3대대(大隊欠소령)는 17.00에 원소속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8월 9일 : 연대는 적과의 접촉없이 확보된 진지를 계속 강화하였으며 [illegible]쪽에서 준동하던 적은 야밤중에 江[illegible]의 도섭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8월 10일 : 밤중에 山陽洞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던 적 제13사단의 주력부대는 그 일부병력(대대병력 추산)으로 03.00에 아군 제1대대가 점령한 161高地 右측으로 우회하여 海平으로 진입하였고, 그 일부가 제2대대 제7중대의 배후인 창말 부락(部落)에서 위협하였으므로 제2대대는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하여 적절한 포병의 집중사격지원을 받아 18.00에 비로소 돌파구를 확대하면서 제1대대 진지인 反浦洞쪽으로 전진기동(轉進機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의 적의 손실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8월 11일 : 연대는 2개연대로 추산되는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날 06.00경에 161高地에 있는 제1대대를 168高地에, 제2대대를 다시말(新基洞)일대 능선에, 그리고 제3대대를 161高地에 각각 재배치하여 진지를 점령케 한 다음 山陽洞에서 남하하는 적을 막고 있었다.

12.00경에 舟坪洞에는 전차를 동반한 적2개중대의 병력이 나타나자 곧 이를 포격으로써 제압하였다. 그러나 海平洞에 진출한 1개연대 병력은 新基洞의 아군 제2대대정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대대는 海平洞 일대의 적과 17.00까지 피차간에 서로 화력전을 계속하였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적은 날이 어두워지자 후방에서 병력의 추가 증원을 받아 또다시 공격을 노리게 되었으므로 연대장은 제2대대로 하여금 이를 먼저 반격케 하는 동시에 제1대대는 月湖洞高地로, 그리고 제3대대는 제1대대의 右측에 재배치토록 조치(措置)하였으니 이는 미리 적의 침입수를 막아내기 위한 타당성 있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8월 12일 : 이날 04.00에 적은 제3대대의 右측방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연대 전정면(全正面)에 걸쳐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을 하여 왔으므로 제11연대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적을 막으면서 끝까지 분전하였다. 07.00에는 제12연대 제1대대(韓順華 소령)는 文良洞 左측일대에서 남하하는 적의 전차 5대를 전차파괴 특공대가 3.5인치 로케트포로써 선두전차 1대를 파괴하자 나머지 4대의 전차는 뒤로 반전(反轉)하여 퇴각을 하였다. 이때 적의 전차를 뒤따르던 적보병들도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갔으므로 제1대대는 제11연대 제1대대와 협동으로 적을 추격하였는데 때마침 美 공군기의 지원활동으로 퇴각하는 전차는 모두 파괴되었다.

이리하여 적의 공세가 일단 좌절되자 12.30에 아군은 반격전으로 전환하여 反浦洞선까



〈파수원에서 아군의 공격을 받고 파괴된 적의 SU-76 자주포의 잔해〉

지 진출하여 원진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은 아군 제3대대가 배치된 右측방으로 우회하여 후방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제3대대는 부득이 철수를 강요당하게 되었고, 한편 多富洞쪽에서 洛東江을 도강한 수 미상의 적이 옥골(金谷)로 진출하여 제11연대의 퇴로를 위협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제2군단에서는 전반적인 전국(戰局)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Y선으로의 철수를 결심하고 이날 20.00에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에 따라서 야간 기동을 시작하여 多富洞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으니 전국의 어떠한 커다란 전환기가 닥쳐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제1사단 제13연대의 상황 (상황도 제5호, 별책부도 제7호 참조.)

洛東江을 洛東里에서 건너 남하하게된 아군 제13연대는 8월 3일 오후에 걸쳐 부대이동을 끝내고 다음과 같이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3연대지휘소——소복동(召福洞)

제1대대 鳳頭岩山(△326)—201 高地—369高地

제2대대 玉溪洞을 중심으로 157 高地—177高地—175高地

제3대대 浦南洞을 중심으로 328 高地일대

연대는 4~5일 동안 특별한 적정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힘쓰면서 洛東江선을 고수하게 되었는데 방어정면은 무려 16km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니 이는 정상적인 사단방어정면의 1.6배나되는 광정면 방어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8월 6일 : 若木 일대에 어제(8월 5일) 진출한 적 제3사단의 일부병력은 야음을 이용하여 도하지점을 탐색하던중 그들의 1개 중대병력이 浦南洞의 대안(對岸)인 德山里에서 강을 건넜고 04.00경에 아군 제3대대가 점령하고있는 154高地 하단(下端)의 제방에 나타났으므로 곧 이를 교전 끝에 강 西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이 일전에서 적은 20여구의 시체와 기관총 6정을 유기한 채 정신없이 퇴각하였는데 이 싸움은 적의 정찰대의 탐색행동으로 인한 가벼운 일전이었으므로 앞으로 제3대대 정면에는 대병력의 적(敵) 재공격이 예상되었다. 한편 이날 제1, 제2대대 정면에서는 특기 할만한 적정은 없었다.

8월 7일 : 사단장은 이날 적의 주공(主攻)이 倭館-多富洞선임을 판단한 결과 사단예비대로있던 제12연대 제2대대(安光榮소령)를 04.00에 玉溪洞으로 급히 진출시켜 제15연대의 예비로서 대비시켰다. 22.00에 적은 아 제1대대가 점령 중인 201高地일대에 공격준비사격을 하면서 164高地쪽에서 도하(渡河)를 강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제1대대(金振雄소령)는 적의 도하부대에 박격포사격을 계속 집중하여 그 강행도하(強行渡河)대열을 23.00경에 분산 격퇴시키고 말았다.

8월 8일 : 2시간전에 격퇴당한 적은 01.00가 되자 전차 15대를 선두로 하는 대병력으로 일시에 도하를 강행하여 왔으므로 아 제1대대는 105mm곡사포를 위시한 모든 화력을 동원 집중발휘함으로써 일단 이를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02.00에는 그 일부병력이 제1대대와 제3대대 정면에서 도하에 성공한 다음 계속 후속부대가 강을 건너 오게 되었으니 마치 방파제의 일부에 구멍이 뚫린것과 같이 그 기세가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제친듯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 정면의 적은 03.00경에는 이미 201高地를 점령하였고 제3대대정면의 적은 154高地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은 105mm포대로 하여금 적의 도하부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저지사격을 실시케 하는 한편 연대장으로 하여금 이미 빼앗긴 201高地를 또다시 탈환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201高地를 즉시 탈환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때는 369高地도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피아의 포병전이 벌어지고 전세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제3대대는

(崔炳淳소령) 14.00에 이르러 동산마저 두절되었으나 계속 적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때 적은 154高地일에서 328高地에 대하여 공격하려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적의 전차가 洛東江을 도하하는데 성공한 것은 적이 8월 4일부터 밤 중에만 164高地부근에 수중가도(水中假道)를 만들어 오던 터인데 이날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차는 이 물속길을 따라 손쉽게 洛東江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江 西쪽의 적진에서는 전차 7대가 포문을 열어 놓고 아군진지를 향하여 포격을 계속하면서 도하부대의 엄호를 전담(專擔)하고 있었고 약 2개연대로 추산되는 적이 밤새도록 도하를 실시한 것이었다.

8월 9일 : 제1대대는 201高地와 369高地를 점령 당하자 뒤로 물러나 부대를 수습하여 06.00부터 빼앗긴 진지를 탈취하고자 반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포격때문에 공격은 부진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고, 제3대대도 154高地에 침공하여 온 적과 하루 종일 교전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美 공군전폭기의 활동이 있었으므로 적도 커다란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날 새로이 증원된 제12연대의 특공대는 南渠 국민학교마당에 있는 적 전차 5대를 공격하여 놀라운 전공을 세운 것은 이미 제12연대상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8월 10일 : 제13연대는 01.00를 기하여 총 반격을 단행(斷行)하기로 결정한 다음, 제1대대는 201高地 하단의 적을 공격하고 제3대대는 154高地의 적을 포위공격하여 강변으로 격퇴시켰으나 다시 병력을 수습, 반격을 하여 옴으로 03.00 154高地를 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3대대(崔炳淳소령)는 제12연대 제3대대(朴錫洙소령)의 증원을 얻어 포위 공격끝에 12.30에 154高地를 탈취하는 동시에 희각하는 적을 포사격으로 섬멸하였다.

한편 제1대대(金振權소령)는 10.00에 201高地를 점령하고 369高地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201高地의 적이 369高地로 퇴각하여 이곳의 적과 완강한 저항을 하였으므로 사단장은 다시 제12연대의 주력을 증원시켜 369高地의 南쪽과 東쪽에서 14.00경에 공격을 시작하여 18.00 수류탄전 끝에 이를 점령하고 패주하는 적을 강변 백사장에서 포사격으로 큰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이 곳 일대의 적을 모두 洛東江 西쪽으로 격퇴시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高地와 369高地에서 패주한 적은 이날 24.00까지 병력을 재 수습한 연후에 치열한 포격을 아군 진지에 집중하면서 다시 강을 건너 반격하여 나왔다. 제1대대는 진지안에서 백병전을 감행한 끝에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제12연대 제2대대(趙成來소령) 제3대대(朴炳洙소령)의 증원을 얻어 3차에 걸친 역습을 반복하였으나 야음으로 말미암아 지휘가 곤란하여 이를 점령치 못하였으니 야전(夜戰)이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체득하게 되었다.

8월 11일 : 이날 제1대대는 03.00에 201高地 하단부에서 병력을 재수습하였고 제12연대의 제2 및 제3대대는 水岩山쪽에서 다가오는 주간 공격에 미리 대비하는 바 있었다.

이날 10.00에 제1대대는 201高地에, 그리고 제12연대 제2, 제3대대는 369高地에 대하여 공격을 재개(再開)하였는데 적은 독전대의 총부리 앞에서도 별도리없이 악착같이 그들의 진지를 고수하기만 하였다. 洛東江 西쪽에서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말미암아 아군도 역시 부진한 공세로 끝나는 도리 밖에 없다. 그러나 17.30에 美 공군전폭기의 폭격에 뒤이어 일제히 돌격전을 감행한 결과 18.00경에는 369高地를 그리고19.00에는 201高地를 모두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살아 남은 적은 감쪽으로 퇴각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중공격과 아군의 지상포화로 말미암아 모래사장에는 적의 수많은 시체가 늘어져 있었다.

이리하여 제13연대(崔榮喜대령)정면의 적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간신히 퇴각하는데 정신이 없었으며 아군장병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沖天)하는듯 하였다.

8월 12일 : 제13연대 정면은 이날 평온한 상태로 무위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에 20.00 제2군단작명 제12호(작명부록 제9호)에 따라 연대는 浦南洞의 328高地만 방어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아군 제1사단은 9일간에 걸친 洛東江 연안지구의 방어전투에서 거의 3개사단에 이르는 적군을 상대로 하여 선전분투(善戰奮鬪)끝에 아래와 같은 주요 전과를 거두었다.

적 사살 6,867명

각 종 포 23문

전차과괴 10대

기타화기 3개트럭분

기간중의 전투는 아군 제1사단의 방어선이 30km에 이르고 있었으나 실상 격전이 벌어진 곳은 海平 지구와 369高地의 일대였다.

적은 洛東江의 큰 장애물에 부닥쳤으나 특별한 도하장비도 없이 인력으로 수중가도(水中假道)를 만들어 전차와 차량을 도하 시켰고, 도보(徒步)부대는 수심이 얕은 곳을 택하여 큰 힘 들이지 않고 강을 건너 공격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아군 제1사단이 洛東江선에서 하천(河川) 방어를 하지 못한 이유는 右측에 있던 제6 및 제8사단이

역시 洛東江 연안의 광정면에 걸쳐 전개한 채 방어태세로 옮겨졌기 때문에 조기에 적에게 도하의 기회를 넘겨주게 된 탓이었다. 따라서 洛井里에 배치 되었던 아군 제12연대도 광정면에 걸친 희박한 병력배치 때문에 적에게 개별적으로 압도되어 南쪽으로 철수하는 도리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군 제1사단은 하천선을 이용하는 방어의 장점을 전술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적에게 말려들어 여러 곳에서 분리된 집단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니 원래 하천방어의 이점은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저지하면서 그 반도(半途)를 타서 공세를 취하는데 있으니 적이 반을 건너왔을때 일시에 몰아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군은 화력의 열세와 병력의 미약, 그리고 방어정면의 광대성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초래하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3개사단도 개전이래 처음으로 아군의 완강(頑強)한 방어와 세찬 반격을 받아 실상 洛東江 물을 피로 물들게 하였는데 값을 전녀 교두보(橋頭堡)진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마나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했다는 것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특히 적은 아군의 공지합동작전에 의한 속실의 누적으로 상승무패(常勝無敗)에 따르는 고조된 사기를 송두리째 잃고 말았을 것이니 왜냐하면 야음을 타서 발도목식으로 대앗은 진지도 낮만 되면 美 공군의 제트전폭기가 편대를 짓고 나타나서 사정없이 네이팜탄과 폭탄 그리고 그위에 기관총 소사까지 퍼부어 대게 되니 제 아무리 독전이 심하다한들 그 독전대부터 먼저 퇴각을 면치 못하여 더이상 고지에 붙어 견디지 못하지 만들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개전이래 적의 전승의 핵심이 되었던 소련제 T-34전차도 아군에 발견되기만 하면 곧 3.5인치 로케트포와 57mm대전차포의 밥이 되기만 하였으니 적이 믿고 있던 호랑이가 이미 종이 호랑이가 되어 버리고 유일한 방패였던 독전대를 또 독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철제 방패가 아니라 썩은 나무조각의 방패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본래부터의 목표인 大邱와 釜山까지 일거에 진출하려면 그 공간에는 시체의 언덕과 피의 개울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리고 야밤중의 좀 도둑 모양 전후방에서 가슴 조이는 싸움과 보급수송 없이는 단 100m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개전 이래 처음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것이니 사기가 오를 까닭이 없을뿐 더러 도리어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였을 것이다.

비록 아군 제1사단이 적에게 일부의 진지를 넘겨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패퇴(敗退)가 아니라 방어정면을 정리하여 좀더 유리한 태세로서 완벽한 공수(攻守)작전을 시종하기 위한 Y 방어선으로의 이동이오, 진지 재편성을 위한 계획적인 후방 기동(機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제1사단은 浦南洞에서 水岩山과 遊鶴山 그리고 多富洞 北方을 연하는 지대에서 본격적이고도 사전 계획적인 새로운 구상으로서 허실과 기정(奇正)이 서로 묘(妙)를 이루는 이과격중(以寡擊衆)의 일대결전을 강요하려는 책략이오 이미 후퇴할때로 충분히 후퇴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다만 포착이 있고 격멸이 있을 뿐이라는 총 반격작전의 기본 방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일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교 훈

◇ 기습의 필요성 : 적이 아군의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예기치 않는 장소와 시기에 기습(奇襲)공격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세(優勢)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것

이다.

8월 4일 22.00에 아군 제12연대는 洛井里에서 적과 이탈하여 후방으로 빠졌는데 이때 적과 사단의 전위인 아군 제11연대의 전방 부대와는 10km의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아군은 이러한 경우에 공간과 시간의 허점을 골라 적의 기선(機先)을 제압하는 기습을 감행함으로써 적을 주동에서 피동(被動)으로 몰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습공격의 계획은 부대의 사기와 장비, 그리고 천후(天候)와 지형의 이해(利害)하여 따져야 될 것이며 특히 지휘관의 결단력과 평소부터의 전술 능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제12연대는 1개대대의 병력으로 하여금 月林洞의 지형을 이용하여 매복(埋伏)하고 있다가 적의 남진대열에 기습을 감행하였다면 성공할 가망도 있었을 것이다. 지휘관은 항상 기습을 단행할 호기를 노린 다음 때가 오면 곧 이를 발동시킴으로써 적에게 주는 정신적인 타격은 말할 나위도 없고 혼란과 용기를 좌절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숨리로 이끌 수 있는 인내력과 기습효과의 이용능력 여하와도 결부되는 것이다.

◇ 공세적인 하천방어

아군 제1사단의 경우와 같이 정면이 30km나되는 광정면 방어는 공세적인 방식이 적절 고수 방식보다도 유리하다 하겠다. 제13연대의 경우는 역시 15km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병력배치가 분산되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군은 적의 도하정면이 판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 방어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지구 싸움을 결과적으로 살펴 본다면 적의 도하부대를 도하중(渡河中)에 섬멸시키지 못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본다면

첫째, 방어정면의 洛東江 수심을 측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주민들의 정보를 통하여 도섭이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도하지점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도하 도중에 화력으로써 섬멸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는 적이 강을 이미 건넌 다음 아군이 점령한 고지의 탈환전으로 시종하였으니 이는 洛東江의 장애물을 이용하였다기 보다도 고지 자체만을 중요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통상의 경우 2개중대를 강제방에 배치하여 도하부대가 도하중일때 이를 먼저 화력으로써 커다란 타격을 가한 후에 그래도 아직 여의치 못하였을 때에는 뒤에 있는 1개 예비중대가 주력과 합세하여 도하한 적을 반격으로 격파하는 것이 고지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리하리라는 것이다. 하천 방어의 특징은 적의 도하를 불허하는 것이 그 종국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둘째, 제13연대는 정면이 넓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지역 내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하천 연안지구에 충분한 병력배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13연대는 하천제방에 배치하고 제12연대는 강 부근의 고지를 점령하여 반격부대로서 운영하였다면 공세적 방어가 가능하였으리라는 말이다.

세째, 하천 방어시에도 우리는 경계부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적어도 각 대대는 경계부대를 강건너 대안(對岸)에 파견하여 적의 도하기도를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방어계획에 미리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 북안(北岸)에 정찰대와 경계부대를 배치하였던 예가 없다. 특히 적이 지역내에 수중가도 작업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막는자로서 전혀 맹목농이(盲目聾耳)로 만족하였다는 흠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적 15사단의 48 및 50연대는 8월 8일 새벽에 倭館

북방 6km 및 10km지점의 도섭장에서 洛東江을 건넜고 전차와 차량은 수중교량(水中橋梁)을 이용하였다. (陸本발행육전군사(번역판 제1집 P.277참조)

◇ 군의 사기의 중요성

적은 아군에 비하여 병력이나 장비가 2~3배 우세한 가운데 대전하였다. 전투에서 병력과 장비의 우세는 승리의 커다란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지휘관이라 하여도 병력과 장비가 열세하면 사기가 저하되기 쉬우므로 승리를 얻기 힘들게 된다.

아군 제1사단은 사실상 악전고투를 하였다. 제13연대의 정우는 적이 앞에서만 공격하여 왔지만 左翼에 있었던 제11연대는 前方, 側方, 後方의 3개 방향에서 공격을 하여 왔었다. 따라서 하천방어 작전은 처음부터 할 수 없었고 항상 노출된 진지에서 2~3배에 가까운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적에게 패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격파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부대 장병들의 사기가 왕성하였기 때문이다.

제1사단은 개전이래 꾸준히 선전(善戰)을 하여 왔고 비록 지연작전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부대원들의 심중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항상 복수심이 끓어올랐다. 洛東江 방어선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신병보충을 받아 병력은 70%을 유지하게 되었고,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3.5인치 로케트포가 보급되어 장병들은 이제야 싸울만 하다고 만족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적은 병력과 장비가 우세하였지만 그들은 보급(식량 탄약)이 제 때에 따라오지 못한 데다가 낮에는 수차에 걸쳐 美 공군의 폭격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적은 8월 15일안으로 釜山까지 해방시키라는 괴수 金日成의 호령을 그대로 따르고자 독전대를 편성하여 점령지에서 동원한 의용군들을 다발총 부리로 마구 몰아 아군포화의 제물(祭物)로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투란 반드시 병력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 대전차전에서 승리하는 두가지 요소

개전 이래 아군장병의 병폐는 적의 전차에 대한 공포심이었다.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6인치 로케트포 장비로는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3.5인치 로케트포는 大田 전투때에 美 제 24사단에 처음으로 보급되었으나 아군 제1사단에 보급된 것은 洛東江 방어선 전투에서부터 각 연대에 3문씩이 보급되어 특별훈련을 받았던 것이 그 시초라 하겠다.

제12연대의 특공대는 이 3.5인치 로케트포로 적 전차 5대를 파괴하였고, 제11연대는 57mm대전차포로 역시 5대의 전차를 파괴하였다. 전차는 항상 보병의 엄호를 받아 합동작전하는 것이 데이거니와 적의 전차가 단독으로 행동하게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美 공군의 활동으로 낮에는 민가를 뚫고 들어가 있다가 밤에나 활동하여야 되는데 작전지역은 주위가 대부분 논(水田)이 깔려 있는 곳이라 기동이 용이치 않았다. 따라서 전차는 보병부대와 같이 행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군의 특공대가 50m까지 접근하여 사격할 때까지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모조리 파괴되었는데 보병을 수반하지 않는 전차는 거의 무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차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군은 서로가 나가겠다고 다투게 되었으니 대전차(對戰車)전투에서 성공하는 요소는 첫째로 우수한 장비, 둘째로 필승의 신념 두가지라고

보는 것이다.

◇ 적의 기만수단

제13연대 정면에서의 적의 공격 방식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니 새벽에 공격하여 오는 부대는 작은 규모의 탐색공격이었지만 밤중에 공격하여 오는 부대는 큰 규모의 병력으로 본격적인 공격형태로써 나타났다.

제13연대 제3중대 정면에서 새벽에 적병 6명이 손을 들고 투항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오자 30m 전방에서 아군이 "총을 버리고 오너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다발총을 난사한 까닭으로 아군이 당황하여 진지를 버리고 뒤로 물러난 예가 있었다. 이런 관계로 적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손쉽게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적은 개전 이래 도처에서 이러한 기만수단을 여러번 사용하였다.

◇ 예비대의 효용성

광정면을 방어하는 부대가 예비대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술의 원리는 오히려 광정면일수록 예비병력의 보유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 광정면 방어는 기동력의 우월이 그 근본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단에서는 제12연대를 예비대로서 거의 운영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였지만 지역방어를 담당하는 각 대대는 거의 예비대를 갖지 못하고 독력(獨力)으로 싸움을 하였다. 따라서 진지가 적에게 돌파 당하면 그대로 대대전체가 진지를 상실하곤 하였다.

지휘관은 가능한 최소한의 예비대를 확보하여 돌파 당한 곳에 신속하게 예비대를 투입하여 역습으로 돌파구를 봉쇄하여야 될 것이다.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방어선을 일선으로 짙게 점령하는 것 보다는 지역을 좁게 점령하고 종심있는 배치로 융통성있는 방어지역을 편성하는 것이 예비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제13연대에서 1개 대대의 특공대를 편성외로 가지고 있다가 운영한 것은 당시 전국(戰局)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에 이루어짐으로써 곤란한 점이 많았다. (예. 군번수여의 지연, 일보작성의 곤란, 주부식 수령의 곤란, 미복문제, 급여의 곤란)

§ 참전자의 증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

(1970. 11. 2 서울, 西橋洞자택, 예, 중장)

"제11연대는 제5연대 2개대대와 제11연대 1개대대와 합쳐 완전 2개대대로 편성하고 1개대대는 大邱 지방에서 모병한 학생과 청년들로서 편성한 신병대대이다. 그래서 본래 제11연대는 제1대대가 되어 金在命 소령이 지휘하고 제2대대는 제5연대병력인데 이를 車甲俊 소령이 지휘하였다.(본시 대대장은 李斗璜 소령이나 사실상 작전주임인 車 소령이 지휘하였다). 제3대대는 鄭永洪 소령이 맡았다.

우리연대는 적이 洛東江西 쪽에서 강을 건너 공격하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처음에는 강변에 연하여 배치하였으나 막상 적은 제13사단이 洛東里에서 남하공격하여 왔기 때문에 배치가 北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우리 연대 정면에 적이 도하하여 공격한 예는 없고 계속 북방의 적 제13사단과 교전하였다.

이리하여 싸움은 海平洞 北쪽의 168高地에서 反浦洞 北쪽에 있는 저수지 南쪽 능선이 방어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진일퇴의 싸움이 벌어 졌는데 적은 주로 야간에 공격하여 오면 우리는 168高地를 고수하면서 우측대대가 뒤로 빠져 적을 月溪洞의 골짜기로 유인하였다가 닫이 되.

면 항공지원과 배속된 1개포대의 지원을 받아 반격으로 적을 격퇴시켰다. 이와같이 반복을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적 9개 대대를 섬멸시켰다고 추산한다. 따라서 적의 실지 손실은 연대병력이 될 것이다.

당시 우리연대에는 3.5인치 로케트포가 나오지 않았고, 57mm 대전차포 2문을 가지고 있다가 海平쪽에서 제방의 도수를 따라 남하하는 것을 5대나 파괴시키고 말았다. 내가 거리를 직접 관측하였는데 1,200m였었다. 이 바람에 사기가 올라가 통신병이 과수원 안에 있는 적의 전차를 노획하였는데 이때 적 전차병들은 배가 고파 사과를 정신없이 따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류탄으로 공격하여 적을 격멸하고 전차를 잡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서 印度의 UN대표로 나와있던 대령이 연내 군수주임 李周熙 대위의 안내를 받고 사진 찍으러 들어오다가 우리가 매설한 대전차지뢰에 의하여 폭파되는 바람에 손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연대가 북진할 때 洛東里의 나룻터를 보니까 수중교(水中橋)을 논 흔적이 있었다. 모래가마니를 물속 1m 정도 쌓았고 드럼통을 군데군데 집어 넣고 그런데 전차가 美 공군의 공격을 받고 물 가운데 서너 대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제11연대 작전주임 보좌관 崔一鎭 중위

(1966. 3. 8. 陸本, 준장)

"洛東江 싸움은 하천 선방어가 아니고 각 연대가 독립된 싸움을 하였고 연대는 연대대로 대대가 독립된 싸움을 하였다.

제11연대는 주로 海平 지구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洛東江을 앞에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洛東里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左右지대를 점령하여 적 제13사단의 주력부대와 치열한 싸움을 하였다.

적이 洛東江에 수중가도를 만들고 전차, 포, 차량 등이 건너온 것은 사실이다. 적의 보병부대는 처음에 아군이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남하하다가 우리에게 격파되었다.

海平 지구에 나타난 적의 전차는 과수원속에 숨어 있다가 아군을 공격코자 길도 아닌 개울로 나타났는데 대전차포중대장 崔永石 대위가 57mm대전차포 2문으로 하여금 500m 거리에서 사격하여 4~5대를 파괴하였다. 때마침 美軍 제트전폭기가 나타나서 또 다시 파괴하였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통신병들도 수류탄을 들고가서 과수원에 남아 있는 전차를 공격하여 모두 7~9대의 전차를 부쉈 것으로 알고 있다."

제11연대작전주임 車甲俊 소령

(1970. 9. 21. 창경원내, 예대령)

"내가 작전주임이었으나 제2대대의 부대배치를 지도하러 나갔다가 전투가 벌어져 사실상 제2대대를 지휘하였다. 왜냐하면 대대장이 병참장교출신이라 대대장의 요청도 있고 또 연대장의 승인도 받아서 그렇게 하였다.

당시 연대는 海平 지구에서 신병보충과 장비를 새로 받아 재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대대병력이 거의 정원에 찼다고 본다.

처음 전투는 225高地선에서 적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오다가 접촉이 되었다. 밤중에 적이 세번 돌격하여 왔으나 우리는 사격으로 이를 막아냈다. 낮에 우리는 적의 노획 무기를 한 트럭이나 실어서 연대로 후송하였다. 제12연대 제1대대가 우리대대의 右측에 증원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연결되어 같이 싸우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海平 지구로 빠지게 된 것은 善山쪽에서 적 1개연대가 洛東江을 도하하여 우리 대대의 후방에 침공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海平 지구로 물러나서 168高地에서 싸웠는데 이 때에 비로서 적의 전차가 나타났다. 과수원에 전차 10여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연대에서 대전차포와 수류탄으로 7대인가를 부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 파괴된 전차를 사진 찍으러 印度대령(UN한국위원단 한국대표 「나얄」대령을 가르킴)이 들어 오다가 죽었다. 우리 부대가 전차를 대량으로 부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항공지원은 이때 잘 받았다. 대개에도 美 고문관이 배속되었기 때문에 특히 전차가 나타났다고 하면 15분이내에 비행기가 날아왔다.

12일 밤에 海平에서 철수하여 多富洞의 방어선으로 들어갈 때 적의 역습을 받고 죽을번 하였다. 적은 병력의 기습행동이었지만…"

제11연대 수색중대원 朴龍柱 일등병

(1966. 2. 1. 제6관구사령부·소령)

"나는 大邱에서 교원으로 있다가 입대하였다. 2주간의 단기훈련을 받고 洛東江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적의 전술은 한마디로 인해전술이었다.

포로를 심문하는데 그 자는 계급이 전사(戰士:)였다. 그도 전쟁이 나자 공업전문학교 학생신분으로 끌려 나왔는데 군관(軍官)들은 지휘보다도 뒤에서 독전하고 그 뒤에는 진짜 독전대가 있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죽엄을 뜻한다고 하였다."

제12연대장 朴基丙 대령

(1964. 12. 13 장충동 자택 예. 소장)

"369高地 하단부에 도로가 南北으로 뻗어있는데 부락에 있는 국민학교에 적 전차가 12대가 있다고 하여 전차파괴 특공대를 보내서 모두 8대를 3.5인치 로케트포로 파괴하였다. 이때 鄭永朝 상사가 나갔다. 그 가운데 퇴각하던 전차 1대가 다리 위에 주저 앉는 것이 있었으므로 사단에서 후송하라고 하였으나 방법이 없었다.

美 공병대에서도 이를 후송하려고 관계자들이 왔으나 전투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전차 내부에서 일부 부속만을 뜯어서 美軍에게 보내 주었다.

당시 신문과 라디오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전공을 치하하기 위하여 丁一權 총참모장과 趙炳玉 내무부장관이 연대지휘소까지 와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돌아간 바 있었다."

釜山日報 1950. 8. 12자 東京 1일발 AP합동.
"韓國軍 제1사단의 일부부대는 10일 괴뢰군과 백병전을 감행하여 전차 3대를 포획하였다. 그러나 괴뢰군은 의연 잔존하여 반항능력을 갖고 있다. 또 이 바로 근방에 있었든 괴뢰군 전차 6대도 UN군 및 韓國軍의 협력하에 격파되었다."

제12연대 특공소대 崔春洙 이등중사

(1966. 2. 29. MIG. 대위)

"연대장 朴基丙 대령이 경상환자중에서 30명을 모아가지고 특공소대라 하여 처음나온 3.5인치 로케트포를 가지고 1주일간 훈련을 하였다. 전차가 나왔다고 해서 3개조가 출동하여 1개조는 다리 부근에 1개조는 국민학교, 1개조는 그 중간에 배치하여 적의 선두전차와 후미 전차를 때리고 계속해서 중간전차를 사격하여 모두 9대를 파괴하여 버렸다.

뒤에 정훈장교가 와서 우리가 전차위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못하였다면 大邱 시내에 적이 들어 갔을 것이다."

제13연대장 崔榮喜 대령

(1970. 9. 21. 대한통운 사장실 예. 중장)

"咸昌·店村지구에서 싸우다가 洛東江선으로 동이하였는데 洛東里에서 나룻배로 강을 건넜

다. 이때는 적과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仁洞에서 부대의 재 편성을 하였는데 병력은 신병을 보충받아 2,000여명이 되었다. 81mm박격포는 대대에 2문 정도, 그리고 중·경기관총, 자동소총 등의 장비 보충이 처음으로 되었다. 적이 洛東江에 수중가도를 만들고 전차 등이 건너 왔다는 것에 대하여는 나로선 아는 바 없으며 적 보병소대는 용이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 연대가 건너온 적을 많이 격멸시켰는데 모래 사장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공대대의 편성 : 報恩에서 13연대하고 15연대하고 합쳐서 13연대로 개편할 때 3개대대로 편성하고서 남은 병력을 가지고 특공대대의 기간요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개대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石鐘燮 소령하고 金某(이름을 기억할 수 없음 宋堯讚의 비서실장하던 사람) 대위를 全羅道와 慶尙道에 보내서 모병을 하여 왔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병력이 1,000명가량 되었다.

이들은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CP의 경비를 담당하였고 일선대대가 진지를 점령당하였을 때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다시 진지를 되찾고 하였다. 이 특공대대의 장비는 고문관에게 이야기해서 모두 경장비를 하였다. 나는 편성에도 없는 특공대대를 가짐으로써 융통성있고 또한 항상 예비대를 보유함으로써 적기에 위기를 구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 대대는 북진당시 平壤에서 비로소 현역에 편입이 되었다."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

(1970. 5. 30. 육군대학발행, 군사평론 118—119합본, 다부동전투회고, p.2)

"洛東江 방어선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사단병력은 10,000명 내외이며 105mm 1개대대가 이때야 비로소 보충되었고 훈련된 약간의 고참병이 부대기간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외는 대부분 1주간의 기초적인 훈련 밖에 받지 못한 신병으로 보충되었고 특히 이들은 훈련기간중 불과 20발의 실탄사격을 실시한 경험 밖에 없는 병사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병력 및 장비훈련 정도는 적에 비하여 지극히 미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臨津江에서 洛東江까지의 계속적인 지연전으로 부대사기는 저하되고 병사들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이와같은 불리한 상황하에서 洛東江의 하천장애물을 최대로 이용하여 결정적인 방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사단은 작전용 지도 한장 없었다."

6. 328高地戰鬪 (50년 8월 14일 부터 50년 8월 30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No1호
상 황 도 제 7호
작명부록 제 7,15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2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제15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2대대 장	소령	李 存 一 (8.20 교대)
제1대대 장	소령	金	振	暐	제3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	소령	劉	載	成	병력 : 15연대……2,000여명		

적 군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鎭	보충연대 장	미	상
제7연대 장	미		상		포병연대 장	〃	
제8연대 장	〃				병력 : 3사단……6,000여명		

나. 전투 전의 개황

적군의 상황 : 大邱 정면에 주공(主攻)을 지향한 적 제3사단은 洛東江 대안의 若木 일대에서 도하 준비를 완료하고 8월 5일 공격을 시작하여 8일간에 걸쳐서 전차를 선두로 아군 제15연대(註1) 정면에 끈덕진 공격을 되풀이하였다.

적은 강 기슭의 몇 개 고지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아군의 폭격과 포격, 그리고 반격에 부닥쳐 끝내 교두보를 확보치 못하고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병력보충에 급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적의 공격이 실패한 주요원인은 폭 300~400m의 洛東江을 건넌 다음 논밭을 통과하여 해발 300고지가 넘는 능선지대를 올려 보면서 공격하여야 하는 약점이었다. 더구나 적은 탄약등의 보급이 뒤 따르지 못한데다가 낮에는 美軍의 폭격으로 이미 점령한 고지마저 확보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적은 침략지역에서 강제로 동원한 의용군을 보충 받아 이들을 앞 세웠고 뒤에서는 독전대가 총부리를 겨누면서 아군의 포화 속에 밀어 넣고 죽음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적 제3사단은 지휘소를 若木에 두고 예하 보충, 제7, 제8연대의 3개연대와 1개포병연대, 그리고 20여대의 전차가 이 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아군의 상황: 아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8월 5일부터 13일까지의 전투에서 번번히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선전감투(善戰敢鬪)를 하였다. 이 당시에 비록 전차는 없었지만 美 공군의 신속한 지원에서 보여 준 폭격(특히 네이팜탄)은 아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개전 이래 아군은 처음으로 3.5인치 로켓트포를 장비하게 되어 적의 전차를 능히 파괴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의 전차에 대한 공포심을 저 버리고 전차가 나타나기만하면 서로 앞을 다투어 나서게 되었다.

아군 제1사단은 8월 1일 육군본부의 전선정비(작명부록제 7 호)에 의하여 Y선(상황도 제 7 호)으로 물러나(13~14일)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Y선이란 倭舘동북방 약3km지점의 303高地——浦南洞의 328高地——水岩山(△519)——遊鶴山(△839)——新酒幕에서 中九洞(軍威에이르는 도로)에 이르는 도로北方의 △238, △266, △272高地를 연하는 선이다. 이 선은 적의 정황과 기동을 감제 관측할 수 있는 지대(地帶)로서 횡격실(橫隔室)을 형성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다).

8월 14일에 아군 제1사단은 사령부를 多富洞 南쪽 9km지점에 있는 東石洞에 그리고 제15연대는 사단사령부의 北方 약 3km지점의 下枝洞에 각각 두게 되었다.

14일 10.00현재 제15연대는 美 제1기병사단과 左측에 인접하였고 右측에는 제12연대와 望亭洞선에서 접하고 있었다. 연대는 328高地(註 2)를 중심으로 하여 右측능선에 제1대대를 左측에 제3대대로 하여금 점령케 하였고 제2대대는 多富洞에서 아군 제1사단의 예비대로 있었다(註 3)

다. 전투경과의 개요

8월 14일: 若木 일대에서 공격을 준비하던 적 제3사단의 증강된 1개연대 병력이 이날 미명에 洛東江을 건너서 강 기슭에 배치된 아군 제15연대(제2대대欠)진지로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註 1. 제13연대를 제15연대로 개칭한 이유에 대하여……7월 5일 제1사단 제13연대와 제5사단 제15연대를 통합할때 (제13연대 1개대대와 제15연대 2개대대) 호칭을 제13연대로 하고 연대장은 제15연대장인 崔榮喜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제15연대 소속의 장병들은 호칭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바 있어 이를 崔榮喜대령이 육군본부에 건의하여 국본(國本)일반명령(육) 제53호(50.8.25)로 제15연대로 개칭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는 처음부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15연대로 호칭키로 하였다.

2. 328高地는 전투당시 장병들이 300高地로 통칭하여 왔는데 圖上에 328高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다.

3. 제15연대 제2대대를 아군 제6사단에 배속하게 된 것은 제2군단 작명 제14호 (50.8.15 13.00) 부록 제15호 참조.

제1대대(金振鐸소령)와 제3대대(崔炳淳소령)는 포지원을 받아 적의 도하강행(渡河強行)을 막았으나 적의 치열한 포격 때문에 주진지인 328高地의 8부능선으로 물러나 배치를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의 숫적인 우세와 포격으로 말미암아 손실은 증가되고 더 이상 진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14.00경에 이르러 328高地(註)에서 일단 물러나기로 하여 2개대대는 南쪽의 464高地선으로 철수를 하였다.

이곳에서 재편성을 끝마치게 된 제1, 제3대대는 곧 특공대를 조직하여 16.00에 105mm 포 및 美 공군 전폭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반격을 단행하기 시작하여 21.00에는 328高地를 끝내 탈환하고 적을 강 기슭으로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와 통신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대장은 연대수색소대를 급히 파견하여 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수색소대장(朴在根소위)은 제3대대의 지휘소를 찾아 지휘하고 있던 대대장(崔炳淳소령)에게 파견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장은 수색소대의 배속을 원한 나머지 연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수색소대로 하여금 328高地 左측능선을 점령케 하였다. 그러나 밤중에 적이 기습하여 왔기 때문에 수색소대는 육박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격퇴시켰는데 소대장이 새벽에 살펴 보니 아군은 1개분대사상을 내게 되고 적의 유기시체는 20구를 넘었다.

8월 15일 : 어제 밤 격퇴 당한 적은 이날 미명에 154高地일대에서 병력을 재수습하여 재차 328高地로 공격을 시도하여 왔다. 이리하여 아군은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여 정상의 진지를 고수하며 적을 격퇴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약 2개대대로 추산되는 적은 22.00에 야음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야습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328高地를 적에 점령당하고 뒤로 물러나 464高地일대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반격을 준비하였다.

8월 16일 : 328高地를 점령한 적은 진지를 보강 중이었으며 미명을 기하여 적 보충연대의 병력이 아군 제3대대와 左 인접부대인 美 제5기병연대의 전투지경선(328高地와 303高地간의 개활지)으로 침투하여 아군의 주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위협하였다. 제3대대는 美 제5기병연대의 전차와 포병의 화력지원 하에 반격을 시작하여 혈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격퇴하여 버리고 즉시 328高地의 左측능선에 있던 원진지를 08.30 다시 탈환하였고 제1대대도 09.30에 328高地를 점령하였다. 이 공격전은 능선정상 15m 거리에서 서로 수류

註 : 328高地는 수목이 없고 岩石이 많이있는 돌산으로서 호 구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적의 집중포화에 은신처가 없어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한 고지이다.

탄을 던지면서 육박하는 백병전이었다. 연대수색소대장 朴在根 소위는 부상을 입고 내려 오는 도중에 대원들이 부르는 만세소리를 듣고서는 크게 안심하고 구호소로 향하였다.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기 98대가 洛東江 西部의 아군 제1사단정면의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5.6×12km 평방지역에 전략폭격을 가하였다(제20장 참조)

8월 17~18일 : 연대 정면의 적은 어제(16일)의 융단(絨緞) 폭격을 받은 탓인지 17일은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18일 아군 제 1, 제3대대는 洛東江 부근까지 진격하여 일부 잠복중이던 적을 공격하여 모조리 섬멸하고 말았다.

8월 19일 : 이날도 정면의 적은 美 공군 전폭기의 활동과 인접 美軍 전차의 포격 때문에 교착 (膠着)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제1, 제3대대는 강 기슭의 진지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8월 20일 : 적은 3일간에 걸친 재정비 끝에 이날 미명에 美 공군의 출격이 없는것을 기화로 369高地 쪽에서 2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아군 제1대대의 154高地진지를 점령 한 다음 계속 진출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므로 제1대대는 328高地로 물러나 淸溪洞선에 배치된 제3대대와 협동하여 반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의 집중포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여 328高地에서 배사면(背斜面)으로 진지를 변환하면서 이 고지가 그 주인을 바꾼 것이 대체 몇 차례나 되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하다가 07.30에 美 공군기의 출격이 시작되자 긴밀한 공지(空地)의 협조로 반격전을 또다시 시작하여 19.00에 이르러 328高地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니 이는 제공권을 장악한 결과라 하겠다.

8월 21일 : 아군 제15연대 주력은 어제의 전투 손실로 부대 정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미명에 잠시 인접 美 제5기병연대의 일부병력에게 이 진지를 인계하고 328高地후방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다음 이른 아침에 재차 진지를 인수하였다(註).

진지를 인수한 09.00경부터 적은 간단없이 포화력을 집중시켰고 약 2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또다시 328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왔다. 그러나 아군도 수차에 걸친 근접전투와 화력을 집중하여 20.00에 적을 격퇴시켰는데 적은 약간의 병력을 남겨 놓고 퇴각하였으니 필 그들의 전진거점(前進據點)을 삼으려는 심산인듯 하였다.

8월 22일 : 아군 제1, 제3대대는 적의 반복되는 기습전을 사전(事前)에 격파하고자 01.00의 심야 삼경(三更)을 이용하여 浦南洞과 淸溪洞선까지 은밀히 진출하였는데 대안(對岸)에서 적이 집중사격을 하여 와서 일시 혼란되었으나 05.00에 인접 美 기병연대의 포병 화력지원을 받아 적의 포진지를 제압하면서 강 기슭에 진출하였다. 날이 밝게 되자 美 공군전폭기대가 대거 출격하여 와 적의 포진지를 강타, 침묵토록 만들어 버렸다. 이곳에서 적은 18.00에 369高地쪽으로 모두 퇴각함으로써 전선은 평온을 유지 하게 되었다.

8월 23~27일 : 적 제15사단이 8월 20일 永川쪽으로 전진(轉進)함으로써 아군 제1사단 정면의 전황은 교착상태에 이르러 피아의 대치(對峙) 속에서 가벼운 정찰전만 기간중 여러번 되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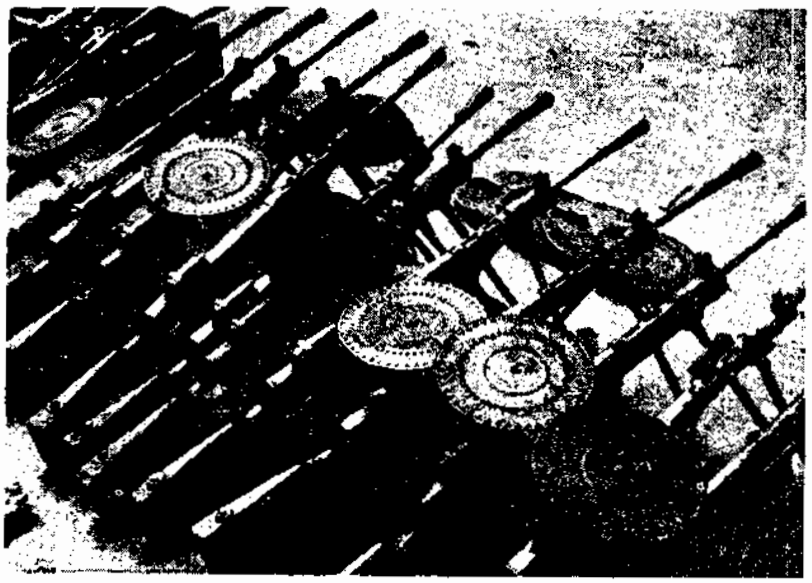
8월 30일 : 아군 제15연대는 2개대대의 병력으로써 적 제3사단과 328高地에서 도합 9차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여 피아간에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끝내 이 진지를 고수한 다음 이날 육본작명제151호 및 2군단작명 제22호(작명부록제33,38호)에 의거하여 13.00시에 현진지를 美 제1기병사단에 인계한 다음 大邱를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장병들의 모습은 희비쌍곡선을 이루었는데 이는 수지고수(守地固守)의 영광과 잃어 버린 전우에 대한 상념이 교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적 제3사단은 기간 중의 전투에서 美 공군의 부단한 공중 폭격과 그리고 아군의 포격 하에서 328高地를 점령하고자 끈덕진 공격을 거의 일과와 같이 반복하였으나 도리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되어그 사기는 급전락(急轉落)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적은 제15사단이 永川쪽으로 전진함으로써 전선이 넓어지고 보급의 지연과 탄약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속된 공격행동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자랑이었던 전차도 미공군에 의하여 거의 파괴되었고 아군이 장비한 3·인치 로케트포에 여지없이 파괴됨으로써 전차지원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

반면 아군 제15연대는 2주일에 걸친 이른바 300高地(실지는 328高地)전투에서 피비린내 나는 근접전투와 육박전을 통하여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이를 사수하였던 것이다. 비록 인적손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아군 전선 내의 요지를 담당하여 인접부대와 긴밀한 협조밑에 임무수행을 완전히 끝마치고 이미 말한대로 8월 30일부터 기동을 시작한 결과, 이날 17.00에 大邱, 河陽을 거쳐 21.00에 新德洞에 이동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註 : 美 제5군기병대와의 협조관계 및 어떤 단위대와 교대하였는지는 자료 불충분으로 분명치 않다.



〈328高地전투에서 노획한 적의 정규판총〉

§교 훈

◇ 기초훈련의 중요성

보충되어 온 신병들이 10일 미만의 단기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대장 중대장등의 지휘가 매우 곤란 하였다.

첫째, M1소총을 완전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투시에 화력을 제대로 발휘치 못 하였다. 특히 간단한 고장도 고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고참병, 소대장들은 병기장교의 임무까지 맡아 보아야 하였을 것이다.

둘째, 훈련당시 수류탄 투척의 요령만 배웠지 실제로 던져 보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수류탄을 제대로 적의 무리에게 던지지 못 하였다.

◇ 전장심리의 특이성

아무리 용자(勇者)라도 싸움터에 나서게 되면 특수한 심리에 잠겨지는 법인데 그 가장 현저한 것이 적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한다. 이 싸움에서도 신병들은 진중(陣中)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심 때문에 근접전이나 육박전에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치 못하였다. 따라서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명령이 없는데도 진지를 이탈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중대나 대대의 전지를 내어주는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병이라도 경험을 쌓고 고참병이 되면 자신의 위신과 책임관념 때문에 스스로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으니 생사일곡(生死一刻)을 판가름 하는 싸움터에 있어서의 심리전은 매우 특수하므로 지휘관들의 치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참전자의 증언

제15연대 3대대장 崔炳淳 소령

(67.12.24 釜山市廳, 예비역 대령)

"儀舘, 多富洞지구에서 1개월을 전투하였는데 특히 300高地(△328)의 전투는 치열하였다. 1일간에 보충병력을 5~600명을 받고 한번 전투를

치루고 나면 반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다. 시체를 땅 파고 묻을 시간이 없어 그대로 두고 싸웠고 洛東江 물이 적의 시체로 붉게 물들었다.

B-29폭격기 98대가 연대정면에 대폭격을 가할 때에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이 폭격 때문에 적의 주력이 거의 없어 졌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15연대 3대대 작전장교 張永鍾 중위(66.3.10 육본 G3·대령)

"우리 3대대의 지휘소는 望亭國民學校에 있었다. 미 제5기갑연대와 인접하여 서로 협조 잘 하였다.

8월 14일 우리대대는 후방에서 1주일간 훈련 받은 신병들을 강변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적의 전차가 야간에 美軍지역을 뚫고서 우리 대대지휘소에 접근 하였다. 그래서 학교숙직실에서 자고 있던대대 정보장교는 水岩山으로 올라가서 15일 아침에 이 정보장교가 나에게 무전기로 연락하여 왔는데 그 요지는 적의 전차가 골짜기에 숨어 있다. 美軍에게 연락해서 때려라. 다리 밑에 2대, 국민학교 정자나무밑에 2대 방앗간 창고에 2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美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 한테 가서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 전폭기4대편대가 와서 폭격을 하였는데 그 후에 보니 적의 파괴된 전차는 모두 11대였다. 3대가 도망하였으나 끝내 격파되고 말았다. 정보장교는 계속해서 연대병력이 洛東江을 도하하는 것을 水岩山에서 관측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곧 미군의 전폭기가 출격하여 적의 도하부대를 공격하였다.

3.5인치 로케트포가 공급되자 파괴된 전차에 시사(試射) 해 보았더니 과연 신나게 파괴 되어 장병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그 후 정보장교는 11중대장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대대장이 나를 보고 3일 훈련 받은 신병 70명을 데리고 가서 11중대 후방에 침투한 적의 포를 빼앗아 오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이들을 지휘하여주력은 골짜기에 엄호시키고 2개분대를 은밀히 적의 포진지로 포복시켰다. 이리하여 보초 2명을 처치하고 위장(僞裝)해 놓은 포 3문을 노획하여 끌고 나오는데 미군들이높은 고지에서 보고 우리를 피뢰군으로 알고 사격을 하여왔다, 그래서 나는 무전으로 "나는 제15연대 제3대대 S-3다. 너의 대대연락장교 라치 대위를 안다"고 하니까 "OK……"그래서 倭舘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로에서 라치대위를 만나서 美 5기병연대 본부로 갔다.

기병연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주니까 그는 나를 보고 우리 대대의 "부대배치상황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 주니까 놀래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최초의 Y선에 배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포병대대장과전차중대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대대의 배치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잘 하여 주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나의 복장이 너무나 남루한 것을 보고 작업복을 여러 벌 주었으므로 이를 받아가지고 와서 연대장 대대장 정보장교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11중대 후방에 침투한 적은 아직도 우리 배치선을 빠져 나가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11중대지역을 통과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100명의 포로를 잡았다.

이 지구에서의 노획품이 여러 차 분이 되었다."

제15연대 3중대장 李信國 중위

(68.9.1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령)

"적은 浦南洞에 있는 본에서 박포기를 뽑고 논속에 숨어 있었다. 이것은 아군의 포격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高일수가 7명총사수인데 부상당하자 중대장(李元根중위)이 후송시키라고 하면서 李중위가 직접 BAR을 가지고 올라 가다가 전사하였다. 그래서 328高地에서 철수하였다. 이때는 해가지고 어둠어둠할 때인데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적병을 내가 권총으로 쏘았는데 보니까 대위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본산 철수한 우리 중대는 대대지휘소에서 재편성하고 밤새 328高地를 공격점을 포령하니까 우리가 고지에서 잃어버린 BAR등 화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기서 적의 간호병(여자)로하였다.

328高地에서 여덟번후퇴하고 아홉 번공격을 하였다. 이곳에서 대대장 金振暲소령이 가고 劉載成소령이 교대하였을 것이다.

항공지원은 千泰植중위가 광축창교로서 나와서 우리의 정찰기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요청 후15분이면 4대의 전폭기가 와서 15분간 공격하곤 하였다.

7차 공격에서 323高地를 주간에 탈환하고 야간에 적의 반격을 받고 중대원들이 후퇴를 하였는데나는 혼속에서 낙오되어 새벽까지 잠이 들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아침에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눈을 떠 보니까 적의 군관(軍官) 계급장이 보였다. 그래서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의 계급장을 뜯어가지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중대원들과 만났다. 내 생각으로서는 적의 군관은 나를 자기의 부하로 오양이다.

야간 전투시에는 혼속에서 머리 맞저보고 육박전을 하였다. 왜냐하면 피아를 구별할 수가 없었기때문이다. 당시는 북괴군은 머리를 박박 깎아 있었고 아군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5연대 특공대장 金明中 대위

(65.12.10 국방대학원, 대령)

"328高地 전투시 야간에 제3대대가 포위되자 연대장명령에 의하여 나는 지휘소 경계를 하다가 곧출동하였다. 이리하여 야간공격 끝에 1개 중대가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을 구출 하였다. 다음 날 우리특공대 약 200명은 적의 전차를 2대 노획하였다. 그리고 4명의 적의 소년병을 포로로 하였다".

15연대 1대대장 劉載成 소령

(68.8.14 중앙회, 예, 대령)

"328高地에서 金振暲소령과 교대하였다. 당시 1일 보충병력을 2~300명 정도를 받았는데 소모전이었다. 적도 전사적으로 공격하여 왔기 때문에 피아간에 희생이 컸다. 하도 희생이 커서 내가 직접 고지상에 올라 가 보았는데 시체가 산적 되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美軍포지원도 받았지만 때로는 우군포에도 많이 희생이 되었다.

내가 전 대대장과 교대한 이유는 金振暲소령의 작전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도 희생자가 나니까 대대장을 바꾸어 보았는데 내가 인수한 후에도 희생은 여전하였다."

제15연대 9중대 소대장 李昌浩 중위

(66.8.4. 6D 7R, 대령)

"제3대대의 左측에 배치되었는데 낮에는 고지에 있고 밤에는 강변에 배치되었다. 낮에는 적이 건너편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 먹는 것이 보

였다.

적은 주로 야간에 공격을 하여왔다. 왜냐하면 낮에는 미군 비행기의 폭격이 심하였고 포사격이 심하여 주간공격을 못 하였기 때문이다. 328高地에서는 10차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제1대대)"

제15연대 1대대 작전장교 李鍾鼎 중위 (65.10.29. 국방부본부·대령)

"328高地에서 10일간전투를 하였는데 우리 대대도 거의 희생되었다. 어느 중대건 중대장이 세번이나 교대되었고 소대장도 하사관들이 했다. 6.25 당시부터 있던 분대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보충된 신병들은 1주일간 교육 받은 사람들로서 M1총 제대로 쏘지 못하였다. 적도 남한에서 강제로 동원한 의용군들이라 우리 신병들과 마찬가지였다.

328高地는 돌바위산이라 시체를 묻을 수 없었고 냄새가 고약하였다. 육군본부 작전국장 姜文奉대령이 전선시찰차 나왔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하산하였다.

우리 대대와 미 기병연대가 교대할 때 미군들이 전장(戰場) 청소(시체정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진지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교대시간에 철수하였다. 때마침적이 공격하여 와 고지를 점령하자 미군은 우리보고 빼앗아 주어야 진지를 인수하겠다고 욕설하였다. 결국 우리가 공격해서 탈환한 다음 진지를 인계하고 이동하였다".

제15연대 3대대 9중대소대장 朴鍾淳 소위(66.3.22. 육군본부 G-4. 중령)

"적이 야간에 洛東江을 도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격을 집중시켰다. 아침에 보니까 백사장에 적의 시체가 새까맣게 깔려 있었다.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 (육군대학발행, 군사평론. 제118-119합본 1970.5.30 p.3-4)

"나는 15연대가 현 방어선(328고지를 말함)으로부터 巢鶴山방면으로 철수한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15연대장과 현지에 도착하니 병사들은 역시 무질서하게 철수를 하고 있었읍니다. 이 상황에서 巢鶴山이 적으로부터 돌파 당하게 되면 美 기병사단이 위협 받게 되며 우군의 조직적이며 지속성있는 방어는 기대 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이때 15연대장은 이곳에 배치되었던 대전차포로 아군이 철수하고 있는 데를 쏘게하니 병사들은 적의 포탄으로 오인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아군 역습부대가 역습하게 되므로 무질서하게 철수하던 부대는 역습부대와 합류하여 일제히 역습에 참가하게 되었읍니다. 적(敵)은 대부대가 증원되어 역습해 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읍니다.

§일 화

제15연대. 제3중대 소대 선임하사관, 金一河 일등중사(66.2.1, 제6관구사령부·대위)

"328高地 공격전투 때 중대장 申鉉祥 대위가 복부관통으로 전사 하였는데 유언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의 최후의 승리를 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뒤를 따를 용사들이 많으니……"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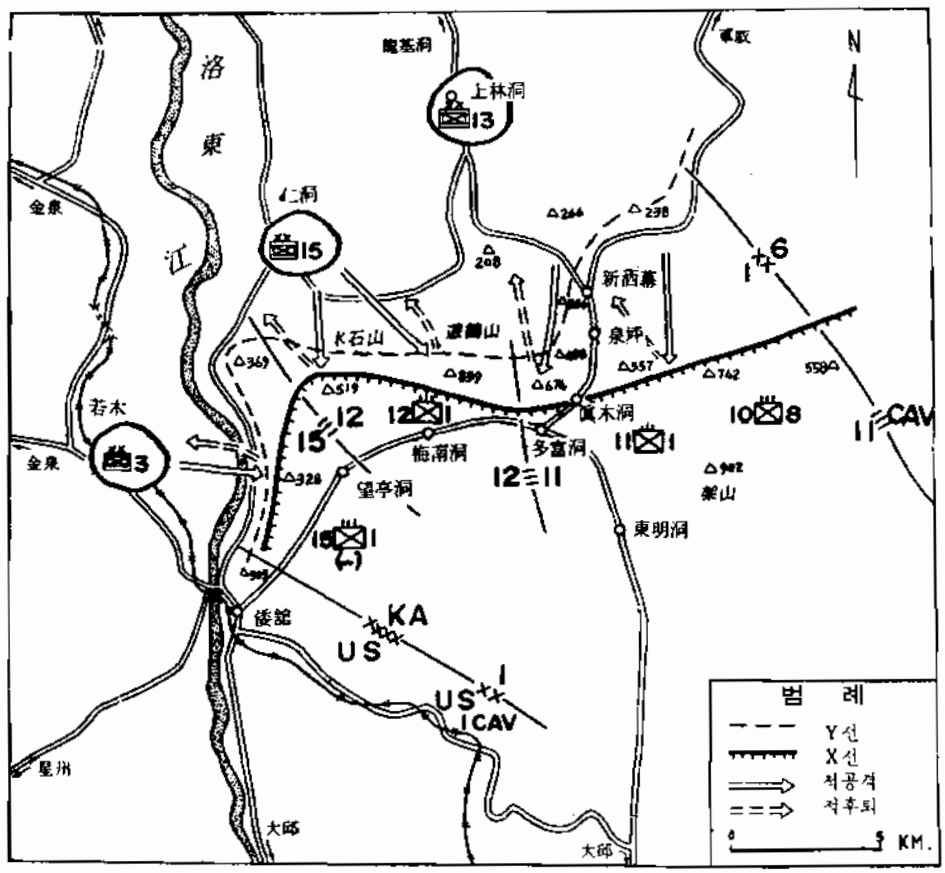
§참 전 자 의 약 력

崔榮喜

軍事英語學校수료

1946. 1. 15 소위임관
〃 제1연대보급관
1947. 3. 62 제6연대 제2대대장
〃 12. 제1연대 인사참모
1949. 8. 육군사관학교후보생대대장
1949. 11. 육군헌병사령관
1950. 4. 제15연대장
〃 10. 제1사단장 (준장)
〃 12. 제8사단장
1953. 4. 국방부정훈국장

상황도 제7호 328高地, 水岩山, 避鶴山, 多富洞전투(50. 8. 13~30)



7. 水岩山·遊鶴山附近戰鬪 (50년 8월 13일부터 50년 8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No 2 호
상황도 제 7 호
작명부록 제 7. 3. 9. 37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대령 朴 基 丙(8. 8부)
제 1 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成 來
제 3 대대 장 소령 朴 炳 洙
(8. 19戰死)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基 容
배속부대
제10연대
3 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병력 12연대……2,000여명
10연대3대대… 500여명
장비 105mm…… 1개 포대

적 군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48연대 장 대좌 金 致 九
제49연대 장 미 상
제50연대 장 총좌 李 乙 善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제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19연대 장 대좌 金 炳 哲
제21연대 장 대좌 李 成 俊
제23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15사단……5,000명 (8월초 현재)
13사단……9,500명 (〃)

나. 전투 전의 개황

적군의 상황 : 大邱방면으로 진출할 임무를 가진 적 15사단은(8월 7일) 釜山지구에서 洛東江을 건너 아군 제1사단의 중심부에 대하여 공격을 하여 오던 중 13일에는 아군 제1 및 12연대의 전선 이동을 틈타 水岩山과 遊鶴山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遊鶴山에서 大邱까지는 적선거리로 25km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의 122mm 곡사포(군단포)의 사정거리 20,700m를 감안한다면 적은 大邱의 문턱에 이른 거나 다름없는 실정이었다. 비록 적군은 美 공군의 끊임없는 폭격과 보급로의 신장으로 탄미암아 보급의 부진 그리고 병력부족 등으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釜山까지 해방

시키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무자비한 독전대의 제적질 밑에서 계속되는 진격을 반복하여 왔던 것이다.

아군의 상황 : 아군 제1사단의 중앙연대인 제12연대는 洛井里 龍洞에 이르는 진선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특히 3.5인치 로케트포로써 적의 T—34전차를 용맹하게 파괴한 것은 장병들의 침체되었던 사기를 올리는데 매우 좋은 촉매소가 되었던 것이다.

아군 제12연대는 전세(戰勢)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의 방어선인 Y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과의 접촉을 끊고 8월 12일 20.00에 369高地에서 뒤로 이동하여 13일 오전중에는 多富洞부근에서 재편성을 끝내고 다음 Y선의 요지를 점령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제12연대지휘소……松山洞

제 1 대대　遊鶴山(△839)의 右측일대

제 2 대대　水岩山(△519)일대

제 3 대대　517高地일대

육군본부작명 119호 要旨 : 제1사단은 8월 12, 13일 야음에 동지구 X선으로 전진(轉進)하라. 13, 14일 야간에 Y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연대는 증강된 1개대대를 엄호대로서 현재선에 남겨 주력의 철수를 엄호케 하라.

제2군단 작명제12호 : 사단장은 美제 1기병사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X일(12일) 22.00 행동개시 上林洞—多富洞을 거쳐 Y선에 진주하라. 당 군단은 인접부대와 밀접한 협조하에 강력한 엄호부대에 의하여 Y선에 진지를 점령하려 함.

그러나 水岩山과 遊鶴山일대는 이미 적이 13일 밤중에 진출하여 미명에 기습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제2대대는 海南洞에, 제3대대는 遊鶴山南북의 517高地에, 그리고 제1대대는 說亭에서 각기 방어진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방어진지의 바로 뒤에는 倭舘—多富洞—大邱에 이르는 도로가 있어 보급과 후송에 유리하였으나 적이 遊鶴山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아군은 그들의 감제 관측을 면치 못하여 작전상의 새로운 약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적은 지역내의 가장 높은 遊鶴山을 확보함으로써 大邱에의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형은 횡격실(橫隔室)이라 방어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軍威에서 新洞洛, 多富洞(이 시점은 倭舘과 軍威 大邱에 이르는 교차점) 大邱에 이르는 도로는 적의 보급이 쉬웠으며 기갑부대의 돌파작전을 할 수 있는 단거리 기동접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我) 제12연대는 大邱방어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Y선상의 遊鶴山을 탈취하지 못하면 전선은 다시 뒤로 물러나 지켜내기 힘드는 종격실(縱隔室) 지대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Y선상의 싸움이야말로 마지막 결전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大邱방어의 성부여하(成否如何)가 곧 이곳에서의 전세좌우여하(戰勢左右如何)에 달려있게 된 것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8월 13일 : 洛東江선에서 上洞, 新洞洛을 거쳐 야간철수한 제12연대는 08.00경에 多

富洞부근에 집결을 완료하여 재편성을 실시한 다음 제1대대는 遊鶴山, 제2대대는 水岩山, 제3대대는 예비로서 517高地를 점령하고자 오후에 진출하였으나 이미 적이 목표를 선제(先制)하고 있었다. 우선 제2대대(趙成來소령)는 18.00에 左측에서 美 기병사단의 포병지원을 받아 水岩山(△519)을 공격하여 제6, 제7중대가 19.00경에 이를 점령하였다. 이어서 주력은 제5중대와 더불어 南쪽 능선상의 369高地의 적에 대하여 포위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1대대(韓順華소령)도 673高地에 대하여 15.00에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지형이 불리하여 진전없이 중지하고 말았다.

8월 14일 : 이날 제2대대는 水岩山에서 밤에 형성하였던 포위태세로 05.00에 369高地에 대하여 공격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악착같은 저항으로 하루 종일 근접전을 벌렸으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공격을 중단하고 말았다.

제1대대도 院亭부근에서 673高地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역시 성과를 얻지 못하고 院亭으로 내려와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巢鶴山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8월 15일 : 제1대대는 제3차공격을 시도하고 08.00에 673高地에 공격을 하였으나 적 2개 대대의 반격으로 공격은 중단되어 원위치로 철수하였고 제2대대는 水岩山일대에서 적의 반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는 巢鶴山의 진지를 보강 중이었다.

8월 16~17일 : 제12연대 제1대대는 15일에 673高地에서 물러나온 제11연대의 제3대대(鄭永祺소령)에게 673高地의 공격임무를 인계하고 16일 14.00 院亭洞선에서 837高地를 向하여 탈환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7.50에는 적 1개대대 규모의 저항을 수류탄전 끝에 이를 격퇴시키고 이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12연대 제1대대의 제3중대는 837高地에서 遊鶴山쪽으로 적을 추격하여 遊鶴山전방 200m지점에까지 진출하여 적과 正面으로 衝突하였는데 수류탄으로 치열한 근접전을 벌렸으나 수류탄을 모조리 썼으므로 하는 수 없이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날 연대지휘소는 각 대대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지휘하기 위하여 松山洞에서 多富洞근처로 추진(推進)하였다.

적은 이날 밤중에 遊鶴山에 병력을 증원하여 진지를 더욱 보강하였으므로 제1대대는 항공지원을 받아 17일 13.30 遊鶴山을 탈취하고자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山의

중턱에 자리잡은 적의 암석진지에 부닥쳐 이곳에서 피아간에 또다시 수류탄으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공격을 멈추고 원위치로 돌아왔다.

한편 제2대대는 16~17일에 걸쳐서 369高地를 공격하였으나 역시 지형상의 불리로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말았다.

8월 18일 : 제1대대는 어제의 공격에 이어서 遊鶴山에 대하여 제3차의 반격전을 이날 08.00를 기하여 시작하였으나 적은 유리한 높은 지대에서 아군의 공격을 감제하면서 치열한 박격포사격으로 응수하여 왔으므로 아군은 진출이 여의치 못하여 또 다시 뒤로 물러나 재편성을 한 다음 13.30에는 제4차공격을 시작하였다.

아군의 끈덕진 공격에도 적은 岩石을 방패로하여 필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므로 아군도 손실만이 늘어나게 되어 20.00경에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이날 제2대대(趙成來소령)는 적의 반격으로 水岩山일대에서 이를 저지하였는데 적의 병력은 201高地에서 증원된 2개대대 병력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제3대대도 517高地에 적이 침공하여 이를 점령하였으므로 1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20.00에 이를 점령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8월 19일 : 어제 水岩山을 공격하던 적은 12.00에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水岩山의 제2대 대진지에 반격을 하여 왔는데 치열한 박격포의 지원을 받은 적의 공격은 희생을 돌보지 않고 저돌적(猪突的)으로 덤벼드는 것으로서 아군은 적의 포격에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어 제2대대는 14.00경에 진지를 버리고 水岩山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니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는 참으로 그 변화가 무상하였다. 한편 제1대대의 遊鶴山 공격도 이날 피아간 손실만 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8월 20일 : 제1대대와 제3대대(金基容소령)는 서로 협동하여 遊鶴山을 기어히 탈취하고자 이날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18.00에 이르기까지 격전을 벌였으나 경사 45°의 지형과 적의 포사격 그리고 수류탄의 세례때문에 끝내 적진에 돌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아군의 이 쟁탈전은 손실만 내게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니 지형의 이(利)를 점(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짐작할 수 있다.

水岩山정면의 적 제15사단은 이날 永川쪽으로 전진(轉進) 하여 아군 제8사단 정면에 전개를 하게 되었는데 적의 군단에서는 多富洞으로의 돌파가 그들 마음 먹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전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여 졌다. 이로써 水岩山 지구는 적 제3사단이,

그리고 遊鶴山 右側 지구는 적 제13사단이 제15사단의 전선을 인수하게 되었다.

8월 21일 : 아군 제12연대는 어제 저녁에 증원된 아 제8사단 제10연대의 제3대대와 서로 協同하여 결사적인 공격을 감행키로 하였다.

제12연대 제3대대는 517高地를 제10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다음 遊鶴山을 탈환하고자 이날 06.00에 제1대대의 제7차의 공격을 右側에서 지원하였고 제1대대도 대대장이 진두지휘하는 결사적 150명으로 같은 시간에 遊鶴山 右側에서 공격을 단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韓英華소령)의 결사대는 10.00에 포이의 수류탄이 작렬하는 가운데 遊鶴山의 외곽진지에 돌입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잠시 후 역습을 하여 왔으므로 제1대대는 치열한 사격전을 한 다음에 전세불리로 837高地일대의 원진지로 돌아나오고 말았다.

한편 제3대대(金基榮소령)도 遊鶴山을 右側방에서 공격하였으나 공격 기동로(機動路)의 경사가 심하고 적의 포사격으로 12.00경에 공격을 중단하고 내일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美鶴山의 제2대대는 水月山을 탈환하고자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대대장 趙成來소령 진두지휘하에 수류탄전을 감행하였으나 이를 점령하지 못 하였다.

8월 22일 : 제1대대는 이날 주간공격을 회피하고 23.30경에 야간공격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도 연일 아군의 공격에 큰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군



<東石洞 東明국민학교에 위치한 제1사단 지휘소를 방문한
美 육군참모총장 코린스대장과 美 제8군사령관 위커중장>

은 야간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때문인지 경계가 소홀하여 적진 20m까지 근접하여 수류탄으로 적을 격파하고 23일 02.00에 장안의 遊鶴山을 드디어 탈취하고 말았으니 그간의 공격은 8차나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8월 23일 :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일부의 병력으로 전선으로 전진하여 07.00에는 온서 중인 적을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10일만에야 소리 높이 승리의 함성(喊聲)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적이 遊鶴山일대에서 10일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로 지형의 유리한 잇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데 있었다. 그러나 적도 아군이 매일같이 되풀이하였던 탈환전에 그때마다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는 의용군마저 제대로 보충이 잘 되지 않아 패배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前方洞의 사단지휘소에는 대한 중인 美육군 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과 美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이 내방하여 사단장병의 용전을 치하하고 돌아간 바 있다.

8월 24일 : 제2대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가 遊鶴山을 탈취한 데 힘을 입고 水岩山일대에 대하여 08.00에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저항 때문에 전진이 부진한 데다가 도리어 적이 반격을 가하여 옴으로써 제5, 제6중대는 분산되어 공격이 와해되고 말았다.

8월 25일 : 이날 제2대대는 본부중대인 제8중대와 박대의 보충대, 그리고 제7중대의 병력을 통합하여 '공격제대로 하고 제5, 제6중대의 수습된 병력을 예비로하여 水岩山에 공격을 또다시 시작하였으나 목표 60m지점에서 적의 화력집중으로 더 이상 전출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섰다.

한편 제3대대(金東煥소령)는 遊鶴山에서 西북능선 1km지점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제1대대(崔鳳春소령)는 837高地에서 1km를 전출하여 전초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제2대대는 재편한 연대주력은 Y선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으니 여기서 싸움이란 참고 참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이기고야 마는 집념정신이 최후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니 이와같은 일례(一例)가 될 것이다.

8월 26~29일 제2대대는 26일과 27일에 걸쳐서 水岩山일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28일에야 비로소 水岩山을 악전고투 끝에 탈취하여 일대의 적을 몰아치게 되었다. 그리고 제1, 제3대대 정면도 평온상태를 유지 하였는데 이로

써 제12연대의 水岩山 遊鶴山지구의 싸움은 일단 끝을 맺게 되었다.

8월 30일 : 美 제8군사령부에서는 8월 20일에 처음으로 韓國에 도착한 美 제2사단을 전선에 참가시킴으로써 美 제1기병사단이 아군 제1사단의 전선을 인수하고 韓國軍의 전투정면을 줄이기로 하였다. 사실상 아군 제1사단은 이때까지 18km에 이르는 산악지대의 정면을 담당하여 공방전에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군 제1사단은 이날 육본작명 제151호(부록제33호) 및 제2군작명 제22호(부록제37호)에 의거하여 13.00부터 Y방어선의 임무를 美 제1기병사단에 넘겨 준 다음 大邱, 河陽을 거쳐 17.00에 新寧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제12연대는 21.00 현재 新溪洞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다음 임무를 맡게된 것인데 작명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육본작명 : 제1사단은 美 제1기병사단과 현 담당지구 교대완료후 즉시 신 담당지구로 이동하여 2개 연대로서 동 지구를 담당하라.

2군단작명 : 제1사단은 50. 8. 30.12.00까지 현진지를 美 제1기병사단과 교대후 大邱, 河陽, 新寧을 거쳐 50. 8. 31.19.00까지 제7연대 제5연대 각각연대와 교대하여 적의 남진 및 동남진을 저지하고 이를 진전(陣前)에서 포착 섬멸하라.

라. 전투 후의 개황

16일간에 걸친 피아의 처열하기 짝이 없는 공방전 끝에 아군 제12연대는 최초부터 적 제15사단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나중에 투입된 적 제13사단에게도 골고루 피해를 주어 그 종합적인 손해는



<水岩山, 遊鶴山지구에서 노획한 적의 무기>

아군에 비하여 훨씬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8월 22일 아군 제1사단에 귀순한 적 제3사단 포병연대장인 중좌 鄭鳳旭의 증언에 의하면 遊鶴山지구 싸움에서만도 1,500명에 달하는 전사상자를 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30일까지의 손실을 종합 판단한다면 거의 3,000명선으로 보아도 결코 과장된 일방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하여 결국 패전을 맛보게 된 적은 이 싸움이 끝나자 재편성이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빼앗긴 고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막대한 손실을 미리부터 각오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大邱에의 길은 갈수록 태산 같아서 아군의 완강한 방어선에 부닥치게 되었고 포병연대장이 투항하였을 정도였으니 만큼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상(沮喪)되어 거의 공포증에 걸릴 지경이었을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세하에 놓여지게 되었던 적은 이번에는 아군 제1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된 美 제1기병사단과 다시 대치하여 싸우게 되었다.

아군 제1사단은 架山 右측으로 전진(轉進)하여 적 제1사단과 다시 자웅(雌雄)을 결하는 큰 싸움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 훈

◇ **후퇴작전계획의 모순** : 제12연대가 1군단 작명 제12호(부록 제 호)에 의하여 Y선을 점령하고자 8월 12일 20.00에 上林洞을 거쳐 多富洞에 13일 미명 집결 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행동을 시작하여 Y선상의 목표를 점령하려고 진출하니 이미 적이 먼저 水岩山과 遊鶴山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사단에서 수립한 작전계획의 모순에서 온 것이다. 그 까닭은 적은 仁洞에서 곧 바로 전진하였는데 아군은 上林洞, 多富洞으로 우회 남하하였다가 다시 북상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적에 이미 뒤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연대장의 건의대로 多富洞으로 돌지 않고 즉시 동진하여 遊鶴山(제1, 제3대대)을 점령하였더라면 아군이 先制하였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부대 철수계획은 단거리 접근로(短距離接近路)를 택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

결국 지휘관의 상황판단의 잘못으로 水岩山과 遊鶴山을 탈취하는데 얼마만한 아군의 손실을 초래하였던가를 알아야 하겠다.

◇ **돌격정신의 결여** : 기간중의 싸움은 주로 수류탄을 사용하는 진지공방전으로 시종하였다. 아군의 약점은 돌격지점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그 폭발하는 순간에 근접하여 일시에 적진으로 돌격하는 위력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번번히 돌격선에서 공격대열이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와해됨으로써 똑같은 공격을 8~9차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요는 지휘관이나 부하들이 적개심을 선용하여 돌격정신을 배양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 **특공대의 운용** : 고지위의 적진을 공격할 때에는 병력이 많다고 하여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는 비록 병력은 적지만 공격정신이 왕성한 특공대를 선발하여 적국력과 백병력을 동시에 발휘함으로써 과감하게 돌격하는 것이 최선의 쟁탈전(爭奪戰)방식이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 **작명의 모순과 작전지도** : 군이 Y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실시한 후퇴이동은 상부계획의 모순과 실시부대의 자질로 말미암아 적이 먼저 Y선을 점령하는 결과가 되었다. 군단작명상의 첫째 문젯점은 "강력한 엄호부대에 의하여 Y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려고 함에 대하여 군단에서

는 제1사단의 Y방어선 점령에 엄호부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단에서는 제11 및 제12인대가 진지를 철수할 때에 제15연대 제2대대를 운용하였을 뿐 저지진지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적은 아군의 지연행동이 없는 가운데 水岩山과 遊鶴山의 요지를 먼저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군단에서 작명으로 사단의 철수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문제다(예 ×일20.00에 행동개시 上林洞—多富洞을 경유 Y선에 진주하라.) 군단에서는 Y선을 점령하라고 하면 사단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철수로와 다음의 진지점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단에서 제1사단의 철수로를 통제하여 명령한 탓으로 사단에서는 이를 그대로 실시하는 결과가 되었다.

(사단 철수계획)

제1사단은 현재의 접촉선에서 자의로 철수하는 후퇴작전이기 때문에 8월 11일 11.00에 작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12일 20.00까지의 철수시간 사이에는 충분히 예하부대가 Y선으로 전진할 단거리경로를 따라 진지점령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30시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2인대는 현 접촉선인 369高地 일대에서 제1대대를 제외한 제2, 제3대대는 水岩山과 遊鶴山을 곧바로 점령하는 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1대대는 제11인대지역에서 上林洞을 거쳐 多富洞으로 해서 진지를 점령하는 것은 철수로의 형편상 합당한 일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12인대 부인대장 金點出 중령은 상황을 판단한 결과 지역내의 중요 감제高地인 水岩山과 遊鶴山을 먼저 점령하여야 한다고 사단에 건의하였으나 사단에서 이를 먼저 점령할 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같은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은 이유를 추정하건대 우선 작전명령상으로 보아 X선을 12~13일 밤에 점령한 다음에 13~14일 밤에 Y선상으로 진출하여 목표를 점령하라는 군단의 작명을 실행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작전에 비추어 제11, 제12인대가 洛東江선의 현재진지에서 다음의 Y방어선으로 철수함에 있어 적의 압력을 받고 Y선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30시간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仁同—架山面의 도로를 따라서 多富洞으로 우회하여 집결한 다음 재편성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단이나 군단의 X선 점령계획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군 제12인대 정면의 적은 아군의 아무런 저지행동이 없는 가운데 용이하게 水岩山과 遊鶴山을 연하는 감제지대(瞰制地帶)를 먼저 점령하였으니 아군은 이를 탈취하고자 막대한 희생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지피지기의 필요성** : 군단이나 사단에서는 입수한 정보와 그리고 피아 진반에 관한 전세를 필요에 따라서는 예하 인대장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洛東江지역에서 Y방어선으로 철수 전진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일선 인대장들은 왜 우리가 Y선으로 물러나야하는지 적정이나 아군진반에 관한 상황을 모르고 그저 명령대로 싸우기만 하였으니 전술면이나 통솔면, 그리고 정신면에서 지휘관들은 더욱 차원높은 지휘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지휘관들은 지피지기(知彼知己)하여 싸울 수 있게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6) 공지합동과 보포협동 : 이 당시 UN공군은 거의 100%에 가까운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주간작전에서 커다란 견제를 받

았다. 그러나 아군이 이곳 전선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지합동(空地合同)의 작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협조가 긴밀하지 못하여 遊鶴山의 아군이 30분 동안이나 UN군의 목격을 받아야 했고 또한 美軍 지원포병이 아군을 포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따라서 步, 砲, 空의 합동작전에 있어서는 관계된 사이에 긴밀한 사전협조와 동제로써 본의아닌 자학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수류탄 훈련의 필요성** : 후방지구에서 보충된 신병들은 10여일간의 기초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M1소총 조차 제대로 사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2연대에서는 신병이 보충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사격훈련을 시킨 다음 싸움에 참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싸움에서 소총으로 적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신병들에게는 맹목적인 사격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구에서의 싸움처럼 인간일보의 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때는 공격이나 방어를 막론하고 수류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며 또한 이를 던지는 기술은 소총사격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보충된 신병들이 하루싸움에 수류탄을 몇 발 던지고 난 다음 날 모두 팔을 부어서 싸움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병들의 훈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장단을 막론하고 시간과 장소가 있는대로 돌(石) 덩이라도 던지는 기회와 습성을 길러 1발로써 적의 표적에 명중시킬 수 있는 자신을 얻어야 하겠다고 본다. 水岩山과 遊鶴山지구는 암석으로 된 山이기 때문에 제12연대는 수류탄만을 가지고 싸웠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 **야간전투력의 향상** : 북괴군이 야간위주의 싸움을 하게된 것은 UN공군의 일방적인 제공권의 확보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반면에 아군은 야간전투에서는 위축(萎縮)된 싸움을 하여 성과를 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약점을 제거하기위해서는 빨리 야간전투에 적응시키는 지휘관의 지휘능력과 각자의 능동적인 정신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육군본부번역, 유엔군전사 제1집 1963. 9. 30발행 p.190에 의하면 적 제13사단사령부를 기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제12연대부연대장 金點坤중령의 증언에 의하면 적의 연대의 전방 지휘소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적 제13사단 지휘소는 上林洞(철축선에서 10km 후방)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6km지점은 적의 연대지휘소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70. 10. 12필담)

§ 참전자의 증언

제12연대장 朴基丙 대령

(64. 12. 13. 장충동 자택, 대담장)

"우리 12연대는 水岩山에서 遊鶴山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제8사단 제10연대의 1개대대가 증원되었다. 水岩山전투시 나는 연대지휘소는 부연대장인 金點坤 中領에게 맡기고 대대지역에 나가서 전투지휘를 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대대장은 중대에 나가게 되고 중대장은 소대에 나가서 싸움을 지휘하게 되었다.

8월 16일 美 공군의 B-29폭격기 98대가 遊鶴西쪽지대에 융단폭격을 하였는데 그 동기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사단이 Y방어선으로 새로운 진지를 형성할 무렵 우리

연대는 정면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수색대장으로 하여금 적지에 들어가 적정을 수집 보고토록 하였다.

수색대장 文錫燮 중위의 보고에 의하면 적 2개 사단 병력이 洛東江 도하준비를 위해 사단정면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적정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사단장은 나의 보고를 믿지를 않았다. 사단장은 말하기를 "朴대령은 전투를 오래해서 무엇을 잘못 보고서 보고 하는것 아니요? 이 전화를 金點坤中領과 바꾸시오" 그래서 부연대장 金中領에게 전화를 바꾸었다. 金中領은 사단장에게 "믿지못하시면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정찰을 하여 보시면 알 것이 아니겠읍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에 L형 연락기가 상공을 비행하더니 사단장이 적정을 확인하고서야 전화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보고에 의해서 대폭격이 감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폭격후에 사단에서 나보고 피해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해서 정보주임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시킨 바 적이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내내 제2중대장은 遊鶴山 공격시 부상을 입고 의당히 내려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대를 지휘하다가 또 부상을 입은 끝에 하였다. 그리고 상사인 鄭永朝, 裵聖攝이 잘 싸웠다. 鄭상사는 전차를 파괴 하였고 裵상사는 특공대를 지휘하여 적 13사단의 지휘소를 야간 기습하여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제12연대 부연대장 金點坤 증령

(70. 10. 12. 김점곤연구소. 예·소장)

"Y방어선이 설정되어 새로운 부대배치를 할 때 나는 水岩山과 遊鶴山이 감제고지로서 중요하니 이곳에다 병력을 배치하자고 사단에 건의를 하였는데 사단에서 이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적이 먼저 진출하여 이 고지를 점령하는 바람에 우리가 근 10일간의 작전에서 많은 희생을 입게 되었다. 사단에서의 반대이유로서는 병력이 없는데 그 고지를 점령시킬 병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水岩山 遊鶴山전투기간중에 많은 신병보충을 받았다. 우리연대는 보충병력을 바로 전투에 투입하지 않고 최소 3일 또는 1주일간을 사격훈련을 시켜 가지고 비로소 중대에 배치하였다. 사단장이 하루는 시찰 나왔는데 전선후방에서 총소리가 요란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질문까지 받았다.

처음 전투는 水岩山에서, 다음이 遊鶴山의 岩石에서 숨박꼭질하는 싸움을 하였다. 3대대장 朴炳洙 소령이 적의 포탄에 의하여 전사 하였고 장교와 고참병들이 그야말로 잘 싸웠다.

多富洞에서 新酒幕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美 제27연대가 들어와서 싸웠을 때 우리는 美軍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았는데 서로간의 협조가 잘못되어 아군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遊鶴山일대의 싸움은 사격전보다도 순전히 수류탄을 가지고 근접전투를 하였는데 수류탄이 모자랄 정도였다. 처음에 우리들은 야간전투에는 마음의 위축을 느껴서 싸움을 제대로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자신이 생겨서 능동적으로 야간공격을 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한 예로서 裵聖攝상사가 지휘하는 9명의 특공대는 밤중에 적진을 6km나 뚫고 들어가서 적의 지휘소를 습격하여 많은 적병을 살상하고 자동차등을 폭파시키는 동시에 포로까지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장비는 기관단총과 M2칼빈소총 그리고 백린(白燐)연막탄을 가지고 갔는데 백린연막탄은 화재를 일으키고 연막으로 적의 행동 방향을 혼란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다. 나중에 잡은 포로를 심문하여보니 우리의 기습을 받고 자동

차가 불타고 저희들끼리 밤새도록 사격을 하면서 싸웠다고도 하였다. 내가 있던 OP에서 불덩어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었다. 적상사는 굉장히 잘 싸웠다."

제12연대 3대대 본부 鄭永朝 상사

(66. 3. 3. 육군본부·령내)

水岩山공격시 병력이 부족하여 대대병력을 1개 중대로 재편성 할때에 金元熙 소위가 중대장이 되고 내가 부관으로서 공격에 참가하였다. 8부능선에 진출하였는데 적의 저항이 없어서 중대장과 나하고 사병 셋이서 선상에 올라가 보니 골속에는 적이 얼마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의용군으로 끌려 나온 남한 출신들은 모두 귀순을하면 살려 주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권총으로 사격을 신호하자 우리에게 수류탄이 날아와서 피아간에 수류탄전이 벌어졌다. 얼마 후 적진이 조용하여 우리 대원들이 공격해서 점령을 하였는데 그때 나는 파편을 맞고 정신을 잃고 있었다. 깨어보니 앰브랜스(救急車) 안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다. 적의 희생도 많았는데 대부분이 의용군출신들이었다.

제12연대 분대장 鄭圭永 일등병

(65. 8. 18. 26D 75R·대위)

"遊鶴山전투시 大邱훈련소에서 보충병이 많이 왔는데 훈련이 부족하여 분대원들을 지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야간싸움의 육박전때에는 다들 용감하게 싸웠는데 서로 머리를 맞져보고 대검(帶劍)으로 찌르고 하였다. 이때에 나도 4명을 척살(刺殺)하였다. 이러한 육박전이 벌어질 때 의용군출신의 적병들이 귀순 아니면 포로가 많이 되었다."

제12연대 분대원 朴判同 일등병

(66. 9. 10. 2D·상사)

"遊鶴山전투시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였을 때 보니까 적의 기관총 사수가 나무에 줄로 묶여 있었다. 이는 흔히 적진을 점령하였을 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이며 악독스러운 잔인성을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생각하였다."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118—119합본
1970. 5. 30 발행 P.2)

"……중략……洛東江의 하천 장애물을 최대로 이용하여 결정적인 방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사단은 작전용 지도 한장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五山중학교에 걸려있는 일반 지도로써 상황판단을 하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 본즉 多富洞이라는 지명이 인상적이기에 그 부락에 가 본즉 이름하고는 달리 빈촌이었으나 多富洞이라는 지명은 다복하고 풍요한 마을을 뜻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길조를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洛東江까지의 지연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러작전은 당시 참모장이었던 石主岩 대령과 작전참모 文尙泰중령의 진의를 기초로하여 통상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번 방어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단장 스스로가 먼저 결심해서 참모장과 작전참모에게 이 빈촌이 아닌 多富洞에서 결정적이며 최후의 방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읍니다. 그후 참모장과 작전참모는 약 2시간에 걸쳐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多富洞을 중심으로 한 水岩山—遊鶴山—架山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게 되어 결국은 방어선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사단은 약 40km의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와같은 광정면 방어시는 요지 요부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할 수 없었고 광

정면인 동시에 遮蔽物과 같은 험준한 지형은 인접부대와의 교차사격(交叉射擊)은 기대하기 어려웠읍니다."

§ 일 화

◇ 구호소의 운영 : 1개 연대에서만도 하루에 수백명의 부상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를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전상자들까지 희생되는 예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접한 美제27연대의 구호소가 있어서 환자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어 위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 참전자의 약력

朴 基 丙

군사영어학교수료
1946. 1.15 소위임관
1948. 3 보병제20연대장 겸 전남전투사령관
1950. 8 보병제12연대장
9 보병제20연대장
1951. 3 육군예비사관학교부교장
1952. 5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
1953. 1 육군준장
1961. 7 예비역편입(소장)

金 點 坤

경비사관학교 1기졸
1946. 6.12 소위임관
1946. 6 경비대총사령부특별임무
1947. 1 제8연대제1중대장
1948. 3 총사령부 G—2
1950. 7 제12연대장
8 제12연대부연대장
9 제12연대장
1952. 4 제2군단사령부참모부장
10 육군준장
1953. 2 육군본부인사국장
1961. 6 국방부차관보
1962. 3 예비역편입(소장)

8. 多富洞附近戰鬪 (50년 8월 13일부터 50년 8월 30일까지)

참조 : 미제부도 제 7 호
상 황 도 제 7 호
사명부록 제 37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 1 사단	상	준장	白 善 燁	제 2 대대	상		
제11연대	상	대령	金 東 斌	제 3 대대	상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在 命			병력	제10연대 1,500명
		대위	金 沼(8.18부)	제15연대	장	소령	安 光 榮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守 瑛	제 2 대대		중령	李 任 --(8.21)
		소령	車 日 俊			병력	15연대2대대 600명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美 제27연대	상	대령	
		병력	제11연대 23.00여명				John H. Michaelis
		장비	105mm포 6문			병력	2,300명(추정)
제10연대	상	중령	高 熙 弘			장비	105mm포 24문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전차 20대

적 군

제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 1 사단	상	소장	洪 林
제19연대	장	대좌	金 炳 詰	제 2 연대	상	대좌	黃 石
제21연대	상	대좌	李 成 俊	제 3 연대	상	대좌	金 陽 春
제23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제14연대	장	대좌	李 昌 鎬
포병연대	장	중좌	鄭 鎭 旭	포병연대	장	대좌	文 學 春
		병력	제13사단 13,000명			병력	제1사단 5,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적군의 상황 : 8월초 아군의 洛東江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아군 제1사단 방어정면에는 적 제13, 제15, 제3의 3개사단이 공격을 가하여 왔다. 적 제13사단은 洛東里에서 강을 건너 倭館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진출을 시도하였고, 제15사단과 제3사단은 洛東江의 西쪽에서 강을 건너 측면공격을 시

도 합으로써 아군 제1사단은 협공을 받게되는 불리한 상황 밑에 놓이게 되었다.

적은 전차를 앞세우고 아군 제1사단의 방어진지를 뚫고 곧바로 大邱로 침공코자 하였으나 사단의 北쪽에서 적 제13사단의 남하를 막고 있던 아군 제11연대의 감투로 말미암아 反浦洞선에서 그 공격기세가 좌절되는 듯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이미 여러곳에서 지적한 바 있드시 낮에는 美 공군기의 활동 때문에 포지원과 전차지원의 제한을 받아 그들의 후방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부득이 강행하게 되는 야간공격을 할 수 밖에는 없었다. 그 야간 공격에서도 많은 피해와 의용군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적의 공격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던 것으로 본다.

적 제13사단은 개전이후 제2군단의 예비로서 뒤따르고 있다가 7월 29일에 咸昌에서 처음으로 아군 제1사단과 접촉을 하였던 사단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해 6월 5일에 新義州에서 민청(民靑)제1훈련소원 12,000명으로 편성한 부대로서 소장 崔鏞鎭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비록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였지만 그 구성원들이 본시 민청원들이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새로 강제 동원한 이른바 의용군보다는 본질적으로 사상적인 소양이 다분하다가 그 사기도 높은편이었다. 적의 지휘관들은 매일 치열한 美 공군의 폭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타이르기를 "洛東江만 넘으면 大邱나 釜山까지는 무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위 선전을 되풀이 하였는데 그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이 곧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8월 5일 洛東江을 건너서 舟邱洞에 이르는 16km 구간을 전진하는데 8일간을 소요하였고 하루에 겨우 2km를 피로 물들이면서 진출하였으니 엄청리없는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大韓民國의 국군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용감하게 잘 싸우는 군대임을 재삼 깨닫게도 되었던 것이다.

아군의 상황 : 아군 제1사단의 전선은 右측인 제6사단의 전선과 균형을 유지코자 육본작명 제119호(1950.8.11 18.00)에 따라 8월 12일 20.00를 기하여 제15연대 제2대대(安光榮 소령)의 엄호를 받아 上林洞을 거쳐 新酒幕선으로 남하하여 13일 오전중에 다음과 같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11연대 지휘소 鵲鳴洞(多富洞東南 3km)
제 1 대대 208高地 및 下板洞일대
제 2 대대 297高地일대
제 3 대대 265高地 일대
제15연대 제2대대(제11연대배속) 238高地 일대

사단정면의 우일선(右一線)을 담당하게된 제11연대는 海平 지구에서 지금까지 대적한 바 있는 적 제13사단과 그리고 軍威 지구에서 아군 제6사단과 전투한 적 제1사단의 일부병력과 결전을 시도하게되었다. 지역내의 新酒幕은 軍威와 上林洞, 그리고 大邱에 이르는 삼차로(三叉路)로서 그 형태가 Y형을 이루고있기 때문에 적으로 하여금 분진합격(分進合擊)의 가장 좋은 접근로를 제공하여 전차부대로써 大邱에 이르는 돌파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단의 右측인 아군 제6사단과는 거의 3km에 이르는 간격이 생겨서 적의 침투와 포위의 위협이 있었다. 그러나 사단으로서는

가용한 예비대가 제15연대의 제2대대뿐으로서 군단에서의 증원없이는 전투지경선내의 방어선을 형성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제11연대는 처음부터 방어임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아군은 전차가 없을 뿐 아니라 포병화력도 각 연대에 1개포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3.5인치 로케트포 밖에 없었다. 아군 장병들은 이미 적의 무수한 전차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적의 전차를 두려워하는 공포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전차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높은 사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신병들이 많이 보충되어 지휘관들이 이들을 지휘하는데 고충이 많이 있었으나 이들도 전투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비록 전기(戰技)는 고병들에게 뒤떨어진다 하여도 눈에 보이는 승리의 자신만은 모두가 확고 하게 가지고 있었다.

만일에 제11연대가 담당한 Y선이 무너진다면 사실상 大邱도 적에게 내놓지 않을 수 없으며 적은 8월15일까지는 大邱만이라도 꼭 점령하려고 마지막 공세를 시도로고 있었으니 피아간에 多富洞의 일전이야 말로 사생결단의 결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8월 13일 : 海平 지구에서 12일 야간에 철수를 시작한 제11연대는 제15연대 제2대대(安光榮소령)의 엄호를 받으면서 上林洞을 거쳐 13일 미명에 下枝洞 新洞藪 일대에 집결하여 오후에는 다음과 같이 진지에 진입하였다.

제3대대 265高地일대

제1대대 208高地 및 下枝洞 능선일대

제2대대 297高地일대

제15연대 제2대대 238高地일대

위와 같이 진지에 진입한 각 대대는 진지구축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날 연대의 정면에는 이렇다할 적정이 없었다.

8월 14일 : 아군의 철수를 의심하면서 13일 海平지구에서 재편성을 끝낸 적 제13사단은 야간을 이용하여 上林洞을 거쳐 14일 미명에 그 선두부대가 上場洞선에 진출하였는데 08.00에는 1개대대가 汝南洞에, 그리고 다른 1개대대가 審谷洞 일대에 집결하고있었다. 적은 08.30에 아군 제11연대 제1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진지에 대하여 공격을 하여왔으나 208高地의 제1대대의 경계부대는 적을 유도하여 이를 격퇴시켰고, 이때 제15연대의 제6중대(金國柱대위)는 적의 대대장급으로 믿어지는 군관을 사살하고 그의 가방에서 작전지도를 노획하였는데 그들의 진출 제1목표는 多富洞 西측에 있는 516高地임이 기표되어있

었다.

12.00명에는 下板洞의 과수원에 전차 2대와 1개대대가 집결하였고, 汝南洞에는 2개대대가, 그리고 鶴下洞일대에는 1개연대 병력이 집결함으로써 적 제13사단의 주력이 모두 집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자 제3대대는 연대장 金錫斌 대령의 명에 의하여 14.00경에 제2대대가 배치된 右측으로 기동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적은 17.00를 기하여 아군 제1대대가 배치된 293高地와 下板洞의 右측일대, 그리고 汝南洞의 적은 265高地에 공격을 시작하여 왔으므로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정면의 적은 아군 제15연대 제2대대의 저항 때문에 265高地로의 진출이 저지되었고 제1대대는 적 1개연대의 공격을 받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19.00경에 전세가 불리하여 370高地와 741高地를 연하는 능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으므로 그후 적은 제2대대정면에 진출하게 되어 밤 중이 되도록 교전이 벌어졌다.

8월 15일 : 밤새도록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적을 저지하였으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제1대대 진지를 뚫고 07.00에는 전차 7대와 장갑차 5대가 新洒幕을 거쳐 수정(水亭)까지 진출하였는데 제1대대는 眞木亭으로 빠져 나왔고 제2대대도 356高地로 지연전을 하면서 철수하였다.

한편 265高地에서 철수한 제3대대(鄭永洪소령)는 741高地와 架山 바위를 거쳐 12.00경에 사단지휘소가 있는 東石里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단에서는 적이 출현하였다고 한때 긴장이 감돌았으나 아군임이 곧 밝혀져 제3대대는 지휘소 부근에 일단 집결하였다가 多富洞으로 전진하였고, 제15연대 제2대대(安光榮소령)도 架山 바위의 능선을 따라 제11연대 지휘소가 있는 鶴鳴洞으로 16.00경에 빠져 나왔는데 사단명에 의하여 오후에는 多富洞 右측의 牛鶴山에서 466高地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8월 16일 : 이날 적 1개연대 병력은 837高地일대에 진출하였고 新洒幕 부근에 2개대대가 아군 제2대대(車甲俊소령)에 공격을 하여 와 교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14.00경에는 741高地로 침투한 적이 架山 바위로 집결중이 었는데 그 병력은 1개연대로 추산되었다. 이에 앞서 이날 미명에 1개대대의 병력이 架山 바위쪽에서 아군 제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466高地에 기습공격을 하여 왔으나 아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 거의 1개중대에 달하는 시체

를 남기고 적은 [illegible] 바위쪽으로 후퇴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처음으로 左인접 부대인 제12연대 제1대대(韓順華소령)가 공격중인 673高地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韓順華 소령의 말로는 자기 대대가 여섯 번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막상 제3대대도 이날 처음 공격에서 희생만 내고 말았는데 제3대대는 전술한 바 신병대대(新兵大隊)이기 때문에 공격이나 방어를 막론하고 전투력이 약한 대대로서 지휘관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제1대대는 眞木亭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8월 17일 : 이날 미명을 기하여 아군 제15연대 제2대대는 15일이래 355高地에서 고립되어 출입을 씹으면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제2대대(車相俊소령)를 구출하기 위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741高地에서 金華洞으로 뻗은 355高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대대는 앞과 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安光榮 소령이 지휘하는 제15연대 제2대대의 제5중대(鄭點準대위) 제6중대(金國柱대위), 제7중대(崔原道대위), 제8중대(安正熙대위)는 07.00 공격을 시작하여 2시간 뒤인 09.00경에 적을 격파하고 355高地 일대를 탈취함으로써 제2대대는 眞木亭으로 철수를 할 수 있었다.

제3대대는 어제에 이어서 673高地를 공격하였으나 무위(無爲)로 돌아갔는데 능선을 따라 기동하는 공격전이란 공자(攻者)가 항상 불리하기 마련이다. 제1대대는 眞木亭에서 제2대대가 빠져 나오자 水亭의 左측 능선을 점령하여 357高地에 진출한 적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아군 제11연대는 水亭과 金華洞선에서 반격태세를 갖추었는데 제3대대의 673高地 점령이 여의치 않았다.

ㅁ · 제27연대의 증원

美 제8군사령부에서는 多富洞 아군 제1사단의 전세가 불리하였으므로 이날 鐵山에 8군예비로 집결중인 美 제25사단 제27연대(John H. Michaelis대령)를 多富洞 지구에 증원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대는 제73전차대대 C중대(20여대)와 제37야포대대(155mm곡사포)의 2개포대 그리고 제8야포대대(105 mm곡사포)의 2개포대를 배속 받아 저녁 무렵에 東石里에 집결하였다가 20.00경에 多富洞으로 전진하여 명일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8월 18일 : 이날 09.30를 기하여 제11연대 제1대대는 美 제27연대의 左측을, 제2대대는 右측을 엄호하여 포병사격과 전차의 지원을 받아 반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 제2대대는 355高地에서 예비로서 右측방에서 침공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고, 제3대대는

673高地를 계속 공격하기로 되었다.

이날의 공격은 眞木洞에서 출발하여 19.00에는 356高地선까지 진출하였는데 적의 저항은 경미하였다. 적은 급작스러운 아군의 포격이 치열하고 많은 수의 전차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주력이 후퇴하고 저지부대가 지연전을 한 것이다.

제3대대의 673高地 공격은 이날도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였는데 적은 암석을 이용하여 수투탄으로 아군이 전진하는 기동로를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매번의 공격에서 피해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의 제3차 공격에서도 목표를 점령하지 못한 대대장 鄭永洪 소령은 제10중대장 楊源植 대위에게 야간공격을 실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楊 대위는 대대장에게 건의하기를

"포지원을 받으면서 주간공격을 하여도 매번 실패를 하였는데 훈련이 미숙한 신병을 지휘하여 야간공격하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입니다. 나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중대로 하여금 2일간 주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만공격을 가한다면 적도 피로하여질 터이니 이러한 효과를 노려서 낮에 특공대를 편성하여 공격을 한다면 성공할 희망도 있으니 그렇게 하여 주시면 그러한 공격은 저의 중대가 담당하겠읍니다."

대대장은 楊 대위의 건의를 듣고 이를 채택한 다음 제 9, 제11중대로 하여금 주간과 야간에 걸쳐 기만적인 양동공격을 하여 적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이날 제1대대장 金在倉 소령은 진두에서 지휘하다가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 후일에는 金 沼 대위가 대대장에 임명되어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美 제27연대 F중대가 파괴된 적의 전차에 노획표지를 하는 F중대의 사병>

이날 20.00 경에 보병을 수반한 적 전차 2대와 자주포 1대가 美 제27연대 제2대대의 F중대진지 일대에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면서 서서히 전진하여 오는 것을 F중대 3.5인치 로케트포반이 제2번 전차를 격파시켰고, 제1번 전차는 2발이나 명중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는데 차내의 적병들은 전차를 버리고 퇴각하였다. 자주포와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제8야포대대의 사격을 받고 파괴되었으며 보병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고 말았다.

22.00에는 재차 전차를 수반한 적이 역습을 하여 왔으나 美 제27연대 제2대대는 야포와 박격포로써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8월 19일 : 적은 어제 밤에 전차와 인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인지 적의 공격행동이 없었다. 따라서 아군 제1대대는 이날 448高地를 공격 끝에 점령함으로써 東方 일대를 제압하게 되었다.

이날 아군 제2군단에서는 Y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본작명 제139호에 의하여 제8사단의 제10전대가 배속되자 군단장 劉載興준장은 동 연대를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에게 지휘토록 하였다(작명 부록 제22호).

이리하여 제10전대의 선발부대인 제2대대가 22.00경에 東方里의 제1사단지휘소에 도착하여 명일의 작전지시를 받고 학교운동장에서 숙영을 하게되었다.

8월 20일 : 聖山山城에 침투한 적은 아군의 후방을 교란하려고 기도하던 중 02.00 경에 소수의 정찰대가 東方里의 사단지휘소를 기습하였는데 때마침 제10연대의 제2대대가 적에게 집중사격을 함으로써 적은 성과 없이 퇴각하고 말았다.

이날 제10전대 제2대대는 제11연대 제2대대와 협동으로 741高地에서 준동하고 있는 적에게 13.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1연대 제2대대는 金谷洞 부근에서 적의 후방을 공격하고 제10전대 제2대대는 南에서 北으로 협공을 하였는데 적은 후방에서 갑자기 기습공격을 받자 혼비백산하여 분산 퇴각함으로써 제10전대 제2대대는 수월하게 741高地를 16.30에 탈환하여 퇴각하는 적을 일부 추격하여 섬멸하였다.

아군 제11연대 제3대대는 전술한 바 제10전대장 楊國鎭 대위는 이날 40명의 특공대를 지휘하여 07.00에 673高地에 무지원공격을 시작하였다. 18일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다른 중대가 9부능선에서 적에 대하여 기만공격을 하고 철수하였기 때문에 楊 대위는 필시 적이 이 때 쯤이면 모두 퇴곤하여 자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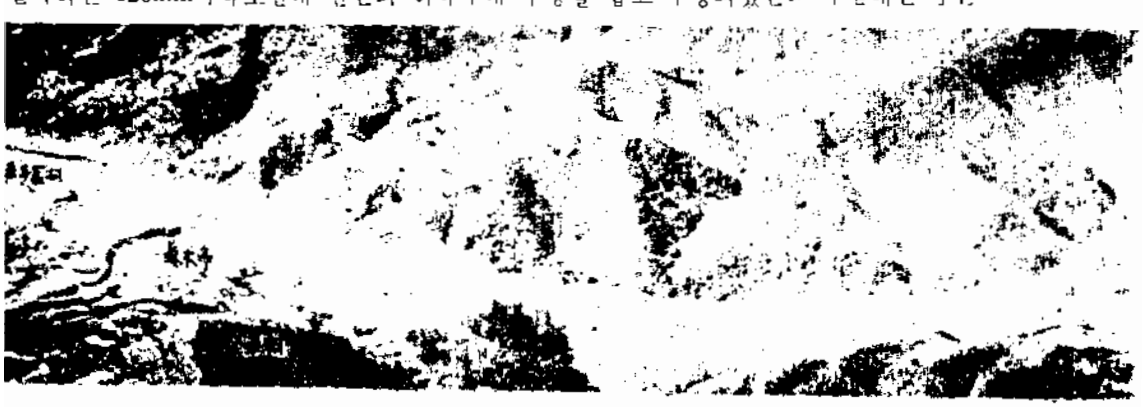
특공대의 1개 분대가 673高地의 적진에 이르고 보니 경계병들은 혹속에서 총을 앞에 내놓고 모두가 잠에 취하여 있었다. 이것을 포착한 건 특공대는 수류탄을 사방에서 일시에 적의 혹속에 집어 던지니 고지의 정상은 일시에 수라장이 되어 적은 방향조차 분간치 못하고 덩굴면서 각자 분산하여 퇴각하였고 특공대원들은 즉시 틈을 주지않고 일부 저항하는 적들을 모조리 격멸하고 죽은 적 군관의 작전지도를 노획하였는데 8월 15일까지 大邱를 점령하라는 공격 기동로와 목표가 표기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08.30 경에 목표를 점령하고 환희에 차 있을 때 갑자기 美 포병대가 발사하는 포격을 받게 되었는데 특공대는 포격을 피하여 즉시 8부능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美軍의 포사격은 대대장의 연락으로 잠시 뒤에 중지 되었지만 이 사이에 적의 역습으로 다시 673高地를 빼앗기게 되었다.

楊 대위는 재차 대원들을 수습하여 적진에 역습을 시작하여 수류탄전을 반복하다가 발에 파편상을 입고 기동이 불가능하자 8부능선으로 후송되었는데 이때 목표점령의 보고를 받고 올라오던 대대장 鄭水洪 소령과 만나 서로 붙들고 강개(慷慨)어린 눈물들을 흘렸는데 부대대장이 중원부대를 지휘하여 뒤어 올라 가서 수류탄전 끝에 원한의 673高地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호소에 도달한 楊源稙 대위는 전투복 윗 주머니에도 파편구멍이 있어 살펴보니 수류탄 파편이 수첩을 뚫고 박혀 있었는데 그 수첩은 적의 군관한테서 노획한 것으로서 결국 적의 수첩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業 소령도 355高地일대에서 지휘하던 중 741高地의 적이 발사하는 120mm박격포탄에 왼손과 하복부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 후일에는 李[illegible]



<多富洞—

중령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이날의 아군 배치선은 다음과 같다.

제11연대 제3대대 673高地
제1대대 448高地
제2대대 泉坪右측高地
제15연대 제2대대 356高地
미27연대 제1대대 水亭左측능선
제2대대 水亭右측능선
제3대대 466高地
제10연대 제2대대 741高地



673高地를 점령한
제10중대장 楊鳳稙 대위

8월 21일 : 제1사단은 Y선으로 진출하고자 미명을 기하여 반격을 시작하였는데 적 제13사단도 최후의 발악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특히 左일선의 제11연대 제1대대는 448高地에서 적의 반격을 받고 뒤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美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그의 제1대대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에게 사태의 수습을 건의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현장에 이르러 제1대대 병력을 수습한 다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비장한 훈시를 하고 재공격을 명령하게 되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은 洛東江 방어선에 달려있고 조국의 흥망은 이 遊鶴山에 걸려있으므로 이 遊鶴山에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갈 곳은 과연 어디냐? 이제부터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나갈터이니 귀관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만일 사단장이 선두에서 물러



新酒幕계곡의 전경>

선다면 사단장을 쏴 다오. 만일 귀관들이 명령없이 철수한다면 가차없이 귀관들을 쏘겠다. 우리는 한치의 땅도 적에게 허용할 수 없으며 죽엄으로써 이곳을 사수하여야 한다. 조국을 지켜 후손들에게 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기 위한 사수냐?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철수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최후의 기회만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단장의 훈시와 격려에 흥분한 장병들은 사단장의 돌격명령을 듣고 448고지에 대하여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을 시작한지 30분만에 목표를 탈환하게 되었으니 이를 바라보고 있던 미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대령은 감탄과 韓國軍의 숨은 용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8월 22일 : 적 제13사단의 주력은 결사적으로 新洞藍에서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美 공군 전폭기의 폭격과 포병사격, 그리고 美 전차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출혈을 강요 당하고 있었다. 아군 역시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전국이라 촌보(寸步)의 양보도 없이 진전에서 적의 반격을 분쇄하고 있었다.

이날 10.00에 아군 제11연대 제2대대(車甲俊소령)진지에 극적인 일이 생겼다. 즉 적 제13사단의 포병연대장인 중좌 鄭鳳旭이 1명의 병사와 함께 귀순하여 왔는데 그는 한손에 백기(白旗)를 들고 어깨에서 허리에 찬 가죽가방 안에는 작전지도가 들어 있었다. 그는 곧 바로 연대본부로 후송되었는데 그의 귀순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북괴군이 불법적으로 먼저 南韓을 침략하고서도 이를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국군이 먼저 선공(先攻)하였다는 金日成 도배들에 대하여 혐오(嫌惡)를 느꼈고 독재적인 그들 군조직에 있어서 항상 정치부 군관들의 감시하에서 굴욕적인 간섭을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불만이 평소에 가득차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13사단장 소장 崔鏞鎭에게 불려가서 遊鶴山·多富洞지역에 대한 포병사격의 실패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포위치에서 아군 제1사단의 진지까지는 10여km나 되어 사거리가 짧았고 포병진지를 앞으로 추진하려면 진지가 모두 노출되어 美 전폭기의 폭격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과수원 진지를 떠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중좌 鄭鳳旭은 위의 사실대로 사단장에게 항변하여 언쟁이 벌어졌다. 지휘소로 돌아온 그는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져야할 책임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었다. 따라서 그는 탈출을 결심하고 용의주도한 행동끝에 적진을 벗어나 아군진지에 무사히 귀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에 위장된 적제13사단의 포진지>

그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과수원안에 교묘하게 위장(僞裝)된 122mm곡사포 7문과 76mm 곡사포 13문은 이날 美 공군 전투폭격기의 폭격과 美軍포병의 집중사격으로 거의 파괴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鄭鳳根은 포사거리의 관계도 있었으나 고의(故意)로 사격지휘를 틀리게 하여 그나마 아군지역에 떨어지는 포탄은 대부분이 진지후방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아군의 당시 지휘관들이 이를 시인한 바도 있다(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 제2대대장 車正燮소령, 증언)



多富洞지구전투를 지휘한
제11연대장 金東斌 대령

8월 23일 : 이날도 제11연대는 미명부터 연대장 金東斌대령의 지휘하에 반격을 시작하여 제3대대는 356高地로 진출하였고 이곳에 있던 제1대대는 448高地의 東南斜面에 진지를 점령하여 美제27연대를 직접 엄호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 제2대대는 제15연대 제2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眞木洞으로 나와 예비가 되었다.

한편 741高地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대의 제2대대는 약 2개대대로 추산되는 적의 공격을 받고 진지를 빼앗기고 말았으나 이날 아침에 眞木亭으로 철수, 예비대가된 제11연대 제2대대는 西쪽 능선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고 제10연대 제2대대는 741高地 東쪽 능선에서 적의 공격을 막고 있었다. 14.00에 架山 바위쪽에서 적 1개소대 병력이 제11연대의 지휘소(鶴鳴洞)를 기습하였는데 즉시 격퇴시켰다. 이곳에는 美 제27연대의 4.2 인치 박격포 진지가 있었다. 16.00경에는 架山에 침투한 적은 1개연대로 증강되었는데 그 일부 병력이 三山洞 東北방의 570高地에 침공하였으므로 군단에서는 제10연대(高根弘중령)의 제1, 제3대대를 급파하여 이 적을 격파토록 하여 19.00에는 주력이 東石里 부근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8월 24일 : 어제 저녁에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10연대의 제1, 제3대대는 07.00에 570高地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美 제23연대의 포병지원을 받아 570高地를 점령한 후 架山 山城으로 퇴각한 적을 추격하여 18.00에 적의 일부병력을 섬멸시켰다. 이곳에서 포로된 적병들의 대부분이 서울지구에서 강제로 동원된 이른바 학생들인 의용군이었는데 이들은 옷속에 숨어 있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아군에게 발견되자 생명의 보장을 받고, 30~40명이 투항하였다.

그리고 제10연대 제2대대도 右측 아군 기갑연대와 협동하여 공격끝에 21.00에 741高地 西측 능선을 다시 확보하였다.

한편 제11연대의 주력과 美 제27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적의 저항을 격파하고 新酒幕선까지 이날 진출하였다.

8월 25일 : 이날 제10연대의 제1대대가 架山 山城의 적을 격파하고 741高地의 東北方 佛堂에 진출하자 제11연대 제2대대도 眞木亭에서 美 제27연대 제2대대 전방으로 진출하여 新酒幕 右측 능선지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293高地선에, 제15연대 제2대대는 泉坪洞 右측 高地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17.00현재의 아군의 前線은 다음과 같다.

제11연대	제3대대	293高地에서 下板洞
	제1대대	356高地에서 東쪽능선
	제2대대	新酒幕右측능선
제15연대	제2대대	泉坪洞능선
미27연대	제1대대	新酒幕中心左측 0.5km
	제2대대	〃 右측 0.5km

이날 전선의 위기가 일단 사라지자 美 8군 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美 제27연대를

아군 제1사단의 증원임무를 해제시켰다. 이리하여 아군 제11연대는 26일 03.45에 미 제27연대의 방어지역을 인수하고 동시에 미 제27연대는 8일간의 격전에서 다대한 전공을 세우고 馬山의 원소속으로 전진(轉進)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적의 저항이 미약하고 반격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것은 적 제15사단이 永川 방면으로 8월 20~21일 사이에 이동한것으로 추산되며 적 제13사단의 공격정면이 넓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아군측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8월 26~27일 : 연대정면의 적은 수차에 걸쳐서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격식에 불과하였고 적 제13사단은 이미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전황은 양일간에 걸쳐 유리하였다. 그러나 27일 적 1개소대의 병력이 제11연대 지휘소가 있는 三幕으로 낮에 기습교란을 시도하였으나 부근에 배치된 미군 105mm포가 직사사격으로 포탄을 집중시켜 이를 격퇴시켰는데 이것으로써 적의 후방시설에 대한 기습활동은 세번째가 되었다.

이날 제10연대 제1대대는 제2군단 작명에 의거하여 新寧에 위치한 아군 제6사단에 배속케 되었으나 적과 교전 중이라 철수가 곤란하여 제15연대 제2대대를 新寧으로 전진(轉進)시켰다.

8월 28~29일 : 적정 판단에 의하여 적의 병력은 2개연대, 포 10문, 전차 13대로 추산되었고 아군의 각 대대는 확보된 진지를 큰 접촉없이 유지하고 있었다.

8월 30일 : 이날 아군 제11연대는 육본작명 제151호(작명부록 제33호)와 제2군단작명 제22호(작명부록 제37호)에 의하여 현재의 방어선을 美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에 인계하고 (미명부터 13.00까지) 東石里의 사단 집결지를 거쳐 大邱·河陽을 거쳐 新寧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제11연대는 다시 大栗洞으로 들어가 제5연대의 진지를 인수코자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5일 동안에 걸친 多富洞 지구의 공방전은 피아간에 문자 그대로 혈투의 계속이었다. 적은 大邱로 진출하기 위한 최후발악적인 공격을 되풀이하였고 아군은 마지막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한개의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아간에는 희생을 돌볼 사이도 없이 주야로 점탈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싸움의 결과는 아군 제11연대가 거의 3배에 달하는 적 제13사단을 격멸하고 거의 Y 방어선상에 진출함으로써 大邱의 위기를 구하게 되었고, 적은 그간에 입은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충과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공격행동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포병연대장을 비롯한 많은 병사들의 포

로 또는 퇴군은 그나마 이미 땅에 떨어진 그들의 사기를 더욱 저상(沮喪) 시켰을 뿐 만아니라 아군측의 필승신념을 더욱 굳게하는 큰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전투기간 중에 미 제27연대를 多富洞 계곡에 배치하여 적의 기갑부대를 모조리 격파하였다는 것은 아군 제11연대로 하여금 그 맡은바 임무수행을 촉진하는 바 되었고 또한 美 제27연대의 싸움은 서로가 믿고 서로가 돕는 협동작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美 제8군에서는 大田방어를 더욱 굳게하고자 韓國軍이 담당하고 있는 전면을 종합적 의미에서 현 제1사단의 방어지역을 美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제1사단은 좌측으로 전진(轉進)하여 아군 제6사단의 지연일부와 아군 제5연대 및 기갑연대가 담당하였던 大田·鎭山지구의 방어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8월 30일 제2군단 작명 제22호(부록제37호)에 의거하여 부대기동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사단은 적 제1사단과 새로히 교대하게 되었고 美 제1기병사단은 적 제13사단과 後錦에서 多富洞, 美里 부근에 이르는 선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아군의 종합전과(50.8.13~30, 제1사단)

노획	장 총	901정		다 발 총	8정
	경 기 관 총	98정		중 기 관 총	67정
	자 동 소 총	7정		기 관 단 총	8정
	기 병 소 총	26정		저격용 소총	3정
	반 전 차 포	16문		대 전 차 포	10문



<多富洞 일각에 전립된 제1사단의 多富洞 지구 전적비 전경>

박 격 포	19문	M 1 소 총	8정
기 관 포	2문	곡 사 포	14문
전 차 파 괴	9대	신 호 권 총	2정
전 화 기	4대	경기관총탄창	267개
수 류 탄	337발	각 종 실 탄	23,250발
반 전차 포탄	71발	쌍 안 경	1
포 차	5대	포 로	139명
적 사 살	5,690명		

§교 훈

◇ **步砲協同** : 제11연대에는 사단포병인 105mm 곡사포 1개포대가 배속되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포병의 지원화력이 약하였다. 이연대는 美제27연대가 증원되자 美軍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3대대가 673高地에서 적으로 오인된 나머지 美軍의 포탄 세례를 받아 애써 점령하였던 고지를 다시 적의 손에 넘겨 주게 되어가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제11연대 지휘부와 제3대대 지휘부가 모두 미군의 지원포병사이에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조가 잘 안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선통신기의 불비, 연락 장교와의 언어상의 장애등이 협동작전의 실패를 가져 오게 한 것이라고 본다.

美軍 포대에서는 한國軍측의 포지원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소수의 병력이 673高地의 정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곧 이를 적으로 단정하고 포격을 가한것이 뒤에야 밝혀졌다는 것이니 비록 싸움이란 과오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 **제1사단장이 지적한 교훈**

"첫째, 방어지역에 침투한 적을 역습으로 격퇴 혹은 격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파구의 견부(肩部)를 확보하여 돌파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이 선행조건이었고 견부를 지키는 부대는 어려운 역경속에서 전투를 하게 되나 이를 극복하고 인내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예비대의 보유문제에 있어서 광정면을 방어할지라도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요 지형지물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고 지휘관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대를 각 제대별로 보유하여야 하며 일단 예비대를 사용하면 지체없이 새로운 예비대를 보유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방어시의 취약(脆弱)점은 인접부대와의 협조문제이다. 인접부대와의 경계선은 항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한편 긴급한 상황하에서 상호 연락과 협조가 유지되도록 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군은 전력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휘관이 있는 곳에 전력부대가 존재한다고 단언하여도 지나친 속단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훌륭한 지휘관일수록 부하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에 의하여 지휘체통을 먼저 확립하고 솔선수범으로 임한 군기가 유지되며 부하의 복지를 향상시킨다음 부대를 통솔함으로써 부대사기는 왕성하게 되고 부대는 단결되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어시에 있어 종심(縱深) 유지에 있어서 병력은 물론 특히 화력으로써 종심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후방시설의 경계대책 : 8월 20, 23, 27일의 3차에 걸쳐서 東石洞의 국민학교에 위치한 제1사단지휘소와 연대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은바 있었다. 침투하여온 병력은 소대병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격퇴시키고 수명을 사살하였다. 당시 사단지휘소인 학교의 운동장에는 제10연대 제2대대가 제1사단에 배속되어 때마침 가민중에 있었다. 만일 적의 침투병력이 1개중대만 되었더라도 제2대대 병력은 큰 희생을 내게되었을 것이며 또한 사단지휘소도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당시 지휘소부근에는 지뢰를 매설하였고 요소에는 기관총을 배치하여 소대규모의 병력이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휘소의 경계대책으로서는 불충분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후방지역과 시설에 대한 경계대책은 본부 요원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부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이 기습하여 온 목적은 사단장을 사살하는데 있었다는 일례를 보아도 수긍이가는 것이다.

§참전자의 증언

제11연대3대대장 鄭永洪 소령

(66.9.20.2D 군장)

"673고지는 일곱번 공격끝에 점령한 고지이다. 사실상 적한테 감제당하는 고지밑에서 위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비록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적을 효과적으로 때리지는 못하였다. 주간공격도 하고 야간공격도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막대한 희생만 남겼다. 병력은 새로 보충된 신병들이라 제대로 지휘할 수가 없어서 소대장, 중대장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하루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기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십지어 현지조사차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중대장 楊源稙 대위가 전 중대원 40명을 지휘하여 대낮에 무지원(無支援)공격을 시도하였는데 막상 高地에 올라가니 적이 모두 혹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점령하였다"

제11연대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

(1970.9.21 창경원내 예, 대령)

"우리 2대대가 8월 14일에 泉坪에 있는 356고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적이 산을 타고 들어오는 탓으로 2일간이나 고립되어 보급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솔잎을 뜯어서 먹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빠져나와 眞木洞北方에 배치되어서 싸웠는데 이때 중좌 鄭源旭이가 나의 대대로 넘어온 것을 내가 연대까지 후송을 시켰다.

미 제27연대가 들어와서 우리의 진지를 인계하고 우리대대는 미군보다 앞쪽의 능선에 나가있었다. 미군 전차들은 우리대대의 OP부근까지 나와서 지원을 하였고 적의 전차는 항공요청을 해서 파괴하기도 하였다. 적의 전차가 泉坪선까지 들어왔는데 이 골자기에는 많은 시체가 깔려있었고 장교의 시체들도 많이 눈에 띄였다.

사실상 多富洞지구의 전투는 제3대대 鄭永洪 장군이 싸운것이나 다름 없었다. 제1대대나 제2대대는 방어가 중심이 되었는데 더구나 제1대대는 金任命 소령이 부상당하고 내려간 다음에는 지휘치 않았다. 鄭永洪소령이 이곳에서 무척 고생을 했다.

이곳 전투에서 처음에는 적의 정규병이 나왔으나 나중에는 의용군들이 대부분이고 기관총에 다리를 묶어놓은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대대는 고병과 신병의 비율이 반반정도였다. 이곳에서 우리연대는 8월 말일에 미 제1기병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新寧으로 이동하여 싸우게 되었다."

제15연대 제6중대장 金圓柱 대위

(1966.3.25. 육군본부·준장)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洛東江지구에서 Y방어선으로 철수할때 우리 15연대 제2대대가 마지막 엄호부대로 있다가 적이 공격하여 오는 까닭에 遊鶴山쪽으로해서 들어왔다가 眞本洞의466高地에서 방어를 하였다. 나는 2개중대를 지휘하고 고지위에서 밑에 있는 적을 공격하였는데 때마침 안개가 끼어서 중간봉우리에서 사주방어를 하게 되었다. 나는 대원들에게 개인호를 파고 들어가게 한다음 밤중이 되었는데 움직이는 놈은 무조건 쏘라고 하였다.

밤중에 적이 밑에서 기어올라오는데 훗속에서 慶尙道출신의 裵중사(이름은 기억할수없다)가 咸鏡道말을 쓰는 적병과 격투가 벌어졌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훗속에서 보면 적이 뾰족한 총검이 꽂혀있는 장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나는 권총으로 쏘았다. 나의 옆에 있던 崔鳳道 대위도 적병이 내미는 총검을 잡으며 권총을쏘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요란하면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와같이 싸움이 한시간반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서로가 말을 하면 위치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저 총만을 쏘았던것이며 나는 부하들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하기가 짝이 없었다.

날이 밝으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25명이 전사하고 20명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적병들은 우리의 훗속에서 죽었고 우리대원들은 호밖에서 전사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적병들이 총검을 내밀고 접근할때 우리병사들이 날쌔게 훗속으로 잡아당기는 동시에 밖으로 나와서 총을 쏘거나 대검으로써 찔러죽인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주위 일대에는 우리에게 부상당한 수많은 적병들이 도망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아침에 발견하였는데 야간전투는 소리없이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고 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느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8월 16일의 상황)

또 한가지는 내 제27연대가 多富洞골짜기에 들어와서 싸울때인데 어느 미군 대대장이 자기 병력들이 후퇴하는 것을 막느라고 지휘하다가 적의 포탄에 전사하였는데 그 대대장은 참으로 용감하였다.

개활지로 적의 전차가 오는것을 우리가 3.5인치 로케트포로 이를 파괴하였는데 전차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중대는 300m의 정면을 방어하고 있는데 후퇴해도 죽고 돌파당하여도 죽고하는 배수진과 같은 진지에서 고수를 하였다. 낮에 우리는 부비추랩을 설치해놓고 있으면 적이 밤에 오다가 이것에 걸려 많이 죽었다. 시체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적은 밤이면 기어 올라오다가 죽고 말았는데 적의 손실이 참으로 많았다.

적도 포격을 심하게 하였는데 고지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뒤로 떨어졌지만 安正照대위는 나와같이 관측을 하다가 포탄이 떨어져서 安대위는 전사하고 내대장 安光榮소령도 부상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8월 20일에 일어난 한토막의 추억이다. 여하간 2대대 중대장 가운데 多富洞전투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겁니다".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 (육군대학발행 군사평론, 제118—119합본 1970.5.30 p.23)

"40km의 광정면을 불과 1개포병 대대화력으로 전정면을 카바할 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적은 倭館—大邱를 연하는 축선(軸線)보다 오히려 洛東里—大邱축선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오므로 사단은 장차 이곳에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반격의 기회는 물론이오 최후의 방어선인 釜山교두보가 무너지게 되는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결정적인 방어를 실시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예비대가 요구되었읍니다. 따라서 육군본부에 증원을 요청한바 육군본부는 가용할 예비대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육본을 통하여 미제8군에 요청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미제8군이 예비대를 보유한 미27연대가 사단에 증원되었으며 당시 한국 보병사단은 전차는 물론 한대도 없었으며 사단 공병도 불도저 한대없이 오직 야전삽, 곡괭이, 폭약정도를 가진 공병대대 였는데 이에 반하여 미제27연대는 전차로 증강된 연대였읍니다. (당시 미 제27연대는 사단사령부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 (1970. 5) 주한 미8군사령관겸 UN군사령관으로 있는 「마이켈리스」대장이 당시 연대장으로 東石洞에 위치한 우리사단을 방문한바 있읍니다)

이와같은 불리한 상황하에서 결정적인 방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遊鶴山일대에 배치되었던 제11연대는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 제27연대장이 보고해 왔고 자기연대는 만일 遊鶴山일대가 돌파당하게되면 더 이상 저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연대의 철수를 건의하여 왔던것 입니다. 그래서 즉시 현지에 나가보니 제11연대예하 제1대대는 전의가 극도로 저하되고 무질서하게 총을 거꾸로멘채로 철수하고 있읍을 목격하였읍니다.

특히 마이켈리스(Michaelis) 대령은 미 제27연대의 철수를 거듭 강력하게 건의하여 왔으며, 적은 계속 遊鶴山 東측방에서 압력을 가하여 왔읍니다. 이때 나는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병력을 한 곳에 집결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의 애국심과 젊은 용기에 호소하면서 비장한 훈시로 그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훈시생략21일상황본문참조)

이렇게 적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피 끓는 젊은 병사들의 조국애에 호소하니 병사들의 몸은 비록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과감한 돌격으로써 잃었던 명예를 되 찾아 보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빛나는 눈동자로 응답하므로 지체없이 현지에서 돌격을 명령하였읍니다.

돌격후 30분도 못되어 이 험준한 遊鶴山을 다시 탈취하게 되었으며 적은 새로운 증원부대가 역습하여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패주하여 버렸읍니다. 당시 미 제27연대장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부대가 명령일하 다시 용감하게 역습을 실시하여 순식간에 遊鶴山을 재탈취하는 것을 보고 그 용감성에 대하여 극구 찬양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 참전자의 약력

白善燁

군사영어학교

1946. 2. 26 중위임관
〃 제5연대 A중대장
1947. 1. 제5연대장
1948. 12. 통위부정보국장
1949. 7. 제5사단장
1950. 4. 제1사단장(준장)
〃 10, 제2군단장
1951. 4. 제1군단장(소장)
〃 6. UN전전대표
1952. 7. 육군총참모장(중장)
1960. 5. 예비역편입(대장)

金東斌

경비사관학교 1기졸

1946. 6. 12 소위임관
〃 제4연대 소대장
1947. 3. 사관학교 제1중대장
1948. 11. 〃 교도대대장

1950.	6.	육사, 보병학교 훈성연대 부연대장
1950.	7.	제5연대장
〃	8.	제11연대장
〃	12.	제1사단 참모장
1951.	7.	수도사단, 부사단장
?		제9사단 부사단장
1952.	7.	제7사단포병사령관
1953.	5.	제1사단장
1969.		예비역편입(중장)

楊鳳稙대위

1948.	7. 28	소위임관
1948.	8.	제11연대 7중대 소대장
1950.	5.	〃 제3대대10중대장
〃	10.	제11사단G-3보좌관
1951.	1.	전차공격대대장
〃	6.	제13연대 2대대장
1953.	5.	남부지구경비사령부전보참모
1963.	2.	육군준장
1969.	1.	육군소장(현재)

第 20 章

洛東江 西部方面 作戰 (一)

第20章 洛東江 西部方面 作戰 (一)

要 旨

"사느냐, 죽느냐! ("Stand or Die!")" 글자 그대로 결전(決戰)은 임박했다.

美 제8군 사령부에서는 8월 1일 모든 韓·美 지상군에게 洛東江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洛東江상의 대부분의 교량은 8월 4일에 철단되었다. 각 전투부대는 강 東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洛東江 방어선이 형성된 것이다.

倭館에서 北으로 올라가 洛井里(北쪽 대안은 洛東里)를 거쳐서 東해안의 盈德까지에 이르는 東部 산악지대는 아군이 맡았으나 洛東江 西部, 다시 말하면 倭館 東北쪽의 鵲島山(△303)을 최우단(最右端)으로 하여 馬山 鎭東里 鎭海灣에 이르는 洛東江 인안(沿岸) 부근 일대는 美軍이 그 방어 책임을 담당하였다.

이 해(1950년)의 여름은 예년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었다. 7~8월달의 평상 강우량은 약 510mm인데 비하여 겨우 4분의1인 약 130mm의 강우량 밖에는 없었고 어느 지방에서는 구름 한 점없는 무더운 날씨로 섭씨 41°~48°(화씨 105°~120°)를 오르 내렸으며 어떤 곳에서는 혹서(酷暑)로 말미암은 피해가 적탄에 의한 피해보다도 더 많은 곳도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 즉 倭館에서 鎭海灣까지의 洛東江 연안(沿岸) 부근 일대에서 벌어진 공방전을 이름하여 洛東江 西部방면 작전이라 한다.

우선 美 제1기병사단의 倭館·多富洞부근 싸움을 바꿔해서 倭館 西北쪽(강건너편) 지역 5.6×12km에 대한 융단폭격, 다음에는 美 제24사단의 昌寧·釜山 부근 전투(아마 洛東江 돌출부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북괴군 제3 및 제4사단의 뒤를 이어서 남침한 제6사단이 행방을 감추었다가 群山을 점령(당시 제4사단은 大田에서 전투 중)한 뒤에 西南방면으로 우회(迂廻)하여 釜山의 西쪽 관문으로 알려진 馬山을 거쳐서 釜山을 점령하려던 적의 기도(企圖)를 분쇄한 美 제25사단의 馬山 西측방의 정찰전, 방어에서 공세로 나가 晋州를 탈환하고 전선(戰線)에 활기를 넣어 주려던 美 제24사단의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과 이 반격전에서 실패한 뒤 다시 남방어전을 하게된 美 제25사단의 馬山 西측방의 재방어, 아 해병대의 統營(忠武市) 탈환전 및 되찾은 統營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轍門고개의 싸움 등 8월 중에 전개된 전투는 참으로 치열하였다.

1. 倭舘·多富洞附近戰鬪 (50년 8월 9일부터 / 50년 8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9 호

가. 참전 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美 제1기병사단 장 소장 게이(Hobart R. Gay)	제8기병연대 장 대령 팔머(Raymond Dishman Palmer)
포병사령관 준장 팔머(Charles D. Palmer)	배속부대
제7기병연대 장 대령 니스트(Cecil Nist)	美 제71중전차대대 A중대
제5기병연대 장 대령 크롬베츠(Marcel B. Crombez)	제77포병대대
	병력 약 13,000명

적 군	
북괴군 제3사단 장 소장 李英鎬	배속부대
제7연대 장 대좌 金昌鳳	제105기갑사단
제8연대 장 대좌 金貞童	병력 약 10,000명
제9연대 장 대좌 金萬益	

나. 전투 전의 개황

(1) 북괴군의 大邱 공격 준비

大邱 西北쪽 전면의 적은 제105기갑사단의 지원밑에 洛東江 西쪽에 南에서 北으로 제10, 제3, 제15, 제13 및 제1사단의 순으로 모합 5개 사단이 배치되고 있었다.

적의 이와 같은 배치 상태로 보아 그들의 다음 번 공격의 주공선(主攻線)은 尙州에서 大邱에 이르는 계곡 접근로에 향하게 될 것으로 美 제8군은 판단하고 있었다.

8월 초에 적의 5개 사단과 대치(對峙)하고 있던 美軍은 洛東江 東쪽에 北에서 南으로 韓國軍 제6사단과 제1사단 및 美 제1기병사단 순으로 3개사단이 배치되고 있었다.

아 제1사단과 美 제1기병사단의 전투지경선은 倭館 北쪽 3km 지점에서 大邱 東北쪽 16km 지점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적의 제1사단과 제3사단의 일부는 美 제1기병사단과 대치하고 있었고 아 제1사단과 제6사단은 적 제3사단의 일부와 제15, 제13, 및 제1사단과 시로 대치(對峙)하고 있었다.

美 제1기병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제5, 제8, 및 제7기병연대의 순으로 배치되었고 사단의 南쪽은 美 제24사단과 인접하고 있었다. 大邱 西쪽의 제8기병연대의 2개대대의 방어 정면은 각각 10km에 이르렀고 倭館의 제5기병연대는 14km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넓은 정면을 지원하는 지원포대의 진지는 7km 후방에 6~7k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있었는데 2개 포대는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포격이 가능하였지만 모든 대대의 사격 동제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2) 북괴군의 도하(渡河)

8월 6일과 8일 이틀동안에 적 제1사단은 우리 제6사단 정면인 尙州—咸昌 사이에서 洛東江을 건넜다. 이때 美軍 정찰기는 적이 10척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적 제1사단은 도하전(渡河前)에 咸昌에서 또 도하한 뒤에도 도합 2,500명의 보충병을 받았지만 총병력은 약 5,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보충병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전선(戰線) 후방에서 잡무를 맡아 보고 있었다.

적 제1사단 바로 西편에 위치하고 있던 제21연대(제13사단의 주력)는 8월 5일 尙州 東北쪽 15km 지점의 洛東里에서 강을 건넜는데 그들은 美 공군의 공중사격과 韓國軍의 집중포화로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강을 건넜다.

적의 제21연대의 뒤를 이어 제2제대(梯隊)로서 제19연대가 목덜미까지 차는 물속을 건넜는데 이때 중화기(重火器)와 차량 등 중장비(重裝備)는 같이 도하시키지 못하였다. 8월 6일~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제3제대인 제23연대는 2개 포병대와 함께 뗏목을 이용하여 洛東里 南쪽에서 강을 건넜다.

역시 적 제13사단은 우리 제1사단의 정면에서 강을 건넜으나 도하지점은 우리 진지에서 몇 km나 떨어져 있었다. 우리 제1사단은 적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즉시 이를 공격하여 분산 도주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적은 기어이 강을 건너 강 東편에서 대형(隊形)을 정리한 다음 야간(夜間)공격을 감행하여 우리 韓國軍의 방어선을 뚫고 洛東里 東南쪽 약 30km 지점까지 닥아왔다.

이와같이 해서 강을 건너온 적(제13사단, 제1사단)은 1주일 뒤에 大邱 北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多富洞에 침투하고 있었는데 多富洞은 大邱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요충지인 것이다.

한편 적의 제15사단은 金泉에서 1,500명의 보충병을 받아서 사단 총병력은 6,500명이 되었다. 8월 7일에 이 15사단의 예하 제49연대는 善山 東南쪽에 있는 江倉에서 洛東江을 건넜다. 그들은 강을 건느다가 美 공군의 폭격을 받았으나 그대로 도하를 강행하여 152高地 산속에서 재편성을 하였고 뒤따르던 제48 및 제50연대도 8일날 새벽에 倭館 北쪽 6km 지점과 10km 지점의 나룻터에서 허리까지 차는 洛東江을 건넜는데 전차와 차량들은 수중가도(水中假道)를 이용하여 도하 하였다. 倭館 北쪽 10km 지점의 나룻터에서는 2개대대와 2대의 전차가 08.10에 도하에 성공하였는데 7대의 전차가 西쪽에서 도하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때 美 공군은 倭館 北쪽 10km 지점에서 적의 수중가도를 발견하고 500kg 폭탄으로 이를 파괴해 버리고 말았다. 도하한 뒤에 그들은 일단 201高地와

346高地를 점령하여 부대를 정리한 다음 多富洞쪽으로 향하여 산속으로 이동, 16일에는 遊鶴山 부근에 집결하여 우리 제1사단과 대결해야 할 형세에 놓여있었다.

倭舘 西쪽 강 기슭에서도 적 2개사단이 北쪽에 있는 적과 협조하여 洛東江을 건느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중 적의 제3사단은 星州 근처에 집결하고 있었고 그 南쪽에는 역시 적 제1사단의 高靈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 정면에는 美 제1기병사단이 배치되고 있었다.

8월 9일 적의 제3사단 예하 제7연대는 03.00에 倭舘橋 南쪽 3km 지점에 있는 나룻터에서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수심(水深)이 1.5m나 되는 물속을 적 병사들은 총을 머리 위에 쳐들고 걸어서 건너오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美 제5기병연대에서는 야포와 자동화기로 집중사격을 하였으나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탄막지대(彈幕地帶)를 뚫고 도하에 성공하였다.

이 제7연대가 도하한지 약 30분 뒤에는 제8연대와 제9연대가 동시에 도하를 감행하려 하였다.

우리 조명탄은 강물에 뛰어든 적 2개연대를 환하게 비쳐주고 있는 사이에 美 제5기병연대의 모든 화기(火器)와 지원포가 포구를 열고 사격과 포격을 집중하였다.

美軍의 치열한 집중포격으로 대부분의 적은 강물에서 살상(殺傷)되었고 소수의 병력만이 도하에 성공은 하였으나 이들마저 대부분이 진전(陣前)에서 美軍들에게 생포되거나 혹은 산산히 흩어지고 말았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錦舞峰(△268) 전투

8월 9일 : 새벽 03.00경에 美 제1기병사단장은 大邱에 있는 그의 사령부에서 적이 倭舘 南쪽에서 도하중(渡河中)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보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는 좀더 상세한 적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5기병연대의 정보장교를 도하지점에 급히 보냈다. 사단장은 정보장교가 돌아올 때까지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를 예비대로서 확보해 놓았다.

정보장교는 명령을 받은 즉시 연대 수색소대의 일부 병력을 지휘하여 적의 도하지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날이 밝기 약 45분전에 정보장교가 지휘하는 수색대는 적병들이 錦舞峰(△268)의 西北쪽 능선을 따라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적은 4명이 1개조(組)가 되어 이동하고 있었다. 각 조의 네번 째 병사는 경기관총 또는 자동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정보장교의 판단으로는 적의 병력이 약 750명의 증강된 대대병력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보장교를 제외한 수색소대원들은 鵲鳥山(△303)에서 적에게 포로가 되어 모두 학살 당하고 말았다.) (다음 鵲鳥山(△303) 싸움 참조)

美 제1기병사단장이 제5기병연대 정보장교의 보고를 받은 몇분 뒤에 美 제8군사령관이

제1기병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게이(Gay) 사단장은 보고하기를 "약 1개대대 병력의 적이 洛東江을 건너서 錦舞峰을 점령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 적에 대하여 즉시 역습을 하겠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워커(Walker) 사령관은 "좋소! 그런데 적은 기만작전을 쓰고 있을지 모르니 계속 적정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시요. 적의 주공(主攻)은 멀리 左측방에 있을지 모르니까"라고 지시하였다. (左측방이란 昌寧·靈山 방면 美 제24사단 정면을 말하는데 워커(Walker) 사령관의 상황 판단은 사실상 들어 맞았다.)

이날(9일) 09.30에 게이(Gay) 사단장은 제7기병연대 제1대대장에게 錦舞峰에 있는 적을 역습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錦舞峰은 釜山--서울—新義州를 거쳐서 滿洲에 이르는 京釜線 복선철도가 이 산의 北쪽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뿐더러 주보급로(主補給路)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고지였다.

제71중전차대대(中戰車大隊) A중대의 전차 5대가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9일 저녁 때였다. 클레이노스(Peter D. Clainos)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포병부대의 준비사격이 끝난 다음 錦舞峰 西南쪽에서 공격하였는데 그동안 제1대대는 포병지원사격과의 협조가 잘 맞지 않았고 병사들은 극심한 더위에 모두 지쳤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도 않았던 적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 이날의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8월 10일 : 아침 공격이 재개되기 전에 공중폭격과 포사격으로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공격 준비사격이 끝나자 즉시 공격하여 드디어 錦舞峰을 탈환하였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적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적의 부사단장, 참모장, 정보참모와 몇명의 북괴군 현병이 美軍 잠복병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모두 부상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사단장이 공격부대의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錦舞峰에 도착하여 병사들과 전투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사단장과 부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여 하는 수 없이 일단 철수하였다.

사단장은 5대의 전차로 하여금 倭館도로를 따라 목표지역 후사면으로 북상(北上)시켜 美軍의 포사격을 피하고 있던 적을 후방에서 모조리 격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뒤 정면에서 공격하던 보병부대는 16.00에 무난히 錦舞峰을 점령하였다. 美軍 지

원포는 사정(射程)을 연신(延伸)하여 퇴각하는 적에게 계속 사격하여 많은 적을 살상하였다. 이때 민가에 숨어 있다가 직격탄에 맞아 죽은 200여명의 북괴군 시체도 뒤에 발견했다.

저녁때 제7기병연대는 사단 예비대가 되고 제5기병연대는 錦舞峰 부근의 적을 깨끗이 몰아냈다.

8월 13일 : 錦舞峰 싸움터에 대한 자세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적의 단대호(團隊號)가 북괴군 제3사단 제7연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300~400명의 적의 시체도 발견하였다.

美 제7기병연대 제1대대도 2일간에 걸친 이번 錦舞峰 싸움에서 전사 14명과 부상 4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뒤에 잡은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적은 최초에는 약 1,000명이 도하에 성공하여 錦舞峰에 집결하였으나 이번 싸움에서(주로 美軍의 박격포 및 야포사격으로) 약 700명이 살상되고 나머지 약 300명은 10일 밤에 퇴각하였다는 것이다. 북괴군 제3사단은 도하작전에서 실패하고 또 錦舞峰 싸움에서 패전하여 사단병력은 약 2,500명으로 줄어 들었다. 개전 초기에 적 제3사단은 최선봉으로 서울에 침입한 뒤 鳥致院 전투를 거쳐 錦江을 도하한 다음 적 제4사단과 합세하여 美 제24사단과 大田에서 싸우고 이어 永同에서는 美 제1기병사단과 싸운 뒤, 大邱전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드디어 전선(前線)에서 물러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북괴군 제10사단의 도하

적은 大邱를 점령하기 위하여 제10사단과 제3사단으로 하여금 大邱市의 西쪽과 西南쪽에서 협조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이다.

적 제10사단은 후방 예비사단으로서 7월 25일에 주둔지인 平南 价川을 출발하여 철도편으로 天安에 도착한 다음 도보행군으로 大田, 錦山, 茂朱를 거쳐 8월 8일 星州에 도착하였다.

8월 10일 : 적 제10사단은 공격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得成洞에서 龍浦橋로 도하하여 大邱—釜山간의 국도(國道)를 차단하라는 임무였다.

8월 11일 : 적은 남진하여 高靈에 집결한 뒤 분진(分進)하여 도하준비에 착수하였다. 당시 得成洞과 龍浦洞(사촌동?) 사이에 있는 龍浦橋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뿐 도보부대

(徒步部隊)가 건느는 것은 가능하였다. 왜냐하면 美 제8군은 다음 작전을 위해서 일부러 파괴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었다. 그것은 적이 강을 건늘 때를 노려 야포와 박격포로서 집중사격을 하여 타격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준비도 해 놓았고 자동화기의 측방사격도 가능하도록 하여 함정(陷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29연대를 右로, 제25연대를 左로, 제27연대를 예비대로하여 도하를 감행하려고 시도(試圖)하였다.

<8월 11일 저녁에 하달된 적의 작명(作命)은 제25연대는 제3사단의 공격과 협조하여 大邱를 점령하라고 되어 있었다.>

적의 최초의 도하는 제29연대 였다. 五風 대안선(對岸線)에 있는 세군데의 나루터에서 걸어서 洛東江을 건넜다. 강을 건는 적은 美軍이 점령하지 않은 410高地와 그 北쪽에 있는 265高地를 각각 점령하였는데 적의 제29연대 제1대대는 20~30명이 도하중에 익사(溺死)하였다고 한다.

美 제24사단에서는 제21연대의 잠복조(潛伏組)가 美 제7기병연대와 연결하려고 강가를 따라 북상하고 있을 때 비로소 410高地에 있는 적을 발견하였다.

한편 적의 제25연대는 8월 12일 03.00에 得成洞과 龍浦洞의 龍浦橋를 건느기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美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가 도하지점을 방어하고 있었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약 300~400명의 적이 渭川洞에 침공 해오자 비로소 H중대가 발견하였고 교전은 시작되었다. 적은 H중대에 대하여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육박하여 왔다. H중대는 철수하고 공중지원과 77포병대대의 지원사격을 요청, 09.00에는 적을 격퇴 분산시켰는데 그들은 후속부대의 도하를 엄호하기 위하여 208高地를 점령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3일동안(8월 10일부터 12일까지)에 洛東江의 수위(水位)는 약 1m로 떨어지고 강의 깊이는 어깨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아 적의 도하에 좋은 기회를 주게 되었다.

8월14일 : 적은 드디어 새벽에 得成洞과 龍浦洞간의 파괴된 교량 일대에서 도하를 재개하였다. 06.00경에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이 龍浦로 도하하여 침투하였고 약 15분 뒤에는 도하지점에서 약 15km 東쪽에 있는 渭川洞의 제7기병연대 제2대대와 근접전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에 적이 도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단예비대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를 한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명령을 내렸다.

강 西쪽에서 적의 포병과 전차가 도하부대를 엄호하고 있었다. 09.00 쯤 적의 주력부

대가 용포로 도하하려고 得成洞 일대에서 진출하는것을 포착하고 美軍은 이 적에 대하여 공중사격을 하는 동시에 포대에서도 이 지역에다 1,860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적은 도하를 감행하여 일부 병력은 渭川洞 北방의 三狸洞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美軍의 계속적인 집중포격과 공중사격, 제7기병연대 제2대대의 최후저지사격(最後沮止射擊)으로 적 제10사단의 제25, 제27연대는 결정적으로 괴멸(潰滅)되고 말았다.

美 제7기병연대는 3주일 전에 있었던 永同 부근 전투에서는 패전하였지만 이번에는 적병 1,700명 중에서 약 1,500명을 살상하였다. (8월 16일에 그 일대에서 H중대는 267명, G중대에서는 50명의 적군 시체를 각각 매장하였다 한다.)

우리편 피해로서는 G중대에서 2명의 전사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을 뿐이었다.

적의 시체 중에는 2명의 대좌(대령)가 있었고 많은 문서를 노획하였는데 그중 8월 13일부 공문서(公文書)중에는 적 사단장의 훈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金日成 최고사령관은 해방 5주년 기념일인 8월 15일까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명하였다… 우리들은 전노력을 경주하여 洛東江 도하에 성공할 것을 맹서한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번 전투에서 적 제10사단은 약 2,500명을 잃었고, 대부분의 부대가 50% 이상의 전투력을 잃었다고 한다.

(3) 鵲烏山(△303)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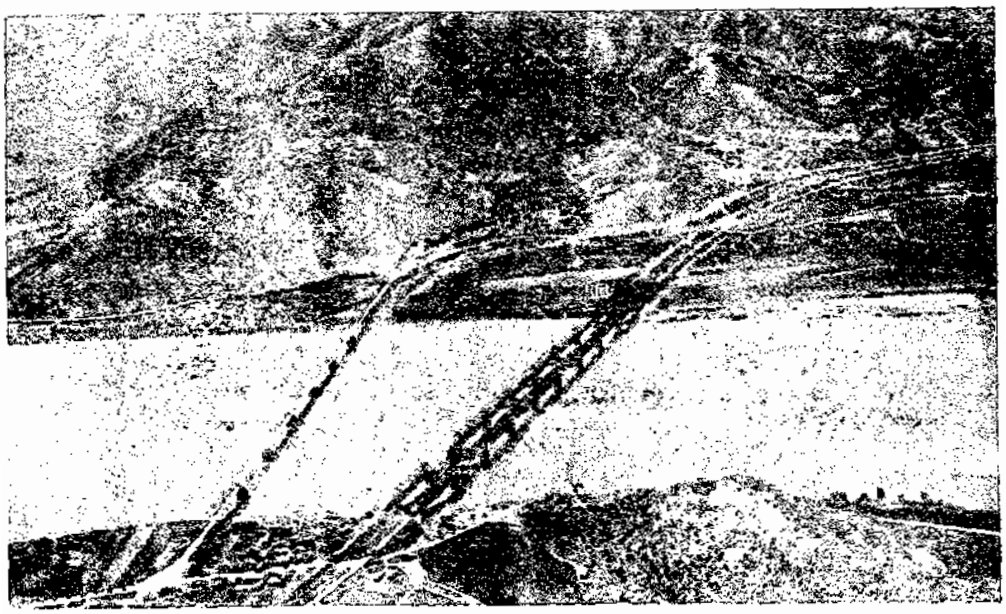
적 제10사단의 도하와 때를 같이하여 倭舘 東北쪽에서도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 倭舘 바로 옆 東北쪽에는 303高地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고지는 美 제8군의 최우측방(最右側方)으로서 美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의 G중대가 담당 확보하고 있었다.

303高地는 倭舘 철교 東北쪽에 위치하고 北東과 南西쪽으로 뻗어 내린($3\times2km^2$) 고지로서 倭舘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고지이다. 이 고지의 남사면(南斜面)은 倭舘 시내를 향하여 경사졌고 西쪽에는 洛東江이 흐르고 南東과 西北으로 달리는 경부철도(京釜鐵道), 大邱로 향하는 국도(國道)와 東北쪽으로는 多富洞에 이르는 도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감제고지(瞰制高地)이며 倭舘 못지않은 요지인 것이다.

며칠동안에 많은 적이 우리 韓國軍 제1사단 정면에서 洛東江을 건너서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8월 14일 : 약 1개연대 병력으로 倭舘 北쪽 약 10km 지점에서 수중가도 (水中假道)를 이용하여 도하한 뒤에 그날 밤으로 美軍과 韓國軍의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 바로 北쪽고



〈倭舘洞와 鵲峙山(△303)〉

지대(高地帶)에서 아군 제1사단을 공격하여 왔다.

8월 15일 : 아침 美 전폭기(戰爆機)는 적의 수중가도를 폭파하였다. 그러자 적의 공격부대는 南쪽으로 공세를 확장하여 303高地의 G중대는 적 약 50명이 2대의 전차 엄호 밑에 강변도로를 따라 남진(南進)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일부 다른 적은 F중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08.30경에는 어느새 G중대와 H중대의 박격포소대가 적에게 포위되고 있었다. 정오(正午) 쯤 되자 적은 303高地의 G중대 진지에 소화기(小火器) 사격을 해왔다.

美 제5기병연대의 B중대는 전차소대 지원밑에 G중대를 구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8월 16일 : 이날도 약 700여명의 적을 303高地에서 격퇴시키려고 공격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美 제61야포대대와 제82야포대대의 B포대는 하루 종일 적진을 포격하였는데 G중대는 밤에 303高地에서 철수하였다.

倭舘의 주민들은 피난하고 없었고 거리와 집들은텅비어 있었다.

8월 17일 : 새벽 제5기병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70전차대대 A중대의 지원밑에 303高地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심한 박격포 사격으로 倭舘 근교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제61야포대대에서는 1,159발의 포탄을 적진에 발사하였고 곧 이어 14.00



〈303高地에서 북괴군에게 학살된 美國병사의 모습〉

에는 공중 공격이 있었다. 전폭기는 네이팜탄과 폭탄, 로켓트탄, 기관총소사로 포병은 포사격으로 적 진지를 강타하였다. 치열한 공중공격과 포사격이 끝난 뒤 15.30에는 보병부대가 공격을 재개하여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16.00경 303高地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산 봉우리에서 E·F중대는 재편성을 하였는데 생존자는 불과 60명이었다. 약 200명의 적의 시체는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고 생존자는 완전히 패주하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303高地를 다시 탈환했을 때 H중대는 26명의 박격포 소대원이 손을 묶인채 다발총으로 사살(射殺)된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때 양쪽 다리와 팔에 다발총을 맞고 중상을 입은 중박격포소대(重迫擊砲小隊)의 소대원이 구출되었다. 그들은 어깨와 손이 공꽁 묶인채 누워 있었다. 맨발로 산길을 걸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몸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떤 병사는 노끈으로 묶여있었고 어떤 병사는 야전 전화선으로 묶여 있었다.

이 무렵 수색소대에서는 2명의 적병을 포로로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美 제5기병연대의 수색소대원들을 학살한 장본인들이었다. 적병이 학살한 진상은 다음과 같다.

8월 15일 : 날이 밝기전에 G중대의 박격포소대는 303高地에 적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美 제5기병연대 수색소대장은 G중대장에게서 韓國軍 60명이 303高地에 지원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할때 전차의 엔진소리가 들려 왔으므로 도로를 내려다보니 전차를 (2대) 선두로 약 200명의 보병이 뒤따르고 있었다. 잠시후 한 경계병이 산 비탈을 올라오는 韓國 군인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수하(誰何)를 하였으

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경계병을 향하여 자동화기로 사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박격포 소대장은 이들을 韓國軍의 지원부대라고 생각하였고 이들을 확인하려고 산비탈을 올라오는 보병들을 주시(注視)하고 있었는데 美軍 병사들은 그들 모자에 붉은 별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적이 美軍 진지에 뛰어 들어오자 美軍들은 총한방 쏘아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적병은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한손에 든 다발총으로는 美軍 병사들의 옆구리를 겨누고 있었다. 적은 美軍 병사들의 무기를 빼앗은 다음 산에서 끌고 내려 갔다. 어떤 과수원에 이르러서는 美軍들의 손을 등뒤로 돌려 묶고 옷과 군화를 약탈했다. 그리고는 잘 순종하면 서울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뒤 8월 17일 치열한 美軍 포격과 공중 폭격이 고지 일대에 가해지자 산 골짜기에 무릎을 꿇고있던 美軍 포로들을 사살하였다. 이때 제임스 앰 라트(James M. Ratt) 상등병은 곁에 있던 전우가 자기 위에 쓰러지는 까닭에 죽엄을 모면한 것이다. 라트 상등병은 팔과 다리에 세발이나 총탄을 맞았으며 죽어 넘어진 전우의 시체 밑으로 파고 들어 갔다. 다른 4명도 같은 방법으로 살아 남았다.

303高地 일대에서 벌어진 북괴군의 잔인한 학살 사건으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8월 20일에 비인도적(非人道的)이고 잔학한 행위를 비난 공격하는 성명을 방송하였고 북괴군 총사령관에 비난전단(非難傳單)을 만들어 적 전선에 살포하였다.

그러자 8월 28일에는 북괴군 제3사단장 李龍錦는 총참모장 金策 및 전방총사령관 姜健이가 서명한 다음과 같은 포로 대우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지금부터 적 포로에 대한 살상을 엄금한다. 투항한 자는 포로로서 취급하고 사상적 정치적 교화에 노력하라. 포로의 취급은 최고사령부가 지시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지시는 즉시 모든 장병에게 이해시킬 것이며 정치적 참모에 의해서 그 수행을 확인 감독하라." 이와 같은 지시는 9월에 노획한 문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4) 倭館 전면의 적진(敵陣) 대폭격(융단 폭격)

倭館 東北쪽 303高地의 우단(右端)을 경계로 하여 그 右측에 전개한 韓國軍 제1사단은 8월 14일 현재 육군본부의 작명(作命)에 의하여 Y선을 다음과 같이 점령하고 있었다. 즉 浦南洞의 270高地, 水岩山(△519), 遊鶴山(△839), 新酒幕(새술막)선에 이르는 20km 정면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날 적의 제3사단, 제15사단, 제13사단은 아군 제1사단 정면에서 각각 중앙돌파(中央突破)를 기도하게 되었다. 즉 적은 美 제1기병사단의 우단(右端)인 303高地와 아군 제1

사단의 좌일선(左一線)인 제15연대 정면에 적군 제3사단의 주력이 洛東江을 건너서 압력을 가하여 왔다.

美 제8군사령부의 정보처에서는 倭館 西北쪽 부근에 적 3개사단과 105기갑사단이 집결하고 있으며 그 병력은 40,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아군 제1사단 제12연대 정보과에서도 수색대의 보고를 통하여 연대 정면에 2개사단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대장을 통하여 白善燁 사단장에게 보고(報告) 하였으며 사단장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정찰 확인한 뒤에 적정(敵情)을 육본(陸本)에 보고하게 되었다.

美 제1기병사단과 우리 제1사단의 정보 보고를 받은 美 제8군으로서는 전전선(全戰線)에서의 적의 공세로 倭館 정면의 적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 대비책이 긴색하게 되었다. 이때 작전처에서 착상(着想)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Normandy) 상륙작전에서 쌩·로(Saint Lo) 지구에 감행한 융단(絨緞) 폭격이 생각나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건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극동공군 사령관을 불러서 적의 집결지를 폭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폭격을 위하여 8월 14일에 개최된 작전회의 석상에서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과 협의하고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의하였다.

① 시각폭격(視覺爆擊)을 할수 있는 충분한 고도의 필요성

② 목표지역의 최대면적을 5×8km²로 한 것.

③ 美 제8군전선과 폭격선을 평행(平行) 시킬 것.

④ 강 폭격선을 명확히 한정(限定)한 지형도를 준비할 것.

⑤ 목표지역내에 최소한 2개~3개사단의 적이 집결되어 있을 것.

⑥ 가급적이면 적이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일 것.

UN군 총사령부는 위의 요청을 신중히 고려하여 목표지역을 선정한 다음 이것을 극동공군에 통고 하였는데 이 지역은 美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倭館 맞은편 洛東江의 西쪽 제방(堤防)과 평행한 5.6×12km의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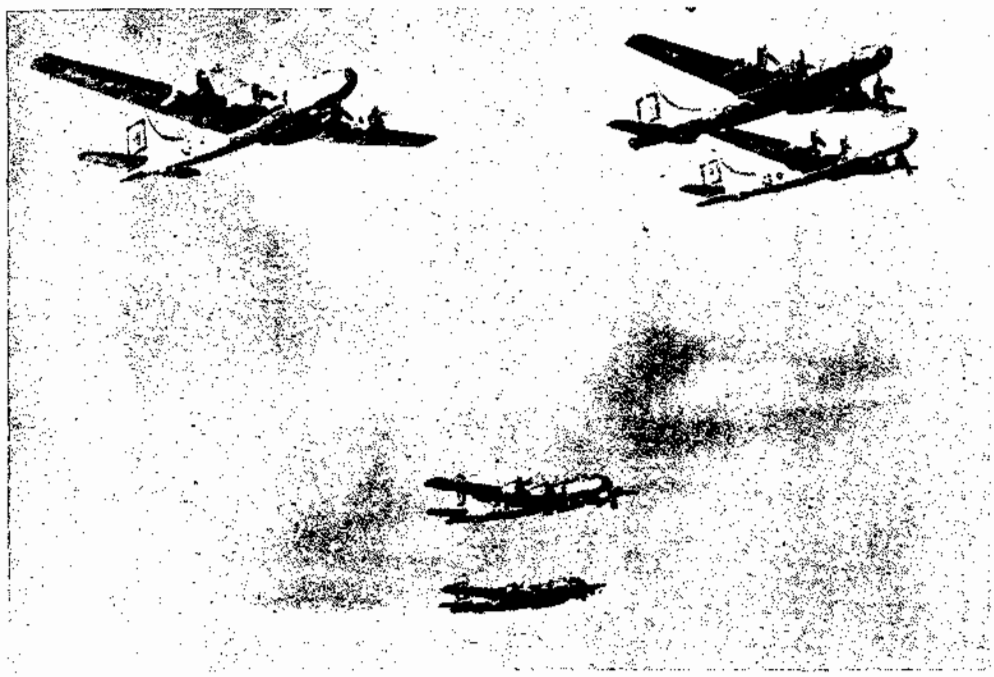
美 제1기병사단장은 적이 이미 도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洛東江과 倭館一多富洞간, 즉 倭館 東北部 일대를 폭격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측에 피해가 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하(却下)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단장은 연막탄과 연락기로서 폭격을 유도하겠다고 재삼(再三) 제안하였으나 西쪽 강기슭에 대한 폭격 결과를 본 다음에 보자

고 하였다.

극동 공군에서는 기상조건이 시각폭격을 허용한다면 8월 16일에 5개전대를 동원하여 목표지역을 폭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오돈넬(O'Donnell) 폭격사령관은 67.2km²(3.5×7.5km) 지역에 중폭격기(中爆擊機) 12개 전대로 집중폭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다만 심리적인 효과 만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美극동 공군은 8월 16일에 있을 폭격을 위하여 日本과 오끼나와(沖繩)에 있는 폭격전대에 대하여 출격일무를 하달하였다.

목표 지역은 12개구역으로 분할되어 1개 비행전대에 1개 구역이 배당되었다. 제19, 22, 92, 98, 307, 전대의 B-29 폭격기 98대가 16일 11.58에 목표지역 상공에 도달하



〈융단 폭격지역을 향하여 비행중인 B-29의 융자〉

고 후미(後尾)가 12.24에 통과 완료하면서 250kg 폭탄 3,084개와 500kg의 고성능 폭탄 150개를 투하하였다. 도합 960톤이었다.

폭격이 끝난 다음 폭격 사령관은 폭격 성과를 확인하려고 2시간 이상이나 목표지역 상공을 선회 하였으나 폭격 뒤에 일어난 짙은 연기로 말미암아 전과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오돈넬(O' Donnell) 폭격사령관은 목표 지역이 너무나 광범하므로 협소한 지역을 폭격한 것과 같은 폭격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美 제5공군사

령관(파트릿지(Earle E. Partridge)소장)은 이번 폭격을 통하여서 지상군 지휘관들이 공군은 만능이 아니고 공군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군 제1사단 제12연대의 수색대 보고에 의하면 방어 정면에서 상당한 피해(수백명)를 확인 하였다고 한다.

8월 17일 : 워커 사령관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에게 16일의 폭격성과는 현재로서는 불명(不明)하다고 보고하였다. 폭격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상 정찰대를 침투 시켰으나 목표 지역에 이르지 못하였고 美 제1기병사단의 정찰대도 도하 하려다가 적의 사격 때문에 저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뒤에 잡힌 포로의 말에 의하면 폭격 당시에 적은 이미 강 東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오쿄오(東京) 사령부의 정보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폭격이 있은뒤 아 제1사단과 美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적의 포사격이 현저히 감소되었던 것이다.

§. 교 훈

워커(Walker)사령관, 파트릿지(Partridge)사령관, 오돈넬(O' Donnell)사령관은 정확한 적의 집결이 보고되지 않은 한 적의 전술 부대에 대한 폭격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여 美 극동 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와 건의로 8월 19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洛東江 東部에 대한 제2차폭격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취소하게 되었다.

(5) 多富洞 新酒幕 전투(Bowlling Alley 전투 50.8.18~8.25)

아 군	
제27연대 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Chow)
	배속부대
제1대대 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8포병대대
제2대대 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7포병대대
제3대대 장 중령 데코우(George. H. De-	제73전차대대 C중대

적 군	
북괴군 제13사단 장 소장 崔鏞鎭	제23연대 장 대좌 太炳烈
제19연대 장 대좌 金炳喆	병력 약 9,000명
제21연대 장 대좌 李成俊	장비 전차 14대(T-34)

美 제24사단이 洛東江 돌출부에서 적 제4사단을 격퇴시켰을때 倭舘 東北部의 적 3개사단의 공격은 美 제8군으로서는 새로운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8월 14일 : 美 제8군은 제25사단의 제27연대를 美 제24사단 배속에서 해제하고 15일에는 군 예비대(軍 豫備隊)로서 慶山에 집결토록 하였고 16일에는 집결 완료하였다.

아군 제1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적 1개연대가 6대의 전차 지원을 받으며 多富洞 北쪽 3km지점인 金華洞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7일 낮에 美 제8군은 제27연대장(마이켈리스(Michaelis) 대령)에게 지체없이 증강된 1개대대를 大邱 北쪽에 전입(進入)시켜 적을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美 제27연대 제1대대는 중박격포(重迫擊砲) 1개소대와 B포대를 제외한 제8포병대대의 배속을 받아 17일 저녁에 大邱 北쪽 10km 지점인(아군 제1사단의 지휘소가 있는 지점) 漆谷에 도착하였다. 한편 연대의 주력은 이날 어두워진 뒤 제73전차대대의 C중대가 배속되자 이동을 시작하여 多富洞으로 향하였다. 美 제8군에서는 제27연대에 제37포병대대를 배속시켜 18일에 합세하였다.

적 제13사단은 17일 遊鶴山에서 아군 제1사단 제11연대, 제12연대와 교전하였는데 이날 전투에서 1,50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것을 후일(後日) 귀순한 포병연대장의 진술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

8월 18일 : 막대한 손실을 본 적의 제13사단은 多富洞 北쪽에 집결하고 그대신 제15사단으 遊鶴山에 투입되었다. 이날 북괴군 전선사령부는 제15사단장에게 제8사단과 협동하여 永川으로 전진(轉進)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적의 제15사단은 전구(戰區)를 다시 제13사단에게 인계하고 8월 20일에 遊鶴山을 떠났고 적의 제13사단의 東편에 있던 적 제1사단을 軍威에서 진출시켜 多富洞 계곡에서 大邱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케 하였다.

적 제13사단은 전차 14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기간중에 가장 많은 전차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8월 15일경에 제105기갑사단은 신형 T-34전차 21대의 새로운 보충과 200명의 교체인원을 받고 있었다 한다.

(가) 美 제27연대의 공격

美 제27연대는 18일날 多富洞 北쪽 6km 지점의 石隅洞을 탈환하라는 공격명령을 美 제8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

이 공격에는 아군 제1사단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도로 양편 고지에 대하여 먼저 공격



〈韓國전선에서 빛나는 공을 세운바 있는 당시 美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

을 시작하였고 美 제27연대는 그 중앙의 계곡도로(溪谷道路)를 따라서 전진하게 되었는데 美 제73전차대대의 C중대와 제37포병대대의 2개포대가 제27연대를 지원하였다.

제1대대는 길 左측을, 길 右측은 제2대대가 전개하여 전차를 선도(先導)로 13.00에 多富洞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전차와 보병은 협동하여 적의 전초부대(前哨部隊)를 격파하고 저항이 없는 가운데 한 시간을 전진하였다. 이때 美 제27연대장은 아군의 공격이 돈좌(頓挫)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즉시 공격부대로 하여금 현재 진출하고 있는 新酒幕에서 정지하고 사주(四周) 방어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여 C중대는 길 左측 가장 높은 고지에, A중대는 C중대의 후방능선(後方稜線)에 각각 배치되었으며 B중대는 A중대 右측에서 개울을 횡단하고 있었다. 제2대대의 E중대는 길 右측에 F중대는 E중대의 전측에 그리고 G중대는 F중대의 후방 능선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리하여 2개대대는 4개중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노출된 양측방에는 각각 1개중대를 배치하였다. 또 전차소대는 길위에 2대, 냇가에 2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4대는 예비로 후방에 위치시켰다. 이때 我軍 제1사단은 제27연대의 양측방 고지 일대에 배치되고 있었다.

美 제27연대 정면의 大邱—尙州 가도(街道)에는 포플라가 길 左右에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고 하천(河川)은 이에 평행하여 흐르고 있었다. 진지에서 전방으로 펼친 검은 얼마 안가서 구부러져 있었다. (이곳이 뒤에 球戲場=Bowling Alley로 호칭된 곳이다.) 여기서 東北쪽으로 약 1.5km 떨어진 新酒幕(새술막)은 尙州와 軍威로 갈라지는 도로(道路) 분기점을 이루고 있었고 尙州도로는 西北쪽으로 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적의 전차는 바로 이 新酒幕이라는 조그마한 촌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美軍 전차의 직접조준사격을 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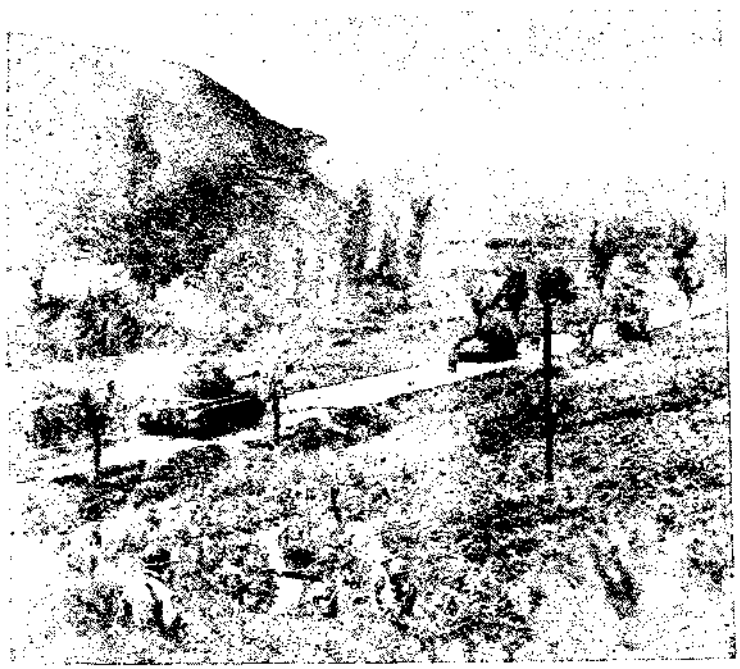
多富洞 西北쪽에 있는 遊鶴山은 그 높이가 해발(海拔) 839m이고 東南쪽에 있는 架山은 902m의 높은 고지이다. 이 고지 일대는 南쪽으로 大邱분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중요 감제고지인 것이다. 이 산악지대 北東쪽의 軍威도로와 西北쪽의 尙州도로는 新酒幕에서 합류하여 遊鶴山과 架山 사이를 뚫고 多富洞을 거쳐서 大邱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나) 7회에 걸친 新酒幕(球戲場=Bowlling Alley) 야간(夜間) 전투

8월 18일 :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적은 美 제27연대의 2개 대대 진지에 야포와 박격포 공격 준비사격을 한뒤에 新酒幕에서 적의 전차 2대와 자주포 1대가 나타나서 F중대 진지에 사격을 하면서 전진하여 왔다. 적이 일정한 목표없이 난사(亂射)하는 것으로 보아 美軍 진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적의 전차가 F중대 진지에 접근하였을때 두번째 전차는 3.5인치 로케트포에 의하여 파괴 되었으나 선두 전차는 2발이나 명중 하였는데도 파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차병들은 황급히 차속에서 뛰어나와 전차를 버리고 도주하고 말았다.

이때 우리 포병대는 적의 자주포(自走砲)와 트럭 2대를 격파하고 1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을 살상 하였는데 포병 전방관측장교는 진전(陣前) 50m까지 접근해 온 적 자주포에 포사격을 유도하여 파괴시키고 말았다. 북괴의 전차 3대가 다시 남진하여 왔으나 우리측의 사격을 받고서는 황급히 라이트를 끄고 후퇴하였다.

2시간 후에 또다시 적은 공격해 왔다. 1차때 보다는 공격력이 약하였으나 역시 야포와



〈퍼어싱(Pershing)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C중대〉

박격포 사격으로 용이하게 격퇴시키고 말았다. 적은 이 야간(夜間)공격에서 많은 신호탄을 사용하였는데 녹색(綠色) 신호탄은 공격 신호라는 것을 美軍은 곧 알게 되었다. 美軍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녹색신호탄을 몇번 발사하여 적의 공격부대를 혼란케 하였다. 또 좁은 계곡에 묻어 놓은 지뢰는 적에게 큰 장애가 되었다. 즉 선두에서 공격해오던 전차가 지뢰 때문에 정지하면 적의 보병들은 이 지뢰를 제거하려 하였고 그러면 美軍은 조명탄을 발사하여 야포와 박격포의 집중사격으로 적을 괴롭히곤 하였다.

8월 19일 : 아침 아 제1사단의 제11연대는 수청골의 右측 고지를 다시 탈환 하였다. 워커(Walker)중장은 아 제10연대에서 1개 대대를 차출하여 아 제1사단과 제6사단의 간격을 메꾸게 하였다. 오후에는 美 제27연대를 지원하였는데 제8 및 제37포병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美 제2사단의 제23연대에게 사주방어 진지를 편성하라고 명령하였다.

8월 20일 : 美軍 전투기가 날아와서 적진을 강타 하였을 뿐 지상부대는 별다른 상황도 없이 평온하게 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 상태가 그날 밤까지 계속 되지는 못하였다. 17.00경에 중화기중대(重火器中隊) 지역에 적의 120mm 박격포탄이 집중적으로 떨어졌다. 좁은 계곡에 달빛이 비쳐오자 길가에 숨어있는 적의 전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적의 포사격은 그들의 보병이 전진함에 따라서 더욱 전방으로 연신(延伸)되었다. 하지만 美軍들은 이 적을 진전(陣前) 150~200m까지 접근시킨 다음 협조된 화력으로서 일제히 사격하여 적의 공격 부대를 무난히 격퇴시켰다.

8월 21일 : 아침에는 美軍 정찰대가 3대의 전차와 보병 2개 소대로 편성된 적진을 향하여 도로를 북진(北進)하고 있었다. 이 정찰대의 임무는 적정을 탐지하고 동시에 적의 손실을 확인하는데 있었다. 정찰대가 전진함에 따라서 군데군데 백기(白旗)가 발견 되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적병들은 투항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약 1.5km 가량 전진하였을 때 소수의 적과 만나 교전하였고 이때 몇발의 포사격도 받았으나 피해는 입지 않았다. 정찰대는 길가에 쓰러진 적군의 전차에 수류탄을 집어 넣어 완전히 파괴하였다. 또 전진도중에 적의 45mm 대전차포 1문과 120mm 박격포 1문, 자주포 2대와 수많은 적 시체를 발견하였으며 멀리 떨어진 泉坪 국민학교 운동장에도 파괴된 적의 전차 1대를 보았다고 한다.

이날 20.00에 제27연대는 전방의 개울 둑과 길가에 대인(對人) 및 대전차(對戰車) 지뢰를 묻어 놓고 부비 트랩(booby trap)지대를 만들었다.

8월 21일 밤에 적 제13사단은 美 제27연대 진지와 아군에 대하여 전면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밑에 최전방에 나가있던 C중대를 먼저 공격하였다. C중대장은 적군의 전차 소음(騷音)이 들린다고 보고하고 조명탄 발사를 요구하였다. 그 뒤 19대의 적의 차량이 남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의 전차와 자주포는 사격을 하면서 닥아왔고 보병 부대는 도로 양편에 줄지어 오고 있었다. 이때 고지에 있던 아군도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美軍 야포와 박격포는 포격을 시작 하였고 적의 전차와 보병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 적병들은(보병) 지뢰지대 부근에 도착하자마자 일제히 기관총을 난사하였다. 美軍 전차는 적의 전차가 가까히 접근할때까지 사격을 하지않고 있다가 약 125m 거리에서 선두 전차를 격파하였다. 또 F중대의 3.5인치 로케트포는 세번째에 있던 자주포(自走砲)를 사격하여 파괴하였다. 두번 째 전차는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전차병들은 전차를 버리고 퇴각하고 말았다. 이날 밤 싸움은 다섯 시간만에 끝났다. 美軍은 이 싸움에서 전차 7대, 자주포 3대, 그리고 차량 여러대를 격파하고 많은 인원을 살상하였다. 美軍 포병은 105mm 포탄 1,661발, 4.2인치 박격포탄 902발, 81mm 박격포탄 1,200발을 발사하였으며 F중대의 60mm 박격포탄만 해도 385발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8월 22일 : 날이 밝은 다음 정찰대는 11명의 적을 사로 잡았다. 생포한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적은 1,300여명의 시체를 이 계곡에 유기하였으며 겨우 4분의 1 병력만이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

美 제27연대의 F중대원은 8월 21일의 이 야간(夜間)전투를 Bowlling Alley 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이 전투에서 밤새도록 발사한 양쪽의 전차철갑탄의 불덩어리 화구(火球)가 마치 보우링의 스트라이크(strike) 장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21일 밤의 야간전투 중에 적의 제1사단 제1연대의 일부 병력은 美 제27연대의 東쪽으로 우회침투(迂廻浸透)하여 22일 낮에는 大邱에서 불과(不過)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대 후방 지역에 나타나서 연대의 후방 보급소를 위협하였다.

이때 美 제27연대장은 左측방의 아군 제1사단이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였기 때문에 적이 1,000명이나 침투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공중 지원을 요청하였다.

美 제27연대와 그 지원 부대는 언제나 길가에 따른 정면에서 싸웠고 아군 제1사단은 험준한 고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서로 통신 연락이 잘 유지되지 못하였다. 통신 연락이 안 되자 美 제27연대장은 아군이 철수하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방어 진지를 지탱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아 제1사단은 大邱 방어를 위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비록 美軍 포병이 지원하였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높은 지대에서 벅찬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아 제1사단장(白善燁 준장)은 美 제27연대장이 韓國軍 제1사단은 전의(戰意)가 없어서 싸우지도 않고 철수하였다고 보고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美 제8군사령부에 항의를 하였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糾明)하기 위하여 8군 작전참모와 그의 보좌관과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아 제1사단의 연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아 제12연대는 고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따라서 제27연대장의 보고가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2일 美 제27연대의 후방에서 포병 부대를 경비하고 있던 美 제23연대 제2대대가 전방 진지를 돌파한 적 제1사단의 공격을 받자 연대장은 적이 16.40에 美 제27연대와 23연대의 사이를 뚫고 침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6.05에는 적의 포탄이 美 제8포병대대 본부에 떨어졌고 16,30에는 장교 4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각 부대는 재빨리 대대 사격통제를 인수(引受)하고 대대본부가 이동하는 동안 지원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美軍의 전폭기와 B-26 폭격기가 길 東쪽 측방을 폭격하였다.)

이날 밤 (22일) 워커 사령관은 보급로 일대의 적을 소탕하고 주요 감제고지를 빼앗은 美軍 제23연대(1개대대 缺)를 美 제1기병사단에서 배속을 해제하였다.

이날 아침 10.00 쯤의 일이었다. 적 제13사단을 지원하고 있던 포병 연대장이 단신으로 多富洞 北쪽 5km 지점에서 아 제1사단(제11연대 제2대대)에 귀순해 왔다. 한손에는 백기(白旗)를 들고 허리에는 작은 가방을 차고 있었다. 그 가방 속에는 지도와 작전서류가 들어 있었다. 적 제13사단장은 그에게 多富洞 포격의 실패를 추궁하였다. 이 책임추궁이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귀순을 결심하고 항복해 왔던 것이다. 그는 귀순한 뒤에 적의 정확한 포 위치를 지도로 설명하였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遊鶯山 北쪽 계곡의 과수원에 위장한 122mm곡사포 7문과 76mm포 13문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에 의하여 8군은 즉각 전폭기로 과수원을 폭격하고 포병도 집중사격으로 포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8월 23일 : 정오(正午)에는 美 제27연대 K중대와 제65야전공병대대 C중대 제1소대 진지에 적 1개중대가 침투 공격하여 왔으나 50여명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고 말았다.

한편 美 제23연대 제2대대는 포진지를 경계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친 적의 야간공격을 격퇴시켰고 하루 종일 후방지역의 잔적(殘敵)을 소탕하였다.

24일 한밤 중에 몇대의 전차 지원을 받은 적 약 2개 중대가 공격을 재개하여 왔다. 그러나 제27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고 전차 2대는 포격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18일 부터 25일까지 사이에 적의 손실은 전차 13대, 자주포 15대, 차량 23대가 파괴되었던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大邱 北쪽의 위기가 사라지자 美 제8군 사령관은 8월 24일 Bowling Alley(일명 球戲場) 일대의 방어 책임을 韓國軍 제1사단에 위임하고 美 제27연대는 제25사단으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美 제2사단의 제23연대는 잔류)

이 원대복귀 명령에 의하여 제27연대와 아군 제1사단과의 진지교대는 25일 18.00부터 시작하여 26일 03.45에 완료하였다.

잔류(殘留)하게 된 제23연대는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불과 며칠 전에 교대한 바 있는 제38연대의 제3대대와 다시 진지를 교대하고 8월 31일에는 새로운 지역을 방어 하여야 되었고 9월 1일에는 日峯一帶山도로 北쪽에서 고전(苦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한편 美 제27연대는 26일에 진지교대를 완료한 뒤 8월 30일에는 다시 美 제8군 사령부의 이동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8월 31일 08.00에 병력은 트럭으로 차량은 육로로 출발하여 31일 밤 20.30까지 美 제25사단 사령부가 있는 馬山에 이동 완료하였다.

당시 美 제25사단은 1950년 8월의 작전 중에서 가장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馬山 西북과 南西북에서의 치열한 산악(山岳) 전투이었던 戰鬪山(△661)과 西北山(△739) 중앙부의 방어선을 잘 막아내고 있었다.

2. 昌寧·靈山附近戰鬪 (50년 8월 5일 부터 50년 8월 18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8,9호

가. 참전 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美제24사단 장 준장 처치(John H. Church)
포병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19연대 장 대령 무어(Ned D. Moore)
제 1 대대 장 중령 리아(R. L. Rhea)
제 2 대대 장 중령 맥그레인(McGrail)
제 3 대대 장 미상
제21연대 장 대령 스티픈스(Stephens)
제 1 대대 장 중령 스미스 (Charles B. Smith)
제 2 대대 장 중령 피어리즈(Gines Perez)
제 3 대대 장 중령 센슨(Carl C. Jensen)
제34연대 장 대령 비우챔프(Charles Beauchamp)
제1대대 장 중령 아이리스(Harold B. Ayres)

제2대대 장 미상
제3대대 장 대령 피어리즈(Gines Perez)

배속부대

제1해병여단 장 준장 크레이그(Edward A. Craig)
제5해병연대 장 중령 머레이(Raymond L. Murray)
제1대대 장 중령 뉴톤(George R.Newton)
제2대대 장 중령 로이스(Harold S.Roise)
제3대대장 중령 타프렛트(Robert Taplett)
제9연대전투단 장 미상

병력 약 8,000명
장비 105mm 17문
155mm 12문

적 군

북괴군
제 4 사단장 소장 李 權 武
제16연대장 대좌 崔 仁 德

제17연대장 대좌 金 寬 大
제18연대장 미상
병력 약 7,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 美 제24사단의 배비(配備)

洛東江 방어선의 형성에 따라 美 제24사단은 洛東江과 南江의 합류점에서 北으로 洛東江을 따라 玄風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정면은 직선거리로 약 37km 하천거리로는 60km에 달한다.

7월말 山淸里 지구에서 지연전을 하면서 제34연대는 8월 2일 鷲山으로 빠지고 제21연대는 昌寧지구로 아(我) 제17연대는 작전상 美 제24사단에 배속 美 제21연대의 도하를 엄호하고 8월 3일 06.30에는 마지막으로 도하를 완료하여 玄風지구에 배치되었다. 한편 제19연대는 8월3일 제24사단본부가 있는 昌寧에 도착하여 재편성에 들어갔다. 이 제19연대는 美 제25사단에 배속되어 馬山-晋州간 도로에서 방어전을 하다가 美 제25사단의 제35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제35연대는 본대(제25사단)의 예비대가 되었다.

美 제24사단은 大田 전투 이래의 손실로 병력이 불충분하였으나 병력 보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대는 2개 대대편성 그대로였고(출전 당시부터 3개 대대로 되어 있는 편제상의 편성이 아님) 따라서 이때 대대병력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실제 연대병력은 약 1,000명정도 밖에 안 되었다.

이밖에 전차가 배속되었고 사단포병은 105mm 17문, 155mm 12문으로서 사단의 전투력은 약 40%에 불과하였다.

(2) 사단장의 방어구상

南旨에서 玄風간의 洛東江은 西部로 돌날 모양을 이루면서 돌출(突出)되어 있기 때문에 洛東江 돌출부라고 부르고 있다. 이 지역의 하폭(河幅)은 300m~1,000m이나 유수면(流水面)은 200m~500m이고 깊이는 2~4m가 평상수위이다.

美 제24사단과 제25사단과의 전투지경선상에는 南旨 교량이 있을 뿐이고 도로는 南旨—鷲山—昌寧—玄風—大邱에 이르는 간선도로와 鷲山에서 密陽과 三浪津에 이르는 도로는 겨우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딘(Dean) 소장의 실종(大田川 西쪽 山 남월동 부근에서 7.21 실종)에 뒤이어 제24사단을 지휘하게 된 처치(Church) 소장은 방어지형을 분석한 결과 적이 현재 陜川 방면에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주공은 昌寧 정면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 내에는 많은 도섭장(渡涉場)이 산재해 있었고 昌寧 정면의 지형이 南쪽 鷲山 정면보다는 비교적 공격에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적은 제24사단의 전투력이 약화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24사단의 방어준비가 이루어지기전

에 기선(機先)을 제(制)하여 공격을 기도하겠지만 그들의 도하장비가 없는 점으로 보아 8월 중순경에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처치(Church) 사단장은 판단하게 되었다.

주민의 소개조치 : 사단장 자신이나 美 제24사단은 서전(緖戰)이래로 전투지역내에서 주민과 피난민들로 말미암아 작전에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난민 대열속에 끼어 침투한 적의 게릴라(guerrilla) 들에게 후방을 교란 당하는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많았던 것이다.

7월 26일 美 제24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한 처치(Church) 소장은 앞으로 작전지역이 될 洛東江 연안 주민(靈山—昌寧 도로에서 西쪽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퇴거조치를 韓國軍 당국에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현지에 장교를 급파하여 지방 행정부서의 협력밑에 포고문을 발포하고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靈山—昌寧선 東쪽으로 퇴거하도록 하였다. 포고령은 강력한 조치로서 포고에 불응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看做)하고 총살에 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퇴거령이 나기전 7월 중순부터 지역내의 중요고지에 진지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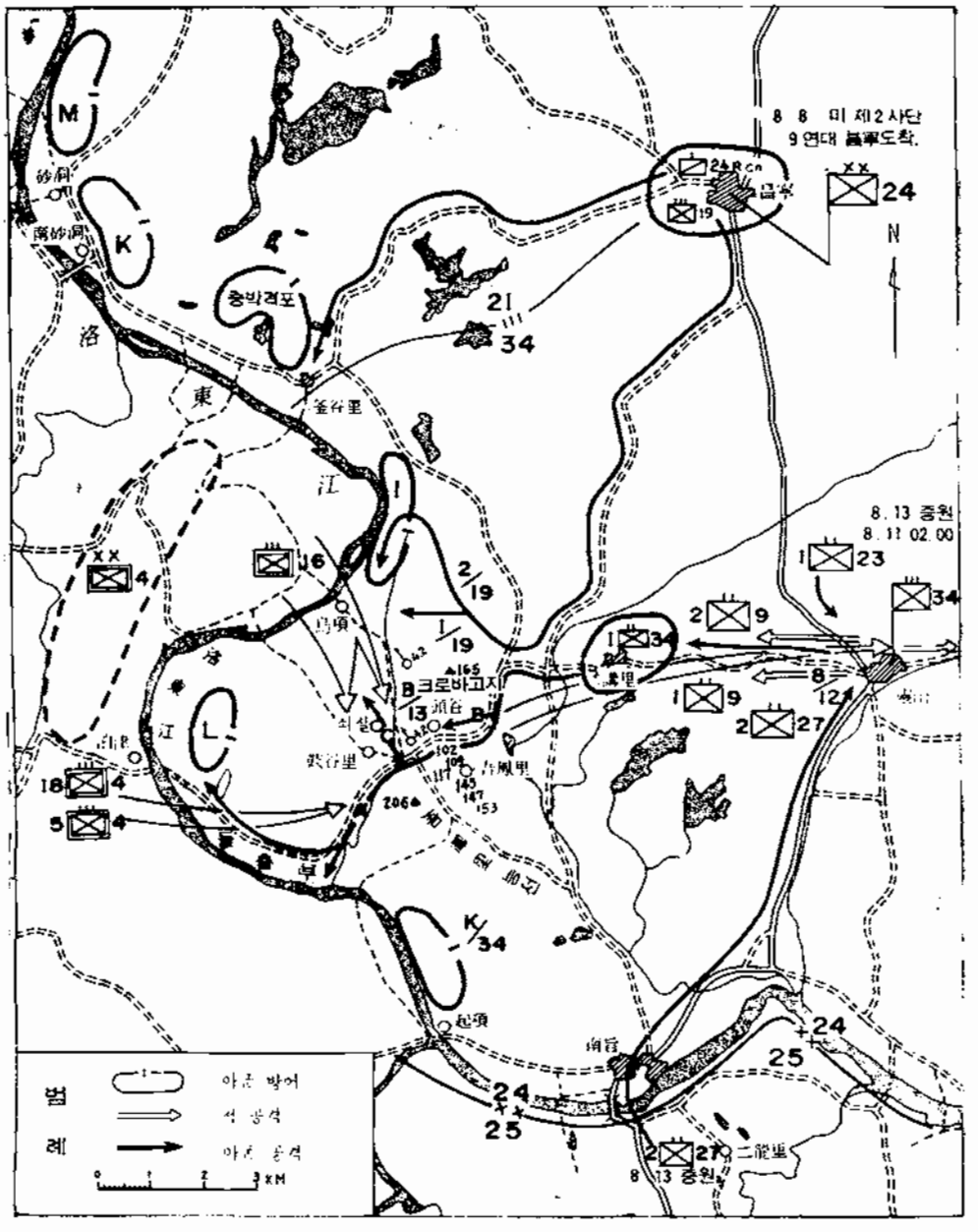
피난민에 대한 문제는 처치(Church) 사단장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었는데 즉 북쪽 방면에서 피난민들이 洛東江 東部지역으로 도하하려고 약 10만명이 몰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작전지역으로 받아 들이게 되면 적의 게릴라(guerrilla)를 침투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치(Church) 사단장은 강력하게 이들을 저지시켜 洛東江 도하를 허용치 않았다.

처치(Church) 사단장의 불퇴(不退) 훈시 : 美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강력한 사수(死守) 훈시를 처치(Church) 사단장은 좀더 부드럽게 전 장병들에게 하달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불퇴 훈시였다.



〈美 제24사단장의 소개 조치에 따라 피난 나온 한국 자유민의 모습〉

상황도 제8호 美 제24사단 靈山부근전투(8.5~15)



"방어를 함에 있어서 도로와 하천에 대한 경계를 엄중히 하고 통신을 완비하여야 한다. 각자는 자기의 임무를 숙지(熟知)하고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 각자가 부하된 준비를 하고 있다면 후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싸우면 된다. 각자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화기와 탄약 그리고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없다면 자기를 수호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있어도 호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받았던 것이다"

적의 4개 공격방향(적의 작전지도) : 적은 釜山으로 침공하기 위한 가능한 4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① 南江과 洛東江의 합류점 東쪽에서 馬山을 통과하는 방법.

② 洛東江 돌출부를 통과하여 密陽에서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③ 大邱를 통과하는 방법.

④ 慶州를 지나 동해안의 도로를 따라 전진하는 방법.

8월이 되자 적은 이 4개방안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느 한곳에서 성공하리라는 승산에서였다.

지세(地勢) : 洛東江은 우리에게는 잇점이 많지만 적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洛東江은 방어선의 4분의3을 둘러싼 큰 해자(垓子)를 형성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물굽이를 이루어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하천바닥의 여러곳에 삼각주가 나타난다. 강가의 주변에는 고지가 접해있고 고지 사이에는 계곡마다 논이 펼쳐져 있다. 大邱에서 東쪽으로 洛東江 하류까지 인접한 고지는 대개 그 높이가 400m 정도이고 강에서 5~8km 떨어진 곳이면 800m에 이른다. 강 西쪽에 인접한 고지는 대개 700m 이상이며 東쪽보다 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大邱 北쪽 倭館에서 安東에 이르는 반원형(半圓形)의 강 北쪽의 고지들은 약 700~1,000m로서 보다 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洛東江을 연(沿)하여 형성된 洛東江 방어선은 강과 도로 그리고 중요한 고지와 고지를 연결한 거점진지로 형성되어 있다. 고지는 주간에는 관측소로서, 야간에는 청음초(聽音哨)나 전초선으로 운용도 하였는데 이들 고지에는 주간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병력은 분대 병력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곳에 배치된 병사들은 진지내의 전투보다도 오히려 적진을 수집하고 관측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주간에는 켓차로 강에 연(沿)한 도로를 순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선은 취약(脆弱)하기 짝이 없었다. 다만 강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 예비대만은 어떠한 적의 도하공세에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야포와 박격포는 하천후방의 진지에 위치하여 나룻터나 예상 도하지점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보병과 포병은 같이 배치되어 빈약한 도로망을 통제하고 감제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적이 지체없이 洛東江을 도하하여 釜山 방면으로 공격을 기도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연되면 적은 그만큼 희생을 입게 된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美軍의 병원(兵員), 전차, 야포 및 비행기는 더욱 증강을 받기 때문이다.

洛東江 돌출부 : 洛東江이 東으로 굽어져 南江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北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洛東江은 靈山 맞은 편에서 西쪽으로 굽어 넓은 반원형(半圓形)을 그리는데 이는 마치 여자의

유방과 같아서 이 돌출지역을 美軍에서는 洛東江 돌출부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8월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격전이 벌어졌다.

(3) 美軍의 병력배치

美 제24사단은 南江과 洛東江의 합류지점에서 北으로 약 37km에 걸쳐서 제34연대는 洛東江 돌출부의 雉山 西쪽을, 제21연대는 北쪽인, 昌寧 西쪽을 그리고 韓國軍 제17연대가 그 北쪽으로 선제 배치되고 있었다.

제34연대 제3대대는 연대 정면의 하천선(河川線)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는 雉山 남쪽의 강에서 후방으로 약 6km 떨어진곳에 예비대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제3대대의 전투 정면은 약 15km에 달하고 있었다.

美 육군의 방어전술에 의하면 통상 완전한 병력을 갖춘 1개사단의 전투정면은 10km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하여 볼때 대대가 사단 방어정면 이상의 방어 정면을 담당한다는 것은 방어자체가 너무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대대의 3개소총중대는 洛東江을 내려다보는 고지위에 北에서 南으로 I중대, L중대, K중대의 순으로 배치되었다. I중대와 L중대간에는 약 4km, L중대와 K중대간에는 6km 가량의 간격이 가각 있었다. 돌출부의 西쪽에서 洛東江은 큰 물굽이를 이루고 이 江을 따라서 적어도 6개소의 나룻터가 있었다.

연대 정면의 고지는 좁은 계곡에서 160~200m의 높이로 솟아 있었고 계곡으로 심한 경사를 이룬 곳도 있었다. 15km에 이르는 연대 정면에는 江에서 고지로 침하는 어구를 형성하는 2개의 계곡이있었고 北쪽 어구가 鳥項 나룻터에 연(沿)해있었으며 이 나룻터가 I중대 L중대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지역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천연적인 어구는 돌출부에 있는 新堤 나룻터이다.

제3대대를 지원하는 4.2 인치 박격포는 鳥項 나룻터에서 2km 후방에 위치하였고 제3대대 지휘소는 東南쪽으로 800m 떨어진 죄실 부락에 있었다. 美國서 도착한 지 얼마 되지않은 페이리즈(Gines Perez) 중령이 제3대대를 지휘하였고 비우챔프(Beauchamp) 대령의 연대 지휘소는 雉山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적 제4사단의 洛東江 돌출부 침공

8월 5일: 적은洛東江 방어선이 형성 된 뒤 비로소 3개소에서 洛東江을 도하하여 공세로 나섰다. 한곳은 바로 美 제24사단의 雉山 맞은편의 洛東江 돌출부이고, 두곳은 倭館 北쪽의 韓國軍 제1사단과 제6사단 정면에서였다. 이 도하지점은(洛東江 돌출부) 적 제4사단이 UN軍의 洛東江 교두보를 위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성을 지닌 곳이었다.

적 제4사단장은 李健武 였다. 이 사단은 남침할 때 서울 침공의 주공(主攻)부대로서 활약하였기 때문에 서울을 점령한 뒤에는 서울사단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이다. 이 사단은 8월 4일에 예하 3개연대를 陜川 근교에 집결시키고 맞은편 洛東江 東쪽에 위치한 美軍의 방어진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선사령부의 명에 의하여 드디어 8월 5일 공격해 왔던 것이다. 그후 포로가 된 한 괴뢰군장교의 말에 의하면 당시 각 연대의 병력은 1,500명 정도로서 사단의 총 병력은 7,000여명이었다고 한다.

美 제24사단장은 방어정면의 北쪽인 제21연대지역이 빈약한 도로망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곳에 방어력을 증강하였었다. 그러나 적은 처치(Church) 사단장의 예상을 뒤엎고 美 제34연대 정면에서 공격을 해왔던 것이다. 설사 예상하였다 하여도 적의 공격은 너무나 신속한 공격이었다.

8월 5일 : 자정(子正), 적이 발사한 조명탄이 洛東江 상공에서 폭발하자 적 제16연대 제3대대(약 800여명)는 이를 신호로 하여 일제히 도하를 시작하였다. 적의 대부분은 옷을 벗어 무기와 함께 말아 머리위에 얹고서 어깨까지 잠기는 江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어떤 적은 뗏목을 만들어 옷과 화기 등을 싣고 도하하기도 했다. 이 도하지점은 蟾山 釜谷에서 6km 南쪽에 있는 烏項 나룻터였다. 적의 제16연대 제1대대도 이때 도하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대부분의 도하부대는 박격포나 중화기를 갖지 못하였다. 강 東쪽에 도달한 적들은 옷을 입은 뒤에 종대로 美軍 방어진지를 향하여 작은 개천을 따라 東南으로 전진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蟾山이었다.

적의 제16연대가 도하하자 때를 같이하여 몇 km 北쪽에 있는 美 제24사단 제21연대정면에서도 다른 부대가 도하하여 공격해 왔다. 지뢰지대를 돌파하고 美軍 진지에 육박해 왔으나 美軍의 기관총 사격과 포병의 야포사격을 받고 분산되어 강너머로 퇴각하고 말았다.

烏項 나룻터에서 도하한 적은 美 제34연대의 I중대 L중대간의 간격으로 침투하여 蟾山—洛東江의 도로가 교차하는 작은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제3대대 지휘소와 박격포 진지는 적의 도하지점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바로 적군의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8월 6일 : 02.00 제34연대는 적의 I중대 L중대 사이로 침투해 들어 왔다고 제24사단에 보고 하였다. 계곡을 따라 전진하는 적군은 고지위에 있는 美軍 진지를 공격하려고 하

지 않았다. 적은 4.2인치 박격포진지를 격파하고 인접한 대대지휘소를 위협하였다. 대대지휘소의 美軍들은 적이 침투해 온것을 알자 대부분의 병사들은 후방으로 분산 도주하고 말았다. 제3대대장도 하는 수 없이 靈山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5km를 후퇴하여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여 대대장 아이레스(Harold B. Ayres) 중령에게 적이 도하하였다는 첫 소식을 전하였다.

05.20 제34연대장은 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 연대지역 중심부에서 적이 도하하고 있읍니다. 아직 날이 어두어서 상황은 명확치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1대대를 투입시켜 상황을 확인하겠읍니다. 새벽에 연락항공기를 보내 주십시요."라고. 그리고 34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제1대대를 지휘하여 역습을 감행, 연대진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새벽까지도 제3대대의 소총중대는(L중대 제외) 강에 연(沿)한 고지위의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L중대의 몇몇 소대는 진지에서 패주하여 강에서 약 4km나 철수하였다. 적은 그들의 전진축(前進軸)에 방해되지 않은 강가의 진지를 내버려 두고 후방진지에 침투하려고 전력을 집중하는 것 같았다.

제3대대 본부의 병사들이 철수하고난 뒤 제13야전포병대대 B포대의 진지는 [illegible]선 西北쪽 진지에서 東쪽이 완전히 적에게 노출되었다. 08.30에 B포대는 근처에서 소화기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사단에서는 약 800명의 적이 강 東쪽에 침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靈山에서 洛東江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역습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은 부대대장에게 "C중대를 트럭에 태워 내가 정지시킬 때 까지 도로를 따라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C중대 뒤에는 부대대장의 지휘및에 A중대 B중대 및 화기중대가 도보로 뒤따랐다. 제3대대지휘소에 도착하였을 때(중대배치계획을 협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방고지(鼓谷里 北쪽 고지)에서 적이 사격을 해왔다. 이 적에 대하여 C중대가 공격을 하였으나 중대장은 세차례나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고 말았고 공격은 잘 진전되지 않았으며 중대병력은 35명에 불과하였다.

10.30 경 제13야전포병대대 B포대는 적의 사격을 받자 포대장은 병사 50명을 이끌고 좁은 도로를 따라 철수하였다.

대대장은 적의 치열한 사격을 피하여 지하수로(地下水路)에 피신하고 그의 곁에서 화기소대장과 박격포반의 병사들은 60mm박격포로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적이 있는 고지에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전세(戰勢)를 만회(挽回)하기 위해서는 일단 A중대와 B중대가 있는곳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몇명의 대대참모들과 함께 논을 가로질러 후퇴하였다.

한편 C중대는 공격에서 실패를 거듭하였다. 대대장이 지하수로에서 뛰쳐 나와 논을 가로 질러 방앗간 있는 곳으로 피신하였고 병사들도 이곳에 와서 합세하였다.

C중대가 적을 저지하고 있는동안 A중대와 B중대는 대대지역을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비우챔프(Beauchamp)대령은 講里의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하자 C중대가 적과 교전하여 심한 타격을 받고 분산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전방으로 달려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B중대를 A중대와 통합시켰다. B중대는 적 1개분대 병력과 조우전 끝에 10명을 사살 분산시키고 0.5인치 기관총 4정을 적재한 2대의 M-16차량을 앞세우고 A중대는 도로 왼쪽에서 B중대는 도로 오른쪽에서 각각 전진하였다. 처음엔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으나 전진할수록 사격이 치열하여 전진은 부진하였다.

B중대는 클로버高地에서 완강히 버티는 적에게 저지되고 말았다. A중대는 소수의 사상자를 내면서 계속 전진하여 유린된 야포진지를 지나서 C중대가 격파 당한 지역에 도착하였다. 이때 앞에서 전진하던 경전차는 방앗간을 발견하자 적이 숨어있는 줄 알고 포격하였으나 그 속에 숨어있던 C중대원을 부상시키게 되었다. 그뒤 전차와 A중대의 병사들은 C중대 생존자들과 합세하여 방앗간에서 적과 싸우게 되었다. 적은 방앗간으로 접근해 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A중대장은 움직일 수 있는 부상자를 트럭에 실어 안전지대로 후송시키고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도로를 따라 강쪽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20.00 쯤에는 강가에 도착하여 그곳에 배치된 L중대와 합세하였다.

90여명의 L중대원들은 모두 무사하였고 또 다행하게도 A중대는 L중대 포병전방관측수의 무전기로 B중대의 중계를 받아 제1대대와 연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한편 A중대가 강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B중대는 클로버高地 부근에서 전진을 저지당하고 호를 파고 있었다.

적은 靈山--洛東江선의 北쪽에서 東쪽의 클로버高地로 침투해 오기는 하였으나 吾院里능선을 향해 길 南쪽으로 횡단 하지는 않았다. (클로버高地와 吾院里능선은 洛東江 東쪽 약5㎞ 지점의 靈山도로를 건너 높은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제1대대가 반격하고 있는 동안 I중대는 연대 오른쪽에 있는 그들의 진지를 포기하였다. 즉 제21연대지역인 北쪽으로 철수하였다. 제21연대에서는 이들 부대(중화기중대, 박격포소대, 제26대공자동화기대대의 A중대 및 I중대)의 철수를 발견하자 곧 사단장에게 보고 하였다. 사단장은 명령없는 철수를 즉시 중지하라고 비우첨프(Beauchamp) 대령에게 지시하였다. 비우첨프(Beauchamp) 대령은 부대대상(副大隊長)으로 하여금 현지로 철수하는 병사들을 다시 원진지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09.00경 처치 사단장은 강 東쪽의 적 주력(主力)부대가 돌출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는 제34연대의 北쪽 측방을 따라 제19연대(예비대)를 참전(參戰)케 하여 西쪽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이 공격에서 제19연대는 鳥項高地 東쪽에 있는 한 마을과 강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적 300여명을 사살하였다.

정오(正午)에는 제24사단 수색중대를 보내서 I중대에 인접(隣接)한 洛東江—昌寧간의 도로를 봉쇄하게 하였다. 수색중대와 I중대는 그때 釜谷里 근교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실패하였다.

제34연대 제1대대의 반격은 적의 전진부대를 격파하고 클로버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힘 입어서 K중대, L중대, A중대는 강 기슭의 진지를 확보하여 적이 靈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9연대와 증원된 제2사단의 제9연대가 北으로 올라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였다.

야포와 전폭기는 도하지역을 계속 강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적의 증원부대가 강 東쪽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고 어두운 뒤에도 도하지역에 집중사격을 계속하였다. 제24사단은 17분의 105mm 곡사포로서 37km에 이르는 전선을 지원할 수 있었다.

洛東江 돌출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 때 韓國軍의 재편성으로 말미아마 美 제8군은 美 제24사단에 배속되어 北쪽에 배치되었던 韓國軍 제17연대의 배속해제를 명하였다. 따라서 처치(Church) 사단장은 긴급시에 잠정적으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이저(Hyzer) 특수임무부대(제3공병전투대대 A중대 일부, 제78중전차대대의 전차 몇대, 제24사단 수색중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美 제8군은 6일부터 7일까지 계속 韓國軍 제17연대의 사용을 승인하므로서 동연대는 새벽까지 수차에 걸쳐 적의 도하기도를 분쇄하였다. 그리고 8월 7일아침 하이저(Hyzer) 특수임무부대가 韓國軍 제17연대와 진지를 인수하게 되자 韓國軍 연대는 大邱로 이동하였다. 이 연대의 이동으로 방어선이 약화되는 것을 보

강하기 위하여 美 제2사단 제9연대 제1대대가 6일 오후 昌寧에 도착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 6일 저녁 적이 그들의 교두보를 계속 확보하고 있을때 처치(Church) 사단장은 제34연대와 제19연대에게 계속 7일 아침까지 반격을 시도하라고 명령하였다.

(2) 적 클로버高地-吾鳳里능선 점령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적은 증원부대 수미상(數未詳)을 투입하였다. 7일밤에 2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4개 지점에서 강을 건넜다. 돌출부 北쪽에서 도하하려던 적 부대는 제21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는데 그 뒤 적은 西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강을 건너왔다.

8월 7일 : 아침 제19연대와 제34연대 B중대는 돌출부에서 계속 반격을 피하였으나 혹심한 더위와 식량 및 식수(食水)의 부족으로 전진은 부진하였다. 더구나 우군의 전폭기가 제19연대 진지를 적의 진지로 잘못 알고 기총소사를 하여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34연대 B중대는 전날 아침 실종된 중박격포중대의 병사 몇명을 구출한 뒤 진지에서 철수하였다. 적은 전진을 계속하여 클로버高地와 吾鳳里능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돌출지역의 東西를 횡단하는 주 보급로를 감제하기 위하여 중요지형에 배치되었다.

클로버(Clover)高地와 吾鳳里능선의 山 꼭대기에서 적은 靈山으로 8km 뻗어진 美軍의 주보급로와 靈山넘어 密陽 방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클로버 高地(△165)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줄기가 北으로 향한 네잎 클로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클로버高地는 吾鳳里 능선보다 높은 지형을 이루며 吾鳳里 능선은 길이가 약 2.5km 가량 된다. 높이나 기슭에서 100~170m 높이의 작은 언덕을 군데 군데 이루며 약간 東南으로 굽어져 있다.

클로버高地와 吾鳳里사이의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한 소로(小路)이다. 頭谷 부락은 클로버高地의 南쪽 도로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吾鳳里 부락은 吾鳳里 능선의 東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클로버高地와 吾鳳里 능선의 두 중요지형은 洛東江 돌출부 전투에 있어서 승부를 결정하는 주요진지인 까닭으로 여기서 10일간에 걸친 격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8월 7일 아침 적이 클로버高地와 吾鳳里 능선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제9연대장은 美 제2사단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달려가 2사단장을 만났다. 거기서 케이시(Keisey)美 제2사단장은 워커(Walker)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8월 8일 : 01.30시에 제9연대장은 연대주력을 돌출지역으로 출발시켜 08.30경 제24사

단장에게 부대도착을 신고 하였고 명령대로 제24사단에 배속되었다.

처치(Church) 사단장은 즉시 공격을 개시하여 돌출지역에 있는 적을 격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약간의 논의가 있은후 제9연대장은 1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美 제9연대는 클로버高地의 제34연대 B중대 및 吾鳳里능선 근처의 도로에서 보병전투를 하고 있던 중 박격포중대와 교대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제1대대를 靈山도로의 왼쪽에 제2대대를 오른쪽에 각각 배치한 뒤에 지휘소는 靈山북쪽에서 2.5km 西쪽으로 떨어진 高里에 설치하였다. 제15야전포병대대(105mm 곡사포)의 2개포대는 12문의 155mm의 곡사포와 제24사단의 105mm곡사포로서 제9연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연대의 목표는 클로버高地와 吾鳳里능선이었다. 제9연대는 8일날 오후에 클로버高地와 吾鳳里 능선을 향하여 西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오른쪽 제2대대는 해가 질 무렵에 클로버高地의 일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고 왼쪽의 제1대대는 역시 吾鳳里능선의 일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날 밤 적의 역습으로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제34연대 A중대장은 8월 7일 새벽에 그의 A중대 오른쪽 능선을 적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무전으로 사격을 요청하여 야포사격을 한 다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찰대를 보냈으나 적의 사격을 받고 되돌아왔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8월 8일 아침 제34연대 A중대의 병사들은 진지 아래쪽에서 적 10~12명이 6척의 보트를 타고 강을 건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공중공격을 요청하였다. 중대에서는 적이 1km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 0.5인치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조금 뒤 전폭기가 적을 공격하여 많은 손해를 입혔다. 저녁 무렵에는 적은 A중대진지에 박격포와 야포의 사격을 마친 뒤 접적 이동을 시작하였다. A중대장은 적의 공격을 지탱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22.00에 대대장에게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허락하지 않았다.

22.30경 A중대장은 단독으로 철수를 결심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진지에서 철수하였다. 적은 텅텅 비어있는 진지에다 맹렬한 포격을 하였다. A중대는 도로 南쪽으로 향하여 吾鳳里 능선의 南쪽 끝에 위치한 우군 방어선으로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방향을 잘못 잡아 1개소대는 도로를 따라 吾鳳里 북단(北端)의 적진지로 접근하게 되어 심한 피해를 입었다. 9일 아침 해가 뜬 뒤에 A중대의 나머지 병사들과 일부의 L중대 병사들은 吾鳳里

東쪽 제1대대 방어진지에 도착하였다. 9일 아침 더, 南쪽으로 강에 인접하여 위치한 K중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중대의 전방관측소를 점령당하였고 또 적이 배후에 침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는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8월 10일 : 돌출부의 격전장인 클로버高地(△165)에서 적은 美 제9연대와 공방전을 벌렸다. F중대는 1명이상의 장교를 가진 유일한 소총중대였다. 이 전투에서 전날 빼앗겼던 일부 클로버(Clover)高地를 다시 점령하였다. 그러나 클로버高地 北쪽에서 美 제19연대 제 2대대는 洛東江에 연(沿)한 몇개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중 중요한 곳이 馬致나룻터의 고지인 것이다. 적은 이곳을 빼앗겼기 때문에 접근로가 차단되고 말았다.

(3) 힐(Hill)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8월 10일 : 저녁이 되자 처치(Church) 사단장은 洛東江 돌출부내의 전부대의 지휘권을 힐(Hill) 대령에게 부여하였다. 여기에는 美 제2사단의 제9연대, 제24사단의 제34연대, 제19연대, 제 21연대의 제1대대와 그밖에 야포 및 배속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이 부대는 힐(Hill) 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되었다. 그리고는 8월 11일 아침에 공격을 시작하여 洛東江 방어선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힐(Hill) 대령과 관계 지휘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공격방안을 연구하였다.

한편 적은 8월 10일밤에 많은 증원부대가 강 東쪽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힐 대령이 밤새워 계획한 공격계획을 수행하는데에 많은 곤란을 가져왔다. 적은 8일~10일까지 밤이면 沙津 및 起項 나룻터에 수중가도 작업을 계속하여 드디어 적 제7사단은 10일밤에 이 작업을 완료하고 새벽녘까지 트럭과 중박격포 및 약 12문의 야포를 洛東江 東쪽으로 이동시켰고 일부의 장비품은 뗏목으로 운반하였다.

적은 8월 중에 洛東江을 건느는데 많은 수중교(水中橋), 수중가도를가설 하였다. 이 수중교는 수면(水面)에서 25~30cm 가량의 깊이까지 물속으로 모래 가마니와 목재를 쌓아 올린 것으로서 폭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5m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수중교(水中橋)라기 보다는 수중도로(水中道路)라고 함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수중교들이 세계제2차대전 중에 소련군에 의하여 많이 가설되고 이용되었으며 때로는 東部전선에서 기습작전시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스탈린 그라드(Stalin Grad)의 격전에서 이 수중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병부대들도 이날 밤 도하하였고 몇대의 전차까지도 도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적은 선봉부대가 도하한지 5일만에 중화기 및

장비를 강 건너편에 설치한 적의 교두보 진지로 이동시킨 것이다.

8월 11일 : 아침 힐(Hill) 특수임무부대가 적을강으로 밀어 넣으려던 공격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적 제4사단은 제9연대 및 제19연대와 대결하여 힐(Hill)부대를 공격개시선이나 진지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美 제21연대 제1대대는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결지에서 격파되고 말았다.

아침이 지나자 돌출부 전투에는 새 양상이 나타났다. 적은 야포를 6문, 혹은 4문씩의 3개반을 편성하여 클로버高地와 晉鳳里 능선의 진지에서 약 1.5km 떨어진 鼓谷里 근처에다 포상을 설치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치(Church) 사단장은 힐(Hill) 특수임무부대의 공격계획을 변경하여 참호를 파고 진지방어를 하게하였다. 적 제4사단의 주력은 돌출 지역으로 도하를 시작, 그날 밤 완전히 성공하였다.

(3) 적의 鎭山점령

8월 10일 : 낮에는 鎭山이 처음으로 적의 포격을 받았다. 대대병력으로 추산된 적의 병력은 밤에 은밀한 행동으로 鎭山 어구에 도착하여 길 가 독립 가옥의 마당에서 자고 있던 부락민 趙 某(鎭山 의용소방대원)를 깨워 총으로 위협하면서 길 안내를 하라고 하였다. 趙 某는 처음에는 우리 韓國軍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발투와 행동으로 보아 적이라고 알아 차렸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적은 鎭山 지서로 안내하라고 하였다. 이때 시간은 8월 11일 02.00시인데 당시 鎭山 지서에는 경찰병력이 약 30명으로 증원되고 있었다.

趙 某의 안내를 받은 적의 대병력이 시가지에 들어 오는데도 누구하나 이를 발견한 주민들은 없었고 심지어는 개들도 짖지 않았다고 한다. 지서 앞 약 50m에 이르렀을 때 적은 趙 某에게서 병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趙 某로 하여금 보초를 이곳으로 유인하라고 강요하였다.

趙 某는 하는 수 없이 큰소리로 자기가 잘 아는 金 某 순경을 불렀다. 마침 金 某 순경이 대답을 하자 "여기 급한 환자가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金 순경은 "아리로 데려오지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였으나 유인공작으로 결국 金 순경이 趙 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포되고 말았다. 적은 같은 방법으로 경찰병력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경찰서 안에서 먼저 발포를 하게 되었다. 적도 주시 응사하여 경찰병력의 일부만이 탈출하였을 뿐 대부분이 희생되었다.

趙 某는 교전하는 틈을 타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고 金 순경은 사살되었다. 이리하여

靈山은 깊은 밤 잠자는 사이에 고스란이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靈山 南쪽에서는 美 제24사단 수색중대의 수색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南旨里의 洛東江 다리를 지키고 있던 제34연대 K중대의 1개분대는 적의 기습을 받아 전멸하였다. 적이 이 교량을 점령하자 靈山—馬山 도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제24사단과 제25사단을 연결하는 유일한 병참선이 단절되고 말았다.

8월 11일 : 靈山 南쪽의 상황은 혼란상태였고 힐(Hill) 특수임무부대의 공격은 실패하여 東쪽으로 몇 km를 더 후퇴하였다. 이때 처치 사단장은 美 제14공병전투대대를 靈山에 참전토록 하였고 제8군사령관은 馬山에 예비대로 남아있던 제27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南旨 교량으로 전진하여 제24사단 구역의 南쪽 끝을 공격하게 하였다.

8월 11일밤까지 적은 靈山 東쪽의 도로를 봉쇄하고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靈山 東쪽 5km 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한 참모가 힐(Hill) 대령을 깨워 靈山 東쪽 3.5km지점에서 몇대의 트럭과 구급차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하자 힐(Hill) 대령은 즉시 제9연대 F중대와 박격포 1개소대로 하여금 東쪽의 적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제15야포대 대는 포사격으로서 이 공격을 지원하였다.

한편 美 제24사단 본부 密陽에는 본부중대장 지휘밑에 8개부대에서 서기병, 취사병, 헌병, 수색중대원을 긴급동원하여 135명의 병사들이 집결하였다. 이부대는 密陽에서 급히 西쪽으로 이동하여 靈山에서 東쪽 약 5km 지점의 집피실고개의 左右능선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부대의 임무는 적이 더 이상 동진(東進)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있었다. 2대의 전차가 이 중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본부중대장과 그 부하들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장갑차가 세차례에 걸쳐 식수, 양식, 탄약을 보급해주었다.

한편 제27연대 제2대대는 11일 馬山 군교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漆原을 거쳐 南旨로 향하였다. 도로에는 수 많은 피난민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12만명이 넘는 피난민 대열을 뚫고 전진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피난민의 우마차가 길을 비키다가 옆으로 전복(顚覆)되었는데 이때 소총 15정과 탄약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12명의 적병이 피난민을 가장(假裝)하고 숨어서 들어오다가 8명이 사살되었다. 계속 전진한 제2대대는 洛東江 南旨 다리에서 2km 南쪽에 위치한 漆西面 二龍里 군교에서 200여명의 게릴라가 전진을 방해하였으나 이를 교전 끝에 격퇴시켰다. 자정(子正)이 되자 이 대대는 洛東江을 건너 다리 北쪽 끝의 적을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8월12일 : 美 제8군은 제27연대를 제24사단에 배속시키고 靈山에 침입한 적을 공격케하였다. 靈山-馬山 가도(街道)의 東쪽에 위치한 적은 2개대대병력으로 추산되었다. 이날 제27 연대의 제2대대는 박격포 기관총 소화기로 장비된 적과 교전하여 100여명의 적을사살하고 수 탱은 적에게 부상을 입혔다. 12정의 기관총과 14.5mm대전차포를 노획하였다.

8월 13일 : 제27연대 제3대대가 제2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공격에 참가하였다. 2개대대는 목표지인 靈山 北쪽과 東쪽의 고지에 도달하였다. 힐(Hill) 부대장과 제34연대장은 제27연대 제2대대가 힐(Hill) 특수임무부대와 연결하였을 때 머치(Murch) 중령을 靈山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날의 전투에서 제27연대는 4문의 적야포를 파괴하였는데 그 중 2문은 美軍의 105mm포이고 나머지는 소련제 76mm곡사포였다.

한편 나른 증원부대인 제2사단 예하 제23연대 제1대대도 이날 靈山에 도착하여 적을공격하였다. 이 대대는 密陽에서 갑자기 전진(轉進) 공격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9명의 일사병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전투에서 부상당한 것은 단 1명에 불과하였다. 그 뒤 靈山 東쪽 1.5km 지점에서 제27연대의 전진부대와 만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靈山 北쪽과 南쪽 일대에 침입한 적은 막대한 희생자를 남기고 격퇴되어 密陽으로 진출하려는 적의 전진을 좌절시켰다. 이 전투에서 靈山 면민(面民)들의 희생은 크지 않았지만 가옥3분의2가 소실되었다.

8월 14일 : 제25사단 제35연대의 증원중대는 洛東江 南쪽 南旨里 다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을 지키던 제27연대와 교대하므로서 교량방어 책임은 제24사단에서 제25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또한 K중대와 L중대는 힐(Hill) 부대장의 명에 의하여 이날 02.00에 별 다른 사고없이 제1대대 후방의 연대 예비대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4) 클로버(Clover)高地와 吾鳳里 제2차전투

처치(Church) 사단장은 14일 아침에 클로버(Clover)高地와 吾鳳里능선의 적진에 대하여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힐(Hill) 특수임무부대의 임무는 적을 돌출부지역에서 洛東江 넘어로 몰아내는 것이었다. 힐(Hill) 부대장은 전병력을 참전시켜 클로버(Clover) 高地와 吾鳳里 진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공격개시일은 8월 14일로 정하였다. 100대의 전투기와 모든 포병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적의 병력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고 있었다. 즉 적의 제5연대는 美 제19연대 전방에 제

16연대는 클로버(Clover)高地와 吾鳳里 능선에 그리고 제18연대는 제16연대 후방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주로 돌출부의 南쪽과 東쪽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힐(Hill) 특수임무부대는 이 적을 격파할만큼 우세하지는 못하였다. 美제2사단 제9연대 예하 2개대대 제1대대 599명 제2대대 609명은 이미 병력이 3분의2로 줄어들었고 제19연대의 전투병력은 약 2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제34연대 제1대대의 3개 소총중대는 총병력수가 완전한 1개 소총중대에 미달하였다.

8월 14일 : (월요일) 돌출부 지역의 상공에는 짙은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03.00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기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공중지원은 중지되었다. 제13야전포병대대 대대장 슈트랏톤 중령 지휘 밑의 포병대대는 병력과 장비가 40%로 감소되고 있었다. 1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있은 뒤에 보병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9연대 전투단의 2개대대는 제1대대를 右로 제2대대를 左로하여 클로버(Clover) 高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제34연대 B중대는 길 南쪽의 吾鳳里 상봉(上峯)을 점령하였다가 08.00경에는 다시 철수하였다.

길 건너편 클로버(Clover)高地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美軍과 적은 육박전을 벌렸다. 약 1시간 가량의 전투에서 제9연대 제1대대는 6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다. 제9연대전투단의 2개대대는 고지의 한 모퉁이를 점령하였지만 언덕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였고 北쪽의 제19연대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전투는 밤까지 계속되었으며 적은 제9연대의 숨어진지를 공격하여 왔다. E중대의 경우는 상사(上士)가 다섯번이나(10~17일 사이에) 갈리어 중대를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었다.

8월 14일 밤의 공격에서 적은 클로버(Clover) 高地를 탈취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吾鳳里 南쪽의 적은 제21연대 제1대대를 사실상 완전포위하여 제1대대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03.00에 힐(Hill) 부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도록 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또 제34연대의 K중대와 L중대가 강 기슭의 진지에서 철수하므로서 병력이 증강된 제34연대 제3대대는 반격을 위하여 제1대대의 새로운 방어진지 구축(構築)을 도와 주었다.

8월 15일 : 아침 힐(Hill) 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구름과 비 때문에 공중지원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 吾鳳里 南쪽 끝에서 제34연대의 A중대와 B중대는 적과 육박전을 벌렸다. A중대의 제2소대는 안부(鞍部)를 가로질러 적이 점령한 산정(山頂)을

공격하여 수류탄전을 벌리고 육박해 갔다. 돌격사격이 10보 이내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공격이 시작된 뒤 50분만에 소대는 35명중 25명의 사상자가 났다. 10명의 생존자가 9명의 부상자를 데리고 철수하였으나 구호소(救護所)에 도착하였을 때는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힐(Hill)부대는 적의 저항으로 공격이 저지되었다. 더 공격을 할려도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월 15일 처치(Church) 사단장이 힐(Hill) 부대의 지휘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검토하였는데 적 제4사단은 그간의 손실로 전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며 [illegible]와 클로버 高地의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서 오래지 않아 공격력이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美軍측도 공격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공격을 중단하고 진지를 고수(固守)하기로 하였다.

한편 美 제8군사령관은 돌출부에서 적을 축출하지 못하여 불만에 가득차 있었다.

이번 8월 15일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적을 돌출부에서 구축하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워커(Walker) 사령관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제24사단 지휘소에 비래(飛來)하여 노한 말투로 "해병여단을 줄 터이니 속히 적을 구축하라."고 처치(Church) 사단장에게 말하였다.

大邱로 돌아간 워커(Walker) 중장은 참모들과 회의 끝에 13.00 쯤에는 洛東江 돌출부에 美 해병대를 참전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작전보좌관(콜리어(Currrayr)대령)을 불러 즉시 공로(空路)로 密陽에 가서(美 해병대는 馬山에서 密陽으로 이동 중이었으므로)크레이그(Craig)준장(해병여단장)과 상황을 검토하라고 하였다. 작전보좌관은 密陽에 가서 여단장과 필차에서 회견하고 워커(Walker)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美 해병여단장은 즉시 이동중에 있는 부대에 대하여 靈山으로 전진(轉進)하라고 명령하였다.

8월 15일에 이루어진 워커(Walker) 장군의 결정은 2개월 반 동안 계속되었던 洛東江 주위의 전투에서 부대가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였던 유일한 작전이었다. 이 때 도처에서 美軍은 곤경에 빠져 있었으며 8월 11일~15일 사이의 급격한 상황변동으로 8군의 예비대는 모든 전투지역에서 필요하였던 것이다. 킨(Kean) 특수임무부대는 晋州 반격에서 실패하였고 힐(Hill) 특수임무부대는 晋陽里능선과 클로버(Clover)高地 공격에서 실패하였다. 적 제4사단의 예하 3개연대는 靈山으로 육박하였고 다른 부대들은 계속 洛東江을 건

너서 돌출부 北쪽의 大邱로 접근하여 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東部의 韓國軍은 계속 지연전을 하면서 철수하고 있었으며 釜山 주위의 방어선은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고 있었고 東쪽해안의 浦項을 점령한 적의 제5사단은 慶州 釜山間의종격선(從隔室)을 따라서 釜山으로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러한 때(8월 중순) 워커(Walker) 사령관은 洛東江 돌출부의 위기가 지금까지 당면하였던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강력한 예비대(해병대)를 참전케 하였던 것이다. 8월 15일 드디어 제1해병여단을 제24사단에 배속시키고 8월 17일에는 되도록 빨리 洛東江 東쪽의 돌출부에서 적을 공격하여 격퇴시키라고 하였다.

8월 16일 : 힐(Hill) 부대의 피로한 병사들이 참호속에서 구원병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적은 클로버(Clover)高地의 제9연대를 공격하여 왔다. 적은 많은 美軍을 사살한 뒤 호의 일부를 점령하고 東쪽의 제9연대 제2대대진지도 점령하고 말았다. 제19연대와 제34연대가 확보하고 있던 烏項高地에서도 격전이 벌어져 많은 美軍이 후퇴하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였다. 전투가 한창일 때 적의 새로운 부대가 洛東江을 건너서 제24사단 경계선상의 제1기병사단구역에 나타났다. 양 2개대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적은 玄風 근처의 409高地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지역은 제1기병사단 지역보다 제24사단에서의 도로접근이 용이하므로 8월 13일 저녁에 워커(Walker) 중장은 제24사단 경계선을 北으로 확장하였다.

8월 16일 해가 뜨기전에 美 제2사단 제23연대의 제1대대는 409高地에 도착하여 제21연대를 증원하였다.(제23연대는 8월 5일 美國에서 도착하여 大邱 근처의 집결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 전투에 처음으로 투입된 것이다). 409高地의 적은 특별히 위험시(危險視)되었으며 그 이유는 그들이 언제 東南쪽으로 진출하여 洛東江 돌출부에서 고전하고 있는 美軍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부대는 409 高地에 진지를 구축한 뒤 돌출부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 고지를 떠나지 않았다.

(5) 美 해병대의 高鳳里 공격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8월 15일의 美軍측 돌출부 상황은 그다지 유리한 편이 아니었으나 적 제4사단도 사실상 곤경에 빠져 있었다. 식량보급은 원활하지 못하였고 탄약의 재보급(再補給)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다. 포로의 말에 의하면 적 제18연대는 8월 14일 탄약보급이 두절되었고 보충병(南韓에서 동원된 의용군)의 40%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또 그

들 보충병의 반수(半數) 이상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하였고 다만 참호를 파는데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었으며 탄약을 운반하거나 식량을 약탈하는데 이용되었고 경환자들은 별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다시 전선으로 투입되었으며 중환자들은 치료할 의약품이 부족하여 대부분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美 제1해병여단장과 제24사단장 그리고 연대장들은 8월 15일 공격계획을 토의하였다. 그러나 해병대를 지원할 항공모함의 사정으로 8월 17일에 공격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항공모함 스트레이트(Straight)호에서 함재기 출격이 가능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처치(Church) 소장이 육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 공격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제1해병여단은 吾院里 능선의 전면 左측을 담당한다.

② 가장 왼쪽에는 제21연대 제1대대를 배치하여 해병대의 左측방을 엄호하게 한다.

③ 제9연대는 계속 클로버(Clover)高地 전면을 담당한다.

④ 클로버(Clover)高地와 吾院里사이의 도로를 제9연대와 해병대와의 전투지경선으로 한다.

⑤ 제34연대는 제9연대의 北쪽을 담당한다.

⑥ 제34연대의 北쪽에는(공격대형의 맨끝 右측방) 제19연대를 배치한다.

⑦ 제9연대는 클로버高地를 점령한 뒤 다른 부대의 중간에 위치한다.

⑧ 모든 공격부대는 洛東江까지 적군을 축출한다.

⑨ 제19연대는 적군이 다시 점령한 烏頂高地를 점령한다.

⑩ 공격개시시간은 8월 17일 03.00로 한다.

⑪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54문의 105mm곡사포와 155mm곡사포 1개대대를 동원한다.

한편 해병대는 8월 15일에 靈山으로 이동하였다. 작전회의에 참석한 해병여단장은 그의 참모와 단위부대 지휘관에게 회의결과를 간단히 설명하고 8월 16일 아침에는 그의 부대가 공격할 지역을 정찰하고나서 머레이(Murray) 제5해병연대장을 데리고 제9연대장과 작전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그의 지휘소에 도착하였다. 힐(Hill)대령은 그의 부대가 완전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고 호언(豪言)하였으나 제5해병연대장은 관측高地와 125高地에 있는 장병들이 지난 5일간의 전투로 피로에 지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연대가

전투를 전개할 지형을 살펴보았다.

해병 제5연대장의 공격계획 : 제5해병연대장이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 제9연대와 함께 공격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吾鳳里 능선은 제9연대의 목표인 클로버(Clover)高地에 근접하였었고 頭谷 부락과 클로버高地를 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연대(제9연대와 해병 제5연대)가 동시에 노출될 것이라는데서 해병 제5연대만이 8월 17일에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제9연대 전투단이 125高地에서 공격하는 해병부대에게 먼저 지원사격을 해준다면 그는 吾鳳里 능선을 점령하고 이어서 제9연대가 頭谷의 클로버(Clover)高地를 공격할 때 해병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가 전술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건의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또한가지 제9연대의 병력수와 사기등을 고려한 데서였다. 즉 머레이(Murray)중령은 吾鳳里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치(Church) 소장은 吾鳳里와 클로버고지의 진지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 곳을 동시에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처치(Church)소장은 머레이(Murray)중령의 건의를 받고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 제9연대장도 동의하여 첫 공격은 해병 제5연대가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吾鳳里에서 洛東江 사이에는 감제고지가 두개 있는데 처치(Church)소장과 머레이(Murray)중령은 吾鳳里 후방의 둘째 능선에 적이 주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뒤에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吾鳳里능선에는 적의 제16연대 예하 1개대대의 지원을 받는 괴뢰군 대좌 장기덕의 제18연대가 방어하고 있었으며 제16연대의 다른 예하부대는 클로버高地를 방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타프렛트(Robert Taplett)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密陽에서 트럭을 타고 전선까지 약 3km 후방에 있는 연대지휘소에 8월 16일 19.00에 도착하여 차를 내린뒤에 클로버(Clover)高地까지 행군하여 거기서 제34연대와 교대하였다. 그리하여 주 보급로 南쪽지역은 8월 17일 04.00 부터는 제3대대의 통제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로이스(Harold. S. Roise)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도보로 행군하여 8월 17일 01.30에 클로버高地 근처에 있는 집결지에 도착하여 몇시간뒤에 닥쳐올 공격준비 때문에 장병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제1대대는 트럭이 부족한 탓으로 계획보다 몇시간 뒤에 전방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우드(Ransome H. Wood)중령이 지휘하는 여단포병대대도 트럭으로 8월 16일에 전방에 도착하였다.

머레이(Murray)중령과 크레이그(Craig)준장은 상황과 지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昌原里 능선에 대한 정면공격은 대대종대 대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데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약간 상이(相異)한 점도 있었다. 크레이그(Craig)여단장은 머레이(Murray) 연대장에게 공격기동계획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머레이(Murray) 연대장은 대대종대로 공격하여 제2대대는 제1목표를 탈취하고 제1대대는 207高地를, 그리고 제3대대는 제3목표의 공격에 이어서 돌출부를 탈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여단장도 머레이 연대장의 계획에 동의(同意)하였다.

昌原里 능선의 고전 : 昌原里 능선은 해병대 전방을 가로 지르고 있었다. 그 정상에서는 頭谷부락 밑에 있는 주 보급로를 감제할 수 있고 이 능선은 습지이며 그 형태가 여러가지 모양의 언덕으로서 東南쪽으로 약 2,000m 이상이나 펼쳐져 있었다. 이 능선은 102高地로 시작하여 109, 117, 143, 147, 153高地 등 산봉우리가 줄지어 솟아있고 東南쪽에는 또 다른 산봉우리가 있었다. 해병대의 함재기와 야포는 8월 17일 07.25부터 공격개시시간인 08.00까지 능선을 명타하고 그 뒤에도 진격하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하여 그지에 기총소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

해병여단의 포병은 계획대로 준비사격을 시작하였으나 전날의 조급한 기점사격 때문에 그런지 혹은 관측자의 미숙(未熟)한 탓인지 제1목표인 적의 진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포격을 하지 못하였다. 07.25에 시작할 예정이던 공중공격도 07.40까지 감감 무소식이었다. 공격개시 시간전에서야 18대의 함재기가 昌原里 능선에 단 한번 공격을하였으나 장관이었다.

2개 소총중대는 08.00 정각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D중대(오른쪽 일선중대)가 125高地와 관측高地 사이의 산길에서 개활지로 진출하였다. D중대장은 제2소대를 125高地의 南쪽 능선에 예비대로 배치하고 그곳에 중대관측소를 두었다. 제3소대는 능선 아래의 굽이 길에서 논으로 전진하였다. 이 부대 뒤에는 제1소대와 1개 로케트포반이 주 보급로를 엄호하기 위하여 도로에 연(沿)해 있는 진지에 있었다. 논을 횡단하는 도중 제1소대는 제3소대의 뒤에서 오른쪽으로 나갔고 두개소대는 횡대(橫隊)로 능선 하단에 접근하였다. 제3소대의 왼쪽에는 E중대의 제2소대가 있었다. 공격소대들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넓은 개활지를 횡단하였다. 125高地의 진지에

시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2소대는 吾鳳里의 143, 117高地에서 장거리 기총사격을 받고 D중대는 치음으로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때 크레이그(Craig) 여단장과 로이스(Roise)중령은 각각(산간도로와 관측고지) 그의 관측소에서 D중대의 공격소대가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것을 관측하고 있었다.

제3소대가 소대장의 인도(引導)로 왼쪽 계곡 뒤로 전진하는 동안 제1소대는 차차로 방향을 바꾸어 頭谷부락 쪽으로 해서 102高地로 통하는 능선 오른쪽 골짝의 길을 따라 갔다. 이 때 정면에 배치된 적 제18연대의 1개대대가 수십정의 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하였다. 심한 사격을 무릅쓰고 제3소대와 제1소대는 위로 조심스럽게 진출하였으나 이 두 개 소대는 적의 빗발같은 사격으로 공격이 돈좌(頓挫)되고 심한 피해만 입었다. 제3소대는 사상자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09高地에 대한 공격을 꾀하였으나 산정에서 적의 자동화기사격과 수류탄 세례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밑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제3소대가 117高地와 143高地에서 적의 포사격에 직면하게 되자 D중대장은 그의 예비소대를 참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제3소대쪽의 계곡 위로 공격을 강행한다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 D중대장은 제2소대에게 제1소대가 돈좌한 골짜기를 따라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소대는 제3소대가 이미 이용한 통로를 따라 논을 횡단하였다. 제3소대가 공격에 실패하고 재편성하고있는 골짜기에 도달하자 제2소대는 제1소대가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2소대를 102高地의 능선으로 이동시켰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양측방(左측의 117高地, 143高地 주보 급로 전너편 頭谷 北쪽의 미탈)에서 심한 기관총사격을 받았다.

이때 D중대장은 부락위에 있는 적의 진지를 발견하고 돈좌된 그의 제1소대가 피해를 입게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적은 제1목표의 西北쪽 접근로를 따라서 해병대의 측방과 후미에 대하여 사격을 하고 있었다. D중대장은 제2대대가 頭谷에 지원사격을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여단포병대대에 요청하였다(여단포병은 제11연대 제1대대임). 잠시 뒤에 105mm포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었으나 사격지역이 제9연대전투단의 지경 내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사격을 중지하였다. 중대장은 60mm박격포로 적의 기관총 진지에 포격하였으나 사거리(射距離)가 미치지 못하였다.

능선(稜線) 위에서 적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저항하고 있을 때 모든 기관총사격은 102高

地와 109高地의 北西쪽에서 사하여졌다. 제3소대의 끈기있는 공격을 받은 적은 1개 중기관총진지를 옮기었으나 해병대의 75mm 무반동총탄 1발에 분쇄되고 말았다.

제3소대장은 생존자 15명만으로서 109高地에 대한 두번째 공격을 준비하였다. 11.00에 공중공격에 이어서 해병대는 고지로 돌진하여 산꼭대기의 적의 진지를 짓밟아 버렸다. 적 1개분대가량이 맞은편 비탈에서 저항하였으나 D중대의 소총병들에 의하여 제압되고 말았다.

D중대 제3소대장 신카(Michael J. Shinka)소위는 이 전투에서 세운 공적으로 뒤에 동성훈장(銅星勳章)을 받았다.

한편 E중대의 제1소대와 제2소대는 143高地와 147高地의 바로 밑에 위치한 吾項里부락에 중점을 두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선도(先導) 제1소대는 공격목표 전사면(前斜面)에 이르기 전에 촌락으로부터 심한 사격을 받았다. 제1소대는 소대장이 지휘하여 탄우(彈雨)를 뚫고 촌락을 지나서 능선의 비탈로 돌진하였다. 오른쪽의 제2소대는 공격이 돈좌(頓挫)되어 기세가 꺾이었으며 147 및 153高地로부터 적의 측방사격(몇정의 기관총에 의한)을 받았다.

E중대장은 제1, 제2소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제3소대를 참전시켜 147高地와 153高地로 통하는 돌출부에 진출시켜 적이 장악하고 있는 산정에 화력을 집중시켜 2개소대(제1, 제2)에 대한 압력을 감소(減少)시킨 수 있었다.

촌락의 南쪽 능선 아래쪽에 위치한 적의 진지에서 점차로 심해지는 사격을 받아가며 E중대장은 박격포반과 그의 본부요원 전원에게 계곡으로 진출하여 논으로 통하는 접근로를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중대 부관에게는 측방경계를 담당케 하고 중대장은 목표의 아래쪽으로 돌진하였다. 이때 E중대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전하고 있었다.

E중대장은 제2소대가 소대장을 잃고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1소대는 제2대대 81mm 박격포의 정확한 지원을 받으면서 전사면(前斜面)에서 잘 싸우고 있었다. 오전 늦게 E중대의 일부는 산꼭대기에 근접하였으나 11.30 직전에 공격부대는 함재기의 공중폭격 때문에 진출선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제3소대도 100m를 후퇴하였다.

정오(正午) 경에 이르게 되자 4시간 동안에 이르는 전투에서 희생자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해병제5연대 제2대대는 전사 23명, 부상 119명이나 되었고 2개 소총중대에서 나온 희생이었다. 이러한 실정을 보고 여단의 장교들은 각 대대가 예비중대를 확

보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번 제2대대의 공격도 예비대의 추가지원이 절대로 필요하였으나 병력이 없었으므로 2개중대의 6개소대병력에 의존(依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적의 능선을 탈취할 수가 없었다.

능선을 완강하게 고수(固守)하고 있는 적도 사실은 D중대와 E중대의 공격과 그리고 공중공격, 야포사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해병대의 함재기와 포병대대들은 적의 전후방 모든 목표에 대하여 폭격과 포격으로 적의 박격포와 야포를 많이 파괴하였고 집결지와 보급소를 분쇄하였다. 따라서 적의 전후방에서는 혼란이 격증하고 있는 명확한 징조가 보였던 것이다. 13.00경에 크레이그(Craig) 여단장은 제1대대에게 제2대대를 넘어서 吾鳳里 능선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이 그의 집결지역에서 전방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는 동안 함재기와 포병대대 그리고 A전차중대가 목표지역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을 해 주었다. 13.30 좀 지나서 D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상황보고를 하는 도중 그의 관측소에서 적의 기관총탄에 부상을 당하고 그밖에도 몇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D중대장은 맞은편 山의 돌출부 전사면으로 기어가서 지휘권을 하니핀 중위에게 인계하고 대대구호소로 내려왔다.

그 뒤 D중대는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관측고지로 철수하였다.

(6) 美 제9연대의 클로버(Clover)高地 공격

吾鳳里 맞은편 앞 사면의 참호안에 깊숙히 숨어버린 북괴군은 해병대 함재기의 폭격에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해병대 제5연대의 제2대대가 吾鳳里 공격에서 실패한 것은 頭谷 부락과 클로버高地에서 적이 집중사격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격을 재개(再開)하려면 공격계획을 변경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5연대장은 알게 되었다.

美 해병 제5연대장은 이제서야 吾鳳里 공격과 동시에 클로버(Clover)高地의 제9연대도 공격을 시작하여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처치(Church) 소장에게 공격을 동시에 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자 처치(Church) 소장은 제9연대장에게 동시공격을 즉시 명령하였다. 15.00 경 美 해병제5연대장은 처치 소장과 제9연대장에게 제1대대는 16.00까지 공격을 재개(再開)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보고 하였다.

16.00가 좀 못되어서 美 제24사단은 예정대로 클로버高地의 산꼭대기와 산기슭에 대하여 VT신관포탄으로 포격을 시작하였고 때마침 공중공격도 시작되어 적진은 쑥밭이 되고 말았다.

8월 17일 : 16.00 제9연대와 해병대는 드디어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9연대 제2대대는 클로버(Clover)高地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야포는 포격을 계속하였고 살아 남은 적병들은 패주(敗走)하였다. 클로버高地를 점령한 제9연대는 吾倉里를 공격하는 해병대를 지원사격해 주었다.

해병 제5연대 제1대대장은 대대관측소를 제2대대관측소 근처에, 그리고 지휘소와 구호소는 산간도로(山間道路) 바로 뒤에 설치하였다.

B중대장은 그의 중대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고지의 앞쪽 비탈에 B중대의 제3소대와 기관총들을 배치하였다. 제1소대와 제2소대는 논을 건너서 17.00에는 D중대(목표의 전사면(前斜面)에서 대기 중인)를 넘어섰다. 제1소대장은 앞서 크라우슨의 소대가 지나간 큰 길을 따라서 102高地를 향하여 그의 제1소대를 전진시켰고 제2소대장은 자기소대를 102高地와 109高地사이의 안부(鞍部)에 이르는 계곡으로 이동시켰다.

관측고지에서 B중대장은 전진속도가 빠른것을 보고서 부관에게 그의 2개 공격소대와 합세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을 때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다. 부관은 중대장을 후송시키도록 지시하고 지휘권을 인수하여 능선의 공격부대와 합세하였다.

이때까지 두 공격소대는 멈춰 있었다. 특히 제2소대는 109, 117, 143高地에 있는 적의 사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소대장도 부상을 입고 있었다.

부중대장과 포술하사관은 제2소대와 합세하고 제1소대의 요청으로 관측고지에 무전연락하여 그의 제3소대를 참전시켰다.

제1소대장은 자기소대의 전진에 장해가 되고 있는것이 적의 頭谷 진지에서 오는 측방사격임을 알고 제1대대 화기중대에게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81mm 박격포탄이 頭谷 부락에 비오듯이 떨어지자 제1소대는 주 보급로 왼쪽의 돌출부 측방으로 진출하여 적의 제18연대 측면을 포위하고 17.30에는 재빨리 102高地를 점령하였다.

제1소대가 공격하고 있을 때 B중대의 지원사격은 117高地와 143高地에 집중되어 B중대 제2소대는 109高地를 점령하였다. 시간은 17.25였다.

한편 관측高地 南쪽의 능선에서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A중대의 제1소대와 제2소대는 해병 함재기와 포병대가 목표에 대하여 사격하고 있을때 2개 공격소대는 각기 배속된 1개 기관총반과 함께 15.00에 E중대를 통과하여 고지를 공격하였다.

109高地와 117高地 사이의 능선으로 공격한 제1소대는 심한 사격을 무릅쓰고 전진해 나

가다가 소대장은 부상당하고 공격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뒤 117高地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심한 사격때문에 공격이 저지되고 말았다.

左측방에서는 적의 강한 화력이 제2소대의 중간을 차단시켰다. 제2소대는 117高地와 143高地사이의 능선쪽으로 돌격하여 갔으나 많은 사상자를 낸채 저지되고 말았다.

A중대장은 그의 지휘소에서 대대장에게 관측高地에 배치되고 있던 그의 제3소대(대대예비대)를 참전시키자고 무전으로 요청하였다. 이 요청이 승인되자 제3소대장은 박격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소대를 이끌고 논으로 진출해 나갔다.

吾鳳里 능선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비탈에 올라선 A중대 제3소대는 존스톤(Johnstone)의 나머지 소대원과 합세하였다. 그들이 고지의 중간을 지나자 적은 또 기관총사격을 해왔다. 두번 이나 공격을 하였지만 적의 화망(火網)을 돌파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제2대대가 공격을 시작한(8월 17일) 직후 A전차중대 제3소대의 M—26 전차는 산간도로(山間道路)로 진출하여 90mm포와 기관총으로 공격을 지원하였다. 해병 장갑차는 제1목표지역의 산봉우리에 있는 적의 중화기에 사격을 집중하여 최소한(最少限) 12문의 대전차포와 몇정의 자동화기를 파괴하였다. M—26 전차도 몇발의 포탄을 맞았으나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같은 날(17일) 20.00 쯤 적은 洛東江 돌출부 싸움이 시작된 뒤에 처음으로 T—34전차 4대를 내 보냈다. 해병 전차대는 이것들을 발견하고 즉시 요격하였다. 적의 전차는 주 보급로를 가로막고 있는 트럭(산간도로에서 약 300m 지점에 있는)을 제거하여야 했다. 해병 장갑차 제1반은 90mm 철갑탄을 장전하였다.

B중대도 102, 109 高地에서 야간방어를 위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가 B중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적의 전차 4대와 뒤따르고 있는 보병의 대열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대대지휘소에 보고하였다.

해병 제33비행전대의 함재기 3대가 제1대대 지휘소 전방의 도로 위를 선회하면서 맨뒤에 따르던 T—34 전차를 격파하고 소총병들을 분산시켰다. 나머지 3대는 그대로 전진하여 지형고지(指形高地)와 吾鳳里 능선을 지나서 125高地 밑에 있는 굽이길에 이르렀다.

관측高地의 제1무반동총 소대는 전차가 접근하는 도로를 향하여 겨누었고, 125高地에 있던 해병 제1대대 대전차공격소대의 3.5인치 로케트포반은 도로 북단(北端)의 진지에 급히 배치되었다. 함재기는 전차 위로 날라와 얼마동안 기관총사격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는 없었다. 102高地 위에 있던 B중대 병사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북괴군 전차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로케트(rocket)포반은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가 맨 앞에 달려오는 전차가 100m 거리 안에 들어오자 제1탄을 발사하였다. 제1탄은 전차의 무한 궤도에 적중(的中)하였다. 그러자 적의 전차도 응사하여 왔다. 다시 두번째 포탄이 또 적의 전차 앞쪽 동체(胴體)에 명중하였으나 적도 여전히 포격을 계속하여 왔다. 이때 함재기가 날라와 로케트탄을 쏘았다. 이 직격탄이 명중하자 전차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두번째 전차는 로케트포와 전차포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세번째 전차는 함재기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전차를 따라오던 적의 보병들은 혼란을 이루고 후퇴(後退)하고 말았다.

어둠이 다가오자 해병대는 참호를 파고 사주방어(四周防禦)에 들어갔다. B중대는 102高地에서 109高地와 117高地 사이의 안부(鞍部)까지 방어선을 확장하여 117高地의 東쪽 비탈을 방어하는 A중대와 경계를 이루었다. 이날 전투에서 해병대의 사상자는 205명(전사 23명, 중상 2명, 경상 180명)이나 되었다.

吾鳳里에서 이와같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美 제24사단 오른쪽의 제34연대와 제19연대는 오후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는 이미 전투기와 야포의 포사격에 의하여 烏項高地는 강타 당한 뒤였다. 공격은 계속되고 제34연대 L중대는 많은 사상자를내었다. 해질무렵에서야 제19연대가 이 烏項高地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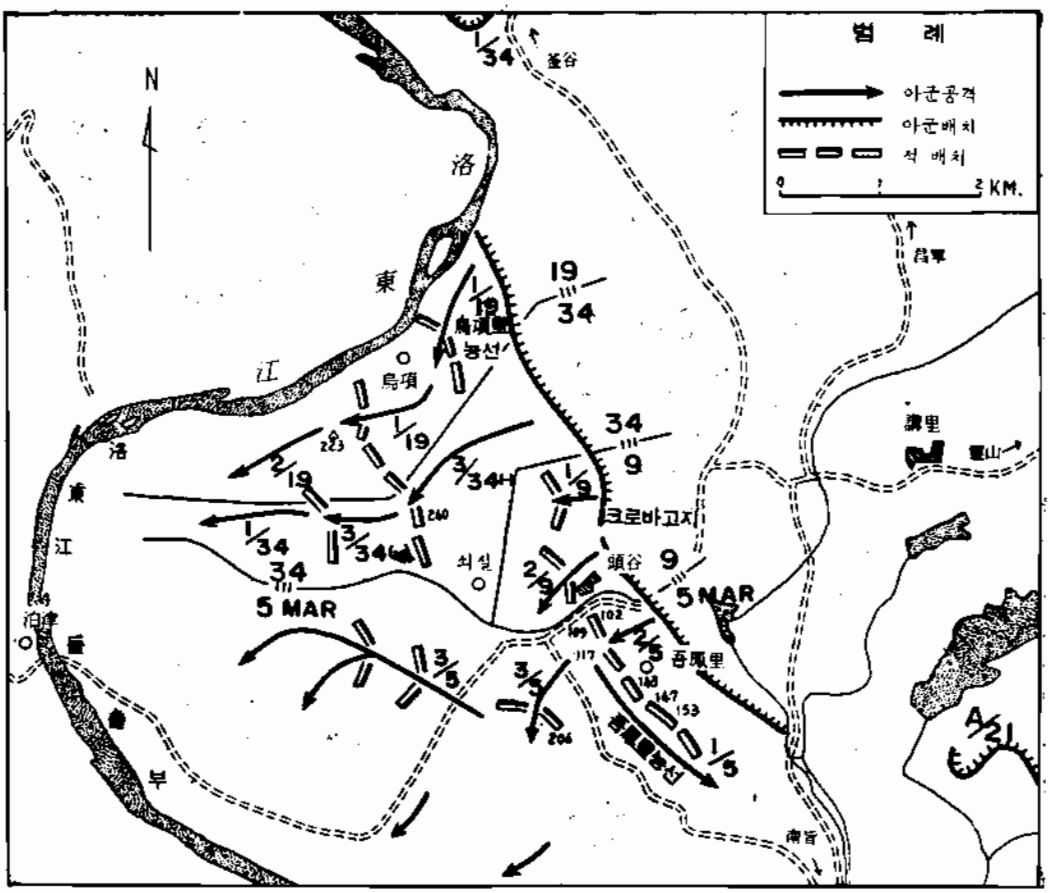
이날 밤 제24사단은 돌출부 안에 들어와 있던 적이 탄약부족으로 말미암아 洛東江 넘어로 철수하겠다고 요청하는 무전통신을 엿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7) 吾鳳里능선 점령

8월 17일 : 저녁 때였다. 美軍의 야포와 박격포는 吾鳳里와 클로버(Clover)高地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와 적의 예상집결지역에 대하여 기점사격을 완료하였고 몇문의 야포는 적의 증원부대에 대비하여 洛東江의 도하지역에 포격을 계속하였다. 이날밤 吾鳳里의 해병대는 적의 역습을 예상하고 진지앞에 촉발조명탄(觸發照明彈)을 묻어 놓았다.

A중대장은 적의 전차를 격파한 뒤 20.30에 그의 제1소대가 109高地와 117高地사이 안부(鞍部)에 위치하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제1소대가 오른쪽에서 B중대와 연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왼쪽 능선에 있는 A중대의 다른 2개 소대와는 약 100m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상황도 제9호 洛東江 돌출부에서 적 교두보 파괴(8.14~18)



A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서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소대장들은 이미 날이 저물었고 병사들이 피로한 데다가 식량, 식수,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공격을 반대하였다. 더구나 적이 대담하게도 대낮에 전차를 동원하여 공격하여 온 것을 본 소대장들은 적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중대장은 이와같은 실정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공격을 중지하고 밤사이에 B중대와 연결하여 방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B중대는 초저녁에 102高地와 109高地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튼튼하게 하였다.

8월 17일 늦게 吾鳳里 능선에 대한 공격을 끝낸 美해병여단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야간 진지방어를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역습에 대비할 것과 치밀한 진내(陣內) 진외(陣外) 사격계획 및 전방부대와의 통신연락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

시하였다.

피로에 지쳐 있는 2개 해병 전방중대(A중대, B중대)는 117高地에서 적의 산발적인 사격을 받으면서 밤 늦도록 개인호를 파고 자체방어편성을 하였고 이때 韓國人 노무자(勞務者)들은 전방 능선에 보급품을 나르고 사상자들을 후송(後送)하였다.

A중대장은 117高地와 109高地 사이의 안부(鞍部)를 통하는 계곡 윗쪽에 A중대 지휘소를 설치하고 바로 그 부근에 60mm 박격포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8월 17일 밤 20.00쯤이었다. 적의 박격포탄이 A중대 지역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백린탄(白燐彈)이 중대지역 중앙부에서 폭발하여 계곡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부상을 입었고, A중대장은 박격포를 남겨둔채 그 협곡을 빠져 나왔다. 제3소대에도 박격포탄이 날라왔다. 소대장과 몇명이 부상 당하였다.

다음날(18일) 02.30쯤이다. 117高地에서 적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산꼭대기에 있는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고 해병대 진지로 수류탄이 날라왔다. 바로 이때 적의 약 1개소대가 A중대 제2소대에 육박하여 왔다.

한편 이때 109高地의 B중대 진지도 골짜기를 따라서 西쪽으로 진출해 온 적 약 2개 소대의 공격을 받았다.

제1대대의 81mm 박격포는 조명탄을 발사하여 부근 일대를 환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적은 117高地에서 뿜어대는 중화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류탄조(手榴彈組)와 다발총조(多發銃組)와 돌격대가 해병대 진지에 교대로 공격하여 왔다. 또 적의 1개 분대는 109高地와 102高地 사이에 안부(鞍部) 西쪽에서 나타나 B중대의 南쪽 주 방어선을 교란하려고 하였다.

A중대 제2소대는 자체내의 병력만으로 30분동안에 세차례나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으나 03.00에는 제2소대는 진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적은 해병대 방어선에 침투한 뒤에 적 1개 분대만이 제2소대의 등 뒤에 있는 A중대 지휘소에 침입하여 A중대의 중앙을 돌파하였다. 중대장과 중대본부 요원들은 수류탄과 자동소총 공격을 받고 하는 수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

A중대 제1소대는 안부에 그 左측방이 노출된채 철수하여 105高地 南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B중대의 左측 전방은 소수의 적이 침투하여 109高地에 있는 B중대본부를 습격하였

다. 본부 행정요원과 로케트포와 박격포 사수들은 즉시 응전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B중대장은 109高地의 南쪽 안부가 적에게 점령되었음을 알고 제3소대를 예비진지에 배치하여 左측방을 강화하였다.

제1대대장은 左측방의 A중대가 철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접근하는 적에 대하여 대대적인 포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吾鳳里 능선에 대하여 여단 포병대대의 맹렬한 지원포사격이 시작되자 제1대대의 81mm박격포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8월 18일 : 새벽까지 적의 공격부대는 이 지원포격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하였고 B중대는 102高地와 109高地를 쉽게 장악 점령하였다. 살아남은 적은 117高地에서 기관총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후퇴하였다.

美 해병대는 8월 17일밤의 격전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B중대는 195명중 110명이 살아 남았으며 A중대는 185명중 90명이 살아 남았다. 다음 날 아침 A중대와 B중대의 방어선 주위에서 183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동이 튼 다음 해병대 제1대대는 다시 편성되었다.

A중대는 8월 18일 07.00에 공격준비를 끝내고 대대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보고한 뒤 제3소대장에게 117高地를 탈환하라고 명하였다.

제3소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117高地의 적은 기관총으로 제3소대의 전진을 저지시켰다. A중대장은 즉시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몇분 뒤에 해병대의 함재기 1대가 나타나더니 제3소대 상공에 이르러서 적진지에 250kg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폭탄이 적의 포상에 명중하여 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제3소대가 고지에 닿았을 때는 적의 기관총은 파괴되고 적병은 모두 죽어 있었다. A중대는 그뒤 5분만에 117高地의 산정(山頂)을 무난히 점령하였다. 제3소대는 다시 143高地를 공격하여 적의 가벼운 저항을 받은 뒤 고지의 산꼭대기를 탈환하였다. 이어서 147, 153高地가 차례로 해병대의 손에 들어 왔다. 대부분의 적은 도주하였고 몇몇 남아있던 적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살되고 말았다.

(8) 북괴군 제4사단의 패주

해병 제5연대 제1대대가 8월 18일 吾鳳里 南쪽에서 적을 축출하고 있을때 제3대대는 연대장에게서 공격명령을 받았다. 타프렛트(Taplett) 대대장은 G중대장과 H중대장을 데리고 주 보급로의 南北 요충지에서 제2목표인 207高地를 정찰하고 吾鳳里 능선 北쪽에 대

대관측소를 설치하는 한편 F중대와 H중대를 이 능선의 산기슭 집결지로 전진시켰다.

그리고나서 대대장은 제2 공격목표에 대한 야포와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A중대가 吾鳳里 능선으로 진출함에 따라 207高地를 통과하는 적의 병력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시로 사격 방향을 돌렸다. 지형능선(指形稜線)의 바로 南쪽에 있는 두개의 큰 비탈은 207高地에 이르는 접근로인 것이다. H중대는 吾鳳里와 지형능선 사이의 주 보급로에서 약 1km 거리의 벌판을 통과하여 東쪽 비탈로 G중대는 右측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西쪽 경사면으로 진출하였다.

G중대와 H중대는 공격도중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제압하고 12.30에 207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제3대대가 이와같이 쉽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즉 제3대대가 207高地 위로 전진할 때 공중 관측병과 전방 포병관측병 및 전방보병부대들이 洛東江 西쪽으로 철수하려는 적을 목격하고 정오 쯤에 이를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전방 관측병의 조종을 받아가며 美軍 야포는 철수하는 적에게 포탄을 퍼부었다. 도하지역에 대한 포격으로 적은 큰 피해를 입었고 강을 헤엄쳐 건너가던 많은 적병이 섬멸되고 말았다. 또한 전투기는 吾鳳里 西쪽 비탈로부터 강으로 뻗은 길 위에서 패주하는 적을 놓치지않고 사격하였다.

207高地를 점령한 뒤 머레이(Murray) 제5연대장은 제3대대에게 洛東江 전면의 마지막 능선인 311高地로 계속 공격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G중대와 H중대는 15.30 경 207高地를 내려왔다. 그들은 제1전차대대와 만나서 제3목표 311高地 산기슭까지 엄호를 받으면서 전진하였다. 보병이 공격하기에 앞서 해병 합재기편대는 네이팜탄으로 높은 지대를 초토화시키고 야포, 박격포, 75mm무반동총은 전사면(前斜面)에 대하여 사격을 한 뒤에 G중대와 H중대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그들은 산꼭대기의 200m앞까지는 순조롭게 전진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저지되고 말았다. 정면의 적은 1개 소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잡목이 무성하여 해병대는 불리한 상태에 있었다. 17.30에야 G중대는 적의 미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산봉우리의 南쪽에 도달하였다. G중대는 北쪽으로 나아가서 H중대와 대치하고 있는 적과 육박전을 벌였다. G중대장은 그의 제1소대를 左측으로 보내서 적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적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였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제3대대장은 2개 중대에게 그들의 현 진지에서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G·H 두개 중대는 18일 밤이 새도록 고요한 가

운데 고립된 적과 대치(對峙)하고 있었다.

8월 19일 아침 06.10에 제3대대의 81mm박격포는 311地地에 대하여 포격을 시작하였고 포격에 뒤이어서 H중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311高地의 北쪽 한 모퉁이에 이르렀다. 이 고지를 완전히 확보한 것은 8월 19일 06.45였다.

이리하여 美 해병대는 적의 교두보를 드디어 탈취하고 말았다. 전사 66, 실종 1, 부상 278명이었다.

한편 美 제19연대와 제34연대는 제24사단의 右측방에서 南쪽과 東南쪽으로 전진하여 돌출부 안에 들어 왔다. 몇군데서 적의 가벼운 저항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이것마저 없어졌다. 烏項高地를 점령한 제19연대의 병사들은 약 100명가량의 북괴군이 10~15명씩 조(組)를 짜서 洛東江 西쪽으로 건너 도주하는 것을 저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 전투기가 날아오더니 이들을 기총소사로 섬멸시키고 말았다.

북괴군 제4사단은 8월 18일 저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洛東江을 건너 패주하기에 이르렀다.

해병대와 제34연대는 洛東江에서 만나게 되었고(19일 아침) 수색대는 이날 오후에 걸쳐 강가 일대를 정찰하였으나 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洛東江 돌출부의 탈환전은 끝난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해병대 병기반은 파괴되거나 버려 둔 적의 중화기(重火器)를 수집하여 34문의 야포를 수리하였고 이중 18문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釜山—洛東江 선에 배치하였다. 야포의 최대구경(最大口徑)은 122mm였다.

북괴군 제4사단이 洛東江 돌출부 전선에서 패주한 다음날 8월 19일에 북괴군 총사령부에서는 大田 전투의 공적으로 수호사단(守護師團)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손실이 워낙 막대하였기 때문에 그뒤에는 줄곧 손실한 인원과 장비를 보충하지 못하다가 中共軍이 전투에 참가한 1950년 12월에 가서야 겨우 다시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洛東江 돌출부 탈환작전에서 피치히터(Pinch hitter)로 활약하던 美 제1해병여단은 돌출부 전투가 끝난 8월19일 오후에 美 제8군의 해속 해제 명령을 받고 9월 1일까지 馬山 東쪽에 있는 昌原 근교에 집결하여 美 제8군의 예비대로서 땀을 씻으며 숨을 돌리게 되었다.

3. 馬山 西側方의 偵察戰 (50년 8월 2일부터 50년 8월 6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0, 11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美 제25사단장 소장 킨(William B. Kean)
부사단장 준장 윌슨(Vennard Wilson)
제24연대장 대령 화이트(Horton V. White)(1950. 8. 6.)
대령 챔프니(Arthur S. Champney)
제1대대장소령카아슨(Eugene J. Carson)
제2대대장 중령 코올(George R. Cole)
제3대대장 중령 코올리이(John T. Corley)
소령 브레이어(Melvin R. Blair)
제27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1대대장 중령 체크(Gilbert John Check)
제2대대장 중령 머어치(Gordon E. Murch)
제3대대장 중령 데코(George H. De Chow)
제35연대장 휘셔(Henry G. Fisher)
제1대대장 중령 티이터어(Bernard G. Teeter)
2대대장 중령 윌킨스(Wilkins)
제3대대장 소령 울포오크(Robert L. Woolfolk)

배속부대

美 제29연대 제1대대장 중령 윌리슨(Wesley C. Wilison)
閔 部隊장 대령 閔 機 植
金 部隊장 중령 金 聖 恩
병력 약 15,800명
장비 전차 5대

적 군

북괴군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1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제13연대 장 대좌 韓 日 東
제15연대 장 대좌 金 顯 塔
포병연대 장 중좌 朴 海 民
병력 약 5,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 북괴군 제4 및 제6사단의 우회(迂廻)

북괴군은 남침을 시작한 뒤 1일 평균 7.3km의 진격속도로 남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戰線)이

南쪽으로 이동할 수록 그들의 전진속도는 점차적으로 감퇴되고 약화되어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美 공군의 차단공격이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의 공세가 약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괴군은 8월 15일 안에 최종 목표인 釜山을 점령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7월 31일, 美 제8군은 포로의 심문과 무전(無電)의 정취(聽取)로 적의 제4사단과 제6사단이 洛東江 西南방면으로 우리 방어선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적의 제4단과 제6사단은 개전 이래 韓·美 양군이 접촉을 하면서도 그 단대호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7월 초순 이후는 이 2개 사단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의 기동이 판명되었으니 美 제8군과 東京(日本의)에 있는 맥아더(Mac Arthur) 사령부는 물론 워싱턴(Washington)의 美 합동참모부의 수뇌부에게 까지도 경종을 울렸던 것이다.

즉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이 6월 29일에 최초로 韓國 전선을 시찰하고 그가 계획한 仁川 상륙 계획이 적의 급속한 南進으로 좌절되자 7월 23일 새로운 상륙계획(Chromite)이 수립되고 (美 본토에서 증원될 제1해병여단과 美 제2사단으로 9월 중순에 仁川, 群山, 注文津 지구로 상륙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전세(戰勢) 변화에 따라 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한 상륙부대를 洛東江선에 배비하기로 변경시키는 동시에 日本에 주둔 중인 美 제7사단과 증원 예정이던 美 제3사단도 韓國 전선에 급파(急派)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 제6사단의 기동은 그들의 목표가 馬山을 거쳐서 단숨에 釜山을 점령하려고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워커(Walker)사령관은 적 제6사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晋州 방면에서 지연전을 하고있는 美 제29연대 (2개대대), 美 제24사단 제19연대 (2개대대), 美 제25사단 제27연대 (7월 30일 밤에 제24사단에배속), 그 밖에 아군의 閔機植 부대, 李應俊 부대가 있었지만 적부력이 약화된 이들 부대로서는 위기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晋州 南쪽에서 방어 중인 美 제25사단을 馬山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진(轉進) 명령을 8월 1일 14.00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의 요지는 "제25사단은 즉시 三浪津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시킨 뒤 馬山 방면으로의 반격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조치는 美 제25사단으로 하여금 三浪津에서 洛東江의 천연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美 본국에서 釜山에 도착할 증원부대로 하여금 반격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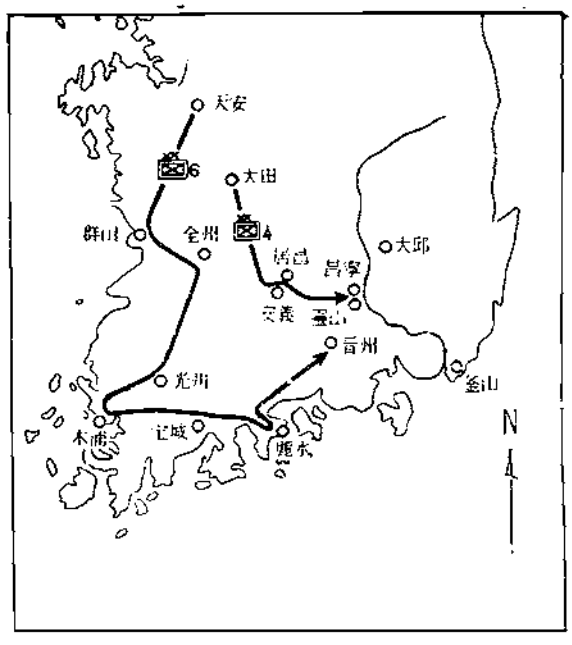
(2) 馬山은 釜山의 西쪽 관문

馬山은 慶尙南道 제2의 도시로서 1950년 현재 인구는 10만명에 이르고 釜山에서 西쪽으로 57km 지점, 晋州에서는 東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것이다. 육로 철로 해로등 교통도 편리하며 상업도시로 발전하였고 수질(水質) 이 좋아서 양조업(釀造業)으로도 이름이 높을 뿐아니라 수산물도 집산된다.

馬山港 입구에는 오른 쪽에 아 해군의 본거지인 鎭海에 군항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철도는 晋州—三浪津(晋州線)이 있고 昌原—鎭海線(支線)이 있다. 육로로는 晋州에서 馬山에 이르는 철도 연변의 병행 도로와 우회로 (迂廻路)로서 泗川—固城—鎭東을 거쳐 馬山에 이르고 馬山에서 釜山에 이르는

도로로는 昌原－進水－金海－龜浦－釜山과 鎭海－金海－龜浦－釜山에 이르는 도로가 있으니 이 지역이야 말로 南해안의 요충이며 명실상부한 釜山 西쪽의 관문인 것이다.

상황도 제10호 적 제4사단 및 제6사단의 우회작전



(3) 적 제6사단의 馬山 西측방 접근

적의 제6사단은 서울을 거쳐 天安에서 西해안쪽으로 南進하여 湖南지방을 거의 무혈(無血)로 휩쓸고 晋州를 점령할 때까지 부대를 자랑하여온 사단으로서 사단장은 方虎山이었다.

이른바 적의 제4차작전 (7월 21일 시작)은 주공을 金泉－大邱선으로 하여 이쪽에서는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25사단을 섬멸하고 측면에서 우회 공인 제4, 제6사단으로 하여금 급속히 洛東江을 건너 釜山을 점령하려는 그들의 종국적인 승리를 목적으로한 작전이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은 작전예비대인 제7, 제9, 제10사단을 洛東江 돌출부 방면에 투입하게된 것이다.

특히 적의 제6사단은 신속한 기동전을 위하여 제83모터사이클연대(전차와 사이도 카로 구성)가 배속 되었다. 제6사단장 方虎山은 馬山을 가르켜 "우리가 馬山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니 얼마나 馬山을 중요시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적의 제6사단은 7월 22일 全州를 점령하고 23일에는 光州에서 분진(分進)하여 예하 제13연대는 木浦로 제1연대는 寶城으로 제15연대는 晋水로 향하였다.

적의 기동은 성공하면서도 한편 2일간의 지체로 그 동안 美軍 증원부대의 상륙을 허용하게 되었고 馬山에 대한 적의 공격은 곤란하게 되었다.

(4) 美 제24사단의 방어 준비

晋州를 내 놓고 철수한 美 제19연대장은 7월 31일 오후에 晋州 東쪽 (晋州－馬山사이 도로) 약 10km 지점에 있는 將軍峰(△482) 南쪽의 晋州 고개 마루턱에서 제1대대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한편 제2대대는 宜寧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美 제19연대장은 이날 저녁 무렵에 馬山西面 武林里의 竹峴 부락 부근에 연대지휘소를 두었다. 여기서 馬山에 이르는 도로가 南北으로 갈리는데 北쪽 길은 群北－咸安를 거쳐 馬山에 이르고 南쪽길은 大井里(昌原郡 鎭甲面)와 鎭東里를 거쳐서 馬山에 이르게 된다.

이 南北으로 열린 두개 도로의 중앙지대에는 宜寧－咸北－大井里에 이르는 도로와 咸安－咸安

鎭東에 이르는 종심(縱深) 도로가 있다. 이 종심도로의 중앙에 艦航山=筆峰(△742) 西北山(△738) 수리봉(△550)을 이어주는 산맥이 펼쳐 있다.

晋州—馬山사이의 도로는 美 제19연대가 방어진을 형성하였으나 晋州—泗川—固城—鎭東에 이르는 도로는 무방비 상태로 배비되어 있었다.

이날 (7월 31일) 20.00에 美 제19연대장은 제24사단장 처어치(Church)소장에게서 통신을 받았는데 中里(馬山 西北쪽 7km 지점 昌原郡 內西面)에서 美 제25사단의 제27연대장과 함께 곧 만나자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제19연대장의 부대 상황 보고를 들은 다음 구두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때 명령이 분명치 않아서 큰 혼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명령 수령이 끝나자 제19연대장은 지휘소(武村里 위치)로 돌아갔고 제27연대장은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제27연대는 倭館에서 軍 예비대로 있다가 昌寧을 거쳐서 馬山으로 이동 중이었다)

8월 1일 03.00에 부대가 도착하자 제27연대장은 中岩里 西쪽에 있는 고개 마루턱에 방어 진지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고 장교 3명을 거느리고 새벽에 中岩里 西쪽의 큰어석재(掛榜山=△455)에 도착하여 지형 정찰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이 때에 제19연대의 작전주임 보좌관도 자기 연대의 지연 진지를 정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도착하여 제27연대장을 만났는데 서로 부대 배치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美 제27연대장은 정오 쯤에는 中岩里의 진지에서 부대를 철수시켜 鎭東里로 전진(轉進) 하였다.

오후에 도착한 제27연대는 鎭東里 西쪽 2km 지점에 있는 東村부락의 左右 능선에서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경계부대를 谷安里 전방에 배치하였다.

제27연대장은 鎭東里에서 전방을 정찰하기 위하여 谷安里에 이르렀다. 여기서 뜻밖에 처어치 사단장을 만났다. 사단장은 여기서 제27연대장과 부대 배치를 의논하였는데 사단장은 이곳에(谷安里) 1개 대대대를 배치하고 제19연대와 협조하여 晋州 방면에 정찰대를 보내서 접적(接敵)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그 후 제27연대장은 전화로 제19연대장에게 8월 2일날 06.00에 기갑정찰대를 편성하여 晋州 방면에 정찰 행동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 谷安里에서 제27연대장과 부대배치를 의논하고 있을 때 마침 사단장은 馬山에 전차 1개중대가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실은 8월 1일 韓國戰線에 새 무기 美軍中型戰車가 도착하였다.) 처어치(Church)사단장은 제8군 사령관에게 전차기갑 정찰대로 하여금 전투정찰대를 晋州 방면에 파견시키 겠다고 건의하자 워커(Walker) 사령관은 이를 쾌락하고 격려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처어치 (Church)사단장은 제19연대와 제27연대장에게 "내일 (2일) 06.00를 期하여 배속된 전차지원 밑에 晋州 방면으로 전진하여 전투정찰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그 뒤 제27연대장은 전화로 제19연대장에게 8월 2일 06.00에 기갑정찰대를 편성하여 晋州 방면에 대한 정찰 행동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제27연대장은 지휘소를 鎭東里 국민학교에 두고 제2대대를 谷安里의 앞고지에, 그리고 E중대를 鳳岩里 전방의 鉢山 고개 左右에 경계 부대로 배치하였다.

정찰대로 행동할 제1대대는 제2대대 후방의 집결지에서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정찰대에는 제89전차대대 A중대 제2소대의 전차 5대가 배속되었다.

한편 제19연대의 카트리 대위가 정찰을 마치고 武村里에 있는 지휘소에 돌아왔을 때 연대장은 제1대대를 烏洞으로 철수시키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카트리 대위가 정찰한 몇개 진지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하는 것 보다는 바로 烏洞으로 철수하여 적에게 대비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각개 격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철수를 시작 14.00에 烏洞 근처에 집결 하였고 대대장은 엄호부대를 지휘하여 진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대대 주력이 철수하고 나서 한 시간쯤 되었을 때 美軍 필차를 타고 접근하는 적의 정찰병 2명을 사살하고 필차를 노획하였다.

제19연대장은 제1대대를 烏洞과 右측방 능선에 그리고 関 부대를 左측 능선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 제2대대도 晋州에서 宜寧을 거쳐 제1대대 진지를 통과하여 연대 예비대로서 中岩里에 집결하였고 山淸 방면에서 철수한 제29연대 제1대대와 河東에서 타격을 받은 제3대대도 中岩里에 집결하여 예비대가 되었는데 이때의 연대 병력은 1,273명에 지나지 않았다.

제19연대장은 8월 1일 20.00에 배속된 제29연대 제1대대장에게 8월 2일 아침 武村里 부근에 대한 정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 정찰대의 정찰 계획이 고개에 배치된 제1연대 제1대대장에게는 통보가 안되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掛榜山(큰어식재)의 총돌

제29연대 제1대대장은 8월 2일 아침에 배속된 전차 1개소대와 장갑차 그리고 22대의 트럭으로 차량화정찰대(車輛化偵察隊)를 편성하고 C중대원 5명씩을 전차와 장갑차에 태웠다.

8월 2일 : 05.30에 中岩里를 출발한 정찰대가 큰어식재에 배치된 제19연대 제1대대의 진지를 통과하여 선두전차가 100m가량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200m 앞에서 기관총(3정) 사격을 갑자기 받게 되었다.

전차에 올라탔던 병사들은 차에서 내리다가 모두 총을 맞았고 일부는 도랑에 뛰어들었으나 그곳에는 적병들이 숨어 있었고 여기서 격투가 벌어졌다.

적병들은 四方에서 전차에 기어올라왔으나 이들을 후들겨 버리고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면서 400m를 전진하던 중 적의 박격포탄이 선두전차에 명중하여 승무원 2명이 전사

하고 전진이 멈추어졌다.

고개를 넘었던 반수가량의 장갑차와 트럭들은 파괴 또는 불타고 말았다. 이것은 후미의 트럭이 적의 대전차포의 사격을 받고 불탐으로 회전불능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차량에 분승(分乘)하였던 병사들은 뛰어내려 도로변 논뚝에 산개하였으나 사방의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뒤에서 보고 있던 제29연대 제1대대장은 고개에 배치된 제19연대 제1대대장에게 저수지와 그전방은 모두 적들이라고 경고해 주었다.

른어식재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게된 부대들은 전날 밤중에 야간(夜間) 행동을 하다보니 부대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었다.

関 부대는 고개의 왼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이 능선은 五峯山 (△524)에서 흐른 350高地, 229高地와 연결되는 関 부대는 229高地의 左측방을 점령하므로써 제19연대 제1대대 진지와는 1.5km나 간격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제19연대 제1대대는 오른쪽 掛榜山(△455)의 산정(山頂) 까지를 점령하게 되어 있었는데 산정에 올라가던 B중대가 8부능선에서 주저앉아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 점령할 생각에서였다.

한편 적은 2일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산정을 다른 쪽에서 공격 점령하고 있던 중 B중대를 발견하고 기습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몇명이 전사하였다. B중대를 공격한 적은 고지에서 내려 오면서 길 부근에 혼합되어 배치된 제29연대 제1대대의 B중대(62명)와 제19연대 제1대대를 四方에서 사격을 하고 제19연대 제1대대와 関 부대의 간격을 이용 침투한 적이 후방의 박격포 진지를 무너뜨리고 도로를 차단하였다.

제29연대 D중대의 박격포는 몰려드는 적에게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켰다.

제29연대 제1대대 C중대는 掛榜山을 탈환하므로서 오른쪽의 적을 구축(驅逐)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 제1대대와 関 부대 사이의 계곡으로 (단선철도) 침투해 온 적에 대하여는 예비대로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가 역습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때 関 부대를 적으로 잘못 알고 약간 혼란이 있었다.

제19연대장은 関 부대 뒤에 제29연대 제3대대를 배치 하므로서 이 쪽에는 5개대대가 집중되어 있어서 피아(彼我)의 구별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오후에 이르러서 적의 공격은 일단 중지 되었는데 美軍의 손실은 90명이 넘었고 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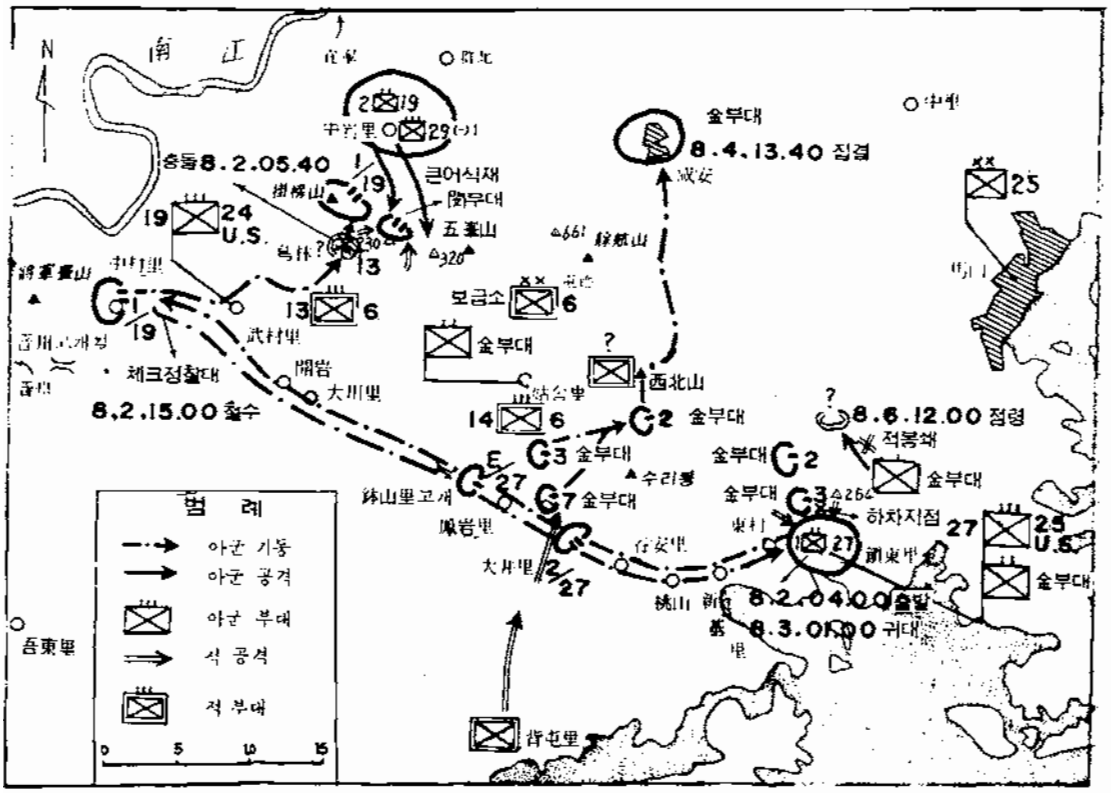
손실은 알 수 없었다.

적은 제6사단 제13연대의 약 1개대대 가량의 병력이 었음이 판명되었다.

(3) 체크(Check) 정찰대 (제27연대 제1대대)의 충돌

8월 2일 : 04.00에 美 제27연대 제1대대장 체크(Check) 중령은 美 제8야전포병대대 A포대와 셔어만(Shermans) 전차 1개소대(4대)의 배속을 받아 대대는 차량화로서 정찰

상황도 제11호 체크(Chcek)정찰대의 충돌



대를 편성하고 鎭東里를 출발하여 晋州 쪽으로 향하여 전진하였다.

중간목표는 武村里의 도로교차점이었다. 大川里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던 적 약 30명을 발견하였으므로 곧 이들을 급습하여 대부분 사살하고 그중의 2명은 포로로 하였고 도망자는 몇명 안 되었다.

오후 좀 지나서 선두 전차부대가 武村里를 지났을 때 마침 將軍峯山의 晋州 고개를 넘어서 내려오고 있는 적의 보급차량부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적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

는데 보급품은 식량, 피복, 탄약, 의약품 등이 10여개 차량에 가득차 있었다.

이때 美軍 정찰기가 통신통을 투하하였는데 "적의 후속하는 차량 대종대(大縱隊)가 고개에서 회전하고 있다."는 연락이었다. 이리하여 선두 전차 4대가 고개로 향하였는데 때마침 美軍 전폭기 편대가 적의 차량부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정찰대의 주력인 대대는 전진을 중지하고 차량은 부대로 복귀시키고 도보정찰로 전환하였다.

제27연대 제1대대장은 적이 발사한 대전차포의 공격을 받고 궤도가 파괴된 전차를 응수리 시킨 다음 운전병이 부상당하였으므로 병사중에서 불도저 운전 경험자를 뽑아서 운전을 시키면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적의 반격으로 전진은 중지되었고 일부의 적은 배후로 우회하여 전후방에서 협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제27연대장은 07.00 쯤 해서 제19연대장에게서 그 연대의 상황을 연락 받고 있었다. 얼마 후 체크(Check) 정찰대의 후방이 차단되고 鳳岩里 고개의 E중대도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다.

8월 2일 15.00 경에 제27연대장은 포로의 진술과 지형을 종합 판단한 결과 현재의 적은 제6사단의 일부 선견대이고 사단 주력은 將軍峴 고개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게 되었다. 정찰 목적을 달성한 제27연대장은 체크(Check) 대대장에게 연락기로 통신통을 투하하여 명령하기를 "귀 대대는 복귀할 것. 대대 후방은 적에게 차단 되었으므로 전차를 선두로 하여 돌파하고 포사정거리에 도달하면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체크(Check) 대대장은 불탄 전차를 다른 전차로 견인하여 앞세우고 나머지 전차와 장갑차량을 후위로 하면서 보병은 양측방 고지를 전진하기로 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하늘에는 美軍 전투기가 엄호하고 있었으나 적은 요지에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해왔다. 전차포로 이를 제압하고 또 보병은 이를 공격하는 등 적의 봉쇄지역을 돌파하면서 鳳岩里에 이르렀을 때 지원포병은 철수부대의 후미를 따르고 있는 적 약 1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에게 포사격을 하여 250명이나 사살하였다.

체크(Check) 대대는 01.00 쯤 본부가 있는 鎭東里 국민학교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이때의 사상자는 30명이었다.

체크(Check) 정찰대장은 보·전·포·공병등의 여러 부대를 훌륭하게 지휘하였다는 전공으로 십자훈장(十字勳章)을 받았다는 것이다.

(3) 鎭東里의 역전승

제27연대본부가 있는 鎭東里는 馬山 西南쪽 17km 지점에 있으며 이곳은 咸安에 이르는 분기점이다.

체크(Check) 대대는 鎭東 국민학교에서 숙영을 하였는데 교정에는 제11포병대대의 A 포대가 포진하고 부근에는 제 8 포병대대가 있었다.

8월 3일 : 아침 교사(校舍)안에서 혹은 교정에서 장병들의 식사가 거의 끝나 가고 있을 무렵 07.00 쯤 학교 뒷편의 254高地 능선 아래 쪽에서 불의의 기습사격을 받게 되었다. 보초병은 적이 접근하는 것을 韓國軍이 지원 오는 줄 알았고 또 일부는 잠자고 있다가 기습을 받게 된 것이다. 기관총·다발총·수류탄이 집중되자 학교 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은 집중포화 속에서 태연히 학교 운동장 중앙에 나가서서 사격을 침착하게 하고 빨리 지휘체계를 정리하여 중화기의 엄호사격밑에 소총부대가 적을 공격하라고 하면서 목표를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박격포탄이 적진에 날라가고 전차도 출동하고 포대는 근거리 사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은 계속 집중사격을 해 왔다.

A 중대장은 적이 있는 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기관총 2정을 격파하고 적을 사살하였는데 이것은 연대장이 교정에서 지휘하기 전의 일이었다. A 중대장은 발에 부상을 입고 내려와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고지로 올라갔다. A 중대가 고지를 점령하였을 때 鎭東里 北쪽 1km 지점의 咸安 도로에 약 30대의 차량에 탑승한 적이 하차하는 것을보았다. 이를 포착하자 제 8 포병대대는 계속 집중사격을 퍼부어 이들을 거의 모두 사살하고 말았다.

12.00에는 체크(Check) 대대가 적의 고지를 점령 하였는데 이때에 적도 만만한 역습으로 집요한 공격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측의 집중포화로 완전히 격퇴되고 말았다.

체크(Check) 대대의 손실은 전사 13명 부상 40명이었다. 13.00에 적은 600여명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였는데 대부분은 제 8 포병대대의 포격에 의한 것이었다.

적의 제 6 사단은 2일 낮에 정찰한 결과 鎭東里에 연대지휘소와 포병진지가 보병들의 엄호 없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적 제 1 연대를 西北山 南쪽으로 침투, 우회하여 鎭東里를 기습하라고 하였다. 적의 사단장 方虎山은 체크(Check) 대대가 철수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대대가 鎭東里로 돌아온 것은 모르고 있었다. 鎭東里를 3일 새벽

에 1개대대로서 점령하고 주력은 단숨에 馬山으로 진출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는 달리 기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체크(Check) 대대의 반격으로 기습대대가 섬멸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적 제1연대장은 급히 1개대대를 차량으로 증원시켜왔다. 그러나 이것도 하차지점이 노출되어 순간에 괴멸되고 말았다.

이날 밤 (8월 3일) 美 제27연대의 통신대에서는 적이 도로변의 체신 전화선을 이용하여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엿 들어 본 결과 적의 사단장 方虎山이 제1연대장에게 작전 실패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적 사단의 보급소가 西北山 北쪽 광산촌인 屯德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예비대인 제15연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적 제6사단이 馬山 나아가서는 釜山으로 진격하려던 몽상(夢想)은 北쪽도로를 공격하던 제13연대가 掛榜山 일대에서 참패하고 제1연대의 공격도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개전 이래로 東北 의용군으로서 기고 만장한 허세도 무참하게 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타격으로 말미암아 적 제6사단장은 전투력이 반감되고 그들의 공격기동의 핵심이었던 전차부대도 연료부족으로 숨통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美 제27연대장은 탁월한 지휘와 鎭東里의 승리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

(4) 아 해병대의 鎭東里 부근 전투

(가) 大井里 부근의 충돌

晋州에서 철수한 아 해병대는 馬山에서 정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이 부대를 지휘하는 李 應俊 소장(西部地區戰鬪司令官)으로부터 8월 1일 13.00에 새로운 임무를 받게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해병대는 馬山을 향하여 東進하고 있는 적을 鎭北에 배치된 제7사단과 협동하여 鎭東里西방에서 저지 섬멸하라"

이와 같은 명령은 美 제19연대와 美 제27연대의 중간에서 아군이 협조된 저지작전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것이었다.

부대장 金 聖恩 중령은 8월 1일 18.00에 부대를 지휘하여 22.30에는 鎭東里를 거쳐 鳳岸里의 계곡으로 들어가 姑舍里에 도착한 뒤에 이곳 지서(支署)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 뒤 수집된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晋州를 점령한 적의 일부 병력은 固城을 지나서 鎭東里 西南쪽 12km 지점에 있는 舟化里 (固城郡 會華面)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武村里 쪽에서 東進하는 적이 鳳岩里로 진출한 것을 예상하고 제 3 중대를 그 北쪽 능선 위에 각각 배치한 다음 제 7 중대를 그 후방에 있는 344高地에 배치하였다.

제 1 중대(중화기중대)는 차량이 부족하여 8월 2일 오후에야 新金里로 차량 이동 중 鎭東里를 지나 谷安里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적의 기습 사격을 받아 중대장 이하 9명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적은 1개분대 미만의 정찰대로서 민간복으로 변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계(奇計)를 간파(看破)하게된 아군(我軍)은 곧 이 부락을 일시에 공격하여 섬멸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자신이 부상을 당한중대장은 전방에는 더 많은 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더 이상 나가다가는 어떠한 함정에 빠질는지 모른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 중대를 이곳에서 되돌려 鎭東里로 이끌고 돌아왔다.

鎭東里에서 제 1 중대는 본대와의 연락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으나 좋은 방법이 없었고 4일에야 비로소 본대가 咸安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여기에 합세하게 되었다. 본대에서도 끝내 제 1 중대의 행방을 모른 탓으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金 부대장은 2일 낮에 이곳 주민들 사이에 적의 첩자가 있음을 발견한 결과 날이 어두어지기를 기다려서 진지를 변경하려고 제 2 중대를 西北山 南쪽 2km 지점의 능선으로 그리고 제 3 중대를 제 7 중대의 北쪽에 있는 428高地의 西쪽 능선에 각각 이동 배치토록 하였으니 이는 우리 진지가 적에게 목로 되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의 선봉대는 8월 3일 날이 밝기 전에 전차(戰車)와 사이드카를 앞 세우고 그 뒤에는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는 적의 주력이 武村里쪽에서 鳳岩里로 가는 길을 따라서 제 7 중대의 진지 앞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적의 접근을 보고 받은 부대장은 제 7 중대장과 제 3 중대장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고 적이 100m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사격개시를 명령하였다. 이렇게하여 불의의 사격을 받게 된 적은 혼란 상태에 빠져 후방으로 분산 퇴각하였는데 여기서 적의 전차 2 대를 비롯하여 트럭 4대 찔차 2대 기타 소총과 기관총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8월 3일 : 06.00쯤에는 舟化里 방면에서 전진한 적의 일부는 제7중대 진지의 후방에 있는 469고지 방향에서 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 때 金 부대장은 제 7 중대로 하여금 배

후의 적을 공격토록 하는 동시에 또 제3중대로 하여금 측방에서 60mm 박격포로 지원화력을 집중발휘토록하였다. 박격포탄이 불시에 적 진지에 집중되자 08.00쯤에 이르러 적은 하는 수 없이 鎭東里 쪽으로 퇴각을 시작하게 되니 우리 진중에서는 함성이 높았다.

제7중대가 469高地에 이르자 다른 일부의 적이 또 길 南쪽 담안의 소로를 따라 제3중대와 제7중대의 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3중대에서 곧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사격을 집중하게 되자 적은 제7중대를 공격하면 그들의 우군(友軍)이 잘 못 알고 자기네들을 사격하는 줄로 잘 못알았는지 수건을 흔들면서 사격을 중지하라고 신호하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는 일부러 잠시 사격을 멈추어 적병이 소총 사격거리내로 접근할 때 까지 내버려 두었다. 드디어 사거리(射距離) 내에 들어와 진전에 닥아 오자 명령일하(命令一下) 일제히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적은 크게 당황하여 분산하면서 반격 태세를 갖추었으나 때마침 美 공군의 제트 전투기가 상공에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에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이 결과 적은 우리의 입체적인 공격방식의 제물(祭物)이 되어 거의 빠짐없이 섬멸되고 말았으니 공지(空地) 합동의 힘은 이와 같이 큰 것이었다.

金 부대장은 李 사령관에게 상황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무전기 고장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단 이 지역에서 철수키로 결심하고 咸安을 향하여 떠났는데 당시 부대장은 鎭東里가 이미 적으로 말미암아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한편 大峰에 배치된 제2중대장에게 연락병을 보내서 철수 준비를 시켰으나 연락병이 늦게 도착하여 부대 주력이 大峴에 이르렀을 때에 제2중대는 이것을 적으로 착각하고 사격을 가하여 왔다. 본대에서도 또 한 이것을 적으로 오인(誤認)하고 이에 응사하여 잠시 교전이 벌어졌으나 곧 우군(友軍)임을 서로 알게 되었으므로 본의(本意)아닌 교전이 곧 끝나게 된 것은 천만다행(千萬多幸)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金 부대는 곧 행군 대열을 다시 편성하고 15.00에는 西北山을 목표로 기동(機動)을 시작하여 19.00쯤에 목표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이때에 원래 험한 산이라 방향 유지가 곤란하여 일부 정찰대를 보내어 철수로를 탐색토록 하였다. 잠시 뒤에 이 정찰대는 적과 조우전(遭遇戰) 끝에 장교 2명 사병 2명을 사살하고 권총과 장총을 노획한 다음 유유(悠悠)히 돌아왔는데 金 부대장은 상황을 판단한 결과 이미 적이 西北山 일대에 침투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곳에서 사주방어를 하면서 철야(撤夜) 경계하였다.

8월 4일 : 06.00에 부대는 이동을 시작하여 13.40에는 무사히 咸安에 도착하였는데 이 부대는 3일부터 연락두절로 말미암아 일주일분(一週一粒)의 보급도 얻지 못한 까닭으로 피로에 지쳐 있었으나 그래도 사기는 왕성한 편이었다.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金 부대장은 부하 장병들 에게 말하기를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의 손으로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 해병대와 접촉한 적은 제6사단의 정찰대대였다는 것이 포로의 심문에서 밝혀 졌다는데 이 싸움에서의 종합 전과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의 손실은 부상자 6명 뿐이었다.

사살 109명, 포로 6명, 전차 2대, 트럭 4대, 씰차 2대, 기관총 8정, 장총 19정, 다발총 28정, M1 소총 3정, 산탄소총 8정, 권총 2정.

(나) 夜半山 (△342) 탈환전

金 부대가 咸安에 도착하자 西部 지구전투사령부에서 배속이 해제되는 동시에 4일부로 美 제25사단에 다시 배속 되었다.

다음날 (8월 5일) 이 부대는 사단 차량으로 다시 鎭東里로 전진(轉進)하라는 명령을 받고 15.30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咸安 도로의 左측 능선인 德谷里와 富山里 부락의 고지를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하고 西北山 쪽에서 진격하는 적에 대비하게 되었다.

鎭東里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美 제27연대가 8월 1일 이래로 이 지구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지녁에는 鎭東里에서 馬山에 이르는 도로가 鎭東里 후방 6km 지점의 고갯길이 적에게 차단되어 보급차량들이 파괴 당하는 위협을 받게 되자 8월 6일 아침에는 美 제27연대에 배속된 전차와 일부 병력이 출동하여 적을 격퇴시키고 다시 병참선(兵站線)을 확보하였다.

적 제1연대가 3일 鎭東里에서 美 제27연대 제1대대에게 타격을 입고 병력을 정비한 다음 다시 6일 날이 밝기전에 夜半山을 점령한 결과 馬山—鎭東里 사이의 병참선(兵站線)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美 제27연대의 일부 병력이 곧 역습하였으나 지형이 불리한 탓으로 끝내 이 夜半山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단에서는 6일 10.00에 金 부대에게 이 고지를 다시 공격하여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金 부대장은 예비중대로 있던 제7중대로 하여금 이 고지를 공격키로 하였다 이 중대는 鷲峰 (△405)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적진에 접근하여 2시간에 걸친 치열

한 교전 끝에 마침내 이 고지의 적을 격퇴시키고 점령하고야 말았는데 고지 정상에는 3구의 적 유기 시체가 있었고 고지 일대에는 유혈이 낭자하였다. 이 치열한 일전(一戰)으로 비록 고지를 점령하기는 하였지만 우리쪽에서도 전사 2명 부상 5명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이 고지는 명에 의하여 16.30에 美 제27연대에 인계 되었고 金 부대는 원위치 鎭東里부대 지휘소로 돌아왔으니 우리는 美軍의 힘으로도 뺏지 못하였던 고지를 우리의 힘으로 되찾았던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29연대 제1대대는 2일 오후 적의 공격이 일단 중지되자 다음 임무를 대기하여야 하였는데 한편 美 제27연대 제1대대는 정찰임무를 마치고 연대본부가 있는 鎭東里의 국민학교에서 피로를 풀고 있다가 적의 기습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 해병대는 7일 美 제25사단의 명에 의하여 09.00 馬山에 집결하였다.

馬山에 집결한 金 부대는 깜짝 놀랐다. 여기에는 金 부대에 대한 영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즉 8월 5일부로 金聖恩 부대 전장병은 일계급씩 특진 한다는 특별승진 명령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후 해병대는 美 제24사단에 배속되었으며 西部 지구전투사령부 작전명령 제8호에 의하여 당시 美 제25사단에 배속 중이던 閔機植 부대 및 아 경찰부대와 협력하여 鎭東里 지구 전투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 해병대는 다시 鎭海 통제부로 부터 155명의 병력 보충을 받아 부대 전투력을 증강한 다음 馬山을 출발하여 8월 7일 19.00 鎭東里에 전진, 도착하였다.

4. 킨(Kean) 特殊任務部隊의 反擊作戰 (50년 8월 7일부터 50년 8월13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2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美 제25사단 장 소장 킨(William B. Kean)

제24연대 장 대령 샘프니(Arthur S. Champney)(50. 8. 6 교대)

제27연대 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35연대 장 대령 휘셔(Henry G. Fisher)

배속부대

美 제24사단 포병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29연대 상 미상

제87중전차대대 장 미상

제5연대전투단 장 대령 오드웨이(Godwin L. Ordway)

獨 부대 장 대령 閔 機 植

해병대 상 대령 金 聖 恩

경찰대 장 총경 崔 大

병력 약 20,000명

장비 전차 100, 포 100

적 군

북괴군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1연대 장 대좌 金 昌 進

제13연대 장 대좌 韓 日 東

제15연대 장 대좌 金 顯 唐

포병연대 장 중좌 朴 海 民

배속부대

제83모터사이클연대 장 미상

병력 약 7,500명

장비 전차 25

포 36

나. 전투 전의 개황

(1) 美 제25사단 尙州에서 馬山으로 이동

8월 1일 새벽 美 제25사단이 尙州 南쪽의 새 방어진지로 이동하고 있을 때 15.00에는 다시 제8군 사령부로 부터 킨(Kean)사단장에게 전화 연락이 왔는데 三浪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사령부 선발대는 8월 2일 한밤 중에 북충동을 떠났다.

사단장과 참모의 일부는 비행기편으로 大邱에 있는 제8군 사령부에 들렀을 때 거기서 워커(Walker)사령관에게서 사단의 목적지를 三浪津에서 馬山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수정된 지시를 받았다. 부대가 이동 중이므로 사단장은 쓸 수 있는 모든 통신 수단으로 이 지시를 통고하기에 바빴다.

이리하여 美 제25사단은 尙州에서 金泉을 거쳐 倭館 까지는 도보 또는 차량으로 가고 거기서는 철도로 馬山까지 가는 것인데 金泉—倭館간의 도로는 이곳 중부의 주 보급로로서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 아주 위험하였고 倭館에서 馬山까지의 철도 이용도 적의 산발적인 기습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36시간 만에 150마일(약 140km)의 기나 긴 거리를 도보, 자동차, 철도 편의 이동으로 돌파하였다.

결국은 8월 3일 한밤 중까지 모두 도착 집결 완료하였고, 美 제5연대 전투단도 이날 중에 집결이 끝났다.

워커 사령관은 이 숨막히는 이동으로 釜山이 구출되었다고 기뻐하였으나 金泉이 그 동안 적의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馬山 일대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워커 사령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중대한 결심이었다.

그 뒤 美 제25사단장은 馬山 방면의 모든 부대를 8월3일부터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2) 美 제8군의 작전 계획

북괴군이 晋州—馬山 접근로에서 釜山을 노리고 있을 때 8군사령관은 韓國에 도착하는 모든 증원부대를 그곳에 집중시켰다. 美 제5연대전투단 6개보병부대와 지원전차 및 포병으로된 美 제1해병여단이 그 주력이었다.

워커 사령관은 南西部 전선에서의 반격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전 이후 최초의 대규모적인 반격이었다.

美 제8군 G—3 계획과는 2개안의 공격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5일~10일 사이에 馬山—晋州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8월 중순경 전면공세로 蔚山까지 진출하였다가 順天—全州—論山 축(軸)을 따라 錦江선으로 전진하는 것이었다.

사령관과 일반참모들은 이 공격 계획을 놓고 갑론을박 하였는데 晋州를 역습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 주요 목적은 적의 일부를 南西部에 투입시키게 하여 大邱 정면에서의 적의 압력

을 제거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워커 사령관은 美 제5선출 공군사령관에게 8월 5일부터 6일까지 美 공군의 주력을 馬山과 南江에 집중시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8월 6일 제25사단장에게는 7일 06.30을 기하여 공격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였다. 南江 이남 晋州 방면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南江 남안선(南岸線) 中岩里—武村里—晋州선 그리고 鎭東—泗川선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공격부대 지휘관은 美 제25사단장 건소장이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킨 특수임무부대라 하고 킨 작전(Counter-attack Task Force Kean)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 반격 작전에 참전하게 될 병력은 8월 4일 현재 馬山과 그 정면에 다음과 같은 부대가 집결 또는 접적 중이었다.

美 제29연대(2개대대를 제외 1개대대는 편성되지 않았다.)를 해체시켜 제27연대와 제35연대에 편입하여 3개연대가 3개대대로 완전 편성을 끝마쳤다.

그 밖에 제87중전차(中戰車 M4A3)대대와 제5연대전투단 야군의 閔機植 부대(약 500명의 1개대대) 여명대(1개대대), 정찰대(1개중대)를 배속시켰다. 美 제1해병여단은 군(軍) 예비대로 두었다. 이때 총병력은 20,000여명, 전차 100대, 포 100문이었다.

美 제19연대(美 제24사단 예속의)는 제35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昌寧 방면으로 3일에 이동하였다. 이 반면에 鎭東里 부근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 제6사단은 3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정비하느라고 공세 행동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당시의 적은 능력 판단에 의하면 병력 약 7,500명(실제 병력은 6,000명 정도) 포 36문, 전차 25대로 추산하였고 제83보병사이군연대가 배속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병력은 3대1강(強), 포병 전차는 5대1의 비율로서 우리가 절대 우세를 보였다. 美 제8군에서는 설혹 적 제6사단이 馬山 방면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방면은 조공(助攻)에 불과한 것이고 주공(主攻)은 어디까지 大邱 정면으로 지향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진 중인 적의 신편사단(新編師團)인 제7, 제9, 제10사단이 이느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관심사였는데 워커 사령관은 大邱 방면에 증원될 가능성을 굳게 한 것 같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기동계획 : 美 제8군의 작전 계획에 의하면 킨부대의 기동은 3개 도로를 이용하여 晋州를 탈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美 제35연대는 中岩里 현위치에서 北쪽 도로를 이용하여 武村里로 공격하고 제5연대 전투단은 중간 도로를 이용하여 鎭東里 -鳳岩里—武村里로 공격하여 2개연대가 武村里에서 합세하여 여기서 將軍峯山의 晋州 고개로 향하여 공격을 계속한다.

美 제5해병연대는 新基里—昆城 -泗川의 바닷가 도로를 따라서 晋州 東南쪽으로 공격한다.

美 제24연대(欠 부대, 야 해병대, 경찰대 배속)는 西北山 일대에 침투하여 보급로를 위협하는 적을 소탕하고 이 중간 산악지대를 장악 咸安 도로를 확보케 한다는 것이었다.

도로 조건은 馬山—中岩里—武村里—晋州 도로는 이차선(二車線)의 자갈 길이며 이 도로를 따라서 晋州까지의 단선 철도가 있다. 중간 도로와 해안 도로는 일차선(一車線) 도로로서 서로 차량이 통

행하려면 어느 한쪽이 옆으로 비켜 서야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다.

(3) 공격 전야의 상황

美 제35연대는 8월 6일밤 掛榜山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鎭東里 西쪽 3km의 新基里 뒷산 181高地(巨女峯)에서 夜牛山까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한편 鎭東里에는 제27연대와 一 군 해병대가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美 제5해병연대가 이곳에 집결하므로서 이 조그마한 동리는 병원 포병 차량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제24연대의 각 대대는 馬山 北쪽과 南쪽으로 및 鎭東里 東北쪽에 배치하여 보급로를 경비하고 있었다.

새로 제24연대장에 부임(6일부) 한 챔프니 대령은 전임 파이트 대령에게서 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咸安 방면에 진출하여 정찰 활동 중이던 제3대대의 L중대는 咸安 北쪽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12명의 전사자와 많은 부상자를 낸 일이 있었고 西北山 峯峰 五峰山頂에는 적병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27연대와 아군 해병대가 342高地(夜牛山)의 적을 이날 격퇴시켰기 때문에 다음 날의 공격작전을 앞두고 대기 중인 장병들은 독안에 든 쥐를 그대로 남겨두고 전진하는 것 같아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밤이 되자 西北山에서 일부의 적이 제5해병연대 제2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夜牛山의 일각을 돌파하고 東村 뒷고지에 진출하여 美軍의 동태를 주시(注視)하고 있었는데 鎭東里의 美軍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東村에는 제5연대 전투단과 제5해병연대의 각 본부와 포진지 보급소가 있었는데 적이 기습하려면 쉽게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공격대기부대들이 뒷고지에 국지경계의 배치도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이다. 제35연대의 掛榜山 진지도 한밤 중에 정상이 기습을 당하여 빼앗기고 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적 제6사단이 공세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몇 일 사이의 손실과 그들 병력이 분산되고 있었고 美軍병력의 현저한 증강으로 소규모적인 탐색전을 해서 돌파구를 찾아 각개 격파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으로 나왔다고 보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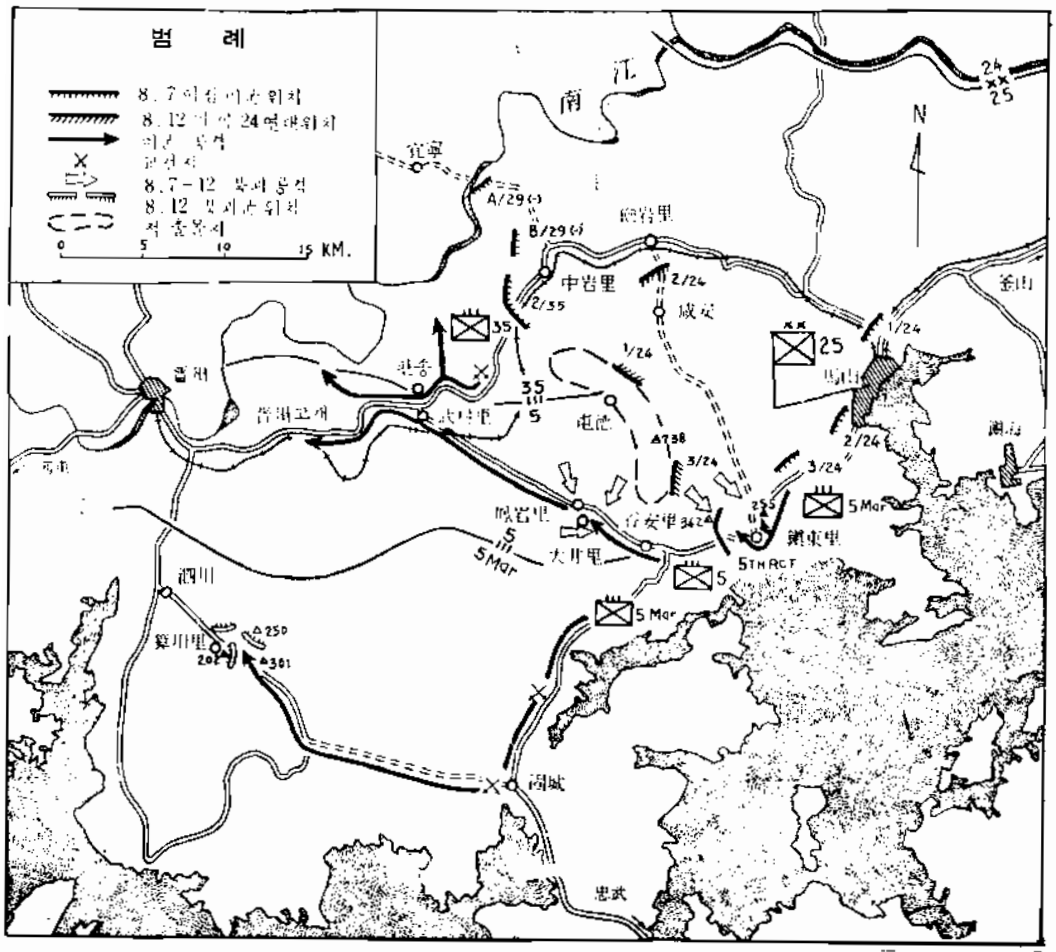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美 제35연대의 상황

美 제35연대의 제2대대는 8월 7일 06.30에 예정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지난 밤에 빼앗긴 掛榜山은 아침에 역습으로 탈환하였다.

제2대대는 도로를 따라 전진을 시작하자 마자 몇문의 자주포의 지원을 받은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1개대대의 적과 만나게 되어 치열한 사격전과 백병전까지 벌어져 정오까지 계속되었으나 적절한 항공지원으로 적을 격퇴시키고 武村里로 급진하였다.

상황도 제12호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 (8.7—12)



武村里 삼차로(三叉路)를 약 1km 앞두고 동쪽 부락에서 적의 제6사단사령부로 추측되는 곳 (판송리)을 (이곳에 문서와 소련제 대형 무전기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급습하고 저녁 때에는 武村里 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 공격전에서 적의 유기시체 350구를 확인하고 전차 2대를 파괴 자주포 1대, 대전차포(對戰車砲) 5문, 탄약차 4대, 문서함 몇개 대형 무전기 1대, 포로 3명등을 노획하였다.

(2) 美 제5연대전투단의 상황

제5연대 전투단 제2대대는 8월 2일 釜山으로 부터 제27연대(鎭東里에서 방어중에 있던)를 증원하기 위하여 투입되어 夜牛山(△342)을 점령하고 있었다.

8월 6일 : 美 제27연대는 진 가에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 제2대대는 고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제5연대 전투단의 나머지 부대가 제27연대와 전선을 교대하였는데 제5해병대의 제1대대는 제27연대 제1대대와 예비대 진지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5해병대의 제2대대는 제5연대 전투단의 제2대대와 진 北쪽 높은 지대에서 교대하였다. 그리하여 제5연대 전투단이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6일밤 적 약 1개소대가 추격으로 夜牛山(여우高地라고도 한다) 후방에 증원되었고 美 제5연대전투단 본부와 포병진지 및 주보급로(主補給路)는 완전히 적이 내려다 보고 있었다.

8월 7일 : 아침 鎭東里 일대는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따라서 계획된 공중공격도 중지되었고 20분 동안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난 다음 07.20에서야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美 제5연대 전투단 제1대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鎭東里 西쪽의 도로 교차점을 점령하고 정오까지는 거기서 4.8km나 더 전진하고 있었다.

美 제5연대 전투단 제1대대가 西쪽으로 전진한 뒤 제2대대는 여우高地(夜牛山)를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주위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 날은 섭씨 44°로서 무더운 날씨였다. 해병대원은 적과 싸우는 것 보다도 더위와 싸우는 것 같았다. 일사병으로 쓸어진 환자가 전투손실의 6배에 달하였으니 짐작할만한 일이었다.

夜牛山의 제2대대는 아침 부터 적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었고 밑에서는 교대부대인 해병대가 공격을 받고 있었으나 지원해 주는 방도가 없었다. 공중에서 탄약과 물통 그리고 보급품이 투하 보급되었으나 제1차는 적진에 제2차는 피아의 중간에 제3차는 겨우 진지내에 떨어져 우선 기갈을 면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해병대나 제2대대는 적을 격퇴 시키지 못하고 이날을 보내게 되었다.

안개가 개이고 나서 鎭東里 東北쪽 洞洞의 254高地에는 적이 나타나서 馬山 도로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서 鎭東里 부락과 포진지에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254高地의 중턱에 있던 해병 제3대대와 馬山에서 전진 중인 제24연대 제2대대가 협동하여 공중 공격과 포병 전차 등의 지원 밑에 종일 공격하였으나 이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제159포병대대의 B.C포대는 이 전투에서 1,600발을 발사하여 254高地의 모습을 변형시켰을 정도인데도 적은 여전히 근거리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으로 응사해 오므로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9일 정오에야 달성하게 되었다.

적의 시체는 120구나 되었고 총 손실은 600명으로 추산되었다. 해병 제3대대는 7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 중 반수 가량은 일시병환자였다.

254高地의 적은 7일 하룻동안 鎭東里에 있는 포병진지 보급소능을 박살포로서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군 예비대로서 馬山으로 이동한 제27연대도 혼란이 일어났고 특히 포병은 東·西·北 방향에 사격방향을 바꾸면서 분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美軍 전차가 鎭東里와 馬山 사이의 전화선을 끊으므로서 한 시단장은 지휘가 불가능하게 되자 鎭東里 방면은 해병여단장 크레이그(Craig)준장에게 지휘가 위임되고 말았다.

8월 8일 : 제35연대는 武村里 전방의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킨 소장은 이 연대가 더 이상 진출하는 것을 우려한 끝에 제5연대가 진출할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제35연대장 휘셔(Fisher) 대령은 소수의 적을 격퇴시키고 점진대를 南江에 진출시켰으나 적정이 없었다.

제5연대 제2대대는 8일 정오 쯤 해병 제2대대와의 연락이 성공하였고 해병 D중대는 전사 8명, 부상 28명의 손실을 내었다. 적은 약 150~400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였다.

제5연대의 제2대대장 (John. L. Throckmorton중령)은 夜間에서 진지를 해병대에 인계하고 하산(下山)하였을 때 연대장은 즉시 西쪽으로 전진하여 桃山에 있는 109高地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해병대가 昌城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대는 2개 중대(G.E중대)밖에 없었고 공격은 부진하였다. 본래 109高地는 제1대대의 목표였으나 5연대 2대대가 臥牛山(△309)을 점령하게 되자 제2대대의 목표가 된 것이다.

오후 늦게 킨(Kean)부대장이 제5연대 연대장을 대동하고 제2대대의 공격을 독려하고자 현지에 나와서 대대장에게 "나는 오늘 밤 저 고지가 탈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격을 독려하였다.

제2대대장 드로크모톤(Throckmorton) 중령은 야간공격을 결심하고 전차 3대, 4.2인

치 박격포 4문, 81mm 박격포 4문의 지원을 받으면서 2개중대 병진(倂進)으로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109高地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이번 야간(夜間) 공격은 美軍이 참전한 이래 최초의 공격이었던 것이다.

한편 美 해병 제5연대의 제1대대장 뉴톤(Newton)중령은 이날 06.00에 연대장에게서 固城방면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鎭東里 부근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新基里에 이르렀을 무렵 제5연대 제1대대의 하사 1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309高地(臥牛山)에서 돌아오는 중인데 도중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온몸을 논흙으로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사는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보낸 연락병으로서 그의 대대가 해병대의 전진방향으로 잘못 진출하게된 것을 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美 제25사단장은 해병 제1대대로 하여금 제5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309高地를 23.00에 인수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제5연대 제1대대는 중앙도로로 계획된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해병 제1대대는 야간(夜間)교대를 위하여 22.00에 309高地로 전진 중에 있었는데 제5연대 제1대대는 이미 철수하여 桃山里 1km 南쪽에 이르고 있었다. 해병대는 제5연대의 안내병도 없이 전진하다가 주민의 안내로 대대의 후미가 309高地 중앙부에 도착하였을 때는 9일 아침이었다.

(3) 美 제5해병연대의 공격

8월 9일 : 254高地의 적을 3일만에 격파하여 鎭東里 주변의 적이 사라지자 해병연대도 계획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 아침에 해병연대장 머레이(Murray)중령은 제1대대장에게 309高地를 점령하라고 하였다. 적은 제5연대의 제1대대가 이 고지에서 철수하자 곧 이어 점령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항공모함 시시리(Sicily)호와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에서 출격하는 F-44기(일명 콜세아=해적)가 상공에서 적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309高地와 191高地를 무난히 점령하였는데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였다. 여기서 부터는 적의 저항없이 전진하였는데 背屯里의 東쪽 작은 무명교량이 전차의 중량으로 무너지고 전진은 중단되었다.

이날 17.00를 기하여 해병여단장에게 위임되었던 킨(Kean)사단장의 지휘권이 다시 회복되었다.

중앙 도로를 공격하던 제5연대도 양쪽 고지에 있는 적을 축출하면서 전진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점차 강화되었으므로 2개대대로 병진(제1대대는 북쪽) 공격하였으나 전진 상태는 부진하였다. 제35연대는 제5연대의 진출을 기다리느라고 현 진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색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8월 10일 : 해병연대는 背亡里 南쪽으로 진출하여 폐속적인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였다. 중앙 도로의 제5연대전투단은 병력 비상의 적의 저항으로 공중 지원을 받아가면서 12.00쯤에야 鳳岩里에 진출하였고 여기서 제3대대를 조월 전진시켜 鉢山 고개가 차단되었다. 鉢山 고개가 차단되자 제5연대는 鳳岩里와 大井里의 골짜기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다음 날의 공격 준비를 하였다. 鳳岩里 부락은 20여호의 작은 촌락으로서 500m 東쪽에는 大井里 부락이 있다. 鳳岩里 부락에는 제5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제555포병대대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A포대는 콩크리트 교량 밑에, B포대는 개울 계방에, 본부포대는 부락에, 그리고 제5연대 본부와 C포대만이 그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날 한밤중에 적은 제5연대와 포병진지에 습격을 해왔다. 특히 鳳岩里의 제1대대와 포병진지에 대하여 강력하였는데 11일 날 해뜨기 전 까지 계속되었다. 적은 빼앗긴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기에 이쪽에서는 반격하기가 곤난하였다. 적의 습격으로 제1대대장(Jones중령)과 포병대대장(Pely중령)이 부상을 입었다. 날이 새면서 함재기가 출격하자 적은 산속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제3대대는 이날 아침에 武村里로 급진하여 제35연대와의 협조 밑에 晋州 고개를 점령하고 晋州 시내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적정은 알 수 없었다.

(4) 美 제8군의 명령

8월 11일 : 洛東江의 돌출부에 있는 泗川 나루터에서 적 제4사단이 龍山 東쪽으로 공격하고 大邱 西北方에서 제3사단이 洛東江을 건너오고 있었고 東해안에서는 아군 제3사단이 長沙洞에서 포위되는 등 전세(戰勢)가 급변하게 되자 제8군으로서는 예비대 부족으로 대처하기가 곤난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사령관은 킨(Kean) 작전을 종결하고 다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여기서 얻은 절약 병력으로 기동예비대를 확보하고자 킨(Kean) 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첫째 晋州 고개와 泗川 선에 급속히 진출하여 이 지역을 확보하라.

둘째 掛榜山의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韓國軍 閔機植 부대를 大邱로 복귀시키고 해병대도 배속을 해제시킨다.

셋째 별명에 의하여 해병여단과 제5연대의 배속을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5) 美 제5연대 전투단의 불행

美 제5연대는(제3대대결) 적의 야습을 받고 난 뒷 처리로 오전을 소비하였고 오후에는 武村里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연대의 사방에서는 적의 복병들이 저격을 하여 왔다. 제5연대장은 제1대대장 후임으로 전에 대대장 경력이 있는 정보주임장교(Roelofs중령)를 임명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鉢本 고개를 점령시킨 뒤 해가 진 뒤에 이곳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킨(Kean) 부대장은 제5연대의 진출 부진에 대하여 무전으로 제5연대장을 호출하여 연대의 진출을 독촉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부대장은 적정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통화한 끝에 연대장의 공격 계획을 승인하고 제24연대의 1개대대를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1개소대의 전차지원과 포사격의 적절한 지원 밑에 鉢山 고개의 오른쪽 고지를 날이 어둡기 전에 점령하게 되었다. 南쪽에 있는 제2대대가 21.00에 철수하여 전위대대가 되고 연대본부 포병대대 제1대대 순으로 武村里로 전진하려 할 때에 킨(Kean) 부대장의 무전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2대대와 1개 포대만을 전진시키고 남은 주력은 11일 날이 밝을 때 까지 현지에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이래서 제2대대는 도로를 따라 西쪽으로 진출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었고 연대에서도 호출하였으나 불통이었다. 제2대대는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12일 해뜰 무렵에 6km를 전진하여 開岩里에 진출하였다.

鉢山고개의 南北 능선에는 제1대대가 배치되었고 도로변과 들판에는 제555포병대대(105mm포), 제159포병대대(105mm포), 그밖에 4.2인치 중박격포, 근무·의무중대가 있었다. 연대본부와 제555포병 C포대는 大井里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8월 12일 : 01.00쯤 鉢山 고개의 北쪽 능선에 배치된 곳에서 교전하는 총·포성이 나면서 C중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대대장은 C중대에 연락병을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제1대대장은 연대장에게 각 중대의 철수를 건의하였으나 연대장은 킨(Kean)

부대장의 명령 때문에 결심을 못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교전하는 총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리고 있어 적이 포위공격을 하고 있다고 연대장은 판단하였다. 더구나 킨 부대장이 급히 보내겠다는 제24연대 제3대대의 증원부대가 언제 도착할런지 모르는 이때 적이 계곡에 공격을 해 온다면 섬멸 당하는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연대장은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출발하여 武村里로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04.00에 휘하 모든 부대에 대하여 이동 명령을 내렸다. 연대본부의 차량종대가 앞서고 그 뒤에 포병이 따르고 제1대대가 차량 통과를 엄호한 뒤에 후위를 담당하였다. 차량대형이 전진을 시작하자 얼마 못가서 차 사고로 정지하게 되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산 위에 있던 적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있는 차량종대에 산발적인 사격을 해 왔다. 그러나 필사적인 작업으로 길 옆 도랑에 빠진 구급차를 끌어 올리게 되어 연대본부는 무사히 鉢山 고개를 넘었다.

제555포병대대와 제90포병대가 도로 위에 종대 편성으로 출발 하자마자 적이 3개 방향에서 엄습해 왔다. 적은 먼저 선두 차량을 불타게 하여 전진을 막고 집중 사격을 해왔다 더구나 屯德 계곡에서 전차 2대와 자주포 몇대가 제 90포병대의 155mm포에 사격을 해왔다. 屯德에서 나오는 도로 교차로 부근에는 美軍 전차 2대가 A중대 1개소대의 엄호(掩護)밑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대대장의 철수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무단으로 진지를 포기하여 적의 전차는 저항없이 진출할 수 있었다. 155mm포도 적의 전차와 사격전을 하였으나 너무나 근거리에 접근해 오자 사각(死角)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4.2인치 박격포가 사격을 했으나 사수들이 전사한 때문에 중단되었고 참호 속에서는 기관총으로 적병들에게 응사하였다. 포병들도 소총을 가지고 자체 방어를 하였으나 우세한 적을 당할 수 없어 분산하기 시작하였다.

제555포병대대장은 이러한 사경(死境)에서 겨우 벗어나 西쪽으로 나아가 제5연대장을 만나서 포병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포를 버리고 분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대장은 자신이 먼저 鳳岩里 쪽으로 향하여 오는 길에 제1대대가 행군하여 오는 것을 만났는데 그들이 너무나 기진맥진한 상태라 그대로 제2대대 집결지로 들어가게 하고 제2대대장에게 후방부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2대대장은 즉시 뒤로 돌아서 전진하였다. 12.00쯤 鉢山 고개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전투는 끝나고 있었지만 大井里의 적을 격퇴시키고 오후에는 차량으로 武村里를 거쳐서 馬山으로 이동하였다.

적이 퇴각하게 된 것은 날이 밝자 美 함재기가 출격하여 적을 공격하였는데 조종사들은 적과 우리편을 잘 가려서 적진과 적병만을 공격하여 이들을 격퇴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밑에서 포병들은 싸우지도 않고 분산하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한편 제1대대장은 적이 퇴각하자 길가에 나와서 그의 대대병력을 수습하였는데 그곳에는 4.2인치 박격포소대와 기관총소대가 있었고 부상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C중대는 180명중 23명만이 살아 돌아 왔다. 이들은 소대단위로 산을 내려와서 집결 중이었다. 이때 鳳岩里 쪽에서 美軍 전차 3대가 나타났는데 제1대대장은 이곳에 아직도 전차가 남아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제1대대는 10.00에 이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西쪽으로 진출하다가 연대장과 만나게 되었다. 鳳岩里 東쪽에 종대를 이루고 있던 모든 차량은 불타 버렸고 大井里 부근에 있던 제159포병대대 B포대도 공격을 받았는데 적은 탄약차와 휘발유 적재차량 몇 대를 파괴하고 08.00에는 퇴각하였다.

이날 아침에 제25사단 포병사령관(바스(Barth) 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자 鳳岩里로 향하다가 谷安里 西쪽에서 제72야전공병대대의 1개소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馬山에 있는 킨(Kean)부대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다.

킨(Kean) 부대장은 제24연대 제3대대의 증원을 재촉하였으나 이동 준비가 늦기 때문에 咸城 도로에서 泗川으로 향하고 있던 해병 제3대대를 鳳岩里로 급히 전진(轉進)시켰고 제24연대도 빨리 진출하라고 하였다.

해병 제3대대는 13.00에 되돌아서 16.00에는 谷安里의 적을 격파하였고 함재기와의 협동 공격으로 날이 어두어지기 까지는 鳳岩里 東쪽의 높은 지대를 점령하였다. 제24연대 제3대대는 끝내 전진(轉進)을 못하고 말았는데 8월 12일 적의 공격으로 진지를 빼져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병대가 鳳岩里의 계곡에서 입은 피해는 뜻밖에 컸던 것이다. 그래서 美軍들은 "피의 계곡" 혹은 "포병의 무덤"(Bloody Gulch, Artillery Grave Yard)이라고 까지 불렀다.

피의 계곡(Bloody Gulch)에서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555포병대대 105mm포 8문, 전사 약 75~100명, 부상 80명, 차량 일체 제90포병대대 155mm포 6문, 전사 10명, 부상 60명, 실종 30명, 차량 26대이었다.

5주일 뒤에 美軍이 재탈환하였을 때 大井里의 어떤 민가(民家)에서 제555포병대대 소속의 시체 55구를 발견하였고 제90포병대대의 20명은 모두가 두부관통상을 입고 있었다.

는 것이다.

8월 16일 : 포병사령관(제24사단의)은 많은 피해를 입은 2개포병대대를 재편성하였는데 아군에 지급될 105mm 12문과 155mm 6문의 곡사포를 우선 2개대대에 주고 제555포병대대장에는 스튜어트(Clarence E. Stuart)중령이 8월13일부로 임명되었다.

(6) 제5해병연대

8월 11일 : 제3대대는 鎭東里에서 경계 임무를 끝내고 背屯里에 도착하여 제2대대를 넘어서 공격하여 固城을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전진을 계속 10km지점의 三巨里(도로 교차점)에서 포병이 발사한 포탄이 우연하게도 위장한 적의 차량에 명중하였는데 적은 진지가 폭로된 줄 알고 泗川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 적은 제6사단에 배속된 제105전차 사단의 제83모터사이클연대의 주력부대들이었다. 적은 계속 상공을 엄호 중이던 스트레이트호 함재기들의 목표가 되어 계속적인 파상 공격을 받고 병력과 탄약을 가득 실은 200여대의 트럭, 짚차, 사이드카등은 분쇄되어 마치 길가에서 폐죽엄을 당한 개미의 행렬과 같았으며 비참한 잔해(殘骸)를 남겼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적도 대공사격으로 대항하여 함재기 1대가 격추되고 1대가 파손되었다. 지상부대가 오후 늦게 현지에 이르렀을 때 확인한 전과는 트럭 45대, 짚차 31대, 사이드카 24대(계 100대)와 그밖에 많은 장비와 탄약을 볼 수 있었다 한다. 이로서 적제83모터사이클연대는 치명상을 받게 되어 병력 장비가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되었다.

美 해병 제3대대가 固城을 점령하기전에 6km 지점에서 경미한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격퇴시키고 11.00에는 固城 시내에 진격하게 되었다. 松鶴洞에 있는 학교에 제3대대의 지휘소가 설치되자 해병 여단장도 정오(正午) 쯤에 도착하여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泗川 방면으로 공격을 계속하라고 하였다.

固城을 벗어나 800m지점에서 적의 대전차포의 공격을 받고 짚차(구급용)가 파괴되었으나 美軍 M-26전차에 의하여 적의 포는 분쇄되고 말았다.

8월 12일 : 아침 제1대대는 제3대대를 넘어서 泗川으로 北上하여 별로 저항도 받지 않고 정오에는 泗川 東南쪽 9km지점 新村里에 도달하였다. 이때 선두의 점병이 부락에서 사격을 받았다. 길 오른편에 병풍처럼 치솟은 301高地와 왼편의 202高地에는 固城에서 패잔한 적의 제83모터사이클부대와 제15연대의 제2대대가 배치되고 있었다.

제1대대장은(Newton중령) 중대별로 양편고지에 향하여 공격을 명령하고 함재기의 폭

격과 포병의 지원을 받아 저녁 늦게야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 공격이 성공한 것은 함재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공까지 내려와서 해병들이 원하는 곳에 적절한 공격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 타군과의 협동작전 즉 공지(空地)협동작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모범적인 협동작전이라 하겠다.

8월 13일 : 04.00에는 202高地에 있던 B중대가 곤하게 잠자고 있다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 이날 아침에 연대장은 馬山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발했다. 해병 제5연대는 제3대대가 제5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13.00에 谷安里로 먼저 떠나고 이어서 제 1, 제2대대가 鎭東里로 집결하게 되었다.

(7)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해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제8군의 명령) 적 제4사단의 洛東江 돌출부에 대한 공세로 말미아마 전세가 변화되자 美 제8군사령관은 부득이 8월 12일 밤에 킨(Kean) 작전의 중지를 결심하고 제8연대, 제5연대전투단, 제5해병연대를 西北山으로 철수시켜 방어진을 형성시키고 거기서 결약되는 해병여단을 제8군의 기동예비대로 두기로 하였다.

전세 변화도 전세 변화려니와 킨(Kean) 특수임무부대에 대한 기대도 어긋났던 것이다. 즉 1주일 간의 격전을 치른 8월 14일 킨(Kean) 특수임무부대는 최초에 공격을 시작했던 지점보다도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美 제35연대는 馬山 西쪽(제25사단의 北쪽)에 있었고 美 제24연대는 중앙부에 그리고 美 제5연대전투단은 그 南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병여단은 다른 전선(戰線)으로 이동하였다. 8월 7일 부터 13일까지 晋州 회랑(廻廊)에서 1주일이나 계속된 전투에서 네차례나 고지를 오르내리면서 고전(苦戰)하였다.

킨(Kean) 특수임무부가 晋州로 전진하고 있을 때 후방 鎭東里의 보급선은 적의 지뢰로 차단되어 있었다. 전차와 장갑차가 10여일을 두고 그 도로를 개척하려고 애써 西北山일대의 美 제24연대의 대대 식량과 탄약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었다. 西北山에 있던 屯德탄광은 오랫동안 적병이 둘러싸고 있었으나 美 제24연대의 1개대대와 아군들은 끝내 소탕하지 못하였다.

8월 16일 : 15.50 美 제8군은 킨(Kean) 특수임무부대를 해체시켰는데 晋州 고개를 탈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끝내 달성되지 못하고 말았다.

<평 가>

美 제8군이 킨(Kean) 특수임무부대에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으나 한편 馬山을 점령하

려던 괴뢰군 제6사단의 공격은 좌절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美 제25사단의 공격을 성공케 하였고 부대 사기(士氣)에 미치는 결과가 컸다. 그리하여 "釜山 교두보를 방어함에 투지(鬪志)와 자신(自身)을 준 것이다"라고 UN군 전사는 평가하고 있다.

(8) 美 제24연대에 배속된 我軍의 공격

8월 7일 : 아침에 馬山에 집결하고 있던 閔機植 부대, 金聖恩 부대, 경찰대(崔 天 총경이 지휘하는 1개중대)는 美 제24연대에 배속되어 鎭東里 부근의 山속에서 준동하는 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鎭東里에 배치되었다. 제24연대의 제2대대와 韓國軍 부대들은 馬山—鎭東里의 도로를 확보하면서 저녁 무렵에 鎭東里에 도착하였는데 美 제5 해병연대의 제3대대가 254高地를 공격하고 있었다. 여기서 제2대대는 美해병대와 협동하여 254高地를 공격하였고 아군부대는 보급로를 확보하였다.

8월 9일 : 정오쯤 254高地가 점령되자 金 부대는 254高地에 배치되었고 閔부대와 경찰대는 계속 보급로를 확보 유지하였다.

8월 10일 : 03.00에 적 2개중대가 435高地에서 254高地에 공격을 해 오자 날이 밝기 전에 적을 격퇴시켰다. 이어서 해병대는 西北山 쪽의 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13.00에 공격을 시작하여 435高地, 342高地(夜牛山)을 점령하고 368高地를 저녁에 점령하였다.

8월 11일 : 공격을 재개(再開)하여 수리봉(550高地)을 점령하였고 따라서 鎭東里에서 반경 7km이내에 있는 적을 축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얻은 해병대의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전과로서는 대전차포 1문, 자동소총 8정, 다발총 8정, 장총 6정, 칼빈소총 2정, 권총 2정, 포로 2명, 사살 43명등이었다.

피해 상황은 전사 14명, 부상 42명, 실종 3명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8월 12일 킨(Kean)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되어 美 제24연대에 배속되었던 아군은 鎭東里에 집결한 뒤에 해병대는 中岩里로 閔부대와 경찰대는 馬山으로 이동하였다.

8월13일 오후 美해병 제5연대는 馬山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鎭東里에 집결하여 다음 임무를 대기하게 되었고 8월 14일에 美 해병여단은 美 제8군의 기동예비대(機動豫備隊)로서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 8월 16일 15.50에 美 제8군은 킨(Kean) 특수임무부대를 해체시키게 되었다.

5. 킨(Kean)特殊任務部隊의 解體와 再防禦 (50년 8월 17일부터 50년 8월 31일까지)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군	(※ 대대장급은 3절과 같음)
美 제25단 장 준소장 킨(William B. Kean)	Michaelis)
제24연대 장 대령 챔프니(Arthur S. Champney)	제35연대 장 대령 피셔(Henry G. Fisher)
제27연대 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병력 약 14,000명
	장비

적군	
북괴군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15연대 장 대좌 金 顯 基
제1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포병연대 장 중좌 朴 海 民
제13연대 장 대좌 韓 日 東	병력 약 8,5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 美 제25사단의 방어 편성

美 해병여단과 아군 부대가 킨(Kean) 특수임무부대에서 해속이 해제되자 美 제25사단은 8월 14일에 제35연대는 北쪽에, 제24연대는 中央에, 제5연대는 南쪽에 3개연대로서 방어편성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5일안으로 방어를 위한 배치가 완료되었다.

北쪽의 진지는 伽倻 西北쪽 25km지점에 있는 十二堂山(△270)에서 南쪽으로 661高地 (美軍들이 戰鬪山이라 불렀다), 筆峰(△742), 西北山(△738), 夜牛山(△342), 玉女峰(△181)를 연이은 능선위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위와 같은 방어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론(異論)들이 많았으니 즉 鎭東一咸安도로의 東편 지대와 또는 南旨 (洛東江, 南江의 합류점)에서 漆原—馬山도로의 東편 능선 또는 西쪽능선이 좋다고들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선들은 방어선으로서 양호하지만 어차피 산곡대기에 진지를 점령하고 후방에 좋은 기동로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이라면 西北山선이 적합하였다. 馬山을 기점

으로 鎭東里—咸安—伽倻—中里—馬山의 환상도로(環狀道路)는 보급 및 증원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방어선을 南旨—馬山선으로 할때 馬山에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第24연대는 西北산의 山 봉우리의 일부가 적에게 점령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 봉우리를 공격해 본 제24연대는 난색을 보였다. 실상 西北山의 능선은 바위와 절벽이 많아서 등산용구가 필요하였고 하단에서 정상까지 6~8시간이나 걸려야 올라갈 수 있었으니 우선 보급이 당면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노무자를 고용하여 (약 500명) 지게로서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는 원시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단은 제27연대가 군예비(軍豫備)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예비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는데 특히 예비대를 갖지 않은 이유로서는 적 제6사단의 능력판단에 비추어 새로운 부대가 증원되지 않는 한 각 연대의 예비대로서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사단은 25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점령하므로서 여기서 사단 예비를 갖는 경우에 방어정면이 너무 광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5사단과 제24사단의 전투지경선은 洛東江과 南江의 합류점에서 洛東江 南쪽 하안선(河岸線)에 따라 그어져 있었다.

사단의 北部를 담당하고 있는 제35연대의 전투정면은 儉岩里 西쪽 3km지점에서 洛東江과 南江의 합류지점까지 6.5km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馬山—晋州간의 도로와 철도가 포함되어 美 제25사단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역이었다.

제1대대는 儉岩里 西쪽 연대 左측방에 제2대대는 南江을 따라 右측방에 배치하고 제3대대(제29연대 제1대대)를 漆原 南쪽 도로에 예비대로서 위치시켰다.

제24연대는 儉岩里 南쪽에서 西北山 北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담당하고 제5연대는 鎭東里 西쪽지역의 사단 左측방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342高地(皮牙山)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24연대와 제5연대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고 있었다. 제5연대장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美軍장교가 지휘하는 韓國軍 100명을 西北山 南쪽 능선지대에 투입하였으나 이미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적의 공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그뒤 사단장이 제5연대장에게 그곳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으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적 제6사단장은 그의 총사령부에서 보충병력(南韓에서 강제 동원한 이른바 의용군)을 8월 13일에 인수 받았으나 장비가 없이 전사상자(戰死傷者)의 총을 회수하여 일부를 장비시킨 뒤 19일에 전선에 투입하였다. 어떤 의용군의 일기를 보면 "UN군의 포격과 공중폭격은 몸서리치도록 무섭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견디어야 할 이 고난…… 이제 몇고개를 더 넘어야 馬山인가?" 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의 적병들은 공포와 기아속에서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적의 병력보충

적은 병력보충에 광분한 나머지 점령지역의 청년들을 기만과 협박 그리고 강제로 동원하여 UN군

의 무서운 포화의 제물로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의용군들은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하였는데 야기석 살아 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견되기만 하면 무조건 총살이었으니 그들에게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어야 하는 숙명만이 가로 막고 있었다.

서울지역에서 동원된 의용군 2,500명이 2주일간의 훈련을 받고 남하하여 8월 21일쯤 다시 제6사단에 충원됨으로써 병력은 배가(倍加)하여 약 8,500명이 되었다. 이러한 보충도 전투손실과 탈출로 말미암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적의 제6사단장 方虎山은 초조한 나머지 더이상 그의 사령부에 요청하기가 어렵게 되자 西南部지역에서 무고(無辜)한 청장년들을 무조건 색출동원하여 처음에는 보급품의 운반등 노동에 종사시켰다가 귀가시키겠다고 기만하였다. 그러나 병력이 부족하게되자 이들에게 수류탄(手榴彈)을 장비시키고 전투병력으로 전환시켜 죽음 길에 몰아 넣고 말았다.

(3) 북괴군 제7사단의 증원

개전 당시 적의 제7사단은 소장 全 宇가 지휘한 바 있었으나 春川 방면의 작전실패로 사단장이 교체되는 동시에 제12사단으로 개칭되었다.

다시 편성된 적의 제7사단은 한만국경 경비대(韓滿國境警備隊) 4,000명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개전후 海州지방에서 17~37세의 청년 약 2,500명을 모집하여 제77연대를 편성하였다. 사단 포병연대는 7월말에 開城에서 편입되었고 여기서 2,000명의 신병을 보충 받아 8월 5일 大田에서 정식으로 제7사단으로 호칭되었는데 총병력은 10,000명에 달하였다.

8월 1일, 서울을 떠나 大田—全州—南原—咸陽을 거쳐 8월 15일에는 晋州에 주력이 도착하였다. (당시 사단장은 소장 李益成) 1개 연대는 여기서 統營(忠武)으로 향하고 다른 1개연대는 麗水로 침입하여 주요 항구를 방호(防護)하게 되었다. 제7사단의 임무는 제6사단의 후방지구를 방호하고 증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태세를 갖추는데 있었다.

(4) 북괴군 제6사단의 작전기도

킨(Kean) 부대의 반격으로 쓰라린 상처를 입고 적 제6사단은 병력보충과 아울러 재편성이 불가피하게되므로써 그들이 갈망했던 馬山으로의 침입(侵入)은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더구나 美 제25사 방어선은 철벽 같아서 그들의 작전도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馬山에 이르는 北쪽과 南쪽에 접근로가 있었지만 이 길로 전진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기동전은 포기하여야만 되었고 따라서 대대병력이하의 적은 부대로 하여금 중첩된 산악의 높은봉우리 하나 하나를 탈취하는 방법만이 남아 있었다. 美軍의 완강한 방어와 우세한 화력으로 발이 묶인 상태에서 일진일퇴의 소모전을 강요당한 적으로서는 우선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각 방면에 대한 탐색 공격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시도(試圖)로서 적은 中岩里에서 馬山에 이르는 도로 양측방에 주공(主攻)을 두고 정찰공격을 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적 伽鄕부근에 첫 공격

伽鄕 지방에는 美 제25사단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제35연대가 배치되고 있었다. 이 연대는 제64포병대대와 제90포병대대의 C포대, 그리고 제89전차대대의 A중대가 배속되고 있었다.

8월 17일 : 적은 1주일간에 걸쳐 부대의 재편성을 끝내고 03.00 伽鄕에서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사격을 한 뒤 04.00에 적 제13연대의 수를 알수없는 적이 A중대가 배치된 掛鼓부락 뒷 고지에 공격을 해왔다. 적은 A중대의 2개소대 진지와 그 후방의 박격포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날이 밝아오자 B중대가 역습하여 진지를 탈환하고 말았다.

적이 감행한 이 공격이 시초가 되어 270高地(十二堂山) 南쪽 능선일대에서 제1대대는 5일간의 계속된 혈전(血戰)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은 美 제35연대 제1대대의 오른쪽 측방을 돌파하고 후방을 차단하므로서 美 제25사단의 모든 방어선을 분열시키려고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8월 18일 : 날이 밝기 전에 적은 다시금 A중대를 공격하여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A중대도 역습으로 진지를 회복하였다. 연대장은 적의 기도(企圖)를 간파하고 그에게 배속된 우리 전투경찰대 2개중대 (300명)를 제1대대의 오른쪽 측방에 증원하여 방어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반복되어 밤에 이르기 까지 계속 되었는데 제1대대의 지원포병은 1시간당 평균 2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3일동안에 걸쳐 밤낮으로 계속된 전투로 말미암아 약화된 A중대 및 B중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일아침에는 C중대와 제3대대에 편입된 제29연대의 A중대가 270高地(十二堂山)에 증원되었다. 증원부대의 상황을 보고 있던 연대장은 270高地 西쪽 측방에서 전진하는 적의 대대병력을 발견하고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원포병으로 적을 포격하였다. 적은 약 350명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내면서도 무모(無謀)한 공격을 계속해 왔고 더욱 더 희생만 늘어나게 되었다.

8월 22일 : 적은 주간공격를 시도(試圖)하다가 이를 중지한 뒤 22일 한밤 중에 지원없이

야간(夜間)공격을 감행하여 270高地의 4중 철조망을 뚫고 대대병력이 다발총과 수류탄으로 육박해 왔다. 이 고지의 3개중대는 적의 1개 중대를 격퇴시켰으나 다른 방향의 적과는 3시간이나 계속된 접전 끝에 겨우 적을 격퇴시키고 A중대는 빼앗겼던 진지를 회복하였다.

5일간에 걸친 싸움에서 적의 제13연대병력이 결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자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공격을 중단하고 美 제35연대 제1대대 정면에서 전면 퇴각하고 말았다.

(2) 中部 산악지대의 방어전

적 제13연대가 美 제35연대의 제1대대 진지에 대한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中部 산악지대인 美 제24연대 정면에도 적 제15연대가 강력한 탐색전을 감행하였다.

이 中部산악지대는 美 제25사단의 방어 정면중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 지역의 공방전은 美 제25사단에게 많은 전술적인 교훈(敎訓)을 남기게 하였다.

西北山 西쪽에 있는 屯德 광산지대는 폐광된 갱도(坑道)가 산재하여 적에게 좋은 엄폐호를 제공하였고 또한 집결지와 보급품저장소로서 적 제6사단의 공격기지가 되고 있었다.

적은 8월초부터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정규전을 탈피한 유격전술(遊擊戰術)로 美 제25사단의 작전에 큰 지장을 준 요새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적을 美軍이나 아군부대가 소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적은 美 제25사단이 새로운 방어 단계로 전개하기에 앞서 西北山의 요지를 점령하므로써 주도권을 선취(先取)하게 되었다.

美 제24연대는 661高地와 742高地를 이어 주는 능선을 따라 西北山의 일부지역까지를 점령확보하여야 되는데 8월 15일 제2대대는 공격 끝에 이를 점령 못하고 咸安쪽 능선으로 철수하게 되자 제3대대가 증원하게 되었다.

661高地와 742高地사이의 능선은 바위로 연결된 절벽이며 661高地에서 北쪽으로 흐른 2개의 기다란 능선은 날카롭게 뻗어 있었다. 西쪽 하단(下端)에 群北—烏谷里—屯德—大井里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 이를 보급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烏谷里와 屯德에서 661高地와 742高地에 이르는 산길이 있어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동로가 되고 있었다.

661高地에서는 적이 장악하고 있는 烏谷里와 屯德의 골짜기를 일목요연하게 관측할 수 있었고 반면에 美 제24연대의 지휘소 보급로 포진지가 감제되기 때문에 피아간(彼我間)에는 이 고지를 장악하려고 6주간에 걸친 혈전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 제24연대장이 8월 15일 부대를 다시 배치할 때 제5연대 전투단과 箕峰(△742)사이에 1km의 간격이 생기고 있었는데 사단장은 8월 16일에 이 지역에다 아군 전투정찰대 432명을 배치하여 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8월 18일 : 날이 새기 전에 적은 661高地 전투산(戰鬪山) 北쪽에 배치된 E중대에 집중공격을 해 왔다. 중대장은 전사하고 분전난투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8월 19일 : 661高地 C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분산하였는데 C중대 장교들은 병사 40명을 수습하여 다시 배치하였다. 같은날 箕峰에 배치된 우리 정찰대도 적의 공격을 받고 분산하였는데 56명이 남아서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에 제24연대의 방어선에 1.5km의 간격이 생기게 되자 적이 이곳으로 침투하여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8월 20일 : C중대는 중대장과 사병 25명만이 진지에 남고 남어지는 적의 공격으로 분산하여 퇴각하였다. 이들은 진지를 무단이탈하고서도 "중대장이 전사하고 진지가 적에게 점령당하였다"고 허위보고를 연대에 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연대에서는 포병 박격포의 사격을 C중대 진지에 집중하였고 전폭기는 38회에 걸쳐 네이팔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그러나 C중대장이하 25명의 병사들은 20시간이나 엄폐물을 이용하여 진지를 굳게 지키다가 661高地의 진지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 北쪽에 있던 E중대 1개소대 (8~10명 제외)도 이와 비슷한 상황 밑에서 진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연대의 왼쪽에는 제3대대의 K중대가 배치되고 있었는데 K중대에 배속된 아군 정찰대 (어느 소속인지 불명)가 탐색활동을 하다가 적 제6사단의 제15연대장 趙寬 대좌를 포로로 하였다. 그러나 뒷분 뒤에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사살하고 말았는데 그의 시체속에서는 중요한 작전관계 서류가 발견되었다. 이날 (8월 20일)西北山 왼쪽에 배치된 정찰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진지에서 물러났다. 칸(Kean) 사단장은 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5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공격하라고 제5연대장에게 명령하였다.

8월 21일 : 아침 제5연대 제1대대 (A중대 제외)는 제24연대의 전투지경선을 넘어서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西北山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 적의 역습을 받고 제1대대는 西北山을 또 빼앗기고 말았다.

8월 22일 :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5시간의 전투끝에 B중대가 산정상을 점령하였다.

킨(Kean)사단장은 西北山의 방어책임을 제24연대에서 제5연대의 책임지역으로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였다.

이날밤 (8월 22일) 적은 제5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西北山에 역습을 하여 진지의 보강을 방해하였고 23일 아침 A중대는 西北山 西南쪽 1km지점의 고지를 확보하고 B중대와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제24연대와의 협조도 곤란하게 되었다. 적은 西北山을 다시 확보하고자 집요한 반격을 해왔으나 A중대는 이를 격퇴시키기에 고전하였다.

西北山에서 筆峰을 이어 주는 능선지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위와 절벽이 많아 엄폐하기에 좋은 곳이 많았다. 따라서 공중공격이나 포격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 661高地에서 제24연대의 C중대가 물러난 다음 이를 다시 탈환하고자 공중폭격과 포격으로 글자 그대로 강타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급경사의 고지를 향하여 공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21일 12.00를 L중대가 산정(山頂)을 제압하고 점령하였는데 적은 美軍의 포사격이 중지되기만 하면 반격해 왔다. L중대는 진지를 보강할 틈이 없었다. 661高地는 美軍의 계속된 낮포격으로 나무들은 없어지고 황토색으로 벗겨졌으므로 美軍들이 이고지를 늙은 중머리라고 불렀다 에는 美軍이 밤에는 적이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22일 날이 밝자 I 및 L중대는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겁을 먹은 병사들은 잘 움직이지를 않았다. 몇시간뒤에는 I중대진지로 철수하였다.)

8월 23일 : I, L중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대가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661高地에 대한 공격은 다시 시작되었고 드디어 이 고지를 확보하였는데 81mm 및 4.2인치 박격포 사격이 西쪽 측방의 적의 접근로를 강타한 우수한 화력지원의 결과였던 것이다.

8월 25일과 26일에 C중대는 屯德에서 661高地의 능선접근로를 따라 공격하여 오는 적을 발견하고 이를 격퇴하였고, 전폭기는 屯德개활지에 집결한 100여명의 적병들을 네이팜탄으로 혹은 폭탄 기총소사로 몇명만 남기고 몰살시킨 일도 있었다.

이 고지는 제2대대장 코올(Cole)중령이 지휘하는 베이커(Baker) 특수임무부대가 편성(C중대, E중대의 1개소대, 경찰중대) 되어 방어하고 있었다.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된 이유는 661고지가 고립된 전투이고 또한 연대정면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8월 26일 : 제3대대는 661高地와 筆峰일대에서 베이커(Baker)부대로 편입된 C중대를 제외한 제1대대와 교대하여 661高地의 방어임무를 27일 18.00에 인수 완료하였다.

8월 28일 : 날이 밝기 전에 중대병력의 적이 C중대와 I중대의 간격으로 침투하여 왔다. 싸움은 또다시 벌어졌다. 밤에 661高地의 C중대지휘소에 박격포탄이 명중하였고 지휘소

를 점령하였다.

8월 29일 : 02.45 C중대는 분산되었고 적은 계속 E중대를 공격하여 일부진지를 점령하였다. 날이 밝자 C중대와 E중대는 적절한 포지원과 공중공격으로 저녁에서야 진지를 회복하였다. 23.00에 적은 C중대 진지에 습격해 오자 병사들은 후퇴하고 661高地는 또 적의 손에 들어갔다. 중대장 코코란(Cocolan)대위는 부상 당한 몇명의 병사들과 지휘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8월 30일 : 날이 밝자 공중공격과 포격은 또 시작되었다. 적은 또 후퇴하였다. C중대의 어떤 부상병이 내려와서 고지에는 몇명의 적병만이 남아 있다고 보고하였다. B중대는 11.00에 제3대대의 지원 밑에 공격을 시작하여 14.00에는 다시 661高地를 탈취하였다.

美 제24연대와 적 제15연대는 매일 같은 방법으로 쟁탈전을 벌렸는데 661高地(戰鬪山)또는 (늙은 중대머리高地)는 19회나 주인이 바뀌는 싸움을 하였던 것이다. 8월 18일부터 월말까지 매일 싸움은 계속되었다. 南쪽의 西北山 방어를 담당한 제5연대전투단 제1대대도 8월말에는 거의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C중대(제5연대 전투단)의 핸드릿치(Melvin O. Handrich) 상사는 8월 25일~26일에 관측병으로서 포지원을 유도하여 중대진지의 한 보통이를 사수(死守)하였다. 그는 부상을 입고도 계속 포사격을 정확하게 유도하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뒤 이진지를 회복하였을 때 그의 주변에는 70여명의 적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야말로 西北山의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군예비대(軍豫備隊)로 차출되었던 美 제25사단 예하 제27연대는 8월 30일 명에 의하여 馬山에 주둔중인 美 제25사단에 원대복귀하였고 사단의 南쪽 鎭東里 西部지역의 사단 左측방 방어를 담당하던 美 제5연대 전투단은 美 제24사단으로 배속 복귀하였다. 제35연대와 제24연대는 계속 방어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 8월의 전투상황으로 美軍 사단은 전투서열을 빈번히 변경하였다. 교두보 東部지역의 아군의 철수 재배치로 美軍사단의 부대배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리하여 美軍의 재배치도 8월 30일까지 끝나게 되었고 31일 美 제25사단은 南旨里다리에서 南江의 南쪽 고지까지 거의 48km에 걸친 방어정면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8월달의 전투는 美 제8군으로서는 수난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韓國 海兵隊의 統營 奪還戰 (50년 8월 17일부터 50년 8월 1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0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적 군	
해병대 장 중령	金 聖 恩	PC 703함 장 중령	李 成 浩
제 2 중대 장 대위	金 光 植	T-6비행대 장 소령	申 攸 浹
제 3 중대 장 대위	李 鳳 出	병력 약 500명	
제 7 중대 장 대위	安 昌 寬	장비 함정 7	
제 7 사단 장 소장	李 益 成	제104 치안연대 장 미	상
제51연대 장 대좌	姜 致 廟	병력 약 65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25사단장의 지휘 밑에 처음으로 방어에서 반격으로 나갔고 (3.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 참조) 이 작전에 참전 (킨 특수임무부대에 배속)했던 우리 해병대는 이 부대의 해체와 더불어 배속이 해제되는 즉시로 8월 13일에는 大邱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전 병력이 기동하여 中岩里에 도착하게 되자 부대장은 해군본부와 연락하기 위하여 馬山에서 건의하기를 해군 총참모장 孫元一 소장에게 전화로 "해병대는 계속된 전투로 말미암아 재편성과 휴식이 필요하므로 大邱 방면으로의 전진(轉進)은 부대 사기(士氣)에 비추어 재고(再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해병대의 지휘권을 가진 해군 총참모장은 大邱 이동을 곧 鎭海로 변경조치하게 되었으니 이 건의를 채택하여 부대 사기를 높이려 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8월 14일 02.30에 中岩里에서 鎭海기지(基地)안으로 이동을 끝마치게된 해병대는 곧 부대정비에 착수하는 일면으로는 부대의 사기를 올리는데 힘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당시 泗川 부근까지 진출하였던 美 해병대가 작전상 馬山 방면으로 반전(反轉)하게 되자 적제7사단 (혹은 제104 치안연대 ?)의 1개연대는 固城과 統營으로 침입하여 왔다.

8월 16일 미명(未明)에 소속 불명의 증강된 1개 대대 약 650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이 固城에 침

입하여 무혈 점령하였고, 계속 남진하여 17.00 즘에는 統營港 입구인 鰲門 고개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鰲門 고개는 統營 반도를 잇는 폭 900m에 지나지 않는 좁은 지대로서 이 고개는 統營의 숨통과 같아서 이 곳이 만일에라도 차단된다면 統營 주변일대는 완전히 바다 위에 고립되는 형세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 고개에는 統營의 전 경찰력 약 100명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지키고 있었으나 갈빈소총의 경장비만으로서는 우세한 적의 대대병력을 저지할 수 없었으므로 야음을 이용하여 閑山島를 향하여 해상기동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적은 8월 17일 01.00에는 이미 統營港에 침입하였고 곧 뒤이어 세 가지를 완전히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적의 기도는 제6사단의 馬山 방면 공격에 따른 조공(助攻)의 일부로서 가능하다면 巨濟島까지라도 점령하여 馬山과 鎭海 그리고 釜山 지구에 대한 커다란 측방위협을 가하여 보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巨濟島의 北端 일각을 점령한다면 鎭海 일원이 그들의 포격권내에 들게 되는 것을 생각하여 보아도 쉽게 납득이 가는 까닭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長坪里에 대한 기습상륙

소속을 알 수 없는 약 1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統營을 향하여 남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해군 총참모장은 16일 鎭海에서 대기중인 金聖恩 부대장에게 명령하기를 "적을 巨濟島에서 저지 섬멸하라."고 하였다. 이 명령을 받게 된 부대장은 긴급 출동태세를 갖춘 다음 우리 해군의 소해정(掃海艇) 512호정과 FS 平澤號에 분승하고 22.00에 鎭海 군항을 떠나 統營 반도를 향하여 급항(急航)하게 되었다.

상륙부대를 실은 2척의 정대(艇隊)는 야간항해(夜間航海)를 하여 8월 17일 03.00에 統營반도 東北端 1km해상에 있는 紙島에 기착(寄着)하였다.

이 섬은 해발139m의 고지가 南北으로 능선을 이루고 있어 차폐가 잘 되어 육지에서는 관측이 불편하므로 우리 상륙정대(艇隊)의 기도비익에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부대장은 즉시 2개 정찰대를 統營 반도와 巨濟島 해안에 상륙시켰는데 정찰대 각 조(組)는 어선(漁船)에 분승하여 長坪里 나루터 부근과 그리고 見乃梁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적정을 탐색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07.00에 본대로 돌아와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정찰대의 자세한 보고에 의하면 두개 지역에는 이미 우리 쪽의 경찰도 없

고 다만 주민들이 다소 남아있으며 統營邑내에 침입한 적은 해안부두에 집결중이고 巨濟島는 평온하여 민간차량들이 분주히 운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부대장은 이러한 적정을 참모들과 같이 분석.평가한 결과 적이 統營邑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 기회에 巨濟島에 상륙하여 저지(沮止)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統營반도로 직접 상륙하여 적을 격파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즉시 직접 상륙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부대장은 곧 무전으로 해군 총참모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변경을 건의하였던 것이니 그 활동 방안은 참으로 물샐틈 없이 면밀하고 대담한 것이었다.

"統營에 침입한 적은 박격포와 그밖에 중화기의 지원을 받는 증강된 대대병력으로 추산됨. 이 적은 巨濟島로 상륙할 기도가 농후하므로 우리 부대가 적은 병력으로 巨濟島 西쪽해안을 방어하는 것 보다는 統營북단(北端)에 상륙하여 轅門 고개에서 차단하므로써 시내에 침입한 적을 고립시키고 이곳에서 적의 증원부대를 저지격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되므로 統營 상륙을 승인해 주기 바람"이라고 타전한 다음 회신이 올 때까지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부대원들의 사기(士氣)는 충천(衝天)의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날 (8월 17일)정오에 統營 해상을 초계(哨戒)하고 있던 PC함 703호의 함장인 李成浩 중령은 통보하여 오되 "적은 해안선 일대와 시가지 北쪽의 고지에 배치되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음."이라는 것이었다. 金 부대장은 자기의 작전복안을 李成浩 함장에게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자 함장은 이를 쾌락하면서 양인(兩人)이 서로 북천(北天)의 일각(一角)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金 부대장의 작전 변경의 건의를 받은 孫 해군참모총장은 상부의 승인을 얻어서 17.00에 회신을 보내왔는데 FS 平澤號가 접수한 전문의 내용에 이르기를 "건의한 統營의 공격작전을 승인함, 이 해역의 우리 해군함정 703, 901, 312, 504, 302, 307 및 FS 平澤號의 통합 지휘권을 부여함." 이라 하였다. 건의를 승인할 뿐만아니라 필승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까지 마련한 것이었으니 가위(可謂) "그 양장(良將)에 그 상전"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작전승인을 받게 된 부대장은 곧 관계지휘관과 참모장교 그리고 PC703함의 李成浩 함장과 작전을 협의한 다음 작전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상륙계획은 적정이 없는 長坪里 해안을 상륙지로 선정하는 동시에 상륙시간을 8월



<韓國 海兵隊의 長承里 上陸作戰>

17일 18.00로 작정하였으며 상륙순위는 제2중대, 제3중대, 제7중대 중화기중대, 본부대 본부순으로 정하였다.

이 상륙작전은 상륙주정(舟艇)이 없기 때문에 2척의 발동선에 의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어 적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선두제대인 제2중대가 長承里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후속제대는 그뒤를 따라 19.00까지에는 모든 상륙을 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해군의 PC703함을 비롯한 여러 함정은 협조된 공격계획에 따라 統營 항구내에 접근하여 望日峰, 南聖山 부두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불시의 일제 포격은 적으로 하여금 대우 당황케 하였음인지 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적들이 급히 안전지대를 찾아서 헤매게 되었고, 시가지의 적들도 또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2) 우리 공군의 출격

8월 16일:24.00쯤 鎭海 해군통제부 사령관 金省三 대령은 鎭海 비행장의 T-6 비행대장 申攸湜 소령을 찾아가 간청하되"내일 17일에 우리 해병대가 統營을 탈환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공군이 적극지원을 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출격을 요청하였다. 여

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 우리 공군사정을 살펴 보건대 우리 공군은 그 동안 大邱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조종사의 훈련이 시급하여 졌기때문에 7월 27일에 鎭海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8월 1일에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6대의 T-6 연습기에 1기당 2정씩의 0.3인치 기관총을 무장케 한 다음 鎭海 해상에서 시험사격을 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T-6기는 훈련용 비행기였으나 전국이 불리하여지자 다소나마 타개하여 보고자 훈련을 겸한 대지공격 작전에도 출격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차에 이러한 작전지원요청을 받게 된 비행대장 申 소령은 金省三 대령에게 쾌락하여 말하기를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작전에 적극협조하겠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비록 소규모라고는 할지라도 해공연합의 상륙작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8월 17일:그리하여 申敏浹 소령은 金省三 대령을 T-6의 뒷좌석에 태운채로 統營 부근의 해병대의 상륙전을 공중시찰하였다. 같은 날 17.00에는 4대의 T-6 편대가 固城 統營 상공(上空)을 정찰비행중 固城에서 統營 방면으로 남진하는 적의 포병부대를 발견하게 되자 鎭海 기지와 해군본부에 이러한 적정을 보고하게 되었다.

鎭海기지에서는 즉시 F-51로 전폭기 3대가 출격하여 적의 대열을 포착하자마자 로케트탄의 집중투하와 기총소사로써 이 진격대열을 분쇄 격파시켰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전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F-51편대가 공격을 끝내고 그 자취를 감추게 되자 적병들이 시내로 침입하는 것을 T-6기가 또다시 기총소사를 퍼부어 많은 적을 살상하여 그 예기(銳氣)를 좌절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3) 統營 시가지의 전투

8월17일:長坪里의 교두보를 확보한 제2중대(중대장 金光植 대위)는 후속 중대가 상륙을 완료하자 제1목표인 三峰山(△246)으로 진출하여 이를 점적없이 확보하였고 제3중대(중대장 李鳳出대위)는 統營에 이르는 도로 左측으로 전진하여 8월 17일 21.00에는 東岩里 高地를 계획된대로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해군 함정들은 적이 배치된 고지부두, 轅門 고개에 부단한 포격을 가하여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월 18일:05.00를 기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07.30에는 벌써 轅門 고개를 점령하였고 제3중대는 같은 시각에 花浦里의 오른쪽 능선(약△130)에 진출하였다. 이때에

예비대인 제7중대 (중대장 安昌鎭대위)는 도로를 따라 望日峰(△148)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적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해병대의 진격을 알아 차리게 되어 박격포로써 일제사격을 시작하였는데 포탄이 제3중대 지역과 제7중대의 공격대열 후방에 떨어지게 되었다. 제7중대가 望日峰 기슭에 이르고 있을 때 적도 또한 반대방향에서 望日峰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제7중대장은 제1소대장(李一龍 중위)에게 적을 쏘기보다도 먼저 고지를 점령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었다. 이 명령을 받은 李 중위는 소대원을 이끌고 급히 뛰어서 고지로 올라가 꼭대기를 점령하고보니 적은 이미 100m앞까지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곧 치열한 화력전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7중대는 공격해 올라오는 적을 향하여 일시에 조준사격을 퍼붓게 되었고 가까이 다가오는 적에게는 수류탄 세례로써 적의 기세를 꺾어 버리게 되었다. 더구나 이때의 적은 아침의 눈부신 햇빛을 받게 되므로써 그들의 사격은 허둥지둥하는 형편으로 정확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마침내 공격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貞樂里 부락을 향하여 많은 시체를 남기면서 퇴각을 하고 말았다. 우리 제7중대는 또 그들의 퇴로에 박격포사격을 가했고 해군함정에서 적진지에 포격을 거듭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12.20쯤에 이르러 우리 공군의 T-6기 4대와 F-51전폭기 3대가 상공에 나타나 해군함정에서 집중발사하는 탄착점에 대하여 로케트탄 투하와 기총소사를 가하였으므로 여기에 육·해·공·해병대의 입체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T-6기 편대는 鎭東里—泗川—固城—三千浦 상공을 초계비행(哨戒飛行)하면서 적의 보급차량과 병력을 공격하였으며 三千浦 해안에서는 統營으로 향하는 적의 범선(帆船) 4척을 공격하여 격침시키고 말았다.

제2, 제3, 제7중대는 고지를 확보한 즉시로 참호를 구축하여 방어태세를 굳게 갖추었고 부대본부는 東達里에 위치하여 전반을 지휘하였다.

정오가 좀 못되어 轅門 고개에 위치한 제2중대는 固城쪽에서 統營으로 달려오는 찔차 1대를 발견하였는데 이 찔차가 진전(陣前)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적임을 확인하고 일제사격을 가하였으므로 적의 운전병은 차를 길가 언덕에 틀어박고 급히 도주하였다. 분대병력이 추격하여 현장에 이르고보니 찔차에는 트레이라가 달려있었는데 거기에는 120mm 박격포 1문과 포탄, 밀가루 포대 그리고 中共제의 수건 200매가 실려 있었다.

金부대장은 공격이 계획대로 진척되자 제2중대는 계속 轅門 고개의 요충을 확보토록 하고 제3중대와 제7중대에 대하여서는 시가지에 대한 일제공격을 명령하였으니 이때가 8월 18일 정오 쯤이었다.

제7중대의 제1소대장은 공격명령을 내리고 일어서는 순간 적 복병(伏兵)의 저격을 받고 부상 당하였으므로 곧 후송하게 되고 선임하사관이 소대장을 대리하여 지휘하게 되었다.

공격부대가 시내에 돌입하기 전에 해군의 703정과 307정 및 302정에서의 지원포는 12.00 쯤부터 南望山과 적진목표에 대하여 간단없이 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제7중대가 시내로 돌입하기 직전에 179高地에서 적이 일제사격을 하여 오므로 한때 전진이 좌절하게 되자 함포의 지원사격(703함은 3인치 주포 1문과 기타 함정은 37mm포)으로 적진지를 제압하고서야 시내에 돌입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적들은 퇴로를 잃게 되었으므로 그 저항도 경미하였고 지휘관들이 대부분 희생되거나 도망을 쳤기 때문에 병사들은 저마다 서로 무장을 버리면서 집안으로 뛰어 들어 민간복을 강탈하여 이로써 변장한 다음 탈출구를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

시내의 적들은 대부분이 179高地 뒷쪽인 大浦里로 몰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여기에서 지방동조분자(地方同調分子)들의 안내로 배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거기에는 3~4명이 겨우 탈수있는 전마선(傳馬船) 2~3척이 있었을 뿐이었다.

시가지에 대한 탈환전은 적병들이 주택가에 잠입하였기 때문에 집을 수색하면서 적들을 색출하지 않으면 아니될 곤경에 서게 되었다.

한편 제3중대장은 부대장으로 부터 179高地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14.20에 받고서는 단숨에 삼차로(三叉路)에 이르자 적은 기관총과 소화기로써 치열한 사격을 가하여 왔으므로 중대는 곧 지원사격을 부대장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군함정들은 보유한 포탄을 이미 다 소모하였기 때문에 지원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제3중대는 1시간반의 사격전 끝에 16.00에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때마침 鎭海에서 金銀根 중위가 지휘하는 해군방위대(1950.7.1 방미대를 방위대로 개칭)의 1개중대와 함께 FS 平澤號에 의하여 탄약이 長坪里 도선장에 도착하였다. 부대장은 즉시 平澤號를 長子島로 회항시켜 23.00에 제7중대지역으로 탄약을 추진 보급하여 각 중대가 탄약을 보충 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군방위대 제1중대는 PC함 703호와 지원밀에

南望山高地를 점령하였으며 이날(8월 18일) 18.00에 부대는 望日峰으로 전진하였다. 부장은 西쪽과 北쪽으로 퇴각한 적이 固城쪽으로 해상 도주하리라 예상하고 513정과 504정으로 하여금 北쪽 해상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토록 하고 轎門 고개의 제2중대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서 적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 당하고 말았다.

轎門고개의 제2중대는 날이어두워 지자 요소에 국지경계병을 증가시켜 적의 탈출을 봉쇄하고 있었다.

시가지를 뒤져서 적을 잡아내고 있던 제3중대와 제7중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한 채 야간(夜間)경계태세에 들어 갔다.

8월 19일 : 02.00쯤 부대장은 제3중대장에게 179高地를 공격점령하도록 하고 제7중대는 06.00를 기하여 일제히 적의 완전 포착 작전을 전개토록 지시하였으며 해군방위대는 예비대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제3중대는 02.00가 지나서 179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03.00쯤에는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날이 밝은 뒤 부대장이 179高地가 점령된 것을 확인하자 제7중대는 예정대로 최후포착전을 전개하였으며 해군방위대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08.00에 시가지는 완전히 아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부대장은 지휘소를 統營경찰서로 옮기고 시내를 순시하였는데 이 때에 703호 함장도 상륙하여 진 중의 악수를 시로 같이 나누었으며 그 뒤에 金 聖恩 부대장은 統營탈환의 전황을 703함에서 해군본부에 보고하였다.

한편 시가지에서 탈출한 적들은 제3중대와 해군방위대에 의하여 포착섬멸되었으나 일부 잔적은 8월 18일 밤에 大浦里에 집결하였다가 작은 어선으로 法松浦로 탈출하였고 8월 19일에도 3척의 목선으로 집단퇴각하는 것을 해군의 504, 512정이 격침시키고 말았다.

제7중대는 시내에서 轎門 고개로 이동하여 제2중대의 左측에 배치되어 진지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8월 19일 12.00에는 統營읍내의 질서가 회복되어 피난하였던 시민들도 되돌아 왔고 점령당한지 3일만에 신속하게 統營을 탈환하게 되므로써 무엇보다도 무고(無辜)한 읍민들이 적의 만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시가지를 완전히 탈환장악하게 된 우리 해병대는 轎門 고개의 방어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음에 말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7. 韓國 海兵隊의 輸門고개 防禦戰 (50년 8월 19일부터 50년 9월 1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1호

가. 참전 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해병대 장 중령 金聖恩	제7중대 장 대위 安昌寬
제2중대 장 대위 金光植	해군방위대 장 소령 白南豹
제3중대 장 대위 李鳳出	병력 약 300명

적 군	
북괴군 제104 치안연대 장 미상	병력 약 1,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統營 시가지를 완전히 탈환한 해병대는 이 고장을 잘 지키기 위하여 輸門 고개를 굳게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앞 절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제2중대가 輸門 고개에 방어진을 쳤던 것인데 그 左측에는 시가지에 잠복 중인 적의 포착전을 끝낸 제7중대가 증원하기 위하여 추가 배치 되었다.

당시의 통신 수단은 統營-固城사이의 체신부 유선통신을 이용하여 EE-8 전화기를 사용하였다.

2개 중대의 지휘소는 협소한 지역을 고려하여 제2중대와 제7중대의 지휘소가 한 곳에 위치 하였으며 적의 침입과 기타 필요할 때의 신호는 싸이렌을 이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8월 19일 : 15.40 경 固城 쪽에서 사격하는 적의 포탄이 輸門 고개의 우리 방어 지역에 떨어지기 시작하여 3시간 동안에 걸쳐 580발이 작열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대장들은 즉시 지원사격을 요청 하였고 이 연락을 받은 부대장도 지체없이 鎭海 통제부사령관(金剛三대령)에게 공중지원을 요청 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제부사령관은 다시 K-10(鎭海 비행장)의 우리 공군에 요청하게 되었다. 이 요청을 받은 鎭

海 기지에서는 T-6기 4대의 편대가 출격하여 蟾門 고개 西北쪽에 있는 高隆峰 뒷면에 위치한 적의 포진지를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한편 해상의 해군 함정들도 이에 호응하여 동시에 포격하였으므로 적과 우리 사이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계속되었다. 적의 포사격이 중단되면서부터 약 1,000명의 적 병력이 제2중대와 제7중대 진지 전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우리 두개 중대는 적이 300m의 사격권에 들어오기까지 자중하면서 기다리다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고 박격포와 PC703함에서도 동시에 포문을 열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적은 희생을 무릅쓰면서 근접하여 왔으며 서로 간의 사격전은 4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적의 공격은 23.50 쯤 되어서야 겨우 약화 되기에 이르렀다.

3시간 뒤인 8월 20일 02.40 쯤에 적은 재차 반격을 가하여 왔는데 이때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중대와 부대 지휘소간의 통신이 두절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부대본부에 전령을 보내서 병력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령은 부대지휘소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되돌아 오고 말았다. 이런 까닭으로 적은 야음을 타서 침투 하는데 성공하였고 수류탄전이 벌어지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적의 필사적인 공세로 말미암아 제2중대의 진지 일각이 돌파되자 진내전(陣內戰)이 벌어져 혼란이 계속 되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적을 구별하기 어려워 오른 손에는 대검(帶劍)을 쥐고 왼손으로는 서로 머리를 만져보면서 삭발한 자는 찌르곤 하는 그러한 혼전상태 였다. 이와 같이 진내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적은 우리 진지 양쪽의 해안선을 따라 침투하여 약 80명이 양익포위를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중대의 예비소대와 중대본부 그리고 해군방위대의 제1중대가 제2선에서 이들을 협공하여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金부대장은 蟾門 고개 전황을 알 수는 없었으나 계속되는 상황으로 미루어 해군본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날이 밝은 뒤 공군의 T-6기 편대가 출격하여 적의 주력과 포진지를 공격하여 혼란과 피해를 입혔고 20일 아침 08.20에는 이근방의 적이 모두 시체를 남긴 채 퇴각하고 말았다. 이날 21.00부터 적은 10분간에 걸쳐 포사격을 가하여 왔고 또 다시 공격을 해왔으나 약 2시간의 교전 끝에 이를 격퇴시켰다.

8월 21일 : 제3중대와 해군방위대의 제1중대가 蟾門 고개의 제2선에 배치되어 종심을 증강하였는데 이때에 해군의 金錫根중위는 중대장 趙丁石소령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적은 예상한대로 22.00경 에 야간 공격을 또 다시 시작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는

그간에 치른 야간전투의 경험을 살릴 수 있었음으로 적의 반복되는 공격에 대하여서도 침착하게 진전(陣前)에서 적을 격퇴하는 것을 되풀이하였다. 이 때에 이러한 치열한 야간전투에 좀더 사기를 올리기 위하여 진지안에서 "나가자! 해병대"라는 군가를 높이 부르면서 적을맞아 잘 싸웠고 이번에도 적의 공격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기관총 사수는 250발이 들어 있는 탄통 25개를 모조리 소모하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8월 22일 : 아침에 보니 전지 앞에는 적의 시체 62구가 흩어져 있었으며 그 위에 적의 중대장과 병사 3명을 동시에 포로로 잡았던 것이다. 우리 해병대에서는 2명의 전사자와 6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이 당시 濟州島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申鉉俊대령은 연전연승의 성과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왔다.

낮에는 진지 보수와 탄약 보급 그리고 사계(射界)정리 등으로 다음 전투에 대비하던 중 적은 21.00 쯤에는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왔지만 우리 해군 PC 702와 704함이 지원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모진지와 공격부대를 강타하자 여기에 견디지 못하게 된 적은 한시간 뒤에 드디어 퇴각하고 말았다.

8월 23일 : 해군방위대 제1중대장 趙丁右소령을 廉鳳生소령과 교대하였다. 저녁 20.00에는 해군총참모장 孫元一소장은 統營 부두에 도착하여 金聖恩 부대 지휘소를 방문하여 부대장이하의 모든 장병들에게 승리를 축하하고 더욱 분투해 줄 것을 당부한 다음 21.00에 釜山으로 돌아갔다.

8월 24일 : 轅門 고개에 포진한지 1주일이 되는 날 처음으로 대인지뢰가 보급되자 이 지뢰를 진지 앞 적의 접근로에 매설하여 방어진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였다.

8월 26일 : 퇴각할 기회를 놓치고 잠복 중이던 적의 장교 1명을 10.00에 수색대가 포로로 하였다. 이날 金聖恩 부대는 사령부로부터 해병대 제161부대 제1대대라는 건제(建制) 부대 서열 통보를 받았다. 이제 까지 제7중대로 불리운 安昌寬대위의 중대는 제1중대로 개칭되고 제1중대는 제4중대로 개편되었다.

또한 統營을 탈환한 다음 이 지구의 청년방위대원 33명이 참전하기를 지원해왔는데 방위군 중위 全某가 지휘하는 이들은 부대장의 쾌락을 받고 이 지역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8월 27일 : 17.00에 이들 청년방위대원은 처음으로 全중위의 지휘로 轅門 고개 西쪽

8km 지점에 있는 水月里 陽地洞과 그리고 거기에서 1.5km 北쪽 해안에 있는 가오치에서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기습대를 지원한 PC 704함은 이에 호응하여 동시에 포격을 시작하여 적을 北쪽으로 격퇴시킨 다음 기습대는 지방공산분자 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싸움에서 몇명의 적도 사살하고 말았다. 이날 밤 23.30 쯤 적은 蟾門 고개 진지를 중대병력으로 공격하였으나 진전(陣前)에 묻어 놓은 지뢰와 사격으로 또 다시 격퇴를 당하였을 뿐이었다.

8월 28일 : 15.30에 부대장 은PC 704함을 타고 계속 水月里 방면의 北쪽 고지대에 대한 포격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를 계기로하여 청년방위대 전원은 PC 704함의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범선(帆船)으로 적전 상륙을 감행하여 중대병력의 적과 교전 끝에 14명을 사살하고 포로 1명을 잡았다. 이날 밤에는 적의 공격은 없었으나 적은 24.00부터 竹林里의 광산 갱도(坑道)에 확성기를 걸어놓고 아방(我方)에 대하여 귀순하라고 방송하므로써 심리전 공세를 펴 왔는데 우리 군사들의 냉소만을 사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8월 29일 : 14.00에는 다시 청년방위대가 범선(帆船) 몇 척으로 적지에 상륙하여 적을 교란시키고 돌아 왔으며 또한 水月里 뒷산 325高地 (烽火山)와 300高地(매봉산)를 左右에서 동시에 공격한 다음 어둠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은 적은 全 중위부대가 은밀히 철수한 것을 모르고 左右고지에서 그들끼리 서로 치열한 사격전을 계속하면서 밤을 새웠다. 후일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끼리의 교전에서 서로 쏘아 죽인 시체가 60구나 있었다고 한다.

8월 30일 : 美 항공기 6대는 적이 蟾門 고개의 해병대진지를 계속 돌파하려고 기도하여 觀音峰과 竹林里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결과 곧 이 적에 대한 대지상(對地上) 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이 때에 적의 시체가 허공으로 치솟는 것을 육안으로 능히 볼 수 있었다.

8월 일31 : 아침 부대장은 水月里 뒷산의 능선 일대에서 준동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방위대의 全 중위로 하여금 부하를 이끌고 10.00에 水月里에 다시 상륙시켰는데 이 부대는 20분 동안에 걸쳐 적과 교전 하였다. 이날 밤에도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蟾門 고개를 또 다시 공격하여 왔으나 아방(我方)의 화력으로 말미암아 곧 격퇴 되고 말았다.

9월 1일 : 적은 계속 병력을 집결 중이었으며 적의 관측소인 觀音峰 정상에서는 장교들이 統營半島를 손짓하면서 무엇을 계획하는 듯이 보였다. 부대장은 필연코 적이 최후의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전대원에게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해군 303 정장 申永澈소령에게는 網子島와 長久島를 연결하는 해상선을 봉쇄한 다음 적의 동향을 샅샅이 살펴 보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방위대로 하여금 발동선을 타고 網子島에 상륙하여 303 정과 연결을 유지토록 조치하였다.

9월 2일 : 01.00에 예상한대로 적은 약 1개소대로 공격하여 왔으나 곧 격퇴 되었다. 18.40 쯤 美軍 전폭기 8대가 竹林峰 西南쪽의 적을 공격한 다음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이어서 해상의 PC 704함은 공중유도사격 때보다도 심하게 폭격을 하여 적은 공중과 해상공격을 동시에 받고 200명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날은 해군방위대의 廉鳳生소령이 지휘하는 제1중대가 金東俊소령이 지휘하는 제2중대와 서로 임무를 교대하였다.

9월 3일 : 새벽 03.00 청년방위대 梁 소위는 대원을 지휘, 轅門 고개 西쪽 5km 해안에 있는 法松浦에 기습 상륙하여 포로 6명과 적 5명을 사살 하였고 한편 같은 시각에 적은 轅門 고개를 대대 미만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공격해 왔으나 역시 우리 진지를 감히 돌파하지 못하고 05.00까지 모두 퇴각하고 말았다.

적의 공격은 밤마다 轅門 고개의 해병대 진지를 돌파하려 하였으나 한번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지치게 된 적은 공격의 뜻을 포기해서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다만 그들의 현 위치를 고수하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날, 鎭海에서 1개 중대의 보충병력이 증원되어 각 중대에 각각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4일 : 해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전문을 받았는데 그 요지에 이르기를 "統營郡 龍南面 倉坊 부근에 적의 소수병력이 상륙하였으니 이를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이 전명(電命)에 따라서 金 부대장은 곧 해군방위대 제2중대의 1개소대를 출동시켰으며 PC 702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轅門灣 깊숙히 들어가 竹林里 광산 일대에 있는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서도 적 진지를 격파하였다.

9월 5일 : 해군방위대 제2중대는 鎭海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아 龍南面 倉坊里에 출동한 1개소대는 제3중대의 1개소대와 교대하였으며 제3중대는 적정이 없기 때문에 원대에 복귀하였다.

이날 (9월 5일) 새벽 05.00에 적은 轅門 고개의 우리 진지에 대하여 여전히 공격을 가하여 왔으며 수류탄전을 벌렸으나 모조리 진전에서 격퇴되었다. 또 이날 11.00경 적정

이 비교적 잔잔해지자 仁南豹소령은 해군방위대의 제2중대와 鎭東里 전선에서 지원 받은 병력 155명을 합하여 270명을 지휘하고 鎭海港으로 귀항 하였다.

9월 6일 : 10.00 부대장은 PC 702함을 타고 統營 北쪽의 固城 東북 해안을 초계하면서 竹林里 해안과 巨濟面 해안 일대에 숨겨져 있는 적의 소형선박을 모조리 격침시키고 15.00즘 統營灣으로 귀항하였다.

9월 7일 : 이날도 부대장은 PC 702함에 승선하여 저녁 때 紫嶺浦와 그 東북에 있는 고저 능선일대의 적진에 대하여 포격을 반복하였다.

적은 8일 새벽 05.00에도 또 다시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가해 왔는데 적은 약 1개대대 병력으로 보였으나 매설해 놓은 지뢰와 함포의 집중사격, 그리고 박격포의 탄막사격으로 막심한 손실만 내었을 뿐으로 09.00에는 전면에 걸쳐 퇴각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생포된 적의 병사는 이 부대가 북괴군 제104연대의 제21대대와 제22대대라고 말하였으며 이들은 南韓 점령지에서 강제로 징집된 학생들로 이루어진 의용군이라고 하였다.

9월 9일 : 이날 하루만은 교전이 없었다.

9월 10일 : 07.00시 閔容鎭중위와 金文常중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가 韓門 고개의 제2중대 및 제3중대와 각각 임무를 교대하였으며 제2, 제3중대는 함정에 탑승하여 釜山으로 회항하였다. 韓門 고개의 새임무를 맡은 閔 중대와 金 중대는 이전투에 참전한 첫 날밤에 큰 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9월 11일 : 22.30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것을 잘 막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이번 공격에서도 또다시 피해만 입고 분산철수하는 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이제 까지 적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 해병대의 진지를 9회에 걸쳐 공격해 왔으며 기어코 統營을 다시 탈환하여 보려고 안간 힘을 써 보았으나 끝내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해병대의 감투정신은 그 이름 충무(忠武)와 더불어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21일 統營을 사수한 승리의 해병대는 명에 의하여 金忠男 중령의 해군방위대 제1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統營 국민학교에 집결하였다.

9월 22일 이동 준비를 완료한 해병대는 15.00에 국회의원 일행 15명을 맞이하였는데 이 일행은 韓門 고개의 진지를 시찰하고 부대원을 격려하였다.

9월 23일 11.30 해병 제1대는 金부대장 지휘하에 LST 月陽號에 실려 統營 읍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이미 9월 15일 仁川 상륙작전에 참전한 다음 서울을 탈환하기 위하여 水色에서 서울에 돌입하고 있던 우리 해병대 주력을 증원하고 서울 탈환전에 참전하기 위하여 仁川으로 향하였다.

§ 일화(逸話)

龍門 고개의 제2중대 (아 해병대)는 날이 어두워지자 요소에 국지경계병(局地警戒兵)을 증가시켜 적의 탈출을 봉쇄하고 있었으며 중대장은 적의 역습에도 대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도로의 고개에는 제3소대의 1개분대가 배치되었는데 첫번 보초는 金 삼등병조 였다.

분대호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독립수(獨立樹)를 이용하여 경계 중 뒷쪽(시내방면)에서 인기척이 나자 근거리에서 수하(誰何)를 하였던 바 상대방은 "나앗!"하고 계속 앞으로 다가오므로 金 삼등병조는 소대장의 순찰인 줄로 오인한나머지 보초병으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갑자기 권총을 내밀면서 총을 떼앗아 어깨에 메고 "누구얏"하며 도리어 반문하였다. 그제서야 보초는 적인 것을 직감하고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적의 장교였다. 金 삼등병조는 정신을 가다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군관동무 저는 서울에서 의용군으로 이곳에 나왔다가 국방군의 공격을 받고 부대가 분산되어 하는 수 없이 固城으로 탈출하는 중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적의 군관은 보초병의 태도가 수상하였던지 철모를 벗으라고 하였다. 원래 괴뢰군 병사는 모두 삭발하고 있었고 국군 장병은 모두 단발하고 있었는데 金 병조는 머리가 길기때문에 철모를 벗으면서 임기응변으로 "저는 도중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 머리를 깎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닦아 노획한 수건을 적에 보이면서 오늘 지급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적의 군관은 수긍이 갔던지 보초병을 앞장 세우고 앞으로 가자고 하여 약간 전진하였을때 분대의 초소에서 "누구얏?"하는 소리가 났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金 삼등병조는 "적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 옆으로 뛰어 물렀다. 이때 초소에서는 사격이 집중되었으며 죽은적 고개를 넘긴 金 삼등병조는 사격이 멈춘후 바로소 초소로 돌아와 소대장에게 전후 경위를 보고하였다. 이때가 19일 02.00 경이었다. 날이 밝은 뒤 현장에가 보니 거기에는 소성(小星) 3개의 대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적의 군관 시체가 있었다.

이 사건은 진중근무의 경험이 없는 보초병과 소대장의 지휘 통솔이 부족한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소대원이 소대장의 음성도 구분 못하는것과 총을 적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훈련의 불철저를 뜻하는 것이고 중대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요지에 보초를 배치시키지 않은 것은 경계대책의 소홀이라 하겠다.

그러나 궁지(窮地)에 빠졌던 金 삼등병조의 기지(機智)는 높이 평가(評價)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第 21 章

反擊準備와 海空軍 作戰

第21章 反擊準備와 海空軍 作戰

要 旨

개전 이래 적의 우세한 장비와 병력에 의한 강습은 아군으로 하여금 전선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아군은 8월초에 이르러서야 최후의 배수진으로서 洛東江을 중심으로한 불철퇴의 저지선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같은 전황하에서 洛東江 전선의 설정은 사수를 위해 마련된 목표선에 지나지 않는, 종심 없는 침적인 점의 연결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전선에 배치된 각 전투 사단의 정면은 그 한계선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洛東江전선은 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전선이었다.

그러나 아군 및 UN군은 이 주어진 불철퇴선을 끝내 사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를 위하여는 최악의 조건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아군의 강인한 방어전의 전개는 아군의 손실과 더불어 적에게도 끊임없는 출혈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 결과 8월 중 美 4개 사단의 병력 손실은 6,071명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괴뢰군은 12개 전투 사단 병력 총 82,590명중 26,800명의 손실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中東部전선의 아군 손실도 정확한 총수는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8월 1일 단 하룻동안의 손실만도 1,328명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적에 뒷지 않은 손실이 있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어떻던 피아의 이와 같은 긴박한 대치 상태하에서의 승리의 관건(關鍵)은 무엇보다도 병력의 보충과 군수품의 지원문제를 어느 쪽이 더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단 전선이 洛東江을 중심으로 교착(膠着)상태에 머물게 되자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韓國군 및 UN군 당국은 병력과 보급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선을 재정비하여 8월의 전세를 만회함과 동시에 9월의 반격작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韓國軍 당국은 육군본부가 大邱로 이동한 7월 중순 이후 병력의 보강문제에 주력하여 9월 3일에 이르기까지 제1, 제3, 제5, 제6 신병훈련소를 창설하고 이어 동 20일에는 제2훈련소를 신설하여 신병의 증모 및 양성을 기하는 한편 육군사관학교 육군보병학교 등을 복원하여 신임장교를 배출시켰으며 포병 기갑(機甲) 등 각종 기술학교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쟁 발발 당시 94,974명중 8월 19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37,000명의 손실을 보았던 아군의 병력을 9월 1일 현재 91,694명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되어 8월 중에는 남침 이후 후퇴와 동시에 해체되었던 7사단을 재편하고 11사단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4개의 포병대대를 증편하기에 이르렀다.

UN군 특히 미군의 증강 계획은 시간상의 문제와 전선의 긴박으로 카츄사병제에 의한 韓國軍 신병의 증원이 실시되어 日本에서 仁川 상륙을 준비 중인 美 제7사단에는 8월 16일 이후

24일까지 8,637명의 카츄사병이 편입되었고 洛東江 전선에서 작전 중인 美 제24 제25사단 및 제1기병사단에는 8월 20일에서 월말까지 8,300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9월부터는 매 4일마다 500명씩을 인계하였다. 그리고 美 본토로부터도 8월 중에는 11,115명이 도착하였고 9월 6일까지는 장교 229명과 사병 2,201명이 수송되었으며 영국군 2개대대 역시 8월 29일에 도착하였다.

또한 美軍은 피아 장비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전차부대의 증강 계획에 착수하여 7월 31일 제8072전차대대 A중대가, 8월 4일에는 그 주력부대가 도착하였고 7일에는 제6 제70 제73 중(中)형전차대대등 3개 대대가, 16일에는 72전차대대가 각각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9월 1일 현재 UN군 총병력은 아군 91,696명을 포함하여 180,000여명에 달하게 되었고 적과의 전차 보유비율도 5 : 1로 우세하게 되었다. 이 결과 8월 말에는 각 부대의 재배치 및 전선의 조정이 끝나게 되었고 9월에 접어들면서 韓國軍 및 UN군의 전방사단에는 병력이 충원되었으며 우세한 예비부대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병력의 증강 계획과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군수품의 지원 문제였다.

美 극동군사령부는 7월 13일 釜山에 美 제8군 군수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7월 중순 이래 레드볼(Red Ball) 특급수송작전을 전개하여 日本東京—橫濱—佐世保를 연결하는 철도와 佐世保—釜山간의 해로를 통하여 약 60~70시간 이내에 병력과 군수품을 釜山港에 수송하였고 C—119수송기에 의한 항공 수송을 병행시킴으로써 적기에 보급 및 수송을 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괴군도 8월 중에는 그들의 소위 제5차작전계획이 수립되었고 3개의 전투사단을 증편하여 전선으로 투입시켰으며 14,700명의 의용군을 현지에서 징발하여 손실 인원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전선에의 보급 수송을 위하여는 육로 및 해로를 이용하여 기차나 선박 또는 인마에 실어 남파시키고 있었으나 제해 및 제공권이 아군의 장악 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보급품의 적기 수송은 불가능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보급품중 특히 식량등은 점령지에서 현지 조달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洛東江전선의 전황하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아군 및 UN의 해·공군은 일면으로는 적의 해상활동을 봉쇄하였고 다른 한면으로는 북한 전략지역의 파괴와 적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선에 투입된 적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아군의 근접지원작전에 참여하였다.

1. 我軍의 反擊準備와 敵軍의 狀況

가. 韓國軍의 兵力增强

美國防省은 8월 19일, 전쟁발발이래 韓國軍의 사상자수를 37,000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개전 당시의 총 병력 94,974명에 비한다면 무려 38%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었다. 그러나 남침 이후 전선의 남하와 더불어 병력의 손실이 증가됨에 비례하여 병원(兵員)의 보충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의 과제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인력동원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전(戰前)에 이미 국민개병(國民皆兵)의 병역법(兵役法)은 공포되어 있었지만 당해 기관인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가 시행상의 착오로 1950년 3월 14일에 해체됨으로써 징병해당자들은 병력의 의무가 해소되고 말았으며 비록 민병대인 청년방위대가 전국에 20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은 청년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마저 개전과 더불어 그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병력의 보충에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병력의 보충 문제가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은 육군본부가 大田에서 大邱로 이동한 7월 14일 이후의 일이었다.

이 당시 한·미양군은 UN군의 증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요하였고 전투상황은 날로 긴박해지고 있어 우선 韓國軍의 증원문제를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타결 방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5개 韓國軍 사단(수도, 제1, 제3, 제6, 제8사단)의 손실병력을 완전히 보충한다.

둘째 사단을 증편한다.(개전 당시의 8개 사단을 유지하려면 해편된 3개 사단을 새로 편성하여야 한다)

세째 美 본토에서의 美軍의 증원과 병력보충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한국군 신병을 美國軍 전투부대에 보충하는 것등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수개의 신병훈련소를 창설하게 되었다. 개

전 이후 병력 보충책의 일환으로 신병의 훈련을 최초로 담당한 부대는 육군신병교육대였으며 이 교육대의 전신은 종래 방위사관의 양성을 장악해 왔던 방위훈련학교였다. 본래 육군에서는 鎭海에 있던 방위훈련학교가 1950년 3월 20일 水原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2개기(期)를 배출시킨 뒤 요원의 양성을 끝 맺게 하고 따라서 동교를 해체함과 동시에 서울 淸水洞에 있는 전 제9연대 병사(兵舍)로 이동시켜 6월 10일 육군신병교육대로서의 새로운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적의 침공으로 이동을 하지 못한 채 6월 28일 水原에서 앞서 서울지구에서 긴급 소집한 징병해당자 약 2,400명을 水原으로 철수시키자 이들을 인수하여 훈련대의 편성과 교육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뒤 전선의 南下로 7월 3일 大田으로 이동하여 2주간의 도수(徒手)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곧 倭館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사격훈련도 실시하지 못한 채 8월 초에는 義城에 주둔하고 있었던 육군 제1군단사령부에 보충병으로서 인계하였다. 이것이 한국군 최초의 병력 보충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하여서는 이러한 임시적이고 불철저한 방편을 불식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비된 기구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大邱에서 창설된 육군본부 직할의 육군 제1훈련소는 그중 대표적인 신병교육기관 이었다. 이 제1훈련소는 처음 제25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7월 11일 大邱에서 교육연대로 발족하여 17일 경북편성관구사령부(慶北編成管區司令部)에 예속되었다. 그뒤 제7교육대로 개칭되었고 다시 8월 1일 육군중앙훈련소로 개칭되었다가 14일에야 비로소 육군본부직할의 육군 제1훈련소로 확정된 것이다. 大邱에



<大邱중앙훈련소 제1교육대에 입소하는 학도병>

서 이 제1훈련소가 창설됨을 계기로하여 8~9월중에는 5개의 훈련소가 증설되고 육군중앙훈련소본부(본부장 李鍾贊대령) 통제하에 두어 병력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제1훈련소를 위시한 6개훈련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제1훈련소 초대 소장 崔 錫대령 8월 14일 창설 大邱
제2훈련소 초대 소장 朴炫洙대령 9월 20일 창설 釜山
제3훈련소 초대 소장 劉興守대령 8월 15일 창설 鎭海
제5훈련소 초대 소장 金炳徽대령 9월 3일 창설 濟州
제6훈련소 초대 소장 朴基丙대령 9월 3일 창설 三浪津

이들 각 훈련소는 개전 뒤 해편된 연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초대 소장(所長)들이 이끌고 있던 부대를 근간으로하여 창설되었거니와 훈련기간은 대체로 장기 2주(최초) 단기 1주간의 단기간에 걸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수용병력은 약 5,000~6,500명이었다. 기간장교는 생도 1기(육사 10기)를 중심으로 하여 개전 후 예비역에서 현역에 편입된 배속장교(중학교 및 청년단) 호국군장교 및 방위장교들로서 충원하였는데 이들 자신이 단기교육(30~45일)을 받은 예비역장교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훈련병들은 1개 중대에 M1소총이 20정 그외 일제(日製)99식 소총 20정 정도로서 교대로 조작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선에 배속되고 나서도 간단한 노리쇠의 고장 배제조차 하지 못하는 가하면 실탄의 장진조차도 제대로 못하여 소대장이나 선임하사관을 전투 중에 찾는 예가 허다하였다.

9월에 들어서 각 훈련소는 하사관 교육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우수한 병사를 선발하여 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자동소총·기관총·박격포·로케트포·대전차포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훈련소에서는 화기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부언해 둘 것은 당시 이처럼 신병훈련소가 증설되어 병력의 양성과 보충에는 크게 이바지 하였지만 인력동원상에는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은 자진하거나 또는 학급전체가 배속장교의 인솔하에 군문에 투입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大邱나 釜山에는 피난민들의 집중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가두에서 20~25세가량의 청년들은 관리나 학생 및 노동자를 막론하고 무조건 입대시키는 강권을 발동하였고 징병해당자는 지방행정 기관에서 동원을 실시하여 긴박한 전국(戰局)을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다.

병력 보충문제에 있어서 주력을 기울인 것은 사병의 충원에만 한한 것은 아니며 이와 동시에 장교의 배출문제도 다를 것이 없었다.

종래의 육군사관학교가 50년 7월 8일부로 임시 폐교케 되었으나 8월 7일에는 大邱 육군중앙훈련소내에 육군사관학교를 재설치하였다. 그러나 정규사관의 양성은 전국의 추세를 전망할 때 암담하였으므로 8월 15일에 육군보병학교로 합병 개칭하게 되었다.

8월 7일부로 大邱에 재설치되어 8월 10일에는 慶州로, 15일에는 東萊로 이동하였다가 이듬해 10월 27일에는 다시 光州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함에 따라 8월 21일 육군보병학교는 육군제병(諸兵)학교로, 9월7일에는 다시 육군종합학교 (초대교장 李俊植준장)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개전 당시의 육군사관학교생도2기는 전시계획에 의하여 4년제과정을 포기하고 330명(전사 또는 행방불명자 82명 제외)중 종합학교 1기생으로 123명이 6주간의 교육 끝에 10월 15일에, 제2기 125명이 10월 23일에 각각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종합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가운데서 일반 공모(公募)로 간부후보생을 선발하여 1기부터 32기까지 배출하였는데 매주에 250명이 입교하고 250명이 배출되었다. 전국의 호전(好轉) 곧 북진작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16주 교육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하였다.

종합 1기생이 배출되기 전에 육군보병학교에 입교 중이던 갑종간부제1기후보생은 大邱에서 7월 15일부로 임관하고 제2기생은 東萊에서 2주간의 교육을 마친 다음 9월 1일부로 임관하였다. 그외 포사(砲士), 1기는 鎭海에서 9월 10일에 배출되고 2기와 포병간부(砲兵幹部) 제2기생은 11월 11일에 각각 임관시켰다.

포병학교는 임시 폐교와 더불어 7월 14일 제1포병단으로 개칭 흡수되고 그후 9월 10일에는 육군포병사령부로 편입되면서 포병교육대대로 개칭, 9월 15일 鎭海제7훈련소의 창설과 동시에 훈련소에 편입되어 포병간부를 양성하였다. 12월 2일 육군포병교육대대를 육군포병훈련소로 개칭, 이듬해 51년 2월 17일 육군종합학교포병과에 편입, 동년 3월 10일육군포병학교로 개칭하고 독립하여 鎭海에서 全南 光州로 이동하였다.

어떻든 7월 중순이래 병력의 보충 계획은 이상과 같이 강력히 추진되어 8월과 9월에 나타난 성과는 다대하였다. 당시의 정확한 병력의 증가 및 손실 현황은 상고할 수 없으나 1950년 8월 19일부로 UN군총사령부에서 美 육군성에 보고된 韓國軍의 병력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韓國軍의 병력현황——

(8월19일현재)

제1군단사령부	1,275명	육본직할제3사단	7,154명
수도사단	16,376명	浦項지구전투사령부	575명
제 8 사단	9,106명	金龍周부대	4,025명
제2군단사령부	499명	특과부대	14,641명
제 1 사단	10,482명	훈련소	1,250명
제 6 사단	9,300명	육군본부	2,159명

총계 76,842명

이 8월 19일 현재의 총병력 76,842명은 개전 당시의 94,974명에 비하면 2,000여명이 감소된 실정이기는 하나 그간 37,000명의 손실 인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교의 보충 및 증원에 노력하는 한편 육군에서는 아군의 약점인 포병화력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개전 이래 6개의 105mm(M3) 포병대대를 9월 10일에 이르러는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고 또한 105mm (M2)포로서 장비하는 한편 4개 대대를 증설함으로써 10개대대의 포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전당시부대명	개칭부대명	예속부대명	부대장 계급
포병 제 7 대대	포병 제10대대	수도사단	李日三 소령
제 6 대대	제11대대	제 3 사단	盧載鉉 소령
제 3 대대	제16대대	제 6 사단	金 聖 소령
제 5 대대	제17대대	제 1 사단	朴永淑 소령
제 1 대대	제18대대	제 2 사단	朴延錫 소령
제 2 대대	제50대대	제 8 사단	鄭寅暁 소령

육본직할로 증설된 부대

포병 제20대대	포병 제27대대
〃 제26대대	〃 제30대대

서술상 여기에서 부언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육군기갑학교의 설치문제다. 남침이래 적이 보유한 소제(蘇製) T-34전차는 韓·美양군으로 하여금 후퇴작전을 강요하였고 극심한 수난을 겪게 하여 왔다. 이리하여 美군 당국은 韓國軍에도 기갑부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1950년 11월 10일 東萊의 육군종합학교에 전차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최초 교육은 장갑차 98대로 기초교육을 실시하다가 1951년 4월 4일 전차과를 전차대대로 개편하고 M-36(90mm자주포) 33대, M-32(전차수리차) 2대로 전차장교초등군사반과 전차병 승무원반과 그리고 2종정비장병반의 과정교육을 시작하였다. 동년 10월 28일에 東萊에서 光州로 이동하기 전에 10월 5일 韓國軍 최초로 제51전차중대가 창설되고 뒤이어 52, 53, 55, 56, 57, 58, 59등 8개 중대가 창설되어 제1, 제2군단에 배속되게 되었다.

각 중대는 4개소대로서 각 소대는 전차 5대, 본부에 3대, 수리차 1대로 편성, M-36 전차의 특징은 제2차 대전시 주로 대전차공격(對戰車攻擊)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포탑(砲塔)의 철갑(鐵甲)이 보통전차에 비하여 약하고 포탑의 두껑이 없다.

이상과 같은 병력 및 화력의 증강계획에 상응하여 韓·美양군이 추진한 일련의 성과는 전투사단의 증편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美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韓國軍이 보유하였던 개전당시의 8개사단이 서전에 타격을 받고 제2, 제5, 제7사단등 3개사단이 해체되어 5개 사단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韓國軍의 증강이 불가피하다는 건의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도 韓國軍의 증편에 동의하고 美육군성에 건의하였던 바 8월 10일에야 증편의 권한을 부여 받게 되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이와 같은 권한에 의거하여 워커(Walker) 중장은 8월 18일에 건의하기를 9월부터 매월마다 韓國軍 1개사단씩을 증편하여 도합 5개 사단의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워커(Walker) 중장의 건의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비문제 때문이었다.

韓國軍 당국에서는 5개 사단창설계획에 있어 우선 제7사단과 제11사단을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美 본토에서 공급되는 재고장비(在庫裝備)의 한도내에서 증설 사단에 할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증편될 한국군 5개사단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미국에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실정 하에서 韓國軍에서는 8월 20일에 독립유격(獨立遊擊) 제1 및 제2대대와 機械化부대를 기간으로하여 제7사단을 재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전기로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사단이 증설됨으로써 韓國軍은 1950년말에 도합 10개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11사단 1950. 8. 27 창설
제 5사단 1950. 10. 8 재편
제 9사단 1950. 10. 24 창설
제 2사단 1950. 11. 11 재편

나. UN군의 병력 증강

UN군 연합작전에 의한 洛東江전선의 공방전은 병력의 증강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가에 승패의 관건이 달려 있었다. 이리하여 이미 말한 바와 같이 韓國軍 전투사단의 보강을 위한 장병의 양성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거니와 한편에서는 美 전투사단의 보충문제도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현지에서 韓國軍 신병을 차출하여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곧 카츄사(KATUSA)병의 증원이었고 다음은 美 본토로부터의 병력 지원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美國 지상군을 비롯한 UN참전군의 일부도 내한 중이었다.

(1) 카츄사(KATUSA)兵의 增員

美 지상군의 보충을 위한 카츄사병의 증원계획은 긴박한 전국을 만회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에 이른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선험적(先驗的) 사례가 뒷받침하여 주었다.

7월 15일 내무부장관에 취임한 趙炳玉은 大田철수 후 永同전선을 시찰할 때 적의 유격대가 피난민을 가장하고 전선의 후방에 침투하여 기습과 교란행위를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워커(Walker) 중장에게 美군 대대 및 중대단위에 한국경찰대(韓國警察隊)를 배속하여 오열(五列)의 수색 및 색출의 임무를 맡기도록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워커(Wlaker) 중장은 군의 편제와 제도상에 이러한 예가 없다는 것으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뒤 7월 23일 美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永同에서 적의 게릴라에 격파 당하자 趙炳玉은 재차 워커(Walker) 중장에게 韓國 경찰을 美軍부대에 배속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워커(Walker) 중장도 적 게릴라에 대한 무방비상태에 대처하고자 美 국방성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5,000명의 경찰대가 배속되어 적의 게릴라 침투에 대한 방지와 소규모의 전투도 담당하면서 美軍의 작전

에 적극적으로 협동하면서 기여한 공적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조처가 있은 뒤 8월 1일 美제8군이 洛東江 방어선으로 후퇴할 무렵 4명의 한국군 장교와 133명의 경찰대는 美軍측이 식량 과무기를 공급하는 조건하에 美 제7기병연대 1대대장 크레이노(Clainos) 중령의 대대에 편입하게 되었다. 4명의 장교 중 鄭중위(日本 東京에서 훈련을 받은 장교로서 日本刀를 차고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크레이노(Clainos) 중령의 참모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3명의 장교는 각각 A·B 및 C중대에 배속되었다. 8월 9일 적이 268高地 금무봉(錦舞峰)을 침공하였을 때 이들 중 2명은 전사하고 7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보행이 불가능하였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후송을 거부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상과 같은 韓·美협동작전의 성과 및 韓國軍의 충정과 감투정신은 美軍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켰을 것임은 새삼 재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무렵 韓·美당국은 洛東江방어선 및 仁川상륙작전에 투입시킬 병력의 보충을 논의해 왔고 일면 韓國軍 전투사단의 증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美軍의 보충 및 증편은 내외의 사정상 실현성이 희박한 상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 카츄샤 병제에 의한 증원계획이 대두케 된 것은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 불가피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밖에도 韓國군의 美군부대에의 편입은 韓國의 지리와 풍토 및 언어에 미숙한 美군들에게 정보 및 수색활동등 제반 작전상의 편의가 제공되며 따라서 韓美연합군으로서의 우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이다.

8월 10일 美 극동사령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들 카츄샤병을 투입시키려고 한 전투사단은 당시 한국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던 美제24, 제25, 제2사단 및 제1기병사단등 4개의 사단과 日本에서 仁川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美제7사단을 합하여 도합 5개사단이었다. 그리고 각 사단에 투입시킬 병력의 한계는 약30,000—40,000명으로 추산하여 각 중대와 포병대대에 대략 100여명씩을 배속키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8월 15일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최초의 증원이 이루워진 사단은 日本 주둔의 美 제7사단이었다.

8월 16일 오후 313명의 신병이 日本으로 이송된 것을 효시로 하여 매일 2,000명 정도의

신병 수송선이 釜山港을 출발하였다. 최후의 병력 수송선이 日本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한 것은 8월 24일이었으며 그간에 보충된 신병의 총수는 8,637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韓國 정부가 이 많은 수의 보충될 인원 확보에 있어서 처음에는 대개 釜山과 大邱 가두에서 적접 징모하였다.

이리하여 징모된 자들은 日本으로 수송되는 줄도 몰랐으며 책가방을 끼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의 약을 구하러 나왔다가 불의에 징모된 사례(事例)들도 있었던 실정이었다.

다음, 美 제7사단의 보충에 이어 韓國에 주둔한 美軍 4개사단은 8월 20일에 비로소 韓國군의 보충병을 받아 드리기 시작하였다.

美 제24사단과 제25사단 각각 250명, 2사단과 제1기병사단에 각각 249명의 보충병을 배속시켰다. 그 다음 주부터는 매일 평균 250명이 인계되었는데 특히 29일과 30일에 이르러는 제1기병사단에는 매일 평균 740명을 인계하였으며 제24사단에는 950명의 보충 인원이 인계되었다. 이리하여 8월 말 현재의 보충 병력은 총8,300명에 달하였고 이 이후 9월부터는 매 4일마다 500명을 인계토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韓國군 신병이 美軍전투부대에 편입되기에 이르자 美 극동사령부에서는 한·미양군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2사단에 전우조(戰友組)를 편성하여 화기의 사용법을 비롯한 야전위생훈련과 병영관리교육을 담당 지도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美 제25사단에서는 美軍 장교가 지휘하는 독립소대가 편성되었고 美 제24사단장 처치(Church) 소장은 독립소대 또는 분대별로 韓國軍 장교와 하사관을 부대에 배속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카츄샤병을 편입한 그 초기에 있어서는 우선 언어와 관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韓·美軍 상호간 이해가 이루어 지기가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 美軍은 대체로 훈련된 군사인데 반하여 韓國軍의 신병은 불과 1주간 내지는 10여일간의 단기 훈련을 받은데 지나지 못하였으므로 작전 활동상에 있어서 피차간에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韓國軍 신병들은 얼마동안 美軍 하사관들로부터 공격전술교육을 받은 다음에야 작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 보편적인 실정이었고 이와 동시에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신병에 대하여서는 작전에 숙달되기까지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및 탄약 등과 각종의 보급품을 운반하는 일이거나 방어진지의 위장, 호의 구축

또는 보초근무 등 작전활동상의 보조적인 임무에 종사케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서로 간의 우의도 증진되었고 따라서 한국군 본래의 자주력과 감투심은 美 전투사단의 작전상에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도 카츄사병제는 존속되고 있거니와 또한 駐韓美軍部隊에 있어서 韓美軍 협동작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2) 美軍 및 UN참전군의 증원

美軍의 병력 증강상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지상군중 특히 전차부대의 증원이었다. 이러한 조처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계속적인 적의 타격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美육군성으로부터 피아 장비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려는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최초로 韓國에 파송된 전차부대는 제8072전차대대 A중대로서 7월23일 하와이(Hawaii)를 출발하여 7월 31일에 도착하고 이어 A중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차대대는 8월 4일에 도착하였는데 美 제8군은 3일 후에 이것을 89전차대대로 개칭하고 美 제25사단에 편입시켰다.

8월 7일에는 3개의 중형(中型)전차대대가 급파되었는데 그것은 제6대대(M—46) 제70대대(M-26 및 M4A3) 및 제73대대 (M-26)였다. 8월 중 제6전차대대는 美 제8군의 예비대로 배속되었고 제70전차대대는 8월 12일에 美 제1기병사단에 복귀하였으며 제73전차대대는 여러 지상작전(地上作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되었다. 즉 A중대는 東해안의 주보급로를 경비하기 위하여 蔚山에 배치되었으며 B중대는 杞溪 慶州방면의 부래드리(Bradley) 특수임무부대로 활약하였으며 C중대는 大邱지방 多宮洞전투(美 제27연대)에 투입되었다. 7월 28일에는 SS룩셈버그(Luxemburg) 빅토리(Victory)호에 美 제2사단의 제72전차대대의 전차80대를 적재하고 샌프란시스코(San Fransico)를 출항하여 8월 16일 釜山에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6개의 전차대대가 한국에 상륙하였는데 그중 5개대대는 7월말에서부터 8월초순까지 도착하였다. 이 이외에도 수색정찰을 위하여 4개 연대가 각각 중형(中型)전차중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차수는 약 30대에 달하였다.

각 전차대대는 M-46 팻톤(Patton) 전차를 보유한 1개 대대를 제외하고는 M-26퍼어싱(Pershings) 전차와 M4A3인 셔만(Sherman) 전차를 균등히 갖고 있었다.

전차의 일반 명칭인 팻톤, 퍼어싱, 셔만등은 美國의 저명한 장군들의 이름을 인용한 것으로 일례를 들면 M-41은 8군사령관을 지칭한 워커 불도그(Walker Bulldog)였다.

1개 대대의 전차는 평균 69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8월 22일에 이르는 동안 20대의 중(中)형전차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8월 20일경까지 釜山교두보내에는 500여대의

증가되어 9월 초에 이르러서는 적과의 전차보유 비율은 5 : 1로 아군이 우세하게 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전차대대의 증파와 동시에 美 제8군은 또 각 전투사단에 있어서의 본토병에 의한 병력 보충도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8월은 美軍들에 있어서 더 없는 일대 수난기였다. 美 제24사단의 1,941명과 美 제25사단의 1,800명, 그리고 美 제1기병사단의 1,503명 및 美 제2사단 9연대의 827명을 모두 합친다면 4개 전투사단의 병력손실은 무려 6,071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상의 수자는 전사상자와 기타 비전투손실(非戰鬪損失)인원을 포함한 것인데 비전투손실 인원의 대부분은 일사병(日射病) 환자들로서 제9연대만도 419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비추어 8월 중에 11,115명의 美國군 장병이 日本과 美國에서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이중 특히 8월 19일에는 日本에 주둔하였던 美 제8군후방사령부가 프러시아우트(Flush out)라고 불리우는 작전을 실시 중이었는데 필요한 병력을 여기서 받게 되었다. 이 계획으로 9월 6일까지 229명의 장교와 2,201명의 사병이 韓國으로 배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美 육군성은 8월 美 제3사단을 美國 본토로 부터 韓國으로 이동시켜 병력을 보강키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美 제3사단은 11월 10일에야 도착하였다.)

이상과 같은 美 지상군의 증원에 이어 8월 20일 英國 국방성은 홍콩에서 보병 2개대대를 즉시 한국으로 파병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정규군이었으며 英 제27보병여단 본부와 미들 섹스(Middle Sex)연대 1대대와 아아길(Argyll) 및 서더랜드 하이랜더어즈(Sutherland High Landers)연대의 1개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양개 대대는 美國 해병사에 창설된 부대로서 코오드(Basil A. Coad)준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 英國군은 8월 25일 홍콩(香港)을 출발하여 29일 釜山港에 입항하였는데 하선하는 즉시로 美 제8군의 통령하에 慶山지구에 배치되었다.

韓·美양군이외에 UN을 통하여 韓國전쟁에 참전한 것을 통고하였거나 참전 중인 UN 회원국의 상황은 8월 10일 현재 다음과 같았다.

① 英國은 제27보병여단을 파병하여 8월 29일 釜山에 도착.

② 泰國은 900명의 지원병(8,000명 중에서 선발)을 파병키 위해 훈련 중이었고,

③ 土耳其는 4,500명의 여단병력의 훈련을 완료하고 수송준비 중 이었으며,

④ 카나다(Canada)는 1개보병여단(5,000명)을 파병코 훈련, 편성 중이었다.

⑤ 濠州는 1,222명을 편성 중이었고

⑥ 뉴우질란드는 1,500명을 편성 중이었으며

⑦ 比律賓은 5,000~6,000명의 1개 전투단을 파병할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 다음 편성 중이었다.

⑧ 니카라쿠아(Nikaraqua)는 5,000명(※정황불명, 그후 파병되지 않음)

⑨ 이디오피아(Ediopia)는 1개대대의 파병을 발표(병력미상)

⑩ 南美諸國은 UN본부와 파병 협의 중이었다.

그밖에 해군부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① 美·英극동함대는 韓國수역에서 작전 중(일부는 台灣해역을 경계 중)

② 카나다(Canada)는 구축함 3척이 한국으로 항해 중

③ 濠州는 구축함 3척을 韓國으로 회항중

④ 뉴우질란드(Newzealand)는 구축함 1척이 한국으로 회항 중

⑤ 佛蘭西는 구축함 1척을 한국으로 향하여 항진(航進)케 하고 있다.

⑥ 和蘭은 구축함 1척이 韓國으로 회항 중

또 공군부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① 英國은 1개 비행단이 韓國에서 작전 중

② 카나다는 C—54 1개중대가 도착

③ 濠州의 1개 전투중대 韓國에서 작전 중

④ 벨지움은 공군수송기 원조를 UN에 신청 중

이리하여 9월 1일 현재 韓國군 91,696명을 포함하여 UN군 산하에 있었던 총 병력은 180,000여명에 달하였다. 그 주요부대의 병력은 다음과 같다.

美 제 8 군	78,762 (본부산하 16,815명포함)
美 제 2 사단	17,498
美 제24사단	14,739
美 제25사단	15,007
美 제 1 기병사단	14,703
美 제 1 해병사단	4,290
英 제27보병여단	1,578
美 제 5 공군	3,603

이외에도 한국전쟁에 가용한 공군 및 해군으로서 美 극동공군이 33,651명 濠州공군이 330명 그리고 美 극동해군병력이 36,389명이었다.

이상과 같은 병력의 증원 및 가용 병력의 편입 과정상에는 일부 지휘체제의 개편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월 24일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日本군수기지사령부(JLC)를 美 극동사령부의 주요 전계부대로 포함시킴과 동시에 駐日美軍부대 및 駐韓UN군에 대한군수지원 임무의 책임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다시 8월27일에는 美 극동공군과 美 극동해군을 UN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UN군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둠으로써 또한 지휘체계의 단일화를 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차기의 공격작전을 위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8월 19일에 제1 및 제9군단의 2개군단 편성을 건의하여 9월 12일부로 발족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9월 초에는 韓國전쟁에서 전공이 현저한 사람들을 美 제8군의 참모로 보직하였는가 하면 육군성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시 구주전구(歐洲戰區)에서 부래드리(Omar N. Bradley) 원수의 집단군참모장(集團軍參謀長)의 직을 역임한 바 있는 앨랜(Leven. C. Allen) 소장을 워커(Walker) 중장의 참모에 임명하여 9월 4일에 부임케 되었고 워커(Walker) 중장의 신임이 두터웠던 랜드럼(Landrum) 대령은 그대로 참모부장(參謀副長)에 유임케 하였다.

이로서 9월의 반격을 위한 지휘체계는 확립되어 갔고 韓國군의 증강에 이어 카츄샤 병의 증원 및 美군을 위시한 UN 참전군의 내원으로 대폭적인 병력의 증강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다. 美 第8軍의 再編과 戰線의 整理

美 제2사단 38연대는 페프로(George B. Peploe) 대령의 지휘 하에 8월 19일 마지막으로 釜山에 상륙하였다. 다음 날인 8월 20일 美 제8군은 38연대가 密陽에 도착하는대로 美 제2사단은 美 제24사단과 즉시 교대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2사단은 8월 24일 洛東江線에서 美 제24사단과 교대를 완료하고 그날 18.00 사단장 카이저(Keiser) 소장은 지역 책임을 인수하였다. 8월 25일 현재 美 제24사단의 병력은 10,600명으로서 완전한 편성에는 아직도 8,000명이나 부족되었다. 뿐만 아니라 차량과 장비 및 무기의 보유량도 또한 부족한 상태 하에 있었다. 8군은 美 제2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美 제19연대와 제11야전포병대대를 배속시켜 사단 예비대로 하는 동시에 美 제21연대를 8군

예비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대는 慶山 부근에 집결시켰다.

8월 26일 美 제24사단장 처치(Church) 소장과 협의한 워커(Walker) 중장은 美 제34연대를 해체하여 소속 병력과 장비를 美 제19연대와 제21연대에 편입시키고, 제34연대를 지원하던 美 제63야전포병대대는 새로 창설되는 美 제11, 13, 52야전포병대대의 C포대로의 개편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美 제34연대는 8월 31일에, 제1대대는 美 제19연대 제3대대로, 제3대대는 美 제21연대 제2대대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연대장 비우챔프(Beauchamp) 대령은 그가 한 때 지휘하고 있었던 美 제7사단 제32연대장으로 전임되었다.

또한 워커(Walker) 중장은 美 제5연대 전투단을 美 제24사단에 예속시켰는데 당시의 병력은 3,500명이었다. 그리고 제6중(中)전차대대도 美 제24사단에 배속시켰다. 이와같이 보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美 제24사단은 아직도 4,000명의 보충병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8월 초에 이르러 美 제25사단의 예하 제27 및 제35연대는 2개 대대 편성의 연대였으나 제29연대의 2개 대대를 해체시켜 각기 제3대대로 구성하였다. 8월 26일에는 美 제1기병사단도 본국에서 새로 편성된 대대를 인수하여 3개대대편성의 연대가 되었다. 또한 3개대대의 포병도 도착하여 8월 말 현재 美軍 4개 사단은 3개 대대로 된 연대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8월의 전투상황과 더부러 美軍사단은 전투서열을 빈번하게 변경하였다. 그러나 美 제1기병사단만은 이와는 별도로 이동이 없었다.

8월 28일 美 제8군의 예비대로 慶陽에 주둔하고 있었던 美 제2사단 소속 제23연대는 사단으로 복귀시켰고 多富洞에 있던 美 제27연대는 馬山에 주둔 중인 美 제25사단으로, 또 馬山 남부에 있던 美 제5연대전투단은 美 제24사단으로 각각 8월 30일을 기하여 복귀시키게 되었다.

東部지역에서는 韓國군의 철수와 재배치로 인하여 韓 美양군의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이 변경되고 있었다.

多富洞—大邱간의 주도로(主道路)가 적의 주요 접근로였기 때문에 워커(Walker) 중장은 韓國군이 담당한 이 정면을 美軍전선으로 지경선을 변경하였다. 즉 8월 26일 架山 3km 지점에서 大邱 東쪽으로 연하는 사선(斜線)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화력과 장비가 미약한 韓國군으로서는 연합작전에 큰 약점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韓國군 제1사단 정면이 美 제1기병사단 정면으로 또 美 제1기병사단의 일부정면이 美 제2사단의 정면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美 8군에서의 각 부대 재배치 및 전선의 조정

은 8월 말에 끝나게 되었다.

美 제1기병사단은 8월 28일 전투지경선의 변동으로 제5기병연대를 사단 左측에, 제7기병연대를 중앙에, 제8기병연대를 右측에 각각 배치하였다. 따라서 美 제2사단 제23연대 제3대대는 美 제7기병연대와 교대하였고 美 제7기병연대는 동시에 韓國軍 제1사단의 제15 및 제12연대의 일부와 교대하였다. 그런데 8월 30일 美 제5기병연대 제3대대가 도착하게 되자 당시 비교적으로 상황이 평온하였던 美 제8기병연대의 14km 정면에 배치되었다. 이리하여 제5기병연대의 정면은 32km가 되었다.

그뒤 美 제8기병연대는 韓國軍 제1사단, 제11 및 제12연대 지역으로 이동하고 30일 13.00에 교대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美 제2사단의 책임 지역은 大邱에서 昌寧에 이르는 단일 보급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어 워커(Walker) 중장은 원래의 전투지경선으로 복귀시켰다. 따라서 美 제23연대 3대대를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시켰다.

이상과 같은 부대의 재편과 전선의 정리를 끝낸 8월 30일, 美 제714철도수송대대가 韓國에 도착하였다. 이 대대에 의하여 洛東江방어선내 470km에 달하는 철도수송이 진행되었는데 철도수송은 각사단의 역번(驛邊) 보급소까지 수송하였고 여기서 부터는 각 연대와 대대에서 차량으로 수령해 갔다.

어떻든 8월 중의 위와 같은 제 성과로 9월에 접어 들면서 UN군의 전방사단은 병력이 충원되고 우세한 군에비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UN군은 약 100여대의 90mm 및 76mm포의 중형(中型)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가 하면 괴뢰군은 85mm포의 소련제 T-34중형 (中型)전차가 100대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UN군은 또한 포병화력에 있어서도 105mm, 155mm, 8인치포, 4.2인치박격포를 가지고 있어 적의 76mm, 122mm 곡사포 및 120mm 박격포에 비하여 월등히 우세하였다. 이와 동시에 8월 30일 美 제8군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적의 12개 전투사단 병력은 82,590명이었으며 그 전투능력은 괴뢰군 제13, 제15사단이 27%, 제7사단이 96%, 제2사단이 100%

8월중 美제8군의 부대이동 상황

이 동 부 대 명	원 일 목 적	이 동 지 역	거 리 (Km)	이 동 소 요 수 단	이 동 소 요 시 간
미 제25사단(결)	8. 1 馬山방어	尙州→馬山	240	도보와 철 도	36시간
미 제5연대전투단	8. 1 〃	釜山→馬山	120	철 도	1~2일
미 제1해병연대	8. 2 美 제8군예비	釜山→昌原	120	〃	〃

이 동 부 대 명	월 일	목 적	이 동 지 역	거 리 (Km)	이 동 수 단	소 요 시 간
美 제9연대전투단	8. 2	美 제8군예비	釜山→慶山	175	철 도	1일
美 제2사단 (결)	〃	〃	〃	〃	〃	〃
美 제9연대 1 대대	8. 6	靈山지구증원	慶山→靈山	85	차 량	12시간
美 제9연대 주력	8. 7	〃	〃	〃	〃	〃
美 제27연대1대대	8. 11	南旨橋의 점령	馬山→南旨橋	30	〃	8시간
美 제27연대 주력	8. 12	靈山지구선멸	馬山→南旨	30	〃	〃
美 제23연대1대대	8. 13	〃	釜山→靈山	90	〃	〃
美 제1해병여단	8. 14	靈山지구증원	昌原→靈山	30	〃	〃
美 제27연대	8. 15	美 제8군예비	靈山→大邱	95	〃	1일
美 제23연대(결)	8. 19	多富洞지구증원	密陽→多富洞	85	〃	〃
美 제 1 해병여단	8. 20	美 제8군예비	突出部→昌原	30	〃	〃
美 제24사단(결)	8. 25	美 제8군예비	靈山→慶山	85	〃	〃
美 제21연대	8. 26	浦項지구증원	慶山→慶州	80	〃	〃
美 제23연대	8. 28	사단으로 복귀	多富洞→昌寧	75	〃	〃
美 제27연대	8. 30	〃	多富洞→馬山	150	차량과 철 도	〃

로 판단되고 있었고 적의 8월중 손실은 26,822명이며 기간중의 보충병력은 대부분이 의용군(義勇軍)으로서 14,700명으로 추산되었다.

라. 美 극동사령부의 군수지원

병력의 증강 문제는 군수 지원문제와 동시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표리의 관계 하에 놓여 있다. 이런 까닭으로 美 극동사령부는 8월중 韓國 전선에 보급할 병기와 탄약 및 병참물자를 조달하고 수송하는데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수리창을 통하여 8월중에 대소차량 950대를 재생하는 실적을 올렸고 8개의 조병창에는 기술고용인을 대량으로 채용하여 군수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1950년 말까지는 19,903명이 증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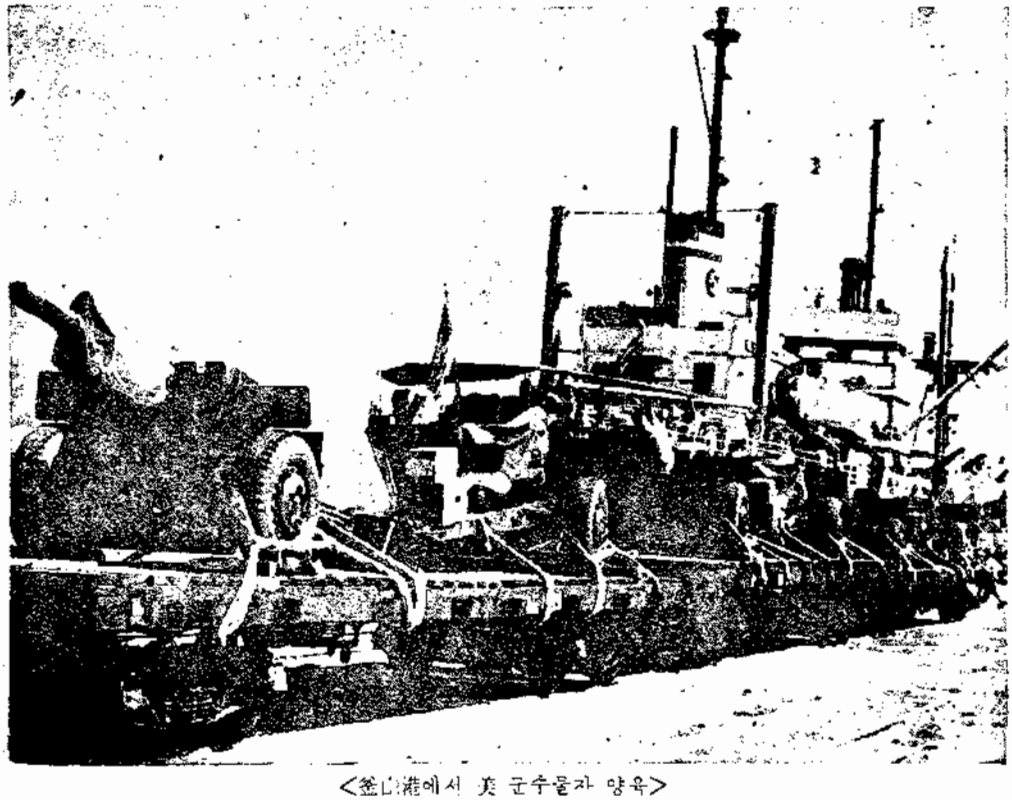
전쟁초기(7~9월)에 美軍과 韓國軍이 사용한 탄약은 日本에 저장되었던 것과 일부 재생하여 공급함으로써 탄약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나 수송문제와 釜山에서의 하역작업, 그리고 전방보급등의 절차로 한때 포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실정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 美 극동사령부가 韓國 전선에 투입하는 군수품의 수송수단으로는 日本 내의 철

도와 해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철도의 수송량은 8월 중에 급증되었는데 그 한 예로서 8월 5일에 308톤이 던것이 4일 뒤인 9일에는 403톤으로, 또 같은 달 22일에는 574톤으로 올랐으며, 25일에는 949톤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주로 일본의 東京—橫濱— 佐世保를 연결하는 철도에 의한 수송 물자를 佐世保항구에서 적재하여 釜山港으로 수송하던 것이다.

이러한 佐世保—釜山간의 해상 수송력의 증가는 수송기에 의한 공수량(空輸量)을 급격히 감소시키게 되었다. 즉 7월 31일 85톤에 달하였던 공수량이 8월 6일에는 49톤으로 감소됨으로써 크게 으르러 韓國에 대한 공수보급은 거의 불필요한 상태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7월부터 실시하여 온 레드 볼(Red Ball) 특급에 의한 보급품 수송작전에 의하여 철도와 해로를 통해 釜山에 이르는 시간은 약 60~70시간이 걸렸는데 공수는 최소 12시간에서 때로는 5일간이나 소요되어 철도와 해상수송의 경제적이고 확실성 있는 대량수송(大量輸送)이 가능하였던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나 美 극동공군사령관 파트릿지(Partridge) 중장은 공수일량(空輸日量)을 200톤으로 증가시키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로수송에 있어 釜山항구가 물자의 하역



<釜山港에서 美 군수물자 양육>

과 처리를 신속히 못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1일에는 2대의 2톤₩ 차량을 C-119 수송기에 적재하여 다찌가와(立川)기지에서 大邱에 직접 공수하기 시작하여 매일 2대씩을 수송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수송문제를 조정하여 철도와 해로 수송은 매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고 나머지 5일간은 공수키로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8월 16일에는 324톤₩의 화물과 595명의 병력이 공수되었고, 8월 19일에는 160톤₩의 화물과 381명의 병력이, 그리고 8월 29일에는 326톤₩의 화물과 34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8월 중에 입하한 총량은 상고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다만 개전 이래 9월 14일까지 釜山港에 양륙된 美軍물자는 86만톤₩에 달하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

다. 적군의 상황

(1) 병력 및 배치상황

남침 이래 7월말에 이르기까지 적은 전면공격을 최피하면서 측방으로 포위하거나 후방으로 침투하여 병력과 장비가 열세하고 전선마저 연결되지 못했던 아군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후퇴를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8월말에 접어 들면서 아군에 의한 洛東江방어선의 형성은 피아간의 전세를 교착상태에 빠뜨렸고 적은 이제 오히려 증산 없는 출혈만을 연속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적의 총병력을 지휘하던 전선사령관은 김책 金策이었고 전선사령부의 본부는 金泉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하 2개군단(집단군)중 제1군단은 중장 金雄이 지휘하였고 제2군단은 중장 金武亭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제1군단사령부는 金泉에, 제2군단사령부는 聞慶에 각각 위치하였다.

적 제1군단은 北에서 南으로 제10, 제2, 제4, 제9, 제7, 제6사단의 순으로 전개하고 제6사단 후방에 제104보안여단이 있었고 제16기갑여단이 제1군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동 제16기갑 여단은 9월 공세를 위하여 8월 하순에 平壤을 출발하여 전선에 도착, T-34전차 43대로 구성되고 있었다. 제2군단은 北에서 南으로 제5, 제12, 제15, 제8, 제1, 제13, 제3사단의 순으로 아군과 대치하였는데 제105기갑사단과 새로 도착한 제17기갑여단이 제2군단을 지원하였다. 동 제17기갑여단은 신형 T-34전차 40대로 구성된 연대규모의



<선전과 기만을 통한 의용군 동원광경(인천)>

여단이었는데 이상 2개의기갑여단의 전차는 蘇聯에서 滿洲를 거쳐 8월 23일경 平壤에 노착하여 훈련된 승무원들이 인수하였다. 각 여단은 2개 대대로서 대대는 4개중대(각 중대 5대)로 편성되어 야간에 철도편으로 전선에 수송되었다.

적 제2군단은 제17기갑여단외에는 증원부대가 없었으나 제1군단은 제7사단과 제9사단이 증원되었다. 제9사단은 제3국경경비대를 근간으로 편성된 신편 사단으로서 7월 26일 서울에 들어와 제3연대는 仁川에 주둔하고 2개연대는 8월 20일 天安—大田—錦山을 거쳐 23일 陜川에 진출 하였다.

적의 총병력은 약 98,000명으로 9월 공세에 투입되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은 훈련되지 않은 적의 침략지 출신들인 소위 의용군이었다.

적의 병력현황(9월 1일 현재)

제 1 사단	5,000명	제 2 사단	6,000명
제 3 사단	7,000명	제 4 사단	5,500명
제 5 사단	7,000명	제 6 사단	10,000명
제 7 사단	9,000명	제 8 사단	6,500명
제 9 사단	9,350명	제10사단	7,500명
제12사단	5,000명	제13사단	9,000명
제15사단	7,000명	제105보안여단	2,000명

제105기갑사단	1,000명	제16기갑여단	500명
제17기갑여단	500명	계	97,850명

(3) 제5차 작전 계획

본래 괴뢰군의 남침 계획에는 제4차 작전으로 8월 20일까지 釜山을 점령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은 洛東江線에서 그들의 진출이 저지되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金日成은 민족보위상 崔庸健의 직접 지휘 하에 전선사령부에서 새로이 제5차작전계획을 입안하도록 명령하고 8월 15일을 기하여 전 괴뢰군 장병들에게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우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적의 총공격을 위한 작전 명령은 8월 20일 각 군단에 하달되었는데 작전의 요지는 대개 玄風에서 倭館에 이르는 洛東江右岸을 견제하는 동시에 2개의 기본타격집단으로 하여금 西쪽과 北쪽에서 공격하여, 大邱 永川지역에서 韓美양군을 포위 섬멸코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은 전투를 전개하면서 부대의 배치를 변경하고 洛東江線의 제1군단은 도하점의 면밀한 정찰을 실시하여 도하자재등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적은 8월 20일에 공격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지만 병력의 보충과 보급품의 조달, 그리고 증원부대 및 전용(轉用)사단의 전투 전개등에 필요한 준비로 공격 개시일은 제1군단이 앞서 8월 31일 23.30으로, 제2군단이 9월 2일 18.00로 결정하였는데 제2군단은 공격준비가 완료되지 못하여 2일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제2군단의 저녁 때 공격과 제1군단의 야간 공격은 모두 우리측 공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한 것이 주원인이고 시간차는 韓·美양군의 진지에 이르는 기동 시간을 계산하여 날이 밝았을 때에는 돌격 거리에 이르러 공군의 폭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교묘한 계책 하에 세워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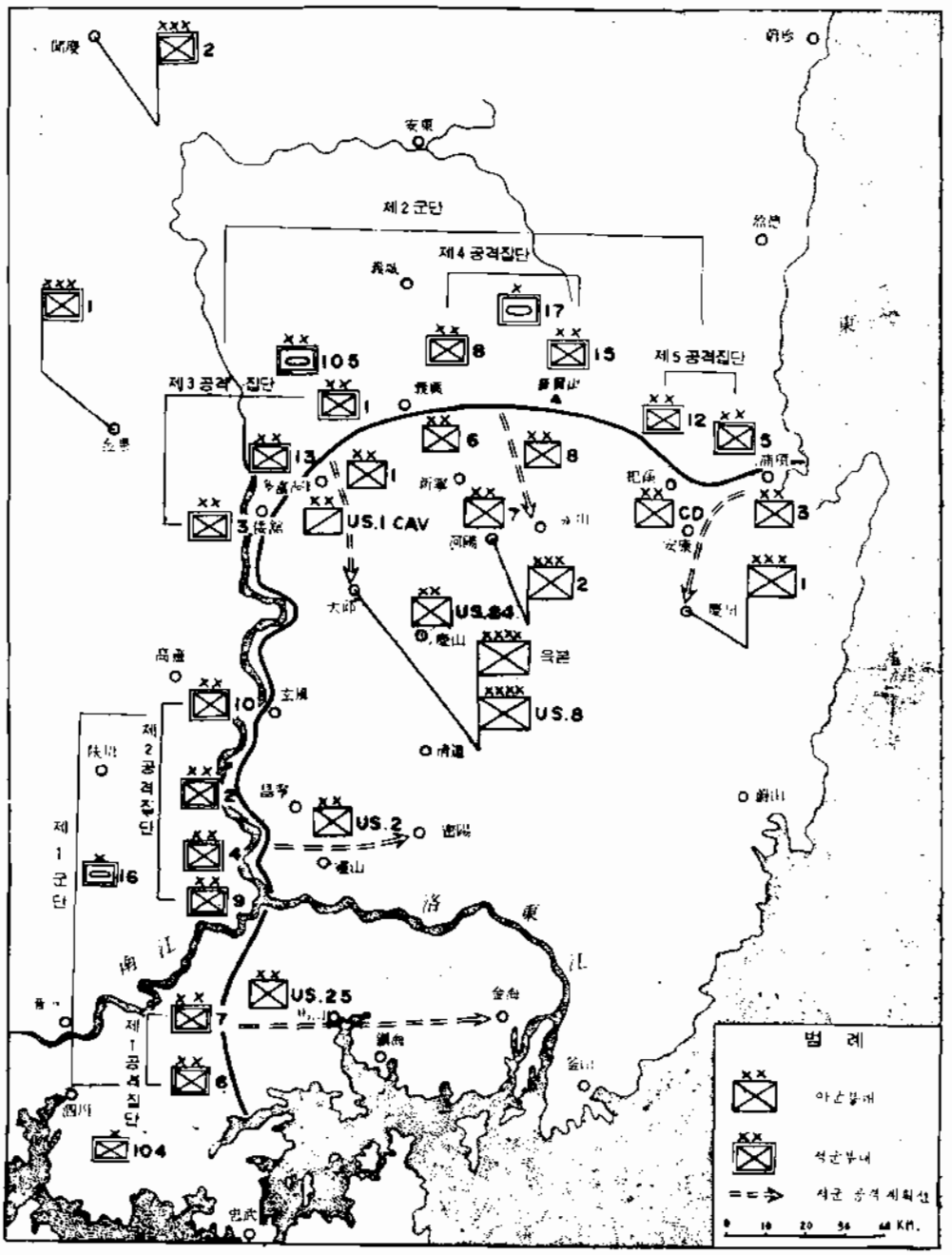
그런데 공격 계획은 5개 집단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제1군단(군단장 중장 金雄, 사령부 金泉)

제1공격집단 : 제6사단 및 제7사단은 馬山방면으로 공격하여 美 제25사단 진지를 돌파하고 馬山, 金海를 점령한 다음 釜山점령을 준비한다. 이를 위하여 제105기갑사단의 전차 20대와 그리고 제16기갑여단의 전차 43대가 각각 지원하며 제104보안여단이 증원한다.

제2공격집단 : 제4사단 및 9사단은 晋山정면을, 그리고 제2사단은 昌寧정면, 제10사단은 玄風정면에서 美 제24사단을 격파한 다음 密陽으로 진출하여 京釜철도와 주보급로를 차단

상황도 제13호 북괴군의 제5차 작전계획 (50. 8. 31~9. 2)



하여 이를 확보한다.

(※ 8월20일 美 제24사단은 美 제8군의 예비로 바뀌어 美 제2사단과 진지교대의 명령을 받고 24일에 완료하였는데 적은 공격시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제2군단(군단장 증장 金武亭, 사령부 聞慶)

제3공격집단 : 제3, 제13, 제1사단은 제17기갑여단 전차 40대의 지원하에 倭館과 多富洞정면의 美 제1기병사단과 韓國군 제1사단진지를 돌파하고 大邱를 점령한 다음 釜山으로 진출할 준비를 한다.

제4공격집단 : 제8사단 및 제15사단은 永川지구의 韓國군 제6 및 제8사단을 격파한 다음 永川을 점령하고 명에 의하여 慶州 또는 大邱로 진출할 준비를 한다.

제5공격집단 : 제5사단은 浦項정면에서, 그리고 제12사단은 杞溪정면에서 韓國군 제3사단 및 수도사단을 격파한 다음 浦項 및 迎日비행장을 점령하고 차후 慶州에서 釜山으로 돌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이 이와 같은 공격계획을 수립키는 하였으나 진행상에 있어서는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적의 전술은 정면에서 견제하고 일부 또는 주력부대가 측배(側背)에서 포위 공격하는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韓·美양군이 일연의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정면 돌파 방법 밖에는 별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야 될것이나 그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적은 돌파 작전에 있어서 충격행동에 핵심이 되는 전차가 대부분 상실됨으로써 이 돌파 충력에도 실리가 적었을 뿐 아니라 돌파작전을 위하여 병력을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문제도 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시련점에서 그들의 작전기도가 폭로되면 倭館 대폭격과 같은 융단폭격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적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약점은 돌파 작전에 뒤 따라야할 병참보급에 대한 문제였다. 적은 현지에서 식량을 강제로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대병력을 일점, 또는 수점에 집중시키는 경우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능히 짐작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문제점들은 그들이 8월중의 경험을 통하여도 충분히 고려했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8월에 있어서의 적의 돌파작전은 일부지역에만 한정하였는데 이때 기동력과 공군 우세의 UN군은 급속히 돌파정면에 병력을 집중투입함으로써 이를 저지격파하였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는 적으로서는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의 그들 계획이

란 다만 전전선에서 일시에 돌파작전을 감행한다면 어느 정면은 성공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韓·美양군은 병력에 제한이 있는 한 예비병력을 돌파구에 집중하는데 있어 틀림없이 혼란이 초래될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2개방면 중 어느 정면이 성공하면 그 정면에서 급속한 전과확대를 획득할 경우 목표인 釜山까지의 진격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타산한 것이 전선사령부의 수뇌들이 노리게 된 점이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3) 보급 상황

적의 보급문제를 살펴 볼때 적의 보급물자는 본래 부족한 데다가 수송이 문제였다. 우리 해·공군의 후방차단 작전으로 적의 보급품 집적소는 대부분이 파괴되는 실정이었고, 蘇聯에서의 원조물자도 도착이 지지부진(遲遲不振)한 데다가 北韓지역에서 보급되는 물자도 야간에 겨우 인력으로 철도를 수리하면서 원시적인 수송방법을 계속하였거니와 여기에는 침략지에서 강제동원된 30만명의 주민이 혹사되던 것이다.

9월 초에 있어서의 적의 품목별 보급상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탄약 및 무기 보급에 있어서 소화기 실탄은 그런대로 보급이 지속되었으나 박격포 야포 등의 포탄은 8월 중순 이후 부족상태이었고 소총의 보급은 소요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제16, 제17기갑여단의 전차가 철도수송으로 滿洲에서 北韓—서울—大田등지를 거쳐 전선에 도착한 것은 쉴 새 없이 美 공군이 야간출격작전을 전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야포와 박격포 및 기관총등의 보충장비가 도착하였으나 차량등의 보충은 거의 없었다. 연료면에서는 최소한의 유류가 보급되었을 뿐이어서 8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연료부족으로 출동을 포기한 전차도 많은 실정이었다.

피복은 남침 이래 전혀 보급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특히 美군의 전사자와 포로들의 군복과 군화 그리고 철모와 내의등에 이르기까지 탈취해 입어야 했다.

식량은 현지조달이었으나 이것도 벌써 그 한계에 이르러 하루 한 끼의 보리밥 한 주먹이 고작이었으며 하루에 두끼를 먹게 되면 생일날이라고 하였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여 부상환자들의 대부분이 죽게 된 큰 원인이 되었으며 주사약품은 전혀 없었고 마크롬정도를 발라 주면 최상의 치료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보급상태하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제5차작전의 성공적 결과만을 바

라고 있었으니 그들의 계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적 지휘관의 약력

金 策

金策대장은 당시 49세의 咸北 城津 출신이다. 滿洲間島省 모 중학을 졸업하고 北滿으로 가서 항일 연합군에 가담하여 崔庸健, 金日成 등과 합류하여 공비 생활을 하였다. 1941년에 소련으로 건너가 독립여단 제3영부영장(대위)으로 있다가 1945년 해방 후 입국하여 咸興의 蘇軍특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있었다. 1946년 평양 학원이 창설되자 원장으로 피임 되어 그후 崔庸健이 한만당 부위원장으로 가자 그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치부장으로 위장하여 들어갔다. 그후 북조선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있다가 괴뢰정권 수립과 더불어 내각수반겸 산업상에 취임, 1950년 6월 15일 전선지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51년 1월4일 美 공군에 의한 평양대폭격시에서 牧丹峰 水洞寺(前線司令部)에서 폭사 당하였다.

金 雄

적 제1군단장 중장 金雄은 慶北출신으로 당시 39세로서 일찌기 大邱商業을 졸업한 후 中國으로 가서 黃浦군관학교를 졸업, 1940년 팔로군구역에 월경, 新西軍某分區작전참모로서 조선독립동맹華中分盟主任을 겸함. 1945년 해방 후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 1946년초 入北하여 新義州학원 원장등으로 있다가 동 교가 平壤학원에 통합되자 보안간부학교 부교장에 취임, 그후 제1사단장 훈련국장직을 거쳐, 1950년 6월 15일 제1군단장으로 남침지휘, 동년 9월 총참모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1956년 8월 민족보위부상(대장) 직에서 金日成에 의하여 연안파로서 숙청 당함.

金 武 亭

1905년생의 咸北 鏡城출신, 中央高普중퇴, 18세 시 北京文化大學에서 中國語수학, 1924년 北京군관학교포병과졸 中國포병대위에 임명, 1927년 포병중좌, 1925년 공산당입당, 1927년 蔣介石이 체포 투옥, 총살 직전에 학생 시위의 압력으로 석방, 1929년 香港에 가서 中國공산군에 편입(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역임) 중공군사위원회에 연좌 소위 2만5천리장정시 작전총책임자로서 활약, 1936년 홍군(紅軍)대학수학, 홍군 육군대학에 재학하면서 교관. 육대졸업 후 팔로군 총사령부 작전과장, 중공군 포병부대를 창설하여 포병사령관, 1937년 위장병으로 1년간 휴양후 八路軍을 이탈하여 延安으로 가서 金科奉과 같이 조선의용군 건군 공작, 1939년 의용군지휘 抗日戰(司令官) 1945년 10월 入北하였으나 金日成의 제1의정적으로 질시당함,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소포사령관, 1948년 3월 북로당중앙위원, 1950년 7월 제2군단장, 10월 평양 방위사령관 12월 滿浦鎭別午里會議(제3차정기회의)에서 명령불복종, 전투조직의 불성립, 후퇴시 불법살해등의 이유로 군단장직에서 해직되어 감금, 그후 中共 당국의 인도에 의하여 中共에 가서 병사설도 있고 1951년 7월 형무소에서 심복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모두 분명치 않음.

2. 韓國 및 UN海軍의 活動

(가) 韓國해군의 활동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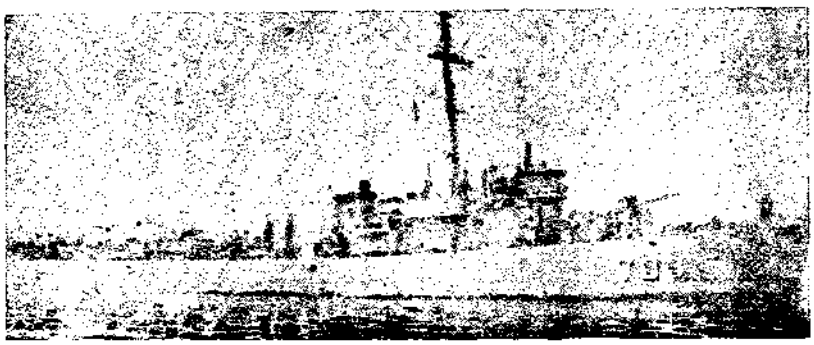
해군총참모장	소장	孫元一	浦項경비부사령관	중령	南旺徽
鎭海통제부사령장관	대령	金省三	鎭海방위사령부제3대대장	중령	金光玉
鎭海통제부방위사령관(3대)	대령	金錫範	선박중대장	중령	白基祚
鎭海통제부방위사령관(1.2대)	중령	宋寅明	昌原지구주둔1부대장	소령	白南豹
제2정대사령관	중령	金忠男			

(1) 南西海의 봉쇄작전

韓國 해군은 南海에서 麗水지구의 철수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西海에서는 해상초계작전(海上哨戒作戰)에서 7월 27일 현재까지 22척의 적선을 격침하고 7월 26일 南西해안의 경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본작명(海本作命) 갑제75호에 의거하여 각 함정을 南西海의 각요지에 배치하였다. 적은 남침이래 8월 1일 현재 東에서 西로 盈德, 興海, 榮州南方, 醴泉, 咸昌선까지, 北에서 南으로는 尙州, 金泉, 求礪, 居昌, 晋州, 泗川선에 이르기까지 왔으나 해상에서는 6월 25일 06.00 동해안의 正東津, 注溪, 臨院, 三陟등지에 일부 병력을 침입하여 상륙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우리 해군과 UN해군의 東西해상봉쇄 작전으로 해상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해군은 특히 남해안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7월 27일에는 해본작명 갑제76호로 木浦경비부를 해상활동기지로 하여 서해안에서 경비중에 있던 제1, 제3정대의 함정보급을 담당케하는 한편 해군본부는 7월 29일 작명 갑제77호를 발하여 제1함대소속인 302정, 501정, 307정을 함대사령장관에게 예속시키고 동 임무를 부여하였다.

8월 5일 우리 해군은 鎭海방어를 위하여 해본작명 갑 제81호로 釜山경비부사병 140명을 鎭海에 배치하고 또한 咸安 및 馬山방면의 적침(敵侵)에 대비하고자 작명 갑 제82호로 浦項경비부병력 300명을 역시 鎭海에 이동 배치하였다. 동시에 제2정대사령관 金忠男중령은



<703함의 승 자>

鎭海군항 방어 및 동 지구의 경비를 위하여 鎭海에 전속시키고 浦項경비부사령관 南相徽중령으로 하여금 제2정대사령관직을 겸하도록 하였다.

8월 6일 UN군은 남해안 각지구의 적진지에 폭격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三千浦, 麗水 등東해상에서 봉쇄임무를 맡고 있던 전함정으로 하여금 동일 22.30,전보로 급거 현지를 떠나 鎭海에 귀항토록 하였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7일 22.30 예하 전함정에 상갑판(上甲板)과 선체양현(船體兩舷)에 太極旗를 표식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일 24.00에는 다시 仁川해상 月尾島 10마일 해상에 추락된 美軍 비행사를 수탐 구조할 것을 502정에 지시하였다.

8월 8일 해군본부는 서해안봉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본작명 갑 제83호로써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701함장은 仁川해상에 출동하여 당해 지구를 경비하고 있던 502, 505정을 통합지휘하여 仁川해상봉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 수송선단을 포착 격멸하라.

2) 704함정은 群山해상에 출동하여 당해 지구를 경비 중인 303, 301정을 통합지휘하여 群山—木浦해상을 순항하면서 당해지구의 해상봉쇄를 일층 강화하라.

3) 통제부사령장관(統制府司令長官)은 예하함정 3척을 즉시 출동시켜 東經 128°로 부터 鎭海담당지역해상내의 적정수집(敵情蒐集)과 유격대의 해상이동을 봉쇄하라.

이러한 지시에 의어 곧 해본작명 갑 제84호로써 이동 기지를 大黑山島로 부터 於靑島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군은 仁川해상봉쇄를 일층 강화키 위하여 8월 31일에 다시 해본작명 갑 제85호로써 일부 함정을 다음과 같이 증파키로 하였다 .

702함—於靑島일대, 513함—仁川해상, 313함—群山앞바다 일대.

11일 鎭海통제부지구 방위대 제1대대는 統營(忠武)방위를 위하여 동일 03:30, 제58호정으

로 馬山을 출항하여 동일 06.45 統營에 도착한 다음 統營국민학교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병력의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해군작명 갑 제86호를 시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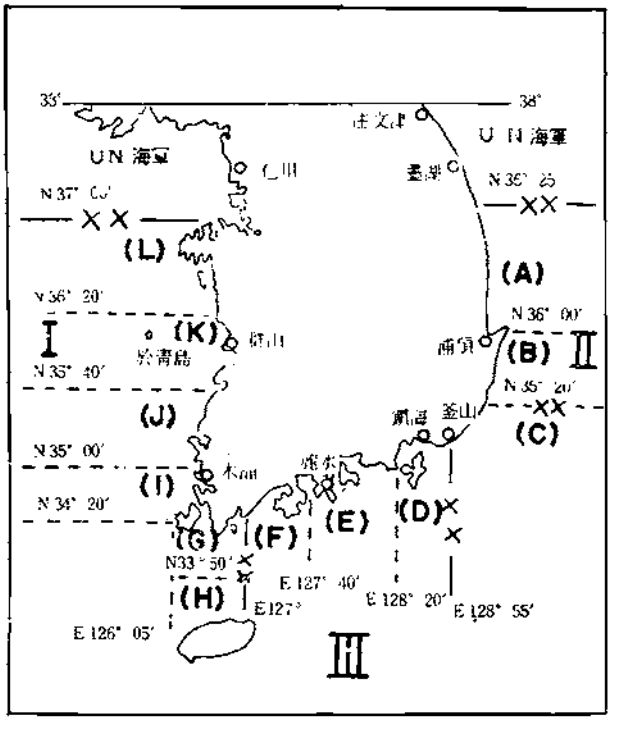
즉, 적은 해로를 이용하여 점령지구에서 병력 및 군수품의 수송을 기도하고 있으니 아군은 일부 함정을 횡견수도(橫見水路)부근에 파견하여 당해 지구의 해상에서 적의 이동을 봉쇄할 것이며 503, 504정은 8월 12일 06.00 釜山을 출항, 횡견수로(橫見水路) 東쪽 입구에 도착하여 당해 수로봉쇄에 임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치한 해군본부는 해상에서 적의 중점적인 작전을 위하여 다시 해본작명 갑 제91호로써 아래와 같은 함대편성(艦隊編成) 및 경비담당구역(警備擔當區域)을 확정하게 되었다.

1) 제1, 제3정대를 개편, 제1함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함대 및 함대구분경비담당구역(艦隊區分警備擔當區域)을 새로 확정함.

2) 제1함대는 해군총참모장(소장 孫元一)의 직접 지휘 하에 들어가라.

상황도 제14호 남서해 봉쇄작전(1) (50. 8. 16)



(3) 제3정대는 鎭海사령장관(대령 金有三)의 지휘 하에 들어가라.

(4) 함대 및 정대의 배치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함대

701, 702, 703, 704, 303, 304, 306, 308, 309, 310, 313, 501, 502, 503, 505, 513, 513, 514, 22 LT—1호

② 제2정대

506, 509, 510, 516

③ 제3정대

504, 507, 512, 515, 301, 302, 307, 105, 106, 801, 518, 901.

(5) 제13훈련정대사령관은 본일부(本日附)로 그 직무를 해임함.

6) 각 정대의 경비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상황도 (제14호) 및 (제15호) 참조).

7) 동 행정명령(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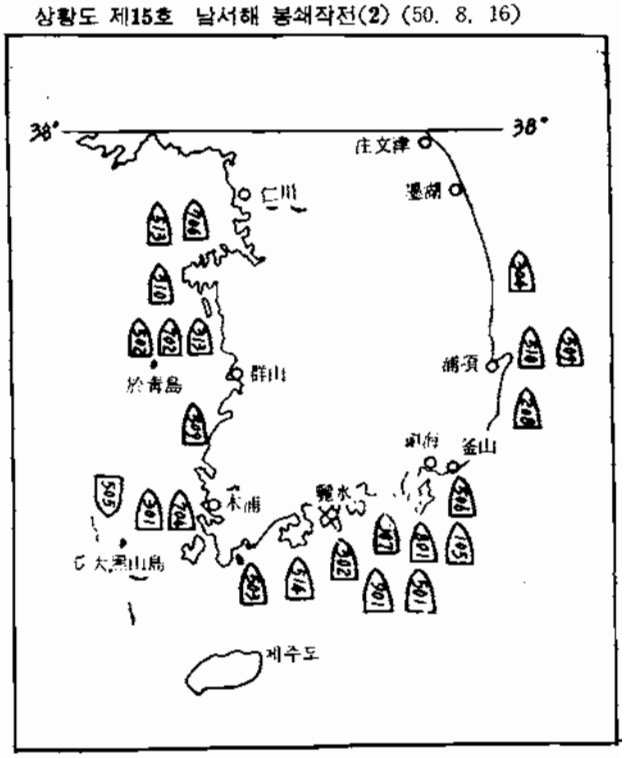
우리 해군에서는 위와 같은 봉쇄작전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514정은 7월 27일 上馬島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28일에는 於蘭鎭에 상륙하여 적 20명을 사살하고 동 해안에 적범선 1척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동 정은 28일 13.00 北緯 34°35′20″. 東經 26°17′44″지점(法聖浦해상)에서 미군기(噴射式戰鬪機) 2대의 오인으로 기총소사를 받아 전사 1명 부상 5명의 희생자를 내었고 통신기 및 선체도 피해를 입었다.

또한 8월 3일 南海에서 鎭東. 統營. 三千浦의 봉쇄작전에 참가 중인 307정 502정은 이때에 피난하고 있던 발동선(發動船) 幸福丸을 수색하고 있다가 美 공군기의 오인으로 저공기총소사(低空機銃掃射)를 받아 선원중의 2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우리함정은 UN항공기가 오인하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응사(應射)도 하지 않았다.

동 3일 安眠島근해를 초계중이던 502정은 安眠島港에서 군수품을 적재중인 적 측 범선 7척을 발견하고 즉시 포격하여 침몰케 하였으며 동 6일에는 509정이 仁川근해에서 적의 발동선 60㌧급 1척과 범선 5척을 격파하였다.

동 7일에도 역시 仁川근해에서 이 지구를 경비중이던 301, 502, 505정의 3척은 100㌧ 급의 적 발동선 1척을 비롯하여 적 화물선 2척과 범선 13척을 격파하였다. 701정은 8월 10일 德積島를 공격하여 적 병력 70여명을 포착 격멸하였고 704정은 11일 11.00에 鼓馬島에 상륙을 감행한 다음 동일 13.00에는 309정의 지원을 얻어 적병 11명을 사살하였으며 도(島)

상황도 제15호 남서해 봉쇄작전(2) (50. 8. 16)



내의 치안을 확보하였다.

12일 12.00 安眠島근해를 초계중이던 301정은 적 보급선단(補給船團) 4척을 발견하자 곧 이를 포격하여 대파시키고 적병 70명을 사살하였으며 동일 24.00 德積島근해를 초계중이던 702정은 양곡을 만재한 적선을 격파하였다.

13일 702정은 鞍馬島에서 12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며, 동일 20:00 黃島근해를 초계중이던 503정은 적병을 만재한 대형범선을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였다.

14일 08.00 德積島부근해상을 초계 중이던 311정은 소형의 적 연락선을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는 동시에 적 4명을 사살하였으며 동일 15.00 횡견수로(橫見水路)를 초계하던 514정은 적의 대형발동선을 발견 즉시로 포격 파괴하였다.

309, 301정 및 704정은 8월 15일 西海 落月島에 상륙하여 우리의 경찰관 4명을 구출하고 309, 301정은 동일 또다시 鞍馬島근해에서 적 23명을 사살하였으며 동일 12.00 503정은 海南島남단을 초계중 군수품을 만재한 적 소형 선박 15척을 발견하여 모두 격파시켰다.

이상에서 7월 28일 이후 8월 15일까지 우리 해군의 전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전과(50.7.28~8.15)

구 분	적 병	대소발동선	화 물 선	범 선	연 락 선
사살된 적병수 및 격파된 선척수	187	3	7	42	1

(2) 鎭海 해군통제부방위대의 활동

鎭海통제부사령장관 金省三 대령은 6월 30일 鎭海군항방위를 위하여 宋錫明중령을 鎭海통제부 방위대의 사령에 임명한 뒤 4개소대로서 조직한 7개중대와 1개의 선박중대를 근간으로 하는 방위대를 편성하여 경비 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뒤 7월 16일에 이르러 孫元一 해군 총참모장이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鎭海일대의 경비를 일층 강화하여 군항방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엄명을 내렸으므로 金省三 통제부 사령장관은 다시 宋錫明중령을 방위대사령에 임명하고 종래의 방위대조직을 더욱 확장 개편하여 4개중대와 1개 선박중대 및 1개의 독립대대를 기초로 하여 방위대를 재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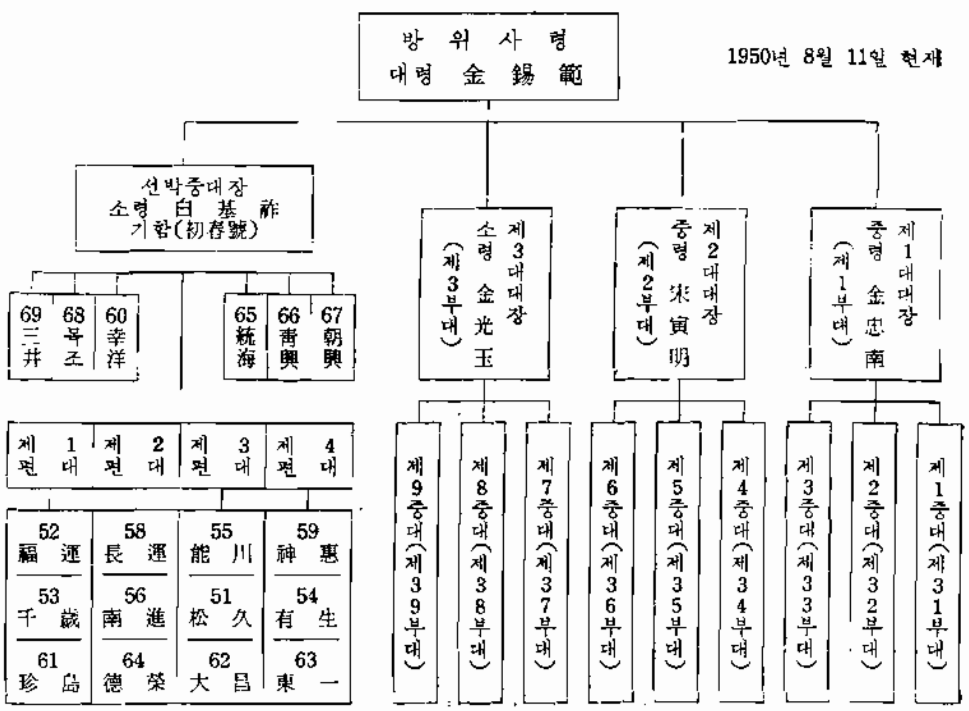
동 편성은 종전의 부서(部署)자체의 경비에서 鎭海전역의 경비책임을 담당하게 되어 방위임무를 일원화하고 순찰 및 감독을 방위대사령이 총지휘하게 된 것이다.

7월 21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동 방위대의 제1중대는 飛鳳里 西端에서 사격장후방 381高地까지, 제2중대는 慶和驛에서 長福터널입구까지, 제3중대는 熊東수원지에서 熊川고개까지, 제4중대는 馬鎭터널에 대한 방비를 각각 분담하고 각 요로에는 위병을 배치하여 엄중한 경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는 해상방위총경비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군수물자 및 병력 수송에 임하게 되었다.

7월 11일부터는 巨濟島부근 및 統營 欲知島간의 야간초계를 실시하였으며 加德水道 熊川灣 및 釜島水道에는 각각 2척의 선박으로써 동 지역의 해상경비를 부단히 실시하였다.

7월 12일 동 방위대는 盧鎭錫소령을 巨濟島에, 金得周중위를 馬山 및 固城에 파견하여 해상방위대를 편성하고, 統營은 선박(船舶)중대장으로 하여금 동 임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統營水道—城浦猪島—龍院에도 각각 2척의 초계선을 파견시켜 鎭海灣출입선박을 취체케 하였다.

해상방위대의 편성표



8월 6일에는 赤峴里—甲峴末—赤峴里—加知頭里—浦村간에 각각 1정의 경비정을 배치하여 小毛島—赤峴里선일대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8월 11일 통제부는 전국(戰局)의 긴박성에 비추어 동 방위대를 앞의 표와 같이 개편 강화하였으며 7일 뒤인 18일에는 방위제1대대(대대장 金忠男중령) 제1중대(중대장 金錫根중위)는 統營전투의 지원부대로 파견키로 하였다.

9월 1일 17, 30, 제3대대(대대장 金光玉소령)로 구성된 昌原 파견대는 昌原 北面 九龍山 부근에 잠입한 적 게릴라와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하고 九龍山峰에 잔복한 수 미상(數未詳)의 적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하였다. 統制府는 9월 4일 昌原 이남에 침입한 적 유격대를 격멸하기 위하여 제2대대(대대장 宋寅明중령)와 제1대대에서 각각 4개소총 소대와 제3대대에서 5개소총소대를 선발하여 각각 內洞里—車龍里—酒店—兩谷—道村—龍地—井里선과 水東—南支—上南—牛谷里—泰田里—佛母山—애미고개선 및 熊川고개 馬山수원지—窟庵山—八坡山—泥洞里선내 각 지역을 분담 경비케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일방 유격대를 섬멸토록 하였다.

9월 8일 昌原지구에 주둔중인 1개部隊(대장 1개南豹소령)는 東面지서 西方 1km지점에 잠입한 적 15명을 섬멸하고자 禹照道 소위 이하 28명을 급파하여 교전 3시간으로 적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한 외에 다발총 1정, 기관소총 2정, 소제 장총 1정, M1 소총 1정 및 각종 실탄 380발을 노획하였다.

8월 14일 선박중대(중대장 1개基祚소령)는 水陽里 피난민 406명을, 15, 16일에는 鎭東面 古縣里 피난민 6,360명을 각각 長承浦에 수송하였으며 8월21일 제52정은 水晶里 피난민 2,602명을 長承浦에 수송하였으며 제54, 56정은 9월 2일까지 龍山面 鶴島 피난민 291명을 巨濟島에 수송하였다.

해본작명 갑 제157호에 의하여 방위대 제1대대는 9월 20일 1개지구로 전진(轉進)하는 營統주둔해병대 金聖恩부대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동일 14.30, FS 優鎭號로 鎭海를 출항하여 21일 12.00 현지에 도착한 다음 해병대로 부터 부기를 인수하였다.

방위대 제1대대의 일부는 9월 25일 三千浦와 固城 巨流面 및 東海面에 각각 진격하여 섬멸작전을 감행하였으며 또 그 일부는 統營과 固城에서 섬멸작전을 계속하였다. 한편 宋寅明부대(제2대대)는 南海島 및 麗水를 확보하고자 본부중대를 합하여 1개대대의 병력으로써 南海島에 무혈상륙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며 앞서 언급한 양부대는 합동작전으로

9월 29일 미명(未明)을 기하여 麗水半島에도 상륙을 감행하는 등 이 기간중의 활동은 눈부신바 많았다.

7월말에서 9월말에 이르기 鎭海방위사령부에서는 전지(戰地)로 부터 9,659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안전지역으로 이송시켰으며 鎭海 및 인근 昌原지역에 걸친 치안유지와 적유격대의 준동을 저지시켜 왔다.

§참전자의 약력

孫 元 一

1945.11~1946. 1. 해방병단장
1946. 1~1947. 8. 해안경비대총사령관 겸 해군병학교장
1947. 8~1953. 6.30 해군총참모장

金 省 三

1946. 2.10~1946. 7. 1 해본 법무과 법무관
1946. 7. 1~1946.10. 1 해본 교재편찬실장
1946.10. 1~1948. 7.19 鎭海통제부사령관
1948. 7.19~1949. 2. 4 통위부참모총장
1949. 2. 4~1950. 4.10 해군본부참모부장
1950. 4.10~1951. 2. 9 鎭海통제부사령관

金 錫 範

1950. 8. 9 鎭海통제부방위사령관
1951.10. 1 제1연대연대장
1952.11.11 해병대사령부사령관
1953. 5.10 육군대학피교육
1953. 9.11 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
1953.10.15 해병대사령부사령관

宋 實 明

1950. 7. 1 방비대사령
1950. 8. 9 방비대방위사령겸 제2부장
1950.12. 6 木浦경비부사령관
1953. 2. 1 해병교육단참모장
195.. 8.16 제2연대부연대장

金 忠 男

1946. 3. 1~1946. 9. 1 해군사관학교교관
1946.10. 1~1949. 4. 7 春川호정장
1947. 8.30~1948. 5. 2 해군본부교육부장
1948. 5. 2~1948. 9. 1 해군본부군기대장
1948. 9. 1~1949. 8.29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
1950. 4.12~1950. 9.15 제2정대사령대리
1950. 9.15~1951. 1.15 방위대제1대대장
1951. 6.27~1952. 6.17 62함부장

南 相 徽

1950. 7. 1 제2정대사령관
1950. 9.15 屛湖기지경비부사령관
1950.10. 1 元山전진기지사령관
1950.12.19 濟州기지경비부사령관
1951. 2.15 濟州기지비상계엄민사부장
1951. 7.10 해군61함부장
1951.10. 1 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
1952. 2. 5 제1연대 제1대대장
1952. 8. 1 제1연대부연대장
1952.11.20 해병훈련소소장
1953. 8.26 도미(渡美)유학

金 光 玉

1946.12.15 소위임관
1947. 2~1948. 3 해군사관학교훈육관

1948. 11~49. 9 加平정(MSC~509)정장
1949. 9~1951. 7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
1951. 9~1952. 5 金海정(AKL—902)정장
1952. 9~1953. 1 신병훈련소부장

白 基 祚

1946. 3. 1~1946. 7.26 鎭海교재부출판과장
1946. 9. 5~1948.11.13 인사과장
1948.11.13~1948.12.25 정보과장
1948.12.25~1949. 2. 7 仁川기지사령관대리
1949. 2. 7~1949. 7.18 해군본부정보참모
1949. 7.18~1949. 7.29 해군본부정보국장
1949. 7.29~1949. 8.16 해군본부헌병대장
1949. 8.16~1950. 3. 1 해군본부총무실장
1950. 6.26~1950. 8.25 선박중대(初春號) 중대장
1950. 8.25~1950.11. 6 선박중대인사참모

(나) UN해군의 활동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제7합동기동함대 사령관	해 군 중 장 스트러블(Arther D. Struble)
기동부대96(日本주둔美해군부대) 사령관	해 군 중 장 죠이(C. Turner Joy)
太平洋 함대 해병사령관	해 병 중 장 세퍼드(Lemuel C. Shepherd)
항모 제15분대사령관	해 군 소 장 루불(R. W. Ruble)
기동부대77(고속항공모함대)사령관	해 군 소 장 이웬(Edward C. Ewen)
기동부대77.4(항모전대)사령관	해 군 소 장 호스킨스(John M. Hoskins)
토레도(Toledo, USS)함장	해 군 소 장 히긴스(John M. Higgins)
헬레나(Helena, USS)전대장	해 군 소 장 하트맨(Charles C. Hartman)
제91기동함대(봉쇄엄호)사령관	英해군소장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함장	해 군 대 령 구드니(Willard K. Goodney)

(1) UN해군의 해안포격 및 봉쇄작전

7월 말경 77기동부대(機動部隊)는 재보급차 오끼나와(沖繩)로 이동하였으며 경계항모(警戒航母)가 釜山 교두보에 대한 근접항공지원(近接航空支援)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8월 4일 강습부대(強襲部隊)의 일진이 晋州 근처의 적을 향하여 비행했고 이날 저녁에는 시시리(Sicily, USS) 항모전대가 西海를 통하여 북상했다. 5일에는 체리티(Charity HMS)함 및 코사크(Cossack, HMS)함의 경계하에 벨파스트(Belfast, HMS) 및 케냐(Kenya, HMS) 순양함은 仁川의 위험한 근접로를 향하여 올라갔다.

동해안에서는 7월 26일 힉긴스(Higgins) 소장이 토레도(Toledo, USS)艦편으로 浦項에 도착 하였을 때에는 浦項의 最後함선제대(艦船梯隊)가 이미 상선(上船)을 완료하고 있었다.



<도레도(Toledo)함의 浦項 북방 해안포격>

(重)순양함 토레도(Toledo, USS)艦이 浦項에 도착하므로써 그동안 해안포격임무에 종사하고 있던 구축함들은 이 중순양함의 8인치포와 더불어 가일층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토레도(Toledo, USS) 함은 7월27일 적부대의 집결지 및 보급품집적소를 향하여 주간에는 8인치포로 포격을 가하는 한편 야간에는 조명탄을 발사하여 지상군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포격은 탄약의 소모를 제한하면서 11일간 계속되었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美 제24사단의 화력통제 및 항공통제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효과적인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지상군의 전선이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히긴스(Higgins)소장 휘하의 단대함정(單隊艦艇)들은 해안에서 약 7,000m 떨어진 허역을 초계하면서 지상부대와 연락요원 교환을 위해 보트를 보내야 하고 지상부대의 보급지원을 엄호하는 등 과중한 일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리하여 8월 4일 및 5일에는 美 공군기와 협동하여 浦項 근역에서 싸우고 있는 지상군을 지원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히긴스(Higgins)소장은 전황이 우군에게 유리하게된 점과 8인치 포의 과중한 포격을 고려한 후 상부에 건의하여 다른 목표를 포격토록하여 8월17일에는 北쪽 해상으로 이동하여 三陟 근해에 도착한 다음 해안으로부터 25마일 거리에서 항공사진으로 선정된 목표에 대한 일제포격을 감행했는데 그 결과 1개의 교량이 파괴되고 2개의 본널이 무너졌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도로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무렵 하트맨(Hartman)소장의 헬레나(Helena, USS)전대는 蔚珍해협을 항해하

고 있었는데 7월 30일에는 주뉴우(Juneau, USS)함이 동 해협에서 이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2척의 순양함과 1개 구축함부대의 합세세력으로써 수많은 장크함을 헤치고 대규모 침공을 저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나 특별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美 제7함대의 강습부대는 여하한 사태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8월 1일 동 기동전대는 해체되었고 하트맨(Hartman)소장은 2개의 휘하 함정을 북상(北上)시켰다. 그래서 3일후에는 日本 사세보(佐世保)에서 재 보급을 받은 다음 韓國의 北東部 지역을 향하여 항해하였는데 항공관측으로 북위 40° 및 42° 사이의 해안에 많은 수의 화차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韓國전쟁 초기에 주뉴우(Juneau, Uss)함이 북위 40° 28′에 있는 蔚川에 최초포격을 가한 이후 8월7일 헬레나(Helena, USS)艦 및 구축함부대가 포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UN군해상부대가 한반도의 해상봉쇄구역이 최북단을 포격한 것이다. 蔚川지역에는 함포사격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목표가 많았는데 철교와 교량 그리고 정거장 및 일부 산업시설들은 좋은 목표가 되었다. 함정들은 VP—6 동체기와 협조하여 동 목표물의 75%를 파괴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같은 압력을 가한 후 헬레나(Helena, USS)전대는 야간을 이용하여 南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날은 38°선 바로 위에 있는 東草 근처의 도로와 철로에 포격을 가했다.

그후 하트맨(Hartman)소장은 盈德 지역에 대한 힉긴스(Higgins)소장의 함포지원 임무를 인수하였고 토레도(Toledo, USS)전대는 재보급차 日本 사세보(佐世保)로 향했다.

한편 동해안 작전에 비하여 서해안에서는 英國 해군 앤드류스(Andrews)소장의 부대가 해안포격 및 봉쇄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앤드류스(Andrews)소장은 8월 5일 북위 38°와 36° 45′사이의 西部해안근처에 3개의 방벽소(防壁所 Barrier Station)를 설정하여 함정이 운용하는 인원을 배치했다.

(防壁所란 해상에 돌출한 암초(岩礁)등에 감시초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당시 韓國 해군도 해안에 근접하여 작전하고 있었는데 앤드류스(Andrews)소장의 함정들은 韓國軍과 협동하여 서해안봉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나 남해안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우군이 南部 河東지역에서 후퇴하자 적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극동해군 사령관은 8월 1일 힉긴스(Higgins)소장의 기동단대(機動單隊)와 루시(Rush)중령의 韓國 해군부대로 하여금 南海의 각 도서와 해역을 통해 침투하는 적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8월 3일 韓國해군함정 YMS 502정은 群山근처에 보급물자를 적재하고 있는 7척의 적 범선을 격침시켰으며 그로부터 4일후에 北쪽으로 30마일 가량 올라가서 적의 동력선 2척을 격침시켰다. 그러는 동안 韓國해군의 다른 함정들은 海州灣 접근로의 해상에서 4척의 적 범선을 격침시켰다.

이와 같이 韓國 해군함정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은 韓國해군함정이 도처의 작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釜山에서 재보급할 필요성을 제거해 주는 韓國 해군전진보급기지(前進補給基地)를 설치하고 南海에서의 韓國해군의 임무를 美해군함정이 대신 맡도록 하는 것이었다.

8월 2일과 3일에는 구축함 히그비(Higbee, USS)함이 南海를 초계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麗水市 北쪽에 자연으로 형성된 하나의 건널목이 적의 해안 이동을 용이하게 하므로 8월 일과 5일 밤에 걸쳐 디아 첸코(Diachenko, USS)함에서 수중파괴요원(水中破壞要員)을 차출하여 이를 파괴코저 하였으나 이들은 적군의 정찰부대에 의하여 사전에 발견되었으므로 철수하고 말았다. 따라서 디아첸코(Diachenko, USS)함은 당해 지역의 철로에 대하여 40분간 포격을 가했다. 4일후에는 B-29기가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麗水 근처에 적의범선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여 왔으므로 카나다(Canada)해군함 케이유가(Cayuga, HMCS)호 및 아다바스칸(Athabaskan, HMCS)호를 최대속력으로 동지역에 급파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2일에는 코레트(Collett, USS)함이 麗水市를 포격하기 위해 麗水灣으로 들어 갔다.

이무렵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같이 蠶灣에 가서 닥아올 작전에 관한 모종의 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항공모함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 함장 Capt. W. R. Goodney)호는 美國 서해안을 떠나 韓國 해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어떻던 기간 중 UN해군의 해안포격 및 봉쇄작전은 주효하여 적의 동력선 6척 및 범선 7척을 격침시켰을 뿐 아니라 해안 및 연해지역의 교통망을 통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三陟근처와 십지어는 端川 지역에 이르기 까지의 교량과 도로 및 철교 터널 또는 일부의 산업시설까지 파괴하여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 UN해군의 근접항공지원

8월 1일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함는 韓國해역에 도착하여 베리포지(Valley-Forge, USS)함과 같이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들 항공모함 2척은 지상부대의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8월 5일 기동을 시작하였다.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함은 2개월간의 해상임무를 수행하고 쉴사이도 없이 韓國해역으로 급파되었는데 그전까지는 美 大西洋함대소속의 항모로서 활약하다가 그 임무를 끝내고 1950년 6월 10일 산 디에이고(San Diego, California)에 도착한 다음 10월 10일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와 임무를 교대토록 되어 있었으나 韓國전쟁으로 말미암아 급히 참전하게 된 것이었다. 이당시 洛東江방어선의 근접항공지원통제(近接航空支援統制)와 지대공통신(地對空通信)의 유지가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美 해군측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우선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와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항모에서 항공통제에 우수한 조종사들을 大邱에 급히 파견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들 조종사들은 이곳에서 해군항공기(海軍航空機)의 폭격통제(爆擊統制)와 모함과의 연락유지라는 두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 후자의 임무인 모함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는 파견된 조종사 1명이 지상군의 상황을 비롯한 각종 정보 사진을 얻어 매일 항모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스키토기의 보충을 목적으로 그 나머지 항공기를 차출하여 8월 5일과 6일의 이틀 동안에 연락기 5대, 7일에는 6대, 8일에는 1대를 각각 임지로 보냈던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작전을 위하여 전선을 4개로 구분하여 각 전선마다 2명의 해공군각 1명의 항공통제관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근접항공지원통제는 다소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차출된 해군연락기들은 해군항공기에 의한 폭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점차로 명백하여 졌다.

모스키토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VA55의 대장 허드슨(Hudson)소령이 지휘하는 5대의 AD기들은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에서 출격하여 洞城 근처의 많은 적을 사살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포격을 반복하여 더 많은 적을 사살하는 동시에 적의 보급품 집적소를 불태워 버렸다.

잭슨(Billy Glen Jackson)중위는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로부터 4대의 스카이 레이다기를 이끌고 金泉 근처의 적을 공격하여 2대의 트럭과 1대의 탱크 그리고 1대의 열차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근접항공지원은 제대로의 방식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美 해군함공기들은 상공에서 목표를 지

정받지 못하여 전선에 연한 도로를 무장정찰(武裝偵察)하는 정도로 임무를 끝내고 되돌아 오는 것이었다. 그 실예로서는 F-80기편대가 日本기지를 떠난 다음 전선상공에 나타나서 그들의 제한된 체공(滯空)시간내에 속히 목표를 배정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美 공군의 모스키토기들은 다만 "준비하시요" "준비하시요" "준비가 다 되었어요"등의 지시만을 되풀이할 뿐으로서 목표 지점을 신속히 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무장(重武裝)을 한 해군 항공기의 조종사들이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을 때 단 5분간 목표지역 상공에서 대기하였다가 공격을 개시하게 된 경무장(輕武裝)항공기들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받았을 때는 난처한 지경을당해야만 하였다. 여기 무장(武裝)이라고 한 것은 항공기가 근접항공지원시에 취하는 전형적인 무장 방식인데 F-4기가 800발의 탄약과 1개의 500kg폭탄 그리고 8개의 로케트탄으로 무장하고 4시간 체공(滯空)하며 AD기는 400발의 탄약과 3개의 250kg의 폭탄 그리고 12개의 로케트탄으로 무장하고 4시간 체공하는 것을 뜻한다. 어떻던 앞서통와 같은 사태는 일부통신능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8월 7.8일경 지상군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되자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美 제8軍의 위기를 우려한 나머지 함재기(艦載機)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들로 하여금 근접항공지원 및 후방차단(後方遮斷) 임무를 수행케 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배리 호지(Valley Forge, USS) 및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艦은 전선에 계속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철수하여 재보급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그런데 당시의 항공작전은 2척의 항모가 2일간 작전하고 제3일에는 재보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스터러블(Struble) 중장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같이 臺灣에 도착하는 즉시로 제7함대로 하여금 가능한한 최대한의 작전을 개시,적 지상군 부대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강력한 압력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7함대의 지원부대의 작전 기지를 오끼나와(沖繩)에서 사세호(佐世保)로 이동하여 항모의 출동기간을 연장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근접항공지원에서의 항모강습부대(航母強襲部隊)의 노력이 일층 강화되었는데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9일동안에 걸친 작전에 참가했던 항모강습부대의 각 편대장들은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필립핀 · 씨(Philippine Sea USS)항모에서 F-4기 2대와 AD기 2대를 지휘한 달젤(LTS Dalzell. Jr) 2세대위는 적 지상군의 바락크에 소이탄과 GP탄으로 공격을 가하여 성과가

켰으나 공격시에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고 8월 16일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에서 5대의 AD기를 지휘한 갤러퍼(LT. M. D Gallagher)대위는 "8대의 트럭과 1대의 짚차를 파괴하였으며 또 3대의 트럭과 1개부락에 손상을 가하는 성과를 이룩했으나 그때에도 경험이 부족한 모스킷토기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날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항모에서 8대의 AD기가 8대의 F-4US기를 지휘한 칙크(Lock. L. Chick)소령은 보고하기를 "9개의 부락에 폭격을 가하여 적지상군 대부대에 치명상을 주었고 과수원 3개처에 로케트탄을 퍼부어서 숨어 있는 적과 차량에 손실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4대의 F-4U기들을 지휘한 스미스(LTCE Smith)대위는 보고하기를 大邱근처에서의 적의 보급품집적소와 휘발유창고 그리고 4개 부락을 폭격하여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었다.

8월 19일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항모에서 10대의 F-4U기와 8대의 AD기를 지휘한 디콘(LCDR ET Deacon)소령은 보고하기를 지정한 통신망으로 모스킷트기와 접촉은 하였으나 통신이 혼잡하였으므로 계속 양호한 접촉은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東쪽에 집결한 적부대와 보급품집적소에 폭격을 가해서 큰 손실을 주었으며 洛東江에 연한 전선과 사이의 지역이 완전 소각되었다"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함재기의 작전활동에 뒤이어서 함대가 사세보(佐世保)로 돌아 왔을 때에는 지상부대의 전투가 잠정적인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스트러불(Struble)중장은 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仁川상륙작전의 합동기동부대를 지휘하라는 것이었으므로 곧 수명의 참모를 대동하고 東京으로 가서 이 작전을 위한 지휘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동부대77을 지휘하였던 이웬(Ewen)소장은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항모의 노력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접항공지원을 계속한다면 결국 항공력을 낭비하는 비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사견이긴 하지만 大邱式(Daegu-type) 근접항공지원에서는 함대가 가지고 있는 지원능력의 30%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또 한편 호스킨스(Hoskins)소장은 증언하기를 "최대한의 지원대신에 지상군이 요청하는 전선상의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4대에서 8대 정도의 항공기를 계속하여 보낸다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근접항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서는 훈련된 지상통제단의 부족과 모스키토기의 부족 그리고 전선상의 항공기 통제를 위한 장비의 부족등 세가지를 들 수가 있는 것이었다.

최대한의 항공강습력(航空強襲力)과 해군항공기의 노련한 기술이 洛東江 전선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항모의 지원노력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었다.

8월 10일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에서 출격한 항공기편대가 수행한 업적 하나를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과중한 일일 작전과업作戰課業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에서 4대의 F-4U機를 지휘하고 大邱상공에 나타나서 활동하게된 스미스(LCE, Smith)대위는 大邱 JOC에서 "곧 晋州상공에 있는 美 공군연락기인 모스키토 Wildes기와 접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였다. 스미스(Smith)대위는 4대의 항공기가 각각 VT 휴즈(Fuse)폭탄인 250kg폭탄 1개와 5인치 로켓트 탄 8개와 기타 기관총탄약을 가득히 실은 다은 편대무장(編隊武裝)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므로 모스키토기는 마을 西쪽에 있는 작은 다리를 목표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해군기들은 곧 그 목표를 발견한 다음 폭격하여 이를 폭파케 되였다.

모스키토기의 그뒤의 목표지시는 晋州로부터 약 1.5km 떨어진 北쪽의 도로를 따라 걷기에 있는 적부대와 장비를 파괴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스미스(Smith)대위는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곧 공격키로 되었는데 이러한 2차 임무를 받은 해군기들은 최대한의 저공비행을 하면서 숨겨져 있는 장비와 인원 및 연료 드럼 등을 발견하는 대로 곧 로켓트탄으로 퍼부어 큰 손실을 주게 되였다.

이와같이 항공기대 4로 편성한 1개편대에 대한 과중한 임무는 몇번이고 거듭되어 항공기의 적절한 활용에 무리를 자아내게 되였다. 해군 조종사들에게는 이와같은 임무는 무장정찰 또는 후방차단이지 근접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이다.

洛東江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군의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항공모함 항공기의 최대한의 근접지원에 대한 긴급 요청은 이미 두번이나 있었다.

釜山에 있는 美 제5공군사령부에서의 이러한 요청은 東京에 있는 해군극동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美 제7함대에 전달되었다. 洛東江전선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임무는 美 제5공군이 주로 배정되고 있었고 기동부대77은 美 제5공군의 이러한 지원임무를 협조해

구고 있었는데 작전이 긴급하다고 하여 이와같이 명령계통을 지키지 않는등의 사례가 발생하므로 8월 29일 죠이(Joy)제독은 기동부대의 임무배정에 관한 각종 오해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전문(電文)으로 보내게 하는 동시에 그사본(寫本을) 워커(Walker)중장과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 그리고 파트릿지(Partridge)소장에게 각각 전달하게 되였다. 그 전문(電文)의 내용은 요지 다음과같다.

"해군부대를 포함한 기정계획(旣定計劃)의 수정이나 임무 배정에 관한 모든 요청은 극동군 사령관이나 극동 美해군사령관에게 행해져야 하고 극동군사령관은 해군 부대가 작성할 일반적인 작전 형태와 시간 그리고 지역등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극동군사령관은 타부대에서의 요청 및 건의에 의하여 결심할 것이며 극동해군사령관은 극동군사령관의 요망 사항을 보강하여야 될 것인데 만일 극동군사령관이 상항을 발표하지 않으면 작전의 형태, 시기 그리고 장소 등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시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8월 말경 죠이(Joy)중장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문으로써 항모의 기본 임무를 살려서 강습 효과가 있는 北韓내의 목표를 강타하도록 건의하게 되었다.

"……北韓지역내에서는 항모강습력(航母強襲力)을 이용하여 강타할 각종의 현저한 목표가 적고 잘 은폐되어 있다. 8월 25일 이후 죠이(Joy) 중장은 기동부대77은 38°선이북의 목표에 임무를 배정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러나 8월 25일 美 제5공군은 제7함대에 긴급직통 전화로서 더 많은 해군항공 근접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적은 洛東江을 횡단하여 전면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근접항공 지원은 가장 긴급한 역할로서 항모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격이 시행되기 수일전에 근접항공지원에 B—29폭격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8월 16일 98대의 공중요새(空中要塞) B—29중폭격기들은 倭館 西北方에 집결한 적부대에 카페트(Carpet)형 폭격을 가하였다.

8월 31일 11.01에 釜山의 JOC에서는 또 하나의 긴급요청을 해 왔는데 그 내용은 최대한의 근접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적은 洛東江 방어선에 대하여 대규모의 공격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상황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다.

이러한 긴급전문을 받은 이웬(Ewen)소장은 그의 휘하 항공기들이 서울—仁川간의 목

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귀환시키고 기동부대로 하여금 南東部해상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항모 갑판위의의 항공기들은 급히 출격 준비를 갖추었으며 이때에 출격준비를 갖춘함대에서는 釜山의 JOC에 아래와 같은 긴급전보를 보냈다. "함대의 근접항공지원폭격은 14.30에 개시된다. 최초의 강습은 12대의 스카이레이다機가 3개의 50kg폭탄으로 각각 무장하고 16대의 골세아기가 1개의 500kg폭탄과 4개의 로켓트탄 그리고 기타 탄약(기관총)을 각각 만재하고 행할것이며 제2의 강습도 최초의 것과 같은 편대가 감행할 것이고 필요하면 더 많은 후속편대가 따를 것이다."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및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에항모서의 최초 근접지원편대는 9월 1일 13.15에 갑판을 떠났다.

다음 사항은 이날 오후의 배리 호지(Valley Forge, USS) 및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의 행동보고서에서 발췌한것이다.

배리 포지(Valley Forge, USS)항모의 행동보고서 : 13, 15에 14대의 항공기가 근접항공지원을 목적으로 韓國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그들은 접촉 휴즈로 된 500kg폭탄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폭탄을 투하할 목표가 없었으므로 통제사(統制士)들로 부터 상공을 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45분간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동안에 통제사들은 F—51의 1개 편대를 호출하여 집결한 적군부대에 기총(機銃) 및 로켓트탄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골세아기들은 마지막으로 개평동 근처의 1개 마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적의 보급품 집적소를 파괴하였었다. 또 6대의 AD기들은 적이 집결하고 있는 3개의 마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파괴하였고 14, 30에는 15대의 항공기가 또 근접지원을 목적으로 전선으로 들어 갔다. 6대의 F4U기는 JAC의 지시대로 咸安邑의 3분의 1을 거의 파괴해 버렸다. 그런데 咸安에는 적군이 많이 집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咸安에서 西쪽으로 벗어나간 도로상에 있었던 8대의 적군 트럭을 불태워 버리고 12대를 파손하였다 5대의 AD기들은 咸安 西쪽에 있는 교량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고 14개의 500kg폭탄을 투하하여 완전히 파괴시켰고 이어 中岩里에서 50kg폭탄으로 3개의 건물을 폭격하였었다.

16.15에 8대의 제트기가 근접항공지원을 목적으로 출격을 개시하였다. 목표지역 상공에 머물러 있는 항공기가 많으므로 그들은 통제사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다. 4대의 항공기가 2대의 JAC모스키트기를 감싸고 선회했으나 역시 그들은 통신회선(通信回線)이 복잡하여 모스키트기와 접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4대의 항공기는 근적에서 1대의 기관차를 발견하고 이를 파괴하였다.

17.45에대의 제트기로 된 최종편대는 근접지원을 목적으로 출격하였으나 목표지역 상공에서 모스키토기가 항공기 통제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므로서(이것은 당시 목표 지역 상공에 너무 많은 항공기가 모여 들어서 모스킷트기가 부족했기 때문임) 그들은 4대씩 분리 2개 편대를 만들어 제1편대는 洛東江 東쪽에 있는 약 10척의 小舟艇을 파괴했고 다음 편대는 적의 포상(砲床)을 공격하였다.

필립핀·씨(Philippine Sea, USS)항모의 행동보고서 : 4대의 CAP항공기와 기본공격강습편대(8대

의 F-4U기 및 6대의 AD기)가 근접항공지원을 목적으로 13, 12게 출격하기 시작하였다. 동 전대가 목표지역의 상공에 나타났을 때에는 항공통제사와 접촉하지 못했으나 그뒤 곧 목표지역의 東部에 집결하고 있는 적 탱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VF113의 편대장 패터슨 대위는 저공비행으로 목표를 식별하였는데 그것은 美 육군 탱크로 판명되어 또다시 자신들에 주워진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목표를 탐색한 나머지 그들은 집결한 적을 발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1개의 교량도 폭격하여 경간(經間)한개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14. 30 전자(前者)와는 달리 기본공격편대(基本攻擊編隊)에 2대의 F-4U기를 추가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이들 비행전대도 역시 항공통제사와 접촉할 수가 없었고 그전의 전대보다도 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들은 목표지역에 있는 적의 집결부대 및 창고건물을 폭격하였다. 이 폭격뒤에 1개창고와 1개 연료저장소(燃料貯藏所)를 파괴하였으며 적이 집결하고 있는 2개의 마을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다.

그 다음 출격은 제트기로 구성된 편대의 활동이었는데 이들도 역시 통제사와 접촉할 수가 없었다 그날의 최종출격은 1개의 F-4UN 및 1개의 F-4U-5N으로 구성된 편대에 의한 것이었는데 근접지원 임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작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陸上으로 기수를 돌렸다.

이상과 같은 행동보고서는 기동부대가 적의 대규모 공격을 저지하고저 그들의 항공기를 지원한 총263회의 출격을 통한 활동 상황중에서 발취한 것이다.

기동부대77의 고속항모(高速航母)항공기가 美 공군과 합동하여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경계항모(警戒航母) 시실리(Sicily, USS)호 및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호는 해병임시여단과 美제24 및 25보병사단 그리고 美제1기병사단과 韓國軍 제1,2 군단 및 韓國해병대를 위하여 근접항공지원의 해군—해병대식의 교리(敎理)를 과시하고 있었다.

전쟁초기에 세퍼드(Shepherd)중장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스트레토메이어(Stratemeyer)중장에게 해병대의 비행단에 관하여 이야기 한바 있다. 해병비행단은 해병대의 중요한 일부분을 점하고 있고 그들은 잘 훈련되어 하나의 단위부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훈련받은 것과 상등한 임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다. 맥아더(Mac Atrhur)사령관은 세퍼드(Shepherd)중장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항모분대(航母分隊) 제15가 그와 같은 짧은 기간에 막대한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일찌기 어느 해군장교도 체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전쟁이 시작된지 단 일주일만에 루불(Ruble)소장의 항공분대는 잠정적인 부가임무로서 극동해군사령부에 보고하라는 항공우선순위 제1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경계항모분대는 그전까지만 해도 대잠구잠

작전(對潛驅潛作戰)을 수행하는 평시의 임무를수행하면서 산·디에이고(San Diago)에 머물르고 있었다. 루불(Ruble)소장의 참모들은 특히 근접항공지원과 대잠작전에 관하여 루불(Ruble)소장의 고문관 역할을 하였다. 루불(Ruble)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항공기편으로 東京에 도착하여 7월10일 죠이(Joy)중장에게 보고하였다.

機動戰隊 96.8의 편성

항모분대제15(美해군 루불(R. W. Ruble) 소장 지휘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艦(함장 맥취인 대령)

VMF—323(럿드 해병 소령)

시시리(Sicily USS)艦(함장 타치대령)

VMF—214(리시드 해병중령)

엔디코트(Endicott, USS)艦(함장 죠리중령)

도일(Doyle, USS)艦(함장 몸슨 2세 중령)

키이즈(Kges, USS)艦(함장 크리 스티안스 중령)

토우씨그(Taussig, USS)艦(함장 미이어 중령)

7월12일 루불(Ruble)소장은 주일해군항공사령관(駐日海軍航空司令官)이라는 임무와 韓國전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해군기의 병참지원을 담당할 부가적인 임무, 그리고 2개의 해군전투기전대의 도착에 대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 되었었다.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함은 VMF214와 VMF-323을 탑재하고 7월31일 日本의 고오베(神戶)항에 도착하였다. 시시리(Sicily, USS)함은 7월 31일 루불(Ruble)소장의 참모진중 잔여참모를 하선시키고 고오베(神戶)에서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함과 상봉하였다. 그리고 고오베(神戶)에서 지상군부대와 VMF-214의 장비를 조속히 탑재하였다. 시시리(Sicily USS)함의 함장 다치(Thach)대령은 기동함대사령관(CTE 96.23)으로 임명되어 그는 예하 함정을 이끌고 위기에 처해있는 洛東江 전선에서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라는 급박한 명령을 받았다.

다치(Thach)대령은 그 다음날 시시리(Sicily USS)함을 전선으로 보내어 8월 3일 오후에VMF-214의 항공기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같은날 16, 38, 8대의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이들이 JOG에 보고하자 JOG는 洛東江 西部에 있는 여하한 목표라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JOC는 적이 최근에 점령한 晋州市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요망하였다.

이 무렵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함은 재보급을 받고 루불(Ruble)소장과 해병비행전대(VMF-323)를 탑승시켰다. 엔디코트(Endicott, DMS-35)함과 토우시그

(Toussig, DD-746)함은 경비 임무를 받았다. 루불(Ruble)제독의 참모들은 시시리(Sicily, USS)함에서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함으로 옮겨 탔다. 이리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이 기동전대는 산디에이고(San Diago)를 출항한 약 1개월뒤에 서로 합류하여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시시리(Sicily, USS)함 및 바동스트레이트(Badoengstrait, USS)함에 탑승하고 있는 해병항공조종사들은 8월 8일 이전에 仁川지역에 대한 예비폭격을 포함한 수개의 후방 차단임무를 띄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부가하여 美 공군과의 협조아래 수일간에 걸쳐 근접항공지원 임무까지도 감행하였다.

8월 7일 제1해병임시여단은 도착하는 즉시로 馬山방면에서 활동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이들은 킨(Kean)특수임무부대의 일부로써 晋州 東南部지역에서 작전을 수행케 되었다.

VMF-214와 323은 킨(Kean)특수임무부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해병지상항공통제단요원들은 수주일전 캠프 펜들톤(Camp Pendleton, California)에서 해병항공대 조종사들과 같이 근접항공지원에 관한 연습을 실시한바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 6일 동안 해병여단은 콜세아기로 구성된 VMF—323과 212의 엄호를 받으면서 西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여 해군과 해병대간의 항공근접지원의 팀웍크)를 과시할 수 있었다. 주간에는 약 6대의 항공기가 해병여단의 작전지역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콜세아기는 250kg폭탄 1개와 네이팜탄탱크 1개, 로켓트탄 8개와 기타 기관총 탄환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례(定例)였다. 해병여단에 주어진 제2의 임무는 泗山근처의 적 1개 사단을 축출하는데 있었다.(제2장 美 해병대의 昌原里전투 참조)

어떻던 여러가지의 곤란과 장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美 해군 및 해병대의 항공기가 洛東江전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여한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다.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기동부대 77은 JOC의 통제하에 적에 대하여 美 공군과 합동한 근접항공지원의 형태로서 2481회의 출격을 수행하였는데 이중 593회는 모스키토가에 의하여 통제되었고 나머지 1,888회의 임무는 적의 지상부대 탱크 및 보급품 집적소등에 대하여 무장정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현지 전선에서 즉시 수행 한 것이다.

해군항공기에 의한 2,481회의 강습과 해병대 항공기에 의한 1,359회의 출격은 전선근처의 적과 그들의 장비에 대하여 일대 손실을 가하므로서 釜山으로 진격하려는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3. 韓·美空軍의 活動 (50년 8월 1일부터 50년 9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5, 16호

가. 韓國공군의 활동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공군총참모장 준장 金貞烈	제1군단과견대장 소령 金 信
후방사령부참모장	T-6 비행대장 소령 申攸浹
(8.28 비행단장) 대령 張德昌	정찰비행대장 대위 吳占石

가. F-51 비행부대의 재훈련

F-51전투기가 韓國공군에 인수된 것은 7월 2일이었다. 이 부럽 지상군은 적의 수와 장비의 절대적인 중압에 의하여 후퇴를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급박한 전국(戰局)으로 인하여 우리 조종사들은 F-51전폭기로 소정의 훈련을 거칠 겨를도 없이 항공기를 인수해 온 다음 날인 7월 3일, 제1차의 출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4일 安養지구 출격에서는 비행단장 李根哲대령이 적전차를 공격하던 중 적탄에 맞아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공군총참모장 金貞烈준장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게된 李承晩대통령은 총참모장에게 지시하기를 "美 공군들이 작전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투조종사들은 출격작전을 일단 중지하고 더 한층 훈련을 잘한 다음에 작전에 참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담화는 대통령이 7월 5일 9명의 조종사를 慶北道지사관사(대통령임시숙소)로 초치하였던 자리에서도 반복되었다. 이러한 조종사 훈련문제에 대하여 金貞烈준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美軍 조종사를 편대장으로하여 출격하므로써 우리 조종사들의 조종술을 숙달시키고 희생을 방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美 제5공군의 일부를 韓國에 이동시켜 항속거리를 단축시키므로서 지상군의 작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조종사들의 출격을 중지하고 일정한 기간 재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이다. 따라서 金貞烈준장은 헤스(Dean E. Hess) 소

령과 출격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현재 우리는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능한 편대장이 없으니 당신들이 편대장이 되고 우리 조종사와 합동하여 출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 헤스(Hess)소령은, "태극마크를 표시한 비행기를 美 조종사가 타고 출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곤란하다. 만일 상부에서 이를 허락한다면 비행기를 탈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金貞烈중장과 張維煥중장 증언).

헤스(Hess)소령이 韓國 공군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美 제5공군은 韓國戰이 발발하자 처음으로 韓國 공군에 F—51 전투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에서는 의용병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헤스(Hess)소령을 비롯하여 9명의 조종사와 통신 및 정비장교 4명, 그리고 사병 100명이 응모하여 제5공군에서는 이들을 잠정적으로 보우트 원(Bcut-one)이라고 불렀다. 7월 10일 보우트 원(Bcut-one)은 해체되고 8월 중순에 美 제6146 지원부대로 공식명칭이 부여되었다. 그뒤 제6146 지원부대는 1952년 8월 15일에 韓國 공군의 고문단으로서 정식설치를 보게 되었다. 한편 韓國 공군에서는 美 제6146 지원부대의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통상 헤스(Hess)부대라고 불렀다. 헤스(Hess)소령은 美國 오하이오(Ohio)주 출신으로 제2차 대전중 유럽전선에서 63회의 출격기록을 보유하였고, 1950년 7월 2일 韓國戰에 참전하여 9월까지에만도 100회를 출격 하였던 하늘의 용사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때마침(7월 5.6일경) 美 제5공군사령관 파트릿지(Partridge) 소장이 전세를 점토하기 위하여 大邱에 도착하였을 때에 金貞烈참장은 韓國 공군의 현황을 설명한 다음, 당면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헤스(Hess)부대와의 합동 출격에 관한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金貞烈참장은 다시 두번째의 문제인 제5공군의 기지 이동문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트릿지(Partridge) 소장은 "전선의 급속도로 남하하여 전국이 불안할 뿐 아니라 大邱기지는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金貞烈참장은 "설사 전선의 유동이 심하다 하여도 현재 大田 北方에서 전투하고 있으므로 大邱기지는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출격작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제5공군이 大邱기지로 이동하겠다면 우리는 大邱기지를 내어놓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설득하는데 힘썼다. 이에 대하여 파트리지(Partridge)소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韓國내의 기지 이동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므로 곧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

망적인 언질을 주고 떠났다(金貞烈중장 증언).

그뒤 이 문제는 마침내 실현을 보게되어 美 제5공군의 기지대대와 비행대대가 大邱기지로 이동하여 왔으며 그리고 전방사령부(前方司令部)(뒤에 駐韓 美5공군사령부로 개칭)가 이동함에 따라 韓國공군은 7월 27일 大邱기지를 美 제5공군에 이양한 다음 鎭海비행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F-51전폭기의 조종훈련은 鎭海비행장을 모기지(母基地)로 삼았으며 직접훈련은 金海비행장에서 8월 1일부터 동 14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두 비행장을 쓰게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鎭海비행장은 과거 日本해군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길이 920m의 활주로를 갖고 있었으며 그밖에 격납고(格納庫)와 몇개의 막사가 있었으나 日本軍의 무조건 항복이래 사용치 않고 버려둔 채 있었다. 이 곳은 이와 같이 지역이 협소하고 東쪽에 있는 中岩山(706高地)의 능선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활주로의 南쪽 끝이 鎭海灣에 접하고 있어 T-6기의 훈련비행장으로서는 적당하나 F-51 전폭기가 이착륙 하기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총참모장겸 비행단장인 金貞烈준장은 아직 F-51 전폭기에 익숙치 못한 韓國 조종사들에게는 鎭海기지에서의 훈련이 곤란하였으므로 金海비행장을 훈련기지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金海비행장은 釜山에서 西北쪽 14km지점에 있는 金海평야에 자리잡고 있으며 과거 日本軍이 건설한 것으로 해방 이후 大韓國民航空社(民間)가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 비행장은 2,000m의 콘크리트 활주로가 있었기 때문에 F-51 비행부대의 훈련에도 적합하였다.

이리하여 비행부대 조종사들은 이 金海비행장에서 재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美 제6146 지원부대 조종사는 F-51 전폭기에 익숙한 韓國 조종사들에게 수신호법(手信號法), 비행기요동에 의한 신호법을 비롯하여 적 지상군의 식별법과 고정목표물탐색법에 이어서 사격법과 적 대공포화 회피법등의 훈련을 하게 되었다.

이 조종사들은 이와같이 美軍 조종사로 부터 교육을 받는 한편 洛東江전선에 직접 출격하여 적 지상군을 공격하는 작전에도 참가하고 있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美제6146지원부대의 윌슨(Wilson) 중위와 크레지웰(Craigwell) 중위 그리고 헤스(Hess)소령은 T-6기로 金海에가서 F-51 전폭기를 鎭海기지로 이동시켰

는데 한편 韓國 조종사들은 훈련을 마친 다음 곧 T-6기나 혹은 차량편으로 鎭海기지로 돌아오곤 하였다.

비행단에서 F-51비행부대를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비행단사령부(飛行團司令部)가 鎭海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韓國 공군과 美 제6146지원부대를 지원하는 보급품이 鎭海港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韓國 공군이 F-51 비행부대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韓國 공군 조종사의 전투력이 향상되자 金貞烈준장은 鎭海기지에서의 이착륙(離着陸), 금지 명령을 해제하게 되었으나 우선 이륙하는 것만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洛東江방어선에서 적의 공격이 가열해지자 부득이 8월 15일부터는 훈련 비행을 중지하고 출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간의 고충이 얼마나 컸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기종 전환훈련에 약 60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론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당시 韓國 조종사들은 8월 15일까지 평균 비행 시간이 15내지 20시간에 불과하였다.

(2) F-51비행부대의 후방차단작전

2주일간의 재훈련을 받은 6명의 조종사(朴熙東대위, 姜錫倫대위, 丁永鎭중위 李[illegible]중위, 張東出중위, 金成龍중위)는 전황이 긴박해짐으로 말미암아 8월 15일 부터 적의 후방차단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제1차 鎭東里 및 馬山지구 공격에 실패한 적 제6사단은 소모된 병력과 장비를 보충받아 8월 17일부터 美 제25사단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여 왔는데 이 공격은 西北山과 戰鬪山 그리고 笔峰쪽에서 실로 뺏고 빼앗기는 처열한 전투가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鎭海에 기지를 둔 韓國 공군과 美 제6146지원부대는 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일 출격하였으며 헤스(Hess)소령은 하루에도 5~6회의 기록적인 출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헤스(Hess)소령은 8월초에 자기의 전용 F-51 전폭기에 "신념의 조인"이란 글자를 써 붙이고 하루에도 5~6회씩 馬山, 鎭東里, 晋州등지에 출격하였으며 그밖에도 후크(Hook)대위와 스미스(Smith) 대위도 또한 韓國 공군과 더불어 출격을 하였다.

韓國 공군은 8월 15일부터 9월30일 까지 사이에 주로 洛東江방어선 후방과 전방 가까이에 있는 적의 병력이동과 보급품집적소에 대하여 무려 127회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즉



<적진의 F-51 "信念의 鳥人"機>

8월 15, 16, 17일의 사흘 동안에 利原—元山—咸興—順川—統營—長城 등 주로 적 제6사단과 제7사단의 후방을 공격하여 적전차 2대와 차량 5대, 그리고 야포진지 5개소를 격파하고 적병 70여명을 사살하였다. 또 18, 20, 21일의 사흘 동안에는 永興—沃川—金泉—[illegible] 등 京釜본선방면으로 출격하여 적 전차 9대, 차량 4대를 파괴하였으며, 뒤이어 22일에는 蔚山—裡里—木浦방면에서 적의 해안방어진지 5개소를 파괴하였다. 24일에는 居昌과 陜川를 공격하였고, 28, 29, 30일의 연 3일 동안에는 중부전선(中部戰線)인 倭館—金泉—善山—青松—安東 등 아군 제2군단과 대치하고 있던 적후방을 공격하여 보급품을 수송 중인 차량 27대와 전차 6대를 파괴하고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불태워 버리는 등 많은 전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적은 UN공군의 계속적인 후방차단작전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차량과 우마차(牛馬車) 및 도로변의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릴레이식 방법으로 洛東江전선에 보급 물자를 수송한 다음 9월 1일부터 총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우리 공군은 이러한 적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9월 2일에 義城—咸昌—尙州, 4일에 茂朱—大田 그리고 5일에는 論山, 6일에는 公州 등지를 폭격하였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10일 11:00에 張東出중위와 李相垂중위는 美 공군조종사 윌슨(Wilson)중위와 같이 淸州를 공격하고자 鎭海기지를 이륙(離陸)중 張東出 중위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鎭海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전사하고 말았는데 張중위는 慶北출신으로 과거에 日本육군소

년비행병 15기생(日本陸軍少年飛行兵15期生)이었고 7월 3일 이래 15회에 걸친 출격을 단행한 조종사였던 것이니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총참모장 金白烈 준장은 韓國 공군조종사들에게 앞으로 鎭海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을 또다시 금지하고 金海비행장에서만 출격하라고 명령하였다.

金貞烈 준장은 총참모장겸 비행단장으로 있었으나 8월 28일부로 비행단장직을 후방사령부 참모장 張德昌 대령에게 인계하였다.

비행단에서는 F-51전폭기를 계속 출격시키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태풍(颱風) 케지아(Kezia)호가 韓國 전역을 휩쓸어 韓國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 부득이 출격을 중지하는 수 밖에 없었다.

9월 15일 仁川상륙작전의 성공으로 洛東江전선에 집중되고 있던 적 지상군의 후방이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군측이 洛東江전선에서 총반격작전을 감행하게 되자 F-51 비행부대는 9월 20일에 鎭海기지에서 大邱기지로 이동한 즉시 연일 출격하여 패주하는 적에게 폭격을 가하게 되었다.

즉 9월 21일 大邱기지를 떠난 F-51전폭기 4기편대(機編隊)는 永川과 義城사이를 비행하는 도중에 花城洞 근처에서 있는 터널속에 들어가는 적 화물열차를 발견하고 곧 로케트탄과 기관총 소사를 가하여 탑승한 적병력 다수를 살상 하였는데 때마침 美공군 F-8 전투기 4대도 이를 발견하고 우리 공군과 합세하여 집중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姜錫倫 준장 증언).

9월 23일에 大邱에서 汝矣島비행장으로 이동한 F-51 비행부대는 申敎漢 소령과 金斗萬중위 및 田鳳熙중위의 세 사람을 새로이 편입시켜 조종사 진용을 강화토록 하였으므로 이 비행부대의 조종사는 모두 8명(申敎漢소령, 朴熙東대위, 姜錫倫대위, 丁水鐵중위, 李相乘중위, 金成龍중위, 金斗萬중위, 田鳳熙중위)이 되었다.

이 비행부대는 9월 23일부터 38선 이북지역인 新義州를 필두로 24일에는 龍岩浦一宝川, 27일에는 鄕川, 그리고 29일에는 平壤一中和, 30일에는 新安州 등지의 군사목표(軍事目標)를 강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韓國 공군은 8월 1일부터 2주일간의 훈련을 받고 15일부터 洛東江방어선에 출격하기 시작한 이래 127회(美 제6146지원부대 조종사가 출격한 45회포함)의 출격에서 1명의 조종사가 전사하였을 뿐 다음과 같은 다대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1]

종합전과(韓國 공군과 美 제6146지원부대)

시기 \ 격의목표		적병	전차	차량	전물	차량	보집급적품소	연적료집소	진지	포포진지함	역	기관차	우마차
파괴및격파	Ⅰ	305	7	25	5	5	16	8		9			2
	Ⅱ	263	24	115	52	20	8	2		10	2	3	1

비고 : Ⅰ. 기지는 大邱—鎭海—大邱—汝矣島

Ⅱ. 시기는 Ⅰ ~7. 3.~7.26. / Ⅱ ~8.15.~9.30.)을 기준으로 한다.

※. 1950년 전투요보 참조

개 인 별 출 격 기 록 (1950년도 전투요보 참조)

1950. 8. 15~9.30

계급	성명	출격회수	계급	성명	출격회수
대위	朴熙東	18회	중위	李相垂	11회
〃	姜鎭倫	9	〃	張東出	8
중위	金成龍	16	〃	金斗萬	1
〃	丁永鎭	19		計	82

탄 약 소 모 량

(1950년도전투요보참고)

탄약 \ 구분	소모량(발)	비고
로케트탄	762	
네이팜〃	62	8.16부터사용
폭탄	2	9.30 〃
기관포탄	126,000	Cal—50

(3) 정찰비행대의 작전

吳占石대위가 지휘하는 정찰비행대(偵察行隊飛)는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金泉, 義城, 新寧, 永川 기지로 이동하면서 아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7월 26일 金泉에서 義城으로 이동한 정찰비행대는 8월 1일까지 중부전선(中部戰線)에서 작전중인 아군 제2군단을 지원하여 槐山—堤川—寧越방면과 동해안(東海岸)지구의 적정을 정찰하고 盈德—安東—新寧—大邱간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뒤에 한미양군(韓美兩軍)이 8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洛東江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자 정찰비행대는 義城에서 新寧기지로 옮기게 되었다.

지상군의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찰비행대도 동해안의 盈德에서 西쪽으로 榮州—聞慶—金泉까지 광범한 지역을 정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시기에 정찰기가

부족한 정찰비행대에서는 기당(機當) 1일 5~6회의 적정정찰(敵情偵察)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은 정보는 직접 육해공군총사령부와 美 제5공군에 보고 되어 우리 지상군작전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고 美 제5공군에 통보된 적의 목표물은 UN공군기에 의하여 대부분 격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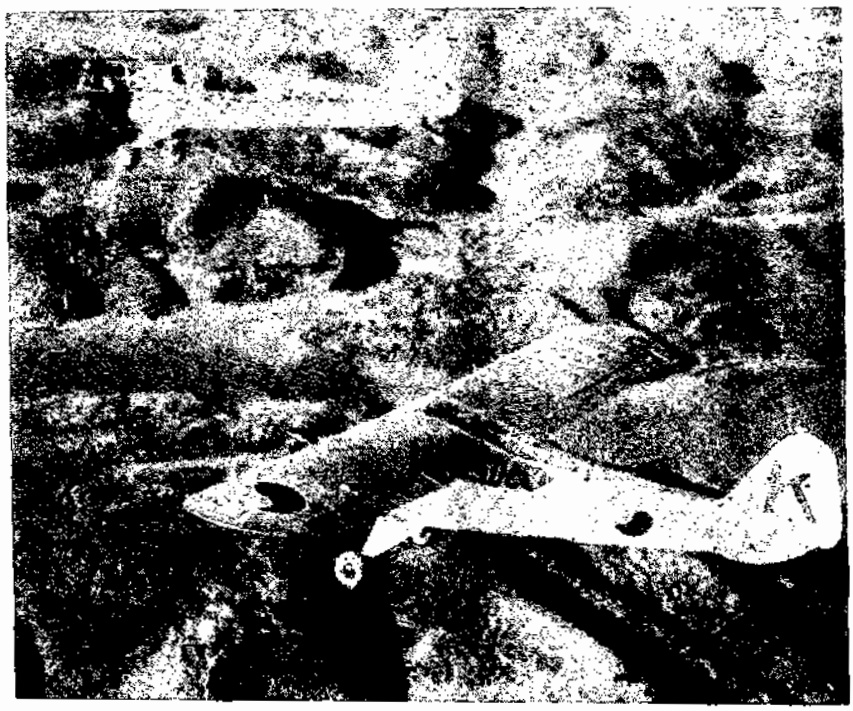
적 제2군단산하의 제5사단과 제12사단이 東海지구의 浦項과 杞溪 및 安康지구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게 되자 정찰비행대는 8월 13일 永川에서 大邱기지(大邱競馬場)로 이동하였다.

한편 정찰비행대에서는 지금까지 통신통(通信筒)에 의존하던 공지간(空地間)의 연락방법을 지양하고 L-형 연락기에 SCR-300 무전기를 장착(裝着)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신을 하게 되었다. 즉 8월 14일 군수국장 朴斗先 소령은 美8군에서 SCR-300 무전기를 인수하여 곧 통신대장 李福鉉 대위 지휘하에 처음으로 L-4와 L-5연락기에 장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통신방법의 개선은 정찰비행대로 하여금 공지간의 작전임무를 더욱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한 예로 8월 15일을 전후하여 倭舘 北方 300高地에서는 아군 제1사단 제13연대와 적 제3사단 간에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때 千奉植중위는 UN공군 F-51전폭기 1개 편대를 300高地로 유도하여 적 진지를 강타한 다음 제13연대 제3중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제13연대 제1대대 제3중대장이었던 李信國 중위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지협동작전(空地協同作戰)이 잘되었다. 연대장이 항공지원을 요청하자 우리 정찰기 2대가 날라 왔었다. SCR—300 무전기로 적과 아군의 위치를 정찰기에 알린 바 10분후에 F-51전폭기 4대가 300高地를 강타하였다. 이를 본 병사들은 사기(士氣)가 충천하여 15일 17·30에 동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정찰비행대는 8월 17일 大邱기지에 일부 병력을 남겨놓고 永川기지(永川중학)로 이동한 다음 義城—青松—盈德을 연결하는 지역을 정찰하였다. 8월말에 다시 浦項과 永川지구에 대한 적의 공세가 강화되자 정찰비행대는 8월 23일 부득이 永川기지에 파견대를 설치하고 大邱기지로 이동한 후 9월 17일까지 동 기지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永川기지 파견대는 8월 23일부터 동기지에서 정찰작전을 계속 중 적 제15사단이 永川방면에서 강력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자 8월 30일 永川기지를 폐쇄하고 大邱기지로 이동하여 본대와 합세하게 되었다.



<정찰비행 중인 韓國 공군 L-형 항공기>

이 작전기간중 8월 24일 具仙鎭소위가 L-4기로 慶州지구를 정찰 중 적 지상포에 맞아 아군진지에 추락하였으나 具소위는 경상을 입었을 뿐이고 L-4기만 전소되었다.

아군 제1군단 지역인 동해안의 浦項방면에 적 제5사단과 安康, 杷溪방면에 적 제12사단이 공격을 해오게되자 정찰비행대에서는 8월 15일에 아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信소령 지휘하에 L-4기 2대를 파견하여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동 파견대는 慶州에서 아군 제1군단의 작전을 계속지원중 제1군단의 반격개시에 따라 9월 30일에 江陵기지로 전진하게 되었다.

정찰비행대 본부는 大邱기지에서 정찰작전중 9월 1일 07.30경 千泰植중위가 육군포병단(陸軍砲兵團) 소속 申貞鉉중위와 동승하고 多富洞—義興방면을 정찰중 新花洞 부근 상공에서 기종불명(機種不明)의 적 쌍발기(雙發機) 1대와 전투기 2대의 공격을 받고 우익이 절단되면서 기체(機體)가 화염에 싸인 채 추락하여 두 사람은 애기와 함께 산화하였다.

정찰비행대는 8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아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작전지원중에 상실된 연락기(連絡機)를 美8군과 제5공군에서 보충 받았으며 부속품은 파괴된 기체에서 떼어내

어 다시 사용하는등 그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찰비행대는 9월 16일 4대의 L-4연락기를 美軍측에서 인수받음으로써 총 14대가 되었는데 개전당시의 보유대수는 12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정찰비행대의 출격기록

부대별	작전기지	기간	기종별 L-4 정찰	L-4 연락	L-5 정찰	L-5 연락
본대	浦項	8.3~8.13	12	4		
	大邱	8.13~8.17	18	5	4	2
	永川	8.17~8.23	32	6	8	1
	大邱	8.23~9.17	124	57	14	4
파견대	永川	8.23~8.30	28	10	10	5
	大邱	8.17~8.23	19	7		
파견대	慶州	8.15~9.30	85	38		
본대	永川	9.17~9.30	83	103	17	7
계			399	230	53	19

(4) 韓國공군 汝矣島기지로 전진

美 제1해병사단이 9월 22일 汝矣島 기지를 점령하자 大邱기지로 전진하였던 F-51비행부대와 美 제6146 지원부대는 23일에 汝矣島기지로 전진하여 작전에 임하게 된 것은 전항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한편 정찰비행부대도 제1, 제2군단의 추격작전(追擊作戰)을 지원하면서 전진하였다.

즉 제1군단 파견대는 金信소령 지휘하에 9월 30일 慶州에서 三陟을 거쳐 江陵으로 전진하였고 제2군단 파견대도 永川기지를 출발하여 安東을 경유 10월 6일 汝矣島로 이동하였다. 정찰비행대본부는 9월 30일 永川에서 汝矣島기지로 이동함으로써 韓國공군주력은 서울로 복귀한 셈이 되었다.

이리하여 韓國 공군은 지상군의 북진(北進)작전에 호응하여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군본부는 서울로 이동하기에 앞서 9월 24일 韓鎭順중령 지휘하에 20명으로 공군본부 선견대(先遣隊)를 편성하고 동일 大邱를 출발하여 鎭海로 향하였다.

9월 27일 鎭海에서 LST 단양호(丹陽號)편으로 출발하여 29일에 仁川港에 도착한 다음 水登浦에 있는 성남중학교(城南中學校)로 이동하였다가 그뒤 10월 1일에 전 공군본부청사(서울시 會賢洞 전 해군헌병감실)로 복귀하였다.

한편 공군본부 주력(통신기 3대포함)과 비행단의 나머지 병력은 10월 3일부터 육로와 해로로 일주일만에 서울로 이동하고 최종부대인 공군사관학교가 10월 16일에 성남중학교로 이동하였다.

이 당시의 공군의 병력과 항공기 보유수는 다음과 같다.

공 군 병 력 현 황 (1950년도 공군본부인사국소장 병력보고서철 참고)

(1950.10.1현재)

구 분	정규병	환 자	가입대	군 속	징용자	계
공군본부	469		65	42	414	990
비행단	503			2	46	551
정찰비행대	100	2		1	17	120
大邱기지	133				47	180
金海기지	66				17	85
濟州기지	30		20		37	87
병원	91	12		5	9	117
헌병대	425	1			17	443
계	1,817	15	85	50	606	2,573

항 공 기 보 유 수

기종 \ 시기	1950. 6. 25	1950. 9. 23
L — 4	8	12
L — 5	4	2
T — 6	10	7
F — 51	10(7월2일)	6
계	22	27

§참전자의 약력

金 貞 烈

1948. 5.14	육군소위임관
1948. 9.13	항공사령부비행부대참
1949. 2.15	항공사관학교교장
1949.10.1 ~1952.11.30	공군총참모총장
1950. 7. 6~1950. 7.28	(겸)비행단장
1952.12. 1~1953. 4.30	공군사관학교교장
1952.12.12~1953. 8.20	겸 UN군 극동사령부 韓國伸연락장교단
1953. 5. 1~1954.11.19	공군기획참모부장
1953. 8.20~1954. 2.20	겸 임시 합동참모본부 UN군 극동사령부파견

張 德 昌

1948. 5.14	소위임관
1949.10. 1	공군독립기지사령부사령관
1950. 8.28	공군비행단단장
1953. 5. 1	공군본부행정참모부장 겸제1훈련비행단장
1953.12.15	훈련비행단장

金 信

1948. 9.13	소위임관
1950. 8. 1~1951. 7.31	전투비행전대장
1951. 8. 1~1951.11. 9	제101기지 전대전대장
1951.11.10~1952. 6.15	제1전투 비행단부단장 겸제10전투비행전대장
1952. 6.16~1952. 9.30	제1전투비행단 제15교육비행전대장

申 攸 湜

1948. 8.23	소위임관
1951.10.10~1951.12. 1	제101기지전대장
1952.12. 1~1953. 2.15	제30정비보급전대전대장

吳 占 石

1948.10.25	소위임관
1950. 7. 5~1951. 2.13	정찰비행대 비행대장
1951. 2.14~1951. 7.30	정찰비행전대 전대장
1951. 8. 1~1952. 6.15	제2정찰비행전대 전대장
1952. 6.16~1952. 9.30	제1전투비행단 제15전대부전장
1952.10. 1~1953. 2.28	제1전투비행단 제15전대 전대장
1953. 3. 1~1953.10.30	제1훈련비행단 제1훈련비행전대 전대장

나. 美 極東空軍의 활동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중 장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美 극동공군폭격사령관	소 장	오돈넬(Emmett Jr. O'Donnell)
美 제5공군사령관	소 장	파트릿지(Earle E. Partridge)
美 극동공군전투물자수송사령관	소 장	턴너(William H. Tunner)

(1) 폭격사령부의 北韓내 전략폭격

적은 北韓내에 그들의 전쟁수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많은 군수산업시설(軍需産業施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美 공군은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목표록(目標錄)을 갖고 있지 못하여 효율적인 폭격을 단행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제2차 대전중 美 공군에서 사용한 목표록을 기초로하여 목표선정작업에 착수한 나머지 7월 25일에 이르러 95%의 목표가 목표선정위원회(目標選定委員會)에 의해 결정되었고 선정된 목표에 대하여서는 제54정찰부대로 하여금 항공사진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폭격사령부(爆擊司令部)가 선정한 平壤—清津—元山—興南—羅津등 5개 도시와 뒤에 추가한 鎭南浦등의 군수산업도시로 결정을 보게 되었고 이에 부수하여 석유산업지대와 교통요지 및 발전소등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의 기술적인 문제도 토의되어 전략공군사령부(戰略空軍司令部)는 5개도시를 소이탄으로 지역폭격(地域爆擊)을 가하기로 하였고 기타의 산업시설에는 정밀폭격(精密爆擊)을 집중토록 결정하여 폭격사령관 오돈넬(O'Donnell)소장에게 전달하였다.

8월에 접어 들면서 北韓내의 전략폭격은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폭격기전대는 폭격사령부 소속 6개 폭격전대중 고성능 레이다폭격이 가능하였던 3개의 폭격기전대로서 이들 전대는 격일제로 출격하였다.

폭격사령부가 수행한 8월~9월간의 전략폭격작전상황을 목표별로 분리하여 간추려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興南 폭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7월 21일 美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이 폭격사령관 오돈넬(O'Donnell) 소장에게 興南 화학공업지대의 폭격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동 사령부에 의하

여 興南폭격에 관한 계획은 면밀하게 작성되어 7월 31일 드디어 興南 질소화학공장에 대한 최초의 출격이 시작되었다.

난니 에이블(Nannie Able)이라 불리운 이 폭격은 美 제22폭격전대와 美 제92폭격전대가 담당하여 이날 09.45에 이 두개 폭격전대의 B-29중(中)폭격기 47대는 V형 편대(編隊)를 편성하고 興南을 향하여 북상하였다. 이 폭격편대가 興南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목표상공에는 짙은 구름이 덮혀 있었으므로 선두의 폭격대대가 레이다 조준(照準)폭격(APQ-13)을 가하자 삽시간에 공장중심부에서 화염이 솟아 올랐으며 이 화염으로 말미암아 구름의 일부가 벗겨지게 되어 후속 전대는 레이다 조준폭격과 시각(視覺)폭격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집중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폭격으로 興南 질소화학공장은 30%가 전파되고 40%가 피해를 입었다. 다음 날인 8월 1일에도 계속 출격하였는데 이 폭격은 난니 베이커(Nannie Baker)라 불렀다. 이날의 興南 상공은 맑게 개여 있어 제22, 제92 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46대는 놀덴(Norden) 폭격조준기를 사용하여 시각폭격을 할 수가 있었으나 후속 전대만은 시야가 연기와 먼지로 뒤덮혀 있어 목표에 대한 시각폭격이 불가능하여 레이다 조준폭격을 실시하였다. 이 양개의 폭격전대는 이날 興南 질소화학공장에 250kg의 폭탄을 집중 투하하였는데 그 폭음은 興南市를 뒤흔들었으며 5,300m 상공을 비행하던 폭격기에까지 그 진동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단 2회의 출격만으로는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으므로 8월 6일 또다시 출격하기에 이르렀다. 이 3차에 걸친 폭격이 끝나자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단정하기를 亞細亞 최대의 이 화학공장과 화약공장이 더 이상 韓國전쟁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8월 7일 B-29중폭격기전대가 平壤의 조병창과 平壤역을 폭파하였다.

7월 8일에 이미 폭격한 바 있었던 元山폭격은 興南폭격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것이었다. 폭격사령부는 8월중 8일과 9일 및 10일에 걸쳐 元羅線(元山—羅南)과 京元線의 기점인 元山驛과 년간 250,000톤의 석유를 생산하여 北韓에서 사용하는 총량의 93%를 공급하는 조선정유공장(朝鮮精油工場)을 파괴한 것이다.

羅津은 8월 12일에 비로소 폭격이 시작되었다. 羅津을 폭격 목표로 선정하였을 때에 美 국무성은 蘇聯 국경에서 27km거리 이내에 위치한 이곳을 폭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의 여부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즉 羅津을 폭격함으로서 蘇聯이 韓國戰에 참전할 수 있는 구실이 되지는 않을까 주저하였기 때문이다. 美 공군당국이 폭격기승무원들

에게 羅津폭격을 감행할 때에는 시각폭격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목표를 확인한 뒤에 폭격하라고 경고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美 극동공군사령부는 이 전문(電文)을 받았으나 오돈넬(O'Donnell)소장에게는 어떤 영문인지 전달 되지 않고 있었다.

폭격사령부는 8월 12일 레이다 조준폭격방법을 사용하여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날의 폭격에서 B-29중폭격기 전대는 진입 각도의 착오로 말미암아 목표를 이탈하였으나 蘇聯국경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美 공군성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 중장에게 시각폭격이 가능한 조건하에서만 羅津폭격을 실시하도록 또다시 강조하였다. B-29전대는 다시 8월 22일 羅津을 공습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는데 이날은 악천후(惡天候)인 까닭으로 다만 淸津만을 폭격하고 돌아 왔다. 그런데 이 무렵 美 국무성은 羅津폭격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는 9월 1일, 羅津을 폭격금지구역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羅津이 적의 중요한 보급중심지이기는 하지만 羅津을 직접 폭격하지 않드라도 적이 보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도중 어느 지점에서든지 포착하여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8월 28일 폭격사령부는 城津제철소에 326톤의 폭탄을 투하하였고 鎭南浦폭격은 城津폭격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폭격기는 鎭南浦의 알미늄과 다그네슘공장에 284톤의 폭탄을 퍼부어 이를 대파하였다.

虛川수력발전소 폭격은 이보다 앞서 극동공군 목표과(目標課)는 北韓내의 전략목표와 UN군의 북진여부가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략폭격>

8월 23일 극동군 사령부 정보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공군성에 요청하였으나 이렇다할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 극동공군은 만일 北韓을 점령한다면 산업목표를 파괴할 것이나 北韓을 점령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대신 滿州와 시베리아(Siberia)로 송전(送電)하는 수력발전소와 산업원동력을 파괴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워싱턴(Washington) 당국에서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으므로 극동공군사령부 정보처는 9월 21일 北韓 내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폭파해야 한다고 워싱톤(Washington)당국에 건의한 바 있었다.

웨이랜드(Weyland)소장은 폭격사령부로 하여금 北韓내의 수력발전소의 폭격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9월 26일 UN군사령부에서 가졌던 브리핑 석상에서 힉키(Doyle O. Hickey)소장은 UN군이 北韓을 점령할 것과 수력발전소를 폭격할 것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건의한 데 대해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수력발전소를 계획대로 폭격하라는 결정적인 명령을 내림으로서 수력발전소의 폭격문제는 실현단계에 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폭격사령부소속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8대는 熙川 北쪽 10km 지점에 위치한 虛川江 수력발전소를 맹타하여 변전탑과 수압관을 파괴하였는데 이것이 北韓에 대한 최종적인 전략폭격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美 극동공군의 폭격사령부에 의한 北韓 내의 전략폭격은 8월 한달과 9월초순에 이르러 거의 해결을 본 셈이어서 9월 15일 극동공군사령관이 "적은 이미 전쟁수행에 필요한 산업시설을 거의 무력화 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지적하였거니와 虛川江수력발전소가 파괴된 9월 26일에 이르자 합동참모본부는 "北韓내의 중요 군사목표를 더 이상 폭격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고 앞으로 "UN공군은 北韓내의 전술상의 목표를 파괴하는 데에 주력하라."고 지시하게 된 것이었다.

그간 폭격사령부에 의한 전략폭격은 목표탐지와 면밀한 목표분석작업이 선행되어 과대한 전력의 낭비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왔다.

8. 9 양월에 수행한 폭격사령부의 출격기록과 소모된 폭탄의 양은 상고할 수 없으나 7월 13일 元山 폭격이래 10월 31일 까지의 매일 평균 출격회수는 대개 8~9회였고 투하된 폭탄의 총량은 30,136톤으로 계상되었다.

(2) 후방차단 작전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긴박한 전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 극동공군의 주력을 전투지역으로 집중 투입시키고 있었던 2월 중, 적은 서울 이북의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탄약과 보급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항공정찰 보고에 의하면 적은 淸津과 咸興간에는 보급수송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편 新義州—서울과 元山—서울간에서는 파괴된 조차장(操車場)과 교량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7월 22일의 항공사진의 판독 결과에는 서울의 漢江 철교가 보수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 그리고 적은 漢江인도교 옆에 부교(浮橋)를 가설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보급품을 차량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서울과 水原간은 기차로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보를 종합하여 본결과 적은 면밀한 계획하에 대량의 보급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美 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이처럼 적이 다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는 한, UN군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워커(Walker)중장은 7월 24일 극동공군사령부의 목표선정위원회에 현재 지상군 작전의 근접지원에 투입되어 있는 2개의 B-29중폭격기전대를 38선이북의 적 후방차단 작전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7월 26일 극동공군으로 하여금 2개의 B-29중폭격기 전대로서 水原—江陵선 이북의 철도와 교량 및 중요 교통중심지를 폭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극동공군은 처음 平壤—咸興—元山—서울을 주요 목표지역으로 선정하고 北韓에서 전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폭격키로 결정하였으나 北韓내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도로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폭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7월 28일 美 극동공군은 처음으로 적 후방차단 작전에 관한 목표록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재 검토되어 목표의 중요성에 따라 44개(南韓내 13개, 北韓내 31개)의 새로운 목표를 3단계로 구분한 목표록이 다시 작성된 뒤 8월 2일 폭격사령부에 전달 되었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폭격사령부에 대해서는 38선이북의 목표를 폭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8월 3일 美 제5공군은 38선과 37도선간의 목표를 파괴하도록 지시하고 이어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제5공군사령관 파트릿지(Partridge)소장과 폭격사령관 오돈넬(O' Donnell)소장이 상호 협조하여 폭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극동공군의 임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을 고려하고 부여된 임무의 일부를 극동해군에 위임하기 위하여 8월 2일 스트러블(Struble) 제독에게 서울에 있는 전 교량의 파괴임무를 담당하여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은 8월 3일 항공작전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의된 문제는 지상군의 지원작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극동해군이 후방단차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따라서 38선 이남의 목표를 폭격할 때에는 제5공군사령부와 北韓내의 목표를 폭격할 때에는 폭격사령부와 각각 사전 협의를 거쳐 극동공군사령부에 통고한 뒤 작전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석상에서는 해군과 공군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참모들이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저녁 UN군총사령부의 제1빌딩에서는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그의 참모장 알몬드(Almond)소장, 작전참모 라이트(Wright)준장과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 및 웨이랜드(Weyland)소장이 후방차단 작전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때 워커(Walker)중장으로부터 "현재 3개의 열차가 北韓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 많은 열차가 서울 이남에서 전선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 왔으므로 즉석에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에게 서울 이남으로 향한 전 교통망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서울 이북의 수송망을 모조리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개의 중(重)폭격기전대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8월 2일에 수립된 극동공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조이(Joy)제독은 항공모함을 서해안으로 이동시켜 北韓내의 후방목표를 파괴하는 임무에 임하였고 폭격사령부는 서울지구와 38선 이북의 목표를, 제5공군은 서울지구를 제외한 38선 이남의 목표를 각각 폭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3) 폭격사령부의 후방차단

폭격사령부는 8월 2일 극동공군이 작성한 후방차단작전 제1호를 수행키로 결정하였다. 8월 4일 제19폭격전대가 최초로 서울지구에 출격하였고 다음 날인 5일에는 제22및 제92폭격전대가 출격하였다. 이 양차에 걸친 출격에서 서울지구의 수송시설을 중점적으로 파괴하여 버린 다음 이 두 폭격전대는 제98폭격전대와 더불어 8월 7일 平壤으로 출격하여 平壤조차장(操車場)과 조병창(造兵廠)을 폭파하고 8일에는 다시 새로 도착한 제307폭격전대가 平壤驛을 파괴하였으며 10일에는 제22, 제92, 제98폭격전대가 元山조차장과 아울러 정유공장을 폭격하였다. 이 6일간에 걸친 출격으로 인하여 중요한 철로수송의 중심부가 파괴되고 따라서 그곳에 저장되어 있었던 많은 보급품이 소진 되었으므로 폭격사령부는 폭격목표를 교량폭격작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3개의

B-29폭격전대는 교량차단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 되었는데 이 무렵 극동공군 작전참모부장 웨이랜드(Weyland)소장은 극동군사령부의 목표선정위원회로부터 2개의 B-29폭격전대를 사용하여 매일 후방차단목표록에 제시된 목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北韓내의 교량이 대부분 파괴되고 난 뒤였다.

8월 중순경 폭격사령부는 교량폭파작전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운우(雲雨)의 장애로 중단하게 되고 다시 조차장폭격으로 전환하게 되므로서 鎭南浦—吉州—高原—羅津—淸津—新安州—沙里院등지의 조차장을 폭격한 다음 元山과 平壤의 철도수리창을 격파하였다.

이상과 같은 폭격사령부의 후방차단작전은 8월 말까지 계속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폭격사령관 오돈넬(O'Donnell)소장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에게 "8월 2일에 지시한 44개의 교량중 7개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격파하였으며 7개의 교량 역시 크게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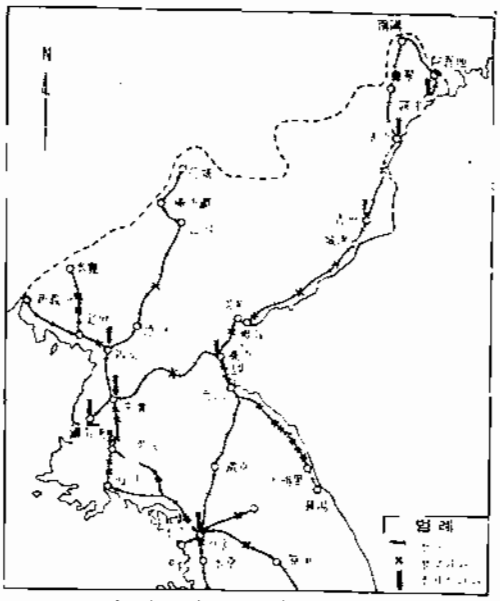
폭격사령부가 수행한 이 후방차단작전중 가장 힘들었던 목표는 漢江의 복선철교(複線鐵橋)였다.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漢江 철교를 탄성교(彈性橋)(Elastic Bridge)라는 별명을 부쳐 불러 왔다. 이 철교의 폭파임무는 1,000kg의 폭탄을 장치할 수 있는 제19폭격전대가 담당하였는데 수차에 걸쳐서 출격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나머지 이 철교를 설계한 日本人으로부터 청사진을 입수하여 가장 취약(脆弱)한 부분을 찾아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격은 파괴된 곳을 곧 보수하거나 판자를 깔아 사용하였으므로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이 철교를 완전히 절단시키기 위하여 제19폭격전대로 하여금 대량의 폭탄을 동시에 집중투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19폭격전대소속 B-29폭격기 9대는 8월 19일 500kg폭탄 54톤을 이 복선철교에 집중투하하였는데 이날 오후에는 해군 함재기도 또한 동 철교를 목표로 출격하여 8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다음날인 8월 20일 제19폭격전대의 폭격기가 재차 출동하여 목표상공에 나타났을 때는 이장간(二張間)이 이미 물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철교의 파괴가 같은 날에 수행한 해, 공군의 폭격중 어느쪽에서 행한 폭격이 결정적이었던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재차의 폭격을 받고 야간에 물속으로 떨어졌으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어떻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이 사실에 대한 양측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제19폭격전대와 해군 항공대에 UN트로피와 현상품인 스카치위스키 한 상자씩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 漢江철교의 절단을 위하여 그동안 폭격사령부가 출격한 회수만하여도 무려 86회에 달하였고 투하된 폭탄량은 643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도 제6호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후방차단작전(50년 9월 3일까지)



여기에서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그간 누차에 걸친 출격을 통하여 폭격사령부의 조종사들이 얻은 산 교훈에 대한 것이다. B-29폭격기승무원들이 교량폭파작전에 사용한 전술은 목표에 대하여 40도각도로 진입하여 각 기(機)가 동시에 4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22 및 제92폭격전대는 정밀조준으로 1회 진입에1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1회의 진입으로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회의 진입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폭격사령부는 1개의 교량을 파괴시키기 위하여는 평균 13.3회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확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콩크리트교량을 폭파하는데는 B-29폭격기가 다량의 250kg GP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과 철교를 파괴시키는 데는 500kg 이상의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상황도 제16호 참조)

(4) 제5공군의 후방차단작전

제5공군사령부는 극동공군이 8월 2일에 부여한 임무에 따라 서울지구를 제외한 38선 이남에서 적의 이동 및 보급수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공군력의 3분의1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美제8군의 전반적인 항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5공군으로서는 8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이 보다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파트릿지(Partridge)소장의 결심은 유동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제5공군은 8월 중순,南으로 향한 47개소의 적 수송망을 파괴하였는데 그 중 9개소는 서울과 大田에 이르는 간선이었으며 나머지는 각 지선상에 있

는 목표였다. 이리하여 8월말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 및 해군항공기가 거둔 성과는 서울과 전선간에 위치한 140개소의 교량과 전선의 직후방에 위치한 93개의 교량을 파괴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간중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의 최대 관심사는 漢江인도교 아래에 가설된 부교(浮橋)의 폭파문제였다. 적은 이 부교를 야간에 설치하였다가 주간에는 철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주간폭격이 불가능 하였다.

이리하여 제5공군사령부에서는 이를 파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B-26폭격기의 야간폭격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임무를 제3폭격전대에 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웨이랜드(Weyland)소장과 파트릿지(Patridge)소장은 이 부교가 가연성(可燃性)인 것으로 판단하고 네이팜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서 폭격전대는 수차에 걸쳐 네이팜탄을 투하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다. 그 뒤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부교는 美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교와 동일하며 부분적으로 강철판을 사용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8월 30일 새벽 제3폭격전대는 B-29폭격기의 조명하에 B-26폭격기로 급강하폭격을 시도하여 B—26폭격기 8대로써 수차에 걸쳐 급강하 하였으나 부교를 발견치 못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동 부교는 제5공군의 숙제로 남은 채 끝내 파괴되지 않았거니와 한때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의 명령에 따라 폭격사령부가 漢江인도교 일대에 시한폭탄(時限爆彈)을 투하하였는데 비록 적에게 많은 심리적 타격을 주기는 하였지만 漢江을 도하하여 계속 전선으로 수송되는 보급의 물결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제5공군에 의하여 서울 이남의 철도와 교량을 파괴함으로서 적의 전차 및 포 등 중장비의 수송에 많은 타격을 주었던 것이나, 韓國의 지형상 漢江 이남의 하천은 비교적 수심이 얕기 때문에 크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고 또한 적은 이러한 하천을 도하할 때에는 차량과 우마차를 사용하였고 파괴된 교량은 인근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야간에 모래가마니와 목재를 사용하여 복구시켰으며 洛東江과 같은 곳에서는 蘇聯식 수중교를 가설하여 공중 정찰을 불가능케 하면서 그들의 보급 수송을 강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포착하여 차단시키려는 제5공군의 노력이 가중되면 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적의 수송방법도 교묘하게 변하였는데 열차수송의 경우만 하드라도 철교가 차단된 지점에서는 인력과 우마차로 운반하여 다음 열차에 옮겨 실었고 주간운행을 회피하여 주간에는

반드시 열차를 터널속에 숨겨 두었다가 야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공중폭격은 항상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제5공군사령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후방차단작전상의 악조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의 새로운 전술을 모색하였으니 그 하나는 무장(武裝)정찰작전이며 다른 또 하나는 야간정찰작전이었다.

제5공군의 작전 및 정보장교들은 8월 초부터 깊어진 적의 보급로에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美 제8군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5공군사령관은 적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F-51전폭기를 근접지원 작전에 전용토록 하는 한편 F-80전투기를 무장정찰에 사용토록 지시하였다.

전투경험을 통하여 F-80전투폭격기는 무장정찰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 항공기는 속력이 빨라 적의 대공화력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적병이 대피하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洛東江전선에서 포로된 적 제13사단참모장 총좌 李學九의 극히 협조적인 진언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李學九의 말을 빌리면 "UN공군은 더 많은 제트 전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제트 전투기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 뿐 아니라 놀랍게도 목표를 쉽게 파괴하였고 또한 피폐군 병사들은 제트기의 폭음만 들어도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8월 초에서부터 실시된 F-80의 무장정찰작전에서는 적의 주간이동 및 후방지구에 쌓아 둔 보급품집적소를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8월 5일에는 제18비행단과 제67전투폭격대대의 1개편대가 咸昌부근의 제방(堤防)에 집결된 부대와 포진지를 폭격하였는데 불행히도 이 작전에서는 편대장 세빌레(Louis J. Sebille)소령이 전사하였다.

어떻던 이상과 같은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무장 정찰작전은 8월 이후 종래 주간을 이용하여 왔던 적의 보급품 수송과 병력이동을 야간행동에만 의존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美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제5공군으로 하여금 야간정찰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5공군은 야간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제2차대전 중 이타리아(Italy) 전선에서 야간폭격임무를 수행하였던 제47폭격전대가 美 본토에서 교리발전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뿐이었다.

제5공군은 적의 야간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7월중에 제68전천후(全天候)전폭대의 F-82전폭기 1개편대(3대)를 사용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다시 8월 6일부터 야간정찰비

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뒤 8월 8일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파트랫지(Partridge)소장에게 B-26, F-52, F-80, F-51전폭기를 동원하여 매일 밤 야간출격의 회수를 50회로 증가 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중 야간폭격에 있어서 제트기는 고정목표를 공격하는 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으나 달빛(月光)을 이용하여 이동목표를 발견하고 공격하기에는 곤란하였고 F-81전폭기는 목표물을 용이하게 포착은 하였으나 고도(高度) 판단이 곤란하고 로케트탄과 기관총을 정확히 발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전술한 美 제47폭격전대의 조종사가 7월 말이래 美 본토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日本으로 이동하여 제3폭격전대에서 야간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파트리지(Partridge)소장은 야간폭격을 중시한 결과 B-26폭격기를 집중하여 사용토록 하는 한편 제3폭격전대의 반수를 주간폭격에서 야간폭격으로 전환시키고 제3 및 제13폭격대대를 격주(隔週)로 야간에도 출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8월 24일경에는 매일 밤 평균 35회의 출격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이 적의 계속되는 야간수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9월 6일 전략공군사령관 반덴버어그(Vandenberg)중장은 제3폭격전대의 전투력을 야간출격으로 전환하고 제452폭격전대는 주간폭격에 사용토록 하였는데 특히 제452폭격전대산하의 제731폭격대대는 일찌기 야간폭격훈련을 받아 왔으므로 이 대대는 전지에 도착하는 즉시 제3폭격전대에 배속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극동공군은 제3폭격전대를 야간폭격전대로 전환시키고 야간폭격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무렵 영국 공군비행단장 바안즈(Peter Wyreham Barnes)가 日本 이와구니(岩國)에 있는 제3폭격전대를 방문하고 제2차대전 당시 유우럽에서 실시한 야간폭격에 관한 경험을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제3폭격전대에서는 그가 제시한 브리티시 마크-3(British Mark-3)폭격조준기를 시험해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무리 달빛이 밝다고 하여도 폭격수(爆擊手)가 적당한 위치에서 조준기를 사용하여 폭격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8월 말부터 제3폭격전대는 B-29폭격기와 협동작전을 시작하였는데 B-29폭격기가 목표상공 약 2,300m고도에서 선회비행 중 고도 약 2,000m에서 발화하도록 장치된 M-26조명탄을 투하하면 제3폭격전대가 곧 폭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약 2주간에 걸쳐 작전을 실시한 결과 미제(美製) M-26조명탄은

50~60%가 불발탄이어서 작전에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9월 30일 오돈넬소장은 M-26 조명탄은 노폐(老廢)하고 경량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 하였다. 그러나 브리티시-1950조명탄은 M-26조명탄에 비해 중량이 무겁고 B-29폭격기에 사용하기 적절하였으며 48개중 6개만이 불발탄이었을 정도여서 이것을 야간폭격에 사용토록 지시하였다.

9월 중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제13폭격대대의 B-26폭격기는 B-29폭격기의 조명하에 이동중인 3대의 열차를 폭파하였었다.



<F-80의 적 후방차단>

어떻던 이상과 같은 전술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극동공군은 후방차단작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면 전력과 장비를 소모시킨 데 비하면 불필요한 낭비가 컸기 때문에 극동공군에서는 새로운 병기를 이용하려는 기술적인 개선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곧 무선조종레이존폭탄(Radio-controlled Razon Bomb)의 사용인 것이다.

美 공군은 8월 초 이 무선조종레이숀폭탄을 오끼나와(沖繩)기지에 수송하였고 8월 23일 최초로 사용해 보았다. 그런데 이폭탄은 종래 B-13폭격기에만 사용하여 왔던 것이기 때문에 B-29폭격기가 사용하기에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8월 23일 제19폭격전대의 B-29폭격기가 大同江철교를 절단하기 위해 출격하여 15개의 무선조종 레이존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중 1개의 폭탄만이 목표에 명중하였다. 그러나 이 출격에서 승무원이 폭탄을 투하하고자 목표상공을 약 40분간이나 비행하는 동안 적의 고사포탄에 맞아 B-29폭격기 1대가 추락하는 불운을 당하게 되었다. 뒤이어 9월 3일 야간에 B-29폭격기가 平壤부근에 위치한 교량을 폭파하기 위하여 무선조종레이존폭탄을

투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개가 명중하여 교량 1개 장간(張間)을 파괴한 전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 무선조종레이존폭탄의 시험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9월 27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출격한 가운데 8회의 시험폭격에서 레이존폭탄 120개를 투하하였는데 42개가 목표에 명중되었고 그 뒤 다시 6회의 시험폭격에서는 108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68개가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제19폭격전대에 의한 무선조종레이존폭탄의 투하는 최초에 폭탄사용의 기술적 문제 및 수신기의 성능불량등 많은 난점이 개재되어 승무원들에게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안아다 주었으나 승무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의 축적과 기술적 향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량폭파작전상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5) 美 극동공군의 반격작전 준비계획

仁川상륙작전의 구상이 더욱 구체화 하게 되자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막료들은 최종적인 결정을 8월 23일까지 완료한다는 기준을 세운 다음 전반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8월 30일 UN군총사령부는 이 작전의 총괄적인 개념을 집약한 작전지시 제1호를 하달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극동공군은 전반적인 항공지원을 제공하고 목표지역을 고립화 시켜 美 제8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강화하키로 규정되어 있었고 또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제187공수연대를 공수하고 화물을 金浦와 水原기지로 공수토록 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8월 30일의 합동계획회의에서는 상륙작전시의 항공지원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해군항공기로 9월 12일 오전과 오후에 仁川에서 240km 이내에 있는 모든 적 비행장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제5공군이 감행하는 비행장 공격에 협조케 할 것이냐의 여부를 공군의 임의에 맡긴다"는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군지원부대가 있는 한 해군항공대가 지상군을 지원하며 美 제10군단이 상륙하면 해병 제1비행단이 지원하고 金浦비행장에 수개의 비행대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이며 해군은 공군의 요청에 따라 金浦에 공수로(空輸路)를 개설하고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은 金浦기지의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병대 항공대를 통제하여 비상시의 상호협조를 위하여 제5공군합동작전본부와 해군전투정보부간에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이 기본적 협약은 8월 31일 제10군단사령부에서 공군지휘관과 협의함으로써 더욱 보완되기에 이르렀다.

제5공군은 공두보(空頭堡)유지와 더불어 전투부대를 목표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였고 따라서 극동공군에서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北쪽에서 서울에 이르는 중요지역을

B-29폭격기로 폭격하기 위한 폭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적의 이동을 차단하는 작전과 병행한다면 서울과 仁川간을 고립시키는데 충분하였다. 다시 美 제10군단에서는 B-29폭격기로 상륙목표지 40km이내의 모든 교량을 폭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극동공군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를 토의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의 차이는 없었다.

이어 9월 2일에는 UN군사령부의 작전계획공군부록(作戰計劃空軍附錄)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1950년 7월 8일에 결정한 항공지원기본협정(航空支援基本協定)의 큰 줄거리인 "美 극동공군사령관은 美 극동군총사령관이 지시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항공기를 지휘 및 작전통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군과 그 밖에 지상기지의 모든 항공기들이 포함되나 해군정찰과 대잠전(對潛戰)등 해군임무의 지원작전은 제외한다"라는 것과 이상의 8월 30일 결정사항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9월 4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공군부록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공식적인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이리하여 웨이랜드(Weyland)소장은 공군부록에 관한 해명이 없는 한 극동공군은 최종작전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9월 10일에 일시(日時)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해명서가 극동공군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의 제의는 仁川상륙작전에 치명적인 것은 못되며 공군부록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지휘관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리하여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실시 중인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해명서가 극동공군에 전달되기 전인 9월 10일 정오, 스트레이트메이어(Statemeyer)중장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에게 韓國내에서의 전체적인 항공작전은 단일 공군지휘관이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군부록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항공작전의 책임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에게 귀속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그의 참모들에게 7월 8일 회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이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항공작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극동공군은 예하부대에 아래와 같은 작전임무를 부여하였다.

"제5공군은 韓國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투지역의 후방차단과 美 제8군의 근접

지원작전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美 제10군단의 지상군지휘관의 요청에 응한다. 金浦와 水原비행장을 개설하고 전투부대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여 金浦—서울지역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파트릿지(Partridge)소장은 東京에 있는 극동공군사령부에서 제5공군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잠시동안 제5공군의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해군과 해병대항공대가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고 제5공군은 방공경계의 강화와 美 제8군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극동공군력을 생각할 때에 6개전투기대대는 日本방위에 5개 대대는 필립핀(Philippine)과 오끼나와(沖繩)를 방위하고 잔여 8개 대대만이 韓國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파트릿지(Partridge)소장은 공군력을 韓國전선에 집중하기 위하여 제5요격(邀擊)비행단을 오끼나와(沖繩)기지에서 韓國이나 혹은 日本 九州로 이동하고 제18전폭비행단의 잔류부대를 韓國에서 작전 중인 제18전폭전대에 합류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또 그는 "존슨(Johnson)기지에 있는 전천후(全天候) 요격기대대(F-82)와 F-80대대만으로 방위할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 모든 전투기대대를 日本과 오끼나와(沖繩)기지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9월 1일 美 제8군의 긴급 항공지원요청이 있었으므로 웨이랜드(Weyland)소장은 日本방공대대(防空大隊)를 韓國전선에 투입하도록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 이다쯔케(板付)기지에 있던 제80전폭기대대(제8비행전대)는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제9전폭대대는 9월 4일 미사와기지를 출발하여 이다쯔케(板付)기지에 있는 제49전대(본대)에 합류하였으며 존슨(Johnson)기지에 있던 제41전폭대대(제35비행전대)는 미사와로 이동한 다음 日本 방공의 기간(基幹)이 되었다.

그리고 제20공군사령관은 제51전투폭격기 비행단의 F-80 1개대대를 제외한 전대대를 파견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대대는 제49전투폭격기전대가 이다쯔케(板付)기지에서 韓國으로 이동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9월 22일 오끼나와(沖繩)의 나하기지에서 이다쯔케(板付)기지로 이동하였고 제16 및 제25비행대대의 조종사들은 2시간 뒤에 韓國으로 출격하였으며 후방지원부대는 9월 25일 선편(船便)으로 이다쯔케(板付)기지로 이동함으로서 제51요격비행단은 이다쯔케(板村)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仁川상륙작전을 수행하고자 폭격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하달하였다.

『상륙목표지역(上陸目標地域)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후방차단작전을 강화하고 北韓내의 전략목표에 대한 폭격을 계속할 것이며 근접지원작전과 사진정찰 및 시각정찰을 포함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심리전을 위한 삐라를 살포하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8월 하순경 오돈넬(O'Donnell)소장은 B-29폭격전대의 폭격목표인 교량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극동공군사령부에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를 받은 극동공군사령부의 작전계획관들은 극동공군작전계획 제2호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폭격사령부가 담당할 56개의 철교와 교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단시간내에 적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적은 1개사단이 1일 50톤의 보급만으로서도 능히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단작전계획은 중공과 소련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적의 이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재보급을 방해하고 전선으로 투입되는 병력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中共軍이 韓國전쟁에 참가하리라는 예측은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은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명백해진 8월도 그 마지막에 접어들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中共은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北韓내의 비행장을 보수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中共軍은 항공기를 滿州 특히 安東의 2개 비행장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으며 8월22일과 24일에는 中共軍의 대공포(對空砲)가 韓滿국경을 정찰중인 RB-29정찰기에 발포하였다. 8월 28일 中共 당국은 美國 항공기가 5회에 걸쳐 滿州를 침범하였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러한 일연의 모든 사태를 관찰하게 된 美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파트릿지(Partridge)소장과 오돈넬(O'Donnell)소장에게 "궁지에 몰린 北傀를 中共이 공군과 지상군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명확해졌다."고 경고하는 한편 적의 공중 공격이 있을 경우 UN공군지휘관의 지휘권의 한계에 있어 UN공군의 조정통제(調整統制)에 관한 원칙이 韓國내에서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월 30일 합동계획회의(合同計劃會議)에 이 문제를 제의하였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죠이(Joy)제독과 스트러블(Struble)제독이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어떻든 이상과 같이하여 UN군 고위당국은 항시 中共등의 개입을 예상해 왔고 나아가

개입되었을 단계에 있어서 대처해야할 사전계획을 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 및 美 제8군의 대표들이 9월 8일 크랩(Crabb) 장군의 사무실에서 항공지원작전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게 되었다.

이 토의석상에서 美 제8군의 대표는 9월 16일 지상군부대의 병력을 집중하여 大邱—金泉—大田선에 주공(主攻)을 두고 공격할 것이며 그 밖의 사단은 전 전선(全前線)에서 적을 전제 공격하는 동시에 美 제8군이 後舘방면에서 진격을 개시할 때에는 포의 사정거리외의 후방지역에 카페트(Carpet)폭격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의 본회의 주요논제는 극동공군이 9월 16일에 B-29폭격기 3개전대를 출격시키고 25일까지 매일 40~50대의 B-29폭격기를 출동하여 美 제8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 공정부대(空挺部隊)의 수송계획 및 전투물자수송사령부의 설치

극동공군은 仁川상륙작전계획에 상응하여 대규모의 공수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美 공군 당국은 제187공정(空挺)연대의 수송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동군사령부로 하여금 제314공수(空輸)전대의 효율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2,700명의 공정부대 수송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14공수전대에 64대의 C-119수송기(이어 공군성에서 32대를 추가하여 314공수전대는 9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편성하고 8월 15일 이후라면 언제라도 작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 다음 공군 당국에 이 뜻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얼마뒤에 美 공군성은 제187공정연대의 수송 병원(兵員)을 추가하여 총 3,500명의 장병과 중장비를 동시에 공수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美 공군 당국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美 공군성이 요청한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군당국은 C-119수송기 140대를 확보하여야만 되었다. 따라서 동 C-119수송기의 확보 임무는 극동공군에 부여되었는데 314수송전대의 보유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96대에 불과하였으므로 부족 기수는 44대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제5공군은 7월 초에 이르러 제21공수대대(제374비행단소속)의 C-47수송기로서 대치시키고 21공수대대의 부족 기수는 제374비행단 소속 C-46수송기 중에서 보충시킨 다음, 8월 26일 이다쯔게(板付)기지에서 제47 및 제48수송대대를 편성완료 하였으며 이 보다 4일 전인 8월 22일 극동공군은 또한 아사야기지에서 제1공수전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극동공군 산하의 공수전대의 증편(增編)은 공수작전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을 가능케하였으므로 맥아더사령관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1일평균 700~1,000톤의 물자를 수송해야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한편 전략공군사령관 반덴버그(Vandenburg)중장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에게 공수작전은 "가능한 가장 적격자가 지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그의 의중(意中)인물인 턴너(William H. Tunner)소장을 추천하여 극동공군으로 전속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털너(Tunner)소장은 제2차대전중 中國군과 美제14공군을 지원하기 위한 험프(Hump) 공수작전(印度—中國昆明)과 伯林공수작전을 지휘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터너(Tunner)소장은 공수작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日本 東京의 극동공군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공수작전 지침등 극동공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한 뒤 우선 C-119수송기 64대를 9월 10일까지 日本에 도착시킨 다음 나머지 32대는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9월 21일까지 도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9월 3일에 정식으로 부임한 턴너(Tunner)소장은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meyer)중장과 공수부대 편성에 관한 협의를 한다음 부대 편성에 착수하여 극동공군예하에 전투물자수송사령부를 아시아기지에 창설하고 제1병력수송전대와 제374병력수송전대를 편입하였다.

전투물자수송사령관 턴너(Tunner)소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전 韓國전선에 걸쳐 공수작전을 통제하고 새로 도착하는 부대를 편입하는 즉시로 공수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그 조직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턴너(Tunner)소장은 긴급한 전선의 병원투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87공정연대의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먼저 87대의 C-119수송기와 40대의 C-47수송기로서 1일동안에 완전 투입하는 방안과 전투물자 수송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全) C-119수송기를 동원하여 2일간에 수행하는 2개의 작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9월 13일에 이르러 전자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 작전계획에 따르는 만반의 준비태세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오직 출동명령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第 22 章

洛東江 東部方面 作戰

第22章 洛東江 東部方面 作戰

要 旨

동부전선의 북괴 제2군단은 최종목표를 釜山에 두고 예하사단의 남침(南侵)을 독전(督戰)하여왔다. 8월 초순 동해안의 북괴 제5사단은 盈德을 거쳐 長沙洞에 위치한 아 제3사단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북괴 제12사단은 杞溪 부근에 출현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병력은 浦項에도 침입하고 있었고 같은 무렵에 유격 독립연대인 북괴 제766부대도 盈德에서 安康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에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자 육군본부는 가용(可用)한 병력을 적의 침입지역에 투입하여 이를 격퇴하려하였으니 곧 8월 10일부로 浦項地區전투사령부가 편성되어 安康 지구의 전투에 참가 하게 되었고 이에 首都사단도 이 지구에 급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美 8군 사령부는 동해안의 공군요지인 迎日 비행장을 방어하고 韓國軍을 도와 남침하는 적을 격퇴하고자 부래드리(Bradley)부대(8.10~8.20), 잭슨(Jackson)부대(8.27~9.7), 처치(Church)부대(9.7~9.15)를 浦項, 慶州 지구에 출동시키고 있었다.

浦項, 安康 지구의 지형은 일반적으로 산악이 많은 편이며 산줄기가 南北으로 뻗어있어(縱隔壁) 공자(攻者)에는 유리하였으나 방자(防者)에게는 불리하였다. 安康에서 浦項까지의 兄山江은 피아 공방전의 방패가 되었으며 그리고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심한 안개는 피아간의 수색활동과 포병의 지원사격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8월 17일 長沙洞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 제3사단은 해상 기동으로써 九龍浦에 상륙하여 새로운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같은 무렵 美 부대는 浦項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며 首都사단은 杞溪를 탈환하였고 이어 飛鳳山쪽으로 적을 추격해 갔다.

8월 20일경부터 동부전선은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재편성(再編成)을 마친 북괴군이 8월 27일경 또다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군의 반격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9월 초 이른바 9월 공세로 나와 首都사단과 제3사단 방어지역에 압력을 가하게되었다.

육군본부는 9월 1일부로 일부 군 지휘관의 경질(更迭)을 단행하여 새로운 지휘체제로써 적의 남침을 막으려하였으니 곧 제1군단장에는 부군단장인 金白一 준장이 기용되었고, 首都사단장에는 前병사령관인 宋堯讚 대령, 그리고 제3사단장에는 중앙훈련소 본부장 李鍾贊 대령을 임명하였다.

9월 3일에 수도사단은 安康 방어진이 돌파당하자 安康 南쪽 지구(慶山 北쪽 지구)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여 적의 남침에 대비하고 있었고 동해안의 제3사단도 浦項 지구에서 [illegible]하고 남안(南岸)에 이동하여 9월 5일부터 兄山江 방어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날 이후 북괴군은 최후 발

악적인 공세를 가해 왔으나 昆季峰 전투(제17연대), 虎鳴里 전투(제1연대), 197高地 전투(제18연대) 등에서 아군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그 이상의 전진은 하지못하고 말았다.

9월 16일에 洛東江 전선에서 총반격에 나선 아군은 최후발악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던 적을 격파하면서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게 되었다. 반격하는 아군은 仁川 상륙작전 성공으로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반면 북괴군은 매일 같이 계속되는 아군의 공격과 공중폭격의 위협 그리고 보급의 악화로 지칠대로 지쳐 이미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있었다.

9월 22일 현재 韓國軍 首都사단은 杞溪를 재탈환하여 道坪 부근으로 진출중에 있었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興海 선에 진출하여 계속 북상하는 기세를 보이게 되었다.

1. 浦項附近戰鬪 (50년 8월 9일부터 / 50년 9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7. (No1. ~2) / 18. (No1. ~2)) 호
상황도 제 17. 18. 19 호
작명부록 제 5. 21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적 1군단 장 소장 金白一
제 1군단 장 군장 金白一(9월 1일부터)
제 3사단 장 준장 金錫源
제 3사단 장 대령 李鍾贊 (9월1일부터)
제22연대 장 중령 金應祚
제 1대대 장 중령 李召東
제 2대대 장 중령 정영록
제 3대대 장 중령 鄭淳琅
제23연대 장 대령 金琮舜
제 1대대 장 소령 金光燮
제 2대대 장 대위 최상준
제 3대대 장 대위 朴鍾采
제26연대 장 중령 李白雨
제26연대 장 대령 李致業(9월 2일부터)
배속부대
제10전대 장 중령 高根弘(9월 6일 원대 복귀)
혈동부대
제 1연대 장 중령 韓 信
閔 부 대 장 대령 閔機植
閔1대대 장 소령 孫官道
閔2대대 장 대위 李昌範
美 부래들리 및 잭슨부대
美 해군부대
美 공군부대
병력 약 12,600명
장 비
81mm 박격포 80문
60mm 박격포 128문
57mm 대전차포 25문
3.5인치 로케트포 47문
2.36인치 로케트포 265문

적 군

제 2군단 장 중장 金武亭
제 5사단 장 소장 馬相哲
제10연대 장 대좌 朴炳秀
제11연대 장 대좌 金奉文
제12연대 장 (미상)
제766부대 장 ? 吳振宇
병력 약 8,500명

장 비		76mm	사단포 20문
122mm	유탄포 12문	76mm	유탄포 6문
120mm	유탄포 12문	45mm	대전차포 24문
82mm	박격포 54문	전차	5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적군의 상황 : 북괴군 제12사단이 8월 1일에 安東에 침입하고 있을 무렵에 동해안을 따라 남침을 계속하고 있던 북괴 제5사단은 盈德 南쪽의 江口 선에서 아 제3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전진이 교착되고 있었다. 북괴 제5사단은 아 제3사단과 접촉한 6월 말 이래 일일 평균 2.3km의 속도로 남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북괴군 사단의 일일 평균 진출 속도 7km에 비하면 3분지 1의 느린 속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북괴 제5사단의 진출 속도가 늦은 까닭은 아 제3사단의 지연작전이 주효(奏效)한 데도 있었지만 美 공군의 근접지원(近接支援)과 美 해군의 함포사격(艦砲射擊) 등으로 큰 위협을 받고서 주로 야간에만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

북괴 제2군단장은 북괴 제5사단의 남진 속도가 너무 늦고 있기 때문에 북괴 제12사단으로 하여금 7월 말 안으로 安東과 浦項을 점령하라고 독전(督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북괴 제12사단이 安東에서 青松, 立岩을 거쳐 韓國軍의 방비가 비교적 미약한 산악지대를 통하여 浦項을 우회 공격하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아 제3사단의 후방을 차단케 하므로써 이를 고립화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북괴 제12사단은 8월 1일 安東을 수중에 넣었지만 그간의 손실로 말미암아 허약체가 되어 있었으나 이른바 安東사단이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安東과 浦項을 목표로 남진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이 보다 앞서 북괴 제2군단장은 북괴 제12사단보다 먼저 북괴 제8사단으로 하여금 浦項선 외곽에 진출시키려고 획하고 있었으나 북괴 제8사단이 8월 7일 義城 부근에서 아 제8사단 제21연대 제1대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1개 대대가 전멸 당한지 되었다. 이때 북괴군은 700여명의 인적 손실을 입었고 이 사단에 배속된 전차 5대와 자주포 다수가 대전차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기갑부대도 美 전폭기의 공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막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괴 제2군단장은 북괴 제8사단에게 최초 목표를 변경시켜 義興, 新寧 지구로 가게하고 북괴 제12사단으로써 安康, 浦項 지역으로 진출토록 한 것이다.

한편 북괴 제5사단은 8월 9일 盈德을 점령하였지만 美 공군의 강타와 美 해군의 함포사격 그리고 我 제3사단의 완강한 반격을 받아 그 이상의 남진은 불가능 상태에 있었다. 이에 반하여 북괴 제12사단은 8월 9일 安東에 진출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그 선봉 부대인 1개 연대 병력이 興海 北쪽 6km 지점에 침입하고 있었다.

8월 11일 未明에 북괴 제12사단의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북괴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이 浦項시가에 침입함으로써 동부전선에는 새로운 사태가 전개 되었다.

아군의 사항 : 8월 초 북괴 제12사단은 安東 東南쪽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杞溪, 安康 지구로 침투하고 있었으며 유격대인 북괴 제766부대는 盈德에서 安康지구를 향해 西南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의 북괴 제5사단은 盈德에서 해안 지대를 따라 계속 남진을 기도하고 있었다.

동해안에서 적의 남하를 힘껏 막아오던 아 제3사단은 盈德 지역에서 南쪽 10km 지점인 長沙洞 일대로 전진(轉進)하여 북괴 제5사단과 대치중에 있었는데 8월 11일 04.00경에 적 일부병력이 浦項에 침입해 옴으로써 이 사단은 후방이 차단되었으며 또한 측면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浦項을 상실하는 것은 浦項 南쪽에 위치 하고 있는 迎日 비행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는것이다. 迎日 비행장은 F—51 전폭기의 출격 기지이며 지상군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美 8군은 부래드리(Bradley) 특수임무 부대를 편성하여 급격히 이 방면에 출동시켜 이 비행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육군본부는 8월 10일부로 浦項地區전투사령부(장, 李正一 대령)를 설치하고 제3사단과 협조밑에 安康, 浦項 부근에 침입한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閑 部隊와 首都사단 일부 병력을 浦項 지구에 출동하여 美 부래드리(Bradley)부대와 협조밑에 이 지구에 침입한 적을 西北쪽으로 격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長沙洞에서 고립 상태에 빠져 있던 아 제3사단은 해상으로 철수하여 九龍浦에 상륙한 다음 首都사단 일부 병력과 협조하여 浦項 지구에 침입한 북괴군을 北쪽으로 추방할려고 새로운 방어 태세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浦項 방어전(8월 10일~11일)

8월 10일 : 이 당시 浦項에는 제3사단의 후방지휘소가 浦項여자중학교에 위치하여 후방지원임무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해군경비부의 본부요원 300여명과 공군 浦項支部隊 1개중대 및 경찰과 청년방위대 약 3,000여명의 병력이 있었다. 그리고 제3사단 후방지휘소에는 首都사단에 종군한 바 있던 학도병(學徒兵) 71명의 비무장(非武裝) 병력이 義城 지구로부터 8월 9일 저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浦項지구 학도병 : 安東전투 당시 首都사단에는 金錫源 준장의 명성을 듣고 모여 든 수백명의 학도병이 종군(從軍)한 바 있었는데 金錫源 준장이 제3사단으로 전임(轉任)하게 되자 이들은 金錫源 준장 휘하에 가서 종군하겠다고 희망하게 되었다. 首都사단에서는 이들 학도병의 무장을 기우고

임의대로 행동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니 학도병 중 희망자 71명은 그들이 선출한 김용섭 중대장의 지휘 밑에 浦項으로 金錫源 준장을 찾아오게된 것인데 제1소대장에는 유명욱(서울培材中), 제2소대장에는 金壹鎭(서울中央大)가 있었다. 제3사단 후방지휘소의 작전처에서는 10일에 迎日 비행장에 있는 美 해병대에 가서 M1소총을 수령하여 이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浦項시의 경비는 경찰대가 외곽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浦項시의 군경부대는 8월 10일까지도 적이 浦項 北쪽에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8월 11일 : 제3사단 후방지휘소의 뒷산에서 04.00경 6발의 적광신호탄이 올라 터짐을 계기로 하여 일제히 울려 나온 다발총성은 浦項시내의 군경과 시민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게 되었다.

후방지휘부에서는 곧 비상(非常)을 걸고 우선 학도병 2개 소대를 지휘소(학교) 외곽에 배치시켜 적에 대비토록 하였다. 날이 새면서 시야가 분명해질 무렵에 학교 정문 앞으로 북괴군의 행군종대(行軍縱隊)가 닥아오는 것이 눈에 띄게 되었다. 북괴군의 행렬이 5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대기하고 있던 학도병들은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다. 불의의 사격을 받게 된 적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약 200명이 쓰러지고 말았는데 잠시 후 흩어졌던 적은 뒷고지에서 증원을 받아 철로를 사이에 두고 다시 사격을 가해 오기 시작하였다. 이



<浦項시가의 모습>

때 북괴군은 학도병들에게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으나 애국애족의 정신에 투철했던 젊은 학도병들은 이를 일언직하(一言直下)에 물리치고 실탄이 소진(消盡)될 때까지 응전하였으니 어찌 화랑의 후예들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실탄이 소모되자 학도병 하나가 실탄창고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실탄과 수류탄 약간을 가져 와 계속 사격하였으나 얼마를 지탱하지 못했고 실탄이 다시 바닥이 나게 되었다. 이 순간 북괴군은 장갑차 5대를 앞 세우고 또 다시 전진하여 왔으며 그 중 2대가 학교정문으로 돌입하면서 기관포를 난사하고 있었으며 적병들은 10m 전방까지 육박하여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다가 오고 있었다. 이제 맨 주먹이된 학도병들은 적의 수류탄을 받아 던지는 혈전(血戰)을 전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근접전에서 학도병은 50~60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아깝게도 학도병도 47명이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었다.

전투는 12.30에 이르도록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미 후방지휘소 본부요원들은 철수한 뒤였고 실탄이 없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학도병들은 현지를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3사단 후방지휘소는 적의 침입이 있자 전투병력이 없는 관계로 우선 군수품 등을 철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병참부에서는 군수품을 대부분 민간선박에 싣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없이 철수할 수 있었으며, 병기부는 보유하고 있던 많은 노획무기를 일부는 땅에 파묻고 나머지는 휴대하여 九龍浦를 향해 후퇴하게 되었다. 이 당시 후방지휘소 감찰참모인 孫昌奎 소령은 兄山橋에서 철수하여 오는 병력들을 수습하여 전투중대를 편성하고 제방에다 배치하여 적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였다.

宋喜慶대위의 구명기 : 제3사단 보급소장이었던 宋喜慶 대위는 다발총성에 놀라깬 후 제차로 보급창고 (피복창고)와 부두 등지를 순찰하고 보급소에 와 보니 정문 안에는적병들이 이미 침입하고 있었다. 宋대위는 이곳을 탈출하여 부두로 나가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고 500m 이상 기어서 부두에 도착하고는 민간 선박에 오르려다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민간인들은 군인 태우면 적들이 우리를 군인으로 인정하고 총질을 할터이지만 건져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건져주자 宋대위는 배 위로 오른 뒤 기절하고 말았다.

배는 타고 있던 자들의 가족들을 태우려고 부근을 맴돌다가 부두에 침입한 적병에게 인치되고 宋대위는 적병에게 발견되어 총살 당하려는 순간 美 전투기가 부두에 기총소사를 가하게 되자 살아나게 되었다. 얼마 후 다시 적병에게 발견되었으나 어느 여인이 "이 사람은 그냥 두어도 살지 못하니 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 두번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九龍浦에 상륙한 그는 그

곳에 와 있는 의무대에 수용되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으니 기구한 운명의 주인 공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그리고 군해포항경비부(사령관, 南相徽 중령)에서는 적의 침입이 있자 즉각 경비부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잔류병을 동원하여 철수준비를 서르게 하였다. (제4절, 해군 육전대의 활동 참조)

이로서 거의 무방비상태였던 浦項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뒤 시내에 침입한 북괴군은 美 해군의 함포사격과 두 공군의 폭격을 피하여 시가 뒷 고지로 불려났고 정찰대만이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다.

(2) 제3사단의 獨石洞 철수전(8월 10일~17일)

長沙洞 이동 : 8월 10일 : 아군 제3사단 지휘부는 8월 9일에 江口橋가 폭파되고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날 오후 長沙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8월 10일에는 북괴군 제5사단의 일부병력이 浦項 北쪽 8km의 興海를 차단함으로써 長沙洞 부근에 위치했던 아 제3사단은 적의 포위망에 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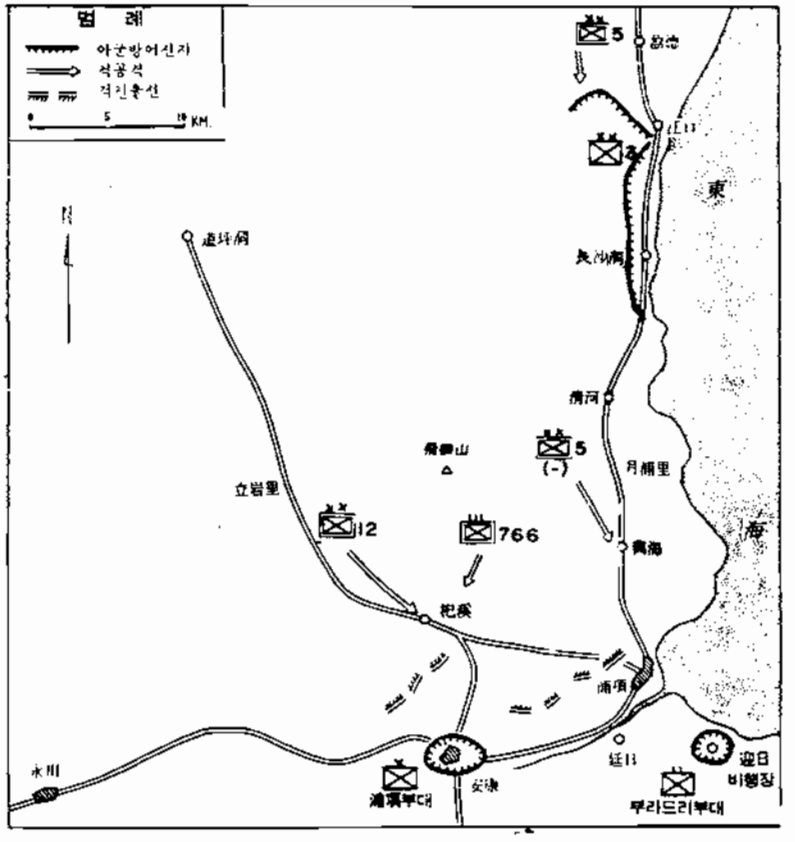
이 보고를 받은 美 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10일에 아 제3사단의 美 고문관인 에메릿지(Emmerich) 중령에게 迎日 비행장에서 만나자고 타전(打電)하였는데 그와 만난 자리에서 워커(Walker)중장은 아 제3사단은 長沙洞을 사수하고 浦項으로 남침하는 적의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에메릿지(Emmerich)중령은 즉시 長沙洞으로 돌아가서 신임 제3사단장 金錫源 준장에게 워커(Walker)중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리하여 제3사단은 江口 南端에서 長沙洞 南쪽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선을 따라서 교두보 진지를 구축하여 적과 맞서게 되었다.

8월 11일~12일 : 11일 아침에 제3사단장은 浦項의 후방지휘소가 기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浦項이 실함(失陷) 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金錫源 준장이 首都사단장직에서 제3사단장으로 부임하려고 8월 7일에 浦項에 위치한 후방지휘소에 들렀을때 적정을 문의한 바 있었다. 이때 모(某)소령이 대답하기를 浦項 西北쪽 12km에 적정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후방 지휘소는 자체방어의 대비책이 없음을 확인한 金 준장은 그대로 江口에 가서 李俊植준장과 8일 사단장직을 교대하였다.

사단장은 참모장인 孔國鎭 중령에게 사용할 예비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즉 그는 답변하기를 예비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단장은 1개 연대와 2개 75미리

상황도 제17호 浦項 방어전 (50.8.10)



포대로 하여금 浦項에 공격을 가할 것을 결심하고 그 명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단장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던 美 고문관인 에메릿지(Emmerich)중령은 참모장한테서 사단장의 의도를 듣고서 즉각 자기 의사(意思)를 내세우기를, 전면의 적을 저지하기도 역부족인데 병력을 빼서 후방으로 전진(轉進)하여 적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無謀)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 때문에 30분동안이나 논란(論難)을 거듭하다가 결국 워커(Walker)중장이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도 있고 해서 사단장은 長沙洞에서 그대로 방어전을 계속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북괴 제5사단은 我 제3사단이 고립되어 전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 사단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때 韓國海은 美 순양함 헤레나(Helena)호와 3척의 구축함 그리고 美 전폭기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전술항공 통제반(戰術航空統制班)과 야포관측상교가 폭격과 사격을 조정하고 있었다. 또한 2대의 헬리콥터가 헤레나호에서 부

상자를 위한 약품(藥品)등을 보급하고 있었다.

적군은 야간을 이용하여 아군 진지에 맹열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진지는 점차적으로 축소되어갔다.

8월 13일~14일 : 제3사단은 13일 06.00에 長沙洞 南쪽의 진지로 병력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날 韓國軍 부상자 313명은 長沙洞 해안에서 해상에 정박 중이던 LST에 이송되었는데 저녁에 이르러 獨石洞 부근의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쳐 선체에 큰 구멍이 생기게되어 부상자들은 파도가 심한 해상에 가설된 도보교를 건너 다른 LST에 바꾸어 타게 되었고 중상자 86명은 수륙양용차량에 실려 부근의 韓國軍 병원선으로 이송되어 釜山으로 급송되었다.

이날 제3사단의 주력부대인 제22연대는 地境里에서 산령동에 이르는 5km 정면을 점령하고 있었고, 제23연대는 618高地에서 291高地를 연하는 선에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그 南쪽에는 독립 제2대대(李召東소령)가 291高地 부근에서 光川里의 능선지대를 점령하였고 제22연대 전방에는 江原 경찰대대가 경계부대의 임무를 띄고 배치되는 등 배수진(背水陣)의 교두보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으나 보급추진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또한 탄약마저 떨어져가 교두보 진지 확보는 차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제3사단장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가 정면에서 적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양 연대에게 지연전을 벌리면서 浦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손실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美 수송기가 포탄과 의약품 등을 투하하였지만 필요한 량의 식량은 보급 되지 않고 있었다.

獨石洞 해상철수 : 8월 15일~16일 : 제8군 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8월 15일 드디어 제3사단의 해상철수를 명령하였다. 16일 아침에 경 비행기가 와서 사단지휘소에 통신통을 투하하고 돌아 갔는데 그 내용은 「오늘밤에 LST를 보낼 터이니 철수 지점과 LST의 기착지점을 알려달라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는 요지였다.

사단장 이하 참모들은 지도를 놓고 철수지점을 검토한 결과 獨石里 해안 부락에서 조사리 사이의 약 1km의 해안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을 선택한 것은 수심과 해안선 상태가 철수 지점으로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었다.

경 비행기가 다시 오게 되어 철수 지점을 알렸드니 "오늘 밤 21.00에 LST 4척이 해안선에 도착하니 필요한 준비를 갖추라"는 회답을 하고 돌아갔다.

사단장은 각 연대장과 참모들을 긴급 소집시켜 해상 철수작전을 설명하고 일체의 기밀 유지를 엄명하고난 다음 철수시의 기도 비익을 위하여 각 대대에서는 1개중대씩 21.00에 적진에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주력을 해안 집결지로 철수하고 최후 엄호중대는 다음날 04.00에 신호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포병과 박격포는 남아있는 포탄으로 요란 사격을 가하고 해안 도로에서는 5~6대의 차량으로써 해안에서 상륙부대가 상륙하는 것처럼 라이트를 켜고서 해안도로를 왕래하여 적의 관단을 흐리게 하였으니 얼마나 세밀한 철수 계획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저녁 이후에 철수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8월 17일 : 이날 06.00에 부상자 125명을 포함하여 사단 병력 9,000여명, 경찰대 1,200명, 지방 공무원과 노무자 및 피난민등 1,000여명이 대기중인 LST에 승선 완료하였으며 모든 차량과 포 등 각종 장비도 남김없이 실었고 심지어 피난민의 송아지까지도 실었다.

한편 적은 아군의 철수작전의 기도를 모르고 있다가 날이 밝아 오면서 LST가 해안 사장(砂場)에 접안(接岸)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이미 3척의 LST는 해안을 떠나고 있었고 마지막 1척은 사단장 이하 참모들이 엄호부대를 수용하느라고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LST 선장(선장 이하 일본인)은 급히 이안(離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참모장 孔鎭鎭 중령은 헌병들을 수영으로 LST에 보내어 선장을 설득한 다음 해안으로 되 돌아오게 하여 극적으로 승선 완료할수 있었다.

철수 작전동안 美 함정들은 함포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하고 있었으며, LST가 해안을 떠날무렵에 함재기가 기총소사를 계속 가하게 되어 적은 감히 해안선에 접근치 못하였다. 마지막 LST가 07.00에 獨石里 해변을 떠나므로써 철수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사단장은 LST가 해안(海岸)을 떠난 즉시로 무전으로 무사히 철수하였음을 육군본부에 보고하였다. LST 선단은 순양함 헬레나(Helena)호와 구축함의 호송(護送)을 받으며 이날 10.30에 迎日灣을 우회하여 목적지인 九龍浦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여 다음 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獨石里 해안에서의 제3사단의 해상 철수 작전은 적전철수(敵前撤收)라는 어려운 점에서 볼 때 제2차세계 대전시의 당케르크(Dunkirk)철수나 일본군의 서태평양(西太平洋) 가달

카날(Guadalcanal)철수와 비교가 안될만큼 성공적인 철수작전이었으며 더우기 한명의 병사도 남기지 않고 철수한 전례(戰例)는 오직 獨石里철수작전 뿐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閔부대의 浦項탈환전(8월 15일~20일)

8월 15일 현재 杞溪와 浦項 지구에 침공하였던 북괴 제12사단 및 제766부대는 浦項地區전투사령부 예하 제25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해군 육전대의 반격으로 일시 北쪽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즉, 북괴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安東 北쪽 3km 지점인 165高地에서 아 제17연대의 반격을 받고 이 지역 東北方 236高地와 "철도 터널高地"로 퇴각하여 安東 지역 北쪽과 浦項으로 이동 중이었다.

육군본부는 8월 15일에 군예비대(軍豫備隊)로 확보중이던 閔 部隊를 永川에서 浦項방면으로 전진케하여 浦項을 탈환하라고 명하였다.

浦項地區전투사령부 : 육군본부 작명116호(작명부록 제5호 참조)에 따라 8월 10일부로 浦項, 杞溪, 安康 일대에서 적의 공격을 막고 격파하기 위하여 상기 사령부가 설치되었는데 사령관에는 李正一 (개명 李成佳)대령이 임명되었다.

지휘하에 든 부대는 제25연대(俞海濬 중령), 제17연대(金熙濟 중령), 제1유격대대(鄭靈소령), 제2유격대대(金龍周 중령), 해군육전대(姜起千 소령)과 경찰부대 및 75mm 곡사포 1개 중대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8월 11일에 大邱에서 새로 편성된 제26연대(李白雨 중령)도 이 사령부의 지휘 밑에 들게되었다.

閔機植부대 : 8월 11일 킨(Kean) 특수임무부대에서 배속 해제된 閔機植 부대, 吳德俊 부대, 李暎奎 부대, 李昌範 부대는 8월 12일에 大邱를 거쳐 慶州에 도착하여 閔機植 부대로 통합흡수되어 육군본부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 편성은 부대장 閔機植 대령, 참모장 李暎奎 중령, 정보참모 朴榮錫 대위, 작전참모 李龍 소령, 제1대대대장 孫官道소령, 제2대대장 李昌範대위, 제3대대(결) 이었다.

閔부대는 15일 永川과 慶州를 거쳐 慶州 東北쪽 12km 지점에 있는 花山里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어 이 부대 제2대대는 터널고지가 있는 兄山江 南쪽의 256高地에, 제1대대는 大覺洞에 이르는 지대에 배치되었다.

8월 16일 : 閔부대는 점령 진지를 보강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東쪽의 迎日비행장에서는 부래드리(Bradley) 특수 임무부대가 비행장과 兄山江 南쪽 언덕에서 적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적정은 8월 11일 浦項에 침입하였던 적군이 같은 날 浦項 시가에서 일단 철수

하였다가 13일에 1개 연대가 다시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북괴 제5사단의 일부 병력도 浦項 北쪽에 진출하고 있다가 8월 15일에는 이 병력이 浦項에 도착하자 북괴 제12사단의 1개 연대도 浦項 西側方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로서 적은 浦項과 安康 사이의 北方지대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花山里에 집결하고 있던 閔 부대는 위와 같은 적정밑에서 浦項을 탈환하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17일 : 閔 부대 제2대대장 李昌範대위는 浦項 시내의 적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14명으로 편성된 정찰대를 피난민으로 가장시켜 주간에 침투시켰는데 이 정찰대가 무사히 귀대하여 보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浦項 시가에는 적병은 없고 무인지대이며 홍해 국민학교 교정에 약 3,000정으로 추산되는 M1소총이 상자 채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8월 18일 : 李 대대장은 이날 미명 단독으로 浦項을 탈환하려고 결심하고서 256高地에 1개 소대를 잔류시키고 나머지 주력을 거느리고 04.00에 兄山江을 건너 도로를 따라 浦項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다.

閔錫植 부대장은 부대를 순찰 중 제2대대 본부에 와보니 대대병력은 없고 고지에 1개소대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의아심을 갖게 되었는데 소대장의 말은 대대장이 대대병력을 이끌고 오늘 날이 밝기 전에 浦項 시내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부대장은 판단하기를 대대장이 전기(戰機)를 포착하여 浦項에 진격해 갔다고 생각하고 즉시로 제1대대를 차량기동으로 제2대대 뒤를 따르게 하였다.

한편 浦項시의 2km 西쪽까지 전진하게된 제2대대는 이곳에서 뒤늦게 가져온 주먹밥을 먹고 잠시동안 쉬고있는데 제1대대 병력이 진출하여 왔다. 부대장은 제2대대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니 곧 제1대대는 浦項 시가를 향해 돌입하고, 제2대대는 시가의 능선지대에 진출하라는 것이었다. 진격 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접적이 없는 가운데 浦項에 돌입할 수있었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제2대대도 능선지대에서 소수의 적을 무찌르면서 시가에 진입하였는데 이때 浦項시가는 폭격과 포격으로 폐허화되어 앙상한 건물 자욱만이 눈에 띄고 있었다.

浦項을 탈환한 閔 부대는 곧이어 北쪽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일로 天馬山을 목표로 전진을 계속하였는데 날이 저물게 되어 里仁洞과 東쪽의 斗湖洞을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는 부근 능선일대에 각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 부대가 공격하고 있는 동안 美 전차

소대가 浦項 北쪽 고지에서 지원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関부대의 左측에는 浦項地區전투사령부 예하의 제26연대가 杞溪 부근에서 221高地를 공격 진출 중이었다.

8월 19일 : 関부대는 배치선에서 적의 정찰대와의 경미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221高地를 공격중이던 제26연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아 제3사단의 해상 철수로 말미암아 북괴 제5사단은 계속 남진하여 興海에 주력을 집결중에 있었으니 이들의 목표는 浦項을 다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임무교대 : 육군본부는 이날 22.00 関부대와 제3사단과의 임무교대를 명하였다(육본작명 제140호 (작명부록 제21호 참조). 이리하여 제3사단은 都邱洞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浦項에 진출한 다음 사단사령부를 浦項에 두고 제23연대가 関부대 배치선에서 진지를 인수하였고 제22연대는 예비대로서 浦項에 잔류하고 있었다.

진지교대를 마친 関부대는 新寧 지구로 전진하게 되었는데 이 동부대는 8월 20일부로 제5연대로 개편됨과 동시에 부대장 関鎭植대령은 육군본부로 전출되었고 참모장이던 李映奎 중령이 연대장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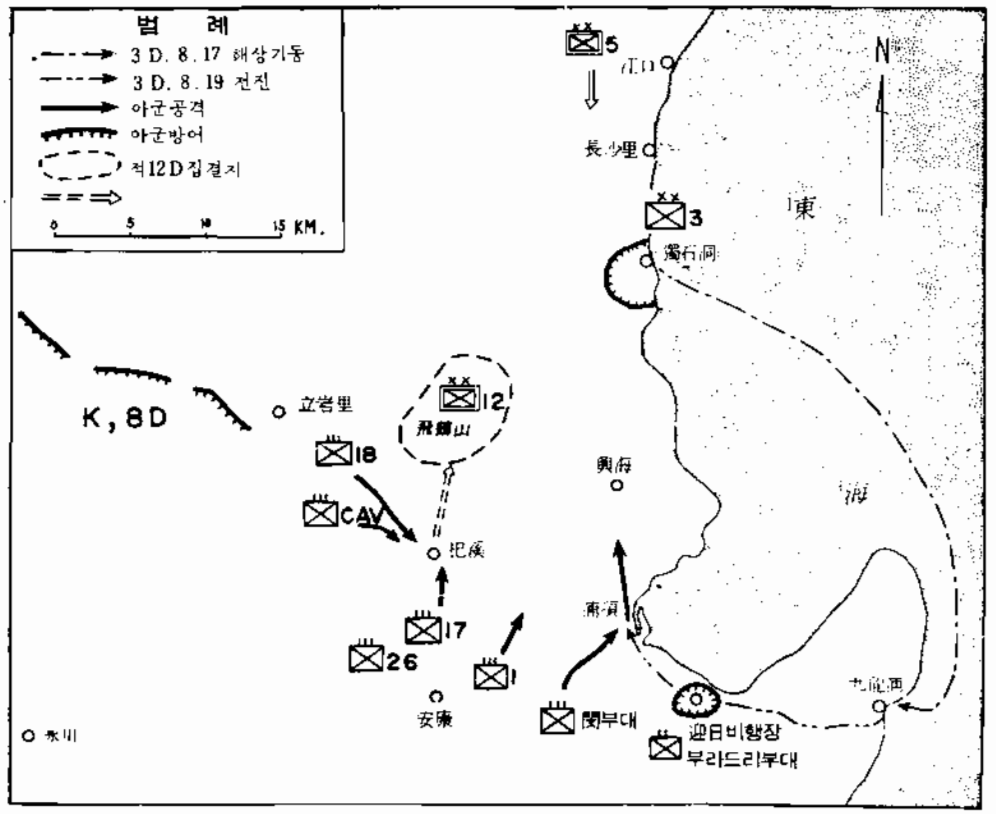
(4) 제3사단의 浦項부근 격전(8월 17일~9월 5일)

8월 17일~18일 : 제3사단의 해상 철수작전은 8월 17일 10.30에 九龍浦에 상륙 완료함으로써 성공리에 끝을 맺게 되었다. 이날 제3사단은 독립 제2대대를 제22연대에 편입시키는 등 부대 재편성과 부대정비에 분망하고 있었다. 18일에 제23연대는 九龍浦로 출발하여 11.00에 都邱洞에 진출한 뒤 자체 경계에 임하게 되었으며 釜山에서 새로 도착한 신병 500명과 영등포학원(永登浦學院) 소속 사병 394명 및 상교 25명의 보충을 받아 부대병력을 보강하였다. 제23연대에 뒤이어 제22연대와 사단 사령부도 都邱洞 일대에 집결하여 계속 부대 정비에 임하게 되었다.

浦項北方 전투 : **8월 19일~20일** : 제3사단은 浦項 北쪽에서 작전하다가 新寧 지구로 이동하게 된 関부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20일 새벽에 제23연대 제1대대(金尤榮 소령)와 제3대대(朴鍾秉 대위)는 행동하기 시작하여 약 2km 北쪽인 冶炭洞과 長興里를 잇는 선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221高地를 확보하고 정면의 적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진출은 많지 않았다.

8월 21일 : 제23연대는 天馬山(△96) 일대에 침입한 적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무찌르

상황도 제18호 浦項부근 전투(50. 8. 17~8. 19)



려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또한 221高地를 확보하고 있던 제26연대도 계속 진출하여 295高地를 탈취한 다음 泉谷寺가 있는 385高地를 향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예비대로 있던 제22연대는 06.00에 행동을 시작하고 사단의 중앙부로 전진하여 제1대대는 鶴泉洞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128高地를 확보하여 적을 北쪽으로 격퇴하고 있었다.

8월 22일 : 제23연대는 21일에 이어 天馬山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385高地에서 적 약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을 격파하고 계속하여 右측에서 공격 중인 제22연대 정면의 적을 측방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날 제1군단에서는 제3사단의 반격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현 진출선을 주저항선으로 확보하라고 사단장에게 명하는 동시 방어진지를 구축토록 하였다.

8월 23일 : 제3사단은 접적선에서 적과 공방전을 전개하여 현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적은 야암(夜暗)을 이용하여 제23연대의 天馬山 고지에 공격을 가하여 왔는데 피아간 격전 끝에 24.00에 제1대대는 天馬山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제22연대는 187高高와 興海 南쪽 1km 지점의 능선을 각각 점령한 다음 일부 병력이 興海에 돌입하였으나 어두워지면서 적이 반격을 가해 왔으므로 원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제26연대는 385地高 전방 2km 지점까지 전진하여 제22연대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8월 24일 : 제23연대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天馬山을 탈환하려고 하루 종일 적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22연대는 03.50에 제26연대와의 연결 지점에 적이 침투하여 와서 제1대대 진지가 돌파 당하게 되었으나 과감한 역습으로 침입해온 적을 격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일부 병력이 아군 후방에 계속 침투해 왔으므로 제22연대 제1대대는 草谷洞 후방 능선으로 이동하여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다. 제26연대도 이날밤에 385高地 左右 능선으로 이동하여 적의 남하를 막아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세가 아군에 불리해지자 제1군단장은 그 원인이 전투정면의 광대함에 있다고 판단하고 首都사단과 제3사단의 전투 지경선을 조정하는 동시에 首都사단 제1연대 병



<작전회의 중인 金錫源군장>

력을 제26연대 左측에 진출시켜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8월 25일 : 각대는 제1군단에서 하달된 명령에 따라서 전선을 정리하면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22연대 제1대대는 어제의 섬육전(肉搏戰)을 벌이고자 12명으로 편성한 특공대를 조직하여 24일에 적이 점령한 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케 하였다. 특공대원들은 배낭에다 수류탄을 지고가서 적진을 향해 힘차게 던지면서 돌진하였고 그 뒤에는 제1대대장이 대대병력을 거느리고 특공대의 뒤를 따라 돌격하여 드디어 적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특공대원 8명이 장렬한 전사를 하게된 것은 애석타 아니할 수 없다.

8월 26일~27일 : 06.00에 제26연대 정면의 泉谷寺 左쪽 1km 지점에 적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이 나타나게 되어 제26연대 제3대대 일부 병력은 이들과 교전하였으며, 제22연대의 각 대대도 적 1개 연대 규모의 병력과 대치하고 있었다.

적은 수일간에 걸쳐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8월 27일 새벽에 제26, 제22, 제23연대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에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공격해 온 적을 진전(陣前)에서 힘을 다하여 막아내고 있었으나 左측 산악지대를 담당한 제26연대 방어선이 적에게 돌파 당하게 되었다. 이 부근의 적은 계속 남하하여 그 선봉이 295高地에 도달되었으므로 제26연대는 兄山江 北쪽의 孝子洞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 중이었다.

적이 사단의 左측전선을 돌파하게 되자 중앙부대인 제22연대는 배후로 진출한 적의 압력을 받아 128高地(연대지휘소)선으로 이동하였고, 제23연대도 天馬山을 재확보 못한채 斗湖洞 北쪽 1km 선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제26연대 진지가 돌파당하게 되자 제1연대로 하여금 돌파구를 막게하는 동시에 제1연대와 제22연대의 간격을 연결하려고 제1군단에 배속된 제8연대 제1대대를 16.00에 白明洞 北쪽에 투입시켰다.

8월 28일 :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27일의 배치선에서 남하하는 적을 저지 중이었으며 西측의 제1연대도 적의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완강하게 그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또한 제3사단에 배속된 제8연대에 제1대대는 白明洞 北쪽의 145高地에서 적 1개중대 규모의 병력과 교전 중이었으나 06.00에 적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오자 전세는 극히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제3사단장은 孝子洞에 집결 중인 제26연대

1개 대대를 鶴泉洞 右측 능선에 진출시켜 右측의 제8연대 제1대대와 협동하여 적의 남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제1군단장은 이날 13.00에 적의 白明洞 부근으로의 진출로 인하여 생긴 首都사단 제1연대와 제3사단의 간격을 연결하기 위하여 제8연대 제1대대를 松鶴洞까지 진출시키고 연락장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였다.

8월 29일 : 제1군단은 09.00를 기하여 美 공군의 근접지원과 포병, 그리고 전차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정면의 적을 강타하였다. 이때 적은 막대한 손실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다.

8월 30일 : 제3사단 전면의 적은 29일에 계속하여 최후 발악적인 돌파를 시도해 왔으나 아군은 이를 격퇴하고 현 전선을 확보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23.00 수 미상의 적 전차가 冷泉洞에서 浦項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서 남하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가의 논두렁에는 鄭祥萬 중위가 지휘하는 제23연대 수색 소대가 매복하고 있었는데 선두 전차가 접근해오자 3.5인치 로케트 포탄을 퍼부으니 동체에 로케트 포탄을 맞은 전차는 삽시간에 불꽃에 싸여 北쪽으로 도주하려고 방향 회전하다가 뒤따르던 자주포 1대와 충돌하여 논에 빠지고 말았다. 전차병들은 야암을 이용하여 모두 탈주한 것 같았으며, 후속하던 전차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멀어 공격할 수 없었다. 날이 밝자 논에 빠진 전차 등은 수색 소대장 지휘밑에 파괴시켜 그 동안의 울분을 겨우 가라 앉힐 수 있었다.

8월 31일 : 제1군단장은 현 주저항선에서 반격준비를 하려고 제8사단의 제10연대(高根弘 중령)를 제3사단에 배속하여 孝子洞에서 공격준비를 시켰으며 전투력을 상실한 제26연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 편성을 명하였다.

이날 美 항공모함 시시리(Sicily)호에서 함재기가 38회나 출격하여 적진을 강타하였다. 이무렵 적병들은 폭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복 위에 민간에서 약탈한 흰바지 저고리를 끼어 입고서 민간인으로 가장하는 등 연명하고자 급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29일~30일 양일간에 걸쳐 美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은 적의 보급소이며 집결지인 興海 일대에 5인치 포탄 1,500발을 발사하여 쑥밭을 만드는 등 대타격을 입혔다. 이와같은 공중과 해상에서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적 제5사단은 끈덕지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마치 죽엄에 뛰어드는 불나비와도 같았다.

터널高地 봉쇄점 격파 : 제1군단 부군단장(金白一 준장, 9월 1일부로 제1군단장)은 8월 31일

浦項에 있는 제3사단 지휘부를 방문하였는데 지휘부에 도착하고 얼마 안되어 그가 통과한 兄江里의 터널 高地가 적에게 점령되어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부군단장은 와병 중인 제3사단장을 위문한 자리에서 터널高地의 적을 격파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결국 제23연대에서 2개중대를 차출하여 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朴鍾圭 대위가 지휘하는 공격부대는 105mm 곡사포 1문과 장갑차 1대를 배속 받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현장에 도달하였을 때는 이미 美軍 전차대가 적을 격퇴시키고 말았기 때문에 이 부대는 安康橋까지 진출하여 보급로를 개통한 다음 원대로 복귀하기에 이르렀다.

반격과 사단장 교대 : 9월 1일:제3사단은 9월 1일 미명을 기하여 사단 정면에서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곧 제23연대는 長興里와 忠谷洞의 99高地를 향해 전진하였으며, 제22연대는 128高地를 공격하고, 제1연대는 295高地를 점령한 다음, 泉谷寺로 계속 전진해 나갔다. 그리고 제10연대는 제1연대 右측에서 제1연대와 더불어 전진하였으며 제8연대 제1대대는 白明洞과 遠田洞에 침투한 적을 공격 중이었다. 이와 같은 아군의 맹렬한 공격에 대하여 적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였으며 전세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날 제3사단장이 경질(更迭)되어 金錫源 준장 후임으로 李鍾贊 대령이 부임하였다. 그리고 전임 제3사단 참모장 孔國鎭 중령이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신임 사단장은 丁來赫 중령을 참모장으로 기용(起用)하게 되었다.

적의 공세 : 9월 2일 : 적은 9월 1일 아군의 반격에 조심성 있는 저항을 하고 있다가 9월 2일 03.00에 돌연히 전면 공세(全面攻勢)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제23연대는 99 高地를 빼앗기고 제22연대도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제10연대는 162 高地 左측에서 松鶴洞에 제1연대는 221高地에서 145高地로 이동하여 새로운 지선을 편성하고 적에 대항하게 되었다.

한편 美 제21연대 제3대대는 99高地에서 물러나서 반격중인 제23연대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K중대를 출동시켰는데 이 중대는 1개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浦項에서 興海로 가는 계곡을 따라 전진하게 되었다. K중대는 99高地에 이르러 韓國軍을 지원하였으나 진전도 없이 사상자만 내게되어 중대원은 35명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 공격전에서 적은 수류탄으로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방망이 수류탄 3개를 손까락사이에 끼고서 한꺼번에 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니 이러한 수법은 中共軍이 특기로 하는 것이며

북괴 제5사단이 國·共戰에 참가하여 습득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지원하던 美 전차 2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는 등 지원 나온 美軍의 손실이 적지 않았다.

9월 3일 : 중앙 배치부대인 제22연대 정면의 右측방 105高地에서는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03.00에 이 고지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고지는 적이 浦項으로 진입하는 어귀의 중요 감제고지였던 것이다.

제22연대 제1대대는 위에서 말한 105高地를 탈환하기 위하여 주간 공격을 가하였으나 적이 수류탄전으로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은 각 중대에서 고병(古兵)들만으로 1개 소대를 편성하여 수류탄 5~6발씩을 휴대시켜 특공(特攻)을 감행케 하였다.

특공대원들은 최후까지 저항하던 적을 수류탄전으로 격파하고 105高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야간에 이르러 이 고지는 적의 역습을 받아 다시 빼앗기고 말았으며 제22연대에는 浦項 시가의 뒷 능선지대로 진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날 左측 제10연대에서는 제2대대가 145高地에서 남하하는 적을 막아내고 있었고 제1대대와 제3대대는 鶴田洞 右측 능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제23연대는 3일의 방어선에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그런데 左측의 首都사단 정면이 이날 미명에 적의 전면적 공격을 받고 돌파되었으므로 사단 左측방 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곳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제7사단의 제3연대를 慶州에 이동시켜 제1군단에 배속시켰다.

9월 4일 : 제3사단은 左측방이 노출된 채 전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首都사단과는 거의 3km에 달한 간격이 생기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右측의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여전히 진지를 확보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야간에 이르러 首都사단의 방어선이 또 다시 돌파 당했으므로 제3사단은 兄山江 이북에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제3사단의 兄山江 방어진으로의 이동 : 9월 5일 : 북괴 제5사단은 인접 사단과 호응하여 9월 5일에 제3사단 방어진지에 일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11.00에 5대의 自走砲를 선두로 하여 제22사단 정면에 공격해 왔다. 이때 이곳에 배치된 美 전차가 적의 자주포 1대를 파괴시키고 전차병 3명을 사살하자 후속하던 적의 보병들은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 때마침 상공에 나타난 美 전폭기 편대는 퇴각하는 적을 발견하여 로케트탄으로 적 전차

4대를 파괴시키는 등 적의 남침을 힘껏 막아내고 있었다.

제3사단 방어선은 정오경 이이상 지탱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으나 사단장은 현진지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그는 이미 포병대대를 兒山江 南쪽으로 이동시켜 철수부대를 엄호하도록 제반 조치를 하고 있었다.

제3사단장의 방어개념 : 9월 1일부로 제3사단장에 부임한 李鍾贊 대령은 L-5 기상에서 杞溪와 安康 그리고 浦項 일대의 지형을 정찰한 결과 浦項 지구는 지형이 종격실(縱隔室)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바 있다. 3일 未明 좌일선(左一線)인 首都사단의 경면이 돌파당하고 제3사단이 浦項 일대에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자 사단장은 제3사단이 어떻게 철수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상연구(圖上硏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案)을 구상하였다. 즉 九龍半島가 남서바늘처럼 浦項灣으로 돌출하고 있기 때문에 迎日 비행장을 포함하여 中興洞에서 九龍浦에 이르는 도로 以東쪽을 고수 방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고수방어(固守防禦) 계획은 해·공군의 지원이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九龍浦에 美 LST 한척이 정박중임으로 해상철수가 가능하며, 또한 사단에는 26척의 어선을 보급선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사단장은 참모들에게 고수방어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침을 주게 되었다.

이날 14.30에 사단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단장은 드디어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철수는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兒山江 이남으로 견너서 제10연대(左측), 제23연대(右측)로 하여금 兒山江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이 사단의 주력부대가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하자 제22연대도 마지막으로 철수하여 제23연대 후방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지휘소는 迎日 비행장 西南쪽 3km 지점인 中興洞에 선치하기에 이르렀다.

(5) 兒山江 방어전(9월 6일~13일)

兒山江은 慶州郡 西面에서 발원(發源)하여 慶州를 거쳐 浦項 南쪽의 迎日灣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강의 길이는 62km에 달하고 있고, 강의 하류에는 지구(地溝)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쌀, 보리, 콩 등 농산물을 산출하고 있다. 강의 하류인 하구(河口)는 폭이 400m인데 兒山橋 부근은 200m, 터널高地 부근은 100m 정도이다. 강의 양쪽에는 제방이 있는데 양 제방과의 거리는 400m로서 유수면(流水面)이 아닌곳은 모래 밭이다. 평상시의 수위(水位)는 0.88m이며 도섭(徒涉)이 가능하고 강우시에는 최고 수위가 3m 이상이나 되며 하류의 평균수위는 1.62m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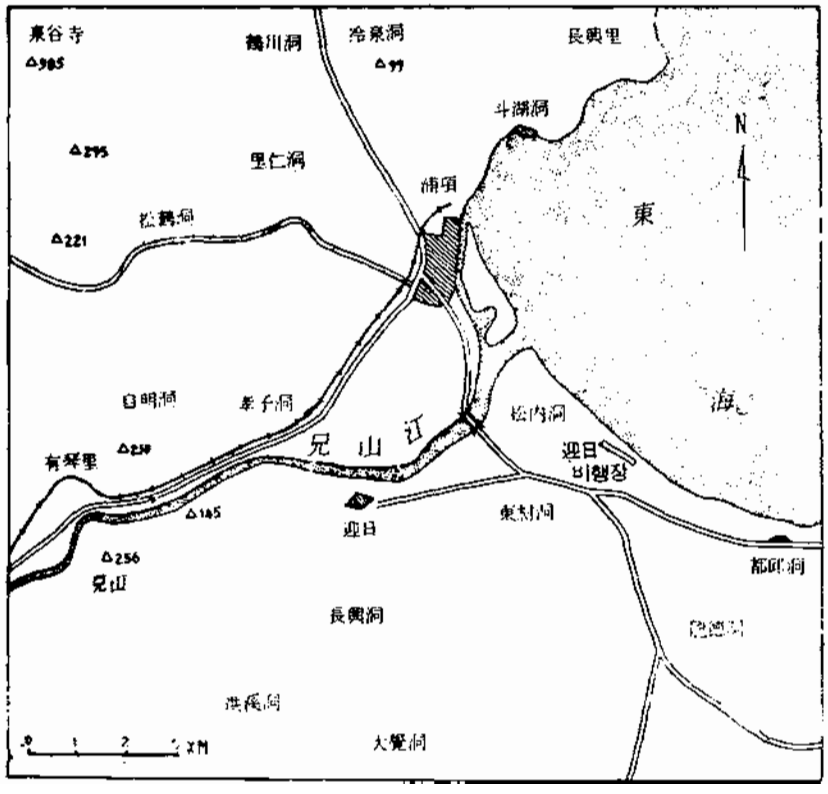
9월 6일 : 제3사단장은 제1군단으로부터 제10연대를 원대인 제8사단으로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3사단에서는 제10연대가 兄山高地(△256)에서 院洞里에 이르는 좌일선(左一線)에서 적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복귀시킬수 없는 형세에 있었다. 그래서 예비대를 집결하여 재편성 중인 제22연대를 일몰 뒤에 이동시켜 부대교대를 마친 다음 7일에 제10연대를 복귀토록 하겠다고 군단에 건의하였다.

한편 제10연대장은 원대 복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3사단장에게 즉각 복귀하겠다고 하였으나 제3사단장은 부대교대시까지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하게 되었다.

제10연대는 이날 저녁에 제22연대가 교대하려고 부대이동을 하는 동안 미리 철수하고 말았으니 강 건너 있던 적은 제10연대의 뒤를 이어서 침투하여 소수 병력이 洪溪洞에 이르는 산악지대로 남침하게 되었다.

9월 7일 : 이날 사단장은 제23연대로 하여금 제10연대의 지역을 담당시키고 제22연대를 迎日에서 兄山橋까지를, 그리고 이날 제26연대의 1개 대대가 배속되어 兄山橋를 중심으로

상황도 제19호 浦項부근 약도



하여 우일선(右一線)에 배치하였다(9월 9일 나머지 2개 대대 도착). 같은 날 洪溪洞에 침투한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中興洞 부근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사단장은 사단지휘소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날 밤중에 은밀히 都邱洞으로 이동하여 都邱국민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9월 8일~9일 : 적의 일부병력은 雲梯山 부근에 까지 침투하여 浦項 南쪽을 차단하려 하였음으로 제3사단 제23연대와 제22연대는 적의 야욕을 분쇄하고 축차적으로 적을 격퇴하여 침투한 적 병력을 兒山洞 北쪽으로 몰아 내려 하였다.

9월 10일 : 제22연대는 大鳳洞 西쪽의 107高地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제3사단 공병대대는 보병 전투를 하여 제22연대 공격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9월 11일 : 처치 특수 임무부대가 이곳에 급파되어 적의 근거지인 雲梯山 일대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 부대 소속 美19연대 제2대대는 격전을 벌이면서 12일 12.00경 雲梯山을 점령하고 말았으니 이에 따라 분산된 적병은 北쪽으로 퇴각하게 되었다.

9월 12일 : 浦項 지구에서의 적은 공세의 기운이 꺾기고 패잔 병력을 모아 재편성하는데 힘을 기우리고 있었다. 한편 항공 관측보고에 의하면 많은 적병이 北쪽과 東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6) 浦項지구 반격전(9월 14일~22일)

북괴 제5사단은 雲梯山 방면에서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되자 그 이상 싸울 기력을 상실하고 北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아 제3사단은 일거에 兒山洞을 건너 北쪽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해 나가게 되었다.

9월 14일 이날 현재 제26연대는 靑林洞 일대에 배치하고 있었고 제22연대는 射亭里 부근에서 패적(敗敵)을 공격하였으며 제23연대는 南城洞에서 生昌洞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9월 15일 : 제26연대는 龍德洞에 집결하여 3개 대대 편성을 마침다음 機東洞에 있는 적을 격퇴하는 한편 兒山橋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반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 공병대대는 日月洞에 집결하고는 제23연대 정면에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며 포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포대씩 백속하여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9월 16일 : 제3사단장은 일제 총반격전 계획에 따라 사단작명 제38호로서 예하 각 연대

의 전투 지경선을 설치하고 각부대를 兄山江 남안(南岸)에 배치하였다.

제3사단 작명 제38호(50. 9. 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23연대는 명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 개시 孝子洞 부근으로 진출하라.

2. 제22연대는 9월 17일 09.00까지 長興洞에 집결 제23연대가 孝子洞부근에 도착 후 제23연대 후방으로부터 도하하여 제23연대 右익에 전개. 당면의 적을 공격하라.

3. 제26연대는 제22연대가 浦項과 龍興신에 진출후 兄山江을 건너 浦項 경유 진출하여 당면의 적을 공격하라. 제26연대장은 浦項 진출시 1개 대대 병력으로써 사단예비대로 하라

이날 제26연대는 靑林洞에, 제23연대는 南城洞에 각각 배치하고 兄山江 대안(對岸)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날 9월 14일 밤에 孝子洞까지 진출하였던 제23연대 특공대 1개 소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원대로 복귀한 바 있었다.

제26연대는 적이 최후발악으로 사수하려는 兄山橋 전방의 적 진지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23연대 정면의 적은 兄山江 북안(北岸) 제방 일대에 횡단 교통로를 구축하여 약 1개 내지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써 강력한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탄막으로 아군의 도하 작전을 방해하고 있었고 제방 후방 고지 일대에는 약 1개 연대로 추산되는 적의 주력이 전선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날 浦項 근해(近海)에는 전함 미조리(Missouri)호를 포함한 美 해군 기동함대가 출동하여 지상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조리(Missouri)호는 16인치 함포로써 900톤의 포탄을 兄山江 北쪽 제방을 연한 적 진지를 강타하는 등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었다. 美 해군에 의한 화력지원은 17일과 18일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9월 17일 : 左측 부대인 제23연대는 사단 작명 제38호에 따라서 A목표(孝子洞 부근)을 지향하여 10.00에 총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과 후방고지로부터의 집중사격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18.00에 원 위치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제23연대가 목표를 점령한 다음 전진하여 右측에 전개하려던 제22연대는 전진을 못하고 현 진지에서 대기 상태에 있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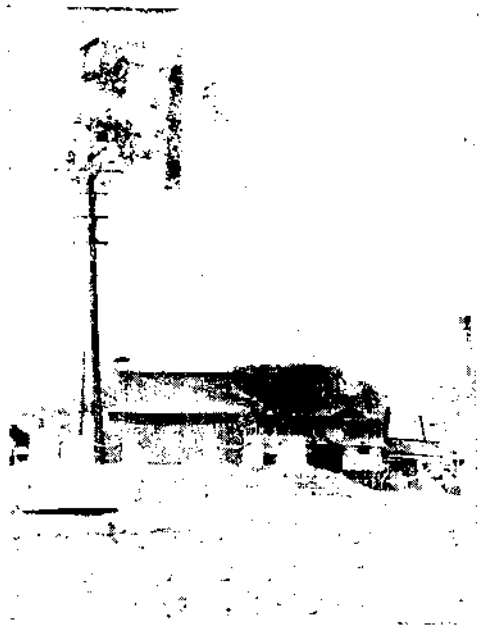
9월 18일 : 제3사단은 17일의 도하작전이 진전 못함을 만회하기 위하여 04.00를 기해 제23연대를 도하시켜 孝子洞에 대한 공격을 감행시켜 이를 점령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23연대는 04.00에 은밀히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적의 집중사격

으로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으나 전진을 계속하여 12.00경에 제1대대 제1,3중대와 제3대대 제9중대가 도하에 성공하여 孝子洞 전방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18.00경에는 제3대대 제11중대도 도하하여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제22연대는 일부병력이 미명에 도하를 시작하였고 16.00 이후에는 연대 주력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兒山橋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제26연대는 06.00부터 도하하기 시작하였는데 兒山橋 北측의 적이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을 던지면서 아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은 손실만 내고 전진은 부진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연대는 1개소대병력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있는 兒山橋를 건너 육박시켰다. 특공대는 이 다리에서 과반수가 적의 사격으로 장엄한 전사를 하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돌진하여 드디어 교량 북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제2대대 병력이 18.00에 완전히 도하에 성공하여 北쪽 제방(堤防)을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때 적의 진지에는 발을 기관총에 묶인채 죽어있는 적 기관총 사수들이 무수히 있었으며 많은 수류탄이 진지 내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적의 비인도적인 전법(戰法)이 가증(可憎)스럽기만 하였다.

9월 19일~20일 : 사단은 공격 계획의 변동없이 도하를 완료한 부대로서 전면 고지 일대의 적진지를 일거에 돌파하려 하였다.



<浦項지구 전적비(慶北浦項市龍興洞소재)>

제23연대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孝子洞 西측 고지에서 완강히 저항을 기도하는 적과 육박전을 전개하면서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었으며 제22연대는 이날 미명에 兒山江 도하를 완료하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孝子洞 東측에서 浦項을 향해 진격하였다. 右측 부대인 제26연대는 松內洞을 기점으로 浦項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오후에 소규모의 적의 저항을 무찌르고 제22연대와 협조하여 浦項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어 20일에는 부대정비를 하고 있었다.

9월 21일~22일 : 浦項에서 물러선 적은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北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니 우일선(右一線)부대인 제26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패주하는 적을 추격해갔으며, 중앙 제대인 제22연대는 저항을 시도하면서 패주하는 적을 쫓아 22일 06.00에 興海에 돌입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제23연대는 達田洞을 거쳐 295高地를 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北쪽으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전진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반격명령이 하달된 다음 1주일째인 9월 22일 현재 적은 전면적 후퇴를 시작하였고 제3사단 각 연대는 8월 하순이래 북괴 제5사단 사단본부가 위치했던 興海선에 진출하였다. 반격하는 제3사단의 사기(士氣)는 충천한 반면 적은 전투능력 및 사기가 완전히 상실되어 동해안 혹은 일부 산악지대를 타고 패주하기에 급급하였다. 야 제3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일로 38선을 향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게 되었다.

§ 교 훈

◇ 철수 작전때 고려할 사항

작전 수행중 전력(戰力)의 소모를 막고 차기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먼저 기도 비익으로 적을 기만하고 최단(最短) 시간에 최대의 병력 및 장비를 성공리에 철수해야 한다.

제3사단이 長沙洞 일대에서 적의 포위 밑에 놓여 있을때 제3사단장의 치밀한 철수계획으로 아군의 철수 기동이 철저히 비익되어 병력 전원과 장비 일절 그리고 피난민 다수를 승선시킬수 있었다. 적전(敵前) 해상철수에 있어서 제3사단의 해상 기동은 세계 전사상 드물게 보는 성공한 전례(戰例) 이었다.

철수시에 특히 강조하여야 할것은 휴대가 불가한 장비는 이를 적군이 이용못하게 철저히 파괴시켜야 할것이다. 특히 무전기가 적의 수중에 들게 되면 적이 다시 사용하여 아군의 작전을 교란하려 할 것이며, 보급이 부진되고 있는 적은 아군의 유기품(遺棄品)으로 보급을 충당할려 할 것이다.

◇ 예비대 활용에 대하여

공방(攻防)을 막론하고 예비대의 보유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여유있는 작전과 작전의 신축성을 기할수 있게 될 것이니 비록 한 전투에 예비대가 투입될시는 즉시 신 예비대 편성에 유의하여야 할것이다. 제3사단의 長沙洞 방어시 浦項에 위치하고 있던 사단 후방지휘소가 적의 침입으로 위태롭게 되었으나 예비대를 보유치 않으므로써 이를 구출치 못하였다.

◇ 배속부대의 원대복귀 시기

피배속부대(被配屬部隊)가 배속 지휘관의 명으로 일선방어진에 배치하고 있을때 비록 원대복귀명령이 하달되었다 하더라도 배속 지휘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부대이동해야 할 것이다.

제3사단이 9월 초순 兄山江 남안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을 때 좌일선(左一線) 배치부대인 제8사단 제10연대(제3사단에 배속)은 상부에서 원대 복귀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여 진지 교대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적군과 대치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대 복귀하였다. 이로 말미아마 제10-

연대 지역에서 적병이 뒤를 이어 洪溪洞 방면으로 침투하게 되었다.

§ 참전자의 증언

제3사단장 金錫源준장

(68. 12. 4, 城南중고교에서, 예·소장)

제3사단의 해상철수 : 나는 義城에서 전투하다가 제3사단장으로 전임되어 浦項을 잠깐 들렸다가 [illegible]로 가게되었다. 그곳에서 李俊植 장군과 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날밤에 적이 浦項에 들어오게 되었다. 浦項에는 학도의용군이 있었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해서 아까운 청년들이 다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참모장을 보내 얼마나 있는가고 물어보니 산포 2문 준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浦項에 적이 들어왔으니 내가 반격하여 뒤에서 공격할 생각으로 출동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美 고문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므로 약 30분동안 논란하다가 결국 반격전은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illegible]에서 月浦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이때 적이 北쪽과 西北쪽에서 남하하고 있었고 浦項에도 적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완전히 포위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보급이 없어져 몇일동안은 비행기로 포탄같은 것을 투하해 떨어트린것을 쓰기도하였다. 이때 제3사단의 이동작전(離陸作戰)이 계획되었으나 그때 피난민이 2만명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용공분자도 있고 할터이니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연대장들에게 2~3일 동안의 진투가 사단의 운명을 좌우하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비익이다. 만일에 우리의 행동의 일부라도 흘러나가 되면 우리 사단이 전멸 당하게 되니 전투를 강한다는 것보다도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美軍 LST는 16일 오후 7~8시에 도착하였다. 연대장들 한테는 일선에 나가 있는 병사를 저녁때까지 그대로 두고 허가 적시 어두어지면 일부만 전선에 두고 남아지는 뒤로 철수시키라고 하였다. 밤이 되면 야습(夜襲)을 하는 기색으로 할터이니 해안에서는 포를 左右, 바깥으로 떠려라 그러면 일선에는 1개분대 정도 남겨 놓고 가끔 사격하라. 맨뒤에 남아있는 병사는 그대로 안락을 할터이니 그때 철수하라. 그리고 경찰대와 공무원 피난민 노무자들도 같이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우리가 야습하는것처럼 그 밤새도록 한시간반 동안 공격하는데 적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에 승선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었다.

17일 날이 훤히 밝아오자 승선이 완료되어 離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서야 山위에서 다발총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때 육군본부에 "제3사단 무사히 이륙함, 사단장 해상에 있음" 이렇게 무선으로 보고 하였다.

3시간 동안 항해끝에 九龍浦에 도착하여 "3사단 무사히 九龍浦에 상륙함" 하고 육본에 또 다시 보고하였다.

浦項탈환전 : 九龍浦에서 4~5일 휴식겸 재정비하고 있는데 浦項을 거쳐 北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당시 몇 부대가 浦項 탈환전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려가 된 浦項을 거쳐 浦項 북방에서 몇 부대와 교대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사단사령부는 浦項 여학교에 있었다. 여기서 약 10일 정도 있었는데 적이 또 다시 남침하기 시작하여 浦項 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浦項에서 시가전을 감행할 작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된 연대장들도 후퇴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잘 싸웠다. 이때 사단지휘소를 식산은행 浦項지점에 두었는데 여

기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고 적의 병력은 날로 증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위경련을 알아 죽을 먹어가면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하루는 위경련이 재발되어 군의관을 불러다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군단장 金白一준장이 와서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하면서 "쉬는 것이 좋겠읍니다" 말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李鍾贊대령이 와서 나와 교대하게 되었다.

제3사단장 李鍾贊대령

(70. 6. 17 코리아엔지니어링社 사장실에서 예·중장)

사단장 부임 : 중앙훈련소본부장(中央訓練所本部長)이었던 나는 8월 31일 釜山에 와 있던 申性模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3사단장으로 부임하라는 구두명령을 받았다. 申장관의 말은

"지금 金錫源 장군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휴양이 필요하니 李대령이 3사단을 맡아 주시오"라는 요지였다. 그래서 나는 9월 1일 大邱로 와서 육군본부를 거쳐 저녁때에 迎日 비행장에 도착하여 浦項 식산은행 지점에 위치한 제3사단 지휘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金錫源 준장은 위경련으로 와병중에 있었으나 "李대령을 맞이하여 누구보다도 나의 지휘권을 맡길수 있는게 만족하다"고 하면서 2일 지휘권의 인계 인수가 되었다. 한편 전임 참모장 孔國鎭 중령도 와병(이질) 때문에 丁來赫 중령을 후임 참모장으로 기용하였다.

浦項방어전 : 9월 초순 적은 浦項을 향해 계속 남침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한 날에도 사단사령부 부근에는 적의 박격포탄이 낙하하고 있었다. 9월 2일 美특수 임무부대가 전차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남침하는 적에 대항하고 있었으나 적은 대전차포로 美軍 전차대를 파손시키고 피난민들에 끼어 계속 남침하고 있었다.

9월 3일 首都사단 전면이 돌파당하자 제3사단은 左측이 노출되고 있었으나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여전히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4일 首都사단 전선이 또다시 安康 南쪽으로 후퇴하였기 때문에 제3사단은 고립상태에 빠졌으므로 불가피 兄山江 이남으로 철수치 않으면 안되었다.

5일 적의 압력이 가중하고 있었으나 군단에서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현사태를 주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단의 美고문관 특히 작전고문관인 아이비(Ivey)소령은 서둘러 현전선을 고수하라고 충언하고 있었으나 사태가 이에 이르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초조하게 물어오기도 하였다. 나는 상부 지시없이 철수하면 안되며 작전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부에 연락하고 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포병 대대를 兄山江 南쪽으로 이동시켜 철수 부대를 엄호하도록 하는 준비를 시켜놓고 있었다.

적의 압력으로 제3사단의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적과 접촉하면서 左로부터 제10연대, 제23연대가 兄山江 南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고 마지막으로 제22연대가 철수하여 제23연대 후방지역에 집결하였다.

兄山江방어 : 이때 사단사령부는 迎日 비행장 西南쪽 3km 지점인 中興洞에 설치하고 있었다. 6일 군단에서 제10연대를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나는 적과 접촉하여 대치하고 있는 10연대를 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제22연대와 교대한 다음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제10연대장은 저녁에 제22연대가 교대하려고 부대 이동중에 미리 철수해 버렸다. 그 결과에 적은 터널고지를 타고 소수 병력이 洪溪洞에 이르는 산악으로 남침하여 왔다.

洪溪洞으로 침투한 적은 주력 하여 야간에 中興洞부근에 나타나므로 사단지휘소를 都邱洞에 있는 都邱 국민학교로 이동하였다.

兒山江은 江이라고 하지만 하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리까지는 도보가 가능한데 물내려 가는곳이 불과 100m 정도이며 저쪽은 강폭이 200m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兒山橋는 폭파장치를 해 놓았지만 폭파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겨우 차로 지나갔을때 다리가 조금 상한 곳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兒山江을 중심으로 적과 대치하였다. 9월 15일 仁川 상륙작전이 시작되었고 총 반격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다. 나는 仁川 상륙작전을 뉴스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적은 반드시 후퇴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추격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浦項을 재탈환하고 興海선까지는 그대로 밀고 올라갔다.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

(1956. 2월 15일, 동일청년단장실에서, 예·준장)

제3사단이 長沙洞에 위치하고 있을때 나는 참모장의 자격으로 부임하려고 제3사단의 후방사령부가 있는 浦項에 가게 되었다. 당시 후방사령부는 浦項 여자 중학교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학도병이 많이 와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浦項 지구에는 경계 조치가 전연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그대로 長沙洞에 가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적이 浦項에 침입하여 점령했다는 것이다. 그때 사단장은 그대로 돌파하여 浦項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결국 해상 철수하기로 결정되었다.

長沙洞에서의 철수는 金錫源 장군의 적절한 지휘로서 사상자도 내지않고 사단장비를 손실함이 없이 완전무사하게 철수하였다. 이는 사단장 金錫源 장군의 탁월한 작전지휘 때문이다.

九龍浦에 상륙한 다음 나는 제22연대장이 되었다. 우리 사단은 반격전을 시작하여 浦項을 탈환하였는데 제22연대는 중앙연대로써 작전하였다. 제3사단은 적의 계속된 압력을 받고 있다가 右측의 제23연대가 먼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인접연대가 철수하고 있었으나 철수명령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결국 인접연대의 잔류병들을 수습하여 적과 교전하면서 兒山江 근처에 내려오니 美軍 공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최후로 강을 건너자 철교를 폭파해 버렸다. 우리는 兒山江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다가 반격전이 시작되었는데 兒山江을 도하할때 포를 산병선(散兵線)까지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이어 우리 연대는 浦項을 탈환하게 되었다.

제3사단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

(65년 12월 7일 국방대학원에서, 예·소장)

제3사단의 해상철수 : 우리는 江口에서 물러나 長沙洞 부근에 새로운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적이 후방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제3사단은 포위상태에 있었다. 철수명령이 내린다음 일몰(日沒)후에 LST에 승선하고 있는 동안 1개 중대씩은 공격을 취하고 있었다. 적은 우리 보다 높은 곳에 있었으나 계속 아군이 공격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철수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 부대는 마지막까지 남아 기만전을 전개하고 있다가 8월 17일 날이 밝아 지기 전에 승선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그때 적이 공격으로 나왔으면 우리의 철수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九龍浦에 도착한 다음 만 하루동안 부대 정비를 마치고 浦項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는데 이미 浦項은 회복되어 浦項 北쪽에는 関 부대가 작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関 부대와 전진교대를 한다음 北쪽의 적을 계속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兒山江 방어전 : 우리는 兒山江 南쪽에 방어진

을 치고 있던중 적이 兄山江 뚝을 건너왔으므로 우리는 뚝에다 57mm 대전포 (1문)을 사격하여 적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아군의 용맹한 반격으로 적이 정면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兄山江을 건너 浦項 뒷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신병들이 용감해지고 사기가 높아져서 전진해서 일제히 진격해 나진다. 그때 차량 5~6대에 분승하여 진격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이를 무찌르고 다시 진격해 갔다.

제3사단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

(68년 9월 14일 중앙청에서, 예. 준장)

제26연대는 慶州 부근에서 작전하다가 9월 9일경 제3사단의 지휘밑에 들게되었다. 제26연대는 龍德洞 부근에서 대내 편성을 마치고 兄山橋 南쪽에 진지를 편성한 다음 총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공격 명령은 9월 16일 하달되었으나 이 명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 연대에게 兄山橋 北岸의 적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우리는 낮에 배를 끌어 모아 도하하는것 처럼 하다가 밤이면 다른데로 병력을 이동시켜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兄山江 대안(對岸)의 적은 우리를 감제(瞰制)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자가 많이 나고 있었다. 이 무렵 美 해군이 함포지원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함포소리가 마치 지진이 난것만 같았다. 兄山橋를 건너 진격하여 보니까 인민군이 밭에 기관총을 쇠줄로 묶인채 죽어 있는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兄山江 北쪽에는 직경 5m 정도의 우물이 수백군데 파져 있는 것도 보았는데 이는 함포의 포탄자국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浦項의 적을 격파하고 이를 재탈환하였는데 이때 仁川 상륙작전의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운 마음 측량할 길이 없었다.

◇ 金晩圭 학도병의 적진탈출

金晩圭 학도병(大邱출신, 당시 17세)은 8월 11일 浦項 전투시 학도병 중대 연락병으로 있었는데 그는 다른 학도병과 함께 침입해온 북괴군에 대해 용감한 전투를 벌려왔으나 실탄이 소진되어 적에게 납치된 바 있었다. 그는 납치된 다른 학도병 30명과 같이 迎日郡 美峴洞(杞溪 北方 5km)에 있는 이른바『해방동무 임시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 제8사단 출신 100여명과 美軍 19명의 피납자들이 같이 있게되었다. 8월 20일 浦項전선에서 상황이 불리해진 북괴군은 모든 피납 자들을 총살하려 하였으나 총살 직전에 우군 전투기의 출현과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 총살이 연기되고 北으로의 죽음의 행진을 강행 하게되었다. 북상하는 죽음의 행렬에서 金晩圭는 黃모와 더불어 그들의 감시의 눈을 피하여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제3사단에 복귀하여 金錫源 군장에게 신고하니 金 사단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학도병의 용맹과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고 자기 때문에 아까운 학도병들이 죽게 되었다고 슬퍼 하면서 위로 해주었다.

金晩圭는 11일 저녁 무렵에 피납되어 적에 끌려가면서 浦項 여자중학교 뒷고지 후면에 적의 전차, 장갑차 등 50여대 정도를 보았으며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분산되니 아군의 폭격과 함포를 피하고자 산속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참전자의 약력

金錫源

1949. 1	육군대령 임관(8기1차)
1949. 1	제2여단장
1949. 5	제2사단장
1949. 10	예편

1950. 7 수도사단장
1950. 8.7 제3사단장
1950. 9.1 대구방위사령관
1951. 5 육군본부부

李鍾贊

1949. 6 대령임관 국방부 제1국장
1949. 9 국방부 검찰국장(겸)
1950. 4 국방부 병기행정본부장(겸)
1950. 6 수도경비사령관
1950. 9 제3사단장
1950. 11 국방부 병기행정본부장
1951. 4 육군보병학교장(겸)
1951. 6 육군참모총장(소장)
1952. 1 중장진급
1953. 6 육군대학총장

金應祚

1950. 7. 7 중령임관(특임)
1950. 7. 7 수도사단참모장
1950. 8 수도사단 제18연대장
1950. 8. 17 제3사단 제22연대장
1950. 10. 1 원산방위사령관(대령)
1951. 제101사단장
1952. 4. 26 제6사단장
1953. 제2군사 창설위원
1955. 11. 3 준장으로예편

金琮舜

1948. 10. 12 육사 7기특 졸업
1949. 5. 12 제6여단 제22연대대대장(중령)
1950. 5. 20 제5사단 독립대대장
1950. 8. 1 제3사단 제23연대장(대령)
1950. 10. 27 함흥방위사령관
1951. 12. 4 제2훈련소 참모장
1952. 6. 22 제9사단 참모장
1953. 4. 26 경기계엄사령관

李致業

1946. 1. 15 임관(軍英班)
1949. 5. 12 제3사단 참모장
1949. 7. 10 대령진급
1950. 5. 6 육본 작전교육국원
1950. 7. 11 육본 군수차장
1950. 9. 1 제3사단 26연대장
1950. 12. 10 제7사단 부사단장
1950. 3. 1 육군수송감
1952. 11. 1 (임)준장진급
1953. 1. 25 준장진급

2. 杞溪·安康 附近戰鬪 (50년 8월 9일부터 50년 9월 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9(No. 1~4)호
상황도 제 20 호
작명부록 제 8., 17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제1군단	장	소장	金弘壹
제1군단	장	준장	金白一 (9월 1일부터)
수도사단	장	대령	白仁燁
수도사단	장	대령	宋堯讚 (9월 1일부터)
제1연대	장	중령	韓信
제1대대	장	소령	金學默
제2대대	장	소령	柳恒博
제3대대	장	대위	姜琬采
제18연대	장	대령	任忠植
제1대대	장	소령	張春權
제2대대	장	소령	鄭昇和
제2대대	장	소령	金鳳翔
제3대대	장	소령	朴燾用
제3대대	장	소령	安昉一
기갑연대	장	대령	白南權
제1대대	장	소령	丁世鎭
제2대대	장	소령	朴道璨
제3대대	장	소령	林觀默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대령	李成佳
제25연대	장	중령	金海瀅
제1대대	장	소령	柳貞鐸
제2대대	장	소령	崔在鴻
제3대대	장	소령	李芳雨
제17연대	장	대령	金熙濬
제1대대	장	소령	全禹燊
제2대대	장	중령	趙榮九
제3대대	장	소령	柳昌煥
제26연대	장	중령	李白雨
제3대대	장	소령	殷碩杓
제1유격대대	장	소령	鄭震
제2유격대대	장	중령	金龍周
해군육전대	장	소령	姜起千

협동부대

美 잭슨부대

美 공군부대

병력 약 10,000명

장	비
105mm 유탄포	10문
81mm 박격포	64문
60mm 박격포	92문
57mm 대전차포	28문
3.5인치 로케트포	105문

적 군

제 2 군단 장	중 장	金 武 亭	
제12사단 장	소 장	崔 仁 斗	
제30연대 장	대 좌	崔 赫	
제31연대 장	대 좌	金 응	
제32연대 장	대 좌	金 學	
제 5 사단 장	소 장	馬 相 喆	
제10연대 장	대 좌	朴 炳 秀	
제11연대 장	대 좌	金 泰 文	
제12연대 장	(미상)		
제766부대 장		吳 振 宇	

병력 약 15,000명

장 비		
122mm	곡 사 포	20문
76mm	유 탄 포	2문
76mm	사 단 포	20문
120mm	박 격 포	22문
82mm	박 격 포	89문
45mm	대전차포	44문
전 차		10대
장 갑 차		10대

나. 전투 전의 개황

(1) 적군의 상황

8월 3일에 북괴 제12사단은 靑松을 출발하여 道坪里를 거쳐 立岩里에 집결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유격부대인 북괴 제766부대는 香爐峰, 飛鶴山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타고 남하하여 杞溪, 安康 부근에 출몰하고 있었다.

이들 북괴군은 동해안의 북괴 제5차단의 남침에 호응하여 아군의 방어력이 미약한 杞溪, 安康, 慶州 등을 점령한 다음 일로 釜山으로 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2) 아군의 상황

靑松에서 적의 남하를 방어하고 있던 아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8월 5일에 義城으로 철수하고 있었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江口에서 북괴 제5사단과 교전중에 있었다.

적의 대규모 병력이 杞溪, 安康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육군본부에서는 즉각 浦項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중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수도사단을 이 지구에 기동시켜 북괴군의 공격을 막게하는 동시에 동해안 일대에서 계속 남하를 시도하는 적 주력부대의 기도를 와해시켜 동해안선에 따르는 아군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려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杞溪방어전(8일 9일~12일)

8월 9일 : 북괴 제12사단의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은 전차, 장갑차, 중포(重砲) 등을 동원하여 青松, 立岩里를 거쳐 杞溪 北쪽에 나타나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새로 편성된 제25연대(兪海濬 중령)로 하여금 급히 이 지구에 출동시켜 杞溪, 安康을 거쳐 慶州지구로 남하하려는 적의 야욕을 와해시키려 하였다.

제25연대 제1대대(楠貞鐸 소령)는 9일 11.00에 安康에 도착한 다음 安康 北쪽 6km지점의 老堂里 445高地 능선 일대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 부렵 安康 北쪽 5km의 多山洞지에 위치한 연대 관측소 北쪽 "대안골" 北쪽 고지대에는 杞溪 北쪽에서 적과 지연전을 벌리면서 후퇴한 海軍陸戰隊 약 3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25연대장은 해군육전대장(姜起千 소령)에게 적정을 물어본즉 적은 이미 杞溪에 침입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정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美 공군기가 杞溪 시내에 기총소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제25연대장은 전투정찰대를 편성시켜 杞溪 부근에 침투시켰으나 정확한 적정을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는중 16.00경에 수 미상의 적병이 제25연대 관측소를 기습해와서 피아간에 격전이 전개되다가 아군은 전세가 불리해서 445고지 하단으로 방어선을 정리하게 되었다.

8월 10일 : 제25연대장은 새로 도착된 제3대대(제11, 제12 중대 欠)에게 445고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고 제1대대 병력은 安康에 집결시켜 재편성을 마친 다음 安康 외곽에 배치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杞溪 지역의 전세가 격화되자 九山洞에 집결중인 제17연대장(金熙濬대령)에게 급거 安康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게 되었다.

8월 11일 : 제25연대장은 제3대대 제11중대와 제12중대를 512高地(楊月里 北쪽)에 진출케하여 445高地의 제3대대(제9, 10중대)를 증원토록 하였다.

이날 아침 安康에 도착된 제17연대는 제3대대를 左측에서 작전중인 해군육전대와 협동하여 236高地(良洞里 東北쪽) 南쪽을 확보케 하고, 제1대대를 165高地(良洞里 北쪽) 부근에 배치하여 安康을 측방에서 침투하려는 적에 대비토록 하였는데 이때 제17연대 제2대

대는 예비대로 安康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날부로 제25연대장 兪海濬 중령이 해임되고 李奇建 대령이 신임연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8월 12일 : 11일에 이어 제17연대 제3대대와 해군육전대 1개 대대는 安康 東北쪽에서 침입을 기도하는 적을 공격하여 221高地 부근으로 이를 몰아내고 236高地를 다시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도 이에 호응하여 145高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25연대 제3대대가 점령하고 있던 445高地에서도 18.00경부터 소수 병력의 적의 정찰대가 접근하기 시작하다가 22.00경부터 적 대부대 병력이 파상적으로 돌진해 왔다. 피아간에 백병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제3대대 소속 장교들은 기관총 사수 또는 3.5인치 로케트포 사수를 대행하여 분전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아군의 용전으로 적은 200여구의 시체를 남겨 놓고 일단 北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리고 左측 563高地에서 지원하던 제3대대 제11중대와 제12중대의 진지에도 적이 내습하여 왔으나 격전 끝에 이를 격퇴하여 이 고지를 계속 확보 유지하고 있었다.

제17연대장은 445高地를 확보할 목적으로 예비대인 제2대대와 236고지의 제3대대를 공격 진출케 하여 제2대대는 445高地 4부 능선을, 제3대대는 老堂里 일대를 각각 점령하였다. 이로서 제17연대는 사실상 제25연대의 전투지역을 인수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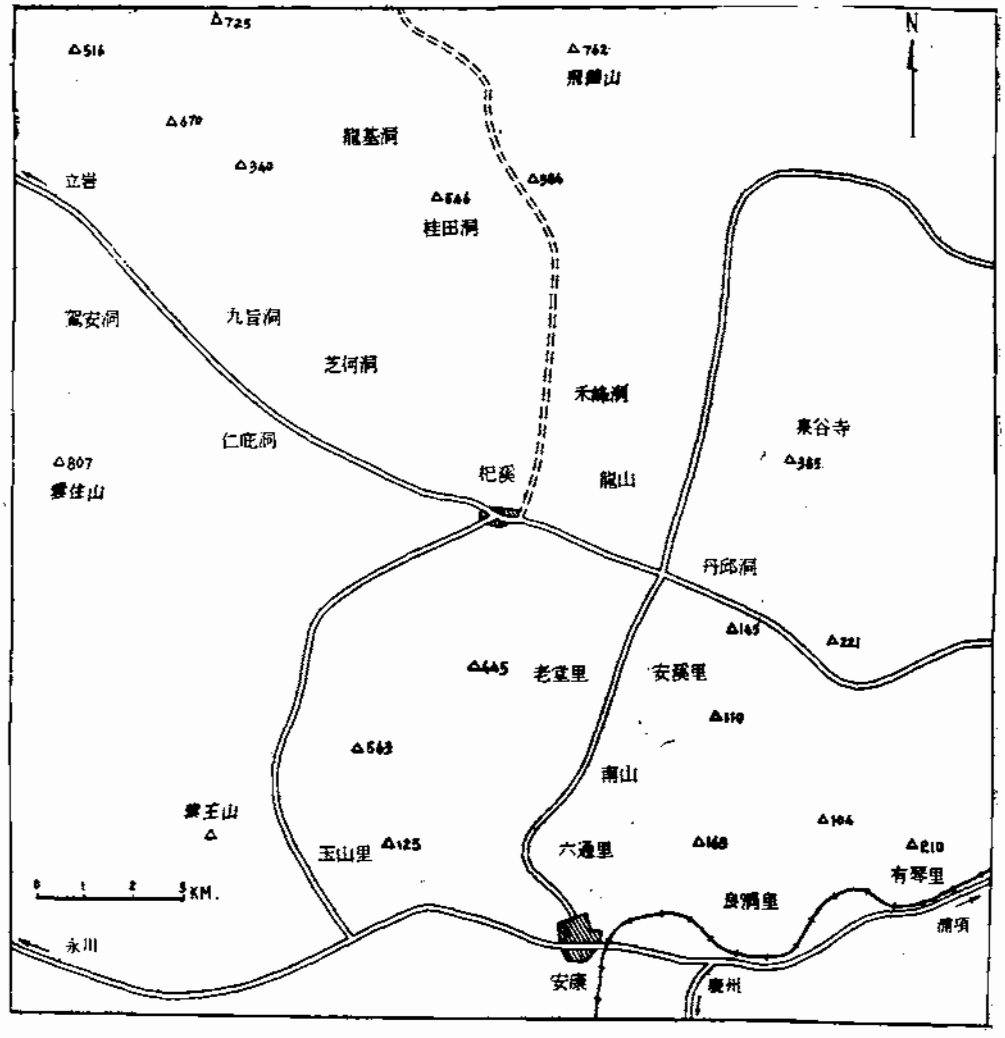
제25연대의 해체 : 50년 8월 7일 大邱에서 편성된 제25연대는 杞溪 南쪽 445高地 전투에서 과감한 전투력을 발휘하려 남진하는 적과 싸워 왔으나 중과부적으로 1개 대대 병력 정도만이 남게 되었다. 제1군단은 8월 16일부로 (작명부록 제17호) 제25연대 잔존 병력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제26연대에 편입시켰다.

8월 13일 : 12일에 221高地로 퇴각했던 적은 증원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과 합세하여 03.00에 제17연대 제1대대 방어진지인 145高地에 공격을 가해왔다. 제1대대는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으나 계속 증강되는 적의 압력으로 부득이 良洞里 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제1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445高地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를 점령치 못하고 원진지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제25연대와 제17연대가 실시한 杞溪 방어전은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杞溪를 상실하는 것은 곧 安康 및 慶州의 위기를 뜻하게 되는데 이 杞溪·安康은 大邱에서 동해안의 浦項에 이르는 주요 도로선상에 위치한 洛東江 방어선상의 한 요지로서 중요한 거점이다.

상황도 제20호 杞溪·安康 부근 약도



육군본부에서는 杞溪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大邱에서 신편되어 부대 정비를 하고 있던 제26연대(李白洞중령)를 급히 安康 지구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작명부록 제8호 참조)하는 한편 義城에서 8월 12일 慶州로 이동한 제1연대(韓 信중령)를 安康 지구로 전진케 하였다.

(2) **杞溪탈환전**(8월 13일~8월 18일)

8월 13일 : 이날 현재 安康 지구에는 제17연대와 제26연대 및 제1연대 그리고 제17연대(잔류병)의 4개 연대와 해군 육전대 1개 대대가 집결하고 있었다. 각 부대는 통신 기존시

설의 이용과 보급품 집결의 편의성 때문에 安康 읍내에 각기 지휘소를 개설하게 되어 한때 혼잡하였으나 신속한 부대배치로 질서는 곧 회복되었다.

이날 제26연대는 安康 西쪽 5km지점의 玉山里 書院洞에 위치한 125高地에서 北쪽 563高地를 연하는 능선 일대을 점령하여 玉山부근에서 침입해 오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고, 제1연대는 安康 東쪽 3km 지점의 良洞里에 지휘소를 개설하였으며 제17연대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다음 仁琴里 129高地 부근을 점령하여 적 유격대의 침투에 대비하고 있었다.

8월 14일 : 良洞里 부근의 제1연대 제1, 제2 대대는 06.00경 공격을 가해온 북괴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美 공군도 지원하여 적진을 강타하였으므로 적은 심한 손실을 입고 北쪽으로 퇴각해 버렸다.

제17연대 제2, 제3대대는 08.00경 道坪里 445高地를 재차 공격하였으나 성과를 못보고 원진지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563高地의 제26연대는 제25연대의 잔류 병력과 합동하여 현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1군단장은 杞溪에 침입한 적을 포위 공격할 작전 구상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즉 "제26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제 1연대 및 해군 육전대로 하여금 杞溪 南쪽과 東쪽에서 적을 견제(牽制)케하고 새로이 제13연대와 기갑연대를 杞溪 西側작전에 참가시켜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한다."

이에 따라 義城에 주둔하고 있던 제18연대(任忠植중령)와 기갑연대(白南權대령)는 九山洞과 道坪里를 경유하여 14.00에 立岩里부근에 진출하고는 杞溪 주변에서 일대 공세를 취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 무렵 立岩里 부근에는 피난민이 우왕좌왕하여 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피난민들은 적 보급부대가 수일 동안 飛鶴山부근으로 행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8월 15일 : 제1군단장은 제18연대장에게 "단시일내에 杞溪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8연대장은 제1대대(張春權소령)와 제2대대(金正烈소령)로써 공격 제대를 편성하여 杞溪를 향해 동진(東進)케 하였는데 이때 제18연대 좌측에는 기갑연대(총병력은 1개대대 정도)가 측방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8월 16일 : 제18연대 제1대대는 화谷里 화谷川(△725)을 목표로 06.00에 공격하였으나 지도 오독(誤讀)으로 최초 목표 左측방인 법박재(△516)를 점령하였으나 적정이 없었으

므로 이 대대는 3km南쪽인 龍基洞 340高地를 향해 진격하여 18.00에 이를 점령하고 즉시 사주방어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점령한 340高地는 九岩洞과 飛鶴山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형이었으니 이때는 작전상 유리한 거점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 무렵 立岩里 南쪽 10km 지점의 雲住山(△807)에 침투하고 있었던 적은 아군이 立岩里에서 龍基洞 부근으로 진격하게 되므로 후방이 차단되었음을 알고 北쪽 飛鶴山으로 퇴로를 개척하고자 九旨洞에 병력을 집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날 美 공군은 적이 집결하고 있던 九旨洞에 10 여차나 기총소사를 가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한편 제17연대는 10.00에 445高地와 그 右측 능선에 있는 무명고지에 대하여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한때 공격이 부진되고 있다가 美 공군의 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공격을 계속하여 18.00에 이 고지를 점령하고 이어 杞溪를 향해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良洞里의 제1연대는 11.00 美 공군의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1대대를 110고高地, 제2대대를 236고지로 각각 공격토록 하였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어 221高地 후방으로 격퇴시키고 17.00에 각각 110高地와, 236高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8월 17일 : 龍基洞의 340高地에서는 03.00경 적 1개 대대 병력이 제18연대 방어진지를 공격해 왔으나 제1대대는 접근해 온 적병을 수류탄전으로 격퇴하였으며 右측의 제2대대 정면에도 적이 강력한 공격을 가해 왔으나 감투정신으로 이를 격퇴하고야 말았는데 이때 와해된 적은 200여구의 시체를 남겨둔 채 12.00에 飛鶴山 부근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아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19.00에 新基洞까지 진출하여 左측에 제18연대, 右측에 기갑연대를 배치하여 杞溪 부근의 적에게 측방으로 부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445高地의 제17연대는 05.00에 적의 내습으로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나 아군의 필사적인 방어가 주효(奏效)하여 17.00에 적을 杞溪 北쪽으로 격퇴케 한 다음 계속하여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良洞里의 236高地 및 110高地의 제1연대 제1,제2 양 대대는 정면의 적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여 이 고지 北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 제3대대도 포지원을 받으면서 右측에서 작전하고 있던 関 部隊의 진출 지점인 浦項 터널 부근의 고지를 무난히 점령하여 関 部隊와 진지를 교대하게 되었다.

8월 18일 : 新基洞 左右측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이 부근에 출

몰하는 적을 견제하고 있다가 06.00에 杞溪 前面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공격부대는 적 주력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13.00에는 제18연대의 일부병력이 杞溪에 돌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南山里에 집결 중이던 제17연대 제1대대도 杞溪 南쪽에서 북진하기 시작하여 제18연대와 협동으로 杞溪 내의 잔적을 수색하게 되었는데 杞溪 부근 일대는 적 시체가 무수히 산재하여 그 처참한 광경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었다.

한편 125高地와 563高地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제26연대도 이 지역에서 龍山 부근으로 공격 진출하였으며 기갑연대는 杞溪 西쪽의 鳳溪洞에서 雲住山부근의 적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杞溪 부근에서 아군에 대항하고 있던 적은 이미 전투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부 패잔병력만이 飛鶴山으로 퇴각하는데 급급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의 전과는 적 사살 1,245명, 포로 17명, 무기 탄약 다수를 노획하였고 아군의 손실은 전사 92명 부상 171명, 실종 50여명이었다.

杞溪가 탈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申性模 국방부장관은 제1군단장에게 격려의 전문을 보내는 동시에 8월 19일에는 직접 제1군단을 방문하여 전방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였는데 미군에서도 杞溪 탈환작전을 극력 찬양하였다.

(3) 飛鶴山 전투(8월 18일~8월 26일)

북괴 제12사단은 8월 14일부터의 아군에 의해 감행된 杞溪 탈환전으로 막심한 손실을 입고 붕괴되어 17일 밤부터 飛鶴山 지역으로 총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북괴 제2군단장은 심한 타격을 받고 피멸 상태에 있는 북괴 제12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공격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북괴 제766부대를 해편(解編)하여 그 병력(1,500명)을 북괴 제12사단에 분배하고 신병 2,000명을 보충받아 총 병력 5,000으로 이 사단을 개편하였다는데 安東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북괴군 중에서도 정예(精銳) 부대로 손꼽힌 제12사단이 그간 얼마나 심한 손실을 입었는가는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杞溪 작전에서 적의 주공 방향은 원래 安東·慶州를 잇는 종격실이었으나 이 기도가 아군의 용감무쌍한 반격에 부닥치게 되자 새로이 飛鶴山 北側方에서 雲住山 지역으로 우회하여 杞溪, 安康을 포위 공격하려고 꾀하게 되었다.

아군은 杞溪 부근의 잔적을 수색하고 飛鶴山을 목표로 일제 공격을 감행하여 퇴각한 북괴 제12사단을 포착섬멸하는 동시 적의 남침 야욕을 완전히 괴멸하려 하였다.

8월 18일~19일 : 18일 오후 杞溪 부근의 잔적 수색전을 마친 아군은 새로운 전투에 대비키 위하여 19일 새로운 진지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은 아래와 같다.

九旨洞 부근으로 진출한 제18연대는 冠川洞 369高地 左로부터 제1, 제3대대가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17연대는 제18연대 左측인 柱田洞 258高地에서 東쪽으로 345高地와 禾峰洞을 연하는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6연대는 제17연대의 右측방 龍山 부근의 232高地 北쪽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또한 제1연대는 北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는 한편 제1대대는 道音山 西쪽의 무명고지를, 제2대대는 295高地를 각각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대의 제3대대는 예비대로 良洞里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1군단장은 永川지구에 적정이 활발해지자 杞溪전투에 참전하고 있던 기갑연대를 8월 20일부로 永川에 이동하도록 하는 동시 같은 날자부로 海軍陸戰隊도 원대 복귀토록 조치하였다(작명부록 제17호 참조).

이로서 杞溪 北쪽에는 아군의 새로운 방어선이 편성되어 杞溪, 安康지구의 위기는 한때나마 해소되었다. 美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의 "동부 방어진지의 구축으로 적 남침을 저지한다"는 의도는 한국군 수도 사단에 의하여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20일 : 제18연대는 진출선에서 수색 정찰전을 실시하였으나 19일의 적정은 없었다. 이날 22.00 현재 제17연대는 龍基洞—352高地—546高地를 연하는 선에, 제26연대는 龍山 北方 2.5km지점의 247高地까지 각각 진출하였다.

제1군단장은 거의 8일동안이나 적의 동향(動向)이 불투명하였으로 정찰전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였다.

8월 21일 : 제1연대는 丹邱里 부근의 道音山(△385)을 공격하라는 군단 명령을 받고 이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 1개 연대 병력의 반격으로 진출이 막히게 되어 원진지로 되돌아왔다. 제1연대는 제26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한 다음 사단 예비대가 되어 禾峰里 일대에 집결한 다음 방어선의 右측 부근의 적에 대비하게 되었다.

8월 22일 : 수도사단 左측 부대인 제18연대는 18.00경 적 약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의 내습(來襲)을 받고 교전하였는데 이때 야음을 이용하여 침투해 온 적은 아군 진지에 포사격을 가한 다음 보병으로 돌진해 왔음으로 피아간 격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싸움



〈작전계획 중인 丁一權 총참모장과 白仁燁 사단장〉

에서 제3대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제18연대장은 제2대대(鄭昇和 소령)로 하여금 추격 역습시켰으나 역부족으로 성과를 못보게 되자 연대장은 현 진지 南쪽 6km지점의 九旨洞 부근에 낙오자선(落伍者線)을 설정하여 낙오병을 수습하고 龍峙洞의 677高地에 다시 배치하게 되었다.

제17연대는 飛鶴山 南쪽의 현 방어선 2차에 걸쳐 飛鶴山 부근의 적(敵)을 공격하였으나 일진일퇴를 거듭할 뿐 전진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무렵에 禾峰동에 집결하고 있던 제1연대는 杞溪로 이동하여 예하 제1대대로 하여금 인접부대인 제17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8월 23일 : 제17연대는 적과의 계속된 전투로 많은 병력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1.00에 다시 飛鶴山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으나 적의 완강한 포화(砲火)와 지상공격으로 전진이 막히고 병력의 손실만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현 전선 만을 견지하여 적에 대처하고 있게 되었다. 한편 左측 부대인 제18연대는 계속되는 적의 압력으로 현 전선 南쪽 2km 지점으로 이동하여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8월 24일 : 피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놓여진 가운데 아군은 현 전선을 고수하는 한편 제17연대의 주력 부대로 하여금 적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가하였으나 적은 예비 병력까지 투입하여 완강히 대항하고 있었으므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8월 25일 : 적은 06.00에 아 제18연대 제3대대 및 제2대대 정면에 각각 1개대대 병력으로 내습해 왔으므로 아군은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으나 중과 부적으로 13.00경 仁庇洞 선으로 이동하여 남하하는 적을 계속 저지하고 있었고 제17연대는 左측 부대인 제18연대와의 전선 유지상 杞溪 北쪽 2km 지점인 345高地까지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다.

제1군단은 18일 杞溪를 탈환하고 나서 곧이어 飛鶴山 공격에 임하게 되어 한때 수도사단의 일선 방어선은 右로부터 丹邱里—625高地—吾德洞—725高地 선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로부터 8일째인 26일에는 丹邱里—縣內洞—仁庇洞—芝柯洞 선으로 전선을 수축하게 되었으니 당초 계획했던 飛鶴山 공격 기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작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4) 제2차 杞溪·安康방어전(8월 27일~9월 4일)

飛鶴山 전투에서 수도사단 左측 부대인 제18연대는 적의 진출로 仁庇洞 선까지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7연대와 제26연대도 전선을 정리하려고 杞溪 北쪽 芝柯洞—丹邱里 선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杞溪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8월27~28일 : 제1군단장은 현 방어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8월 27일 飛鶴山 전투에서 이동해온 제18연대로 하여금 立岩—杞溪 도로를 따라 西北 방향으로 진출시켜 架安洞—冠川洞 고지 일대에 배치케 하여 雲住山 부근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6연대 방어지역의 형세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杞溪에 집결 중인 제1연대를 295高地 부근의 능선 일대에 이동한 다음 제26연대 잔여 병력과 협동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도록 하였으며 제17연대는 杞溪 북방 縣內洞 고지 능선 일대에서 현 방어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 일선 각 부대에는 1주일 정도의 사격기본 훈련을 받은 신병이 400~500명씩 보충되고 있었으며 각 연대의 간격은 6~7km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어진지 편성과 전투경험이 없는 신병의 보충 등으로 현지 지휘간들은 비록 고충이야 컸겠지만 동부전선에서 중요한 지점인 杞溪·安康은 기어코 방어해야만 하겠다는 결의는 왕성해 있었던 것이다.

8월 30일 : 사단 左측 방어선인 雲住山 부근에서 북괴 제15사단의 일부 병력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제18연대는 이들 침입해온 적과 10.00부터 교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 하였고 제17연대도 적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날 거점 방어(據點防

禦)하는 것이 현 전선에서는 적의 침투가 용이할 뿐 큰 의의가 없음을 인정한 사단장은 이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제18연대가 적의 공격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윽고 수도사단 방어진지 전면에 걸쳐 적이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아군은 힘을 다하여 이를 막아내고 있었으나 적의 압력은 계속 증가 일로에 있었다. 상황이 급하게 되자 사단장은 주간에 철수명령을 내렸던 것이나 각 연대장의 건의에 따라 야간에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군은 야간에 현진지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제18연대는 仁庇洞 일대에, 제17연대는 杞溪 南쪽 3km지점의 文星洞 334高地와 老堂里 445高地를 연하는 능선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기로 하였으니 이로서 杞溪는 또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8월 31일 : 제17연대의 각 대대는 04.00까지에 예정하였던 진지 점령을 완료하고 있었는데 제1군단 부군단장(金ㅣ一준장)이 제17연대를 방문하여 杞溪·安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杞溪를 재탈환하라고 명령하고 돌아 갔다.

제17연대장은 09.00에 제1대대로 하여금 龍山 232高地를 공격케 하는 한편 제2대대는 老堂峠(노당재) 일대를, 제3대대는 제2대대 左측방 445高地 능선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날 제17연대장은 육군본부 작전국과 제1군단, 그리고 수도사단으로 부터 杞溪 재탈환에 관하여 3,4차에 걸쳐 전화 독촉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20.00에 각 대대로 하여금 일제 공격토록 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9월 1일 : 이날 아침에 제17연대는 재차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중 적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제3대대 정면과 제1대대 정면인 龍山 232高地에 나타나게 되어 피아간에 일진일퇴의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육군본부에서는 일부 군지휘관을 갱질(更迭)하였는데 제1군단장에는 부군단장인 金ㅣ一준장을, 수도사단장에는 헌병 사령관이던 宋堯讚대령을 임명하였다. 새로 취임한 제1군단장은 적의 9월 공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 방어선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견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신임 수도사단장에게 浦項—安康—永川선을 사수(死守)하라고 명령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전선을 초도 순시하러 나온 자리에서 제17연대장에게 445高地를 사수하라고 하였으며 각 대대에게도 이 명령은 곧 하달되었다.

9월 2~3일 : 이날 04.00 경에 "노당재"하단부에 진지를 점령하고 공격 대기 중이던 제17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柳洪植 대위는 西측방에서 전진해 오는 4대의 전차를 발견하였는데 처음에는 아군을 지원하려 오는 미군 전차라 여기고 있었으나 05.00경 날이 밝아오자 적의 전차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5중대장은 지체없이 적 전차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면서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 진지 전방 30m 거리에 적의 전차가 접근하자 로케트포의 제1탄을 적 선두 전차의 右측부를 향하여 발사하였다. 순식간에 화염에 싸이게 된 적의 전차는 바로 정지되고 전차병이 탑문을 열고는 左右를 살펴보는 순간 소총수가 재빨리 사격하여 이를 사살하고 말았다. 뒤 따르던 전차는 선두차가 파괴되자 뒤로 방향전환하여 전속력으로 도주하였는데 이 전차는 이날 아 공군의 공중사격으로 모두 격파되었음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잠시 후 제2대대 전면에는 杞溪 도로를 따라 약 1개중대 가량의 병력이 행군 종대로 다가오고 있었으나, 군장비가 우군과 같아서 피아를 구분할 수가 없었으므로 제5중대장은 이 상황을 대대본부에 보고한즉 대대본부에서는 左측 전방에서 분산되어 남하 중이던 제18연대병력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모두들 방심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병력은 전차의 뒤를 따라 남하한 적병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 진지 전방 300m까지 접근하더니 급히 대오(隊伍)를 산개대형으로 바꾸어 고함을 치면서 일제 사격과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해 왔다. 상황이 급해진 제2대대는 침입해온 적을 향하여 사격과 수류탄으로 응전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한편 左측 부대인 제3대대에서도 적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줄어드는 병력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었으나 대대장이 부상하는 등 분전난투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더구나 연대본부와의 연락도 두절되고 있었다.

제17연대장은 연대정보주임 柳[illegible]대위로 하여금 특공대를 조직케 하여 445高地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특공대장인 柳 대위는 대원 30여명에게 각기 수류탄 2발과 소총탄을 분배한 다음 445고지 하단부까지 2km 거리를 구보로서 행진하여 이 고지 하단부에 이르러 대원들을 산개시키고 고지 정상을 향하여 돌진해 갔으나 이미 적병은 퇴각한 뒤였으므로 고지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제3대대 관측소부근에 이르러보니 적 부상병 12~13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동무" "동무"하면서 손을 흔들



〈安康지구 전승비(碑文 判讀不能 : 원문 손상)〉

고 있는가 하면, 아군 부상병 20여명이 위생병을 부르면서 신음하고 있었고 피아군의 시체 200여구가 뒤섞여 있어 피아 혈투(血鬪)을 하고 난 다음의 처절한 모습을 엿보이게 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제17연대장은 아군 부상병을 응급치지케 하였으며 잔존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하는 동시에 특공대장 (樹대위)으로 하여금 제3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illegible] 제18연대는 仁庇洞의 [illegible] 적과 대치하고 9월 1일밤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방어선이 돌파당하게 되자 연대장은 연대병력을 재수습하고는 永川을 경유 3일 慶州로 이동하였다. 이때 제18연대 제3대대는 永川 방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8사단에 배속되었다(배속해제 9월8일).

제18연대 진지에 공격하여 온 적은 그 뒤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써 雲住山을 경유하여 아군 후측방(後側方)으로 남하하다가 3일 밤에는 安康 西쪽 5km지점인 玉山里에 나타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玉山里에 침투하여 安康을 위협하고 있던 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孝子洞에 위치한 제26연대를 제3사단에서 수도사단으로 배속 변경하여 安康 부근으로 이동케 하였다. 제26연대는 차량이동으로 安康에 도착한 다음 연대전방 지휘소를 개설하는 한편 제3대대를 安康 西쪽 3km의 "수인리"로지 일대를 점령케 하고 제2대대를 제3대대 右측방에 배진하였으며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安康에 위치케 하였는데 일선 대대가 부대배치하는 동안 적의 포탄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445高地 부근에서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려 오던 제17연대도 제1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3일 12.00경 安康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있었다.

安康에는 제26연대 지휘소와 제17연대 철수병력, 그리고 제1연대의 보급부대가 위치하

고 있었다. 이날 밤 적의 유격대가 아군 진지를 교란할 목적으로 安康에 침입하여 피아간에 교전이 있었으나 아군의 응전으로 적은 4일 아침 퇴각해 버렸다.

9월 4일 : 02.00경 安康驛에 위치하고 있던 제17연대 지휘소에 사단 연락장교가 사단 작전명령을 휴대하고 찾아 왔는데 작전 명령에는 투명지 한장 분이고 말미(末尾)에 "전진하라. 송요찬 이상" 하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제17연대장은 부연대장(申東雨 중령)하고 5만분지 1 지도에 작명 투명도를 맞추어 보니 安康 邑에서 南쪽으로 4km지점 土方里 昆季峰(△293)에 원을 그려 놓고 이곳에 화살표가 되어 있었다.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작명을 구두로 하달하고 4일 03.00까지 甲山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제1군단장은 전세가 아군에 이롭지 못하게 되자 4일 10.00에 전선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려고 수도사단 右측의 제1연대를 兄山江 이남 虎鳴里 선으로, 중앙부대인 제17연대를 甲山里 선으로, 그리고 左측부대인 제26연대를 慶州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7연대는 15.00에 甲山里 부근에 진지점령을 완료하였고 제26연대(3대대결)는 16.00에 慶州 東部里에 집결 완료하였다.

有琴里 220高地 부근에서의 제1연대는 左측 부대인 제17연대의 安康 이남으로의 이동과 右측 부대인 제3사단의 兄山江 이남으로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浦項방어선상에서 마치 돌출부를 형성한 양 고립 상태에 있었으나 계속하여 적 약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의 남하를 힘을 다하여 막아내고 있었다.

9월 4일 아침 제1연대는 적의 증강된 압력을 받고 良洞里 부근에서 병력을 집결시켜 재편성하고 있던 중에 제1군단으로 부터 철수명령을 받았다. 여기서 이 연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兄山江을 건너 虎鳴里 일대에서 다음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선을 편성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8월 초순에 杞溪 北쪽에서 북괴 제12사단이 출현함으로써 시작된 杞溪, 安康 전투는 9월 4일 수도사단의 방어선이 安康 南方(慶州 北쪽)으로 이동함을 계기로 다음에 기재되는 慶州 北방 전투에 이어지게 되었다.

이 전투기간 중에 아군의 제25연대, 제26연대, 제18연대, 기갑연대, 제1연대 및 해군육전대는 용전 분투하여 이 지역에 침투한 적을 막아내는데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던 것이다. 비록 수도사단의 방어선이 安康 南쪽으로 물러서기는 하였지만 이 지역의 방어전으로 적이 최초 기도하였던 慶州방면 진출을 20여일동안이나 지연시켜 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아군은 고귀한 피(血)를 지불하여 귀중한 시간(時間)을 얻게 된 것이니 이 귀중한 시간은 慶州北방에서의 아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였고 나아가 洛東江 방어선에서의 총반격전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교 훈

◇ 전투간 신병 교육 실시

군은 적의 남침 이후 충분한 부대 교육을 실시치 못하였으며 전황의 추이에 따라서 보충되는 신병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이 충분치 못하고 있었다. 군대 교육은 전투의 원동력이 되며 그 결과는 실전에 있어서 여실이 나타나게 됨으로 각급 지휘관은 전투간에 전개되는 각종 상황 밑에서도 "실전 즉 교육(實戰卽敎育)"이란 관념 밑에 보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연대는 安康 전투때 신병을 보충 받고 신병을 싸움터에 출동시킬 때 처음에는 수류탄만 휴대케하여 담력을 기른 다음 소총을 지급하여 소총의 진귀함을 인식케 하였으며, 또한 전투가 끝나면 전투에 관한 검토를 하여 화기배치는 어디가 잘못되었나 등을 연구하여 결점을 시정하면서 작전하였으니 신병의 손실이 적었으며 효과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었다.

◇ 반격(反擊) 작전 때의 유의 사항

총공세(總攻勢) 전에도 각 부대는 반격 작전을 자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반격의 목적은 적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아군 진지에 대하여 협동공격을 못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杞溪가 적 수중에 들어가게 된 뒤로도 적의 남진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수도사단은 右측부대인 제1연대, 중앙부대인 제17연대, 그리고 左측방의 제18연대가 반격작전을 자주 실시한 결과 杞溪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적을 飛鶴山지역으로 퇴각케 하고야 말았던 것이니 반격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전과를 올린 일례라 할것이다.

◇ 일선 지휘관의 판단의 효용성

상부의 철수명령이 있을 때 일선 지휘관은 현황을 판단하여 그 시기에 관하여 건의를 함으로써 군작전에 크게 기여한 전례가 있다.

8월 30일 杞溪 北쪽에서 작전 중이던 제17연대는 수도사단장으로부터 주간 철수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연대는 그때 적과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인접부대인 제18연대장과 상의하여 주간에 철수함이 불리한 점이 많음을 건의하게 되어 결국 야간에 철수함으로써 작전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참전자의 증언

제17연대장 金熙瀍 중령

(68년 9월 2일, 자택에서 (豫)준장)

杞溪 부근에 적정이 있게 되자 먼저 제25연대(兪海濬 중령)가 출동하고 있었는데 적의 남침을 저지하고 있던 이 연대는 야간에 적의 기습을 받고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당시 제17연대는 玄風에서 安康으로 출동하라는 명을 받고 安康 東쪽 良洞 국민학교부근에서 진지를 점령한 다음, 良洞里 北쪽에서 침투해 온 적과 교전

하여 이를 격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25연대가 무너지게 되자 제17연대가 제25연대 지역을 인수 받고서 445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사포 1개중대와 산포(散砲) 등의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가면서 金鳳榮 대대를 선두로 공격을 시작하여 445고지 능선일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제1연대가 安康에 도착하였으므로 良洞里부근의 우리 진지는 제1연대에 인계하여 주었다.

제1군단장 金弘壹 장군으로 부터 제18연대를 주공(主攻)으로 하여 杞溪 西측에서 공격케 하고 제17연대는 조공(助攻)으로써 杞溪를 南쪽에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몇일간의 치열한 전투끝에 제18연대와 제17연대는 杞溪를 점령하고 말았다. 적은 飛鶴山지역으로 퇴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杞溪에 들어가 보니까 인민군 죽은 것이 몇 천명인지 모를 정도로 광장하였다. 우리는 杞溪에 연대본부를 두고 계속 적을 추격해 나갔다.

수도사단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 春 權소령

(68. 4.14 서울上道洞자택에서(예비역少將)

義城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던 제18연대 제1대대는 永川 지구에 투입되었다가 다시 義城을 거쳐 연대 주력이 있는 九川洞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18연대는 杞溪를 공격하라는 작명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사(戰史)에는 제18연대가 전부 安東부근으로 부터 공격해 들어간 양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리는 사실이다. 九川洞에서 나오고 道坪洞에서 나오는 길, 거기에서 南쪽으로 약 4km 접도되는 지점에 LD(공격 개시선)가 있었으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제1대대가 左측, 2대대가 右측에 배치되고 있었다.

공격을 시작하여 첫날에 진출한 곳이 立岩 조금 못 미쳐였는데 그때 적(북괴 제12사단)은 青松에서 道坪洞을 거쳐 立岩부근까지 들어 와 있었으며 일부병력은 계속 남하하여 雲住山에도 들어와 있었다.

이 지역의 우군 상황으로는 鄭 襄소령이 지휘하는 제1유격대대가 安康과 永川도로 중간에서 방어하고 있었으며 기갑연대 1개 대대가 제18연대 右측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뒤 제17연대가 義城에서 이동하여 慶州부근에서 安康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공격 시작 이틀날도 공격을 계속하여 전진하고 있었는데 목표의 선택이 시도를 잘못 봐서 적의 후면을 찌르는 바 되었는데, 이 순간 완강하게 저항한던 적은 갑자기 후면을 강타 당하게 되어 그들의 방어선이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杞溪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공격을 계속하여 杞溪부근의 고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한 다음 杞溪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적의 사단장은 雲住山에서 아군에게 포위 당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제3대 대정면으로 탈출해 버렸으니 여간 섭섭하지가 않았다. 이리하여 사실상 적12사단은 자리 멸렸되었고 우리는 이 적을 쫓아 飛鶴山으로 공격을 계속해 나갔다.

§ 참전자의 약력(연대장 이상)

白 仁 燁

1946. 1. 15 임관(軍英班)
1948. 8. 5 제12연대장
1948. 11. 26 제17연대장
1949. 7. 15 대령진급
1950. 8. 8 수도사단장
1950. 9. 1 육군본부부
1950. 9. 17 제17연대장

1950. 10. 24 준장진급
1951. 1. 14 육군제1훈련소장
1952. 1. 10 제6사단장
1952. 11. 15 소장진급

宋 堯 讚

1946. 5. 1 입관(軍英班)
1948. 6. 21 제11연대 부연대장
1948. 7. 15 제9연대장
1949. 5. 25 제6사단 10연대장
1949. 7. 15 대령진급
1949. 7. 30 육군보병학교장
1949. 9. 28 제15연대장
1950. 4. 18 육군헌병사령부사령관
1950. 9. 1 수도사단장
1950. 10. 20 준장진급
1952. 7. 8 소장진급
1952. 7. 30 남부지구경비사령관

韓 信

1946. 12. 14 입관(陸士 2期)
1948. 11. 29 제3여단 제18연대 제1대대장
1949. 11. 30 제18연대 부연대장
1950. 5. 1 제18연대장(중령)
1950. 8. 8 제1연대장
1950. 10. 20 대령진급
1951. 7. 23 제5군단 독립 1연대장
1952. 8. 10 제5사단 참모장
1953. 5. 5 제5사단 부사단장

金 熙 浦

1946. 12. 14 입관(陸士 2期)
1950. 7. 28 대령진급
1950. 8. 7 제17연대장
1950. 9. 7 제2훈련소부
1951. 2. 1 제9연대장
1952. 10. 8 제6사단 참모장
1953. 6. 28 제6사단부사단장

任 忠 植

1946. 6. 15 입관(陸士 1期)
1947. 10. 6 제3연대 제3대대장
1949. 3. 26 제12연대장
1949. 9. 20 태백전차 참모장
1949. 11. 13 수경사 제18연대장
1950. 8. 26 대령진급
1950. 12. 15 제1육군병원부
1951. 2. 5 제3사단 18연대장
1952. 9. 1 준장진급
1952. 9. 20 제7사단장
1953. 8. 19 헌병사령관

白 南 權

1946. 3. 23 입관(軍英班)
1947. 4. 3 제2연대 제2대대장
1949. 5. 25 제5연대장
1950. 5. 2 대령진급
1950. 8. 15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1950. 10. 24 수도사단 부사단장
1951. 5. 23 제3사단장
1951. 5. 25 준장진급
1952. 11. 15 소장진급

3. 慶州北方附近戰鬪 (50년 9월 4일부터 50년 9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0(No. 1~2)호
상황도 제 21 호
작명부록 제 50. 54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제1군단 장 군장 金 白 一
수도사단 장 대령 宋 堯 讚
제1연대 장 중령 韓 信
제1대대 장 소령 金 學 默
제2대대 장 소령 柳 恒 博
제3대대 장 대위 姜 琬 采
제17연대 장 대령 金 熙 濬
제1대대 장 소령 李 寬 洙
제2대대 장 중령 趙 榮 九
제2대대 장 소령 柳 昌 燻(9월12일부터)
제3대대 장 소령 柳 昌 燻
제3대대 장 소령 李 一 洙(9월12일부터)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1대대 장 소령 張 春 欌
제2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제3대대 장 소령 安 昶 一
기갑연대 장 대령 卩 南 權
제1대대 장 소령 丁 世 鎭
제2대대 장 소령 朴 道 源

적 군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12사단 장 소장 崔 仁 斗
제30연대 장 대좌 崔 赫
제3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배속부대

제3연대 장 대령 李 奇 建
제1대대 장 소령 朴 浚 鎬
제2대대 장 소령 崔 周 鍾
제3대대 장 소령 李 再 起
제26연대 장 대령 李 致 業
제3대대 장 소령 殷 碩 杓

협동부대

美 잭슨 및 처치부대
美 공군부대

병력 약 9,200명

장 비

105mm	유탄포	15문
81mm	박격포	76문
60mm	박격포	108문
57mm	대전차포	32문
3.5인치	로케트포	125문
2.36인치	로케트포	272문

제31연대 장 대좌 金 응
제32연대 장 대좌 金 學
제5사단 장 소장 馬 和 喆

제10연대 장 대좌 朴 炳 秀	장 비
제11연대 장 대좌 金 泰 文	122mm 유 탄 포 12문
제12연대 장 미 상	76mm 유 탄 포 20문
제105기갑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120mm 박 격 포 14문
제17기갑여단 장 미 상	82mm 박 격 포 68문
병력 약 6,500명	45mm 대전차포 32문
	전 차 50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적군의 상황 : 安康, 杞溪 전투에서 용전을 거듭하던 수도사단이 전선(戰線) 정리차 9월 3일 慶州 北쪽 甲山里 부근으로 진지를 이동함에 따라 북괴 제12사단은 그 주력을 安康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浦項 지역의 북괴 제5사단과 협조하면서 전략적 요지인 慶州 지방을 제압함으로써 아군에 대한 포위망을 東측에서 급격히 압축하여 단시일내에 아군의 최후거점인 釜山을 탈취하려 하였다.

북괴 제12사단은 8월 17일 杞溪 전투에서 패배하자 飛鷄山으로 퇴각하여 유격대인 제766부대를 흡수하고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재편성을 마친 이 사단은 8월 22일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立岩里 부근에서 雲住山을 경유 玉山里—安康으로 지향하였고, 다른 1개 대대 병력은 飛鷄山에서 남진하여 杞溪를 경유 老堂里 445高地에서 아 제17연대와 대치하게 되었다.

이 사단은 9월 2일 수도사단 방어선을 전면에 걸쳐 돌파하여 9월 4일 安康에 집결 하고 다음 공세를 준비 중이었다. 이 부대는 원래 중공군 출신의 노병(老兵)이 많아 전투 경험이 풍부한 편이나 아군의 공군 및 지상군으로부터의 출혈 강요로 말미암아 인적 손실이 많았고 특히 보급추진이 부진하게 되어 사기는 저하되고 있었으며 이 사단의 병력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었다.

아군의 상황 : 9월 3일 미명(未明) 수도사단 정면의 적은 전면적인 공세로 나왔기 때문에 아군은 慶州 北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형성하여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하였다.

이때 제17연대는 安康 南쪽 甲山里에 배진(配陣)하고 있었고 제1연대는 虎鳴里에 신진지를 구축 중이었으며 제18연대는 慶州에 집결중이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지구에서의 아군의 방어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사단 예하 제3연대를 급거 慶州 北쪽으로 출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제3연대(1개 대대 결)는 육본작명 제160호 (작명부록제50호)에 의하여 9월3일 16.20에 大邱를 출발, 19.45 慶州를 경유하여 20.30에 목적지인 山田里에 진출하였다.

이어 제3연대는 제2대대를 예비대로서 山田里에 배치하고 제3대대는 武陵山 능선 지대을 점령하여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美 제8군특수 임무부대장인 폴터소장은 수도사단이 安康 南쪽에 새로운 방어진을 형성하자 浦項 南쪽에 있던 美 21연대를 慶州 西北쪽에 배치케 하여 수도사단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다.

본항(本項)에서는 제1연대의 虎鳴里 방어전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제17연대의 甲峰里 전투와 제

18연대의 南溪洞 부근 전투를 기술하였으며 또 제3연대 상황과 9월 5일에 이 지구에 전투참가 하게된 기갑연대 상황은 각 전투의 사이에 다루었으며 끝으로 9월 13~14일부터 시작되는 반격전은 편의상 각 연대별로 기술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제1연대의 虎鳴里 방어전 (9월 5일~9월 9월)

9월 5일 : 제1연대가 虎鳴里 선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에 5km 후방인 毛兒里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사단 전방지휘소는 4일 17.00경 적의 기습을 받고 있었다(註 참조). 이사실은 사단 참모장(李尙根 중령)일행이 5일 06.00경 제1연대 지휘소에 오게 되므로써 알게 되었다.

이 당시 적정은 北쪽에는 良洞里, 東쪽으로 洪溪洞, 西쪽으로 羅原里, 南쪽에 毛兒里에 있었으니 제1연대는 고립상태에 있게 된 것이다.

제1연대장은 제1대대, 제3대대, 제2대대순으로 "용당"부락 고지를 중심으로 사주방어를 실시케 하는 동시 각대는 경계를 엄히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5일 10.00경 제1군단장은 L-19 비행기로 제1연대 상공에 나타나 통신통을 투하하고 돌아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연대장 앞

적은 慶州로 향하여 계속 남하중에 있다. 전세가 불리하니 현위치에서 방어하다가 적기(適期)에 毛西里 선까지 철수할 준비를 갖추라. 제1군단장 육군준장 金白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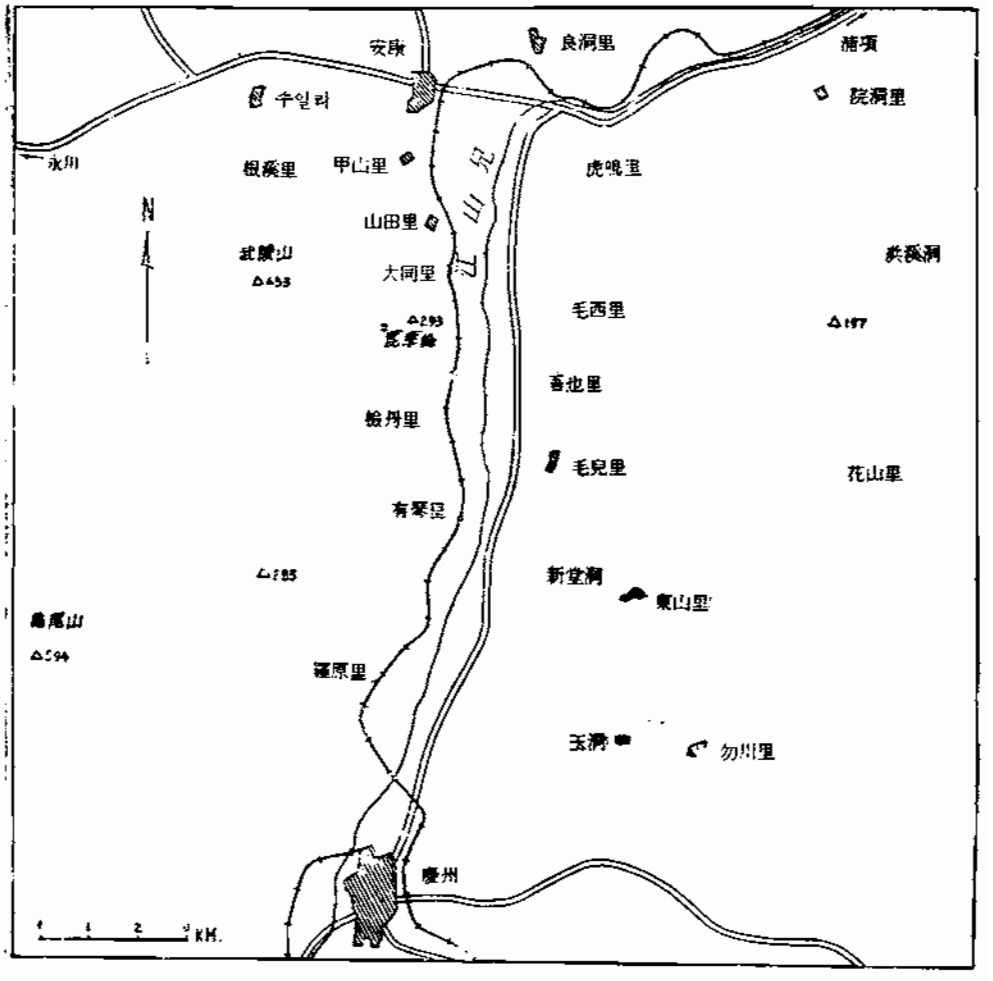
제1연대장은 대대장과 참모를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열고 상황판단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현 虎鳴里 선에서 3km 후방인 毛西里 선으로 철수한다면 그 지역이 구능지대로서, 야산 개활지이기 때문에 방어진지에 부적합하다.

2. 철수하자면 적전 돌파이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클 것이다.

3. 식량은 건빵이 1日분이 있고 백미도 1日분이 있기 때문에 2日동안의 전투는 할 수 있으나 탄약은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1일 동안의 전투에 미흡하다.

상황도 제21호 慶州北方 부근 약도



4. 제17연대 정면이 돌파되어서 생긴 수도사단의 돌파구에 다른 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하고 安康 선까지 진출할 때 제1연대가 측면 지원을 한다면 그 성과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 제대에서 속히 반격을 시도한다면 제1연대는 현 방어선을 위치하고 있음이 군작전에 유리하다.

제1연대장은 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제1연대는 이 이상 철수하지 아니한다. 우리 연대 전 장병이 죽을 곳은 현재 이 진지 외는 없다. 모두가 철수를 원하지 말라. 전승은 기필코 우리가 이곳을 지킴으로써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북괴 제12사단의 주력은 9월 4일에 安康에 집결하여 제1연대 西측방 武陵山을 향하고 있었고 東측방에서는 북괴 제5사단의 1개 연대가 9월 5일에 有琴里에서 兄山江을 도하 남진하여 洪溪洞 부근을 경유하여 雲梯山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적 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제1연대의 虎鳴里 방어진지는 소규모의 정찰전이 있었을 뿐 한동안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9월 6일 :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 전방사령부가 적의 기습을 당하고 慶州에 이동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병력 증강책으로 현 방어선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어 하달된 제1군단장의 명령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9월 5일 慶州에 도착한 기갑연대는 수도사단 제17연대 左측방 武陵山을 점령하여 제3사단과 협동하여 남하하는 적을 섬멸하라.

2. 慶州에 집결중인 군단 예비대인 제26연대는 慶州에서 永川街道를 따라서 乾川里에 이르러 북방 龜尾山에 침입한 적을 무찌르라.

3. 9월 3일 永川에서 慶州로 이동한 제18연대는 수도사단 右측방 洪溪洞 197高地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적을 섬멸하라.

이상과 같은 부대배치로써 東측은 洪溪洞 부근에서 西측은 毘季峰 武陵山 까지를 연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일대 반격전을 감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제1연대장은 제1군단장으로부터 전화로서 제1연대의 毛西里 선까지의 후퇴 명령을 받게 되었으나 현 방어진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허락을 받고 虎鳴里진지 사수(死守)를 계속하게 되었다.

9월 7일 : 09.00경 제1군단 작전참모(金鍾甲대령)가 L—4 연락기로 제1연대의 상공에 나타나 「右측 제17연대가 毘季峰에서 격전중이고 제3연대가 분산되어 전세가 불리하니 속히 제1연대는 예정된 진지(毛西里 선)로 철수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이 든 통신통을 투하하고 돌아갔다.

이날 수도사단 방어선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7일 02.00경 북괴 제12사단 1개 연대는 우 제17연대와 제3연대의 방어 정면으로 공격해 왔는데 아군은 이들 적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던 중 04.00에 수 미상의 적이 山田里로부터 아군의 간격을 뚫고 침투해 왔으나 이 적은 10.00경 제17연대 본부요원으로 구성된 1개 소대 병력에 의해 격퇴되고 말았다.

이때 적 주력은 제3연대 정면 武陵山을 향하여 공격해 왔으며 전투는 17.00까지 계속되었다. 적은 제3연대의 일부진지를 돌파하여 大同里에 침입하였으며 일부 병력으로 山田里 北쪽에 배치 중인 제17연대의 左측 후방을 우회하여 공격해 왔다. 이에 제17연대는 급히 부대를 이동시켜 昆季峰에 방어진을 펴게 되었으며 제3연대는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여 檢丹里 일대에 배치하여 이 선에서 적을 막아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단 右측 부대인 제18연대는 洪溪洞 197高地에 침입한 적 1개 대대와 교전 중에 있었다(제18연대 洪溪洞부근전투 참조).

한편 군단 예비대로서 慶州에 대기중이던 제26연대는 慶州 西北쪽 龜尾山(△594)에 적정이 나타나게 되자 급히 출동하여 8일 오전 이 고지를 완전 확보하였다. 그뒤 제26연대는 군단 작전지시 제4호에 의거 9월 9일 浦項 지구로 이동하여 제3사단의 지휘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육본작명 163호(작명부록 제54호)에 의거 9월 5일 慶州에 도착하게 된 기갑연대는 제3연대 접령지역인 檢丹里 부근에 위치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1연대는 左右 양쪽에 적정이 있었던 것인데 제1군단장 한테서 毛西里선까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연대장은 군령은 태산같이 엄하고 무거우나 일시적 후퇴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이점과 이곳을 고수함으로 얻어지는 이점을 감안해서 현 방어선을 끝까지 고수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8일과 9일 양일간에 慶州—安康 가도를 중심으로 西측에는 북괴 제12사단이, 東측에는 북괴 제5사단이 강우(降雨)로 인하여 아군의 공군활동이 제한받게 됨을 호기로 간주하고 수도사단 전면에 걸쳐 일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9월 8일 : 15.00 경에 제1연대 제1대대 정면에 북괴 제5사단 제10연대의 일부 병력이 공격해 왔는데 제1대대(金學默소령)는 대기하고 있다가 침입해 온 적병을 일제 사격으로 격퇴하고 말았으니 적은 수 10구의 시체를 남겨둔 채로 洪溪洞 방면으로 퇴각하여 버렸다. 적의 시체를 살펴보니 그들은 떨어진 농구화를 신고 있었고 배낭 안에는 대맥분 1홉과 약간의 콩이 들어 있을 뿐이었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 적군의 보급은 극한점에 달해있는 것 같았다. 연이나 이 당시 적은 식량 사정이 극히 불량해져서 그들은 민간인의 식량을 강제로 약탈하거나 민가가 없는 산악지대의 적은 거의가 굶주리고 있었으니 발악적으로 공격하여 온 것도 실은 식량을 얻으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9월 9일 : 제1군단장은 11.00경 제1연대 지휘소를 순시하고는 제1연대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미군의 지원부대가 慶州에서 이곳까지의 주보급로를 개척할 것과 우리는 전승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갔다. 이로서 제1연대의 3일간에 걸친 虎鳴里 사수전은 끝을 맺게 되었는데 연대장이하 전장병의 한치도 우리땅을 적의 수중에 들게 할 수 없다는 투혼은 洛東江 방어전의 거울이 되었다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수도사단 전방지휘소 피습

9월 4일 제17연대는 북괴군의 전면 공세로 말미암아 安康에서 甲山里 고지대로 이동하여 새로운 방어진을 구축중에 있었다. 이날 제17연대의 左측 부대인 제3연대의 일부 진지가 적에게 돌파당하게 되자 이 당시 毛屹里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사단 전방지휘소는 西측방으로부터 적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같은날 17.00 경 사단지휘소 西側方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드니 그 순간 누구인가 "적이다"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윽고 적의 제1탄은 사단장이 있는 지휘소 천막에 구멍을 내고 있었으며 사단 통신소에도 적의 집중사격이 가해져 통신은 두절상태에 놓여 있었다. 지휘소 요원은 흩어졌으며 사단장은 연락병과 같이 南쪽방면으로 가게되고, 참모장(李尙根중령)은 작전과장(權泰日중위)과 함께 北쪽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정보참모(黃哲顯중령)는 군수참모(洪聖俊소령)와 함께 지휘소를 나와 300m 北쪽에 위치하고 있던 사단 수색중대(당시 사단예비대로서 병력은 약 100명 정도였다)에 이르러 즉시 응전태세를 갖추어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적병은 神堂里 방면으로 도주하였다(적의 병력은 그뒤 1개분대 정도로 추산되었다).

밤이 되어 총소리는 잠잠해졌으나 적정은 아직 불명하므로 사단지휘소 잔존병력의 선임자인 정보참모는 사단후방지휘소(慶州시내 鷄林國民學校)로 후퇴할것을 결심하고 慶州가도로 나서게되었다.

그때 慶州가도 부근에는 靑송里 부근에서 침투한 적이 준동(蠢動)하고 있어서 慶州로 가는 후방도로가 완전 차단상태에 있었다. 철수부대는 마침 주변에 있던 미군 보급부대(차량 5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5일 04.00경 무사히 慶州에 도착하였다.

정보참모는 즉시 제1군단 사령부로 출두하여 상황을 보고한 다음 08.00 경에 계림국민학교에 수도사단 전방지휘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한편 행방을 몰랐던 사단장은 16.00 경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발에는 흰 고무신을 신고 전방지휘소에 나타났다. 몸집이 큰 사단장의 안색은 너무나 피로해 보였다. 이어 北쪽으로 피신했던 참모장 일행도 돌아 와 사단지휘소는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제17연대의 毘季峰 전투(9월 6일~9월13일)

9월 4일부터 제17연대는 安康에서 이동하여 甲山里 고지대에 새로운 방어진을 구축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고 있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이 安康 방어선서 물러나게 되자 美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美 8군에서는 처치 준장으로 하여금 7일 책슨 특수임무부대의 임무를 인수하여 이 부대를 慶州에 투입키로 하였던 것이다(美 특수임무 부대의 활동 참조).

9월 6일 : 이날 04.00 경 山田里 北쪽을 점령하고 있던 제17연대는 적 약 2개 중대가량의 병력으로 부터 左측 후방을 공격받고 부대를 이동시켜 慶州가도 西쪽에 위치한 昆季峰(△293)을 점령하게 되었다.

제17연대가 점령한 昆季峰은 安康邑 中山里와 土方里에 속해 있으며 安康—慶州南道 西측방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武陵山(△495)의 한 지맥이 東쪽으로 뻗어 협곡을 이루면서 끊겼다가 다시 우뚝 솟은 이 봉우리는 해발 293m의 독립된 봉우리로서 南北이 2.5km, 東西 1.8km에 달하고 있다. 이 정상은 시계가 좋아서 北쪽으로 4km 지점인 安康을 한 눈에 볼수 있고 더 멀리 20km지점 淸河面까지도 전망할 수 있으며 南쪽으로는 20km 지점의 佛國寺까지도 관망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杞溪, 安康, 慶州를 연하는 종격실(縱隔室)을 장악할 수 있는 주요지물이다. 昆季峰 東쪽 하단부에는 東海南部線의 철도가 南北으로 통하고 있고, 安康—慶州로 통하는 도로가 철로에 따라 뻗어있는데 이 철도와 도로의 중간에는 兄山江의 평균수심 30~50cm에 달하는 물 줄기가 南쪽에서 北쪽으로 흐르고 있다.

제17연대가 昆季峰으로 이동함으로써 수도사단의 정면에는 종심 4km, 폭 5km의 돌파구가 형성되었으니 제1군단장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되겠다고 결심하고 수도사단장에게 昆季峰 선에서 적을 하루빨리 축출하고 최소한 安康 선까지 반격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도사단장은 돌파구의 회복을 위해 사단 일반참모급에서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교대로 일정시간에 일선연대를 순방하고 작전상황을 현지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9월 7일 : 이날 밤에 昆季峰을 공격 중인 적의 일부 병력은 제17연대의 左측방의 능선을 타고 우회하여 靑송里 300高地에 침투하여 왔는데 이 300高地 하단부에는 아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永川부근에서 慶州로 이동하여 온 처치 특수임무부대 소속 美 제17연대 제2대대가 집결하고 있어 피아격전을 벌인바 되었다(美 특수임무부대 활동참조).

제17연대는 22.00 경 적의 내습으로 昆季峰 정상에서 8부 능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나 적의 계속적인 강압으로 말미암아 8일 03.00 경 昆季峰 東측 하단부로 다시 이동하여 부

대 배치를 하고 차기 공격에 대비하게 되었으니 곧, 제1대대는 東海南部線 철도변과 東측 개활지를 포함하여 昆季峰 北측을 경계 및 방어케하고, 제2대대는 昆季峰 정상을 공격 탈환하도록 하였으며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제2대대 직후방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9월 8일 : 06.00를 기하여 제2대대(趙榮九중령)은 昆季峰을 공격하여 적의 저항을 부쉬르고 10.00 경 이를 일단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날 21.00 경에 수미상의 적으로부터 내습을 받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9월 9일 : 아침 제17연대가 昆季峰에서 8일 밤에 철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수도사단장은 제17연대 제2대대장에게 빨리 공격하여 昆季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대대장은 부대원을 독려하는 한편 美 제13야포대대의 직접지원을 받아가면서 13.00경 昆季峰을 재차 점령하였으나 이날밤 적의 야간공격을 받고 20.00 경에 또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22.00 경에 이 보고를 받은 수도사단장은 제17연대장에게 즉시 昆季峰을 재점령하라고 독촉하였으니 제17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야간이지만 공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일 10일 새벽에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하였다.

9월 10일 : 제2대대는 10일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09.00 경 그 정상까지 진출하였는데 이때 昆季峰 후사면으로 퇴각한 적은 점차 병력을 수습하여 반격해 왔다. 적의 저항이 의외로 강하였으므로 제2대대장은 연대장에게 포병의 화력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미 포병대와 아군 포병대의 집중사격이 적진에 가해졌으며 또한 공중으로부터 전투기의 기총사격이 가해지게 되자 적은 北쪽으로 퇴각해 버렸다.

그런데 15.00 경 昆季峰의 방어진지에는 적 약 1개 중대가량의 병력이 또다시 수류탄을 던지면서 육박해 오자 제17연대 제2대대는 이들 적과 과감히 싸우다가 16.00 경 昆季峰 東측 하단부 원위치로 되돌아와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재편성이 끝나자 20.00에 야간공격을 계획하였으나 야간 전투에 아직 미숙한 병사들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획된 공격을 중지하고 대기상태에 있게 되었다.

昆季峰 공방전에서 적은 주간공격보다 야간공격을 주로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주간에는 아군의 항공기와 포지원사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9일 11일 : 이날 아침에 수도사단장은 제17연대가 昆季峰을 확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수도사단 돌파구에 대한 총반격을 구상하고 사단 작전참모(李 龍중령)에게 전방부대

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사단 작전참모는 제17연대 지휘소(毛西里 西坪부락)에 와서 마주편 昆季峰을 바라보다가, 그 하단부에 병력이 모여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대대 박격포 진지가 어제보다 500m 후방인 연대지휘소 옆에 있음을 보고 제17연대장에게 문의한즉 어제밤 제2대대가 후퇴하였기 때문에 방금 재공격중이라는 것이다.

전장(戰場)순시 중이던 사단 작전참모는 제1연대와 기갑연대 진지도 아울러 돌아보고 나서 13.00경 사단지휘소에 돌아와 사단장에게 제17연대 상황은 사실대로 보고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제17연대장과 제2대대장을 전화로 나무라면서 昆季峰 재공격을 명하게 되었다.

9월 12일 : 제17연대 제2대대는 04.00에 昆季峰을 향해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昆季峰 8부 능선까지는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곳에서 예기치 아니한 적의 반격으로 피아간에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제2대대의 공격은 12.00가 지나도 아무런 전진이 없게되었다. 이와 같이 제2대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수도사단장은 대대장의 교체를 결심하고 제2대대장에 제3대대장인 柳昌燁소령을 전보(轉補)하는 한편 제3대대장에는 연대 작전 참모 李一洙 소령을 임명하게 되었다.

새로 제2대대장에 임명된 柳昌燁소령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목표를 공격케 한 결과 이 특공대는 이날 16.00경 昆季峰정상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지원하러 파견된 아군 포병관측수의 착오로 昆季峰 정상에 집중 포격을 함으로써 아군 특공대원 12명이 전사하게된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다. 상황이 이와 같았음으로 제2대대장은 昆季峰 8부 능선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9월 13일 : 제2대대는 15.00에 昆季峰에 다시 진출하여 17.00에 이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동안 7차에 걸쳐서 전개된 昆季峰 공방전은 결국 아군 제17연대 장병의 피어린 투지로써 승리로 끝을 맺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도사단 정면의 돌파구는 회복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으니 동해안 전선에서 9월 총 반격작전의 준비작업인 전선정리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제18연대의 洪溪洞부근 전투(9월 6일~9월 13일)

9월 6일 : 9월 5일에 慶州에 집결하고 있던 제18연대(제3대대 결)은 慶州 東쪽 勿川洞 부근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 당시 사단 전방지휘소(毛兒里 위치)가 피습당하게 되자 이 연

1대는 급히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이미 적정은 없었다. 6일 적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수도사단의 東측 부대인 제3사단 제22연대 지역으로부터 침투해 왔는데 이들 북괴 제5사단에 소속된 적은 洪溪洞, 雲梯山을 우회하여 迎日 비행장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군단에서는 제18연대(1개대대 결)를 이 지역에 출동시켜 左측부대인 제3사단과 협조하여 적의 야욕을 분쇄하고 이 지역에서 적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9월 7일~9일 : 제18연대는 7일 洪溪洞 北쪽 197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공격부대는 아직 적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척후(斥候)를 보내 놓고 수 100m 나가서 이상(異常)이 없으면 전진하고 있었다. 8일과 9일 양일은 별다른 적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경계를 엄히하고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9월 10일 : 이 연대 제1대대(張春權소령)는 197高地 능선을 타고 적 1개중대 가량의 병력이 보급품을 짊어지고 雲梯山으로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기 중에 있다가 적이 거의 100m 정도의 거리에 이르자 박격포, 기관총, 소총 등으로 일제사격을 퍼부어 적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고 이어 달아나기 시작한 잔적을 추격하여 적을 격멸함과 동시에 12.00 경 마침내 197高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雲梯山에 잠입한 적은 완전히 아군의 포위하에 들게 되었으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돌파구는 제18연대에 의해서 연결을 잇게 되었다.

9월 11일 : 제18연대는 제2대대로 하여금 兄山을 점령하여 현 위치에서 차단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제1대대는 197고지 西쪽에서 경계임무를 맡아 보게 하였다.

9월 12일 : 雲梯山의 적은 제3사단과 美 처치 특수임무 부대의 공격을 받고 진지를 포기한 채 퇴각하기 시작하였는데 적의 퇴각로는 제18연대와 左측 제1연대의 중간지역으로 지향되고 있었다. 퇴각하는 적은 제1연대와 제18연대 양측의 기관총 차단으로 목숨이나 건져보려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지원포병의 포격과 보병의 일제사격으로 전멸하고 말았다. 이때 적은 2,000명이 사살되고 50명이 포로가 되었다 한다(당시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 소령 증언).

9월 13일 : 제18연대는 현진지를 제3연대에 인계한 다음 安康 西南쪽의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1연대 左측에 진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4) 安康, 杞溪지구 반격전(9월 14일~9월 22일)

총 반격전을 위한 전선정리 : 9월 13일 하달된 정보 보고에 의하면 북괴 제15사단 일부병

력이 永川 부근에서 퇴각하여 東쪽으로 이동중에 있었으며 제12사단은 兄山江 북안(北岸)으로 퇴각하여 有琴里 고지 일대에 잔류병을 집결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적의 전세가 쇠퇴해지자 아군은 방어태세로 부터 공격태세로 전이(轉移)하여 적을 격멸하고자 일부 부대의 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제3연대는 담당방위 정면을 제17연대에 인계하고 부대를 기동시켜 東山里를 경유, 右측부대인 제18연대 전구(全區)를 인수하게되었고 제18연대는 부대 이동하여 虎嗚里 西측 능선에서 毛西里 西측에 이르는 능선 일대를 점령하게 되었다.

9월 14일 : 제1연대 정면의 북괴 제15사단은 安康 선에서 浦項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공격태세로 전이(轉移)한 아군은 각선에서 총공격을 감행하여 퇴각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하였다.

제17연대는 昆季峰 北쪽에 위치하고 있던 적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한 결과 이를 완전히 격퇴하고 이어 安康 부근으로 패주하는 적병을 추격해 나갔다. 또한 院洞里 부근의 제3연대는 兄山江을 중심으로 하여 적에게 맹타를 가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새벽 浦項 北쪽 16km 지점의 長沙洞 해안에는 密陽 유격대가 상륙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의 목적은 북괴 제5사단의 후방을 차단함과 동시에 仁川上陸作戰에서의 양동작전(陽動作戰)을 수행하는데 있었다(제7장 仁川上陸作戰, 長沙洞 기습전 참조).

9월 15일 : 제18연대는 安康 南쪽의 大同里 부근의 능선지대에서 잠재 중인 적을 공격하여 피아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아군의 공지협동전(空地協同戰)이 주효(奏效)하여 이 지대의 적은 北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제1연대는 제1대대를 良洞里 부근 일대에 배치하여 安康을 측방으로 위협하였고 제2대대는 제3연대의 일부 병력과 함께 有琴里와 院洞里 일대에서 경계에 들어갔으며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虎嗚里 東쪽 2km 지점에 위치하여 杞溪, 安康 지구에 증원되는 적을 견제하고 있었다.

기갑연대는, 慶州를 점령할 야욕으로 武陵山에 그 본거를 두고 300高地 및 344高地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면서, 安康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수도사단 중앙 방어선을 담당해 오던 제17연대는 육본작명 179號에 의하여 수도사단에서 예속이 해제되어 육군본부 직할부대가 되는 동시 작전 지역을 기갑연대에 인계하고 15일 12.00에 釜山으로 이동하였다(이 연대는 뒤에 仁川上陸作戰에 참가하였다).

(5) 기갑연대 반격전(9월 15일~20일)

기갑연대는 15일 23.00, 武陵山 344高地 일대에서 공격해 온 적에 대하여 항공 및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가면서 반격으로 나서 16일 05.00에 6시간동안에 걸친 치열한 적과의 교전 끝에 344高地 일대를 점령하고는 계속하여 北쪽으로 분산 패주하는 적에 일각의 여유도 주지 않고 추격하여 琵琶峰을 거쳐 山田里, 甲山里 西쪽 능선 일대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9월 18일 12.00에는 적의 집결지인 安康을 점령한 다음 20일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9월 21일 : 기갑연대에 의하여 安康에서 격퇴당하게된 적 약 1개 연대는 六通里, 老堂里 北쪽의 445高地 부근에 집결하고는 견고한 중화기 포진지를 구축하고 최후발악적으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적은 아군의 공군 및 포병대의 맹렬한 폭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右측 제1연대 정면의 적과 호응하여 기갑연대의 진격로에 집중포화력을 가하고 있었다.

기갑연대는 비록 충분치 못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었으나 사기가 왕성하여 육박공격으로써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가며 전진해 나갔다.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445高地 부근에 대한 총공격은 정오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고 있었는데 아 공군이 적의 집결지인 老堂里, 杞溪 방면에 맹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아군의 육박공격은 계속하였다. 아군의 맹공에 그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적 주력은 지리멸열 상태에 빠져 杞溪里에 환자만 남기고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아군은 12.10에 445高地 일대를 완전 점령하고 8월 중순부터의 격전지었던 이고지 정상에서 감격어린 한 때를 지냈던 것이다.

9월 22일 : 기갑연대는 전진도로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탐지하면서 적을 계속 추격하여 이날 10.00에 杞溪里—芝村里를 점령한 다음 야포, 대전차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立岩을 공격 전진하였다. 이 지역의 적은 이미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道坪 방면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6) 제18연대 반격전

9월 16일~17일 : 제18연대는 제1대대를 左측, 제3대대를 右측, 제2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9월 16일 05.30에 銀溪里로 통하는 安康, 慶州가도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연대는 13.50에 銀溪里 일대의 목표 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속 진격하면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해 나가고 있었다.

9월 18일 : 제1대대는 563高地 南端에, 제3대대는 445高地 下端에 진출하였으나 적의 저항으로 그 이상의 진출은 멈추고 일단 대기 중이었다.

9월 19일 : 제18연대 제1대대는 제1중대를 563高地 남방 산록 차폐지에 배치하고 그 후면에 제3중대를 배치한 다음 이날 17.00에 563高地 左측 고지 일부를 공격하여 20.40에 이르러 이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연대 제3대대는 19일 03.00에 445高地 부근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여 08.00에는 이 고지 중복까지 진출하였으나 정면 및 측면으로부터 적의 화력이 집중하므로 공격을 한때 멈추게 되었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2대대는 玉山里 부근으로 이동하여 제7중대를 道德山(△703)에, 제6중대를 563高地 左측에 각각 배치하고 이 부근으로 침입하는 적을 저지하는 한편 563高地 공격을 지원케 하였다.

9월 20일 : 563高地 左측면을 점령한 제1대대는 이날 09.00에 563고지 右측면을 공격하다가 적의 저항으로 일시 공격이 중단되었으나 잠시후 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적은 563高地 左측면에 침투하여 왔으므로 피아간에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아군은 12.30에 이르러 침입해 온 적을 격퇴하여 563高地 左측면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제2대대 제6중대는 563高地 左측 후면고지에서 제1대대와 합동하여 563高地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 주력은 玉山里에 이동하여 高龍洞 부근의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9월 21일 : 제18연대 제1대대는 계속해서 진지방어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07.00에 기동을 시작하여 491고지를 경유하고 이 능선에 연하는 移來峴(鳳溪洞 南쪽) 右端 고지 일대를 17.40에 완전히 점령하고 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또한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玉山里에 집결하여 563高地 左측 능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측방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었다.

9월 22일 : 이연대 제1대대는 21일에 이어 563高地를 탈환하기 위하여 이 고지 좌단부(左端部)에서 공격 전진하였다. 이 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이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았는데 실로 다섯번 빼앗기고 6번 점령한 것이다. 이 대대는 점령한 563高地를 기갑연대에 맡기고 바로 玉山里 南쪽의 도화동에 집결하여 숙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2대대는 이 날도 공격을 계속하여 대대관측소를 491高地에 이르는 무명고지까지 전진시켰으며, 제3대대는 예비로 있다가 전방에 투입되어 移來峴 계곡에서 鳳溪洞을 거쳐 上伊洞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9월 23일 : 22일 재편성을 마친 제1대대는 移來峴 숙영지를 출발하여 도보행군으로서

仁庇洞, 南溪洞을 경유하여 19.00에 新堂에 진출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24.00에 수미상의 적의 침입을 받아 치열한 교전끝에 적을 北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제2대대는 연대의 공격 제대로서 23일 08.00에 鳳溪洞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架安里 南쪽의 405고지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芝柯里 南端의 602高地에서 잔적들이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무찌르고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18연대는 수도사단의 左측부대로서 9월 23일 현재 芝柯里선까지 진출하여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계속 전진하였다.

(7) 제1연대 반격전

9월 17일~18일 : 수도사단 右측 제대인 제1연대는 9월 17일 제1대대로 하여금 110高地를, 제2대대는 104고지를 목표로 공격전진케 하였다. 18일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이 목표를 공격한 다음, 연대목표인 丹邱洞을 향해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제1연대 정면의 적은 북괴 제5사단 제10연대로서 그 주력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1개분대씩 유격전법으로써 아군의 전진을 완강히 가로 막고 있었다.

9월 19일~21일 : 적은 145高地 및 馬谷 부근으로부터 병력과 화력을 증원받아 계속하여 아군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연대의 진출은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제1대대는 良洞里 부근에, 제2대대는 236高地 南쪽에서 다시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 연대는 145高地와 236高地 일대에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적에 대하여 20일~21일에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9월 22일 : 145高地와 236高地의 적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아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北方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제1연대는 사단 명령에 의하여 현위치에서 永川을 경유, 道坪里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8월 9일에 杞溪 지역에서 적정이 나타나므로써 시작된 杞溪, 安康, 慶州 北쪽에서의 피아 공방전은 1개월 반 만에 결국 용전분투한 보람있게 아군의 승리로 그 끝을 맺게 되었다. 북괴군 중에서도 정예(精銳)부대라고 호칭되는 북괴 제12사단은 최후 발악적으로 杞溪, 安康, 慶州를 돌파하려 하였으나 아군의 성공적인 방어전으로 그 야욕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북괴군은 9월 15일 아군에 의하여 감행된 仁川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후방 보급로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洛東江 전 전선에서 완강한 저항을 지속해 왔던 것이나 아군의 총 반격이 감행되자 적은 9월 22일부터 조직적인 저항을 버리고 총퇴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아군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일사천리로 38선을 향하여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게 되었다.

북괴 제12사단은 8월 하순 飛鶴山에서 재편성하였을 때 그 병력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安康, 慶州 북방 전투에서 그 주력이 상실되었으며 패주 당시는 겨우 2,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慶州 북방 지구 전투에서 제1연대의 鹿鳴里 방어전과 제17연대의 比李峙 공방전 및 제18연대의 563고지 탈환전 그리고 기갑연대의 445高地 탈환전등은 특히 성공적이어서 洛東江 東部戰線을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것이니 위에서 말한 여러 싸움에서 보인 한국군의 7전 8기의 정신은 길이 빛날 것이다.

§교 훈

◇ 기습 방지에 관하여

전투하는 동안 어느때를 막론하고 각급 지휘관은 기습 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적의 기습은 통상 야음을 이용한 02.00~04.30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 시간동안은 순찰장교를 파견하여 보초의 근무상태를 독려하던가 필요하면 보초의 경계심을 왕성케 하기 위하여 공중사격(空中射擊)을 실시하는 등 백반 수단을 다하여 기습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8월 10일에 본堂里 445高地 부근에서 제25연대는 경계 소홀로 적의 기습을 받아 방어진이 와해되었고 9월 4일 수도사단 전방지휘소가 소수병력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분전난투의 양상을 보인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전자의 증언

수도사단 제1연대장 韓 信 중령

(65.8.7, 제 6 군단장실에서, (現)대장)

9월 초순에 제17연대하고 제1연대는 杞溪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적은 북괴 제12사단의 주력이었다. 左측방 제18연대가 분산되어 永川 방면으로 이동하는 등 安康, 杞溪 전투가 불리해지자 아군은 후퇴하게 되었다. 이때 어떻게된 일인지 모르나 수도사단 사령부가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때 사단사령부는 제1연대보다 8km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은 제1연대의 東西南北 사방에 있었으니 포위당한것이 틀림없고 더우기 통신이 두절되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제1군단 작전참모 金鍾泳대령이 비행기로 와서 철수하라는 군단명령을 전하고 돌아갔다. 우리는 兄山江 北方에 있다가 兄山江 南방으로(鹿鳴里)내려와 새로운 방어진을 구축하게 되었다. 적은 杞溪 安康 쪽에 들어와 있었고 일부 병력은 慶州 北쪽 2km까지 침투해 왔는데 제1연대 진지로부터 慶州까지는 약 20km 정도되었다. 군단에서는 우리보고 포위당했으니 제17연대선까지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내려가면 어디에서 싸우느냐, 여기가 마지막으로 죽을 진지다. 우리가 北方에 있으니 南쪽에서 올라 밀어!"라고 하였다. 우리 진지의 西측에 제17연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18연대가 永川에서 이동해 오다가 좌절되고 하였으니 "우리는 내려 못간다 올라 밀어라.

제18연대가 밑에서 전진해오면 제1연대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래서 제1연대는 완전포위 상태에서도 3일간 진지를 사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전선은 회복될 수가 있었다. 그때 군단장 金白一 준장이 찾아와서 내손을 꼭잡고 잘 싸워 주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바있었다. 그때 탄약이 있어! 식량이 있어! 사실이지 제1연대가 安康 虎瑪里진지를 포기하였으면 慶州는 빼앗겼을 것이다. 군단에서 말한대로 내려오라고 한 그대로 전선을 정리했으면 慶州는 적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수도사단 제17연대장 金熙澧중령

(68년 9월 2일, 자택 예 준장)

우리 연대는 安康에서 사단의 명에 의하여 安康 南쪽의 大同里—山田里 부근에서 새로운 방어진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사령부가 적의 기습을 받게 되어 우리는 후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3일간 적의 포위 밑에 들게 되었다. 미군의 탱크가 와서 후퇴로는 개척되었으나 西측일대에는 아직도 적정이 많았다.

우리는 공격 목표를 昆季峰에 두고 2개 대대로 하여금 공격케 하였다. 이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면 적이 다시 공격해 와 격전이 거듭되었다. 한번은 공지(空地)연락장교가 요청한 공군지원이 잘못되어 우리 병사 1개 분대가 손실되는 일도 있었다. 공방전은 7번이나 계속되었는데 결국 유창훈대대가 7번째의 공격으로 昆季峰을 점령하여 아군의 것이 되었다.

그뒤 제18연대가 梧山里 부근으로 들어와서 협동작전으로 이 일대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적이 후퇴할 무렵 우리는 육군본부 명에 따라서 작전지역을 기갑연대하고 교대한다음 釜山으로 내려가 재정비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는 몸도 쇠약하고 해서 白仁燁 대령하고 연대장직을 교대하였다.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

(68년 4월 14일 자택 예 소장)

우리는 9월 초에 安康선에서 물러나 永川에 집결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安康을 西측에서 공격하라는 명을 받고 진격하고 있던 중에 다시 慶州로 가라는 사단 지시에 의하여 慶州로 가게 되었다. 이 무렵에 수도사단 CP가 기습을 받은 바 있었고 일부의 적은 浦項비행장이 있는 雲梯山에 침투하고 있었다. 군단장이었던 金白一 준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적을 섬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 방면에 출동하게되었으나 雲梯山에 들어간 적병에 대하여는 1개 연대 정도의 병력이라는 것 밖에는 적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때마침 적 도보부대 1개중대가 보급품을 등에다 짊어지고 雲梯山 부근으로 능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적병이 100m정도 다가왔을 때 일제 사격을 가하여 적병전원을 섬멸하고 말았다.

雲梯山 부근의 적은 西側의 제1연대와 東側의 제3사단의 포위밑에 들게되었고 우리는 北쪽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아군의 공격으로 지탱할 길이 없게된 雲梯山의 적은 北쪽으로 총퇴각하기 시작하였으나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연대와 제18연대 중간의 골자기에 몰리게 되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는 사단포병대의 지원화력을 받아가면서 적에게 집중 사격을 가하여 약 2,000명 정도의 적병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말았다. 이 뒤로는 제3사단지역에서 적의 모습은 없게되었다.

4. 韓國 海軍陸戰隊의 活動 (1950년 8월 6일부터 1950년 8월 20일까지)

가. 참전 부대 및 주요지휘관

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 중령 崔 相 徽
해 군 육 전 대 장 소령 姜 起 千
병력 약 470명

나. 전투전의 개황

8월 초순에 북괴 제2군단 예하 북괴 제5사단과 제12사단은 동해안과 동부 산악지대인 普賢山, 雲住洞을 거쳐 大邱와 慶州방면으로의 침공을 계속하려 하고 있었다.

아군 浦項해군경비부는 7월 20일 해군육전대를 신편하여 7월 하순 盈德 방어전에 참전시킨바 있으나 杞溪·安康 지구에 적정이 있게 되자 해군육전대에게 이 지구에 침입하는 적을 저지하려고 출동을 명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杞溪·安康전투

8월 6일 : 安康에 전진한 해군 육전대는 제1중대를 杞溪 국민학교에, 제2중대를 道德山과 玉山洞 후면 고지에 배진(配陣)하고 제3중대는 安康을 경비케 하였는데 이날 제3중대는 雲住山 중턱에 잠복한 적 1개소대 가량의 병력과 교전하여 그중 2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었다.

8월 7일 : 普賢山(靑松郡 소재)을 점령한 적 주력부대 약 1,000명은 전차 10대 장갑차 26대, 트럭 20여대, 기마병 30명, 야포 10여문의 장비로써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해군육군전대는 이를 맞아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8월 8일 : 적 주력부대는 立岩으로 부터 杞溪를 점령하려고 남진하여 왔음으로 해군육전대는 杞溪 西北쪽에서 美 공군의 지원폭격밑에 이를 저지하여 적군에게 많은 손실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적이 계속 杞溪를 향하여 침입하고 있었으므로 해군육전대 본부와 제3중대 및 제1중대는 합동하여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玉山洞에 배치중인 제

2중대는 대대본부에 복귀하여 예비대가 되었다.

8월 9일 : 적은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중포(重砲)등을 총동원하여 杞溪에 침입하여 왔는데 이 적의 동진으로 말미암아 동부 전선에는 한때 긴박감(緊迫感)에 쌓이게 되었다. 해군육전대는 杞溪에서 일단 南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가 이날 09.00를 기하여 제1중대는 溪川에서 적의 후방을, 제2중대는 達成洞 전방 고지에서 적의 정면을 목표로 총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 공격으로 인하여 적의 남진은 杞溪선에서 일단 주춤되고 말았다.

11.00에 韓國육군 제25연대가 杞溪 南쪽 老堂里에 진출하였으므로 해군육전대는 이부대와 협조하여 杞溪 부근의 적에 대비하게 되었다. 한편 美 공군은 杞溪의 적에 대하여 폭격을 계속 가하니 杞溪는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18.00에 해군육전대는 제25연대에게 현 진지를 인계하고 安康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8월 10일 : 적은 浦項 西쪽의 산악지대로 대거 침입하여 安康 北쪽 지점 3km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이와 전후하여 安康으로 이동한 해군육전대는 이날 09.00에 제1중대를 良洞고지 南쪽에, 제3중대를 安溪里 南쪽 고지를, 그리고 제2중대를 安康 東쪽을 점령하는 동시에 제25연대 잔류부대와 합동하여 지원부대가 진출할때까지 安康 사수를 결의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게 되었다.

적은 19.00부터 다음날 조조(早朝)까지에 수차에 걸쳐 공격해 왔으나 아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모두 격퇴당하여 北쪽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8월 11일 : 이날 10.00에 육군 제17연대가 安康에 진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安康에 浦項地區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으니 해군육전대는 육본작명 제116호에 의하여 浦項 지구전투사령관 지휘 밑에 들게 되었다.

杞溪에 침입한 적은 계속 남하하고 있었으나 아군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적의 남하 야욕을 분쇄하고 있었다. 이때 해군 육전대는 본부와 제2대대가 安康에, 제1중대가 良洞 국민학교에 그리고 제3중대가 安溪里 南쪽 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이날 14.00경 해군 육전대 1개 대대는 육군 제17연대와 합동으로 安康 東쪽 3km의 고지군(高地群)에서 침입해온 적 약 1개 연대 규모의 병력과 교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美 공군이 적진에 맹폭(猛爆)을 가하고 있었으며, 육군 포병도 일제히 포문을 열어 적진을 강타하였으니 적은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기 시작하였음으로 해군육전대는 육군 제17연대와 함께 적을 추격하면서 多山洞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해군육전대는 적 187명을 사살하였으며, 중기 2정, 경기 1정, 기타 총기와 실탄 다수를 노획하였다. 한편 해군육전대도 3명의 전사자와 중경상자 12명이 있었다.

8월 12일 : 11일에 이어 적을 공격중이던 해군육전대와 육군 제17연대는 부군의 적을 격퇴하고 良洞里 東北방 3km지점의 236高地를 다시 확보하고 있었다.

8월 13일 : 北쪽으로 퇴각하게된 적은 증원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과 합세하여 해군육전대 및 육군 제17연대 제1대대 진지에 일제히 공격해 왔는데 아군은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피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계속 증강되는 적의 압력으로 부득히 良洞里 선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해군육전대는 良洞里 東쪽에서 동해안으로부터 서진(西進)해 온 적 1개대대 규모의 병력과 교전하여 北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이날 증원된 육군 제1연대가 良洞里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해군육전대는 15.00에 이 연대와 전선을 인계하고 17.00에 安康 교외로 이동하였다. 이날 24.00에는 적이 야음을 이용하여 해군육전대 지역으로 내습해 왔음으로 일제 반격전을 전개하여 이를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8월 14일~16일 : 14일과 15일, 그리고 16일의 전황은 피아 교전상태에 있었으며 적은 때때로 내린 강우(降雨)를 이용하여 대 병력으로써 공격해 왔으나 아군의 치열한 반격을 받아 퇴각하고 말았다. 당시의 해군육전대의 병력은 약 470명이었다.

8월 17일 : 해군 육전대는 육군 제1군단 수도사단에 예속되어 8월 18일 浦項을 탈환하라는 임무를 받게되었다. 이리하여 해군 육전대는 현전선을 육군부대에 인계하고는 浦項탈환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2) 浦項철수전

8월 11일 새벽에 북괴 제12사단의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북괴 제766부대 일부 병력이 浦項 시가에 침입해 왔는데 이당시 浦項의 해군병력은 海軍浦項警備府(사령관 南相徽 중령)의 본부요원 약 300명이 있었다.

해군경비부 부대는 10일 이미 대원 30명을 37mm포와 함께 경비부 뒷산 고지에 배치한 바 있으나 적의 침공이 있게 되자 11일 새벽 대원 50명을 요소에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어케 하는 한편 경비부 잔류부대는 부상자, 비전투원, 피난민 등의 승선 지휘와 군수물자 수송 및 비상 지출물을 운반하는 등 철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군 경비부대는 시외 고지를 연결하는 선에서 浦項을 포위하고 시내를 공격하

고 있던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리고 있었는데 당시 경비부 뒷고지의 전투(경비부사령관 南相徽중령의 직접지휘)와 시내에서의 약 50명 부대(해군본부 金大植중령 지휘)의 육박전은 적의 침입을 저지하고 포항경비부로 하여금 06.40에 해상으로 부터의 철수를 완료케 하는데 큰힘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육해부대(陸海部隊)는 시민의 피난선이 완전 출항(出航)될때까지 적에 향하여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06.40에 浦項을 떠나게된 포항경비부는 13.30에 甘浦에 무사히 상륙함으로써 철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3) 浦項탈환전에서의 해군육전대의 활동

安康지구에서 작전해 오던 해군육전대는 8월 18일부터 浦項탈환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8월 18일 : 16.00에 해군육전 대장 姜起千 소령은 慶州에 있는 首都사단에서 작명을 수령하고 江東(良洞里)에 귀대하여 곧 17.30부터 탈환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浦項에서 西쪽으로 5km지점인 七田洞까지 진격하여 적과 교전끝에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으며 제2중대는 浦項에서 西北方 4km지점까지 진출하였고 제3중대는 대장이 직접 지휘하여 육군 제1연대와 합동으로 336高地에 진출하고 있었다.

8월 19일 : 제2중대의 선견소대(先遣小隊)는 05.00에 浦項 시내에 돌입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에 뒤이어 17.30에는 제1중대와 제3중대도 浦項 외곽에 진출한 다음 08.30에는 시내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해군육전대는 경비부 건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투본부를 경비대 청사에 이동한 다음 잔적 수색전을 전개하는 한편 노획품의 정리를 하게 되었다. 이날 11.00에 아군은 浦項을 완전히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는데 경비부 사령관도 16.00에 516호 함정으로 浦項에 상륙하여 대대장으로 부터 전투상황을 청취하고 전투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지구의 전투에서 해군육전대는 적 122명을 사살하고 소식(蘇式)장총 2정, M-1 5정 99식소총 11정, 자동차 11대, PAY자동소총 2정, 105mm포탄 500발, 기타 서류 등 다수를 노획하였다. 首都사단장은 해군육전대의 원대복귀를 명하는 동시에 그 빛나는 공적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해군육전 대원은 8월 20일 09.00에 慶州를 경유하여 이날 14.50에 甘浦에 귀부(歸府)하여 다음지시를 대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8월 25일에 장병 470명을 鎭海에 전속시키고 그 나머지 병력은 위병분대(衛兵分隊)로 신편하기에 이르렀다.

5. 美軍 特殊任務部隊의 活動 (50년 8월 10일부터 50년 9월 15일까지)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부래드리 특수임무부대 장	준장	부래드리(Joseph S. Bradley)
美 제2사단 제9연대 제3대대 장	중령	맥마인스(D. M. McMains)
잭슨 특수 임무 부대 장	소장	볼터(John B. Coulter)
美 제24사단 제21 연대 장	대령	스티븐스(Stephens)
美 제24사단 제1 대대 장	중령	스미드(C. B. Smith)
美 제24사단 제2 대대 장	중령	페리즈(Gines Perez)
美 제24사단 제3 대대 장	중령	젠센(C. C. Jensen)
처치 특수 임무부대 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데이비슨 특수 임무부대 장	준장	데이비슨(Davidson)
美 제24사단 제19연대 장	대령	게로이(Guy S. Meloy)
美 제24사단 제1대대 장	중령	미상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 초, 북괴 제12사단은 安東에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杞溪, 安康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호응하여 북괴 제766유격연대는 盈德에서 杞溪와 安康을 향해 남진하고 있었고 또한 북괴 제5사단은 盈德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韓國軍 제3사단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동해안에서의 상황이 긴박해지자 美 제8군에서는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 지역에서 작전중인 韓國軍을 도와 적의 남진을 극력 저지하려 하였다.

8월 10일에 부래드리(Bradley) 특수 임무부대가 편성되어 迎日 飛行場을 중심으로 활약하였고 다음은 8월 27일부터는 잭슨(Jackson) 특수 임무부대가 浦項, 慶州 北쪽지역에서 작전하였으며 그리고 9월 7일부터 처치(Church) 특수 임무부대가 그 임무를 인수받아 적의 공세가 주춤해진 9월 15일까지 작전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부래드리 특수임무 부대의 활동

8월 10일 : 이날 북괴 제5사단 일부 병력이 浦項 北쪽 8Km지점의 興海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韓國軍 제3사단은 적의 포위권에 들게 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美 제8군 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아 제3사단의 고문관인 에메릿치(Emmerich) 중령에게 迎日 飛行場에서 만날 것을 지시하였는데 迎日 비행장에서 그는 에메릿치(Emmerich) 중령에게 아 제3사단은 長沙洞을 사수하고 浦項으로 남하하는 적의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에메릿치(Emmerich) 중령은 즉시 長沙洞으로 돌아가서 신임 제3사단장 金錫源 준장에게 워커(Walker) 중장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다.

워커(Walker) 중장은 에메릿치(Emmerich) 중령과 헤어진 다음 大邱로 돌아가서 17.35에 慶山에 있는 美 제2사단장 카이사(L. B. Keiser) 소장에게 예하 제9연대의 제3대대를 즉시 迎日 비행장으로 급파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는 북괴군의 전차와 포병이 浦項을 공격하는 경우 동해안에서의 주요비행장인 迎日 비행장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美軍을 직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美 제2사단장은 부사단장 부래드리(Joseph S. Bradley) 준장으로 하여금 예하제9연대 제3대대를 지휘케 하고 이를 부라드리 특수 임무부대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부대의 편성은 美 제9연대 제3대대, 重박격포(4.2인치) 1개소대, 제15야전 포병대 C포대, M16 자주 고사기관총, 공병소대 등으로 되어 있었다.

부라드리 특수임무부대는 지휘본부와 K중대를 제외한 주력이 10일 밤 慶州 街道를 거쳐 迎日비행장에 진출하여 이곳에서 부래드리(Bradley) 준장은 비행장의 방어책임을 인수하게 되었다.

8월 11일 : 본부에서 대기 중이었던 K중대는 11일 제15야전포병대대 C포대와 함께 迎日로 이동중에 安康 東쪽 5km 지점인 철도터널과 도로의 굴곡지점에서 01.20에 적의 기습공격을 받게되었다. 이때 선두차의 운전병이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게 되자 주인을 잃은 차가 도로를 차단하게 되어 후속하던 차량종대는 일시에 혼란상태에 빠지게된 결과

2명의 장교를 포함하여 120여명의 중대원이 慶州로 탈출해 오는 사태가 일어났다.

迎日비행장에 있던 부래드리(Bradley) 준장은 K중대가 적의 기습으로 분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구출하기 위하여 I중대를 현지에 급히 출동시켰으나 이 중대도 적 복병(伏兵)의 공격으로 전진이 부진되고 말았다. 부라드리(Bradley) 준장은 즉시 장갑차 2대를 보내어 I중대를 증원시켰으나 적을 격파하지 못하고 낮에 비행장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이날 오후까지의 I중대의 손실은 전사 7명 부상 40명이며, C포대도 약 25명의 손실을 입게되었다.

이와 같은 적정 보고를 받은 美 8군사령관은 慶州에서 교량 보수를 기다리고 있던 미 제9연대의 전차중대를 즉시 浦項으로 진입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무렵에 공중 정찰보고에 의하면 K중대가 적의 기습을 받은 곳에 아직도 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韓國軍 제17연대의 고문관인 대리고(Darrigo) 대위는 迎日로 기동하는 전차부대를 자신이 지휘하겠다고 자원하였다. 이리하여 5대의 전차를 지휘하게된 대리고(Darigo) 대위는 선도차(先導車)에 승차하고서 적이 매복하고 있었던 지점에 진출하였는데 때마침 迎日 비행장에서 출격한 F—51 전폭기 4대가 적진을 강타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합동으로 전차부대도 기관총탄을 적에게 퍼부어 적 70여명을 사살하고 말았다. 이로써 적의 도로 봉쇄진지는 분산되고 浦項—安康사이의 도로는 재개되었으며 전차부대는 20.30에 迎日비행장에 도착하여 즉시 사주방어(四周防禦)에 들어가게 되었다.

迎日飛行場의 전폭기 철수 : 8월 12일 : 11일 새벽, 적이 浦項에 침입하자 迎日 비행장에 있었던 F—51 전폭기 대대는 일단 철수하였다가 12일 다시 복귀한바 있었다. 이곳에는 7월 16일 美 제40전폭기중대가 일본 아시야(芦屋)기지에서 迎日로 이동하여 작전을 해왔고, 8월 7일에는 美 제39비행중대가 도착됨으로써 제613전폭기 대대가 편성되어 작전중에 있었다. 그리고 8월 8일에 浦項 西北쪽에 적정이 나타나자 극동공군(極東空軍)은 적이 박격포와 야포로 활주로를 포격하고 迎日 비행장을 점령하게됨을 염려한 나머지 제613대에게 중장비를 철수시키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8월 13일 : 극동공군은 비록 美軍 보병부대와 전차부대가 비행장을 경비하고는 있었지만 13일 비행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迎日 비행장의 공군부대 지휘관인 위티(Witty) 대령의 건의에 의하여 파트리지(Partridge) 제5공군 사령관이 승인한 것이다. 이날 비행부대는 철수하였으나 美 제9연대의 부래드리(Bradley) 특수 임무부대와

전차부대는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다.

迎日 비행장에서 철수하였다는 보고는 13일 16.00에 맥아더(Mac Arthur) 사령부에 입수되었다. 이날 UP통신 보도에 의하면 공군 대변인은 적의 박격포탄과 기관총탄이 활주로에 낙하하여 부득이 철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상의한 과장된 내용이었다.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과 그의 참모장 알몬드(Almond) 소장은 비행장 철수보고에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게 되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비행장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번의 조치는 공군 단독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철수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2개 전폭기 중대의 45대는 이미 日本 九州의 스스기(鈴木)비행장으로 이동한 뒤여서 다시 오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8월 14일~20일 : 迎日 비행장에 보유하고 있던 중장비와 탄약 등은 LST에 적재되어 14일 공군요원과 함께 迎日灣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때 상당량의 항공용 유류를 남겨놓게 되어 그뒤에 고장난 비행기가 간혹 긴급 착륙하여 연료를 공급받고 있었다.

부래드리(Bradley) 특수 임무부대는 공군부대가 비행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비행장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8월 20일 美 8군의 명령으로 해체하고 증강된 美 제9연대 3대대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2) 책슨 특수임무부대의 활동

杞溪 지역에서 수도사단의 반격으로 飛鶴山일대로 퇴각하게된 북괴 제12사단과 유격대인 제766부대는 재편성하여 8월 27일 제차 공세로 나오게 되었다.

27일에 首都사단 제18연대와 제17연대는 전선이 무너지게 되어 수도사단은 杞溪에서 南쪽으로 약 5km를 후퇴하고 있었고 浦項의 아 제3사단도 전선이 돌파당하고 있었다.

8월 27일 : 일요일이었던 이날 아침 大邱의 제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워커(Walker) 중장은 30분에 걸친 전선상황을 듣고 나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콜터(John B. Coulter) 소장에게 美 제24사단에서 1개 연대를 보내겠으니 나를 대신하여 동부전선에 가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은 즉시 慶州로 비행하여 오후 늦게 韓國軍 제1군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전선상황을 브리핑 받고난 콜터 소장은 韓國軍 제1군단장과 그의 참모들에게 전선에서 후퇴하게 됨으로써 전 전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게 되었다.

한편 워커 중장은 콜터 소장을 이날 제8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美 제24사단 예하 美 제21연대와 迎日 비행장을 경비중인 제9연대 제3대대 및 제73 중전차대대(—C중대)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콜터 소장은 27일 12.00부로 美軍과 韓國軍의 연합부대를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라고 명명하고 지휘본부를 慶州에 있는 韓國軍 제1군단 사령부에 같이 설치하게 되었다.

특수임무부대의 명칭은 통상 그 부대의 부대장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부대는 미국 남북전쟁(1861~65)때의 "Stone Wall Jackson(돌벽의 잭슨)"에 인유하여 잭슨부대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콜터 소장은 워커 중장으로부터 韓國軍 제1군단장에게 보내는 명령은 직접 명령으로 하지말고 그들을 고문(顧問)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었다.

잭슨 특수 임무부대의 임무는 杞溪, 浦項 방면의 북괴 제12사단과 제5사단을 격파하고 永川 北쪽에서 浦項 北쪽 19km 지점의 月浦里를 연하는 전선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이 선은 杞溪 北쪽 16km를 통과하고 있는 관계상 콜터 소장은 즉각 잭슨 특수 임무부대를 진격시켜 杞溪 北쪽의 고지대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21연대는 大邱 北方으로 이동중에 慶州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게되어 10.00에 大邱를 출발하여 오후에 慶州에 도착하였다. 이 연대 제3대대는 즉시 首都사단 후방인 安康 北쪽에 투입되었다.

이날 저녁에 콜터 소장은 韓國軍 제1군단장에게 28일 미명에 반격을 시작하여 전선을 회복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韓國軍 제1군단장은 적의 병력과 장비가 우세한 반면 아군의 피해가 심하며 부대는 피로해 있으니 지금은 반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무렵 浦項 北쪽의 북괴 제5사단도 재차 압력을 가하게 되자 韓國軍 제3사단은 후퇴할 기색이 보이고 있었다.

8월 28일 : 美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한국의 국방장관과 韓國軍에게 특별성명서를 보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전 전선에 걸쳐 광대하게 배치된 적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UN군은 날로 전력이 증가 일로에 있다. 지금의 이 시기는 모든 韓國軍 장병들이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싸워야만 하며 또한 역습을 감행하여 반격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만일 적에게 진지가 돌파당하면 즉시 역습으로 이를 회복해야 한다. 귀군(貴軍)의 장병들

은 전력을 다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적을 격파하고 저지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콜터 소장은 韓國軍과 잭슨 특수 임무부대가 반격에 필요한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大邱에서 급거 증원된 美 제21연대(연대장 스티븐스대령) 예하 제3대대는 安康 북쪽 南山洞에서 28일의 미명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8일 02.00에 韓國軍 제17연대의 진지가 돌파당하게 되자 이부대의 공격은 취소되고 말았다.

28일 06.00에 韓國軍 제3사단에 배속된 아 제8연대 제1대대 정면에 적 1개연대 규모의 병력이 파상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콜터 소장은 美 제21연대장에게 아 제8연대 제1대대 정면의 적을 격퇴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다.

美 제21연대는 8월 29일 B중대와 미 제73전차대대 B중대의 1개 전차소대(5대) 지원을 받아 浦項 孝子洞 부근에서 반격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浦項으로 철수하였다.

전차 1개소대 사용 문제에 있어서 잭슨 특수임무부대장 콜터 소장과 한국군 제1군단장 金弘壹 소장 사이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콜터 소장은 수도사단 정면보다는 浦項을 중요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金 소장은 적이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중간지대를 돌파하여 慶州로 진출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전차소대를 安康—慶州선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金 소장은 安康 선이 돌파 당했을때 浦項의 전술상의 위치가 희박해지므로 적의 주공방향에 전차소대를 배치할것을 주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은 安康을 돌파하고 慶州정면까지 침투해 왔던 것이다.

8월 29일~31일 : 首都사단은 美軍 전차와 포병지원을 받아가면서 杞溪를 재탈환하였으나 다음날 새벽에 끝내 상실하고 말았다. 31일에 미 항공모함 시시리(Sicily)호에서 38회나 출격하여 杞溪 지역의 적진을 강타하고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해안에서도 美 해군 함대가 적의 공격을 분쇄하려고 1척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이 興海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이 3척의 해군함정은 적 목표에 5인치 포탄 1,500발을 퍼부었다. 이와같은 공중과 해상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은 8월 31일 공격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9월 1일 : 항공 관측보고에 의하면 적이 杞溪와 浦項 西北쪽 산악 일대에서 남하하고 있었고 또한 韓國軍 제3사단 제23연대 정면인 99高地에도 적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하였다. 이날 浦項 北쪽 4km 지점에 위치한 99高地에 대해 韓國軍 제23연대가 美軍의 공중, 야포, 함포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였으나 점령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2일 : 美 제21연대 제3대대는 아 제23연대의 99高地 재탈환을 도우려고 浦項에서 西北쪽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대를 지원하려고 전차 1개 소대가 浦項에서 興海로 가는 계곡을 따라 투입되고 있었다. 이 전차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은 K중대는 99高地에 이르러 지원공격을 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만 내게 되었다. 이때 북괴군은 견고히 구축된 참호속에서 수류탄으로 근접전을 벌이면서 미군의 진격을 막고 있었다.

9월 3일 : 이날 새벽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도사단 방어선은 安康 선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세의 급변에 대처하여 콜터 소장은 浦項 西北쪽에 위치하고 있던 美 제21연대를 慶州 北方에 투입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美 제21연대 제2대대 (Gines Perez 중령)는 安康 東北쪽 3km 지점의 良洞里 165高地에 위치하였고 미 제21연대 주력은 慶州 北쪽의 집결지에 있게되었다.

한편 워커 중장은 이곳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국군 제7사단 제3연대(1대대 결)를 慶州 부근에 급파시켰으며 또한 미 제9연대 제3대대와 전차중대 및 미 15야포대대는 콜터 소장 지휘밑에 迎日 비행장을 계속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날 韓國軍 제3사단의 美 고문관인 에머릿치 중령은 콜터 소장에게 韓國軍 제3사단이 浦項에서 철수하려 한다고 보고하자 콜터 소장은 즉시 韓國軍 제1군단장에게 아 제3사단은 철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이때 콜터 소장은 매 30분마다 한국군 제3사단의 위치를 보고받고 있었다.

9월 4일 : 적이 首都사단 방어선을 돌파하여 남진하게 되자 수도사단 본부는 安康에서 철수하게 되어 전황은 점차로 불리해졌으며 美 제21연대 제2대대도 적과 싸우면서 철수하여 慶州에 있는 본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콜터 소장은 수도사단 방어선의 돌파로 말미암아 생기게된 제8사단과의 공간에 대비하려고 美 제21연대를 慶州 西北쪽 고지에 진출시켰다. 이루렵 오랜 시간의 과로로 신경이 과민해진 콜터 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慶州를 고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9월 5일 : 이무렵 浦項 北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니 5일 02.00에 에메릿치중령은 迎日 비행장에 와서 美 제9연대 제3대대장(D.M. McMains 중령)에게 浦項의 상황을 알려주고는 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아 다시 浦項 시내로 복귀하여 적의 기갑공격에 대비하고 있던중 05.30에는 韓國軍 제22연대가 돌파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11.00 좀 못되어 浦項에 있던 美軍 전차는 5대의 북괴군 자주포로부터 근접 사격을 받게되었으나 이 자주포들은 그때 날라온 우군기의 로케트포 공격으로 모두 격파당하고 말았다. 이날 14.35에 迎日 비행장에서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모든 자재와 보급품을 철수하고 있었다. 9월 5일과 6일 양일동안에 浦項전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美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동부전선에서 적이 침공을 계속하자 그곳에 더 많은 부대를 투입키로 하고 미 제24사단에게 慶州 이동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 부사단장 데이비슨 준장은 즉시 필차로 慶州로 향하였고 사단직할대와 美 제19연대는 5일 밤중에 慶州에 진출하였다. 사단장인 처치 소장도 5일 낮에 慶州에 도착한 뒤를 이어 전사단은 9월 6일 07.00에 도착 완료하였다.

9월 6일 : 콜터 소장은, 북괴 제15사단이 永川을 통과하여 慶州로 향하고 있다고 믿고 6일에 美 제21연대로 하여금 慶州에서 永川 방향의 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한 바 있으나 美 제21연대는 9월 7일까지 적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를 않았다.

9월 7일 : 美 8군은 7일 12.30시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를 처치 특수임무부대로 개칭하는 한편 처치 소장에게 이 부대의 지휘권을 주게되었다.

(3) 처치 특수임무부대의 활동

9월 8일 : 처치 특수 임무부대장으로 임명된 처치 소장은 이날 오후 美 제21연대에게 慶州 西쪽고지를 공격하라는 콜터 소장의 명령을 취소하였는데 그는 불필요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慶州에 집결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때 지휘본부도 慶州에서 6km 南쪽의 朝陽里로 이동하였다.

한편 安康—慶州 가도상의 比季峰(△293) 근처에서는 韓國軍 제17연대가 이를 공격하려는 적과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무렵에 미 제17연대 제3대대 K중대는 檢丹里 300高地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적의 침투부대에 의해 이 고지를 피탈당하였으나 곧 美 제9연대 병력이 반격하여 이 고지를 탈환하고 말았다. 이날의 전투는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계속되었으며 강우는 9월 10일에 멈추었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공중지원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9월 9일 : 북괴군 제15사단의 일부 병력은 9일 迎日 비행장 西南쪽 8km 지점의 蛍峴山(△471) 부근에 침투하여 迎日 비행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처치 소장은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데이비슨(Davidson) 준장에게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를 지휘케하였다.

데이비슨 특수 임무부대는 美 제19연대(3대대 결) 美 제9연대 제3대대, 美 제13야포대대, 美 제15야포대대 C포대, 美 제3야전공병대 A중대, 美 제9연대 전차중대, 2개 고사포 자동화기 포대 및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다.

9월 10일 : 데이비슨 특수 임무부대는 적이 浦項으로 가는 접근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일 하루 종일 南쪽 도로를 우회하여 이날 저녁 19.00에 延日 비행장 1.6km南쪽의 집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9월 11일 : 이날 아침, 美 제19연대는 제1대대를 선두로 雲梯山 공격을 시작하였다. 09.30에 이르러 첫 고지를 점령한 다음부터 제2대대가 선두에 나서 험악한 산곡을 넘어 목표에 접근해 갔다. 그러나 북괴군은 참호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고 기관총 사격으로 제2대대의 전진은 하루 종일 제지되바 있었다.

9월 12일~13일 : 12일 아침 4대의 호주 전투기가 네이팜탄을 적 진지에 퍼부었고 이어 야포 사격이 보병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윽고 제2대대는 공격을 다시 시작하여 12.00경 雲梯山을 점령하고야 말았는데 이날 워커 중장은 특수 임무부대 지휘소를 2, 3차나 방문하여 작전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延日 비행장에 대한 적의 위협이 제거되었으므로 특수 임무부대는 9월 13일 慶州로 복귀하게 되었다.

9월 14일~15일 : 12일부터 동부전선에서의 전투는 소강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14일에 이르러 북괴 제12사단은 사실상 섬멸되었으며 북괴 제5사단도 浦項일대에서 잔존 병력을 몰으고 있었다. 이에 따라 韓國軍 제3사단은 후퇴하는 북괴 제5사단을 추격해 갔으며 首都사단도 북괴 제12사단에 대한 반격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9.15.부, 특수임무부대해체)

라. 전투 후의 개황

8월 10일경에 동부 전선에 적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를 방어하던 韓國軍 부대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 8군은 부라드리부대와 적은부대 그리고 처치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곳에 출동시켰는데, 동부 전선에서의 美 특수부대의 임무는 첫째 동부 전선에서의 유일한 美軍 공군기지인 延日 비행장을 수비하는데 있었고 다음은 安康, 浦項에서 적의 남진을 방어하고 있는 한국군을 협조 또는 원조하여 洛東江 동부전선을 방어하여 韓國軍으로 하여금 총반격의 기반을 마련케하는데 있었다.

美 특수임무부대가 9월 15일 그임무를 마치고 해체한 다음부터는 동부전선은 韓國軍 단독으로 작전하게 되었으며 총반격에 돌입한 뒤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第 23 章

洛東江 西部方面 作戰（二）

第23章 洛東江 西部方面 作戰 (二)

要 旨

洛東江의 西部전선은 8월말 현재 게이(Robert R. Gay)소장이 지휘하는 美 제1기병사단이 大邱 西北쪽의 倭館 多富洞을 중심으로한 洛東江의 北部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카이저(Lawrence B. Keiser)소장이 지휘하는 美 제2사단이 洛東江의 중류 돌출부지역에 해당하는 玄風, 昌寧, 靈山 부근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 南部지역인 馬山 西北部는 킨(William B. Kean)소장이 지휘하는 美 제25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다. 동시에 美 제8군에서는 8월 24일 美 제2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美 제24사단을 靈山 부근에 예비대로 배치해두었다.

이 美 제8군이 담당한 洛東江 西部전선 정면의 적은 괴뢰군 중장 金武亭이 지휘하는 제2군단 예하의 제13 및 제3사단과 괴뢰군 중장 金雄이 지휘하는 제1군단 예하의 각 사단으로서 北에서 南으로 제13, 제3, 제10, 제2, 제4, 제9, 제7사단 및 제6사단의 순으로 배치되었고 제105기갑사단과 제16기갑여단이 제1군단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제104보안여단이 제6사단의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적의 9월 공세를 위한 작전계획은 그들의 이른바 제5차작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곧 적 제2군단예하의 제13, 제3사단은 제1사단과 더불어 제3공격집단을 구성하여 제17기갑여단 소속 전차 40대를 앞세우고 倭館 多富洞정면의 美 제1기병사단과 아군 제1사단 진지를 돌파한뒤 大邱를 점령코저 획책하였고, 다음 제2공격집단인 적 제10, 제2, 제4, 제9사단은 제10사단이 玄風 정면에서 제2사단이 昌寧 정면에서, 제4 및 제9사단이 靈山 정면에서 각각 美 제2사단의 진지를 돌파한 뒤 密陽으로 진출하여 京釜 철도와 주보급로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으며 나머지의 적 제7사단 및 제6사단은 美 제25사단의 진지를 돌파한뒤 馬山과 金海를 거쳐 釜山을 점령하려는 기도(企圖)였다.

이와 같은 계획하에 감행될 공격개시 시각은 이동시간과 공중폭격을 고려한 나머지 적 제2군단은 9월 2일 18.00로 정하였고 제1군은 이보다 앞서 8월 31일 23.00로 정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한 아군의 작전계획은 8월 중과 다름없이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최후적인 공세를 좌절시켜 자기의 반격작전을 위한 방어전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中東部 및 東部전선에 배치된 韓國軍의 방어작전에 호응하면서 洛東江의 천연적 방어선에 의지하여 적 최후의 발악적인 침투작전을 洛東江邊에서 좌절시켜 차기(次期)의 일대 반격작전에 임할 군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피아의 작전계획에 의한 이 洛東江西部전선의 9월중의 전황을 개관하면 대개 다음과 같았다.

大邱 西北쪽을 담당하고 있던 美 제1기병사단

은 右에서 左를 제8, 제7, 제5기병연대의 순으로 배치되고 美 제2사단과의 지경선상에는 다시 美國軍 제27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美 1제기병사단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水岩山(△519)과 架山城址(△902)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작전상 9월 14일까지 철수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道德山과 八公山을 연한 몇개의 고지 즉 660, 314, 570, 755, 756, 783 등의 제 고지에서 혈전을 겪었는데 9월 12일 道德山의 南쪽 능선상에 있는 고지의 탈환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를 만회하고 大邱지역을 안정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다음 美 제3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제38연대를, 玄風 정면에 제23연대를, 昌寧 정면에 제9연대를 靈山 정면인 洛東江의 돌출부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전투 중 昌寧 및 靈山 부근의 전투는 가장 치열하였다.

昌寧 지역에 대한 적의 침공은 8월 31일 북괴군 제2사단에 의하여 감행되었는데 9월 6일 美 제23연대의 반격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적은 그뒤 방어상태에 들어갔으며 靈山 부근도 역시 8월 31일 피뢰군 제9사단이 침투하였으나 이 지역을 담당하였던 같은 美 제2사단 제9연대와 9월 2일에 증원된 美 제5해병대에 의해 격퇴당하여 6월 6일 현재 북괴군은 크로바(Clover) 高地와 大院里高地를 잇는 선에서 방위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기간중 특히 靈山 지역에 있어서는 芽谷洞에서 자행한 적의 기습전과 大谷里의 150高地 및 月上里의 210高地 靈山 근처의 각 공방전은 피아에 다대한 손실을 남긴 전투였다.

다음 馬山의 西北쪽을 담당한 美 제25사단은 北에서 南으로 제35연대가 南旨里 부근에, 제24연대가 咸安 부근 및 戰鬪山과 筆峰을 이은 絲航山의 산악지대에 각각 배치되었고, 제5연대 전투단이 西北山의 南쪽 기슭에서 鎭東里의 해안선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다시 후방에는 美 제27연대가 예비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전투는 8월31일 적 제7사단과 6사단이 南旨里부근의 미 제35연대와 咸安 부근의 美 제24연대 전지에 침투하므로서 시작되어 8월 31일 밤에서 9월 1일 밤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뒤 적은 각지에 분산되어 기습 및 침투작전을 계속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공방전도 예비대인 美 제27연대의 투입으로 9월7일 이후부터는 적세가 약화되어 대치상태에 들어 갔고 다만 戰鬪山과 筆峰의 공방전만이 2—3일간 계속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洛東江西部에 있어서 적의 공세도 9월 16일 仁川上陸作戰과 호응하며 시작된 아군의 반격작전에 의하여 종식되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洛東江 西部方面의 9월 전투는 적의 허망한 꿈의 실현을 위한 발악적인 도전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북괴군이 지도층의 기만과 허위에 의하여 무모한 공격을 가하여 왔으나 아군의 후방차단에 의하여 보급과 장비가 지극히 불실하였고 또한 충실한 병원의 보충도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아군은 우세한 공지(空地)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으로 左右가 연결되고 종심(縱深)을 갖는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洛東江의 자연적인 요새적 역할은 그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좌절시키는데 크다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1. 倭館·多富洞附近戰鬪 (50년 9월 2일부터 50년 9월 1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9 호
상 황 도 제22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美 제1기병사단 장 소장 게이 (Robert R. Gay)
포병사령관 준장 팔머 (Charles D. Palmer)
제7기병연대 장 대령 니스트(Cecil Nist)
제1대대 장 중령 클레이노스 (Peter D. Clainos)
제2대대 장 미상
제3대대 장 중령 린치 (James H. Lynch)

제5기병연대 장 대령 크롬베츠 (Marcel B. Crombez)
제8기병연대 장 대령 팔머 (Raymond D. Palmer)
제3대대장 중령 존슨 (Harold D. Johnson)

배속부대
美 제23연대 제3대대
병력 14,703명 (9月1日현재 UN軍 총병력에서)

적 군

제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19연대 장 대좌 金 炳 喆
제21연대 장 대좌 李 成 俊

제23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병력 약9,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 적의 기도(企圖)와 美軍의 병력 배치 상황

적의 제2군단을 지휘하는 중장 金武亭의 3개 공격 집단은 9월 2일 18. 00를 기하여 大邱에 대한 최종 공세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적의 제3, 제13, 제1의 3개사단은 倭館·多富洞 北쪽에서 美 제1기병사단과 아군 제1사단을 공격하여 大邱를 점령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었고 또 적 제8, 제15사단은 永川 방면에 있는 아군 제8 및 제6사단을 그리고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은 東해안에서 아군 首都사단과 제3사단을 공격하여 각각 釜山을 최종 목표로 총공격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大邱 北쪽을 담당하고 있던 美 제1기병사단은 右에서 左로 美 제8, 제7, 제5기병연대 그리고 英 제27여단 순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英 제27여단의 2개대대는 美 제23연대의 제3대대와 9월 5일에 진지를 교대하였는데 이때 美 제23연대의 제3대대는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2사단의 지경선에 배치되고 있었다.

美 제5기병연대는 倭館에서 大邱에 이르는 길 東南쪽에 배치되었고 美 제7기병연대는 多富洞 左측의 산악지대에 그리고 제8기병연대는 多富洞 右측지대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다.

적의 제1군단이 洛東江과 馬山 西부 및 南江선에서 9월 1일에 美 제25사단과 美 제2사단 진지를 돌파하자 美 제8군 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이날 美 제1기병사단장 게이(Gay)소장에게 美 제8기병연대 정면에서 尙州에 이르는 도로방향으로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게이(Gay)소장은 워커(Walker)중장의 명령대로 공격을 결심하였으나 참모와 연대장들이 모두 사단장의 결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美 제7기병연대 정면에 있는 水岩山(△519)공격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적의 대부대가 이미 아군 진전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공격하는 경우에 생기게 될 전진공간(前進空間)을 방어할 아무런 병력도 없기 때문에 적에게 역포위(逆包圍)를 당할 우려(憂慮)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사단장은 참모와 연대장들의 건의를 그대로 좇기로한 결과 水岩山을 공격하기로 번의(飜意)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곡절끝에 공격 키로 된 水岩山은 8월30일 오전까지는 아군 제1사단이 확보하고 있었으나 12.00에는 美 제7기병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다음 철수 하자마자 적은이 기회를 포착하여 이 山을 공격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美 제7기병연대의 오른쪽 측방에서 제8기병연대의 제3대대 소속 2개중대가 이 山을 공격하기로 결정되었다. 美 제8기병연대는 제1대대가 보울링 앨리(Bowlling Alley) 西부와 多富洞 北쪽 높은 지대에 배치되었고 제2대대는 도로를 가로질러 적의 도로 접근로 양쪽 지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적 작전참모의 극적(劇的) 귀순

9월 2일 새벽의 일이었는데 정면에 대치(對峙)하고 있던 적의 제13사단 예하 제19연대의 작전참모 소좌 金成俊이 적진으로부터 탈주하여 귀순하여 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9월 2일 18.00를 기하여 적제 2군단이 총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이며 또 그가 소속(所屬)하고 있는 적 제13사단은 이번 벌어질 총 공격을 위하여 4.000명의 보충병(의용군)을 받았으나 그중의 반은 총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총 병력은 약 9.000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美 제8군은 예하 전 부대에 대하여 적의 총공격을 경고하게 되었으니 시기적으로 보아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알맞는 때에 결행된 적절한 귀순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水岩山 (△519)전투

9월 2일 : 美 제8군의 공격 계획에 의하여 게이(Gay)소장은 水岩山에 대한 공격을 승인 받고 이날 아침에는 제8기병연대 제3대대의 공격 계획을 취소한 다음 제7기병연대로 하여금 水岩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水岩山을 공격 하기전에 전폭기대는 이 山과 346高地에 대하여 37분간에 걸쳐서 폭탄과 네이팜탄을 집중투하하였고 이어서 32문의 포문이 일시에 공격준비 사격을 가한 다음 10.00에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가 직접 水岩山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는 西쪽에서 엄호진지(掩護陣地)를 미리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뒤쪽에서 水岩山과의 공간지대에 배치되었다.

제1대대의 공격은 좁은 능선(稜線)접근로를 따라 東南쪽에서 소대 단위로 종대 공격대형이되고 말았으므로 적은 美 공군의 치열한 폭격과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으로써 대항하게 되어 제1대대의 공격을 분쇄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 오후에 이르러 제1대대는 드디어 지금까지의 공격행동을 포기하게 되고 水岩山에서 東쪽으로 흐른 능선상의 490高地로 그 공격목표를 바꾸게 되었으니 필시 강한 것을 피하고 약한 것을 노려보고자 하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9월 3일 : 이날 낮에 제3대대는 제1대대가 포기한 水岩山에 대한 공격임무를 인수(引受)하여 제1대대가 한것과 똑같은 분대의 종대 대형으로 南쪽에서 다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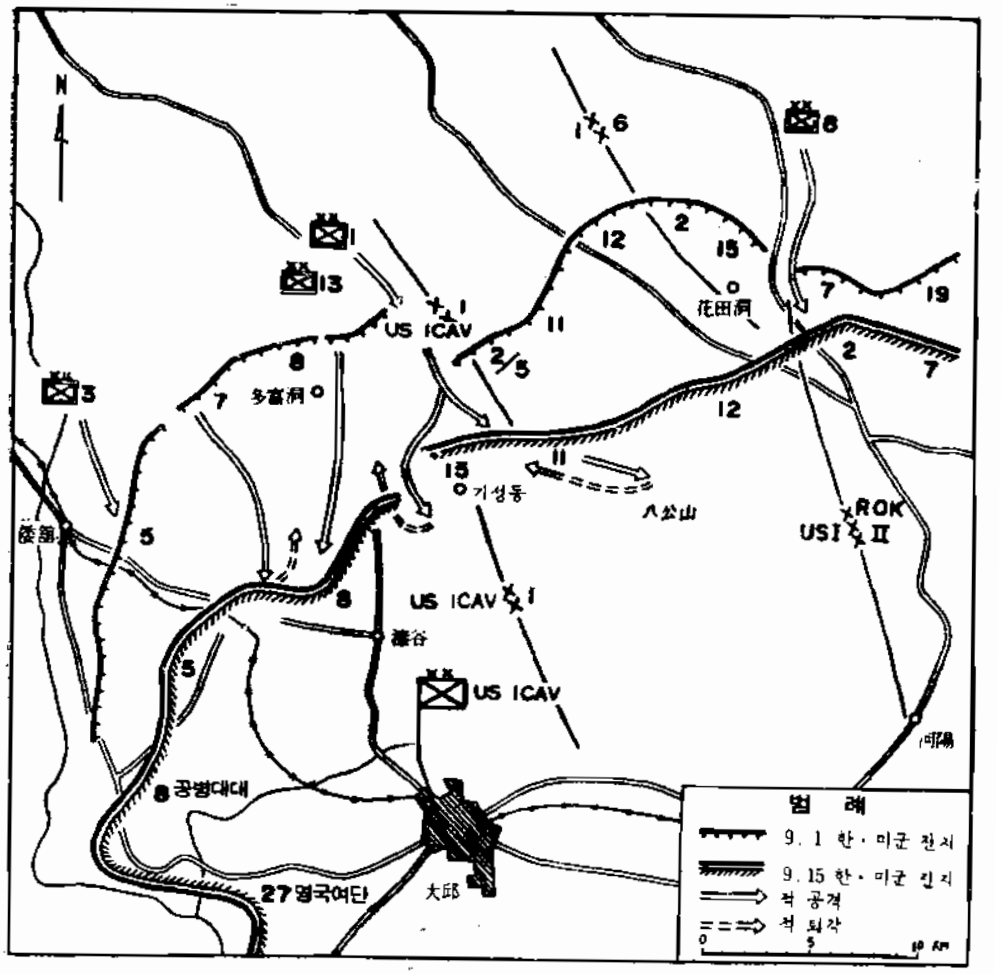
9월 4일 : 이날의 공격도 역시 실패하였는데 이 고지에서 잡은 포로의 말에 의하면 "水岩

山에는 1.200명의 병력이 참호 속에 있으며 120mm와 82mm박격포 등이 있고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右측방에서 이와 같은 불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美 제5기병연대의 제2대대는 9월 4일날 倭館 北쪽 2km지점에 있는 303高地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적의 반격으로 5일 날에는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美 제5기병연대와 美 제7기병연대의 정면에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던 적 제3사단의 일부병력이 4일날까지는 美軍 전투부대의 후방까지 침투하여 왔으며 같은 날 수색정찰소대(소속불명)가 倭館 東北쪽 6km지점에 있는 464高地에서 (倭館—多富洞도로 南쪽) 상황이 불리(不利)하게 되자 그들의 무전기와 기관총을 적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상황도 제22호 倭館·多富洞부근 전투(50.9.2~15)



모두 파괴해야 하겠다고 보고하여 오게 되었다. 그날 (4일) 밤에는 수 많은 적이 水岩山(△519)의 南쪽 능선 비탈에 있는 제3대대와 西쪽 제2대대 사이의 공간을 뚫고 침투하여 왔으므로 이에 따라 제3대대 지휘소가 공격을 받을 걱정이 생기게 되었으나 다행하게도 적은 西쪽으로 우회(迂廻)하여 465高地를 점령하여 버렸던 것이니 美軍은 적들에게서 호이(好餌)로 보여 농락(弄絡)을 당하는 셈이었던 것이다.

9月 5日 : 이날 美 제7기병연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465高地에는 이미 水岩山에 있는 적 보다도 더 많은 적병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적이 東쪽 측방에서 倭舘—多富洞간의 도로를 차단하게 되자 美軍 서로간의 통신은 다만 西쪽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美 제7기병연대의 일부 병력이 水岩山(△519)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山을 다시 탈취한다는 것은 당시의 美軍들의 사기면으로 볼때에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허황된 일장의 꿈에 지나지 않았으니 대개 우세한 공중 세력과 포병화력만의 힘이 결국 지상군의 최종 승리의 절대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 당시의 지상상황을 살펴보건대 사단 오른쪽의 多富洞은 아직도 적의 수중(手中)에 있었으며 왼편의 倭舘은 거의 무인지경(無人之境)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적은 水岩山에서 중앙부를 목표로 삼아 공격하여 왔으므로 美 제7기병연대는 더 이상 倭舘--多富洞간의 보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아니라 도리어 적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어 빠져 나기 힘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워커(Walker)중장은 참모부장 콜리어(Collier) 대령을 불러 놓고 철수에 대한 계획을 협의한 다음 美 제1기병사단장에게 밤을 이용하여 후방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2) 美 제1기병사단의 철수작전

9月 5日 : 美 제1기병사단의 철수 작전은 오른쪽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제8(우측연대), 제7(중앙연대), 제5(좌측연대) 연대의 순으로 철수하여 후방의 새 진지를 점령하려는 것이었다.

美 제7기병연대장 니스트(Nist) 대령은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오늘 밤에는 465高地의 적을 기필코 격퇴시키고 말아야한다"고 고집하였으니 그것은 철수한 뒤에 새로히 점령 하여야할 주 저항선(△465 및 △330)이며 이 고지는 이미 적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철수를 시작하게 된 9월5일 밤에는 비가 몹씨 쏟아졌고 진흙 길어서 철수하는 차량들은 무척 애를 먹게 되었다. 이때에 제1대대는 쉽게 철수하였으나

西쪽의 제3대대는 적병과 서로 혼동상태에 빠진 가운데 철수하면서 우연한 다행으로 적의 포로를 잡기도 하였다.

9月 6日 : 이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倭館 右측방에서 제3대대는 적 전차의 사격과 박격포 사격을 받아 18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03.00에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적은 제2대대의 철수를 미리부터 탐지(探知)한 나머지 곧 공격을 시도하여 왔다. 이 철수작전에서 힛치너(Omar T. Hitchner) 소령과 작전장교 미램(James T. Milam) 대위가 전사하였고 전차 2대를 버리게 되었는데 그중의 1대는 기관 고장을 일으켰으며 나머지 1대는 진흙에 빠져서 끌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정예무쌍(精銳無雙)한 신식戰車라도 때와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도리어 커다란 쇠뭉치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제2대대의 G중대는 새로운 방어선의 목표인 465高地의 적을 공격하였고 대대의 나머지 병력은 2개 제대(梯隊)로 이동하여 465高地에서 800m 南쪽의 능선상에 있는 380高地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는 야간행동이라 적정을 잘 알 수 없었고 어물거리는 사이에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일이 이쯤되자 연대장은 제2대대를 이미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속단하게 되었으니 그 체념의 재빠른 것은 놀란만하였다. 한편 대대 주력과 동떨어져서 465高地를 공격 중이던 G중대는 웨스트(Herman L. West)대위가 지휘하는 80명 밖에 남지 않은 병력으로써 포위망 속에 몰리는 바 되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6일 08.00에는 465高地 중복(中腹) 근처에서 겨우 적 3명을 사살하였을 뿐이고 하루 종일 고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정상(頂上)을 점령하려고 시도(試圖)하였으나 필경 실패하고 말았다.

이날 오후에 G중대는 밤을 틈타서 철수하라는 대대장의 무전명령을 받았으므로 중대장은 날이 어두어지자 곧 전사한 6명의 시체를 그대로 남겨두고 중상자는 들것에 태워서 철수를 시작하였다. 비가 내리는 山비탈에서 우군(友軍) 전폭기의 오폭으로 중대원 1명이 또한 애석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웨스트(West)대위도 돌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분산된 병력을 다시 수습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격하지 말 것과 또한 침묵을 굳게 지켜 적으로 하여금 그들의 우군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게끔 꾀를 쓰라고 세심(細心)한 주의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행하게도 이러한 은밀(隱密) 행동에 성공하여 465高地에서 東쪽의 안전지대로 무사히 철수하여 자체방어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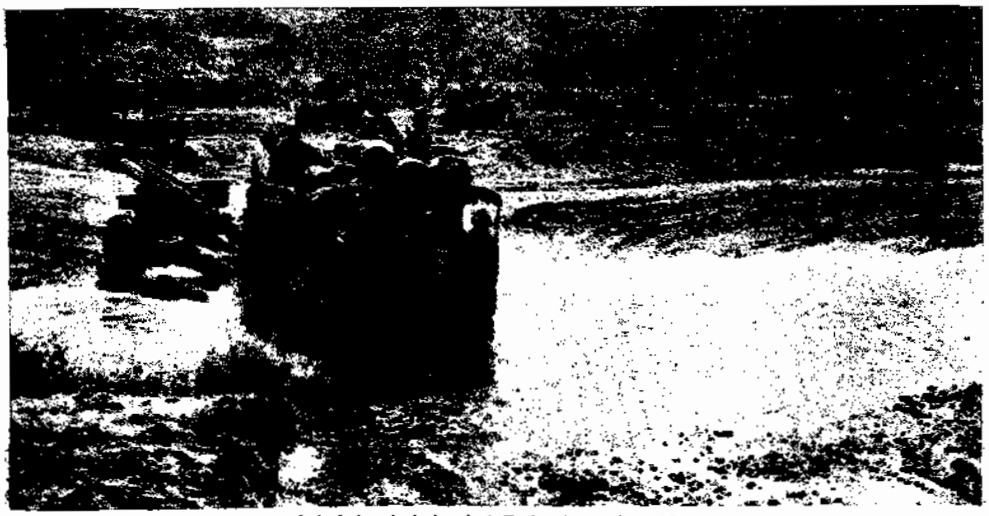
면서 비로소 약간의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나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 그런데 화기소대(火器小隊)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어 크게 걱정하는바 되었다.

9月 7日 : 이날 새벽 날이 밝기전에 G중대는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적 4명을 사살하였는데 이때에 西측방 산정(山頂)에서 들려오는 우군(友軍)의 사격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전진하여 보니 지난 밤에 행방불명이 되었던 화기소대가 아닌가. 중대원이 환성을 올리면서 이 화기소대와 합세하게 되었던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이 화기소대는 야암(夜暗)으로 말미암아 행방을 잃고 중대와 떨어져서 철수하다가 적과 세번이나 접촉 하였으나 서로가 우군으로 오인(誤認)한 나머지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새벽 녘에 화기소대가 또다시적과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곧 사격을 퍼부어 적 13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그중의 1명은 장교였다. 그 장교의 휴대용 가방 속에서 서류와 지도를 노획하였는데 그 문서와 지도에 의하여 465高地가 大邱로 공격 진출하려는 적 제3사단의 일부 집결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운(不運)이 다시 행운(幸運)을 가져 오게 된 것이 이와 같으니 비단(非但) 전쟁만이 아니라 세상만사에서 행불행이 돌고 도는 것이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이날 제2대대장 대리인 챈드러(Melbourne C. Chandler) 대위는 연대장에게서 철수하라는 무전명령을 받고 즉시 G중대를 수습하여 西쪽에 있는 제5기병연대의 지역으로 후퇴케 하였다. 이 후퇴 도중에 적들이 美軍 작업복을 입고 헬메트(helmet)를 흔들어 보이면서 "야! GI들아 이길로 오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으나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잔꾀였으므로 다만 일소(一笑)에 붙이고 그대로 철수를 서둘었던 것이다.

한편 이날(7일) 제2대대 오른쪽에 있던 제1대대도 적의 공격을 받고 대대 구호소(救護所) 근처에서 4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또 이날 밤에 제1대대는 사단명령으로 美 제5기병연대에 배속되기에 이르렀고 제7기병연대(1개대대결)는 大邱 부근에서 사단예비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사단 왼쪽의 303高地에 있던 제5기병연대 제2대대의 상황을 살펴 본다면 이 대대는 지나간 5일 밤에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 적의 발악전인 일제 공격을 받았는데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즉각 철수하기로 건의하였으나 연대장 크롬베츠(Marcel B. Crombez) 대령은 제7기병연대가 철수로를 개척할 때 까지 그대로 적과 교전하면서 지연(遲延)작전으로 적을 견제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2대대는 6일 이 303高地에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명령대로 그 임무를 완수(完遂)하였던 것이다.



<전선을 향하여 전진중인 美 포병부대>

한편 美 제5기병연대는 사단의 최종 철수부대로서 9월 7일 밤에 倭館—大邱간 도로 南쪽의 새 방어진지로 철수하였다.

적 제3사단은 美 제1기병사단의 진지를 돌파한 다음 계속 大邱 방면에 압력을 가하여 왔는데 美軍 항공관측 보고에 의하면 7일 저녁 때 적이 倭館 北쪽 3km지점에서 15척의 작은 배 위에 병력과 포를 가득싣고 강을 건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9월 8일 : 이날 북괴의 平壤 방송에서도 倭館을 점령하였다고 보도 하였다는 것이니 이날까지의 피아의 형세는 일진일퇴 보다도 차라리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견디어 내느냐가 큰 문제였던 것이다.

9월 9일 : 이날의 美 제1기병사단의 전투 상황은 전일에 비하여 더욱 악화일로 (惡化一路)로 맴돌고 있었다. 즉 적의 제3사단은 倭館 東쪽 5km지점에 있는 345高地에서 美 제5기병연대 제1대대를 격퇴시켰고 전면적으로 강화된 압력을 더욱 가하게 되므로써 203高地 및 174高地에서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귀추여하에 희우(喜憂)하는 형편이었다. 美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 연대 주력(主力)과 합세하기 위하여 174고지를 4차에 걸쳐 끈기 있게 공격을 반복한 결과 끝내 이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았으니 겨우 美軍이 체면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9월 12~14일 : 美 제5기병연대는 불리한 가운데 203高地를 굳게 지켰으나 13일 24.00 와 14일 04.00사이에 적의 공격을 받고 174高地의 L중대와 188高地의 B중대 및 F중대가 뒤로 물러 서게 되었으며 203高地 마저 빼앗기고야 말았으나 14일 오후에는 역습으로

나아가 188高地 만은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적의 손에 물어가게 된 北쪽에 있는 203高地와 174高地의 두 곳에서는 탈환전에서 실패만을 되풀이한 끝에 그대로 적에게 마끼는 바 되었으니 참으로 위기일발이란 말을 방불케 하는 가슴조리는 전국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날 중대는 전후(前後) 7차에 걸쳐 그 주인이 서로 바뀌었던 174高地에 대하여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공격을 단행키로 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82명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것이다. 이 중대에 속하여 있던 제2소대는 美軍 29명과 韓國軍 15명 도합 44명으로서 이 공격에 참가하였는데 겨우 목표지점을 점령 하였을 때에는 美軍 11명과 韓國軍 5명 도합 16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으니 거의 30%에 가까운 손실을 본 셈이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이 고지의 일부 지역만을 겨우 점령하고 1주일 가까운 동안 밤낮으로 수류탄전 만을 계속하면서 고수(固守)하게 되었다. 美 제5기병연대는 이 이상 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이나 병력의 부족을 느끼게 되니 그 사기(士氣)도 따라서 저하일로(低下一路)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여기서 大邱까지는 겨우 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으니 위기의 관두(關頭)에 놓여 지게 되었다는 말은 실로 이러한 전황(戰況)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3) 架山城址(△902) 전투

9월 2일 : 美 제1기병사단의 우익(右翼)을 담당하고 있던 제8기병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밤에 보울링 앨리(Bowlling Alley)에서 적 제13사단 소속 소좌 金某가 지휘하는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적은 먼저 美 제8기병연대의 제2대대가 점령한 448高地를 탈취하게 되었다. 대대의 우익(右翼)을 담당한 E중대는 공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방이 차단됨으로써 재빨리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9월 3일 : 제3대대의 I중대는 도로를 지키고 있다가 이날 02.00에 전차 2대를 앞세우고 덮쳐드는 보병 부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중대는 이로써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화력 지원을 얻어서 겨우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앞에서 말한대로 448高地를 적에게 넘겨 주게 된 제2대대는 계속 적의 압력을 받으면서 제3대대 지역을 통하여 후방 집결지로 철수한 다음 길다란 한숨을 내 쉬었으니 대저 장비의 양부(良否)란 투지의 고하(高下)를 따를 수 없음이 이와 같았다.

한편 적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은 역시 美 제8기병연대의 정찰소대와 156명으로 편성된

韓國 전투경찰대가 확보하고 있는 架山城址(△ 902, 大邱 北쪽 16km 지점)를 급습(急襲)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美 제8기병연대가 多富洞 일대의 요지(要地)와 架山을 적에게 넘겨 주고 말았으므로 大邱 방어문제는 곧 당면의 위기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상부지도층은 깊은 우려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데 架山을 점령한 적군 제1사단은 그 후방에 포진지를 점령한 다음 비록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美 제99포병대대에 약간의 손실을 주기도 하였으니 비록 괴뢰군이라 하드라도 그 포병의 위력마저 허수아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까닭으로 美 제1기병사단장은 부사단장 앨런(Frank A. Allen) 준장으로 하여금 사단의 후방부대인 본부중대와, 근무중대 그리고 군악대와 보충중대까지 모조리 함께 모아서 앨런(Allen) 특수임무부대를 편성케 한 다음 이 급편(急編)부대를 大邱市의 北쪽 주변에 배치하여 장차 붕괴촌전(崩壞寸前)에 접어들게 된 大邱를 위기에서 구출하여 보려고 최후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점차로 大邱市의 안위(安危)가 문제시되기에 이르자 美 제8군사령부에서도 大邱에 있던 中央訓練所의 第5教育隊에서 훈련 중인 신병을 기간으로 1개대대를 편성하여 급히 美 제8기병연대의 후방지구로 전투참가케 하였는데 이 대대는 李相喆 중령이 그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날 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기병사단장에게 架山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앞서 말한대로 架山(△902)은 大邱 北쪽 16km인 多富洞 東南쪽 6km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부근 일대(一帶)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大邱市를 한눈으로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山城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고지는 포병사격의 관측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大邱—多富洞간의 도로를 감제(瞰制)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요지이기도 하였다. 이 山봉우리에 있는 산성은 돌로 쌓아 올린 古山城이며 그 높이는 10m로서 山頂의 사주(四周)를 둘러싸고 있었다. 또한 이 봉우리는 200m와 800m사방 넓이의 분지(盆地)를 이루고 있고 李朝 仁祖때(1640년)에 축성하였으며 이 곳에 부(府)를 두었던 것이다.

이 고지는 8월 29일 美 제8기병연대가 우리 제1사단으로부터 방어지역을 인수하였던 것이지만 원래 방어지역은 넓은데 병력은 부족하여 제8기병연대장은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써 상부에 건의하여 많은 논난을 벌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던 이 요지가 9월 3일 적에게 빼앗기게 되자 갑론을박(甲論乙駁)이었

던 실없은 논쟁도 그 끝장이 나게되고 美軍의 체면만 흙투성이가 된 셈이었다.

美 제8군사령부의 작전참모 데브니(John A. Dabney) 대령은 美 제1기병사단 참모장 호움스(Ernest V. Holmes) 대령에게 架山城에 대한 탈환과 그 확보책임까지를 다시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사령부에서 1개 중대를 증원하겠다고 선심마저 쓰는 것이었다. 게이(Gay) 사단장이 사단지휘소에 돌아오자 참모장 호움스(Holmes) 대령은 제8군 작전참모의 지시한 진상를 보고 하였더니 사단장은 곧 공병중대를 架山에 참전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선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본다.

참모장 호움스(Holmes) 대령은 美 제8야전공병 대대장 홀리(William C. Holley) 중령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면서 美 제8기병연대장 팔머(Raymond D. Palmer) 대령과 협의하라고 부언하였다 .이날 오후에 팔머(Palmer)대령은 多富洞의 자기(自己)지휘소에서 공병 대대장과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장 및 美 제8기병연대 E중대장에게 架山 재탈환에 대한 공격 계획을 다음 요지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케네디(John T. Kennedy) 중위가 지휘하는 공병중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 다음 E중대가 뒤따라서 일단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즉시 중대는 그 고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먼저 공격하였던 공병중대는 철수하게 되어 있었다.

9월 3일 : 저녁 때 D중대의 고병(古兵)들은 차량에 분승한 다음 비나리는 밤하늘을 뚫고 북극성도 보이지 않는 北쪽을 향하여 기동한 것인데 이 중대가 지정된 집결지에 이르는 중도에서 156명의 韓國 경찰대와 부상자를 실은 2대의 차량과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연대의 수색 정찰대와 함께 활동하던 병력으로서 오늘 오후에 架山城址에서 후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집결지에 잠간 머물렀던 중대는 비가 잠간 뜸하여지자 집결지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는 곧 군의 명령이란 동서고금를 막론하고 이같이 지엄한 것이 군대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9월 4일 : 이날 아침에 공병중대는 架山을 목표로 하여 1개 소대를 앞세우고 전진을 시작하여 法堅洞에서 架山의 험준한 비탈길을 800m쯤 올라 갔을 때 적의 집중사격을 일시에 받게 되었다. 이 城址에는 적 제1사단의 제1연대 제2대대 주력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공병중대는 11.00에 南쪽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소대가 종대 대형으로 앞서고 제2소대와 제3소대가 그 뒤를 따라 어슬렁거리고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때에 팔머(Palmer) 연대장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정보장교 가이라우드(Rene J. Guiraud)대위와 함께 공병의 뒤를 따랐다. 1.5km도 미처 전진하지 못하였을 때 공병중대는 左측방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을 일시에 받고 몇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좀더 전진하자 이번에는 오른쪽 측방에서 또 다른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즉시 무전(無電)으로 포화력(火力)의 지원을 요청하여 정상에 집중화력의 세례를 줌으로써 적를 완전히 제압하고 말았다. 피터슨(Robert Peterson)소위가 지휘하는 정찰소대는 左측방 계곡(溪谷)의 절벽을 따라서 전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적의 박격포탄의 집중으로 2명의 전사자와 8명의 부상자를 한꺼번에 내게 되었으며 이때 소대장은 신장병(腎臟病)으로 같이 쓸어지게 되자 그립프(Gliph)상사의 소대는 계속하여 중대 선두에서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17.00경에는 756高地 정상으로 가는 암벽(岩壁)에 제2소대, 제3소대가 차례로 도착하였는데 이 고지는 架山에서 2km 南쪽에 솟아있는 연봉(連峯)에 속한 산맥이었다. 이 756高地에 도착하였을 때 팔머(Palmer) 대령은 게이(Gay) 소장에게서 산을 내려오라는 무전(無電) 명령을 받게 되었다. 당시 케네디(Kennedy) 중위는 90명의 공병 중대원을 西쪽에서 東쪽으로 반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가득차 있었다.

제3소대장 존스(Thomas T. Jones) 소위가 산 봉우리에 도착하였을 때 오른쪽(東쪽)에서 300m 떨어진 능선에서 적의 박격포 3문이 쉴새없이 사격하고 있는 모양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곧 케네디(Kennedy) 중위에게 여러번 이 박격포를 격파하기 위한 아군의 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중대장은 끝내 이를 듣지 않고 후방의 굴 안에 있던 지휘소에 웅크리고만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공병중대 진지는 제3소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위로 둘러 싸여 있었는데 존스(Johns) 소위는 소대 선임하사관과 분대장에게 숲이 우거진 능선에 진지를 점령토록 명령하고 중대장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 몇분이 지난 뒤에 존스(Johns) 소위는 소대원으로부터 위장(僞裝)을 철저히 한 적 10여명이 그들의 박격포진지에서 山 능선을 따라 내려오고 있으며 그 중의 1명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적의 박격포 진지를 엄호하기 위한 경계병들로 판단되었다. 존스(Johns) 소위는 진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후방에 SCR-300 무전기(無電機)를 남겨 놓았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때에 1개 분대는 시계 안에 잘 보였으나 다른 1개 분대의 소재는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소대장은 지형을 판단하면서 이 분대 진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병을 보내고 나서 그가 곧 돌아 오리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적은 소대 후방의 중대 진지를 공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들려오는 고함소리와 총소리로 미루어 보아 중대 주력이 이미 격파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므로 존스(Johns) 소위

는 남은 소대원을 수습하는 즉시로 山으로 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밤 존스(Johns)소위는 8명의 병사와 함께 계곡에서 무전기(無電機)로 중대를 호출(呼出)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9월 5일 : 美軍 전투폭격기가 山 봉우리를 기총소사할 때 중대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먼저간 분대는 안전하였으나 존스(Johns) 소위 이외의 7명은 적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공병중대가 756高地에 도착한지 30분 뒤에 南쪽 능선을 공격하였는데 주공(主攻)은 그립프(Gliph) 상사가 지휘하는 제2소대로서 두자루의 기관총으로 6m의 성벽을 이용하여 잘 싸웠으나 여기에서 1명이 전사하고 3명은 부상하였다. 이날 (9월 5일)밤 적은 박격포 사격과 함께 소규모의 공격도 거듭 반복하였다. 중대장은 1개 정찰대를 보냈으나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2문의 로켓트포와 2정(挺)의 경기관총이 버려져 있는 것을 회수(回收)하고 돌아 왔는데 이 무기(武器)들은 제3소대원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5일 아침은 4일이래 밤새도록 비가 와서 756高地의 산정(山頂)은 안개가 자욱하였는데 적은 이 깊은 안개를 이용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공병중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으나 다소(多少)의 피해를 입었다. 소대의 무전기(無電氣)가 파손되어 중대 본부와 전령(傳令)으로 통신을 하고 탄약의 지상 보급이 끊기게 되자 3대의 C-47수송기가 공중보급을 위하여 급파(急派)되기도 하였다.

중대장은 곧 오렌지빛 대공표시판(對空標示板)을 펴서 쌓았다. 이것을 본 적도 또한 같은 표시판을 펴서 쌓았으므로 몇번을 선회(旋回)하던 美軍 수송기는 드디어 탄약과 식량을 적진(敵陣)에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웃지못할 넌센스가 아니겠는가? 잠시후 2대의 전폭기가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美 공병대를 기총소사 하기 시작하였다. 2발의 네이팜탄이 D중대 진지에 떨어졌으나 다행하게도 1발은 불발탄이었고 다른 1발에도 아무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역시 과오치고는 철저하기 짝이 없는 과오라할 것이었다. 또 잠시 뒤에 美軍機가 소대의 진지를 기총소사 하였는데 이번에도 기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 총탄이 오히려 사람보다도 현명하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와 같은 희비극(喜悲劇)을 안겨 준 공중공격이 끝난 뒤에 이번에는 또 적의 포사격이 시작되어 케네디(Kennedy) 중위는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美 제8기병연대 E중대의 선두소대가 10.00부터 1시간동안에 756高地에 도착하여 D중대를 증원하게 되었다. 그러

나 처음에 공병중대는 이 E중대를 적으로만 오인한 나머지 도리어 일제 사격을 시작하였는데 E중대의 소대는 그립프(Gliph) 상사의 오른쪽 측방에 배치되고 케네디(Kennedy) 중위는 E중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겨 주었다. 케네디(Kennedy) 중위는 부상자 12명을 데리고 산을 내려 왔으나 내려 오는 도중에 적으로부터 또 다시 사격을 받았다. 美軍 장교가 인솔한 韓國人 노무자(勞務者)들이 보급품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 오다가 적의 사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몇명이 사살되자 그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으니 총기도 없는 그들이 내려가 버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 아니겠는가?

공병 D중대를 찾아 756高地를 올라가던 E중대는 산 밑에 있던 대대 본부에 들렸는데 적의 박격포사격이 길에 집중되자 중대장은 이 포격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무전(無電)으로 보고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중대장으로 임명하고 "계속 올라가라."고 엄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새로 임명된 중대장은 그의 안경이 돌에 맞아 깨어지자 앞을 볼 수 없다하여 대대장에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하였더니 홀리(Holly) 중령은 연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그도 또한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홀리(Holly) 중령은 세번째로 중대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E중대는 20.00에 출발하여 날이 밝을 무렵 산정(山頂) 300m 지점에 이르게 되자 적의 치열한 일제사격을 받게 되어 전진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정면의 적은 9월 2일 多富洞 北쪽에서 제2대대를 공격한 적 제13사단 소속의 같은 중대였다.

E중대의 선두 소대가 그립프(Gliph) 상사의 소대와 연결된 직후 적은 또다시 공격하여 왔다. 그립프(Gliph) 소대의 3.5인치 로케트포가 적의 대열에 사격을 가하자 적은 이것을 박격포탄이나 75mm 무반동포의 사격인 줄 알았는지 그대로 공격을 중지하고 말았다. 그립프(Gliph)소대도 탄약이 없어지게되자 적병의 화기와 탄약을 모아서 반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40정의 소총과 5자루의 다발총 그리고 약간의 수류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적의 무기(武器)와 탄약을 수집하러 가다가 그립프(Gliph) 상사가 3분대의 자동소총 사수인 브라운(Melvin L. Brown) 일등병의 참호 진지를 지나갔을 때 그 주변에는 15명내지 20명의 적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브라운(Brown) 일등병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올라오는 적을 그때마다 한놈씩 사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날 08.00쯤 케네디(Kennedy) 중위가 이미 싸늘한 시체로 쓰러져 있는 것도 보게 되었다. 즉 브라운(Brown) 일등병은 자동소총의 탄환이 떨어지자 몇발의 수류탄으로 마지막에는 야전

(野戰)삼으로 성벽을 기어 올라오는 적의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다. 용감한 브라운 일등병은 그날 아침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그 자신이 붕대를 감고 끝까지 케너디(Kennedy) 중위의 시체 옆에서 죽음으로써 진지를 지켰던 것이다.

13.30에 게이(Gay) 사단장은 美 제8기병연대에게 梨川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정규방어 정면 이상의 넓은 정면을 방어하여야 하고 비록 중요한 관측고지 이기는 하지만 야포와 박격포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철수 명령은 梨川城北에 있는 부대까지는 미쳐 전달되지 못하였다. 美 제8야전공병대대 중대도 아직 川바탈에 있었으며 山頂에는 짙은 안개로 지척(咫尺)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적은 다시 제2소대와 서로 인접한 E중대의 소대를 공격하여 왔는데 소대장 그립프(Gliph) 상사는 공병(工兵) 1명을 연락병으로 삼아 중대본부로 보내었다. 30분 뒤에 돌아온 이 연락병은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 "중대본부는 간 곳이 없고 죽은 적의 시체만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립프(Gliph) 상사는 E중대의 소대를 지휘하고 있던 상사(上司)에게로 다가가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였는데 그 결론으로서는 소대를 이끌고 성벽을 기어 넘어 간다는 것이었다. 그립프(Gliph) 상사(上士)는 곧 돌아와서 각 분대장을 불러놓고 그들이 오던 길로 철수하자고 하였으나 부상자에 대한 처리가 큰 문제였다. 적의 사격은 四方에서 집중되어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는데 3분대장 필립(John J. Philip)상사는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무기를 모두 파괴키로 결심하였다. 그립프(Gliph) 소대장은 집결된 대원 중에 브라운(Brown) 일등병이 없는 것을 알자 필립(Philip) 분대장에게 그 연고를 물었더니 그도 그의 간곳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곧 찾아 보겠다는 대답이었다. 이리하여 필립(Philip) 분대장은 진지를 살펴본 끝에 브라운(Brown) 일등병이 이미 전사(戰死)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다음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와서 산 밑에 있던 대대장 홀터(Holter) 중령과 E중대원 그리고 공병대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D중대가 모두 집합하였을 때는 18명의 부상자와 30명의 전종자를 내게 되어 50%나 되는 병력의 손실을 보게된 것이었다. 이 부상자 중에는 美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의 장교 1명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언덕을 뛰어 내리다가 다쳤던 것인데 산 밑으로 운반되어 민가 (民家)에 남겨 두었다가 뒤에 들을 와서 점차로 데리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美 제1기병사단이 그곳을 다시 찾아온 것은 4주인이나 지난 뒤였는데 그 장교는 손과 발이 묶인 채 눈알이 빠져 있었다. 손톱을 잡아 뽑고 온 몸은 불에 타 있었다. 그는

묶인채로 고문(拷問)을 당하면서 학살된 것이 분명하였으니 야수(野獸)와 같은 북괴들의 만행을 여기에서 또다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항자(降者)는 불살(不殺)이 전쟁(戰爭)의 철리(哲理)이거늘 하물며 적십자(赤十字)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전상자(戰傷者)에 대하여 어찌 이 같은 전율(戰慄)할 짓을 할 수 있겠는가?

梨山城址 부근에서 韓國軍이 4일 08.00시 사로 잡은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적 800명이 梨山城안에서 방어하고 있었으며 3개 대대 병력이 이들을 증원하기 위하여 北에서南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5일) 18.00쯤 梨山城 안에는 약 1.500명의 적이 점령하고 있었고 우마차(牛馬車)가 박격포탄과 식량을 梨山城에 나르고 있었다는데 며칠 뒤 그 우마차는 梨山城址 南쪽에서 韓國軍에 의하여 모조리 포획되었다.

9월 6일 : 美軍이 梨山城에서 철수한 다음 날인 6일에 적은 多富洞 4.5km 南쪽 도로를 막아 버리는 동시에 大邱도로를 감제하는 570高地 마저 점령하게 되었다.

9월 7일 : 이날 아침 美 제16수색중대의 전차 5대는 그 도로를 봉쇄(封鎖)하고 있는 진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도로 西쪽의 논과 東쪽의 山 봉우리는 적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는데 게이(Gay) 사단장도 마침 수색중대(搜索中隊)가 있는 곳에 있었으므로 사단장은 곧 수색중대장에게 빨리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논에 있던 적병들은 전차의 공격으로 쉽게 분산되었으나 東쪽 고지를 공격하던 보병의 위치는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902高地와 570高地의 적들은 美軍 공격기의 치열한 반복공격을 받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美 제1기병사단이 여러 곳의 싸움에서 대양 격파만을 당하게되자 워커(Walker) 중장은 韓國軍 제2군단장 劉載興 준장에게 梨山 공격을 명령하게 되었으니 이는 美軍들의 피탄면적(被彈面積)이 더 많은 까닭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9월 8일 : 이날 아침 美 제8기병연대 존슨(Harold K. Johnson) 중령의 제3대대는 570高地의 공격임무를 받았는데 이 고지의 3개 봉우리에는 구름이 덮혀 있어서 폭격이나 포격지원이 힘드는 형편이었다. 존슨(Johnson) 중령은 3개 소총중대로 3개 봉우리를 공격시켰으며 그중의 2개 중대는 은밀히 접근하여 목표를 점령하였으나 나머지 1개 중대는 적의 약간의 저항을 받아 쉽사리 점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570高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적병들은 눈을 깨어 본 즉 이미 포로의 신세가 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가해도 받지 않았으므

로 다만 모두 두 눈만 깜박일 따름이었다. 이때에 적의 주력은 가장 높은 세번째 봉우리에서 완강(頑強)하게 L중대의 공격을 저지하게 되었으므로 이 싸움에서 중대장과 중대부관을 비롯한 몇명의 하사관들이 전사하게 되었다. 이 당시 美 제8군 정보치는 판단하기를 570고지에는 약1,000명의 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大邱 北쪽 12km지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UN軍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으나 이 무렵 軍은 탄약 부족으로 말미아마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되었으니 후방보급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실히 말하여 주는 일례(一例)가 될 것이다.

9월 9일 : 이런 까닭으로 맥아더(Mac Arthur) 총사령관은 이날 2척의 탄약선을 釜山으로 보내면서 최대속도로 항행(航行)하여 11일 까지는 어김없이 도착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었는데 우선 105mm포탄 172,790발을 보내게 된 것이었다.

9월10일 : 美 제 8군은 105mm 포탄의 소모량을 하루에 50발내지 25발로 감소시켰지만 이것은 물론 사태가 긴급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못하였음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칼빙총탄도 부족을 고하였으니 비단 포병만의 고민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8인치 곡사포로써 장비되었던 美 제18야포대대는 탄약이 없어서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당시 적 제1사단은 美 제1기병사단의 오른쪽 측방에서 아군 제1사단 정면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고 있었는데 이 적 제1사단의 제2연대는 1,200명의 병력으로 架山에서 大邱 東쪽 八公山으로 신출하여 10일 밤에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다발총으로 장비한 보충병을 새로이 받아 아군의 후방을 교란(攪亂)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군은 이를 발견하는 즉시로 800명 이상이나 삽시간에 사살하고 말았으니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어는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美 제1기병사단은 이 무렵에야 겨우 대부분의 전투부대를 大邱 오른쪽 측방에 집결시켰는데 이 당시의 美軍 부대의 배치상황을 살펴 본다면 美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었던 美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大邱 北쪽 鳳岩里 181高地와 182高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美 제7기병연대는 大邱 東쪽 6km지점인 東村飛行場 부근의 琴湖江 기슭에 있는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美 제5기병연대는 大邱 西北쪽 9km지점에 있는 沿川洞 부근 고지에 배치되었으며 美 제8공병대대는 大邱 西쪽 琴湖江橋를 지키고 있었다.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10일 빠져나온 존스(Johns) 소위의 말에 의하면 건너편 능선 위에 400내지 500명의 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인데 때마침 美軍 정찰기 1대가 상공에 나타났으나 이것을 정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니 공중 정찰은 결

코 만능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예(一例)가 될것이다.

이 栗山城址를 점령하였던 적 제13사단 및 제1사단은 大邱로 침공할 준비를 철저히 끝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9월 11일 : 이날 大邱北쪽의 道德山(△ 660) 및 314高地 부근에서 있었던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는데 이때의 美軍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美 제1기병사단은 美 제7기병연대 예하인 제3대대의 봉쇄진지가 돌파될 것을 걱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소총중대의 병력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으니 예(例)를 들어본다면 당시 美 제5기병연대 E중대는 3명의 장교와 63명의 병사 밖에는 없는 형편이었으며 美 제7기병연대의 C중대는 50명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美 제8기병연대의 제3대대는 각 중대가 각각 100명을 넘지 못한 실정이었으니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美軍은 인적(人的), 물적(物的) 모든 면에서의 대시련(大試練)을 맛 보았다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로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지엄한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고 평화를 좋아하면서도 일단 맡은 바 임무에는 죽엄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병들이 상상밖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4) 李相喆대대의 道德山 싸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大邱 중앙훈련소는 제 5교육대의 1개대대를 편성케되었는데 이때 병사들은 약 10일간 밖에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들 신병(新兵)을 교육하였던 대장 李相喆 중령이 소총 5개중대의 대대로 편성한 다음 9월 3일 大邱 北쪽의 전선을 向하여 용약출동하게 되었다. 조국의 최대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결사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이 대대는 美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어 제2선인 道德山에 배치되었으나 당시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소위들만이었고 중대장급은 대체로 예비역에서 현역에 편입된 이른바 호국군 소위가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을 수료한 다음 현역 소위로 임관된 사람들이었다. 또한 소대장급도 그 대부분이 방위장교 또는 배속장교 출신의 예비역 소위들로서 기관총 조작(操作)이나 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900명이란 대대 병력이라고는 하지만 신통한 전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서 이 대대 앞에는 전투경찰대가 배치되어 무위(武威)를 보이려는 판국이었다. 그러므로 李 대대는 약 20일간의 진지방어 기간 중에 국부적인 공격도 시도(試圖)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야간 방어 중에는 진중 근무의 경험이 없어 적이 침투하

여 중대본부까지 들어 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로 야간에 침투해 오는 적은 능히 막아 내어 격퇴하였는데 전술이나 화력에 의하여 격퇴시켰다기 보다는 차라리 많은 인력(人力)의 위세(威勢)를 빌려 방어에 성공하였다고 李相喆 예비역 소장은 증언하고 있다.

이 전투기간 중에는 13일 간이나 계속 비가 내려서 식수(食水)에도 곤난하였고 더구나 말이 불어서 행동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또한 지휘소에 연락가는 연락병들이 美軍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들로부터 적으로 오인(誤認)되어 피살(被殺)을 당한 예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뼈아픈 한 토막이었다.

이 대대는 9월 20일 쯤 아군이 반격을 시작하자 다시 大邱의 교육대로 복귀하여 훈련을 마친 다음 10월에는 제5사단 제27연대(연대장 李相喆 중령)에 편입되었다.

李相喆 중령은 미숙(未熟)한 신병교육대로서 道德山 방어 임무를 능히 완수(完遂)하였다고하여 美國 정부에서 동성훈장(銅星勳章)을 수여 받았다.

(5) 314高地 전투

9월11일 : 美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架山 西南쪽 3.5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570高地를 탈환하고자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적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은 道德山 南쪽 능선상(稜線上)의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 고지는 적이 점령한 고지 중에서 大邱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서 大邱市의 중심가(中心街)까지 12km거리밖에 안되는 곳이었으므로 따라서 적이 이곳에서 곡사포(曲射砲) 사격을 한다면 분충히 유효사거리(有効射距離)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고지에 대한 반격전은 美 제7기병연대의 제3대대의 535명을 린치(James H. Lynch 중령이 지휘한 다음 단독으로 감행하게 된 것이다. 원래 이 대대는 美國 조지아(州)에 있는 포드·벤닝(Ford-Benning)에서 편성되어 美 제3사단 제30연대의 건제(建制)대대였으나 이해 8월 말에 韓國 전선에 참전하게 된 정예(精銳) 대대인 것이다.

이 제3대대는 첫 전투인 水岩山에서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고 공격 방법을 달리하였으니 즉 水岩山에서는 중대가 종대 공격을 가하다가 모조리 격파 당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 중대를 공격 제대(梯隊)로 구분하여 9월 12일 11.00를 기하여 314高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 당시 탄약이 부족하여 공격준비사격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병 단독으로 감행(敢行)된 공격이었으므로 공격의 진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적은 120mm박격

포의 화력(火力)을 총 집중사격하므로써 공격대대의 앞 뒤에는 정확한 적의 조준사탄(照準射彈)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어 공격중대의 전진이 매우 지지부진(遲遲不振)하게 되었다.

이때에 왼편의 L중대는 약 400여명의 적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 무전(無電)으로써 공중 폭격을 요청하였으나 전폭기는 급유차(給油次)기지로 돌아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은 드디어 美軍의 야포 및 박격포 등의 일제사격으로 분쇄되었으며 전폭기는 14.00가 되어서야 이 고지의 능선과 정상을 전면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그 반면에 적의 박격포 사격으로 L중대와 I중대는 많은 전사상자(戰死傷者)를 내게 되어 이 두 중대를 다시 편성하여 통합하고 말았다. 또한 많은 장교가 살상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상급하사관들이 지휘하게 되었는데 25%의 손실을 입은 I중대장 휠드(Joseph A. Fields) 중위는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개활지에서 다시 부대를 편성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같은 중대의 헤이즈 중위는 드디어 전사하게 되었다. 또 I중대 화기소대장 맥콜(Roye E. McCall) 상사는 어깨와 바른팔에 세 차례나 부상을 당한 끝에 네번째로 적탄에 머리를 상하게 되어 전사할 때까지 용감하기 짝이 없는 진두지휘를 하였다. 역시 I중대의 엥글(Marshall G. Engle) 소위도 두군데나 포탄파편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후송을 거절하고 위생병에게 나보다도 더한 중상환자를 먼저 후송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엥글(Engle)소위는 밤이 깊도록 12시간이나 고지에 누워 있다가 마지막으로 후송될 때 또 박격포탄을 맞아서 거듭 부상을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으니 하늘도 이 용사의 편을 들어 주셨던 모양이니 美軍의 공중폭격이 있은지 약 15분 뒤에 제3대대는 공격을 또다시 계속하였다. 적의 치열한 저항을 물리치고 근접 전투 끝에 몇명이 고지정상에 올라갔으나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하는 수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또 다시 공격하였으나 끝내 고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공중 폭격의 지원을 받아 세번째로 I중대장 워커(Robert W. Walker) 중위가 정상에 이르러 빨리 올라 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중대원들에게 크게 소리치자 대원들은 발분한 나머지 곧 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15.30에 314高地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때에 L중대 병력은 40명이 못되었고 I중대도 겨우 4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2개 중대의 모든 장교를 손실 당하는 바 되었다.

게이(Gay)사단장은 이 놀라운 손실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3대대는 첫 2시간 동안에 걸친 싸움에서 229명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두번째 공격때의 손실이었고 그 중 38명의 전사자와 167명의 부상자를, 그리고 나머지 24명은 배속된 우리의

군사들이었다. 대대구호소에서는 136명의 부상자를 치료한 것을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부상자는 美 제8기병연대 구호소에 후송하게 되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경상자들은 치료받기를 거절하면서 싸웠는데 518高地에서의 18명에 달하는 전사상사 가운데서 5명만이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6일간이나 314高地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적의 상비와 탄약을 많이 수집하였다. 이 고지의 적병들은 美軍 복장에 헬멧(helmet)과 군화를 신고 있었고 많은 M1소총과 칼빈(carbin)소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200여명의 적의 시체가 고지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포로의 말에 의하면 적은 500여명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 고지에서 또 적의 잔학(殘虐) 무비(無比)한 야만행위가 자행(恣行)되었는데 9월 12일 오후에 발견된 웨벨(James B. Webel) 대위는 손과 발을 묶인 채 머리유를 깨끗이 깎고 산채로 불질러 버렸던 흔적을 알 수 있었으니 이제 근처에 5가족 동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다른 곳에서도 4명의 美軍병사가 손이 묶인 채로 참살(慘殺)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이 아니겠는가. 단연코 인간의 탈을 쓴 식인종(食人種)의 재래(再來)요 악귀야차(惡鬼夜叉)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9월12일 : 이 314高地를 탈환하게 되자 大邱 北쪽의 상황은 이로써 크게 안정성을 되찾게 되었다.

9월14일 : 570高地를 공격하던 美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이 314高地에서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적 제13사단의 제19연대를 격파하고 570高地를 점령하였다. 오른쪽 측방에서는 아군 제1사단이 계속 공격을 감행하고 아군 제11연대는 14일 이루어질 무렵에 756高地를 점령하는데 成功하였으며 또한 제11연대의 제1대대는 15일에 栗山城址를 점령하는데도 성공하였으니 용호(龍虎)가 서로 같이 악귀(惡鬼)를 몰아내는 격이었다.

9월15일 : 756高地와 78高地 그리고 八公山으로 뻗은 여러 곳에서 매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부근 일대(一帶)의 적은 약 3,000명으로 栗山城址에 있는 적은 약 1,500명에서 2,000명으로 推算되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아군은 약 800여명의 포로를 잡았던 것인데 그때 적 제1사단의 대부분이 栗山城址에서 철수하였고 적 제13사단도 北으로 퇴각하는 것 같이 판단되었다. 14일 오후의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多富洞에서 北으로 약500여명의 적이 이동중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희망적인 징조(徵兆)에도 불구하고 워커(Walker) 중장은 大邱에 대한 방어를 계속 강화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우리의 전

투경찰대의 14개대대가 大邱市 주변에 배치되었다. 15일에도 大邱 北쪽에서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美 제8기병연대의 제3대대는 아직도 多富洞 공도(公道) 東쪽 570高地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고 美 제8기병연대 제3대대는 美 제8기병연대와 美 제5기병연대 중간을 뚫고 침투하여 들어 온 적과 401高地에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이 싸움에서 백스터(Earl R. Baxter) 중사는 근접전투에서 혼자 10여명의 적을 사살하였고 소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적의 수류탄으로 말미아마 장열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적 제2군단은 大邱를 점령한 다음 浦項-慶州의 외곽(外郭)을 돌하여 美 제8군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釜山으로 진출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적 제1군단은 洛東江 하류에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여 왔던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12일 314高地를 탈환하게 되자 大邱 北쪽의 상황은 매우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근 여러 고지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9월 14일에는 美 제8기갑연대의 제2대대가 314地高에서 지원사격을 받아 북괴군 제13사단 제19연대를 격파하고 570高地를 점령하였고 右측방에서는 아군 제1사단이 西北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아군 제11연대는 역시 9월 14일 어두울 무렵에 755高地를 점령하였고 또한 아군 제15연대의 일부는 같은 시간에 架山城址를 점령하였다.

9월 14일 오후의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多富洞에서 北쪽으로 약 500명의 적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당적인 징조에도 워커 중장은 大邱 방어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15일에 접어들면서 755高地 및 783高地와 八公山으로 뻗은 여러 곳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韓國軍은 적 약 800명을 포로로 하였다.

이 당시 북괴군 제1사단의 대부분의 병력은 902高地에서 후퇴하였고 역시 북괴군 제13사단도 北쪽으로 퇴각하는 것 같았다.

9월 15일에도 大邱 北쪽에서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仁川에서는 仁川上陸작전이 순조롭게 진전되어가고 있었으며 9월 16일 09.00에는 U.N.군의 총반격전이 시작되었다.

2. 昌寧附近戰鬪 (50년 8월 31일부터 50년 9월 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1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美 제2사단 장 소장 로오렌스 비 카이저 (Lawrence B. Keiser)	제2대대 장 미상
제23연대 장 대령 파울 엘 프리맨 (Paul L. Freeman)	제3대대 장 미상
제1대대 장 중령 크레어 이 헛친 (Claire E. Hutchin)	병력 약 2.000명(제3대대는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

적 군

북괴군 제2사단 장 소장 崔 賢	포병대 장 미상
제4연대 장 대좌 李 勝 虎	병 력
제6연대 장 미 상	북괴군제2사단
제17연대 장 대좌 金 寬 夫	약 11,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2사단에하 제23연대는 프리맨(Paul L. Freeman) 대령의 지휘 밑에 洛東江 연안의 곱자골 西쪽 능선 東端에서 釜谷里의 마수원에 이르는 14km 정면에 넓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 정면은 美 제24사단에하 제21연대가 8월 24일에 美 제2사단에하 제38연대의 제3대대에 인계한 지역으로서 8월 29일에 제3대대로부터 다시 제23연대가 인수하게된 곳이었으며 이 제23연대는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던 제3대대를 제외하고는 洛東江 전선의 여러 곳에서 싸운 바가 있었다.

연대장 프리맨(Freeman) 대령은 제1대대를 洛東江 연안의 높은 지대에 배치하고 洛東江에서 昌寧으로 이르는 두개의 도로를 봉쇄케 하였고 제2대대는 제1대대 후방에 있는 두개의 교통이 편

리한 도로에 예비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제1대대의 A중대는 제23연대의 右측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곱자골 西쪽능선 東端에서 글방 마을에 이르는 능선에, 또 B중대는 그 南쪽에 배치되어 玄倉里의 187高地에서 城山里의 143高地에 이르는 능선에, 그리고 나머지 C중대는 加項里에서 釜谷里의 마수원에 이르는 능선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때에 B중대 제2소대의 42명은 캐스고우(Wiliam G. Casgow) 소위 지휘 밑에 釜谷里 北쪽 洛東江제방 2,500m 정면에 있는 7개의 경계진지를 점령하면서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북괴군 제2사단예하 제4, 제6, 제17연대는 8월 중순 金泉에서 재편성하고 8월 30일까지 新反里에 집결하였다가 다음날인 31일에 美 제23연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南쪽 C중대 정면 내재나루터와 北쪽 B중대 정면의 赤布橋 및 삼발머리 나루터의 3개지점에서 洛東江을 강행도하(強行渡河)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8月 공세때에 美 제24사단에 의하여 북괴군 제4사단이 여지없이 분쇄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만큼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괴군은 9月 공세의 목표인 釜山을 강점하기 위하여서는 密陽과 釜山 사이를 차단한다는 임무가 있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여 密陽과 昌寧을 동시에 공격한 다음 여기에 확고한 거점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洛東江 西쪽 新反里에 집결하였던 북괴군 제2사단 예하 제4, 제6, 제17의 3개연대는 美 제23연대 예하 제1대대의 C중대 정면인 내재나루터와 B중대 정면인 赤布橋및 삼발머리 나루터에서 洛東江을 건너 赤布를 중심으로 위 아래에서 昌寧으로 뻗어있는 두개의 접근로를 따라 美 제23연대 진지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8월 31일 : 이날 밤 洛東江을 건너 논 밭으로 오는 수 많은 북괴군은 美軍의 포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떼를 지어 美軍진지로 나가 오고 있었다. 어둠이 깃들자 釜谷里 北쪽의 洛東江 제방 2,500m 정면에서 7개의 경계진지를 지키고 있던 캐스고우(Casgow) 소위 지휘하의 美 제23연대 예하 제1대대의 B중대 제2소대의 소대원 42명은 이상한 불의 행렬이 산에서 강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캐스고우(Casgow) 소위는 즉시 대대본부에 보고하자 잠시 후에 美軍 포탄이 불의 행렬을 목표로 집중되었는데 몇 개의 불은 사라졌으나 행렬은 여전히 강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었다. 이날 21.00에는 북괴군의 야포와 박격포의 준비사격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강변(江邊)의 美軍 진지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지원 사격을 계속하는 동시에 북괴군 보병부대는 이에 뒤따라 어둠을 이용하여 산을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23.00에는 포사격은 멈추어졌으나 녹색 예광탄이 하늘로 치솟자 캐스고우(Casgow)소위의 진지에 수류탄이 빗발같이 날라와 큰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잠시동안 북괴군과 육박전을 하다가 캐스고우(Casgow) 소위분대는 철수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공격은 대대의 모든 경계진지에서 동시에 전개된 것이다.

북괴군의 야간 급습이 시작되자 제1대대장은 C중대를 제외한 대대병력을 昌寧에서 7.5km전방 主梅里에 있는 대대 지휘소 양쪽으로 철수시키게 되었는데 이 철수작전에서 B중대는 많은 피해를 입게되었다.

9월 1일:이날 03.00경에는 釜谷里에서 昌寧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美제23연대의 C중대는 북괴군에게 격파를 당하고 중대장 씨이릴 에스 바트홀디(Cyril S. Bartholdi) 대위를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전사 또는 부상하는 바 되었으며 이로부터 3일 뒤에는 중대병력이 20명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번 싸움이 그 얼마나 치열하였던 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C중대의 악전고투(惡戰苦鬪)와 당면의 북괴군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은 연대장 프리맨(Freeman)대령은 美제2사단의 예비대였던 G중대를 제1대대장 헛친(Hutchin) 중령에게 배속시키는 동시에 F중대를 釜谷里와 C중대로 가는 南쪽 도로를 따라 급히 진격시켰다. 제2대대의 부대장 젠슨(Jensen) 소령은 F중대와 함께 갔으나 C중대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낙오자들을 수용한 다음 本招里 부근의 높은 지대를 점령하고 방어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昌寧으로 가는 도로에 연한 곳이었다. 이날 밤 북괴군은 北쪽 헛친(Hutchin) 중령의 연쇄(連鎖)된 진지의 右측방을 통과한 다음 사단 포병진지를 거쳐 제23연대본부와 근무중대 및 기타 부대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침투하여 왔는데 본부중대의 닐스 제이 메킨타이아(Niles J. McIntyre) 대위가 지휘하는 연대본부와 본부중대, 그리고 연대 참모장교들은 3시간 동안이나 북괴군과 싸워 피아간에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하게 되었다.

이날 洛東江 연안 높은 지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대대는 와해되었고 제23연대는 主梅里와 牟山里 및 本招里의 세곳에서 각각 북괴군에게 포위되어 원형(圓型)진지 속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아침 북괴군에게 정면 10km에서 깊이 13km에 걸쳐 돌파를 당하게된 美제2사단은 드디어 昌寧과 靈山의 두 지구로 분단되었으므로 사단장 로렌스 비이 카이저(Lawrence B. Keiser)소장은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사단을 南·北 두개의 특수임무부

대를 편성하고 北쪽 昌寧 정면의 부대를 사단 포병사령관인 로얄 엠 하인즈(Loyal M. Haynes)준장에게 맡기는 동시에 南쪽 靈山 정면의 부대를 부사단장인 죠셉 에스 부래드리(Joseph S. Bradley)준장에게 지휘케 하고 북괴군의 돌파구(突破口) 확대를 극력 막으려고 계획하였다.

9월 2일 : 이날 오후 昌寧을 목표로 북괴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징후(徵候)가 나타나더니 저녁에는 벌써 昌寧으로 침공하여 왔다. 美 제2사단 사령부와 제9연대사이의 통신이 끊긴 하인즈(Haynes)준장은 통신망을 재개하려고 美 제72전차대대의 C 중대장인 듀(Dew) 대위가 지휘하는 전차정찰대를 靈山으로 급히 보냈는데 3대의 전차중 듀(Dew) 대위의 전차만이 적의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부래드리(Bradley)준장에게 하인즈(Haynes) 특수임무부대의 방어 상황을 전달하였다.

이날 17.00에는 昌寧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 명령을 받고 이동 중이던 헛친 (Hutchin) 중령의 제1대대가 북괴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이것을 구출하기 위하여 牟山里 부근에 있던 제23연대 지휘소의 西쪽을 공격하던 제38연대의 제3대대가 헛친(Hutchin) 중령의 제1중대와 합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북괴군은 道路 北쪽과 헛친(Hutchin)중령의 제1 대대 맞은 편에 있는 九龍山(△209)의 美 제38연대의 제3대대를 공격하여 그 1개 중대를 격파하기에 이르렀다.

9월 3~4일 : 昌寧 정면의 美 제23연대는 主梅里와 牟山里 및 本招里 3개소에서 북괴군의 포위망을 뚫고 곧 반격을 감행하려고 하였으나 북괴군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인즈(Haynes) 준장은 제38연대와 제23연대사이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제38연대로 하여금 昌寧으로 가는 南쪽 접근로를 방어케 하는 동시에 제2대대를 돕고 헛친(Hutchin) 중령의 제1대대의 이동을 가능케 하도록 하였다. 5일간의 전투에서 제23연대 제1대대는 심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처음의 1,100명의 병력이 6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날 美 제23연대는 釜谷里와 昌寧을 연하는 도로 西쪽에 있던 제2대대 진지에 전 부대를 집결 시킬 계획이었으며 헛친(Hutchin) 중령은 북괴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여 제2대대 右측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9월 5~7일 : 9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피아간의 공방전은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은 보지 못하였다.

9월 8일 : 이날 02. 30부터 북괴군 제2사단은 美 제23연대 진지를 돌파하려고 최후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만전의 준비를 갖춘 적은 포병의 집중사격으로부터 엄호하여 공격하여왔다. 이로 말미암아 F 중대는 드디어 돌파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 F중대진지가 다시 美軍의 손에 들어 오지 않으면 美 제23연대가 맡고 있는 모든 진지는 이를 지탱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F중대의 전 장교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대대부관인 랄프 알 로빈슨(Ralph R. Robinson) 중위가 이 중대의 남은 병력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북괴군의 급속한 침투로 F 중대의 후방까지 위태롭게 되자 비오는 어두운 밤에 로빈슨(Robinson) 중위는 정면 500m에 달하는 북괴군의 포위망을 뚫고 A 중대로 가서 이 중대의 예비소대를 증원 받아 가지고 다시 F중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9월 9일 : 날이 밝아지자 북괴군의 공격은 어제 밤에 비하여 점차로 약화되어가는 듯하였으며 12.00경부터는 그 공격을 멈추고 도리어 북괴군은 방어태세를 취하는 듯이 보여졌다. 이날 이후부터 북괴군의 공격능력은 약화되어 갔다고 하겠으나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후방지역에서 요란(擾亂) 행동을 계속하였으므로 美軍은 정찰대로 하여금 매일 같이 주보급로(主補給路)를 경계하는 동시에 昌寧 지구에 침투한 북괴군을 보는대로 공격하고 부닥치는 대로 격파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번 전투에서 북괴군 제2사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모(無謀)한 공세를 단행한 결과 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전사자가 1,300명이고 부상자는 2,500명에 달하였으며 매일 평균 300명의 부상자가 釜谷里에 위치한 적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美 제23연대는 남은 병력이 38% 밖에 되지 않았으나 美軍은 그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고 이와 반면에 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건대 이 전투에서 9월 9일 이후는 피아 모두가 전력(戰力)을 소모(消耗)하고 전황은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빠졌으나 美軍은 당면한 적을 공격하여 부분적으로 돌파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돌파구를 확대한 다음 주공방면의 진격을 용이케 하는 데에 주력을 나하였으며 북괴군으로 하여금 공세에서 방세를 취하게하는 전략적 효과가 매우 컸다. 그리고 玄風지구의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美 제23연대의 제3대대를 그 원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동시에 이 대대를 美 제2사단의 주공병력(主攻兵力)으로 삼았는데 9월 16일 仁川 상륙작전이 순조롭게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북괴군을 洛東江선까지 밀어 내는 반격전을 단행하였다.

§. 교 훈

◇ 적에 대한 기도판단의 필요성

美軍은 북괴군에 대한 정찰 활동을 소홀히 하였는데 그 한 예로서는 8월 31일 鉢谷里 北쪽 洛東江제방을 경계하고 있던 美 제23연대 제1대대 B중대의 제2소대원 42명은 밤의 어둠속으로 불을 켜들고 행렬을 짓고 美軍 진지로 다가오고 있는 북괴군을 보고도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만 이상한 불의 행렬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드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에 대한 기도판단(企圖判斷)이 소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곧 대대본부에 보고하자 포병 관측장교는 이것을 2,000명 정도 되는 피난민들의 행렬일 것이라고 속단하였다는 사실이며 또 그 얼마나 적정에 어두웠고 정찰활동이 소홀하여 북괴군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음을 실증하여 주는 좋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 야간경계의 중요성

美軍은 적의 야간 기습에 대하여 주도 면밀한 대책을 미리부터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한 예를 살펴 본다면 이 전투에서 美 제23연대의 제1대대 최전방 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B 및 C중대는 별로 싸우지도 못하고 곧 물러나 버렸고 또 대대의 모든 병력을 곧 후방의 대대 지휘소로 집결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북괴군의 진격을 손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 전 병력이 적의 중위(重圍)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야간 기습에 대한 사전 대책이 취하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의 싸움에서 적지 않은 고전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는 적의 동태에 대하여 소홀하였고 특히 적의 야간기습에 대처할 태세가 갖추어 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靈山附近戰鬪 (50년 8월 31일부터 50년 9월 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2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美 제2사단 장 소장 로오렌스 비 카이저 (Lawrence B. Keiser)
제9연대 장 대령 존 지 힐 (John G. Hill)
제1대대 장 중령 존 이 론달 (John E. Londahl)
제2대대 장 미상
제3대대 장 미상
美 제5해병연대 장 대령 레이몬드 엘 머레이(Raymond. L. Murray)

제1대대 장 중령 죠오지 아알 뉴우톤 (George R. Newton)
제2대대 장 중령 하롤드 에스 로이스 (Harold. S. Roise)
제3대대 장 중령 로버어트 더 타프렛트(Robert D. Taplett)

병 력

美 제2사단 제9연대 약 3,000명
美 제5해병연대 4,468명

적 군

북괴군 제9사단 장 소장 朴 春 三
제85연대 장 미상
제86연대 장 미상
제87연대 장 미상
포 병 대 장 미상

지원부대

제1군단 76mm 1개 포병대대
고사포 1개 대대
제16기갑여단의 2개 전차대대
제4사단의 1개 포병대대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의 공방전에서 분전한 美 제24사단과 美 제2사단은 서로 교대하게 되었는데 8월 20일에 명령을 받고 8월 24일에 교대를 완료하였다. 당시 사단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소장 지휘하의 美 제2사단은 그 예하부대인 제9연대를 靈山 정면인 洛東江돌출부에, 제9연대를 昌寧 정면에 그리고 제38연대를 그 北쪽 玄風정면에 8월31일현재로 각각 배치하였다. 한편 교대를 끝마친 美 제24사단은 陜川에 집결하여 美 제8군의 예비가 되었다.

靈山부근의 전투가 일어난 이 지역일대는 지난 8월 6일에서 8월 19일까지 美 제24사단과 해병여단이 북괴군 제4사단과 대결하여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격전지였으며 일명 洛東江돌출부라고도 부르고 있다.

8월 24일 美 제2사단예하 제9연대가 이 지역을 맡았으며 이 연대가 맡은 지역은 右로는 洛東江東岸의 釜谷里에서 左로 南江과 洛東江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약 20km나 되는 넓은 정면이었으며 이 지역내의 주요지점에 연대 예하 5個中隊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右로부터 G중대는 巨馬里에서 소재미에 이르는 능선에, F중대는 오목나루터 뒷 능선을 中心으로 左右 각각 2km 사이에, B중대는 月上里 210高地에서 洋浦앞 능선에 이르는 사이에, C중대는 洋浦 앞 능선에서 창아지 마을에 이르는 사이에, A 중대는 창아지 마을에서 洛東江과 南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起港나루터 東岸에 자리잡고 있는 芳谷洞 94高地에 이르는 사이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이 제9연대가 洛東江돌출부에 배치될 8월 20일경의 북괴군의 동태는 8월의 전투에서 북괴군 제4사단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패배한 직후였으며 전선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8월하순부터는 북괴군의 활동이 활발하여져 갔다. 8월 25일에는 제3국경 경비대를 기간으로 平壤에서 편성되고 제3연대를 仁川방어에 남겨놓고 8월 23일 陜川에 집결한 북괴군 제9사단이 洛東江돌출부西岸에 있는 新反里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美 제9연대 正面 洛東江 西岸高地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도강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괴군의 공세기미를 직감한 워커(Walker) 중장은 적의 기도를 알기 위하여 북괴군 보로의 확득과 공격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파괴를 목적으로 중대규모의 전투정찰대를 강 건너 격전 후방에 보낼 것을 美 제2사단에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제9연대장 존 지이 힐(John G. Hill) 대령은 8월 31일 제9연대의 예비대로 있던 E중대에 H 중대의 경기관총 1개반을 증강하여 하달된 명령을 즉시 수행키로 하였다. 이에 앞서 북괴군은 8월 중순에 이르러 8월공세의 실패를 인정하고 9월초에 또다시 공격을 단행하려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UN 공군의 전략폭격으로 말미암아 군수 생산력의 저하와 수송곤난등으로 탄약·무기·연료·피복·양식등 모든 보급품이 부족하였고 또 침략지구에서 강제로 끌어낸 장구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못한 젊은 이들을 보충원(補充員)으로 전선에 몰아냈음으로 전투요원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말 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괴군의 전선사령관인 대장 金策은 8월 20일에 예하 각 군단에 대하여 또 다시 공격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으로 북괴군 제9사단은 靈山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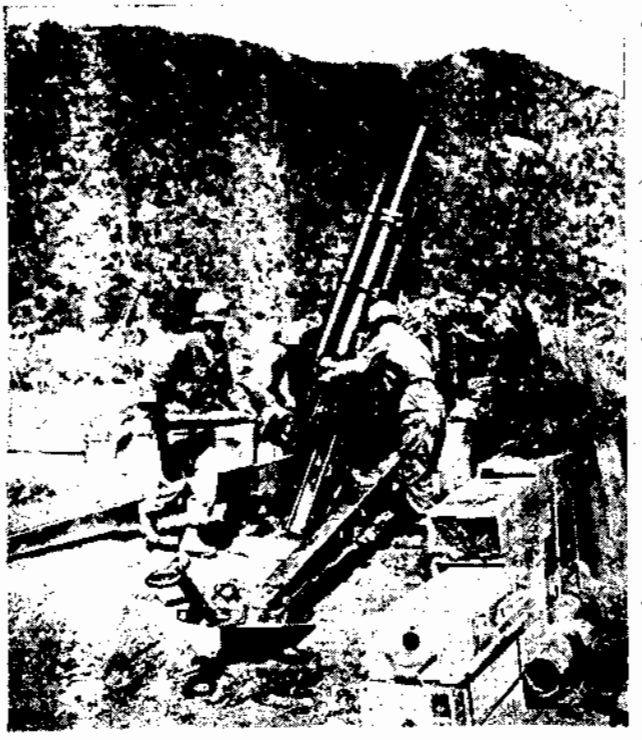
를 거쳐 密陽에 진출한 다음 大邱와 釜山間의 道路를 차단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新反里에 진출한 북괴군 제9사단은 8월 31일 22.00를 기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美 제9연대 「전투정찰대」 일명 「만주(滿洲)작전 특수 임무부대」는 이날 밤 북괴군 제9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9월의 공방전과 함께 釜山부근의 전투가 전개된 것이다. 이 전투에서 만일 釜山이 북괴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大邱와 釜山의 요충지인 密陽과 三浪津이 곧 위태롭게 될 것이고 따라서 釜山이 위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昌寧·陜川지구 북괴군 대부대의 진격이 용이하게 될 것이니 이 전투의 승패야말로 피아간에 있어 전국(戰局)의 대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芽谷洞 전투

新反里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美 제9연대 정면 洛東江西岸一帶 高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북괴군 제9사단은 9월 31일 22.00를 기하여 右岸의 G.F.B.C.A의 5개중대 정면에서 밤의 어두움을 이용하여 洛東江을 건너 공격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8월의 洛東江전선공격에서 패배한 후 처음으로 시도한 북괴군의 9월 공격인데 芽谷洞 싸움은 곧 그 전초전이었다.

8월 31일 : 美 제9연대 A중대의 2개분대는 美 제72전차대대의 A중대 소속인 전차 2대와 美 제82고사포대대의 1중대 소유인 0.4인치 쌍신포 1대 및 0.5인치 기관총을 장비한 M16 1대와 함께 芽谷洞의 창나 마을 앞 洛東江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능선위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어네스트 알 쿠우마(Ernest R. Kouma) 상사는 고장난 전차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芽谷洞으로 가서 起港나루터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게 되었다. 20.00의 강변은 짙은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었고 22.00에 이르러 美軍진지에 북괴군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주위는 고요하였다. 22.30에 안개가 걷히자 쿠우마(Kouma) 상사는 강가에 3분의2쯤 완성된 북괴군의 도보(徒步) 교량을 발견하고 전차 포수에게 90m/m포로 이 교량을 사격토록 명령하고 자기는 포탑 뒤에 장치된 0.5인치 기관총으로 교량과 교량의 가설작업 중인 북괴군을 집중 사격함과 동시에 2대의 대공포도 이에 합세케 하였다. 2분쯤 지난 뒤에는 舟橋의 보오트(Boat)가 떠내려 가고 많은 보오트(Boat)가 뒤집어 졌다. 23.00에는 A중대의 左측방이며 전차가 있는 北쪽에서 예광탄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북괴군이 공격하여왔다. A중대 전초병들은 본대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사격전은 2~3분 계속되었다가 끝났고 전차병만 홀로 남겨 놓고 철수하고 말



〈芽谷洞부근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있는 美 포병대〉

았다.

보병이 철수한 얼마 후에 50여 명의 북괴군이 전차대의 후방에서 전차와 대공포로 공격하여 왔으며 美 전차대는 적과 치열한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나 전 승무원은 여기에서 장열한 전사를 하였다. 그러나 쿠우마(Kouma) 상사만은 밤새도록 혼자서 진지를 고수하고 9월 1일 07.30에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안전하게 본대 진지로 빠져 나왔다.

이날 밤 22.00 A중대 진지는 약 15분 동안에 걸쳐서 북괴군의 박격포탄을 뒤집어 썼는데 美軍의 야포와 박격포도 이에 응사하니 주위는 삽시간에 소란한 전투장으로 변하여 졌다. 이때 A중대 병사들은 강 건너편에서 요란하게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물을 헤치고 북괴군이 건너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북괴군은 녹색 예광탄을 터트린 다음 호각을 불어 대면서 芽谷洞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A중대의 제1소대 진지를 향하여 공격하여 왔다. A중대장 아담 비이 로드리이그(Adam B. Rodriguez) 중위는 곧 중대를 현 위치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퍼언(Fern)소위가 거느리는 제2소대는 산 비탈에서 적과 약간 접전하였으며 중대는 산꼭대기에 집결하여 사주(四周)방어에 들어 갔다.

한편 이날 밤 芽谷洞에서 A중대의 제1소대가 북괴군과 싸우고 있을 때 그 右측에 있던 C중대의 제2소대는 소리치기만 하면 곧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적에게 격파 당하고 그날 밤중으로 洛東江을 건너 온 북괴군 제9사단의 기습으로 C중대의 모든 진지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9월 1일 : 起港나루터로 洛東江을 건너 온 북괴군은 芽谷洞을 점령한 다음 곧 北쪽의 A중대를 분산시켰으나 중대장 로드리이그(Rodriguez) 중위는 대부분의 중대원을 후방 능

선의 진지로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수 많은 북괴군은 능선을 타고 東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제2소대장 퍼언(Fern) 소위는 전날 밤에 버리고 온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색대를 芽谷洞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수색대원들은 수명의 북괴군을 만나 그 중 3명을 죽이고 2명을 부상시키고 필요한 장비와 식량 그리고 탄약등을 가지고 돌아 왔다.

이날 아침 북괴군은 나룻배로 A중대 정면에서 계속 강을 건너 왔지만 아직 사거리밖에 있었으므로 로드리이그(Rodriguez) 중위는 芽谷洞을 내려다 보는 능선 南端에 경기관총을 가진 1개 분대를 보냈는데 반쯤 내려가서 보니 후인병사 1명이 중상을 입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10여명의 북괴군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이 분대가 능선 南端에 도착하였을 때 산 밑 민가에 적병이 운집하고 있음으로 소대장에게 보고하자 즉시 포병사격이 시작되었으며 북괴군은 강쪽을 향하여 달아났다. 이 때 능선 南端에 배치된 경기관총이 일시에 사격을 퍼부었고 또 포병의 화력까지 집중되니 300여명의 북괴군이 일시에 사살되었다. 이날 오후에 경비행기가 이 중대에 탄약과 식량을 투하(投下)하였으나 그 일부 밖에는 찾지 못하였고 제1대대장은 로드리이그(Rodriguez)중위에게 밤중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하여 A중대의 철수는 제2소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선두가 도로 200m까지 왔을 때 400여명의 북괴군 대열과 불시에 부닥치게 되었다. 로드리이그(Rodriguez)중위가 능선에 나서 올라 가라고 중대원에게 호령하였을 때는 중대주력은 이미 북괴군에게 포위되어 분산되었고 그 뒤를 따라 오던 퍼언(Fern) 소위의 소대는 분대장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면으로부터 북괴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꼼짝도 하지 못하였다. 뒤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로드리이그(Rodriguez) 중대장은 전사하였다고 한다.

9월 2일 : 이른 아침에는 25m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늦게까지 개이지 않았다. 퍼언(Fern) 소위는 날이 새기 전에 포위망을 뚫고 적중에서 탈출할 결심을 하고 일행은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겨우 漢川가는 길을 더듬어 12.00경에 전투가 한창인 漢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위에 다달았다. 퍼언(Fern) 소위는 19명의 병사를 이끌고 漢川부근에 있는 제72전차대대를 찾아 갔으나 나머지 A중대원들은 제각기 분산되어 그야말로 사분오열(四分五裂)의 모습으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2) 大谷里 150高地 전투

美 제9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위력(威力)정찰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연대장 존 지 힐(John G. Hill) 대령은 곧 중대규모의 위력정찰대로 洛東江 건너 북괴군

진지 후방에 보내기로 하였다. 이 정찰대의 임무는 주로 북괴군 사단의 통신취급소를 습격하여 포로를 잡은 다음 이것을 심문하므로써 북괴군의 기도를 알아내는 것이었으며 당시 美軍에서는 이것을 만주작전(滿州作戰)이라고 부르기도 한 잠입공격계획(潛入攻擊計劃)이었고 이 계획은 8월 25일에 세웠으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찰대를 이른바 滿洲특수임무부대라는 명칭을 부쳐서 편성하게 되었다. 이 부대의 병력은 美 제9연대의 예비대로 있던 F중대에 다시 H중대의 경기관총 1개반을 증강한 규모의 것이었으며 美 제2야전공병대의 1개소대가 공격 단정(短艇)으로 도하시키게끔 계획되어 있었고 D 및 H중화기 중대는 각각 1개 중기관총반과 1개 81mm 박격포반 그리고 1개 75mm 무반동총반 및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도 동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부대의 도하지점은 洞津 나루터였으며 도하개시는 8월 31일 밤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31일 21.30부터 24.00를 지나자 북괴군 제9사단의 주력이 여러 지점에서 洛東江을 건너 美 제9연대 진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여 왔고 또 이 북괴군의 공격에 의하여 洞津 나루터를 지키고 있던 중화기 소대를 비롯한 滿洲특수임무부대의 지원부대가 북괴군에게 격파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된 美 제2사단은 이날 밤 23.55에 드디어 滿洲작전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기선을 제압당한다는 것과 의표(意表)에 나간다는 것이 용병(用兵)에 있어서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때 북괴군이 공격하기 전에 滿洲특수임무부대의 도하정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大谷里 근처에 있는 150高地를 점령하고 있던 D 및 H 중화기 중대와 중박격포 중대의 각각 일부는 북괴군의 기습을 받아 여기에 처절(凄絶)하였던 大谷里의 150高地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8월 31일 : 滿洲 특수임무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大谷里근처에 있는 150高地를 점령한 美 제9연대 D 및 H중대는 이날 21.30부터 洛東江을 건너 온 북괴군 제9사단 주력의 기습을 받게 되어 150高地 정상에 급히 호를 파고 사주방어의 태세로서 이날 밤을 새웠다.

이때의 병력은 장교 5명을 포함한 60내지 70명 정도였으며 화기 및 장비로서는 SCR—300 무전기 1대와 중기관총 2정, 그리고 수술기(手術器) 1대와 경기관총 2정 및 13AR 1정이 있었으며 그밖에 M1 소총이 약 20정에다가 40정의 칼빈(carbin)총, 권총 몇자루 있었으나 원래 이 부대는 중화기 요원이 대부분이었음으로 탄약 특히 수류탄이 적었다. 이 부대의 선임장교는 H중대의 에드워어드 슈밋트(Edward Schmitt)중위였음으로 이 부대

의 지휘를 그가 맡았고 그저 정상에서 조용히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는 총·포성과 함성이 요란하게 일어났으나 북괴군의 공격은 없었다.

9월 1일 : 날이 밝자 슈밋트(Schmitt)중위가 진지의 주변을 살펴 보니 부대는 이미 완전히 북괴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B중대가 장악하고 있던 北쪽 210高地도 벌써 북괴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괴군은 東쪽의 九陣山(△311)도 손에 넣고 계속 東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골아래 洛東江의 수중교를 통하여 북괴군의 부대와 수송대가 속속 넘어오고 있었다. 슈밋트(Schmitt) 중위는 美 제9연대 제1대대에 무전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북괴군은 14.00경부터 공격하여 왔는데 곧 치열한 화력전(火力戰)으로 물리쳐 버리기는 하였으나 이 부대의 힘으로 북괴군의 도하 또는 동진을 막아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북괴군의 주도하지점(主導制地點)을 감제(瞰制)하고 있는 大谷里高地를 점령중이 었음으로 북괴군에게 있어서는 매우 못 마땅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날 밤 북괴군은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3차에 걸쳐 공격을 반복하여 왔으나 피아간에 수류탄을 주무기로하는 근접전을 전개하였을 뿐 대번 격퇴시키고야 말았다.

한편 洛東특수임무부대의 공격부대이며 講里에 있던 유일한 제9연대 예비대인 E중대는 洛洲작전이 취소된 다음 날인 이날 03.00에 雉山—洛東江道路를 따라 크로바잎(Cloverleaf) 高地(△165)와 大峴里 능선사이를 봉쇄(封鎖)하라는 명령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하여 고 하였으나 頭谷에서 美 제72전차대대소속인 A전차중대와 북괴군의 전차대가 서로 교전을 하게되었으며 또 강력한 북괴군이 E중대의 진격을 가로막고 치열한 화력을 집중 발휘하여 옴으로 美 제2사단장은 E중대를 그대로 연곡에 복귀시키게 되었다.

9월 2일 : 이날 아침에 진지 주위를 바라보니 산 비탈에는 많은 북괴군의 시체가 여러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부대원의 전사자와 부상자도 늘어났고 또 식량과 물 그리고 긴요한 탄약, 특히 수류탄이 극도로 부족하였다. 09.00경 H중대의 왓트킨스(Watkins) 상사는 숨은 북괴군의 수류탄을 회수하려고 호속을 뛰어 나오다가 약 45m 전방에 나타난 북괴군 2명을 사살하고 수류탄과 소총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한 때 또 북괴군 3명이 나타났으므로 곧 이를 사살하고 재빨리 5명분의 수류탄과 소총을 떼앗아 가지고 돌아 왔다. 한 시간 후인 10.00에는 6명의 북괴군이 기관총 진지에서 20m나 되는 곳까지 기어들어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왓트킨스(Watkins) 상사는 또 다시 호속에서 뛰어나와 소총을 들고 북괴군과 싸우다가 북괴군의 기관총에 등을 맞고 쓰러졌으나 잠시 후 죽

을 힘을 다하여 적병 6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여 돌아왔다. 이때 입은 상처로 와트킨스(Watkins) 상사는 호속에 주저 앉고 말았으나 큰 소리로 전우(戰友)들에게 용기(勇氣)를 내라고 외쳤을 뿐만아니라 식량이 부족함을 알고 자기 배당의 점심도 먹지 않고 또 9월 4일 철수할 때에는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전우들의 희생이 생길까 봐 호속에서 칼빈(carbin)총뿌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 숭고하게 전사하였다.

이날 오후 슈밋트(Schmitt)중위가 요구한 공중보급이 있었으나 고지의 경사(傾斜)가 급한 탓으로 보급품의 대부분은 북괴군 진지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로 부터 얼마 후에는 북괴군은 한 시간 안으로 항복하라고 포로가 된 美軍을 시켜 쪽지를 보내 왔으나 슈밋트(Schmitt) 중위는 이를 묵살하고 말았는데 이때부터 박격포의 수정사격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북괴군의 기관총사격도 또한 치열하였음으로 호속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였다.

날이 저물자 박격포 사격이 중지되고 북괴군의 일제 공격이 시작되었으나 무난히 격퇴시켰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북괴군의 야간공격은 더욱 치열하게 계속되고 이튿날 아침까지 약 20회나 반복되었다.

9월 3일 : 이날의 전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 북괴군은 호 가까이까지 다가 와서 수류탄을 던지면서 끈질긴 공격을 계속하였다. 피아의 공방전은 피 비린내 나는 백병전으로 변하여 갔으며 개인 호에는 한 두 발 이상의 북괴군의 수류탄이 폭발되었으며 항상 진두에 서서 지휘하던 슈밋트(Schmitt) 중위도 마침내 무전기를 껴 안은 채 호속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레이몬드 제이 맥도니엘(Raymond J. McDoniel) 중위가 대신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물로 목을 추기면서 계속되는 공방전을 반복하였으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美軍들의 책임관념과 공격정신은 상상이상으로 장렬한 바 있었다.

9월 4일 : 이날 아침 날이 새어보니 생존자는 장교 2명과 사병 29명뿐이었고 또 저녁에 조사하여 보니 각자가 소지하고 있던 탄약은 8발정도였고 수류탄은 몇발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북괴군은 만세를 부르면서 돌격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원형의 사주방어 진지안에 떨어지는 북괴군의 수류탄의 수효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맥도니엘(McDoniel) 중위는 밤이 되자 이제는 저항도 극한에 이르렀고 더 지탱하기 어려워졌음으로 철수할 것을 결심하고 22.00에 북괴군의 마지막 돌격을 격퇴한 뒤에 곧 29명의

사병을 4개조로 편성하여 일시에 포위망을 뚫고 급히 고지를 내려갔는데 이들은 강가 길을 따라 하류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진격하는 길가에는 북괴군의 전차와 포병 그리고 수송대와 보병부대의 행렬이 쉴 사이 없이 東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들 일행 29명중에서 22명은 낮에는 숨고 밤이면 걸어서 美 제25사단 진지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다.

(3) 月上里 210高地 전투

북괴군 제9사단은 8월31일밤 B중대 정면 洞津나루터를 주도하지점(主渡河地點)으로 삼고 전차 및 포병 그리고 수송차량과 보병부대등이 洛東江을 건너 美軍 진지로 공격하여 왔는데 B중대는 북괴군의 가장 강력한 침공을 받았다.

8월 31일 : 美 제 9연대예하 중대에서 가장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B중대는 月上里 210高地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괴군은 21.30이되자 210高地 바로 밑을 흐르고 있는 洛東江을 건느기 시작하였으며 이윽고 B중대진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북괴군 보병은 공격대기 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북괴군의 공격은 연대의 北쪽으로부터 시작하여 南쪽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북괴군이 쏘는 예광탄이 하늘로 치솟고 탄세 소리가 들려왔고 고지 밑에서는 다리를 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밤 B중대 左右에 배치되어 있던 C 및 F 중대를 공격하는 듯한 사격전이 벌어졌으나 24.00까지는 B중대에 대하여 공격하여 오지 않았다.

9월 1일 : 북괴군은 02.00가 되자 비로소 B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호각을 불며 소리 소리 호령을 치면서 산 비탈을 기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B중대의 양쪽 고지는 북괴군의 주 목표가 되어 치열한 사격과 함께 공격하여 왔는데 이날 아침 B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분산 철수하였다.

(4) 靈山부근 전투

美 제 9연대예하 G·F·B·C·A중대가 배치되어 있던 洛東江돌출부 정면의 강을 건너 공격하여 온 북괴군 제 9사단은 밀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靈山 가까이에 육박하여 왔다. 8월 31일 밤의 북괴군 공격에서 B·C·F중대는 중대로서 다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고 9월 1일 현재로 북괴군에게 포위를 당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중대도 있었다.

9월 1일 : 북괴군 제 9사단의 제1, 제 2연대(제 3연대는 仁川에 남아 있었다)는 北쪽과 南

쪽에서 서로 호응하듯이 蠶山을 향하여 진격하였는데 제1연대는 北쪽의 溝里를 거쳐 그리고 南쪽의 제2연대는 南旨里를 지나 각각 蠶山으로 침공하려 하였다. 북괴군 제9사단의 지원부대는 제1군단의 76mm포와 고사포 각 1개 대대였으며 배속부대로서는 제16기갑여단에서 2개 전차대대 그리고 제4사단에서 1개 포병대대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 제9사단 후방에는 제4사단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병력과 무기가 부족하였으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新兵)으로써 재 편성된 사단이었다. 이날 오후 북괴군 제9사단의 부대들은 蠶山 변두리 고지까지 진격하여 왔는데 이 당시 美軍은 이날 오전에 美 제9연대 E중대의 생존자들로서 蠶山을 방어케 하고 美 제72전차대대와 제2사단 수색중대도 동시에 蠶山부근에 진지를 점령케 하고 蠶山 南東方의 반월형(半月形) 낮은 능선에는 배속된 제2야전공병대대로 하여금 방어진지를 구축케 하였다. 공병대대 제4중대는 蠶山에서 洛東江으로 가는 도로의 南측방을 지키고 있었으며 D중대는 도로 北쪽 측면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300여명으로 추산되는 북괴군이 蠶山 南쪽에서 접근하여 왔는데 A중대과 화력전을 벌렸고 美 제82고사포대대에 속하는 2문의 M-66과 1문의 M-19는 A중대를 지원하였으나 蠶山 南東端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하였다.

美 제2사단 수색중대와 제72전차대대도 북괴군과 교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수색중대의 찰스 더블유 토너(Charles W. Torner) 상사는 전차의 기관총으로 북괴군의 기관총 7정을 격파한 다음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날 밤 북괴군은 蠶山에 침입하였다.

9월 2일 : 이날 03.00경부터 蠶山 東측 美軍 진지에 대하여 북괴군은 공격을 시작하였다.

모두 흰 옷을 입고 피난민을 가장한 약 1개 대대의 북괴군은 T-34전차 4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蠶山시내를 지나 東쪽 芳蘭山의 美 제2야전공병대대를 급습(急襲)하였다. 美 공병대대는 11.00까지 야포와 박격포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역전(力戰)에 또 역전을 계속하였는데 左측의 美 제72전차대대와 협동이 잘 되어 비록 커다란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능히 북괴군의 공격을 막아내어 진지를 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美軍 12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북괴군은 보다 크게 피해를 입었고 蠶山 교외와 南쪽 고지의 비탈은 북괴군의 시체와 파괴된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중 蠶山에서 싸움이 한창일 때 제9연대는 800여명의 부대원을 재 편성하였다.

오후에는 전차와 재 편성된 美 제9연대 제2대대는 美 제2야전공병대대의 A중대진지를 지나 醴川을 목표로 공격하였으며 15.00에는 다시 여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近接航空支援)을 받으면서 북괴군을 醴川 西쪽 고지까지 밀어 냈으며 이로서 북괴군의 密陽진출을 잠시동안 봉쇄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09.35에 북괴군이 密陽동로를 돌파하려고 할 때 워커(Walker) 중장은 東京의 美 극동군사령관 도일 오 힉키(Doyle O. Hickey) 소장에게 美 제2 및 제25사단 사이의 전투지경선이 가장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 美 해병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힉키(Hickey) 소장은 2, 3일전에 이미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와 워커(Walker)중장에게 만일 해병대 사용을 원한다면 승인할 것이라는 뜻을 알렸던 것이므로 곧 이 요청에 응하여 13.15에 美 제5해병연대를 제2사단에 배속시키게 되었으며 洛東江선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공격을 명령하게 됨으로 비로소 해병대의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9월 3일 : 이날 03.00과 04.30사이에 美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醴川 北쪽으로 제1대대는 그 南쪽으로 이동하고 제3대대는 연대지역으로 오는 도로에 연하여 醴川 南西쪽의 경계진지를 점령하였다. 해병대가 공격을 시작할 당시의 美軍 배치상황을 본다면 醴川 西쪽 고지에는 美 제9연대의 G중대가 敦谷里를 통과하여 洛東江으로 가는 도로인변에 있었고 美 제2야전공병대대의 A중대는 그 건너편에 그리고 醴川 南쪽에는 美 제9연대 F중대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공병 A중대는 전날(9월 2일) 밤에 북괴군을 공격하였으나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날 새벽에 해병대가 공격을 시작한 고지대를 같이 공격하였는데 고지를 향하여 100 m 까지 올라가 호속에 들어있는 북괴군과 교전하게 되었다. 이때 해병대 전차가 지원하여 주었음으로 중대는 북괴군 진지를 점령 할 수가 있었으니 보전협동(步戰協同)의 좋은 예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해병대의 반격은 이날 08.55부터 시작되었고 보병과 전차 그리고 야포와 공중공격등 당시 이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전투력을 총망라(總網羅)한 그야말로 공지제병(空地諸兵)의 연합작전의 위력을 발휘한 반격전이 였다.

해병대는 논을 건너 醴川 西측방 능선을 점령하고 있는 북괴군 제9사단을 공격하였는데 북괴군은 최후 발악적인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해병대는 긴밀한 공중지

원을 받아 가면서 이날 저녁에는 左측방의 91高地를 점령하고 또 전차를 앞 세우고 역습하여 오는 북괴군을 격퇴시키기는 하였으나 긴요한 右측방의 116高地를 탈취할 수는 없었다. 도로연변의 제 2 대대는 116高地에서 북괴군이 심한 사격을 가하여 옴으로 전진할 수 없었으며 이날 밤에는 제 5 해병연대 D중대도 포위되어 적중 고립상태에 빠지게되었다. 이날 밤에 해병대는 대체로 鎭山 西쪽 3km 지점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34명이 전사하고 157명이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美 해병대의 이러한 반격은 북괴군 제 9 사단의 총공격의 기선(機先)을 제압(制壓)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북괴군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하는 첫 거름이 되었다.

9월 4일 : 해병대의 공격은 이날 08.00에 다시 시작되었으며 鎭山 西쪽 언덕의 북괴군을 격파하면서 북괴군 제 9 사단 사령부가 있던 곳을 급습하였는데 이 곳에는 아직도 천막을 쳐 놓은 대로 있었고 기능이 완전한 T-34전차 2대가 내 버려져 있었으며 수 많은 장비와 시체가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해병대는 大鳳里와 크로바(Cloverleaf)高地(△165)의 북괴군 진지 가까이까지 육박(肉迫)하였으며 북괴군 진지 앞에서 내일(5일)의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장병들의 사기(士氣)는 높았다. 해병대의 오른쪽을 점령중이던 美 제 9 연대의 G중대정면은 이날 새벽까지는 비교적 조용하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북괴군이 공격하여왔다.

이 G중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해병대의 로렌 알 카우프만(Loren R. Kaufman) 중사는 선두에 서서 돌격을 지휘하면서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총검으로 북괴군 4명을 찔러 죽인 다음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북괴군의 박격포 사수들을 손수 쏘아 죽였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美 야포대의 집중사격은 美 제 9 연대의 진격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9월 5일 : 이날 아침 10분간의 포병 준비사격이 끝나자 공격부대는 3일째의 반격을 시작하였는데 비는 계속 쏟아지는 것이었으나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에는 변동이 없었다.

美 해병대는 빗속을 뚫고 大鳳里 능선까지 일사천리(一瀉千里) 격으로 진출하였고 美 제 9 연대는 지난 8월의 전투에서 고전을 치른 바 있는 크로바(Cloverleaf)高地(△165)까지 진격하였다. 전방의 높은 고지에는 북괴군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美 해병대는 右측 크로바(Cloverlaef)高地와 左측 大鳳里 高地의 중간도로에서 대치하였다.

14.30경에 T-34전차 2대를 앞세우고 약 300명의 북괴군이 역습하여 왔으나 A중대는

야포와 해병대의 81mm 박격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끝내 이를 격퇴시키고 말았다. 이날 오후 부터 북괴군의 공격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으며 9월 3일부터 5일까지에 걸친 釜山에서의 美軍의 반격으로 북괴군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전투에서 美 육군부대는 102명의 전사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587명이 실종되어 총 1,119명의 손실을 보았고 해병대는 전사자 35명 부상자 91명이었다.

9월 6일 : 해병대는 9월 5일의 전투를 고비로 그 진지를 美 제9연대에게 맡기고 이날 0시부터 美 제2사단 배속에서 해제된 다음 仁川으로 가기 위하여 격전의 싸움터였던 大邱里高地를 뒤로 釜山으로 향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북괴군은 측방공격으로 密陽과 三浪津을 강점하는 동시에 美軍을 분쇄한 다음 大邱와 釜山間의 美 제8군의 퇴로(退路)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 작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야포 2개대대와 제16전차여단(T-34, 43대)을 배속 받은 북괴군 제9사단을 제2공격 집단의 주공부대로 삼고 洛東江 돌출부를 단숨에 돌파한다음 釜山을 점령코자 기도하였으나 9월 3일부터 5일까지에 걸친 美軍의 과감한 반격으로 북괴군의 기도는 마침내 좌절되고 말았다.

북괴군이 가장 믿고있던 T-34전차는 그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탄약과 연료마저 거의 떨어졌으며 보병부대의 손실도 또한 많아 당장 공세를 취할만한 형편은 되지 못 하였던 것 같았다. 따라서 9월 3일부터 감행된 美軍 해병대의 과감무쌍한 급습 앞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9월 6일에는 크로바잎(Cloverleaf)高地(△165)와 大邱里高地를 연결하는 洛東江 東쪽의 조그마한 교두보(橋頭堡)를 간신히 확보하면서 美軍의 반격을 겨우 지탱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美軍은 북괴군을 洛東江선에서 격파하면서 되도록 많은 적을 그 정면에서 견제하므로써 9월 16일의 仁川상륙작전을 유리하게 전전 시키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美軍의 계획 밑에서 우선 당시 사장 정강(精強)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북괴군 제9사단의 침공을 막는데 최선최대(最善最大)의 노력을 기우케 하였으며 또한 북괴군의 전의를 상실케하도록 노리게 된 것이었는데 이 釜山의 선투로서는 실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사이의 전선은 비교적 평온 상태였으며 크로바(Cloverleaf)高地(△165)와 大邱里高地 사이를 잇는 선에서 美軍은 적과 서로 가까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16일 UN군의 仁川상륙작전에 호응하여 美 제9연대 정면의 적 주력의 거점인 210高地를 공격하고 洛東江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미 공격능력을 잃고 있던 북괴군은 패주에 패주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교 훈

◇ 적에 대한 기도판단(企圖判斷)의 중요성

釜山부근의 싸움에서 교훈으로 삼을 것은 우선 적의 기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병력 배치를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8월 31일 밤 북괴군이 美 제9연대 정면 洛東江을 건너 이튿날인 9월 1일 釜山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것은 美軍이 8월의 공세에서 적의 진격을 격퇴시킨 뒤 이제 북괴군은 방어에 들어 갔으므로 다시는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20km 나 뒤의 넓은 정면을 1개연대 병력으로 방어케 한 데에 있었다. 따라서 적이 침공하니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방어선이 돌파되고 釜山교두보 확보에 있어 긴요한 釜山이 잠시 나마 적 수중에 들어가는 바가 된 것이다. 즉 적의 기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병력 배치를 하되 너무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하여서는 예비대의 부족으로 결국 적에게 주중되고 마는 피동적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며 적의 기도를 판단한 연후에 중점적인 병력운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속전즉결(速戰卽決)의 필요성

싸움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도 속전즉결 이른바 빨리 싸움을 끝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仁川상륙작전에 소요되는 美 제5해병연대를 釜山부근의 싸움에 끄집어 넣어 선제기습에 의하여 공세를 취함으로서 북괴군을 다시 洛東江線까지 격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공지협동(空地協同)의 효용성

긴밀한 협동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釜山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포병의 화력지원도 좋았으나 美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은 이싸움을 보다 美軍에게 유리하게끔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후일 워커 (Walker) 중장은 종군기자단의 질문에서 "제5공군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釜山의 확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馬山 西北方의 戰鬪 (50년 8월 31일부터 50년 9월 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3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美 제25사단 장 소장 킨(William B. Kean)
부사단 장 준장 윌슨(Vennard Wilson)
제24연대 장 대령 샘프니(Arthur S. Champney(9. 6교대)
제1대대 장 소령 카아모(Eugene J. Carson)
제2대대 장 중령 코울(George R. Cole)
(후임대대장)중령 로버트(Paul F. Roberts)
E중대 장 중위 엘리스(Charles Ellis)
(후임중대장) 대위 콘거(William Conger)
G중대 장 대위 메모레이(Houston M. Memorray)
제3대대 장 중령 코리(John T. Corley)(9. 6, Champney 대령 후임 연대장)
(후임대대장) 소령 브레이어(Melvin R. Blair)
제27연대 장 대령 마이캘리스(J H. Michaelis)
제1대대 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2대대 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대대 장 중령 디챠우(George H. De Chow)
K중대 장 중위 제임스(Elwood F. James)
제35연대 장 대령 피셔(Henry G. Fisher)
제1대대 장 중령 티터(Bernard G. Teeter)
제2대대 장 중령 윌킨스(Wilkins)
G중대 장 대위 마제스크(LeRoy E. Majeske)
제3소대장 소위 로취(George Roach)
제3대대 장 소령 울포크(Robert H. Woolfolk)

배속부대

제5연대전투단(9월 7일 배속해제, 제27연대와 임무교대)
연대 장 대령 오드웨이(Godwin L. Ordway)
(후임연대장) 중령 드록몰튼(John L. Throckmorton (8. 15교대))
제1대대 장 중령 존스(John P. Jones)
(후임대대장) 중령 로봇프스(T. B. Roelofs)
제2대대 장 중령 드록몰튼(John L. Throckmorton)
※ 64포병대대 A포대 장 대위 앤더슨(Andrew C. Anderson)
병력 17,500명 과 韓國경찰대 약간명

적 군

제 6 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 7 사단 장 소장 李 益 成
제 1 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제51연대 장 대좌 姜 致 龍
제13연대 장 대좌 韓 日 來	제 1 대대 장 소좌 崔 容 鎭
제15연대 장 대좌 金 顯 基	제52연대 장 소좌 韓 日 海
포병연대 장 중좌 朴 海 民	제 2 대대 장 소좌 李 在 弼
병력 약 10,000명	병력 9,000명
장비 122mm 12문. 120mm 18문	
82mm 81문. 76mm 36문	
45mm 48문. 사마호프 16문	

나. 전투 전의 개황

馬山 西北部의 美 제25사단 정면의 전투는 8월 말에 접어들면서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적의 후방지역에서는 병력의 이동과 집결이 관측되었고 특히 제35연대 정면의 적은 공군의 계속적인 정찰 및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南江에 수중교(水中橋)를 가설하고 있었다.

당시 美 제25사단의 전선은 北쪽 南旨橋에서부터 十二堂山(△271), 晋州—馬山간의 철도와 도로를 따라 南쪽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戰鬪山(△665)과 筆峰(△743)을 거쳐 鎭東面의 해안에 이르는 약 48km의 넓은 방어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피셔(Fisher)대령이 지휘하는 美 제35연대는 사단의 右측인 南旨橋에서 晋州—馬山간도로까지 약 24km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였고, 제24연대는 챔프니(Champney) 대령의 지휘하에 사단의 중앙부를 담당하였는데 험준한 戰鬪山과 筆峰 및 威安 西쪽 능선의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연대본부는 威安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단 배속부대인 제5연대 전투단은 西北山 南쪽에서 鎭東里의 해안선까지 담당하였다. 사단사령부는 馬山에,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 본부는 鎭東里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으며 馬山에는 그 밖에 제27연대가 예비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 정면의 괴뢰군 제1군단의 작전명령에 의하면 8월 31일 23.00를 기하여 제 6 사단은 美 제24연대를, 제7사단은 美 제35연대를 각각 공격토록 하였던 것이다. 즉 적 제6사단은 美 제35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진지를 돌파하여 晋州—伽倻—馬山 도로를 따라 中里로 진출하라는 것이고, 적 제7사단은 美 제35연대의 제2대대 진지를 돌파한 다음 漆原里로 진출하여 南旨里—馬山간의 도로를 차단하라는 것이었으니 결국 적은 美 제35연대를 각개(各個)로 격파한 연후에 곧 馬山을 점령한 다음 釜山방면으로 전진하여 三浪津과 鎭海선상에서 아군의 동맥선인 주보급로를 차단하려던 계획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南旨里부근의 전투

8월 31일 : 이날 밤 23.30 북괴군 제7사단은 南旨里부근의 美 제25연대 정면에서 南江을 도하하여 공격해오기 시작하였다.

城堂里와 돈지나루에서 자주포 수문(數門)을 갖추고 도하한 적 1개연대 병력은 포병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美 제2대대 G중대와 南旨橋 西쪽에 배치된 F중대를 공격해 왔고 호미나루터의 수중교(水中橋)를 건넌 적은 十二堂山과 晋州—馬山도로간의 제2대대와 제1대대 지역간을 공격해 왔다.

9월 1일 : 이날 새벽무렵 제2대대 G중대의 정면을 공격해온 적 제7사단은 南江의 東岸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거니와 G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右측 3km 지점에 있었던 E중대도 고전을 면치못하는 상태였고 南旨里의 西쪽을 경비하던 F중대 및 南旨橋에 배치되었던 F중대의 1소대도 적의 공격을 받았다.

E중대는 2km 정면에서 9월 2일까지 적 1개대대 병력을 물리쳤고 F중대도 진지를 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G중대의 각 소대는 적의 치열한 공격을 받고 일부는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먼저 박격포소대는 179高地에 배치된 2소대와 합류하였다. 그리고 G중대 3소대는 西村里부락과 南江사이의 낮은 고지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G중대장 마제스크(LeRoy E. Majeske)대위는 공중지원과 포사격을 요청하였으나 11.45 적이 먼저 고지 정상에 육박해 왔다. 수분후에 중대장이 전사하자 제3소대장 로취(George Roach) 소위가 재차 긴급 공중폭격을 요청하여 전폭기 편대의 폭격으로 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후속부대만이 저지되었을뿐 적은 8부 능선에서 수류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 왔는데 오후에는 로취(Roach) 소위도 전사하였다.

소대장이 전사하자 분대장인 푸비(Junius Poovey) 중사의 지휘하에 공방전은 계속되어 18.00 경에는 소대원중 12명만이 건재하였고 29명의 부상자 가운데는 17명이 살아남았다. 푸비(Poovey) 중사는 탄약이 모진(耗盡)되자 중대의 주진지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승인을 받은 동 소대는 부상자중에서 회복이 가능한 3명만을 들것에 싣어 운반하면서 중대의 주진지로 이동하였다.

다음 B 및 C중대지역의 전황도 G중대에 못지 않게 치열한 감이 없지 않았다.

美 제35연대장 피셔(Fisher)대령은 앞서 적의 도하가 가능한 苗沙里 南쪽 50高地 능선에 韓國경찰대원 300명을 배치하여 적의 도강을 감시케하고 옆 고지에는 지원포사격을 언제라도 가할 수 있도록 소수의 포병대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 선이 돌파당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儉岩里 후방에는 제3대대를 예비대로 두었었다.

적은 8월 31일 밤 23.30 韓國경찰대원의 수비진을 돌파한 뒤 일부는 右측 G중대진지를 우회하고 일부는 左측 儉岩里 北쪽의 제1대대 C중대 右측으로 침투하였다.

이무렵 儉岩里의 北쪽에는 제1대대의 C 및 D중대의 정찰소대가 보전협동조(步戰協同組)로서 배치되어 있었는데 9월 1일 새벽 적은 역시 연대장 피셔(Fisher)대령이 예측한 바와 같이 儉岩里도로를 따라 공격해오지 않고 제2대대가 배치된 뒷산의 北쪽으로 침투하였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서의 적의 공세는 C중대진지에서 보다도 C중대의 左측 B중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十二堂山에 집중되었다. 儉岩里 西쪽 35km 지점에 있는 이 十二堂山은 관측에 유리할뿐만아니라 美 제25사단 정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高地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 침투한 적의 주력부대는 제6사단 제13연대의 2개대대 병력이었다.

적의 탄막사격은 8월 31일 23.30부터 자정(子正)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포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적은 B중대 진지 전방 150m지점까지 접근하고 있었고 또한 적의 전차 자주포 및 대전차포는 儉岩里 도로상의 美 전차대를 향하여도 포화를 집중시켰다.

美 전차대는 9월 1일 새벽 적 전차 1대를 파괴하였고 3.5인치 로케트 포조(砲組)도 적의 자주포 1대와 45mm 대전차포 수문(數門)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十二堂山을 공격하던 적 제13연대는 B중대의 진지 150m전방까지 접근은 하였으나 진전에 매설해둔 대인지뢰에 의하여 첫 공격이 좌절되었고 후속부대도 美 포병대의 지원화력과 탄약의 재보급을 받은 B중대의 맹렬한 사격으로 날이 밝을 무렵 적은 퇴각하였다. 퇴각한 적진에는 30정의 경기관총과 3정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많은 장비와 적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적 제13연대장 대좌 韓日來의 시체도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8월 31일 밤부터 9월 1일 새벽에 걸쳐 적 1개대대의 침투와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었다.

이리하여 9일 1월 낮 현재 美 제25연대와 韓國경찰대는 儉岩里와 南江간의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G중대의 전초소대는 계속 적의 위협하에 놓여 있

었고 적은 다시 전선의 후방에 거의 3,000여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집결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熊岩里 東쪽 10km지점과 漆原里와 마산 등 美 제35연대의 후방지역에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美 제35연대와 韓國경찰대는 사실상 괴뢰군 제7사단과 6사단의 일부 병력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에 들어 갔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9월 1일 아침 K중대와 전차소대를 C중대 진지의 저지대와 韓國경찰대의 구진지로 투입시켜 탈환전을 전개하였고 항공정찰보고에 의하여 南江을 건너 침투하는 적 4개중대 병력에 대하여는 美 제64야포대대가 VT신관을 사용한 포격으로 4분의3에 해당하는 적병을 살상하였으며 전폭기 역시 퇴각하는 적병을 사살하였다.

이날 오전 사태의 위급함을 보고 받은 워커(Walker)중장은 급거 馬山의 美 제25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킨(Kean)소장은 전황을 설명하고 美 제8군 예비인 제27연대의 제2대대를 제35연대지역으로 투입한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 워커(Walker)중장은 제24연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서 거절하였다. 그러나 제35연대의 전황은 위급함을 더하여 갔으므로 이날 오후 킨(Kean)소장은 제27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제35연대의 후방지역을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9월 2일 : 이날 밤 17.00 제27연대 제2대대는 마산의 집결지를 떠나 G중대 지역으로 반격하기 시작하였다.

9월 3일 : 그러나 적의 저항과 지세의 불리로 인하여 진격이 부진하여 이날 15.00경에야 G중대진지 南쪽 1km지점에 진출하였다.

여기서 보전포 및 공중지원을 받으며 공격한 끝에 18.00에는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공격에서 머치(Murch)중령의 제2대대는 275명을 사살하고 G중대가 상실하였던 장비의 대부분을 찾게 되었다.

9월 4일 : 이날 아침 美 제27연대 제2대대는 다시 후방지역의 보급로에 분산배치된 적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탈환한 진지를 G중대에 인계하고 보급로를 개통하기 위해 후방지역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은 머치(Murch)중령의 제2대대가 떠나자 G중대진지를 공격 점령하였다. 급보에 접한 머치(Murch)중령은 저녁때 대대를 역전시켜 적을 격퇴하고 G중대진지를 재 탈환하였다.

이리하여 다시 진지를 G중대에 넘겨 준 머치(Murch)대대는 후방지역의 적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은 3개 방향의 고지에서 기관총의 교차사격을 가하였고 이어 적은 수천(數千)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역습하여 왔었는데 머치(Murch)대대는 더우기 폭우가 쏟아지고 시계(視界)가 불량한 까닭에 겨우 500m를 뒤로 철수하여 적의 역공을 좌절시켰다.

9월 5일 : 이날 아침 머치(Murch)중령은 식량과 탄약의 공수보급을 요청하여 8대의 수송기에 의한 보급품의 지원을 받고 난 다음 재차 공격하여 저녁때까지는 보급로를 확보하고 C중대후방 800m지점에서 적과 대치하였다. 여기서 머치(Murch) 중령은 같은 연대 제1대대의 체크(Check) 중령과 연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한편 머치(Murch)중령의 제2대대가 2일 中里를 떠난뒤 후방에 침투하였던 적은 제27연대지휘소와 수개소의 포진지를 공격분쇄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단장은 제27연대 제3대대(디챠우(DeChow)중령이 지휘하는 제29연대의 대대인데 후에 제27연대에 편입)로 하여금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디챠우(DeChow)중령의 제3대대는 9월 3일 아침 포병진지를 공격한 적을 격퇴시키고, 15.00에는 儉岩里 東쪽 6km지점, 馬山도로의 華蓋山(△455)을 점령한 적을 공격하였다. 처음에는 1문의 곡사포지원하에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1,000명이 넘는 적이 반격하여 격전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디챠우(DeChow)대대는 장교 13명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 K중대 제임스(Elwood F. James)중위도 이곳에서 전사하였다. 그러나 얼마뒤 전차와 공중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시키고 이를 점령확보하였다.

美 제27연대 제3대대는 9월 4일 09.00 美 제24연대 후방에 침투한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심한 사격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공격은 부진하였으나 K 및 I중대는 공중지원을 받아 儉岩里의 교차로를 감제하는 202高地를 탈취하였었고 9월 5일에도 공격을 계속하여 咸安방면으로 남진하는 적 300여명을 사살하였다.

이상과 같이 G중대가 예비대인 제27연대 제3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을 무렵 十二堂山의 B중대 역시 9월 1일 이후 계속 적과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64포병대대의 A포대가 투입되었다.

B중대가 소속되고 있는 美 제35연대 제1대대는 사단의 어느 대대보다도 전선의 돌출부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 무렵 十二堂山에 이르는 보급로와 후방지역은 적의 점령하에 있었고 주간에는 호송병력이 없이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十二堂山 전투는 9월 1일 3차의 격전을 치루면서도 끝내 B중대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진지가 철조망, 지뢰, 부비트랩, 네이팜탄으로 장애물이 설치되고 협조된 포화력이 진지내외에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전투는 1일 01.00부터 3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는데 진전(陣前)에만도 143구의 시체가 있었고 대대 전(全)지역을 통하여 볼 때 적의 사상자는 500여명에 달하였다. 3일

간에 걸친 이 전투에서는 제64포병대대의 A포대가 화력지원을 담당하였었다.

적병 약 50명은 9월 3일 새벽 A포대진지를 침공하였다. 적병들은 기관단총 다발총 등을 난사하면서 육박하여 포진지전방의 2개기관총 진지를 격파하고 03.00에는 포진지까지 접근하였다. A포대장 앤더슨(Andrew Anderson)대위는 육박전을 스스로 감행하여 혼란중에 수문의 포를 적에게 빼앗겼으나 90포병대대 C포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피탈된 포진지를 재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64포병대대 A포대는 7명이 전사하고 12명의 부상자와 포장비 25%가 파손되었다.

제159포병대대도 9월 2일 역시 위와같은 경우를 당하였으나 끝내 진지를 사수하여 적을 격퇴하였는데 이 적이 전날 A포대를 공격한 적병단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 제35연대지역을 지원한 포병은 159대대과 64대대(이상은 105mm)의 5개포대와 90대대(155mm의 1개포대)로서 포의 수는 총 36문이었다. 이들 포병은 [illegible]에서 적 제6사단의 수많은 보급품과 장비를 격파시켰고 9월 1일부터 20여일간(반격작전까지)에 걸쳐 포살한 적병의 수는 1,82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포병의 적절한 화력지원에 추가하여 공군의 전폭기도 놀라운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 킨(Keean)소장은 馬山 西北部의 제25사단의 작전을 평가함에 있어서 "美 제5공군이 기여한 근접공중지원은 그 전에도 여러번 있었으나 이번의 작전지원은 사단의 위기를 모면시켰다"고 격찬하였다.



<무상자를 이송하는 美軍 헬리콥터>

9월 5일 이후 적의 압력은 약화되어 갔다.

9월 6일: 책크(Check)중령의 제27연대 제1대대는 咸安지역

에서 제35연대의 후방인 南江하류에서 적을 공격 중인 머치(Murch)중령의 제2대대와 합동하기 위하여 北으로 전진하였다. 이 대대는 북상하면서 공간지역에서 16개 적의 대소 집단을 공격하여 분산시켰다.

9월 7일 : 이날 아침에는 적 제7사단의 패잔병들이 南江을 건너 패주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더우기, 9월 8·9 양일간에 걸친 심한 폭우로 南江과 洛東江의 수위는 2m나 증가되어 적의 새로운 도하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적 대부대의 침투에 의한 격전의 고비는 넘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2) 咸安부근의 전투

로버트(Robert)중령이 지휘하는 美 제24연대 제2대대는 咸安 西쪽 1.5km지점의 능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적의 점거하에 있는 中岩里一咸安간의 도로는 제2대대의 진지 중앙을 통하여 咸安으로 들어오고 있다.

8월 31일 : 이날 오후 늦게 G중대 진지에서는 전방 1.6km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적을 관측 할 수 있었다. 아군은 해가 지기전에 두차례에 걸쳐 공중폭격을 가하였고 포병도 적진에 포화를 집중시켰다.

한밤중에 적은 中岩里와 咸安간 도로 北쪽 능선에 배치하고 있던 F중대를 공격해 왔다. 이때 도로 左측 130高地를 점령하고 있던 韓國경찰대는 F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자 중대의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F중대와 韓國경찰대 진지를 돌파한 적은 도로상에서 습득한 미군의 75mm 무반동총으로 미군전차 2대를 파괴하고 계속하여 도로 南쪽의 81m/m 박격포진지를 점령하였다.

9월 1일 : 이날 새벽 헤모레이(Houston M. Memorray)중위가 지휘하던 G중대는 69명 중 15명의 병사만이 진지에 남아 있었는데 이중 8명은 G중대 1소대원이고 7명은 韓國경찰대원 들이었다. 이 G중대에 대한 적의 최초공격은 대수롭지 않았으나 철조망을 엄호하던 BAR사수가 도피한 사이에 수 많은 적병이 일시에 돌입하여 속수무책으로 패한 것이었다.

한편 제2대대 左측의 산비탈에 배치되고 있었던 E중대도 8월 31일 한밤중에 적 전차의 사격을 받았다. 중대장 엘리스(Ellis)중위는 左측방에서 나는 요란한 포성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제3소대는 진지를 떠나 분산 후퇴하고 있었고 左측방의 진지도 역시 비어 있었다. 이날 밤 E중대 진지에는 중대장 엘리스(Ellis)중위와 11명의 병

사만이 남아 있었을뿐 전 중대원은 진지에서 떠나고 없었다.

중대장과 잔여 병사들은 9월 1일 날이 밝으면서 적의 치열한 사격을 받았는데 끝까지 방어하여 진지에 접근한 적을 격퇴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이 무렵 咸安지역의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해온 적병은 적 제6사단의 2개 연대 병력이었다. 아군의 최초 관측은 9월 1일 02.00로서 美 제2대대 G중대 右측 진지 전방 100m지점을 통과하였을 무렵이거니와 병력의 수는 약 600여명으로 추산하였다. 적이 제2대대 방어선을 돌파하였을 무렵 대대장 로버트(Roberts)중령은, 적은 반드시 咸安을 침공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한 참모장교에게 대대의 잔유병력으로 咸安 南쪽 도로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따라서 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도 咸安의 연대본부를 9월 1일 04.00 咸安 東北방 3.2km 지점의 도로상에 이동시켰다. 이 때에 咸安 北방 1.6km 지점에 배치되고 있던 美 제159야포대대 C포대도 적의 공격을 받고 美 제89전차대대의 엄호하에 咸安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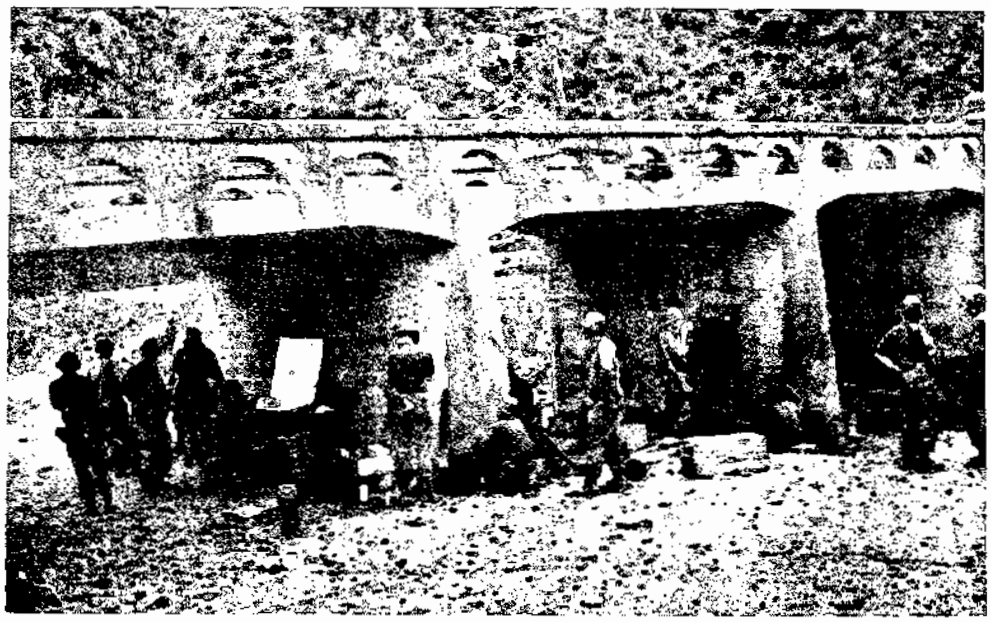
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은 이어 咸安에서 약 5km 南방(咸安—鎭東里 도로) 만절리에 있던 제1대대장에게 돌파된 진지를 역습하여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 로버트(Roberts)중령은 이 무렵 戰鬪山과 筆峰의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는 데도 불구하고 보충병력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분산된 대대본부 요원 40여명을 수습하여 07.30 咸安으로 전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와해되어 날이 밝은 뒤 제2대대 병력과 더불어 咸安 東쪽 3km 지점의 산악지대로 퇴각하였다. 이리하여 9월 1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적 제6사단의 2개 연대 병력 800여명은 별다른 접전없이 咸安을 점령하였다.

이 보다 앞서 사단장 킨(Kean)소장은 8군사령부에 증원을 요청하였었다. 즉 8월 31일 밤 多富洞에서 馬山에 도착하여 8군예비로 대기하고 있었던 제27연대를 배속시켜 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8군에서는 1개 대대만을 승인하였다.

킨(Kean)사단장은 9월 1일 02.00 馬山집결지에 있던 제27연대 1대대장 책크(Check)중령에게 제24연대 배속을 명하고 즉시 행동하여 제24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의 지휘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책크(Check)중령의 제1대대에는 4.2인치 박격포 1개소대 전차 1개소대(89전차대대 B중대소속) 제8포병대대의 A포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10.00에 현지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는 이미 咸安이 적의 수중에 들고 아군은 축차후퇴하고 있는 중이었다. 연대장은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6.00경에 이르기까지 불과 200명을 집결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美 제24연대의 후퇴하는 병력을



<咸安 東쪽, 다리 밑에 설치된 美 제27연대 지휘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반격이 6시간이나 지체 되었었다.

킨(Kean)소장은 첵크(Check)대대로 하여금 14.45에 반격을 개시하여 美 제24연대의 피탈된 진지를 탈환하라고 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에게 명령하였다. 첵크(Check) 중령의 1대대는 공격에 앞서 15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고 그 간에 전폭기는 咸安에 네이팜탄, 로케트탄을 투하함과 동시에 기총소사를 30분간 계속하였다.

16.30 첵크(Check) 대대는 제79전차대대에서 1개 소대의 전차를 새로 증원받아 咸安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咸安의 西쪽 능선에는 적의 기관총이 모든 접근로를 봉쇄하고 있어 적의 화력에 전차 1대가 파괴되고 전차의 뒤를 따르던 보병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계속하여 18.25 적이 점령하고 있던 咸安 南쪽 500m 지점의 능선을 점령하였고 20.00에는 咸安 西쪽 1.5km 지점의 고지를 탈취한 뒤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전에 들어 갔다.

이날 적은 종일 계속된 전투기의 폭격으로 공격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의 전폭기 출격작전은 극적인 장관이 많았으니 어떤 전폭기 편대는 320km나 떨어진 기지에서 출격하기도 하였고, 27노트 속력으로 韓國으로 항해 중이던 항공모함 밸리 포지(Valley Forge)호와 필리핀·씨(Philippine Sea)호는 항해 중에 함재기를 출격시켜 최대한의 지원

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책크(Check)대대는 咸安 西쪽에서 적과 교전없이 대치하고 있었고 적은 공격은 하지 않고 신호탄만 발사하면서 심리적인 기만을 노리고 있었다.

9월 2일 : 이날 아침 적은 집은 안개를 이용하여 책크(Check)대대 진지를 공격해 왔으나 안개가 개이자, 아군의 전폭기 편대가 네이팜탄으로 이들의 공격을 좌절시켜 버렸다. 이날 공군은 135회의 출격으로 약 400대가 美 제25사단의 전선일대를 지원하여 수대의 적전차, 야포 그리고 3개소의 탄약집적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이날 책크(Check)대대는 제24연대 제2대대가 버린 진지를 재탈환하였는데 이곳에는 2일전에 그들이 버리고간 공용화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9월 3일 : 새벽에 적은 또 공격을 개시하였다. 책크(Check)대대는 포와 박격포 전차 및 공중지원 등으로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시켰고 대대의 일부는 대대후방 지역에 침투한 적을 격멸하였다. 격전 후 진지주변에는 100여구의 적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2-3일간에 적은 4개 대대의 병력으로 책크(Check)대대를 공격하여 1,000여명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9월 4일 : 이날 밤 20.00 책크(Check)대대는 후방에서 재편성한 제24연대 2대대 F중대와 진지를 교대한 뒤 咸安 北쪽 2.5km 부근의 제2선으로 이동하였고 제24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은 咸安의 300m 西쪽 고지하단에 지휘소를 이치(移置)하였다.

9월 5일 : 이날 새벽, 적 2개 중대는 다시 咸安에 침투하여 연대지휘소를 경비 중인 H중대를 공격, H중대는 2정의 새로운 장비와 기관총을 버리고 모두 후퇴하였다. 이때 지휘소에 있던 본부요원들은 적이 H중대의 기관총으로 사격해 오자 비로소 적의 내습을 알게 되었는데, 적은 이미 지휘소 전방 100m 지점까지 접근하였고 적이 던진 수류탄이 탄약고에 명중하였다. 그리고 약 20명의 적은 수류탄과 다발총을 쏘면서 제24연대 제1대대본부에 내습하였다. 이때 美軍 45명과 韓國軍 신병 20명은 이들을 격퇴시켰거니와 싸움이 끝난 뒤 대대장 카슨(Carson)소령이 병력을 파악하였을 때는 모두 3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7명이 부상을 당해 있었다.

이와 같이 제24연대본부와 제1대대본부가 공격을 받자 당시 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1명의 백인장교와 약 40명의 흑인 병사는 2.5km나 떨어져 있는 책크(Check)대대의 지휘소로 달려 왔다. 당시 이들의 보고는 2,000명의 적이 침투하여 그들의 진지와 咸安을 침

공하였고 대대본부도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책크(Check)중령은 이러한 상황을 곧 킨(Kean)소장에게 보고 하고 전차 1개 소대와 보병 1개 소대의 정찰대를 급파하였다. 그러나 정찰대는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咸安에 들어 갔으며 그 때까지도 연대지휘소는 피해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9월 6일 : 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은 咸安 西쪽의 일선진지에서 적의 저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며 후임에는 제3대대장 코리(Corley)중령이 임명되었다.

(3) 戰鬪山 筆峰 및 西北山의 공방전(攻防戰)

洛東江과 南江에서 美 제25사단지역을 돌파한 괴뢰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은 해안선의 고지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야포와 박격포탄을 戰鬪山과 筆峰 그리고 西北山 일대에 떨어트렸고 국부적인 공격과 정찰행동을 하였다.

8월 21일 사단장 킨(Kean)소장이 이 지역에 대한 美 제24연대의 방어임무가 과중함을 고려하여 특히 적의 후방지역과 계곡을 감제하는데 가장 적절한 西北山정상의 확보임무는 美 제5연대전투단 제1대대에 넘겨 8월말에는 수차의 격전을 거듭하였거니와 9월초에 들어서도 美 제5연대 전투단의 제1대대는 美 구축함이 해안에서 西北山의 산정에 탐조등으로 조명하고 5인치 함포(1척 6문)로서 계속 포격하는 가운데 西北山頂을 점령하려고 공격하였으나 산정을 점령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킨(Kean)소장은 美 제24연대가 9월 1일 전선에서 후퇴하자 제5연대전투단의 右측방 咸安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美 제24연대의 유일한 예비대인 E중대를 투입토록 연대장 챔프니(Champney)대령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중대장 콩거(Conger)대위는 咸安도로에서 매일밤 제24연대의 낙오병을 모아 다음날 아침에는 원대에 복귀시켜 왔다.

9월 7일 : 적이 재차 戰鬪山을 공격 점령하자 사단장은 咸安을 탈환한 제27연대 제3대대장 디챠우(DeChow)중령에게 戰鬪山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3대대의 공격에는 제24연대의 B 및 K중대가 후원하여 점령한 진지를 인수하겠금 되어 있었는데 공격전은 7일부터 9일까지 계속되었다.

9월 9일 : I중대가 선두로 정상에서 육박전을 전개하고 L중대가 뒤 따라 공격하였으나 끝내 戰鬪山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 곳에는 적 2개중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1개중대 이상의 병력이 그 측방을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의 공격은 매우 불리한 「조건하에

있었다. 따라서 더챠우(DeChow)중령의 제3대대는 3일간의 아곳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리하여 이날 오후 제3대대는 戰鬪[illegible]東쪽 1,000m 지점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반면 우군의 전폭기와 야포는 戰鬪[illegible]의 산정 적의 진지를 계속하여 강타하였다. 9월 8—9일 양일간에 걸친 美 제27연대 제3대대의 공격이 실패하자 제24연대장 코리(Corley)대령은 재공격을 중단하는 반면 K중대와 사단공병 C중대로 하여금 戰鬪[illegible]보다 낮은 東쪽 고지에 지뢰와 철조망으로 장벽을 구성하고 적진에는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소모를 강요하는 동시에 전세를 만회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적은 美軍의 공격이 중지되자 야간에는 매일밤 K중대와 C중대 진지에 공격해 왔으나 그들은 매번 격퇴당하고 말았다. 적의 병력이 감소되자 이번에는 아군이 공세로 전환하여 수일간의 공방전 끝에 戰鬪[illegible]頂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에는 포병의 화력지원이 중요한 역활을 하였다.

9월 14일 : 이날 새벽, 적은 다시 筆峰을 탈취하려고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제24연대의 I 및 L중대를 공격해 왔다.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는 동안 L중대 병력은 100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으로 임명된 부레이어(Melvin R. Blair)소령은 L중대의 잔여병력을 이끌고 筆峰의 I중대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때 부레이어(Blair) 소령은 적의 저격을 받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은 후송을 거부하였으나 I중대의 병력과 L중대의 잔여병력으로서는 筆峰을 유지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美 제25사단의 위기가 가시자 워커(Walker)사령관은 9월 7일 킨(Kean)소장에게 24시간 내로 美 제5연대전투단의 배속해제를 통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大邱 北방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제5연대전투단을 이 방면에 예비대로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저녁 제27연대 제1 및 제2대대는 南江전선에서 美 제5연대전투단과 교대하기 위하여 馬山으로 이동한 후 9일 연대장 마이캘리스(Michaelis)대령은 제5연대전투단의 진지를 인수하였고 제5연대전투단은 10일 三浪津으로 이동하여 美 제8군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리고 마이캘리스(Michaelis)대령은 제27연대 제3대대가 戰鬪[illegible]의 탈환작전에서 실패하자 11일 美 제25사단 전선의 남단으로 이동배치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25사단이 韓國전선에 투입된 이래 8월말과 9월초의 방어전은 8군의 심대한 관심사가 되었고 사단장 킨(Kean)소장은 작전 지휘상에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었다. 제27연대와 제35연대는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제24연대는 8월의 戰鬪비일대의 전투에서 이미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9월 1일에는 咸安싸움에서도 2개 대대가 분산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9월 1일-5일에 이르기까지의 제24연대의 작전을 평가한 끝에 8군사령관에게 美 제24연대를 다른 美軍사단에 배속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워커(Walker)중장은 사단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8월 31일 밤부터 9월초에 걸친 馬山 西北部 美 제25사단의 방어전은 킨(Kean)소장의 과감한 작전권의 행사와 아군의 용전분투로 방어선을 유지하였고 강력한 포화력과 공중지원으로 적에게 많은 손실을 가하여 진지 전면에서 사살한 적의 수자를 제외하고서도 25사단의 전선후방 지역에서 2000구 이상의 시체를 매장하였다. 이리하여 9월 9일 전선을 시찰한 제35연대장 피셔(Fisher)대령이 피가 흘러 혈하(血河)를 이룬 지역들을 둘러보고 "내 일찌기 세계 제2차대전시 구라파 전선의 트룬(Trun)지역의 작전에서도 이런 참담한 광경은 보지못였다"고 술회한 것은 당시의 정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던 美 제25사단의 洛東江 西南部의 방어전선은 9월 7일 이후부터는 구 진지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또한 완강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전황은 점차 역전하여 仁川상륙작전과 상응하는 반격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특히 8월말에서 9월초에 걸쳐 美 제25사단의 작전상황과 더불어 병기(併記)하여 두고 싶은 것은 적 유격대의 지하활동에 관한 문제였다. 적 유격대의 지하공세는 馬山에까지 뻗치고 있었으니 즉 9월 3일밤 여자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유격대가 昌原에 있는 무선중계소를 습격하여 천막안에 있던 7명의 미군과 2명의 韓國軍을 포박하고, 문서와 무기를 빼앗은 다음 여자 유격대원이 차례로 기관단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2명의 美軍 병사가 다행히도 생존하여 美 제25사단 사령부에 급보를 전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馬山서내의 간첩활동에 관한 문제였다. 해방 이후 馬山은 남노당(南勞黨) 세력이 큰 도시였는데 그 동안 적색분자들이 대부분 전향을 하거나 지하에 잠입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인 큰 사건은 없었지만 적의 공격이 馬山에 집중되어 절정에 달하였을 8월경부터 9월초에 걸쳐 한국신문협회 마산지부장(韓國新聞協會 馬山支部長)이었던 韓금조가 당시 남노당 마산시당위원장(南勞黨馬山市黨委員長)으로서 馬山주변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釜山에 있는 본부에 보고, 북괴와 내통해온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또 馬山형무소의 한 간수장은 형무소내의 남노당(南勞黨)세포조직책으로서 7명의 간수를 포섭한 사실까지 발각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산분자들의 암약이 심해지자 美 제25사단장 킨(Kean)소장은 공공기관의 직원과

경찰 그리고 철도원을 제외한 즉 작전활동에 불필요한 전마산시민(全馬山市民)들에게 9월 8일 피난명령을 내려 9월 10일과 11일에 12,000명 이상을 LST로 釜山방면에 피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북괴의 유격대 및 지하간첩 활동은 美제25사단의 작전상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하겠다.

§. 교 훈

◇ 독단활용(獨斷活用)의 효용과 한계

9월 1일 美 제25사단 정면의 사태가 위급해지자 美 제8군사령관 워커중장은 급거 馬山에 위치한 사단장 킨(Kean)소장의 지휘소에 도착하였다. 킨(Kean)소장은 전황을 설명하고 난 다음 앞서 워커(Walker)중장이 제24연대를 위하여 1개 예비대를 킨(Kean)소장의 통제하에 두고 투입시에서는 워커(Walker)중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단예비 제27연대 제2대대를 제35연대지역에 투입할 것을 승인토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워커(Walker)중장은 제35연대나 제24연대가 다같이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적어도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 투입시키려는 복안이었던지 킨(Kean)소장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사태는 점차 험악화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킨(Kean)소장은 자신의 독단으로 제27연대 제2대대를 제35연대 후방지역에 투입시켜 적에 대한 역습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35연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전세는 만회되었다. 그뒤 워커(Walker)중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부딪쳐 우리는 지휘관의 독단활용의 효용성과 지휘권의 한계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면서 당시 킨(Kean)소장의 조처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인 것 같다.

당시 킨(Kean)소장으로서는 사령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비대를 자신이 독단적으로 활용(活用)함은 군율(軍律)을 어긴 처사였다. 하지만 킨(Kean)소장이 이 대대를 투입하는데 있어서 용단을 내릴 수 있기까지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첫째는 사단장 킨(Kean)소장에 비해 워커(Walker)중장은 아무래도 제35연대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둘째, 킨(Kean)소장으로서는 승패의 기로(岐路)에서 예비대를 가까이 두고서도 활용의 시기를 놓쳐 작전실패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독단으로 활용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을 것 같으며,

세째, 물론 투입시는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예비대를 적어도 촌각(寸刻)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기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크게 무리한 처사는 아니지 않을까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당시의 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킨(Kean)소장의 처사는 비록 군율을 어겼다고는 하지만 관대히 용납되어야만 할 사실이며 나아가 지휘관의 독단활용의 한계에도 보다더 신축성이 부여되어야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단활용시에는 당해지휘관은 냉철한 판단과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론을 얻은 다음 행하여져야만 하며 또한 인각을 지체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닌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되겠다.

第 24 章

大邱 北東部方面 防禦作戰

第24章 大邱 北東部方面 防禦作戰

要 旨

洛東江을 건너게된 북괴 제2군단은 倭館 東쪽의 산악지대로 침입하여 8월 15일까지 大邱와 釜山을 점령하려는 야욕으로 북괴 제1사단을 聖主과 多富洞 선에서 架山·道德山 및 大栗洞·八公山선으로 진출케 하였으며 또한 북괴 제8사단은 아군 제6사단과 교전하면서 新寧 北쪽의 烏林山 부근으로 남침하였고 북괴 제12사단과 제15사단은 아군 제8사단 정면인 普賢山 지구로 진출케 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고 막대한 병력과 장비의 손실만을 당하였으며 걸어진 보급로는 아공군에 의하여 강타당하여 마비되고 있었다.

9월에 들어 洛東江 전선의 기상은 우천과 맑은 날씨가 상반하여 작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함공력에 의존하고 있는 아군에게는 불리 하였다.

太白山脈 南端에서 西南으로 뻗어있는 산줄기는 普賢山, 烏林山, 八公山 등 높은 산이 연해있어 평균 해발 800~900m의 산악지대로서 大邱, 新寧, 永川 北쪽에 천연적 방어선(天然的防禦線)을 이루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南쪽에는 琴湖江이 東쪽에서 西南쪽으로 흘러 洛東江으로 합류되고 있으며 이 강의 南北으로 평야지대가 전개되고 있다. 병참선으로서 철도와 도로는 釜山—大邱—永川—慶州—釜山으로 연결되여 원형을 이루고있다.

8월의 공세에 실패한 적은 이달 중순부터 예비병력을 총동원하고 화력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군수물자를 전선에 수송하여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준비하더니 이 준비를 마치게된 그들은 중부인 玄風과 倭館 방면에서 견제작전을 펴고 西部와 北部에서는 공격을 취하여 大邱와 永川 지구에서 아군, UN군을 포위하려는 발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리하여 적 제2군단은 제3공격집단인 제1, 제2, 13사단과 제17기갑여단으로 하여금 美 제1기병사단과 아군 제1사단 정면을 돌파하고 적 제4공격집단인 제8, 제15사단으로 하여금 아군 제6 및 제8사단의 정면을 돌파하여 慶陽, 永川을 점령하려고 9월 2일부터 총공격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아군은 多富洞 지구에서 격전중인 제1사단을 美 제1기병사단에 전투정면을 인계한 다음, 新寧 지구에서 작전중인 아군 제6사단의 左측으로 이동하여 제2군단의 작전정면을 축소하여 적의 남침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架山·八公山 지구로 작전 참가하게 된 아군 제1사단은 이선에서 적의 발악적인 남침을 물리치고 끝내 大邱 외곽선을 고수하는데 성공하였고 또한 아군 제6사단은 사단 左측에 제1사단이 전투참가함에 따라 栗山洞에서 華山에 이르는 15km 정면을 맡아서 남침하는 적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 9월4일 제19연대 제1대대의 특공대가 汝德洞 北쪽에서 적 전차 8대를 격파하므로써 적의 공격력을 완전히 상실케 한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이로서 적 제1사단과 제8사단의 大邱 점령의 꿈은 수포로 도라가고 9월 16일 아군은 아

선에서 총반격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普賢山 일대에 침입한 적 제15사단은 9월 2일 공격을 시작하여 아군 제8사단의 중앙을 돌파하고 6일에 永川을 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南으로 진출하였으나 9월 8일 阿火 北쪽에서 아군 제5연대에 의하여 전진이 좌절 당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아군 제8 및 제7사단은 적 제15사단을 완전히 포위하고 치열한 교전 끝에 적 포병연대를 林浦洞 南쪽에서 섬멸하고 9월 10일 반격을 시작하여 이 적을 완전히 섬멸한 다음 13일에는 龜田洞—玆川—仁邱洞 선까지 진출하여 부대를 정비한 다음 총반격 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서 적은 9월 2일 총공세로 나온 이래 14일만에 전세는 역전되었으며 아군 제2군단은 架山·八公山과 慶州 北方 그리고 騎龍山 선에서 패주하는 적을 격멸하면서 파죽지세로 총반격을 하게되었다.

이에 앞서 大邱에서는 전세가 위급하게 되자 7월 24일 大邱 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중심으로 청년방위대와 후방부대로서 大邱를 고수할 방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때 내무부장관 崔奎五은 경찰을 대폭 강화하여 UN군에 韓國경찰대를 배속시켜 오열(五列)의 색출과 정비를 담당케하고 전투경찰대를 洛東江 안변과 大邱 방어선에 배치하여 적의 잠입을 방지하고 大邱를 끝까지 사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공세가 치열하게 되자 美 제8군사령부와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9월 5일 釜山으로 이동하여 洛東江 전선에서 용전분투하는 국군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형세가 매우 험악한 가운데에서도 후방 시민들의 자제와 인내로서 군에 적극 협력하여 국난(國難)을 다개하는데 큰 역활은 하고 있었던 것이다.

1. 架山·八公山附近戰鬪

(50년 8월 31일부터
50년 9월 15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24 호
상황도 제 23 호
작명부록 제33.62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제 2 군단 장 군상 劉 載 興	제 2 대대 장 소령 鄭 成 來
제 1 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基 容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15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 1 대대 장 대위 金 滔	제 1 대대 장 소령 劉 載 成
제 2 대대 장 소령 車 日 俊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存 一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8.20 교대)
제12연대 장 중령 金 鍾 珊	제 3 대대 장 소령 崔 炳 喆
(9월 3일 부터)	병력 약 6,500명
제 1 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적 군

제 2 군단 장 중상 金 武 亭	제 2 연대장 대좌 金 光 侃
제 1 사단 장 소장 洪 林	제14 연대장 대좌 李 昌 龍
제 2 연대 장 대좌 黃 石	포병 연대장 대좌 玄 學 峯
	병력 약 6,5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 초부터 洛東江 多富洞지역에서 大邱 공략을 목표에 두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던 북괴 제2군단은 8월 말에 이르러 大邱를 점령하기 위하여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침투하여 우회공격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洛東江 일대에서 多富洞으로 남하 중인 북괴 제1사단을 架山—道德山 선과 大渠洞—八公山 선으로 진출시켜 東쪽의 북괴 제8사단과 합세하여 大邱 외곽선을 포위하려 하였다. 적은 아군의 반격으로 막대한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고 있었으며 길게 뻗은 보급로는 UN공군의 계속되는 강타로 말미암아 마비상태에 놓여 저지 되어 보급의 결핍(缺乏)에 수반하는 사기가 전면적으로 저하(低下)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조감을 느끼게 된 적은 아군의 반격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최후의 총공격으로써 돌파구를 뚫고 유리한 형세로 만회(挽回)하려 보고자 9월 초부

터 전전선에 걸쳐 대규모의 공격을 취하여 왔다.

이리하여 북괴 제1사단과 제8사단이 우세한 화력과 전차 지원을 받으면서 大邱 東北 방향에 있는 八公山과 新寧을 연하는 지구에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美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多富洞 지구에서 작전중인 아군 제1사단의 정면을 美 제1기병사단에 인계시킨 다음, 新寧 지구에서 작전중이던 아군 제6사단의 左측에 이동케 하여 아군 제2군단의 담당정면을 축소시켜 남침하는 적을 저지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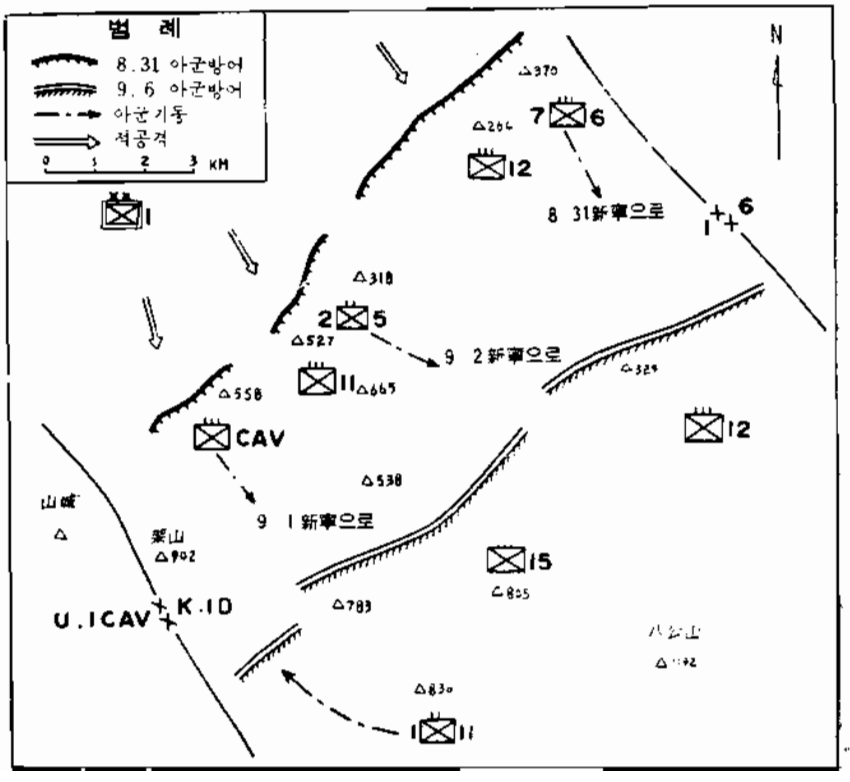
이에따라 多富洞 지구 싸움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는 바있는 아군 제1사단은 육본작명 제151호 및 제2군단 작명 제22호에 따라 8월 30일에 곧 大邱, 河陽을 거쳐 新寧 부근으로 이동을 완료 하는 즉시로 八公山 및 架山 지구에 투입됨으로써 남진하는 적을 맞아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벌어지게 된 제1사단의 架山—八公山지구전투는 大邱를 점령하려고 최후발악적으로 돌파구를 찾아 남진하는 북괴 제2군단 예하 북괴 제1사단을 마침내 물리치고야 말았던 것이니 大邱 외곽선을 사수한 견지에서 볼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架山 西北方지역의 전투(8월 31일~9월 4일)

8월 31일 : 육본 작명 151호(작명부록 제33호)에 의하여 제6사단 지역인 新寧 부근으로

상황도 제23호 架山·八公山 부근 전투(50. 8.31~9.6)



전진(轉進)하게 된 제1사단은 이날 사단사령부를 新昌洞에 설치하는 한편 예하부대인 제11연대와 제12연대로 하여금 이제까지 渼田 東北쪽에서 싸워온 제5연대와 기갑연대 및 제7연대가 이미 마련하였던 진지를 인수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그런데 제11연대가 인수하려던 제5연대와 기갑연대 지역내의 558高地와 527高地 그리고 655高地들이 어제 밤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적의 압력때문에 점령할 수 없게 되었음으로 이 임무는 제5연대 및 기갑연대와 협동해서 이 진지들을 다시 찾이하기 위해 이날 13.00를 기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2연대는 제7연대의 진지를 예정대로 인수하여 전선을 확보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7연대는 군단작명 제26호에 의하여 新溪으로 이동한 다음 사단 예비대로 배치하게 되었다.

9월 1일 : 기갑연대는 진지 교대 부대인 제11연대 제2대대(車甲俊 중령)의 지원을 받아 어제부터 시작된 558高地 탈환전을 계속하다가 11.00에 위 고지를 탈환하여 이를 제11연대 제2대대에 인계한 다음 新溪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제5연대 제2대대(李昌鎭 대위)는 이날 새벽에 분산된 병력을 재편성하고는 12.00 경에 655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 2개 소대 병력을 무찌르고 이 고지를 끝내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527高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게 되었으나 적의 포격이 치열하였기 때문에 공격이 부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우선 655高地 만을 제1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기에 이르렀다.

9월 2일 : 제11연대 제1대대는 1일에 진지를 인수받고서 이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야간에 이르러 적의 반격을 받고 2일 02.00에 381高地에서 318高地로 이동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右側에 배치중이던 제12연대 제1대대가 적의 위협을 받게되었으나 예비대로 있던 제2대대의 일부병력의 증원을 받아 제1대대 지역으로 공격을 시작한 적의 전차 3대를 격파하므로써 이 진지를 계속 확보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제5연대 제2대대는 3일째인 이날도 527高地에 대한 탈환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대대는 교대 부대인 제11연대 제3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03.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수류탄과 총검으로 근접전을 벌이면서 적을 무찌르고 11.00에 이 고지를 탈환하고야 말았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14.00에 진지를 교대 부대(11R 3B)에게 인계한 다음 군 명령 주력을 따라 新溪을 거쳐 大邱로 이동하였다.

9월 3일 : 제1사단의 좌측 연대인 제11연대는 이날 04.00부터 적의 공격을 받고 제2대

대가 583高地 남서면(高斜面)에서 적 2개 대대 병력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었으나 역부족(力不足)으로 14.00에 이르러 583高地로 이동하였고 右측의 제3연대는 655高地에서 피아간에 계속 정찰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1대대는 318高地에서 318高地 東南쪽 능선에 침입한 적을 맹공격하였으나 마침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진지인 318高地로 복귀하게 되었다.

제12연대 정면에서는 제2대대가 침입해 온 적을 격퇴하고 말았으며 제1대대는 龍尾洞 부근에서 그리고 제3대대는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전투지경선 변경에 따라 제2연대로부터 인수한 370高地를 점령한 다음 각각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9월 4일 : 이날의 전선은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12연대 제1대대는 같은 연대 제2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연대지휘소로 이동 집결하였다.

(2) 八公山 부근 전투(9월 5일~9월 15일)

9월 5일 : 중부 전선의 아군의 제8사단 전선이 5일에 돌파되어 북괴 제15사단이 永川에 침공해 왔는데 아군의 제2군단은 군단작명 제31호(작명부록 제62호 참조)로서 제1사단으로 하여금 이날 24.00만으로 八公山과 大崇洞을 연하는 선으로 이동케하여 인접사단과의 동일선 정면을 유지토록 조치(措置) 하였으며 제6사단에 배속 되어있던 제15연대를 원대로 복귀시키게되었다.



<제1사단을 방문중인 田 국방장관>

9월 6일 : 5日밤에 전면적으로 전선을 재 정리한 제1사단은 이날 오전중에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각대의 배치 상황을 대략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사단의 左측부대로서 583高地 北쪽 능선에 위치하여 미 제1기병사단과 연결을 이루고 있었고 제3대대는 384高地 左전방에 그리고 제2대대는 大栗洞 南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또 제11연대 제1대대는 제12연대의 左측 후방인 把溪재(△836) 일대에 주요지점에 배치되고 연대 지휘소는 [illegible]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 연대 제2, 제3대대는 군단예비로서 永川부근의 新丹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또한 제12연대 제1대대는 좌일선(左一線) 부대로서 573高地에서 329高地 사이에 그리고 제3대대는 388高地 일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는 예비대로서 昔谷 北쪽의 능선에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연대의 지휘소는 제6사단 제2연대 및 제7연대 지휘소와 함께 新等에 위치하였고 제1사단 지휘소는 倒隱 北쪽의 德村洞에 설치되었다.

이날 북괴 제1사단은 大邱에 이르는 최단 접근로(最短接近路)에 주력을 투입하여 이 지구 일대에 방어진을 치고 있는 아군 제1사단을 돌파하려고 총부림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적의 일부 병력은 02.00의 야음을 타고 583고지에 침투하여 [illegible] 부근의 적병과 합세하면서 大邱를 향해 남진하고 있었다.

이 날 아침에 대밭에 도착한 아군 제15연대 제1대대는 이 남침중인 적과 불가피에 조우하게 되자 즉시로 과감한 공격을 단행하여 이를 무찔렀으며 6일 12.00경에 이르기까지에는 진출 예정지점인 583高地를 점령하고 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날 오후 제1사단의 정면은 美 공군의 지원폭격과 포병 제17대대의 지원포격을 받으므로써 적은 움추린채로 커다란 활동을 감히 하지 못하고 전선은 대체로 평온하였으니 마치 태풍전(颱風前)의 고요한 순간같기만 하였다.

9월 7일~8일 : 제1사단 정면의 적은 계속하여 별 다른 행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어 7일의 전선은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8일에도 역시 가벼운 정찰전만이 계속되었을 뿐이었다. 이당시 정보에 의하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북괴 제1사단장은 북괴 제2군단장으로부터 大邱 정면으로의 과감한 전진을 시작하라는 협박서린 명령을 받는 동시에 독전대(督戰隊)까지 파송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다.

9월 9일 : 8일과 9일에 걸쳐 2일 간이나 잠잠하고 있었던 북괴 제1사단은 八公山 北쪽 일대에서 이날 19.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그 선발대 약 2개 중대 병력이 道德

山(△660)에 침입하여 아 제1사단의 후방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아군의 제15연대 제6중대와 연대 교육대의 합동 반격에 부딪쳐 전진이 주춤되고 아무런 실효(實效)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예비대로 있었던 아군 제11연대 제1대대는 把溪재에서 사단 左측으로 증가되고 있는 적의 압력을 제거(除去)하려고 이날 새벽에 古道洞(고지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적 대대 병력의 침공을 끝내 저지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제15연대 제3대대 정면에서도 22.00에 적 1개 대대 가량의 병력이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나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시키고 말았다.

이날 제15연대는 그 지휘소를 中里에서 2km 南쪽 지점인 "배골"부근으로 이동 하였으며, 제12연대 지휘소도 新寧 부근의 旺山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9월 10일 : 북괴 제1사단장은 상부로부터 11일 안으로 大邱를 점령하라는 독전명령(督戰命令)을 받고 초조한 나머지 道德山에서 大邱 東村 비행장으로 진출하고자 약 1,200명의 병력을 증원받아 발악적으로 남하를 기도하였다.

10일 미명에 아군 제15연대의 제6중대와 제11연대의 제1대대는 적의 이러한 남하기도를 분쇄하고 道德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치열한 교전끝에 드디어 목표를 탈환하고야 말았다. 이무렵 적은 이미 3분지 2에 달하는 병력의 손실을 입고 있어 남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한편 右측 부대인 제12연대 정면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9월 11일~12일 : 11일 제1사단 전선은 하루 종일 평온하여 적의 이렇다할 사항은 없었으나 12일 道德山부근에서는 적의 특공대로 인정되는 소대 병력이 제15연대 지휘소가 위치하고 있던 "배골"西北쪽으로 침투하여 오는 것을 정찰대가 발견하게 되고 곧 이 사실을 제15연대에 알려왔으므로 연대 직할대는 적의 진입로(進入路)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일제사격을 퍼부어 12.00에 완전히 적의 전 병력을 무찌르고 모든 화기(火器)를 노획하므로서 개가(凱歌)를 높이 올리게 되었다.

9월 13일 : 제11연대 제1대대는 인접한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 연대의 일부 병력과 협조하여 756高地 부근에서 침입하여 오는 적을 포착한 다음 심한 타격을 불시(不時)에 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583高地를 지키고 있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강력한 포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하여 온 적 1개 대대와 정면에서 서로 부딪혀 격전을 벌렸으나 적의 포탄이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므로 말미암아 이 고지 東南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새로운 진지를

구축한 다음 또다시 이 적에 대한 공격을 반복키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제1사단은 9일 13일 12.00부로 韓國軍 제2군단장 지휘로부터 美 제2군단장 지휘하에 들어가게되었다. (국일명(육)70호)

9월 14일 : 제11연대 제1대대는 13일에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된 756高地에 대한 주간 강습(強襲)을 결행(決行)하여 보았으나 끝내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대대장 金鍾泰 대위는 제2중대장 대리 朴勝熙 소위가 건의한 야간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756高地에 대한 야간공격은 제2중대 단독으로 20.00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중대는 은밀히 전진한 다음 756高地의 9부 능선까지 접근하여 때마침 졸고 있던 보초병을 대번에 찔러 죽인 다음 포복으로 정상에 기어 올라가게 되었다. 이때 약 200명으로 추산되는 적 병력이 때마침 식사중이었으므로 일시에 돌격사격을 가하여 단숨에 적을 무찌르고 756高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곧 사주(四周)방어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퇴각하였던 적이 고지의 후사면(後斜面)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아군이 그 이상의 돌격을 하지 않으므로 수류탄을 연다라 던지면서 역습(逆襲)을 감행하게 되자 제2중대는 이 적을 맞이하여 40분동안에 걸쳐 용전 분투하게 되었다. 이 당시 제2중대를 증원할 목적으로 756高地를 향하여 출동을 서두르고 있던 제1중대는 9부 능선에서의 제2중대의 후퇴에 함께 휩쓸리는 바 되어버렸다. 한편 제15연대 제1대대는 783高地에 대한 탈환전을 감행한 결과 19.30에 이르러 이 고지를 탈환하고야 말았다.

9월 15일 : 제11연대 제1대대는 14일밤에 적의 수중에 들게된 756高地를 다시 탈환할 결의(決意)로써 04.00에 제3중대를 단독으로 이 공격을 담당케 하였으나 정상(頂上)에 있던 적이 수류탄으로 완강하게 저항하므로 별다른 전진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대는 17.00에 이르러 美軍 전폭기의 집중폭격과 포병대의 일제포격에 뒤이어 756高地에 대한 과감한 돌격을 감행한 끝에 이를 점령하는 즉시로 이 승리의 여세(餘勢)를 몰아 白城으로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피차간에 치열한 수류탄전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白城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북괴 제1사단의 大邱 東村비행장을 점령하려든 최종 공세는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으며 일단 결심한 이상 끝까지 이를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아군 지휘관들의 上下 일치된 단결의 힘과 물할줄 모르는 전투원들의 투혼(鬪魂)은 이 白城의 일전에서도 여실히 보여 주게 된 것이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8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사이에 북괴 제1사단이 槐山과 八公山 부근을 돌파하여 大邱 방면으로 진출하려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가하여 보았으나 위에서 말한대로 아군 제1사단 장병들의 용전 분투로써 적의 기도를 수포(水泡)로 만들어 버리는 동시에 그 병력 3분지 2 이상에 달하는 커다란 손실을 줌으로써 드디어 적의 전의(戰意)를 뿌리째 빼앗아 버리게 되었다.

9월 15일 역사적인 仁川 상륙작전에 병행하여 洛東江 방어선에서도 총반격 명령이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지연전 만을 전개하고 있던 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반격태세를 갖추게 되고 적을 北쪽으로 멀리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八公山 지구에서의 아군 제1사단은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퇴각하려는 적을 추격하여 槐山 부근을 탈환한 다음 多富洞 지구의 美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면서 9월 22일까지에 洛東江 중부선를 돌파하여 일로 북진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槐山·八公山지구 싸움에서의 아군 제1사단의 용전 분투야 말로 적으로 하여금 大邱 점령의 야욕(野慾)을 완전히 좌절케 하고 洛東江 중부전선을 끝까지 방어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 교 훈

◇ 적의 기만 전술에 속지말것

잔인 무도한 북괴군은 정기전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기만 전술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아군 진지를 돌파하려 하였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9월 6일경 783고지를 점령하여 확보하고 있을때 적의 1개소대 병력이 총에다 백기(白旗)를 달고 손을 들면서 아군측으로 투항하여 왔다. 아 진지에서는 전면에 배치된 소대가 모두 일어서서 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적 1개소대 병력이 30m 거리에 접근하자 일제히 다발총을 난사하면서 육박공격하여 옴으로 아군은 일시 고지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다. 또한 적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적의 관측장교를 끼어서 아군 진지 부근에 보내어 포병관측(砲兵觀測)을 하는 수법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야간에 아군의 포격을 유도하기 위하여 횃불을 여러 곳에 밝히기도 하였다.

◇ 고지 탈환전에 대하여

산악 지대에 있어서의 고지 탈환전은 개활지에서의 경상 기본 전술과 같이 일시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것 보다도 오히려 10여명의 특공대(特攻隊)를 운용함이 효과적이다. 고지 탈환전에 1개 중대씩을 되풀이 하여 투입함으로써 결국 1개 대대 병력을 도조리 소모한 예가 간혹 있었던 것이다.

◇ 효과적인 고지 방어전

고지 진지(高地陣地)가 무너지게 될때 아군은 고지 전상에서 하단부까지 일거(一擧)에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반격이나 역습을 하려면 가장 밑에서 능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적은 이미 진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 능력였다. 효과적인 싸움을 하려면 고지에서 진지를 이탈 할때에는 7~8부 능선에서 일단 정지한다음 그 곳에서 재편성을 하고 역습(逆襲)을 감행하거나 또는 반사면(反斜面) 방어를 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거나 우군의 포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위치있는 공격을 결행할 수 있고 내앗긴 진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전자의 증언

제1사단 11연대 10중대장 延明守 소위(66년 9월 6일, 제3군단, 66년 현재 대령)

八公山에 올라간 다음 어느절(寺名未詳)에서 하루밤을 쉬고, 고지에 올라가 보니 아군이 이미

전멸당하여 많은 전우들이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밤에 적병이 피리를 불고 북을치면서 만세까지 부르는 동시에 반격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이를 일단 물리쳤지만 다음날 밤에도 밤에만 적이 공격 해와 그때마다 육박전이 벌어졌다. 밤이되니 피아자를 분간못하여 허리를 만져보고 잡히지 않으면 북괴군이고 잡히면 아군으로 알고 싸우기도 하였다. 피아간에 희생자가 많이 나와 그 악취가 대단하였다. 고지에 올라가서는 보급이 좋은 편이어서 안락해를 피우고 술 같은 것을 마실 수도 있었다. 그때 나는 국산 작업복에다 군련화를 신고 철모도 안쓰고 소련제 권총 두 자루를 배에다 붙여 차고 있었다. 그 당시 사병들은 사격도 잘하고 용감했으며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였다.

제1사단 11연대 2중대장 대리

朴勝熙소위(66년 1월 18일, 陸軍大學校, 66년 현재 중령)

八公山 전투때 연대장은 金東旭 대령이고 제1대대장은 金昭 대위였다. 우리는 安峙에 도착한 다음 八公山에서 일선 방어를 하고 있었다. 八公山에서는 大路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槪山알에는 북괴군 사단 사령부가 있었다. 우리는 제15연대에 작전 배수이 되어 槪山암 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우리 대대의 각 중대는 수차에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내가 중대장 대리로서 대대장에게 야간공격을 건의 하였드니 쾌히 허락해 주어 해가 질무렵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지형이 바위 투성인데 적의 저항 없이 9부 능선까지 접근하였다. 적은 2주일간의 아군의 공격으로 대담해져 경계를 소홀리하고 있었다. 목표 전방 50m에서 졸고 있는 보초를 칼로 죽이고 정상에 올라서 보니 적 200여명이 저녁 식사중이라 이를 공격하고 정상을 점령하였다. 우리는 정상에서 사주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정상에서 물러났던 적은 후사면에서 병력을 다시 수습하고 역습해 왔다. 나는 대대장에게 지원요청을 하고 적과 수류탄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적의 희생도 컸겠지만 우리 중대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으며 지원하려 출동한 제1중대는 9부 능선에서 진출이 둔화되고 있었다. 약 1시간의 격전끝에 우리는 그 고지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 제1중대도 후퇴하게 되었다. 3일후 적은 自己 상륙작전을 알았는지 자동적으로 후퇴 하였고 우리는 진격해 나갔다.

제1사단 15연대 1대대장 劉載成

소령(68년 8월 24일, 4H그라부, 예·대령)

어느 야대와 교대를 하고 槪山을 공격하기 위해 능선을 따라 밤새 올라가는데 저항은 별로 없이 산출하였다. 2대대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연대장이 독촉하여 합동으로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그 뒤에 우리는 八公山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되었다. 그때 연대장 崔榮喜 대령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니 대대장들 알아서 공격하라"고 훈시하는 바가 있었다. 그 당시 신병들은 방아쇠 당기는 것 밖에 모르고 있었으며 육박전이 벌어지면 마치 씨름하는 양으로서 끌어서 싸우는 것이었는데 모두들 용감하게 잘 싸웠다. 이렇게하여 1주일 동안에 걸쳐서 사수하다가 북진하였는데 多富洞에서 몇일동안 싸우다가 金振暉부대와 서로 교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사단 15연대 1대대 S—3 李鍾鼎대위(65년 10월19일, 國防部本部, 현재 대령)

槪山에 출동하여 2일간 전투를 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는데, 槪山 산정은 평평하며 그 위에 화전민이 몇집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신편 부대에 인계해주고 八公山으로 진격 하게되었다. 八公山에서는 大路 시내가 내려다 보이며 그곳을 내

앗기기만 한다면 大邱가 곧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그곳을 지켜냈으며 모두 합쳐서 2주일 동안이나 방어전을 벌렸던 것이다. 피아간에 육박전이 여러차례 벌어지게 되었는데 야간에 고지를 점령하고 정계배치 한 다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니 또 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때 우리는 머리를 짧게 깎고 복장도 인민군과 비슷하였다. 하루는 북괴군이 있는 쪽에서 1개 소대 병력이 보따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 오는 것을 알게 되어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두 사로 잡을 수가 있었으니 매우 통쾌하였다. 적은 모두 작업 부대들인데 아직도 인민군이 있는줄로만 알고 보급품을 가지고 올라 온듯 하였으며 그 네들이 짊어지고 온 적의 보급품이 아군의 특별 보급품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여 끝까지 지키면서 2,3일 뒤에 연대에서 곧 내려 오라고 하므로 내려가 보니 내일 아침에 총반격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八公山은 1,000고지가 넘으며 한번 내려가는데 4~5시간이나 걸리는 높은 산으로 기억된다.

제1사단 12연대 수색중대 劉達鵬 상사(64년 6월29일 國防部 수송과, 64년 현재 소령)

八公山 부근에서 9월초 나는 연대 정보과 소속 수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수색대의 임무는 적정수집과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유격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 날도 대원 7명을 거느리고 23.00경 출발하여 북상하였는데 적은 이미 요소의 고지 마다 모두 배치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일선 방어 진지는 만들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군이 침투하기가 용이하였는데 03.00경 어느 부락에 이르러 적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각 가옥에서 취침하고 있는 적에 기습을 가하고 급히 물러났다.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주막거리(3~4가옥)에 이르러 주둔 중인 적을 또 다시 습격하였다. 이때 포로로 잡은 적병에게 물어본 즉 위에 있는 부락이 적의 사단 전방지휘소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뒤에 白鷄洞 北쪽에서도 부대원 11명을 거느리고 적의 정찰 보위 부원을 기습하였는데 그때 13세가량의 소년이 북괴군 모포를 뒤집어 쓰고 졸고 있는 것을 잡아 심문하여 보니 자기집에 적 간부 7명이 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 대원들로 하여금 완전 포위태세를 갖추게 한 다음 이들을 모두 포로로 할려 하였으나 미리 눈치를 채게된 적이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으므로 결국 2명을 사살한 다음 2명만을 포로로 하였다.

제1사단 12연대 3중대 3소대 분대장 金英德(66년 1월 27일 空輸團 제1대대장실, 현재 上士)

나는 八公山과 新寧 부근의 224高地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공격할때 연대장 金鍾泌 대령은 쌍안경으로 직접 정정을 노려 보면서 진두 지휘하였고 치열한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8부능선까지 공격 진출하고 있을때 증원나온 학도병 중 9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세번 공격끝에 그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때 중대장은 金 [illegible] 씨 중위였다.

2. 新寧附近戰鬪 (50년 8월 30일부터 50년 9월 15일까지)

참조 : 별책 부도 제25 (No. 1~2)호
상 황 도 제 24 호
작명 부록 제 56·58·62 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

아 군

제2군단 장	준장	劉	載興
제6사단 장	대령	金	鐘五
제2연대 장	대령	咸	炳善
제1대대 장	소령	김	명진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澤
제1대대 장	중령	金	龍培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洙
제3대대 장	중령	조	현복
제19연대 장	대령	金	益烈

제1대대 장	소령	許	容九
제2대대 장	대위	金	圭黙

배속부대

제5연대 장	중령	崔	昌彦
기갑연대 장	대령	門	淸龍

지원부대

제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명

병력 약 8,500명

적 군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亭
제8사단 장	소장	吳	白龍
제81연대 장	총좌	李	永來
제82연대 장	총좌	史	勢

제83연대 장	중좌	吳	允燮
포병연대 장	중좌	金	명항

병력 6,5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초 북괴 제2군단장은 북괴 제8사단으로 하여금 安康, 浦項 지구로 침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사단이 8월 7일 아군 제8사단에 의하여 義城 지구에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여 義興, 新寧 선으로 진출토록 하였다. 북괴 제8사단은 8월 중 義城, 義興 등지에서 아군 제6사단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점차로 남진을 계속하여 8월 말에는 이미 新寧 北쪽의 鳥林山 부근에서 아군 제6사단과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아군 지상군의 반격과

공군의 맹폭(猛爆)에 의하여 적은 병력과 장비면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기에 이르렀으나 아군의 반격태세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인 9월초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북괴 제2군단 예하 북괴 제8사단이 인접사단과 합세하여 義興을 거쳐 大邱를 목표로 우회공격을 꾀하고 있던 8월 말에 이르러 아군 제6사단은 新寧 北쪽에 강력한 방어진을 편성하여 적의 최후 공격을 저지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당시 아군 제 6사단은 예하 연대인 제2연대와 제7연대 그리고 제19연대 외에 제7사단의 제5연대 (1개 대대결)와 기갑연대 (1개대대 결)의 증원을 받아 도합 5개연대로써 東西간 32km의 산악정면을 담당하고 있다가 아군 제1사단이 제6사단 左측에 전투 가입되자 제1사단은 架山에서 新院에 이르는 13km 정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제1사단은 架山洞에서 華山에 이르는 15km 정면을 맡아 지키게 되었다. 이와같은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의 변경과 조정에 따라 제6사단에 배속되었던 제8사단의 제10연대는 30일 원대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제5연대(제1,제2대대)와 기갑연대도 역시 명에 의하여 제7사단에 복귀한 다음,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도록 사전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제6사단의 新寧 지구 싸움은 大邱 외곽선을 끝까지 방어케함으로써 大邱를 점령하려는 적의 야욕을 완전히 수포화시켰으며 나아가 洛東江 방어선에서의 총반격에서도 중요한 일역(一役)을 맡아보게 된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鳥林山 부근 전투(8월 30일~9월 4일)

8월 30일 : 아군 제6사단은 右로부터 左로 19연대, 제2연대, 제7연대, 제5연대 (1개대대 결) 기갑연대(1개 대대 결)순으로 배치되어 남하를 계속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상황도 참조)

이날 558高地 일대의 기갑연대 방어선에서는 별다른 적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전방의 적과 대치 중이었고 제5연대(崔昌彦중령)는 527高地와 318高地선에서 경미(輕微)한 탐색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연대(林富澤대령)는 223高地와 284高地 및 370高地를 이은 선에서 적과의 접촉은 없었으나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전방에 수색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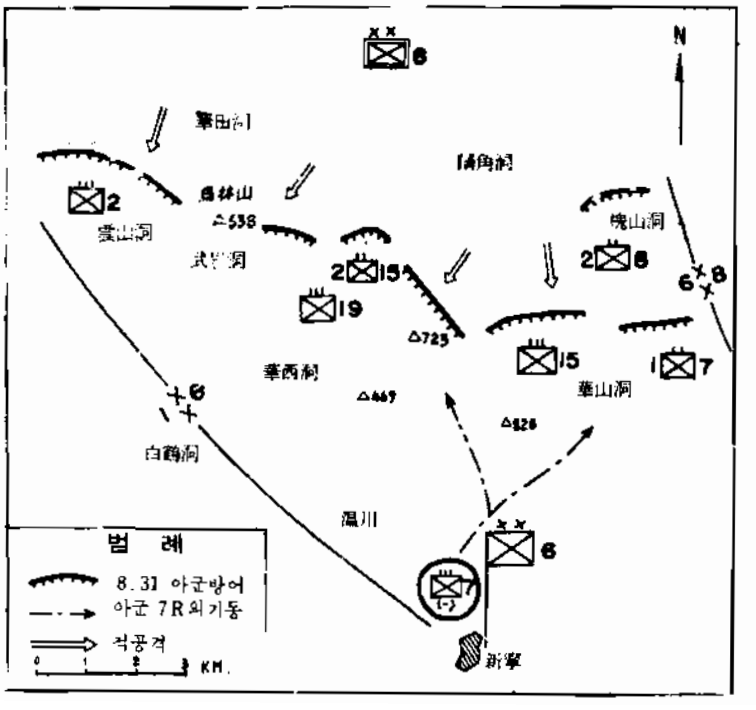
한편 제2연대(成翰濟대령)는 제3대대가 370高地에서 04.00에 침입해 온 적을 격전 끝에 격퇴하고 있었으며 우측의 제1대대는 花田洞 南쪽으로 이동한 다음 제2대대와 더불어 鳥林山 부근에서 공격을 감행해 온 적을 맞아 21.00까지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2연대 右측의 제19연대는 제3대대가 馬林山 부근 경사면에서 月田 부근의 東南쪽 경사면에 배치된 제1사단 제15연대 제2대대와 더불어 방어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는 汝德洞에, 그리고 제2대대는 723高地 일대를 각각 점령한 다음 麟角洞 쪽에서 공격해 온 적 1개 대대 병력과 쉴새없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 新寧지구로 이동하고 있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觀峰(△530)에, 그리고 제3대대는 姬峙山(△558)일대에 집결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7사단 제8연대 제2대대는 鵲山洞 부근 고지 일대에서 華山 부근으로 침입을 기도하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16포병대대(金聖 소령)는 105mm M-2포 3개 포대(18문)로서 각 연대 전역을 지접지원(直接支援)하고 있었다.

8월 31일 : 제2연대는 30일의 방어선에서 적의 남침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제19연대 제1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는 馬林山을 탈환하기로 결정한 선과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33.00 현재 8부 능선까지 진출하다가 전진이 부진하기에 이르러 다시 원진지로 되돌아 왔다. 제15연대 (1개대대 결) 및 제8연대 제2대대 정면은 낮에는 비교적 평온하였으나 밤에 이르러는 적이 야음을 이용하여 華山으로의 침투를 피하려는 징조가 농후(濃厚)하게 보

삼황도 제24호 新寧부근 전투(50.8.31)



였다.

9월 1일 : 제2연대는 적의 압력이 右측 제19연대 정면인 鳥林山에 가중해지므로 연대지휘소를 東池洞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예하 각 대대는 31일에 이어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적을 맞아 칠 준비에 분주하였다.

제19연대 제3대대는 이날 02.00부터 적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여 그 방어진지가 동요하기에 이르렀으므로 04.00에 鳥林山 南쪽으로 일단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0.00에 이르러 제7연대의 제1중대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다시 반격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병력의 부족등의 탓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시 반격의 기회만을 노리게 되었다. 이 당시 汝德洞의 제1대대는 鳥林山 부근의 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지를 南쪽으로 약간 이동한 다음 부대를 재수습 하면서 영기(英氣)를 배양하고 있었다.

한편 華山洞 일대에 대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침투하여 들어오는 적을 발견하자 곧 이것을 격퇴하기로 결심한 다음 여명공격(黎明攻擊)을 시작한 제7연대 제1대대(金龍培 중령)와 제15연대 제1대대(劉載成 소령) 및 제3대대(崔錫淵 소령)는 이날 14.00에 이르기까지 격전을 계속한 끝에 華山洞 일대의 적을 격퇴하고 말았는데 이때 제15연대 제1 및 제3대대는 637高地 北쪽까지 적을 추격하여 이를 무찌르고야 말았다.

이 華山洞 싸움으로 말미암아 일시나마 침체되었던 아군의 사기(士氣)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9월 2일 : 제15연대 제1대대 및 제3대대는 華山洞선을 확보하고 있었고 제19연대 제3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는 합동하여 鳥林山 南쪽으로 반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제7연대 제1대대는 접적이 없는 가운데 고지에서 진지를 보강 중이었다.

9월 3일 : 제2연대 제3대대는 지금까지의 방어진지였던 370高地를 제1사단 제12연대에 인계하고 조조(早朝) 武岩洞 西쪽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북괴 제8사단은 華山, 鳥林山지구의 아군 제19연대 정면에 전차 12대를 선두로 대병력을 투입하여 전면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아군은 이 적의 진격에도 불구하고 동요하는 바 없이 적을 진지 앞까지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충격력(衝擊力)은 예상외로 강하여 제2연대의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右측방에 대한 적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제19연대와 동일선으로 전선을 정리하였으니 곧, 제1대대는 武岩洞 西北쪽 일대에, 그리고 제2대대는 武岩洞 일대를 점령하여 鳥

林山 부근에서의 적의 측방(側方) 위협 행동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제19연대 제3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는 새로 증원된 정예(精銳)한 제7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鳥林山에서 남하하고 있던 적을 맞이하여 분전 난투를 거듭한 결과 11.00까지에 대부분의 적병을 섬멸하고 이어서 鳥林山을 향해 추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미 날이 저물기 때문에 그 이상 전진하기를 단념하고 원위치로 되돌아와 진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汝德洞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제19연대의 제18대대는 도로를 따라 華山 부근으로 남진하는 적 전차 6대를 발견하는 즉시로 포격을 집중하였으나 적의 전차는 華水洞으로 재빨리 삼십육계(三十六計)를 치게 되었으므로 보병에게 쫓기는 전차의 모양이 가관(可觀)이었다. 또한 제6사단의 右측 지구를 점령중인 제15연대는 제7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다음 連亭洞으로 이동하여 차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적이 전전선(全戰線)에서 공세로 나오자 美 제5공군 예하의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여 대폭격을 가함으로써 적 지상부대에 많은 출혈(出血)을 내게 하였고 전차 3대와 야포 3문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적의 주간 진격상태가 매우 부진하게 된 까닭은 주간에 있어서 우군의 항공 활동의 위력이 컸고 이에 호응하여 아군이 지상에서 쉴새 없이 그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는데 서로 앞을 다투었던 까닭이라 하겠다.

9월 4일 : 제6사단 전면의 적은 아군의 반격과 공중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진출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의 상황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으므로 아군은 진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닥쳐 올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의 특기할 사항으로는 제19연대의 제1대대가 華水洞 깊숙히 숨겨 놓은 적의 전차 8대를 발견한 결과 곧 특공대로서 이를 모두 파괴하는 대전과를 올렸는데 그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戰車파괴 특공대의 활동 : 제6사단 사령부에서는 적의 전차가 전선에 나타나자 특공대로 하여금 기습공격으로 이를 파괴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 임무는 제19연대에 부여되었으므로 연대장은 곧 전차 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던 제1대대장 許容尤 소령에게 특공대의 편성을 명령하게 되었다.

許소령은 대대 장교 중에서 특공대장을 지원할 사람이 누구냐고 알아본 즉 제1중대 제3소대장인 卞圭暎 소위가 서슴치 않고 가장 먼저 자진 지원하였으므로 그를 즉시 특공대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卞소위는 사병 중에서 지원자 5명을 선발하여 3.5인치 로케트포 1문과 각자 수류탄 2발 그리고 폭약 2발과 소총으로 장비케 한 다음, 필요한 공격



<新寧지구에서 아 특공대에 의하여 파괴된 적 전차의 모습>

에 대한 주의사항을 시달한 연후에 3일 22.00를 기하여 진지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汝德洞에서 도로를 따라 북상(北上)하였다.

이 부대는 4일 03.00까지에 3km를 은밀히 전진하여 집실 부락의 도로 교차점 직속히 배복하여 적의 출현을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전차 8대가 요란한 캐터필러를 내면서 교량을 건너 남하하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되었다. 대장 卞소위는 전차가 교량을 모두 통과한 다음 선두에서 달리는 제1번 전차에 대해 사격을 준비하였으며 15m 전방에 닥아 왔을 때 로케트 포탄을 전차 궤도(軌道)측면을 향해 일시에 발사케 하였다. 이 화력(火力)으로 말미암아 제1번 전차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자 卞소위는 곧 로케트포 사수조에게 후미(後尾) 전차를 사격케 하고 자신은 2번 전차에 뛰어 올라가 수류탄 핀을 뽑은 다음 햇치(Hatch)안에 집어던지니 그 전차는 폭음도 요란하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욱 사기(士氣)가 높아진 대원들은 로켓트포 사격을 계속 집중하여 2대의 전차를 또 다시 파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가장 후미였었던 전차는 목표도 분간하지 못한 채로 기관총탄을 난사하면서 후방으로 물러나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교량입구에서 스스로 전복되고 말았다. 이 모양을 본 卞소위는 즉시 달려 가서 차내에서 나오다 압사한 적병의 군복을 찢어 가지고 휘발유를 묻혀 전차 안에 불을 질렀으니 그 침용(沈勇)한 모습은 마치 신인(神人)이 천주(天誅)를 가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이어서 다음 전차에 또다시 뛰어 올라 "이놈들

아 이제는 너희가 마지막이다. 손들고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니 전차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적병들은 기관총 사격을 멈추면서 "나가면 살려 주겠소?"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말에 미소 짓게 된 下소위는 "암 살려주고 말고"라고 태연히 대답을 하니 비로소 차안에서 북괴군 소위 이하 4명이 두손을 번쩍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용감 무쌍한 下소위 이하 특공대의 기습 공격을 받은 적의 1번과 2번 전차가 연소하게 되자 중간에 있던 전차의 적병들은 모두 차내에서 뛰어나와 뿔뿔같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우리 특공대원들은 추격단으로서 전차의 내부를 모조리 파괴 또는 불을 질러 8대의 전차를 모두 전파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으니 일기당천(一騎當千) 이란 말은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삽시간에 적중(敵陣)의 기를 반격(潰滅)하게 된 특공대원들은 포로 5명을 앞세우고 본대로 돌아 오게 되니 대대장 이하 모든 장병들이 자기 일신이 기뻐마지 아니 하였고 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즉시로 下소위에 대한 1계급 특진을 상신함과 동시에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여 그 전공을 치하하였다. 뒤에 下소위는 상신대로 중위로 특진 되었으며 金貴乙支 훈장을 수여받았고 나머지 대원들도 모두 1계급 특진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註 1)

또 이날 제6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8연대의 제2대대는 군단작명 제30호(작명부록 제56호 참조)에 의거하여 新寧으로 이동한 다음 원대로 복귀하게되었다.

한편 제7연대의 예비로 있던 제2대대도 제15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華山洞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으나 제15연대의 주력이 인계인수 전에 먼저 철수하고 다만 1개중대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일부 진지만을 인수하게 되었다. 제7연대의 제2대대는 제15연대가 떠났긴 730高地 일대의 적 진지에 대하여 다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2.00에는 이를 완전히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대대는 곧 진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新興洞 일대의 적 진지에 대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날 오후 포병대의 지원화력이 집중발휘한 다음 위 대대는 20.00를 기하여 야간공격을 결행한 결과 적의 커다란 저항없이 예정된 목표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때 적의 유기(遺棄)시체가 300구 이상에 달하였으며 노획한 무기만도 3개 트럭에 이르렀는데 싸움터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어머니"소리를 연발(連發)하다가 죽어가는 중상을 입은 소년병(少年兵)들의 모습이 가련하였다.

<註 1> 國防 111호(국방부 정훈국 1962년刊)및 설문 응답문 참고

(2) 華山부근의 전투 (9월 5일~9월 15일)

아군 제6사단의 右측 인접부대인 제8사단의 방어선을 4일에 버리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북괴 제15사단이 永川에 침공하게 되자 아군 제2군단장은 군단 작명 제31호(작명부록 제62호 참조)로써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인접사단과 같은 방어정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5일 24.00 안으로 新녕선으로 이동케 하는 동시에 제6사단에 배속된 제15연대를 원대인 제1사단에 복귀토록 조치(措置)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5일 육군작명 제166호(작명부록 제58호 참조)를 하달하여 제1군단에 예속되었던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그 예속을 변경하는 한편 제8사단과 首都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제1군단 : 首都사단, 제3사단

제2군단 : 제1사단, 제6사단, 제8사단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대로서 각사단을 증원.

9월 6일 : 제1사단의 右측에 진지를 점령한 제6사단은 사단지휘소를 桂浦洞에 두고 右로부터 제7연대, 제2연대를 배치하였고 제19연대는 군단작명 제31호로써 군단 예비대가 되어 永川지구의 아군 제8사단을 증원할 임무를 띠고 谷上洞을 향하여 이동 중이었다.

이날의 대대별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2연대 제3대대는 華西洞 南쪽 고지대를, 그리고 제1대대는 469高地 일대를 각각 점령하고 제2대대는 예비대로서 제3, 제1대대의 후방 3km지점에 배치되었다. 제2연대 右측에는 제7연대의 제3대대가 723高地에, 그리고 제2대대는 중간 지구를 점령하는 대대로서 華山洞 뒤 730高地능선에, 또 제1대대는 646高地를 각각 점령중이었다. 그리고 사단의 東측방 637高地에는 사단 보충대의 증강된 1개중대가 인접 제8사단 예하의 제21연대와 제2대대와 서로 긴밀한 연결을 짓고 있었다.

이날 북괴 제15사단이 永川을 점령하게 되자 북괴 제8사단도 아군 제6사단 정면에 주력을 투입하여 新녕선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게 되었다. 이에 아군은 계속되는 적의 남진을 막아내기 위하여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가면서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군단장 劉載興 준장은 군단의 방어선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연대는 되도록 많은 예비대를 보유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이는 방어위력(防禦威力)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연대에서는 온전한 1개 대대를 예비로써 확보하게 되었으니 병전(兵戰)의 요체(要諦)를 몸소 지니고 있던 군단장의 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9월 7일 : 제2연대 정면에 있는 烏林[!]에서 남하한 적은 약 2개 대대병력과 玉山洞에서

침입한 약 1개대대 병력이 서로 합세하여 04.00를 기하여 일제 공격을 가하여 왔는데 아군은 적에 대하여 포병의 화력지원과 자체의 각종 화기의 집중화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여 이 적의 무리들을 진전에서 섬멸시키는데 커다란 공(功)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는 탄력성 있는 방어작전의 지도방침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다.

이 당시 제7연대의 방어진지도 06.00부터 적의 2개 대대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피아간에 전개되었는데 아군 제3, 제2대대는 모두 진지를 약간 뒤로 이동한 다음 24.00가지 전화력을 집중 발휘함으로써 적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날 美공군 전폭기의 근접지원 사격과 포병의 지원 화력 그리고 각 대대의 박격포 사격으로 말미암아 적의 인해공격(人海攻擊)을 여지없이 처부시게 된 것이니 적의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의 출혈량은 더욱 많아져간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당연한 결이 아닐 수 없었다.

9월 8일 : 제7연대 제3대대와 제2대대는 7일에 이어 전방의 적을 공격하면서 계속적으로 진출하여 17.50에 원 진지인 723高地와 右측의 제2대대 진지를 다시 탈환하고야 말았다. 이 723高地 부근 작전에서 제7연대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적을 섬멸하여 너무도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 섬멸적인 타격을 받게 된 적은 이 날부터 이후로는 감히 제7연대 정면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채로 움추리고만 있었던 모양이니 뒤에서 독전(督戰)을 받고있는 그들로서 필시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지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북괴 제8사단장(소장 [illegible])은 新寧지구에서의 돌파기도가 단 한치의 전진마저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하 병력이 큰 타격을 받고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남아 있는 병력만으로 현 전선을 겨우 유지하는데만 급급하게 되어 작전에는 이미 파탄이 가속하였던 것을 정보망으로서 탐지한 수 있었다. 또한 북괴 제8사단의 전투 능력의 상실은 북괴 제2군단장이 기도 하였던 북괴 제15사단의 [illegible]에서 [illegible]방면으로의 돌파 작전과 병행하여 북괴 제8사단 및 제1사단의 [illegible] 방면에 대한 최후 공격에 암영(暗影)을 던져 주게 된 것이었으리라. 이와 같이 북괴군의 최전방부대의 형세가 대우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군 총사령부에서는 아직도 9월 11일 까지로 大邱를 점령하라고 엄명단을 내리었으니 이 명령에 당황하게된 북괴 제2군단은 필연코 [illegible]에 빠져 다만 두손으로 자기 머리만을 움켜잡고 한탄하였으리라.

9월 9일 : 제2연대 제1대대는 15.00에 469高地의 전방에 있는 무명고지에서 적 1개 대대 병력과 서로 공방전을 벌린 결과 끝내 적을 격퇴한 다음 전진을 시작하였으나 20.00에 이르러 적 2개 대대 병력의 발악적인 반격을 받은 나머지 다시 469高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때에 左측의 제3대대는 그의 일부 병력으로써 때 마침 깊은 안개 속에 내리고 있던 우중(雨中)을 이용하여 기도를 비익하면서 적 진지를 불시에 기습공격하는데 성공하여 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으며 비에 흠뻑 젖은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진중(陣中)으로 돌아오니 환호소리가 끊일줄 몰랐다.

제7연대 제3대대는 723高地에 야간 침투로 접근하여 온 적 2개 중대 병력을 반대로 포위공격하여 23.00에는 이를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섬멸하였으니 이 당시의 아군의 전세(戰勢)야 말로 가위(可謂) 전필승(戰必勝)이오, 공필취(攻必取)라고 할만하였다. .

9월 10일 : 제2연대 제1대대는 10일에 적이 점령하게 된 469高地 北쪽에 있는 무명고지를 다시 공격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또 이 연대의 제3대대는 이날에 적 1개대대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나 2시간 동안에 걸친 격전 끝에 마침내 이를 완전히 격퇴하고 말았는데 적은 시체를 내버린 채 황망히 퇴각하는데 바빴다.

한편 예비대로 있던 제2대대도 전방에 배치한 제1, 제3 양 대대의 중간지역으로 진출한 다음 진지를 확보하였으며 방어준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18.00에 이르러 2개 대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적으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받게 된 탓으로 약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끝에 이를 또한 격퇴하고 말았으니 적은 다만 죽엄의 언덕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걸어오는 결과를 되풀이한 셈이 되었다. 또 이때에 東측의 제7연대는 이날 새벽에 646高地 南쪽에 공격을 시작하여 하루종일 싸운 결과 17.00에 이르러 이 고지의 頂上을 확보하여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아군 제6사단 전면의 적은 주간에는 美 전폭기의 대거 출격으로 큰 손실을 보는 까닭에 매양 그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결국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므로 숨어 있던 포진지에서 간간히 포격만을 하므로써 아직도 우리들이 모조리 죽지 않았노라고 시위하는듯이 보였다. 그리하여 24.00에는 723高地의 제7연대 제3대대는 이 적의 포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어 수 10명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쪽의 진지가 완전히 지하시설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9월 11일 : 이날 새벽에 제2연대의 제1대대 정면과 제7연대 제3대대의 723高地에서는 소규모에 이른 적의 정찰대 활동이 있었을 뿐이었고 전 전선은 비교적 평온하였으니 적은


<新寧지구 전승비(慶北 永川郡 華山面 華山洞소재)>

이미 싸움에 지친 나머지 감히 스스로 등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9월 12일~14일 : 제6사단 제2연대와 제7연대 정면의 적은 12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잠잠해져 감히 공세를 취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전선은 대체로 평온하였으며 때때로 산발적인 피아간의 정찰전만 반복되는 형편일 뿐이었다. 적은 그 동안에 입은 뜻하지 않았던 큰 손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투력은 상실되고 사기는 저하되어 처음에 기도하여 보려던 그들의 야욕을 달성할 길이 막혀 버렸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9월 15일 : 이날도 제6사단 정면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7연대 제1대대가 야간 기습전으로써 華山洞 北쪽의 적진에 돌입한 다음 닥치는 대로 적진(敵陣)안을 휩쓸어 버림으로써 큰 혼란을 이르키게 하는 동시에 포병대대서 미리 세밀히 조준하여 두었던 사격 제원으로 鳥林山 부근에 집결중인 적을 향하여 집중적인 기습포격을 가하므로써 적진 상하를 일시에 뒤 흔들어 놓고 분산 패주시키는 공을 세웠다.

이날 仁川 상륙작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장병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하는 듯하였으며 "우리가 어찌 여기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겠는가? 때는 왔다."라고 시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먼저 공세이전(攻勢移轉)의 앞장을 서리라고 두팔을 걷어 올리는 것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8월 말부터 북괴 제8사단은 인접 북괴 제13사단 및 제15사단과 서로 호응하면서 新寧 지구를 돌파한 다음 大邱 방면에 진출하여 보려고 최후의 총공세를 다짐하였던 것인데 이 적을 맞이한 아군 제6사단은 장병 모두가 一心同體가 되어 大邱 외곽선을 끝내 死守하는데 성공하여 적의 야욕을 드디어 분쇄하고 말았다.

9월 15일부터 반격에 들어간 아군은 洛東江 선의 모든 전선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던 적에 일대

타격을 가하면서 일로 북진반격을 재촉하였다. 원래 제6사단의 新寧지구 싸움은 大邱를 우회 공격하려는 북괴 제8사단에게 이미 말한대로 심대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 전투 능력을 빼앗고 그 사기(士氣)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말았다. 이지구에서의 전투에서 특히 卞소위가 지휘하는 특공대가 적 전차 8대를 단숨에 파괴하여버린 무공은 전차를 앞세우고 아군진지를 돌파하려든 적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고 말았으며 이와 아울러 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한 바가 많았고, 그밖의 모든 우리의 장병들도 공격만이 결국 적을 격멸하는 유일의 길이라는 신념(信念)을 가지게 되어 비록 방어진지 안에서 지키고 있다가도 기회만 얻게되면 곧 서슴치 않고 기습적 출격을 감행하고 한번 적의 손에 넘겨주었던 고지를 되찾아 내는 등 그 공격정신이야 말로 능히 말로서나 붓으로 표현할 수 없을만치 훌륭한 것이였다.

§ 교 훈

◇ 北傀 전법(戰法)의 비인도성

적은 아군 진지에 정면공격을 가함에 있어 야간에 파상공세(波狀攻勢)로 이른바 인해전법(人海戰法)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본다.

적의 대부분의 병력은 침략지구에서 강제동원한 이른바 의용군들이어서 훈련과 사기면에서 오합지졸(烏合之卒)이나 다름 없었으나, 뒤에 독전대(督戰隊)가 총열을 드러대면서 공격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지만 하는 수 없이 악착같이 싸우는 것이었다.

적은 인적 손실은 개의치 않고 병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으니 乃林洞 고개에서 아군이 매설한 대전차 지뢰에 의하여 적의 전차 1대가 파괴되자 그 후부터는 보병을 앞세워 지뢰제거 작업부터 먼저하게 되어 병사의 희생을 많이내게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적은 또 방어에 있어서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를 함께 묶어 놓고 진지를 사수케하면서 뒤에서 독전대가 감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특공대 활용의 필요성

야간전투에서 특공대를 선용(善用)하면 대부대의 공격효과보다도 오히려 좋은 전과를 올려 적의 작전기도를 와해시킬수 있다. 9월 4일 제19연대 제1대대는 卞圭暎 소위 이하 5명의 특공대를 운용하였는데 이 특공대는 소수의 병력으로써 적 전차 8대를 파괴하여 전차를 선두로 아군의 방어진을 돌파하려는 적의 작전기도를 완전히 와해시켜 놓았다.

◇ 공지(空地) 연락의 긴밀성

기간중에 美 공군기의 출격은 우리(上空)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출격하여서도 때때로 우군진지에 대하여 오폭(誤爆)을 가하게 되어 포진지와 차량 그리고 일선의 아군 진지 등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다. 이것은 적 진지에 대한 계획된 폭격이 아니라 조종사가 비행중에 우군 진지를 적 진지로 오인하고 임의로 폭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공중정찰활동의 부진도 또한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종사들이 폭격금지선을 확인함에 있어 피아 진지가 서로 비슷비슷한 산악 능선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인하는 공산(公算)이 더욱 많았을 것이며, 이와 함께 항공기와 지상군과의 긴밀한 연락방법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문제를 안겨 주는 것이다.

◇ 포병의 화력지원 요청의 적절성

각 단위부대장이 포병의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시기는 적정이 분명할 때 그리고 포병 화력의 효과가 극히 유효 적절할 때에 한하여 할것이다.

제6사단에서는 제16포병대대가 각 연대에 1개 포대씩을 배속하여 지원에 전념(專念)케하고 있었는데 어느 연대는 야간에 적정도 없는데 포지원만을 거듭 요구하여 포탄의 낭비(浪費)를 가져와 막상 적이 공격을 가해 올 때에는 포탄의 부족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예가 있었다는 것이다.

포병대대에서는 1일 탄약 소모량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또한 탄약 수송차량도 부족하고 있던 실정이니 포병화력의 지원요청이 적시 적절해야 될 것이라는 일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 야간과 우천(雨天)의 효용성

야간과 우천시에는 기도비익이 잘 되어 공격이나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북괴군이 주로 야간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해서 야간방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우천시를 이용하여 자주 공격을 감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卞소위가 지휘하는 특공대도 야간을 이용하여 기습공격하였기 때문에 적의 전차 8대를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제2연대의 제2대대는 469高地 접형시 우중을 이용하여 공격기도를 비익하면서 적진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 참전자의 증언

제6사단장 金鍾五 대령

(65년 3월 4일, 合參의장실, 예·대장 (故)

新寧 싸움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협조가 컸으니 탄약보급도 그들이 담당하여 주었는데 이 민간인들의 활동으로 용공분자(容共分子)들에 의한 피해는 없게 되었다. 또 여기서는 항공지원이 좋아 낮에는 자고 밤에 전투를 하였는데 이때 3.5인치 로케트포나 대전차 지뢰가 새로 지급되었으며 보충병도 있고 하여 전투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전투간에 우군기의 오폭(誤爆)을 여러번 받았는데 우군 진지를 적군 진지로 오인하여 때렸기 때문이었다. 나도 전선에서 기총소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곳에 와서는 완전히 인접부대가 있어서 연결이 잘 되어 원칙 대로의 방어전을 지휘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韓國軍에는 아직 전차가 없었던 것이 퍽 유감스러웠다.

新寧 지구에서는 적 전차 8대를 파괴한 卞圭陝소위와 대대장 金鍾洙중령(7연대 1대대)과 金龍培중령(19연대 1대대장), 그리고 2연대 대대장 李雲山소령이 특히 전투를 잘하였다. 洛東江선에서는 지뢰전(地雷戰)에 대한 서로간의 협조가 잘 안되어 우군이 많은 살상(殺傷)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뢰사고가 많이 나게됨으로 도로상에는 아예 지뢰를 매설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뢰를 묻은 채로 표지마저 잘하지 않은 탓으로 제5연대장 李陝金중령의 전몰(戰歿)까지 보게 된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었다.

제6사단 7연대장 林寯澤 대령

(61년 10월 30일, 大韓醫師會 회의실, 예·소장)

적은 인해전술과 파상(波狀)전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중공군의 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만전술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들은 항공력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은밀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불을 켜고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그 차량들이 병력을 나르는지 보급품을 나르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우리 7연대가 용감히 잘 싸운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첫째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

관이 초등군사반이나 고등군사반을 모두 나왔기 때문에 싸움에 대한 원리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연대장은 힘들지 않고 지휘를 할 수 있었다. 전선에서 부상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하던지 이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일례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연대만은 자동차로 기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와 같이 도보로 이동하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 신속한 기동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제7연대 2대대장 金鍾洙 중령

(64년 10월 30일, 大韓醱酵會社 회의실·현·소장)

新寧 지구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하였으니 新寧 北쪽의 華山에 723高地가 있는데 이 부근에 제19연대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우리 부대와 교대하게 되어 처음 1개 대대가 있는 줄 알고 가보니 1개 중대 밖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간에 723高地에 대한 탈환전을 감행하였으나 잘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중대장들을 모아 놓고 지도를 펴놓은 다음 상황 설명을 하였는데 적의 포탄 일발이 바로 지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이것이 불발탄이었으므로 생명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이로 인하여 도리어 중대장들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더욱 올라가게 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공격을 재차 감행하여 1개 중대가 뒤로 우회 공격으로써 723高地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적의 시체가 많은지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노획무기가 서너 트럭분이나 되었고 그 밖의 것은 일일히 헤아릴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진지를 더욱 굳게 지키다가 총반격으로 북진을 시작하였다.

제6사단 2연대 학도병 鄭秉燦

(66년 2월 10일, 정훈학교, 66년. 현·소령)

大邱에서 내가 2연대 차량을 빌려가지고 학도병 모집에 나섰던 일이있는데 „책어서 살면 무엇하나 전선으로 나가자"라는 스로건을 내걸었드니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약 100명의 학생이 자진하여 지원 입대하게 되었다. 제6사단 2연대는 그후 新寧고개에 왔는데 우리는 3대대 10중대(김소동대위)에 편입되어 모든 화기의 취급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당시 적은 新寧역에까지 전차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M1과 HG를 들고 10명이 1개조가 되어 전차를 잡으로 갔었다. 20m전방 뒷산에 북괴군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어스름할 때 적의 전차위에 올라탔는데 전차의 포신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는 초가집에 쌓여 있던 짚단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얼마동안 정신을 못차리고 있던중 밤이슬에 깨어가지고 중대에 복귀하였는데 그후 나는 임시로 학도병 소대장격으로 있었다.

新寧 高地에 터널이 있는데 그 부근에 연대본부가 있었다. 우리 소대의 제2, 제3분대에 간격이 생겨 이를 메꾸려고 갔는데 어두워서 전방마저도 잘 보이지 않았다. 당시 암호가 「英國」「韓國」이었는데 인기척이 나므로 내가 「英國」하니까 그쪽에서 „손들엇!"하여 분명히 적이었던 것이다. 이때 고참병의 경험담이 문득 생각나서 M1멜빵을 쥐고 한바퀴 덩구니 터널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 아침에 겨우 정신을 차려 중대를 찾아 갔었다. 이 전날 밤에 학도병들과 적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 싸움자리에는 북괴군의 시체가 수 없이 산재하여 있었다. 우리들은 경험없이 싸움터에 나서서 싸우는 일방으로 스스로 경험을 얻게 된 것이며, 그뒤에 총반격으로

이전(移轉)함에 따라 비로소 군번(軍番)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당당한 (?)군인 노릇을 하게된 것을 회고(回顧)하면 마치 일장의 주마등(走馬燈)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제6사단 제16포병 대대장 金 聖 소령

(67년 9월 29일, 仁川東洋化學社, 예·준장)

新寧 지구에서 제6사단의 제2, 제7, 제19의 세 연대가 진지를 점령한 다음 적의 남침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우리 포병대대는 A포대가 제19연대, B포대가 제7연대에 그리고 C포대는 제2연대를 각각 작전지원하고 있었다. 포지원에 있어서 어느 연대는 적전도 별로 없는데 다만 포만 쏘아 달라고 요청해서 다음 날 포탄의 제한을 받은 일이 있었다. 포병대대 차량만 가지고는 포탄을 전방에 운반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제7연대의 전우 포탄이 나오는 시간을 알아 가지고 차량 서너대를 끌고 와서 포탄을 직접 받고 간 다음 포병 운용을 잘하게 되었다.

鳥林山 고개에서 공병들이 많은 전과를 올렸으니 鳥林山 옆길에 적의 전차가 온다하여 대전차지뢰를 미리 매설하여 놓았다가 전차 한대를 노획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다음부터 적은 보병이 앞장서서 대전차지뢰를 제거하고 있었으므로 대인지뢰도 아울러 매설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하여 新寧지구에서 모두 6~7대의 적 전차를 노획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 만일 우리의 전차병만 있었드라면 적의 노획전차를 우리가 곧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니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하루는 적의 전차를 목표로 삼아서 대전차 공격실험을 하여 보았는데 전차 앞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측면으로부터 때리니까 이를 능히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지로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3. 永川附近戰鬪 (50년 9월 5일부터 50년 9월 1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6, 62, 70호
작명부록 제56, 62, 70호

가. 참전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 군

제2군단	장	준장	劉載興
제8사단	장	준장	李成佳
제10연대	장	중령	高根弘
제16연대	장	중령	兪義濟
제21연대	장	대령	金容培
제7사단	장	대령	申尙澈
제3연대			
제1대대장		소령	鄭 渡
제5연대	장	대령	崔昌彦
제8연대	장	중령	朴昇日

배속부대

제1사단			
제11연대장		대령	金東斌
제6사단			
제19연대장		대령	金益烈
제26연대			
제3대대장		대위	申健善
수도사단 제18연대			
제2대대장		소령	鄭昇和
공군정찰			
비행부대장		대위	吳占石

적 군

제2군단	장	중장	金武亭
제15사단	장	소장	朴成哲
		소장	趙光燁
		(9월5일 경 교체)	
제45연대	장	중좌	李鐵英
제50연대	장	중좌	金致九
제56연대	장		미 상
포병연대	장	대좌	李連燮

배속부대

제73독립연대장		중좌	李周容
제103연대	장	대좌	李鍾萬

나. 전투 전의 개황

전력이 재건한 적 제2군단은 9월 1일 미명에 각 전선에서 최후 발악적인 공세를 취하여 아군 제1군단 방어선의 首都사단 정면으로 집공하였다.

아군 제8사단은 善賢山과 立岩里선에서 9월 2일까지 적을 저지 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9월 4일에는 臥龍山(△961) 左右능선의 새로운 진지로 이동,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적 제2군단은 永川을 점령한 다음 慶州 또는 大邱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적 제3군단장은 8개의 공격집단 가운데 중앙의 제8사단과 제15사단의 전진을 집도하여 左右에는 사단이 大邱 또는 慶州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永川을 점령한 다음 결정하려고 한 것으로 믿어진다.

永川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로서 大邱에서 34km, 浦項에서 40km, 慶州에서 28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25,000명을 가진 교통 중심도시로서 중앙선, 大邱선,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등 철도의 분기점(分岐點)이다. 도로는 永川을 중심으로 大邱, 慶州, 浦項, 安東, 青松에 뻗어 있다.

적이 永川을 점령할 경우 大邱와 慶州 방면으로 융통성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아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을 분리시키고 아군 유일의 동서 보급로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적이 아군 제2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大邱 방면에 있는 美 제1기병사단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만일 적이 慶州 방면으로 진출하여 제12사단과 제15사단이 합세하여 釜山 방면으로 진출한다면 아군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므로 永川은 전략적 요충지 (戰略的 要衝地)로써 韓國軍 수뇌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永川정면의 아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은 9월 4일 18km의 방어정면을 2개 연대와 배속된 1개 대대로써 적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4일 17.00 현재 제8사단은 騎龍山(△961) 左右능선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후퇴하여 오른쪽에서 제7사단 제5연대, 중앙에 제16연대 제1육군대대 (이하 제3연대 1대대 라 칭함), 왼쪽에 제21연대 순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제21연대는 지휘소를 仙川洞으로 이동한 연후에 주력을 藥水湯(仙川洞 북쪽 3km지점)에서 오른쪽 230高地 일대에 배치하고, 중앙 제16연대(前義潛중령) 연대본부를 陽項洞에 두고 平泉洞에서 부대를 집결한 다음 聖谷洞선에 배치하였다. 제3연대 제1대대는 병력400명으로 聖谷洞을 거쳐 제16연대와 제21연대 사이의 280高地 정측에 배치하였다.

제8사단의 오른쪽에는 崔日彦 대령이 지휘하는 제7사단 제5연대가 3일 오후에 이동하여 지휘소를 月川洞에 두고 372高地에서 489高地 사이의 능선에 배치하고 적 제15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별책부도 제36호 참조)

아군 제8사단의 左측에는 제6사단이 右측에는 首都사단 제18연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騎龍山(△810)에 배치하고 있던 제18연대가 9월 5일 적 제12사단의 공격을 받고 北溪 방면으로 철수하자 14km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제8사단에 배속된 제50포병대대는 3개 포대를 가지고 각 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제1군단사령부는 慶州에, 제2군단사령부는 浦項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으며 9월 5일 제8사단은 제2군단에 편입되어 사령부를 永川 읍내에 두고 작전을 지휘하였다.

한편 제8사단이 騎龍山에서 철수하자 육군본부에서는 제2군단에 배속된 제7사단 제8연대(1개대대결)를 新寧에서 永川으로 이동시켜 제8사단의 예비대로 확보케 하고 제8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은 제6사단 제7연대가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작명부록 55, 56호 참조) 또한 9월 5일에는 제7사단 공병대대 병력 200명을 추가로 永川에 투입하였다. 제8사단 예하 제10연대는 8월 30일부로 제1사단에서 배속을 해제하여 원대 복귀하였으나 즉시 동해안의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해안으로 전출(轉出)하여 제3사단에 배속하였다.(작명부록 제37호 참조) 육군본부에서 이와같이 전제 연대를 타 사단에 배속한 것은 개전이래 제10연대의 전투력이 높이 평가되어 소위 핀치 히터(pinch hitter)의 소임을 맡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 전투경과 개요

(1) 永川 北쪽의 방어전(9월 5일)

9월 4일 : 적 제2군단장으로부터 "제12사단은 安康선을 돌파하고 慶州를 점령하였는데 차동무의 사단은 무엇 때문에 永川을 점령하지 못하는가?"라는 노기에 찬 힐책을 받은 제15사단장은 각종포 166문이 지원하는 가운데 전차 5대를 선두로 永川 정면을 돌파하려고 결심한 다음 예하 연대장에게 금일 중으로 永川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월 5일 : 이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주력은 立岩과 永川 사이의 도로를 따라 01.00에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가해 왔다. 중앙에 배치된 아군 제16연대는 736高地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침공하는 적의 압력을 받아 大邊—平泉선으로 철수하였으며 左인접인 제3연대 제1대대도 역시 측면의 노출로 부득이 4km 후방인 大邊洞—平泉洞선으로 남하하게 되었다.

사단의 좌1선인 제21연대는 02.00에 右측에 있던 제3연대 제1대대의 철수로 전선을 약간 후퇴시켜 적 약 2개 대대의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었다. 03.00에 적 1개 중대 병력이 또 다시 右측의 공간지대로 침투하여 절골 뒷 능선인 218高地를 점령하고 제21연의 후방을 위협하므로 연대장 金容培 대령은 연대 예비대로 있던 제2대대를 여기에 투입하여 06.00에 이 고지를 탈환하고 적과 계속 치열한 전투를 감행하고 있었다.

적이 사단방어선의 중앙을 돌파하였으므로 右1선을 점령하고 있던 제5연대는 적지에 고립하게 되었고 적의 선봉대(先鋒隊)는 平泉—大邊洞선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던 아군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목표로하여 공격을 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의 변동으로 아군 제21연대도 右측방의 노출로 부득이 仙川洞—大邊洞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한편 적은 2개 대대병력으로 돌파구(突破口)를 확장하면서 08.15에는 전차 3대를 앞세우고 陽項洞선에 진출하였다. 아군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는 적의 진출을 계속 저지하면서 丹浦洞—彦河洞선으로 물러 났다.

이날 (9월 5일) 10.30부터 제8사단의 중앙이 돌파되어 작전지휘가 곤란하게 되자 육군본부에서는 제8사단을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을 변경하는 한편 右측의 제8사단과

首都사단의 사단 전투지경선을 군단 전투지경선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별책부도제26호참조)

제5연대는 上梨洞 일대 고지로 물러나서 12.30부터 적 1개대대와 치열한 교전 끝에 적을 平泉洞선으로 격퇴시켰다. 아군 제21연대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던 적 제45연대는 제21연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발미암아 琴川洞쪽으로 퇴각하여 부대를 다시 수습한 다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1연대의 오른쪽 218高地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2연대는 3차에 걸쳐서 적의 파상(波狀)공격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포병의 화력지원을 얻어 적을 격파하였으며 대부분의 적을 섬멸한 다음 16.00에 218高地를 제1연대에 인계하고 仙川洞으로 돌아왔다.

한편 적 1개 연대병력이 新基洞 남쪽 208高地 일대에 침투하여 제21연대의 후방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므로 제21연대장은 제1중대와 제9중대로써 혼성대대를 편성한 다음 208高地로 급히 출동케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본부를 출발한 이 혼성대대는 208高地를 점령하고 있던 적을 공격하여 끝내 이 적을 격퇴한 다음 14.00에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일대고지까지 탈환함으로써 제21연대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적의 야욕을 분쇄하고 말았다.

제21연대는 전선이 우일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16.00에 仙川洞의 연대지휘소를 大川洞으로 이동하고 悟山洞 방면에서 침입을 꾀하려는 적에 대비하였다.

적 제15사단의 주력인 제50연대와 제56연대는 永川을 점령할 목적으로 大邱—永川 도로를 따라 22.00에 丹浦洞과 彦河洞을 연하는 선의 아군 제16연대와 제3연대의 제1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방어선을 뚫고 永川읍 東쪽 1km지점까지 침투하여 왔다. 이때에 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지원해서 적의 永川 진격을 저지하고자 대전차 공격대대와 제8사단에 배속된 제7사단 제8연대의 2개대대를 永川 北쪽에 증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대전차 공격대대와 제8연대는 즉시 永川 北쪽으로 출동하여 남하하는 적을 맞아 피아간에 5시간에 걸친 치열한 화력전(火力戰)과 백병전 끝에 적을 月橋洞 방면으로 격퇴 시켰다.

적 제15사단은 주력으로 이날 아군 제8사단의 중앙을 뚫고 10km나 진출하였으나 아군 제21연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한 채 계속 남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2) 永川지구 공방전 (9월 6일~9일)

(가) 제2군단장의 작전개념 (별책부도 제27호(No-1, No-2 참조)

永川지구의 전황은 9월 5일에 이르러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아군 제8사

단의 전선은 제21연대가 仙川洞 北쪽 高地에서 新基洞 東北방 208高地 및 181高地일대에 걸쳐서 적 제45연대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으며 永川 東北방 丹浦洞—琴河洞선에서는 제16연대와 제3연대의 제1대대 그리고 대전차공격대대 및 제8연대가 적의 주력부대와 대치하여 교전 중이었고, 또한 오른쪽에서는 上梨洞 高地 일대에서 제5연대가 적과 역시 교전 중이었다.

제2군단장 劉載興 준장은 9월 5일 아침에 新寧 부근에서 격전중인 제6사단의 전선을 직접 시찰하고 河陽에 있는 군단사령부에 돌아오자 작전참모로부터 급보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아군 제8사단의 방어진지가 돌파 당하였으며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군단장은 "만일에 永川 전선이 무너질 경우에 적은 大邱 또는 慶州 방면으로 일로 진격하게 될 것인즉 이렇게 된다면 전자(前者)의 경우 제2군단 뿐만아니라 美 제1기병사단의 후방까지 차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적은 제12사단과 합세하여 釜山 방면으로 직접 진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경우 永川 방어선이 붕괴되면 전전선(全戰線)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군단장의 상황판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단장 劉載興 준장은 우선 아군의 사기를 앙양시킨 다음 남진하는 적을 일단 막아 내어야 할 것이며 그 연후에 적의 후방을 차단 할 수 있는 우세한 병력과 화력으로 적을 永川 방어선에서 섬멸코자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고자 제6사단장 金鍾五 준장과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 그리고 군단참모장 李翰林 대령과 군단작전참모 李周一 대령을 모아 놓고 급히 군단작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단장은 "永川은 오늘 밤이 고비인데 전세는 불리하며 육군본부도 釜山으로 이동하였다. 이때에 만일 永川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釜山 교두보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나는 현 방어선을 한자 한치라도 결코 양보 할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 이라고 굳게 믿는다. 따라서 나의 지휘소는 앞으로 전진을 할지언정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남은 방책(方策)이란 오직 적을 막아내어 촌척(寸尺)의 땅이라도 적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뽑아 중점적으로 병력을 집중 사용할 방침이니 나의 최종결의에 동의 하여 주기 바라오."라고 하여 강력한 부대 편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군단장의 결심에 대하여 제6사단장과 제1사단장은 "담당 정면에는 병력이 모자

라서 적을 박아내기가 힘든 이 때에 1개 연대를 추출(抽出)한다는 것은 전전선(全戰線)의 위기를 자초(自招)하는 모험적인 도박이 아니겠소?"라고 군단장의 요청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또다시 강조하기를 "적의 주공이 永川 정면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 된 이 마당에 우리가 주저(躊躇)하다가는 결국 적의 술책(術策)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일 적이 永川을 점령하고 공격축선(攻擊軸線)을 大邱 방면이나 또는 慶州 방면으로 지향하는 간에 우리의 급선무는 永川을 확보해야만 제1사단과 제6사단 전선도 견제(牽制)할 수 있다는 것은 병리학상(兵理學上) 극히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 양개 사단에서 1개 연대씩의 병력을 추출한 것은 결코 도박이 아니다. 적은 이번 공세에서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을 전용(轉用)하여 중점적으로 집중 사용한다면 가필코 적을 격파 할 수 있다."라고 군단장의 결심을 다시금 피력 함으로써 사단장들도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병력 추출(抽出)에 응(應)하기로 합의(合議)를 보았다. (劉載興中將 67.10. 2. 自宅, 金鍾五大將. 65. 3. 6. 合參議長室에서 증언)

이러한 철석 (鐵石)같은 결의를 단장 실천하기 위하여 군단장은 곧 美 고문관에게 전차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비대도 없고 제8사단은 불리한 싸움으로 시기도 저하되었다. 그러니 당신들이 쓰고 있는 전차 1개 소대(5대)만이라도 지원하여 준다면 적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아군 장병들의 사기를 충천(衝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 사단에서 병력을 뽑아 그것을 통합지휘한다 하여도 나는 이전투의 승산을 50%로 본다. 그러나 만일 전차가 지원된다면 80%의 승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전차지원을 특별히 요청하여 주기 바라오."라고 말하였다.

한편 작전회의를 끝낸 군단장은 인접 美 제1기병사단 지휘소를 직접 방문하고 美 제1기병사단장 게이소장을 만나 전황을 설명한 다음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게이소장도 자기정면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전차를 지원하기란 도저히 힘든 일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군단장에게 반문(反問)하기를 "귀 군단이 더 이상 물러날 작정인가요?"

군단장은 머리를 左右로 흔들며 "이 사람은 더 이상의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만일 전차를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면 이 사람 자신이 전차를 내선하여 직접 선두에 나서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니 게이소장은 군단장의 강철같은 결의에 감동하여서인지 "전차지원 문제는 다시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함축성 있는 대답을 하였다.

군단장은 美 제1기병사단 지휘소를 떠나 美 제8군사령부에 가서 워커중장을 만나서 "현재 제2군단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차가 절대로 필요한데 만일 그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장병들은 사기백배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필승의 신념을 기대할 수 없어 永川을 끝내 막아낸다고 장담 할 수 없읍니다"라고 그의 고충을 피력하였다. 워커중장은 제2군단장의 전황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나서 "게이소장과 다시 협조해 보시오."라고 말하였다. (劉載興중장 67.10.2. 自宅에서 증언)

군단장은 그 길로 美 제8군사령부가 있던 大邱를 떠나 곧 河陽에 있는 군단사령부로 돌아왔는데 전황은 여전히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제8사단사령부로 가서 상황을 직접 알아 보기로 하였다. 군단장이 제8사단사령부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에 美 제8군사령부에서 "내일(9월 6일) 아침 美 제1기병사단에서 1개 소대의 전차를 직접지원한다는 통보를 받고 야전의자에 앉아 있던 군단장은 회심의 미소를 띄운 채 천장의 일각(一角)을 바라보았으니 그의 가슴에는 조국의 위기를 한몸으로 구하고 말리라는 신념에 불타고 있었다. 이를 위한 최선의 주략(籌略)을 이미 그리고 있었으리라. 거성(巨星)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하여 그 소신을 단행하려면 넘고 또 넘어야할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나) 전반적개황

9월 6일 : 永川 읍내에는 지난 밤 부터 적의 포탄이 여기 저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날 03.00에 적의 주력은 甘橋洞 부근에서 병력을 증원 받아 1개연대병력으로 수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永川 읍내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永川 東北방에서 격전 중이던 아군 제16연대와 제8연대 그리고 제3연대의 제1대대 및 대전차 공격대대는 琴湖江 너머로 철수하였다.

한편 제8사단의 작전참모인 權泰順 중령은 甘橋洞 부근을 지키고 있던 대전차 공격대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것을 알고 02.30에 전황을 파악하고자 찝차를 타고 甘橋洞을 향하여 떠났는데 도중에서 적의 습격을 받고 사령부로 되돌아와 사단장에게 사태의 긴박성을 보고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사단지휘소를 五樹洞으로 이동케 한 다음 사단본부중대를 永川 서남쪽 琴湖洞 제방에 배치케 하여 침공하는 적을 막으라고 명령하였으니 사단의 마지막 병력까지 모조리 동원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뒤에 잡은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시각에는 벌써 적의 주력이 永川 읍내를 통과해 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한 사단장은 즉시 각 연대장에게 명령하기를 "五樹洞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라."고 하고 동시에 작전참모에게 "洞里에 가서 군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증원부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단의 좌일선에 배치되어 있던 제21연대는 사단사령부와의 통신연락이 이미 끊어져 있었음으로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현 진지를 끝까지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의 우일선에서 전투하고 있던 제5연대도 사단사령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인접부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1연대와 사단사령부 사이에는 이날 정오경에 통신이 다시 개통되었다.

永川을 점령한 적은 이날 07.00경에 永川 읍내를 휩쓸면서 남하하였는데 그 일부는 鳳橋洞에서 琴湖江을 건너 철도선(鐵道線)을 따라 慶州 방면으로 진격을 재촉하였다.

제8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철수한 부대를 즉시 琴湖江 北岸에 배치하고 적을 측면으로부터 공격코자 결심한 다음 철수한 부대에게 반격준비를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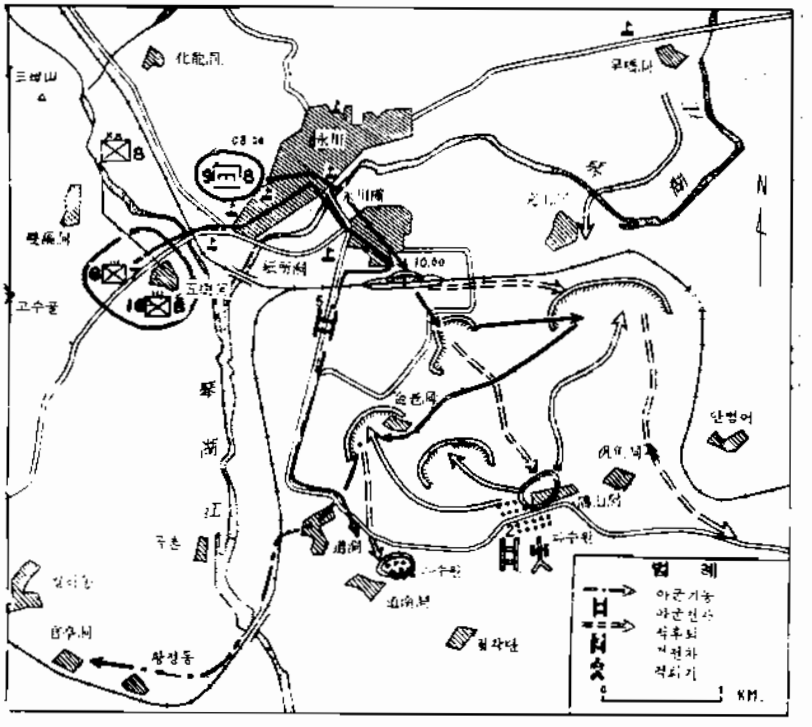
08.00에 적은 龍川洞의 155高地 일대와 金老洞高地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계속 梧浦洞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제2군단장 劉載興 준장은 永川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07.30경에 五樹洞에 있는 제8사단사령부에 도착하여 전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美軍 전차 1개소대(전차5대)와 제1사단 제12연대의 전차 엄호부대가 五樹洞에 도착하였으므로 군단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면서 永川 읍내로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이 전차소대는 적의 아무런 저항없이 永川역을 지나 道洞까지 진출하여 공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제8사단 제9공병대대는 2개중대를 일선에 배치하고 대대본부에는 1개중대의 예비대와 본부중대 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날 대대장 金 鉄 소령은 아군의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전병력을 읍내에서 철수시켜 城內洞의 낮은 고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때에 제8사단 부사단장인 張春根 대령이 부대수습차 대대본부에 들려 金소령에게 하는 말이 "현재 永川 읍내에는 소수의 적이 있으니 이를 공격하라."고 말하였다. 공병대장 金소령은 작전과장 徐정국 대위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운 다음 예비중대와 본부중대의 고참하사관을 선발하여 공격중대를 편성하는 즉시로 永川 읍내로 돌입하였는데 이때가 08.00였다.

이 공격중대는 적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사령부를 다시 탈환하였으며 계속 전진하여 永川橋를 건너 永川역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때 永川역을 경비하고 있던 적은 불시(不時)에 공병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龍川洞의 155高地를 향하여

상황도 제25호 제8사단 제9공병대대의 永川탈환전(50.9.6)



퇴각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공병대는 큰 싸움도 없이 10.00에 永川역을 점령하고 그 부근에서 40여대의 차량과 10여문의 대전차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공병대는 永川 역남쪽 130高地에서 적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곧 이 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로써 永川읍은 공병대의 힘으로 완전히 탈환하게 되었다.

한편 130高地에서 퇴각한 적은 鵲山洞에 집결한 다음 주력을 155高地와 139高地 그리고 金老洞高地 일대에 배치하고 아군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차 2대와 대전차포 및 차량등을 鵲山洞 남쪽 과수원에 은폐하여 둘 수 있었다.

공병대는 美軍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鵲山洞과 金老洞 고지를 계속 공격하여 이일대를 점령 하였으나 날이 어두어지자 鵲山洞 방면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21.00에 고지에서 내려와 官亭洞에서 부대를 정리한 다음 자체 경비를 강화하였다.

제1사단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날 18.00까지 新寧에 집결한 다음 永川으로 이동하여 교전 중인 각부대와 협동작전을 하였다(작전보록 제91, 62호)이 연대의 일부는 永川읍을 공격하였는데 시내에서 퇴각한 적은 林浦洞으로 또 일부는 道南洞의 과수원으로 퇴각하

여 집결하고 있었다.

제8사단의 우익에 있던 제5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적의 중앙돌파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자 산악지대를 타고 慶州방면의 乾川으로 철수하고 있었으므로 연대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연대장 崔昌彦 대령은 연대의 주력과 통신이 두절되자 연대본부요원과 제3대대 및 제16연대의 일부 병력을 직접 이끌고 적중(敵中)을 돌파하여 永川 읍내로 돌입하였으나 이때에는 아군이 이미 永川읍을 탈환한 뒤였으므로 연대지휘소를 永川읍西南쪽 紙所洞에 설치한 다음 부대를 向陽洞과 也史洞에 배치하여 永川읍 외곽지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9월 6일 : 이날 12.00경 제1사단 제11연대(1개대대 결)는 제8사단에 배속명령을 받고 永川에서 西南방 6km지점에 있는 琴湖로 이동하여 연대지휘소를 이곳에 마련하고 연대주력을 永川 西南쪽에 있는 鳳亭洞의 175高地와 150高地의 능선을 점령케 하여 金老洞과 道洞방면에서 琴湖江을 건너 침입하는 적에 대한 방어준비를 서두르게 하였다.

한편 제11연대에 배속된 제17포병대대의 B포대는 新寧面 南旌洞에서 元堤洞(新興洞)으로 이동하여 6문의 57mm대전차포를 鳳亭洞의 140高地에 배치하고 道洞 방면으로부터 출현하는 적을 포격코자 대비하였다.

제6사단 제19연대도 6일 18.00에 永川으로 이동하여 永川 서북쪽 4km 떨어진 新堂洞에 연대지휘소를 두고 제21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新堂洞 좌우능선에 배치하였다.

各부대의 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제8사단 제21연대

9월 6일 : 제8사단의 좌일선(左一線)에 배치되어 있던 제21연대와 배속된 제18연대 제2대대는 仙川洞 北쪽능선에서 新堂洞 西南쪽 181高地에 이르는 선에 고립된 채 적 제45연대를 격퇴시키고 계속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제21연대의 정면을 공격하던 적 제45연대는 이날 오후에 그 임무를 제103연대와 제73독립연대에 인계한 다음 永川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제103연대와 제73독립연대는 아군 제21연대의 左右측에서 계속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右측에서 공격하던 적 제73연대는 아군 제21연대의 제1대대에 의한 치열한 타격을 받고 붕괴되고 말았다.

9월 7일 : 연대의 左측에 배치되어 있던 제2대대는 그 우일선(右一線)에 제6중대 그리고

좌일선(左一線)에 제5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던 중 이날 미명에 적 제103연대의 전면공격을 받게 되었다.

대대의 右측에 배치 되었던 제6중대는 적의 공격을 받아 후퇴하였으나 梁 輔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는 제2소대를 중대진지 전방 1km지점에 있는 樂水洞 북쪽 310高地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05.30에 적 1개대대 병력은 안개가 짙은 불량한 시계(視界)를 이용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2소대장 金在儀 상사는 즉시 분대장을 모아 사격구역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미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적이 310高地 8부 능선까지 기어 올라왔을 때에 일제히 집중사격을 시작하여 아군 진전에서 적 1개 중대를 섬멸하고 말았는데 적은 이 고지를 기어코 점령코자, 계속하여 2차 3차에 걸쳐 파상공격을 시도하여 왔으나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진전(陣前)에서 섬멸 되고 말았으며 제2소대의 화망을 벗어나지 못한 적병들은 총을 높이 들고 투항하여 왔다. 소대장은 중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채 선전분투하였으며 계속해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민가에 숨어 있던 적병 7명을 사살하였는데 이 중에는 적 제103연대 지휘부요원으로 추측되는 좌관급 및 위관급 장교들도 끼어 있었다.

제2소대는 이 310高地 전투에서 적 사살 300여명, 포로 98명, 박격포 4문, 기관총 4정, 소화기 두추력분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나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한편 제5중대 제2소대가 310高地에 침입하는 적을 무찌르고 있을 때에 제6중대도 역시 반격을 결행(決行)하여 적의 손에 넘어가 있던 고지를 도로 탈환하고, 즉시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다.

제5중대장은 전투가 끝난 뒤에 중대을 지휘하여 310高地에서 전장정리를 한 다음 원진지로 복귀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은 05.00에 적이 공격하여 오사 제2소대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였으나 제2소대장은 개정된 호출부호를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적의 공격을 받고 고군분투(孤軍奮鬪)하여 뜻밖에도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전투로 인하여 적 제103연대의 주력은 거의 섬멸되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9월 8일 : 이날 적 제73연대 주력이 제21연대의 右측 정면인 大邊洞 후방능선과 208高地 선서 공격을 시도하여 왔으나 아군에 의하여 강력한 타격을 받고 퇴각하던 중 제19연대에게 재차 강타를 당하는 바 되어 무질서하게 大邊洞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永川지구에서 아군이 공격하는 모습>

9월 9일 : 적 제103연대와 제73독립연대는 11.00에 제21연대 정면에 발악적인 최종공격을 하여 왔으나 이미 전의(戰意)를 상실한 적은 진전에서 격퇴 당하고 말았다. 적 제15사단은 주력인 3개 연대로써 중앙을 돌파하고 24km나 전진하였으나 우일선(右一線)에서는 아군 제21연대에 의하여 적 2개연대가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적 제15사단의 주력은 永川 南쪽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라) 제6사단 제19연대(배속)

9월 6일 : 적 제50연대는 12.00경에 그 일부 병력을 完山洞의 155高地에 배치하여 永川읍에서 반격을 시도하는 아군에 대비시킨 다음 林浦洞쪽으로 전진하였으며 이 연대의 뒤를 따르고 있던 제56의 2개 대대는 계속 제50연대의 뒤를 따라 내려왔는데 1개 대대는 永川을 점령할 목적으로 永川 쪽으로 향하여 내려왔다. 아군 제19연대의 右측에 배치되었던 제2대대는 永川으로 침공하는 이 적를 포착하여 측배(側背)에 대하여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 적은 아군의 저항없이 제50연대의 뒤를 따라 오다가 제2대대의 뜻하지 않은 기습을 받고 섬멸 되었다.

제19연대는 永川으로 이동한 첫날에 이와 같이 쾌승(快勝)을 하게 되었으므로 장병들의 사기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적 제15사단장은 永川을 점령할 목적으로 아군 제21연대 정면에서 공격하던 제45연대의

임무를 제73연대와 교대시키고 제45연대는 제56연대의 뒤를 따라 永川을 확보한 다음 남진하도록 하였다. 또 제103연대와 제73독립연대는 아군 제21연대와 제18연대 제2대대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여 돌파구(突破口)를 확대한 다음 이를 永川쪽으로 압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뒤에서 독전(督戰)을 당하고 있었다.

아군 제19연대 제2대대는 이날 저녁에 제16연대 제3대대와 진지교대 명령을 받고 야간 이동 중 방향유지가 곤란 하였기때문에 진지교대가 지연되었는데 다음 날인 9월 7일 아침에 이동하는 도중에서 불시에 적의 정치공작대원 1개소대와 충돌하게 되자 곧 이를 섬멸하여 버린 다음 제3대대와 진지교대를 하였다.

9월 7일 : 진지교대를 하게 된 제2대대는 진지를 재편성한 다음 08.00경에 적 후방부대가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자 아군 제19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 정면에 이르기를 기다려 기습적인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렇게 적을 공격하자 제1대대와 제3대대도 이에 합세하여 적의 후방부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말았다.

이 기습전에서 제19연대는 적의 차량 30여대를 파괴하고 200여명의 적병을 사살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이 전공으로 제19연대는 육군본부에서 상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장병들의 사기는 더 한층 올라가기만 했다.

이 공격이 있은 다음 제1대대는 望亭洞으로 진출하여 이 일대의 적을 무찌르자 적은 당황하여 급히 丹浦洞쪽으로 퇴각하였다.

9월 8일 : 제2대대는 181高地와 176高地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08.30에 이 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永川읍을 향하여 급진(急進)한 결과 14.00에는 永川읍에 침입하고 있던 적을 격멸하여 永川을 재차 탈환하는 공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제1대대는 望亭洞에 있는 적 제15사단 전방지휘소를 기습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早橋洞을 목표로 남진하였는데 제1대대가 望亭洞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적은 東山洞쪽으로 퇴각하였으며 적 제15사단 지휘소를 大儀洞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또 제19연대의 공격을 받고 大邊洞쪽으로 격퇴를 당한 적은 22.30에 재차 新基洞으로 반격(反擊)을 감행하여 왔다. 아군 제1대대와 제3대대는 같이 힘을 합아 이 적을 역포위(逆包圍)하여 격퇴시키고 말았다.

9월 9일 : 제19연대는 제1대대가 어제 저녁에 점령한 望亭洞 100고지에 적이 재차 공격하여 오자 이를 격퇴하여 이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는 也史洞까지 진출하여 방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2대대의 주력은 永川쪽에서 퇴각하는 적을 포착(捕捉)섬멸할 목적으로 적의 퇴각로(退却路)로 판단되는 요지(要地)에 병력을 잠복배치 하였다.

(마) 제1사단 제11연대(배속)

9월 6일 : 제1사단 제11연대는 이날 정오에 永川으로 이동하여 그 지휘소를 琴湖에 설치 하고 연대의 주력을 鳳亭洞에 배치하여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9월 7일 : 이날 정오경에 제11연대는 金老洞 후방에서 남진을 계속하고있는 적을 기습섬멸할 목적으로 제17포병대 B포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유봉산에서 琴湖江을 건너 金老洞과 鵲山洞을 연하는 선으로 진출하여 完山洞 155高地에서 저항하는 적을 공격하여 이를 격퇴시킨 다음 이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甲橋洞방면에서 남진하는 적 제45연대가 철도연변을 따라 155高地 左右측에서 공격하여 왔으므로 즉시 이를 공격하였으나 세불리(勢不利)하여 부득이 金老洞과 鵲山洞을 연하는 선으로 물러난 다음 사주방어(四周防禦)를 하기에 이르렀다. 적은 야음(夜暗)을 이용하여 제11연대를 포위하고 공격을 해왔다.

9월 8일 : 이날 06.00에 적의 일부는 2대의 전차를 앞 세운 다음 포병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永川읍을 목표로 진격하여 왔으며 그중 약 1개 대대병력은 大義洞에서 남침 중이었고 또 나머지 1개 대대병력은 아군 제11연대에 대한 포위망(包圍網)을 압축하기 위하여 계속 화력을 집중하였다.

적중에 고립된 아군 제11연대는 짙은 안개와 부슬비가 내리는 호기(好機)를 이용하여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갖은 애를 쓰면서 크게 싸웠으나 보급품과 탄약이 이미 소진(消盡)되어 형용키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었다.

이날 08.00에 연대장 金東斌 대령은 적에게 포위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구출할 목적으로 전방지휘소를 官亭洞으로 이동하고 신병 1개중대를 편성하여 축방과 道南洞을 연한 선에서 보급로를 타개하고자 반격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은 15.00에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을 만나 포위망 돌파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제2대대는 道南洞 일대의 논으로 돌파구를 타개하는 동시에 제3대대는 右측능선을 따라 돌파를 강행키로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이때에 제2대대는 계속 쏟아지는 비 속에서 치열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필사적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105高地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능선을 타고 慶州쪽으로 철수하였는데 도중에서 적의 저지(阻止)공격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2, 제3대대는 적의 완강한 포위망을 돌파하고 병력을 다시 수습한 다음 연대 집결지인 官場洞으로 집결하여 다음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다.

9월 9일 : 제11연대는 官亭洞에서 부대를 재수습한 다음 이날 08.30에 105高地와 龜岩洞 163高地에 있는 적 진지를 점령하고 이 일대의 적을 격파하였고 13.00에 柳下洞 서쪽에 있는 130高地의 적을 격퇴시켰으며 18.00에는 柳下洞 일대를 확보하는 한편 반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제17포병대대 제B포대는 진격하는 아군 제11연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元堤洞 170高地에 6문의 대전차포를 방렬한 다음 金老洞과 柳下洞 그리고 栗新洞과 松浦洞 일대의 적 진지에 집중사격을 퍼붓자 적의 독전대(督戰隊)는 저 먼저 도망치게 되어 혼란에 빠져 大邱 점령의 야욕이 결국 꿈으로만 끝날 것을 예감한 적의 사기는 저하일로에 있었다.

(바) 제7사단 제3연대

9월 6일 : 이날 08.00에 제3연대 제1대대(鄭 燮소령이 지휘하던 제1유격대대)는 朴浚鎬 중위 지휘하에 美軍전차 소대와 지원을 받으며 永川 읍내에 돌입하여 침입한 적을 격고 永川 읍내를 점령하였다.

9월 7일 : 이날 새벽 적이 재차 永川 美軍南쪽의 과수원에 침입 해 오자 곧 이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확보하였다.

9월 8일 : 제11연대는 적에게 포위되자 이 포위망을 빗어나 林浦洞남방으로 이동하여 퇴하 林浦洞의 적을 공격하여 적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격멸시켰다.

9월10일 : 아군이 총반격을 시작하자 제3연대도 역시 적을 東北방쪽으로 밀어내면서 북상하던 중 慶州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원대복귀하였다. 제3연대가 慶州로 이동하게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朴浚鍾 중위는 본대가 慶州방면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단장에게 원대복귀할 것을 건의 하였던 바 쾌히 승낙하여 慶州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3연대 제1대대는 그간의 전투에서 병력은 400여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인원보충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사들은 1개월 이상에 걸친 실전경험으로 정규군과 마찬가지의 전투력

유지하게 되었다.

(사) 제7사단 제8연대

9월 5일 : 제7사단 제8연대(1개 대대결)는 군단예비대로 있었으나 이날 밤중 永川이 위험하게 되자 永川동북쪽 丹浦洞과 彦河洞을 연하는 선에서 永川 외곽지대를 방어하던 중에 전세불리(戰勢不利)하여 후퇴한 다음 五樹洞에서 부대를 재편성 하였다.

9월 8일 : 林浦洞 방면에서 아군 제5연대에게 저지당한 적은 공격방향을 바꾸어 栗藥山(△498)으로 침투하여 아군을 양분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날 적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栗藥山으로 침투하여 大[illegible]南쪽으로 진출하려는 기세가 보이자 연대지휘소를 大[illegible]洞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주력을 栗藥山에 배치한 다음 이 고지를 向하여 진격하고 있던 적을 맞아 크게 싸운 결과 이를 격퇴하였다. 18.30에 이 일대에 침입한 적은 마침내 퇴각하여 고염발(時和洞)에 있던 적과 합세하였다. 이로써 아군이 이날 적 제15사단을 저지섬멸할 수 있는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북쪽에 있는 제21연대로부터 시작하여 남서 바늘 모양으로 진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별책부도 제28호 참조)

9월 9일 : 이날 14.30에 제8연대는 제11연대와 같이 일부 병력으로 栗藥山에서 진격을 개시하여 槐淵洞을 거쳐 柳上洞으로 진출하였는데 이 일대에서 永川과 慶州 사이의 도로 南쪽에 침입한 적을 물리치고 말았으며 19.15에는 柳上洞 右측에 있는 303高地를 확보하고 반격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아) 제8사단 제10연대

9월 8일 : 제8사단의 제10연대는 8월 30일부터 제1군단 제3사단에 배속되어 浦項지구에서 전투 중이었다. 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9월 6일에 제3사단이 永川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전선이 돌파 당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곧 제3사단장 李鍾贊 대령에게 원대복귀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9월 8일에 정식으로 복귀명령을 받게되어 兄山江선에서 병력을 거두어 급히 慶州를 경유하여 永川으로 전진(轉進)하였다.

9월 9일 : 11.36에 道溪里(다리골)에 도착한 제10연대는 제7사단 지휘소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 연대가 제8사단에 복귀하자 阿火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던 제26연대 제3대대는 이 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제1군단의 예비대로서 慶州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연대는 14.30에 阿火로 전진(轉進)한 다음 제5연대 좌측방을 점령하고 永川쪽으로 퇴각하는 적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林浦로 적을 추격하였다.

(자) 제7사단 제5연대

9월 6일 : 연대장 崔昌彦 대령은 이날 12.00경에 제3대대병력을 수습하여 永川 읍내로 들어갔으나 연대의 주력인 제1, 제2대대와는 통신두절로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제1, 제2대대는 永川이 이미 적에게 점령 당하고 퇴로가 차단되어 이날 아침 적의 공격을 받아 그 근방의 산악을 타고 적과 교전하면서 철수하고 있었다.

9월 7일 : 아 공군 정찰비행부대소속 정찰기(L—5)가 이날 오후에 乾川 방면에서 소속미상의 부대가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곧 이 사실을 아군 제2군단사령부와 美 제8군사령부에 보고하였다. 군단장 劉載興 준장은 즉시 제7사단장 申尙敏 대령에게 제5연대의 병력인지의 여부(與否)를 확인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 崔昌彦 대령은 찝차를 타고 곧 현장으로 가서 알아 보니 틀림없는 자기 연대 주력이었다. 崔昌彦 대령은 곧 연대의 주력을 돌려 21.00에 阿火支署에 도착한 다음 그 근방에서 부대를 다시 수습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적 주력이 永川에서 慶州 방면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고 安康 방면에서 전투 중인 제26연대 제3대대를 급히 신발 이날 阿火 북쪽 235高地에 전진시키고 진지를 점령케 하여 남하하는 적에 대비케 하였으나 적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9월 8일 : 阿火 방면으로 남하하던 적은 林浦洞 남쪽에서 병력을 집결하고 재정비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26연대는 곧 이 적을 기습하였다. 한편 08.00에 阿火를 출발하여 북상한 제5연대와 제1, 제2대대는 제26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한 다음 295高地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진격로를 차단하여 버렸다. 이러한 결과로 아군 제2군단은 永川지구에서 적 제15사단을 포위 섬멸 할수 있는 포위망을 더욱 굳게 형성 할수 있었다. 전쟁이란 원래 이렇게 허(虛)가 변하여 실(實)이되고 기(奇)가 화(化)하여 정(正)이 되는 것이므로 병학가(兵學家)들은 이것을 가리켜 기정(奇正)과 허실(虛實)의 묘라 하고있다.

한편 韓健善 대위가 지휘하는 제5연대 제3대대는 이날 아침 也史洞을 출발한 다음 紙所洞선에서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고자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9월 9일 : 阿火북방에 있던 제1, 제2대대는 제17, 제18포병대대에서 각 1개포대의 火力지원과 공군의 空中지원을 받아가면서 林浦 남쪽에서 적보병을 지 원중인 적 제15사단의 포병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완전히 격멸시키고 말았다.

이 장쾌(壯快)한 일전(一戰에)서 제5연대는 적 차량 50대, 야포 10여문을 파괴하고 9대의 차량을 노획하였다. 적 포병은 林浦남쪽(고지동) 철도터널 속에 포를 은폐하고 있다

가 필요할 때에만 포를 끌어 내어 포격을 하였는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날은 백주(白晝)에 보병의 직접 경계없이 전포(全砲)를 방열하여 놓고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으로 포격을 하다가 아군이 급습을 하자 사분오열(四分五裂)로 괴멸(潰滅)을 당하고 말았으니 옛부터 경적필패(輕敵必敗)라고 하여 적을 너무 얕보다가는 반드시 패한다고 하였다.

(차) 제8사단 제16연대

9월 6일 : 元堤洞(新興洞)일대에서 병력을 수습한 이 연대의 제1, 제2대대는 이날 09.00에 永川동북쪽 156高地와 179高地 일대능선으로 진출하여 이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179高地를 점령하고 아군 제21연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비하였다.

9월 7일 : 제16연대 제1대대는 이날 18.00에 제19연대의 제1대대와 협력하여 望亭洞의 적 진지를 공격하였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던 적을 격파하였으므로 적은 丹浦洞쪽으로 퇴각하였다.

9월 8일 : 이 연대는 전 방어지역을 제19연대에 인계하고 유봉산(△241)으로 철수하였다.

9월 9일 : 이날 미명부터 공격을 재시한 연대주력은 琴湖江을 건너 鵲山洞의 139高地



<永川지구에서 노획한 적 화기>

를 점령하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으며 그 일부병력은 大儀洞 동쪽 2km지점에 있는 못 밑까지 진출하였다. 제1중대장 李鍾潤 중위는 이날 신병 170명을 새로이 보충 받아 完山洞의 155高地를 공격하였는데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60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치열한 격전을 거듭하여 마침내 이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 관질긴 싸움에서 적은 소대병력에 불과하였는데 거관총사수의 발을 쇠고랑으로 묶어 놓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 여기에서 퇴각한 적은 24.00에 중대병력으로 증강(增強)한 다음 재차 공격하여 왔기 때문에 제1중대는 155高地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3) 永川지구의 반격전(9월 10일~13일)

(가) 전반적상황

아군 제8사단의 중앙을 돌파하고 立岩—永川—慶州를 연하는 도로를 따라 전격하던 적 제15사단은 河火 북쪽에서 아군 제5연대에 의하여 저지 당하게 되고 永川 북쪽에서는 아군 제21연대와 제19연대에 의하여 후방보급로가 차단 되므로써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적 제2군단장 金武亭은 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9월 5일 제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을 경질하고 그 대신으로 군단포병부군단장으로 있던 八路軍출신의 소장 趙光烈을 임명하였으며 독전책의 강화로써 불리한 전세를 다시 만회하여 보고자 가진 술책을 다하였다.

그러나 아군 제2군단은 5일간에 걸친 용전 끝에 적 제15사단을 永川에서 물리친 다음 9월 9일에는 곧 부대를 다음과 같이 재배치하고 장쾌무비(壯快無比)한 총 반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21연대 대령 金容培 약수탕에서 仙川洞 △208右측까지

제19연대 대령 金益烈 △208에서 △155까지

제16연대 중령 金義淸 完山洞에서 鵲山洞一帶

제11연대 대령 金東斌 柳下洞 △130에서 柳上洞 一帶

제 8연대 중령 朴昇日 柳上洞 右側地區

제10연대 중령 高根弘 河火에서 移動하여 大邊洞 西쪽

대체로 위와 같이 배치하였는데 제10연대는 河火 부근에서 싸우고 있다가 제19연대와 제21연대 중간에 투입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케 하려는 것이었으며 河火 북쪽에 있던 제5

연대 로써 공세이전(攻勢移轉)의 선봉(先鋒)으로 내세우려는 방침이었다.

(나) 제8사단 제21연대

9월 10일 : 제8사단의 우일선(右一線)에 배치되어 있던 이 연대는 이날 미명(未明)부터 반격을 시작하여 藥水湯—玆川洞—大還洞을 연하는 선까지 일거(一擧)에 진출하므로써 적을 여지없이 구축 (驅逐)하였다.

연대장 金容培 대령은 사단장으로부터 "적 전차가 永川—玆川사이의 도로를 따라 북상중이니 이를 즉시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곧 제2대대장에게 이러한 뜻을 하달하였다. 10.30에 이르러 제5중대 제2소대장 金在儀 상사는 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자 3.5인치 로케트포 1문을 玆川洞南쪽 3km지점에 있는 149高地에 배치한 다음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적의 전차 1대가 접근하여 오는지라 즉시 사격을 퍼부어이 전차를 격파하여 버리고 전차병 4명과 장교 1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포로된 장교의 주머니 속에서 얻게 된 문서중(文書中)에는 적 제15사단장이 제2군단장에게 보내는 공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永川지구의 전황과 증원부대를 시급히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제8사단장 李成佳 준장 65. 9. 17 자택 예편 소장, 당시 제5중대 제2소대장 金在儀 상사 증언)

이날 20.00에 이 연대의 공격을 받고 궤산(潰散)하여 버린 적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345高地와 三梅洞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게 되었으니 필시 적의 독전이 극심하였던 탓이리라.

9월 11일 : 제10연대가 阿火방면에서 大還洞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자 제21연대는 우측의 일부지역을 제10연대에게 맡긴 채 계속 적과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결과 仙川洞 북쪽능선에서 月谷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우측대대는 계속 적을 추격하면서 북진을 재촉하게 되어 아군의 사기(士氣)는 더욱 충천 해졌다.

9월 12일 : 이날 연대는 北쪽 하늘관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퇴각하는 적을 쉴 새없이 추격하여 銀田洞—玆川洞 北方까지 진격하여 五竹과 上松洞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압축한 다음 이 선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더욱 본격적인 반격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다) 제8사단 제10연대

9월 10일 : 제5연대의 左측방에서 梓洞洞의 적을 공격하고 있던 이 연대는 이날 03.40에 적 제56연대의 1부가 永川 방면으로 퇴각하자 계속 추격하였으나 12.00에 군단의

작전명령에 의하여 高火에서 부대를 집결한 다음 元堤洞(新興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9월 11일 : 제8사단장은 이날 12.00에 이 연대를 제21연대와 제19연대 사이에 투입 배치한 다음 적을 더욱 세차게 공격하도록 조치(措置)하였다. 이 연대는 진지를 인수받은 다음 208高地와 181高地 동쪽 新基洞일대에 잔류해 있는 적을 공격하였다.



<파괴된 T-34전차 옆에서 아군에 의해 인솔되고 있는 적의 포로들>

적은 새로운 아군의 투입(投入)을 보고 어에 기력(氣力)을 잃게 되었는지 완강한 저항을 포기하고 많은 시체(屍體)를 남겨놓은 채 퇴각하였다. 연대는 적을 뒤쫓아 급히 추격하여 주전봉 서원을 거쳐 靈川洞까지 진출한 다음 이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일부병력은 古炎洞선까지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다.

9월 12일 : 이 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12.00에 上洞 洞西南쪽 1.5km 지점에 있는 371高地의 적을 공격하여 격퇴시킨 다음 이 일대를 확보하고 또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대대는 龍山洞 北쪽고지에서 적과 백병전(白兵戰)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제16연대가 진격함에 따라 이때까지 남고 있던 전선(戰線)을 제16연대에 인계한 다음 그 대신 제21연대의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는 즉시 三榛洞 西南쪽에 있는 188高地의 적을 격멸하였다. 이와같이 눈부신 활약(活躍)으로 적을 격파한 제10연대는 元山江에서 北方으로 이동한 후 4일동안의 선전으로 능히 사단의 위기를 미연(未然)에 막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제6사단 제19연대

9월 10일 : 아군의 조직적이고 과감한 반격을 받게 된 제19연대 정면의 적은 古炎洞

과 愚港洞一帶에서 방황(彷徨)하고 있었으며 한편 제16연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된 적은 丹浦洞과 早橋洞에 집결하여 급히 東北方으로 퇴각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9월 11일 : 新基洞 181高地에 집결한 적은 이날 08.00에 이 연대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였으며 약 1개대대의 적 병력은 早橋洞 부근에서 제5연대 제3대대가 이 연대의 협공을 받고 北으로 퇴각하였다. 이날 12.00에 이르러 제8사단 제10연대가 다시 투입되자 진지를 제10연대에게 인계하여 주고 彦河洞—望亭洞—早橋洞을 연하는 선으로 이동하여 제16연대 정면에서 공격을 받고 퇴각하는 적을 보는대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니 적은 마치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제19연대의 주력은 이날 16.00에 琴川洞堤防과 丹浦洞선으로 진출하여 372高地와 上梨洞으로 적을 찾아 추격 중이었다. 제1대대는 早橋洞에서 추곡동으로 적을 추격하여 北방으로 퇴각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므로써 적을 여지없이 격파한 다음 다시 원진지로 돌아왔다.

9월 12일 : 군단의 포위망(包圍網)이 점차로 압축되자 이날 10.00에 제19연대는 永川으로 철수하여 군단예비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뒤에 龍堀洞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원대복귀하였다(작명부록 제70호 참조).

(마) 제8사단 제16연대

9월 10일 : 完山洞과 鵲山洞에서 진격준비를 완료한 동 연대는 이날 04.00에 총반격전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 제1중대장 李鍾淵 중위는 중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여 155高地를 점령하였으며 퇴각하는 적을 한사람이라도 놓칠세라 곧 추격하였다. 이와 같이 추격을 계속한 제1중대는 大儀洞南쪽에 있는 196高地를 곧 공격하였는데 이때 李 중위는 적의 기관총탄으로 부상을 당하였으나 부하들을 독려하여 중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였는데 고 부하들이 만세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눈을 감았다. 이 연대는 이와 같이 하여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계속 진격하던 중 우쪽에 있던 제11연대가 원대복귀하게 되자 대성동 東쪽 1km지점에 있는 186高地의 일부정면까지 맡아서 그대로 추격만을 강행 하였는데 연대장병들의 사기(士氣)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천(衝天)하였다.

9월 11일 : 연대는 이날 16.00에 丹浦洞 右쪽 2km지점이 있는 153高地로 돌진하였는데 이 당시 연대 예비대로 있던 제2대대는 제5연대 제3대대가 원대로 복귀함에 따라 永川 부근에서 제19연대의 일부정면까지 모두 인수(引受)하였다. 제2대대는 早橋洞선으로 돌진(突進)하여 적 약 2개 대대병력과 서로 부딪치게 되었으나 조금도 굴(屈)하지 않고 2배(倍)

이상의 적을 상대로 용전부투(勇戰奮鬪)하였다.

9월 12일 : 연대는 이날 퇴각하는 적을 추격 153高地와 上梨洞선까지 진출하였으며 사기(士氣)는 시간이 갈수록 드높아 졌다.

9월 13일 : 이리하여 이날도 계속 적을 추격하여 仁邱洞 東南방 2.5km지점에 있는489高地까지 진출하였다가 명에 의하여 永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바) 제7사단 제8연대

9월 10일 : 榔上洞의 304高地를 확보하고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8연대 제1대대는 이날 04.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富興洞선에서 그 공격 방향을 돌려서 內浦洞 西北쪽 169高地를 점령한 다음 계속 북진하였으며 제2대대는 또한 이에 뒤질세라 추격을 재촉하여 內浦洞 北쪽능선을 점령하였다. 한편 이 연대는 전선이 北上함에 따라 연대지휘소를 大昌 林浦洞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제11연대가 東北쪽으로 진출하여 10.00에는 이미 大儀洞 東쪽 3km지점에 있는 187高地를 세차게 공격 중이었는데 마침 군단명에 의하여 琴湖로 이동(移動)하게 되자 이 연대는 제11연대의 일부정면까지 인수한 다음 우인접 부대인 제5연대와 긴밀한 협동으로 계속 진격하였다.

9월 11일 : 이 연대는 이날 早朝에 심곡동 北쪽 3km지점에 있는 팔산(九完山 : △394)까지 진출하여 정신없이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으며 이날 15.30에는 이미 五柳洞 北방 211高地와 三歸洞일대에서 적 약 1개대대를 고스란히 격파하고 그 일대를 점령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다.

9월 12일 : 東道洞과 海仙洞일대에 집결한 적 약 1개연대의 병력가운데서 1개대대 정도의 적이 이날 11.00에 연대 정면으로 공격하여 왔으나 이 연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 공격부대가 곧 적의 측방으로 쏟아져 나와 포위태세를 취하게 되자 적은 그들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커다란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퇴각하였다.

(사) 제7사단 제5연대

9월 10일 : 전일에 林浦洞 南쪽에서 적 포병연대를 섬멸한 동 연대는 이날 04.00에 제10연대와 같이 林浦洞의 적을 공격하였다. 연대의 주력(主力)은 10.30에 林浦 南쪽에서 적 제56연대본부를 공격하여 적의 전차 2대를 단숨에 격파하고 林浦洞을 점령하므로써 5일 동안이나 차단되었던 永川과 慶州사이의 후방보급로가 비로소 개통되었다.

9월 11일 : 연대는 이날 02.00에 연대지휘소를 道溪里에서 阿火로 이동하였으나 전선(戰線)이 북상함에 따라 18.00에는 또 다시 再峴으로 이동한 다음 반격작전을 지휘하였다.

연대의 주력은 퇴각하는 적을 급히 추격하여 먼저 冠山(△334)을 탈환한 연후에 이 일대에 숨어 있던 적을 무찔러 버렸다.

9월 12일 : 이날 연대는 杞溪와 安康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遮斷)하기 위하여 德岩里 南쪽 2km지점에 있는 舞鶴山(△450)을 거쳐서 282高地 북방으로 계속 진격하여 이날 15.00에는 舞鶴山과 淸亭洞남쪽 1.5km지점에 있는 384高地의 적을 모두 격멸하였으며 그 일부병력은 杞溪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또다시 압축하여 모조리 격파하였다.

9월 13일 : 연대는 제8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309高地 南쪽 2km지점인 206高地에 진출하여 杞溪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였다. 적 제15사단은 永川을 점령하고 慶州로 진출하여 즉시 釜山을 공격하려던 기정계획(旣定計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드디어 8일만에 永川 지구에서 완전히 격퇴되거나 추격으로 말미암아 포착(捕捉) 섬멸되고 말았으니 적으로서는 분(憤)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전면퇴각(全面退却)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아) 偵察飛行隊의 永川 支援戰

적 제2군단이 총 공격을 시작하여 永川 정면을 돌파하고 아군은 永川과 浦項을 연결하



<左로부터 한사람 건너 李成佳 준장, 金容培 대령, 劉載興 소장>

는 도로 남방으로 일시 철수하였다.

이때 大邱에 있던 공군 T-6비행부대는 아군 제2군단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항공지원을 받았다. "아군 제2군단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 정찰지원을 해주기 바라오" 이러한 정찰지원요청을 받은 T-6 비행부대는 9월 4일 4대의 T-6기를 永川방면으로 출동시켰다.

2대 편대로 출동한 T-6기는 永川과 그 일대에 대한 공중정찰을 실시하였으나 永川읍내에서는 적병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紫陽, 玆川, 新寧 南쪽을 연하는 선에 적 주력부대가 집령하고 있었으며 그 후방의 琴賢川 南방에는 적 보병을 지원하는 야포진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6기 편대는 이 사실을 아군 제2군단사령부에 통신통(通信筒)을 떨어뜨려 적정을 보고하는 동시에 적 지상군 진지에 기총사격을 하였다. 한편 미 공군의 전투기를 적 야포진지로 유도하였다. T-6기의 유도를 받은 F-51전폭기는 적의 야포진지에 로케트와 기총소사를 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T-6비행부대는 계속해서 5일과 6일에도 八公山과 永川방면으로 출격하여 적의 보병부대를 포착 공격 하여 적병 다수를 살상하였다. 永川작전을 지원한 T-6기 비행부대는 T-6기 한대가 적탄에 맞아 파괴되고 조종사 일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제2군단에 파견된 정찰비행부대(L-型)는 吳占石 대위 지휘 하에 맹활동을 하였는데 9월 5일 제2군단의 정찰요청을 받고 田錫書이등상사(1950년 10월 17일 華川에서 정찰비행중 전사)는 적의 대공포화를 뚫고 永川기지에 착륙하여 약 한시간에 걸쳐 적정을 살핀 다음 그 결과를 제2군단 사령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9월 7일에는 永川 지구를 정찰하던 중 乾川南쪽에서 정체를 알 수없는 2개대대 가량의 병력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제2군단과 美 제8군사령부에 보고하였다. 이날 乾川 南쪽으로 남하하던 부대는 제5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였음이 후에야 판명되었다. 이 정찰결과는 永川戰鬪의 전기(轉機)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제5연대의 제1 및 제2대대를 전진시켜 적의 남진을 阿火 北쪽에서 저지시키고 포위망을 형성하여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大邱에 있던 정찰비행부대는 계속해서 제1군단과 제2군단 정면을 정찰지원하였는데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합 88회의 정찰비행과 53회의 연락비행을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친 치열한 永川지구 공방전은 한국전쟁의 전환점을 이룬 큰 전투로써 적과 아군은 서로 증강된 2개사단의 대결이었다. 적은 5개연대에 병력 12,000명으로 추산되었고 아군은 7개연대에 병력 15,000명이었다. 적은 76mm포 38문과 122mm포 18문 전차 12대에 비하여 아군은 105mm포 26문과 57mm 대전차포 6문이었다. 병력에 있어서는 아군이 우세하였으나 포병 장비면에 있어서는 적이 오히려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아군은 열세한 화력을 항공력으로 보충하였으며 적은 다소 열세한 병력을 독전대(督戰隊)의 위력으로써 보강할 수 있었다.

永川의 직접쟁탈전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3회의 진공전(進攻戰)이 있었을 뿐이며 치열한 전투는 주로 永川 北방과 南방에서 벌어졌으며 永川 北방의 제21연대는 적 2개연대를 견제하고 제19연대는 적의 후방부대와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남부의 제5연대와 제10연대는 적의 남침을 막아내면서 포위망을 형성한 결과 적 제15사단을 이 포위망 속에서 압축하여 결정적인 대타격(大打擊)을 주는데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적사살 3799명 포로 309명, 전차 5대, 장갑차 2대, 차량 85대 각종화포 14문 각종소화기 2,327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제8사단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전사 29명 부상 148명, 실종 48명의 피해를 내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이미 말한대로 적이 예정하였던 작전계획(作戰計劃)의 골간(骨幹)을 분쇄하여 버리고 전략의 근본방침(根本方針)을 송두리채로 뽑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적 제15사단이 慶州 방면으로 진출하여 제12사단과 합세하였더라면 東部전선의 제1군단전선은 스스로 붕괴되었을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적이 공격축을 大邱나 慶山 방면으로 전환하였다면 大邱 北方에서 작전 중인 제1, 제6사단 및 美軍전선에도 매우 불리(不利)한 영향을 면져 주어 부득이 부산교두보선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적은"永川점령을 한국전쟁의 전환점으로 보고" 永川을 점령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도 이 전투에서 승리가 얼마나 큰 의의(意義)가 있었는가를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전국을 대전환시키는 기점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0, 12, 4, 別午里(滿浦鎭 北方 35km 지점)에서 조선노동당 중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한국전쟁 전반에 걸친 검토가 있었다.

9월 10일 영천—경주간 도로남쪽에서 반격을 시작하여 13일에는 9월 4일선까지 다시 진출함으로써 적 제12, 제8사단의 후방과 측면을 위협하게 되자 적 제8사단의 진공(進攻)을 좌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永川지구에 침입한 적 제15사단은 아군의 일대반격(一大反擊)으로 거의 재기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9일간에 걸친 이 전투는 9월 13일에 제2군단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당시 아군 제8사단은 龍田洞—盆川洞—三梅洞北方—仁邱洞南쪽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장차 닥아 올 총 반격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 교 훈

◇ 사기저하의 요인

아군 제8사단과 적 제15사단은 昔質川 싸움에서 서로 격전을 전개한 이래 永川 北쪽방어선이 무너지게될 때까지는 혼전으로 일진일퇴하였으므로 장병들의 사기가 그다지 떨어지지 못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단방어정면이 약 20km에 달하는 광정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각연대는 병력부족으로 이 광정면에 병력을 희소하게 배치하고 있었으며 전방에 충분한 경계제대를 추진시키지도 못하였고 사단에서는 예비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사기저하의 요인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병력과 장비가 열세할 때 지휘관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두에 솔선나서지 못할 때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신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며 더구나 병사들이 소질이 저열하여 지휘관이나 군률보다도 오히려 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앞설 때에 승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 영천전투가 성공한 요인

1. 군단장의 과감한 결심으로 예하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연대씩을 차출하여 적기에 전용하였다. 이 5개대대는 永川 北方과 南方에서 적이 돌파구를 넓히면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제16연대와 제13연대 제1대대 그리고 제8연대가 철수하여 재편성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였다.

2. 군단장이 美軍에게 요청한 전차 1개소대의 지원을 받아 사단공병대와 제3연대 제1대대가 영천읍을 탈환하였다.

3. 사단의 우일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5연대의 2개대대가 적 후방에 고립되어 있다가 단독으로 남하하여 적의 공격축선상인 慶州가도의 阿火에서 진로를 차단하고 적 포병연대를 전멸시켰다. 이로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 永川 南쪽에서 적의 측면을 공격하여 분단된 적을 각개격파할 수 있었다.

4. 전투기간 중 우천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美 공군은 이러한 악천후를 무릅쓰고 출격하여 적의 포진지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계속적인 근접지원작전으로 적에게 재편성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5. 永川北方에 배치된 제21연대가 계속 진지를 유지하면서 적 2개연대를 견제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주력의 전진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제21연대의 활동은 능히 永川에서의 수세를 공세로 대전환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만일 제21연대가 후퇴하였더라면 좌인접인 제6사단은 측방이 노출되어 물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제21연대정면의 적 103제연대는 후방지구의 보안경비연대로서 장비도 빈약하고 점령지내에서 모집한 공산분자로써 전투력이 미약하였다. 이 주력은 310高地에서 아군 제5중대에게 전멸되었으며 또한 제73연대도 무력하게 해결되었다.

§. 미 담

육군본부 작전국장 **姜文奉대령**：영천전투의 전황을 파악하고자 일선에 나와 있었는데 이때에, 공병대대의 1개소대가 美軍 고문관 크라크상사와 같이 지뢰를 매설 하기 위하여 일선으로 나가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적의 공격을 받았다. 크라크상사는 공병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반격을 감행하므로써 적을 격퇴시켰으며 선두에 서서 돌격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이 광경을 본 姜대령은 다음날 이사실을 美 8군사령관에게 말해서 훈장을 달아 주고 소위로 특진시켜 주었다.

§. 참전자의 증언

제8사단 정보참모 李世鎭 소령

(64. 7. 7. 국방대학원, 증장)

사단 CP는 慈川에 있었고 제16, 제21연대는 九山洞 일대에 있었으며, 永川에서 반격전을 할 때 제10연대가 浦項에서 복귀하였다.

적이 永川에 돌입하자 우리는 琴湖江을 넘어와서 강을 경계로하여 鯉溪洞과 五峴洞에 병력을 배치 중이었는데 적은 慶州쪽을 목표로하며 우선 林浦를 공격하였다. 또 적은 아마도 우리가 大邱를 중심으로 견제(牽制)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만일 적이 永川을 돌파하던 날 1개 연대병력을 가지고 제8사단의 뒤를 쫓아서 大邱로 공격하였다면 大邱까지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永川다리를 경계로 해서 더 이상 침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낮에 수색대가 永川에 들어가 보니 피아의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고 적의 군용마필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하며 내가 차를 타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 보았는데 이때 적은 이미 없었으며 그뒤 2일간이나 없었다.

군단장은 적이 慶州로 진격하였다면 몰라도 저지당하였다면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를 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래서 적을 앞과 뒤에서 차단하고 협공하므로써 포로와 장비를 많이 얻었는데 우리는 우선 보병을 엄호하는 포병부터 먼저 포위 섬멸하였다. 또한 적이 올라오는 것도 전멸시켰다. 적의 전차도 우리 병사가 수류탄을 들고 공격하자 초가집으로 도망갔다. 우리병사들은 쫓아가서 적의 전차들을 파괴 하여 버렸다.

우리는 2일간 소탕전을 한 다음 반격하였다. 인천상륙으로 우리 제8사단은 義城부근에서 약간 전투하고 서울까지 차량행군으로 왔다.

제8사단 병기부장 李起東 소령

(1966. 12. 20. 忠肥, 예·소장)

제8사단이 永川에 있을때에 사단병기부장이 공산당으로 몰렸다. 중기관총을 釜山에서 보급 해주는데 화물차를 실은 채로 5일간이나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다. 그래서 KMAG에서 야단났다고 하면서 나보고 가 보라고 해서 갔었다.

제8사단 경비소대 朴東洙 2등병

(1966. 2. 16. HID 본부)

9월 1일 永川에서 학도병(學徒兵)으로 제8사단에 입대해서 永川역전 창고에서 교육을 받다가 河陽으로 일단 후퇴한 다음 다시 琴湖를 거쳐 永川에 투입되었다.

우리는 慶州 방면으로 남하한 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04.00에 출동하여 적 2개대대를 공격했으며 여기에서 소대장 김재근소위가 부상을 당하였다. 이전투에서 池하사가 용감하게 전투하였으며 적의 야포를 노획하고 적병 1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보급수송하는 소 두마리를 노획하였다.

方孟松 준위

제8사단 CIC에 배속되어 河陽 제2군단에 있었는데 우리의 임무는 피난민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피난민 신고에 의하여 적 2명을 잡고 보니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부산도 떨어졌는데 동무 어데로 갈려고 그러느냐 나를 살려주면 너희들도 산다"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전이 무서운 것을 알았읍니다.

제8사단 제16연대장 金義鴻 중령

(1964. 11. 19. 大韓鹽業株式會社監事室, 예·준장)

立石에서 普賢山으로 후퇴해서 방어진지를 형성하고 야간배치하였는데 적도 재편성하느라고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永川북방 2~3km지점에서 방어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돌파 당하였다. 그래서 大邱로 빠지는 뒷산에 현수배치(新興洞)하고 있었다. 제16연대가 주간공격을 하였는데 제1, 2대대로서 뒷산 우측을 공격시켰다. 이 곳에는 적 제15사단이 있었다. 우리는 전화력을 집중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병사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목표를 점령하고보니 적병은 모두가 기관총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때 제1대대장은 전사하였고 제2대대장 노병렬, 제3대대장은 崔宇根이었다.

제16연대 제1중대장 李鍾潤 증위

1965. 12. 10. 國防大學院, 대령)

대대장이 최 훈, 3중대장은 서만도 이었다.

永川돌파 후 제8사단이 琴湖江 남쪽에서 재편성하고 있었다. 적의 기갑부대가 慶州쪽으로 내려갔는데 적 보병부대가 뒤따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 …우리 제1중대와 제2중대가 방어하다가 밀려서 慶州쪽으로 와서 있는데 제5연대가 옆에 있었다. … 밥는오는데 우리는 3일간이나 헤매었다.

우리는 보급품도 받고 중대원 170명을 보충받았는데 大邱에서 1주일간 교육을 받고 배속되어 총도 쏠 줄 모르는 자들이었다.

육군탄약보급소보좌관 李鍾周 소위

(1966. 3. 7. 육군본부, 중령)

영천전투 때에 나는 육군탄약보급소 보좌관이었으며 보급관으로서는 8기생 손주경 중위가 담당하고 있었다. 나는 보좌관으로서 탄약 10여화차를 永川역전에 부려 놓았다. …불의의 기습을 받고 탄약과 식량을 적재할 시간이 없어 철수하였다. 그런데 제8사단 군수참모 全某중령이 군법회의 운운하며 즉결처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사실상 상부의 지시대로 하차만 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참모가 와서 탄약을 폭파하라고 해서 휘발유를 가지고 손중위와 같이 역전 제방까지 갔으나 적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우군 제트기가 이를 폭격했다. 다음에 永川을 탈환해서 남어지 식량을 유효하게 사용했다.

제6사단장 金鍾五 대령

(65. 3. 4~6. 합창의장실, (故)대장)

永川전투에서 劉載興준장이 처음으로 전차를 사용했으며 金容培대령이 동성(銅星)훈장을 받았다.

2군단 CP가 河陽에 있었다. 永川이 돌파 당한 후 李成佳대령의 CP는 永川가는 큰 다리 밑에 있었다.

河陽국민학교에서 작전회의를 하였는데 白善燁, 李成佳, 작전참모 李周一, 군단참모장 李翰林이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 결과는 제1, 제6, 제7사단에서 각각 1개연대를 차출하라는 것이었다. …군단장의 판단은〃제1사단과 제6사단 정면으로는 적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 적은 永川에 주공을 두고 있다. 영천이 떨어지면 다음은 釜山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광정면이라 병력도 부족하였는데 제1사단장이나 나도 1개연대는 차출하지 못한다. 만약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자신없고 白대장도 1개연대를 뺀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반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개연대씩을 차출하기로 하였다.

군단장은 美 군사고문에게 永川은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차가 필요하다. 적은 전차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대비대도 없다. 사기는 저하되어 있다. 나는 승산을 50%로 본다. 만약 전차 1개소대를 준다면 승산은 80%가 될 것이다.

2군단사령부작전참모 李周一

(67. 2. 24. 감사원, 예·대장)

永川전투시 5기생 조병흥이라고 나의 연락장

교인데 大邱에 연락을 보냈더니 육군본부가 부산으로 철수하였다고 하더군… 그래서 군단장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된 바에는 智異山으로 가느냐? 하고 한탄하였는데 결국은 永川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

제6사단. 작전참모. 梁仲鎬 중령

(1966. 12. 27. 湖南肥料.(예)준장)

예비대로 있던 제19연대를 永川전투에 투입하였다. 적 보병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포병부대가 나오는 것을 격파하였다.

제19연대 제2대대장 金旭傳

(1966. 3. 25. 육군본부, 준장)

제19연대가 永川전투 때에 제8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우리 제2대대는 제16연대장 崔宇振 장군이 지휘하는 어느 대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제일 우측부대로서 배치되었다. 우리는 적의 右측에서 배후를 공격하여 적 전차대를 격파하였다. 적은 깊숙히 永川으로 들어 간 줄 알고 우리를 적군으로 알고 있다가 우리에게 당한 것이다. 그리고 전차를 파괴한 것은 밤 중에 접근 나갔다가 냇가에 전차가 있어서 몰래 접근하여 수류탄을 전차내에 던져서 파괴하였다.

제19연대 S—3주임 朴定仁

(1965. 12. 8. 국방대학원, 준장)

2군단작전처 보좌관으로 있다가 제6사단작전처에서 1개월 있은 다음 朴柱根이가 중상을 당하자 내가 제19연대 S—3로 갔지. 永川경찰서에 있다가 적1개중대가 기습 공격하는 까닭으로 사단장이하 후퇴하였다.

美 기병사단에서 전차 1개중대가 배속되어서 내가 연락장교로 나가 전차를 데리고 永川시내에 돌입하여 괴뢰군 소탕전을 하였다. …그뒤에 제7연대가 전투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제19연대 제10중대장 康宗權 대위

永川의 琴湖江 제방에서 배치하고 있었는데 적 전차는 永川역 구내에 있었다. 적의 보병이 무슨 수도꼭지 비슷한 곳에서 공격을 하여 왔으므로 우리는 희생을 많이 당하였다. 군단참모장이 2개소대를 지휘해서 이 길이라도 방어하라고 독전하였다. 적전차는 막 포를 쏘아대는데 우리는 길을 엄호하고 있다가 적이 접령한 고지를 반격해서 접령하였다.

제19연대 제11중대 鄭寅永

(1966. 8. 26. 7사단 인사처, 소령)

대대장은 朴 철소령이었는데 대대장이 수색대를 永川시내에 침투시켜 술을 가져 오게 하여 대원들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공격을 시켰다. 永川뒤에 가면 수원지가 있고 벚꽃나무가 많고 사과밭이 있는데 술을 먹고 이 곳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제19연대 2대대 S—3 沈載益

(1966. 8. 17. 제27사단 제79연대, 대위)

제25연대에서 제5연대로 다시 제19연대로 갔다. 보충병 300명을 인솔하고 永川에 갔는데 永川이 이미 점령되어 부대를 찾지 못하였다. … 永川뚝에 부대를 배치하고 적을 공격하였는데 적 전차 한대와 약간의 병력이 南下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우리는 부대를 찾아 경주쪽으로 남하하여 부대를 찾았다.

제11연대 崔一嶸

(1966. 3. 8.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준장)

新鄕에 있었는데 제8사단이 永川을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8사단에 배속되었다.

우리가 琴湖江을 넘어 永川으로 갔는데 사단장이 상황이 불리하여 40里를 밀렸다고 말했다. 적이 서쪽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적 포병은 이미 永川이 완전점령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배치된 앞을 통과하는 것을 공격하여 섬멸하였다. 이제 피아간 혼전을 하게 되었다. 영천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는 東村비행장에 집결하였다.

제11연대 소대장 孔在鵬

(1967. 7. 19. 전투교육사령부, 중령)

우리는 八公山에 있었는데 적이 永川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美軍과 교대하고 永川으로 갔다. 우리는 永川삼거리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적 1개소대 병력을 섬멸시켰으며 노획한 무기는 국민학교에 전시하였다. 우리가 永川에서 전투할 때에 이전투에서 지면 우리는 망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투를 하였다.

제11연대 특별소대장 朴禧松 중사

(1966. 4. 28. 육군본부, 소령)

多富洞 전투후에 우리에게 3.5인치로케트포가 나와서 1주일간 특별교육을 받고 특별소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때 연대에 6문의 로케트포가 보급되었다.

적이 永川에서 퇴각할 때 사과 밭에 대치하고 있었는데 적전차 4대 가오는 것을보고 공격한 다음 강을 건너와서 연대장을 만나게 되었으며 연대장은 대성공이라고 격찬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다음 八公山으로 갔다.

제11연 2대대 통신병 李元純

永川전투때에 SCR—300 통신병으로 있었다. 우리는 永川에서 3km 떨어진 慶州가는 도로 쪽에 있었으며 적은 산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제6. 제7중대가 적과 교전하고 있었다. 여기에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와의 거리는 300~400m 되었으며 여기서 우리가 패전하였다. 여기에서 중대장도 없고… 분산 되었다. 적은 전차 3대와 포차 7대가 있었고 해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무전기를 숨겨 놓고 숨어 있는데 전차병이 威鏡道 말로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대대를 찾아갔는데…다시 적진에 들어가 무전기를 찾아 가지고 와서 무사 했읍니다.

(1965. 12. 8. 국방대학원, 대령)

제5연대 장 崔昌彦 중령

(65. 12. 8. 국방대학원, 중장)

당시에 보충병(補充兵)이라는 것은 중학생복을 입고 노동자는 노동복을 입은 채로 운동장에서 M1소총탄 장진법과 사격법을 가르쳐서 배치시켰다. … 우리가 제11연대와 교대를 했는데 永川이 위험하다 하므로 大邱에 있는 부대를 지휘하여 永川으로 갈려고 하는데 다음 날 참모총장이 永川지역을 제5연대가 방어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대대장도 없었으며 장교라고는 작전참모와 통신참모 그리고 연대장인 나 뿐이었다. 내 부대는 군복도 입지 못한 부대였다. 그리고 申尙澈 사단장의 부대가 대구에서 새로 편성되어 왔다. 제7사단 예하 부대가 오니까 永川을 출발하라고 하였다. … 이것이 永川이 뚫어지던 바로 전날 밤이다. 제5년대의 2개 대대가 大邱—永川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기로 되였는데 제1대대가 도착을 했고 다음에 제2대대가 학교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제2대대가 차를 타고있을 때 속사포(速射砲), 발총을 쏘고 응사하였는데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잃었던 차를 다시 되찾았다.

다음날 부대를 수습해서 永川위에 가서 방어진을 치라는 지시를 받고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永川이 뚫였던 것이다.

永川이 뚫어진 다음날 12.00경에 美軍 수송대가 永川을 지나 乾川과 浦項방면으로 美軍하나가 적의 기습을 받았으며 그때 부대가 녹았지요.…

우리 제5연대가 乾川을 돌아서 갔는데 乾川에서부터 나는 제7사단장의 지휘 하에 들어 갔다.

제19연장 金益烈 대령

(66. 11. 29 자택 증장)

永川전투는 金익순 장군이 잘 싸웠다. 大邱로 오는 산에다가 부대를 배치하고자 집결하라고 말한 다음 02.00에 현장에 가보니 아무도 없네. 잠시후에 병정들이 오기에 불러 보았더니 인민군이라 그때 부상을 당해서 걷지도 못할때라… 그래서 뒤로 떠가지고 金익순이를 만나서 집결지점에 집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집결했다는 것이다. 통신선을 따라서 가 보니 적의 후방에 들어 간 거야 적은 밥을 먹고 있어서 우리는 기다렸지 04.00시경에 보니까 주력부대 다음에 추적, 마차, 손수레등 후속부대가 따라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뒤에서 포를 쏠테니 너는 기관총을 가지고 해치우라고 말하고 이를 공격해서 1개대대가 사단 군수부대를 해치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300만원인가 상금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수한 얘기야. 이 전투는 적이 된 지도를 金익순이도 꺼꾸로 붙여 놓고 그렇게 했어 그때 민간인 한 사람을 잡아서 3,4路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어서 들어간 것이지

首都사단 18연대2대대장 鄭昇和 대위

(64. 8. 28. 7사단 CP. 소장)

九知洞, 非鶴山에서 전투를 하다가 永川으로 후퇴했다. 永川에서 다시 우리 연대는 慶州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리 연대는 명령없이 후퇴한 적이 없고 아주 건재 하였다. … 慶州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연대의 후위로 갔으며 永川에서 5~60里 갔을 때에 명령을 받았다. 제 2 대대는 永川에 있는 제8사단의 명령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永川을 가 보니 적에게 함락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제21연대로 배속되었다. 우리가 배속된 다음 날 영천이 점령되었다. 우리는 제21연대와 같이 영천북방 義城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적의 공격을 받었다. 이지역은 낮에는 아군 밤에는 적이 점령하였다. 한 이틀 후에 적의 후속부대와 우리부대가 서로 치열한 전투를 하였는데 그때에 1개 연대로 알고 있었는데 2개 연대가 섬멸 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의 지원부대는 永川쪽으로 맹목적으로 진진하더군. 그때 하루에 야포를 몇 10문씩 노획한 줄 안다.

4. 國立警察의 活動狀況

참조 : 별책부도 제29호

가. 大邱防衛司令部의 설치

전선이 洛東江선으로 남하함에 따라 적 제2군단의 4개사단(제5, 제8, 제12, 제15사단)이 浦項과 慶州, 그리고 永川에 대한 정면 공격을 시작하고 있을 당시 이 군단의 나머지 부대인 제1, 제3, 제13사단의 3개사단은 大邱를 목표로 하여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적 제3사단은 倭館에서, 그리고 제13사단은 尙州—大邱간 도로의 西측방에서 능선을 타고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제1사단은 이 도로 東측방의 능선을 따라 大邱를 향하여 그 예리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때 大邱를 중심으로하여 굳게 지키고 있던 美 제1기병사단은 적의 주 접근로에 선견(先遣)진지를 점령케 하고 그 후방에는 3개연대를 배치하여 주 저항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7월 24일 : 이와 같이 전세가 위급하게 되자 임시로 大邱에 이동하고 있던 육군본부에서는 동일부로 보병 제2사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육본직할대로서 大邱 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사령관에 제2사단장이었던 李翰林 대령을 임명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사령부는 다만 기구만 마련된 것이고 실질적인 병력은 없었으므로 大邱방어를 위해서는 각 도에서 집결한 경찰병력과 청년방위대 그리고 일부 후방부대의 병력으로서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3일 뒤인

7월 27일 : 이날 이 새로운 사령부에서는 방어작전을 위하여 처음으로 군경연석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는 군부측에서 사령관 李翰林 대령과 참모장 李奇健 중령, 그리고 보좌관 朴金潤 중령이 출석하였으며 경찰측에서는 비상경비 총사령부(내무부치안국) 참모장 崔致煥 총경, 동원참모 李成雨 총경과 그리고 朴忠根 경감과 慶北경찰국 보안과장 宋寬洙 총경외 2명이 참석하는 한편, 청년방위대 고문인 張錫倫대령과 포병단 통신대외 각 관계부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大邱방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약 40분간에 걸쳐 토의한 결과 군경을 총동원하여 전 후방내의 경비와 치안을 각각 분담하여 大邱방어계획을 담당키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

8월 1일 : 방위사령부에서는 8월 1일경에 우선 大邱 東村 비행장에서 大邱 방어 및 八公

山지역에 대한 경비를 위해 경비대대를 창설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병력은 주로 大邱시내에서 갑자기 모병한 신병들로서 먼저 대대편성을 실시한 후 대원들에게 日제 99식소총을 공급한 다음, 훈련은 각자 현지에 배치되어 가지고 소대단위로 실시키로 하였는데 그들의 주임무는 우선 보초 근무에 치중케 하는 것이었다.

이들 경비대대는 적과의 접전은 별로 없었으나 그래도 미약한 장비와 미숙한 훈련으로 끝내 大邱에 있어서의 비상경비의 책임을 다 하게 된 유일한 육군부대가 되었다 그리고 大邱경비에 있어서는 이 밖에 청년방위대와 경찰부대의 활동도 또한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

8월 7일 : 초대 大邱방위사령관인 李翰林 대령은 동일부로 제2군단 참모장으로 전임되고 동월 10일부로 헌병사령관인 宋堯讚 대령이 사령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9월 8일 : 그후 워커(Walker)중장은 大邱방어의 실질적인 책임을 정규군보다는 차라리 치안담당자인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후 大邱방어사령관직을 慶北경찰국장이 인수하게 만들고 사령관에는 趙俊泳경무관을, 그리고 참모장에는 宋寬洙총경이 각각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邱의 위기가 박두하게 되자,

9월 10일 : 美 8군사령부에서는 大邱방위의 지휘 단일화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2일 후인 이날에는 또 다시 개편하여 大邱 방위사령관에 당시 전시특명검열관 보좌관이던 閔機植대령을 임명하고 경찰의 방위업무를 인수케 하여 大邱 방어에 대한 책임을 단일화하여 군에서 전적 책임을 맡게 하였다.

나. UN군에 한국경찰대 배속

적의 남침으로 정부가 임시 大田에 머므르고 있을 7월 중순 경 李承晩대통령은 전국평정회(戰局評定會)를 개최한 석상에서 내무부장관 申性模이 자진하여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하여 그 후임을 물색한 결과 7월 15일부로 대통령은 趙炳玉을 내무부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는 美軍政 당시 경무부장으로서 해방 후의 복잡한 국내치안을 수습하는 중책을 맡아 건국대업에 공이 많았던 것이다.

그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하였을 당시는 정부가 이미 서울에서 남하중이었고 국립경찰의 총인원도 개전당시에는 약 25,000명이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13,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장비도 칼빙 소총등으로 겨우 6,000정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전시하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력의 증강은 긴급한 당면문제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임 趙炳玉 장관은 경찰력을 65,000명으로 대폭 증강할 것을 계획하고 大邱와 釜山지구에 경찰관훈련소를 설치한 다음 이해 말 까지는 강력한 경찰군을 재편성할 것을 목표로 삼아 이를 착착 진행시켰던 덕택으로 이해 말에는 총인원이 48,010명으로 증강하게 되었다.

특히 장비문제에 대하여서는 미8군사령부 참모장 앨런(Leven C. Allen)소장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M1, 칼빈, 경기(輕機), 중기(重機), 박격포등 70,000여에 달하는 많은 무기의 보급과 아울러 피복등도 충분히 보급 받아 시급하였던 당면문제를 일단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永同 전선을 시찰하였을 당시 적의 유격대가 피난민을 가장한 후 전선후방으로 침투하여 기습과 후방교란 작전을 자행할 우려성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당시 전방에 배치되었던 UN군들은 우리나라의 지리와 언어에 대한 부족과 불편이 많았으므로 이 문제를 도와 주고자 워커(Walker)사령관에게 우리나라 경찰을 UN군부대에 배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적은 洛東江 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는 한편 후방의 민심을 어지럽게 하며 一擧에 釜山 교두보를 장악하려고 오열(五列)과 게릴라들을 후방에 침투시켜 전선을 교란시켜 왔던 것이다.

따라서 UN군에게 미치는 위협과 손실도 매우 컸으므로 UN군의 각 대대와 중대에 대하여 韓國 경찰대를 배속시켜 동역과 오열의 색출, 그리고 탄약집적소의 보호등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하였던 것이나 워커(Walker)사령관은 UN군의 편제와 제도상에 있어서 이제까지 그러한 예가 없으므로 매우 곤난한 일이라 난색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월 23일 美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永同에서 적의 게릴라에게 습격 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되자 趙炳玉 장관은 재차 워커(Walker)사령관에게 韓國경찰을 UN군에 배속 시켜 줄 것을 역설하였던 바 워커사령관도 앞으로 적 게릴라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대비하고자 美 국방성에 이 사실을 건의하였더니 UN군 부대에 韓國 경찰대를 배속할 수 있다는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5,000명의 韓國 경찰대가 UN군에 배속하게되어 적의 게릴라 침투에 대한 방지와 소규모의 전투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UN군 작전에 협동하게 되었다.

다. 洛東江방위를 圍繞한 국립경찰의 활동

(1) 일반적 상황

8월초에 洛東江선에 진출하게 된 적의 제2군단은 大邱 공략을 목표로 필사적인 공세를 취하여 일거에 大邱를 점령코자 大邱 外廓 지대에 대하여 압력을 가중하고 있어서 전 방어전선은 피아간 일진일퇴하는 대결전(大決戰)으로 말미아마 전황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급변되고 있었다.

永川 및 慶州 전선도 大邱의 사활을 좌우하는 상황으로 급변되어 적군은 韓國군 제1군단 및 韓國군 제2군단 부근에서 매일 일대 소모전이 계속되는 동안 민심은 점차로 불안과 긴장속에 놓여 있었다.

한편 西部전선은 美 제1기병사단의 선전(善戰)에도 불구하고 大邱의 西北部를 크게 위협 중이 였고, 西南部전선은 美 제25사단이 적 제6사단의 공격을 馬山 西측방에서 韓國 해병대와 같이 이를 저지하고 있었으나 적의 공세가 날로 가중하고 있어 전세는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

또한 적의 유격부대는 大邱 외곽 八公山에 80여명을 침투시켜 大邱시내의 잠입하여 기습을 기도하며 120mm 박격포로 大邱를 위협함으로써 大邱시민으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하고 大邱 東村 비행장을 점령코져 하는 야욕을 포기치 않고 계속 민심교란을 획책하고 있었다.

특히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열의 책동은 날로 심하고 더욱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므로써 아군의 사기저하를 획책하고 있었다.

(2) 비상경비 사령부의 작전방침

1950년 7월 27일 大邱지구 방위사령부에서 수립한 大邱 방위계획에 따라 군경의 임무구분을 확정시키고 국립경찰은 더욱 그의 임무를 강화하며 대공투쟁의 기본임무를 崔致煥 총경의 지휘 하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직접 전투행위에 임할 요원은 군대경력보유자와 전투경험이 풍부한 자 및 대공전투 의식이 강한 정예 경찰관으로 하여금 독립전투대대를 편성하여 전투정면을 담당한 UN군 및 우리 국군에 배속 종군케 하거나 전략거점 및 중요시설경비임무에 충당케 한 바 그 편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편성표참조)

둘째, 일반경찰은 전투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등으로서 철수한 각 시·도 경

찰국장 지휘하에 각 경찰서장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방위상 필요한 지역에 고정 배치하고 그 임무는

(가) M. S. R. 경비

(나) 거점방위 및 중요시설 경비

(다) 피난민 구호와 통제활동 및 작전지구 주민 소개(疎開)

(라) 철도 및 교량경비

(마) 항만시설경비 및 총기단속

(바) 요인경호 및 적성인물 사찰 강화

(사) 교통정리 및 야간통행자 철저 단속

(아) 오열색출 및 유언비어 단속

(자) 매음부들의 흑인병사에 대한 군경 권총 요구로 인한 흑인병사의 군경 권총 탈취 방지 조치의 철저



<치안국 비상경비 사령부에서 작전계획을 설명하는 崔致煥총경>

(차) 결인퇴치 및 격리수용감시

(카) 군·경·검(軍·警·檢)합동 대공수사대 설치 및 포로심문

등등을 맡게 함으로써 후방치안의 완벽을 기하여 총력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일면 전투일면 치안확보를 하도록 예하 전경찰의 각급 단위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동시 8월 1일에는 일부 경찰국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군과 같이 전투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전투대대와 일반경찰부대에 대한 방어배치도 단행하여 大邱방위에 결사적인 대비태세를 완비하여 차기 작전에 대비하였다.

(3) 작전상황 개요(별책부도 제29호)

비상경비 총사령부는 주군 및 UN군 당국과 일사불란한 협동체제를 확립하고 예하 각급 부대의 전투력강화와 부과된 임무완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공작전에 전념하였다.

특히 총사령부는 편성된 부대병력의 무단 전용(轉用)을 엄금하는 조치와 무저항 무단후퇴 및 임의철수에 대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선포하여 종래의 경찰의 주관적 관념을 일소하고 오직 국난타개에 결사적 대적행동만 있을 것을 명시하여 군경일치의 大邱방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 大邱지구 방어전

8월 1일 : 경기도 경찰국장 韓眞錄 경무관은 전방지휘소를 瓦村에 위치케 하고 예하 병력 중에서 제1대대 제2대대를 珍良에 배치하여 大邱외곽 방어에, 제3대대를 瓦村에 배치하여 玄風 지구 방어에 임하게 하고 제5대대는 溝道에 배치하여 八公山지구 방위에 각각 임하도록 하였다.

충남경찰국장 沈宇澤 경무관은 星州 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제6대대와 충남부대를 지휘하여 그 방면의 적을 섬멸케 하고 慶北國, 총경은 高靈 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서울 제7대대와 慶北부대로 하여금 그 지구의 적군을 대적케 하였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大邱 시내에 120mm 적 박격포탄이 13발이나 투하되어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사태까지 하였다.

8월 6일 : 후퇴한 전 경찰국장은 비상경비사령관으로서 작전 전투구역을 설정하여 필요에 따라 예하부대를 배치하여 현지 군경과 완전협동작전에 임하게 하고 한편 전투교육과 경비임무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찰전력강화와 병행하여 통수계통의 확립으로 유기적인 방어작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서울시경찰국장 李益興이사관
지 휘 소 城北지서
漆 谷 1개대대
城北지서 1개대대
京畿道경찰국장 韓景錄경무관
지 휘 소 瓦村
瓦 村 제2대대
珍 良 제1대대, 제2대대
清 道 제3대대
忠南경찰국장 沈亨澤경무관
지 휘 소 公山
公 山 예하 2개대대
忠北경찰국장 鄭泰燮경무관
지 휘 소 枝川
枝 川 예하 2개대대
慶北경찰국장 趙俊泳경무관
新洞, 漆谷. 예하대대
楊弘植총경대대 琵瑟山의 적 30명 공격
辛相默총경
지 휘 소 月背
月 背 예하병력과 月背지역경찰
江原경찰국장 尹明運경무관
지 휘 소 慶州
예하병력 아군 제1군단배속
金泉山정위부대 普賢山지구 적공격
全南경찰국장 金應權경무관
全北경찰국장 尹基炳경무관
지 휘 소 鎭東里
예하병력 美 제25사단 배속
鐵道경찰본대장 田得秀경무관
지 휘 소 大邱
전 병 력 철도호송임무
예하참모 鮮于宗源경무관
수사 및 정보경찰관으로 五列 및 용공분자색출임무
濟州경찰국장 李成株경무관
자체방위임무

8월 10일 : 10월과 11일 양일간에는 적이 재차 洛東江을 건너 琵瑟山에 침입하고 다른 적 1개대대는 大邱 西쪽 枝川面 七田里에 잠입하여 大邱 침공의 전기(戰機)를 노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정황에 당면한 국립경찰은 비상전투태세에 돌입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하였다.

즉 大邱시내 및 외곽주둔 전 경찰부대를 비상대기케 하여 시내 및 외곽검문검색에 주력케 하고 경찰전문학교 전 교육학생부대에게 출동준비를 대기케 하는 동시에 慶北경찰국장을 大邱방위 기간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枝川面 大田橋 부근 고지에는 七田에 침공한 적에 대비하여 忠北 제11대대가 증원 되었다. 한편 洛東江을 도하한 적은 琵瑟山에 침공 집결 중이었고, 永川쪽에서 金門山에 침입한 적 약 2개대대병력은 大邱후방을 위협하고 있었다.

8월 14일 : 적은 大邱—釜山간의 철도 차단을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경찰대대는 급거 철도연변산악지대에 대한 탐색전을 벌리면서 慶北 1개대대, 慶南 1개대대를 淸道와 密陽에 진

출케 하여 철도경비를 담당함으로써 적의 차단기도분쇄에 성공하고 계속 침공하는 대적조치에 전력을 기우렸다.

한편 昆陽山에는 적의 침공작전이 계속됨으로 忠南병력 1개대대와 慶北 제25전투대대가 협동작전케 하여 大邱 西南측방 기습을 기도하는 적에게 철저히 대비 조치하고 昌寧방면에 침공한 적 1개대대는 계속하여 密陽을 기습코자 획책하여 왔으나 慶南경찰대와 全南경찰대의 협동작전으로 적의 기도를 분쇄하여 大邱—釜山간의 중요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군수수송 작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8월 15일 : 永川—新寧을 연결하는 아군 제6사단의 구역 내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군경의 대혈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이때 新寧 南쪽 渭道 국민학교에는 20,000여명의 피난민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신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침투하여 오는 오열을 색출하는데 자발적인 애국적 활동을 하고 있었고 더욱 UN군과 우리 군경의 승전을 위하여 교정에서는 구국의 기도 소리가 매일 계속되고 전원이 옥쇄(玉碎)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일보라도 피난을 위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고 우리 군경전투부대에 자진협조하며 전중사역이나 진지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군경민의 일치단결된 행동을 발휘하였음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애국적인 장거로서 후세의 우리들이 크게 본 받을 만한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八公山 방어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京畿 제5독립대대장 金隱洋 경감은 전공으로 사상된 식우(食牛)를 전 전투대원들의 합의를 받아 자신들이 매일 1식을 결식하여 모은 것을 이들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난민들은 불철주야 대공활동에 더욱 협력하였던 것이라고 하니 이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대민구호 활동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을 사랑하는 애족적인 처사로 인해 전 피난민들은 永川의 위기와 大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작전 중인 우리 군경을 신뢰하고 반듯이 승리한다는 확고부동의 신념과 자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경찰전투대대가 전투정면을 담당하는 전투로 돌변하자 大邱 외곽을 방위 중이던 국군병참단, 대전차포단, 통신대대는 작전상 전진(轉進)하게 되어 병참단 전투구역에는 서울 제7 전투대대와 전차포단 전투구역에는 慶北 전투대대 그리고 통신대대 방위구역에는 慶北 1개중대 및 忠南 1개중대와 忠北 2개중대로서 아군 제2군단장의 지휘구역 내에 두

고 본격적인 전투임무를 담당 하였다.

8월 24일 : 架山 902高地에 침공한 적 1개대대는 아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이미 배치된 경찰전투대대와의 합동작전으로 적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美 제1기병사단과 아군 제2군단 정면에서는 날이 갈수록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漆谷 지구의 부대교체를 위하여 淸道에서 주둔중인 慶北 경찰대대가 임무수행 중인 忠南경찰대대와 임무교대하고 다시 서울경찰 1개대대가 증원되어 연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상황속에 직면케 되자 그 지구의 전투임무수행상 통수계통의 정비강화를 위해 京畿道경찰국장 韓景錄 경무관은 八公山 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관할 구역내의 전 경찰병력을 다음과 같이 통합지휘케 하였다.

사령관	韓景錄 경무관
참모장	文錫濤 총경
제 6 전투대대장	田鳳秀 총경
제 8 전투대대장	崔正得 경감
제 9 전투대대장	柳忠烈 총경
제13전투대대장	金會東 총경

9월 1일 : 8월 15일 제1차 총공격전에 실패한 적군은 大邱방위 정면이 견고함을 인식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아군 제8사단 정면에 대하여 총공세를 가하는 반면 美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西部전선에 필사적인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大邱방위는 사실상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 매일 계속되었다.

9월 1일 03.30 암야를 이용하여 玄風 지구에 침공한 적 1개대대는 09.30 珈琵寺 방면에 대비 중인 우리 경찰대대와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 11.00에는 美 공군전폭기의 공중지원을 받아 적을 타격하였다. 그러나 적은 琵瑟山으로 진출하여 능선에서 경찰전투부대와 공방전이 계속 되었는데 육군의 吳昌根 중령의 통합지휘구역 내에 楊益植총경은 예하대대와 증파된 忠南 전투1개중대와 9월 3일 국립경찰전문학교 학생으로 편성된 青龍대대 제1중대와 UN군전차대 및 보병부대와 협동작전하여 琵瑟山지구 282高地, 604高地, 592高地등에서 침공한 적을 완전 섬멸하였다.

또한 崔正得 경감이 지휘하는 경기 제8전투대대는 永川東쪽 采藥山에 침투한 적 유격

대와 격전을 거듭하여 議政府—鶴山간의 보급로와 철도를 차단하려는 적의 기도를 좌절케 하는 전공을 세웠고, 第五師 총경이 지휘하는 江原道 전투대대는 李輔燮총경의 忠北전투대대 李康學경감의 忠州전투대대 및 金世鎭 경감의 1개대대와 협동작전을 실시하여 아군 제1군단의 지휘구역내에 安康 부근에 침공하는 적군과 격전을 거듭하여 忠州방위에 있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되었다.

아군 제2군단에 배속 중인 金德潭 경감의 京畿 제5독립전투대대는 八公山 東측의 산악지대를 뚫고 大邱에 기습을 사하려는 적 1개중대와 연일 치열한 산악전을 계속하여 적을 전멸시키는 일방 적의 군관 중위 1명, 소위 1명, 인민의용군 소위 2명, 정찰병 1명, 인민의용군 9명, 보안대원 1명, 적의 계릴라 정찰대원 4명 등을 생포함으로써 적의 공세 기도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軍威 경찰대대는 八公山 西쪽을 담당하여 大栗洞 방면에서 침투하여 오는 적군과 교전을 계속하여 적의 진출을 분쇄하였다.

한편 적이 八公山에 집요하게 침투함에 따라 八公山 경찰전투사령부는 예하 전투대대를 東村 비행장 北쪽에 목수배치하여 비행장 점령을 획책하는 적을 대비케 하고 蔡元植경감으로 하여금 중화 기교육훈련소를 담당케 하여 공용화력 교육에 전력케 하여 차기작전에 대비케 하였다.

적은 제4차 작전이 좌절되자 적의 공격태세도 둔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후의 승리를 호언하는 金日成의 침략당상은 좀처럼 버리지 않고 침공하여 옴으로, 이에 대비하여 총사령부는 일부 경찰지휘관과 부대를 다음과 같이 재배치하였다.

서울	제 9 전투대대장	柳忠烈 총경	大邱주둔
忠北	제11전투대대장	金大玉 총경	陜川주둔
忠南	제12전투대대장	金鍾大 총경	林川주둔
全南	제24전투대대장	金光燮 총경	金山주둔
慶北	제25전투대대장	楊弘植 총경	大邱주둔
慶南	제36전투대대장	姜信昌 총경	金山주둔

9월 2일 : 아군 제2군단에 배속되어 八公山지구에서 분전 중인 京畿 제5독립대대장 金德潭 경감은 2개중대의 증원병력을 통합하여 전병력의 절반으로 계속 八公山 전투를 수행하는

동시 美 제1기병사단에 나머지 대대주력을 배속하라는 긴급작전명령에 따라 大邱西北方 東明지구에 진출시켜 美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격전을 거듭하였다.

9월 5일 : 적의 9월초의 공세가 시작하여 大邱 北쪽 美 제1기병사단의 전선후퇴와 또한 9월 5일 永川에 적이 침공하여 大邱의 방어문제가 사실상 불리하게 되자 美 제8군사령부와 우리 국방부 및 육군본부가 부득이 釜山으로 이동하게 되자 大邱시민과 피난민들의 불안과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긴박한 사태의 따라 趙炳玉 내무부장관은 金泰善 비상경비 총사령관 및 각 참모를 내무장관실에 소집하여 비상사태를 논의하고 경찰이 지향할 바를 비상훈령으로서 전경찰에게 시달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大邱시의 방어는 崔致煥총경의 지휘하에 大邱시내의 5,800명의 경찰관과 전투경찰 10,000여명은 총결속하여 육군에 남은 현병 文鍾郁 대위와 美軍 크로오중령, 그리고 美軍 하사관 1명만이 남아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대구를 고수하게 되자 전방 장병들은 더욱 용전분투하여 大邱의 포기를 모면하게 되고 정국의 수습에 일대 용단을 내려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9월 8일 : 永川 지구에서 실시된 공방전은 대결전으로 급전하여 大邱방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하였다.

적은 大邱의 후방을 차단하고자 雲門山, 采藥山, 九龍山에 침투하게 되자 경찰부대는 이에 대비하여 雲門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투사령관에 韓景錄 경무관, 참모장 朴桂炫 총경, 작전참모 都鍾煥 경위를 각각 임명하고 淸道, 慶山, 永川, 慶州, 지구에 주둔 중인 서울, 京畿, 慶北, 忠南경찰국 경찰병력을 재편성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이때 慶北 高尙瑗경감이 지휘하는 永川 경찰대대는 永川에서 방위 중이었다.

9월 12일 : 아군 제2군단 장병들의 용전으로 말미아마 永川이 탈환되자 최감을 자랑하던 적 제15사단 주력은 분쇄되고 적병들은 普賢山 부근으로 패주하였다.

9월 14일 : 昌寧경찰서 전병력과 50명의 증원병력 및 美 제2사단 예하부대는 군경합동작전을 감행하여 昌寧을 탈환하였다.

9월 15일 : 8월 15일 UN군의 요청에 따라 朴正俊총경을 대대장으로 제1중대장 李根複경감 제2중대장 全璿漢경감 제3중대장 文鶴東경감을 임명하여 花郎部隊로 명명하고 美 제10군단 보병 제7사단에 배속하여 釜山에서 수송선편으로 도일(渡日), 日本 후지산록(富士山麓) 고덴바(御殿場)의 기지에서 1개월간 특수교육을 받은 다음 9월 15일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서울, 水原, 龍仁등지에서 美 제7사단의 임무 중 일부를 담당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다시 북진작전에 대비하였다.

9월 18일 : 지금까지 大邱 침공을 기도하던 적군도 아군의 仁川상륙작전의 성공과 아울러 그간 각 전선에서 심한 피해를 입은 다음 패주하게 되자 大邱의 위기는 일단락되고 그동안 경찰은 약 2개월간에 걸친 大邱 방어의 임무를 완수하고 大邱 시민들로부터 국립경찰로서의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었다.

(나) **西南部지구 전투**

西南부지구의 방위전선은 파죽지세로 湖南 일대를 침공한 적의 주력은 釜山을 공략목표로 하고 적제6사단은 鎭東을 사이에 두고 아군은 UN군 제25사단, 한국군해병대와 全南경찰국, 全北경찰국과 적에게 점령 당한 慶南 西部지구 경찰병력으로 하여금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하여 慶南경찰국장 崔天경무관, 全北경찰국장 尹基炳경무관, 全南경찰국장 金應權 경무관 등이 협동지휘하며 UN군 제25사단과 합동작전의 만반태세를 완비하여 대치하고 있었다.

8월 3일 : 鎭東전투는 8월 3일부터 피아간 격전이 시작되고 UN군은 적의 기습을 받아 당황하고 있을 때 慶南 晋州경찰부대는 기습한 적에게 반격을 가하여 심한 타격을 줌으로써 적은 격퇴되고 UN군의 사기도 회복되었다.

8월 6일 : 조국의 운명을 걸고 격전을 거듭하던 洛東江 방어전이 매일 계속되고 있는동안 全南 谷城경찰서장 韓旼日경감이 지휘하는 이른바 韓旼日 유격대대는 7월 29일 적 3개중대를 3시간동안 鴨綠에서 기습 공격하여 적 52명을 사살하고 싸이카 5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고 적을 격퇴시켰다. 또한 치명적 손실을 입은 적은 동일 14.00에 1개대대의 증원병력으로 반격하여 와서 일대 공방전을 버리다가 韓旼日부대는 735高地로 전술상 철수하여 차기작전을 대비중 8월 6일 미명에 韓旼日부대는 적 1개연대의 포위공격을 받았으나 동 대대는 지형지리에 능한 조건 하에 적을 유인하여 격파함으로써 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아군도 40여명의 장렬한 전사자를 내지까지 되었으나 대원들의 사기는 좀처럼 굴하지 않고 용전하였다.

이렇게 용감히 전투를 독자적으로 지휘한 韓旼日경감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관에게 전투상황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금후의 무전 통신 여하는 이번 전투의 승패를 결정함, 대한민국 동지들의 전투를 기원함"이라고 비장한 최후의 무전을 타전하고 나머지 생존대원을 인솔하여 全南 智異山으로 입산하여 대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전대원들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적의 보급로를 기습하여 전선으로 수송되는 적의 병참물자에 많은

손실을 주는 동시에 적의 집결지 혹은 거점을 기습 공격하여 南침한 적을 크게 곤난하게 만들고 9월에 실시된 대반격전까지 白雲山을 근거지로 하여 유격전을 반복함으로써 적 후방에 일대 위협을 주는등 적의 전투력을 크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谷城의 확보는 아군의 총공격시에 있어서 전선연락과 적의 거점 점령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한 것으로서 이 용감한 투쟁이야말로 실로 전국립경찰의 귀감인 동시에 그 공훈은 길이 빛나고 있다.

8월 7일 : 鎭東 전투에서 우리 군경의 예기치 않았던 반격을 받게 된 적은 8월 7일부터 증강된 병력으로 咸安을 점령하고 五峰山을 중심으로 점차 이부근에서 반격전을 감행하고 있는 UN군과 경찰대를 포위 섬멸코저 시도하므로 加耶 방면으로 철수하여 전방사령부를 山仁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적군과 대치하여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8월 8일 : 全南경찰 전투대대장 金容來 경감이 지휘하는 1개대대가 정찰활동을 하던 중 西村 東측 지구에서 적군 200여명과 조우하여 3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적 사살 30명 포로 1명 중기 및 경기 각 1정씩을 노획하고 격퇴시켰다.

8월 12일 : 寬天 慶南경찰국장은 14일까지 지극히 불리한 상황속에서 악전고투하며 적과 격전을 벌렸으나 統營과 固城은 세부족으로 그만 실함되고 말았다.

8월 19일 : 金東鎭 경위가 지휘하는 全南 경찰 중화기특수전투중대는 19일 19.30 적2개 중대와 조우하여 격전 끝에 적사살 30명 다발총 8정의 전과를 올리는 한편 적 제15연대장중좌 李東彬외 2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적은 또다시 馬山공략을 집요하게 획책하는 한편 최후 발악적인 총공격을 감행하고저 하므로 美 제25사단과 우리 전투경찰부대는 적의 기도를 분쇄키 위하여 鎭東, 固城, 昌原지구를 UN군과 협동작전중인 慶南경찰대 玄德輝경감의 1개 전투대대와 金源湧 경감의 1개 전투 대대 및 金萬壽 총경의 全北 1대전투대대 그리고 曹在容총경의 全南 1개 전투대대에 全南 2개전투중대가 증원되어 法守—咸安 間山嶺의 743 高地등을 연하여 적과 날로 격전이 계속되었다.

특히 間山嶺은 馬山방어에 있어서 중요 거점으로서 천인의 동굴과 광굴(鑛窟)이 많아서 적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아군 진지에 공격하여 와서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다. 그리고 UN군도 전투경찰부대의 분전을 목격하고 추되를 단념하면서 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1일 : 적은 9월 1일을 기하여 馬山을 목표로 총공격을 시작하였는데 마침 이날은 폭우와 안개가 끼어 싸움에 지장이 많았다 적은 악조건을 이용하여 독전대의 악질적인 독

전을 받으며 필사적인 침공을 감행하여 美제24연대의 인접부대와 우리 경찰부대는 부득이 眉山嶺에서 철수하자 적은 馬山北방 12km지점인 昌原郡 漆西面까지 진출함으로써 전국은 극히 비관적인 상황으로 돌변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부 망국적인 자들은 해외로 밀항 피난하는 추태까지 벌어졌으니 자기만 살겠다고 날뛰는 이러한 족속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회는 어지러워 졌으나 그래도 뜻있는 애국인사들은 전선에 달려와서 비록 군인이나 경찰관은 아니더라도 종군하겠다고 많은 학생과 애국청장년들이 자진입대 혹은 보급수송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리하여 大邱, 馬山방위에 있어서 UN군과 국군 및 경찰은 최후의 결전을 감행하여적의 최후적인 공격을 분쇄하였다.

9월 15일 : 맥아더(Mac Arthur)원수가 지휘한 仁川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자 전전선에서 적군은 일거에 총붕괴되고 적은 드디어 후퇴를 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경찰부대는 총공세로 전이(轉移)하여 적의 퇴각로를 차단 혹은 포위하며 추격전을 거듭하여 적을 섬멸하고 전 洛東江 전선에서 획기적인 전과를 거두었는데 우리 경찰대도 고귀한 희생자가 많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9월 17일 : 美[illegible]昌 총경이 지휘하는 嶺南 36전투대대(작전참모 崔哲鎬경감) UN군의 전투정보에 의거 馬山을 출발 昌寧 火旺山과 [illegible]에 진출하여 적이 방심하고 천막 속에서 음주방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야음을 기다려 막사 주변에 잠입하여 천막줄을 일제히 끊어놓자 천막이 갑자기 내려 앉으니 적군은 당황하여 내려 앉은 천막 속에서 아우성이 벌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들끼리 서로 총격전을 벌려 혼란상태 속에서 자멸되는 순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찰대는 일제히 공격하여 적군 1개중대를 전멸시키고 다시 火旺山산록 觀音寺 에서 적의 군관 1명과 적병 10여명을 사살하고 권총 1정, 소총 15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고 宜寧, 陜川으로 적군을 계속 추격하여 아군의 일대 반격전에 있어서 독자적인 진격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다) **東海岸지구전투**

8월 1일 : 東해안 江口에는 아군 제3사단이 적5사단과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盈德경찰부대와 尹明運 江原경찰국장이 지휘하는 제1및 제2전투대대(작전참모 孫繼天경감)가 배속되어 연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피아간 일진일퇴의 숨막히는 격전이 거듭되었다.

江口의 332高地에서 사수하고 있던 盈德경찰부대에 대하여 적은 희생과 소모를 무시한 공격을 20여차나 계속하여 피비린내 나는 육박전이 전개되어 피아의 손실은 날로 증가되고 있었다.

江口방위전에서 우리 국군부대의 견인불굴한 방어와 우리 경찰대의 물샐틈없는 군경합동작전은 드디어 적으로 하여금 8월 10일 일단 후퇴케 하였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는 다음 전과와 피해로서 증명되고 있다.

전 과		피 해	
적 사 살	350명	전 사	5명
포 로	82명	전 상	4명
박 격 포	3문	소 총	5정
중기관총	5정		
경기관총	10정		
소 총	86정		

8월 11일 : 浦項에 적이 침공하여 옴으로써 浦項北方——江口사이에서 전투 중이던 우리 군경부대는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 지구에서 교전 중이던 우리 江原 제1대대는 長沙洞으로 江原, 原州 대대는 七浦로 이동하고 盈德경찰대는 여전히 江口 332高地에서 결사적인 항전을 계속하였다.

8월 14일 : 전 군경부대는 盈德에서 江口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南亭으로 이동하여 8월 15일 23.00에 松羅面 獨石里에 집결한 다음 전장비와 병력의 피해없이 UN군과 우리 공군 및 해군의 치밀한 지원으로 4척의 LST가 8월 16일 10.00 九龍浦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적 제2군단의 전주력은 8.15를 전후하여 비교적 UN군보다 전력(戰力)이 부족한 우리 東海岸에 있는 국군의 정면을 택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여 杞溪, 安康, 浦項을 연결하는 아군의 제1군단 전투구역에서 연일 대격전이 계속되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의 결사대와 대전차 육탄공격대원까지 참가하여 전국민과 우리 군경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주었는데 옛 신라의 화랑아닌 화랑들이 조국수호의 대정신을 입증하는 애국적인 결사항전이 거듭되어 적군의 간담을 놀라게 한 것은 후세에 길이 자랑할만한 반공투쟁이었다.

8월 20일 : 아군의 慶北 경찰부대는 浦項 탈환작전에 성공하였으나 전국은 날로 긴장화되어 8월 27일 우리 군경부대는 전략상 부득이 浦項에서 철수하여 永川—慶州를 연결하는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浦項, 安康을 실함(失陷)당한 우리 군경부대는 浦項 東쪽에 위치한 강폭 100여m의 兄山江을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8.15부터 행공을 시도하는 적 武亭군단의 제 5제12사단과 일대 결전에 돌입하였다. 적은 浦項, 九龍浦지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형상 불리한 우리 군경부대를 일거에 전멸시킬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적은 9월 1일을 기해총공세로 兄山江으로 육박해 오고 아군의 주진지를 우회 포위코자 兄山江의 도하작전을 기도하여 문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혈강(血江)으로 변하였고 적은 兄山의 256. 高地로부터 九龍浦에 이르는 아군 방어전선을 침공코자 혈안이 되고 있었다.

9월 18일 : 이와 같이 대격전에 있어서 군과 협동작전한 慶北 盈德경찰대대와 迎日 경찰대대는 항상 제일전선에서 용명을 나타내고 우리 국군과 긴밀한 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적이 9월 18일 총 퇴각함으로써 우리 군경부대는 浦項에 돌입하여 시민의 환호성 가운데 적을 추격하는 대추격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2개여월 동안 격전을 거듭하여 오던 東海지구 전투는 적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준 다음 우리 군경부대는 승리의 北진이 전개되었다.

(라) 국립경찰의 공훈

이 밖에도 연락참모 鮮于宗源경무관이 지휘하는 전 사복(私服)경찰대는 남노당 慶南北도당산하 적구(赤狗)들로 구성하여 지하에서 파괴공작을 일삼고 적의 괴수 金日成이 大邱, 釜山공략을 조기 달성코자 암약하는 적도 및 용공분자와 적이 남파한 오열들을 색출하는 군정보 수사기관 및 검찰과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많은 전공을 올리고 후방치안을 교란시켜 작전의 혼란을 주던 요인을 제거케 함으로써 전투부대의 군사행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철도경찰대는 田得秀 경무관의 총 지휘하에 철도시설의 보안과 열차 호송임무에 철저한 행동을 계속하며 단 1건의 열차 기습사건도 발생치 않고 군사수송작전에 눈부신 활동으로 경비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또한 전투임무를 부과 받지 못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경찰대는 주 보급로 및 중요 군사시설경비 및 피난민 구호와 행동통제작전에 전력을 기함으로써 전투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청년방위대는 임의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군사작전 및 후방방범활동등 국립경찰의 지휘하에 애국적 봉사활동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이상과 같이 UN군과 우리 군경 및 청방대원등의 피눈물 나는 용감한 과적행동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9.1·공세도 좌절되고 아군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적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적군의 공세적 행동은 약화되어 적은 재차 공세를 위한 전쟁준비에 광

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총지휘하는 仁川 상륙작전이 결행되고 적의 배면 깊숙히 공격하는 이 웅장한 대상륙단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동족상쟁만을 일삼던 원흉 金日成의 야욕을 물리치고 적군을 분쇄함으로써 전세계 자유우방국민과 우리 대한민족의 염원인 南北통일을 성취할 수있는 시점에 이르게 만들었고 전 UN군과 우리 국군은 물론 전국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전세는 근본적으로 아군에게 수세에서 공세로 그 상황이 정반대로 전환되고 결정적 유리한 입장으로 전개하게 되니 적군은 아군의 仁川 상륙작전으로 적의 전후방이 분단되고 격파 당함으로써 적은 실색당황하여 앞을 다투어 전전선에서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하여 洛東江 전전선에서 작전 중인 UN군과 우리 전군경부대는 전기(戰機)를 놓치지 않고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적을 포위 섬멸하거나 혹은 철저한 추격전으로 적군을 완전히 격파



<趙炳玉 내무부장관이 李益興 서울시경국장과 그의 선발대에게 훈시를 하고있다. (50.9.28)>

하면서 진격하였는데 미서 후퇴하지 못한 적군들은 아군에게 투항하거나 智異山, 太白山 등지에 입산 도주하는 상태가 되고 통일성업은 목전에 다다르고 있었다.

드디어 UN군과 우리 공격군경부대는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29일에는 감격의 서울 수복식이 李承晩대통령과 UN군 총사령관 맥아더(Mac Arthur)원수와 기타 정부 요인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이 제10군단 제7사단에 배속되었던 花郎부대장 朴正俊 총경은 金璋漢 경감의 지휘 중대를 서울탈환전에 또 文鶴東 경감, 李銀復 경감이 지휘하는 중대를 각각 水原, 龍仁 탈환작전에 참가케 하여 큰 전공을 세움으로써 은성훈장을 수여받았고 그리고 서울 입성이 이루어지자 경찰부대들은 美 제10군단 제7사단의 차기작전에 대비코자 釜山에 이동 집결하여 38이북 북진작전 준비에 대비하게 되었다.

한편 국립경찰은 9월 20일부터 점차적으로 적이 점령하였던 지역을 향하여 각기 자기 구역의 수복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9월 25일에는 京仁지구의 치안확보를 위해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즉 비상경비총사령부 연락참모 鮮于宗源 경무관 총 지휘 하에, 경찰선발대를 金德潭경감 책임아래 釜山 제2부두에서 UN군 용역수송선 日本의 신교오마루(新興丸)에 승선하여 10월 1일 02.00 仁川에 상륙함으로써 京仁지구 수복작전과 치안확보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선발대에 편입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치 안 국	116명
서울시 경찰국	809명
경기도 경찰국	1,054명
검 사	5명
종 교 인	10명
국 민 회	5명
대한 적십자사	1명
대한 청년단원	30명
합 계	2,019명

§ 證言한사람들

1. 金泰善
2. 金相重
3. 崔致煥
4. 張永福
5. 李成雨
6. 蔡昊植
7. 鮮于宗源
8. 李喜錫
9. 金文子
10. 李益興
11. 姜繼天
12. 蔡元植
13. 梁在鐵
14. 金應權
15. 魏忠烈
16. 李技雨
17. 崔亞得
18. 朴性煥
19. 李相默
20. 楊弘植
21. 朴正俊
22. 金昌鍊
23. 鄭時煥
24. 金璋漢
25. 文鶴東
26. 白昌煥
27. 金銀福
28. 崔奎鎬
29. 高侖達
30. 李奎燮
31. 姜楨日

5. 大邱固守와 釜山으로의 撤收問題

가. 大邱고수와 釜山이동에 대한 논의

大邱는 본래 6.25 직전까지는 3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지만 전란 후에는 피난민의 급증으로 8월 2일경에는 70만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당시 大邱 北쪽 道德山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포성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안겨 주었으며 더구나 8월 21일의 한 밤중에 난데없이 요란스러운 진동을 일으킨 적의 포탄 세발은 시내 한복판에 떨어진듯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긴장과 공포감마저 가지게 하였다. 이어서 23일 야밤에는 또다시 다섯발의 적탄이 大邱역 부근에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시민들은 더욱 동요하기 시작하고 급기야(及其也)는 피난할 생각까지 가지게 된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황의 추세로 행정부와 국회는 재빨리 釜山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으나 다만 국방부와 내무부만이 그대로 여전히 大邱에 남아 있으면서 전세의 호전을 위하여 가진 애를 쓰는 동시에 전전긍긍하는 민심의 진정(鎭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세는 날이 갈수록 불안을 가져오고 불리하게 되자 美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9월 4일 국방부장관 申性模에게 釜山으로 이동하라고 까지 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 趙炳玉에게 내무부도 국방부와 같이 大邱를 떠나 釜山으로 이동하자고 제의가 있어 慶北도지사(曺在千)실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보처장 金活蘭과 국방부 정훈국장 李瑄根 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이나 논의하게 되었다.

이자리에서 趙炳玉장관은 철수에 전적으로 반대하여 말하기를 "大邱의 주위에는 현재 수천의 우리 경찰관들이 적의 오열(五列)색출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찰망을 펴고 있으며 18.00 이후 부터는 시내의 통행마저 금지한 채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八公山 그리고 架山일대에서는 아군과 UN군에 각각 경찰이 배속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경찰부대는 원래 전투가 그 본임무는 아니지만 이 위국(危局)에 처하였으니 만치 아군과 UN군의 지휘아래 지금 이시각에도 같이 협동하여 공수(攻守)양면의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의 釜山이동이란 이 사람 한몸의 일신상의 안전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경찰의 안전과 그 분전을 위하여 최후까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므로 大邱철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며 또한 철수의 책임을 질수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일 우리 경찰이 맥없이 철퇴하게 된다면 우리 국군과 UN군에게 작전상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극히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철수하게 된다면 大邱도 곧 위급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기가 적에게 피탈될 경우에는 제 아무리 기동과 화력이 탁월한 UN군 일지라도 마침내는 釜山마저 고수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UN군은 제2차 세계대전때에 英國군이 당한 당켈크(Dunkirk)철수의 비극을 다시 맛보게될 것이며 따라서 UN군은 韓國을 포기하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의 大邱철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趙炳玉은 내무부의 釜山이동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니 다시 거론하지 않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때 그의 위용(偉容)은 나라의 운명을 한 몸에 걸머지고 있는 채 그 일단의 각오와 아울러 후세에까지 깊은 감명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서리까지 겸하고 있던 申性模는 난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은 워커(Walker) 사령관의 명령이니 어떻게 하느냐?"고 그의 고충을 토로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趙炳玉장관은 즉시 워커(Walker)사령관을 방문한 다음 참모장 앨런(Allen)소장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동시에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으니 과연 장부중(丈夫中)의 위장부(偉丈夫)요 장관중의 최고중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大邱에서 우리 경찰이 철수한다는 것은 곧 UN군이 釜山을 철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요. 이 사람이 내무부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이상 만일 내무부가 釜山으로 이동한다면 모든 전선에서 힘껏 싸우고 있는 우리 경찰의 사기가 어찌될 것이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전의까지 송두리채 상실하게 될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니 趙炳玉은 내무부의 大邱철수만은 비록 귀하의 지엄한 요청일지라도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받아 들일 수가 없소."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 그는 또 이어서 부언하기를 "大邱가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 釜山의 교두보도 또한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UN군은 당켈크(Dunkirk)나 바타안(Batan)반도의 비운을 자아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大韓民國은 별수 없이 적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美國의 일대 수치가될 뿐만 아니라 귀하도 또

한 군인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쌓아 올린 빛나는 무장(武將)으로서의 명예에 일대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 아니겠소.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간청하는 바와 같이 이 철수문제만은 부디 재고하시고 번의하시기 바라오."라고 설파하였다.

신인(神人) 모두가 감명할 수 있는 이 지성어린 趙장관의 열변을 다만 묵묵히 듣고만 있던 워커(Walker)중장은 부끄러운 나머지 일부러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되,

"8군사령부도 군사정세와 전황에 따라서 釜山으로 이동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귀하의 고견을 들고보니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이다. 앞으로 이 사람도 전황을 심각히 생각하며 내 사령관실내에 침대를 준비하여 놓고 모든 작전을 직접 지휘할 결심이요.

그러니 귀하께서도 경찰부대를 적극 독려하시어 양작간의 합동작전에 더욱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그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게 되었으니 실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이렇게 하여 내무부와 경찰부대의 수뇌들은 그대로 大邱에 남아 있게 되었으나 국방의 중책을 지닌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申性模(당시 국무총리 서리겸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大邱를 철수하게 되었다. 즉 육본작명 제168호



<워커중장이 육군본부를 시찰 중 작전상황을 물어보고 있다. (50. 9. 15)>

(작명부록 제60호 참조)에 의거 9월 5일 24.00를 기하여 군용열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으로 大邱를 떠나 釜山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李承晩대통령은 大邱 北쪽의 전황이 불리하여지자 申性模국방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鎭海별장으로 이미 옮아 갔었는데 9월 4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釜山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자 심히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다음날인 9월 5일 저녁에 大邱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대통령은 慶北도청 지사실에서 국방과 내무부의 주 장관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나보고 鎭海에 가서 계십시요, 그래 놓고서 大邱 철수가 무슨 소리야? 나는 이곳에서 나의 동포들과 같이 있겠어. 그리고 다시는 鎭海로 안 가겠어."라고 하였으니 평생을 구국일념(救國一念)으로 살아온 노대통령의 이 일언이야 말로 아무런 분상도 없고 가식도 없는 애국 애민의 순정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때 趙炳玉 내무장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 번 워커(Walker)사령관과의 면담경위를 보고한 다음 大邱 사수의 결의를 솔직하게 아뢰었더니 그제서야 대통령도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노안에는 이슬을 보이는 것이었다.

申性模장관은 옆에 있던 정훈국장 李瑄根 대령에게 지시하되 "시민들에게 大邱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하니 李대령은 피난준비를 하고있던 시민들에게 전황(戰況)을 설명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지말고 피난길을 범추도록 촉구하는 바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도 속은 일이 있던 피난민들은 이제 또다시 속을 련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美 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大邱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釜山으로 각각 이동하고 말았던 것이다. 趙炳玉 장관은 즉시 경감이상의 경찰간부들을 도청광장에 모아놓고 경찰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大邱시내의 사찰경계를 철저히 하고 경찰부대는 전선에서 UN군과 우리 국군과의 합동작전에서 단 1명도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엄중 지휘감독하라"고 추상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또 사랑하는 그의 경찰관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총단합하여 노대통령의 우국지성에 보답코자 하는 그의 심경을 육감으로 능히 짐작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월 6일에는 永川이 적 제15사단에게 점령되기에 이르자 趙炳玉 장관은 즉시 추력 두대에 위문품을 가득 싣고 永川교 西쪽 지휘소에서 분투하고 있던 아군 제4사단장 李成佳 대령을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방문하여 李사단장의 손을 잡고 그의 용전을 위로하는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니 사람의 진가는 이러한 난국에서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趙炳玉 내무부장관의 뜻하지 않았던 방문과 격려에 대하여 李사단장은 크게 감

명을 느끼면서 "이 생명 다하여 기필코 永川 탈환을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후 이 제8사단은 수차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적 제15사단을 섬멸한 다음 9월 12일 永川 탈환의 빛나는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趙炳玉

호는 雅石, 大安 출신 1909년 平壤 崇實전문학교를 거쳐 다시 延禧專門학교에 진학하여 1914년 졸업과 동시에 도미하여 펜실바니아(Pennsylvania)주의 와이오밍(Wyoming)고등학교에 들어 갔다. 1918년에 졸업, 이어 콜롬비아(Columbia)대학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편 韓人會와 興士團등 여러단체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으며 1925년에 동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이 해 귀국하여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좌익색채를 띤 교수를 반대하여 사직하였으니 그의 반공의식은 이와같이 철저하였다. 그 뒤 YMCA이사 및 新幹會의 재정총무를 역임하였으며 1929년 光州학생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니 그의 민족정신은 활화산의 불길과도 같았다. 복역을 마친다음 1932년에 조선일보사의 전무겸 영업국장을 지내다가 1937년에는 修養同志會 사건으로 또 다시 2년간을 복역하였는데 복역만으로서는 그의 심지(心志)를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宋鎭禹, 張德秀등과 같이 韓國民主黨을 창당하였으며 美 군정청의 경무부장으로 치안유지와 공산당 색출에 공이 컸다. 당시 美 군정의 右도아니고 左도아닌 정책에 반공이라는 철퇴를 가하여 그 향할 바를 명시하였던 것이다.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 특사와 UN 韓國대표 등을 역임하고 韓國전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大邱철수에 단호히 반대하여 조국의 위급을 미연에 구하였던 사실은 후세까지 길이 전하여지고 있다.

그후 대통령 李承晩과의 정견의 차이로 장관직을 스스로 내어 던진 다음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나섰으니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그의 진심은 어떠한 명예거나 어떠한 부귀와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에 당선하였고 다음해에는 民主黨 조직에 참가하여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56년에는 드디어 대표최고위원에 피선되어 야당을 영도하였다. 1958년 다시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1960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입후보 하였으나 선거전에 도미하여 월터리드(Walterlead) 육군병원에서 가료 중 급서하니 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의 묘소는 현재 水踰里에 있다.

나. 美 제8군사령부의 釜山이동

적의 총공세가 시작되어 피아간의 싸움이 결정에 달한 9월 4일 저녁의 전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다. 大邱 北쪽의 美 제1기병사단과 아군의 제2군단 및 제1군단의 전선은 붕괴직전에 놓이거나 또는 그 일부는 적의 돌파를 면치 못할 직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美 8군사령부에서는 데이비드슨(Davidson)선으로의 철수작전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 시간에 워싱턴 Washington의 美 국방성이나 도오쿄오(東京)의 맥아더(Mac Arthur)사령부에서는 현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근심하고 있었다.

이날 밤 워커(Walker) 중장은 제8군의 부사령관으로서 동부전선을 지휘하고 있던 콜터(John B. Coulter) 소장 및 그의 휘하 사단장들을 긴급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워커(Walker) 중장은 먼저 그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작전참모인 데이브니(John A. Dabney) 대령에게 발언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략하기를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리겠읍니까? 그러나 저는 다만 현재의 전선을 계속 그대로 지탱함으로써만 장차 다가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적의 공격은 2—3일만 지나게 되면 약화되는 것이 전례였읍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데이브니(Dabney) 대령의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철수를 주장하는 지휘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것이었다. 즉 전선에 돌파구가 이미 형성되었는데 예비대도 없이 어떻게 이 전선을 봉쇄하겠느냐는 비관론과 차라리 데이비스(Davidson)선까지 일단 물러났다가 전선을 다시 정비하고 보급을 갖춘 다음 진격하는 것이 옳다는 소극론들이었는데 서로 말만으로 갑론을박하여 귀중한 시간만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커(Walker) 중장도 아무런 단안을 내릴 수가 없어 주저하고만 있었는데 이때 참모부장인 랜드럼(Eugene M. Landrum) 대령의 제안인 "참모 전황을 관망한 다음 가부여하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채용키로 한 결과 곧 철수하지는 않기로 하였으나 사전의 대비책으로서 명 9월 5일 부로된 철수명령을 기안하라고 작전참모에게 지시하게 되었으며 다대상륙을 10일 앞두었던 이당시의 형장 워커(Walker)중장의 심정을 헤아리기는 매우 힘드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데이브니(Dabney) 대령을 위시하여 그의 참모요원들은 즉시 철수명령을 밤을 새워가며 9월 5일 05.00부로 기안하였으나 워커(Walker)중장은 곧 이 명령을 하달하지는 않았다. 필시 그는 다시 생각한 끝에 현 전선의 위기를 그대로 극복하여 보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된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그러면서도 美 8군사령부만은 곧 釜山으로 이동을 단행키로 결정하고 워커(Walker)

중장은 사령부를 釜山과 東萊간에 있는 수산대학 교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철퇴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허락을 미리 받았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으며 더구나 일국의 원수인 노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미리 보고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자고로 남의 쌈지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이런까닭으로 우리의 육군본부도 하는수 없이 釜山으로 이동하게 되고 9월 6일 08.00부터 釜山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美 제8군사령부는 이날 16.00부터) 이와같이 釜山에 이동하기는 하였지만 전방 지휘소인 大邱에는 워커(Walker) 중장을 비롯한 여러 참모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모든 작전 통제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육군본부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때를 전후하여 일부 부유층들은 작은 선박을 준비하여 있다가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즉시 釜山을 따날 준비까지 하는 자도 있었고 일부 中國인들은 臺灣으로 따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까지 하나 이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美 제2군수기지 사령관 가아빙(Crump Garvin) 준장은 釜山 방어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근방 고지와 요소에 밤어진지를 구축하는등 韓半島 최후의 보루를 끝까지 지켜 보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9월초 워커(Walker) 중장은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많은 지휘관들이 병력의 부족과 보급의 불량으로 말미암아 필승의 전의를 잃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洛東江 방어선상에서 적을 저지시켜야 할 일반전세상의 긴급성과 또 만일 여기에서 실패할 경우에 초래되는 최악의 위급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仁川 상륙작전에 호응하여 반드시 총반격전을 전개하여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 밑에 洛東江선 사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그에게 작전상의 애로를 보고하는 어떤 지휘관에게 타이르기 "나는 귀관을 더이상 만날 필요가 없네. 귀관이 관(棺)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이지만"이라고 하였고 또 美 제1기병사단장에게 대하여는 "나는 적이 만일 大邱시내로 쳐들어 온다면 거리에서 나를 따르는 장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생각이니 귀관도 이와 마찬가지의 각오로써 최후의 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것이니 어서가서 싸우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과연 지당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당시 워커(Walker) 중장은 모든 전선을 헬리콥터 또는 찝차로 돌아다니며 작전을 지도하는 동시에 그를 우러러보는 모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고 항상 가슴에는 한자루의 권총과 자동소총을 휴대하였으니 그의 모습이 매우 늠름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 기갑작전의 권위자로서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크게 명성을 떨쳤으며 또한 그의 탁월한 지휘능력과 굴할 줄 모르는 그의 전의는 마침내 이 전선에서 성공을 차지하게 되고 仁川상륙작전의 성공과 병행하여 다음 작전단계인 총반격전의 기반을 조성할수 있었던 것이다.

다. 釜山철수에 따르는 풍설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이 7월 27일 大邱에 있는 美 제8군사령부를 방문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데 그 내용인 즉 "나는 韓國을 확보한다. 韓國에서의 당켈크(Dunkirk)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이틀 뒤인 7월 29일에 美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美 제25사단이 尙州에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을 때에 이 사단사령부에서 말하기를 "적이 먼저 釜山을 점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증원부대가 먼저 전선에 도착하느냐에 있어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략사상이였기 때문에 美 제8군에서는 洛東江방어선 후방에 데이비드슨(Davidson)방어선을 준비하여 시간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韓國에서의 불퇴전(不退轉)의 결의를 표면상으로는 확고히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최후발악적인 총공세로 말미암아 전세가 불리하여지고 韓國의 최종 방어선의 안위(安危)가 문제되기에 이르게 되자 일부 비관론자들은 종말적인 철수문제마저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韓國에서의 철수 문제가 구체적으로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생각에서 계획된 것인지 또는 워커(Walker) 중장의 단독계획으로 복안이 수립된 것인지는 확인할 근거가 없으나 다만 美 8군의 수뇌부나 아군의 美 군사고문단에서 공공연하게 하와이(Hawaii) 철수문제가 구전(口傳)되어 韓國의 수뇌부들을 놀라게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역시 美 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釜山으로 이동할

부터의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육군종합학교장으로 있던 金弘壹 소장이 말한 바에 의하면 어느날 종합학교의 美 수석고문관이 심각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나는 장군에게 도와드릴 것이 하나 있사온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세가 악화되어 韓國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와이(Hawaii)로 철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 장군과 장군의 가족들을 日本으로 보내드리는 수송편을 보장할것이오니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문관의 의외의 말을 듣게 된 金소장은 즉시 한마디로 거절하기를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것인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일이 있소?"라고 하였더니 그 고문관은 도리어 의아하게 여겼는지 "나는 장군의 마음속을 잘 알수가 없읍니다."라고 자기의 호의가 무시된 것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는 눈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은 뒤 다행히도 洛東江 방어선에서 워커(Walker) 중장의 말대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적을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와이 철수설은 아침 이슬 같이 사라져 버린 것은 물론이지만 만일 제2의 당켈크(Dunkirk) 철수가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러한 철수설은 당시 일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만 하던 美軍의 지연작전의 악화가 드디어 大邱 위기와 결부되어 흘러나온 풍설일 것이며 그 근거의 진부여하는 여기에서 구태어 따질 문제는 못되지만 다만 우리는 일단 전세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여러가지의 낭설과 유언비어들이 그럴듯하게 나돌기 쉽다는 일예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第25章

仁川上陸作戦

第25章 仁川上陸作戰

要 旨

日本을 굴복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Douglas Mac Arthur)사령관의 또 하나의 빛나는 전승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상륙작전이었다.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부대의 이동을 보장한 유동성 있는 기동작전은 항상 귀중한 결과와 신속한 결정을 가져 왔고 또한 적의 후방에 우회하여 병참보급로를 공격하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太平洋전쟁 종식 후에 美國 일부고위층에서는 상륙작전이란 낡은 전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상륙작전의 반대론자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던 브래드리(Omar Bradley) 대장이었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루먼(Harry S. Truman) 美國 대통령이었다.

그들이 내세우게 된 주요한 원인은 원자탄의 출현이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仁川 상륙계획을 무모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중지시키려고 수차 설득하여 왔으나 그의 초지일관된 신념은 누구도 저지시킬 수가 없었다. 오히려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에 대하여 한 때는 반대자였던 해군의 셔먼(Forest P. Sherman)대장을 설복하여 그의 동조자로 만들게 까지 하였다.

그들이 仁川 상륙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仁川이 전선에서 너무나 멀고 그리고 상륙을 위한 충분한 예비조사를 행한 결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및 지리적인 장애물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仁川의 상륙은 군사적 가치면에서나 일반지리적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또한 전방과는 달리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이를 공격하면 반드시 성공할수 있으리라는 신념으로써 드디어 합동참모본부의 수뇌들을 납득시키는데 성공하고 말았던 것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Chromite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먼저 상륙군편성에 착수하여 제10군단장에 알몬드(Edward M. Almond)소장을 임명하고 지상군 편성에는 美 제1해병사단과 美 제7보병사단을 넣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韓國 해병대와 韓國 육군 제17연대를 참가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공격군이 상륙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수로와 해안 조건, 그리고 조수관계 및 적의 방어상태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이를 위해 제1상륙단에서는 7월부터 상륙에 대한 모든 준비를 시작하였고 상륙부대는 日本과 釜山에서 제반 준비를 갖춘다음 일로 목적지인 仁川을 향해 출항하게 되었다.

공격부대는 仁川 상륙일을 9월 15일로 정하고 UN 해공군의 집중력인 해공지원 사격아래 仁川의 관문인 月尾島를 먼저 제압한 다음, 곧 이어

서 仁川의 적색 해안과 청색 해안으로 상륙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성공하고 완전히 仁川시가를 탈환하게되면 美 제5해병연대는 金浦 방면으로 진출하고 美 제1해병연대는 京仁가도를 따라 각각 서울탈환을 위해 진격한다는 매우 장래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제 눈을 돌려 洛東江 방면의 개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듯 한데 당시 UN군의 지연작전은 8월에 들어가서 더욱 적의 대공세를 받아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아군은 洛東江 방위선을 굳지키며 더 이상 후퇴를 하지 않고 싸움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반격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적은 점점 아군의 전력이 증가하여 가는 것을 보고 하루 속히 釜山 교두보를 점령하려고 인해전술(人海戰術)까지 쓰며 최후 발악적인 공격을 속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9월이 되자 적은 마지막으로 西部 馬山으로부터 洛東江을 연하여 東南部 杞溪 安康선에서 釜山 교두보에 대한 협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서부의 美 해병대는 용감히 싸워 이를 격퇴시켰다.

또한 杞溪—安康 지구의 적에 대하여도 永川평야에서 국군 제2군단이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나서부터는 적의 공격은 약화되고 전세는 차차 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때에 아군은 적의 방비가 소홀하고 적의 군사적 요지와 병참기지로 되어있는 서울을 공격한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전세는 역전될 것이 명확하였으므로 이 작전이야 말로 기사 회생(起死 回生)의 결정적인 일대 전환을 가져 오는 그러한 전략적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여기에서 당시의 적의 개황을 살펴 본다면,

9월 15일 아침에 있어서의 적의 배치상황을 보면 적 제18사단은 洛東江 전선 또는 群山 방면에 증원차 大邱을 통과하며 남진중에 있었고 仁川에 주둔하였던 제9사단의 제87연대와 독립 제849대전차포연대는 金泉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니, 말하자면 洛東江 전선이 적을 흡착(吸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 右側방인 仁川을 강타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즉 8월말 현재 적은 洛東江 전선에 대부분의 주력을 배치하여 놓고 京仁 지구에는 서울에 제18사단과 仁川에는 경비여단과 제31여단의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적은 洛東江 전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UN군의 상륙지점을 仁川보다도 群山을 중요시하여 仁川에는 다만 약간의 방어부대를 두고 해안경비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仁川상륙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적은 용이하게 증원할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仁川에는 지역방위부대와 병참 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소위 의용군의 신편성부대가 산재하며 겨우 仁川 해안방어정도 밖에 능력이 없었다. 만일 南쪽 전선에서 전투부대가 증원된다면 인민군 제3, 10, 13사단이 가장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여기에는 또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었다.

당시 仁川에는 약 1,000명정도의 병력이 月尾島에 강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小月尾島의 적 포대와 함께 아군의 침입을 방어하며 각 해안에는 참호를 파고 고지에는 포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仁川항에는 기뢰가 부설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로는 鎭南浦와 海州해상에서 UN군 해군과 韓國 해군에 의해서 기뢰부설의 사실이 발견되었던 까닭이다.

1. 作戰計劃의 樹立過程

참조 : 상황도 제 26, 27호

가. 초기의 작전構想과 그 경과

洛東江 전선에서 피아의 공방전이 치열하며 상호간 일진일퇴를 하다가 적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아군의 반격이 가해지자 적은 일시 공세를 멈추게 된 데다가 永川 회전(會戰)에서 아군이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 뒤로는 적은 그의 주동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불능의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적은 UN군을 韓半島에서 몰아내기 위해 지상군을 전면적으로 투입하였는데 만일 아군이 육상에서 지상군으로 韓滿 국경까지 축출할 때에는 막대한 희생과 시일이 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적이 후방에 충분한 예비병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최대의 결함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아군이 적 후방 깊이 침입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혼란상태에 있는 적을 협공할 기도를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마땅히 이러한 기회를 최대로 이용하여 유리한 상황으로 전세를 전환시킬 가장 긴요한 단계에 놓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일찌기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구상한 바가 있었으며 UN군의 반격태세가 점차로 성숙해지고 모든 단계와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됨에 따라 仁川항을 최적 후보지로 결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조수와 간만의 차가 있는 仁川항의 지리적 입지조건의 불리로 말미암아 美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仁川 상륙작전을 극도로 위험시하여 이를 반대하고 다른 항구를 선정하던가 혹은 다른 방도의 작전을 고려하기를 수차 동 사령관에게 종용하였으나 동 사령관은 강경히 이를 거절하면서 끝내 이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좀더 그 경과를 살펴 보면 6월 29일 서울시내에서는 漢江橋 폭파로 인하여 남하하지 못한 국군과 적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겨우 조각배를 타고 漢江을 건너온 수 많은

피난민과 낙오된 병사들은 도보로 남하하고 있었다.

漢江에서는 아군이 적의 도강을 저지하고 있을 무렵 日本 도오쿄오(東京)에서 달려 온 UN군 사령관 맥아더(Mac Arthur) 원수는 몇명의 참모들과 함께 漢江뚝에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물밀듯이 남하하는 적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구상하며 한참 동안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韓國전선을 시찰하고 여러가지 결심을 했었는데 첫째 적이 계속 남하하여 오면 이를 지연시킬 시간을 얻을 것, 둘째 日本의 무장을 강화하고 재일 美軍을 계속 참전시켜 교두보를 유지할 것, 세째로 적의 보급선이 멀어지면 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 후방에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후 전쟁이 1주일쯤 지났을 때 그의 참모장 알몬드(Almond)소장을 불러 놓고 서울에서 적의 병참선 中央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상륙작전 계획준비와 상륙지점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

7월 4일 : 극동군 사령부 회의실에서는 육, 해, 공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륙지점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고 美 제1기갑사단을 여기에 참가시킬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포니(Edward H. Forney)대령은 상륙작전의 권위자임으로 美 제1기갑사단의 훈련을 담당시키도록 하였다.

당시 최초의 계획은 청색해안(Blue Beach)이라는 별칭호를 붙이고 적을 38선 너머로 격퇴시키려고 기도하였으며 작전일자는 7월 22일이었으나 적의 남진을 저지할 미군과 국군의 힘이 부족하여 7월 10일경에 이르러 이 계획은 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청색심장 작전이 중단된 후에도 다시 새로운 계획이 진전되고 있었으며 그 계획은 극동군사령부 합동전략작전계획단에서 취급되었다. 이 계획단은 작전참모인 라이트(Wright)준장이 지휘하고 갤로웨이(Donald H. Galloway)대령은 그의 보좌관으로서 직접 계획단을 책임지고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7월 23일 탄생을 보게 된 작전계획 "Chromite"였다.

당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워싱턴(Washington)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어 그의 의도를 밝힌 바 있었다.

"9월 중순에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작전은 적 전선의 배후에서 美 제10군단에 의한 수륙양용 상륙작전이며 그 목적은 南쪽으로부터의 제8군 공격에 호응하여 적을 포위섬멸

시키는데 있었다. 즉 적 전선의 뒤에서 단시일내에 강력한 공격을 취하게 되면 적의 중요 보급로가 끊기게 되어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와반대로 정면(正面)공격을 실시하게 되면 전투를 오래 계속하여야 되고 많은 희생을 초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의 것이었는데 美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仁川 상륙작전에 대한 전보를 받고 3주일간이나 회전을 주저한 끝에 동 상륙작전에 관해 그와 협의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콜린스(Collins)대장과 해군참모총장 셔맨(Sherman)대장을 도오쿄오(東京)로 보내어 되도록이면 동 작전을 포기시키려고 하였다.

8월 23일 도오쿄오(東京)의 제1생명 빌딩에서는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을 위시하여 콜린스(Collins)대장, 셔맨(Sherman) 대장 외에 세퍼드(Lemuel C. Shepherd)중장, 스트레이트 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과 仁川 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될 제10군단사령관 알몬드(Almond)소장 및 죠이(Charles T. Joy)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중장, 도일(James H. Doyle)소장과 기타참모와 보좌관, 그리고 JSPOG 요원과 해군의 브리핑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브리핑에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명확히 仁川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으나 다만 위험한 문제점들을 들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자세한 사항에는 흥미가 없었으며 다만 방법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작전은 어디까지나 최후로는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지어야 될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이를 납득시키는 것이 또한 브리핑 장교들의 임무였다.

이 회의에서는 모두 약 80분간의 브리핑을 조용히 들었는데 1944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대통령과 니밋츠(Chester W. Nimitz)해군대장이 회동한 眞珠灣 회의때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해군이 먼저 의견을 말하였는데 해군고위층 전문가들은 조수(潮水)차와 지형의 두가지 문제를 들어 仁川 상륙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 조용히 일어나서 한평생을 전쟁과 싸워 온 늠름한 모습으로 보여 있는 사람들에게 仁川 상륙을 실시하려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45분간에 걸쳐 설명을 하였다. 그는 팔꿈치를 책상 위에 대고 의자에 앉아 손 깍지고 마치 그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 한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는데 그 요지를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외곽 15마일밖에 있는 仁川이 상륙작전에 의해 점령되고 서울로 진격하여 이를 탈환하게 된다면 서울以南의 적 보급로는 즉시로 차단될 것이다.

전쟁의 역사는 지상군부대의 대다수가 그들의 보급로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멸망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만일 仁川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전쟁을 단축시키게 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많이 감축시키는 반면 동기작전에 들어가는 경우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리적으로도 동작전의 성공은 지금까지의 전쟁을 역전시켜 비군을 위시한 UN군의 패전을 회복하여 極東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고 공산주의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仁川상륙작전이야 말로 아군이 적의 점령지구 깊숙히 들어갈 수 있어 가장 유리한 단계에 놓여지게 되고 또한 仁川은 UN군 부대가 釜山의 전초진지로부터 적을 몰아내고 북진할 수 있는 요로가 된다.

그리고 상륙작전수행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다른 지역은 전선에서 너무 원거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근거리여서 적 부대의 후방보급로를 차단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仁川은 군사적 가치면에서나 지리적 면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또한 적이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데다가 적도 仁川상륙은 여러가지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감행한다면 성공은 틀림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모든 견지에서 이 사람은 단호하게 仁川에 상륙하는 방안을세웠노라" 고,

말하였던 것이니 명장(名將)이 신념을 토로하는 그 앞에서는 감히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나. 美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승인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東京 회담에서 연설한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제패를 위하여 먼저 손을 댄 곳이 아세아(Asia)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결할 장소는 베르린(Berlin)도 아니고 윈(Wien)도 아니오, 그리고 런던(London), 파리(Paris), 워싱턴(Washington)도 아니다. 현재 대결하고 있는 곳은 우리 南韓의 洛東江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유우럽(Europe)에서의 대결은 입 싸움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유우럽(Europe)에서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들은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아세아(Asia)에서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유우럽(Europe)에서의 운명도 중대한 위기에 놓여질 것이다.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그릇된 판단과 용솔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운명의 초점은 이 시간에도 점점 닥아 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면 장차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또 말하기를,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 仁川 상륙작전을 감행한 뒤 적의 강력한 방어선에 부닥치게 된다면 나도 그래는 죽시 큰 반격을 받기 전에 상륙부대를 철퇴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손해는 나 개인의 지휘관으로서의 손상 정도로써 끝날 따름이며, 그다지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이고 꼭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10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맥아더 UN군 사령관>

원래 仁川상륙작전은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의 단독 아이디어이며 동 작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설한 것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빛나는 업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를 실각시킨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브래드리(Bradley) 대장과 콜린스(Collins)대장이 이 작전을 반대한 것에 대하여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브래드리(Bradley)장군과 콜린스(Collins)장군은 현대전쟁에서 하나의 인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능한 상륙작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였다. 브래드리(Bradley)장군은 공식적인 발표 전에 그의 전문적인 판단을 그렇게 표명했으며 콜린스(Collins)장군은 이 작전이 성공할 경우 당연히 필요하게 될 부대회두이동(Turning Movement)의 깊이에 대하여 반대를 주고 있었다.

죠이(Joy)중장에 의하면 셔맨(Sherman)대장이 仁川을 상륙목표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반대한 이유는 仁川의 극심한 조수(潮水)차에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조이(Joy)중장은 어떠한 해군장교도 仁川 상륙이 불가하다고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다만 위험이 개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이(Joy)중장은 한번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을 실망시킨 바가 없었다고 하며 그는 이 작전을 하나의 투기로서 생각해서 5,000대 1의 승산을 인용하였다.

또한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仁川 상륙작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우려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셔맨(Sherman)대장만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그후 차차 이해하고 仁川 작전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그의 대안으로 群山 작전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안문제가 나오자 상륙전의 전문가인 도일(Doyle)소장은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烏山 西海안에 있는 南陽灣 浦升面을 제안하였더니 해병대의 셰퍼드(Shepherd)중장도 이를 지지하고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을 방문 건의하였으나 그의 결심에는 언제나 변동이 없었다. 그 다음날 셔맨(Sherman)대장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후 그의 동조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어느정도 韓國戰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다만 仁川 상륙만을 끝내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 仁川이외의 지역을 택할것을 9월 5일에 재차 요구하는 전문을 보내왔으나 그는 "계획은 불변"이라고 회신하였다.

9월 7일에는 다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최후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보도록 하고 상륙계획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였다.

이제 전세는 9월초의 마지막 집중공세로 東部와 南部 전선에서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신속히 38선까지 진격하려면 洛東江 전면을 돌파하느니 보다는 아무래도 우회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와 시간을 따져보아도 유리하다는 결과를 알게 된 합동참모본부에서는 9월 8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보낸 간곡한 전문을 보고는 다음 날 즉시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귀하의 계획을 승인하며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하였다."라고 하여 드디어 대망의 仁川 상륙작전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초지일관된 결심을 관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방장관 존슨(Johnson)씨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이로써 仁川 상륙계획은 완전히

승인을 받게 된것이다.

다.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계획의 수립

(1) 일반계획

7월초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仁川 상륙을 계획하게 되자 美 극동군사령부는 계획 100—B, 계획 100—C 및 계획 100—D의 세가지 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계획 100—B는 西해안중 仁川에 상륙하는 것이고 계획 100—C는 群山에, 그리고 계획 100—D는 東해안 注文津 근방에 상륙하는 것이었는데 계획 100—B는 또한 仁川상륙과 동시에 美제8군이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세가지 계획안 중 계획 100—B가 채택되어 그것이 곧 仁川상륙을 위한 작전계획 크로마이트(Chromite)로 불리게 되었다.

8월 23일 17.30 도오쿄오(東京) 에서 작전 계획을 위한 최종회의가 끝난 다음 스트러블(Struble)해군중장, 도일(Doyle) 해군 소장과 오리버 피 스미스(Oliver P. Smith)해병 소장이 작전계획수립과 그 실행책임을 맡게 되었다.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南太平洋 전쟁에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같이 일한 적이 있고 도일(Doyle)소장은 南太平洋부대 사령관의 참모로서 상륙작전의 훌륭한 경험을 쌓았던 것이다. 그는 1950년 1월이후 제1상륙전대 사령관직에 있었으며 한편 스미스



<仁川상륙작전계획을 의논하는 스트러블 해군중장(좌), 알몬드 육군소장(중), 도일 해군소장(우)>

(Smith)소장은 美 해병대 상륙전 전문가중의 한사람으로서 그루체스터(Gloucester)만에서 1개연대를 지휘했고 페레리우(Peleliu)와 오끼나와(Okinawa) 작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美 해군에서는 상륙작전에 대하여 그 이상 경험을 가진 고급장교는 없었으나 도일(Doyle)소장의 참모들이 7월 초순부터 상륙작전을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그후 관계지휘관과 참모들은 사세호(佐世保), 고오베(神戶), 도오쿄오(東京) 등지에서 일련의 회의를 거쳐 仁川 상륙작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음 요지와 같이 수립하였다.

1. 仁川의 月尾島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상륙(major landing)전에 月尾島에 일단 초기상륙(Initial landing)을 실시하고 D-Day의 H시간에 해병대 1개대대가 月尾島에 공격상륙을 실시한다. 시간은 조조만조(早朝滿潮)시간인 06.30경으로 예정한다.

2. 月尾島 상륙후에는 美 제1해병사단이 仁川의 적색, 청색 및 황색 해안에서 기본상륙을 실시한다.

3. 이 해안의 교두보는 서울의 西部 漢江과 金浦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히 확장될 것이며 서울시를 탈환하기 위하여 계속공격을 실시한다.

4. 증강된 美 제7보병사단은 D-Day후 제2및 제3호송부대로서 仁川시에 상륙하여 제10군단장의 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한다.

대체로 이러한 계획이었는데 각 부대의 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은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스미스(Smith)소장의 지휘전대와 선견부대 계획참모들은 8월 22일 캘리포니아 펜들튼 캠프(California Pendleton Camp)에서 도오쿄오(東京)로 와서 美 해군함정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함상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부계획을 포함한 광대하고 복잡한 작전계획은 23일간이라는 짧은 시일안에 완성을 보았는데 비해서 제2차대전때의 구아달카날(Guadalcanal)작전은 8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북아프리카(Africa)의 상륙작전은 근 1년이 필요했으나 仁川 상륙작전의 준비기간은 불과 1개월도 채 못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함정이 9월 10일까지는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은 23일 보다도 더 짧은 기일내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계획에서 결정된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할 부대와 그 임무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전진전대(기본계획완성후 부가된 부대이며 히긴스(John M. Higgins)소장이 지휘)

美 제7함대의 기함을 포함한 전진전대는 9월 13일 仁川지역의 정찰을 감행하고 이 전대의 주요 목적인 仁川 인근지역과 月尾島에 설치된 적포대를 제압하였으며 7척의 구축함으로써 月尾島 근해

에 접근하여 적의 포화를 유도하여 이를 포격 제압하는 동시에 美,英 순양함 각 2척으로 부터 항공통제를 받으면서 장거리 포격을 가하여 적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바 있었다. 그리고 순양함 및 구축함의 포격에 합세하여 공중폭격을 가하였으며 月尾島 제압작전은 9월 14일에도 반복수행키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격부대 (도일(Doyle)제독 지휘)

공격부대는 상륙부대를 위한 근접 항공지원과 함포지원을 통제하며 상륙부대가 상륙을 완료한 후에도 이들을 위해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상륙군부대 (알몬드(Almond)소장 지휘)

상륙군부대는 지정된 仁川 해안에 상륙하여 지상 작전을 수행하며 해병사단은 해두보(海頭堡)를 확보하고 상륙전의 경험이 부족한 美 제7사단은 동 해병사단에 이어서 상륙키로 되었다.

경계 및 정찰부대 (헨더슨(George R. Henderson)소장 지휘)

경계 및 정찰부대는 작전부대를 엄호하면서 장거리 정찰과 기타 항공기에 의한 경계를 실시키로 되었다.

봉쇄 및 엄호부대 (英國 해군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소장 지휘)

봉쇄 및 엄호부대는 특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공격부대를 엄호하며 앤드류스(Andrews)소장은 이밖에도 특수차단임무를 부여받고 韓國 西해안의 봉쇄임무를 맡기로 되었다.

고속함모부대 (이웬(Edward C. Ewen)소장 지휘)

동 부대는 목표지역의 제공권을 확보하고 동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작전을 감행한 것으다. 항모는 실제공격 상륙작전을 위한 항공지원을 하고 엄호작전을 하기로 되었다.

병참지원부대 (오스딘(Bernard L. Austin)대령 지휘)

이 부대는 작전지역에서 연료 및 탄약의 재보급을 실시하기로 되었다.

(2) 세부계획

여기에서는 공중 지원과 해상지원, 그리고 지상군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중지원계획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워커(Walter H. Walker)중장을 주한 지상군사령관에 임명하였으나 仁川—金浦—서울 지역의 상륙과 공수작전지역은 그의 관할로 부터 제외하였다. 상륙군이 상륙할 때까지는 합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중장이 전 상륙군부대를 지휘하며 상륙군이 지상의 교두보를 점령한 다음에는 알몬드(Almond)소장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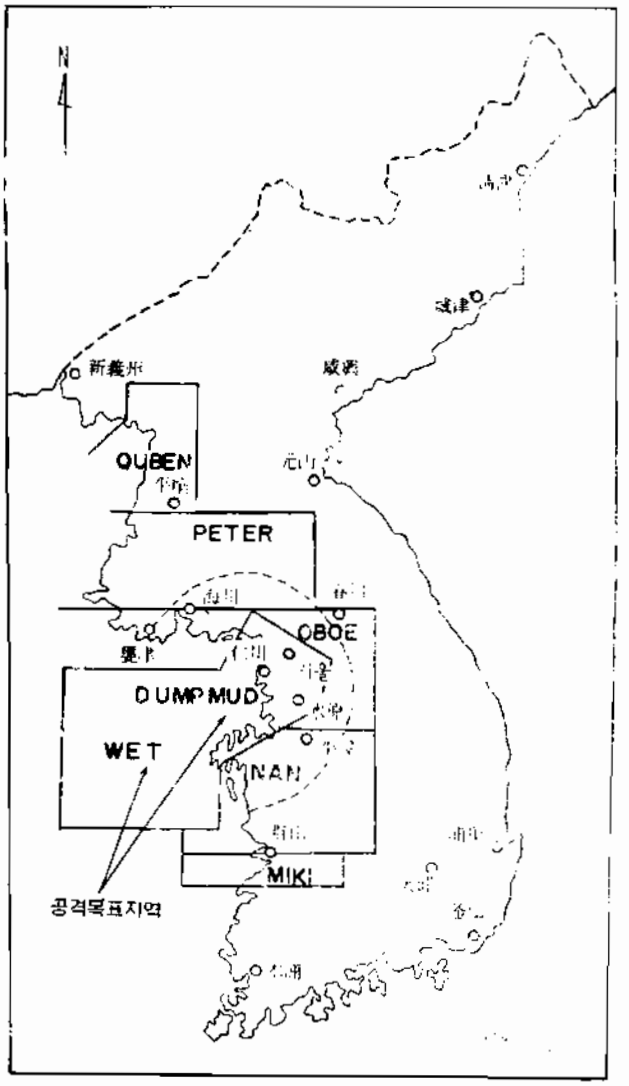
또한 제187공수연대는 美 제5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 메이어(Stratemeyer) 중장의 지휘 하에 있다가 작전지구에 투하한 다음에는 알몬드(Almond)소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

였다.

8월 30일 개최된 연합작전회의에는 스트러블(Struble)중장 및 죠이(Joy)중장과 스트레이트 메이어(Stratemeyer)중장등이 참석하여 仁川 상륙작전에 부수되는 공중작전에 관한 협조와 조정등을 토의하였는데 합의된 사항은 극동군 사령부의 작전명령에 첨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죠이(Joy)중장은 관계지휘관과 협조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으로 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목표지역인 WET DUMPMUD지역에 대한 모든 공중작전을 D-3일 부터 지휘 통제키로 한다.

상황도 제26호 항 공 지 원 계 획



동시에 죠이(Joy)중장은 목표지역 외곽선과 그곳을 둘러 싸고 있는 접선내 지역의 모든 통신및 수송로 차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타지역인 MIKI, NAN, 지역은 극동공군과 해군이 서로 협력하여 공격키로 한다.

한편 극동공군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죠이(Joy)중장에게 명령한 목표지역 외에서의 전항공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한다. 그리고 D-3일부터 목표지역의 공격이 해제될 때까지 극동공군은 극동해군 작전지역내에서 작전을 금하나 이미 합의된 전술항공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임무나 공중수송 및 공중연락 작전등을 제외한다.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은

죠이(Joy)중장에게 해두보에서 반경 150마일 이내에 위치한 적의 비행장들인 平壤—鎭南浦—海州—永原—金浦—大田—群山등을 완전히 복멸하여 목표지역내에서의 UN군의 제공권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차단임무가 해군함재기의 기본임무가 되고 비행장 복멸공격을 실시하는 동안 돌발적인 목표에 대한 공격과 극동공군의 요청에 의한 차단공격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극동사령부와 공군간의 협조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극동사령부에서는 8월 30일의 합의사항에서 약간 틀린 명령이 내려졌고 또 다른 하나는 지휘권 문제였다.

전자는 시차(時差)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후자는 목표지역외에서의 지휘권이 스트레이트 메이어(Strateмeyer) 중장 자신에게 있다는데 있어서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이 동의하여 해결되었다.

8월 31일 극동공군작전부장인 크래브(J. V. Crabb)준장은 제10군단 전술 항공지휘관인 쿠쉬맨(Thomas J. Cushman)준장과 회담하고 金浦 비행장을 탈환하는 즉시로 수송기들을 그곳에 이동시키는데 1개연대의 해병전투기들이 호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美 제10군단에서는 공군에서 실시하는 차단작전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목표지역외각선에서 25마일내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않았다.

한편 D—10일에서 D—3일사이에는 대부분의 폭격기 B—29들이 서울에서 北으로 향하는 주요도로와 철도를 파괴토록 하고 D+3일 경에는 平壤에 대한 대대적인 소이탄 폭격을 단행키로 하였으며 또 상륙작전초기에는 매일 700—1,000톤의 화물을 공수하기 위하여 C—119 수송기 96대를 극동공군이 준비키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仁川상륙작전을 위해 극동공군사령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달된 작전명령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목표지역외의 모든 비행장을 복멸하여 제공권을 확립유지하라
2. 전투지역을 차단하고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라.
3. 목표지역내의 전술항공지휘관이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를 수락하라.
4. 폭격구역을 완전히 파괴하고 공수공격을 엄호하라.
5. 공중구조임무를 실시하고 목표지역 내에서의 필요한 항공천수를 실시하라.

대체로 이러한 명령이었는데 이제의 공중지원은 해군함포사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仁川에 대한 공중지원은 美 제7함대의 함재기와 美 제10군단의 해병대소속 비행대

의 담당임무이며 그 밖의 기동부대 제77의 고속항모 함재기가 제공권을 확보하고 차단공격을 수행하고 상륙근접지원은 경 항공모함 시시리(Sicily)호와 바동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에 탑재된 기동전대 90.5의 2개 비행대대들의 임무로 되어 있었다.

이 대대들은 전투중인 제1해병여단을 지원하는 제33해병비행단의 주축이었으므로 상륙군 사령관은 기동부대 제77의 해군기들에도 근접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제33해병비행단은 제513, 제542 전천후비행대대로 개편되고 제212 제312 비행대대와 함께 美 제10군단 공중사령부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제10군단은 목표지역에서 작전통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배치하지 않기로 하고 金浦 비행장이 탈환되는 즉시로 그곳에 작전기지를 설치토록 하였다.

美 제10군단 전술항공사령부는 9월 8일 편성되었으며 제1해병비행단은 제1임시해병여단의 공중지원을 통제하였던 해병전술항공사령부 정보반(MTAC S—2)을 공중지원반으로 명명하고 美 제10군단을 위해 계속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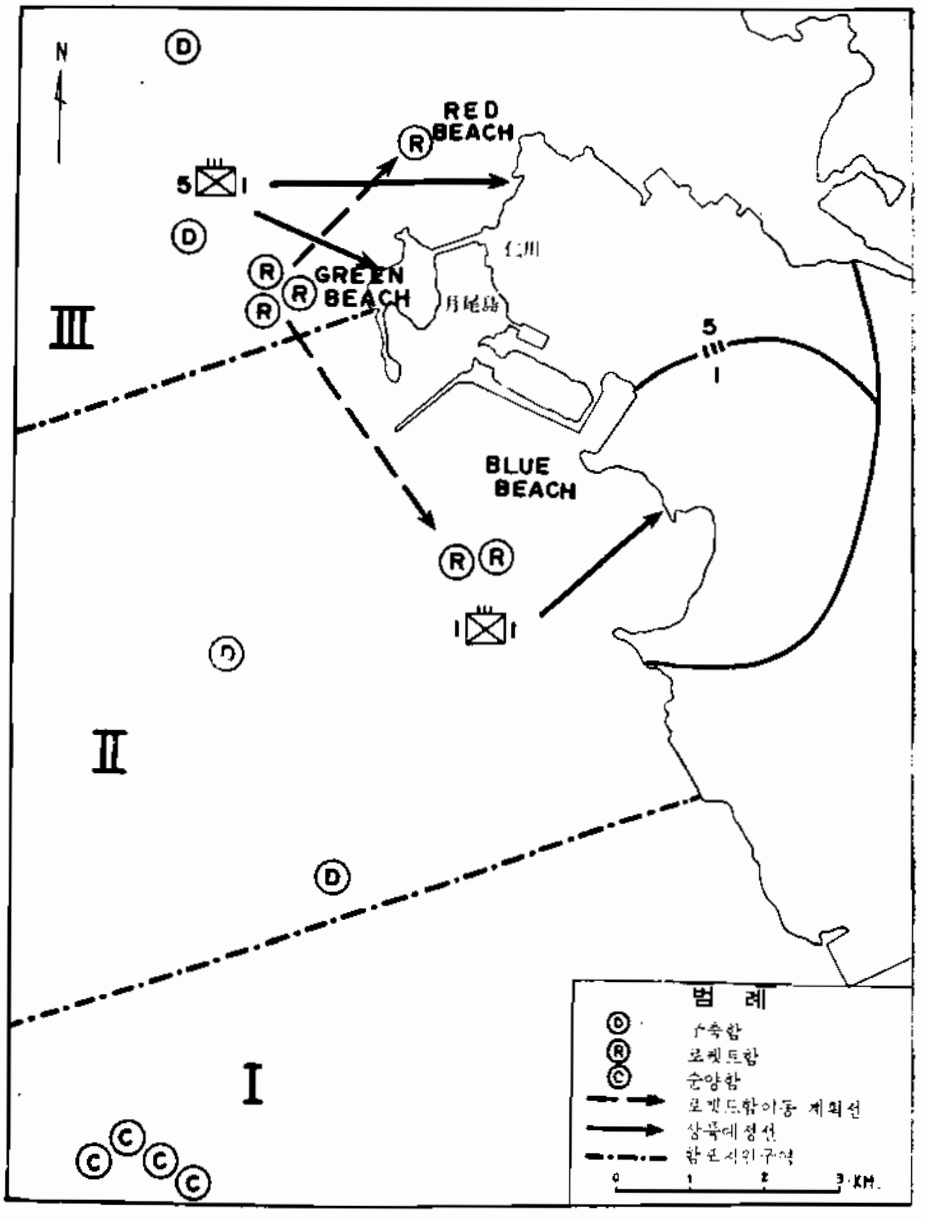
(나) 해상지원계획

스트러블(Struble)중장이 9월 1일 소집한 작전회의에는 앤드류스(Andrews)소장, 히긴스(Higgins)소장, 스미스(Smith)소장등이 참석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D-1일 오전에 순양함들이 실시할 포격에 관하여 결정을 보았고 D-4일에는 네이팜 탄으로 공중공격을 가한 다음 오후에는 구축함들이 月尾島를 공격토록 하였으나 2일 후에 다시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1상륙단과 제1해병사단간에 해군함포지원범위와 그 시간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月尾島의 2개소와 小月尾島의 1개소를 포함한 52개의 공격목표를 정하고 항구의 西部와 西南方을 통한 수로에 있는 가상의 전선을 3개의 화력지원 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리하여 D-Day에는 순양함 4척이 공격구역 I에서는 13,000—15,000야드의 근해에 정박하고 구축함들은 공격구역 II, III에서 800—26,000야드거리에 배치되며 3척의 중형 로켓트함은 月尾島 상륙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 H-시에는 적색해안(Red Beach)에 1척을, 청색해안(Blue Beach)에는 2척을 각각 배치하며 H-45분에서 H-2분사이에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목표지역에 집결하면서 도합 2,845발의 포탄을 집중 발사하고 H-15분에서 H-2분사이에 중형 로켓트함 3척은 각각 로켓트탄 1,000발을 집중 포격키로 하였다.

상황도 제27호 해 상 지 원 계 획



그리고 청색해안에 상륙하기 2분전에 모든 함정은 공격을 중지하고 해병대 항공기들이 적진지에 기총소사를 가하는 동안 구축함 4척이 포탄 55발을 계속 집중공격키로 하였다.

D-Day 야간에는 순양함들이 250발의 포탄으로 차단공격을 실시하고 구축함들은 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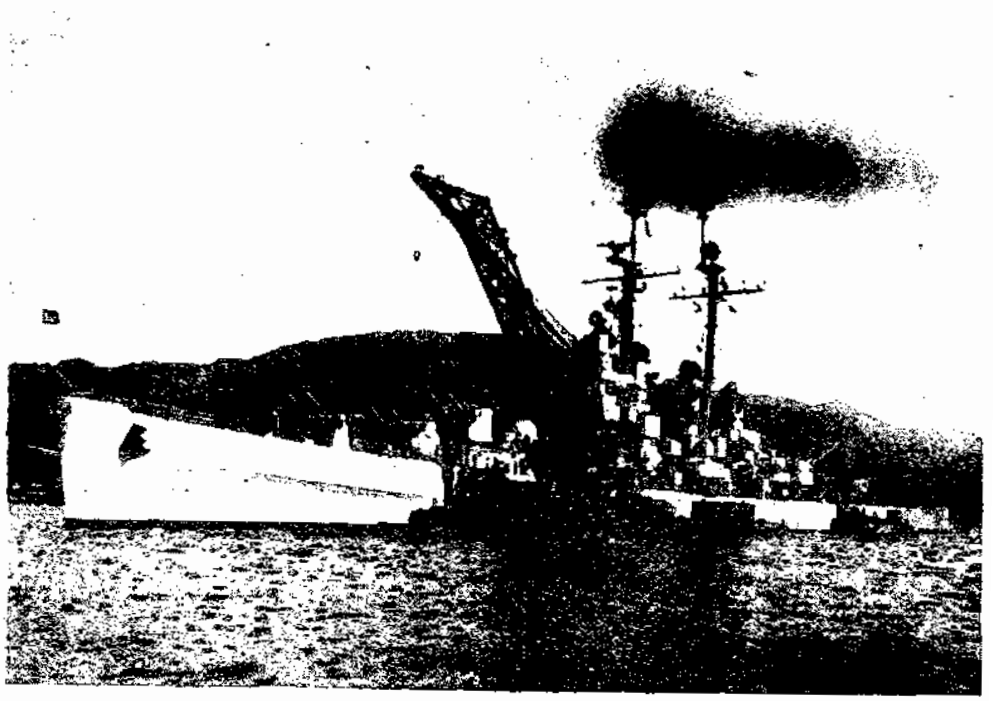
의 요청이 있을 때 5인치 포탄으로 지원하며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300발의 조명탄과 그밖에 같은 수량 고성능 폭발유도탄을 준비해야 되며 함포사격은 항공기들의 안전도를 위해 1,100피드의 최저탄도이하로만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다) 지상군 계획

美 제7보병사단은 제1해병사단이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상륙키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제1해병사단을 중심으로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되었다.

그리고 공중투하예정이던 제187공수연대가 D-Day까지 극동에 진출수가 없게 되어 이 계획은 마침내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仁川 해안의 수심과 조수의 조건을 고려하여 상륙용 주정과 수륙양용차의 발진(發進)시각을 17.00에 정하고 LST함정은 19.00로 결정하게 되었다.

먼저 仁川市와 月尾島중 어느곳을 점령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해병대참모진의 주장에 따라 月尾島를 선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제1상륙단도 동의하게 되었으므로 月尾島에 대한 공격은 美 제5해병연대의 1개대대가 여명에 실시키로 하고 그 나머지 2개대대는 오후에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동시에 제11해병연대(포병대)의 2개대대는 月尾島에 그리



<사세호(佐世保)에서 힉진스 소장의 기함 쥬뉴호에 장비적재 광경>

고 美 제1해병연대는 청색해안에 각각 상륙키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韓國 육군의 제17연대는 仁川 시가를 완전 점령한 다음 적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후일 韓國 해병제1연대와 그 임무를 교체하게 되었다. 이 당시 상륙에 앞서 작전지역에 참가하여 적정과 제반 수로조건을 탐색하여 오기로 되었던 클라크(Eugene F. Clark)대위의 정보를 기다렸으나 우선 먼저 전략적인 가치와 판단을 기초로해서 H-시에는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검토하고 17.30로 변경한 다음 여기에서 작성된 상륙군의 작전계획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美 제5해병연대의 제3대대는 D-일 H-시에 Blue Beach에 상륙하여 月尾島를 점령하고 그 밖에 각 대대는 H-시에 Red Beach에 상륙하여 목표 O-A를 점령하는 동시에 美 제1해병연대와 상호 연락하며 FBHL(해안교두보선)을 점령키 위하여 東쪽으로 전격할 준비를 한다.
2. 美 제1해병연대는 Blue Beach에 상륙하여 목표 O-1을 점령하고 FBHL을 점령키 위하여 美 제5해병 연대와 협력한다.
3. 美 제11해병연대는 H-시에 제1,2대대를 Blue Beach에 상륙시켜 月尾島를 점령한 다음 美 제1해병연대를 지원하고 잔여부대는 지원을 요청시에 상륙한다.
4. 사단 예비대인 韓國 해병제1연대는 명령이 있을 때에 Red Beach에 상륙하는 즉시로 美 제5해병연대와 협동하여 仁川 시가점령작전을 실시한다.
5. 제1전차대대는 명령에 따라 LST함정으로 1개중대를 Blue Beach에 상륙시킬 준비를 갖추고 그 나머지는 명령이 있으면 상륙할 준비를 하여 둔다.
6. 제1공병대대는 Red Beach 또는 명령에 따라 항구에 상륙하여 중대들을 통제하고 지시된 해두보점령을 지원한다.
7. 제1해안대는 명령에 따라 Blue Beach 또는 항구에 상륙하여 Red Beach 와 Blue Beach에서의 해안대의 활동을 통제한다.
8. 제1 LVT대대는 Blue Beach에 美 제1해병연대를 수송하여 상륙시킨 다음 철수할 때까지 이를 지원토록 한다.
9. 육군 제2공병여단은 명령에 의하여 함정소대를 수송하여 사단 해안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상륙후에는 명령에 따라 사단 해안대의 작전통제와 모든 항구작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美 제1해병사단의 군수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仁川 상륙작전의 계획에 있어서 적은 9월초에 13개 사단을 동원하여 釜山 교두보를 점령하려고 치열한 공세를 취하여 왔으므로 전세는 더욱 악화되어 전선에서 美 제5해병연대를 철수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때 제10군단 참모장에 새로 임명된 조니(Edward H. Forney)대령은 스미스(Smith)소장에게 보고하기를 알몬드(Almond) 군

단장은 상륙부대가 仁川 상륙기일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제7보병사단의 제32연대를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 제7보병사단은 제1 이동훈련단에 의하여 상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약 12,000명의 제7보병사단의 병사들은 상륙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구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알몬드(Almond), 러프너(Clark L. Ruffner)라이트(Edwin K. Wright) 장군과 스트러블(Struble), 도일(Doyle)제독 및 스미스(Smith)소장이 회합하여 상의한 결과 해병대는 본래의 임무가 상륙작전에 있고 이번 仁川 작전에는 절대 불가결함으로 美 제7보병사단의 제17연대를 전선에 참가시키고 해병대 제5해병연대를 전선에서 이동하여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키로 하였던 것이다.

2. 作戰計劃의 準備過程

참조 : 상황도 제28. 29. 30호

가. 상륙군의 편성

(1) 제10군단의 편성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仁川 상륙작전의 계획을 확고히 하고 8월 12일에는 작전계획 100—B를 발표함으로써 仁川—서울지역을 상륙부대의 목표지역으로 선정하게되었다.

이리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작전계획을 전달하는 특별계획단 본부를 설치하게 되고 기밀유지를 위하여 그 본부요원은 극동사령부 참모중에서 선발하게 되었다. 또한 극동군의 예비대들을 모두 그 통제하에 두고 8월 21일 제10군단 창설을 육군성에 요청하여 이것이 승인되자 8월 26일부로 일반명령 제24호를 발표함으로써 日本에 있는 모든 부대와 장차 도착예정인 여러부대들을 그의 예속하에 넣게 되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제10군단장에 알몬드(Almond)소장을 임명하기로 결심하고있었으며 .어느날 알몬드 (Almond)소장과 작전에 관한 말 끝에 알몬드 (Almond)소장이 물기를 "누가 이번 상륙부대의 지휘관이 될 것이냐"고 하자 사령관은 서슴치않고 대답하되 "바로 당신이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탈환한 다음에는 다시 극동군 참모장으로 복귀시킬것이라고 하였으며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알몬드(Almond)소장과 중요 참모요원들을 제10군단에 임시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8월 26일부로 제10군단장에 임명된 알몬드(Almond)소장은 버지니아(Virginia)주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대전 중에는 기관총대대를 지휘하다가 부상 당하였고 제2차대전 중에는 이태리 전선에서 제92보병 사단장이었고 그후 1946년 6월에 극동군사령부에 전임되어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참모부장으로, 동년 2월 18일에는 참모장 그리고 韓國전쟁직후는 UN군 참모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꾸준히 근무에 전념하는 충실한 군인으로서 상관인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에게는 충성을 다하며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군단 참모장에는 라프너(Ruffner)소장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8월 6일에 도착하여 이틀 늦게 계획단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0군단의 중요 지상군부대는 美 제1해병사단과 美 제7보병사단이었다. 제7사단은 日本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해병사단은 구성조차 되지않은채 7월 25일부로 스미스(Smith)소장이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원래 여기에는 제1기갑사단이 선정되었던 것이 갑자기 洛東江 방어선에 참가하는통에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상륙군으로 선발됐으며 과연 이들이 상륙기일까지 완전한 전투부대로써 충원되고 장비되어 참전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제10군단의 주요 지상군부대에는 韓國해병대와 韓國육군 제17연대가 있었는데 이당시 美國으로서는 1950년 여름까지 극동에서 완전편성의 1개 해병사단을 집결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2) 제1해병사단의 편성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처음으로 전선을 방문 중인 6월 29일에 구상하기를 "공군과 해군의 활동만으로는 적을 저지하는 것이 결정적이 되지 못하고 실지(失地)를 회복하는데는 지상군의 개입하는 방법 밖엔 없다."라고 판단한 결과 7월 2일 극동사령부에서는 적당한 항공기 지원아래 1개 해병연대전투단을 급파해 주도록 워싱턴(Washington)에 요청하였다.

한편 6월 28일 美 해병대 사령관 케이트스(Clifton B. Cates)대장은 팬타곤(Pantagon)에서 해군참모총장 셔맨(Sherman)대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함대 해병대를 韓國戰에 참전시켜 주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셔맨(Sherman)대장은 극동 해군사령관 조이(Joy)중장에게 만약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요청한다면 1개 해병전투단을 신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통보하게 되었다.

한편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완전한 해병사단이 파견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해병대의 병력제한때문이라는 조이(Joy)중장의 보고를 받게된 다음에는 1개전투단 요청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이 왜 자진해서 해병대의 韓國출병을 원했는가라는 점이다.

약 2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美 해병대는 특히 제2차대전 중 太平洋지구의 도서상륙전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므로 루즈벨트(Roosevelt)대통령도 격찬한 바 있으나 당시 부통령 트루맨(Truman)씨와 육군측에서는 어느정도 견해를 달리한 것 같았다.

여하간 제2차대전 종식후 美國에서는 대량으로 군비축소를 단행할 때에 해병대는 각 가

지 수비병력과 약간의 합대해병대 교육요원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되어 약 28,000명만 남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戰 발발시에는 美 본토에는 완전한 1개사단도 없었던 것 이었다. 韓國戰이 시작되자 美 해병대에서는 자체병력을 증강시키고 다시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韓國에의 참전을 열망하였던 것이고 맥아더(Mac Arthur)사령관도 역시 해병대를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해병대의 파견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7월 10일 회의에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세퍼드(Shepherd)중장으로부터 仁川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병대를 韓國에 보내겠다는 확언을 받았으나 상륙일까지는 6·7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병대의 예비병들은 다시 소집치 않으면 제1해병사단을 완전히 전투태세로 충원시킬 수가 없었던것이다.

세퍼드(Shepherd)중장은 먼저 1개 전투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나머지 사단병력은 단 1개 전투단의 병력도 못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사단의 병력을 완전히 충원하려면 전 합대해병대를 차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예비병 동원을 결심하고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에게 이러한 뜻으로 상신(上申)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요청에 대해 합동참모부는 해병대사령관 케이츠(Cates)대장에게 모두 위임하게 되어 그는 예비병을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다음 곧 그의 참모들에게 필요한 연구 및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게 되었다.

해병 예비병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재가(裁可)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동안 세퍼드(Shepherd)중장은 죠이(Joy)중장과 도일(Doyle)소장, 그리고 알몬드(Almond)소장 및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 제5공군 사령관등과 회담하며 그의 도오쿄오 (東京)방문을 거의 끝내고 있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Stratemeyer)중장은 日本의 이다미(Itami)비행장을 해병 항공대에 양도할 것이며 해병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해병 항공대가 수행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한편 해병대를 韓國戰에 참가시키기 위해 여단편성을 서두르는 동시 제5연대를 중심으로 한 해병제1임시여단이 韓國으로 급파하게 되었다. 본래 6월 30일에는 7,789명의 장병이 있었으나 여단편성으로 말미암아 3,386명으로 감소되었다.

제1해병임시여단은 크레이그(Edward A. Craig)준장이 지휘하게 되어 7월14일 싼디에고(San Diago)를 출발하였는데 132명의 장교와 2,452명의 사병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 전투기대대와 1개 야간전투기로 편성된 제1해병전투비행단과 44명의 장교와 484명의 사병

으로 구성된 1개대대의 포병과 약간의 수송, 의무, 해안대, 공병, 전차, 수륙양용차, 통신, 병기, 수색, 헌병 및 8대의 정찰기, 4대의 시콜스키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으며 韓國戰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스미스(Smith)소장은 그가 펜들톤(Pendleton)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첫 임무가 사단을 완전충원하여 편성한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스미스(Smith)소장이 사단장에 취임하기 전인 7월 15일 세퍼드(Shepherd)중장은 임시사단장인 리버세지(Harry B. Liversedge)준장에게 임시사단은 훈련을 강화하고 확충시킬 준비를 갖추면서 작업일과 시간을 연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는 사단의 급속한 증강을 위한 각급지휘관 및 참모진의 구성에 대하여 해병대사령관에 건의하였다. 케이츠스(Cates)대장은 연합작전참모부가 해병사단 증파문제를 위임하였을때 부터 2개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는 이미 파견된 여단에 소총중대와 보충병을 보내자는 Able 계획이고 둘째는 예비병을 소집하여 제1해병사단을 완전히 충원시켜 파견하자는 Baker 계획이었다.

이 두가지 안 중에서 의회(議會)의 동의와 트루맨(Truman)대통령의 재가로 예비병을 동원하는 후자(後者)의 안이 실현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제1해병사단은 韓國에 파견된 전투단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전투능력을 가진 사단이 되도록 조치되었으며 韓國으로의 출발일자는 8월 10일에서 15일사이로 예정되고 의회는 앞으로 1개년간 정규군과 예비병을 필요에 따라 증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7월 31일 3개중대를 필두로하여 1주일 동안에 걸쳐 많은 병력이 펜들톤(Pendleton)기지에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장비와 피복을 지급받는 등 갑자기 활기에 넘치게 되었는데 이때에 모여든 병력을 분류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제1사단 잔류장병……3,459명
타기지 주둔지에서……3,630명
제 2해병사단에서……7,182명
예비병에서 엄선한 병력……2,891명

이상 도합 17,16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리하여 부대편성은 韓國에 파견된 제1임시해병 여단을 제5해병연대로, 펜들톤(Pendleton)기지에서 편성된 제7해병연대가 제1해병연대와 더불어 3개 보병연대를 구성하고 포병으로 된 제11해병연대와 해리스(Field Harris)소장의 해병제1비행단등으로 동원부대의 군간을 이루게 되었다.

8월 7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사단병력의 승선과 작전계획을 만들 계획수립단(Planing Groups)이 사단장과 함께 극동에 공수되도록 요청하여 16일에 12명의 장교와 6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공로(空路)로 출발하고 스미스(Smith)소장과 10명의 장교 및 4명의 사병이 18일에 출발하였다. 이날 사단의 전병력이 승선을 완료하였는데 이것은 D—28일의 일이었다.

또한 사단직할대 요원과 8월 10일에 창설된 7연대 참모진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사이에 日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단편성에 있어서 충원이 용이치 않아 地中海에서 美제6함대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1개 해병대대를 극동으로 이동시켜 9월 9일 제7함대 제3대대로서 釜山에, 그리고 제5연대도 8월 30일 釜山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으므로써 美해병 제1사단의 출동준비는 日本의 고오베(神戶)와 釜山에서 각각 갖추어졌던것이다.

(3) 제7보병사단의 편성

美 제7사단을 완전편성하여 상륙부대로서 사용하기에는 제1해병사단의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본래 제7사단은 日本점령부대로서 1950년 7월중 제24, 25사단 및 기갑사단이 韓國으로 출동할 때부터 부족하였던 병력가운데서 장교 140명과 사병1,500명을 이들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에 7월말에는 인가된 병력의 절반도 안되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화기중대의 초급장교들과 하사관 기술병들의 부족은 현저하였으며 그 일례로 7월 27일 현재의 병력현황을 본다면 장교 290명, 준사관 126명, 사병 8,701명이나 부족되는 형편이었다.

7월26일에 극동사령부는 제7사단을 日本 점령 근무에서 해제시키고 韓國전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극동군에 전입된 전 장병을 제7사단에 우선 충원시키고 9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전 포병요원을 보강시켜 9월 14일까지는 장교 390명과 사병 5,400명이 보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병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민간청년들을 다수 동원하여 도합 8,637명을 日本에 도착시켜 美軍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카투사(KATUSA)의 실질적인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약 100명씩 소총중대와 포부대(砲部隊)로 나누어 배치하고 보병과 포병의 주요 화기 요원들은 美國에서 도착하는 대로 즉시 보충하게 되었다.

이들의 훈련은 포드·배닝(Fort Benning)의 보병학교와 포드·실(Fort Sill)의 포병학

교에서 보내온 고참하사관들에 의해 단기교육을 끝마친 다음 일로(一路) 仁川상륙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되었으며 상륙을 위해 승선할 당시의 병력은 韓國人을 포함하여 총24,854명에 달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겨우 보병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4) 韓國 해병대의 편성

韓國군으로서 역사적인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한 지상군은 이미 말한대로 해병대 제1연대와 육군 제17연대였다.

統營지구에서 수훈을 세운 해병 제1연대는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대령의 직접 지휘하에 濟州島에서 약 3,000명의 신병을 모집하고 또한 金聖恩 부대의 정병 2개중대로써 보강하여 1개연대를 편성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9월 6일 釜山에 집결한 다음 美 제5해병연대와 합동으로 상륙전을 위한 단기간의 특수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9월 11일까지에는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9월 10일 07.00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은 해병대 2개중대가 昌慶號로 統營에 도착하여 轅門고개 방어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金光恒 대위의 제2중대와 李鳳出 대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와 서로 임무를 교대한 다음 이들 제2, 제3중대는 9월 11일 24.00에 釜山에 도착하여 새로히 편성된 해병연대에 편입 하므로써 여기에 비로소 仁川 상륙작전을 위한 韓國 해병부대의 탄생을 보게된 것이다.

(5) 韓國 육군 제17연대의 편성

韓國 육군 제17연대는 제1군단에 속하고있던 首都사단예하이며 安康, 杞溪 방면에서 金熙濬 중령의 지휘 밑에서 전투 중이었으나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키 위하여 美 제10군단에 배속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首都사단에는 제1기갑연대를 교체하여 배속하게되고 제17연대는 육본작명 제179호(작명부록 제76호)에 의거 9월 15일 13.00부로 首都사단에서 해제되어 육본직할로 된 다음 9월14일과 15일 양일동안에 야간에만 걸쳐 釜山으로 이동하여 白仁燁 대령이 연대장으로 새로 임명되고 우리 韓國해병대와 함께 韓國 최초의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서울탈환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나. 정보획득과 작전기도의 비익(秘匿)

(1) 정보수집

仁川상륙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仁川 지역에 대한 수로 및 해안조건과 방파제와 적의 방어상태에 관한 정보의 획득문제였다. 그러므로 제1상륙사단에서는 7월부터 이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방대히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정보수집의 문제점

① 갯벌의 경사가 상륙주정의 운항에 적당한가?
② 수로의 심도(深度)는 어떠한가?
③ 미조리(Missouri)호등의 대형 전함의 진입이 가능한가?
④ 해벽(海壁)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⑤ 상륙한 병사들이 갯벌을 도보로 진격할 수 있는가?
⑥ 전차등의 중장비는 어떻게 상륙할 것인가?
⑦ 月尾島의 방어능력은 어떠한가?
⑧ 적의 주방어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⑨ 永仁지구에 배치된 병력상황은 어떠한가?


<높이가 15피트나 되는 仁川항의 방파제>

위의 모든 상황이 깊은 안개 속에 묻힌 의문의 연사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으니 유래(由來)로 훌륭한 계획과 올바른 작전이란 항상 정확한 정보 위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제1상륙단에서는 정보수집이라는 일점(一點)에 가능한 모든 지혜를 총집중시키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항공기는 매 시간마다 수백대의 사진으로 조수상태를 촬영하고 해도를 연구하며 제2차대전후 韓國에서 군정(軍政)기간 중 근무하였던 해군장병들까지 소환하여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선에서 포로가 된 적병의 진술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과학적인 사진의 분석을 위하여 美 공군의 필브리크(Richard W. Philbrick)대령과 조수인 카츠(Amon H. Katz)와 그레브스(Donald J. Graves)씨를 초청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도오쿄오(東京)에 근무 중인 육군의 밀러(W. R. Miller)준위를 소환하였는데 그는 군정당시에 仁川에서 1년동안 LSU와 LCM을 운전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여 제1상륙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제1해병사단의 G—2에도 보내고 있었으며 또한 선발된 해병장교 2명은 맥킨리(Mt. Mckinley)호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또 제163군사정보 파견대와 제441방첩대가 배속되었으며 연락과 통역 그리고 번역등에 종

사하는 한국사람도 많이 기용(起用)되었던 것이다.

한편 美 CIA요원인 혼(Kluck Hohn)씨와 韓國육군의 桂仁洙 대령과 해군의 延禎 중령및 G—2근무의 美軍들로 구성된 Trudy Jackson이라고 불리우는 첩보대에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桂대령은 韓國人첩보요원 22명을 모집하여 仁川지구에서 약 90개소에 급히 파송하여 적극 첩보활동을 실시토록하였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귀환보고 하였고 동시에 250명의 공정(空挺)대원을 투하시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仁川항 조사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1945년 美軍의 韓國점령에 관한 브리테인 보고서(Thomas F. Brittain's Report)였다.

그러나 어떤 정보상의 해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효용성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상륙부대 자체의 정보참모의 능력여하에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상륙용 궤도차량이 갯벌 위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신빙할만한 근거가 육해군 합동정보연구보고서와 전략공병연구논문 그리고 해군무관보고서 및 사진해설보고서 등에서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거기에 약간의 의문점이 개재된다면 부정적이라는 가정 밑에서 계획을 진행시켜야만 하였으니 이는 최악의 경우에 입각하여 만사를 다루는것이 병전(兵戰)의 원리인 까닭이다. 이런 것이 후일 여러사건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던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제1해병사단 G—2에서 취급된 다른 문제는 해벽(海壁)의 높이가 상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상륙용주정에서 바로 상륙하기가 곤란하여 과거 중세기(中世紀)시대의 공격무기와 같은 갈쿠리가 달린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된 것이다. 이리하여 日本 고오베(神戶)에서 필요한 도구를 급속히 만들기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요구한 일부만이 겨우 조달되고 그 나머지는 대용품으로 목재 사다리를 대신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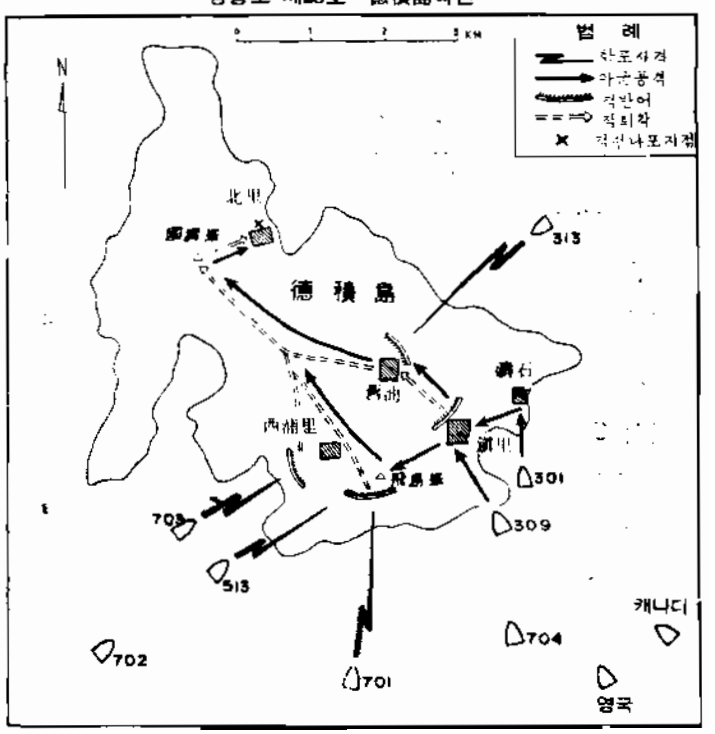
한편 韓國함정으로 구성된 제96.7함대사령관인 美 해군의 루시(Michael J. Lucsey)중령은 극동해군사령부에 적정과 지형에대한 정찰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한 거점을 확보키 위하여 서해안의 주요 도서를 먼저 탈환하겠다는 뜻에서 8월 15일 이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었다. 이 작전에 대한 새로운 건의가 승인되자 韓國 해군본부에서는 8월 16일 702함을 기함(旗艦)으로 701, 704, 513, 301, 307, 309, 313정의 함정들을 편성하여 작전에 참가토록 명령을 내리고 기함의 함장인 李熙晶 중령의 성(姓)을 따서 李작전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적은 서해안의 각 도서를 점령하고 무고한 도민들을 학살 또는 청년 장정들을 강제로 끌어가서 남침의 방패로 삼고 있었는데 특히 德積島는 그 위치가 仁川항 입구를 가로 막고 있었으므로 仁川 상륙에 있어서 전략상 德積群島를 확보함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德積群島 점령의 명령을 받게 된 우리 해군 제1함대는 즉시 이를 탈환코자 西海경비중인 함정으로부터 111명을 선발하여 육전대 1개 중대를 편성키로하는 동시에 중대장에는 702함의 항해장인 張瑾燮 중위를 임명하고 8월 18일 이 상륙중대는 301, 309정에 각각 분승하여 英國 순양함 켄야(Kenya)호와 카나다(Canada)구축함 아다바스칸(Athabaskan)호 및 아군의 702, 704함의 지원포격 아래 9월18일 상륙주력부대를 실은 301, 309정은 德積島 南東쪽 鎭里전방으로 전진하였다.

상륙을 엄호하는 513, 307, 701등의 함정들은 德積島 南方 西浦里 飛島峯을 목표로 하여 지원사격을 가하고 313정은 北方 舊浦를 공격케 하였다. 상륙중대는 鎭里 南方 外注音을 상륙 점령하고 제3소대는 滿石 南岸으로 상륙하여 즉시 진격하였을 때에는 이미 적은 鎭里를 포기하고 산악고지로 도주하였다.

적은 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飛島峯과 北部고지로 부터 중기와 소총으로 집중공격하여 왔으나 적은 아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하여 진지를 포기하고 다시 西北方 國師峯으로 후퇴하여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함정의 지원사격을 얻어 다시 추격하게 되자 적은 드디어 발동선 1척에 잡아타고 北里로부터 탈출하려고 피하였으나 아군은 이를 공격하여 나포하고 동 14.00에 德積島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상황도 제28호 德積島작전



아군은 鎭里의 인민위원회와 분주소(分駐所)에서 중요

문서를 압수한 다음 중대본부를 舊浦국민학교에 두고 도내의 잔적 섬멸작전을 실시한 결과 적사살 26명과 포로 7명 그리고 감금된 도민 구출 9명과 기타 많은 노획무기를 얻는 전과를 올리게되었다. 이렇게하여 이 도서내의 적을 모조리 섬멸한 우리 상륙중대는 부락민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다음 작전을 위해 도내의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청년단을 재조직케 하고 도내의 방위와 치안확보를 맡아보게한 다음 19일 21.00 중대는 이 섬에서 떠나오게 되었다.

20일 08.30에 313정은 仙甲島와 伊作島 및 普尾島 해상을 초계중 小伊作島에서 적을 발견하게 되자 급히 黃汀淵 소위외 8명으로 육전대를 조직한 다음 함포의 엄호사격하에 곧 상륙을 실시하여 의용군 24명을 사로잡았고 또한 끝까지 저항하는 적 7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다음날 21일 01.00 이섬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한편 德積島와 仁川의 교량이 될수 있는 靈興島는 仁川상륙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므로 德積島를 완전히 점령하자 곧 이어 靈興島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靈興島의 해안선 일대는 비교적 평탄하고 섬은 東部와 南部 및 內里등 三구로 분할되어 있으며 동부에는 해발 약 100m의 고지가 있고 西南方 魚城里 北方에도 같은 높이의 고지가 있었다.

적은 여기에 정규병력 약 30명 내외를 기간(基幹)으로 하여 좌익계열청년들을 동원한 다음 M1, 99식, 칼빙, 38식등 여러가지의 소총으로 경(輕)무장을 갖추고 주로 內里 一구와 二구로부터 魚城里 일대를 근거로 삼고 주둔 중이었다.

德積島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상전투의 경험을 가진 우리 육전중대는 사기왕성하며 靈興島에 대한 상륙전에 중대장 張瑾燮 중위이하 90명으로 편성하고 아군의 함정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8월 20일 06.00 함포사격의 지원아래 과감한 상륙을 감행하였다.

상륙중대의 제1 제2소대와 주력부대는 적접 중대장지휘 하에 D지점으로 향하고 제3소대는 C지점으로 향하여 靈興島 北쪽 돌출지점으로부터 內里1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11.30 적의 高地인 內里3區에 돌입하여 적의 分駐所에 감금되어 있던 아군의 육군병사 4명을 구출시킨 다음 적 2명을 생포하고 魚城里의 집결하고 있는 적을 공격차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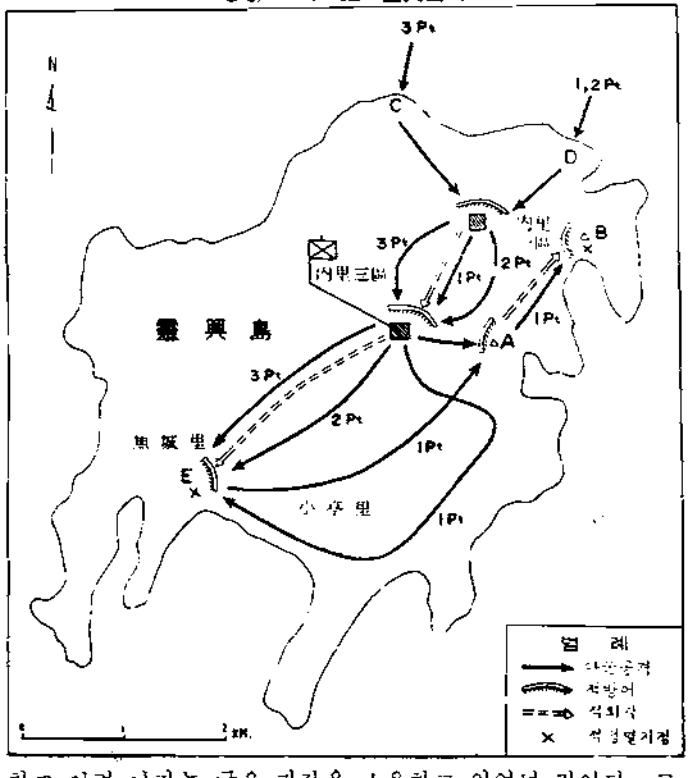
이때 內里 3區를 탈출한 약 20명의 적이 A高地에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하여 중대지휘반과 제1소대는 이를 포위하고 육박하였으나 적은 B高地로 도망하는 것을 추격하여

한 농가에 숨어있는 것을 아군의 분대장 朴東鎭 중사는 수류탄을 가지고 적과의 거리 3m까지 돌진하다가 적탄에 맞아 쓰러지고 이어 부분대장 李三宰 하사도 적에 돌진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으나 적은 아군의 집중사격으로 포로 2명과 수기(數基)의 시체를 남긴 채 해안선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한편 잔적을 섬멸키 위하여 702함으로 부터 급속히 12명의 증원을 얻은 다음 20일과 21일의 양일간에 걸쳐 이 섬에 잠복하고 있던 적을 색출하여 완전히 섬멸한 결과 적사살 6명과 포로 33명 각종 무기 28정과 탄약 1,000여발 및 기타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으나 아군에게도 전사자 4명과 경상자 7명을 내고 靈興島를 완전탈환하여 주요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은 美 해군 클라크(Eugene F. Clark)대위의 활동에대한 이야기인데 전 서부상사였던 그는 1949년이래 맥아더(MacArthur)사령관의 일반참모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의 범상치않았던 군대생활은 그로 하여금 정보수집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서 선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 8년간에 있어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동양에 근무하였으므로 오래동안 동양생활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생리와 사고방식등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日本語와 中國語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한 두뇌와 또한 위기에 처할때는 정확한 판단과 참고 이겨 나가는 굳은 기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8월 26일 仁川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의 임무를 부여 받게 되자 西海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Andrews)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韓國인 통역과 함께 英國해군 구축함 헤리티(H.M.S. Charity)호를 타고와서 9월 1일 韓國해군함정 PC 703함(함장 李晩淳 중령)에

상황도 제29호 靈興島작전



옮겨 탄 다음 그날 저녁에는 이미 鹽興島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는 주민들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수집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해안감시반을 조직하고 일부의 청년들을 仁川과 서울등지로 파견 침투시켜 적포대의 위치와 수, 해벽의 높이 그리고 敵仁간의 부대집결소와 이동등을 조사보고케하는 동시에 그 자신도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仁川灣으로 노를 저어 들어가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仁川南쪽 해역에서 야간활동 중 소선박 30여척을 나포하기도 하고 적 인민군과 내무서원(內務署員)이 타고 있던 삼판 1척을 나포하여 정보획득의 많은 도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八尾島등대의 항해등을 점화하여 아군 함선들이 비어수로(飛魚水路)를 안전하게 통과 할 수 있게 하였고 적이 아군의 상륙전을 예상하고 있는지 혹은 적이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각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무전으로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仁川앞 바다에는 아직도 적이 많았으며 특히 鹽興島에 인접한 大甫島에는 적병이 있었는데 우군이라고는 한명도 없는 적전에서 눈앞에 적을 두고 위험한 정보임무를 완수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볼때 클라크(Clark)대위의 공적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2) 작전기도의 은폐

적의 측방과 배후를 기습하여 얻는 전과는 적의 전면에서의 그것보다 항상 막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동해안에서 洛東江을 연하여 馬山에 이른다음 釜山 교두보만을 남겨 놓은채 洛東江 방어선에서는 피아간 일진일퇴하는 치열한 전투만이 되풀이되고 있을 때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일시에 적을 포촉 섬멸시키기 위해서는 육전보다는 오히려 적의 해상을 이용하여 배후를 찔러 중요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것이 더욱 손쉽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전쟁초부터 착착 仁川 상륙작전을 계획해 왔던 것은 이미 말한바와 같다.

이러한 전쟁지도의 대원칙아래 260여척의 함정과 수만의 장병을 동원하여 가능하면 적이 예기치 않는 장소와 시일을 택하여 기습상륙을 감행한다면 그 효과야말로 아군의 손실도 적을뿐만아니라 그에따르는 전과도 또한 막대할 것이고 전쟁의 종결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방대한 작전계획 수립자들은 작전을 실천하기에 앞서 여러가지로 은폐 방책을 강구하였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당시 日本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우글거렸고 적측의 정보원들이 출몰하고 있는데다가 엄격한 검열제도마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병력집결과 물자선적(物資船積)등을 비밀리에 행한 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적은 그들의 정보망을 통해 UN군과 국군이 釜山에 집결하여 승선하는 것을 이미 탐지하고 어느 지점에 상륙한다는 것은 예상하였으리라고 믿으나 확실한 일시와 장소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UN군측의 기만정책이 크게 그 효용을 발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韓國戰참가 함정 중 가장 강력한 전함 미조리(Missouri)호는 동해안의 요충지(要衝地)에 있는 三陟을 포격하였고 구축함 트라이엄프(Triumph)호와 헬레나(Helena)호는 馬養島를 공격하였다. 또 釜山에 제5해병연대가 집결했을 때에는 병사들에게 반공개(半公開)적으로 群山의 지형조건을 설명하여 마치 群山에 상륙하는 것과 같은 위장전술을 쓰고 함정들은 사전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일제 포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5공군 휘하의 비행기들은 群山 주위 30마일 이내의 도로와 교량, 그리고 철도등에 대한 폭격을 병행키로 하였으니 이것도 그 기만전술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한편 英國함정 화이트샌드베이(White Sand Bay)호를 주력으로 韓·英·美軍의 합동작전으로 群山에 상륙 공격할 양동작전계획도 세우는가 하면 群山 시민에게 대하여서는 「해안에서 철수하여 내륙지방으로 피난하라」는 내용의 전단(傳單)을 살포하고 韓國해군은 이 지역을 임시 봉쇄하기 까지 시종일관으로 적에 대한 위장전술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해안에서 실시되었던 長沙洞 기습작전은 특기할만한 것이었다.

이 長沙洞이란 곳은 동해안 浦項北쪽 약 25km지점의 좁은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으로서 西南北의 삼면은 산악으로 둘러쌓인 분지(盆地)이고 南方의 地境洞 高地와 北쪽의 富興洞 高地는 해발 200m이며 적은 양고지의 해안이 험난한 암초로 된 산기슭에 집결하여 방어진지를 굳게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仁川에 UN군이 상륙하기 직전이므로 반대편인 동해안에서는 기습상륙을 감행하여 적을 견제하면서 京仁 지구에 대한 적군의 증원을 방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트맨(C. Hartman)소장이 지휘하는 제95.2 기동함대의 엄호와 구축함의 호송을 받은

韓國해군의 수송선인 LST 牧山호(정발선)는 육군 李宗勳(一名 李明欽)대위의 특수공작대 772명을 승선시킨 다음 9월 13일 오후에 釜山을 출항하여 다음 날 14일 오전에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마침 케지아(Kejia)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였으므로 파도는 높아 10피드까지 오르내리고 그위에 깊은 안개까지 심하게 덮였으므로 해안에 착안 하기가 대우 어려웠다. 그리하여 약 30m의 거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적의 맹렬한 사격을 무릅쓰면서 적전상



<長沙洞 앞 바다에 좌초된 牧山호>

륙을 감행하였는데 06.00경 牧山호는 심한 파도에 밀리게 되어 마침내 좌초되고 말았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 결행된 이 상륙전은 초기부터 1개 대대의 병력으로 추산되는 적이 양고지에서 상륙부대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퍼붓게 되었으므로 아군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상륙할 때에 휴대하였던 탄약의 대부분을 해중에 유실하게 되어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고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파견되었던 美 해군의 쿠퍼(Cooper)상사가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상륙부대의 긴급한 구조요청에 접한 해군본부에서는 즉시 美 육군의 스피어(Frank Spier) 소령을 LT(해난구조선) 636호에 승선시켜 현장으로 보냈으나 너무나 깊이 좌초되었으므로 구조에 실패하고 일몰과 함께 철수하고 말았는데 韓國해군의 304정도 역시 출동하였으나

시계(視界)의 불량과 극심한 풍랑으로 좌초선의 소재조차 발견하지 못한채 九龍浦로 귀항하고 말았다.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된 해군에서는 「상륙부대를 구출하려면 증원부대를 보내거나 또는 철수하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라고 육군본부에 연락한 다음 철수를 위해 金宇鳳 중위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LST 鳥致院호를 현장에 급파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9월 18일에는 구조비행기를 현지에 보내서 상륙부대는 현지를 확보하고 있으리라는 뜻을 알리는 동시에 약간의 탄약과 의료품을 투하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 날 19일 06.00에 조난장소에 도착한 鳥致院호는 LT승조 책임자인 美 육군의 스피어 (Spier)소령이 지휘하였으나 鳥致院호의 민간인 선장은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좌초된 汶山호 근처에 배를 대지않으므로 부득이 자신이 직접 조타하며 汶山호 東北쪽 약 400m 이고 육지로부터는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투묘한 다음 구조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민간인과 군인의 정신자세는 이와 같이 다른 것이었다.

적은 아군이 다시 상륙하는 줄 알고 더욱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구조작업을 엄호하는 함포사격과 비행기의 폭격으로 적의 화력은 견제되었다. 그 간격을 이용하여 13.33까지 약 7시간에 걸친 결사적인 구조작업으로 9월 20일 새벽 123명의 전사자를 내고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677명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39명의 대원만은 갑자기 적 대부대의 내습과 아울러 구명대(救命袋)의 유실과 극심한 풍랑으로 부득이 구출을 단념하게 되고 그들은 끝내 귀함하지 못하고 현장에 남아 끝까지 싸우다가 아군이 北상할 때 우리 진격부대와 함께 東해안을 따라 북진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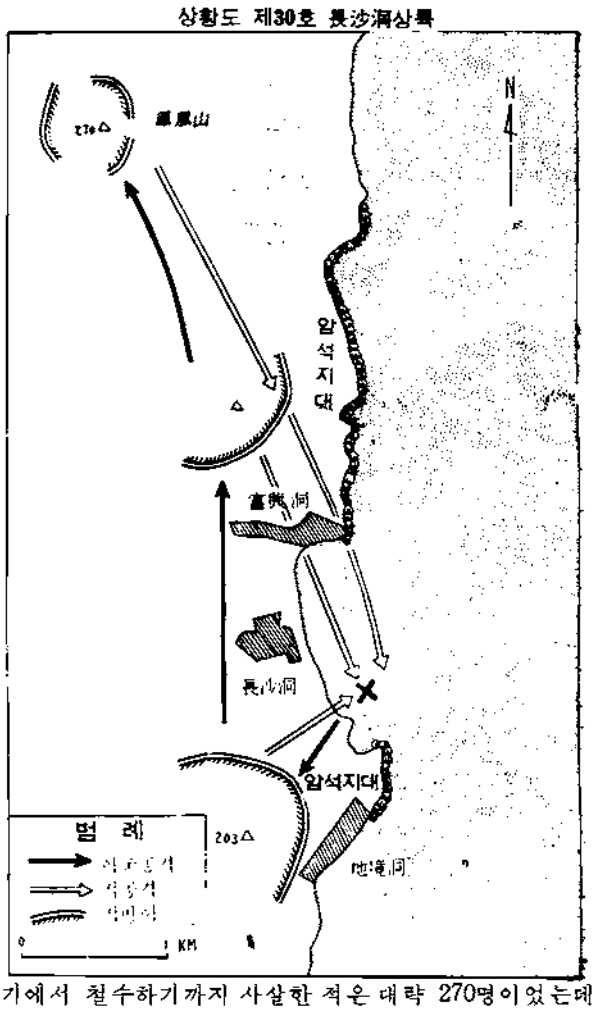
이밖에도 미조리(Missouri)호등 여러 함대는 浦項근처의 兄山江 유역에 포격을 가하여 적의 준동(蠢動)을 제압하면서 아군을 지원하여 적으로 하여금 仁川 상륙을 위장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비록 長沙洞의 기습상륙작전은 희생이 많았으나 적을 기만하여 仁川상륙을 성공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長沙洞기습작전에 참가하였던 육군부대는 통칭(通稱) 「육군독립明부대 라고 하며 전술고문에 유격전의 권위자인 全盛鎬대령과 정략고문 朴永善(전中國 國府軍소장)을 모시고 주로 학생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전투경험이 없는 신병들이었지만 일치단결하여 汶山

호 선원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던 것이다.

9월 14일의 실시된 상륙전에서 全盛鎬 대령은 정오경에 전사하고 상륙지점 전면의 200高地를 점령할 때까지 아군은 전사자 129명이나 내는 커다란 손실을 보면서 15일 정오 때까지는 모두 적을 격퇴하였다.



아군은 점차 세력권을 확대하여 인근 30여리까지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우선 적군의 주보급로인 浦項·永川 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완전 차단하여 적군의 후방활동을 마비시켰고 또한 浦項 慶州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던 적 2개연대와 전차 4대를 盈德방면으로 유인하므로써 전선의 적 작전배비(配備)를 교란시키는데 일시는 성공한 셈이었다. 아군이 여기에서 철수하기까지 사살한 적은 대략 270명이었는데 그밖에도 다수의 보급창고와 후방 의무시설을 급습하여 불태워 버린 다음 군수(郡守)와 청년단장 등을 임명하여 행정력을 장악하는 동시에 新興洞 보안대를 습격하여 수감중인 애국청년 10명을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이 작전은 仁川 상륙작전의 앞서 소규모의 위장된 일개 상륙작전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북괴武亭군단의 동해안 전선은 예기치 않았던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당시 平壤방송은 아군 2개연대가 동해안에 상륙하였다고 보도하였을 정도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군 제1군단의 총반격전과 仁川 상륙작전을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견제적인 조공(助攻)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作戰計劃의 實施過程

참조 : 별책부도 제30, 31호
상 황 도 제31, 32, 33호.

가. 彼我의 참전함대 및 부대와 주요지휘관

(1) 아 군

제 7 합동기동함대 사령관 해군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 90 기 동 함 대(공격함대) 사령관 해군소장 도일(James H. Doyle)

제 91 기 동 함 대(봉쇄 및 엄호함대) 사령관 영국해군소장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

제 77 기 동 함 대(고속항공모함대) 사령관 해군소장 이웬(Edward C. Ewen)

제 99 기 동 함 대(초계 및 정찰함대) 사령관 해군소장 헨더슨(George R. Henderson)

제 79 기 동 함 대(군수함대) 사령관 해군대령 오스틴(Bernard L. Austin)

제 10 군 단 장 육군소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제 1 해 병 사 단 장 해병소장 스미스(Oliver P. Smith)

제 1 해병비행단 장 해병소장 해리스(Field Harris)

제 7 보 병 사 단 장 육군소장 바아(David G. Barr)

한국함대 총참모장 해군소장 孫元一

한국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령 申鉉俊

한국육군 제17연대장 육군대령 白仁燁

지상군 총병력 약 75,000명

함 정 세 력

미 국	226척	호 주	2척
한 국	15척	뉴질랜드	2척
영 국	12척	프 랑 스	1척
카 나 다	3척	함 정 총 수	261척

(2) 적 군

서울위술제18사단 장 金 勳

제31여단 1개대대 장 미상

仁川경비여단 장 朴勳一

京仁지구 총병력 약 20,000명

나. 작전경과의 개요

(1) 上陸軍의 출항

8월말 日本의 고오베(神戶) 사세호(佐世保)및 요꼬하마(橫濱)와 釜山港은 仁川 상륙작전의 최초단계에 있어서 상륙부대를 적재 장비하는 긴장된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美 제1해병사단은 고오베(神戶)에서 제5해병연대는 釜山에서, 그리고 美 제7보병사단은 요꼬하마(橫濱)에서 각각 승선하였고 대부분의 호위함정과 함포사격지원대 및 기함은 사세호(佐世保)에 집결하고 있었다.

상륙부대를 수송할 함정과 장비및 보급품은 8월말까지 지정된 적재항에 도착되었으며 LST함정들은 9월10일 그리고 수송화물선은 이틀 뒤인 12일에 각각 고오베(神戶)를 떠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공격부대만이 전투용적재를 하였고 日本人 승조원들은 47척의 LST중에서 37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9월3일 아침에는 50여척의 함정이 집결된 고오베(神戶)항에 태풍이 내습하리라는 기상경보가 발표되었으므로 모든 적재작업은 36시간동안 중단되었다. 이 날 06.00에는 태풍 제인(Jane)호는 東쪽에서 휘몰아치고 정오에는 풍속 110마일에 달하였고 파도는 40피트 높이까지 달하며 방파제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7척의 미국 선박은 닻줄이 끊어졌고 200톤급의 기중기 1대가 파손되었는데 따라서 대규모의 작전을 감행하려면 예기치 않던 이러한 난관 쯤은 미리 각오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기상학적 견지에서나 혹은 한반도의 특수한 위치와 지형에서 본다면 6월에서 9월까지의 연 이은 태풍을 뚫으면서 상륙군과 장비를 적재한 큰 선단들이 작전목표로 향한다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아무리 거대한 현대의 함대라도 태풍 앞에는 여전히 무력하였으니 제2차 대전당시 北아프리카 상륙작전에서도 큰 문제꺼리가 되었고, 시실리(Sicily)도 상륙전에서도 곤난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출항을 앞 둔 UN함대에도 닥쳐 왔는데 제2 차 대전 당시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오버로오드(Overlord)작전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仁川의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다행히 태풍의 진로가 변경될지 모른다는 희망아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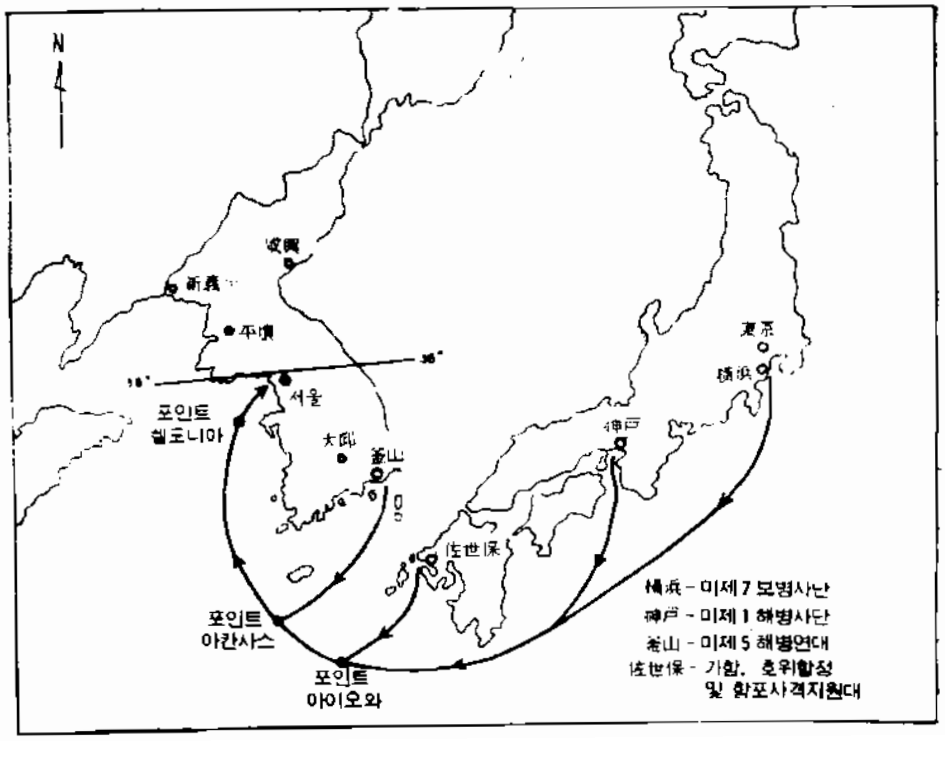
오베(神戶)항에서 예정보다 하루 전에 상륙부대를 승선시켰는데 다행히도 17.30 태풍은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지 한 시간 뒤에는 항구는 비교적 고요한 가운데 정리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약간의 선박은 수리를 위해 건선거(乾船渠)에 들어가고 그 밖의 수척은 배수(排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지체와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오베(神戶)항구에 있는 美 제1해병사단은 9월 11일까지 모두 출항하여야만 되었으므로 10일과 11일에는 이미 66척의 화물선이 仁川으로 출항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태풍을 앞에 두고 있었다.

케지아(Kezia)호라고 불리우는 이 태풍은 9월7일부터 장기간 관측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9월 12일과 13일에는 韓國 해협에 도달할수 있는 속도로서 남방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9월11일 美 제1해병사단은 고오베(神戶)에서 美 제7보병사단은 요꼬하마(橫濱)에서 출항하였고 그 다음 날 美 제5해병연대는 해상의 지정 집결지를 향해 釜山을 떠났다.

기함 로체스터(Rochester)함은 합동기동함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중장과 함께 9월 22일 15.30 사세호(佐世保)에서 仁川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맥아더(Mac Arthur) 사령관과 알몬드(Almond)소장 그리고 라이트(Wright)준상과 혹스(Alonzo P. Fox)

상황도 제31호 上陸軍 출항



소장 및 윗트니(Courtney Whitney)소장을 비롯하여 해병대의 셰퍼트(Shepherd)중장을 포함한 고급장교들은 도오쿄오(東京)에서 이다쯔께(板付) 공군기지를 거쳐 21.20 사세호(佐世保)에 도착하였다.

원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 일행은 13일 도오쿄오(東京)을 출발하여 그 전날 저녁 고구라(小倉)에 도착하여 마운트 맥킨리(Mt. Mckinley)호에 탑승하도록 되었는데 그때까지 맥킨리(Mt. Mckinley)호함은 도착하지 못하고 겨우 밤 중에야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맥아더(Mac Arthur)사령관 일행이 탑승한 지 반 시간 후에 상륙함대는 목표지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13일 이른 아침 日本 九州南端을 지나가면서 거치른 항해를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풍속은 60마일에 달했고 푸른 파도는 선수에 마구 부딪히고 갑판에 실은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였다.

그날 낮 태풍 케지아(Kezia)호는 東北향 쪽으로 지나 갔고 오후가 되어 겨우 상륙함대는 고요히해상을 항해할 수가 있었다.

한편 110대의 항공기를 싣고 캘리포니아(California)西해안을 출발한 항공모함 복사(Boxar)호는 태풍과 싸우면서 14일 日本에 도착한 다음 저녁에는 곧 사세호(佐世保)를 떠나 仁川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9월14일까지는 집결지인 포인트·캘리포오니아(Point California)에 이 작전에 참가하게 될 모든 함선들이 총 집결할 수 있었으나 다만 제1해병연대의 제2대대가 승함한 LST함만이 고장으로 약간 뒤에 떨어졌으나 예인선의 도움으로 겨우 정해진 시간 안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2) 제1해병사단의 출동

日本 고오베(神戶)에서의 제1해병사단의 승선은 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막대한 양의 보급품들이 창고의 부족으로 日本人 소유의 대소 선박에 실린 채 함정에 적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항내는 시일이 지나갈수록 복잡해지기만 하였다. 이렇게 협소한 항내조건과 태풍등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랜 해병대의 전통만이 힘든 이 임무를 가능케 하였다.

당시 임시로 제1해병사단에 위임된 함선은 다음과 같았다.

상륙전기함(AGC)	1
공격수송함	6

공격화물수송함	8
상륙선거함(LSD)	3
LSM	1
고속수송함(APD)	3
LSU	12
LST	17
일본선박관리국(Scajap) 소속의 LST	30

상륙병력으로는 약 29,000명의 장병을 6개의 승선단으로 나누어 분승하였는데 샤리(Charlie)는 釜山에서, 폭스(Fox)는 요꼬하마(橫濱)에서, 기타는 고오베(神戶)가 승선지였다. 그리고 제5해병연대와 한국해병대가 승선한 釜山항은 이들이 승선한 공격수송함(APA) 3척과공격화물수송함이 정박하기에 매우 좋아서 상륙부대 수송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가있었다.

승함단 배치부대 및 함정명

승 함 단	부 대	함 정
Able	사단직할부대 제1전투군무단(CSG)	1 AGC 2 APA. 5 AKA. 9 LST. 1 LSM. 3 LSU
Baker	제1해병연대 제1상륙용트럭터대대	1 APA 12 LST
Charlie	제5해병연대 제73전차대대(美 육군)	3 APA 12 LST. 3 APD. 3 LSU
Dog	제11해병연대	1 AKA. 6 LST
Easy	제1전차대대	2 LSD. 6 LST
Fox	제2특수공병여단(美 육군) 제96야포대대	1 AKA. 4 LST.

(3) 한국해병대의 출동

8월30일 극동해군사령관은 제7합동기동함대에 공격상륙으로 해두보(海頭堡)를 점령하

라는 작전명령 제108—50을 하달하였다. 또한 28일에 하달된 제10군단의 작전명령 제1호에 의해 제1해병사단의 승선명령 제1—50이 31일에 하달되고, 9월3일에는 전에 계획되었던 제1해병사단에 韓國육군 제17연대의 배속을 韓國 해병대로 대치토록 하였다.

상륙에 앞서 美 제8군은 美軍의 표준장비와 화기를 韓國 해병대에 지급하였는데 이전에는 구식의 소총과 극소수의 M—1소총만으로 장비되어 있었다.

그당시 韓國 해병대는 짧은 기간과 언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리고 쉽게 새로운 화기에 숙달되어 美軍의 많은 감탄을 받았다. 이리하여 韓國 해병대는 美 제1해병사단의 제4연대로서 배속되었고 지휘관은 申鉉俊 대령이었다.

한국해병대의 병력은 먼저 편성한 대로 1개 연대로서 이들은 釜山에서 모든 승선준비를 완료한 다음 9월 11일에는 제2대대의 일부가 美해군 LST 306호에 승선하고 기타는 12일 11.00에 공격수송함 피카웨이(Pikaway)호에 승선하여 다음 날 釜山을 출항하여 일로 목적지를 향하여 서서히 진격하였다.

이때 해군참모총장 孫元一소장도 같이 승선하여 참전하였으나 어느 곳을 어떤 목적으로 항해하는지는 전연 몰랐다고 한다.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위장전술을 사용하여 누구에게나 仁川상륙을 생각지 못하게 하였던 仁川상륙도 드디어 13일 피카웨이(Pikaway) 함상에서 美 제5해병연대와의 합동작전회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되고 14일에는 美 대통령 특사인 美 육군의 로우(Frank Lowe) 예비역 소장이 韓國 해병대 전원에게 소개되었으며, 15일 06.00에는 仁川상륙에 관한 일장훈시를 孫元一 소장으로 부터 韓國 해병대에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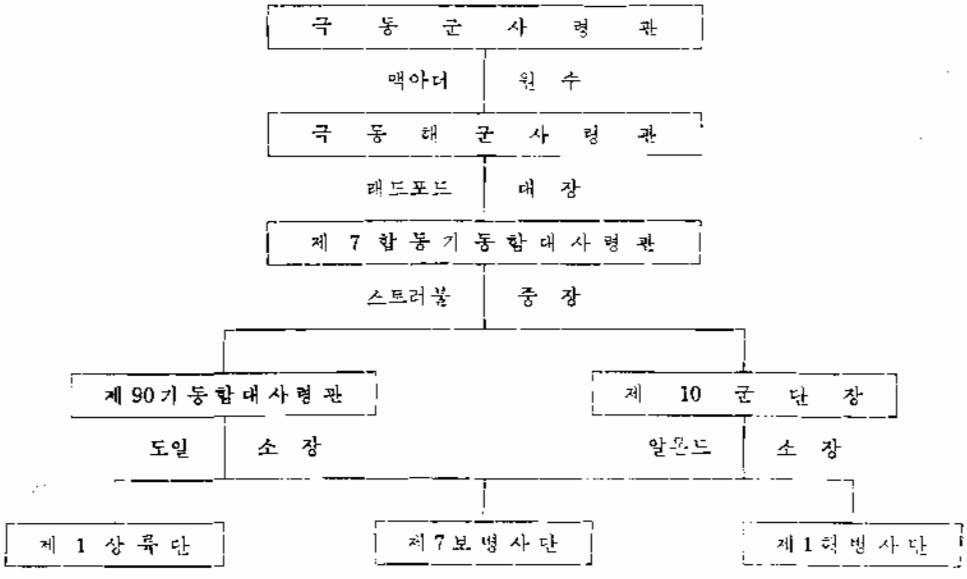
(4) 제7합동기동함대의 發進

제7합동기동함대의 이동계획은 함정의 배비상황, 비밀의 필요성, 시간의 제한등을 무릅쓰고 오로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仁川상륙을 위해 예의 검토되고 진행되었다.

당시 상륙부대가 탑승하고 진격하며 목적지에 상륙하는 동안의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출항준비에 앞서 태풍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또 다른 태풍의 내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일(Doyle) 소장은 그의 휘하 함대를 출동 예정일보다 하루 앞 당겨 출발시키기 까지하였다. 그러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9월12일 야간에 사세호(佐世保)에 대기 중인 맥킨리(Mt. Mckinley)호에 편승하여 仁川을 향해 출항함으로써 모든 공격함대와 상륙

상륙군의 지휘계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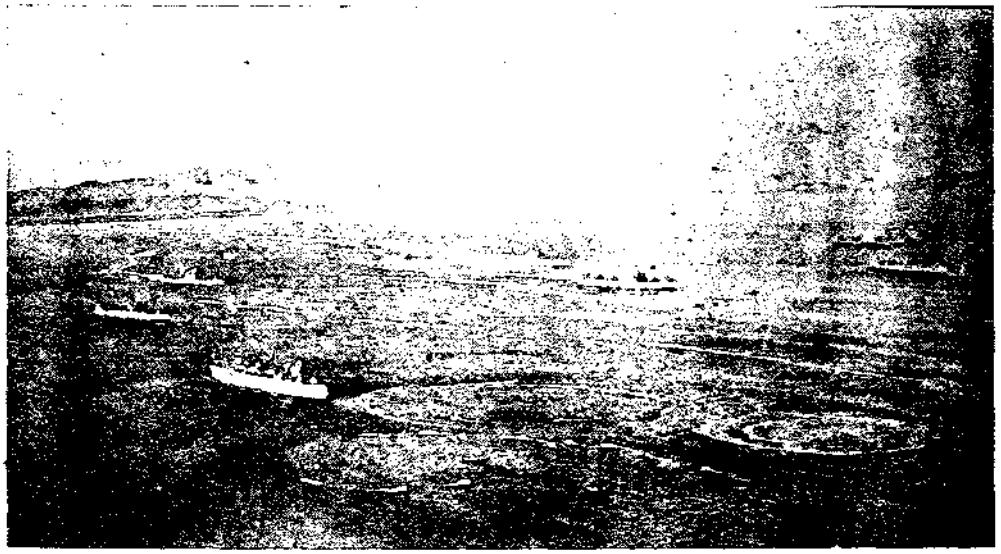
부대는 9월14일까지 집결지인 포인트 캘리포니아(Point Califonia)에 합류할 수가 있었다. 다만, 제1해병연대의 제2대대가 승선한 LST가 고장으로 약간 뒤 떨어졌으나 예인선의 도움으로 거우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었다.

상륙부대 출항상황

부 대	함 선	항 구	일 자
부 교 이 동 단	2ATF. 3LSU. 1YTB. 1YW	橫 浦	9월 5일
상륙 로켓트함대		橫 浦	9월 9일
트랜터 이동대A	1LSM. 1AMS. 1AM. 1ARS. 2LSD 36LST	釜 山	9월 10일
트랜터 이동대B	1ARL. 1RF. 1PCEC. 12LST	釜 山	9월 10일
수 송 이 동 단	5APA. 8ALA. 1AP. 2PF	釜 山	9월 10일
전방공격단(月尾)	1LSD. 3APD	釜 山	9월 13일

(5) 上陸戰의 決行 (별책부도 제30호, 제31호)

UN군에서는 9월15일 仁川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먼저 극동공군으로 하여금 8월말부터 9월 초에 걸쳐 仁川—서울간의 항공사진 정찰을 면밀히 실시하였다.



<상륙명령을 기다리며 해상을 선회하는 상륙주정들>

한편 京仁지구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저지작전은 함재기에 의하여 9월 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목표는 仁川을 중심으로 반경 50km이내의 도로와 교량 그리고 터널과 조차장등을 모두 포함한 것은 물론이었다. 이리하여 폭격비행대는 9월9일부터 철도망 파괴작전을 시작하여 매일 B-29의 1개 연대로써 仁川—서울간의 京元線과 平壤—서울간의 京義線의 정거장등을 폭격하는 한편 또 다른 2개 연대로 하여금 철도의 선로를 폭격케 하므로써 9월 13일까지에 46개소를 파괴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9월11일에는 新幕 비행장에서 적의 YAK형 전투기 2대를, 그리고 12일에는 平壤 비행장에서 위장하고 있는 YAK기 3대를 파괴하는 동시에 1대를 손상케 하였으며 상륙 전일인 14일에는 60대로 하여금 安州—興南以南의 주요 철로를 폭격하여 북한에서 京仁지구로 향하는 모든 철도망을 파괴하여 적의 병력과 후방보급물등 일체의 수송 기능을 재기불능케 만들었다.

(가) 준비공격

仁川에 상륙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仁川의 관문인 月尾島를 먼저 제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7함동기동함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月尾島를 공격하는 작전을 9월 12일부터 계획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루블(Richard W. Ruble)소장이 지휘하는 기동부대 95.8의 해병대항공기들이 네이팜탄으로 月尾島를 공격하고 이어 13일과 14일에는 선견부대가 공격한 다음 D-Day

아침에도 다시 맹열한 폭격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상륙작전의 모든 단계에서 서해안의 항공작전을 잘 조화시켜서 仁川을 상륙지역으로 부터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함재기들이 月尾島만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고 北으로는 永宗 주변과 南으로는 龍川 근방까지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원래 月尾島는 관광과 휴양지로 유명하며 해발 105m의 작은 섬으로써 仁川과는 약 900m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小月尾島와는 西南端에서 역시 같은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섬은 공격과 방어의 요지로서 UN군의 주요 상륙목표의 하나였으며 적은 지형을 이용하여 仁川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 따라서 이섬은 仁川 상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기도 하였다.

당시 이 섬에는 적의 중대병력이 방어진지를 굳게 하고 많은 민간인을 강제동원하여 지하 깊이 호를 구축하는 한편 2문의 대공화기와 20여종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미리부터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

한편 小月尾島에도 기관총 25정과 박격포 2문으로 하여금 仁川앞 해상을 엄중히 경비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仁川항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은 仁川항 입구에 기뢰를 부설하였을 공산도 없지 않았으나 그 까닭은 이미 9월4일에 鎭南浦 西南方에서 구축함 맥킨(McKean)호가 적의 기뢰를 발견한 것을 비롯하여 3일 후에는 이 해역을 통과하던 英國함대가 역시 수개의 기뢰를 발견하였고 10일에는 韓國 해군의 703함이 海州 해상에서 기뢰부설 작업 중인 적선을 침몰시키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太平洋함대사령부에 많은 소해정을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래드포오드(A. W. Radford) 대장은 이 뜻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건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해정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축함 헨더어슨(Henderson)호에게 만조가 되기전에 전부 총격으로 폭파시키고 기타 함정들은 仁川수역에 진입하라고 명령하였다.

9월 10일 해병대의 전투기들은 月尾島를 공격하였는데 VMF(해병비행대대)—323의 6대와 VMF—214의 8대가 이 공격을 담당하게 되고 12일부터는 제77기동함대의 해군기들이 月尾島를 공격하였고 제90.6기동함대는 히긴스(Higgins)소장의 지휘 하에 13일 07.00 목표에 도착하여 月尾島전방 800야드까지 진격하여 정박하였다.

그리고 힉긴스(Higgins)소장은 좁은 수로에서 이동하기 불리한 구축함들을 공격키 위하여 적이 침공하여 올지도 모름으로 이에 대비하여 승조원들에게 비상 소화기과 수류탄을 준비토록 세밀한 준비와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함선들에 이어 스트러블(Struble)중장이 탑승한 로체스터(Rochester)호와 힉긴스(Higgins)소장의 토레도(Toledo)호 및 英國 해군의 자마이카(Jamaica)와 케냐(Kenya)등의 양순양함이 수로에 진입하고 상공에는 전투기들이 이를 호위하였다. 투묘(投錨)한 함선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수를 내향으로 돌려 놓고 13.00부터 일시에 포문을 열어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적은 모두 병력을 해안으로 집결시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고 적진에서는 UN군이 仁川에 상륙할려지도 모름으로 10척의 함정이 여기에 급파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진위(眞僞)는 알 수가 없었다.

UN군의 준비폭격에 따라 적도 응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포화는 주로 스완슨(Swanson), 콜릿트(Collett), 걸크(Gurke)호에 집중되어 스완슨(Swanson)호의 장교 1명이 전사하고 사병 8명이 부상 당하였다. 이러한 것을 적진 방송은 떠들어 대기를 13척의 UN함정이 침몰 파손되었다고 허위 날조(捏造)된 보도까지 하였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이와 같은 포격이 약 1시간에 걸쳐 5인치 포탄을 1,000발이나 퍼붓고 구축함들이 수로를 빠져 나오자 13.52부터는 순양함들이 다시 포격을 시작하고 곧 이어 공중공격도 집중발



<UN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황폐화 된 仁川>

하게 되었는데 함포사격에 대한 적의 반격도 예상보다는 강력하였음으로 14일에 재차 공중폭격을 위시하여 11.00부터 아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이 月尾島에 대하여 전면적인 함포사격을 총집중하여 적의 화력을 거의 제압하고 말았다.

(나) 月尾島탈환

D-Day인 9월15일은 태풍도 지나간 쾌청한 날씨로 미풍이 西北에서 불어오는 좋은 화요일이었다. 이날의 작전은 호송 항공모함 시실리(Sicily)호와 바동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에서 VMF-214와 VMF323의 코르세어(cosaire) 기들이 출격하는 폭음을 신호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제77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밸리 포즈(Valley Forge), 필립핀 씨(Phillipine Sea), 박서(Boxer)호에서 출격한 해군기들도 함께 상공을 덮으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내도하는 것이었다.

仁川항의 진입로는 東쪽 수로와 西쪽 수로의 두개가 있으나 西쪽의 것이 공격군의 사용로로 선정되었다. 시어스(Norman W. Sears)대령이 지휘하는 제90.1전 공격단이 자정을 지나서 수로에 들어 닥치기 시작하였고 02.30에 맨스필드(Mansfield)호를 선두로 19척의 함포지원선단이 西쪽 수로로 진입하였는데 클라크(Clark)대위가 복구한 八尾島 등대는 휘황한 불빛으로 수로 진입을 인도하여 무난히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시어스(Sears)대령과 제5해병연대의 제3대대는 05.40 상륙명령을 받았으며 이어 5분 후에는 순양함들의 6인치 및 8인치 함포와 구축함들의 5인치 함포들이 그 거대한 포문에서 일시에 포화를 토하기 시작하여 06.00까지는 전 상륙군이 상륙정에 분승하여 상륙시각이 될 때까지 선회하면서 일각천추(一刻千秋)로 대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06.15에 공중공격이 끝나고 LSMR이 月尾島에 집중 공격을 가하게 되자 7척의 LCVP가 해변으로 돌진하여 06.33에는 이미 제1진이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륙군은 거의 무저항으로 전진하였으며 UDT(수중폭파반)대원들의 활동부족으로 약 50야드 넓이의 해안만을 상륙지점으로 사용하였다. 이어 LSU 3척이 포트 마리온(Fort Marion)호로부터 전차 10대를 싣고 뒤 따라 상륙하는 즉시 적을 닥치는대로 산산히 격파하고 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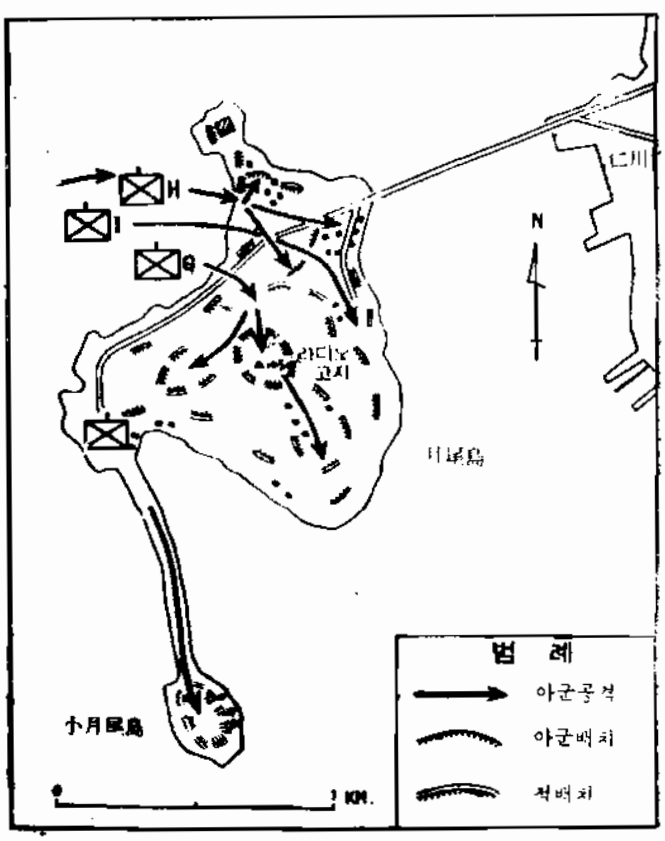
그리고 06.55 스미스(Alvin E. Smith)상사가 月尾島정상에 성조기를 높이 게양하고 07.59에는 제4진인 I중대가 도착하여 H중대가 적을 섬멸했으리라고 믿었던 지점을 진격하다가 약 1개소대의 적에게 반격 당하였다. 그러나 부르도저 전차가 이를 제압하고 상륙한 지 1시간도 채 못되어 제3대대는 月尾島의 반을 제압할 수 있었다. H중대는 南쪽을 공격하고 G중대는 라디오高地 北쪽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08.07에는 月尾島를 완전히 확

보 하게된 타프레트(Robert D Teplett)중령은 小月尾島를 공격하기 전에 각중대를 모두 배치하여 시가지로 부터의 반격에 대비케 하고 포로수용소를 임시로 수영장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곳곳에는 전화(戰火)가 가득하였다.

小月尾島에 대한 공격은 G중대가 맡게 되었는데 중대장 본(Robert D. Bohn)중위는 기관총과 전차로 증강된 1개분대로 하여금 공격을 가하였으나 1개소대의 적은 최후의 발악적인 저항을 계속함으로 VMF-214의 비행기들이 네이팜탄 공격으로 지원하여 적을 정오까지 완전히 복멸하고 말았다. 이 月尾島 탈환에 있어서의 전과는 적 사살 108명 포로 136명이고 그밖에 150여명은 그들의 호안에서 함포와 비행기 폭격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반대로 아군의 피해는 불과 부상자 17명 뿐이었다.

적의 주력은 대부분이 최근에 강제로 뽑혔던 소위 의용군들이며 이밖에도 약간의 훈련을 받은 신병들로서 구성되고 소련제 76mm포로 장비된 제 918해안포연대의 2개중대로 증강된 제226연대의 일부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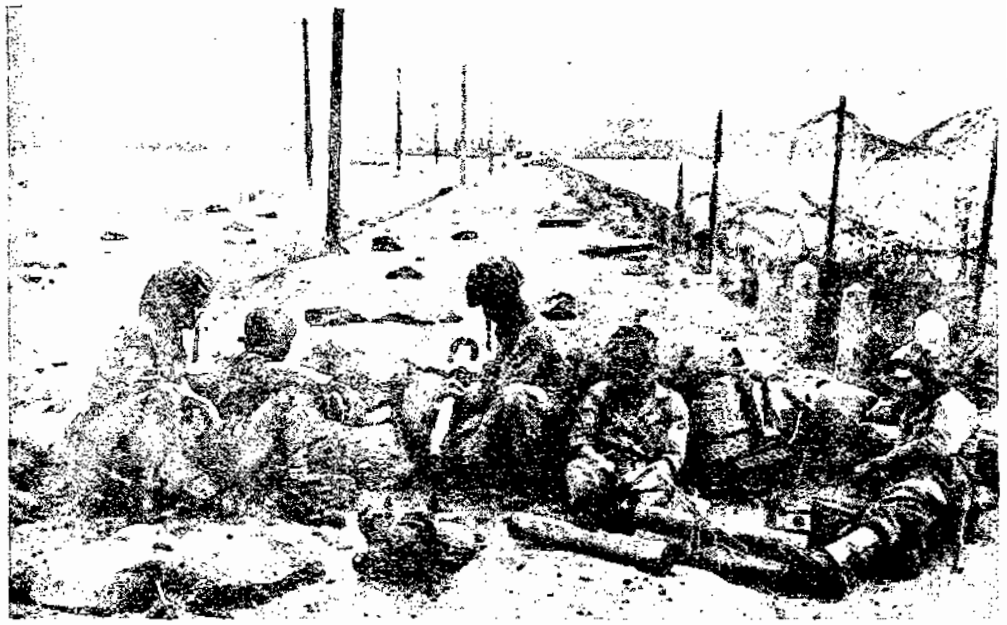
삼황도 제32호 月尾島 공격작전



(다) 仁川市街공격

仁川항의 수위(水位)가 감소되자 月尾島의 제3대대는 시내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동안에도 해공군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긴급 소집된 소해정들은 외항에서 함선들의 안전한 정박지를 선택해 주고 상공에는 2대의 공중 관측기가 교대로 비행하면서 종일토록 정찰을 계속하며 90분 간격으로 8대의 해병기가 시내를 공격하고 12대의 해군기는 仁川 부근을 중심으로 차단공격을 감행하였다.

함포사격은 공중공격과 마



<비행장을 탈환한 美해병들이 [illegible]시내로 프러가는 임무를 지키고 있다.>

찬가지로 비 군사적 목표의 시민의 피해를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안에서 작은 집단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함포사격을 가하려고 자세히 관찰하여 본즉 그것은 노적(露積)된 양곡을 굶주린 시민들이 운반하고 있는 장면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 당시의 피난을 못갔던 잔류민들이 얼마나 곤경에서 허덕이고 있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톨레도(Toledo)호의 포대는 시가의 北端에, 그리고 로체스터(Rochester)호는 항내의 조수탱크 北쪽과 Blue Beach를 또 켄야(Kenya)와 자마이카(Jamaica)호는 東쪽과 南쪽을, 그리고 Red Beach 北쪽의 반도와 열전을, 또 Blue Beach 전면부의 지역은 구축함과 기타 순양함들이 포격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14.30부터 힉긴스(Higgins)소장 휘하 순양함 4척과 구축함 6척은 약 3시간동안 전술적으로 중요한 모든 목표를 분쇄하고 VMF-323, VMF-214 및 해군기가 합세하여 25마일 반경내의 모든 적의 활동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차단공격을 계속하였다.

함포 지원함들의 포탄 발사량은 힉긴스(Higgins)소장이 17.05(상륙 25분전)에 LSMR에 공격을 명령할 때까지 증가되고 힉긴스(Higgins)소장의 명령을 받은 LSMR 403호는 2,000발의 로켓트포로 Red Beach를 공격 하였으며, 불랙크와 Blue Beach는 LSMR 404호가 그리고 LSMR 401호는 해상에서 각각 공격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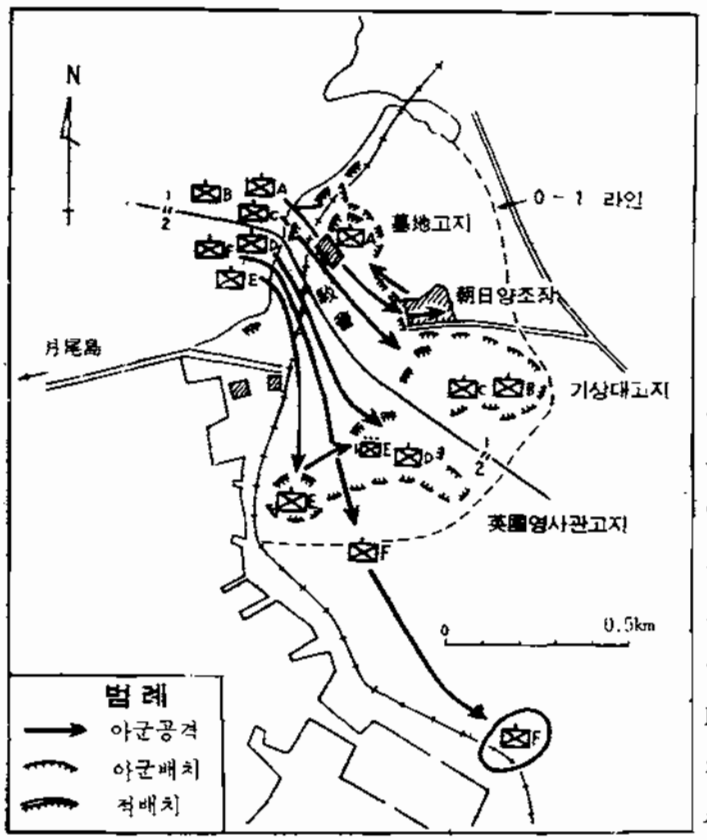
(라) Red Beach 상륙

LCVP 8척에는 제5해병연대 제1대대 A중대의 2개소대와 제2대대 E중대의 병력을 승선시켜 H-8분에 공격개시선을 넘어 Red Beach를 향하여 일거에 돌진하였는데 그동안 月尾島의 타프레트(Teplett)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등으로 이들의 상륙을 엄호하였고 H-5분에는 로켓트포 공격도 끝나고 공중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상륙군들은 해벽에 다달아 수류탄을 던지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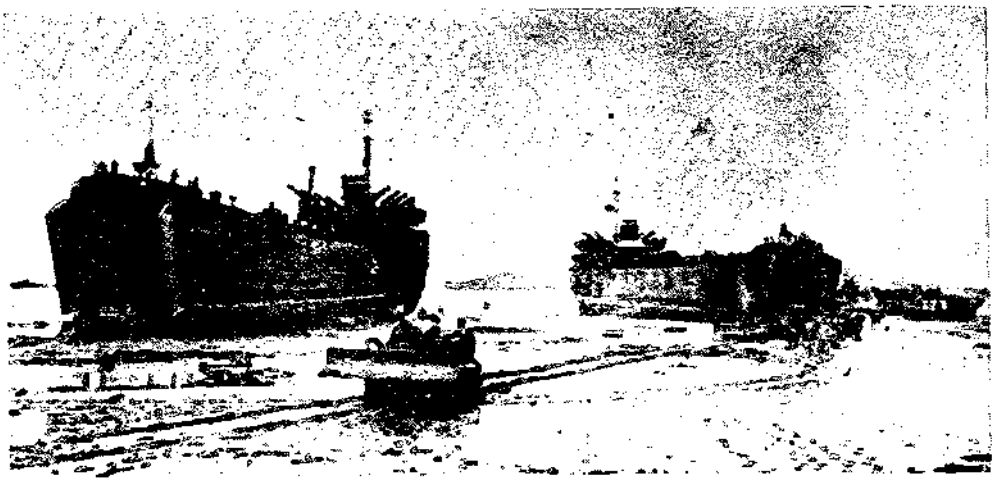
한편 Red Beach 北쪽에 진출한 A중대는 적의 심한 반격에 부닥치면서 적 제226연대 박격포 중대의 항복을 받고 묘지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제2대대의 제1진으로 상륙한 E중대는 18.45에 연대의 C목표인 英國 영사관을 점령한 다음 시가요지를 점령하고 제4진 및 제5진으로 상륙한 C중대가 北쪽의 목표 A를 탈환하는 동시에 南부의 목표인 B를 제2대대의 D중대가 탈환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상황도 제33호 Red Beach 상륙 작전



8척으로 구성된 LST의 제1진이 18.30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해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艦岸移動(Ship to Shore)의 치열하고 장엄한 전투양상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LST가 상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일이었으나 많은 병력을 지원할 식량과 탄약 그리고 무기와 의약품등을 수송한 능력을 가진 것은 LST뿐이었으므로 적의 사격목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전에서 이러한 모험을



<인디항 전멸에 상륙>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상륙도중에 LST 857호는 18.45에 韓國해군의 PC 702함의 측면에 충돌하여 약간의 피해를 주기도 하였으니 당시의 긴박상이 얼마나 치열하였던가를 능히 짐작할수 있다.

제1대대의 B중대는 20.00에 기상대高地를 탈취하고 이를 연대지휘소에 보고하였으며 제5연대의 우측의 제2대대도 최후 발악적인 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찌르므로써 모든 작전을 예정한 대로 대과없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Blue Beach 상륙

Blue Beach에 대한 상륙은 제1해병연대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처음 해안에서 5,500야드 거리인 공격 개시선에서 H-50분에 종군기자들과 공격군 제1진의 LVT들이 통제함인 윈터크(Wantuck)호 주위를 선회하고 있을 때 적의 박격포탄이 근처에 많이 떨어져 약간의 혼란을 비저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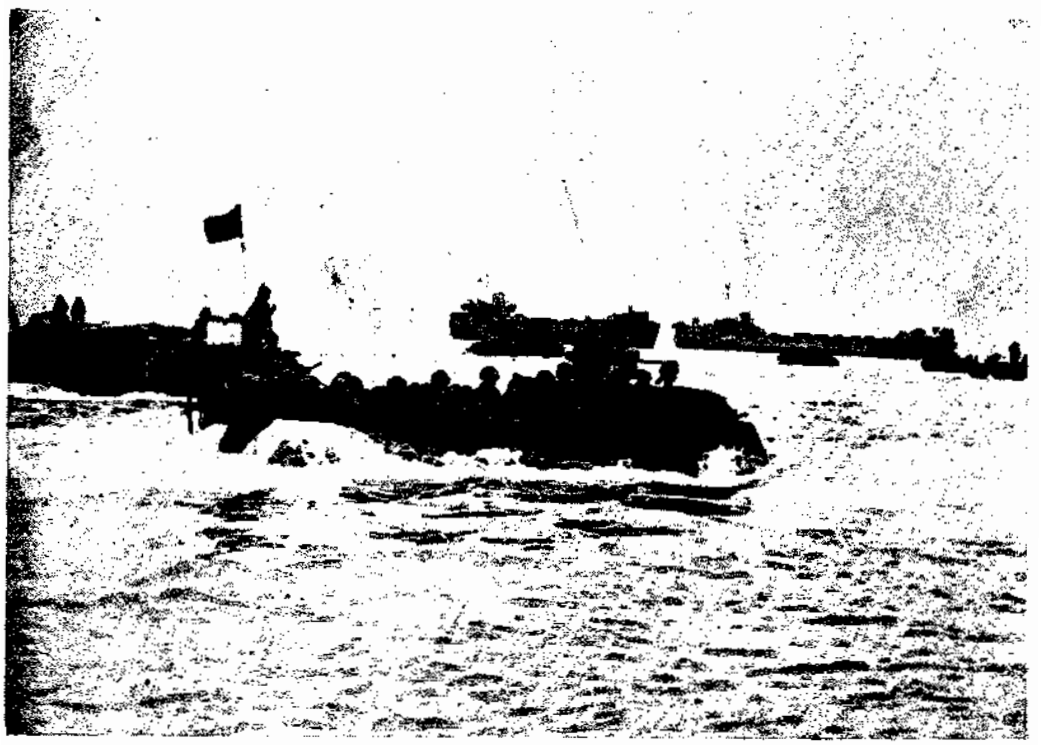
이들 상륙정들은 대부분이 육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조타병의 경험부족과 나침판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상륙지점을 잘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1진은 수터(Alan Sutter)중령의 제2대대가 17.30에 Blue Beach one에 상륙하여 적의 별다른 저항없이 진격하였다. 제2진은 LVT 11척에 D중대와 F중대를 승선시켜 해안에 상륙을 강행하는데 성공하였으나 F중대의 일부는 해안 약 300야드 지점의 갯벌에 좌초되었으므로 바닷물에 뛰어들어 도보로 상륙하기도 하였다. 위의 D, F 두 중대의 나

머지 병력은 H+4분에 상륙하고 그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LVT 30대와 6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D중대는 연대 목표인 A로 향하고 F중대는 北西쪽의 목표 D인 117高地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제3대대의 제1진은 LVT 9척으로 H-hour 직후 적의 사격을 받으면서 Blue Beach Two에 상륙을 강행하였고 제2진인 G중대와 I중대는 상륙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0분후에 제3진의 LVT와 합께 착안(着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재편성한 G중대는 내륙으로 전진을 시작하였는데 대대장의 기민한 행동으로서 Blue Beach를 사용케 하여 혼잡을 다소나마 감소케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G중대와 I중대는 해안을 점령한 다음 G중대는 서가지를 돌고 전진하였으며 I중대는 목표 C로 진격하였는데 이동안 통신의 불통과 미연(迷煙)때문에 상륙지점을 발견치 못한 LVT들은 지휘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자의로 상륙하였던 것이다. 전황의 혼돈상태에서는 지휘관의 독단 활용이 얼마나 필요한가하는 좋은 예를 남겨 주었다.

이날 연대예비대인 호킨스(Jack Hawkins)중령의 제1대대는 H+45분에 상륙키로 되어



<상륙 지점으로 돌진하는 상륙주정들>

있었으나 해협과 항해규정로의 상황때문에 빚어진 혼란으로 상륙 통제함이 잘못 진로를 지시하여 제1, 제2진은 錯誤를 Blue Beach Two라고 알고 상륙하는 일도 있었으니 이것이 전쟁터의 상례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호킨스(Hawkins)중령은 곧 후속의 상륙정들에게 방향을 다시 지시하고 이미 상륙한 부대는 거기에서 철수하여 계획된 목표대로 향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일부는 상륙정의 손족으로 잔류하였다가 다음 날 제방을 통해 아군과 합류하러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많은 포로를 잡을 수 있었고 더대의 대부분을 내지(內地) 반마일 거리의 집결지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하였으니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바) 橋頭堡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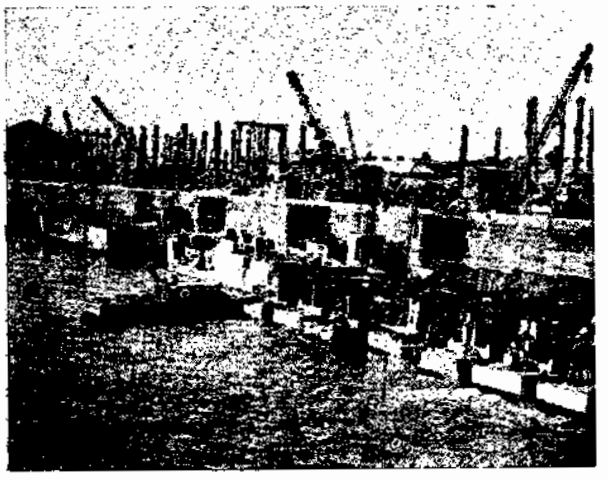
Red Beach에서 상륙하는 美제5해병대보다도 1분을 앞서서 美제1해병대의 상륙부대가 17.32 Blue Beach에 강행 상륙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은 상륙출구를 개척하기 위하여 높은 해벽을 기어 올라갔고 어떤 부대는 안개 속에 길을 잘못 찾아 해변 좌측의 염전을 거쳐 해벽에 기어 올라 가기도 하였다. 이 작전에 있어서 상륙군 美제1해병대의 커다란 장애물은 무엇 보다도 짙은 야암(夜暗)이었다. 제2대대의 D중대는 20.00에 교차로인 목표A를 점령하고 2시간 뒤에 F중대는 117高地인 목표 D를 점령한 다음 곧 (1)사로를 장악하게되었다. 이리하여 이제까지 제2대대는 적사살 50명과 포로 15명이라는 전과를 얻게된 셈이다.

한편 제3대대의 I중대는 19.00에 233高地 北鎖의 목표 C를 점령하고 30분뒤에 G중대는 0-1선의 중심부에 있는 시가를 점령하게 되었다.

H중대는 20.30에 I중대의 후방을 지나 94高地인 목표 B에 있는 적 1개중대를 공격하여 3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는데 그나머지 H중대는 저지대를 확보하는 한편 0-1선의 대부분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1대대의 작전장교인 브릿지스(David W. Bridges)소령은 낙오된 약 100명의 병력을 다시 집결시켜 대대집결지로 향하면서 G중대 좌측 고지를 점령하므로써 제1해병연대는 해두보(海頭堡)를 완전히 구축하게 되었다.

상륙부대는 9월 16일 01.30에 D-Day 최종목표를 탈취하였는데 전날 상륙일에는 해병상륙부대에서 전사 20명 실종 1명 부상 174명이 발생되었던 것이니 그 싸움이 대단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륙군의 보급물자를 싣고 仁川항부두에 집결한 LCM>

한편 韓國해병대는 커다란 적의 저항없이 상륙한 다음 仁川시내의 완전점령 작전을 끝마치고 경비에 임하다가 18일 제2특별공병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서울 탈환을 위해 서울 西南쪽으로 진격한 美 제5해병연대에 합세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해안 교두보의 확보와 함께 상륙전에 있어서 가장 난제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군수지원에 관한 문제였다.

즉 해군 해안담장 싱거(Watson T. Singer)대령은 H+70분에 LST 883호편으로 상륙하여 Red Beach에 그의 지휘소를 설치한 다음 LST의 하역을 위한 철야작업을 실지로 지휘하였으나 Blue Beach만은 해양조건이 나빠서 긴급한 물자만을 소형선박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D+1일에 가서 겨우 이를 폐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D+1일 21.00까지는 병력 약 15,000명과 차량 1,500대, 그리고 군수물자 1,200톤을 양륙시키고 D+2일에는 제79기동함대 사령관인 타크레이(Lyman A. Thackrey) 제독이 상륙전 기함 엘도라도(Eldorado)호로 도착하여 항구작전의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당시 인원부족으로 곤난을 받던 해안단의 하역작업과 군수지원에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 16일에는 月尾島에 중장비용 기중기가 도착하였고 D+3일에는 53,883명의 병력과 6,623대의 차량, 그리고 25,512톤의 군수물자를 양륙하여 제10군단이 처음부터 기대하였던 양보다 2배나 더 많은 군수물자 집적의 실적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협소한 仁川항은 군수물자의 양륙을 위하여서는 시설에 비하여 너무나도 많은 선박이 집결하여 있었고 조류는 탄약운반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소형선박을 이용한 물자의 하역으로서는 많은 시간의 낭비가 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仁川상륙이야 말로 여러모로 보아서 가장 어려운 작전의 하나라고 지적함이 마땅할 것이고 이러한 여러가지 난점을 극복하고야 말았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 이하의 공훈이야 말로 불멸의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다. 작전 후의 개황

仁川 상륙작전은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굳은 신념의 결실이었고 고금독보(古今獨步), 아무도 감히 단행할 수 없는 뛰어난 새로운 육·해·공·해병대의 종합된 전략사상의 실천도장이기도 하였다. 즉 9월 15일 06.33 UN해·공군의 엄호아래 美 제5해병연대 제3대대가 月尾島에 기습적인 상륙의 제1보를 내디딤으로써 장쾌무쌍(壯快無雙)한 이 작전의 막은 내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17.30경에는 이미 적색해안에 美 제5해병연대의 나머지 부대가 그리고 청색해안에는 美 제1해병연대가 일사불란(一糸不亂)하게 상륙의 거보를 옮기게 되고 예정된 목표를 삽시간에 탈취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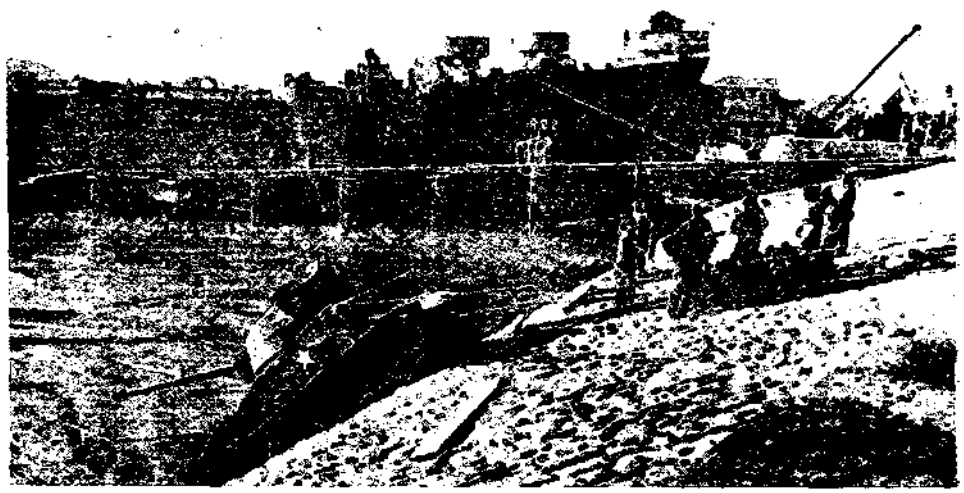
다음 날 06.30경에 美 제5해병연대장 머레이(Raymond L. Murray)중령은 美 제1해병연대와의 연락과 정찰을 겸하여 E중대를 仁川시 북쪽으로 파견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적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다.

적은 벌써 밤 중에 仁川시내에서 삼십육계를 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美 해병제1사단은 시내의 잔적 선별과 경비를 韓國해병대에 맡긴 채로 美 제1해병연대는 金浦로 향하여 전진하고 美 제1해병연대는 京仁가도를 따라 일로 서울 탈환을 위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적은 미리부터 仁川港과 月尾島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飛燕水道에는 기뢰를 부설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어대책을 마련하였던 것이었으나 사실상 UN군의 상륙 중점이 仁川이라고는 미처 예측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니 적의 불의를 타고 신속한 기동력과 굳센 타격력을 동시에 발휘하였던 최고수뇌의 작전계획의 효과가 거의 90% 이상의 전승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9월 초순경 仁川상륙을 예상해서 京仁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적의 이동을 보아도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仁川의 적은 D-Day전에 일부는 이동하고 月尾島를 위시하여 해안방어를 하고 있던 적은 그 부분 아군의 폭격과 함포사격의 제물이되고 말았으며 또한 仁川 시가는 완전히 탈환되어 아군의 후속부대와 장비 및 보급물자의 양륙이 계속되었으니 수도 서울의 측면을 공격하여 적을 일망타



<탱크를 양륙 중 방파제 아래로 미끄러 떨어진 것을 병사들이 끌어 올리고 있다>

전(一網打盡)하려는 것이었으니 적인들 어찌 간담을 서늘케 하지 않았으랴. 진실로 통쾌무비(痛快無比)하고도 무쌍기 짝이없는 일대전략(一大戰略)이었던 것이다.

그다음 날인 17일 05.50에 적의 YAK형 전투기 2대가 仁川 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UN함대에 공의의 폭격을 가하여 약간의 피해를 받게된 UN해군은 즉시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바다 가운데로 격추하고 말았으니 실로 당랑의 일부(螳螂의 一斧)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기도한 이 작전은 미리 예측한 대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적은 완전히 불의의 충격을 받게되어 洛東江 전선까지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美 제5해병연대와 韓國 해병대는 상륙 5일만에 이미 京城 도선장에 도달하여 漢江 도하작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수도 탈환도 눈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京仁 가도를 진격하던 美 제1해병연대는 제7사단의 제32연대를 우익으로 진출시키면서 永登浦로 직행하였으나 치열한 적의 반격을 받으면서 같은 날 해가 질 무렵에는 겨우 永登浦 南쪽에 있는 安養川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素砂에서 永登浦까지 진격할 때 아군에게 치열한 최후의 저항을 감행하였던 적은 인민군 제18사단 제70연대이었으나 이야말로 구사(九死)에서 일생(一生)을 찾아보려는 가날픈 한가닥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교 훈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戰略의 卓越性

8월23일 오후 5시 30분 日本 東京에 있던 UN군 사령부에서 소위 말하는 東京 회담이 열렸을 당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부래드리(Bradley)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파견한 콜린스(Collins)육군참모총장 셔맨(Sherman)해군참모총장 및 공군대표 에드워드(Edwards)중장을 앞에놓고 자기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들의 仁川 상륙에 대한 반대를 여지없이 굴복시키고 말았는데 그 위대한 전략사상이야 말로 후세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제 그가 약 40여분 동안에 걸쳐 조용히 타일르듯이 말한 연설의 요지를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산군의 대부분은 지금 美 제8군의 방위선(洛東江)주변에 부딪쳐 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적은 仁川에는 충분한 방어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믿어진다. 방금 여러분이 仁川 상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였으나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여 본다면 그만큼 기습의 효과가 있다는것을 뜻하는 것이된다. 왜냐하면 적의 사령관은 설마 우리들이 이와같이 상륙하기 곤난한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작전을 감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기 때문이다. 기습이야 말로 전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최대의 요소이다. 예컨대 1750년 리챠드·몽고메리(Richard Montgomery)후작은 당시 성벽으로 둘러쌓여있는 케백(Quebec)에서 이 南쪽에 절벽같은 험한 언덕에는 여하한 군대라도 올라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공격이 쉬운 케백(Quebec)성의 北쪽에만 강대한 병력으로 방어진지를 치고 있었는데 제므스·울후(James Wolfe)장군은 5천명의 적은 부대를 이끌고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를 거슬러 올라가 南쪽의 험한 언덕을 기어올라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울프(Wolfe)장군은 에이부라함(Abraham)초원을 중심하여 거의 기습의 효과로

써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울프(Wolfe) 장군이 퀘백(Quebec)성을 함락시킨 것이야 말로 사실상 英國과 프랑스(France)의 투나라가 카나다(Canada)전쟁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게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에 돌이켜 보건데 공산군은 리챠드·몽고메리(Richard Montgomery)같이 仁川상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오니 나는 울프(Wolfe)장군과 마찬가지로 기습으로서 仁川을 탈환코자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조수의 간만(干滿)의 차가 심하고 지리적 장애에 있어서는 방금 해군측이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여러운 난점이 많은것을 시인하고 또 깊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점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해군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있읍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해군 자신보다도 오히려 더 해군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군이야말로 太平洋 전쟁당시에 나의 지휘 하에 들어가서 많은 상륙작전에 참가하였고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위대한 전승을 거두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제 仁川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승리를 거두운 해군의 능력이야 말로 아무런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3) 群山에 상륙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사실 群山항이라면 仁川이 가지고있는 여러가지 난점이 적을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상륙한다고 하여도 결정적인 전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상륙한 다음 적을 포위하려고 하여도 실제로 포위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의 보급로를 절단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파괴할 수는 없는 까닭으로 상륙작전의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륙하여 적을 포위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충분한 포위가 될 것이니 전쟁에 있어 이만치 이익이 없는 상륙이라는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측배공격(側背攻擊)을 하는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群山에 상륙한다 하여도 결국은 워커(Walker)중장이 지휘하는 제8군의 작익에 붙게 마련이고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을 내면서 까지 제8군을 증원한다는 결과가 될 것인즉 차라리 직접부대를 釜山에서 상륙시켜 증원하는 것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群山상륙이야말로 단순히 제8군에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다른 증원부대를 보내는데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8군이 버티고 있는 방어선에서는 방어행동을 계속하는 것만으로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4) 우리가 釜山에 직접 병력을 보내서 전면(前面)으로 부터 증원을 하여 돌파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만 많은 희생만을 낼 것이고 결정적인 전과는 얻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中共軍은 사기의 보급로와 통신선을 서서히 뒤로 후퇴시키면서 조금씩 물러서기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만약에 仁川과 서울을 탈환하게 된다면 곧 적의 보급로를 절단할 수가 있고 한국반도의 南半部를 北에서부터 차단할수가 있으니까 적의 약점이야말로 곧 이 보급로에 있다는것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中共軍이 北쪽에서 보내오는 중요한 보급물은 모두가 한번은 다 서울을 거치고 서울에서 다시 그들의 전선(戰線) 여러 곳에 나누어 주게되고 있으니만치 서울을 탈환하게 된다면 곧 적의 보급로와 후송의 중요한 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즉 지금 제8군의 워커(Walker)중장으로 하여금 적의 부대를 마비시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탄약과 식량의 보급이 끊어지게 되

면 적은 곧 손을 들고 말 것이고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아군의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보급이 충분한 군대로서 이 적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까닭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제안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적에게 일대 타격을 가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천재일우(千載一遇)를 놓치고 적에게 타격을 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희생을 치루는 전쟁을 계속해야만 될 것이며 또한 후방에서 구원을 받을 희망도 없이 느릿느릿한 싸움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장병은 모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마찬가지로 저 피비린내나는 洛東江전선에 그대로 묶어 두는데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한 비극의 책임을 누가 질수 있겠읍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책임을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지금이야 말로 자유를 사랑하며 세계에서 위신을 보지할수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눈이 韓半島의 한곳을 지켜보고 있읍니다. 中共이 세계제패의 착수로써 이 鹽細帶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한 현실로 되어 있으며 그 대결의 장소는 곧 베르린(Barlin)도 아니고 윈(Wien)도 아니고 런던(London)도 아니고 파리(Paris)와 와싱톤(Washington)도 또한 아닌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南韓의 洛東江이 곧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전선에서 그들과 서로 맞대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歐羅巴에서의 대결은 다만 입씨름 정도밖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鹽細帶에 있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패한다면 다음에는 歐羅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기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긴다면 歐羅巴에서의 전쟁도 또한 나지 않을것이며 歐羅巴는 평화와 자유를 길이 지닐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의 일이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실패를 범하게 되는 동시에 그릇된 결단으로 호른다면 만사는 다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운명의 시계바늘은 짜각짜각 분·초를 세고 있을것이며 그 소리가 지금 들리는것 같읍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과감하게 활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유세계의 죽음만이 기다릴 따름일 것입니다.

(7)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의 판단이 그릇되고 仁川에서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적의 치열한 방어작전에 부닥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때에 현장에 나와 있으니만치 어떠한 맹렬한 반격을 받기 이전에 미리 부대를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들의 불행은 내 개인의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에 흠이 갈 수는 있을지언정 仁川上陸작전의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리고 10만의 생명을 구하고야 말것이다."

위와같이 말함으로써 모든 仁川상륙 반대자의 의견을 물리치고야 만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야 말로 과연 위대한 장군인 동시에 다시 보기드문 탁월한 전략가라 아니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위대한 이 장군을 우리 韓國전쟁을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할 뿐이다.

◇ 난점을 이점으로 이용한 병학의 원리

仁川 상륙작전이 곤난하다는 것은 여러가지면으로서 수긍할 수도 있는데 그래로 작전에는 항상 곤난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仁川은 釜山에서 240km나 떨어져있고 仁川에 상륙함으로써 본래부터 소수의 UN군 병력을 더욱 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仁川에 상륙할 예정 병력이 불과 2개 사단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적은 병력으로서는 각개로 격파를 당하고 말 염려가 있고 예비병의 증원도 바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질 것이다.

(2) 당시 극동군의 계획에 따라서 워커(Walker)중장의 제8군에서 해병여단을 빼내어 상륙전 제1대에 쓰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해병대를 洛東江 전선에서 빼내게 된다면 釜山의 확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釜山이 또한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즉 그에 따라 仁川도 또한 상륙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日本에 있는 美 제7사단을 쓰게된다면 日本의 육상 방위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日本 北쪽에서의 소련의 위협과 日本의 자체의 치안문제에도 곤난이 생길 염려가 있다.

(4) 仁川 상륙작전에 쓸만한 선박은 결코 충분하다고는 볼수 없으며 제8군에 대한 보급용 선박까지 모조리 쓰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만일에 작전에 실패하게된다면 그때에는 도저히 收拾할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5) 仁川의 지리적과 지형적 및 해상적(海象的)인 조건이 모두 상륙작전에는 전혀 부적당하다는 것은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서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간만(干滿)의 차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곳이고 평균 6.9m에서 10m 이상에 달할 때도 있다. 이런 까닭으로 만조때의 仁川의 경우는 폭이 1.8km에서 2km 길이가 90km 길이가 10m내지 15m의 구불구불한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수로의 조류속도가 실로 5m 평균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수로에 만일 기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단 한척의 배가 이 기뢰로 말미암아 침몰을 당할때 이 수로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될 것이다.

(6) 仁川港의 입구에는 표고 105m에 달하는 月尾島가 솟아있는데 仁川港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月尾島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가 굳게 지켜져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틀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필요로 하게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작전상의 전술적 불가결의 요소인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7) 주상륙(主上陸)을 야음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는없는 까닭으로 仁川港에 불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상륙은 저녁때 밝에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자재와 병력을 양륙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있는 시간은 불과 두시간반 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야간반격을 지탱할 수 있는 물자와 병력을 양륙하려면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8) 이러한 어려운 작업이 다행히 성공하였다손치드라도 5m이상이나 되는 仁川港의 암벽(岸壁)에 직접 올라가야하는 까닭으로 상륙부대는 십전 풀전간에 仁川시가의 중심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할 수 밖에는 없을것이다. 인구 25만이나 되는 도시안에 높이 솟아있는 건물에서 적의 부대가 반격을 하여오게 된다면 양륙 시간이 제한 되었던 것과 같이 해두보(海頭堡) 설치를 위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무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난점은 있지만 이 모든 난점이야 말로 적이 설마 이러한 仁川에 상륙하지 않으리라고 믿게 될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인즉 난점이 도리어 잇점이 되고 잇점이 도리어 난점이 된다는 병학의 오묘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 전쟁은 도박이 아니다.

여러 전기(戰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큰 도박을 치루었다고 하였고 그 도박에서 다행히도 성공하였다고들 하고 있으나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이미 적이 곤난한 仁川에 상륙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그 약점을 찌른 위대한 전략적 두뇌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이미 제1항에서 말한바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이것을 교훈삼아서 여하한 어려운 일이 있드라도 용감히 실행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도박근성을 간직한 채로 경솔히 작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도박을 치른 것이 아니라 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적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깊은 전략과 많은 경험에 의한 자기의 소신(所信)을 단연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하한 어려운 일이 있드래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단행을 한다면 혹시나 도박과 같이 이렇게 막연하고도 요행(僥倖)만을 바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맥아더(Mac Arther)사령관은 적이 이런 까닭으로 月尾島와 仁川 그리고 서울에는 큰 병력을 참가하지 않고 오로지 洛東江 전선에만 모든 힘을 경주하면서 최후의 총 공세를 단행하려고한 적의 지당한 운용의 묘를 간파한 나머지 그 신념밑에서 일거에 상륙하는 동시에 사불여의(事不如意)하면 해상기동으로 손쉽게 물러남으로써 큰 실패를 보지 않으리라는 심산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니 마치 손바닥위에서 적을 떠밀어내는 식의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묘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였다. 이것이 어찌하여 도박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 우리의 강토는 사수하여야 한다.

주기는 쉬우나 도로 찾기는 힘들다.

인간사회에서 돈 거래를 할때에도 돈을 빌려주기는 매우 쉬우나 일단 빌려주었던 것을 도로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구나 상대방이 악성인 경우라면 이쪽이 도리어 백배천배하면서도 본전마저 못건지는 수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은 이 韓國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매없이 그야말로 호인(好人) 중에서도 가장 우매한 호인(好人)식으로 서울을 북괴의 손에 고스란히 내어주었다가 이미 본문에서 말한대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신로끝에 겨우 도로 찾기는 찾았지만 그 서울이 전쟁전의 서울 모습대로 있었을 까닭이 없고 황폐한 광경과 살상을 당한 참상이란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비통하고 애절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 정도로 끝인 것도 결국에는 仁川상륙이라는 일대 장거의 여덕(餘德)이었으며 전장 말미에서도 이미 말한 대로 만일에 이 상륙이 없이 지상 작전만으로 洛東江에서 서울까지 5단계 이상을 거치면서 밀고 올라왔드라면 실로 10만이상의 인명피해와 모든 지구에 잿더미와 시일 만을 남긴 끝에 간신히 되찾았을까 말까 하였으리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적은 경시하고 있던 京仁지방의 경비를 위하여 이미 月尾島에 지하포대를 만들었고 해상에는 기뢰를 부설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시내에는 바리케이트와 지뢰지대를 만들어 놓았으나 우리는 서울을 넘겨주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던가 또한 이 시점에서도 어떠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가. 유래(由來)로 전사는 다만 읽어 내려가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얻는 교훈을 생생하게 실용성 있게 다시 활용하는데 그 진가가 있는 것이다. 이나라 방덩어리는 결코 우리의 사유물은 아니다. 우리 선조들로 부

서 물려 받아 고이 간직하였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 주어야 할 전래의 보물이요, 겨레의 공유재산인데 어찌 우리 스스로의 과실과 방탕과 그리고 무책임과 오만으로서 손쉽게 남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우리의 집 문서와 땅 문서의 일부를 金日成도당들이 벌써부터 가로채고 있는 이 마당에서 어찌 우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우리 선조와 후손들을 장차 지하에서 만나 볼 때 떳떳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죄인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 겸손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지나친 비굴이요, 실없는 자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참전자의 증언

해군총참모장 孫元一 소장

(1964.12.16, 해양소년단 총재실, 해양소년단 총재)

"나는 仁川상륙이 감행되기 전에 대략 西海 어딘가에 상륙한다는 것은 알았읍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라고는 몰랐읍니다. 그때 우리 해병대는 統營상륙작전을 끝마치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釜山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에 의해 2개 대대인가가 釜山부두에 집결시켜 가지고 2일간에 걸친 준비와 장비를 갖춘 다음 美 해병대와 함께 상륙함정을 탔읍니다.

그때까지도 仁川이 아닌가는 했지만 확실한 것은 몰랐고 혹시 群山이 아닌가도 생각했읍니다. 배에 타고 나서 작전이 시작되고 보니 仁川이라고 알게 되었으며 내가 올라갈 때는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仁川 앞 해상에서 작전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仁川에 상륙을 하고 만나보니 대단히 반가워 하더군요.

아군들은 오전과 오후에 상륙을 했는데 美 제1해병부대가 月尾島를 점령했고 우리가 오후에 상륙작전을 한 것은 8시쯤 됩니다. 이때 심한 목격과 함포사격으로 폐허가 된 仁川시가를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상륙했읍니다. 나는 사실은 기함으로 상륙할 것인데 상륙작전을 할 때 그만 내려가지고 하루 밤을 부두에서 자고 아침 4시에 仁川진격을 하고 우리 부대는 仁川에서 金浦가도로 진격하고 美 제5해병부대는 仁川에서 永登浦로 가는 주진로를 진격했읍니다."

702함장 李熙晶 중령

(1964.12.4. 대양기술연구소 이사장실, 대양기술연구소 이사장)

"統營 지원작전을 마치고 나는 仁川으로 함정 15척을 이끌고 도서탈환작전을 계속하다가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였읍니다. 그때 八尾島앞에는 기뢰가 많았을 텐데 우리 배들은 기뢰 탐지기도 없이 여러 번 그곳을 지나 다녔으나 다행이 맞지는 않았읍니다.

仁川상륙이 시작되기 10일전에 英國 순양함이 와서 우리에게 수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함정이 앞서서 가기를 바라기에 우리 배는 먼저 달리며 八尾島앞까지 왔더니 갑자기 정지하라고 하기에 정지하였더니 순양함에서 그곳에 기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느냐고 묻기에 우리배들은 지금까지 수백번 이곳을 왕래하였으나 아무런 일들이 없었다고 말했읍니다. 그후 소해정을 보내어 소해작업을 하여보니 상당히 많은 기뢰가 터지는 것을 보고 놀랐읍니다.

그후 D-6일쯤 되었을 때 UN군 구축함 6척이 仁川수로를 들어가서 月尾島를 공격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仁川상륙작전을 할려는가 하고 눈치를 채게 되었읍니다"

USS DD-728 Mansfield 연락장교 崔東華 소령

(1965.6.24, 해군본부 Px본부장실, 해군본부

Px본부장)

仁川상륙 전 날에 美 구축함 4척이 仁川앞 바다에서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그곳에 앵카링을 한뒤 적과 신경전을 버리려고 하였읍니다. 崔소령은 "그때 우리가 먼저 적에게 함포사격을 해보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괜찮은가 하여 앵카를 올려 놓고 막 떠나려고 하였을 때 적으로부터 공격이 시작하여 왔읍니다. 그때 앵카링하던 사람은 피하고 갑판부근에는 포탄이 마구 날라 왔는데도 용감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앵카를 올리더군요.

우리 배는 기함이어서 육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며 다른 배하고는 약 2,000야드 정도의 거리여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배는 기름탱크에 맞아서 기름이 새고 또 어떤 배는 직통으로 맞아서 장교도 죽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배는 맞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이 쏜 포는 박격포가 아니고 야포라고 생각됩니다"

512정 부장 李勇男 소위

(1965.7.1, 해군대령)

"우리가 靈興島 앞바다에 도착한 것이 D-Day 1주일 전입니다. 그동안 매일 돌라날라 했지요 D-Day 전날에 모두 靈興島에 집합하였는데 JMS는 하나도 없고 YMS만 7척이 다 모여가지고 기함으로 갔더니 오오다(Order) 하나씩 받아 가지고 각각 仁川 앞바다의 해상경비와 봉쇄임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때 仁川을 중심으로 하여 西海일대를 분담하였는데 기함은 月尾島를 맡았읍니다. UN군의 함정들은 우리보다 훨씬 바깥에 있었고 우리는 주로 李熙晶중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1개월이상 있었읍니다.

그 당시 부식은 주로 현지조달을 했는데 靈興島에서 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仁川에 들어가서 구했읍니다."

연합함대파견 조타사 李秉龍 하사

(1966.4.6, 함대사령부, 11전대 훈련보좌관)

"제가 仁川상륙을 할 때는 英國 순양함에 타고 있었읍니다. 저의 배가 仁川에 함포사격을 시작한 것은 8월 중순경 부터이나 실지로 仁川 항구앞에 들어가기는 9월 13일쯤 됩니다.

14일에는 완전히 정박하고 함포사격을 시작하였는데 15일인가 16일인가 아침 7시경 비행기 한대를 떨어 뜨렸읍니다.

그 때 비행기가 우리 배를 공격하여 우리 배는 3발을 맞았읍니다. 그래서 우리측 배들도 비행기에 사격을 시작하여 3분후에는 떨어 뜨리고 말았읍니다. 그동안 UN군 함정들은 仁川 항구를 경비하며 상륙부대를 엄호하다가 우리 배는 18일 仁川을 떠나 日本 사세호(佐世保)로 출항했읍니다."

LST 鳥致院호 실습생 文起完 사관생도

(1964.11.18, 전사편찬위원회, 해군중령)

"東해안 浦項北方에 있는 長沙洞이라는 데서 LST 汶山호가 좌초되었을 때 鳥致院호가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우리 생도들은 실습생으로서 15명 가량이 타고 있었읍니다.

그때 좌초된 汶山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長沙洞 해안에 있던 汶山호의 선원및 육군유격대원을 구출하여 배에 태우는데 우리 생도들도 같이 작업을 하였읍니다. 배가 해안에 댈 수가 없어서 육지와 배사이에 로프를 매고 이를 타고 올라 오도록 하여 구출작업을 했읍니다.

4. 本作戰에 關한 全般的考察

가. 本作戰의 特異性

본작전을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해장단(利害長短)에 있어서 여러가지 특이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여기에 수반된 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地理的으로 본 난점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이미 7월초에 仁川 상륙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하였는데 그는 이를 반대하거나 또는 회의를 표시하는 알몬드(Almond) 소장 및 라이트(Wright) 준장과 셔맨(Sherman)대장을 포함하는 극동지역의 고위 군사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박력있는 웅변으로 설득하여 그의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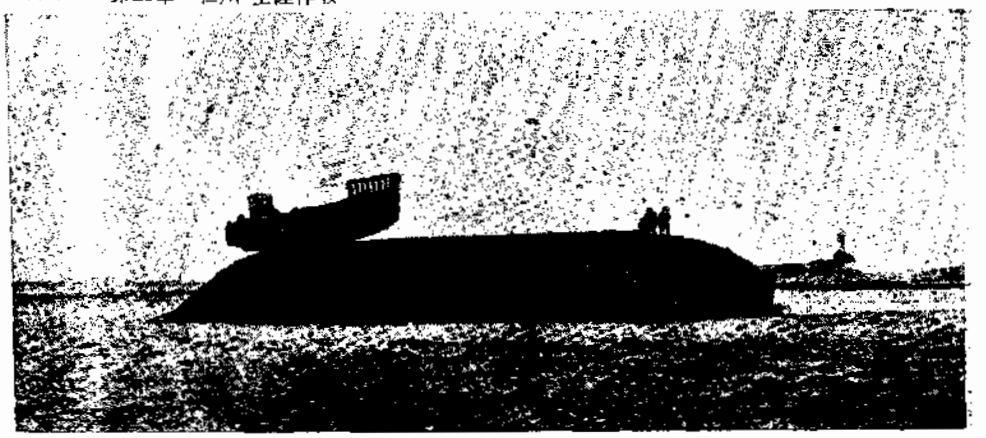
도일(Doyle)소장이 지휘하는 제1상륙단에서도 仁川 상륙작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韓國 육군의 재편성과 또한 전선이 서울로부터 너무나 南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만 체념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상륙을 위한 충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자연과 지리적인 장애물 때문에 상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仁川 상륙의 애로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몇가지로 판단되고 있었다.

첫째로 문제가 되는것이 仁川항의 놀랄만한 조수의 차이였다.

이것은 상륙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이 되고 간만(干滿)의 차이는 무려 9m에 달하며 10.8m를 기록할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조수는 매우 빠르며 오랫동안 조수는 얕은 해안을 따라 6km나 되는 개펄둑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仁川에 상륙하려면 언제나 만조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공산군이 UN군의 상륙을 예상한다면 그들은 9월 15일과 10월 11일 그리고 11월 3일이 상륙예정일이 되리라는 것쯤은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상륙시간까지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즉 9월 15일은 조차(潮差)가 31.2 feet에 달하므로 만일 이날을 이용치 못한다면 10월



<설물이 밀려나가자 침몰한 LST위에 LCM 한척이 얹혀진 것이 보인다.>

11일까지는 이와같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제한된 시간은 더욱 작전에 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아침에는 일출 후 45분만에 만조가 되고 저녁에는 일몰전 27분만에 만조가 되기 때문에 전 상륙부대가 일시에 행동을 같이하여 상륙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仁川 상륙작전은 역사상 달의 인력을 빌어서 수행한 가장 큰 사건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항구의 어디에 어느 정도로 준설(浚渫)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항구내의 제한된 시설은 아군이 이 항구를 탈환하기 전이나 후나 다 문제였다. 仁川은 韓國에서 두번째로 큰 항구이긴 하지만 조수와 개펄과 좁고 긴 수로, 그리고 제한된 부두시설 때문에 釜山의 1일 화물선적량 25,000톤에 비해 仁川은 그 절반에 불과하며 또 釜山에는 30척의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반면에 仁川은 6분의1인 5척에 지나지 않아서 군수지원에 많은 불편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항도 약 50척의 선박이 겨우 정박할 수 밖에 없어서 공격함대가 정박하여 화력지원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그것은 외항이 南北으로 약 11km, 東西로 약1.6km밖에 되지않는 좁은 지역이고 또한 선박이 진흙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로에만 정박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또 수로에는 3—5 놋트의 조류가흐르고 있기 때문에 닻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함정을 돌리거나 움직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적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수와 제한된 항구의 공간은 모(母)함과 항구내에서 작전 중인 주정 사이에 약

30 mile의 거리를 만들었으며 8—10 mile의 사이를 두는 간격이 상례인 점에 비교하면 이 또한 곤난한 일이었다.

세째로 가장 큰 지리적 장애물은 적이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月尾島이며 이 섬은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要衝地)였다. 月尾島에는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춘 어느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美 해군의 함포전문장교들은 月尾島의 적을 제압하려면 종일 포격을 가해야 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이 사실은 중요한 디렘마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습의 효과를 희생하면서 까지 적이 아군의 상륙을 예측할 수 있게 사전 함포사격을 가할 것인가 또는 기습을 감행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의 둘 중의 하나를 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커다란 난점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계관들이 예의(銳意) 검토한 결과 그 절충안을 택하기로 하고 月尾島를 상륙에 앞서 우선 함포사격을 가하는 한편 상륙지점을 옵폐하기 위하여 南쪽의 群山과 北쪽의 鎭南浦에 견제적인 공중공격을 가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네째로 문제되는것은 적당한 상륙지점의 부족이었다. Red Beach, Blue Beach의 2개소가 중요한 상륙지점으로 선정되었지만 이것들도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Red Beach는 仁川市의 西部지역이고 Blue Beach는 東南쪽 松島 해수욕장의 바로 西北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들은 말로만 해안으로 불려지며 약 4마일의 거리를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두의 선창과 해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에 상륙할려면 어떤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하여야만 되었다.

즉 사닥다리와 쇠갈구리등이 필요 했고 해벽뒤에는 다시 깊이 파여져있으므로 상륙군은 이곳에서 적의 종(縱)사격을 받기 쉬운 곳이였다. 이밖에도 西北쪽 月尾島의 Blue Beach가 선정되었다.

Blue Beach에는 소형 선박만이 진입할 수 있었으나 Red Beach와 Green Beach에는 LST 함정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상륙일인 9월 15일과 그후 2일간의 만조시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2) 기밀보안상에서 본 난점

이상의 지리적인 난점 네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곤난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문제는 비밀보안이 잘 되어있지 못한 日本의 극동사령부로부터 직접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이것은 당시 日本의 형세 때문이었다. 그리고 작전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적의 첩자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적재해야만 되므로 이렇게 막대한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적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지 못한 日本 도오쿄오(東京)에서의 대규모의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큰 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암시하여 주는 것 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李承晩대통령은 "우리는 진격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했고 워커(Walker)중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UN군부대는 매우 가까운 시일내에 공세를 취할 것이다"라는 언질마저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해군총참모장 孫元一 소장은 8월중순 경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멀지않아 우리는 仁川에 상륙하게 된다. 仁川의 상륙은 곧 서울의 입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앞서 우리는 놀랄 만한 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개될 작전은 UN군과 우리 해군 및 육군이 합동작전으로 근일 중 감행될 것이며 앞으로 상륙작전이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해군은 西海에 있어서 2중 3중으로 해안을 봉쇄하고 있으며 적의 해상출몰은 상상도 못할 실정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인데 이는 8월 18일자 釜山日報에 게재된 기사로서 李 函 합동특파원이 발신한 내용이었다.

(3) 기뢰(機雷)등 장애물에 대한 위협 문제

UN해군이 비록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이 기뢰를 어느 수역(水域)에 얼마나 부설하여 놓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못하였는데 만일 항구와 해안에 많은 기뢰와 지뢰를 부설하였다면 상륙부대는 많은 사상을 내게 될 위험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仁川과 같은 중요한 항구에 계류기뢰나 자기기뢰를 다량으로 부설해 놓아 둔다면 이 항구의 특수조건으로 보아 이것을 미리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라고 조이(Joy)중장이 말한 바 있었으니 이는 근거 있는 말이라 하겠다.

(4) 중공군과 소련군의 개입문제

仁川에 UN군이 상륙하여 아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게 되자 지금까지 수세(守勢)에만

불려 있던 洛東江의 전세도 역전되어 공세로 전환되는 한편 도리어 적이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1949년 3월 18일 소위 朝中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중공이 대안(對岸)의 불길처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는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무력 간섭까지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미리부터 우려되는 문제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중공이 韓國에 개입해 올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6월에 워싱턴(Washington)이 臺灣의 군사행동을 봉쇄하도록 제7함대에 명령을 내렸을 때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명령은 실질적으로는 中國 대륙의 공산세력을 蔣介石총통이 가진 50만 군대의 공격으로 부터 막아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덕택으로 中國 중부해안 방위를 맡고 있었던 중공의 2개 軍의 대부대가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그 부대는 滿洲로 향해 北上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왔었다. 이와같이 중공이 일종의 안전지대가 된것이 그후의 중공의 움직임에 크게 작용하여 중공군은 이미 8월중순까지 鴨綠江에 연해서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공군이 仁川을 통해 상륙하여 전선에 투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UN군이 仁川에 상륙할 때 아군을 공격하여 격파시킬 좋은 기회를 갖게도 되리라는 예측도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볼때 釜山교두보가 대략 구성되었을 무렵 적의 침략계획은 이미 실패된 것으로 증명되며 적은 이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UN군이 안정되기 전에 바다로 몰아 넣어 버리려는 그들의 기도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극동사령부에서는 UN군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적에게도 다른 공산진영들의 원조가 있으리라고 예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지상군의 개입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또한 중공군의 신속한 파병도 본난한 처지이므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소련의 잠수함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미국은 韓國수역에 1척의 잠수함만이 작전 중이었고 수송함들에 대한 호송함대의 부족으로 많은 곤난을 받는데 반하여 소련은 극동에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면전쟁을 회피하려는 소련 측의 책략이 있을지 모르나 만일 잠수함대가 UN측 함대를 일시에 공격하였다면 이 전쟁은 좀더 다른 양상으로 부각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주 朝中相互防衛協定을 체결하기 위하여 1949년 3월 18일 모스크바(Moscow)에서 북괴대표 일행

들이 소련의 주재하에 중공과 북괴간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兩側은 여하한 성질의 침략에 대하여도 공동방위를 한다. 또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든 北韓 또는 中共의 일방을 공격할 경우 양측은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전쟁에 있어 공동행동을 취한다.
2. 中國공산당은 194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滿洲로부터 北韓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다.
3. 北韓은 滿洲에 있는 日本기술자 및 고용원과 滿洲에 있는 日本 군수품사용에 관하여 최우선권을 보유한다.
4. 北韓과 中國공산당은 양측이 경제적 필요에 의거하여 물물교환을 한다.

※ 이 비밀협정은 사실상 북한괴뢰군의 강화와 침략적 경제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던 것이다.

(5) 上陸軍編成 문제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것은 상륙부대구성에 있어서 난점이 많다는 것이다. 새로운 병력을 美本土나 여러나라에서 차출한다 하여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고 釜山 교두보에서 병력을 빼내는 것도 또한 곤난한 일이었다.

당시 洛東江 주변에서는 美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이 감경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면에 있어는 매우 아슬아슬한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어떤 상륙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워커(Walker)중장은 파도처럼 밀려 닥치는 적 때문에 계속되는 전투에서 지쳐버린 병사들을 차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말하자면 美제5해병연대를 비롯한 기타부대를 차출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말이다.

이제 만일 仁川항에서 상륙이 성공한다면 이 작전을 저지시키는 요소가 많은것 만큼 성과도 막대할 것이다. 알몬드(Almond)소장이 말한 것과 같이 仁川은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진 곳이긴 하지만 상륙작전의 최대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仁川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주력을 격파할수 있을 곳이 되며 그리고 仁川항은 서울과 최단거리에 있는 韓國 제2의 항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仁川 근방의 金浦에는 韓國 제1의 공항이 있고 金浦 공항은 2개의 좋은 활주로를 갖고 있어 이 공항을 점령한다면 그야말로 전략기지로서 가치가 크고 훌륭한 항공군수기지가 되는 것이다.

아군이 성공적으로 仁川에 상륙한다면 적은 양면에서의 협공을 면치 못할 것이고 釜山

교두보의 압력을 당장 감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 적은 모든 보급품과 탄약을 서울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차단시키면 洛東江선의 교두보를 공격하는 적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도 "전사(戰史)는 우리에게 십중 팔구가 주보급로의 차단으로 인해서 격파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또한 仁川을 점령하면 곧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으며 이로서 韓國국민에게 정치적 심리적인 면에서 안심을 주고 국군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적은 불의의 역습을 당해 대혼란을 이르켜 洛東江 전선도 그대로 무너지게 되고 또한 우리들은 수확기에 접어든 막대한 양곡도 고스란히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仁川 상륙은 공산침략을 분쇄하고 조속히 전쟁을 종말시켜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사실 이 상륙작전이야 말로 훌륭한 성공을 가져오느냐 또는 큰 재난의 불씨를 던져 주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큰 분기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이런 위험한 모험을 무릅쓰고 그 소신대로 단호하게 작전을 하게된 동기에는 지난 날 제2차대전에서 濠洲 멜보른에서부터 도오쿄오(東京)까지 太平洋 해역의 여러 싸움에서 얻은 바 실전적 경험이 그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대기동작전에 대한 신념과 陸·海·空 삼위일체의 입체작전에 대한 새로운 대원리를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나. 本作戰의 意義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또 한번 세계전사에 그 이름을 떨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仁川상륙작전이며 이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仁川상륙작전계획과 이를 수행키 위한 각부대의 보고서가 우연한 일치였다고 할수있으며 그리고 仁川 작전의 성공이 다만 운이 좋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이었다.

즉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적절한 시기에 작전을 계획하였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위험성이 개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손실로 적을 일거에

패당시킨 사실은 美 해군의 해상지원이 충분하였던 것과 美 해병대의 탁월한 상륙전에 기인되는 것과 아울러 전비태세 완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仁川 상륙작전에 대한 결과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고찰해 볼만한 일인데 그중 전쟁자체에 끼친 영향으로서

(1) 중공군에게 미친 영향

(2) 미해군 및 해병대에 미친 영향

(3) 미국방정책 및 그 계획에 미친 영향.

등으로 분리해 볼수 있다.



<맥아더사령관이 仁川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후 전함 미조리호에 오르고 있다.>

이 仁川 작전이야말로 韓國전쟁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은 순간적이며 결정적인 것이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 자신도 한국는 仁川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인라는 의심을 가졌던 순간도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9월 15일 드디어 仁川상륙을 감행하여 완전히 仁川을 탈환한 다음 17일에는 美 해병대가 서울을 향해 승리의 진격을 하고 있었지만 仁川 상륙작전의 승공은 곧 洛東江전선에 직결되어 적이 와해될 것으로 믿었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美 제8군의 워커(Walker)중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싸움에 대

한 진첩상황이 없어 한때 근심한 나머지 마운트 맥킨리(Mt. Mckinley)함상에서 도일(Doyle) 소장을 불러놓고 이번 상륙작전이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같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먼저 美해군에서 선정하였던 群山 상륙작전을 또한번 실시하도록 도일(Doyle)소장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채찍(鞭)이 너무 길어서 말의 배를 치지않고 땅바닥만을 친 결과가 되었는가 하고 근심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지나친 근심이었던 것이 그뒤에 실증되었다.

그때 도일(Doyle)소장은 群山상륙에 사용할 부대에 관하여 질의하였더니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제1기갑사단을 참가시키도록 일러주었으나 수 시간 후에는 워커(Walker) 중장으로부터 洛東江 방어선의 적의 공세가 점차 약화되고 전선에서 퇴각할려는 정보를 얻었다는 연락을 받으므로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우(杞憂)는 사라지고 그 위대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결단력이 성공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仁川상륙작전의 성공은 지금까지 美8군의 워커(Walker)중장이 방어하고 있던 洛東江 전선을 돌파하여 일거에 鎭山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적의 야망을 운산무소(雲散霧消)케 하고 아군은 그후 仁川에서 南進한 상륙군과 北上하는 지상군에 의해 38선 이남의 한반도는 거의 아군에게 재탈환되고 남한의 적은 고립 분산되거나 또는 38선을 향하여 패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도일(Doyle)소장은 말하기를 美 8제군이 洛東江의 전선을 돌고 성공적으로 진격하게 된 것의 하나가 적의 야전인민군의 총참모장 姜 健의 죽음이라고도 하였다. 도일(Doyle) 소장은 姜 健의 죽음이 洛東江 방어진에서 인민군의 파멸을 크게 촉진시켰다고 말하였고 또 맥아더(Mac Arthur)사령관도 이를 시인하면서 그의 후계자는 적군을 통합지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姜 健은 9월 8일 安東 부근에서 폭사하였던 것을 확인하게된 까닭이다.

그러나 1개 지휘관의 폭사가 그 원인이라고 과대평가할 수는 없다. 美해병대에 대한 도일(Doyle)소장의 신념은 UN군의 각 부대간에 있어서 美 해병대가 전투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해석을 한것은 아니며 다만 美 해병대가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수년동안 해왔고 또 상륙작전의 특별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내에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능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찬양하기도 하였다.

만일 이번 작전에 다른 우군부대의 일부가 참가하였다면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포함하여

많은 특수훈련을 수행하는데 수개월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상륙전에 있어서 해군과 해병대를 특수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임무를 완수케 하였다는 좋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스트러블(Struble)중장은 논평하기를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仁川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군사적인 재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仁川과 서울은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목표였으며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UN군사령관으로서 많은 난관에 부닥치면서 까지 仁川작전을 결의한 것은 매우 용감무쌍한 일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당연한 말이라고 하겠다.

당시 釜山 전초지에서의 지상군의 위기와 9월 15일에 결행하여야할 仁川작전등을 생각하며 7개 중요부대에 하달할 작전계획준비와 각부대간의 협조 및 조정에 요하는 시간등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가령 강한 태풍이 내습하여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작전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관계 지휘관들 사이에서 실시된 전략정보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仁川작전에서는 각 지휘관들의 협조한 공이 크며 그중에서도 명성을 떨친 지휘관들은 「앉아있는 오리」작전에 출동된 구축함을 지휘하며 月尾島와 仁川을 맹폭하여 적을 제압한 바 있는 히긴스(Higgins)소장과 아랜(Allen)대령, 그리고 강력하고 정확한 공중공격을 가하여 仁川의 적의 방어부대를 약화시키고 仁川시가의 방어를 보강하려는 적을 교란시킨 바 있는 이웬(Ewen)소장과 루불(Ruble) 소장, 및 美 제1해병상륙사단을 잘 지휘하여 月尾島와 仁川을 공격하여 탈환토록 했던 도일(Doyle) 소장 및 美 해병대의 스미스(Smith) 소장 그리고 공격부대를 강력히 지원한바 있는 英國 해군의 앤드류스(Andrews)소장, 헨더슨(Henderson)소장, 오스틴(Austin)대령과 그밖의 美 제10군단을 지휘하여 서울탈환을 성공리에 완수시킨 알몬드(Almond)소장등이다.

그들은 잘 조화된 팀웍크(teamwork)로 작전을 계획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 오게 하였으며 공격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美해군은 여러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상륙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함대해병대와 해군상륙전부대를 준비하여 언제나 상륙전의 있어서 요청에 응할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仁川 상륙작전은 효과적인 근접항공작전에 관한 일련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때까지 美해군은 UN군 지상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은 근접항공지원이 출격회수의 70%를 찾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효과적인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통신시설의 미비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지도(地圖)의 결여와 부대의 근접지원훈련 및 일반적인 교리와 교재교육의 부족에 있었다.

그러나 근접항공지원에 관한 美해군의 이론 및 그 증거가 仁川공격과 서울탈환시에 잘 입증되었으며 이웬(Ewen) 소장의 보고서에도 근접항공지원은 효과적으로 잘 수행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美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a)소장은 9월27일 스트러블(Struble)중장에 찬사를 표했다 (주 : 전문내용—9월 25일 美 제10군단의 서울공격을 위하여 귀하가 지휘한 근접항공지원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적절했읍니다. 서울탈환을 크게 촉진시켜 준 이 훌륭한 노력에 대하여 나의 감사와 찬사를 이웬(Ewen)소장 및 그의 예하 장병에게 전해 주십시요.)

한편 仁川상륙작전은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교훈도 남기지 못했다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상륙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은 없었고 다만 제2차 세계대전시의 전통적인 전략과 지휘관계 및 전술이 그대로 효과적이였고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후일 밝힌 바에 의하면 "스트러블(Struble)중장과 도일(Doyle)소장, 그리고 스미스(Smith)소장들은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고 실행해서 美해군의 위대한 전통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거둔 지대한 성과야 말로 전략사상 유례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仁川 상륙작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한행동의 교훈(Delayed-Action lessons)은 재래식 상륙작전에서 함정과 부대를 집결시키는 것이 원폭(原爆)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仁川 공격에는 상륙주정 대신에 공격 헬리콥터(Helicopter)를 장차 사용하여야 되는 구상과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잠수함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빠르며 교두보에서 더 많은 자동하선(自動下船) 능력을 갖춘 고속의 신형상륙주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스미스(Smith)소장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仁川 작전으로 인해서 美國의 군사체제내에 해병대를 존속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또 다른 결과는 美軍의 전술정보가 부족하였던 것을 입증한 것이 되고 한편 지도가 부적당한 데다가 사진까지 없고 게다가 정보출처마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일

이었다.

美해군은 어떠한 국방정책 목표이건 간에 잠재성(潛在性)상륙전지역 및 기타지역 또는 작전에 관하여 해군에 의한 정보수집은 전세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한 해군이 仁川 상륙작전에서 판단 분석하여 얻은 특수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첫째는 소수의 기뢰를 제외하고는 잠수함의 반격 또는 어떠한 형태의 해군에 의한 반격도 없었다.

둘째는 항공기에 의한 반격도 거이 없었고 셋째는 실제로 상륙작전을 저해시키는 반응이 아주 경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조건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나타났지만 스트러불(Struble)중장은 그러한 것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주원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어떠한 상륙작전도 이 세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원폭이나 핵무기를 고려하지않고 재래식 전쟁방법에 의해서 계획된 仁川상륙작전의 성공은 앞으로 이것이 상륙작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지침이 될 뿐이다.

이와같은 仁川 상륙작전은 제2차세계대전 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美 해군작전의 번동을 가져왔고 美 국방군사계획에 막대한 효력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첫째로 제2차대전후 美 해병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대해병대를 제외하고는 수비대로 바뀐것 같은 인상을 보여 왔지만 仁川 작전후에는 그 중요성이 평가되어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이 스미스(Smith)소장에게 말한바 있는 "해병대의 장래는 결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해병대는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앞으로 핵전쟁을 대비하여 볼때 仁川 작전은 太平洋 전쟁의 전술전략의 반복이었다. 仁川 상륙작전을 목격한 美 해군 및 해병대의 전략가들은 다시는 상륙작전에 부대와 항정 및 보급품들을 같은 장소에 집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전술방법과 새로운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仁川작전은 상륙작전에서 그 전법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표본이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말했듯이 太平洋 전쟁후 함대해병대를 포함한 해군부대는 美國의 전력증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다. 本作戰의 戰略的 評價

전사상 근래 최대의 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있어서 트루맨(Truman)대통령과 부래드리(Bradley)대장, 콜린스(Collins)대장, 그리고 셔먼(Sherman)대장을 위시하여 모든 전쟁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오직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초지일관된 신념과 설득에 의하여 본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지나간 仁川작전을 분석하여 본다면 먼저 상륙에서 부터 전면적인 총반격을 개시한 후 부터 38선에 도달했을 때까지 공식적인 피아의 군사적 피해는 적측의 손실이 병력살상 52,198명, 포로 130,000명, 장비 및 각종포 노획및 파괴 1,569문, 전차 131대와 기타 중장비 158문이고 아군의 손실은 병력살상 8,479명, 장비손실 및 파괴된 각종포 17문, 전차 2대, 기타 중장비 2대이다.

당시 적은 Walker line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병력과 南韓청년 40만명을 동원하여 釜山의 최후 보루선을 돌파하려던 것이 뜻밖에도 아군의 仁川상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병력이 洛東江전선에서 교착된 채로 아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전사상자의 속출은 물론이려니와 보급장비도 없이 아사한 자와 투항한 자, 그리고 도망한 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만일 맥아더(Mac Arthur)전략이 실행되지 않고 Walker line에서 단순한 반격전을 되풀이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상적 전략과 판단이 예측되는 바이다. (주 : 미국군 교범에 의한 산출)

우선 적은 후퇴하면서 38선까지 5개의 저지선 워커라인(Walker line), 錦江선 天安—長湖院선, 漢江선, 38선)을 유지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관의 많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5개의 저지선을 통한 방어선은 4단계 작전을 실시되리라고 생각되며 각 단계별 작전은 최소한도로 추산을 한다고 해도 제1단계에서 13일간, 제2단계에서 7일간, 제3단계에서 5일간, 제4단계에서 5일간해서 모두 30일간이 소요될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이 38선에서 워커라인까지 남하하였을 때는 만 2개월이 걸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피아간의 예상피해를 추산하여 볼때 아군의 손실은 제1단계에서 58,013명, 제2단계에서 32,534명, 제3단계에서 24,705명, 제4단계에서 24,705명이 되어 도합 139,957명이나 되고 적군의 손실은 제1단계에서 14,473명, 제2단계에서 8,131명 제3단계에서 6,017명, 제4단계에서 6,017명해서 도합 34,638명이 된다.

그리고 장비의 예상손실은 아군측이 전차 76대, 각종포 2,397문, 장갑차 16대이며 적군측은 전차 23대, 각종포 469문, 장갑차 4대가 되리라고 본다.

또한 만일 적이 30일간에 걸친 반격으로 후퇴를 했다고 가상한다면 200만명이상의 우익인사와 선량한 국민들을 학살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仁川상륙작전에 의한 포위작전외에 洛東江 방어선을 비롯하여 남한각지에 산재해 있던 적들이 급속한 반격작전으로 인하여 패주하면서 가는곳 마다 도처에서 처참한 학살을 자행하여 실로 10만명이 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능히 짐작이가는 바이다.

그 잔인한 학살상은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였고 혹은 철사줄로 손발을 묶어서 우물에 잡아 넣기도 하고, 불 속에 태워죽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도 모두 닥치는 대로 죽이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비참한 장면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당시 반격으로 나선 국군과 UN군은 신속한 진격으로 이러한 비극을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북진을 계속하는 한편 감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다 도망한 것을 구출하기도 하고 생매장된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仁川상륙작전이야 말로 실로 인간지옥에서의 해방이었다. 리들하아트(Liddell Hart)가 말한 바와 같이 仁川 작전에 대한 전략은 "멀고 험한 길이 실은 가깝고, 가까운 길이 실은 멀다"라고 논평 한바 그대로이며, 한국전에 있어서의 仁川상륙작전은 불가피한 일대작전이었고 이것이 또한 일대시련의 극복이었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결국 맥아더(Mac Arthur)전략은 美國 군교범의 추산된 통계와 비교해 볼때 불과 10일간의 싸움으로서 서울탈환에 성공하였고 따라서 싸움일 수를 3분의1로 단축시키고 13만명에 달하는 적군을 포로로 하고 한편 14만명의 아군병력과 200만명의 국민을 구제한 결과가 된 것이 틀림없다.

美國은 제2차대전후 핵무기와 신무기의 출현으로 전차 작전이 불필요하고 앞으로 상륙작전도 소용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던 것이 역전되고 오히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상륙전 연구에 더욱 힘을 기우리게 되었다.

적은 남진할 당시 東해안에서 상륙용 선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였으나 洛東江 전선에서는 도하작전용 장비의 부족으로 전선은 교착되고 무모하게 병력투입만을 계속하여 UN 공군의 표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洛東江 전선 以北은 공백상태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황속에서 불의에 적의 배후를 찌른 이상륙작전은 심리적 작전면에서도 한국전의 전세를 일변시키는데 크나큰 역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UN군은 상륙후 즉시 전파와 삐라로 이 사실을 전 한국에 전달하였고 서울을 탈환할 때에도 이와같은 수단으로 즉시 보도하여 심리전(心理戰)의 승자(勝者)까지 겸하게되었던 것이다. 이당시 산포되었던 삐라에는 서울함락의 내용과 아울러 민간인에게는 서울이 군사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병에게는 소용없는 저항을 버리고 이 이상 더 유혈을 보지 말고 투항하라고 권하는 내용의 전단(傳單) 500만매를 살포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적극적인 선무공작에 의하여 적은 속속 귀순하여 오는 병사가 늘어 났는데 그후 포로들의 심문한 결과 1,013명중 8.4%가 그 전단을 보고 귀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작전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때까지 심사된 포로의 총 인원중 16%이상이 이러한 심리전의 효과를 받게되고 심사말기에 심문한 339명의 포로에 있어서는 14%가 심리전에 의해서 투항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니 仁川상륙 및 수도 서울탈환에 있어서의 심리작전의 효과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한국전쟁의 국면을 일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말씀으로 말하여 이 상륙작전은 계획당시부터 작전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던 東京회담에서의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의 역사적인 설복연설이 그대로 적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은 38선에서 洛東江 방어선까지 다시말해서 6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81일간이 걸렸던 작전을 아군은 洛東江 방어선에서 38선까지 즉 9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불과 15일간이 걸렸던 것이니 이것은 오로지 적의 배후를 불의에 공격하여 성공시킨 본작전에 의한 대 포위전술의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다.

§ 참전자의 약력

맥아더(Douglas Mac Arthur)

美國의 아더·맥아더장군의 3男으로서 1880년 1월 26일 아칸사스(Arkansas)州에 태어 났으며 1903년 6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0년에 대장으로 승진되었다가 37년에 퇴역하였다. 그동안 육군참모총장등의 요직을 지내고 군부에서는 極東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41년에 美·日간의 정세가 악화되고 전쟁도발의 우려가 농후해 지자 현역으로 복귀되어 美

극동군사령관이 되고 이어서 연합국의 西南太平洋방면사령관으로서 對日반격전을 지휘하고 44년에 元帥가 되었다.

日本항복과 더불어 日本점령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어 日本을 무장해제시키고 포스담 선언의 집행자로서 日本의 신헌법제정과 재벌해체 및 농지개혁등 일련의 민주화정책을 시행하였다.

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UN군총사령관이 되어 참전 연합국과 한국군을 총 지휘하였다. 그러나 중공개입으로 인하여 전세가 불리해지게 됨에 따라 滿洲폭격 중공해상봉쇄등의 강경책을 주장하다가 정부의 전쟁불확대정책과 대립되어 51년 4월 트루먼대통령으로부터 그 직을 해임당하고 미국의 한 군수회사의 중역으로 있다가 64년에 사망하였다.

李熙昌(군번 80081 1922.12.15생 日本대학 법과중퇴)

1946. 10. 28 임 해군중위
46. 9. 1~47. 2. 1 LCI 서울호 정장
47. 2. 1~47. 6. 1 KMC 忠武公호 정장
47. 6. 1~48. 7. 1 갑판고등교육대 교관
48. 7. 1~48.10.15 YMS정 운영교관
49. 5. 1~50. 3. 1 해군본부 작전국장
50. 3. 1~50. 4.16 제2정대 사령
50. 4.16~50.10.15 702함장

張璿鎭(군번 80414 1930.2.27생 新義州중학교 졸업)

1948.12.15 해군사관학교 졸업 임 해군소위
49. 2.14~49. 5. 3 309정 부장
49. 6. 1~50. 4.25 506정 부장
50. 4.25~50. 6.18 해군사관학교 훈육관
50. 6.18~50.10.19 702함 항해장

第26章

서울奪還作戰

第 26 章 서울 奪還作戰

要 旨

韓國전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룩한 역사적인 仁川 상륙작전은 제10군단의 공격제대인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에 의해 1950년 9월 15일 미명(未明)을 기해 감행되었다.

치열한 항공폭격과 함포지원사격 밑에 美 해병 제1연대, 美 해병 제5연대 그리고 韓國 해병대는 상륙지점으로 선정된 녹색, 적색, 청색해안에 각각 상륙 돌격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은 洛東江 전선으로부터 이곳에 집중하게 되었다.

美 해병상륙단이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고 仁川 東쪽 외곽에 설정된 교두보선으로의 진격을 계속하는 동안 韓國 해병대는 仁川시내의 잔적섬멸작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단 仁川시를 포함한 교두보를 확보한 상륙군은 곧이어 서울 탈환작전에 돌입하고 美 해병 제1연대는 京仁가도의 右측지역을, 그리고 美 해병 제5연대는 동 左측 지역을 각각 담당하고 일로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 해병대는 16일 저녁 제2대대를 계속 仁川 시내의 잔적섬멸작전에 임하게 하고 자리를 옮겨 美 해병 제5대의 左 측에 포진한 후 17일수차에 걸친 적의 역습을 물리치면서 金浦 반도의 잔적(殘敵)을 섬멸하였다.

美 해병제1연대가 18일 素砂를 탈환한 다음 永登浦를 향하고 있을 때에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 해병 제1, 2대대는 幸州 대안에서 漢江을 도하하라는 명령을 받고 19일에는 그 대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서둘렀다. 19일 야간을 이용한 은밀도하는 이것을 미리 알아 차리게 된 적의 반격으로 마침내 실패에 돌아갔지만 20일에 이르러서는 적전 도하를 강행하는데 성공하고 陵谷에서 水色방향으로 적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17일 뒤늦게 상륙한 美 제7사단은 美 제1연대의 남쪽을 차단하고 엄호하는 가운데 美 해병 제1연대는 永登浦로 진격을 계속하고 격전을 거듭하였다.

최초 서울 시축방을 공격하기 시작한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는 서울을 사수하려는 북괴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부딪쳐 延禧高地일대의 능선상에서 피아의 격전이 전개되어 그 전진 속도는 둔화(鈍化)되었다. 그러나 아군의 선전으로 적의 보루는 무너지고 24일에 이르러 延禧고지일대의 능선을 점령하게 되었으므로서 여기에 전승의 서광이 더욱 찬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고전끝에 永登浦가 점령되고 美 보병 제7사단일부 부대가 水原으로 남진하고 있을 24일 美 해병제1연대는 麻浦쪽으로 漢江을 도하하여 美 해병제5연대 右측에 배치되었는데 이때에 또한 美 해병제7연대도 21일 그의 사령부와 함께 仁川에 상륙한 다음 美 해병 제5연대 左측방에 배치되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소장은 서울 西측방에서 美 해병대가 고전에 빠져 그 전진이 지연되자 25일 美 보병제7사단예하 제32연대와 韓國 육군제17연대를 西氷庫쪽으로 도하시켜 서울을

北西쪽과 南東쪽에서 포위하는 태세를 갖춘 다음 일거에 시내에 대한 돌입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서울 공략의 주공부대인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는 서울 西측방에서 25일날까지는 완전히 능선 일대를 확보하였고 일부 부대는 벌써 서울시에 돌입하고 있었다. 북쪽은 美 해병제7연대와 한국 해병제5대대이고 중앙은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 해병제1대대인데 이때에 南쪽은 美 해병제1연대와 韓國 해병 제2대대가 배치되어 마치 반월모양의 궁형(弓形)태세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5일밤 美 보병제32연대와 韓國육군 제17연대가 南山을 점령하였을때 공격을 개시한 美 해병대와 韓國해병대는 西大門방면과 麻浦일대에서 공세를 취하였으나 적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를 격파하는 동안 전진은 불가하였고 26일아침까지도 공격제대의 변동은 없었다. 다만 元曉路와 三角地일대를 담당한 韓國 해병 제2대대가 국부적인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 일대를 확보하였을 뿐이었다.

26일의 전투는 적이 이미 철퇴하기로 작정함에 따라 그 철수를 위해 시간을 얻기 위한 최후 발악적인 적의 지연전술을 분쇄하는 전투로 시종하게 되었다. 적은 수많은 바리케이트와 지뢰를 매설하고 아군의 진격을 막았으나 아군의 선전으로 저녁 때에는 이미 서울시의 3분의1을 확보 할 수가 있었다.

韓國 해병대는 27일아침 中央廳에 太極旗를 게양하고 다른 우군부대들과 같이 서울시 일원의 잔적을 완전 섬멸하고 29일에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환도식을 맞이하였다.

여기에서 韓國軍 제17연대는 韓國 해병과 임무를 교대하여 서울시 경비에 임하고 美 해병대가 京義 가도(街道)와 京元 가도를 따라 진격하는 동안 韓國 해병대는 京春 가도를 따라 진격하였다. 이것은 서울 탈환 후 내륙(內陸)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진격이었는데 10월 3일 美 해병대가 議政府에, 韓國 해병대가 北漢江에 진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京春 가도를 따라 진격한 韓國 해병대는 金谷을 점령하고 北漢江에 이르렀는데 예정대로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고 진격할 수 있었다.

한편 제10군단의 일부 부대인 美 제7사단 제31연대는 북상하는 제8군과의 연계(連繫)작전을 위해 남진하여 서울이 완전탈환되기 전 26일 水原 남쪽에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가. 참전부대와 주요지휘관

아

美 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美 해병제1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제1연대 장 대령 Lewis B. Puller

제1대대 장 중령 Allan Sutter

제3대대 장 중령 Thomasv Ridge

제5연대 장 중령 Raymond Murray

제1대대 장 중령 George Newton

군

제2대대 장 중령 Roise

제3대대 장 중령 Robert D. Taplett

제7연대 장 대령 Homer L. Litzenberg

韓國 해병 제1연대 장 대령 申 鉉 俊

제1대대 장 소령 高 吉 勳

제2대대 장 소령 金 鍾 淇

제3대대 장 〃 金 潤 根

美 보병제7사단 장 소장 David G. Barr

제 31 연대 장 대령 Richard P. Ovenshine	韓國 육군제17연대 장 대령 [illegible]
제 32 연대 장 대령 Beauchamp	제1대대 장 소령 柳 [illegible]
제 1 대대 장 중령 Don Faith Jr.	제2대대 장 소령 咸 成 烈
제 2 대대 장 중령 Charles M. Mount	제3대대 장 소령 魯 義 [illegible]
	총병력 : 60,000여명

적 군

서울지구 방위사령관 중장 崔 庸 健	제 1 8 사 단 장 미상
제226독립해병연대 장 미상	제9사단87연대 장 미상
제 918 포병연대 장 미상	독립제849전차포연대 장 미상
제 2 2 연 대 장 미상	독립제25여단 장 소장 최 기 찬
제 226 연 대 장 미상	제17기갑사단 장 미상
제 107 연 대 장 한 치 한	독립제78연대 장 대좌 박 한 린
제877 항공대 장 소좌 소 궁 진	총병력 : 20,000여명

나. 작전 전의 개황

상륙군의 최초 목표는 인구 25만의 항구 도시 仁川에 상륙 공격하여 首都 서울을 향해 내륙으로 진격하는데 필요한 교두보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초 논쟁이 많았던 仁川 상륙작전은 그 계획과 검토에 D일 전 100일에 가까운 시일을 소요했으나, 맥아더 사령관은 9월 6일에야 그 예하 작전 주요부대 사령관에게 D일을 비로소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상륙군인 제10군단은 美 해병제1사단과 美 보병제7사단을 주축으로 韓國 해병대 및 韓國 제17연대를 비롯한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으며 1950년 8월 26일 정식으로 군단장의 작전권이 발동되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소장 휘하의 참모들은 대부분이 극동군 사령부 참모들중에서 차출된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지상군의 주요부대인 1개 해병사단을 극동에서 1950년 여름에 완전히 편성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7월 25일부로 해병사단장에 오리브스 퍼 스미스(Oliver P. Smith)소장이 임명되었고, 같은날 美 해병대사령관은 완전한 사단으로 편성하여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극동으로 해상기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美 해병제1연대가 창설되었는데 2주일동안에 장병 15,000명이 집결, 편성되어 장비를 갖추었다.

이어 8월 10일에는 美 해병 제7연대가 창설되어 9월 1일까지는 극동으로 해상기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해병사단으로의 편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地中海에서 제6함대와 같이 임무를 수

행하고 있던 1개 해병대대를 극동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사단장 스미스(Smith)소장과 대부분의 사단참모들은 8월 22일에 美國 본토에서 日本에 도착하였으며 사단 직할부대요원과 美 해병제1연대와 美 해병제7연대 참모들은 8월 28일부터 9월 6일사이에 도착하였다.

地中海 크리트(Crete)섬의 수다(Suda)만을 떠난 2척의 함선으로 해병 1개대대는 9월 17일에야 日本 고오베(神戶)에 도착하였고 韓國전쟁에 이미 참가하여 鐵東里 방면에서 싸우고 있던 美 해병제5연대는 8월 30일에 釜山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美 해병사단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美 보병제7사단을 편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7월중 극동군 사령부는 美 제24사단 및 美 제25사단 그리고 美 제1기갑사단이 韓國으로 출전할 때 140명의 장교와 1,500명의 사병을 이 사단에서 차출하였으므로 7월 말에 이르러서는 그 병력이 50%도 채 못되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하사관과 기술병, 그리고 화기소대장의 부족은 극심하였는데 8월27일에 이 사단은 장교 290명 준위 126명과 사병 8,701명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7]

극동군 사령부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간에 도착한 전 보병 보충병을 美 제7사단에 보충하고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전 포병요원도 보충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9월 14일까지는 390명의 장교와 5,400명의 사병이 보충되었다.

맥아더(Mac Arthur)사령관은 美 8군에 가는 기술근무부대를 전환시켜 美 제10군단을 충당시키는 등 우선적으로 10군단의 부대편성을 서둘렀다.

우수한 보병과 포병, 그리고 공용화 기요원은 美國에서 보충되었는데 8월에서 9월초까지에 이들을 모두 7사단에 배치하였고 전장에서 이미 말한대로 훈련은 포오트 실(Fort Sill)의 포병학교 와 포오트 벤닝(Fort Benning) 보병학교에서 온 고참 하사관들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므로 승선하기 전부터 7사단의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8월말 日本의 고오베(神戶), 사세호(佐世保)및 요꼬하마(橫濱)와 韓國의 釜山항은 최초단계에 있어서 상륙부대를 탑재하는 긴장된 활동의 중심지였다.

美 해병사단은 고오베(神戶)에서 그리고 韓國 해병대와 韓國 육군제17연대 및 美 해병제5연대는 釜山항에서 또 美 보병제7사단은 요꼬하마(橫濱)에서 각각 승선하였고 대부분의 호위함선과 함포사격지원전대 및 기함은 사세호(佐世保)에 집결되어 있었다.

9월 12일 태풍 케지아(Kezia)호를 피해 각각 승선지를 떠난 지상군은 다가 올 D일을 위해 극비리에 항해를 계속하였다.

제10군단의 상륙계획은 강습공격부대인 美 해병제1사단예하인 제5연대 제3대대가 9월15일 06.30 일조(日朝)만조를 타고 일거에 月尾島에 상륙하고 이섬을 장악하게 되면 곧 주력부대인 美 해병제1연대와 제5연대 및 韓國 해병대가 일석(日夕)만조를 타고 즉시 상륙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거창한 仁川 상륙계획에 따라 지상군인 제10군단의 주요부대의 하나이었던 韓國 해병대는 濟州道에서 징모한 신병 3,000명을 합쳐 1개 연대를 편성하고 이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전만 하드라도 해병대의 주력부대는 鐵東里와 統營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8월 6일 釜山에 도착한 이들은 美 해병제5연대와 합동하여 상륙작전에 따르는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9월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걸쳐 韓國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美 함정 LST 306과 피카웨이호에 승선하였는데 이 피카웨이호 선상에는 美 대통령 특사로 와 있던 로우 소장과 해군참모총장 孫元一 제독과 그리고 白弦基 해병대 사령관등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9월 12일 15.00 釜山을 떠난 수송선단은 남해를 경유하여 야간항해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승선하고 있던 韓國 해병들은 자기 작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9월 13일 09.00 韓美 합동작전참모회의가 피카웨이호 사관실에서 개최되어 비로소 仁川에 기습상륙하려는 UN군의 작전기도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르는 진지한 토의가 美 해병제5연대 참모들과 같이 논의되었다.

9월 14일에는 로우 특사가 韓國 해병대에 소개되었고 孫元一 해군참모총장의 훈시가 전달되었으므로 전장병들은 팔을 걷고 필승의 결의를 더욱 새로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으로 조국의 운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척하려는 결의를 다시금 다짐하였으며 멀리 仁川 상공을 노려보게 된 장병들은 감격과 흥분을 참을 길 없었으며 상륙해안을 제압하는 우리쪽 함정들의 포성은 천지를 뒤 흔들어 놓고 있었다.

상륙 돌격제대인 美 해병제1사단과 韓國 해병대가 상륙할 仁川 해안 南北간 8km 사이에는 4개의 상륙해안이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조기에 상륙 점령하여야 할 月尾島의 녹색해안과 美 해병제1연대가 상륙할 南쪽의 청색해안, 그리고 美 제5연대와 한국 해병대가 상륙하는 적색해안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의 황색해안은 화물과 중장비를 양육시킬 곳이었다. 이렇게 하여 仁川상륙작전이 감행되는 9월 15일은 아침부터 흐리고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상태였는데 일기예보는 저녁 때부터는 가랑비가 내리고 몇일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D일인 9월 15일 02.00부터 仁川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한 선두 공격단은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와 해병 제1전차대대 A중대의 2개소대 (M26 9대)였다. 이들 대대상륙단은 창파(蒼波)를 헤치고 목표지역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리하여 상륙 전의 첫 전투가 전개된 月尾島는 해발 105m의 돌섬(岩島)이었으며 이섬에는 이미 적이 설치한 많은 동굴과 포진지 그리고 산병호와 교통호가 뒤 덮여서 거의 요새와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作戰經過의 槪要

1. 仁川橋頭堡의 確保 (50년 9월 15일부터 50년 9월 1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2 호
작명부록 제 98.99호

가. 仁川市의 탈환

9月 15日 : 1개의 美 해병사단, 1개의 美 보병사단(군단직할의 지원부대 포함)과 韓國軍 2개연대로 구성된 제10군단은 1950년 9月 15일을 기하여 仁川에 적전상륙(敵前上陸)을 감행하게 되었다.

8km에 달하는 仁川 南北해안사이에는 4개의 상륙해안이 선정되었는데 조기에 상륙 점령하여야 할 月尾島의 녹색해안과 北쪽의 적색해안, 남쪽의 청색해안, 그리고 또 다른 해안은 항만시설이 있는 중앙의 황색해안이었다.

韓國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仁川상륙작전이 감행되는 이날 02.00부터 仁川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한 선두 공격단은 美 해병 중령 로버트 디 타프렛트(Robert D. Taplett)가 지휘하는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였다.

이들 대대 상륙단은 서서이 月尾島 원안(遠岸)의 수송구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륙군이 첫 전투를 전개하였던 月尾島의 모양은 105m길이의 둥그스럼한 고지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섬은 무수한 동굴, 교통호, 포진지 및 산병호로 거의 요새화된 돌섬이었다.

05.00 선두공격단이 상륙을 준비하는 동안 美 해병대의 함재기 8대는 폭격을 月尾島에 가하였으며 또한 2대의 비행기는 仁川에서 月尾島로 접근하는 적의 장갑차량을 포착하여 격파하고 있었다. 맹렬한 공중공격은 상륙단이 상륙하여야 할 月尾島를 효과있게 공



〈仁川상륙작전을 보도한 국내신문들〉

격하여 이곳의 적은 더 이상 저항의 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강습부대로서 선공준비가 끝난 타프렛트(Taplett) 중령의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는 05. 40, 17척의 상륙주정(LCVP)에 옮겨 타기 시작하였고 배속된 9대의 전차는 3척의 LSU에 실려 LSD로부터 진수하였다.

06. 27 공중공격과 함포사격으로 이미 잿더미가 된 月尾島를 향해 상륙주정은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녹색해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는데 상륙부대가 이미 공격개시선을 통과했다는 기함 맥킨리호의 확성기 소리를 이 함의 함교 위에서 맥아더사령관이 확인하고 만족의 미소를 띠었다.

공격중대와 예비대로서 제 1 파, 제 2 파의 주열(梯列)을 형성한 美 해병제3대대는 06.

30에 제1파가 섬의 北단에 닿았다. 이들은 거의 저항없이 빠른 속도로 해안에 올랐고 수분내에3대의 도자와 3대의 화염방사전차를 장비한 제2파도 상륙하여 동굴 속에서 최후 발악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적병을 모조리 섬멸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月尾島에 상륙한 지 30분 뒤에는 105高地정상에 벌써 星條旗가 나부끼게 되고 07·50에는 이섬을 완전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늦게 小月尾島를 공격하고 적 1개소대의 병력을 사살하고 투항한 적을 모두 포로로 하였다.

美 해병제3대대는 月尾島 탈환에 있어서 이섬을 수비하고 있던 약 400명중의 108명의 적을 사살하고 136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약 100명의 적은 동굴에서 저항하다가 탱크와 도자에 의해 묻혀 버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月尾島는 완전 점령되어 해안공병이 부교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곧 간조(干潮)가 시작되어 함대는 즉시 외항(外港)으로 퇴피(退避)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月尾島에 상륙한 부대만이 적 앞의 작은 섬에 외롭게 잔류하는 셈이 된 것이다.

연합군의 상륙기도가 이미 폭로되어 적의 내습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는 가운데도 상륙군은 만조시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막료장교는 말하기를 "이때처럼 시간이 가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상하의 초조하였던 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륙군을 지원하는 항공기와 함포는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공양면에서 불을 토하여 적의 기세를 꺾는데 온갖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계속 仁川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km까지 적의 후속부대와 도로를 포함한 목표에 대하여 끊임없이 해공에서의 공격이 되풀이 되었다.

이날 15.30 드디어 주상륙을 위한 긴급 대기명령이 하달되어 美 해병의 주력인 제5연대 및 제1연대의 상륙단은 상륙 주정에 옮겨 타기 시작하였다. 해병들이 상륙을 준비하는 동안 로켓트함은 적색 및 청색해안에 2,000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적을 격멸하는 임무을 맡고 있는 美 해병제5연대는 해안 左측으로부터 제1대대, 제2대대를 병행상륙시켜 날이 저물기 전에 해안 가까이에 있는 적운高地까지 진출한 후 다음 날 공격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美 해병제5연대 상륙단의 제 1파는 17. 33에 적의 저항없이 접안(接岸)할 수 가 있었다. 그러나 제3파가 해안에 도착할 무렵부터 적의 주정에 대한 사격은 격열하여 四方에서 박격포와 기관총탄이 날아 왔다.



〈仁川에 상륙한 美 해병대 병사가 仁川시가를 지나 富平으로 전진하고 있다.〉

상륙군의 최좌익중대였던 제1내대의 A중대는 상륙과 동시에 백병전이 벌어져 전사 8명, 부상자28명을 내면서 상륙한지 22분만에 해안에 근접한 조그마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

한편 청색해안에 상륙하기로 되어 있는 美해병제1연대 상륙단은 제2대대 와 제3대대로서 이들은 LVT로 된 15개파와 LCVP로 된 6개파로 형성되어 있었다.

제1파는 적색해안보다 1분전인 17.32에 청색해안에 상륙하였으며 이들은 상륙해안의 조건이 좋지 않아 출구를 개척하기 위하여 높은 돌뚝을 기어 올랐고, 일부 부대는 염전을 지나 갔다.

美 해병사단은 계획대로 당일 밤까지 좀 늦기는 하였으나 목표를 적으로부터 탈취하고 이를 확보하였는데 상륙군이 D일에 입은 손해는 전사 20명, 부상자 174명, 행방불명 1명이었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약 2,000명의 적이 仁川을 수비하고 있었고, 적 22연대의 예하부대가 15일새벽 仁川으로 증원되기 위해 이동하였으나 그날 밤 서울로 퇴각하였다는 것이었다.

9月 16日 : 이날 아침 06.30에는 2개의 상륙단은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으며 美 해병사단은 적색해안 北쪽에 상륙한 韓國해병대에게 仁川시내의 잔적 섬멸임무를 맡기고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였다.

일찌기 지상군의 공격전진을 돕기 위해 활동을 개시한 美해병항공대는 仁川을 향해 西進 중이던 적의 6대의 T-34 탱크를 공격하여 뒤 따르는 보병과 적 전차를 포격하였으나 우군기 1대는 기총사격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었다.

이날 美 해병사단의 공격부대는 급속히 전진하여 해가 질 무렵에는 이미 해안지역에서 약 9.5km나 되는 내륙에 진출할 수 있었다.

美 해병제1사단은 仁川 東쪽의 고지를 탈취하고 적 포병의 위력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金浦공항을 적으로 부터 쟁취하기가 퍽 용이하게 되었다.

상륙 후 24시간만에 美 해병제1사단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內陸진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美 해병제1사단장인 스미스(Smith)소장은 지휘소를 仁川 東部에 개설한 다음 18.00 드디어 상륙군작전지휘권을 제7합동기동함대로부터 이양받게 되었다.

나. 韓國 海兵隊의 上陸과 仁川市街戰

9月 15日 : 美 해병제5대대 제3대대가 月尾島에 상륙하는 동안 APA 222호(피카웨이)함상에 대기 중이던 韓國 해병대는 예정대로 9.15, 18.00를 기해 美 해병 5연대 상륙단과 같이 적색해안에 상륙을 감행하였다. (작명부록 제98호 행동지시참조)상륙부대는 몇 개의 제대로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한국해병〉

편성 되어 파상(波狀)공격을 감행하였다.

전부대가 상륙 완료하기는 21.30까지 걸렸으나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처음에 상륙한 제1대대는 상륙즉시 仁川제분소 南쪽 작은 고지를 향해 전진하였으나 韓國 해병대는 주로 해안선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해안경계를 겸해 이곳에서 申鉉俊사령관 이하 야영을 하였다. 제一대대의 적 수색작전은 2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적의 그림자는 어둠과 농무 그리고 포연으로 덮여 있어 찾아 보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仁川시가를 경비 중이던 적의 대부분은 이미 퇴각하여 버렸거나 시가 교외의 작은 고지에 잠복한 채 은거하고 있었다. 상륙군이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고 京仁가도로 진출한 다음 仁川시내에 대한 섬멸작전은 韓國 해병대의 임무였다.

상륙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르는 美해병사단장 스미스(Smith) 소장의 작전명령 3-50을 야간에 수령하게 되였다. 이것은 美해병제5연대는 시가의 南部지역을 통과하여 전진하고 이날 시가중심지의 작전은 韓國 해병대가 담당하라는 것이었다.

9月 16日 : 韓國 해병대는 08.00를 기하여 부여된 시가지의 섬멸작전을 시작하였다. 노숙을 한 다음 날인데도 해병대의 사기는 충천하였고 이들은 육군 중에서 선발되어 이 공격적인 작전에 참가함을 오직 영예로 여기고 있었다.

이때 제1대대는 左측 제일선 제3대대는 右측제일선, 그리고 제2대대는 예비였다.

京仁가도를 중심으로 하여 南北으로 나눈 전투지경을 따라 약간의 적의 저항을 받으면서 전진하였다. 06.25초기작전 때 해병대의 첫 출동부대장인 高宮鉉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거의 접적없이 9.16일 11.00시내 54高地일대까지 진출하여 본부본부를 瑞林국민학교에 설치하였다.

南쪽에서부터 전진한 金鴻根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도 담당지역을 탐색하면서 전진하였다. 길가에는 韓國 해병대의 상륙을 반기는 많은 인파가 몰려 들었으며 개중에는 감격과 흥분에 젖은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해병대에게 소녀가 적치하 속에서 입에 젖은 "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제3대대는 잔적 300명을 사살하고 181명의 포로와 무기 다수를 노획하였으며 11.20 시내 54高地의 右측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였다.

예비군인 金鍾洪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본부와 같이 공격부대의 뒤를 이어 전진하여 16.00에 仁川상업학교(현 仁川고등학교)에 도착한 다음 사령부를 설치하고 제3대대

가 그 左翼에 곧 배치되었다. 제3대대는 16日 18.00 다시 진지를 출발하여 京仁가도를 따라 계속 전진하면서 19.30 道禾里에 진출하였다. 또한 제1대대 (高占勳소령) 및 제2대대 (金鍾淇소령)에서도 정찰대를 차출하여 仁川시가 및 교외일대의 탐색과 적정탐지에 노력하였다. 이때에 미처 퇴각치 못한 패잔병은 崇義洞 일대에 잠복하여 富平으로 전진한 우군(美 해병대)의 후방을 교란하였고 일부는 민간인으로 가장하여 仁川에 잠입하려고 하는 것을 정찰대의 활동에 의하여 탐지하게되었다. 제2대대는 이같은 적패잔병의 계략에 대비하고자 仁川시내에 계속 주둔하여 잔적섬멸을 담당하였다.

다. 仁川市政의 부활

9月 16日 : 제3대대(金鍾根소령)와 제1대대는(高占勳소령)계속 전진하여 19. 30분경에 道禾里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는 龍峴洞을 거쳐 朱安까지 잔적을 격멸하면서 전진하는 동안 仁川시가지의 잔적 색출을 계속하던 제2대대도 거의 그 임무를 마쳐 가고 있었다.

仁川시가를 확보한 저녁까지의 美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군의 사상자는 총 222명이었으며 그중 전사자는 24명, 실종자는 2명인데 반하여 적은 300명이 생포되었고 사살된 자는 1,350명에 달하였다.

9月 17日 : D+2일인 11.30에는 孫元一소장(해군참모총장)과 申鉉俊대령(해병대사령관), 그리고 美 해병대 연락장교인 헤그나중령등이 韓國 해병대의 전선을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美 해병제1사단장인 스미스소장은 이미 美 해병사단 CP의 설치를 위해 상륙한 동사단 부사단장인 크레이그준장의 뒤를 이어 육로 설치된 CP에 도착, 제7합동기동함대로부터 이양된 상륙군의 작전지휘에 임하였으며 이는 상륙군사령관의 자격으로 仁川시정을 조속 부활토록하라는 명령을 상부로 부터 받고 있어, 이에 신경이 집중하였다. 당시 仁川시의 상황은 많은 시설이 소실되었거나 포격에 의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교외의 피난처로 부터 계집을 찾아 다시 되돌아 가고 있었다.

韓國 해병대는 숨어 있는 작전을 색출하기 위해 이러한 많은 피난민을 조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표정은 환희에 가득차 있었다.

스미스(Smith)소장은 복귀하는 시민들의권익을 옹호하고 질서를 도모하는 최선의 방법은 심한 관리들을 발굴하여 仁川시청을 부활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결과 孫元一 해군참모총장의 조언을 얻어 전 仁川시장인 崔良文을 시장으로 곧 임명하게 되었다.

9月 18日 : 이날 韓國 국해병 2개분대와 美해병 헌병들이 식장(仁川시청광장)내외를 경비하고 仁川 시민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장 취임식은 거행되었다.

韓國語와 英語로 된 선언문이 낭독된 다음 스미스(Smith)소장의 축사와 그리고 表시장의 취임사에 이어 孫元一해군참모총장의 만세삼창으로 뜻깊은 시장 취임식을 끝마치게 되었다. (1966년 3월 10日 해병대사령부에서 崔昌善 증령 증언)

이로부터 仁川서는 表시장이 시정을 관장(管掌)하는 가운데 우선 仁川상륙작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처리와 고아의 수용, 그리고 난민의 구호에 이어 곧 병원을 설치하고 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지게 되었다.

§ 참전자의 증언

◇해병대의 출항과 仁川상륙

국방부 군수국장 金一煥 준장

(1964년 11월 7일 國防산업 사장실, 예비역 중장)

美 해병대가 마산에 있을 때다. 美해병사단장과 韓國 해병대축에서는 참모장, 군수참모, 작전참모일행이 나를 찾아 와서 釜山 東萊에 있는 東萊閣에서 식사를 하면서 갖어야 할 긴요한 회담이 있다고 준비를 부탁하였다.

참석자는 어느 분들인가고 물었더니 孫元一 참모장, 李龍雲작전참모(당시 대령) 나와 해병대사령관 申鉉俊대령, 美 고문관등 10여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모인 이들과 나는 東萊閣 2층에서 식사겸 간단회의를 열었는데 내용은 韓國 해병대 3개대대를 美軍과 같이 무장시킬 터이니 청구서를 내라는 것이었다. 식사 후 즉시 준비한 청구서를 내었더니 일주일만에 釜山 兵站보급창에서 필요한 장비와 장구가 나와서 우리 측에 인계되었다.



〈상륙작전에 앞서 사격훈련하는 해병대 훈련모습, (50.9.7 포항군고에서)〉

이때 느낀 것은 어떤 큰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수된 장구마다 USMC라는 것이 있기에 대신 KMC라는 마크를 넣어 분배하였다. (USMC는 美 해병, KMC는 韓國 해병의 약자)

이때 완전한 장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치는 못하고 인원에 해당하는 적당한 분량의 총이나 장구를 주었고 당장 급한 작전만은 치를 수 있을 정도였다.

해병대 사령관 申鉉俊 대령

(1970년 6월 23일 자택, 예비역중장)

仁川상륙작전을 위한 회의가 기함에서 소집된 것은 9월 12일경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9월 15일에 仁川에 상륙하였으니까 12일인지 13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2~3일전이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는 시작시에 서명을 하고 일체 회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분들은 대개 美 해병사단의 연대장들과 관계 참모급장교들이었으며 韓國 사람으로서는 나혼자였다.

해병대 제1대대 張大吉 준위

(1965년 2月 23日 鎭海교육단 大領)

나는 당시 美軍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했다. 대대의 병력은 대부분 濟州道출신 학도지원병이었으며 2개중대는 統營작전에 참가한 중대라고 생각된다. 당시 제1대대는 본부와 3개 소총중대 1개의 중화기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장비는 美 해병대에서 지원한 M1, 칼빈, 자동소총이 있었고 소총중대는 60mm 박격포, 중화기중대는 80mm 박격포 그리고 중기가 있었다.

대개의 전투에는 그리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장비였다고 본다. 그러나 통신기의 부족은 대단하여 모든 지휘망은 SCR 300만을 사용하였다. 복장은 美 육군 작업복, 모포 1매, 우의 1매 신발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산농구화도 지급 받았다. 우리들이 탑승한 배는 피카웨이 222호였으며 釜山에서는 美 해병제5연대와 주로 연락을 취했다. 또 美 해병대측에는 헤그나중령이 연락장교로 나왔는데 서울 탈환작전을 끝마치고 仁川에 재 집결할 때까지 줄곧 우리 대대에 있었다.

배에서 우리 해병들이 하선할 때에는 한번도 연습을 한 것이 아닌 데도 사고없이 장교의 지시에 따라 하사관들이 감독하여 훌륭히 진행되었다.

제1대대가 상륙한 것은 LCVP에 의한 것이었으며 합동회의에도 저는 네번 정도 참석하여 상륙공격 화력지원등 제 계획을 美 지휘관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다.

피카웨이선상에는 美 대통령 특사 로우가 처회들에게 소개되었으며 그 통역은 사령부작전참모실에 있었던 朴元錫 준위(지금 韓國 예술영화사장)가 맡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대가 상륙할 때는 우군이 상륙한 후라 적으로 부터의 대단한 위협은 없었으나 가끔 총 소리는 들려 왔다. 그러나 대대가 상륙하자마자 정면에서 적은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왔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그것은 1중대 자동소총 사수의 오발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해병대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

(1965년 9月 1日 토지개량연합회장실, 예비역소장)

주로 해병 3, 4기생으로 편성된 제1대대는 統營에서 8월 31일경 선편으로 鎭海에 집결하였다. 거기에서 또 釜山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육로수송인지 선편수송인지 몰라 부두와 鎭海驛을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다.

이동할 당시 해병대가 元山에 상륙한다, 群山에 상륙한다는등 말이 오고 갔으나 그 당시 진상을 알 길이 없었다.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승선 준비중인 韓國 해병대(釜山 부두에서)〉

9월 10일경, 釜山에 도착하자 곧 3개대대가 편성되었으며 우리는 제1부두에서 LST를 탔다.

배를 타기 전 우리의 장비는 알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으나 여기에서 새로운 장비를 받았고 훈련이라고는 東萊 사격장에서 한 사람 5발씩의 실탄사격을 한 것 뿐이었다.

仁川에서 우리는 별 저항없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해병대 제3대대 제9중대 제2소대장 李弘熙 소위

(1965년 9월 1日 해병사단 G-2 副官部 대령)

상륙전 우리 3대대는 濟州道 모슬포에서 3개월 훈련을 하였다.

나는 대학을 나온 후 입대하여 濟州道에서 임관되어 훈련을 받고 있느라니 洛東江으로 간다는 말이 들려 왔으며 그후 또 釜山에 간다는 말이 나오더니 곧 釜山으로 가게 되었다.

釜山에서 우리는 일체의 장구와 장비를 새로이 받고 있었는데 해리슨(Harrison)고문관이 東萊사격장에서 사격을 한다고 전하였다. 이리하여 釜山에서 우리는 일주일만에 떠났으며 그때 부대식량으로 레이션을 탔다.

우리를 태운 배는 어느덧 남해를 벗어나 망망대해를 항해 중이었으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한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배에서 "仁川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나오라."가 몇번 나간 일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仁川에 가는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仁川에 상륙을 하니 우리 중대가 어디에 있는지 소대가 어디에 있는지 분산되어 알길이 없었다. 간신히 수습된 후 산에서 우리는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였으나 적탄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가전은 11.20 끝났으며 이때 노획물이 많았다. 어떤 소대는 잔적을 완전 소탕하기위해 타 부대가 공격한 데를 다시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해병대 제2대대 제5중대 제2소대장 姜羅求 소위

(1965년 2월 19일 鎭海 海兵여관, 대령)

우리대대는 上南 昌原쪽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鎭海에 집결하고 釜山으로 갔다.

釜山에서 우리는 소지하고 있던 일체 99식 38식

등 장비(폐품)를 모두 반납하고 새로운 무기를 받았다.

저녁 6시경 우리를 태운 배는 출항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밖을 보니 모두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美군에게 물었더니 黃海이라고 이야기했다.

9월 15일 오후 3시경 우리는 제2파로 LCVP를 타고 상륙을 하였는데 그때 북괴 공군기 2대가 날라와서 배 안은 삽시간에 긴장되었다. 美軍 들은 동작이 느린 것 같지만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들은 곧 전투준비에 임했다. 상륙 후 仁川고등학교인가 갔더니 金大植장군(당시중령)이 연락장교로 와 있었다.

거기에 있노라니 여러가지 말이 들려 오는데 紅華島에 적 1개 대대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지원을 했지만 金중령은 1개 소대로서는 상대할 수 없다면서 나의 건의를 들어 주지 않았다. 仁川시가 잔적섬멸 전에서 문제된 것은 사복을 갈아입고 잠복하고 있는 적을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소대원은 용하게도 50~60명씩을 붙들어 수용소로 후송하였다.

해병대 제2대대 5중대
崔昌善 1등병조
(1966년 3월 10일 해병대사령부, 중령)

월미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대기 하였는데 그때 새로운 병기를 받았다. 박격포도 처음 받았고 편성도 美 해병대식으로 1개분대 13명으로 하였다. BAR는 일개 분대에 3정 박격포는 전체에 617문 있어야 하는 것이 모자라서 제대로 받지를 못하였다. 60mm, 81mm 모두 나왔는데 이들 화기에 대한 교육을 위해 곧 美 해병대에서 하사관 교관이 왔다.

훈련사격은 東美사격장에서 하였으며 각 화기마다 교관이 따랐다. 이때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벙어리 시늉으로 통하였다.

지급된 헬멧트에는 韓國 해병대 표시가 붙어서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가공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釜山에서 완전무장을 갖춘 우리는 대대단위로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이것은 국민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가행진은 9월 11일 아침에 있었는데 코스는 제2대대가 釜山역에서 시청 앞을 지나 미공원으로, 1대대는 西쪽으로 대대별 단위로 실시하였다.

釜山항을 출발할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양함 1척, 구축함 두척, APA까지 합쳐 4척뿐이었으나 바다에서 보니 11척으로 늘어나 있었다. 13일 아침에는 또한 48척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출항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13일인가 14일인가 잘 모르겠으나 함내에서 스피카를 통해 로우 특사가 仁川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상륙하면서 2대대는 美 5연대에, 3대대는 제1연대, 1대대는 7연대에 배속되어 우리는 예비대로 상륙을 하였다.

나는 月尾島로 상륙하였는데 이때 다른 부대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

仁川에 들어가서는 東仁川에 위치하는 빨간 벽돌 건물인 仁川여고에서 진을 치고 仁川시내의 잔적을 섬멸하는 일을 하였다.

◇해병대의 仁川상륙과 차후 전투

해병대 제3대대 12중대
秦文燮 2등수병
(1965년 4월 14일3연대본부, 상사)

八尾島에서 바라보는 仁川시가는 전부 불꽃으로 덮여 있었다. 9월15일 아침 우리가 상륙하였

을 때는 벌써 전진한 부대가 있었다.

상륙 시에는 부슬비가 내렸으며 거리에는 차가 불에 탄 것이 있었고 실탄도 부려 놓은 것이 있었다. 우리중대는 萬石洞으로부터 화수동을 거쳐 松林洞으로 전진하였으나 인민군과 직접 교전한 것은 없고 주로 수색이었다.

해병대 제3대대 柳在哲 견습수병

(1965년 4월 14일 3연대본부 상사)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이 한강안 때 날자는 확실치 않으나 13.00 아니면 14.00경 LCVP를 탔다, 그 다음 우리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19.00경에야 상륙을 하였다. 분대장 지시에 따라 개인거리 5보를 확보하고 전진하였는데 개인호속에는 2~3명의 괴뢰군 시체가 있었다. 폭격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仁川 지리는 어둠 때문에 어디가 어딘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호를 파고 개인 천막을 그 밑에 깔고 하루를 지냈다.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1소대 鄭炳潤 1등병조

(1965년 4월 19일 해병제1여단, 준위)

나는 제3대대 제9중대 제3소대 선임하사관을 맡고 있었다. 9월 15일 저희 제3대대는 제2차로 상륙하였다. 다음 날 시가전에 있어서는 美 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우리는 16일 07.00시경 기상대에서 美軍과 교대했는데 기상대에는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어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도 올라가 태극기를 게양했다.

게양한 곳은 기상대 안테나 같은 곳이었는데 올라 가려니 총소리가 들려 왔다. 기상대옆에 仁川중학교가 있었는데 적은 여기에서 나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적이 저격하더라도 이왕 마음 먹은 것이니 그냥 내려올 수야 있느냐?"는 소대장 許弘 소위의 평소의 지침이 생각이 나서 비상한 생각을 하고 적탄이 날아오는 가운데도 용기를 얻어 드디어 태극기를 게양하고야 말았다.

시가전을 끝내고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괴뢰군이 美軍과 같이 상륙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분대에 태극기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1소대장 陸東旭 소위

(1965년 2월 鎭海士南 훈련대, 대령)

원래 비행을 기해 상륙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수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차질이 생겨 우리의 상륙이 7~8시간 늦었다. 상륙 후 가랑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서 계속 진격을 하지 못하고 해안선 500~600m정도에서 밤을 보냈다.

야간에 美 해병대원과 암호문제로 자주 시비가 일어 났으며 소대장 자신이 암호를 받지 않았으나 합동작전에 대로가 많았다. 이것은 나 자신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암호를 받은 기억은 없다. 암호소통이 안 되자 밤 중 美 해병대소대장이 찾아 와서 "어느나라 군대냐?"고 하기에 "너희하고 피커웨이 222호를 타고 온 韓國 해병대"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가 버렸다.

仁川상륙 후 우리 소대는 많은 포로를 얻었는데 그 대부분이 고향이 서울인 의용군들이었다.

해병대 제3대대 제9중대 3소대 池永祚 1등수병

(1966년 3월 9일 해병대사령부 상사)

京仁지구에서 싸울 때는 美軍과 韓國軍이 혼성되어 전투 단위를 이루었기 때문에 분대장도 美軍과 韓國軍 2명이 있는 격이 되었으며 소대장도 마찬가지로 美軍소대장과 韓國 해병대 소대장이 있어 같이 협동하였다.

2. 京仁街道의 進擊作戰 (50년 9월 16일부터 / 50년 9월 2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3, 34호
작명부록 제 100 호

가. 富平지구의 전투 (상황도 제35호참조)

9월 16일 : 美 해병대의 돌격부대는 仁川—서울 가도를 중심으로, 제1연대(연대장 Puller 대령)는 가도 남쪽을 제5연대(연대장 Murray대령)는 가도 북쪽지역을 할당받아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상륙군의 돌격연대는 D일에는 해안조건으로 중장비 양륙이 늦어 포병과 전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주로 함포와 항공기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으나 다행히도 이때 적의 저항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다.

이날 밤 美 해병제 5연대와 제1연대는 富平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에 진출하여 富平 지역의 서방 京仁가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美 해병제 5연대 제2대대는 적의 반격이 곧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서울쪽 전방에서 적의 트럭 1대가 美 해병제 2 대대가 포진한 진지부근을 통과하려 한 것이다. 진지작업을 하고 있던 美병사들은 이 추럭을 우군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상륙선착으로 전선에 달려 온 전차병들이 호기심으로 정지시켰을때 이 추럭에는 적군이 타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타고 있던 북괴군 장교 1명과 10명의 병사는 곧 생포되었는데 적도 자기네 군사들의 점령 위치를 모르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우리 상륙군이 교두보선을 넘어 부평방면으로 진격하려면 몇 차례에 걸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던 美 해병 제5연대 2대대장 로이스(Roise)중령은 전위중대인 D중대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주)

9월 17일 : 京仁가도의 오른쪽 186高地에는 F중대가 배치되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부평의 동쪽 도로상에 적 전차 6대와 이를 따르는 200여명의 보병들이 서쪽으로 진격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적들은 美 해병대의 진지를 알지 못하였음인지 전차 위에서 식사를 하거나 보행 중에 떠들거나 웃는 자까지 있었다. 이 사실

을 최전방에 진출하였던 제2대대 제2소대장 호워드소위가 즉각 중대장 로이스중령에게 보고하였는데 호워드소위는 적이 화망 안으로 들어 왔을 때 일시에 집중사격을 퍼붓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화기도 여기에 합세하였기 때문에 적의 전차와 보병은 삽시간에 혼란되어 6대의 전차와 200명의 적병이 전차와 무반동총의 일제공격으로 전멸되었으며 아군의 피해는 경상자 1명 뿐이었다. 이렇게 거의 피해없이 적의 반격을 사전에 제압한 美 해



<스미스 美 해병 제1사단장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는 맥아더사령관>

병대의 전위인 제2대대는 기갑부대의 엄호 아래 급속히 전진하여 17일 오후에는 벌써 富平을 지나 金浦비행장 西쪽 7km의 曉星洞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美 해병제5연대의 제2대대(대대장 로이스중령) 후방에 포진하고 있던 韓國 해병대의 제1대대(高昌勳소령)는 그 뒤를 따라 전진하였는데 美 해병 선두대대가 金浦비행장을 향해 신속히 전진하고 있을 때 美 해병 제5연대(연대장 Murray대령)에 배속된 韓國 해병대의 제3대대(대대장 金燉根소령)는 04.00 道禾里를 출발하여 동이 트는 06.00에는 그 선두부

대가 이미 부평역 西南고지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돌연히 富平역 西北高地로 부터 적 전차 4대를 앞 세운 적 병력 1개대대가 韓國 해병대를 공격해 왔다.

전차는 대전차포를 갖고 있는 美 해병제1대대가 파괴하고 韓國 해병제3대대는 적 보병을 섬멸하게 되었다.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은 직접 각 중대에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직접 담당한 중대는 黃泳 중위가 지휘하는 제9중대였다. 적은 의외의 강적이어서 완강히 저항하였고 韓國 해병대는 이 때문에 한 때 고전하였으나 美 해병대와의 협공으로 마침내 이적을 완전히 격멸하고 말았다.

이 당시 제9중대 제2소대장이었던 李弘熙소위는 이 전투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는 뒤에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보병이 섬멸되기도 전에 우리 韓國 해병대는 타오르는 적의 전차에 뛰어 올라 전차병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뺏어 들고 환성을 올렸으며 이를 목격한 美 해병대원은 적병이 언제 아군에게 사격을 가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이처럼 韓 해병대의 용감성에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는 것이다. 韓國 해병대는 이곳에서 美軍으로부터 노획하여 사용 중이던 야포와 박격포 경기관총과 실탄 약 2,000통을 다시 찾아내는 전과를 올렸다.

적은 육상에서 반격할 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함정이 집결해 있는 仁川앞 해상에 야크(Yak)전투기 2대가 출현하여 순양함 로체스터(Rochester)호와 자마이카(Jamaica)호를 폭격하고 약간의 피해를 함정에 입힌 뒤 그중 1대가 아군 대공포화에 격추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경과로 富平에서의 전투는 아군 일방의 승전으로 끝나 버렸다. 적의 반격을 분쇄하게 된 연합군의 사기는 왕성하였다. E중대를 선두로 진격을 계속하면 美 해병 제2대대가 仁川-서울가도에서 좌측으로 교부라져 金浦로 행하는 도로로 접어든 것은 이날 09.00경이 었으며 선두중대는 패잔병의 산발한 저항 때문에 14.00경에야 목표를 향하여 진격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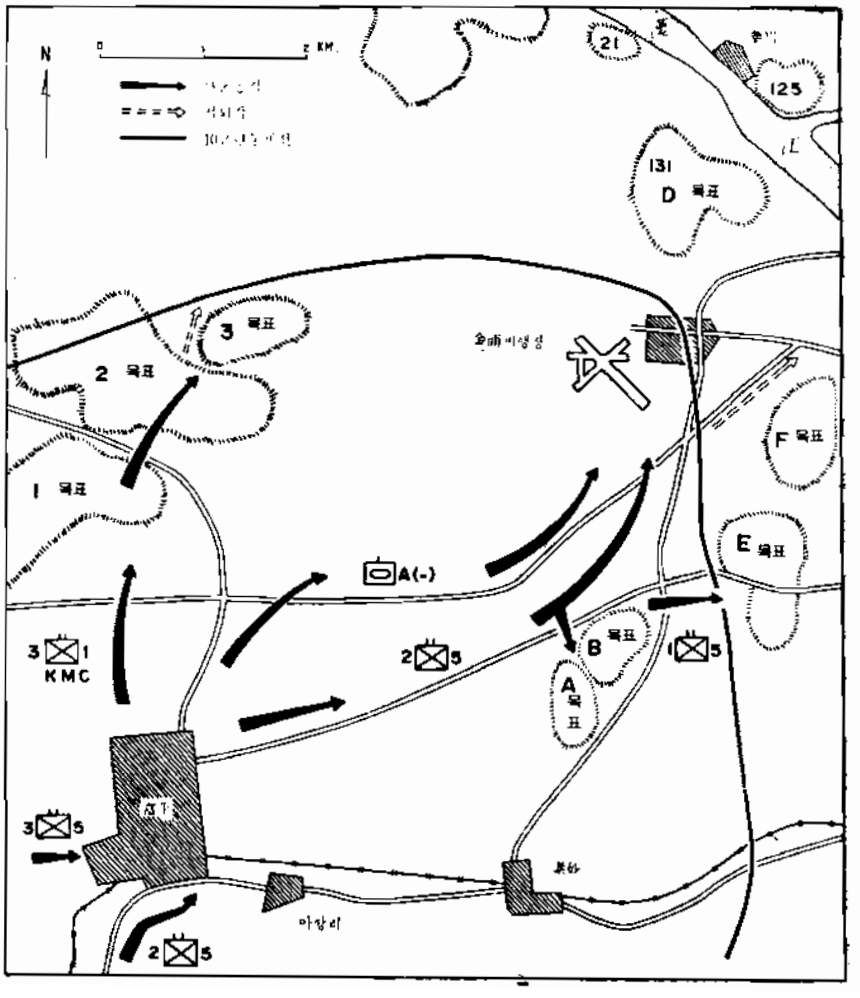
(주) D중대의 스미스중대장은 17일 새벽에 그의 제2소대를 기관총과 로켓트포로 보강하여 최전방에 배치하는 한편 제2선에는 전차와 3.5인치로켓트포 및 75mm 무반동총을 배치시켰다.

나. 金浦공항 탈환전투(상황도 제35호 참조)

9월 17일 : 金浦공항에는 북괴군 제226연대 제107연대와 제877항공대 소속의 약 400여명의 적이 무기력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金浦공항을 탈환 하기 위한 공격은 이날 급진전

을 보게 되었으며 도로의 좌측과 우측을 따라서 제2대대(Roise중령)와 제1대대가 진격하여 金浦비행장 北西쪽의 도로교차점을 北西으로 구브러진 활모양의 몇개의 高地를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다.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오른 쪽 교차로 틈새에 끼어 있는 연대 목표 A와 B를 손실없이 점령한 美 해병제2대대는 오후 늦게 비행장의 南단 1000m까지 접근하였다. 공격중대인 D중대 스미스대위의 한 소대는 적의 소화기 공격을 받았지만 전차포는 굴이를 제압하고 계속 전진하여 18.00에는 비행장 주활주로의 南단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비행장의 외각 포위를 위하여 E중대는 東쪽(오른쪽), D중대는 西쪽(왼쪽)

상황도 제34호 韓國 해병대 및 美 해병제5연대의 김포진출(50.9.17)



F중대와 대대본부는 南쪽과 도로를 그 포위선으로 하여 일제히 포위권을 압축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전차는 D중대 지역에서 직접 지원하였다.

한편 연대의 오른 쪽을 담당하여 공격하던 제1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비행장 東南쪽의 연대목표인 E高地를 점령한 다음, 야간 중 제2대대 진지 1,500m 東南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부대를 배치하였다.

제3대대(Taplett중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김포와 富平 중간에 포진하였으며 연대본부는 富平역 北방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 아직도 잠복한 패잔병으로 인하여 약간의 소란을 이르키기도 하였다. 즉 이날 엄중한 경계를 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중 적의 장교1명과 사병1명이 본부에 잠입하여 이 때문에 잠시 소동을 벌리기도 한 것이다.

아군의 공격을 받은 金浦지구의 적은 거의 훈련을 받지 못한 신편된 부대들이었다. 미 해병대가 金浦로 진격하였을 때 당황한 북괴군 제107연대장 대좌 한치한은 급히 한강을 넘어 도주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400여명으로 구성된 적 제877항공대의 지휘관이었던 소좌 소궁진은 이 날의 전투에서 사살되어 이 부대에서 살아 남은 적은 겨우 5명뿐이었다.

17일 밤이 가기 전까지 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기습을 감행하여 왔으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아군에 의하여 여지없이 전멸되어 버렸다. 이 당시 비행장 東北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던 E중대가 주로 이들의 야습을 분쇄하였는데 F중대도 전초가 배치되어 있던 도로에 연하여 기습하여 오는 적 1개소대를 즉시 격멸하였다.

9월 18일 : 날이 새고 지상 작축이 가능하게 되자 반격 준비를 위해 집결하여 있던 적부대의 이동을 알아 차리게 된 제1대대가 이를 포착하는 즉시 곧 아로와 박격포의 포문을 열어 이를 모조리 분쇄시키고 말았는데 대대장 유돈중령은 C중대로 하여금 이것을 협공하여 패주하는 적을 거의 빠짐없이 섬멸하고 말았다.

金浦공항은 08.00는 이미 우리 쪽에서 확보하게 되었는데 길이 6,000피트 폭150피트 12만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활주로가 있는 金浦공항은 D+3일인 상륙 제4일째의 공격목표였던 것이다. 이는 서울 공격을 위한 공군력을 전개하는데 있어 매우 큰 역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적의 세력을 와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군의 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비행장이 확보되자 공격부대는 북쪽으로 계속 공격하여 131高地인 연대 D목표를 11.45에 점령하였다. 이 고지는 漢江을 잘 내

며 다 볼 수 있었으며 오른 쪽의 제1대대(뉴톤중령)도 공항 동북방의 목표인 F인 99高地를 탈취한 다음 漢江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완전히 확보된 金浦비행장에는 이날 10.00 「VMO-6」(美 해병제6비행관측대대)의 헬리콥터 1대가 6월이후 처음으로 이 비행장에 착륙하였는데 이 비행기에는 태평양함대 해병대 사령관인 세퍼드중장이 전선을 시찰하기 위하여 동승하고 있었다.

오후 14.09에는 일본에 있는 美 해병제33비행단 MAG-33 예하부대가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C-54수송기와 기타의 비행기가 도착하여 20일부터는 金浦공항이 착륙기지로서 사용되기에 이르러 모든 항공기가 여기에서 첫 출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新里와 金浦부근의 전투

9월 18일 : 美 해병제5연대(Murray대령)와 같이 仁川시가 전투를 끝마친 韓國 해병대는 京仁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富平을 점령한 다음 계속 패주하는 적을 격멸하였다. 이날 해병대 사령부는 前富平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때 美 해병대 일부는 院仙里를 경유하여 漢江변에 있는 井谷里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상륙부대가 서울탈환을 목표로 京仁가도를 진격함에 따라 패잔병이 측면으로 도주하였음으로 金浦반도 쪽은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金浦비행장에 대한 엄호를 위하여 金浦지구 일대의 차단과 탕어를 위해 작전섬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漢江도하 작전준비로 여념이 없는 韓國 해병대의 金浦臨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9월 18일에 美 해병제5연대로 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독립적으로 金浦와 富平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잔적을 색출 복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제3대대는 당일로 기동하여 17.00에는 朴村里까지 진출하였다. 같은 날 인접부대로 있던 高吉鎭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連喜里를 거쳐 井谷里로 진출하고 있었고, 仁川에 주둔하면서 계속 仁川시의 잔적색출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제2대대는 뒤 늦게 상륙한 美 제2공병단에게 仁川의 경비임무를 인계한 다음 07.00부터 주력은 진격을 시작하여 15.00에는 이미 富平에 진출하여 美 해병제5연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9월 19일 : 金浦반도 쪽에는 약 2개대대의 적 병력과 富平지구에서 퇴각하여 온 잔적들이 합류되어 그 일부의 적이 漢江을 넘어간 반면 남어지 병력 약 500명은 부대를 재편성

하여 다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것은 아군이 漢江을 도하하여 서울 西北방에 있는 汶山가도로 진격하게 되면 그들의 퇴로가 막히고 서울은 마치 독안에 든 쥐 같이 고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金浦 지구의 패잔병으로 하여금 新里(金浦비행장 西北방 약 8km지점)를 거점삼아 韓國 해병대의 진격을 끝까지 막아 보려고 한 것이었다.

제3대대는 金浦지역의 잔적섬멸을 위하여 金浦水路 제방北西쪽의 넓은 지역을 목표로 우선 일차적으로 富平—金浦읍간 지역을 탐색 복멸한 다음 제2단계로 金浦읍 이북지역에서 江華島까지 평정키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9월 20일 : 舊富平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제3대대가 金浦반도의 잔적섬멸작전을 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정보와 적의 동태를 탐지하기 위하여 정보참모부 예하에 있던 첩보부대 70명을 우선 富平과 江華島에 이르는 지역에 출동 시켰다.

吳世東대위가 지휘하는 첩보부대는 이날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金浦읍을 중심으로 깊숙히 잠입하게 되었고 본부를 金浦읍 안에 있던 우체국 건너 편에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첩보부대는 잔적을 섬멸하면서 적정을 살피던 중 갑자기 약 150명으로 추산되는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습으로 말미암아 아군은 첩보부대장을 비롯하여 4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고 부대 일부는 朴村里의 제3대대본부로 급보를 전하게 되었다.

제3대대는 남아 있는 첩보부대를 구출하고 잔적섬멸을 계속하기 위하여 朴村里를 출발하고 해질 무렵에는 金浦읍 南方에 위치한 157高地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때마침 주민이 제공한 정보로 적은 新里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金浦비행장을 탈취하여 漢江을 도하한 약 1개대대의 병력이 재편성되어 역습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3대대는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적이 집결하고 있는 新里일대에 81mm와 60mm 박격포의 일제 사격을 가하여 2개중대로 포위를 하는 동시에 제9중대로써 적진에 돌격케하여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적은 때 마침 아침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불의에 박격포 세례와 해병들의 과감한 육박전에 몰리는바 되어 문자그대로 혼비백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적 120명을 사로 잡았으며 저항하는 많은 적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적은 죽엄을 무릅쓰고 金浦와 漢江쪽으로 제각기 흩어져 도망하였는데

이들마저 우리측 공군기의 출격으로 그 대부분이 섬멸되고야 말았다.

한편 소총중대에서 新里일대에 집결한 적을 섬멸하자 대대본부는 金浦읍 가까이로 전진하고 鄭重鐵중위가 인솔하는 제12중대(화기중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金浦시가의 잔적복멸작전을 전개 하였다. 적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돌판의 무성한 버포기 사이와 촌락안에 은신하면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채 살아 남기 위한 최후 저항으로 쥐 구멍만을 찾고 있었다. 이와 같이 金浦시가전이 전개되자 처음에 적은 사격으로서만 저항하였으나 그 사격이 산발적으로 점차 그 기세가 누그러지게 됨에 따라 즉시 시가안으로 돌입한 해병들은 적을 무대기로 생포하거나 발악하는 적을 사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新里에서 잡은 포로를 제외하드라도 제3대대는 이곳에서 180명에 가까운 적병을 포로로 하였다.

제12중대는 金浦 시가전 중 어느 지하실에서 작전지휘를 하고 있던 적 지휘관(대좌)을 사로 잡았는데 중대장 鄭重鐵중위가 이 포로를 심문 중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탁상 위에 무심코 놓았던 카빙총을 이 포로가 뺏는 바 되어 鄭중위는 이 포로에 의해 억울하게도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야말로 포로취급상 방심에서 오는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었다.

9월 21일 : 이날까지에는 金浦반도 제1단계 섬멸전을 일단 끝 마치게 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적의 주력부대도 거의 섬멸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제3대대는 곧 제2단계 작전에 착수하고 金浦읍 이북과 漢江연안지역 및 江華島까지 평정과 잔적을 섬멸하게 되었다.

金潤根 대대장은 대대본부를 文珠山 남방에 있는 通津국민학교에 옮기고 文珠山과 城東里부근 그리고 漢江하류 일대에 멸혀 수색전을 전개한 결과 숨어 있던 패잔병을 사로 잡거나 또는 사살하여 서울탈환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金浦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치안의 확립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때 江華島에서는 소수의 적이 남아 있어 지방적색분자들과 같이 호응하면서 무고(無辜)한 양민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던 까닭으로 대대장은 양민들의 안녕을 위해 어려운 중에서도 陸軍본소위 지휘 하에 11중대 1소대를 江華읍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陸소위는 소대를 이끌고 민간법선을 이용하여 江華島에 도착하였으며 이들은 인근 고지에 박격포사격을 가하므로써 국군의 진주한 사실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아직도 숨어 있을 적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 소대는 진주를 반겨 환호하는 도민들에게 선무공작을 아울러 실시하고 이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치안대업무를 지도한 다음 당일로 원대로 복귀하였다. 이 다음부터 강화도는 첩보부대 요원이 간간이 출입하면서 적색

분자들의 활동을 적발 분쇄하였을 뿐 별다른 치안상의 괴로운 일은 없게 되었다.

라. 素砂부근의 전투(상황도 제36호 참조)

9월 17일 :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의 일부가 金浦로 향하는 동안 펄러(Lewis. B. Puller)대령이 지휘하는 美 해병제1연대는 서울 가도를 연하여 영등포로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좌우로 갈라진 양 연대의 전투지경선에 따라 머레이(Murray)대령이 지휘하는 美 해병제5연대는 金浦공항지역을 담당하고 美 해병제1연대는 韓國의 공업지대인 永登浦로 향하는 도로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투지경선을 따라 소사를 공격하는데는 다소의 고전이 수반되었으나 美 해병제1연대는 일로 소사와 永登浦를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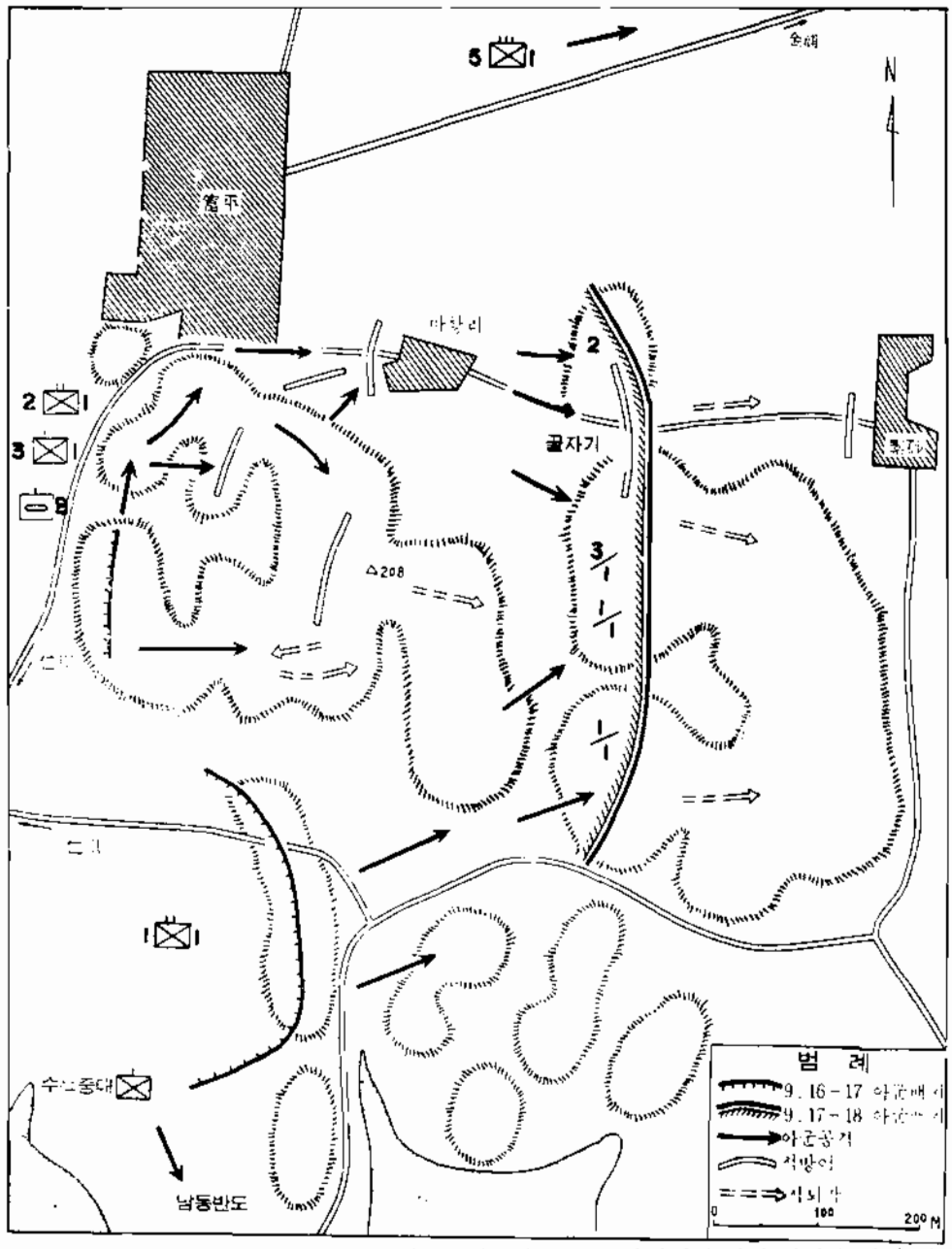
美 해병제1연대는 일익 증강하는 적의 저항을 단독으로 물리치면서 仁川—서울 간을 연하는 국도를 따라 진격을 계속하여 이날 아침 선두의 기갑돌격대는 적 전차 4대를 삽시간에 격파하고 계속 전진하였다. 도로 오른 쪽의 고지를 공격하던 美 해병제1연대 1대대(Sutter중령)의 D중대는 고지에서 적 1개중대 병력의 반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적의 이러한 역습기도를 F중대가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곧 D중대에 알리게 되었으므로 D중대는 즉시 박격포를 집중 발사하여 이를 일단 격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퇴각하는 적은 처음과는 달리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였다.

오른 쪽에서 공격하던 韓國해병대 제1대대와 왼쪽에서 공격하던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208高地와 그 주변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으나 美 해병제11연대의 포지원을 받으면서 꾸준히 진격을 계속하여 정오경에는 드디어 208高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 공격에서 E중대의 1개소대는 3면으로 부터 적의 협공을 받아 한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였으나 증원된 부대와 지원사격으로 말미암아 적 20명을 사살하고 계속 진격할 수가 있었다.

이 때에 도로를 따라 전진하던 E중대는 마분리로 진출하여 16.00경에 이를 점령하였고 韓國 해병대제3대대와 美 해병제1연대 제3대대는 이를 지원하는 우군 전차와 같이 위장된 적의 전차 1대를 격파하고 말았다. 이로써 美 해병제1연대는 富平에서 3,000m 지점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적은 아군의 기세당당한 진격에도 불구하고 지세적인 도움을 얻어 素砂에서 2.5km 서쪽이고 부평에서 2.5km 동쪽에 위치한 골짜기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이미 구축한듯 하였

상황도 제35호 美 해병 제1연대의 공격(50. 9.16~18)



으므로 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던 美 해병 제1연대는 이 곳짜기에서 적의 반격을 받게 되었는데 설상 가상으로 전진하던 우군 전차가 고장이 나서 정지하게 되자 적병이 수류탄을 전차에 던지는 등의 저항으로 와외되고 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고전 끝에 美 해병제1

연대 제3대대의 G중대는 도로 우측의 고지를 공격 점령하였고 도로좌측에서 공격하던 동연대 제2대대도 목표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南쪽을 경계하면서 공격, 전진한 제1대대와 美 해병사단 수색중대는 4km를 진격하여 동 제1연대 제1대대(Allan Sutter중령)는 동사단 제1연대 제3대대의 南쪽고지를 점령하고 사단수색대는 동사단 제1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오른쪽 지역를 각각 점령하였다.

공격부대가 전진하기 시작한 이날 야간에는 美해병제1연대 제3대대장 (Ridge중령)의 요청으로 HMS Kenya호가 주로 素砂와 123高地를 교란하기 위해 밤새도록 간단 없이 300발의 포탄을 이 지역에 퍼부었다.

9월 18일 :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이날 아침 도로의 좌(E중대)측과 우(D중대)측을 병행 공격하면서 전진하였는데 이때 아군포격에 착오가 생겨 우군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하는 일이 있어 잠시나마 전진에 지장을 주었다.

美 해병제1연대 제3대대의 한 중대는 수륙양용차량과 궤차로 동연대 제2대대를 추월 공격하여 정오에는 이미 소사에 진입하고 이어 계속전진하여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시가지를 통과한 다음 철로 우측에 방어진을 점령하였다. 素砂 1.5km밖의 철로 좌측에 있는 123高地를 동연대 제3대대가 점령할 무렵 美 해병사단의 우일선 대대인 동연대 제1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4km전방으로 진출하였다.

이 작전에서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전사자 1명과 부상자 28명을 내었고, 동제3대대도 6명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으나 반면에 250명의 적을 사살하고 70명의 포로와 전차를 포함한 많은 장비와 전쟁물자를 노획하였다.

9월 19일 : 소사를 점령한 美 해병제1연대는 이날 123高地와 남쪽으로 158高地—82고지능선을 이어 그 아래의 작은 도로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14.00이후부터의 적의 저항은 점차로 가열되어 동연대 제3대대가 장악하고 있는 123高地에는 적의 120mm 박격포탄이 집중하기 시작하여 1시간동안에 3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동연대 제1대대도 기습을 받아 14명을 잃게 되었다.

이때 적의 상황을 살펴 본다면 UN군의 기습적인 [illegible]상륙으로 당황한 북괴는 새로이 민족보위상인 崔庸健을 서울 방위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지금까지의 패배를 만회하여 보려고 가진 애를 쓰게 되었다.

즉 적은 이 패배를 만회키 위하여 약 1개연대의 병력을 素砂와 永登浦 방면에 집결시

키고 있음이 포로의 진술과 항공정찰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근처의 金浦공항 건너 편에도 적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졌으며 南北方에서 전차와 차량 그리고 병력이 서울과 永登浦에 증원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군은 전선의 우익지역이 무엇보다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 永登浦의 전투(第一次)(상황도 제37호 참조)

9월 19일 : 점차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소장은 상륙기동부대(해군측 92.99.79)의 도일(Doyle) 提督과 협의 아래 20일에 예정되었던 美 보병제7사단(David G. Barr소장)의 상륙을 앞 당겨 명령하였다.

그간 仁川항에서는 말썽스러운 조수관계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양륙 작업이 강행되어 18일까지 美 보병제7사단의 제32연대(Beauchamp대령)를 포함한 25,606명의 인원과 4,547대의 차량, 그리고 14,166톤의 화물을 양륙하는데 성공하므로써 크게 상륙군작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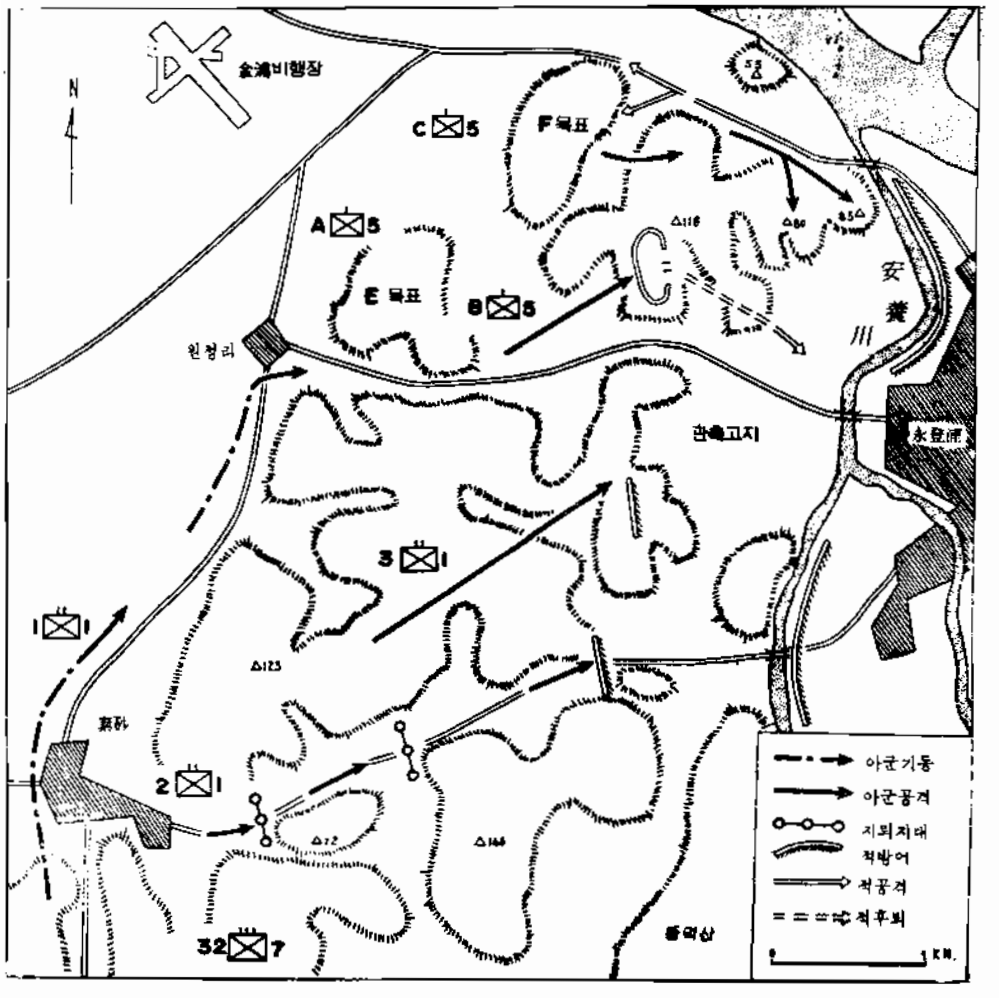
17일 저녁 仁川에 상륙한 美 육군제7사단의 제32연대는 이날 전선에 투입되어 상륙군의 최우익인 美 해병제1연대의 제1대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이날 素砂를 통과한 美 해병제1연대의 제3대대는 素砂永登浦간의 도로의 좌측 123高地에서 갑제(瞰制)지인 138高地를 공격하였고 동연대 제2대대는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강행하고 있었다. 10.30 공격을 개시한 美 해병제1연대는 완강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저녁에야 137高地를 점령할 수 있었다. 같은 날 美 해병제5연대의 제1대대는 연대 목표인 E.F고지 동쪽의 118高地와 80 및 85高地를 공격하는 동안 적의 반격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00에 117高地를 점령하고 좌측된 80高地일대와 鐵道橋 부근의 적을 항공공격과 포사격으로 격퇴시켰다. 이때 F高地의 우군을 공격하던 적은 또 다른 우군이 117高地로 진출하게 되므로써 완전포위망에 빠지게 되어 전멸을 면치 못하였다. 16.50에 80 및 85高地를 점령한 동연대 제1대대는 이 고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美 해병제1사단은 저녁까지는 素砂—永登浦간 도로의 北쪽 漢江연안의 전고지대를 완전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美 해병제1연대의 永登浦 진입은 아직까지도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

삼황도 제36호 美 해병제1연대의 永登浦공격(1차)(50. 9. 19)



은 몇가지 점을 고려할 때 적의 최후발악적인 저항이 있을 공산이 컸기 때문이었다.

韓國 西海의 요지인 仁川에 UN군이 기습 상륙을 강행하여 수도 서울을 향해 내륙으로 거센 진격을 감행하여오는데 크게 당황하게 된 적은 전략상의 견지에서 수도방위를 위하여서는 먼저 永登浦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인지 이 방면의 수비작전에 주력하는듯 하였다. 원래 永登浦는 洛東江방어선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상실한다면 적의 주보급로가 곧 차단될 것이며 주요한 산업도시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방어를 위한 배수(背水)의 진(陣)이라는 등이 그들이 서울방어를 위한 전략

상 요지로 간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적 어느 지휘관이 말했듯이 "만약 永登浦가 함락되면 그 즉시로 서울도 또한 함락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永登浦방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적 제18사단의 1개연대로써 永登浦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무나도 당연 적의 전략적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는 곧 커다란 패배를 자초하는 오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永登浦는 전술적으로 부적당한 곳이었으며 또한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투요원의 사기가 떨어져서 물심양면으로 우세한 우군쪽을 따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永登浦 방어를 위한 약간의 물자를 겨우 보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군의 노도 같은 진격을 막는데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아군의 공격을 다소라도 방해하는 요인이 된 것은 적이 永登浦를 사수하려는 결심 그것 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永登浦진격을 담당한 美 해병제1연대는 金浦방면으로 공격한 美 해병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보다는 고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素砂를 벗어나 京仁가도를 따라 공격하던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500m도 못가서 적의 지뢰지대에 걸려 선두의 전차가 정지되었으며 F중대는 우측방 72高地로부터 적의 심한 사격을 받아 다른 전차들이 이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른 지점에서도 지뢰가 매설되어 전차의 전진이 지연되었다. 이리하여 배속된 공병소대의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되고 제2대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는 지뢰지대를 돌파 계속전진하던 중 이번에는 도로 우측의 146高地의 적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 고지는 원래 美 보병제32연대가 담당할 지역이었으나 이 때까지도 이 지역을 32연대가 점령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의 D중대가 이 고지를 직접 공격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70m의 폭을 가진 지뢰지대를 돌파하고서 17.30에 이를 점령하고 명에 의하여 곧 이 고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때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동 제3대대(Ridge중령)와 1.6km 떨어진 北側 쪽에 있었으며 E. D. F중대는 L자형으로 배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까지도 美 해병 제1연대의 우측은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美 육군제7사단장 바(Barr)장군이 그의 예하부대에게 20일 오전까지도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美 해병제1연대의 제1대대(Allan Sutter중령)는 이날 美 해병 제5연대의 제1대대(Newton중령)가 위치한 117高地와 80 및 85고지에서 서로 진지를 교대하기 위하여 素砂와 그 북쪽의 道案里를 경유하여 진격을 하였는데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118高地는

선두인 A중대가 인수하고 C중대는 어두워 지형지물을 분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할당된 진지를 인수 못하고 A중대 진지에 같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작전을 서두르게 된 美 해병제5연대의 제1대대(Newton중령)는 교대를 위한 1연대병력이 도착하지 않으므로 기다리다 못해 다음 임무를 위해 이미 21.00 80 및 85高地를 비운 채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美 해병제1연대 제1대대가 동5연대 제1대대 진지를 완전 인수하기도 전에 적은 반격을 시도하고 이날 새벽을 기하여 80 및 85高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우군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이를 손쉽게 점령하고 계속 117高地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117高地의 A.C중대는 항공근접 지원을 받아 쉽게 이를 격퇴하고 말았다. 여기서 美 해병제1연대의 제1대대는 재차 80 및 85高地를 공격하여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전투는 매우고전이 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보전협동으로 편성된 적의 대규모 역습부대가 04.00시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 지역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며 이들은 우군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04.30우군진지를 지나 중심으로 배치된 E중대 전면까지 들어 왔으니 이는 제발로 우군 포위망에 뛰어든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들은 아군포화의 집중적인 세례를 받게 되어 지리멸렬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탄약은 스스로 폭발되어 불꽃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이렇게 하여 새벽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서 적은 300여명의 시체를 남기게 되었으며 파괴되지 않은 적의 전차를 노획하는 외에도 도로와 진지는 불탄 차량과 전차, 그리고 흐터진 각종 장비로 문자 그대로의 격전장의 처량한 광경을 보여주게 되었다.

美 해병제1연대가 이렇게 제한된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美 보병제32연대는 그들의 임무를 위해 진격할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美 해병제1연대 우측에 투입된 美 보병제32연대의 임무는 永登浦 道方의 南德山(△182)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美 해병제1연대가 목표高地(△ 80 및 △ 85)를 점령하고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美 보병 제32연대도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韓國 육군제17연대와 美 육군제7사단의 잔여부대들이 18일 모두 상륙하여 19일에 그들이 전선에 참가하였을 당시 永登浦를 공격하는 우군의 총병력은 韓國 육군제17연대의 1,873명을 포함하여 도합 5.114명이었다. 전선에 참가한 美 육군제7사단은 京仁가도의 南쪽지역인 美 해병제1연대의 우측외곽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仁川에 제일 늦게 상륙한 동사단 제31연대는 南쪽 水原을 向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 교 훈

◇ 해병대의 鄭重鐵중위의 죽음

투항한 적지휘관을 심문하다 방심한 탓으로 도리어 포로에게 사살된 鄭重鐵중위의 죽음은 포로 취급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다.

仁川에 상륙한 아 해병대가 패주하는 적을 쫓아 金浦半島로 진격할 당시 정중위는 金浦邑에서 아군정보대를 습격한 적을 공격하고 적의 지휘관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金浦邑 부근의 적을 완전 섬멸하고 포로로 잡은 적의 지휘관을 심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鄭重鐵중위는 비록 적이기는 하나 동족이라는 점과 적 간부였다는 점에서 포로심문 원칙을 무시한 여유(?)를 하며 심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鄭中尉의 인간적인 변축심을 알리 만무한 적은 책상 옆에 놓여 있던 鄭중위의 소지 무기인 칼빈을 빼앗아 鄭中尉를 사살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여기서 이 광경을 목격한 전령이 재빨리 적을 사살하였지만 순간에 일어난 鄭重鐵중위의 희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오로지 적을 알지 못한데서 일어난 중대한 과오가 아닐수 없으며 더우기 공산당세뇌에 머리가 굳어진 적의 간부라는 점에서 심중에 심중을 기하여 심문해서야 옳았을 것이다.

성한 다리(橋)도 두들겨 건느라는 우리의 속담은 비단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참전자의 증언

◇ 富平부근의 전투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1소대장

陸東旭 소위

(1965년 2월 鎭海上南훈련대 대령)

仁川에서 작전 섬멸작전을 수행할 때 기상대인데나 꼭대기에 올라 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게양한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가 당일 富平까지 들어가는 동안 1개 분대는 30~40명씩의 포로를 얻었다. 富平에 일부 美 해병대가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 중대는 선봉부대가 되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소대는 중대 선두에서 아군을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소대는 富平철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부평역뒤의 조그마한 언덕에서 숨어 있는 적과 마주쳐 싸움이 전개되었다.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강태용

(1965년 4월 7일 해병제1여단 상사)

16일 진격명령을 받고 우리는 富平—仁川사이 중간지점에서 선편으로 1.5km가량 들어가 그날 밤 이곳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식량으로 레이션 한통을 받았지만 배고픈 김에 한꺼번에 먹어 치우니까 또 출동명령이 내려 富平으로 진격하였다.

해병대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

(1965년 9월 1일 도지개량 연합회 회장실 예비역 소장)

16일 우리 제1대대는 金浦반도쪽을 공격하고 제3대대가 富平으로 향서 京仁가도를 공격하고 제2대대는 예비로 있었으며 우리 대대는 저항없이 金浦반도까지 나와서 방어하고 있었다. 이때 제3대대는 富平인지 잘 모르지만 어느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2소대장

申鉉玉 소위

(1965년 11월 29일 合參大學 대령)

仁川에서 우리는 기상대 있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나는 부두에서 나는 인민군 시체를 처음 보았다.

아침 5시부터 11중대가 교회 있는 쪽으로 전진하였으며 이때 인민군은 몇 놈 도망갔으나 이들 적은 전의가 거의 없어 저항하지 않았다. 仁川에서 인민군의 색출은 민간인들의 제보로 거의 이루어졌다. 민간인들은 상륙당일과 그 밤에는 거리에 나오지 않았으나 16일 아침부터 시가지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민간인이 학살된 것이 많이 있었으며 우리중대가 처음 전투하기는 富平驛에서였다.

富平역에 오니까 태극기가 꽂혀 있어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앞 고지에서 적탄이 날아 왔다.

仁川에서 富平으로 통하는 도로 오른 쪽은 美해병대가 있고 우리 3대대는 그 좌측을 담당하고 진격하였다.

◇ 金浦 新里 戰鬪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2소대장

李弘熙 소위

(1965년 9월 1일 해병사단 G—2, 대령)

부평에서 우리는 탱크 2대의 지원 받아 공격하는데 저쪽 高地에서 적이 연방 기관총을 쏘아 댔다. 아침 9시부터 전투는 시작되어 9시경에야 끝났으나 모든 제대가 서로 연관없이 싸우는 통에 무질서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고문관 지시에 따라 부대를 일단 철수시켰다가 재배치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으운 일이지만 전투경험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밖에…… 우리는 富平이 점령된 다음 富平과 金浦공항 중간지점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金浦비행장을 향하였다.

汝矣島근방까지 진격한 우리는 적이 金浦반도 쪽으로 올라온다기에 그쪽으로 가서 陽谷 新里전투를 하였다.

선두에서 진격한 대대본부 앞 300m 지점에서 적탄이 처음으로 날아 왔다. 우리는 야간에 이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주위에는 50내지 60高地 정도의 산이 있었고 우리가 공격한 곳은 20高地도 못 되는 산이었다.

우리 정면에 적의 기관총탄이 마구 날아와 고전을 하고 있느라니 중대장 黃泳 중위가 불러서 가 보니 다름 아닌 공격명령이었는데 그때 우리 소대는 기관총 하나 없는 형편으로 장비는 적에 비해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공격은 고지 우측으로 분대별로 실시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우리는 많은 적을 죽이고 중기 60미리, 80미리 박격포와 실탄등 몇 트럭분을 노획하였다. 포로는 합해서 300—400명이 되어 제3대대는 이 전투로 명성을 떨쳤다.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3소대

3분대장 池永祚

(1965년 3월 9일 해병대사령부, 상사)

저희들이 金浦에서 적 패잔병 약 270명을 포로로 하고 보니 그 대부분이 의용군와 애숭이들이였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몇몇을 현지 입대시켰는데 나중에 장교까지 된사람이 있다.

우리는 花華島 가는데서 오랫동안 방어하다가 육군부대와 교대하였다.

우리 대대는 蘆浦쪽으로 따꾸차를 타고 漢江을 건넜지만 다시 金浦쪽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와 金浦高地으로 향하였고, 우리는 金浦읍 채 못미쳐 우리 소대는 인민군 30~40명을 잡았다. 그리고 그길로 임진강 있는 데까지 가서 방어를 했다.

3. 漢江渡河와 永登浦附近戰鬪 (50년 9월 18일부터 50년 9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4호
작명부록 제101호

가. 漢江 도하준비

9월 18일 : 이날 오후 상륙군인 제10군단장은 美 해병 제1사단에 대하여 漢江을 도하하라는 명령을 하달(下達)하였는데 이 작전명령 제1호는 美 해병 제1사단이 漢江을 도하하여 서울 北쪽 고지를 점령 확보하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美 해병 제1사단은 이 명령에 따라서 작전명령6—50으로써 그의 예하부대에 대하여 공격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 작전명령의 주요골자는 美 해병제1연대(Puller대령)가 국도를 따라 永登浦를 향해 계속 진격하는 것이고 美 해병제5연대(Murray중령)는 19일 도하지점을 선정 확보한 다음 명에 의하여 도하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9월 19일 : 사단장 스미스(Smith)소장은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날 아침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소장을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美 해병 제5연대의 상륙지점으로 서울 北쪽 1km밖의 漢江 연안에 있는 [illegible]가 선정되고 도하수단도 아울러 논의 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사실상 우군의 주요작전부대는 美 해병사단의 제1 및 제5연대와 韓國해병대였으며 漢江 도하작전 이전에 작전에 참가하게 된 부대로서는 美 육군32연대뿐 이었다.

美 해병사단의 좌측을 경계하던 韓國 해병대는 Dt3일 부평으로 진주한 다음부터 동제를 받으면서 金浦수로제방의 西北쪽 金浦 반도를 점령하는 동시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美 해병사단의 전투지원부대인 제1수륙양용 궤도차(LVT)대대도 美 해병제1연대의 지원임무에서 해제되어 美 해병제5연대의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날 비행장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美 해병제1해안지원단은 仁川에서 五鎭里로 이동하여 수륙양용 궤도차(LVT)와 수륙양용차(Dukw)를 통제하고 도하 후에는 보급소를 운영할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의 西北쪽 方面에서 서울을 공격하게 되는 이 도하작전에 참가하는 부대는 美 해병제5연대와 韓國 해병제2대대, 美 해병사단수색중대, 美 해병제1전차대대 A중대등이고 이 도하부대를 위해 美 해병포병제11연대는 美 해병제5연대 지원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美 해병제5연대장 머레이대령은 그의 지휘소인 金浦 비행장 건물지하실에서 참모들과 회동한 다음 곧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단의 작전명령 7—50에 의거하여 수립된 연대의 작전계획은 漢江을 도하하는 즉시로 대안의 幸州 125高地를 점령하는 것이고 여기에 성공하면 곧 철로를 따라 南東쪽(서울)으로 진격하여 간선도로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美 해병제5연대의 도하계획은,

1) 우선 정찰중대가 은밀히 대안을 정찰하고 적이 없으면 정찰중대 주력을 LVT로 도하시켜 幸州와 125高地를 점령하고 이후 서울로 가는 도로상의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汝川으로 가는 도로를 지뢰 매설로 폐쇄한다.

2) 제3대대는 20일 오전 4시 도하를 개시하고 정찰중대를 초월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동시에 95高地 35高地의 선을 탈취한다.

3) 제2대대는 오전 6시 韓國 해병대 제2대대와 같이 도하를 개시하여 제3대대를 초월한 다음 서울을 향해 진격한다.

4) 제1대대는 오전 6시까지 병력을 도하지 점에 집결시켜 별명에 의해 도하하는 것이었고 전차와 연대 중화기 역시 별명이 있을때에 비로소 작전행동을 시작한다.

도하는 휴톤(Kenneth J. Houghton)대위가 지휘하는 사단수색대의 14명의 수영반이 대안에 먼저 건너가 안전하다고 신호한 다음에 비로소 개시될 예정이었다.

美 해병제5연대 장이 연대의 도하지점을 幸州의 나루터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는데 이 나루터는 幸州부락과 통해 있어서 전진이 용이하였고 125高地는 감제고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漢江양안은 지반이 견고하여 중장비를 상륙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곳은 강넓이가 550m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곳이었으며 최소 목표인 125高地는 일단 우군이 점령만 한다면 도하점의 엄호와 진출로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하방법은 은밀도하였으며 도하지점으로 선정된 幸州 일대에는 19일저녁부터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하점 대안의 목표 125高地는 壬辰전란에 있어서 1593년 2월 12일에 전라감사 權慄이 10,000 군사로써 왜적 30,000명을 쳐부신 곳이며 지금은 사적 88호로서 보존되어 있는 幸州 산성이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활과 돌이 큰 무기였던 옛날과 달리 지금 이 성터가 있는 125高地를 공격하여야 할 아군으로서는 옛날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

이 날밤 먼저 125高地에 대하여 포병은 심한 포격을 가해 목표 고지에 대하여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하였다. 휴톤 대위가 지휘하는 사단수색대의 수영반은 이날 20.00에 대안을 향해 출발하므로써 최초의 도하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4명의 장교와 10명의 사병으로 된 이들은 헤엄을 쳐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도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들 중 장교1명과 사병 4명으로 된 5인조는 125高地 경사면까지 올라갔다. 잔여부대 대원들은 도강지점의 부근을 정찰하였으나 적의 동향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휴톤대위는 고지를 정찰하는 수색조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단수색중대에게 곧 도하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21.00 도하명령을 받은 잔여사단수색중대는 이윽고 LVT에 분승하여 도하하기 시작하였고, LVT의 기동소리는 야음의 정막을 깨고 멀리까지 퍼졌다. 이들이 탄 8대의 LVT는 적정이 없다던 125高地로 부터 적의 기관총사격과 박격포의 탄막사격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5인의 수색조가 야음정찰한 곳은 125高地로부터 서방 1,000m나 떨어져 있는 고지였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선두의 LVT 4대는 모래사장에 좌초되어 사태는 더욱 불리하게 되었으며 이미 대안에 건너가 있던 휴톤대위 일행도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9시 20분 : 더 이상 전진이 곤란하게 된 이들은 다시 남안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휴톤 대위는 사력을 다해 좌초된 LVT중 2대를 간신히 빼내어 한시간 후에 되돌아 왔지만 우군의 피해는 중대장 자신이 박격포의 지근탄으로 부상을 입는 등 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내게되었다.

이 작전의 실패는 전술한바와 같이 정찰 결함과 적을 너무도 경시하고 125高地의 야간행동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나. 强行 도하전

9月 20日 : 최초의 기습도하에서 실패한 美 해병제5연대장은 계획이 좌절되자 부득이 강습도하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비록 야간도하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공격부대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았다. 우군의 도하거도가 폭로된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새벽 04.00에 제3대대에게 2시간뒤에 도하공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美 해병포병제11연대의 제1, 제4대대는 공격전 15분간의 준비사

격을 125高地일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갑자기 계획을 바꾼 탓으로 통신연락이 충분치 못해 적을 의도한 대로 제압하지 못한 반면 적의 사격은 비교적 정확한 것 같았다.

당시 연대 지휘소는 도하지점을 내려다볼수 있는 開花山 131高地에 있었는데 날이 밝자 세퍼드(Shepherd) 美 해병 太平洋지구 사령관과 스미스(Smith) 美 해병사단장 그리고 알몬드(Almond) 제10군단장등이 이 공격을 보러왔으며 또한 많은 기자들도 이곳으로 모여 들게 되었다.

06.45를 기해 LVT로 도하 공격한 선두부대는 목표고지인 125高地의 적으로 부터 심한 사격을 받아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뒤이어 도하한 H및 G중대도 상륙하는 동안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안에서 4대의 LVT가 공격제대를 엄호하기 위해 기동하는 동안 VMF-214의 편대는 보기좋게 공중공격을 감행하여 저항하는 125高地의 적을 맹타하였다.

이렇게 125高地를 공격한 제1중대는 적의 소화기 및 자동화기의 치열한 사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발악적인 적의 저항 때문에 중대장은 중대를 재편성하고 좌우 및 중앙으로 공격하여 09.40 드디어 목표고지를 점령하고 200명의 적병을 사살하였다.



<휴전나루터에서 漢江을 도하하는 美해병>

후속부대로 공격한 H중대는 大隊목표 C인 95高地를 그리고 G중대는 목표B인 51高地를 각각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 선두로 공격한 제3대대는 125高地에서의 제1중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이날 오전에는 대안에 교두보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다. 제3대대가 낸 43명의 사상자는 주로 공병중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반면 전과도 막대하였다. 또한 지난밤 기습도하에서 실종되었던 수영도하반의 수색대원도 많은 정보를 갖고 생환하였으며 파손되었던 2대의 LVT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날 08.30를 기해 美 해병 제2대대가 도하하고 곧이어 韓國 해병 제2대대는 제56 美 해병 LVT대대 A중대와 함께 도하하였다. 이때에 있어서 韓國 해병대의 임무는 美 해병 제15연대의 후방 및 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金錘祺소령이 지휘하는 韓國 해병제2대대는 위에서 말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12.30 華洞 東北方 2km지점인 紅海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와 엄호부대로 임하였다. 또한 朴成哲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는 上陸地 동북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에 포진하였는데 이때 華洞 沙里院등지에서 아군의 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급거 출동한 적 가운데 1개대대병력이 上陸地 東北方 2km의 거리에 있는 富谷洞에 집결해 있었으므로 韓國 해병대가 이곳에 진출하자 적은 아군에 관한 정보를 얻고서 5-6명의 척병이 북북서쪽으로 위장 망대식을 하면서 아군의 전진(前進)을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이러한 동계를 간파할 수 있었던 제5중대장은 그들이 물러가는 즉시로 진지를 8부능선으로 옮기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은 예상한 대로 드디어 해가 지자 증기관총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 포복으로 고지 5부능선까지 접근해 왔으나 해병대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적은 아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부터 일어서서 능선을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제5중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적이 목전까지 접근하는 것을 기다려 명령일하에 일제히 집중사격을 퍼붓게 되었다. 이때 아군의 지원사격까지 가세하여 적을 강타하였으므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적은 그래도 끈질기게 수차에 걸쳐 공격을 계속하였는 바 모두 아군에 의하여 분쇄되고 거의 1개대대의 적은 전멸을 면치 못하였다.(註)

(註) 5중대를 공격한 적 1개 대대는 UN군의 인천상륙을 저지할 목적으로 급거, 어린 학생들을 물어모아 편성한 부대임이 포로 진술에서 밝혀졌으며 내습한 적을 아군의 지연한 사실으로 아침까지도 그 대부분이 희생하지 못한채 논두렁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韓國 해병대는 논에서 개구리 잡듯이 많은 포로를 잡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美 해병제2대대(Roice 중령)는 美 해병제5연대(Murray 중령)의 선두로 도하공격을 감행한 제3대대(Taplett 중령)를 초월 진격하여 13.45 花田里에 있는 연대목표 D.E를 점령하고 적 30명을 사로 잡았다. 이날 14.00에는 연대본부도 도하하고 날이 어둡기 전까지는 12대의 전차와 美 해병 제1대대(Newton 중령)의 도하도 완료 하였으며 美 해병공병대는 도하지점에 다리를 가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韓國 해병제2대대(金鍾淇 소령)는 후방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고 부근일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제5중대는 전기한 바와 같이 陵谷동쪽 上望里 51高地에서 (高吉勳 소령) 鄭光鎬 중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는 開村에 徐廷南 중위의 제8중대는 紅梅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韓國 해병대가 도하 최초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永宗과 서울사이의 가도를 따라 서울을 지향하던 美 해병 5연대는 서울 左側方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는데 이당시 적은 서울을 끝내 확보하려고 약 2개연대의 병력을 새로이 급파하여 이 가도에 집결시켜 진지를 구축한 다음 아군의 진출을 극력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었다.(註)

9월 21일 : 이날 08.00에 한강을 도강한 韓國 해병 제1대대(高吉勳 소령)는 美 해병 제5



〈幸州에 세워 진 해병대의 도하 기념비〉

(註) 20일 맥아더 사령관은 제일선상황보고에서 "美 해병제5연대는 서울을 향해 순조롭게 급진하고 있다"라는 오지의 보고를 받고 21일 서울점령을 기대하면서 東京으로 돌아갔다. 이때 日本신문은 승전장군의 東京귀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던 것이었다.

연대의 제1대대(Newton 중령)는, 제3대대(Taplett 중령)와 서로 합동하여 최전방을 담당하게되었으며 韓國 해병대중 제일먼저 적전(敵前) 도하한 제2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華州지구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仁川에 상륙한 美해병제7연대(註1)는 서울을 탈환할때까지 사단의 우 일선부대가 되어 北方의 측면을 담당하면서 韓國 해병대에게 주공을 맡기고 제5연대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사단의 예비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적의 증대되는 저항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은 일부분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註2)

그것은 美 해병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가 공격하는 서울의 北西쪽 산들은 적에게 유리한 방어 지세형을 제공하고 있었고 전술면에도 적은 지연전술로 부터 끝까지 고수하는 전술로 바꾼 것이 명백해 졌기 때문이다.

이때 韓國 해병대와 美 해병제5연대(Murray 중령)는 漢江 北쪽의 적군의 강력한 저항을 불리치고 永登浦의 美 제1해병연대의 도하지점을 타개해 준다는 것이었다.

당초 서울탈환의 주공부대를 韓國 해병대로 삼으려한 것은 비록 전투경험과 장비면에서는 미약하였지만 정치적 고려와 심리적인 면에서 韓國軍의 사기앙양을 크게 높여 보려는 호의(好意)에서였다.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은 21일 그의 사령부와 함께 상륙하여 17.00부터 정식으로 작전을 통괄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그는 제7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Struble)제독을 통해 간접 지휘를 하였던 것이다. 美 해병 제7연대장 랏첸버그(Litzenberg) 대령은 배속된 포병제11연대 제3대대와 같이 仁川에 상륙한 다음 金浦 남방 [illegible]에 연대본부를 개설하였다.

이날 우군의 전황을 대충살펴 본다면 美해병 제1연대는 계속 永登浦방면에서 악전고투중에 있었던 美 해병제5연대는 215高地와 68高地등을 점령하여 약간 전진하였으며 韓國 해병대는 104高地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다. 永登浦의 전투 (상황도 제37호참조)

9월 21일 : 永登浦지역에는 북괴군 제9사단 87연대와 18사단 예하부대 병력이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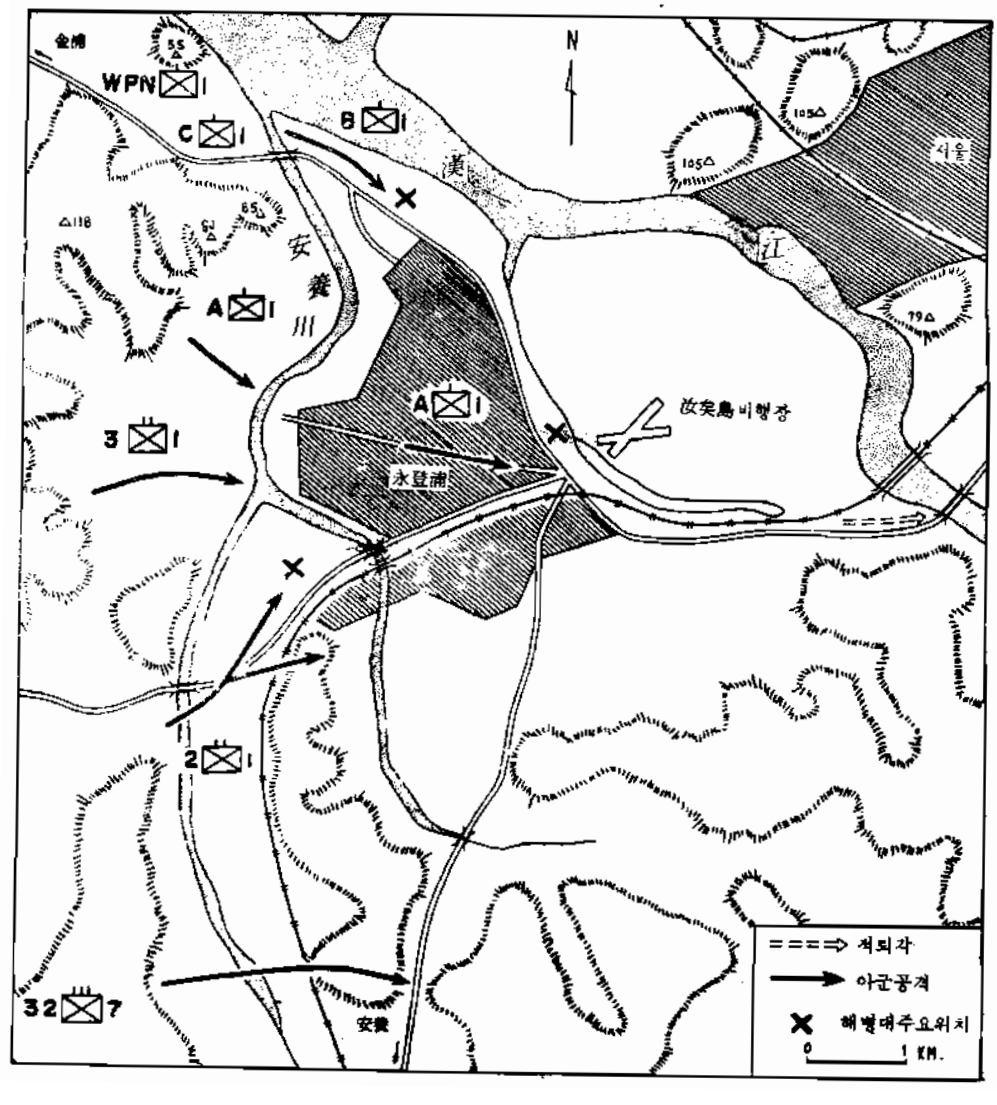
(註 1) 美해병 제7연대는 美해병사단의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8월 21일에야 美본토에서 그 제1대대장이 임명되고 1주일내에 편성을 서둘렀고 그 제3대대는 본국만으로서는 병원이 부족하여 地中海 제6함대에 배속되어 있던 해병대대를 전용하였기 때문에 상륙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註 2) 사실 金浦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韓國 해병제3대대이계획에도 따라 후쿠나루터까지 이동하였다가 이 계획을 수정한 결과 다시 金浦로 되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 발악적인 항거를 일삼았기 때문에 美 해병대는 永登浦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적은 永登浦 西방 80高地와 85高地(永登浦區 木洞소재)에서 安養川을 향하여 공격하는 美 해병대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미리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병력을 집결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美 해병제11연대와 포병들은 전날부터 밤이 새도록 포격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날 아침까지 포격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06.30에 1,800여발의 공격준비 사격이 끝나자 이에 따라 80 및 85高地 일대에 진출하고 있던 美 해병제1연대의 제1대대(Ridge 중령)와 京仁가도를 따라 공격한 동연대 제2대는 주공을 제2대대에 두고 각기 永登浦의 西北쪽과

상황도 제37호 美 해병제1연대 永登浦 점령(2차) (50. 9. 21)



西南쪽으로 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때 연대 右측에 배치된 美 육군 보병제32연대도 동시에 공세를 취하였다.

美 해병 제1연대(Puller 대령)의 左일선을 담당한 제1대대는 D중대로 하여금 전차의 지원을 받으면서 安養川을 건너 永登浦의 서쪽 일각으로 돌출하였다. 적은 ■鹽倉橋(양화교) 바로 뒤의 제방에 약 1개중대 병력으로 방어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B중대는 피아의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꾸준히 전진하여 ?이날 오후에는 동쪽으로 2,000m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전투는 더욱 치열하여져서 양측의 사상자가 많이나게 되었다.

京仁국도를 따라 美 해병제1연대의 주공으로 하루종일 공격하였던 제2연대대는 저녁 때까지도 그 전진속도가 늦어 목표 고지는 아직까지도 적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날 동대대가 입은 피해는 전사 11명 부상자 24명으로 D일 이후 28명이 전사하고 226명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음으로 연대장 풀러대령은 이날 15.00를 기해 예비대로 있던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시키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전선의 右側方을 담당하고 있던 美 육군보병 제32연대는 예정대로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전진하여 安養부근의 고지를 점령하여 서울에서 水原사이의 도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美 해병 제1연대의 공격은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적수중에 있는 永登浦시가는 화염으로 싸여 있었다. 주공방향에서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제3대대는 우군의 강력한 포지원을 받으면서 제2대대를 추월 공격하였으며 동대대는 적의 발악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지점을 적으로 부터 빼앗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永登浦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날 아침 美 해병제1대대의 A중대는 118高地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永登浦시가로 돌입하였는데 이들은 사주를 경계하면서 완전한 대형을 유지하였고 논과 논두렁을 이용하므로써 적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 곧 시가지 안으로 돌입하였다. 이들이 텅 비어 있는 시내에 돌입(突入)하였을 때 左右에서 총격전(銃擊戰)이 전개되고 있었다.

중대장은 비로소 자기가 우군부대와 떨어져서 시내 깊숙히 들어온 것과 적이 배치되어 있는■ 후방에 진입(進入)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적중에■ 고립된 중대장은 매우 당황하였으나 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묘책을 구상하기에 바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대장은 중대의 위치를 대대에 보고한 다음 계속 전진키로 결심했다. 이리하여 우군부대보다

약 700m나 앞서 있었고 적진지 후방에서 작전하게 된 로버트 배로우(Robert Barrow)대위는 이때 左측에서 京仁가도를 따라 군가를 높이 부르면서 행군하는 적의 대열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즉시 이를 기습공격하여 적을 격멸하고 말았는데 이들은 전차 증원병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계속공격전진한 동 중대는 정오가 못 되어 永登浦시가를 거의 뚫고 시가 東北단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東西 뚝으로 된 京釜국도가 있었다. (註)

중대는 이 뚝을 점령하고 진지공사를 서두는 한편 적의 공격을 기다렸으나 오후 늦게야 적의 소부대가 정찰을 겸한 공격을 시도해 왔다. 그리하여 중대는 곧 이를 격퇴하고 준비된 화약으로 부근에 설치된 적의 탄약고를 폭파한 다음 서울시가가 멀리 보이고 여의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지점에서 당당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적은 아군에게 치명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요지를 확보하여 보려고 5대의 T-34전차를 동원한 다음 전후 5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시도하여 왔다.

이때 아군은 대전차포만이 응전하였는데 내습한 적전차 중 3대를 격파하니 나머지 2대는 집에 질려 그대로 시내 쪽으로 퇴각하였다. 그후에는 21.00 에 적 보병이 중대 북쪽에 배치된 제3소대를 5회나 공격해 왔으나 15분간의 전투 끝에 모두 격퇴하였다.

9월 22일 : 이날 아침에야 전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중대는 225명의 적 시체와 수많은 화기 및 장비가 논과 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어제 밤의 전투가 성공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밤부터 시작된 적의 공격은 만세를 부르면서 최후발악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끝내 좌절되었고 美 해병제1연대에 의해 포위된 적은 급기야 22일을 기해 永登浦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美 해병제1연대의 주력은 08.00 永登浦시내의 A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永登浦는 비로소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다.

9월 23일 : 美 해병제1연대는 鷺梁津을 경유하여 漢江인도교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포로 진술에 의하면 제87연대는 8월 중순 북괴군 제9사단이 洛東江전선으로 남하할 당시 仁川방어를 위해 잔류하였으나 이 전선의 증원을 위해 남파되었고 이 연대가 金浦에 도착한 것이 9월 15일 (仁川상륙일)이었다. 그래서 동연대는 여기에서 곧 반전하여 16일 金浦에서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야간에만 운항하면서 20일 永登浦에 도착한 다음, 21일 간신히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북괴군 제87연대의 1개대대는 80%의 전투력을 잃었다.

(註) 현 永登浦구청 뒤쪽 堂山洞 뚝을 말함

고 한다.

美 해병제1연대가 永登浦를 확보하게된 작일(昨日) 美 해병사단은 서울탈환에 대한 작전명령을 그의 공격연대에 미리 내시한 바 있었다. 漢江을 이미 도하한 美 해병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 제1, 제2대대는 서울 西北쪽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이날 작전에 참가한 美 해병제7연대는 사단의 左側方을 엄호하면서 北方에서 서울에 이르는 적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美 해병사단의 右側方인 美 해병제1연대가 永登浦 방면에서 24일 일찌기 漢江을 도하하여 서울 西南쪽에서 서울에 돌입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美 해병사단이 다른 지상군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서울을 탈환키로 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라. 南側方의 방어

9월 20일 : 美 해병 제1연대가 서울—仁川가도를 따라 永登浦에 진출하고 있을때 美 육군제7보병사단은 그 右側方을 방어하면서 적을 견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水原—서울가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安養을 공격하던 동사단 제32연대(Beauchamp 대령)는 이날 도로상의 무수히 매설된 지뢰지대를 제거하며 전진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출이 지연되었는데 이 연대의 제1대대(Faith Jr. 중령)의 공격을 선도하고 있던 제73전차대대 A중대의 선견대(先遣隊)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3대의 전차가 매설된 지뢰 때문에 궤도가 끊어져 버렸다. 후속부대도 차단된 도로 때문에 진출할 수가 없어 전부대의 전진이 여의치 않게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연대장 비우참프(Beauchamp) 대령은 곧 현장으로 달려 갔으나 그 역시 지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겨우 위험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병부대가 전력을 다하여 지뢰발굴작업을 강행한 결과 하루에만도 150개의 지뢰를 발굴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행히 적의 병력이 적어 저항 역시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는 道德山과 광산이 있는 고지 일부를 탈취하고 京釜선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

9월 21일 : 美 육군 제32보병연대는 美 해병제1연대의 永登浦공격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공격을 속행하여 저녁 그 제1대대(Faith Jr. 중령)는 安養北方 2km의 300高地를 점령하는 동시에 동 제2대대(Mount 중령)도 역시 永登浦 南쪽107高地가 있는 능선상의 111高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간 연대의 南側方을 경계하던 정찰중대도 오후 14.30경에는 이미 安養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보고에 접한 美제7사단장(Barr 소장)은 곧 전기 정찰중대에 전차소대를 배속시켜 水原 비행장으로의 돌진을 명령하였으며 동사단의 정보보좌관 에드워드(Edward)소령을 이 부대와 동행시켜 작전을 지도토록 하였다. 정찰중대는 16.00경 전차를 선두로 남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水原 시내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동사단 작전부장 헨리 햄프턴(Henry Hampton)중령이 전차 1개소대와 18전투공병대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괴군 소좌 이하 37명을 포로로 하면서 저녁 때 水原비행장 南쪽능선까지 진출하여 국도를 중심으로 전면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한 사령부에서는 핸넘(Hannum)중령이 지휘하는 특수임무부대(註)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부대는 전진하는 도중에 적 전차와 서로 맞 부닥치게 되어 적 전차는 마침내 패주하는 바 되었으나 이 부대를 안내 하기 위하여 安養쪽으로 가던 4대의 아군 전차는 남하하는 적 전차를 우군전차로 잘못 판단한 결과 동승한 햄프턴(Hampton)중령 이하 23명의 전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9월 22일 : 핸넘부대는 이날 새벽 전기한 정찰중대와 합동하여 水原비행장을 점령하였으며 정오경에는 美육군 제31보병연대의 주력도 또한 비행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원비행장은 별다른 손실없이 아군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安養의 東北방 14km지점에서는 美 육군제7보병사단 제32연대 B중대가 적의 매복습격으로 잠시 후퇴한 연후 과감한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였으며 제2소대는 낮 漢江철교 및 인도교 南쪽 2~4km지점까지 진출하는 성공하여 목표 고지를 점령 확보하였다.

9월 23일 : 동제1대대는 목표 290高地를 마침내 탈취하였는데 이 고지는 漢江에서 6km 永登浦에서 東南쪽으로 14km 떨어져 있으며 한강과 서울에 이르는 접근(接近)로를 감제할 수가 있는 요지였다.

9월 24일 : 이날 아침 또한 마운트(Mount)중령의 제2대대는 漢江남안에 접근하는 적의 잔여 병력을 격파함으로써 다음 날 작전에 기여하는 바가 다대하였다.

§참전자의 증언

◇ 해병대의 도하와 그 이후의 적투

해병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 (1965년 9월1일, 토지개량 연합회, 회장실

註 : 핸넘(Hannum)부대는 지휘반 1개공병중대 제73전차대대 B중대 보병K중대 제48야전포병대대 C중대 및 생반 등으로 편성 되었다.

예비역 소장)

미 해병대가 도하점 확보를 위해 공격할 때 우리는 측면에서 金浦 반도 쪽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는 명령 받기를 우리대대가 美 해병제5연대에 배속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나는 그길로 가서 5연대장에 신고하였더니 그때 연대장은 韓國 해병 제1대대가 도하 후 5연대의 후속부대로 작전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해병대 제2대대 제5중대 2소대장 姜福求 소위

(1965년 2월 19일, 鎭海 松岡旅舘, 대령)

원만 仁川에서 잔적섬멸전을 마친 우리 대대는 富平을 지나 漢江을 도하하고 陵谷에서 선두부대가 되었다.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1소대 1분대장 梁炳中 2등병조

(1965년 9월 28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예비역 상사)

상륙 후 仁川상업고등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朱安에서 처음으로 인민군을 만났다. 교전이 있었지만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富平에서 산악전투가 벌어졌고 漢江 도하는 우리 제2대대가 맨처음 한 것으로 안다.

도하는 金浦비행장에서 따꾸차 (수륙양용차량)를 타고 美洲나룻터로 상륙을 하였다.

도하를 하고 나니 美 해병대가 몇 사람 전사한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 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긴장되었다.

수색전을 하는 동안 많은 포로를 얻었으며 이들은 곧 金浦로 넘겨졌다.

水色에서 우리는 곧 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신당면, 知道面, 元堂面, 神道面안가 지형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잔적색출을 했다. 구파발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곳에 지뢰가 많이 매설되었다는 정보를 얻었으며 거기에서 인민군 연락병을 잡았다. 지뢰는 아군에 의해 폭파되었고 여기서 5대대와 만나 麻浦로 갔다.

해병대 제2대대 제5중대 崔昌善 1등병조

(1966년 3월10일, 해병대사령부, 중령)

18인 우리 중대는 따꾸차를 타고 金浦비행장으로 전행했다.

도착하자 美 해병 5연대장이 자기 예하 전부대를 격납고 앞에 집합시켰는데 韓國 해병대도 집합했다. 비행장에는 북괴의 야크기의 부서진 잔해가 많이 있었다.

美 해병 5연대장이 한 훈시는 韓國 해병대에게 한 내용이 많았는데 그것은 고대하던 서울탈환이 목전에 닥아왔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공격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美 해병대가 幸州나루터로 도하하고 우리는 따꾸차를 타고 강을 건너 마을에서 인민군 300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마구 주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곳의 적은 沙里院 前方에서 仁川에 아군이 상륙한 후 급히 증원된 부대로 나이는 불과 17~18세정도의 소년들이었으며 이들은 거의 전의(戰意)를 잃고 내의 바람으로 숨어 있었다. 사령부도 이날 저녁 강을 건너왔다.

4. 서울 西側方突破戰 (50년 9월 21부터 50년 9월 24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4호
상황도 제38, 39호
작명부록 제102, 103호

가. 104高地의 전투(상황도 제38호 참조)

9월 21일 : 美 해병 제1연대(Puller 대령)가 水登浦에서 고전(苦戰)끝에 거의 시가를 확보할 무렵 서울西측방을 담당한 美 해병 제5연대(Murray 대령)와 韓國 해병대(申鉉俊 대령)는 水色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와 철로를 따라 07.00를 기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아군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韓國 해병 제1대대(高吉勳 소령)가 중앙을 담당하고 美 해병 제5연대 제1대대(Newton 중령)가 左측, 동 제3대대는 右측방을 담당하여 서로 공격대형을 유지하면서 적의 주 방어 진지를 돌파하려고 작전하고 있었다. 이날 水登浦의 적은 美 해병 제1연대의 공격으로 서울쪽으로 퇴각하였으며 24일 美 해병 제1연대는 한강을 도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기한 바와 같이 美 해병 제5연대의 중앙에서 華洲를 도하한 다음 서울 北西쪽에서 직접 서울시내 쪽을 공격한 韓國 해병 제1대대는 (高吉勳 소령)이 지휘하였는데 이들은 서울 탈환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를 치루어야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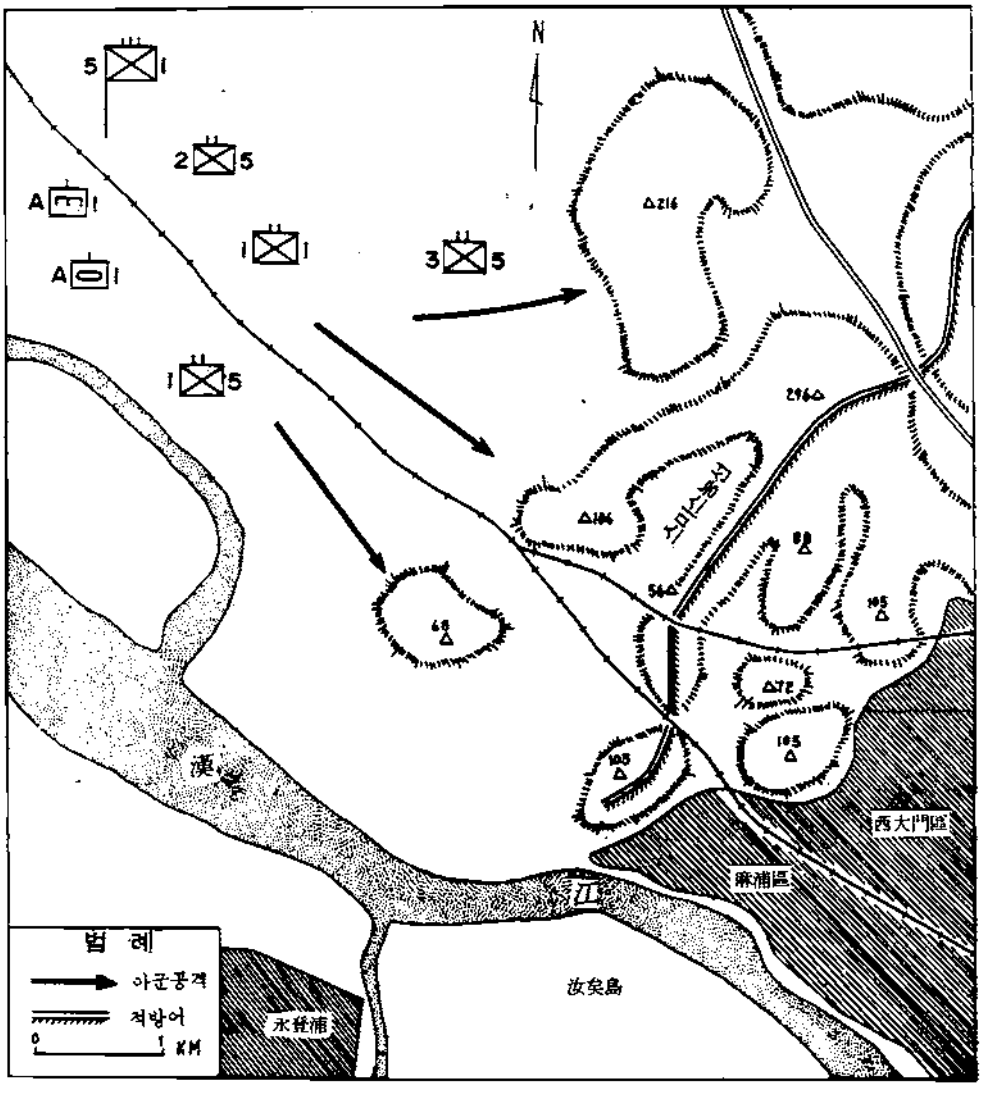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해병대가 담당한 목표들은 서울 弘濟洞에서 漢江 연안의서 西橋洞쪽으로 뻗어 야산으로 연결되어있는 고지대인 105高地(N)와 105高地(C) 105高地(S)로 불리우는 3개의 105高地로 형성되어 있었다.

韓國해병대의 제1대대는 20일 00.30에 약간의 적 저항을 물리치고 水色을 무혈 점령한 후 104高地선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註)

이때 美 해병 제5연대 左측을 담당한 美 해병 제3대대는 鞍山(△295)으로 향하고 美 해병 대대는 105高地(S)를 향해 공격하였는데 韓國 해병제1대대는 처음으로 104高地를 공격하

(註) 水色을 점령하였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적 병기창고에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적의 다발총신 기관총 그리고 기타 실탄이 창고 가득이 쌓여 있었다.

상황도 제37호 美 해병제5연대 및 韓國 해병대의 공격(50·9·21)



게 되었으며 이 고지의 점령은 서울로 돌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 고지를 공격한 韓國 해병 제1대대 장병 중에는 長項, 群山 지구에서 또는 鎭東里, 統營 (忠武市) 지구등 전투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분대장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은 역전에서 승리만을 거둔 말하자면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용사들라고 할 수 있었다.

21일 14.00 104高地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게 된 韓國 해병대의 제1대대는 고지 앞을 흐르는 하천과 개활지가 적에게 유리한 자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반면, 아군에게는 기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리한 조건 밑에서 싸우게 된 것이다. 즉 적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

하여 준비된 방어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각종 화기로서 아군의 공격을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4 高地가 서울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을 알고 있던 적은 단 시일내에 어떠한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해병대가 104高地에 공격을 개시하고 곧 적의 진지에 돌입하여 진내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적의 저항은 유례없이 치열을 극하였으나 그들의 최후 발악은 극도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2시간 동안에 걸쳐 벌어진 이 전투에서 아 해병대는 용전에 용전을 거듭하였지만 이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李鳳出 중위의 제3중대가 주공이된 이 공격에서 제1대대는 백병전을 전개하고 18.30 드디어 이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애석하게도 8명의 전사자와 20명의 부상자를 낸 것이다. 적은 이 고지의 전투에서 최후까지 발악 저항하였지만 결국 진지를 아군에 의해 돌파당하게 되자 그 뒤 쪽에 있는 고지로 패주하였다.

9월 22일 : 104高地에서 패주한 적은 04.00를 기하여 역습을 감행하여 왔으니 필시 적의 독전이 심한 까닭이었으리라.. 약 6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은 120mm 박격포와 기타 화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3시간 동안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내습하여 왔으나 韓國 해병제1대대는 상하일치된 용전 끝에 이 역습부대를 격멸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韓國 해병대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104高地를 공격한 제2중대가 예상 외로 빨리 정상을 점령하고 배치되어 있을 때 적은 고지 4부능선에서 뒤따라 104高地 후방으로 이동한 대대본부에 대해 사격을 가하여 왔던 것이다.

또 하나는 적의 역습이 있기 전에 104高地 오른쪽에 있는 터널속에서 피아의 정찰대가 서로 마주치게 된 일인데 이때 이미 韓國해병대는 북괴군의 사병은 삭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까닭으로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병들은 적들의 머리를 만져보고야 적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는 사실이다.

韓國 해병대는 이 정찰대의 보고와 포로 진술에서 적은 104高地에 대하여 역습하리라는 징후와 韓國 해병대의 다음 목표인 延禧高地에 많은 병력을 집결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韓國해병대는 104高地를 점령하려고 적의 끈질긴 저항을 물리치고 이를 점령 할 수 있

었으며 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신문 기자와 통신원들이 다수 참관하였기 때문에 韓國 해병대의 용감성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104高地 해병 제1대대가 점령한 아군의 서울 돌입을 위하여 중요한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제(瞰制)고지로서 꼭 미리 차지하여야 할 요지였다.

나. 延禧高地의 전투 (상황도 제39호 참조)

적의 상황 :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해 서울 西쪽에 동원된 적은 북괴군의 대좌 박한린이 지휘하는 제78독립연대와 소련군 출신의 45세 가량의 소장 최기찬이 지휘하는 북괴군 제25여단이었다. 북괴군 제25여단은 8월중 鐵原 北方 2km지점에서 편성되어 洛東江 전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으나 UN군의 仁川 상륙작전이 전개되자 서울방어를 위하여 17일에서 21일까지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이 부대는 총병력이 약 2,500명으로 보병 2개대대 중기4개대대 76mm, 120mm포의 각 1개대의 특수편성이었다.

이 부대의 장교와 준사관의 그 대부분은 원래 中共軍에서 복무하였던 전투경력이 많은 고참병들이었다.

그리고 독립 제78연대 역시 이와 비슷한 편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적이 서울방어의 주저항선으로 삼은 延禧高地일대의 화망(火網)구성은 50정 이상의 중기(重機)를 주축으로 그 사이에 경기와 자동소총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각에는 중경두 종류의 박격포의 탄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1km당 자동화기의 밀도(密度)는 중기관총(重機關銃)이 13~14정이고 자동화기이상의 화기가 52~56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평균 20m당 1정의 기관총이 배치된 셈이었다.

아군의 상황 : 104高地를 점령한 韓國 해병대의 제1대대는 계속 延禧高地를 향해 진격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左측의 美 해병 제5연대 3대대는 296高地(鞍山)를 목표로 그리고 右측의 美해병 제1대대는 철로를 횡단하여 西橋洞의 105高地(S)을 목표로 하여 각각 공격을 강행하게 되었다.

지형 : 이 당시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적의 강력한 방어진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고지 일대의 지형은 서울 北쪽의 338高地(仁旺山)에서 南西로 295高地가 있으며 이 고지 南東쪽에 3개의 105高地와 延禧大學을 중심으로한 左右 前後에는 나지막한 능선을 이루었으며 또 梨花女大에서 弼峴洞으로 뻗은 일련의 능선은 마치 활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우기 이 341高地들은 상호 지원이 용이한 소화기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수 있었다.

또한 北으로는 北岳의 고지를 정점으로한 능선이 뻗어 서울 北쪽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듯한 일련의 산악으로 연결되어 있어 적은 내선(內線)에서 외곽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는데 유리한 천연적인 지형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방벽(防壁)과도 같은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던 적은 295高地에서 漢江 연안으로 뻗은 105高地(S)까지의 대각선상에 서울 방어를 위한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南쪽은 漢江, 그리고 북쪽은 京義線 철도와 도로를 감제 할수 있었다.

적은 예측한대로 338高地와 105高地(S)에 이르는 일련에 능선상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총력을 집중하여 죽을 힘을 다해 방어하고 결코 서울을 아군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발악적인 심산(心算)을 굳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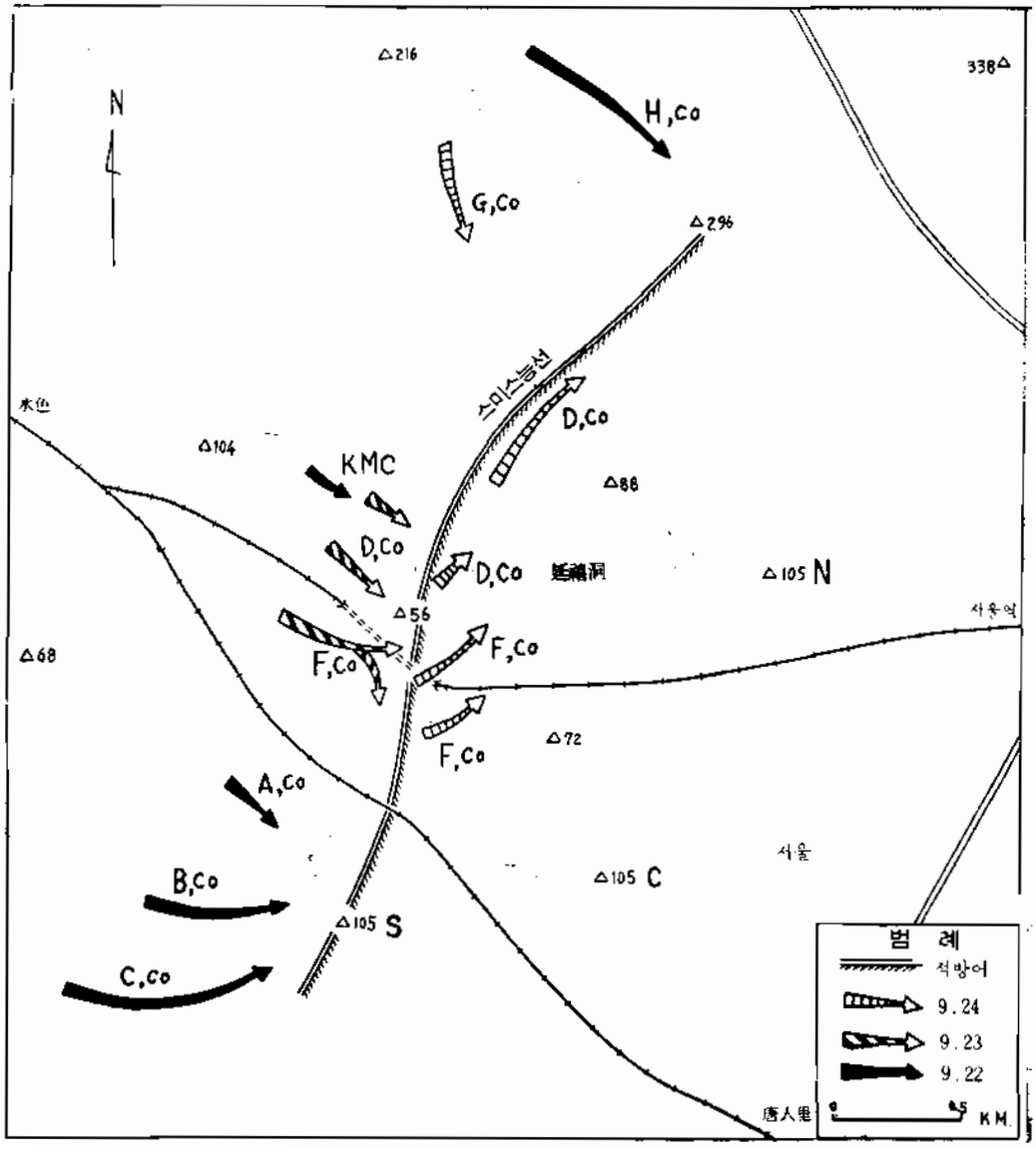
적의 能力判斷 : 그러나 적은 이미 아군 공격에 패배를 거듭하여 그들의 사기는 아군에 비해 극히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적은 아군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어 낼만한 충분한 총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급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후방동원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의 주 저항선을 공격점령하려면 피아 모두가 많은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9월 22일 : 서울탈환에 있어 실질적인 결전이 시작된 이날 07.20 韓國해병대의 제1대대가 중앙에서 견고한 적의 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美 해병제3대대는 고지를, 그리고 美 해병제1대대는 105高地(S)를 각각 공격하게 되었다. 상륙이래 큰 적의 저항을 받아 보지 못한 대부분의 美해병 장병들은 이와 같은 돌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는 서울에 돌입하여 편히 쉬게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105高地에서 직선거리 불과 200m도 안되는 延禧高地를 향해 공격을 감행한 韓國 해

병대의 제1대대는 예상되는 적의 처절한 저지사격을 받았는데 더구나 鄕溝鎭 중위의 제1중대와 金峴山 대위의 제3중대는 이 공격에서 가장 불리한 각활지를 건너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韓國해병대는 韓國전쟁에 참가한 이래 그 유례가 없는 발악적인 적의 저항에 부딪쳐 온종일 반복된 공격에서도 선두가 불과 100m 밖에 전진할 수 없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50m도 진출못하는 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상황도 제39호 서울 西측방에서 적 주저항선 돌파



적은 120mm박격포를 비롯하여 중기와 경기등의 온갖 화기를 총 동원하여 견고한 진지에서 아군을 향해 사격하는 반면 아군은 개활지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우군의 항공 및 포지원사격은 원활한 협조가 결여되어 있어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지 못하였다.

9월 23일 : 韓國 해병대제1대대의 延禧高地에 대한 공격은 다음 날인 이날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돌입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피아간의 공격에서 韓國 해병대는 명예를 걸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30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된 高吉勳 대대의 제1대대는 하는 수 없이 예비로 있던 美 해병제2대대와 이날 오후 임무를 교대하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부대는 일단 부대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韓國 해병대의 공격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된 큰 원인의 하나는 22일 아침 10시경 이미 295高地를 점령한 좌일선의 美 해병제3대대가 동고지 南쪽능선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여전히 측면에서 韓國 해병대의 진출을 끝까지 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美 해병 제3대대는 鞍山 일대를 제압하여 韓國 해병대의 공격을 도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급한 반사면에 구축되어 있는 적의 진지에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고 간신히 산정을 점령한 아군에게 적은 도리어 박격포 및 야포사격을 가해 마음 놓고 우군을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104高地에 집결한 韓國 해병제1대대는 집결지에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李鳳出대위의 제3중대의 1개소대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소대는 美해병대가 우리 해병대의 뒤를 이어 계속 공격한 다음 날에야 비로소 그 행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미 美 해병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목표 고지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피아의 격전 속에서 소대간의 협조는 물론 중대와의 연락을 잃고 있었으며 이들은 무아지경(無我之境)에서 공격만을 계속한 끝에 목표고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적의 맹렬한 직사포화(砲火) 때문에 이를 피해 이들은 복사업체를 구축하고 한때 전진을 중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들은 또한 적은 물론 아군의 포화까지도 주위에 마구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 아래 내지 8시간 동안을 줄곧 전진도 후퇴도 할수 없었던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던 진상이었다.

韓國 해병제1대대가 105(C)高地에 이르는 중간목표인 延禧高地를 2일간이나 공격하고 있을 무렵의 아군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당시 서울西측방에서 서울을 향해 右일선에서 105(S)高地를 공격하고 있던 美 해병제1대대는 역시 치열한 적의 저항으로 전진이 힘들었고

이 고지를 확보치 못하고서는 美 해병제15연대의 漢江도하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美 제5연대장은 서둘러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날 17.30에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간신히 산정을 점령하였다. 또한 永登浦의 美 해병제1연대는 永登浦의 북멸 잔적을 완료한 다음 漢江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美육군 제7보병사단의 제32연대는 제2대대로서 漢江교 남쪽 고지를 탈취하고 또한 부대는 서울 東南쪽에서 漢江 남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美 육군 제7사단 예하 제32연대는 漢江남안의 북멸작전을 계속하여 전과를 東쪽으로 넓히는 동시에 그의 일개 대대는 290高地와 동쪽의 고지를 탈취한 끝에 南쪽으로의 도로를 차단하고 제2대대는 漢江남안의 西氷庫 대안인 新砂里(말죽거리)를 공격하였지만 적의 저항으로 공격은 일시 중단되어 있었다. 이날 美 해병제5연대의 제3대대는 鞍山 산정에서 동 제1대대는 105(S)高地에서 하루 종일 적의 반복되는 역습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전일에 이어 이날까지 계속되었던 韓國 해병대의 중앙능선고지에 대한 공격의 부진상태는 전술(前述)한 바 충분한 美군 항공 및 포지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인접부대와의 엄호사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터이지만 그 보다도 제일중요한 원인은 적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 공격의 부진을 초래케 된 주원인이라 할수 있었다.

韓國 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한 美 해병제5연대 제2대대의 D중대와 F중대는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이들 역시 적의 탄막사격으로 전선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右측에서 공격한 F중대의 어느 소대는 이날 저녁 총원이 7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였고 D중대는 악전 고투한 끝에 겨우 56高地의 후사면에 붙어 버티고 있었다.

9월 24일 : 美 해병대대는 20분간의 준비 포격이 있은 다음 06.30 F중대는 목표고지 능선상의 후사면에서 또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중대병력은 90명미만이었고 거의 완전한 D중대도 같은 목표능선(스미스능선)을 공격하였였고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전진하지는 못하였다. 10.30경 일대에 깔려 있던 안개가 거친 후 야포와 공중으로부터의 적절한 지원을 받은 D중대가 공격을 시작하려 할때 D중대의 남은병력은 불과 44명이었다. 중대장 스미스대위는 이에 앞서 대대로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대대장 자신도 부상을 입는등 극악의 상황 속에서 이 요청이 거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되자 중대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원 돌격대형을 취하고 적탄이 빗발치는 정상을 향해 돌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시간 동안에 걸쳐 격전을 전개한 끝에 드디어 정상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중대장이 이 공격에서 전사를 하는등 살아 남은병사는 불과 26 명 뿐이었다. 이와 같

이 D중대가 과감무쌍한 돌격을 감행하는 동안에 F중대도 또한 UMF-21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진을 향하여 사력을 다한 공격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美 해병제2대대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면서 얻은 전과는 예상외로 막대한 것으로 무수한 능선상의 호속은 적시체로 가득하게 메워 있었고 56高地와 그 능선상에는 1,500구의 적 시체가 딩굴고 있어 능히 그 격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美 해병사단에서는 295高地(鞍山)을 연한 일련의 전투에서의 전과를 종합한 결과 1,750명의 적을 죽였다고 추산하게 되었다.

당초 美 해병대가 적의 가벼운 전초진지라고 생각하였던 이 고지는 사실은 적의 서울西측방 방어의 최후 보루(堡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니 대개 전쟁의 양상이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단(多端)하기 짝이없는 것이라는 좋은 일례(一例)가 될 것이다.

§ 교 훈

◇ 어떠한 적도 過少評價해서는 안될 것이다.

韓國 해병대의 104高地와 延禧高地공격은 여러모로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해병대 사령관 申鉉俊 예비역 중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교육훈련면이나 장비 그리고 실전경험이 미숙한 해병대가 패색이 짙은 적이기는 하였으나 최선을 다한 적을 상대로 싸우기에 앞서 우리측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절실히 요망되었었다.

적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안 연후에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해병대의 공격은 적을 너무도 얕잡아 보았으며 서울탈환전에 우리해병대가 주공을 담당하여야 겠다는 간절한 일념에서 장병들의 용기와 감투정신만을 신뢰한 싸움이었다.

이 작전에서 해병대는 용케도 비교적 방비가 소홀하였던 104高地는 점령할수 있었지만 延禧고지에의 고배는 이런 까닭으로 당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海兵隊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불타는 용기와 의지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수 없다는 고귀한 교훈을 얻었고 고도의 전술의 연마가 얼마나 긴요하며 어떠한 적이라도 섬멸을 기한 작전이 수반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韓國 해병대가 延禧高地 전투에서 일단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이 싸움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의 상승의 전통을 낳게 한 의의깊은 싸움이라는 점에서 성공한 싸움이었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 美해병 제5연대 제2대대의 D중대와 F중대의 용맹성

적이 총력을 집중하여 구축한 요새화된 방어선을 돌파함에 있어서 D중대와 F중대의 용맹성은 길이 후세에 전하여 질만하다.

중대병력의 대반을 잃으면서도 최후의 한사람까지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들이야말로 오로지 명예를 존중하고 패하지 않으려는 군인의 표본이었다.

최선을 다한 물리적인 조치 후에 남는 것은 자기사명에 두철하고 죽을각오로 적에게 돌진하는

병사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병사들이 있음으로서 美國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좀먹은 침략자는 끝내는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 참전자의 증언

◇ 104高地의 전투

해병대제1대대본부 張大吉 준위

(1965년 월2 23일, 鎭海교육단, 대령)

104高地를 확보하기 위해 제1대대는 많은 전사상자를 냈다. 이 고지를 점령한 후에 부관도 전사하고 이 전투에서 10여명의 장교도 잃어 1대대는 병력이 대단히 부족하게 되었다.

이때 제2중대가 104高地를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 CP도 이고지 후방으로 이동하였는데 104高地 점령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격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지 동굴속에 숨어 있던 적이 해병들이 지나간 후에도 사격을 해왔지만 3중대는 이를 섬멸하였다.

우리들이 延禧高地를 공격할때 확실한 적정을 모르고 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대대가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104高地에서 정찰대원들이 약 1000m의 개활지를 건너 목표고지에 접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가끔 우군 전투기가 와서 폭격하고 있었으며 적의 저항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400m 가까이 접근하였을 무렵 적진으로부터 일제사격을 받아 부득이 정찰대는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 우리측의 희생은 없었다. 제3중대와 제1중대가 개활지로 부터 진출하였으나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하루동안100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때 우리는 美 해병대 지휘관들이나 고문관으로부터 서울탈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서 빨리 목표고지를 점령할 것을 독촉 받고 있었으나 불리한 지형상의 조건으로 전세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23일 밤 어둠을 이용하여 美해병대와 우리는 임무를 교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이때 1개소대의 행방이 불명이었다. 나중에 확인된 일이지만 이들은 美 해병대가 延禧高地를 완전 점령하기 전에 행방불명 되었던 우리 해병대의 1개소대가 이 고지 일부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따지자면 延禧高地는 美軍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점령하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4고지 전첩기념비>

◇高陽郡 昆陣면 南加佐里 柳安子

(1965년 9월 22일 平澤, 자택, 치과의사)

날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仁川상륙후 팽크부대가 들어와 우리는 기뻐서 날뛰었다. 이때 해병대인지는 몰랐지만 韓國軍人이 찾아 와 美軍 레이숀만 먹으니 밥이 그립다면서 밥을 지어 달라고 했다. 동네 여자들과 합세하여 주먹밥을 지었는데 전세가 바뀌었는지 지어놓은 주먹밥을 다 갖이고 가지도 못하였다. 왠일인가 하고 걱

정하였는데 그 다음 날 부상병이 우리 집으로 마구 쇄도했다.

저희집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부대가 주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상병들이 우리 집에서 간단한 응급치료 후 엠란스에 실려 나갔으며 저도 이 응급치료에 전력을 다해 도왔다. 그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나 굶주린 동네사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물건을 찾아 헤메는 비참한 일까지 볼 수 있었다.

해병대 제1대대중화기중대 金仁洙 견습 수병

(1964년 4월 14일, 해병사단, 3연대본부, 상사)

104高地의 전투를 치루기전 까지는 그리 격심한 전투는 하지 않았다. 고지에서는 적탄이 얼마나 날아오는지 통신기의 안테나가 불어질 정도였다. 高吉勳 대대장장이 후방에 지원요청하기 위해 무전연락을 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어 연락병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다른 연락병을 또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소식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대대부관이 전령의 소식을 알기 위해 찾아 나섰으나 적탄에 부상을 입어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급부대에 연락도 취할수 없는 지경에서 우리 대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뒤에 들은 말인데 대대장은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하에서 무릎을 치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화기중대에 있은 관계로 부상병을 후송하는 일을 도왔다. 이때 군의장교는 金응종소위였다. 환자를 응급치료하기 위해 민가에 들어갔는데 이때 환자치료에 조력한 사람이 柳安子라는 간호원이 있었다.

◇延禧고지의 전투

해병대 사령관 申鉉俊 대령

(1970년 6월 23일, 자택, 예비역, 중장)

해병대의 4개 대대를 美해병사단 각 연대에 배속을 시키다 보니 1개대대가 남은 격이 되어 제3대대를 예비대로하여 金浦 지역을 담당하고 남은 저의 섬멸작전과 차단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美해병대에 대해 고마운 것은 韓國해병대가 晋州와 統營등지에서 전투경험이 있고 漢拏山에서 공비를 토벌한 일이 있지만 이것들은 토벌작전이지 정규작전은 아니였다. 그래서 내가 美해병대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해병대를 정규군에 익숙하도록 키워주고 배워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해병대가 강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날과 같이 강하게 된 것은 美해병대의 덕택이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美해병대는 우리에게 전투 중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히 배운 것이다.

예를 들면 어려운 고지를 공격할 때 우리를 앞장세울 수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앞장서고 우리 해병대를 뒤따르게 하면서 우리를 아껴 주고 전투를 배우게 하였다.

104高地에서 延禧高地를 점령할 때 일이다. 이때 孫元一 제독도 해병대와 같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야기 하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 서울시에 돌입하게 되는데 韓國 해병대가 공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앞장 설 것을 나에게 권하였다.

韓國해병대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나였으나 선봉되기를 마다한다는 것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합의하고 우리 해병대가 앞장 설 것을 결심하였다.

孫제독과 나는 스미스사단장을 찾아 韓國 해병대를 앞장 세워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韓國해병대가 104高地 탈환전부터 앞장을 섰지만 용감한 것 하나만 가

지고는 어려웠다. 104高地는 힘으로 高吉勳 소령의 제1대대에 점령할 수 있었지만 延禧는 예측한대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참 힘이들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놈들 (북괴군)도 이 고지를 뺏기면 안 되니까 발악적인 역습을 하여 피아 뺏고 뺏기는 전투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전사상을 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3~4일간 피투성이의 싸움이 거듭되었으며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서울시에 돌입할 때 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었다. 나중에는 美 해병대가 점령했지만 이들은 사전에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적진에 대하여 대대적인 폭격을 한 다음 접근하고 쳐들어 갔다.

우리도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을 몰랐다.

바꾸어 말하면 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요청할줄도 모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뚝톡히 美軍으로부터 싸우는 법을 배웠으며 여기에서 싸우며 배운 덕택으로 다음 해병대는 中東部전선에서 잘할 수 있었다.

해병대제1대대대 高吉勳 소령

(1965년 9월 1일, 土地改良聯合會會長室, 예비역 소장)

우리 대대는 홍제동 나루터로 도강한 후 제5연대에 배대로 하루 있게 되었으나 이때 제5연대 공격대대가 104高地를 공격하다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서 우리 제1대대는 美해병 중간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그 다음 날 공격제대의 주공으로 104高地를 공격 점령하고 이에 延禧高地를 공격했다. 여기에서 우리 대대는 많은 손해를 입어 다시 제5연대예비대로 갔다가 美해병대가 北阿峴洞까지 전진하였을 때 우리 대대는 또 美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공격부대의 선두에 나섰다.

104高地와 延禧高地 사이에는 적전거리가 200m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적은 밤사이에 굉장한 병력을 이 조그마한 延禧高地에 집결시켰었다.

104高地에서 우리는 빈번히 오고 가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듣게 되어 적정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들 적은 식량과 탄약 그리고 병력을 모두 기차를 이용 수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졌다.

아침 8시경부터 우리는 左右의 美 해병대와 합조하여 공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공격에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좌측에 배치된 美 해병대가 敵陣을 완전 점령하지 못한 탓으로 측면의 적으로부터 사격이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1개 소대가 2일간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美 해병대가 고지를 점령하고야 이 소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고지 전사면까지 용전 끝에 진출하게 되었으나 더 진출하려니 우군과 적의 포탄이 마구 주위에 떨어져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전 소대가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 소대가 李通祥 2등병조가 지휘한 소대라고 알고 있다.

해병대제3대대 3중대 3소대대 李通祥2등병조

(1964년 12월 19일, 鎭海上南訓練隊, 준위)

저희들이 延禧高地를 공격할 때 우리소대는 정면 공격을 명령 받고 있었다.

延禧高地는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좀 낮고 하나는 그 보다 높았으며 이 낮은 고지를 우리가 담당하였다. 右측으로 1소대 2소대가 있었고 우리소대 뒤에는 화기소대가 뒤따랐다.

이 공격에서 아군 및 적의 포화가 마구 우리 방향으로 집중되어 전선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었는데 우리는 기어코 명령대로 주어진 시간 6시보다 한 시간이 앞선 5시에 드디어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소대는 7명의 전사상자를 내었다. 이때 美 해병제7연대가 우리를 엄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착오를 이르켜 우리를 적으로 알고 마구 우리를 향해 사격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고지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 고지에서 밤 9시경까지 있다가 교대하고 나음 延禧大學 앞 고지를 공격하는데 또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날 식사도 취하지 못하고 우리는 美 해병대 전차대를 선보이하여 전진하였다. 우리의 임무는 길 옆에 있는 대전차포 진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으나 적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8시간이나 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 사이 적은 전차를 공격하는데 우리 주위에도 포탄이 작열하여 주위에는 먼지가 야려 우리의 시야를 가렸다. 그후 소대가 진출하여 엄호하는 덕분으로 여유가 생겼으며 호를 파고 전진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우리는 또 여기서 명령을 받았다. 대원 전부가 꼬박 1일간을 굶은 데다가 피곤은 겹쳐 정신마저 희미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약 20m 가량의 논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산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를 통과하여 앞 고지 밑에 붙어야 했다. 저녁 11시 경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막 공격을 할려고 하니 우군 DT탄(공중에서 폭발하는 포탄)이 우리 앞에 마구 떨어져서 우리는 이를 속히 중지시키려 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적의 포탄이 희생이 되어 우리 주위에 떨어져서 우리는 포사격이 중단되는 틈을 타서 야간공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노라니 중대장의 호출이 있었다. 그곳으로 가니 중대장 李鎭出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1, 2소대장이 모두 전사하였으니 귀관이 1, 2소대전부를 통합하여 공격을 개시하라는 지시였다. 그래서 나는 즉각 전령을 보내 소대와 전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연락 불통이어서 하는 수 없이 3소대만을 거느리고 공격하기로 준비했다. 이때 웬일인지 모르지만 공격중지 명령이 내려 우리는 美 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5. 서울 外廓에 대한 包圍戰 (50년 9월 23일부터 50년 9월 2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4, 35호
작명부록 제 103 호

가. 西측방 적 주저항선의 崩壞(상황도 제39, 40호참조)

9월 23일 : 서울 西측방에서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가 하루 종일 적에게 피타는 공격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아무 진전이 없었다. 원래 제10군단(Almond 소장)의 서울 공략계획은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를 기간으로 삼아 서울을 탈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알몬드 소장에게는 지금까지의 적의 저항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무모한것으로 생각 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美 해병대가 漢江을 도하하여 서울공격을 시작한지 4일째가 되어서도 전면의 적은 조금도 그 기세를 누그러 뜨리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있었으며 차후의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대국적으로 볼 때 서울은 하나의 UN군 작전에 있어서 군사적인 중심 목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장부가 되는 목표였는데 여기에서 仁川상륙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작전에 이어, 될수있는 대로 빨리 서울을 점령하는것이 금상첨화가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었다.

물론 서울의 조기탈환이란 누구나가 한결같이 열망하는 바였기 때문에 美 해병사단의 스미스 소장이나 알몬드 소장 역시 각기 서울 공략의 최선,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스미스 소장의 공격계획은 해병사단 단독으로 전력을 집중하여 西측방을 강타한 다음 곧 뒤따라 서울에 돌입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는 매우 적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알몬드소장은 이와는 조금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해병사단의 중요한 전력인 美 해병 제1연대의 운영에 있어서 이연대를 해병사단의 주력방면으로 초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 東南쪽에서 서울을 공격케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스미스준장이 계획한 美 해병제1연대를 서울 西쪽 전선에 투입시키는 데는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알몬드 소장은 스미스 준장의 지휘소를 직접 방문하고 美 해병 제1연대의 운영에

있어서 사단장의 재고를 촉구하였지만 서로의 의견은 접근하지 않았다. 스미스 소장은 "美 해병제1연대(Puller대령)로 하여금 서울을 포위하여도 이미 안간 힘을 다해 정의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작정한 적은 퇴각은 커녕 더욱 그들의 결심만을 굳힐 것이고 이에 반하여 아군은 병력을 분산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것이니 전병력을 모아 동일방향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총집중하여 적을 격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의견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알곤드소장은 최안안으로 "해병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측방에서 공격을 계속하되 24일의 전황이 별로 신통치 못한 경우에는 알몬드 안인 美 육군보병 제32연대(Beauchamp대령)와 韓國육군 제17연대(白仁燁대령)를 대신 西氷庫로 도하시킬 것이다"라는 절충안을 내놓아 겨우 타협을 보게된 것이라고 한다.

9월 24일 : 延禧高地의 56地高 전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美 해병 제1연대(Puller대령)는 105(S)高地를 점령한 동 제5연대 제1대대(Newton중령)의 엄호를 받으면서 아침부터 도하를 시작하였다. 이날 09.45 선발대로 漢江을 도하한 동 연대 제2대대는 美 해병 제1공병대대의 C중대가 105(S)高地의 南西部에서 작전하고 있을 때 美 해병 제5연대 제1대대 C중대도 같이 전투를 개시하였다. 美 해병 제1연대의 도하는 漢江 지역에서의 많은 양의 지뢰 제거작업으로 인한 지연과 도하주정(舟艇)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예정보다도 약간 지연되었다. 漢江을 도하한 제2대대는 도하지점에서 약 350m 떨어진 79高地를 향하여 제5연대와 병행대형으로 이 고지를 향해 급속히 전진을 재촉하였다.

제2차로 도하한 제1대대는 진군도중 제5연대 제1대대에 의하여 이미 점령되고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105(S)高地로 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약간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계속 진격하여 겨우 위험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또한 연대 예비로 있는 제3대대(Ridge중령)가 105(S)高地를 경계하였으며 나머지 병력은 79高地에 대한 적 정찰대 공격을 야포와 4.2인치 박격포를 집중 사용하여 분쇄하는데 성공하였다.

美 해병 제7연대는 이날 전부의 도하를 끝마치고 그 제1대대(Allan Sutter중령)는 사단 左측배후를 엄호하였고 주력은 土堂里에 집결한 다음 다음날부터 있을 공격을 준비 하면서 밤을 새웠다.

한편 전날 延禧高地 공격에서 일단 후방에 집결한 韓國 해병대는 재편성을 마치고 이날 09.00부터는 사령부 작명 19호에 의거하여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공동보조를 취하여 水色일대의 부락과 여러곳에 산재하여 있는 야산(野山)에 대한 정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적 사살 57명과 포로 30명 그리고 그밖에 노획무기 다수의 전과를 올렸다. 이날 해병대가

올린 전과 가운데는 적의 군수창고 2개소를 발견하여 이를 모두 접수하는 개가도 아울러 올렸다.

또한 金浦 반도의 간적을 섬멸하고 있던 제3대대(金浦반소령)는 細橋洞으로부터 도하하여 저녁 때에는 사령부위치에 도착하고 일부 부대는 麻浦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9월 25일 : 韓國 해병제3대대는 작전계획의 변경으로 이날 08.00를 기해 漢江을 다시 건너 金浦半島쪽 경계를 위하여 美 해병사단 본부가 위치하는 金浦 비행장으로 향했다. 또한 이날 韓國 해병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난 統營지구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金聖恩 부대의 제5대대가 09.00에 仁川에 상륙하여 다음 날 13.00경 水色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에 도착한 것이다.(註)

이로써 韓國 해병대는 전병력을 모아 서울탈환에 앞서 진영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제1대대는 美해병 제5연대와 그리고 제2대대는 美해병 제1연대와 또 제5대대는 美해병 제7연대와 서로 합동하여 각각분담된 지역에서 작전하는 동안 서울돌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아침 美 해병 제5연대(Murray대령)는 西측방에서 아군진영이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접령한 延禧高地상의 56高地를 거점으로 삼은 다음 계속하여 88高地와 105(C)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오전 중에 항공 및 포병의 공지(空地)합동의 집중 사격을 실시한 연후에 제2대대(Roise중령)의 D중대는 56高地를 출발하는 즉시로 우선 능선상의 교통호를 이용하여 북쪽으로 진출하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88高地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북괴군의 저항은 56高地에 비할바가 못되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던 적은 105(N)高地와 105(C)高地로 퇴각하고 말았으니 이미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을 짐작케 하였다. 여기에서 제2대대 주력은 오후 15.45부터 재빨리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고 동 대대의 최종 목표였던 105(C)高地를 무난히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左側방의 제3대대(Taplett중령)는 아침부터 鼓山(△296)에서 적의 역습을 일시에 격퇴하여버리고 이어 105(N)高地의 西北쪽 일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날 양개 대대의 공격에서 적군 3개대대가 도합 500명에 달하는 인명의 해를

(註) 金聖恩 부대의 일부였던 제2중대(중대장 대위 金光鎭)와 제3중대(중대장 대위 李璟相)는 高昌勳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의 예하부대로서 이미 9월15일 仁川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있었고 9월26일 새로이 제5대대로 편성된 이 부대의 지휘는 사령부 참모장이었던 金大植 중령이 지휘하게되고 金聖恩 대령은 참모장으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이 대대는 그 예하에 제21, 22, 23, 25의 4개 중대가 있었다.

잃었다고 하였으니 적의 손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제5연대는 이날 저녁까지는 西側방고지 일대의 섬멸잔적을 완료하였는데 그 제3대대(Taplett중령)의 일부가 재빨리 서울 西北쪽 일각에 돌입하여 西大門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적을 공격하였다. 해가 저물어 공격을 일단 중지하였으나 적은 오히려 야음을 타고 전차를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역습을 감행하였지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니 이야말로 최후 발악의 가냘픈 한 장면이라 하겠다.

한편 美해병 제1연대(Puller대령)는 처음 전차의 지원없이(註) 동굴속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하는데 많은 고초를 맛보게 되었으나 때늦어 도착하게된 美해병 전차대대 B중대의 지원을 얻어 비로소 공격은 급속한 진전을 보게되어 서울 麻浦區와 龍山區에 돌입하므로서 시가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연대는 여기에서 밀집한 가옥들을 이용하여 간간이 저항하는 적군을 물리치면서 東쪽으로 전과를 확대하였고 龍山역을 점령하고난 다음부터는 방향을 90도 바꾸어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서울역 남쪽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또한 美해병사단의 左翼선 부대였던 제7연대(Litzenberg대령)는 사단명령에 따라 韓國해병 제5대대와 같이 이날아침 일찍 행동을 시작 한 다음 정오경에는 이미 孫磯里에서 新村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京義線을 따라 北으로 퇴각하려는 적의 퇴로가 완전히 절단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나. 南쪽으로 부터의 포위(상황도 제41호 참조)

9월 24일 : 아침 富平 군단사령부를 나온 알몬드소장은 美제7사단(Barr 소장)을 방문하고 제32연대(Beauchamp 대령)로 하여금 西氷庫로부터 서울에 돌입할 것과 韓國육군 제17연대를 동 연대에 배속시킨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무렵 美제32연대 제2대대(Mount 중령)는 여명(黎明)을 이용하여 西氷庫남안의 新沙里(말죽거리)의 적 진지에 돌입하여 전과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그후 적의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이날 日本에 있던 공정대인 제187연대 제3대대가 金浦에 도착하여 제10군단 예비

(註) 美해병 제1연대에 배속된 전차대대 B중대는 도하 여건상 漢州쪽으로부터 도하하게 되었는데 거리 관계상 전차의 진출이 늦어졌던 것이다.

대로 편입 되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알몬드 소장은 이날 정오까지도 서울 西측방을 강타하고 있는 美 해병사단의 공격이 예상 이상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 南쪽으로부터의 포위가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美 보병제7사단과 해병사단의 두 사단장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작전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스미스 소장과의 사전 타협한 바에 따라 美 보병제7사단과 해병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美 보병제32연대에 韓國군 제17연대를 배속시켜 이날 漢江을 도하하게 한다음 그즉시 서울시가 남쪽의 고지대(南山)를 점령하는것으로 이안은 두사람의 이의(異議)없이 즉시 채택되었으며 이 작전회의는 단시간 안으로 끝나고 곧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美 보병제7사단은 도하준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그것은 도하개시 시간까지 불과 16시간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서울 西側방의 해병사단(스미스 소장)에 대하여 적이 예상외로 강력한 저항을 계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南쪽에 대한 저항도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고 짐작되는 것이었다.

적의 견고한 서울 西北진지가 와해되기 시작한 어제부터 미해병사단은 그의 3개연대와 韓國 해병대로서 美 보병 제7사단의 漢江 도하와 때를 맞추어 포위진의 상호연계(相互連繫)를 위해 漢江 北쪽연안을 집중 공격하고 있었다.

9월 25일 : 군단장은 그가 결심한 대로 美 제32연대(Beauchamp 대령)와 韓國군 제17연대(門仁輔대령)를 이날 06.00를 기해 西氷庫로부터 漢江을 도하공격케 하였는데 이들의 임무는 美 해병대의 서가지 공격을 도와 먼저 南山을 점령하고 여기에서 東南쪽 3~4km되는 121高地(매봉) 그리고 東쪽 9~10km에 있는 뚝섬의 348高地를 연이어 점령하는 것이었다.

제32연대의 도하는 제48야포대대의 엄호 화력 밑에 진행되었으며 공격제대는 집결지에서 06.30 해병사단에서 지원한 LVT에 탑승하여 안개가 자욱히 깔려 대안이 잘 보이 지않는 가운데 선봉부대는 漢江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선두인 제2대대(Mount 중령)는 적의 저항을 받음이 없이 기습적인 효과를 얻으며 신속히 南山 경사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 07.30경 漢江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金湖洞에 소재한 121高地에 대하여 공중공격이 전개되었다.

제2대대의 뒤를 따르던 제1대대는 121高地를 향해 강안을 따라 이동하였고 13.00에는 제3대대가 제1대대를 추월하여 121高地를 공격하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전진하게 되자 제1대대(Faith Jr.)는 그 중간에 병력을 배치하게 되었다. 신속히 南山에 도달한 선두부대는 이날 후속부대와 그밖의 모든 부대가 도하하는 동안 정상을 공격하면서 많은 적을 격멸하였으며 오후에 이르기까지 이고지일대의 잔적을 복멸하는 한편 사주(四周)방어를 위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주) 南山의 적 방어시설은 견고한 것이었으나 거기에 배치된 병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9월 26일 : 南山을 점령한 이 부대는 역습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적은 예측한대로 이날 새벽 04.30부터 반격작전을 시작하고 동이 틀 무렵에야 제2대대의 전면에 나타나 공격을 시도하여왔다. 이때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이 아군에게 반격을 감행하여왔으므로 東쪽에 배치되어 있던 중대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적으로부터 돌파 되었지만 예비대를 투입하므로써 이 돌파를 회복한 다음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두차례에 걸쳐 반격을 시도한 적은 모두 아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 전투에서 진내에서 죽은 적은 100명이나 되었고 진전에서 죽은 적이 284명으로 적은 도합 384명이 아군에 의해 사살된 것이었다.

9월 26일 : 한편 다른 대대들도 계속 전진하여 제3대대는 이날 아침 120高地로부터 348高地를 향해 6.4km 진격하면서 피아간에 심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다. 韓國軍 제17연대의 漢江도하(상황도 제41호 참조)

제17연대가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하게된 경위 :

美 제32연대에 뒤이어 漢江을 도하한 부대는 白仁燁 대령이 지휘하는 韓國軍 제17연대였다. 이 연대는 6.25가 터지자 臨津의 背水의 진지에서 단독 넓은 정면을 담당하면서 적의 대공세를 막아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선이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되자 이들은 白仁燁대령의 지휘로 극적으로 臨津을 철수한 수가 있었다. 해군 함정과 현지에서 징발한 민간발동선에 의해 仁川, 永登浦, 水原 방면으로 분산 철수한 이들은 1950년 7월5일 새로이 부임한 연대장 金錫源 중령의 지휘아래 烏山 방면전투와 龜尾場 전투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치고 있었는데 9월17일 다시 白 대령이 이 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한것이다. 당시 왜 "首都사단장

으로 있던 I 대령이 연대장으로 전임되었는가?"하는데 대하여는 各說이 있으나 I 대령이 연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서울탈환작전에 제17연대가 참가하게 된 연유는 이러하였다.

仁川 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진행될 때 부터 극동군 총사령부는 앞서도 잠간 비친 바와 같이 서울은 韓國軍에 의해서 탈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이때 韓國軍은 白善燁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1개연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1개연대를 추가해서 제17연대를 상륙군부대 편성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에 앞서 연대장으로 임명된 I 대령은 李承晩 대통령의 호출을 받게 되었는데 李대통령은 I 대령에게 "전공이 많은 사람이 수도를 탈환해줘야 하겠다."면서 "연대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I대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 사단장이면 어떻고 연대장이면 어떻고 중대장이면 어떻겠읍니까 책임을 지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이어 대통령은 "그러면 어느 연대를



<서울을 도하하는 한국군 제17연대 용사들>

지휘하고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I 대령은 "17연대를 가지고 가겠다"고 대답하여 지휘관이 먼저 임명되고 부대는 후에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I 대령이 사단장으로부터 연대장으로 전임된데 대하여는 首都사단이 많은 인명의 희생을 입었기 때문에 좌천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아무튼 이 보직은 이례(異例)의 것

이었으며 좌천이던 영전이던 간에 군인으로서는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 이 상륙작전의 성패여부가 나라의 운명과 꼭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9월 24일 : 白仁燁 대령이 지휘하게된 제17연대는 이날하여 麗北 杞溪와 安康 부근에서 전투중에 전선을 제1기갑사단에 인계하고 9월14일~15일 작명179호에 의거하여 야간에 집결지인 釜山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제17연대는 釜山에서 상륙기동부대의 지상군으로 편성하기 시작하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편입되게 되었다.

釜山에서 재편성한 제17연대는 그 대부분이 신병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급품을 지급받은 이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당시 장교들의 보직은 계급에 따라 연대장으로부터 구두로 임명되었다. 편성이 완료된 제17연대는 그로부터 1주간의 훈련(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17연대의 훈련은 李대통령도 수차 참관하는 바 있었다. 이들은 다른 상륙부대와 같이 仁川을 향하였고 9월24일(D+9) 08.00 상륙군 후속부대로서 仁川에 상륙하였다. 仁川에서 富平까지 기차로 이동한 제17연대는 거기에서 행군대형을 취해 永登浦를 경유(永登浦工業학교) 이날 저녁에는 獅石洞 일대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9월 25일 : 이날 드더어 漢江 남안에 집결하게된 이 연대는 美 해병사단이 지원(支援)한 LVT와 따구차에 의하여 美 제32연대가 한강을 도하한 다음 14.00경에 한강 남안인 新沙里에서 대안의 西氷庫를 향해 도하하고 계속 南山을 향해 진격하였는데 커다란 적의 저항은 받지 않았다. 이 연대는 계속하여 서울 東쪽을 향하여 진격하고 이어 東北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서 京春가도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연대가 도하하는 즉시로 공격하게된 南山은 오전중 선봉으로 공격한 美 제32연대(Beuchamp 대령)에 의해 이미 점령되었으나 아직 적의 저항은 도처에서 그치지 않았다.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제17연대는 南山 東쪽능선의 낮은 곳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른 일부병력은 東北쪽을 공격하여 普光洞 일대와 174高地(벼봉)를 장악하는 한편 야간에는 선두공격제대에 의해 舞鶴女高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일대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미 적의 저항은 쇠퇴하여 졌으므로 아군의 진격은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제17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를 병진시켜 돌격제대로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는데 柳昌燁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공격제대의 우측에서 美 포병대대의 지원 밑에 공격을 계속하여 다음날 02.00에는 下往十里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咸成烈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左측에서 美 육군 32연대의 南山 확보를 지원하

였고 魯義孚 소령의 제3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행동하였다.

美 제32연대의 최초목표였던 南山과 그 東쪽 3km에 있는 매봉 121高地가 점령된 다음에 이 연대는 中浪橋를 기점으로 하면서 中浪川 우측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서울 西측방을 담당하고 있는 韓國 해병대의 각 대대가 각기 北阿峴洞—蠶頭—麻浦를 지나 元曉路 三角地 일대를 지향하여 서울에 돌입하고 있었다.

9월 26일 : 下往十里 일대에 진출한 제17연대는 이날 비명 東쪽 고지대를 장악하게 되고 각 대대는 서울 南東쪽 외곽선의 포위와 차단을 위해 계속 東진 하였는데 제3대대는 망우리에 제2대대는 廣場里 그리고 제1대대는 面牧洞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 참전자의 증언

◇ 해병대 제5대대의 인천상륙

해병대 수색중대장 金鍾植 대위

(1965년 6월15일, 해병사단 참모장실, 대령)

나는 金聖恩부대가 상륙할 때 같이 仁川에 상륙하였다.

수색중대는 統營에서 防衛隊員 80名을 입대시켜 도합 120명으로 편성되었다.

◇ 해병대 제3대대의 漢江도하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3소대 3분대장 池永祚

(1966년 3월9일, 해병대사령부, 上士)

저희들이 漢江을 건는것은 날자는 잘 기억할수 없으나 LVT(수륙양용차)를 타고 새벽에 마포쪽으로 강을 건넜다. 그후 麻浦에서 우리는 또 金浦로 들어갔다.

◇ 한국육군 제17연대의 참전

본부 작전과장 孔國鎭 대령

(1965년 6월15일, 韓一제지회사 사장실, 예비역중장)

仁川 상륙작전에 처음에는 韓國軍 부대를 편성에 넣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 수도를 탈환하는데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美 장군과 나는 최소한 1개전투단이라도 그편성에 넣어달라고 극력 주장 했다. 이렇게되어 나는 17연대를 데려다가 편성하게된 것 외에는 잘 모르겠다.

◇ 한국군 제17연대의 仁川상륙과 漢江도하

육군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

(1966년 12월15일, 仁川, 예비역중장)

韓國의 수도 만은 韓國軍으로 탈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맥아더원수의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당시 韓國 해병대만 가지고서는 만족할 만한 인원이 못되었기 때문에 제17연대도 참가하게 된것이라고 본다.

내가 상륙작전에 참가하기전 당시 大統領이신 李박사께서 부르신다기에 갔더니 주요한 작전에 참가하는 연대장으로 가겠는가 사단장을 그냥 하겠는가를 물었다.

나는 여기에서 "직책이 무슨상관이 있읍니까 저같은 사람에게 수도탈환의 중책을 맡기니 그 책임이 무엇보다도 무겁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李 박사는 내 태도를 칭찬하고 나서 어느 연대를 지휘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물기에 고생

을 많이한 제17연대가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나의 제언을 받아 주었다.

3일 동안에 부대의 재편성을 마친 나는 日本으로 우리부대가 필요한 훈련을 받으로 가는줄 알고 있으며 직접 여기에서 작전에 참가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배는 극비리에 濟州島 근해를 항해하는 사이 하루를 보내고 仁川 앞바다로 갔는데 이때에는 우리 해병대도 어느 다른부대도 仁川에 상륙하지 않았었다.

상륙 30분전 함포사격을 하고 美해병대의 선진(先軍)이 아침 05.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상륙주점은 수천척을 헤아렸고 仁川은 불바다로 화하고 있었다.

月尾島가 30~40분만에 점령되고 이날 15.00경이 되어서 맥아더원수가 상륙했다. 우리연대는 바다에 그냥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상륙을 했다.

상륙후 연대는 富平—墨石洞으로 갔다.

仁川상륙전은 30분간 포격끝에 月尾島를 점령하고 그것으로 사실상 끝난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해병대가 들어갈때는 先해병대가 들어간 후라 잔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가 墨石洞에서 南山을 공격하는데 해병대는 延禧高地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육군제17연대 중대장 朴熔根 중위

(1957년 2월1일, 감사원, 예비역, 준장)

제17연대가 서울에 들어와서 직접 전투한것은 1대대 밖에 없는것으로 안다.

우리는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3척의배에 나누어 탔는데 仁川에 가니까 함포사격소리가 요란하였다.

우리부대가 仁川상륙후 永登浦국민학교로 갔으며 여기에서 우리부대가 다음 어디로 이동한다는것 조차 모르는 가운데 墨石洞에서 漢南洞



<부대편성을 마치고 釜山에서 李承晩대통령의 사열을 받고있는 韓國軍 제17연대>

쪽으로 漢江을 건넜다. 우리부대가 漢江을 도하하자 南山에서 적탄이 날아왔지만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지형상의 불리로 약간의 손실을 보았다. 이때 우리부대의 임무는 韓國해병대와 美해병대가 延禧高地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의 퇴로를 막는 것이었다.

우리중대가 그 당시 모범중대가 되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경무대에 가서 [illegible] 경비를 담당했다. 그때 서울거리에는 「백인엽장군 입성 환영」이라는 푸랑카-드가 걸려 있던것을 기억할 수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우리부대의 환영식에는 白仁燁 연대장이 참석했고 저희들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때 노획무기 전시회가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육군제 17연대 S—3 李極星

(1967년 2월14일, 住宅公社, 에비역 준장)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기전 우리부대는 釜山에서 제5연대가 있던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탔다. 나는 전화로 釜山 육군본부에 조속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즉시 열차로 釜山에 갔다.

임무교대는 李 용(장군)하고 하였으며 釜山에 갈때에는 다시 되돌아 올줄 알았다. 나는 총장실에서 白仁燁 장군도 만날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丁總長은 나에게 너의 부대는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리알고 부대의 S—3장교로서 일을맡아 우선 신병교육 계획을 짜라고 했다.

나는 그 다음날 도착한 신병들의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 입힌다음 부대편성에 착수했다. 우리는 승선후 배안에서 10일정도 있었는데 우리배에는 CIC요원도 있고 金日龍 장군도 동승하고 있었다.

우리부대가 漢江을 도하하고 있을때는 이미 선두부대가 지금 南山 외인주택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육군제17연대 소대장 金秉元

(1967년 11월1일, 2군사령부, 중령)

우리연대는 仁川 상륙후 富平까지 일부병력 운도보로 일부병력은 열차로 왔다.

永登浦 근처에서 산발적인 저항을 받았고 우리는 始興길으로 해서 上道洞을 경유 西氷庫쪽으로 漢江을 건넜다.

육군제17연대 3대대 분대장 李喜敬 2등중사

(1966년 4월16일, 南鮮旅館, 예비역 2등중사)

우리가 仁川에 상륙후 척후분대가 앞으로 나갔으며 그때 우리 중대에서 나는 1개분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중대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仁川시가의 어느 파사점에 들어가니까 지하실에 인민군 부상병이 30명 가량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로 8명을 잡았는데 그중에는 간호장교도 있었다. 이공으로 나온후에 금성 화랑훈장을 탔다.

육군제17연대 근무중대장 曺鉉成

(1956년 6월28일, 東洋製菓, 예비역 대령)

근무중대는 제1대대와 행동을 같이 하였다. 우리중대는 맨죽거리로해서 西氷庫로 올라와가지고 한양대학을 거쳐 망우리로 간 생각이난다. 그때 연대CP는 華陽里에 있었다. 그후 우리는 일선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북괴군이 퇴각할때 장치한 함정때문에 피해를 입을번 했다.

6. 서울 市街戰 (50년 9월 25일부터 50년 9월 2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4, 35 호
상 황 도 제 40, 41 호
작명부록 제104, 1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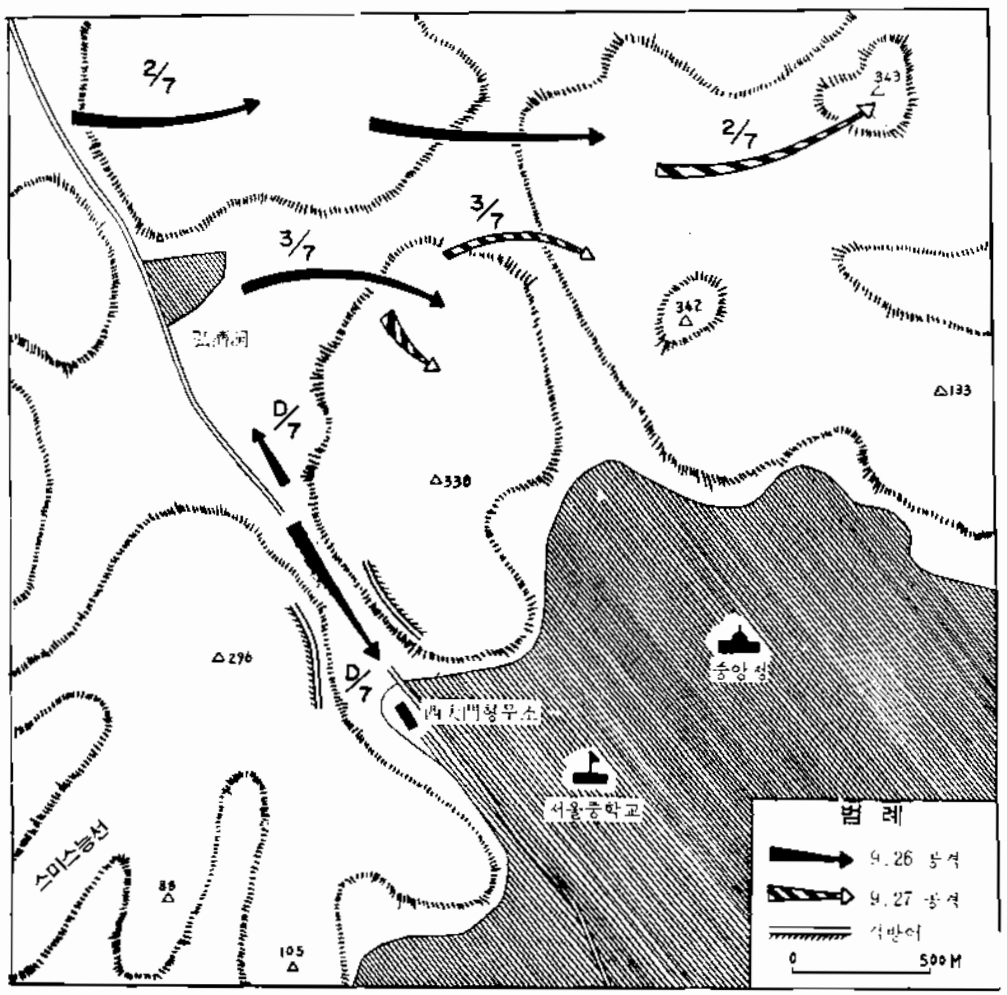
가. 一般狀況과 美 해병 사단의 서울 突入

9月 25日 : 이날 주간에 서울 西側방 외곽지역의 적을 완전 소탕한 美 해병사단 각 연대와 韓國 해병대는 반월형의 진영을 갖추어 일제히 서울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앞서 美 해병사단은 서울진압에 필요한 각 연대의 전투지경선과 점령하여야 할 주요목표를 명시한 작전명령「11—50」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韓國 해병제2대대 金鍾旗와 같이 싸우게된 美 제1연대는 시가 중심부를 거쳐 미아리고개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韓國 해병제1대대(高占默 소령)와 협동하게 된 美 제5연대는 중앙청을 포함한 지역을 그리고 韓國 해병제5대대(金大植 중령)와 美 제7연대는 北쪽의 높은 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또 韓國 해병대의 일부 부대는 사단예비로써 행동하게 되었다.

이때 제10군단 사령부는 서울을 탈환하는 부대가 西쪽의 벽과 南쪽의 벽을 넘어 그 일부는 시내에 이미 돌입하였기 때문에, 다음 날인 26일에는 서울이 완전히 탈환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며 스미스 美 해병사단장도 제10군단의 생각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 제10군단은「북괴군이 속속 북방으로 퇴각하고 있다.」라는 항공정보가 입수 되었으므로 알몬드 소장은 이 정보의 정확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곧 항공정찰을 명령하는 한편 군단포병으로 하여금 北으로 통하는 彌阿里 고개와 東大門 통로에 대하여 저지사격을 집중 실시하고 공군에 대해 야간공격을 요청하기로 조치하였다. 이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의 퇴각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접수하게 된 군단장은 곧 해병사단에 대하여 야간공격을 계속토록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 스미스 美 해병사단장의 상황판단으로서는 이날까지도 적 퇴각의 징후가 전혀 없었으므로 서울을 방어하는 적군은 끝까지 이를 고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스미스해병사단장은 26일 서울 완전탈환을 목전에 두고 밤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부대간의 협조를 준비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야간에 복잡한 시가지에서 있기 쉬운 상호지원의 곤란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을 피하기 위해 야간공격을 중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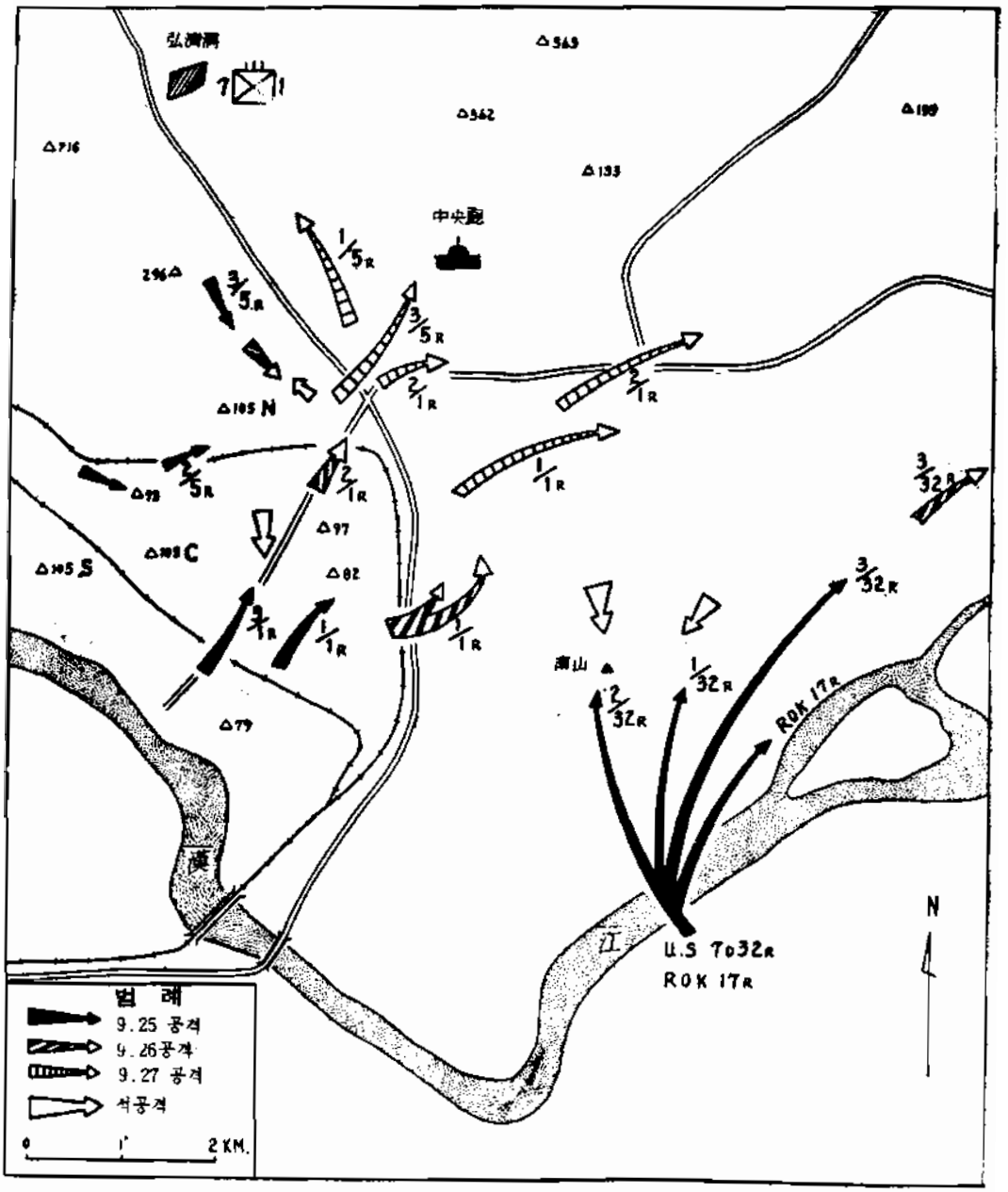
제10군단 사령부와 해병사령부는 이 야간 공격명령으로 서로 상이한 의견이 오고 갔으나

상황도 제40호 美 해병 제7연대의 진격(50. 9. 25~27)



결국 제10군단의 공격명령은 확고한 적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야간공격을 바라지 않고 있던 스미스 사단장은 22. 00에 펄러(Puller)대령과 머레이(Murray)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공격을 명령하면서 아울러 야간에서의 상호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각 부대는 가로(街路)를 따라 전진하고 3개 연대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격명령을 받게된 美 해병 제5연대는 西大門 형무소 西쪽에서 북괴군의 역습을 격퇴한 제3대대(Taplett 중령)를 기간으로 하여 공격을 계속토록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야간공격에 앞서 적은 마치 아군의 기선(機先)이나 제압하려는듯이 약 200명의 병력으로 반격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이 적

상황도 제41호. 美 해병대 및 美 보병제7사단의 서울시가전(50.9.26~27)



을 격퇴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6일 04.45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25일 밤 제5연대는 제1연대와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북쪽의 제7연대도 제5연대와의 접촉을 위해정찰대를 보냈으나 역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9月 26日 : 美 제1연대(Puller 대령)는 이날 01.30시부터 15분간의 포병 준비사격을 가한 다음 제3대대(Ridge 중령)로서 漢江 전차길을 따라 공격을 시작하도록 그 준비를 서둘게 했다. 이 공격 준비사격이 끝나 제3대대 정찰대가 약간 전진하고 있을 무렵 이 근방에서 미리부터 역습을 준비하고 있던 적의 대부대와 불시에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01.53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게 된 연대장은 곧 제2차 포병 탄막사격을 15분간에 걸쳐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대대 주력부대를 보내 이 적을 격멸케로 하였다.

박격포와 전차 및 자동화기가 합세한 제2차 탄막사격은 12대의 전차와 2문의 자주포와 그리고 120mm박격포로써 엄호된 약 700명의 북괴군들의 머리 위에 일시에 집중되었다. 적의 선두 전차는 자기들이 미리 대설하여 놓았던 지뢰의 폭발로 파괴되었고 그밖의 전차들은 75mm와 로켓트포에 의해 여지없이 격파되기에 이르렀다. 수외의 가옥과 건물들이 타오르는 불길은 밤 하늘을 뚫고 높이 솟아 올라 제3대대 전면까지 휘황하게 비쳐 주었으며 피아의 치열한 포격과 소화기의 사격은 사방으로 그 불꽃을 튀기어 마치 이 불꽃은 7색 무지개를 방불케 하였다. 美 제1연대가 실시키로 된 야간공격은 여지껏 없던 싸움으로 자연 중지하는 바 되었지만 이 싸움은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날이 밝자 美 해병제1연대는 83명의 포로를 사로 잡았으며 4대의 전차와 2대의 자주포를 노획하는 동시에 그의 진전에서 250명의 적의 유기시체를 발견하였다.

이날 밤의 포병사격은 그 발사속도에 있어서 韓國전쟁 이래 최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치열하였기 때문에 계속 포탄보급을 요청한 연대 작전주임에게 포병대대장은 이렇게 사격하다가는 포신이 타 버린다고 불평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적의 역습과 연대간에 접촉을 유지할 수 없었던 美 해병사단은 명령대로 전진할 수 없었고 이날 아침까지도 대대 배치는 지난 저녁과 다름이 없었다. 전날 서울 점축방 중요고지가 美 해병 제5연대와 韓國 해병대에 의하여, 그리고 南山도 또한 美 제32연대(Beauchamp 대령)에 의하여 각각 점령되어 서울 방어력이 점차로 약화되기에 이른 것을 느낀 북괴군 사령부는 서울 확보의 기정방침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25일~26일 사이 야간에 일부 부대로써 지연전을 감행하고 이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주력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 적 주력부대는 永登浦 부근에서 싸우던 북괴군 제18사단이었는데 그들은 지난 24일에 서울로 이동 집결하였으며 사단의 일부 부대를 남겨 놓은 채 다음 날 저녁 약 5,000명의 병력을 뽑아 鐵原을 향하여 議政府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퇴각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 철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북괴군 사령관은 서울에 들어온 전 부대에 재하여 곳곳마다 최후발악적인 역습을 감행케 한 것이다. 南山을 점령한 美 보병 제32연대에 대하여는 적 1대대대의 병력이, 그리고 美 해병제1연대 제3대대에 대하여는 증강된 대대병력이 역습을 감행하였고 또한 美 해병제5연대에 대하여는 또 다른 1개대대의 적이 최후 공세를 취하였던 것이다.

적의 이러한 모든 공격이 완화된 아침까지 美 해병사단은 전진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단 작전명령 「12~50」에 의하여 12.30에 공격을 다시 시작하게된 美 해병제1연대 제2대대는 麻浦에서 시내 쪽으로 통하는 가도를 따라 하루 종일 공격하였으며 적은 이때 요소 요소에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고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오후 부터는 최후발악하는 그들의 힘이 점차로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鞍山의 고지대로 부터 시내에 돌입한 美 해병 제5연대 역시 美 제1연대 정면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서울을 북쪽으로부터 포위하도록 명령을 받은 美 해병제7연대는 開城-서울 국도를 따라 남진하여 D중대를 그들 인접부대인 제5연대와의 연결을 위해 힘 쓰게 하고 그 주력은 北岳山을 거쳐 서울東北쪽 彌阿里 고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D중대가 靈泉 고개를 넘어 獨立門을 향해 별로 경계도 없이 전진하고 있을 때 右側 西大門 형무소와 前面으로부터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이 중대는 순식간에 40명의 사상자를 내어 계속 전투 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D중대는 고립된 채 이날 오후 2대의 항공기로부터 재보급을 받고서야 소생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전진은 하지 못하였다.

연대 주력은 샛길 박에 없는 험한 암석지대를 지나 진격하는 동안 소수의 적으로 부터 간단없는 방해를 받게 되었다.

이날 저녁까지 제10군단이 점령할 수 있었던 지역은 서울시가의 약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東京에 있던 맥아더 사령관은 25일 있었던 알몬드소장의 서울 해방성명에 이어 14.10 UN군 성명서 제9호를 발표하고 있었다.

UN군 성명서 제9호의 내용는 「한국의 수도 서울은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왔다. 韓國군 제17연대와 美 보병제7사단 그리고 제1해병사단을 포함한 UN군 각 부대는 서울을 포위하고 이것을 완전히 탈환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9月 27日 : 이날 상황은 제10군단과 UN군 총사령부의 완전점령 성명에도 불구하고 시내

에서는 여전히 바리케이트를 둘러 싼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 바리케이트는 도심부에 가까워 질수록 그 간격은 좁아져 300~ 350m마다 가로를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바리케이트는 마대(麻袋)와 빈 가마니 속에 흙을 넣어 가슴 높이 정도로 길을 막아 쌓아 올렸고 그 前면은 어느 것이나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또한 側면과 후면의 건물은 요새화시켜 창문에는 대전차포와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 뒤에 있는 건물옥상에는 박격포 진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아군을 보기만 하면 마구 쏘아대는 것이었다.

이날 해병대의 전투는 이 바리케이트를 하나 하나 제거하고 격파하는 것이 그 대부분의 싸움이었는데 우군 항공기가 적을 맹렬히 공격하고 공병부대가 이 바리케이트에 접근, 지뢰를 폭파시키는 동안 우군의 박격포는 이를 엄호하였다. 이 보다 앞서 아군의 전차는 2~3대가량이 그룹이 되어 바리케이트에 육박하여 대전차포와 자동화기를 격파시켰으며 간혹 화염방사 전차는 완강히 저항하는 진지를 유린하여 장벽력(障壁力)을 감퇴시키는 것이었다. 아군의 전차에 수행하는 보병부대는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저격병을 발견하는 즉시로 부근 건물의 안팎을 모두 복멸하여야만 되었다. 하나의 바리케이트



<美 전차부대의 서울진입>

때문에 1개대대가 한 시간 가까이나 전진을 늦추는 일이 적지 않았으니 적이 시가지 방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던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다.

美 제1연대 제2대대는 麻浦에서 서울시가 중심부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여 佛蘭西 대사관과 전 蘇聯 영사관을 거쳐 15.37에 미국대사관에 비로소 성조기를 하늘 높이 게양하게 되었다.

한편 동 연대 제1대대(Allan Sutter 중령)는 심한 격전 끝에 오전 중 서울역을 점령하고 南大門 가도를 따라 북향하는 도중 적이 구축한 바리케이트에 여러 번 부닥치게 되었으며 같이 싸우는 韓國 해병대는 연도에서 환호(歡呼)하는 시민들에 답례하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적을 색출하고 있었다.

西北쪽에서 공격하고 있던 美 해병제5연대는 전일과는 너무도 기세가 꺾인 판이한 적군의 전의(戰意)에 놀라면서 순조롭게 이날 진격을 계속하였다. E중대는 아무 저항없이 西大門 형무소를 점령하고 오전 중 제3대대(Taplett 중령)는 서울중학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5.08서에는 그의 G중대와 I중대는 선두전차가 光化門 네거리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격파하고 韓國 해병대제2대대(金鍾淇 소령)에 이어 中央廳을 점거하고 성조기를 올렸다. 이날 제1대대(Newton 중령)는 제3대대에 뒤 따라 오후 서울중학교에 도달하고 왼쪽으로 돌아 338高地를 공격하여 19.00에는 이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9月 27日 : 美 해병사단 左일선에 배치된 美 해병제7연대(Litzenberg 대령)는 城北洞 北쪽의 343高地를 점령하고 제3대대는 北岳山(△342)의 적을 공격하였다. 한편 제1대대가 배치되어 있던 幸州 지역에서는 12.00경 적 1개중대가 126高地에 내해 역습해 왔으나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하였다. 이로써 늦게 참전한 美 해병제7연대는 9월 23일부터 이날까지 획득한 전과는 적 사살 775명 포로 34명이었다.

나. 韓國 해병대의 시가지 전투 (상황도 제40.41호참조)

9月 25日 : 美 해병대와 행동을 같이 한 韓國 해병대는 이날 서울 西北 및 南西쪽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는 적의 저항을 분쇄하면서 서울 시가지에 돌입하고 있었다.

高宮勳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美 해병제5연대 제2대대와 함께 延禧高地를 지나 부근 일대의 적을 섬멸하면서 北阿峴洞으로 돌입하였고 金鍾淇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陵谷과 水色등지에서의 작전을 마치고 美 해병제1연대와 같이 진격하여 西江(당인리 발전소

경유 麻浦로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10.00 水色 해병대사령부에 도착한 金鍾鼎 부대는 제5대대로 개칭되어 새로이 金大鎭 중령이 지휘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18.00부터는(제25중대제외) 美 해병제1연대와 같이 서울시 北쪽구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韓國 해병대가 서울돌입에 따르는 각 대대의 담당구역은 美 해병사단 작명[11—50]에 의거한 것인데 그 요지(要旨)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즉 제1대대는 美 해병제5연대구역으로 할당된 목표 B(Daker)와 중앙청을 포함한 景福洞, 仁旺山(338高地)지역, 제2대대는 美 해병 제1연대지역인 목표 A(Able) 133高地와 시가 중심부, 제5대대는 목표 C(Charlie)와 부근 지역 일대이었다.

이날 밤 퇴각하는 적을 즉시 추격하라는 제10군단에서 美 해병사단에 하달된 야간 공격명령에 따라 행동을 개시한 韓國 해병대는 美 해병대의 공격제대와 같이 때에 따라 그 선진을 서로 교대하였는데 선두에 韓國 해병대가 진출하면 美해병대가 뒷쪽에서 추월(追越)한 다음 다시 잔적을 시작하고 아 해병대는 남아 있는 적을 색출하여 복멸한다는 그러한 방식(方式)이었다. 그리고 美軍과의 거리는 통상 500~600m의 간격을 둔 밀접한 협동작전(協同作戰)이었던 것이다. 이날 北阿峴洞 쪽으로 돌입하고 그 부근 일대를 장악하면서 진격하고 있던 제1대대는 西大門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고전을 거듭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도 적은 麻浦와 新村으로 통한 阿峴洞 노타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하였으며 京畿工高 옥상에는 적 기관총좌(機關銃座)가 설치되어 韓國 해병대의 전진을 저지 하고 있었는데 뒤 따르고 있던 美 해병전차의 도움을 얻어 저항하는 적을 분쇄, 섬멸하였다.

이날 13.00경 계속 진격하던 제1대대는 漢城중학교를 점거할 수 있었으며 뒤에 제5대대도 곧 이곳에 진출하였다.

제1대대가 漢城중학교로 진출하는 동안 실시한 시가전은 주로 건물 내에 숨어서 저항하는 적을 찾아내어 복멸하는 것이었으며 이때의 요령은 3인이 1조가 되어 우선 한 사람이 건물 입구를 경계하고 다음 한 사람은 진입한 건물 입구 안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이들의 엄호 가운데 건물 안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었다.

각 중대가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중대장급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병대의 입성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이들 시민에게 전황(戰況)의 진전을 알렸고 또한 적치하(敵治下)에서 굶주렸던 시민들에게는 적이 간직하고 있던 쌀을 찾아, 나누어 주었으며 이렇듯 해병대는 시가지 싸움에서 대민 구호활동도 아울러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편 麻浦로 돌입한 제2대대(金鍾琪 소령)는 이날 밤 전차 길이 있는 큰 거리에서 美 해병대가 치열한 적과의 교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미 漢江 연안을 따라 龍江洞을 거쳐 계속 西坡洞, 元曉路로 진출하여 龍山 경찰서를 점령하고 이들은 그 지하실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손발에 철사가 묶인 채 무참히도 학살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어 성난 사자(獅子)와도 같이 서울 중심부를 행해 진격하는 해병들의 노기(怒氣)를 더욱 충천(衝天)하게 하였다.

밤 중에 있었던 싸움이라 서로의 식별이 곤난하고 美 해병대와 시가지에서 야간합동작전경험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우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싸우게 된 일이 있었다.

그것은 三角地 철로 건널목 부근을 수색하고 있던 제2대대 제5중대(朴成哲 중위)가 밤중 우군인 美 해병대의 1개 소대병력과의 잠시의 충격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건이 그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동 중대는 그 이상의 전진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대대본부가 있는 麻浦국민학교로 되 돌아와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다.

9월 26일

三角地전투 : 미명을 기해 작전을 시작한 제2대대 각중대는 孔德洞과 西坡洞을 거쳐 元曉路와 三角地 부근을 다시 북멸하게 되었다. 이들이 민간의 신고에 따라 미처 도망치 못한 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三角地 근처의 美軍 막사에 즉시 도달하여 그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숨어있다는 적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때 다만 괴수 金日成의 초상화 한 폭이 포격의 진동 때문인지 떨어져 간악한 공산침략자의 일장춘몽(一場春夢)을 말하여 주는듯 마루 바닥에 딩굴고 있었을 뿐이었다.

三角地에서 방향을 돌려 서울역 쪽으로 진격을 멈추지 않은 동 대대는 南營洞과 漢岩洞 그리고 東子洞 일대를 수색북멸하면서 美 해병제1연대와 같이 전진하여 서울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길 가에는 적의 시체가 즐비했고 악취가 코를 찔렀으며 때때로 들려오는 굶주리고 창백한 일군의 시민들의 환호소리가 오히려 처량하고 측은하기만 하였었다.

서울역 부근의 전투 : 이때까지 서울역 구내에는 아직도 퇴각하지 못한 소수의 적이 남아 있었으나 이들은 곧 아군에게 투항하였기 때문에 서울역을 탈환하는데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역 맞은 편 건물(구 세브란스병원, 지금의 南大門署가 있는 자리) 안에는 다수의 적이 숨어 창구마다 총구를 내 놓고 우리 쪽을 향해 심한 집중사격을 가하여 왔다.

여기에서 용감한 해병들은 재빨리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거리를 건너 건물의 사각(死角)으로 진출, 여기서 일부는 창구에 노출된 적병을 사살하고 또한 일부병력은 건물 내에 뛰어 올라 수류탄 공격을 가하여 이들을 복멸하였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주위일대의 건물 안에서 끈질기게 대항하는 적에게는 화염방사 전차의 도움을 얻어 한 놈도 살아 남을 수 없도록 화염으로 불질러 섬멸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전에서의 美軍과 해병대가 지불한 손실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南大門 전투 : 이러한 시가전으로써 서울역 일대를 완전히 확보한 제2대대(金鍾琪 소령)는 일로 南大門을 향하여 진격하였는데 이때 첨병으로 제2대대와 교대하여 선두에서 전진하던 美 해병제2대대는 강력한 적의 바리케이트에 부딪쳐 그 전진이 정지되어 곧 아 제2대대와 교대되었다.

75mm 직사포등 중화기 사격을 받게 된 제2대대 첨병중대는 고전에 빠졌으나 화염방사기와 전차의 지원으로 적은 모조리 섬멸하고야 말았으며 이때 노획한 직사포에는 아직까지도 포탄이 장진된 채로였다.

美 해병대 전차가 항공지원을 얻어 선두에서 하나 하나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면서 전진하는 동안 韓國 해병제2대대는 잔적을 수색하여 모조리 복멸하는 공지(空地)합동의 입체공격은 계획대로 전개되고 전선은 압축 일로로 좁아져 갔다.

서울市廳에 太極旗게양 : 南大門일대의 적이 와해하게 되자 제2대대는 민간인들의 신고로 숨어 있는 적을 잡아 내어 후송하였으며 확보한 지역의 적색분자를 색출하고는 뒤 밀어오는 경찰과 정보원에게 인계하는 동 市廳과 南大門市場 그리고 會賢洞 일대로 공격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작전을 압축하였다. 이때에 朴成哲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는 市廳 앞을 지나 韓國銀行을 거쳐 退溪路로 빠져 海軍本部(전 원호청자리)까지 진출하여 그 일대를 장악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시내 여러 곳에서 총포 소리가 요란하였다.

또 이당시 沈相學 중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는 小公洞 일대에 진출하였으며 그 제1소대(朴正模 소위 지휘)는 中央廳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들이 서울市廳 앞에 진출하여서는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적을 화염방사기로써 한꺼번에 불태워 버리고 이날 시청 지붕 위에 펄럭이던 적기(인공기)를 찢어 버린 후 소지했던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이들은 여기에서 中央廳에도 갈겨어린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 대대의 통제를 벗어나 계속 朝鮮日報社와 東亞日報社 앞까지 전진하였다. 그러나 가도 양편에는 개인 엄호를 구



<불타고 있는 중앙청(9월 27일)>

축하고 2~3명씩의 적이 완강이 저항하였고 또한 光化門 네거리에는 적의 견고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부득이 본대로 21.00경 돌아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가전에 있어서의 공(功)에 대한 칭찬 보다도 오히려 상부의 통제를 벗어 났다는 꾸지람을 받은 바가 더욱 컸으나 이들의 초지(初志)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날 제6중대는 朝鮮 호텔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으나 朴소위의 머리 속에는 중앙청의 태극기 게양 문제로 꽉 차있었다.

당시 종군하고 있던 朴聖煥 기자는 朴 소위에게 李承晩 대통령이 中央廳에는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면서 상금도 3,000만원이나 걸려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朴소위에게 권고한 바도 있었다고 한다.

徐廷南 중위가 지휘하는 제8중대는 이날 會賢洞 사무소 근처에서 밤을 새우면서 잔적(殘敵)을 색출하고 있었다. 한편 鄭光鎬 중위가 거느리는 제7중대는 통신 장애로 인하여 본대와의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제7중대는 하는 수 없이 본대가 靑坡洞, 元曉路 방면으로 진출할 무렵 麻浦에서 西大門을 따라 美 해병대 제2대대와 같이 忠正路까지 전진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꼬박 12시간동안 대대와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독자적으로 전투하다가 가진 노력 끝에 개통된 무전연락으로 비로소 서울역에 위치한 본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西大門 방면으로 공격한 제1대대(高吉勳 소령)는 이날 하루 종일 적을 섬멸하고 밤에는 北阿峴洞 救世軍 본부 뒷 산에서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Taplett 중령)와 같이 합동하여 밤을 새우면서 부대를 정비하는 한편 잔적색출에 힘썼던 것이다. 또 한편 북쪽에서 공격한 제5대대(金大植 중령)는 美 7연대와 협동하여 鬼門洞에서 서울—汝矣島 사도를 西쪽에서 東쪽으로 횡단하면서 공격하여 338 高地(仁旺山) 1km北쪽과 北岳山(△342)의 1km北쪽의 산악지대를 모조리 장악하였다.

이날 저녁까지 韓國 해병대와 美軍은 서울시의 1/3를 확보하는 형세가 되었으나 이것은 당초 UN군 총사령부에서 희망하는 날자보다 약 1주일이나 지연된 셈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적이 온갖 발악으로 끝까지 서울에서 버티어 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주공 방향인 서울 西측방 고지일대에서 총력을 다한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부득이 우군의 전진은 늦어졌고 그들 주저항선이 무너진 25일 밤에 있었던 적의 발악적인 역습 역시 더욱 서울탈환의 시일을 늦추게 하였다.

적의 저항력이 거의 와해(瓦解)된 이날은 적이 가두 요소 요소에 설치한 바리케이드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데 시간을 끄는 결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전일에 비한다면 그 전진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해병대가 전진하는 가두마다 적 치하에서 도망아닌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를 보냈으며 또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잔적색출에 협력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그 전격이 감격에 넘치고 이들의 사기를 충천케 하였지만 해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남녀노소(男女老少)의 애국시민들이 적에게 항거하다 학살된 처참한 시체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실이다.

韓國 고유(固有)의 명절 날인 추석(秋夕) 전 날이었던 이날 밤은 무척 고요하여 적은 이미 저항을 단념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大韓民國 수도 서울은 서서이 격렬하였던 전투끝에 우리의 것으로서 다시 되돌아 오고 있었던 것이다.

상금이야 얼마이든 아랑곳 없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나의 손으로 게양하고야 말겠다는 朴소위의 집념은 드디어 관철되어 이날 밤 대대장의 허락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부대의 전투지역을 침범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朴소위에게는 그러 문제가 되지 않았다.

9월 27일 : 동이 트기전 朴소위는 소대를 지휘하여 03.00에 중앙청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면서 世宗路를 향하였다. 소대장은 준비한 태극기를 몸에 감고 2m 가량이 좀 넘는 막대기를 대원이 가지고 있게 하였다. 소대가 사주(四周)를 엄히 경계하면서 朝鮮日報社 앞을 지나고 있을 무렵 적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사격을 받았다. 소대는 곧이에 대전(對戰)하여 2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며 마침내 제1소대가 중앙청 前면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이미 동이 밝아 오고 있었다. 중앙청 正면으로 청내에 돌입한 제1소대는 즉시 청내 수색에 착수하였다.

中央廳에 太極旗 게양 : 이들은 먼저 숨어 있는적을 사살하거나 또는 사로 잡을 작전을 전개하면서 소대장 朴正模 소위는 梁炳洙 2등병조와 崔國方 견습수병등 수명을 이끌고 건물 옥상으로 급히 올라갔다. 소대 병력 중 약 3분의 2를 건물 내에 배치하고 돔(DOM)에 오르는 사다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들은 之자형 쇠다리가 파손되어 있었음으로 하는 수 없이 이들은 로프를 걸어 올라가려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소대원들이 떨어지는 朴소위의 발목을 잡아 위험은 모면하였지만 그것은 로프가 예리한 파편에 맞아 혼적을 가릴수 없게 끊어져 있었던 것도 모르고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소대장은 다시 대원들의 혁대를 모아 이것을 이어 매고 올라갔다. 드디어 돔에 이른 朴소위와 2~3명의 소대원은 06.10 그들이 휴대한 태극기를 12개의 돌 기둥 중앙에다 동여 매는데 성공함으로써 중앙청은 적의 방화로 화염에 휩싸 인채 90일만에 다시금 태극기를 휘날리게 된 것이다.

이 공격으로 제1소대의 梁炳洙 2등병조가 은성훈장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소대장이 그 부하에게 모든 공을 돌려 준 때문이었으며 이 미담은 길이 후세에 까지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해병대가 새벽에 돌진한 중앙청은 우리 해병제1대대와 美 해병제2연대의 목표였으나 朴正模 소위의 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까지 美 해병제5연대의 제3대대는 여기에 대한 공격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다. 美 제5연대와 행동을 같이하는 제1대대의 일부 중대는 이날 06.45에 治泉洞 후면으로 뻗은 鞍山의 능선 돌출부를 공격하여 07.30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西大門으로 돌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서 西大門일대의 잔적을 색출하여 섬멸하면서 美 해병대와 같이 계속 전진하여 10.15 에 서울중학교와 부근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날 12.00 중앙청 목표로 공격을 계속한 동 대대는 美

해병제7연대 제3대대와 같이 15.08 중앙청 안으로 일시(一時)에 돌입하여 이를 점령하였던 것이지만 이 커다란 건물은 사실상 이미 빈 집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대체로 해병 제1대대는 이날 15.00까지는 光化門 십자로에 도달하여 잠시 전진이 저지되었는데 그것은 이 네거리에 설치한 적의 커다란 바리케이드 때문이었으며 이는 곧 지원된 전차에 의해 제거됨으로서 적이 최후로 믿고 있던 진지는 맥 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光化門 일대의 장애물과 숨어 있는 적을 완전히 분쇄하고 섬멸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이날 오후부터는 해병대의 진격은 매우 빨라졌으나 시가전은 이날 밤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이니 이것은 적이 배치한 잔치(殘置)부대의 최후저항에 의한 적의 지연전술에 우군과 아군이 말려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라 할 것이다.



<중앙청앞에 선 金鍾泌 소령>

이와 같이 韓國 해병대는 美 해병 제1사단과의 공동작전으로 西北 쪽에서 공격을 시작한 9월 21일이후 1주일만에야 비로소 서울 중심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 韓國 해병제1대대는 鍾路와 그 北쪽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2대대는 南山 西쪽의 하단부, 筆洞일대로부터 제1대대의 오른쪽 일대의 시가지를 공격하고 이날 밤까지 東大門을 거쳐 淸凉里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北쪽에서 진격한 제5대대는 서울 北쪽의 산악지대를 점령하면서 이날 중으로 北岳山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도 이날 漢城中學校로 이동하고 서울시가지의 잔적 섬멸은 이날 24.00까지는 거의 모두 완료 하게 되었다.

9월 28일 : 해병대는 이날 17연대에게 中央廳舍 및 景武臺 경비임무를 인계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수복된 셈이다. 韓國 해병대는 이 작전에서 25일 이후 적 사살 1,000여명과 500여명의 적을 사로 잡았으며 크고 적은 적의 화기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다. 美 육군 보병제7사단의 진출과 韓國 육군제17연대의 전투

9월 26일 : 이날 새벽 峴山을 공격한 적의 반격을 격전 끝에 격퇴하여 버린 美 보병제7사단 예하 제32연대는 이날 종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美 해병사단의 싸움은 수 없이 설치된 바리케이드에 의지하여 소수이긴 하지만 발악적으로 정면에서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으나 이에 반해 美 제7사단의 싸움은 서울 東쪽 외곽도로를 따라 퇴각하는 적과 조우하게 되므로서 일어난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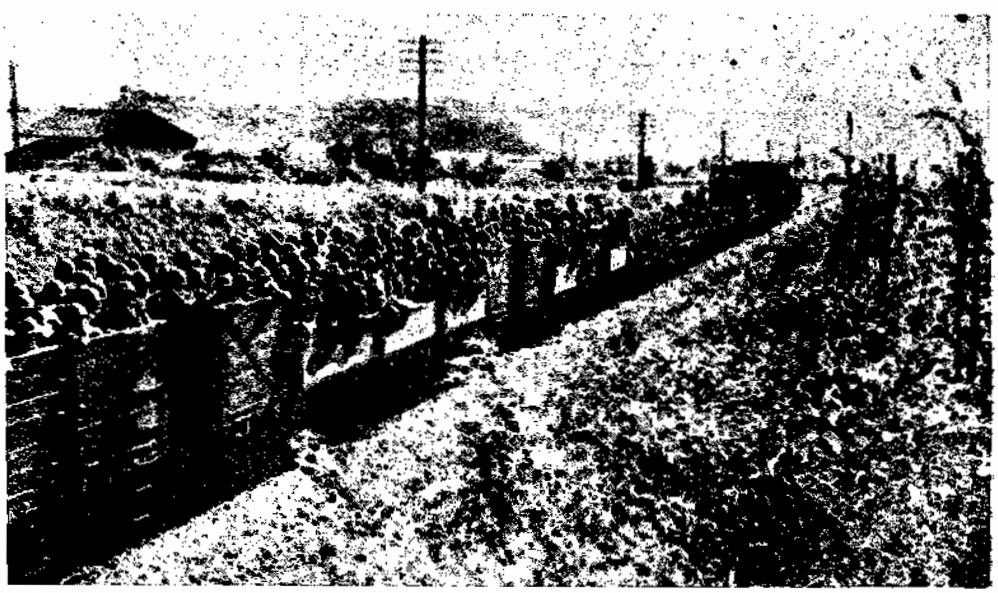
美 제32연대 제3대대는 이날 孃思洞 일대까지 진출하여 往十里 방면으로 패주하는 적의 대열을 발견하게 되자 곧 공중지원을 요청하여 이미 전의를 잃고 있던 적의 대열을 격파, 분산시킨 다음 이어 전차로 증강된 L중대는 이를 복멸하고 계속 東大門 방향으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美 제32연대가 이날 종 거둔 전과는 적 사살이 500명에 달하고 전차 5대와 차량 45대, 그리고 포 3문을 노획하고 탄약집적소 2개소를 파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손실로서는 전사 6명과 부상자 92명, 그리고 실종 3명을 내게 되었다.

이 당시 美 제32연대와 병행진격하면서 서울 東쪽의 외곽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진한 韓國 육군제17연대(白仁燁대령)는 이날 지휘소를 九宜洞에 옮긴 다음 동쪽으로 6km, 北쪽으로 8km에 걸친 지역을 확보하여 새로운 전투세력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제17연대가 26일 첫 전투에서 얻은 전과는 忠武路一丁目牧洞 일대에 진출한 제1대대가 京畿 가도를 따라 퇴각하는 적의 전차 10대를 노획한 것과 廣州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 오는 적의 영관급 이상 장교와 당 간부가 타고 있던 트럭 한 대를 공격하여 모조리 포로로 한 싸움이었다. 제1중대가 전개한 이 전투는 용감한 사병 2명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것인데 중대장 양성식 대위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 곧 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경계병으로 있던 대원 2명이 M1소총을 가지고 적 전차 앞으로 닥아서서 적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적의 전차병은 모두 손을 들고 나와 무난히 이들을 포로로 하고 전차를 노획하였는데 그후에 나타나게 된 아군 항공기가 이들 적 전차를 파괴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이 사기를 잃고 패주하는 적은 이미 아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전쟁 초기에 내습하는 적의 전차에 대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맨주먹으로 항거하고 있던 당시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중대에게는 또 한가지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적이 순진한 학생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침략전쟁 수단에 이용하였던 사실은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學生이라고 자칭하는 2명을 잡아 몸을 수색하였던 바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따리 속에는 적의 장교용 군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적의 여군장교이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적 장교의 애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곧 정보계통으로 후송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대대(楠昌燦 소령)가 배치된 정면에 이날 밤 적은 또 내습을 하여 왔는데 달이 밝은 밤이었으므로 적의 병력을 정확히 확인 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대 규모의 많은 병력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경계임무를 띄고 전초에 나갔던 대원이 철수하여 적의 접근을 본대에 알렸다. 이들은 필시 이곳에 아군이 배치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서울로 재침하려는 것이 확실하였다. 이 긴급보고는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된 적의 전진상황은 마치 죽음의 행진처럼 아군의 사격망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진지에서 일제히 총구를 적의 대열에 지향한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대대장의 사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의 대열이 화망(火網)속에 들어 섰을 때 대대장의 사격명령은 비로소 내려졌다. 23.00경 전개된 피아의 전투는 예비대였던 제3대대의 투입과 美 제7사단 기갑부대의 증원을 얻어 적을 완전 격멸하였지만 전투는 27일 05.00까



<仁川 상륙후 기차편으로 永登浦로 이동중인 한국육군 제17연대 용사들>

지 계속되었다. 총열이 달도록 사격전은 계속된 이 전투에서 적은 불의의 기습을 받게 된 결과가 되어 집퇴유곡에 빠져 이들은 살기 위하여서 보다는 차라리 빨리 죽기 위하여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날이 밝아서야 전투는 겨우 끝났지만 적의 시체는 혈우(血雨)가 낭자한 가운데 도처에 흐터져 있었다. 이곳에서 포로된 적병은 17 내지18세의 연소자들이 많았으며 서울에서 강제로 끌려 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매우 서글픈 일이기도 하였다.

서울에 들어가면 부모들을 만나게 한다는 적의 악독한 기만에 끌려 무참히 살해된 것이니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이 싸움이야 말로 수(數) 없는 애화(哀話)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죽은 나어린 적의 병정은 500을 넘었는데 우리 장병들은 모두 "황천(皇天)이시여! 金日成 도당(徒黨)들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죄악(罪惡)을 다스리옵소서"라고 합장(合掌)기도하는 심정(心情)으로 가슴을 조였던 것이었다.

9월 28일 : 제17연대는 이날 아침 韓國 해병대가 서울시가 西쪽에서 동진(東進)하여 중심부의 잔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계속 동부 외곽으로 전과를 확대하고 있을 무렵 서울 東南쪽의 잔적을 복멸하면서 연대본부는 往十里로 부터 서울 중심지로 입성하게 되었다. 이날 12.00경 서울 완전탈환을 입증하는듯 중앙우체국 앞에서 白仁燁 연대장은 해병대 사령관인 申鉉俊 사령관을 만나게 됨으로써 더욱 감격을 새로이 하였고 이날 24.00를 기하여 제17연대는 中央廳 및 景武臺(현青瓦臺)의 경비임무를 해병대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라. 서울 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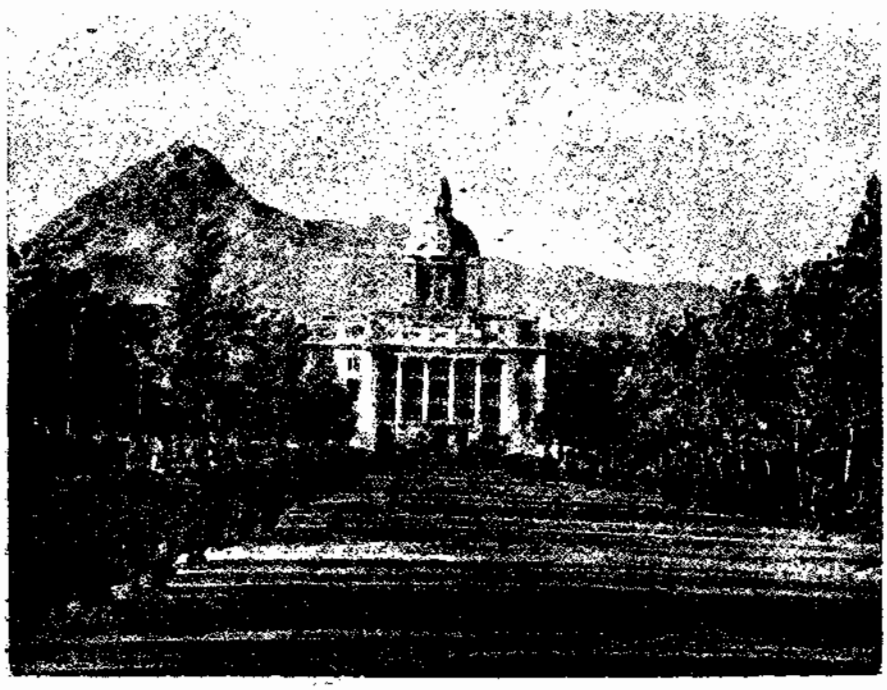
9월 29일 : 맥아더사령관은 9월 23일 東京에 귀환하자 美國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멧세지를 통하여 李大統領과 韓國 정부의 고위각료 및 입법부 사법부의 요원, 그리고 UN韓國위원회와 서울에 수복하려는 관민들을 치안이 허용하는 한 빨리 입성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은 28일까지도 아직 수복행사(收復行事)를 할 수 있을만치 모든 정세는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이 완전히 탈환된 이날 낮부터 서울시는 시정을 재개할 수가 있었고 경찰은 그 기능을 점차로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파괴된 건물을 정리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제10군단은 긴급 수송된 50톤의 미곡과 적이 압류하였

던 많은 양의 양곡을 풀어 굶주린 시민에게 배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그래도 구우(九牛) 일모격(一毛格)을 면치 못하였다. 이날 임시 수도였던 釜山 역전광장에서는 수도 탈환의 경축식이 거행되었고 李承晩대통령은 맥아더사령관에게 서울 탈환을 축하하는 멧세지를 전달하였다. 수복된 서울에 앞을 다투어 들어 온 관민들은 자진 수복준비를 위하여 동원된 불도저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자 썩은 시체들을 치장(治葬)하는 작업에 협력하는데 동원되어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시가는 온통 뒤끓고 있었다. 이날 주공부대인 美 해병제1사단 본부도 오후 서울로입성하여 현 美 제8군사령부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9월 23일 : 맥아더 사령관과 그 일행이 이날 10.00 東京에서 金浦 비행장에 도착하자 알몬드 소장과 제10군단 고급장교들은 맥아더 원수를 영접하였으며 맥아더 원수는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현지군 수뇌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잠시후 李承晩 대통령일행도 金浦 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맥아더 원수와 함께 일행은 서울시내로 행하였다.

일행이 통과하는 연도에는 포격으로 파괴되고 시가전으로 불타 버린 쓸쓸한 거리이기는 하였으나 어느새 시민들이 몰려 와 줄 지어서서 정신없이 太極旗와 星條旗를 흔들며 입성



<서울 수복>

하는 맥아더 원수와 李大統領 일행에게 만세를 부르며 열렬한 환호성을 보내 주었다.

환도식이 거행된 식장주변은 韓國 해병대(申鉉俊 대령)와 韓國 육군제17연대(白仁燁 대령) 그리고 美 해병대 일부병력이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였으며 또한 美 해병제1연대 3대대(Ridge 중령)는 漢江교량부터 서울시가를 그리고 美 해병제5연대 3대대(Taplett 중령)국회의사당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韓國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수도서울의 환도식(還都式)은 12.00시를 기해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선출된 각부처 관리와 시민대표 그리고 서울을 탈환시킨 전투부대지휘관들로 꽉 차 있었는데 맥아더사령관은 李대통령과 함께 식장에 들어 와 귀빈고관들이 있는 단상에 자리 잡았다. 거기에는 워커 중장과 맥아더 사령관의 초청으로 서울에 오게 된 수명의 8군장교들도 있었고 오스트리아 태생의 李대통령 부인도 부군 곁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맥아더원수는 곧 유창한 목소리로 짧막한 연설을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UN깃발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이 韓國의 수도서울을 해방시켰읍니다."그는 전쟁으로 말미아마 황폐된 한국을 원조하기로 다짐한 53개국가의 정당한 분노와 그리고 공산국가에 대한 정신적 반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대통령을 돌아다 보며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각하에 대하여 귀국 정부 소재지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각하가 헌법상의 책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숙과 감격이 넘치는 식장분위기 속에서 맥아더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포성은 때때로 은은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 포성의 진동(震動)탓인지 식장 천정에서 유리조각이 떨어져 일반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였으나 연설하는 맥아더 사령관이나 연설을 경청하는 노(老) 대통령에게는 개의되지 않았다. 가끔 소총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맥아더 사령관은 맨 나중에 드린 기도로써 약 5분간에 걸친 연설을 끝 마치게 되고 李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격에 벅차 있던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손으로 폈다 오무렸다 하면서 청중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 갔는데 그 서두에서 李 대통령은 "나 자신이나 韓國 국민의 끝없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런지?" 라고 전재하고 말을 이어 갔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이 끝나자 맥아더사령관은 13.35에 金浦 공항을 향해 출발하여

東京으로 향발(向發)하였다.

이 역사적인 수도서울의 수복식은 이 식전(式典)을 빛 낼만한 의장대(儀仗隊)와 군악대도 없었다.(註1)

식이 끝난 이날 오후부터 정부는 서울에서 곧 집무를 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환도에 뒤 이어 정부 관하의 각 기관과 모든 피난민도 속속 서울로 귀환하게 되었다.

서울에 돌 아온 李대통령은 정무여가를 이용하여 피난민이 모인 곳을 방문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당시 적이 침입했던 도시와 촌락지역의 민심은 회복된 주권에 감사하고 해방된 기쁨에 넘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 치하에서 포악무도한 공산당의 학대를 받은 것이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基因)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더구나 납치인사(拉致人士)들의 가족들의 심경은 매우 복잡하였을 것이리라.

사실 당시의 상황은 여러 지역에서 피난을 못하여 귀중한 생명을 공산당에 빼앗긴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다행이 살아난 시민들 마저도 기아(饑餓)와 공포 속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고 이날까지 다만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민심은 은연 중 위정자(爲政者)들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가 없지도 않았을 터이지만 이 당시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의 인심동향에 대하여 적절한 수습책을 신속히 강구할만한 마음과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무난히 漢江을 도하하여 남하할 수 있었던 인사 중에는 자기들만이 방공인사이노라고 스스로 자처하였는가 하면 하는 수 없이 잔류하여 악랄한 적 치하(敵治下)에서 헤어나지 못한 소위 잔류인사들의 고초(苦楚)를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허장성세(虛張盛勢)의 풍조마저 생겨 분노에 찬 겨레의 단결을 저해하기만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소위 도강파니 잔류파니 하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부역자 처단문제에도 공정을 기하지 못한 다소의 과오가 있어 자리를 잡지 못한 서울의 인심을 불안케만 만들고 있었다.

10월 8일에 개회된 국회에서 정부(正副)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이와 같은 인심을 반영하는듯 인책(引責)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말단 집행기관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과도히 행사하여 잔류인사(殘留人士)들을 우선 부역자(附逆者)로 동일시(同一視)하는 지나친 반공의식을 남용함으로서 도리어 민심을 동요시키는 결과마저 자아 내게 되었다.

註 1. 美 해병사단 의장대 및 악대원은 거의 소총수로서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할 수 없었다.

먼저 도망치고 피난간 사람만이 애국자요, 도망칠 사이가 없어 피난길을 떠나지 못한 탓으로 공산치아에서 신음(呻吟)한 사람은 모조리 비 애국자요, 용공분자(容共分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천부당(千不當)하고 만부당(萬不當)함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註2)

한편 서울 탈환에 대한 높은 공적에 대하여 美國 정부와 東京에 귀환한 맥아더(Mac Arthur)사령관 사이에는 축하서신과 멧세지가 빈번히 왕래되고 있었는데 美國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맨은 축하하기를 "귀하의 부대가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지연작전이나 서울을 해방시킨 찬란한 기동작전등은 실로 전사상에 보기 드문 것이였읍니다" 라는 멧세지를 보내 왔으며 美 합동참모부에서는 "방어작전으로 부터 공세로 이전한 귀하의 계획은 훌륭하였고 적시적절하였으며 또 훌륭히 수행되었읍니다. …… 우리는 국제연합이 귀하에게 부여한 커다란 임무를 완전히 수행한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멧세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사령관은 美대통령과 합동참모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 격려 멧세지는 각각 예하 전부대에 공포하겠다고 아울러 전하게 되었다.

수도 서울탈환전에 앞장 섰던 韓國 해병대가 처음 담당하고 있던 景武臺와 中央廳경비를 이날 이후 제17연대에게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제17연대는 같이 서울시의 경비에 임하게 된 美제7사단 제32연대와 함께 계속 서울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기간 중 韓國 육군 제17연대는 지금까지 노획한 적의 무기들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노획무기 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으며 한편 서울시는 이 제17연대의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시민대회를 수도 극장(스카라)에서 열어 제17연대 장병들을 기쁘게 하였다.

당시 서울시민들은 제17연대가 육군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건군 후 제17연대가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주 소개된데 연유(緣由)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美軍들은 제17연대를 서울연대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한편 서울이 탈환되자 치안유지를 위한 헌병 1개대대를 宋孝淳 소령 지휘 하에 편성하여 해군 함정편으로 仁川에 상륙케 하였는데 이들도 10월 1일에는 이미 서울에 들어와 치안확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주 2. 서울에 잔류(殘留)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선량(善良)한 반공주의자(反共主義者)라는 말이 아니다. 잔류자중(殘留者中)에는 친공(親共)과 용공(容共)으로 부역행위(叛逆行爲)를 서슴치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그들은 일조(一朝)에 돌변(突變)하여 반공인사(反共人士)들을 고발하고 남하한 사람들의 가재(家財)를 압수도용(押收盜用)하는등 가진 만행(蠻行)을 다한 자도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옥석(玉石)을 분간하라는 뜻이다. 자고(自古)로 정의(正義)는 항상 살아 있어서 이러한 분자(分者)들은 수사당국에 의하여 거의 모두가 처벌을 치르게 된것으로 믿어진다.

서울의 거리는 폐허만 남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병마(病魔)를 물리치고 소생한 사람 처럼 차츰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 교 훈

◇야간 시가지 전투에서의 치밀한 사전계획

韓國 해병대 제2대대 제5중대가 1950년9월25일 밤 元曉路에서 있었던 美 해병대와의 조그마한 충돌사건은 야간에 있어서 시가지 뿐만 아니다. 모든 전투에 얼마나 사전계획이 치밀하여야 하며 인접부대와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立證)하는 좋은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다만 잃었던 수도 서울을 수복한다는 벅찬감격을 간직하고 야간에 시가지를 누비며 진격한 해병들의 용맹성은 군의 귀감이라 하겠으나 철저한 사전계획과 우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한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빛나는 역전에서의 상승의 전통(傳統)과 명예를 존중하는 美 해병대조차 25일밤의 야간공격은 이러한 점에서 꺼렸다고 하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창설(創設)과 더불어 실전경험(實戰經驗)이 적었던 아 해병대의 단독진출은 너무나도 조급한 일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중대가 피아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을 뚫고 진격하는 동안 美 해병대는 아 해병대를 적으로 오인(誤認)하고 또한 아 해병대역시 美군을 적으로 오인(誤認)하여 하마터면 중대한 작전상의 잘못을 범할 뻔 하였지만 재빨리 아해병대 측에서 총성만을 듣고도 우군임을 판시한 덕분으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단 이 제5중대가 경험한 조그마한 사건이긴 하나 이것이 얼마나 야간전투에서의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며 우군 또는 인접부대 그리고 병사상호 간의 협동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가르쳐 준 좋은 예라는데서 큰 교훈을 남겼다.

§. 참전자의 증언

◇해병대의 시가지 전투

해병대수색중대장 金鍾植 대위

(1965年 6월 15일, 해병사단 참모장실, 대령)

수복 당시 수색중대는 연도수색을 하였다. 이느 한옥을 수색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때 대원들은 안에 들어가고 나는 그집 대문옆에 있었는데 대문옆 변소에 북괴군이 숨어 있다가 변소구멍으로 나를 향해 사격을 해 왔다. 당황한 끝에 소지하고 있던 카빈 M2로 탄 창에는 30발을 모두 쏘아댔다. 적의 저격으로 내 옆에 있었던 대원은 부상을 입었다.

서울에서 이와같이 위험하였던 일은 두번 있었다. 또 하나는 그당시 조선일보(朝鮮日報) 뒤에 소재한 방송국 상황을 살피기 위해 그쪽으로 가보려 가다가 가도에서 도망가는 적병과 갑자기 마주쳤다. 여기서 그 놈은 적이나 놀랬는지 내총을 잡았다. 총을 쏠 수 없게 된 나는 대검을 가지고 그놈을 찔러 위기를 모면했다.

해병대 제1대대장 高吉勳 소령

(1965년 9월 1일, 土地救援聯合會회장실, 예비역 소장)

우리 대대는 美 제5연대의 선두부대로서 北阿峴洞으로 해서 光化門으로 진격했다. 光化門——東大門선 北쪽일대는 우리 대대와 美 해병제5연대가 맡아 시내의 적을 복멸하였다. 水踰浦쪽으로 들어온 美 해병제1연대와 함께 싸운 제2대대는 제1대대 남쪽에서 작전하고 나중에 萬柳나루터를 건너온 金聖恩 부대의 제5대대는 北漢山 뒤쪽의 적을 복멸하였다.

해병대 제2대대제5중대 崔昌善 1등병조

(1966년 3월 1일, 해병대사령부, 중령)

해군본부나 중앙청에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

여야 하겠다고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적을 복멸하기에 바쁘던 당시로서는 그러한 일은 그다지 바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기는 훈장과 특진이 이것에 걸려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적을 찾아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이 급했다. 해군본부는 해군정보대에서 太極旗을 게양했다고 어느 누구가 훈장과 특진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일선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나는 보았다.

해병대가 美 해병대하고 같이 싸우는 동안 우리 해병대원은 카빈 M2가 없어 美 해병대원과 그때 그때 바꾸었다.

이 당시대원들의 욕심은 이 M2 밖에는 없었고 탄창도 처음에는 하나 밖에 없었는데 서울 작전때는 어느 틈에 두개 이상 어느 사람은 배낭에까지 가득 집어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많았다.

서울에 들어와 우리들이 하루를 보낸 麻浦국민학교에 사령부도 이어 도착한 것은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孫元一 참모총장이 내가 가지고 있던 위장망(僞裝網)을 보고 복장의 통일을 기할 수 없다고 떠앗았다.

해군본부까지 전진한 우리는 거기에서 수도극장—종로3가—東大門—淸凉里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여기에서 韓國 육군제17연대장병을 보았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東大門으로 나와서 부대를 철수하여 우리는 육군본부에 CP를 정한 기억이 난다.

수도 서울탈환식이 있은 29일 그 다음 날인 30일 경이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에 들어온 17연대는 트럭에도 「17연대 서울입성」이라는 푸랑 카드를 달고 다녔고 전리품 전시회도 여는데 그곳에 가 보았더니 우리들이 싸움에서 얻은 노획품이 많았다.

이런데까지 17연대는 선무공작을 위해 해병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착안 하고 있었다.

해병대 제2대대 선임장교 趙性俊 소위

(1965년 4월 14일, 해병여단 제3연대장실, 대령)

나는 京仁작전 초기에는 뒤에 남아서 탄약작업 같은 것을 하다가 華洲나루터를 건너서야 대대와 합동하였다.

우리가 水色에서 龍山쪽으로 철로를 따라 麻浦로 들어가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아침 공격을 하는데 통신장애로 인하여 대대본부와 연락이 두절된 일이 있었다.

연락이 두절된 채 美軍하고 싸운 기억이 있다. 결국에는 개통된 통신 연락으로 대대 주력이 있는 서울역으로 가서 합동하였다. 그후 우리 중대는 치안국 자리까지 진격을 하였고 그 다음은 東大門 경찰서 이렇게 우리는 시내의 잔적 복멸싸움을 하였으며 그 다음은 彌阿里 고개를 넘었다.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올 때에는 이미 적은 싸울 기력을 잃고 있을 때이니만치 조직적인 저항이라던가 역습같은 것은 그리 없었으며 麻浦에서 전차길을 따라 中央廳 방향으로 진격하다 보니 우리 중대는 대대와 연락이 끊긴 채 美 해병대 제1연대와 같은 선에서 싸우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것이 25일 밤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나 우리는 阿峴洞 고개를 넘어서 지금 계명아파트 옆 철로 다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그곳에서 美 해병대의 공격제대와 같이 진지를 구축하였다. 대대에서는 우리 중대의 소재를 모르게 되었으니까 일체의 보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해병대 제2대대 5중대 2소대장 姜禧求 소위

(1965년 2월 19일, 鎭海松岡旅舘, 대령)

우리가 唐人里 발전소를 거쳐 龍山署까지 들어온 것이 저녁 10.00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해병대를 환영하는데 용기가 솟았다. 그날 밤 龍山에서 고전하고 阿峴國民학교에 부대가 집결해서 야영을 하는 동안 각중대는 나란히 배치되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선두에 서서 서울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美 해병대 전차가 2~3대 나타났고 美軍도 3명 따랐다.

서울역에 들어가니 역 앞 고층건물에는 金日成 사진까지 붙어 있었으며 그곳에 배치된 적은 우리 쪽에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때 화기소대 선임하사관인 朴昌善 중령(일등병조)이 올라가서 사진은 찢어 버렸고 저항하는 적은 우리를 지원한 화염방사전차가 무찔렀다.

시민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몰려 나오는 사이 적은 후퇴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전차를 앞세우고 南大門으로 향하고 있노라니 적은 美軍으로부터 노획한 것으로 믿어지는 57mm 포를 그 앞에 배치하고 전진하는 전차를 사격하였으나 포탄은 우군 전차를 관통하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전차병이 내려와서 포탄 맞은 자리를 닦고 가족사진을 꺼내보고 있었다. 아마 죽을뻔하였으로 살아났으니까 다시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했을 것으로 안다. 南大門을 지나 5중대는 우체국으로 가고 6중대는 시청 쪽으로 진격하였으며 5중대는 그 다음 해군본부—東大門쪽으로 나갔다. 이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였는데 우리를 환영하는 군중 속에는 적색분자들도 한목 끼어 시민들과 같이 환영만세를 부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고발에 따라 우리는 이를 즉시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東大門에 이르니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는 하루 밤을 여기에 배치되어 묵고 있다가 다음 날 트럭을 타고 泰陵으로 갔다.

◇. 中央廳에 太極旗 게양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1소대장

朴正奭 소위

1969년 6월 2일, 友石大學校, 예비역 대령)

우리 대대는 麻浦, 서울역, 南大門, 市廳으로 진격하였는데 거기에는 적의 바리케이드가 쳐 장한 것이 있었다. 市廳에서 우리는 金日成, 스타린사진과 북괴기(北傀旗)등을 불살랐으며 여기에 숨어 있던 적은 市廳 지하실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측면공격을 하여 德壽宮과 朝鮮호텔쪽으로 들어가 지하실에 있는 적을 수류탄으로 섬멸하였다. 시청을 점령하였을 때 종군한 朴聖烋기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 中央廳은 韓國軍 최초로 탈환하라는 것과 그 옥상에 太極旗를 게양하는 자에게는 점령 상금이 3,000만원이나 걸었다고 전하여 주었으나, 이어서 朴기자는 朴소위가 시청을 탈환할 수 있었으니 中央廳도 하고 그 옥상에 太極旗도 게양하라고 나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때 中央廳은 우리 내내 담당구역이 아니고 제1대대와 美제5연대와다 구역이었으니 이를 실행하자면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허락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러한 겨를이 없었고 하여튼 국가원수의 특명도 있었다고 하니 中央廳은 우리가 탈환하고 그곳에 太極旗를 게양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더라도 그곳은 기필코 우리가 탈환하여야겠다는 심경을 굳히게 되었다.

나는 중대장한테도 연락못하고 1개소대를 인솔하고 갔으나 그때는 美 해병대의 모든 화력이 그쪽 방향에 집중하여 있었기 때문에 中央廳에 이르는 일대는 불바다를 이루고 있어 18.40경 東亞日報에서 더 이상의 진출은 불가능하여 일단 본부

까지 물러났다.

우리가 단독으로 中央廳을 향하고 있을 때 대대에서는 1개 소대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당장 잡아 총살하라고 야단을 친 모양이다. 그러나 그후 우리들의 사정을 안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꼭 중앙청에 太極旗를 게양하겠다는 나의 간청을 받아 들여 이번에는 정식으로 허락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이일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휴대하고 다녔던 太極旗는 작고 그나마 전사자가 있을 때마다 太極旗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는 없어서 中央廳에 게양할 큰 太極旗를 시중에서 구하기로 작정하고 대원들에게 명하였더니 어디서 왜상보다 큰 것을 하나 얻어 왔다. 다음 날 우리 소대는 새벽을 기하여 光化門을 경유, 中央廳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中央廳에는 적이 남아 있어서 약간 우리는 적의 저항을 받았다.

우리가 도착한 中央廳 안은 책상등 집기가 타서 열기가 많았다. 나는 저항하는 적을 사살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때 中央 돔(DOM)에 올라가자면 사다리(철제)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폭격으로 끊어졌기에 우리는 와이야 로프를 구해 그것을 타고 올라 가려고 했다. 그 순간 그 로프도 파편에 맞아 있어서 중간이 끊어져 아래로 떨어지는데 주위 대원이 발목을 잡아 주어서 나는 위기를 모면했다.

내가 인솔한 1개 소대가 전부 中央廳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여기에서 대원들의 요대(腰帶)를 모아 이어 그것으로 옥상에 올라가 돌로 된 기둥 중앙에 太極旗를 동여 매었다.

그후 대대장 金鐘淇소령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25일 밤 우리는 靑坡洞과 元曉路로 진격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사자가 많이 생겼다.

이때 한가지 잘못된 것은 5중대가 龍頭里에서 중부로 전진하는 도중 美 해병대가 5중대를 적인 줄 알고 龍川로타리 뒤에서 81, 4.2인치등으로 사격한 불상사가 있어서 이 때문에 5중대는 麻浦로 되돌아 갔다.

우리는 서울역에서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화염방사기로 공격하니 적은 모두 타 죽었으며 光化門에서도 방공호와 바리케이트에 적이 숨어서 지연작전을 하고 있었다.

해병대 제2대대 6중대 1소대
분대장겸 선임하사관 梁炳守
(1965년 9월 27일,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예비역 상사)

中央廳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었으나 한번 가보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 중대장이던 沈布學 중위가 中央廳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 주었으나 현상금에는 별관심이 없었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 20세 젊은이의 영웅심이 발동한 것 뿐이다.

中央廳으로 간 것은 6중대의 2개분대가량의 병력이였으며 이때 중대장도 소대장도 동행이 없었다.

저희가 中央廳에 접근하니 美 해병대 전차 하나가 정문 앞에 있었고 인민군들은 건물 2—3층에 숨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정문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기회만 엿보며 정문의 석담(石垣)을 이용 잠시 대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沈布學 중대장이 나보고 병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터이니 한번 中央廳에 太極旗를 게양해 보라는 것이다.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지도 판단하지 못하

고 저저나온 다는 말이 "나는 두명의 대원 이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이 崔國方과 정연금이었다.

오후 1시경 다른 중대원들의 지원 아래 우리 셋은 50m의 간격을 두고 적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中央廳안으로 돌입하였다. (中略)

건물 안 어느 모퉁이에 3人이 모여 나는 두사람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이들을 격려하였다. 이일을 수행하자면 죽음의 각오가 필요하였기에 이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는 적들이 아직 숨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척 조심을 하였다.

3층부터는 밖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적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경계하는 일 없이 4층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원형탑으로 올라 가목 40cm 가량의 쇠로 된 계단을 또 타고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 갔다. 나는 같이 간 두 대원과 함께 여러 개 있는 기둥 가운데 앞 기둥에다가 소지하고 간 太極旗를 매어 달았다. 4층에서 중대장, 대대장을 모두 만났는데 그때가 4시였으니 우리들은 3시간동안을 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후 아군들이 올라가 저마다 국기를 게양하였다.

그후 나는 좀더 큰것을 게양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후에 朝鮮호텔에서 얻은 큰 국기를 옥상 돔 앞에 게양하였다.

해병대 제2대대 6중대
분대원 崔國方

(1965년 10월 6일,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예비역 중사)

저는 서울에 들어 와서 조선호텔에 호를 파고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일개 소대가 이 건물을 경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리 분대가 中央廳으로 갔다. 그때 전술중대였던 것 같은데 朝鮮日報社 앞에 이르니 북괴군 부상병 19명가량이 인도에도 호를 파고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10m 정도의 높이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섬멸하고 中央廳으로 향하였으나 50m가량 접근하니 적탄이 날아와 전진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전진하였다. 그때 中央廳에는 우군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분대는 북괴군 몇놈이 도망하는 것을 보며 정문있는 데서 다소 시간을 보냈다. 불타고 망가진 中央廳에 아직도 우리는 적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주 경계를 엄히 하면서 4명정도가 올라갔다. 올라갈 때는 누구 누구하고 호명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분대장을 맡아 다녔기 때문에 꼭 나가 게양하여야겠다는 사명감 보다 명령이기 때문이었고 저는 분대 선두에 항상 서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좀 교대해 달라고 진언하였던 기억이 남아있다.

金七龍이가 우리 부분대장이었으니까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올라 간 사람은 분대장인 梁炳守, 金七龍 나와 정연범(金谷에서 전사)이라고 생각한다.

해병대 제2대대 6중대 1소대
金七龍

(1965년 5월 6일, 해병사단 전차대대, 상사)

우리는 서울역에서 朝鮮호텔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中央廳으로 갔는데 그 당시 우리들의 지휘자는 朴正模소위였다. 太極旗는 저하고 임필수가 소지하고 적정(敵情)을 물리치며 전진하는 동안 나는 도로가에서 국기게양대목(台木)을 얻을 수가 있었다.

1개 소대가 경계를 하는 가운데 中央廳 옥상으로 나하고 朴소위, 임필수, 양병수, 최국방등이 올

라 갔다. 올라간 것은 꼭대기가 아니고 원형탑 탑이 있는 그 앞이었다. 우리는 큰 기둥에다 끈으로 소지한 막대기와 같이 국기를 동여 매었는데 우리는 그때 전부 비무장이었다. 내려올 때는 두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는 맨나중에 내려오느라니 청내구조를 잘 모른탓으로 지하실까지 내려왔다. 나는 출구로 나왔으며 다른 사람보다 나오는 속도가 늦어 기합을 받은 생각이 난다. 梁炳守가 게양하였다는 이야기는 당시 저의 분대장이었고 그 후 金谷전투에 나는 부상입어 입원하고 입필수는 전사하고 없으니까 남은 사람만이 게양한 것으로 전사에 기록한 것같다. 휴전 후 이 사실을 정정하기 위해 나는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보람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해병대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

(1969年 6월 25일, 獎國生命, 예비역 대령)

24일은 麻浦국민학교에서 25일에는 尙坡洞 전 내무부장관 관사에서 묵은 것 같다.

2대대는 南大門 지하실과 서울역 앞(교통센타 있는 자리)에서 적을 무찌르고 진격을 하였으며 朝鮮 호텔에 도달한 연후 하루 밤을 보냈다. CP도 이곳에 정하고 밤새도록 수색작전을 하였다.

그때 朴聖煥 기자가 종군하고 있었는데 中央廳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에 상금이 걸려 있는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여 보려고 작정하고 국기에다 영문으로 내가 KMC BN라고 쓴 것을 가지고 朴소위가 게양하였다.

이 구역은 제1대대가 담당인데 제1대대는 우리보다 진출이 늦었다. 朴소위가 中央廳으로 갈 때 나도 뒤 따랐다. 中央廳에서 당시 정훈관이던 趙仁禧소위가 사진을 찍었으나 그 사진을 지금껏 보관치 못한 것이 유감이다.

서울에 돌입한 이후 우리 대대CP로 정하고 있던 곳은 麻浦國校, 尙坡洞, 東大門경찰서, 그다음 돌아 와서 서울역 康生호텔이었다.

대대는 美 1연대와 같이 싸우게 되어 그 때문에 어느 언덕에서 키가 작고 머리가 까지고 뚱뚱한 美 해병제1연대장을 통역장교를 통해서 만났더니 우리와 작전을 하는데 우리는 양민과 북괴군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 앞에서 이것을 가리어 달라고 했다.

어느 날인가 麻浦국민학교 교장실에서 촛불을 켜고 지도를 보고 있노라니 孫元一제독이 와서 말하기를 "美 해병대가 공격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야단이었다.

우리가 朝鮮호텔에 들어가니까 북이 남녀 합해서 5명가량있었으며 우리가 진주하니 이들은 모두 손들고 나왔다. 그중 2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으로 보냈는데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있느냐고 하였더니 그 당시 상상치도 못한 커피니 설탕이랑 가지고 왔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북괴군이 이곳에 있는 동안 이것을 약이라고 먹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곳에는 많은 비품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부하장병들에게 이것들을 당가 뜨리거나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우리는 서울을 탈환하고 그 다음 작전을 위해 서울을 벗어 났으며 그후 17연대가 들어와서 景武臺경비와 형무소에 가서 사람을 풀어 놓고 하는 일들을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해병대는 그런일을 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당시 종군하던 朴聖煥기자는 해병대가 근교로 빠진 연후 17연대장에 잡혀 혼이 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朴기자가 해병대에서 얼마나 뇌물을 먹고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잠시 朴기

자는 감금상태로 되었다가 그 다음으로 17연대가 서울에 입성하였다는 기사를 쓰고야 빠져 가지고 金谷에 있던 나에게 왔다고 전하여 주었다

◇ 韓國 육군 제17연대의 전투

육군 제17연대장
白仁燁대령
(1962년12월15일, 仁川, 에비역 중장)

17연대가 南山을 공격할때는 美 32연대와의 합동작전이었다. 이 전투는 치열하였기 때문에 나자신이 대전차포를 쏘는 지경이니까 심각이 갈 것으로 안다. 그때 우리 CP는 이태원 콜터장 군동상이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육군 제17연대 부연대장
黃哲顯
(1963년 7월 5일, 서울후암동, 예비역 대령)

지금 병기기지 사령부에서 17연대는 편성되었는데 연대장은 白仁燁 장군 제가 부연대장이었다. 당시 기간사병은 3분의1정도가 될까 말까 하였고 나머지는 신병들이 많았는데 金山에서 모두 새옷으로 갈아 입히고 1주일동안 훈련에 임하였다.

승선할때 3척의 배에 분승하였는데 하나는 연대장, 하나는 본인이 지휘하였고 2—3일만에 仁川에 도착한것 같다.

저희들이 상륙할 때는 해병대가 상륙을 하고 仁川에서의 전투는 끝장이나 우군은 서울방면에서 전투하고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永登浦까지 왔으며 그 다음 上道洞쪽으로 빠졌다. 그래 가지고 수륙양용차를 타고 잠실리에서 西氷庫로 왔다. 그때 漢南洞 일대에 전투가 있었는데 1개 대대는 뚝섬으로 상륙하여 往十里로, 1개대는 彌阿里쪽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향하였다. 그후 시내로 들어와서 사범대학에 자리를 정하였고 그 다음은 舊新국교에 있었다. 그후 연대장은 육본 G—2로 가고 대신 한충열(한웅진)대령이 연대장으로 오고 그 다음 17연대는 철원 평강으로 갔다.

육군 제17연대 소대장
金秉元
(1967년 11월 1일, 제2군사령부, 중령)

우리는 24일인가 仁川에 상륙하고 일부병력은 富平까지 도보로 오고 일부부대는 열차로 왔다. 우리는 永登浦 근방 뒷산에서 적의 저항을 받은 일이 있으며 그후 上道洞으로 전진했다.

우리는 美軍들의 화력지원을 받아가며 西氷庫 목에서 강을 건너 일부 병력은 南山으로 공격하고 일부는 屯愛里로 갔다.

우리는 수색전을 하면서 적을 복멸하고 이들로 부터 많은 권총을 노획하여 전장병이 한개씩 사랑삼아 휴대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일이 있다.

그후 어느 날 밤인가 인민군 1개연대가 새까맣게 내습해 왔다. 우리는 이때 도로 左측 고지에다 기관총소대와 1개 소총소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날 주위들에는 비가 억어 있었고 논바닥에는 전날 비가 내려 물이 고여 있었으며 달도 밝았다.

이때 상황으로는 적이 서울을 향해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으나 하여튼 적이 온다고 전방에 있던 초병(哨兵)이 철수해 왔다.

우리는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그후 연대장이 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적은 2열종대로 내습해 왔고 그들 척후분대가 진지 앞을 막 다가 왔으나 우리는 이들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입에 다가 손을 대고 우리의 기도를 숨기고 있었다.

적 부대가 산밑에 왔을 무렵 기다렸던 일제 사격명령이 내려 우리는 적을 향해 마구 쏘았다. 이 때문에 주위는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었고

이전투는 3시간이나 끌었다.

백병전까지 벌어진 이전투에서 전과는 컸다.

포로로 한 적병들은 거의 서울에서 강징(強徵)되어 끌려 간 소위 의용군들로 나이는 17—18세정도였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은 이들에게 서울집으로 보내 준다고 속여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후 우리는 南山국민학교 東大門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울경비에 임했다.

◇. 환도식(還都式)

종군기자 崔起德(太陽新聞)

(1967년 3월 21일, 韓國電力)

서울 수복 당시 피난 간 사람은 피난못간 사람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협의가 있으면 쏘아 죽였다. 이때 서울에는 분별이 있는 지휘관을 뒤야지 큰일이라는 소리가 높아 28일 상경한 국무총리에게 진언하였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떨가 하면서 이준식씨를 올라 오라고 해 가지고 적절처분을 엄금시켰다.

육군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

(1966년 12월 15일, 仁川, 예비역중장)

수소탈환 이양식장소는 中央廳 회의실이었는데 위커장군, 알몬드장군, 스미스장군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경무대에 전황보고 하러가니 유리창은 약 3매정도 깨져 있었고 李박사는 현관에 나와 계셨다. 이박사는 보고도 듣지도 않고 기암을 처음 주었는데 "지금 시내가 불이 붙고 있는데 당장 가서 진화하라."고 했다.

헌병사령부 宋孝淳

(1966년 11월 25일, 韓電서울지점 예비역준장)

저희들이 서울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1개대대를 이끌고 서울에 들어 온 것이 10월1일이었다.

나는 釜山에서 출발할 때 피난 못하고 지하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丁一權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액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韓國銀行에서 돈을 제꺽으로 가지고 왔다. 3일간 永登浦역 구내에 묵어 있다가 10월1일 美軍이 놓은 부교를 통해 서울에 들어왔다.

전투부대는 서울시를 통과했을 따름이고 서울은 비어 있는 것과 같았는데 우리는 도서관 자리 옆에다 CP를 정했다.

中央廳을 돌아 보았더니 포격해서 탄 것이 아니고 방화였다. 알아보니 북괴군이 퇴각할 때 여학생 2학년짜리가 그들의 지시에 따라 방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왜 CP를 도서관으로 정하였는가 하면 북괴군 정치보위부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고의로 정한 것으로 다음 날에는 많은 사람(피난못간 군경, 관리가족)들이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으므로 돈을 나누어 주고 일방 치안을 유지하기에 노력하였다.

서울에 들어와 입수한 정보는 우리 국군 부상병이 서울대학병원과 창경원(昌慶苑)에서 많이 학살 당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가 보니 시체들이 그냥 있었다.

6·25가 터지자 7사단과 2사단이 議政府 방면 전투에 참전하였는데 참전 몇 시간만에 깨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부상병 수백명이 대학병원에 들어가고 낙오병은 昌慶苑에 들어 갔으며 이들은 그후 모두 북괴군에게 물살 당한 것이었다.

우리는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역자를 찾아 나섰는데 이때 그들이 후퇴할 때 놓고 간 사진들이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놈들이 서울에 있을 때 가진 각종행사 사진과 기록들이 그냥 남아 있었으니 그들의 학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다.

7. 서울 近郊戰鬪와 防禦線의 完成 (50년 9월 22일부터 50년 10월 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4·36 호
작명부록 제106.107.108.109호

가. 美 제8군과의 連繫작전

9월 22일 : 仁川상륙작전은 그 계획과정에 있어 문제되었던 바와 같이 당초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중장은 상륙군의 일부부대로 原州까지를 탈환하여 북괴군의 후방을 완전히 차단한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0군단이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2개사단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탈환 자체마저도 그 성공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병력의 과도한 분산은 극히 조심성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므로 결국 서울과 水原지구를 탈환하는 정도로 이 상륙전에 따르는 서울탈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제10군단 주력이 서울을 공략하기 시작한 이날 국도를 따라 永登浦지역에서 南進하고 있던 美 제7사단의제31연대는 水原비행장 남쪽능선을 확보한 다음 적의 북으로의 퇴각을 막고 있었다.

9월 23일 : 이 연대는 포로의 진술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라 洛東江전선에서 北上한 북괴군 제105기갑사단의 1개연대가 18일에 이미 烏致院에 도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기갑전투를 준비하게 되었다.

9월 24일 : 이날 낮 까지 적은 北上하여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날 23.00경 水原비행장 南쪽능선에 배치되어 있던 美 육군제31연대의 제2대대가 불시에 전차를 수반한 병력 미상(未詳)의 적으로 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대대는 여기에서 예기치 않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한 步, 戰, 砲의 화력을 모두 집중하여 적의 전차 4대를 격파하고 이를 무난히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9월 25일 : 날이 밝아 올 무렵 水原비행장에 이미 퇴각한 것으로 믿어졌던 적으로부터 박격포탄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 비행장은 대형수송기의 발착륙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장은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이었다. 美 보병제7사단는 여기에서 제31연대로 하여금 즉시 적을 분쇄격멸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연대장 파버샤인대령은 水原 南쪽 약 4km南쪽 고지를 점령한 다음 原州방면으로의 퇴각을 엄호하고 있는 것

으로 밀어진 적을 공격하기 위해 南북에서 부대를 2개대대로 나누어 협공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9월 26일 : 공격부대가 적 正면에 진출한 다음 27일새벽부터 공격을 시작하였지만 적은 의외에도 강하여 하루 종일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제2대대는 전차 14대와 대전차포 6문 그리고 박격포 몇문을 파괴 당하면서도 적이 지키고 있는 고지에는 접근할 수 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9월 27일 : 12.00경에 釜山방면에서 적을 추격하면서 북상한 美 제1기병사단은 烏山에 진출하여 북쪽고지에서의 이 싸움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으나 제31연대의 공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목격한 사단장 게이(Gay)장군은 곧 공격 중인 대대장에게 작전을 도울것을 제안하였지만 연대장은 부대의 위신문제라고 생각하였음인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다. 밤이되자 공격부대는 그 전투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내일의 진격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31연대의 부진상태에 빠진 공격에 불만을 품게 된 美 육군 제7보병사단장 박소장은 이날 저녁에 연대 제일선에 진출하여 28일에 있을 공격을 자신이 직접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전세가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한 이 마당에 무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을 감행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먼저 집중한 연후에 적의 와해 여부를 살피고 그 다음 선공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보병을 투입토록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음부터의 공격은 해군의 8대의 항공기와 포병 2개대대의 포사격 지원 밑에 실시되었으며 자대의 4.2인치 박격포사격도 집중 발휘하는 공격준비사격이 30분간 실시되었다. 이윽고 K, L중대는 공격을 감행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들은 118高地를 탈취하고 계속 13.00에는 92高地를 점령하였다.

적은 이 싸움에서 100구의 시체를 유기하고 살아남은 적은 제각기 도망치고 말았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비로소 제10군단은 北上 공격하는 美 8군과의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상륙군은 소기의 임무를 다할 수가 있었다.

나. 한국 해병대의 北漢江지구 전투 (별책부도제 86호 작명부록제106.107.108.109호 참조)

9월 29일 : 이날 영시를 기해 美 해병대 배속으로 부터 원대에 복귀한 韓國 해병제1, 2대대는 구 해군본부(前원호청자리)에 위치한 사령부 통제 밑에 서울시 일원의 치안을 담당하

고 있었으며 그 책임구역은 제1대대가 光化門과 南山을 잇는 선으로 부터 西쪽을, 그리고 제2대대는 仁川으로부터 東쪽을 각기 담당하고 작전하고 있었다. (작명부록 제105호 참조)

9월 30일 : 韓國 해병대는 美 해병사단작명에 의해 美 해병대와 같이 서울방어를 위해 동쪽지역을 차단하는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北漢江지역으로 출동하였다. (작명부록 제106호 참조)

이때 韓國 해병대의 우측은 美 보병제7사단이었으며 좌측은 美 해병제1연대였다.

이날 15.00시부터는 해군본부로부터 사령부로 이 작전을 위해 忠愛里로 이동하였다.

10월 1일 : 이날 13.00에 議政府를 향해 공격하는 美 해병제7연대에 배속되었던 제5대대도 원대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날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것은 韓國해병대가 단독작전에 필요한 美 해병대의 함포와 항공연락장교 65명(장교와 사병포함)이 해병대사령부에 도착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申鉉俊대령이 지휘하는 韓國 해병대의 제2대대와 제5대대는 漢江과 北漢江이 합류하는 兩水里와 漢江및 北漢江교차(交叉)지역 그리고 麟石隅里 5km동쪽의 京春가도와 한강 연안을 따라 남으로 형성된 도로 부근일대의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작명부록 제107호참조)

10월 2일 : 08.00 목표지역으로 전진한 해병대는 이곳에 진수한 美 7사단 1개대대로부터 지역을 인계 받아 제5대대는 北쪽, 그리고 제2대대가 그 남쪽에 각기 배치되어 이날 10.00를 기하여 동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공격제대가 海巖里 및 미쳐 仁倉里와 橋門里 일대에 진출하였을 때 陶巖里 南方의 고지로부터 적의 사격을 받았다. 별안간 적 약 1개연대병력과 충돌하게 된 해병대는 즉시 적이 배치된 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시작한 결과 적을 격퇴시켰고 7.00에는 제2대대는 加平里와 馬山里를 점령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2대대 제8중대(徐廷南중위)는 약간 고전하였으나 좌측에 배치되었던 제5대대의 박격포의 화력의 지원을 얻어 드디어 목표고지를 무난히 점령 하고 말았던 것이다.

적은 이 고지를 끝까지 지키도록 계획하고 중요 포대와 기관총좌에는 이곳을 지키는 북괴군 하나하나에 쇠사슬로 묶어 최후까지 항거하면서 도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미 사기를 잃고 아군 공격을 접내고 있던 적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일부만이 겨우 퇴각하였을 뿐 사살된 자가 200여명이나 되고 사로잡은 포로가 50여명에 달하였다.

이 작전은 상당한 격전이었으므로 아군에도 16명의 전사자와 63명의 부상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도주한 적은 아직도 아군에게 저항할 모양으로 인근에 숨어 있던 잔여부대와 합동하여 退溪院里 동쪽 2km 156고지(진관리)를 거점으로 한 다음 培養里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의 기도는 芝綿里의 113고지를 점령하여 아군 해병대의 진격을 저지하여 보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여기에서 제5대대(金大植중령)는 이 지역에 대하여 포격을 총집중토록 하여 적을 강타한 다음 곧 박격포의 지원 밑에 공격중대는 적이 먼저 점령하려는 113고지를 빼앗아 버리고 이날 여기를 완전히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0월 3일 : 제5대대에 이어 계속 공격을 감행한 제2대대(金鍾淇소령)는 이날 12.30에 金谷을 우선 점령하고 계속 진출하여 金谷 東北방 700m 도로상에 매설된 적 지뢰를 제거하고 부근 일대 고지를 확보한다음 無雪에 잠시CP를 정하였다가 예비대로서 양정리에 자리를 옮겨 진지를 구축하고 부근일대의 경계에 임하였다.

한편 제1대대(高吉勳소령)는 지난 10월1일 美 육군 제7사단에 배속 良才洞으로 향하였으며 여기서 제1대대는 美 7사단 작명에 따라 楊州郡 일대의 패잔병 복멸 임무를 맡았으며 10月2日 제1대대는 梨泰院에 일단 집결하게 되었다.(작명부록 제108호 참조) 이날 09.00에 梨泰院을 출발한 제1대대는 아무런 접적없이 京春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15.00에 金谷남방 6km의 德沼에 도착하였다. 제1대대는 걱정없이 이곳에서 일박한 다음, 10월4일 08.30에 德沼를 출발하여 北漢江 연안을 따라 17.00에는 龜峯山 南東 6km에 있는 족자島 일대와 281고지(松村里)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제1대대는 기간 중 포로 27명을 후송하고 차후 작전에 대한 작명을 대기하면서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날 제5대대는 金谷里에 부근 고지일대를 점령하고 이 방면에서 해병대가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北漢江 까지의 진격을 계속하였다.


<韓國 해병대의 北漢江지구 전첩기공비>

10월 4일 : 08.00 제5대대는 京春가도를 따라 적을 찾아 전진을 거듭하고 이날 12.00에는 麻石偶里에 돌입하였다. 여기서 제5대대는 부락에 숨어 남아있는 적을 색출 완료하고 계속 전진하여 17.00 北漢江 연안인 省內里에 진출하였다.

또한 해병대 각 부대는 부근 일대에서 잔적

수색을 계속하였다.

10월 5일 : 이날 08.00를 기해 제10군단의 진출예정선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던 해병대는 6일 08.00이 지역에서의 임무를 완전히 끝마치고 작명 제 26호(작명부록제109호참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위해 부대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부대이동은 仁川으로 집결하라는 것이었는데 각 부대는 仁倉里에 위치하고 있던 사령부에 10.06.09.30까지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월 6일 : 해병대 각 대대는 진격지점으로 부터 행군서열대로 사령부에 집결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美 해병대에서 지원한 2½ 트럭 90대에 분승하여 仁川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때 그 부대 순서는 사령부, 제5대대, 제1대대, 제2대대 순이었다. 한편 군단예비대로서 金浦지구에서 작전을 섬멸하고 측면을 차단하고 있던 제3대대(金潤根소령)도 10월2일 美 제187공수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이날 仁川에 집결하고 원대에 복귀하였다.

10월 7일 : 仁川에 집결완료한 해병대는 이날 제2대대는 木浦지구에서의 새로운 잔적 섬멸 임무를, 그리고, 제1대대는 墨湖방면에 또 제3대대와 제5대대는 元山에 상륙할 목적으로 각각 仁川항을 출항하게 되었다.

다. 議政府 탈환 (상황도 제42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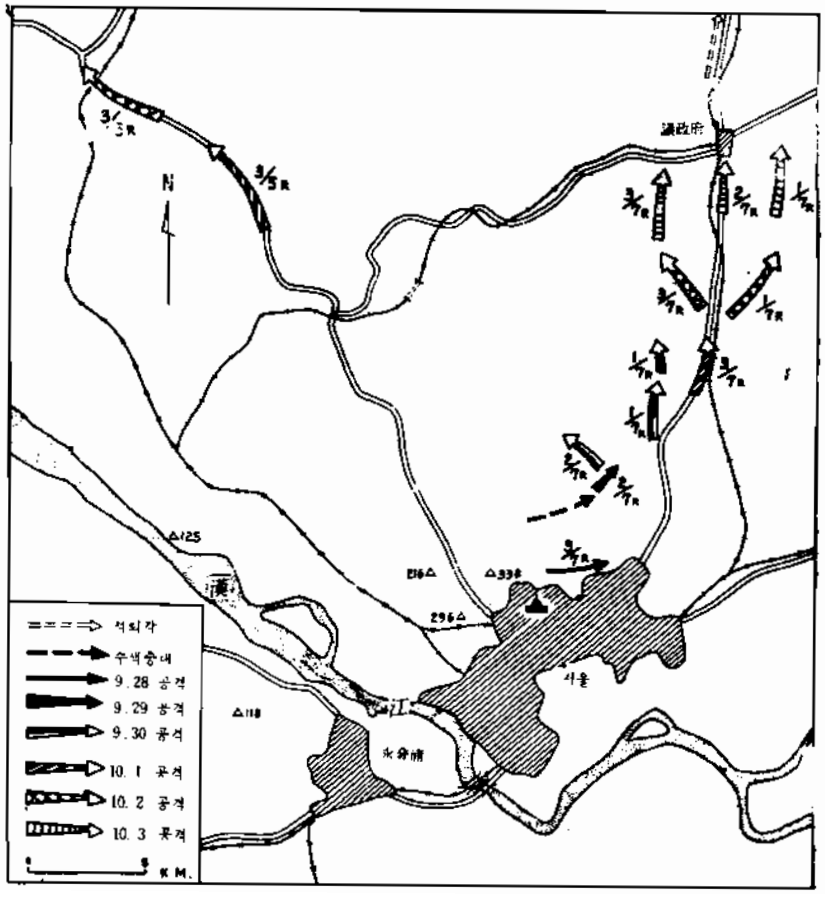
9월 29일 : 美 해병제1사단은 이날 20.00에 작명 13—50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대략 서울 근교에 반월형의 방어선을 형성키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계획의 내용은 즉 제1연대는 서울 北東쪽으로, 제5연대(Murray중령)는 鹽泉을지나 開城—서울 국도를 따라 서울 北西쪽을, 그리고 제7연대(Litzenberg대령)는 北쪽인 議政府를 각기 공격하여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9월 30일 : 議政府로 통하는 가도 左측고지를 확보하고 잔적을 섬멸하기 위해 공격을 계속한 제7연대의 2대대는 貞陵, 牛耳洞일대로 진격하였고 동1대대는 倉洞과 道峯洞일대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10월 1일 : 제5연대의 일부는 京義국도를 따라 22km지점까지 진격하였으나 정찰전에 불과하여 퇴각하는 적의 낙오병을 사로잡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1연대도 역시 별로 이렇다 할 상황은 전개하지 않았다. 북쪽을 공격한 제7연대는 韓國군 제23중대를 배속받아 주로 전초중대의 임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이들은 전차와 포병, 공병등으로 증강되고 있었다.

10월 2일 : 제7연대는 서울—議政府 중간지점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은 별다른 싸움은 없었고 다만 가도 좌측을 공격하던 제3대대의 정찰대가 그 전날 북괴군이 무참하게 학살한 참혹한 주민시체 30구를 발견하였을 뿐이었다. 이 시체 중에는 여자 7명과 어린이 1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국군가족들이라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이었겠는가? 제3대대 외에도 右側 고지를 제1대대가 그리고 左側고지를 제2대대가 예비로서 진격하게된 이 공격에서 美 해병사단은 이날 산발적인 적의 종화기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아군의 전진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믿어진 적의 사격은 도로우측을 공격한 제1대대에 의해 도로 양쪽고지에 구축된 동굴 속에 은거하고 있던 적의 지연전술이었음이 확인되었다. 美 해병7연대는 이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차와 보병의 협동작전으로 동굴 속의 적을 복멸하는데 성

상황도 제42호 북괴군의 패주와 議政府점령(50. 9. 28~10. 3)



공하였다. 이날 제3대대도 숨어있는 적으로 부터 소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아 그 전진이 잠간동안 중 지되었으나 여기에서 배속된 전차는 적탄이 비오듯하는 속에서 공병들이 도로상의 지뢰를 제거하는 동안 기동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격을 계속하였으며 지뢰가 제거되자 곧 전차소대의 한 전차는 전진하여 적이 숨어 있는 초가집 두채를 사격하여 그 속의 적 5명을 모조리 복멸하고 말았다. 제3대대는 계속 좁은 골짝이의 東쪽에서 소로를 따라 흐르는 개울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114고지를 점령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진은 여의치 않았다.

10월 3일 : 적의 저항으로 전진이 잠시 좌절되었던 3대대는 이날 아침 전차와 항공기의 지원을 얻어 다시 진격을 시작하고 적 차량 8대중 7대를 파괴하여 버렸다. 이날 아군작전을 지원한 美 해병대의 항공기중 2대가 적탄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한대는 아군지역에 불시착하였고 나머지 한대는 격추된 후 조종사가 전사하였으니 아까운 일이었다. 또한 이날 제7연대는 능선상에 배치된 적을 저지하기 위해 167발의 야포를 사격하였고 70,000발의 기관총탄을 퍼부었다. 東쪽과 西쪽으로 중앙의 도로와 병행해서 형성된 고지 능선을 제1및 제3대대가 진격하는 동안 제2대대는 도로를 따라 급진하였으며 적의 보급품 집적소로 판명된 지대를 지나면서부터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국도를 따라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이날 17.00에 폐허가 된 議政府에 제2대대가 먼저 돌입하고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이 작전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제7연대의 議政府점령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한 韓國해병제5대대의 제23중대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로 좌측의 산악지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孫鎬基중위가 지휘하는 이 중대는 다른 해병대가 北漢江으로 공격하는 동안 계속 美 제7연대와 행동을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이 중대는 紫霞門밖에서 3角山 줄기를 타고 議政府로 진격하였으며 그 동안 적 200여명을 포로로 하여 후송하는 공을 세웠던 것이다.

서울탈환작전을 종식시킨 10월3일 1200경 제10군단장 알몬드소장은 헬리콥터편으로 美 7연대의 議政府로의 진출을 관망하고 있었고 다른 연대의 진출도 돌아보고 있었다. 이로써 사실상 이날 저녁을 기해 美 제10군단의 작전임무는 끝을 맺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美 해병대는 서울 수복이후 다음 날인 4일까지의 전투에서 議政府방면에서의 세차례에 걸친 적과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불과 7명의 사상자만을 내는 희생으로서 所期의 작전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다. 이와 같이 소기의 임무를 완수한 美 해병사단은(韓國 해병대포함) 10월4일 작명 15—50을 예하에 하달한 다음 임무를 위하여 그

병력을 곧 仁川으로 집결시켰는데 각 부대기동의 자세한 일자는 다음과 같았다.

美 해병 제1연대 ——10월5일—18.00　　美 해병제11연대 —— 6일 17.00
美 해병 제5연대 —— 6일 오후　　韓國 해병대 —— 7일 오후
美 해병 제7연대 —— 7일 오후

§. 참전자의 증언

한국해병대의 北漢江 지구전투

해병대 제2대대 7중대

趙性俊 소위

(1965년 3월 14일, 해병제3연대장실, 대령)

金谷에서 우리는 적과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부대는 추격전을 벌려 모조리 이들 적을 박멸하였다. 이때 우리 측 손실도 4명내지 5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우리부대는 仁川으로 가서 약10일간 부대정비를 하고 木浦로 내려가서 湖南지구에 출몰하는 잔비(殘匪)에 대한 섬멸작전을 전개하였다.

해병대 제2대대 5중대 1소대

文時哲 견습수병

(1965년 4월 14일, 해병사단 제3연대본부, 상사)

우리는 金谷에 가서 전투를 많이 하였으며 그때부터 휴전이니 하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우리 제5중대는 무적 제5중대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는데 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면 이상하게도 적은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인명손실도 제일 적었고 제6 제7중대가 육박전까지하면서 고전하였지만 제5중대는 그런 것이 없었다.

해병대 수색중대

金鍾植 대위

(1965년 6월 5일, 해병사단 참모장실, 대령)

金谷에서 수색중대는 탐색외에 별로 한 것이 없다. 仁川에서 집결했을때 저는 제1대대 부대대장으로 나갔다.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申鉉玉 소위

(1965년 11월 29일, 合參大學, 대령)

10월초순 우리 해병대는 仁川에 집결했다. 그후 元山에 상륙하기 위해 우리대대는 美 해병대의 선발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 선발대 요원으로 뽑힌 것이 정보장교로 李대위가 작전장교는 현 金然翔장군 그리고 소대장으로 내가 선발이 되었다.

仁川을 떠나 元山으로 갔는데 기뢰 때문에 일주일이나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元山 明沙十里에 내려서 德源에 집결하였다.

◇ 議政府점령

해병대 제5대대 23중대

趙義正 소위

(1966년 1월 25일, 國防大學院, 대령)

제5대대는 속번리에서 弘濟洞을 거쳐 서울로 들어 왔으나 우리 23중대는 美 제7연대에 배속되어 弘濟洞에서 三角山 줄기를 타고 진격하고 지금에 議信女中 있는 데 까지 왔다.

그후에도 美 제7연대이 議政府를 공격할때 선봉에서 싸웠으며 이 전투에서 포로를 많이 잡았다.

8. 空 輸 支 援

仁川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속 서울을 향해 진격한 제10군단은 막대한 장비와 보급품이 요구되었다. 주로 해상수송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仁川항의 천연적인 조건 때문에 예상외로 화물양륙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긴급전투물자의 공수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극동 공군 전투화물수송사령부의 활약이 기대되었는데 더넬장군이 지휘하는 공수부대가 곧 이를 담당하고 일을 착수하였다.

9월 19일 : 14.20에 브라운 필드소령이 조종하는 C-54 수송기가 처음으로 金浦비행장에 도착하였고 그 뒤를 이어 8대의 C-54수송기와 23대의 C-119수송기가 야간조명 장비등 긴급 물자와 280명으로 편성된 제1전투지원부대를 공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스트버 중령이 지휘하는 전투지원부대는 던너장군 자신이 창안(創案)한 화물의 신속한 하역작업을 위한 공군화물취급소를 설치하고 일처리에 임하였다.

9월 20일 : 극동공군 전투화물수송사령부는 10월1일까지 도합 226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수송기는 일본으로 돌아갈 때에는 부상자들을 공수하여 많은 장병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공수된 주요 보급품은 美 제33해병비행전대에서 요구한 항공휘발유와 항공용 탄약이었다.

9월 21일 : 이날은 지상군이 극히 필요로 하는 탄약과 식량등 보급품이 공수되었는데 이를 담당한 것은 C-119 수송기였다.

9월 24일 : 또한 水原비행장이 점령된 이날에는 8대의 C-54수송기가 65톤의 탄약과 식량을 공수하는데 성공하였다. 美 제10군단장은 공격부대의 北쪽 측면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단시간내에 美 제187공수연대 1개대대를 金浦에 공수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9월 25~27일 : 전투화물수송사령부에서는 이 요청에 따라 우선 적으로 기간 중 3일동안에 걸쳐 1개공수대대를 金浦비행장에 수송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큰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는 요컨데 金浦와 水原 양 비행장이 활주로의 손상없이 지상군에 의해 확보되었기 때

문이었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비행장의 점령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알몬드 제10군단장은 극동 공군의 이와 같은 신속한 공수작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승리는 가장 위험한 때에 공수된 막대한 물자와 증원부대에 힘 입은 바가 컸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지당한 찬사에 틀림없으며 이 작전은 이렇게 하여 육·해·공군의 삼위일체의 묘체(妙諦)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다. 작전 후의 개황

南進한 美 육군제31보병연대가 9월27일 북진하는 美 제8군과 제휴하고 10월3일을 기해 대체로 서울을 중심한 주변지역에 반월형의 방어선을 완성한 美 해병대와 韓國 해병대는 38선을 목표로 일제히 진격하는 UN군 여러 부대에게 이미 확보하게 된 지역을 모두 인계한 다음 차기 임무를 위해 또다시 기동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美 해병사단 작명 15—50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명령은 10월5일을 기해 발동되었던 것이다.

10월7일까지 美 해병사단과 韓國 해병대는 다른 지역에서 총 반격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仁川에 집결한 다음 각기 서로 상이한 지점으로 상륙하기 위해 仁川항을 떠남으로써 서울탈환작전은 일단 끝나게 되었다.

대체로 이 서울탈환작전은 미리 계획된대로 시작되어 약3개월간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실제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은 9월15일부터 29일에 이르는 14일간이었으며 서울에 돌입하기까지에는 5일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작전은 당초 예측한대로 한국전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였다.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仁川이 지니고 있는 천연적인장애로 상륙전은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군은 능히 이를 극복하고 적 후방 깊숙이 파고 들었던 것이므로 여기에 당황 하게된 적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서울을 고수코자 하였으나 상륙군의 기습에 이은 강습에는 대처할 바를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것이니 주동과 피동의 차와 陸·海·空합동의 힘과 육상일변도의 힘의 대결은 이와 같이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후방이 차단된 洛東江 전선의 적은 일시에 무너지고 급기야는 총퇴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반면 우군부대는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땅을 되찾고 저하되었던 사기를 다시 높이게 되었는데 이로써 전전선에 걸쳐 총반격작전으로 나올 수가 있었으며 국민의 자신과 긍지는 충천하는 듯하였으나 그 일면으로 본다면 황폐화된 피점(被占)지대의 처량한 모습과 물적인적손실의 막대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

10월 초순 서울탈환작전을 끝마칠 무렵 南韓땅에 진입하였던 북괴군은 유격부대를 남겨 놓았을 뿐

그 주력은 38선이북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韓國전쟁 초기에 南韓땅에 침입한 135,000여명 중 북괴군이 반격에 몰려 붕괴된 후 38선이북에서 집결할 수 있었던 병력은 불과 25,000내지 30,0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수도 서울은 탈환되었다지만 그 참상은 극심하였으니 그것은 UN군에 의한 상륙작전이 감행되고 서울탈환작전이 본격화되자 북괴군은 더 이상 서울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북괴군은 초토(焦土)작전을 쓰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울을 철퇴하기에 앞서 재차 남침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시설물의 파괴와 유능한 인재들의 납치 압송, 그리고 반공인사의 숙청등을 자행한 것을 보아서도 그 일면의 야욕과 수심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황(戰況)이 점차로 불리하여지자 하는 수 없이 서울에 남아 있던 군경가족과 반공인사에 대한 취급은 날이 갈수록 가혹하여져서 매일(每日)과 같이 수백명의 인사들이 그들의 무자비한 총뿌리에 희생되었고 시민들의 강제징용과 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혹독하여 갔으니 이른바 생지옥과 폐죽음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리라.

제10군단이 진주한 서울거리의 지하실과 가두에는 학살된 대국관민의 시체가 비참한 모습으로 널려있었고 그 수효는 대략 9,500여명에 달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시민은 7,000여명이나 되고 납치된 인사는 2만 수천 내지 3만명 행방불명된 사람은 대개 4,000여명을 헤아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부록 제174호 납북인명부참조) 이 얼마나 큰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재의 수많은 강제납송은 서울을 되찾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대부분도 학살이 아니면 모두 북송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그 과수들이 어찌 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시설물의 파괴는 극심하여 서울시는 쓸만한 건물과 공장은 거의 남아나지 않았으며 중요한 문화재도 상처투성이의 상태에서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만행은 상륙군의 포, 폭격에도 기인한 것이었지만 북괴들이야 말로 소탕(掃蕩)의 두글자 그대로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은 것이요 말살(抹殺)의 일언으로 능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 12월15일 정부가 서울시 피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타 버린 건물호수가 18,00호요. 반파 또는 반소된 것이 3,000호에 달하였다고 하니 악귀야차(惡鬼夜叉)마저 그들의 모습에는 전율을 금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참전자의 약력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당년 53세인 그는 버지니아주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대전 당시는 어떤 기관총 대대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훈장도 받았다. 제2차 대전중에는 이태리에서 美제92보병사단을 지휘하였다. 1946년 6월에 극동군 사령부에 전임되어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참모부장으로 1949년 2월 18일 부터는 극동군 참모장, 1950년 6월24일에는 UN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꾸준히 근무에 전념하는 타입으로서 인연가요, 인내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회색 두발이 성성한 그는 푸른 눈의 소유자였으며 날카로운 모습을 지닌 중간 키에 어깨를 약간 구부린 편이었으며 아주 인기있는 장군의 한사람이었다.

美 해병제1사단장 스미스(Olives P. Simith)

그는 순수한 해병대 출신으로서 제2차 대전중에는 아이스랜드방위군 대대장, 카타르카날에서 제5연대장, 쯔루브(남태평양도서남단)작전시는 美 해병제1사단 참모장, 그후 동사단 부사단장을 역임 하였다. 제2차 대전후에는 해병군단부 사령관으로 美 본토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해병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美 해병제1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의 재능은 해병대 입대 당시 부터 주목되었다. 특히 그가 지니는 불굴의 기백과 확신에 대한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은 타에 양보하는 바가 없었고 일을 성취하기위한 노력과 그의 근성은 상하로 부터 높이 평가 되고 있었다.

33년의 해병생활을 지속한 그는 항상 해병대가 걸어가여야 할 이상을 추구하여 왔다.

지휘관으로서의 그는 숙소한 다음 비로소 단행하는 형으로서 일단 결단을 내리기 까지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거듭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결단시기를 놓친 적은 없었다. 준재(俊才)에 속한 그의 결점을 일부러 든다면 우둔한 사람에 대해관용을 잃어 특히 태만자에게는 엄격한 인물 이었다.

한국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1946년 6월 21일 해군 건습사관
46년 11월 22일 해군仁川기지사령관(중위)
47년 9월 1일 해군釜山기지사령관(대위)
48년 5월 1일 해군진해통제부참모장 (소령)
49년 2월 1일 해병대사령관(초대)(중령)
49년 6월 1일 대령
50년 9월 20일 준장
52년 1월 31일 소장

金聖恩 部隊長 金聖恩

1946년 4월 1일 해군소위임관
1949년 3월 1일 해병대참모장(중령)
1949년 9월 1일 포병부대장(중령)
1950년 7월 22일 金聖恩부대장(중령)
1970년 12월 27일 해병제1연대장(대령)
1952년 3월 20일 〃 교육단장(대령)
1952년 10월 16일 〃 전투단장(대령)

韓國 해병대 제5대대대 金大植

1946년 2월 15일 해군소위임관

46년 9월 7일 해안경비대인사국장(중령)
50년 9월 20일 해병대 편입 (〃)
50년 9월 30일 해병대제5대대장(중령)
50년 12월 16일 해병대참모장(대령)
51년 5월 2일 해병대제1연대장(대령)
51년 9월 1일 해병학교장(대령)
53년 3월 5일 해병교육단장(대령)
53년 4월 4일 준장

韓國 해병대 제1대대장 高吉勳

1946년 10월 28일 해군소위임관
50년 8월 1일 해병대제1대대장(소령)
51년 4월 1일 해병학교장(중령)
51년 12월 16일 〃 포병대대장(중령)
52년 3월 21일 〃 훈련소장(중령)
53년 5월 31일 〃 도서부대장(대령)
53년 7월 7일 〃 전투단장(대령)

한국 해병대제3대대장 金潤根

1946년 12월 15일 해군소위임관
49년 7월 29일 해병대제2중대장(대위)
50년 8월 7일 〃 제3대대장(소령)
51년 1월 해병학교장(소령)

한국 해병대 제2대대대 金鍾洪

1946년 12월 25일 해군소위임관 (해군사관학교 1기 졸)
1947년 4월 8일 YMS 501초대함장
1949년 7월 1일 해군群山기지사령관(소령)
1950년 6월 23일 해병제2대대장
1951년 1월 29일 德積島해군주둔부대장
1951년 7월 1일 (제2차 群山기지습상륙작전지휘관)
PC7 함장

한국 육군제17연대 제1대대장 柳昌燻

1948년 4월 6일 육군소위임관(육사5기)
1948년 5월 17일 제17연대연락장교
1949년 12월 3일 제17연대정보주임장교
1950년 3월 21일 제17연대제1대대장
1951년 12월 3일 제17연대부연대장
1952년 11월 20일 제8사단 제16연대부연대장
1953년 1월 24일 제6사단제2연대 부연대장

附　　錄

1．作戰命令
2．訓　　令
3．戰歿者人名單
4．拉北者　名錄
5．參考文獻
6．年　　表
7．索　　引

1. 作 戰 命 令

부록 제1호

육본작명 제94호 1950. 8. 2. 03.00
漢北 大邱

육 군 본 부

. (1) 미 제1기갑사단은

가. 미 제25보병사단의 8월 1일~2일~3일 3일간의 야간에 있어서의 이동 및 재집결을 원조한다.

나. 미. 25보병사단의 이동완료즉시로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 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다. 동부 및 남동부지구의 적 행동을 계속 저지한다.

(2) 미 제24보병사단은

남부지구 미 제25보병사단과의 교대완료 즉시 지구내 "Y" 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3) 미 제25보병사단은

가. 8월 1일~2일간의 야간에 1개전투연대와 사단사령부를 신 담당지구내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제24, 제25사단 전투지경 남방의 미 지상군과 교대한다.

나. 잔여 사단병력은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신 담당지구내 "X" 선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한다.

다. 8월 2일~3일까지 "X" 선동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한다.

라. 신 지구동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고 서방에 대하여 공격작선을 실시할 준비를 한다.

(4) 연합군 공군 변경무

(5) 연합군 해군 변경무

(6) 폐리전투부대 변경무

. (1) 한국군은 8월 2일~3일야간까지 "X" 선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Y" 선남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2) 주요보급로 경호에 관한 책임은 계속 담당하라.

. (1) 제1군단은

가. 현 방어진지(작전요도 "X"선) 남부의 적행동을 8월 2일~3일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 (작전요도) 상의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내 "Y"선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제2군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1개연대를 군단예비로 보유하라.

(2) 제2군단은

가. 현진지(작전요도 "Y"선) 남부 및 동남부의 적 행동을 8월 2일~3일간의 야간까지 계속 저지하라.

나. 8월 2일~3일간의 야간에 "Y"선 (작전요도)상 선정된 진지로 이동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구내 "Y"선남부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이동은 미 보병제25사단과 협조하여 실시하라.

다. 제3사단은 현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가. "Y"선상의 선정된 진지에 대한 수색은 8월 1일~2일간에 실시하라.

나. 전 부대는 접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정찰수색을 실시하라.

다. 담당지구 외의 이동은 해당부대 본부와 협조하여 실시하라.

라. 인접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하라.

마. 이외의 이동은 차 사령부명령이 있을 시에 한하여 실시하라.

바. "Y"선(작전요도)으로의 이동을 개시한지 50% 완료된 시엔 즉시 차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라.

사. 후송치 못하는 보급품과 물자는 파괴하라.

이하 생략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 楺

부록 제2호

육본작명 제98호 1950. 8. 3. 2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명령

一. (1) 盈德방면으로 남진하던 적 제○사단주력은 아군의 맹공으로 남하를 저지당하고 그 일부 병력을 普賢山 방면으로 침투 남하시켜 아 후방교란을 기도중임.

(2) 아 유격대 및 경찰대는 해적을 맹공 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교대하려 함.

(1) 제3사단장은 이하 제1유격대대장을 1950. 08. 04, 12.00까지 九川洞(1188~149)에 진출시켜 공병단장으로부터 별표 장비를 인수하고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2) 공병단은 별표 제1의 준비를 제1유격대대에 인계하는 동시 당면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인식시키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표

장비	0.5인치	기관포 2정		경 기 1정	
	60mm	박격포 2문		81mm	박격포 3문
		경 체코기 4정			

부록 제3호

군단작명 제49호 1950. 8. 8. 13.00

제 1 군단사령부

一. (1) 南鮮 방면으로부터 남침 중인 적 약 1개연대는 계속 남하 중이며 그 일부는 작 8월 7일 16.00경 道坪에 침입하였음.

(2) 善豊川 방면에서 잠동하는 적은 계속 부근 촌락에 출몰하고 있으며 아 제1유격대 및 경찰대대는 현적을 공격 중에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九川洞 및 道坪洞에 진출시켜 해지구를 점령,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함.

三. 제3연대는 즉시 九川洞에 저(至)하여 김면의 적을 道坪 방면으로 압박 공격, 道坪을 확보,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여 격멸하라.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4호

1 군단작명 제51호 1950. 8. 9. 20.00

제 1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道坪 방면에 대부대를 집결하여 永川, 大邱 방면에 남진을 기도 중에 있음.

(2) 아부대는 적의 남진을 적극 저지하고 있음.

二. 군단은 道坪洞 방면의 적을 격감하려 함.

三. (1) 수도사단장은 제17연대를 8월 10일 05.00시까지 九川洞에 이동시켜 道坪 방면의 적을 격멸하라.

(2) 제10포병 대대장은 대대본부와 구 수도사단 배속 포병 1개중대를 인솔, 수도사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四.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5호

육본작명 제116호 1950. 8. 10. 24.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적정 생략

(2) 우군의 상황 작전 투명도 참조

二. (1) 군은 浦項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함.

(2) 전투지역 별지 투명도 참조

三. (1)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은 서기 1950. 08. 11. 14.00를 기하여 작전투명도 상에 표시된 지역내의 적을 공격섬멸하고 그의 남하를 저지하라.

(2) 보병 제17연대는 서기 1950. 08. 11. 04.00까지 安康里(1219~1455)에 달하여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 하에 입하라.

(3) 보병 제3사단장은 예하 제25연대를 서기 1950. 08. 10. 24.00를 기하여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입하라.

(4) 金龍周 부대장은 예하 유격대대와 경찰부대를 통합하여 서기 1950. 08. 10, 24.00를 기하여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입하라.

(5) 해군육전대는 서기 1950. 08. 10. 24.00를 기하여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입하라.

(6) 포병단장은 예하 75mm 곡사포 1개중대를 浦項 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하라.

四. 행정사항 후송함

五. (1)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지휘하에 입하는 각부대는 소지 통신기재일절을 휴행하여 동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2)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은 통신연락에 관하여 통신현실에 의거실시하라.

(3) 浦項 지구 전투사령부에 소요되는 장병 및 기재는 육군본부에서 충당한 동시에 통신인력배부에 관하여 지시함.

(4)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은 예속된 예하부대의 통신병력 및 기재상황에 관하여 장악 즉시 육본통신감실에 보고하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6호

1군단작명 제53호

1950. 8. 10. 12.00
曙北 義興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일부병력으로 공격전진하여 남하 중인 적을 저지격멸하려 함.

三. 제8사단장은 수도사단 제18연대 및 예하 각연대로 하여금 금 10일 18.00 현재선에서 공격개시 금야 24.00까지 별지 투명도와 같이 각각 진출선에 진출하라.

四. 제18연대의 보급 인사 (포로사항제외) 일절은 구소속 사단에서 담당 취급케 하라.

五.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7호

육본작명 제119호

1950. 8. 11. 11.00
曙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 군은 차기 작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12일~13일 야음을 이용하여 "X"선까지 13일 14일 야간에 "Y"선까지 전진하려 함.

(2) 생략

三. (1) 생략

(2) 제2군단

가. 제1사단은 8회 12일~13일간 야음에 동지구 "X"선으로 전진하라. 13일~14일간 야음에 "Y"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연대는 증강된 1개대대를 원호대로서 현재선에 잔치시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라.

나. 항이하 3, 4, 5

四. 생략

五. 생략

기타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호

육본작명 제120호

1950. 8. 11. 1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생략

(2) 아浦項지구 전투사령부는 安康에 위치하여 미군 협동 해적을 포착공격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여 杞溪 방면의 적을 포착 공격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수도사단장으로 하여금 제26 연대를 서기 1950. 8월 12일 05.00 大邱출발 安康에 도착시켜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2) 제26연대장은 서기 1950년 8월 12일 05.00 大邱출발 安康에 도착후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9호

2군단작명 제12호

1950. 8. 11. 18.00
慶北 軍威

제2군단사령부

一. (1) 적은 계속 洛東江을 도하하려 함.

(2) 군은 연합군과 같이 전략적으로 우세한 지형을 확보하려 함.

二. 당군단은 인접부대와 밀접한 협조하에 강력한 엄호부대에 의하여 "Y"선에 진지를 점령하려함

三. (1) 제1사단장은 제1기갑사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X일 20.00 행동개시 上林洞~多富洞을 경유 "Y"선에 진주하라

(2) 제6사단장은 제1사단 제8사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X일 20.00 행동개시 桃原里~軍威~義興을 경유 "Y"선에 진주하라

(3) 군단본부 및 직할부대는 X일 13.00 행동개시 軍威~新寧~永川 경유 河陽에 진주하라

(4) 각 연대는 증강된 1개대대의 엄호부대를 현재선에 잔치하여 후퇴는 사단에서 통합지휘하라

(5) X일은 차후 지시함

四.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10호

1군단작명 제55호 1950. 8. 12. 01.00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1) 군단은 수도사단을 현 방위선으로부터 집결시켜 신 임무에 임하게 하려함

(2) 차명령으로서 작명 제51호는 무효로함.

三. (1) 수도사단장은

가. 제18연대를 집결하여 즉시 道坪洞에 진출시켜 당면의 적을 격멸하고 해지를 확보하라

나. 즉시 제1연대를 집결시켜 義城부근에 위치케하라. 별명시 安東 방면 또는 永川방면에 진출 할수 있는 준비를 실시하라.

(2) 제8사단장은 제1, 제18연대의 방위지역을 인수받아 현 정면의 방위에 만유감없기를 기하라

(3) 각사단 포병대장은 야간 교란사격을 계속함과 동시 제1, 제18연대의 집결을 엄호하라.

(4) 제8사단은 수도사단장으로부터 공병 도로파괴 준비일절을 인계받으라.

四.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11호

1군단작명 제56호 1950. 8. 12. 15.30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부대를 이동하여 당면의 적을 격멸하려 함.

三. (1) 수도사단장은 사령부 및 제1연대를 즉시 永川으로 이동하라.

(2) 제8사단장은

가. 사령부를 임시 九川洞에 설치하여 독립 기갑연대 및 道坪·九川洞·慈川 방면의 경찰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나. 예하부대를 즉시 철수하여 별지 투명도 MLUR에 8월 14일 06.00까지 배치하여 차선을 확보하라.(중점을 道坪방면에 지향하라)

다. 蘭洞(1488. 5~1192. 4) 下松洞(1190~1473)간 도로를 정찰보고하라.

(3) 병력철수는 축차 실시하며 소부대로서 엄호하라.

(4) 유격대출몰에 대비하여 특히 사주경계에 유의하라.

(5) 각 대는 최대한도로 예비대를 보유하라.

四.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12호

육본작명 제131호 1950. 8. 15.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浦項시에는 적 1개대대 병력이 있음.

(2) 미전차부대는 浦項 비행장을 확보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시켜 浦項을 공격 탈환하려 함.

三. (1) 関부대는 즉시 慶州 경유 松內洞에 진출하여 제1연대의 우익 제1선이되어 일거 浦項을 공격 탈환하라.

(2) 浦項 비행장에 있는 미전차가 협동할 것임.

(3) 이동완료와 동시에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4) 수도사단과 긴밀히 연락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雨

부록 제13호

육본작명 제134호 1950. 8. 15. 14.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 군은 담당지구 동부에 방어진지를 확립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북방 및 동북방의 적에 대하여 반격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하려 함. 동시에 담당지구 서부방어진지 동, 동남 및 ※ 부방면의 적 행동을 계속저지하려 함.

(2) 생략

三. (1) 제1군단은 담당지구내 전 부대를 작전 행진양면으로 통합 지휘하라.

가. 제8사단은

(ㄱ) 즉시 첨부 투명도(부록 제3호)에 표시된 선상에 방어진지를 확립하라.

(ㄴ) 도로교차점(1178~146)에서 제6사단과의 접촉을 확립유지하라.

(ㄷ) 도로교차점(1205~1472)에서 수도사단과의 접촉유지하라.

(ㄹ) 사단 담당지구 남부 혹은 서남부 방면에서의 적 행동을 저지하라.

(ㅁ) 명령이 있을 시에는 북방에 대한 협동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나. 수도사단(浦項地區 전투사령부 및 偵察隊부대 배속)은

(ㄱ) 즉시 투명도(부록 제3호)에 표시된 선상에 방어진지를 확립하라.

(ㄴ) 도로 교차점(1205~1472)에서 좌측 제8사단과의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ㄷ) 제3사단이 미군 부래드리 전투부대와 교대할때까지 우측 미군 부래드리 전투부대와의 접촉을 확립 유지하라.

(ㄹ) 제3사단이 첨부투명도에 표시된 지구를 담당 교대할 시엔 즉시 機械化부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육군본부직할로 원대복귀하라

(ㅁ) 명령이 있을 시엔 북방에 대한 협동반격을 개시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다. 제3사단은

(ㄱ)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시엔 현 전지로부터 해상으로 하여 九龍浦里(1253~1455)로 이동하라. 해상이동에 관한 세부는 제4항을 참조하라.

(ㄴ) 제1군단 담당지구에 도착즉시로 첨부 투명도(부록제3호)상에 표시된 지역내의 수도사단병력과 교대하라.

(ㄷ) 우측 미군 부래드리 전투부대 및 좌측 수도사단과의 접촉을 확립유지하라.

(ㄹ) 명령이 있을 시엔 북방에 대한 협동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제2군단

가. 제1사단은

(ㄱ) 좌측 미군 기갑사단 및 우측 제6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ㄴ) 정면의 적을 교란시키고 요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부적 반격을 실시하면서 현 방어선을 확보하라.

나. 제6사단은

(ㄱ) 정면의 적을 교란시키고 요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부적 반격을 실시하면서 현재선을 계속방어하라.

(ㄴ) 좌측 제1사단과 도로교차점(1178~1478)에서 우측 제8사단과 접촉을 유지하라.

(1) 전화, 무전, 연락장교 교환 투명도 교환 정찰등 방법으로써 인접부대 및 예하부대와의 접촉을 계속유지하라.

(2) 상기 지시 이외의 부대이동은 육군본부와 협동하여 실시하라.

(3) 항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찰을 실시하라.

(4) 좌우측 인접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육참모장 육군소장 丁 -- 權

부록 제14호

1군단작명 제59호 1950. 8. 15. 17.00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작명 제58호 군대 구분으로서 유격연대를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편입하였으나 차명령으로 유격연대의 지휘관계를 명확히하려함.

三. (1) 유격연대장 중령 金龍周는 제1유격대대 및 제2유격대대를 통합지휘하라.

(2) 유격연대는 군단작명 제58호로서 浦項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들게되었으나 芝洞지구에 제8사단이 진출할 A지까지 당면의 적을 격멸하고 제8사단의 진지점령을 엄호한후 浦項地區 전투사령관 지휘하에 들라.

(3) 제1유격대대본부를 즉시 仁邱洞에 이동케 하라.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15호

2군단작명 제14호 1950. 8. 15. 13.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上揚里—新酒幕으로 향하여 남하 중임.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차후의 반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주력으로서 上揚里—新酒幕으로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함.

三. (1) 제1사단장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시켜라.

(2) 제6사단장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통합지휘하는 동시에 제7연대에 배속하라.

(3) 제7연대장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확실히 파악하여 391.7고지(1154~1471)에 배속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16호
浦項戰司작명 제 4 호

1950. 8. 15. 10.00
慶北 浦項

浦項지구전투사령부

一. 적정 생략

二. 부대는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해군 육전대장은 즉시(10.35) 黑石洞(206 1455,4)에 부대를 이동하라.

(2) 해군 육전대장은 이동 완료 즉시로 사령부에 보고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여는 浦項 전투사령부에 재함

사령관 육군대령 李 正 一

부록 제17호
1군단작명 제64호

1950. 8. 16. 20.00
慶北 慶州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생략

三. 생략

(6) 浦項 지구 전투사령관은 제25연대 전병력을 1개대대로 편성하여 제26연대에 편입하라.
제26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시켜라.

(7) 제3사단장은 전기 배속된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8) 생략

(5) 기갑연대는 군단 예비대가 되어 명 8월 20일 10.00까지 永川에 집결 후 군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10) 수도사단에 배속된 해군육전대는 8월 20일 원대복귀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여는 군단사령부에 임함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18호

육본작명 제136호 1950. 8. 17. 2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浦項 시내에는 적은 없고 북방고지에 3개대대와 포 3문이 있음.
아 제1연대정면 적은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고 주력은 土城방면으로 총 퇴각 중 아 제17연대정면에 적은 3개대대이며 역시 퇴각에 기세를 보이고 있음. 九山洞 아 제21연대정면에 적 8사2연대가 출몰하여 현재 아군과 교전 중.

二. (1) 군은 일부병력을 배치하려 함.
(2) 전투지경 별지참조

三. (1) 제1군단은 예하 수도사단 제2대대를 1950년 8월 18일 24.00까지 제3사단장에 배속하라.
(2) 제1군단장은 예하 関部隊에서 완전 1개대대를 1950년 8월 18일 12.00까지 九龍浦에 도착시켜 제3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3) 제3사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9호

육본작명 제138호 1950. 8. 17. 2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一. (1) 가. (1234~1161) 부근에 포 3문을 보유하는 적 약 1개대대
나. (1227~1458) 부근에 포 2문을 보유하는 적 약 1개대대
다. (1234~1458) 부근에 포 2문을 보유하는 적 약 1개연대
라. (1218~1459) 부근에 적 약 1개연대
마. (1211~1459) 부근에 적 약 1개중대
바. (1210~1469) 부근에 적 약 1개연대
사. (1230~1481) 부근에 적 약 2개대대
아. (1233~1490) 부근에 적 약 2개대대

(2) 가. 한국군 제2군단은 담당지구 적을 계속 포착하고 있음. 제6사단은 담당지구 우측에 주저항선 확립에 필요한 이동을 실시하고 있음.
나. 미군 제1기갑사단은 洛東江서안의 적을 계속 포착하고 있음.
다. 미 공군은 지상군에 대한 전술지원과 장거리 전략폭격을 실시하고 있음.

라. 미 해군은 해안선을 계속 통어하고 있으며 지상군에 대한 지원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二. 군은 제1군단으로 하여금 투명도(부록 제2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저항선을 확립하기 위하여 8월 20일 06.00시를 기하여 북방을 공격하려 함.

공격진출선은 투명도상에 표시된 바와 같이 구분한다.

三. (1) 제3사단

가. 제1기

浦項市를 공격 확보하고(1224, 3~1464)로부터 (1234, 3~1461)에 이르는 일반선을 확보하라.

나. 제2기

(1221. 8~1466. 5)로부터 (1238. 1~1466)에 이르는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나. 제3기

(1223. 1~1471. 7)로부터 (1236. 3~1472. 1)간의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라. 제4기

(1224. 7~1477)로부터 (1236. 2~1476. 8)간의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마. 제5기

(1224. 7~1477)로부터 (1231~1481)간의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2) 수도사단은

가. 제1기

제3사단과 협조하여 杞溪(1217. 5~1464. 5)를 (1212. 8~1470)로부터 (122. 3~1464.1)간의 일반선을 각각 공격 확보하라.

나. 제2기

(1206. 6~14755)로부터 (122. 18~1466. 5)간의 1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다. 제3기

(1206. 6~1475. 5)로부터 (1223. 1~1471. 7)간의 1반선을 공격확보하라

라. 제4기 및 제5기

제3사단과 협조하여 (1206. 6~1475. 5)로부터 (1224. 7~1447)간의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3) 제8사단

가. 제1기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1179~1481)로부터 (1206~140.7)간의 일반선을 공격 확보하라.

(4) 제한점 및 전투지경에 관하여는 투명도를 참조

(5) 포병

가. 미 제15포병대대(欠)는 D일 및 D+1일에 한하여 3사단에 직접지원하라. 전방으로 이동시

키지 못하여 D+1일후엔 군단 예비대로 복귀하라.

나. 미군 제37포병대대(欠)는 D일 및 D+1일에 한하여 제3사단에 직접 지원하라.
전방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며 D+1일후에 군단 예비대로 복귀하라.

다. 한국군 제10포병대대는 수도사단에 직접 지원하라.

라. 한국군 제11포병대대는 D+2일까지 수도사단에 직접 지원하라.

마. 한국군 제50포병대대는 제8사단에 직접 지원하라.

바. 한국군 제11포병대대는 D+2일후부터는 제3사단에 직접 지원하라.

(6) 군단예비

제23연대(欠) 慶州 지구에 집결하고 부레드리 전투부대는 현 위치에 잔류하라. 이 예비병력은 주한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이 있을 시에 한하여 사용한다.

가. 전화, 무전, 연락장교 교환 투명도의 교환 정찰등의 방법으로 인접부대 및 예하부대와 항시 접촉을 유지하라.

나. 제3사단에 배속된 해군 지상관측반은 D—1일 이후로 해군 해상항공기의 지원사격을 지시하고 그와 협조하라. 해군 지상관측반은 정황이 허락하는한, 공지 연락반근처에 위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협동지원에 관하여 협조하라.
해군은 D—1일에 해상폭격을 실시하고 D일부터 D+5일까지 공격준비 폭격을 실시하라

다. 제3사단 및 수도사단에 배속된 공지 연락반은 미공군의 긴밀한 지원을 지시하고 그와 협조하라. 제3사단 공지연락반은 해군 지상연락반과 협조하여 최고의 사격효과를 발휘하고 공중 정찰을 실시하여 해군 함포사격의 적확한 목표를 제공하라.

라. 미공군은 시기 1950년 8월 19일 야간에 공격할 지구에 대한 지역폭격을 실시하라.

마. 부대 지휘관 및 선임 미 고문관은 공지연락반 및 해군 지상관측반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우군 부대행동 및 위치에 관하여 협조하라.

바. 보병부대는 기하달한 규정의 표지포판을 게시하라.

사. 상기 지시한 이외의 부대이동은 이동개시 전에 본부와 협조한 연후에 실시하라.

아. 중대 단위를 포함하는 전 부대는 좌우 양측의 인접부대와 접촉을 유지하라.

자. 집결지로의 이동은 야음을 이용하여 실시하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20호

육본작명 제138호 부록 제호

육 군 본 부

편성부대

제 1 군 단 육군소장 金 弘一

제 8 사 단 육군대령 崔 德新

제 10 연 대

제 16 연 대

제 21 연 대

제 50 야포병대대

수 도 사 단 육군대령 白 仁燁

제 1 연 대

제 17 연 대

제 18 연 대

제 10 야포병대대

제 11 야포병대대

제 3 사 단 육군준장 金 錫源

제 22 연 대

제 23 연 대

제 26 연 대

제15미 야포병대대 1개중대

제 37 미 야포병대 2개중대

한국군 야포병대 1개중대

부래드리부대 (미군)

제 9 연대전투부대 제 1 증원대대

제23연대전투부대

부록 제21호

육본작명 제140호

1950. 08.19, 2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적정

제2군단 정면의 적은 8사, 1사, 13사, 15사, 3사단임.

적의 진출선은 아 6사단 정면 236.5고지(1168~1482.6)—老古洞(1160~1479)—梅源山(1158~1474.5)—將軍洞(1156~1470) 아 1 사단정면 卜谷(1153, 1463)—무명고지(1150~1463.5) 遊鶴山(1147~1463) 發陽山(1143~1463.7) 무명고지(1142~1462) 346고지(1140~1463) 152고지(1140~1460) 中旨洞(1139.5~1457)에 각 진출함.

적 병력 아 6사단정면—적 제8사단 3개연대 6,000명 전차 4대 포 49문

아 제1사단 정면—적 제15사단 3개연대 4,800명 전차 5대 포 30문

제13사단 3개연대 5,000명 전차 13대 포 6문

제3사단 3개연대 7,500명 전차 20대 포 30문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閔機植 부대를 즉시 新寧(1176~1460)에 이동케 하라.

(2) 閔部隊는 新寧 도착 후 제2군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하라.

(3) 제2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하라.

(4) 육본작명 제136호(1개대 제3사단배속)은 취소함.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22호

2군단작명 제15호 1950. 8. 19. 24.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의 주력은 여전히 아 제1사단 정면에 지향하고 軍威－多富洞－漆谷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고 있음.

(2) 군은 연합군지원하에 차후반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일부증원부대의 증원을 얻어 "Y"선을 확보하려 함.

三. (1) 육본작명 139호에 의하여 제10연대는 1950년.08. 18. 18.00부로 제2군단에 배속함.

(2) 제1사단장은 전기 제10연대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23호

1군단작명 제67호 1950. 8. 20. 19.00
慶北 慶州

제 1 군단사령부

一. 제8사단장은 江原道 경찰부대 제3 제7대대를 제속 지휘하라

부록 제34호

2군단작명 제16호 1950. 8. 20. 13.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제1사단 정면의 적은 주력으로 新酒幕 방면으로서 계속 남하를 기도 중 제6사단 정면의 적은 주력으로 孝令 방면으로서 계속 남하를 기도 중.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차후에 반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일부 증원부대를 얻어 孝令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선멸하려 함.

三. (1) 육본작명 제140호에 의하여 関部隊는 永川, 新寧, 新川洞에 진주하라.

(2) 関機植 부대는 예하부대를 통합지휘하여 新川洞에 도착 후 제7연대 및 제11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주력으로서 馬司洞 373.8고지의 적을 공격 점령 후 孝令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공격하라.

(3) 関機植부대는 馬司洞 373.8고지를 점령후에 제6사단에 배속함.

(4) 제6사단장은 関機植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25호

2군단작명 제17호 1950. 8. 20. 17.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주력을 新酒幕(115.7~1464.6)에 일부병력으로서 365.3고지(1152.8~1466.9)로 지향하여 "Y"선을 돌파 계속 남하를 기도 중.

(2) 군은 연합군의 지원하에 "Y"선을 확보하려 함.

二. (1) 군단은 일부증원부대를 전투에 가입시켜 "Y"선을 확보하려 함.

(2) 関部隊 및 제10연대 주력은 작일 내 373.8고지(1154~1496)에 향하여 공격전진 중임.

三. (1) 육본작명 144호에 의하여 기갑연대장은 예하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河陽, 新寧, 昌平間(1164.4~1466.7) 大栗洞(116.3~1461.7)을 경유, 8월 21일 21.00까지 龍輪洞에 진주하라.

(2) 기갑연대장 龍輪洞에 진주후 関部隊 및 제10연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588.2고지(1156.6~1462) 364고지(1156.4~1461.1)에 적을 소탕하며 373.3고지를 공격점령하라.

기갑연대 본부 龍輪洞

四. 생략
五. 생략

전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26호

1군단작명 제69호 1950. 8. 22. 09.00
慶北 慶州

제 1 군단사령부

一. (1) 생략

(2) 군단은 육본작명 제143호에 의하여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3) 가. 제8사단장은 예하 제1유격대대를 내 8월 22일 24.00까지 大邱 대성국민학교에 이동시켜 제7사단에 전입케 하라.

나. 제1유격대대장은 大邱 이동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27호

2군단작명 제18호 1950. 8. 23. 12.00
慶北 河陽

一. (1) 생략

(2) 군은 포공 엄호 하에 점차 "Y"선을 확보 중임.

二. (1) 군단은 新酒幕 梅谷洞 방면에 중점을 지향하여 공격 전진중.

(2) 전투지경은 별지투명도와 여함.

三. (1) 제1사단은 주력을 新酒幕 방면에 지향 "Y"선에 진출 일부병력으로서 天柱寺(1157.4~1457.8) 山城(1153.7~1459.7) 栗峴(1156.3~1459.3)의 적을 소탕하라.

(2) 제6사단은 주력을 梅谷洞 방면에 지향하여 "Y"선에 진출하라.

(3) 기갑연대는 558.1고지(1157.6~1462.8)를 공격 점령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28호

2군단작명 제19호 1950. 8. 23. 22.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아 제1사단정면의 적

제 3 사단 3,500 포 7 전차 7

제13사단 1,900 포 10 전차 9

제15사단 2,000

아 제 6 사단정면의 적

제 1 사단 8,000 포 11 전차 5

제 8 사단 5,000 포 19 전차 7

(2)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二. 군단은 제3연대 일개대대를 제1사단에 배속하야 架山을 점령 該地 부근의 적을 소탕하려 함.

三. (1) 제3연대 일개대대는 18. 28 19.00 大邱 출발 비행장경유 松亭里를 통하여 法聯洞(1157.6~1455.1)에 진출 제1사단장의 명을 받아라.

(2) 제1사단은 명 8월 24일조 제3연대 일개대대를 사용하여 架山을 점령, 해지부근의 적을 소탕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29호

2군단작명 제20호 1950. 8. 23. 23.15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적정 및 아군상황 군단작명 19호와 같음.

二.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1사단장은 포병일개중대를 명 24일 06.00까지 新寧에 이동시켜 제6사단에 배속하라.

(2) 제6사단장은 상기 포병 일개중대를 지휘하라.

(3) 포병 제16대대장은 제6사단에 배속된 포병 일개중대를 통합 지휘 南方洞(1166.5~1465)부근에 진지를 점령, 주로 기갑연대와 제6연대를 지원하라.

(4) 기갑연대와 제5연대장은 포병 제16대대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포병 지원사격을 받으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30호

1군단작명 제72호

1950. 8. 24. 20.00
慶北 慶州

제 1 군단사령부

一. 군은 일부전투지경을 변경하여 공격의 활력을 회복하려함.

제8사단과 수도사단간의 전투지경선(투명도 참조) 舍谷里(1209.7~1475.8)—甘谷里(1209.4~1475.5)—店村(1208.8~1468.2~528고지(1208.8~1467)

二.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31호

1군단작명 제73호

1950. 8. 24. 22.00
慶北 慶州

제 1 군단사령부

一. 江原道 경찰국은 즉시 예하 제3대대를 제8사단(茲川)에 배속하라. 제8사단장은 전기 경찰제3대대를 통합지휘하여 普賢山 일대에 배치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라.

제 1 군단장 육군소장 金 弘 一

부록 제32호

육본작명 제149호

1950. 8. 26. 17.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적정

제1군단 정면의 적은 2, 3일이내 타방면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특히 군단 우측정면에서는 작일 이래 적의 반격이 활발함. 주로 浦項(1233.5~146) 安康(1220~1455) 정면에 압력이 강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제8연대에서 일개대대를 즉시 慶州에 이동시켜 제1군단에게 배속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振

부록 제33호

육본작명 제151호 1950. 8. 27. 03.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제1군단 군 단 장	육군소장 金 弘一
수도사단장	육군대령 白 仁燁
제1연대	
제17연대	
제18연대	
제18연대 제1대대	배속
제3사단장	육군준장 金 錫源
제22연대	
제23연대	
제26연대	
제사단단장	육군대령 李 亨一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제3연대 제1대대	배속
제2군단 군 단 장	육군준장 劉 載興
제1사단장	육군준장 白 善燁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제6사단장	육군대령 金 鍾五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제7사단 제5연대	제1, 2대대 배속
기갑연대	
제7사단(육군본부예비대) 사단장	육군대령 申 尙徹
제3연대(결 제1대대)	
제5연대(결 제1, 2대대)	
제8연대(결 제1대대)	

一. (1) 적정 생략

(2) 가. 비군 제2, 제25보병사단은 적의 동진행동을 저지하며 담당지구전을 계속 방어하고 있음

나. 연합공군은 지상군에 대한 전술적 전략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음.

다. 연합군 해군은 동해안 한국군에 대하여 근거리 화력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

二. (1) 비군 제1기병(보병) 사단은 한국군 제2군단장과 협의하여 서기 1950년 8월 30일 12.00까지 새로 제정된 제1기병사 한국군간의 전투지경 서쪽에서 현 제2군단 담당지구(별지 제2작전투명도 참조)의 책임을 담당하여 남부, 동남부, 동부로 향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려 함.

(2) 한국군은 담당지구선상의 방어진지를 정리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군의 편조와 장래 공세이동에 필요한 작전용 물자를 방호하기 위하여 담당지구에 대한 적의 남진행동을 저지하려함

(3) 전투지경선 생략

三. (1) 제1군단은 8월 27일 제8군 부사령관 慶州(1219~1438)도착 즉시로 제8군부사령관 지휘 하에 입하라.

(2) 제2군단

제1사단

가. 제1기병사단과의 현 담당지구 교대완료 후 즉시 신 담당지구로 이동하여 (제2군단장이 지

시하는) 2개연대로서 동지구을 담당하라. 신 담당지구의 인수는 제6사단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라.

나. 제2군단장이 지명하는 1개연대를 시기 1950년 8월 30일까지 河陽(1180~1445)에 이동시켜 河陽 도착과 동시에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다. 교대 시까지는 현담당지구에서 교대 후에는 신담당지구에서 국부적 반격을 실시하여 거점을 계속 확보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라.

제6사단

가. 제2군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제1사단장 협의 책임 담당지구를 변경하라.

나. 담당지구로 남진하는 적 행동을 저지하라.

다. 담당지구내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의 일제공격을 위한 재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반격을 계속 실시하라.

(3) 제10연대를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동 연대는 배속해제와 동시에 차량으로 慈川洞(1189~1463)으로 이동하고 慈川洞 도착과 동시에 제8재사단에 원대복귀하라.

(4) 제3연대 제1대대를 시기 1950년 8월 27일 07.00 현재로 제2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동 대대는 시기 1950.년8월 27일 차량으로 忠孝洞(1204~1469)으로 이동하고 忠孝洞 도착과 동시에 제1군단에 배속한다.

제1군단장은 제3연대 제1대대를 배속해제하여 시기 1950년 8월 30일까지 大邱 제7사단장 지휘하(육군본부예비대)로 복귀시키라.

(5) 기갑연대 및 제5연대, 제1, 2대대는 현재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배속해제 시엔 大邱 제7사단장 지휘 하(육군본부예비대)로 복귀하라.

(6) 제7사단(결)은 장래 작진을 위한 준비로 부대편성을 계속하라.

(7) 각급부대는 전투 및 수색정찰을 계속 수행하라.

(8) 여하한 정세 하에서도 좌우양측 인접부대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여 접촉이 두절될 시에 즉시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1종급 제3종보급품

제3사단, 수도사단, 慶州(1219~1438)

제6사단, 제1사단, 제8사단, 永川(1191~1451)

육군본부직할특별부대, 大邱(1157~1438)

나. 제2종보급품

해당 기술감에 청구하라.

다. 제5종보급품

제3사단, 수도사단, 慶州(1219~1438)

제6사단, 제1사단, 제8사단, 永川(1191~1451)

육군본부직할특별부대, 大邱(1157~1439)

라. 군단사령부급 배속부대 각종 보급품을 최근보급소에서 수령하라.

(2) 후송급입원

수도육군병원 蔚山(1230~1403) 제 1 육군병원 梁山(1204~1376)

제 2 육군병원 佑川(1222~1372) 제 3 육군병원 慶州(1219~1438)

제 5 육군병원 釜山(1205~1350) 제 6 육군병원 密陽(1174~1393)

(3) 수송

도로

가. 大邱—永川—浦項간 도로는 복로통행을 허가한다.

나. 大邱—新寧간의 대이동은 좌기와 여히 단로 운행을 함이 효과적이다.

1) 大邱(1157~1438) 남단이나 新寧(1175~1460) 북단으로 부터는 시장을 시간 초과하는 수송대를 엄금한다.

2) 시속 15哩을 초과치 못함.

3) 대 이동은 육군본부와 협의하여 실시하라.

五. 통신사항

(1) 현 통신제원을 사용하라.

(2) 부대 이동시엔 절적이 시작되거나 혹은 차상급부대로부터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무전기 사용을 금한다.

(3) 단 전투지휘소는 신전투 지휘소에 통신이 설치될 때까지 폐쇄하지 못한다. 전투지휘소의 폐쇄급 개설은 최신속한 방법으로 차상급 부대에 보고하라.

(4) 차 작전명령은 무전이나 전화로 전달함을 금하며 반드시 연락장교로서 전달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34호

육본작명 제152호 1950. 8. 27. 13.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적정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제3연대 제1대대을 즉시 忠孝洞(1203~1468)에 진출시켜 제1군단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행정사항

(1) 수송은 군수국장이 차출한 자동차량 18대로 실시하라.

五. 통신사항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35호

2군단작명 제21호 1950. 8.271. 6.25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강력한 지원부대로서 제2연대및 제19연대방년으로 계속 공격 永川을 목표로 남하 중임.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반격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멸 중임.

二.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사단장은 배속된 제10연대 1개대대를 금 27일 24.00까지 陽地洞(1180~1475)에 이동시켜 제6사단에 배속하라.

(2) 제6사단장은 배속된 상기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제21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878.7高地(1179~1479)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중지 격멸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육 군 본 부

부록 제36호

육군본부작전명령 제153호 1950. 8.28. 17.00

慶北 大邱

一. 적정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제7사단장은 예하 제8연대의 1개대대를 9월 28일 23.00까지 新寧에 이동시켜 제2군단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四. (1) 수송, 자동차 수송으로 하되 소요차량 18대를 군수국장이 차출하라.

(2) 제2군단장 및 해당 대대장은 도착 즉시로 인원명부를 육본 고급부관에 제출하라

(3) 기타사항은 변경없음.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37호 1950. 8.28. 18.00,
2군단작명 제22호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정보 별지제1

(2) 가. 美제1기갑사단은 50. 8. 30. 12.00까지 아 제1사단 정면을 교대 접령하여 적의 남진 및 서남진을 저지함.

나. 아 제1군단은 계속 아 군단 우익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음.

二. (1) 군단은 현 제1사단 正面을 50. 8. 30. 12.00까지 美 제1기갑사단과 교대하는 동시에 그 나머지 정면을 계속 방어, 적의 남진을 저지하며 그 주력을 진전에 포착 격멸하려 함.

(2) 경계선 및 제한점(부명도 참조)

三. (1) 가. 제1사단은 50. 8. 30. 12.00까지 현 진지를 연합군 제1기갑사단과 교대후 大邱, 河陽, 新寧을 거쳐 50. 8. 31. 19.00까지 현 제7연대 제5연대 기갑연대와 교대하여 적의 남진 및 동남진을 저지하며 이를 진전에 포착 섬멸하라. (부명도 참조)

나. 제11연대는 50 8. 30. 23.00까지 河陽에 집결 예비대가 되며 육군본부의 지시를 받으라.

(2) 제6사단은 50. 8. 31. 19.00까지 제7연대 진지를 제1사단과 교대하여 계속 적의 남진을 저지하라. (부명도 참조)

(3) 제5연대는 50. 8. 31. 19.00까지 그 진지를 제1사단에 인계후 9. 1. 06.00까지 新寧에 집결하라.

(4) 기갑연대는 50. 8. 31. 19.00까지 그 진지를 제1사단과 교대한 후 9. 1. 06.00까지 新寧에 집결하라.

(5) 제10연대는 50. 8. 30. 12.00후 자동차수송으로 玆川洞에 집결, 제1사단장의 지휘를 벗어나 제8사단에 복귀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38호

작명 제22호에 의한 정보 부록

一. 적정

적 분포상황 요도참조 원본

적 역량의 개요

(1) 若木지구 沙旨洞 201.2高地 346高地 水岩山일대

보병 2개연대 (제 3 사단)	병력	2,500	
포병 1개연대 (제 3 사단포병연대)	포	15	전차 5

(2) 多富洞지구 (新長洞, 其谷洞, 新店, 雅洞일대)

보병 2 개연대 (제13사단)	병력	2,500	
포병 1 개연대 (제13사단포병연대)	포	10	전차 13

(3) 軍威지구 (並木洞, 中九洞, 孝含일대)

보병 3 개연대 (제 1 사단)	병력	6,300	
포병 1 개연대 (제 1 사단포병연대)	포	15	전차 7
제 103 연 대	병력	2,500	

二. 적의 전투경력 및 기도

(1) 생략

(2) 多富洞방면의 적 제13사단은 8월 7일 洛東江에서 同江을 도하하여 多富洞 海平洞 遊鶴山등의 전투에서 전멸상태에 빠졌으며 일부 보충하여 현재 新酒幕 동측고지일대와 共谷洞일대에 배치되었으며 大邱를 점령할 목적으로 계속 남침을 기도 중임.

(3) 軍威방면 적 제1사단은 8월 4일 洛北里 三江里를 도하하여 龍基洞북방 및 軍威남방 梅鳳山 孝含 寶國寺등등의 전투에서 주력의 3분지 2이상을 손실하고 신병으로서 보충하여 현재 梅鳳山 孝含일대에 배치하고 적 제8사단과 협동하여 大邱를 점령할 목적으로 계속 남침을 기도 중.

(4) 義城방면 적 제8사단은 醴泉 安東을 경유 8월 18일 義城지구 또는 國通山등의 전투에서 비교적 손실을 적게 입으며 현재 적은 제103연대 증원을 얻어 國通山에 침입, 義興을 점령 大邱를 점령할 목적으로 계속 남침을 기도 중.

(5) 8월 25일부터 飛鳳山일대에 적 제14사단이 출현한 징후가 보이나 상금(8월 28일 17.00 현재) 및 확인치 못하였으며 출현 남침한다면 大邱를 점령할 목적으로 적 제8사단과 협동하여 南山, 蛇山, 新寧으로 침입할 것임.

(6) 생략

(7) 생략

(8) 적 제3사단 및 제13사단은 아군의 좌익을 견제하여 적 제1사단 제8사단 제14사단으로서 新寧 방면으로 주공할 것이며, 적 제15사단은 아군의 우익을 우회 조공할 것이 농후함.

(9) 병력 장비 전투능력 사기 보급 아 군단정면에 출현한 적의 각사단은 수시로 후방으로부터 강제 모집한 의용군(훈련되지 않은 신병)으로서 정규편성병력의 평균 3분지 2 정도의 병력은 항상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비의 보충은 전혀 없을 것임.

이하략

부록 제39호

2군단작명 제23호 1950. 8.29. 01.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적정 인민군 제8사단은 증원부대의 지원을 얻어 일거에 新寧—永川을 목표로 계속 남하를 기도 중임.

二. 군단은 일부증원부대를 얻어 이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함.

三. (1) 육본작명 153호에 의하여 제8사단 제1대대를 제6사단에 배속함.

(2) 제6사단장은 상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50. 8. 29. 10.00까지 鶴城洞(1178~1470.5)에 진주시켜 城岩山(1176~1479)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멸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0호

2군단작명 제24호 1950. 8.30. 12.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烏林山을 거점으로 주력을 제2연대정면, 일부 병력으로 華山(1176.4~1465) 정면에 진출을 기도함.

(2) 군은 남진하는 적을 진전에서 격멸 중임.

二. (1)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2) 전투지경은 별지 투명도

三. (1) 제1사단장은 제15연대를 50. 8. 30. 12.00를 기하여 제6사단에 배속하라.

(2) 제6사단장은 제15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華山방면의 적을 공격 섬멸하라.

(3) 제11연대는 군 예비대를 해체하는동시에 원대로 복귀하라.

(4) 제19연대는 제7연대와 점령지역을 교대 즉시 군 예비대로서 반대로 이동 육본의 지시를 받으라.

(5) 포병제17대대에서 제6사단에 배속한 포병1개중대는 제5연대 기갑연대가 제11연대와 교대하는 즉시로 원대복귀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1호

2군단작명 제25호

1950. 8.31. 12.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가. 제1사단정면

병력 8,200 포 26 전차 3

나. 제6사단정면

병력 8,800 포 13 전차 3

(2) 군은 일부 방어고지를 연합군과 교대 전투정면을 축소 차후의 공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강력한 유격대를 편성하여 적 후방지대를 기습 교란하려 함.

三. (1) 제6사단장은 강력한 유격소대 (60mm포 포함)로서 금 31일 20.00로서 행동을 개시하여 浦南洞(1166~1473) 부근 적 지휘소와 포진지를 기습 교란시키라

(2) 가. 제1사단장은 강력한 유격소대(60mm포 포함)로서 명후 9. 2. 20.00행동개시하여 梅谷洞부근 적 지휘소를 기습 교란시키라.

나. 八公山에 1개중대를 즉시 주재시켜 경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2호

2군단작명 제26호

1950. 8.31. 13.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1) 적은 계속 華山(1176.5~1465.5) 방면으로 남하를 기도 중임.

(2) 군은 "Y"선 진출을 계속 준비 중임.

二. 군단은 일부 부대와 교대시간을 변경하려 함.

三. (1) 제1사단은 제5연대 및 기갑연대와 협동하여 527高地(1159.5~1464.2)와 588.1高地(1157.6~1462.8)를 완전히 점령후 교대인수하라 .

(2) 제5연대장은 제11연대와 협동하여 527高地를 점령후 인계하라.

(3) 기갑연대장은 제11연대와 협동하여 588.1高地를 점령후 인계하라.

(4) 좌기부대는 명 9월 1일 09.00를 기하여 교대완료하라.

(5) 제6사단장은 華山점령후 1개중대를 별명이 유할시까지 華山에 주재시키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3호

보8사작명 제48호 1950. 8

제 8 사단사령부

一. 군 방침에 의하여 계속 현재선을 확보하려 하며 시급히 화망 및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제16 제21연대는 계속하여 정면의 적을 추격 섬멸하는 한편 지원된 공병 및 각종인력과 자료를 동원하여 계획된 주진지 공사를 급속히 완료케 함.

二. 제21연대 1개중대를 사단전투지경 최좌측에 교파하여 남하하는 적을 수색하는 한편 사단좌익 보호에 임케 함.

三. 포병대는 각연대와 협조 지원계획을 숙지시키는 동시에 현진지 추진지 예비진지 공사를 급속히 공사 완료케 함.

四. 공병대는 각 연대와 밀접히 협조하여 전보 중인 공사를 급속케 함.

제 8 사단장 육군대령 李 正 一

부록 제44호

육군본부작명 제155호 1950. 8. 31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적정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원대복귀시키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육본작전명령 제153호에 의하여 배속 받은 제7사단 제8연대의 1개대대를 서기 1950년 9월 2일 12.00까지 大邱에 이동시켜 원대복귀케 하라.

(2) 제7사단장은 전기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행정사항

(1) 수송은 제2군단장이 담당하라.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9월 2일 10.00까지 河陽에 집결하라.

나. 河陽부터의 수송은 육군본부가 차출한 화차를 이용하라.

五. 통신사항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45호

육본작명 제157호

1950. 9. 1.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적정 정보부록 제2

(2) 가. 美 제1기갑사단은 제1사단과 접촉을 유지하며 연습을 실시하고 있음

나. 美 공군은 계속하여 전술 및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음

二. (1) 군은 연습을 실시하여 A—A선상의 방어진지를 확보하려 한다.

(부록제 3 작전투명도)

(2) 경계선(부록제 3 작전투명도)

三. (1) 제 2 군단

가. 즉시 국부적 연습을 실시하며 9월 3일 05.00까지 A선을 확보하라.

나. 9월 3일 05.00이내로 전면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소정의 A—A선상에 방어고지를 확보하라.

다. A—A선을 확보하면 즉시 철조망 대전차 및 대인지뢰를 이용하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가능하면 민간인을 이용하여도 가하다.

라. 美 제1기갑사단장과 제1군단장간의 좌우인접부대에 대한 소요의 협조를 하라.

마. 제 5 연대(결)를 9월 2일 12.00까지 大邱에 복귀케 하라. 大邱에 도착하면 제5연대(결)는 군 예비대로서 제7사단장 지휘 하에 임한다.

바. 기갑연대를 9월 2일 18.00까지 大邱에 이동케 하라. 기갑연대는 大邱도착과 동시에 군 예비대가 된다.

(2) 제7사단(군예비)

훈련과 편성의 완성을 계속하며 차기작전에 대비하라 .

(3) 제1공병단

제9공병대대는 계속하여 제2군단을 직접 지원하라.

이하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46호 1950. 9.1. 13.00

2군단작명 제27호 慶北 河陽

2군단사령부

一. (1) 적은 烏林山을 거점으로 鳳林洞을 점령 白鶴洞에 진출을 기도 중임.

(2) 군은 총공격을 준비 중임.

二. 군단은 1부전투지경을 변경하려 함(투명도 원문 참조)

三. 제6사단장은 370.3高地(1164.6~1470.4) 부근의 점령구역을 50. 9. 1. 21.00에 제1사단에 인계하라.

(2) 제1사단장은 제6사단으로부터 370.3高地부근의 점령구역을 50.9.1. 21.00에교대 인수하라.

(3) 각사단은 군단작명 25호에 의한 행동을 서면으로 보고 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7호

2군단작명 제28호 1950. 9.1. 20.00

慶北 河陽

제2군단사령부

一. (1) 적제1사단 병력 7,000 포 30 전차 3
적제8사단 병력 7,500 포 15 전차 15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총공격을 하려 함.

二. (1) 군단은 D일(9월 3일 5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여 일거에 "Y"선까지 진출하려 함.

(2) 전투지경 투명도 참조

三. (1) 제1사단은 제6사단과 연루하여 별지 투명도와 여히 공격하여 "Y"선까지 진출 후 해선을 확보하라.

(2) 제6사단은 제1사단과 연루하여 별지 투명도와 여히 공격하여 "Y"선까지 진출후 해선을 확보하라.

(3) 제6사단장은 9월 4일 20.00까지 제15연대를 원대복귀시키라.

(4) 가. 포병 제16대대는 전 화력을 제6사단정면에 집중하여 공격 전진을 지원하라.
나. 포병 제17대대는 전화력을 제1사단정면에 집중 공격 전진을 지원하라.
다. 포병은 지체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5) 가. 공병은 제1선보병과 같이 행동하며 예정선에 진출하여 즉시 장해물을 가설하라.
나. 지뢰매몰지대에는 경비병을 세워 공격 시는 보병 전진로를 개설하라.
다. 철조망 가설에는 포병 화망구성을 고려하여 일선중대장과 긴밀히 협조하라.

(6) 제15연대 (1결)는 사단 예비대로서 日峴(1173.9~1464.3)에 주재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48호

육본작명 제158호

1950. 9.30. 9.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군단정면에 적은 금조 04.00경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고 있음, 아 제18연대정면의 적 약 1개 연대는 雲住山방면까지 진출 계속남진 중임.

二. 군은 1부병력을 제1군단에 배속시키려 함.

三. 제7사단장은 관하 제5연대를 9월 3일 13.00까지 永川에 이동시켜 제1군단장에게 배속하라.

四. 행정사항

(1) 보급

제1군단 배속기간 제5연대에 대한 후방지원은 제8사단장이 담당하라.

(2) 수송

大邱—永川간 수송은 자동차수송으로 하되, 자동차량 및 군수국장이 차출하는 18대를 사용실시하라.

(3) 제7사단장은 출발부대의 명부를 작성 육군 고급부관에게 제출하라.

(4)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생략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49호

육본작명 제159호

1950. 9. 3. 09.00
慶北 大邱

一. (1) 琵瑟山방면의 적 400~600은 서북방 282高地에 일부병력이 진출, 주력은 604.7高地와 592.6高地간에 집결 준동하고 있음.

(2) 치안국장이 배치한 楊鴻植총경이 지휘하는 부대는 琵瑟山지구에서 적을 소탕 중에 있음.

二. 군은 경찰 및 청방부대를 이동시켜 琵瑟山(51~20)지구의 공비를 섬멸시키려 함.

三. (1) 치안국장은 예하 楊총경이 지휘하는 부대를 9월 3일 12.00부로 육군중령 吳昌根의 지휘를 받게 하라.

(2) 청년방위사령관은 예하 1개대대를 9월 3일 12.00까지 육군중령 吳昌根지휘 하에 입하게 하라.

(3) 육군중령 吳昌根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琵瑟山(51~20)지구의 공비를 포착 섬멸하라.

(4) 吳부대장은 출발 및 현지 도착 즉시 그 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1) 吳부대장(경찰포함)에 대한 후방지원

가. 제1종 및 3종 大邱보급소

나. 제5종 永川탄약보급소

(2) 후송 급 의료

吳부대전상자는 제6육군병원(密陽)으로 후송하라.

(3) 수송

수송은 육로 자대수송에 의하라.

(4) 청년방위사령관은 출동대원명부를 육본고급부관에게 제출하라.

(5) 기타사항은 변경없음

五. 생략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0호

육본작명 제160호 1950. 9.3.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제3연대를 9. 3. 16.00까지 慶州에 이동시켜 제1군단에 배속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이하 생략

四. 행정사항

(1) 大邱 慶州간 수송은 철로수송에 의하여 육본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五. 통신사항

(1) 제7사단장은 예하 제3연대로 하여금 통신장비 기재를 휴대케 하며 제1군단장 지시를 받게 하라.

(2) 제1군단장은 제3연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擧

부록 제51호

육본작명 제161호 1950. 9.3. 15.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韓國軍 정면의 적은 9월 3일 미명을 기하여 각전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음.

제2군단은 華山洞(1178~1467)—722.8高地 (1174~1467) (1171~1468)—上本洞(1168~1470)선에서 적 약 2개사단의 남진을 저지중에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8연대를 9월 3일 18.00까지 新寧(1176~1460)으로 이동시켜 제2군단에 배속하라.

(2) 제2군단장은 전기 배속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擧

부록 제52호

육본작명 제162호

1950. 9. 3.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정세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해군참모총장은 예하 해병대(2,760명)를 9월 5일 12.00까지 大邱에 이동케 하라.

四. 행정사항

(1) 보급, 해병대에 대한 후방지원

가. 제1종 및 제3종, 大邱보급소

나. 제5종, 永川탄약보급소

다. 제2종 및 4종, 각각 해당감실에 청구한다

(2) 후송 및 의료

해병대의 전상자는 제2육군병원으로 후송하라.

(3) 수송

鎭海—大邱간 수송은 철도수송에 의하되 육본군수담당장의 지시를 받으라.

(4) 근무

육군본부 배속기간 해병대에 대한 후방근무부대의 지원은 좌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총포차량 제12병기정비중대 琴湖

나. 통신사항 제51통신대대 大邱

(5) 기타사항 생략

五. 생략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3호

2군단작명 제29호

1950. 9.3. 20.00
慶北 河陽

제2군단사령부

一. (1) 적정

제1사단 정면 병력 6,500 포 16문 전차 5

제6사단 정면 병력 6,700 포 6문 전차 30

(2) 군은 연합군과 협동작전에 9. 3 05.00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 중임.

二. 군은 육본작명 제161호에 의하여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 제8연대(1결)를 50. 9. 3 20.00를 기하여 제6사단에 배속함.

(2) 제6사단장은 제15연대(1결)를 통합지휘하여 50. 9. 4. 08.00까지 華山洞방면의 제15연대(1결)와 교대시키는 즉시 원대에 복귀시켜라.

(3) 제1사단은 제15연대(1결)를 통합지휘하여 龍輔洞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54호

육본작명 제163호 1950. 9.4. 17.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제일기갑연대(고병) 1개대대를 즉시 慶州에 이동시켜 제1군단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5호

육본작명 제164호 1950. 9.4. 17.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명령

一. (1) 생략

(2) 생략

(3) 적 제15사단은 高龍洞(1213~1460) 도로일대를 남하 중에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작명제161호에 의하여 배속받은 제8연대를 9월 4일 24.00까지 永川에 이동시켜 제1군에 배속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6호

2군단작명 제30호 1950. 9.4. 16.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육본작명 제164호에 의하여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6사단장은 배속된 제8연대를 50. 9. 4. 24.00까지 永川에 집결시켜 제1군단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2) 제6사단장은 제8연대의 진지를 제7연대가 담당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57호

육본작명 제165호 1950. 9.5. 11.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명령

一. 적 제12사단주력 및 제15사단일부는 安康—慶州방면으로 강력히 남하 중이며 적 제15사단 주력은 永川방면으로 침입 大邱방면의 아군 주력을 위협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배속 이동시키려 함.

三. (1) 제7사단장은 예하 공병대대 사병 200명을 9월 5일 14.00까지 永川에 이동시켜 제1군단장에 배속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배속병력을 통합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8호

육본작명 제166호 1950. 9.5.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명령

一. 제1군단정면으로부터 慶州방면으로 남하중인 적은 계속 金川방면으로 남하를 기도 중이며 제8사단정면의 적은 永川방면에 투입을 위하여 남진중에 있음. 제8사단 좌측정면의 적은 아군 제21연대의 일부로서 저지되고 있음.

二. 군은 일부전투지경의 변경 및 일부병력을 배속하려함

三. (1) 제1군단장은 9월 5일 10.30부로 예하 제8사단(전투지역포함)을 제2군단장에게 배속담당케 하라.

(2) 제2군단장은 전기 배속병력을 통합지휘하라.

(3)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제2군단과 제1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 한다

四. 생략

五. 통신사항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8사단으로 하여금 통신장비 기재 및 통신제원일체를 휴대하여 제2군단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2)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59호

육본작명 제167호

1950. 9. 5.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제1군단정면의 적은 유력한 일부로서 永川—浦項선을 돌파하고 慶州방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永川방면으로 西南進하며 永川以西지구의 아군견제를 기도 중임.

(2) 제2군단방면의 아군은 의연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 배속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1사단 제12연대 제3대대를 9월 5일 14.00까지 新寧(1176~1460)에 집결하여 육군본부에서 별명이 유할시에 美군 전차대대장의 지휘 하에 임하라.

(2) 배속후의 세부는 美군 전차대대장의 지휘 하에 임하라.

四. 행정사항

(1) 수송은 자대수송으로서 실시하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제2군단장은 동 대대로 하여금 현 소유통신기재 일체를 휴대하여 U.N군 전차대대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60호

육본작명 제168호

1950. 9.5. 15.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차기작전을 위하여 육군본부를 D일 H시에 이동하려 함.

三. (1) 육군본부 각국감실은 별지 계획표에 의하여 이동하라.

(2) 大邱방어사령부의 임무는 제7사단이 담당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61호

육본작명 제169호

1950. 9.5. 13.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명 령

一. (1) 제1군단정면의 적은 유력하고 일부는 永川—浦項線을 돌파하고 慶州방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永川방면으로서 남진하여 永川이서지구 아군 견제를 기도 중임.

(2) 제2군단방면의 아군은 외연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배속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1사단 제12연대 제3대대를 9월 5일 14.00까지 新寧(1176~1460)에 집결시켜 육군본부에서 별명이 유할시까지 美 군 전차대대장의 지휘 하에 임하라.

(2) 배속후의 세부는 美군 전차대장이 지시함.

四. 생략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62호

2군단작명 제31호

1950. 9.5. 17.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군대구분

제 1 사단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포병제17대대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포병제16대대

제 8 사단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제 5 연대 포병제50대대

一. (1) 제1사단 정면

적은 558.1高地 (1157.5~1462.8)~783고지 (1160~1457.9)~琵溪峙(1162.4~1456)로 향하여 남하 중.

제 6 사단 정면

적은 烏林山(1171.5~1460.5) 349.3高地 (1171.3~1466.9)로 향하여 남하 중.

제 8 사단 정면

생략

(2) 군은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반격하며 차후에 총 공격태세를 준비 중임.

二. (1) 군단은 인접부대와 동일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려 함.

(2) 전투지경(원본 부명약도)

三. (1) 제 6 사단

가. 제6사단장은 배속된 제15연대 제2대를 50. 9. 5. 17.00를 기하여 원대에 복귀시키라.

나. 제6사단(결)은 50. 9. 5. 24.00까지 별지 투명도에 지시한 신 방어진지에 진주 완료하라.

(2) 제 1 사단

가. 제1사단(결)은 1950. 9. 5. 24.00까지 별지 투명도에 지시한 신 방어진지에 진주 완료하라.

나. 把溪洞(1162.4~1456)과 法聖洞(1157.6~1455.5)에 각각 1개대대를 진주시켜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멸하라.

다. 1개대대를 1950. 9. 5. 18.00까지 新寧에 집결시켜 永川방면을 공격하는 기갑대대와 협동케 하라.

(3) 생략

(4) 각연대에 배속된 포병중대는 신 진지에 이동시 원호사격과 진주후 저지사격에 만전을 기하라.

(5) 가. 공병을 紫嶺川(1208.7~1454.4)에 대전차지뢰를 매몰하라.

나. 신진지에 이동완료 후 즉시 전전에 장애물을 가설하라.

(6) 가. 제6사단장 제19연대를 군단 예비대로서 50. 9. 5. 24.00까지 谷上洞에 진주시키라.

나. 제1사단장은 제11연대(결)를 군단예비대로서 50. 09. 05. 24.00까의 新丹洞에 진주시키라

다. 각 연대는 최대한의 예비대를 보유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63호

2군단작명 제32호

1950. 9.6. 12.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二. (1) 제11연대를 1950. 9. 6. 12.00를 기하여 제8사단에 배속함.

(2) 제19연대를 1950. 9. 6. 12.00를 기하여 제8사단에 배속함.

(3) 제8사단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선까지 진행하라.

三. 생략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64호

2군단작명 제35호 1950. 9.6. 12.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군대구분

一. 생략

(1) 제 1 사단 정면

격 제 1 사단 1 부 제 8 사단 제 3 연대

제 6 사단 정면

격 제 8 사단 제 1 제 2 연대

제 8 사단 정면

격 제15사단 일부 제103연대

제 7 사단 정면

격 제15사단 일부

(2) 군은 육본 훈령 제58호에 의하여 공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二. (1) 군단은 永川—慶州간 도로를 확보하여 永川방면의 적을 포위섬멸하려 함.

(2) 전투지경 작명 제35호 투명도 참조

三. (1) 일반명령 제65호에 의하여 1950. 9. 8 00.01를 기하여 배속된 제7사단을 지휘함.

(2) 제8사단

가. 배속된 제3연대 제1대대 제5연대 제8연대를 1950. 9. 10. 24.00를 기해 원대복귀시키라

나. 배속된 제11연대 제19연대를 1950. 9. 11 24.00를 기하여 원대복귀시키라.

다. 제10연대를 통합지휘하여 "×"일 목표선까지 진출하라.

라. 제1사단, 제6사단은 현 진지를 확보하라.

(3) 제7사단 생략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65호

육본작명 제170호 1950. 9.8. 11.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명 령

一. 적 인민군 제15사단 주력은 아군 제1, 제2군단 중간지구에 침투하여 계속 남진을 기도 중임.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육본작명 제166호로 배속한. 예하 제10연대를 즉시 원대 복귀시키라.

(2) 제2군단은 원대 복귀한 전기 병력으로써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간격 阿火지구(1202~1443)를 연계시켜 적을 저지 섬멸하라.

(3) 제2군단장은 이동완료와 동시에 즉시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부대이동은 자체차량으로 실시하라.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66호

1군단작전지시 제 4 호 1950. 9.9. 18.30
慶北 道只里

제 1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제26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하려 함.

三. (1) 제26연대장은 즉시 甘浦里경유 世界洞에 이동하여 제3사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2) 제3사단장은 전기 부대를 통합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공격섬멸하고 주저항선에 도착 차기공세를 준비하라.

四. 제26연대의 보급일체는 제3사단에서 담당하라.

五.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준장 金 白 一

부록 제67호 1950. 9.10. 12.00
2군단작명 제35호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군대구분

제 1 사단,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포병제17대대 제 1 야전공병대대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포병제16대대 제 6 야전공병대대
제 7 사단, 제 3 연대 제 5 연대 제 8 연대 포병제18대대 제 7 야전공병대대
제 8 사단,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포병제50대대 제 9 야전공병대대

一. (1) 제 1 사단 정면
적 제 1 사단 일부 및 제 8 사단 제 3 연대
제 6 사단 정면 적 제 9 사단 제 1, 제 2 연대
제 7, 제 8 사단 정면 적 제15사단 및 제103연대

(2) 군은 육본훈령 제58호에 의하여 공세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二. (1) 군단은 永川~慶州간 도로를 확보하며 永川방면의 적을 포위 섬멸하려 함.

(2) 전투지경 원본 투명도 참조

三. (1) 생략

(2) 가. 생략

나. 배속된 제11연대(결) 제19연대를 50. 9. 11. 24.00를 기하여 원대에 복귀시키라.

(3) 제1사단 제6사단은 현진지를 확보하라.

(4) 생략

(5) 각 포병대대는 적지, 지원사격에 만전을 기하라.

(6) 각 공병대대는 ×일 목표선까지 진출하며 즉시 장애물 가설에 전력을 경주하라.

(7) 각 사단은 ×일 24.00까지 강력한 일개연대의 예비대를 보유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68호
2군단작명 제36호 1950. 9.10. 15.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8사단장은 배속된 제11연대를 1950. 9. 10. 24.00까지 원대 복귀시키라.

(2) 생략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88호

육본작명 제174호

1950. 9.10.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적 약 2개사단은 浦項(1234~1461) 安康(1220~1455)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2) 아군 제3사단은 이 적에 대하여 맹렬한 섬멸을 전개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육본 직할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東大山(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작전을 유리케 하라.

(2) 세부는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케 함.

四. 행정사항

(1) 보급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라.

(2) 후송 및 의료

가. 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후송 및 의료를 담당하라.

(3) 수송

가. 별도 운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五. 통신사항

(1) 제51통신대대장은 하기인원과 기재를 동유격대대에 파견하라.

1) 인원

선임하사관	1명	암 호 병	1명
무선통신사	2명(SCR 694용)	무선정비병	1명
〃	5명(SCR 300용)	유선가설병	2명
		계	12명

2) 기재

SCR 694 1대

(2) 유격대대장은 좌기인원을 장악 지휘하라.

(3) 유격대대장은 제1군단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본과 연락하라. 통신세원은 별도지시함.

(4) 제1군단장은 위 유격대대와 육군본부와의 무선통신을 군단지휘망을 이용 중계하라. (단 현 군단지휘망의 변경은 무하며 단지유격대대의 군단지휘망내 가입분이며) 동대대 호출부호는 XF 2임.

(5) 제4항실시는 동대대가 P점 도착즉시로 개시하라.

(6) 유격대대장은 기타 세부지시를 육본 통신감실에서 수령함과 동시에 항공기와 연락규정수령차 장교를 출두케하라.

(7) 제1항 기입이외 필요통신기재도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0호

2군단작명 제38호 1950. 9.12. 00.00
慶北 利陽

제 2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8사단장은 배속된 제19연대를 50. 9. 12 24.00까지 군단 예비로서 永川에 집결시켜라.
(2) 제6사단장은 제19연대를 군단예비로서 50. 9. 12 24.00까지 永川에 주둔시켜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 興

부록 제71호

육본작명 제176호 1950. 9.12.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永川을 점령하고 大邱방면의 아군을 견제하며 慶州방면으로 일거 돌파를 기도하던 적은 아군의 반격으로 패주하여 安康방면에 집결 중인.

二. 군은 일부병력을 진출시켜 당면의 적을 섬멸하려함.

三. (1) 제2군단장은 아래에 의거 적을 공격섬멸하라.
가. 제8사단은 별지 투명도상에 표시된 목표를 공격확보할 것이며 현재 제8사단 지구에서 작전하고 있는 제6, 제7사단병력을 원대 복귀시키라.

四. 변경사항 없음

五.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2호

육본작명 제177호 1950. 9.12. 17.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적 제12사단 제3연대는 大洞里(1218.5~1451.4)일대 동 제2연대는 斗流里(1214~1452)일대 제1연대는 武陵山(1216~1450.5)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음.

총병력 약 5,000
포 13문 } 를 보유하고 있음.
전차 8210대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제2선에 제1대대를 서기1950년 9월 12일 24.00시까지 神堂里(1222.2~1441)에 이동시켜 제1군단에 파견한 2선대 주력과 합류하여 제1군단장지휘 하에 들어 가게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섬멸하라.

(3) 제1군단장은 해병력 도착과 동시에 주서 육본에 보고하라.

四. (1) 수송은 육로 자대수송에 의하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1) 제2군단장은 예하 이동부대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3호

1군단작명 제93호 1950. 9.12. 21.00
慶北 道川里

제 1 군단사령부

一. 적정 생략

二. (1) 군단은 제3사단과 수도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설치하고 계속 남하를 기도하는 적을 포위 섬멸하려 함.

(2) 가. 전투지경선

a. 제3사단 수도사단(12281455)~(12281453)~(12291452)~(12291450)~(12291449)선상은 3사단에 속함

b. 생략

나. 공격개시시일 D일 H시(별명)

다. 공격개시선 (투명도 참조)

三. (1), (2) 생략

(3) 제3사단

가. 즉시 신 전투지경에 취하라.

나. 현임무를 계속하여 주저항선에 도달 차기공세를 준비하라.

다. 영천[1]부근에 침투한 적을 신속히 소탕하라.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준장 金 白 一

부록 제74호

육본작명 제178호 1950. 9.13. 19.00
慶北 釜山

一. 9.8. 18.00 현재 적 1개사단 일부병력은 架山(1156~1459) 방면으로 퇴각하고 있으며 적 1사단주력은 531高地(1167~1460) 570.9高地(1155~1456)를 연한 선 일대에 집결된 모양.

二. 군은 제1사단을 UN군 제1군단에 배속하려 함.

三. (1) 제1사단은 1950년 9월 13일 12.00시로 美軍 제8군사령부발 무전통보 G×21916kg에 의거하여 즉시로 제2군단장지휘에서 해제되여 UN군 제1군단장 지휘하에 입하라.

(2) 제2군단장은 별지 부록 제1 .제2(전투지경 투명도에 의거한 아 전투지역을 담당하되 美軍 제1기갑사단과 긴밀히 연락하라.

(3) 전투지경 별지 부록 제1, 제2(전투지경 투명도)를 참조하라.

四. 제1사단의 후방지원은 美 제8군사령관이 담당한다.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撮

부록 제75호

육본작명 제180호 1950. 9.13. 12.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참조

一. a. 적정 부록 제2참조

b. UN 제1군단은 UN 제X군단의 D—1일부터의 수륙양면상륙작전에 따라 D일 H시부터 西北西~方 및 北方으로 공하여 호응공격을 개시한다(UN X군단 상륙시점은 후달함).

c. UN 공군은 공격이전 작전기간을 통하여 전략 및 전술적 공중지원을 계속 분담한다.

d. UN 해군은 해안선에 공격작전을 하는 부대에 함포지원을 분담한다.

二. a. 대한민국 육군은

(1) 현 위치를 0일까지 안정화하며 동시에 적 전력과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지구내에서의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며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여 주 작전방향의 東翼을 방어하라.

(2) 전부대는 강고한 전술상의 지위를 확보하며 0일 실행될 일제 공격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

(3) 제1차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일 浦項(12301480) 제2 興基里(12991479) 제3 上王里(12181486) 제4 大浦洞(12021497) 제5 印支洞(11951493) 제6 九山洞(11861489) 제7 義城(11661497) 제8 新寧洞(11551490)을 확보하기 위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대하여 D일 H시를 기하여 일제공격을 개시하며 제1차진출예정선에 진출후는 즉시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A」德德(12321506) 「B」 도로교차점 (12141415) 「C」 德川洞(12011508)

「D」泉旨洞(11861510) (E) 安東 (11691523) 「F」醴泉 (11421534) 「G」 咸昌(11151522)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

b. D일 공격개시선~각부대 당일선.

c. 전투지경 부록 제3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

제8군사령관에 의하여 책수 전투부대지휘 하로부터 해제된 후는 즉시 각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내의 정위치에 각 사단을 이동하라.

(1) 수도사단

(a) 현위치를 단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b) 각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 일제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右익 인접부대인 제3사단과 사단 左익 인접부대인 제2군단 제8사단과 협조하여 D일H시 사단담당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으로 공격을 개시하라.

(d) 담당전투지경내 제1차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4 大前洞 (12021497) 제5 印支洞 (11951493) 및 도로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공격후는 제2차진출예정인 A선상의 목표「C」德川洞 (12011508)「D」泉旨洞 (11861510)을 공격후 확보하기 위하여 만반준비를 하라.

(f) 각종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우익인접부대인 제3사단 및 사단右익인접부대인 제2군단 (제8사단)과 접촉은 계속 유지하라.

(2) 제 3 사단

(a) 현위치를 안성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22일 일제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좌익 인접부대인 首都사단과 협조하여 22. 17.30시 담당정면을 北方으로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1 清洞 (12391480) 제2 西井里 (11291479) 제3 上王里 (12181486) 및 도로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 후는 즉시 제2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A」旌德 (12321506)「B」도로교차점 (12141515)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左익 인접사단인 首都사단과 접촉을 계속하라.

(3) 제3연대

육본명령이 유할시 차량으로 慶州 (12191438)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도착후 제3연대의 지휘권은 제1군단장에서 제7사단장으로 이양하라. (군 예비사단)

b. 제2군단

즉시 각 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내 집위지에 각 사단은 이동하라.

(1) 제6사단

(a) 현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에 실행하는 일제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협조 아래 담당정면에서 D일 H시를 기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8 桃源洞 (11551490) 및 도로망을 공격확보하라.

(e) A—1선 확보 후는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F」醴泉(11421531)「G」咸昌(11151523)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左翼 인접 부대인 UN군 제1군단 (韓國 제1사)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8사단

(a) 현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 실시될 일제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左인 접부대인 제6사단과 右인 접부대인 제1군단(首都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 담당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을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6 九山洞 (11861489) 제7 義城 (11681497)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후는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E」安東(11691523)을 공격확보하기 위하여 만반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右인 접부대인 제1군단(首都사단) 및 左인 접부대인 제6사단과 접촉을 계속유지하라.

(3) 제5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 (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도착후 제5연대 지휘관은 제2군단장으로 부터 제7사단에 이양하라. (군 예비사단)

(4) 제8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 (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c. 포 병

(1) 제1군단

(a) 제10야포대대 : 首都사단을 직접지원하라.

(b) 제11야포대대 : 제3사단을 직접지원하라.

(2) 제2군단

(a) 제16야포대대 : 제6사단을 직접지원하라.

(b) 제50야포대대 : 제8사단을 직접지원하라.

(3) 제18야포대대

제7사단이 (군 예비사단) 일선에 배치될 때까지는 주로 제1군단을 지원하되 제7사단이 일선 배치된 후는 제7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d. 공병—부록 제4공병부록 참조

e. 군 정찰비행반

(1) 가능한 자재 및 인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천기가 허용하면 매일 추간 각사단에 연락기 1대씩을 기준으로 각사단 공중관측용으로 배치하라.

(2) 연락기는 SCR 300으로 사단사령부 연대본부 및 사단야포대대 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라.

(3) 작전상 항공기지

(a) 제1군단

慶州 浦項 九山洞 盈德

(b) 제2군단

慶州 永川 義城

f. 제7사단(군 예비사단)

제 1 안——제1 혹은 제2군단 진격 간격을 침투한 적 저항원의 말살을 위한 사단 혹은 연대부대 활사용을 준비하라.

제 2 안——제1 혹은 제2군단지구내의 주요한 돌파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대 혹은 사단 단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1) 적 진지선내에서 돌파구의 확대에 전력을 다하라.

주력으로 부터 분리하여 침투고립된 포켓내 적은 포착 격파하라.

(2) 각 부대는 각 지휘관이 자기 기동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의 위치 및 병력을 적극적으로 정찰할 것을 강조한다.

(3) 각 부대 지휘관은 각종기회를 이용하여 적 의표에 나올 것이다. 실시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대장악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항시 미명 및 야간공격등을 감행하라.

(4) 제8군사령관이 발행하는 명령 및 지시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고문제통을 통하여 영문으로 하달되는 명령 및 지시에 육군 참모총장의 확인이 있을 시엔 수령

자는 동 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라.

(5) 본 명령에 의거한 군단장 계획은 D－1일 24.00까지 육군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라 계획은 사용할 부대배치, 목표, 진출선, 제한점, 중간목표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D일 H시는 별명한다.

(7) D일 H시 (대략 D가 3일)은 별명한다.

四. 생략

五. 생략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 權

군대구분

一. 제 1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金 白一
1. 제 3 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李 鍾贊
제22연대
제23연대
제26연대
제11야포대대 (배속)
제 3 야전공병대대
2. 首都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宋 堯讚
제 1 연대
제 1 기갑연대 (보병)
제18연대
제10야포대대 (배속)
首都야전공병대대

二. 제 2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興
1. 제 6 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金 鍾五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제19야포대대 (배속)
제 6 야전공병대대
2. 제 8 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李 北一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제50야포대대
제 8 야전공병대대
3. 제 7 사단(군 예비대) 사단장
육군대령 申 尙澈
제 3 연대
제 5 연대
제 8 연대
제18야포대대 (배속)
제 7 야전공병 대대

부록 제76호

육본작명 제179호 1950. 9.14. 12.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一. 적은 우익전선의 패세를 만회하기 위한 반격의 지원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사, 12사 주력으로써 浦項 安康정면에서 견고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17연대를 9월 14일~15일에 걸친 야간을 이용하여 釜山으로 이동 집결시키라.

(2) 제17연대는 9월 15일 13.00부로 제1군단 首都사단으로 부터 예속을 해제하고 육군본부 직할로 한다.

(3) 제17연대장은 釜山도착후의 행동에 관하여 도착 즉시로 당 본부의 지시를 받으라.

四. (1) 수송

가. 자동차 차량은 육로로 釜山까지 운행하라.

나. 소요 철도수송을 慶州철도수송관에게 신청하라.

(2) 전물에 관하여는 군수국장의 지시에 의하라.

五.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17연대로 하여금 통신장비기재를 휴대케 하라.

(2) 제17연대장은 釜山도착 즉시 육군통신감실에 출두하여 통신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으라.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7호

육본작명 제181호 1950. 9.14. 2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적은 左익 전선의 붕괴 후 태세만회를 위한 반격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 5사, 12사 주력은 浦項 安康정면에서 견고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7사단 제1기갑연대를 9월 15일 24.00까지 慶州로 이동시켜 제1군단장의 지휘를 받도록하라

(2) 제1기갑연대는 慶州이동 즉시로 首都사단장 지휘 하에 입하라.

四. (1) 수송은 제2군단 및 기갑연대 차량으로서 육로 수송하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1) 제2군단장은 예하 이동부대장으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8호

육본작명 제182호 1950. 9.14. 18.00
慶南 釜山

제 1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金 白 一
首都사단 사단장 육군대령 宋 堯讚
제 1 연대
제18연대
제 1 기갑연대
제 3 사 단 사단장 육군대령 李 鍾贊
제22연대
제23연대
제26연대
제 2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劉 載興
제 6 사 단 사단장 육군대령 金 鍾五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제 8 사 단 사단장 육군대령 李 正 一
제10연대

一. 당면의 적은 12사단 1. 2. 3연대 및 15사단 패잔 일부병력임. 15사단 잔적은 昭陽방면으로 북상 도망코저 부근에 집결 기도중인 것 같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진출시켜 당면의 적을 공격 섬멸하려 함.

三. (1) 제2군단장은 예하 7사단(결 3R. 8R 제3대대)으로 하여금 별지 작전투명도상에 표시된 목표를 1950년 9월 15일 24.00까지 공격 점령하라.

(2) 首都사단장은 기갑연대로 하여금 1950년 9월 16일 24.00까지 제7사단의 임무을 교대케하고 그 지대를 확보하라.

(3) 제7사단장은 예하 임무를 수도사단에 인계후 1950년 9월 17일 12.00까지 慶州에 집결한 후 군 예비대가 되라.

(4) 제7사단장은 慶州에 집결 즉시로 육본에 보고하라.

四. 별것없음

五. (1) 제2군단은 제7사단으로 하여금 통신기재 장비를 휴대케 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부대와의 통신은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79호

2군단작명 제44호 1950. 9.16. 15.00
慶北 河陽

제 2 군단사령부

군대구분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포병제16대대 제 6 야전공병대대

제 8 사단,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포병제50대대 제 8 야전공병대대

一. (1) 적정 부록(원본 참조)

(2) 군은 연합군과 긴밀한 협동하에 D+3일 ×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함.

二. (1) 군단은 D+3일 ×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 제1차 진출예정선까지 진출하려 함.

(2) 전투지경 투명도 참조(무함)

三. (1) 제 6 사단

가. 제6사단은 美제1군단 및 제8사단과 긴밀한 협동하에 별지 투명도에 지시한 제1차 진출예정선까지 진출하라.

나. 高路洞 (1165.5~1483.3) 점령시에는 특히 金城川(1168.2~1486.7) 및 271.3高地(1162.5~1484.9)를 완전히 확보하라.

(2) 생략

(3) 각 사단은 공격시에 특히 인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전진하라.

(4) 각 부대장은 적의 진지확보 곤란을 알면 백반 수단을 다하여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여 적 주력을 포착 섬멸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2 군단장 육군소장 劉 載 興

부록 제80호

제 3 사단작명 제38호

1950. 9.16. 24.00
慶北 都邱洞

제 3 사단사령부

一. (1) 적정 생략

(2) 仁川방면에 상륙한 UN군 3개사단은 서울 西南方 2마일 지점까지 진출하였음.

(3) 長沙방면에 상륙한 아 유격대 1개대대는 계속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음.

(4) 인접 首都사단은 安康—玉山선을 탈취 계속 북진하고 있음.

二. (1) 사단은 명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개시 당면의 적을 격파 북진 하려 함.

(2) 전투지경선 생략

三. (1) 제23연대는 명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개시 별지 작전투명도선에 진출하라.

(2) 제22연대는 명 9월 17일 09.00까지 長興洞에 집결 제23연대가 작전투명도 "A"에 도착후 제23연대 후방으로 부터 도하하여 제23연대 右翼에 전개 당면의 적을 공격 별지 투명도선에 진출하라.

(3) a. 제26연대는 제22연대가 浦項—龍興선에 진출 후 兄山江을 도하 浦項경유 별지 투명도선에 진출하여 당면의 적을 공격하라.

b. 제26연대장은 浦項진출시 1개대대 병력으로써 사단 예비대로 하라.

(4) a. 포병대대장은 포병 제1중대를 제23연대에 제2중대를 제22연대에 각각 지원케 하라. 제3중대는 사단전체를 지원하라.

b. 생략

(5) a. 공병대대장은 兄山橋 및 生旨洞전방 교량수리 가교 완료 후는 제22.제23연대에 각각 1개

중대를 배속 직접 지원케 하라

b. 생략

(2) 사단 대전차포중대는 제26연대 1개중대가 [illegible] 左안에 진출 후는 제22연대에 직접 지원하라.

a. 적 진지내에서의 돌파구의 확대에 전력을 다하라.

주력으로 부터 분리하여 침투 독립된 "포켓"내의 적은 포착 격파하라.

b. 각급부대는 각급지휘관이 자기기동력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의 위치및 병력을 적극적으로 정찰할 것을 강조한다.

c. 각 부대지휘관은 각종기호를 이용하여 적 의표에 나올 것이다. 실시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대파악이 확실하지 되었을 때는 항시 미명 및 야간 공격등을 감행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3사단장 육군대령 李 鍾 贊

부록 제81호

2군단작명 제45호

1950. 9.17. 10.00
慶北 禮陽

제2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9연대는 50. 9. 16. 08.00를 기하여 군단 예비대로부터 해제하고 원대에 복귀하라.

(2) 제6사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2군단장 육군소장 劉 載 興

부록 제82호

육본작명 제189호 1950. 9.20. 18.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일부경찰병력을 大邱(1157~1439)에 이동시켜 美軍 제1군단에 배속하려 함.

三. (1) 치안국장은 예하 제4감정포병 경비경찰중대를 즉시 大邱(1157~1439)에 이동시켜 美軍 제8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라.

(2) 차 부대의 임무는

A. 관계부대와의 연락을 설정 유지한다.

B. 지방안내를 주선한다.

C. 적 병력 및 배치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D. 부대장으로 하여금 국부지형 통로망(본도 및 제2급도로)을 숙지시킨다.

E. 정체불명의 민간인을 부근에서 발견할 시에는 즉시 관계부 대장에게 보고하거나 만약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체포한다.

그외 美軍으로부터 요청되는 사항을 실시한다.

四. (1) 수송——소요화차를 군수국장께 신청하라.

五. 생략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3호

육본작명 제190호 1950. 9.21. 24.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작전의 진척에 의하여 육군본부를 전진 이동시키려 함.

三. (1) 육군본부 각 국 감실장은 별지 수송계획에 의하여 1950년 9월 23일 12.00까지 大邱에 이동 금일 14.00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하라.

(2) 각 국 감실장은 1950년 9월 22일 17.00까지 大邱에 선발대를 도착시켜 후속부대의 수용에 만전을 기하라.

(3) 헌병사령관은 예하 헌병으로 하여금 소요도로의 교통정비를 담당케 하라.

四. (1) 선발대의 수송에 관하여 각 국 감실장은 9월 22일 08.00까지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2) 각 국감실 및 이동부대의 소속차량은 육로운행할 것이며 소요화차(열차) 혹은 객차는 9월 22일 09.00까지 군수국장께 신청하라.

五. (1) 각 국감실장은 현 사용전화기를 휴행하라. 단, 철수 시 교환대책임장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4호

육본작명 제191호

1950. 9.22. 14.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국군정면의 적의 저항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진지로 부터 총공격을 취할 수 있음. 군은 만반 노력을 다하여 깊이 공격선에 침투하고 적의 약점에서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시에 적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기도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려 함.

a. 최근정보요약 생략

美 제8군은 주력으로 현재선에서 총공격을 개시하여 선진지구내 적을 섬멸하여 급속히 大邱—釜山—大田—水原 축선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 美 제10군단과 합세하려 함.

二. 군은 담당지구에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려 함.

三. a. 제1군단은

1. 주공은 淸河(1230~1481) 盈德(1233~1506) 平海(1238~1545) 축선을 따라 조공은 仁旨洞(1195~1494) 泉旨洞(1186~1511) 春陽(1186~1569)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내에 무제한 공격을 계속실시한.

2. 제3사단을 제7사단과 淸河선에서 교대시켜 즉시 집결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3. 平海와 春陽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은

1. 주공은 桃源洞(1155~1490) 咸昌(1115~1522) 忠州(1091~1573) 축선을 따라 조공은 義城(1167~1498) 安東(1169~1514) 榮州(1219~1436)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忠州와 榮州를 확보한 다음에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北方 혹은 西北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1. 제7사단과 제3사단이 교대되면 그와 동시로 제3연대는 제7사단지휘 하로 복귀하라.

2. 예하 부대지휘관간의 적당한 직접 통신을 허가함.

3. 각 지휘관은 필요한시엔 침적 접촉여하에 구속되지 않고 선진하라.

4. 각 부대는 제1차 진출예정선을 통과할 시엔 보고하라.

四. 생략

五. 지휘소

육군본부 釜山(1205~1351)

(1950. 9.23. 18.00부터 大邱에 개설)

제 1 군단 通上里(1225~1437)

제 2 군단 利 陽(1280~1445)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5호

육본작명 제192호 1950. 9.22. 15.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육군중령 韓信燮은 龜浦에 있는 유격대 2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1950년 9월23일 24.00까지 永川(1190.5~1451.5)에 이동하여 육군본부 정보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四. 수송은 철도수송으로 하되 소요차량을 釜山역 철도수송관에게 신청하라.

五. 이동완료 즉시 육군본부 통신감의 지시를 받으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6호

육본작명 제194호 1950. 9.25.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적은 아군의 맹공으로 인하여 전면적 퇴거를 개시하여 주력은 이미 洛東江이북으로 도주하고 있음.

(2) 제2유격대는 永川에 재합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2유격대장은 예하 병력을 지휘하여 제2군단장의 지휘 하에 임하라.

(2) 제2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변경없음

五. (1) 제2유격대장은 통신에 관한 일체사항에 대하여 제2군단장지시를 받으라

(2) 제2군단장은 통신규정에 의거 통신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동 부대와 기재를 육군본부에 청구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7호

보3사 작명 제42호

1950. 9.27. 22.00
江原道 寧山里

제 3 사단사령부

一. (1) 盈德 東海방면으로부터 도주중 인 적은 蔚珍부근에서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아 사단의 맹추격으로 계속 北방면으로 향하여 도주하고 있음.

(2) 인접 首都사단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 금 27일 04.00 永陽에 진출함.

(3) 美 공군 및 해군은 계속 지원하고 있음

二. 사단은 蔚珍 三陟 江陵가도를 급속육진하여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동시에 江陵지구에서 퇴로를 차단,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함.

三. (1) 가. 제22연대장은 蔚珍에 집결중인 2개대대의 병력을 지휘하여 명 28일 03.00출발 蔚珍 三陟 江陵가도를 급진 당면의 적을 격파 江陵에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해방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나. 군단작명에 의하여 浦項洞로 부터 慶州로 전진 중인 1개대대(공병 1개소대)를 명 28일 17.00까지 蔚珍에 진출케 하라.

蔚珍집결 후 사단수송력으로 江陵에 진출 예정임.

(2) 가. 제23연대는 사단 예비대가 되라.

나. 1개대대는 별명 유할 시까지 蔚珍부근 및 竹邊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코 경계에 임하라.

다. 잔여병력은 명 28일 08.00 三陟 江陵을 향하여 진출하라.

(3) 제26연대장은 명 28일 17.00까지 전병력을 蔚珍에 집결완료 별명을 대기하라.

(4) 포병연대장은 포병제2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지원 제3중대는 제23연대와 같이 행동하라.

사단 대전차포중대는 제22연대 직접지원. 제22연대와 이동을 같이 하라.

(5) 공병대대장은 제22연대에 시회담시소대를 배속시키라.

(6) 헌병대장은 예하 헌병을 제22, 제23, 제26연대에 각각 배속시키라.

(7) 추격부대는 소수의 적에 구애치 말고 요점을 탈선 경계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일로 북진하라.

四. 생략

五. 생략

보병제3사단장 육군준장 李 鍾 贊

부록 제88호

육본작명 제195호

1950. 9.28. 0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1) 생략

(2) 제1유격대대는 永川에 재함.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유격대대장은 예하 병력을 지휘 9월 27일 12.00까지 제3군단장의 지휘 하에 임하라.

(2) 제2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되 완전히 장악하면 용도여하를 즉시 보고하라.

四. 변경없음

五.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89호

육본작명 제197호

1950. 9.28. 1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제2군단정면 적 주력은 月陽으로부터 堤川방면으로 퇴각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으로서 아군의 진격을 저해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 하려함.

三. (1) 제7사단(군예비)은 즉시 도보 및 차량으로 전진로 상의 고립된 적의 저항 및 장애물을 소탕하며 安康(1170~1523)—榮州(1158~1555)—丹陽(1128.7~1568)—忠州(1128.7~1568)로 이동하라.

(2) 제7사단장은 규정된 진로로 이동함에 관하여 제2군단과 협조하라.

(3) 제7사단 자대수송 기관만을 사용하라.

(4) 제7사단장은 무선으로 매 6시간(06.00, 12.00 18.00 24.00)마다 이동진척에 관하여 보고하라. 보고에는 매 보고시간 말의 부대위치 다음 3시간후 및 6시간후 사단 각 주요부대 도착예정 위치등을 포함 보고하라.

四. 변경없음

五.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90호

육본작명 제198호

1950. 9. 29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군은 일부 부대를 편입하려 함.

三. (1) 大邱비행장 수비대장은 예하 병력을 지휘하여 제11사단장지휘하에 입하라.

(2) 제11사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사단편성기간 요원으로 하라.

(3) 제11사단장은 소요병력을 大邱비행장에 파견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四. 변경없음

五. (1) 大邱비행장 수비대장은 현 보유통신기재일체를 휴행하여 제11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91호

「맥」원수 서울 환도식전에 제하여 李대통령께 전달한 멧세이지(전문)

1950. 9. 29.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UN깃발 아래에서 싸우는 우리군대는 이 韓國의 首都를 해방하게 되었읍니다. 이 도시는 공산주의자의 전제적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그 시민은 다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세일로 하는 부동의 인생관 밑에서 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읍니다.

현대문명의 정신면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군대로 인하여 귀국에 가하여진 전쟁의 참해에 대하여 전세계는 깊은 관심과 우의로서 53개국이 의분을 금치 못하여 단호히 궐기하여 전력을 다하여 귀국을 구조할 것을 맹서하였읍니다. 정복과 착취와 노예화를 목적하는 제국주의적인 공산주의의 진격에 대하여 이와같이 위대한 정신적반격이 가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적공격은 다시 인간과 이상과의 확고한 단결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하한 물질적인 무기도 영원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에 대하여는 무력으로서 응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나 그러나 이 정신적 반격력은 인간정신의 전진하고 영속성이 있는 사상을 잡아 낼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 정신적공격이라 할만한 것이 최후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고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려며는 정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UN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는 각하에 대하여 귀국정부의 소재지를 회복하고 이에 의하여 각하가 헌법상의 책임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혜택으로서 각하와 귀국 정부당국자가 자선과 정의의 정신에 의하여 여러 난관에 대처하는 예지와 힘을 얻은 동시에 韓國국민이 과거의 노고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에 충만된 새벽이 찾아올 것을 나는 절망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군대에게 이번의 결정적 승리를 베풀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겸허하고도 경건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韓國의 국민에 관한 책임을 각하와 귀정부에 맡기고 본관과 부하 장병은 다시 군무에 전념할 작오입니다.

부록 제92호 1950. 9.30. 10.30
육본작명 제199호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부록 제1호

一. (1) 생략

(2) 국제연합군은 담당지구내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음.

二. 군은 38선이남 소정지구에서 재편율하며 38선이북 침공에 기초를 배양하려 함.

三. a. 제1군단은 담당지구내 차기 진출예정선(적선)까지 계속 전진하라.

1. 제3사단은 三陟—江陵—축선으로 注文津까지 계속 전진하여 注文津부근에서 재편,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차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수도사단은 平昌—大和里(11421636)—蒼洞里(11341650)—蒼村里(11341669)—院當里(11361676)—後坪里(11231684)를 축선으로 龍浦(11251688)까지 계속전진하여 龍浦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은 담당지구내 차기 진출예정선(적선)까지 계속 전진하라.

1. 제8사단은 楡川—原浦里(11091592)—原州—축선으로 春川까지 계속전진하여 春川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차기 작전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제6사단은 忠州—原州—橫城—寶龍里(10651641)—楊平—兩水里—(10311641)—龍頭里(10041646)—水踰里(10031652) 축선으로 議政府까지 계속전진하여 議政府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차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3. 제7사단은 서기 1950년 9월 29일 24.00부로 육군본부 지휘하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제2군단장지휘하에 임하라. 동사단은 忠州—原州—驪州—楊平—兩水里—龍浦里—서울—축선으로 汶山까지 계속 전진하여 汶山里부근에서 재편, 육군본부명령에 의하여 차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기타사항 생략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지휘소 소재지

a. 육군본부 大邱

b. 제1군단 江陵

1. 제3사단 注文津

2. 首都사단 龍 浦

c. 제2군단 議政府

1. 제8사단 春 川

2. 제6사단 議政府

(1) 제8사단 春 川

(2) 제6사단 議政府

(3) 제7사단 汶山里

d. 군공병단

1. 제1201공병건설단 議政府

2. 제1101야전공병단 江 陵

e. 기타 생략

육군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93호

맥아더총사령관의 북한 괴뢰군 총사령관에 대한 항복 권고문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1950. 9. 30.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괴멸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UN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손실과 재산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국련군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韓國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 하에 있는 국련군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급양을 가하여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국련군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문명적인 관습에 의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차 기회를 다시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국련군사령관 다그라스 맥아더

부록 제94호

공군작명 제46호 1950. 8. 13.
大邱市 楠洞

공 군 본 부

명 령

一. 생략

二. 군은 시기 1950년 8월 14일 24.00시를 기하여 공지연락통신수 실시하여 공지삼호작전에 만전을 기하려 함.

三. (1) 통신대장 공군대위 李福鎭은 시기 1950년 8월 14일 18.00시까지 이행난 및 경찰대에 속한 경찰서에 대하여 공지연락에 필요한 통신기 설치에 임하라.

(2) 군수국장 공군소령 朴△先은 공지연락에 필요한 통신기 확보에 임한다.

(3) 통신배치 및 연락법은 육군 작전명령 제32호 별 별지 제1에 의거함.

四. 행정사항

별도 지부지시함

五. 여는 전대에 대함

공군총참모장 공군준장 金 貞 烈

부록 제95호

공군작전명령 제32호 1950. 8. 12. 18.00
慶北 大邱

공 군 본 부

비행기와의 대공통신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따라서 기 실시의 만전을 기할 사.

一. 사용 무전기 SCR 300

二. 통신제원 별표

三. (1) 제2항 제원에 의하여 지상부대는 비행기를 호출하고 또는 비행기는 지상부대를 호출할 수 있다.

(2) 비행기와 지상부대 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공통용 주파수로서 호출하고 지상부대 명칭을 비행기가 지득하면 주파수띠를 해당부대에 할당된 주파수띠로 지상부대는 곧 변경한다.

(3) 비행기 호출부호는 처녀 1, 처녀 2, 처녀 3, 처녀 4, 처녀 5로 한다.

(4) 연대이하 부대에서는 소속사단에 할당된 제원과 동일하다. 즉 주파수띠 「19」 호출부호 「모자」는 제3사단 예하 각 연, 대, 중대에 의하여도 사용된다.

(5) 할당된 주파수띠로서 불통하는 경우에는 당 주파수띠에서 1을 감한 주파수띠로서 실시한다 즉 제3사단에서 상공 비행기와 19 주파수띠로서 불통시는 18로서 실시한다.

四. 위에 관한 규정은 통신규정항목 번호로서 후달하며 그 변경에 관하여도 통신규정으로서 하달된다

五. 위 규정은 8월 14일 24.00시부터 실시한다.

공군총참모장 공군소장 金 貞 烈

부록 제96호

공본작명 제46호 1950. 8. 23. 20.00
大邱市 桂山洞

공 군 본 부

명 령

一. 생략

二. 군은 서부전선의 전국 진전에 대비키 위하여 정찰비행대를 무장강화 하려 함.

三. 정찰비행대장은 하기 사항을 실시하라

(1) 永川비행장 및 慶州에 파견 출동 중인 정찰비행기 전부를 서기 1950년 8월 24일 20.00시까지 永川으로부터 大邱경마장으로 이동하라.

(2) 永川비행장 정비요원 및 일부정비요원을 제외한 주력부대는 서기 1950년 8월 24일 14.00시까지 大邱경마장으로 이동하라.

四. 행정사항 永川비행장 재고연료는 잔치케 하라.

五. 여는 鎭海에 在함.

공군 총참모장 공군준장 金 貞 烈

부록 제97호

공본작명 제51호

1950. 9. 23.
大邱市 稚山洞

공 군 본 부

공본작명

一. 생략

二. 군은 비행단주력 및 일부병력을 서울지구에 전진시켜 서울지구 작전에 참가하려 함.

三. (1) 비행단장은 가동기, 전기를 시기 1950년 9월 24일까지 서울지구에 전진과 동시에 작전에 참가하라.

(2) 비행단장은 지상부대주력을 선박수송으로 시기 1950년 9월 24일이후 최속 선편으로서 鎭海출발 서울지구에 이동하라

(3) 현병대장은 주력을 비행단지상부대 이동선편으로 서울지구로 이동하여 경비에 임하라.

(4) 병원장은 金浦지구에 시기 1950년 9월 30일까지 공군병원 분원을 설치하라.

四. 행정사항 별도 서부 지시함.

五. 여는 9월 25일이후 金浦에 재함.

총참모장 공군준장 金 貞 烈

부록 제98호

1950. 9.11. 10.00
慶南 釜山

부대행동개시 해 병 대 사 령 부

一. 부대는 美 해병대와의 합동작전에 참가하려 함.

二 (1) 제2대대장은 장교 6 사병 214 계 220명을 차출하여 11, 15.00까지 美 함정 LST QO 13에 승선 완료하라.

(2) 제2대장은 장병 1 사병 50「표준」을 편조로 하는 소총소대 3개를 차출하여 "핸디코" "시바노우" "카바레"에 각각 분산시켜 11. 19.00까지 승선 완료하라.

(3) 사령부 제1대대 제2대대(대대장 포함한 잔여인원) 제3대대는 "피카웨이" 222에 아래 요령으로 승선하되 시간은 차후 시달함.

피카웨이호(APA 222호) 선실할당

	실정원	수 용 부 대
A실	268명	사령부 장교단 일부와 제1대대 제1중대 일부
B실	425명	제1대대 본부 사병전원 제1중대 잔여인원 전원
		제2 〃
		제3 〃 일부

C실 267명 제1대대 제3중대 잔여인원전원
제4중대 〃
D실 482명 제1대대 제3중대 잔여인원전원
제3대대본부인원 전원
제9중대 일부
F실 435명 제3대대 제9중대 잔여인원
제10 〃 사병 전원
제11 〃 일부
G실 436명 제3대대 제11중대 잔여전원
제12 〃 전원
E실 미 상 제2대대 전원
사관실 99명 장교단(각대 장교전원)

Ⅲ. 교육에 관한 사항

(1) 각자 수령한 무기에 대하여 간단없는 기회교육을 실시하여 급속히 숙달시키는 동시에 휴대무기에 대한 자신을 가지게 할 것.

(2) 상가지에 대한 교육이 지극히 긴요하니 시간과 장소를 얻는 대로 그 개념을 습득할 정도의 교육을 필히 실시할 것.

(3) 상륙도하작전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구명대 사용법도 교육할 것.

Ⅳ. 승함점 승선시 주의 사항

(1) 승선하기전 각자 목욕 이발, 손톱, 발톱을 깨끗하게 할것.

(2) 각자 내의는 세탁한 것을 착용할 것이며 복장 장구를 단정히 할 것.

(3) 언어 행동을 삼가하며 UN군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할 것.

(4) 출입금지된 구역의 출입을 금함.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떠나지 말 것.

(5) 각종 기계류에 접촉을 금한다.

(6) 변소 및 세면장 사용을 청결히 할 것이며 사용후 장소를 태만히 말라.

부록 제99호

해병대 편성표(1950. 8. 16)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소 속	인 원
사령부중대	사 령 관	대령	申 性 俊	선속부관 소위	李 東 出
	참모장	대령	金 大 鎭	통역장교 준위	趙 基 培
				사 병 3명	
	인 사	대위	蔡 昌 奭	인사관 중위	黃 德 化
				사 병 16명	
	정 보	중령	金 斗 燮	정보관 대위	吳 振 東
				〃 중위	吳 尙 仁
				〃 〃	崔 炳 喜
				〃 소위	崔 昌 欽
				〃 〃	沈 昊 澤
				〃 〃	李 鍾 出
				〃 준위	高 興 德
	작 전	소령	吳 命 錫	작전관 소위	李 昌 根
				통역장교 준위	朴 元 錫
				사 병 6명	
	후 방	소령	金 東 河	조달관 준위	李 重 俊
				수송관 〃	鄭 秉 三
				연락관 소위	朴 昊 正
				심계관 〃	元 昌 祥
				공급관 〃	元 興 德
				사 병 16명	
	통 신	대위	崔 德 勳	통신관 중위	馬 鍾 生
				사 병 27명	
	헌 병	소령	金 昌 雲	부대장 소위	李 珠 燮
				사 병 44명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소 속 인 원	
	의 무	중령	韓 東 煥	부원장 소령	沈 龜 福
				약제관 〃	韓 相 祐
				군의관 대위	梁 國 信
				총무관 중위	盧 台 宣
				사 병	46명
	재 정	대위	金 昌 玉	사병	3명
	정 훈	소위	洪 日 陸	정훈관 소위	趙 仁 福
				사 병	2명
제 1 대 대	본 부	소령	高 吉 勳	보급관 중위	朴 健 燮
				부 관 소위	姜 勇
				정보관 중위	金 龍 俊
				의 무 소령	金 偵 壽
				사 병	91명
	제 1 중 대	중위	鄭 萬 鎭		180명
	제 2 중 대	대위	金 光 植		182명
	제 3 중 대	대위	李 鳳 出		179명
	제 4 중 대	중위	高 相 河		184명
제 2 대 대	본 부	소령	金 鍾 琪	부대대장 대위	金 龍 國
				의 무 〃	李 浩 瑞
				부 관 소위	鄭 泰 翊
				보급관 〃	李 承 澄
				정보관 〃	李 鍾 世
				사 병	78명
	제 5 중 대	중위	朴 成 哲		171명
	제 6 중 대	중위	沈 相 學		172〃
	제 7 중 대	〃	鄭 光 錦		171〃
	제 8 중 대	〃	徐 廷 南		164〃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소 속	인 원
제 3 대 대	본 부	소령 金 潤 根		부대대장 대위	金 載 殊
				작 전 소위	金 然 湖
				정 보 〃	李 洪 雙
				부 관 〃	李 史 雨
				통 신 중위	李 斗 讚
				사 병	64명
	제 9 중 대	중위 黃	泳		178명
	제 10 중 대	중위 鐘 德	遠		179〃
	제 11 중 대	〃 鄭 重	鐵		140〃
	제 12 중 대	대위 金 龍	善		186〃

부록 제100호

작명 제16호

1950. 9.17. 15.00
仁川 해병대사령부

해 병 대 사 령 부

명 령

一. (1) 仁川으로부터 도각한 적은 그 대부분이 永登浦, 金浦방면으로 서울로 패주하고 그 작전일부가 富平里, 連喜里, 朴村里 부근에 잠복하여 아 후방의 교란을 기도하고 있음.

(2) 아 해병제1사단은 仁川 상륙후 韓國의 首都 서울 진공을 목적으로 서울, 朱安, 富平, 素砂, 梧棲洞 일대에서 적과 교전 중에 있음.

二. 부대는 일부의 병력으로서 仁川의 치안을 유지케하고 주력으로서 朱安, 富平간의 적을 소탕하여 富平里에 진격하려 함.

三. (1) 제1대대는 仁川상업중학에 위치하고 상급 상륙 미도착중에 있는 부대를 집결하면서 시 일대의 경비에 임하라.

(2) 제2대대장은 예하 각대를 지휘하고 투명도에 지시된 구역내의 적을 소탕하며 18. 16.00시까지 連喜里에 도착하라.

(3) 제3대대장은 美제5해병연대 배속으로부터 령 18. 10.00시을 기하여 그 지휘를 해제하고 해시각부터 계속투명도에 지시된 구역내의 적을 소탕하고 18. 07.00까지 朴村里에 도착하라.

四. (1) 보급 18. 05.30 이후 葛月里에 새로 시설되는 보급소에서 제반 보급을 행함.

(2) 후송, 의료 일선에 추종불능(追從不能)인 환자는 仁川에 입원케 하라.

(3) 근무, 해병대에서 사령부 자체 경비에 임함.

五. 사령부 위치 18. 16.00 이후 富平里에 설치함.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1호

작명 제17호 1950. 9.20. 10.00

京畿道 舊富平

해 병 대 사 령 부

명 령

一. (1) 적은 그 주력이 永登浦에서 아군진격을 방해하고 있어 아 해병 제1사단은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음.

(2) 적 약 1개중대는 금조(今朝) 05.00부터 아 정찰대와 金浦에서 교전하였으나 아방의 공격으로 月串面 行政부락으로 도주하였음

二. (1) 부대는 漢江도하를 목적으로 일부로서 현 임무를 담당케 하고 주력을 金浦를 거쳐 井谷里에 진출하려 함.

三. (1) 제3대대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 종래의 임무에 당(當) 하고 제1대대 경계임무를 병합담당하라.

(2) 제1대대장은 현 임무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20.17. 00까지 井谷里에 집결하라.

(3) 제2대대는 美 제5해병연대장 지휘에 들어가라.

四. 행정사항

(1) 보급

후방참모는 현 위치에서 잔무를 처리하고 하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로서 대기하라.

(2) 인사

전사자에 대한 묘지선택 장례식을 20.15. 00까지 완료토록 제반준비를 완료하라.

(3) 후방 및 의료

현 유환자는 富平里에 수용토록 하라.

五. (1) 본관은 사령부에 지(至)하여 급변 필요한 지시를 함

(2) 통신 美 제5해병연대와의 연락은 연락장교 헤그나 중령이 이를 담당하고 작대수 2명의 진령을 상시 사령부에 파견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2호

작명 제18호 1950. 9.22. 07.00
京畿 金浦郡 月谷里

해 병 대 사 령 부

명 령

一. (1) 적은 아군의 서울 침공을 방해할 목적으로 水色, 서울을 통하는 도로 산복 도처에 장애물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당한 병력이 배치되고 있는 모양임.

(2) 美 해병제1연대는 水原浦에서 적 약 1개연대 병력과 교전 중에 있으나 그 주력은 거의 소멸된 모양임.

二. 부대는 美 해병대와 합동하여 水色가도를 거쳐 서울시에 전진하려 함.

三. (1) 제1대대는 투명도에 지시된 서울시 제3 목표를 향하여 공격하라. 右측 전면은 제5해병 제1대대가 左측 전면은 제3대대가 전진하고 있음으로 상호협조를 긴밀히 할 것.

(2) 제2대대는 현 위치에서 美 해병 제5연대장 지시를 받으라.

(3) 제3대대는 金浦 현 위치에서 美 해병 제1사단장 직접 지시를 받아 金浦방어에 임하라.

四. 행정사항 별지에 의함

五. (1) 사령부 위치 제1대대와 함께 서울에 진출함

(2) 통신

작대는 「193」무전을 이용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3호

작명 제19호 1950. 9.25. 07.00
京畿道 水色

해 병 대 사 령 부

一. (1) 적은 그 주력이 東교내부근으로 퇴각하고 있으나 상당 일부는 서울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음. 美 해병제1연대가 금 미명을 기하여 漢江남부 麻浦江을 도하하고 麻浦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서울시를 향하여 진격 중임.

(2) 美 해병제5연대 및 제7연대는 투명도의 선에서 서울시를 거의 완전포위하고 있으며 08.00시부터 공격을 기도하고 있음.

二. 부대는 美 해병제1사단과 합동하야 당면의 적을 공격하려 함.

三. (1) 제2대대는 투명도에 지시된 구역을 제1연대와 합동하여 당면의 적을 공격 소탕하라.

(2) 제1대대는 투명도에 지시된 구역을 제5연대와 합동하여 해적을 공격 소탕하라.

(3) 제3대대는 21.00까지 사령부 현 위치로 이동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본관은 수시 작대 적의 상황을 시찰.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4호

작명 제21호 1950. 9.26. 14.00
京畿道 水色

해 병 대 사 령 부

(1) 적은 UN군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그 주력이 거의 섬멸되었으나 잔적 일부의 병력으로 각처에 분산 배치되어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1950년 9월 25일부로 통영부대 복귀에 따라 부대장 대령 金聖恩은 참모장으로 참모장 대리였던 金大植중령은 제5대대장으로 각각 인사이동이 있었음.

제 5 대대

대대본부 대령 金聖恩
보급관 대위 李 元赫
부 관 중위 李 永虎
군의관 소위 孫 基浩
통신관 중위 李 斗讚
계 4명

제21중대 대위 安 昌寬
제 1 소대장 중위 李 炳文
사병 56명
제 2 소대장 병조장 金 聖殷
사병 47명
제 3 소대장 소위 朴 利馥
사병 42명
사병 계 145명

제22중대 중위 閔 容植
제 1 소대장 소위 李 廷熙
사병 56명
제 2 소대장 소위 趙 重汝
사병 44명
제 3 소대장 병조장 高 光壽
사병 46명
사병 계 146명

제23중대 중위 權 錫基
제 1 소대장 소위 趙 義正
사병 57명
제 2 소대장 소위 李 東雨
사병 49명
제 3 소대장 소위 劉 國泰
사병 46명
사병 계 152명

제25중대 중위 金 文常
제 1 소대장 소위 卓 龍鉉
사병 56명
제 2 소대장 소위 李 應善
사병 47명
제 3 소대장 병조장 金 相根
사병 45명
사병 계 158명

중화기중대 대위 韓 體澤
제 1 소대장 중위 姜 永求
사병 57명
제 2 소대장 중위 李 洪均
사병 49명
제 3 소대장 소위 李 基德
사병 46명
사병 계 153명

수색소대 대위 金 鍾植
사병 34명

(2) 해병제1사단 및 보병제7사단은 정면의 적 주력을 격파하며 동북방으로 추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대 제1대대는 美 해병제5연대와 협동하고 당대 제2대대는 美 해병제1연대와 협동하여 각각 전면의 적을 공격 소탕 중에 있음.

二. 당대는 제5대대로 하여금 대대장이 지휘하는 3개중대로서 美 해병제7연대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제7연대와 합동하여 해 방면의 적을 소탕하고 또 1개중대로서 별지 투명도에 지시된 구역내의 적을 공격 소탕코저 함.

三. 제5대대장은 제2항에 지시된 구역내의 적을 소탕 선멸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1) 부대지휘소

(2) 통신 본전투간 SCR 300의 사용을 금함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5호

작명 제22호 해병대사령부 1950. 9.29. 12.00

서 울

명 령

一. 대한 뚝f 50,000분지 1

(1) 적의 저항은 대체로 약화하여져서 지역별로 고립되었고 사용 무기도 경 장비 분임.

(2) 아 해병 제1대대는 美 해병 제5연대와 합동, 제2대대는 제1해병대와 합동하고 제5대대는 제7연대와 합동하여 적을 공격소탕하고 28, 24.00을 기하여 거의 그 임무를 완료함.

(3) 중앙청 및 정무대는 육군 제17연대가 경비에 당하고 있음.

二. (1) 부대는 美 해병 제1사단 작명 29—50호에 의거하여 제2, 제1대대를 본관 지휘하에 복귀케 하고 서울행정관청이 치안을 담당할 때까지 당분간 서울시 치안확보에 임하고저 함.

(2) 취임개시 시간 29, 14.00

(3) 치안담당구역 요도와 여함.

三. (1) 제1, 제2대대는 분담 구역내에 따라 각 해지역내에 잠복중인 적의 패잔병 및 빨치산 부내를 수히 적발하여 반동요소를 제거하라.

(2) 제3대대 및 제5대대는 계속하여 현 임무를 수행하라.

(3) 제24중대 제25중대는 별명시까지 본관이 직접 지휘함.

四. 행정사항 별지와 여함

五. (1) 통신 : 치안확보 수행간은 유선전화를 사용한다.

(2) 사령부는 29, 18.00부터 해군본부에 위치함.

(3) 각대는 지휘소 위치를 정하는 대로 보고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6호 해병대사령부

작명 제23호 1950. 9.30. 11.00

서 울

명 령

지도 서울 뚝섬 50,000분지 1

一. (1) 적은 서울 東北으로 전면적 도주한 기색이 보이나 기회만 있으면 재침하려 하고 있음.

(2) 아 제10군단은 仁川 서울지구를 방어하며 지역차단을 확립하며 일대의 적을 공격소탕하고 있음.

(3) 美 해병 제1사단은 서울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북방으로 공격을 계속하며, 유력한 정찰대를 파견하여 漢江 北방의 적을 소탕하고 있음.

二. (1) 부대는 美 육군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전진하는 적을 저지 섬멸하고저 함.

(2) 임무교대시간 30, 15.00

(3) 전투경계선 투명지 참조.

三. (1) 제3대대는 현일시로부터 철수하여 30, 15.00까지 美 육군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전진하는 적을 저지하라.

(2) 제5대대는 1개 중대를 현지에 잔류하고 대대장이 지휘하는 2개중대와 현재 본관이 직접지휘하고 있는 제24중대, 제25중대를 병합하여 소명(所命)지역의 방어에 임하라.

(3) 제1, 제2대대는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4) 제932부대는 서울에 잔류하여 별명시까지 해군본부에 임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1) 통신 별명시까지 유선을 사용하라.

(2) 사령부는 30, 15.00부터 楊水里에 위치함.

(3) 각 대는 대대지휘소 위치를 정하는 대로 보고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7호

작명 제24호 해병대사령부 1950. 10.2. 07.00

京畿 楊州郡 仁昌里

명 령

지도 서울 뚝섬 50,000분지 1

一. (1) 적은 南韓 각 전선으로부터 전면적퇴각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이나 그 적 일부가 각 지역에 잠복하여 상당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2) 아 제10군단은 仁川 서울지역을 방어하며 지역차단을 확립하고 일대의 적을 공격 소탕 중에 있음.

(3) 제7보병사단은 漢江남단 右측 제일선임.

(4) 美 해병제1연대는 좌측 제1선임

二. (1) 부대는 제1해병사단 작명 14—50호에 의거하여 서울 東方으로 전진, 漢江과 北漢江과와 합류, 즉 투명도에 지시된 지역의 도로 접촉부근의 지역차단을 실시코저 함.

(2) 공격개시시간 2, 08.00

(3) 공격개시선 투명도에 표시함.

三. (1) 제2, 제5대대는 투명도에 지시된 적을 공격소탕하며 예비진출선에 도달하여 각각 요점을 확보하고 즉시 보고하라.

(2) 제1대대 및 제3대대는 현재 위치에서 종래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1) 전투간 통신은 유선을 병행하라.

(2) 사령부는 仁倉里(63.2—38.8)에 치(置)함

(3) 각대대는 지휘소 위치를 정하는 대로 보고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8호

작명 제25호 해병대사령부 1950. 10.3. 12.00

京畿 楊州郡 仁倉里

명 령

지도 서울 뚝섬 麻石偶里 50,000분지 1

一. (1) 해병대 작명 제24호의 제1적정과 변동 무함.

(2) 당면의 적을 退溪院에 병력불명 다수의 적 德蘇里에 약 200명이 있으나 금조 아 육군 7, 8사단의 대부대 이동으로 도처에 분산된 모양임.

仁倉里北방 약 5,000m(128高地) 부근의 약 1개대대의 적은 東北방으로 이동하고 있음.

(3) 제1대대는 10월 2일부로 美 육군 제7사단 배속으로 부터 원 소속에 복귀되었음.

二. (1) 부대는 美 육군 제7사단에 배속되었던 제1대대를 당면의 전투에 참가 시키고저 함.

(2) 공격개시 시간 제2, 제5대대는 작일에 계속하고 제1대대는 3, 13.30

(3) 전투경계선 투명도와 여함.

三. (1) 제2, 제5대대는 10.03 예정도착선내의 적을 공격소탕하며 진출하고 도달 즉시로 보고하라.

(2) 제1대대는 투명도에 지시된 지역 내의 적을 공격 소탕하며 예정진출선에 3, 16.00까지 도달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사령부 위치 변동무함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부록 제109호

작명 제26호. 해병대사령부 1950. 10. 7. 08. 00

京畿道 楊州郡 仁倉里

명 령

一. (1) 적은 아 해병대 점령지역내에서 완전히 퇴각하여 그 자태를 발견할 수 없음.

(2) 아 해병대 서울 仁川 지구작선 6, 08.00을 기하여 그 임무를 완전히 완료함.

二. (1) 부대는 신임무에 취할 목적으로 仁川에 이동하려 함.

(2) 출발시간 사령부 위치 仁倉里를 11.00출발함.

(3) 경로 서울—仁川

(4) 행군부대

사령부 제5대대 제1대대 제2대대

(5) 부대이동을 위하여 美 해병제1사단으로부터 자동차량 90량이 09.30까지 사령부에 도착할 것임.

三. (1) 인사참모는 09.30 현재 위치를 출발 仁川에 도착하는대로 지휘소에 대한 제반시설에 임하라.

(2) 제1, 제2, 제5대대는 6, 09.30까지 사령부에 집결 완료하라.

四. (1) 행정사항 별지행정명령 참조

五. (1) 부대는 仁川 주둔간 육선을 이용하라.

(2) 사령부 위치는 14.00이후 仁川 공설운동장에 임함.

(3) 각대대는 지휘소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보고하라.

해병대사령관 해군대령 申 鉉 俊

2. 訓 令

부록 제110호
육본훈령 제17호

1950. 08. 01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작전수행상 통신연락의 중요성과 그의 양 부는 직접군의 작전행동의 승패를 결하는 최대요소임을 각급지휘관은 심심명심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그에 따르는 기계보급상태의 불여의로 인하여 작전행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관계지휘관의 맹성을 바라는 동시 심히 유감지사임. 부족한 기재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통신장병의 노력은 가찬할바이나 반면 기영에 있어 적당치못함은 왕왕 인원과 기재만 허비 손실하고 따라서 통신연락이 지극히 불량하였음을 차에 엄중히 지적하는 바임. 고로 특히 좌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실행할것을 재지시하니 조속한 시일내로 교정하여 군통신운용에 완벽을 기할 사.

기

一. 부단한 기재정비

순간의 시간이라도 기재를 정비함은 기계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킬뿐더러 양호한 통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二. 이동통신소 및 교환대위치선택

위치선택이 불양하여 적의 포탄이 명중한 예가 허다하니 적으로 부터 음폐는 물론 적탄 락하에 유의하여 기도비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三. 경편전화기(CHIH)의 유효한 사용

그 성능양호하고 이용이 다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득한바와 여한 성과를 획득치 못하고 있음. 특히 무선기 SCR 300 536의 대용으로서 유효하게 사용할사.

四. 유선전화사용의 무규율은 군비밀을 루설케 할 뿐만 않이라 그통제상곤란이 지대함 고로 요점에 한하여 간요의 음호화하여 통화할 사.

五. 기기고장시 제일선각부대에서 수리불가능하면 신속히 육군본부로 후송하고 대용품 또는 신품을 수령하여 전반적 통신운용에 만전을 기할 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1호

육본훈령 제18호 1950. 08. 02. 23.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공세를 취하기전에 제부대는 매일 반격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반격목적은 적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하며 아방고지에 대하여 협동공격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근작전을 보면 전지에서 잃은진지를 탈환하고 적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자조반격을 행하여 그 가치를 발휘하였든 것임.

반격이라는 것은 방어전의 결정적인 요소인 동시에 반격작전의 성공여부는 대부분 기습행동의 대, 등신속 여하에 의존하는 것임.

이러한 사실을 제부대는 철저히 이해하여 주기를 원하는 바임. 각부대장은 상기한바와 같은 시달을 명심하여 지급히 적극적인 처사있기를 요망하는 바임.

각부대장은 본훈령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예하 전장병에게 주지 철저히 시킬것을 강조하는 바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2호

육육본훈령 제19호 1950. 08. 02. 24.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一. 적정

洛東江북변에 집결한 제7사단주력은 제8사단일부보병력을 통합하여 도하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려함.

三. (1) 치안국장은 南松(1203~1508) 軍威(1154~1484) 義城(1166~1498) 永川(1176~1460)에 있는 경찰대를 통합하여 한지휘관에게 지휘시켜 08월 03일 12.00까지 제1군단에 예속시키는 동시에 제1군단장의 지휘하에 입하라.

2. 제1군단장은 전기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적을 저지 섬멸하라.

3. 제1군단장은 치안국장으로부터 해병력의 인수완료와 동시에 그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1) 제1군단장은 경찰병력및 후방상황을 후방상황보고에 통합보고하라.

(2) 경찰후방지원은 제1군단장이 담당하라.

(3) 제1군단장은 경찰소유 무기현황을 08월 04일 24.00까지 보고하라.

五. (1) 치안국장은 해경찰대가 소지한 유무선기재 일절을 휴대케하라.

(2) 제1군단장은 우부대와의 통신연락에 책임지고 요하면 제원 기타필요사항은 육군본부에 청구하라.

계엄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3호 1950. 08. 04. 09.00
육본훈령 제20호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전승의 요는 유형무형의 각종 전투요소를 요점에 집중발휘함에 있음. 동시에 현대전에 있어서 군의 기동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전쟁의 승패를 자우한다는 것은 전술상의 철측이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의 체험으로도 부정치 못할 사실임. 연이 왕왕 각급지휘관으로서 여차한 원칙을 이해치 못하고 차량대호의 정신을 몰각하여 배속 포병단의 차량을 차용 혹은 전용을 강요 남용하는 지휘관이 유함은 공세전이의 중요과제를 목첩에 박두한 현금 장래를 위하여 우려되는바 심대함.

본관은 차에 각급지휘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이후 여사한 사실의 근절을 기함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차제에 일층 강조하는 바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4호
육본훈령 제21호 1950. 08. 04. 1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지연작전(주로 교통로차단)에 관한건

기왕에 교통로를 차단한 결과로서 별첩 제8군사령관의 각서주지에 합치되지못한 점이 허다하였음으로 좌기 요지에 의하여 교통로차단의 완벽을 기할 사

기

一. 지휘관(사단장, 독립연대장이상의 각급지휘관을 칭함 이하동)은 지연작전에 있어 특히 교통차단(폭파, 장해물및지뢰설치)에 착안하야 작전계획을 수립할 사

二. 지휘관은 지연작전계획 수립에 앞서 공병참모에게 작전계획에 부합한 교통차단지역의 면밀한 정찰을 명할사

三. 지휘관은 공병참모의 제안에 의거하여 특히 좌기사항에 착안하여 제반계획을 수립할사

(1) 상급및인접부대간(특히 UN군)에 충분한 협조연락을 할사

(2) 차단위치 파괴정도 및 차단시기를 공병장교에게 명확히 지시할사

차시기 지시에 있어서는 미리 「○시○분」을 지시함이 아니라 지휘관은 전투상황의 진전을 현지에서 목격하면서 아방 부대의 병력 및 보급품을 수용한 직후에 파괴할 사, 차시기를 불명히 추상적으로 후방에서 상황진전을 명확히 파악치 않고 지시한 관계로 각종불미한 사태를 초래한 예 유함 또한 여하한 경우라도 차단점을 파괴전에 적에게 점령당함은 절대 불가함 차항은 특히 지휘관의고려할점이며 중대한 책임의 하나임.

(3) 차단지점에 화력를 배치하야 일층 적행동의 지연 효과를 확득할사.

(4) 아방의 각종작업에 필히 엄호병력 및 화력을 배치할 사 차를 망각한 고로 실패한 예 허다함.

(5) 교량측면의 우회로 및 세월(하상상의 저교량)에도 지뢰매설을 적절히 하야 적의 행동을 지연시킬사.

(6) 하천상의 교통로 차단시에는 필히 하천상의 제반 주정및벌목도 파괴하야 완전한 차단을 실시할사.

차를 충분히 실시치 않은 고로 적에게 이용당한 예 허다함.

四. 지휘관은 실시한 교통로차단 결과를 필히 확인하여 불성공시에는 반복실시하야 교통차단을 완전히 할것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5호

계총훈령 제22호

1950. 08. 04. 2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一. 생략

二. 군은 대공표지를 변경하려함

三. (1) 예하 각부대 및 국내관계 각기관은 명 8월 5일 05.00를 기하야 대공표지(백색포판)의 일절을 철수하라.

(2) 전기 시각이후부터 별명시까지 표지가유한 것은 일절 적으로 인정하고 폭격할것임. (자동차 건물일절)

四. (1) 철수한 백색포판은 각기 보관하야 차후사용에 대비할사.

(2) 여차한 훈령은 특히 시각을 엄수하여야 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히 전달되여야 함

五. (1) 차훈령은 암호통신 및 연락장교에 의하야 전달실시되여야 함.

(2) 기밀보지상 격별한 주의를 하여야 함.

(3) 차 훈령은 각국에 실시되어여야 함.

계엄총사령관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6호

육본훈령 제23호 1950. 08. 05. 19.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一. 군은 6일 말조을 기하여 尙州, 咸昌, 安東일대에서 아점면(正面)을 향하여 도하중인 적을 洛東江주변에서 포착섬멸하려함.

二. (1) 제1군단장은 군단예비대를 보유하며 현방어진지를 확보하면서 연대군위이하내에서 전면에 적을 국부적으로 포위섬멸할사.

(2) 제1군단과 제3사단과의 전투지경선부근에 있는 기갑연대는 현재 임무를 계속하라.

三. (1) 제2군단장은 제19연대를 예비대로 보유하며 현방어진지를 확보하면서 연대단위이하내에서 전면의 적을 국부적으로 포위섬멸할사

(2) 제2군단장은 특히 제1기갑사단(비군)과의 전투지경선 내측강변일대의 방어선에 대한 적의 침입을 강력 저지격멸하라.

四. 세부실시요령은 현지파견참모의 지시에 의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17호

육본훈령 제24호 1950. 08. 06. 09.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치안국장 귀하

치안국장은 별지에 의거 경찰대를 파견하라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서기 1950년 8월 5일 18.30

제 5 보병전투연대장

한국 군사 고문 단장

한국군 총 참 모 장

G× 20881 KGO

제1일잠정독립경찰소대를 서기 1950년 8월 5일 천도로 마산에 이동하여 도착과동시에 제5전투연대에서 배속하라

경찰소대의 임무는 하기와 여함

(1) 관계지휘관과의 연락확립 및 유지

(2) 지방안내인의 구득.

(3) 적 병력배치 및 인원에 관한 정보획득.

(4) 연대원으로.

(5) 신분불명자 및 피의자의 근처출현을 신속히 보고.

(6) 상기 임무에 연대장이 희망하는 직무

별지

서기1950년 8월 5일 18.30

제1잠정 해병여단장

한국군사 고문단장

한국군총 참모장

G×20880 KGO

제4잠정경찰중대를 서기 19505.8.5 18.30시 철도로 마산에 이동하여 도착과 동시에 제1잠정 해병여단에게 배속하라.

경찰중대의 임무는 하기와 여함

(1) 관계 지휘관과의 연락확립 및 유지.

(2) 지방안내인의 구득.

(3) 적병력배치 및 인원에 관한 정보획득.

(4) 여단장으로 하여금 제2급도로 및 소로를 포함한 도로망 및 지방지형을 숙지케하는 일.

(5) 신분불명자 및 피의자의 근처출현을 신속히 보고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체포하는 일.

(6) 상기임무외에 여단장이 희망하는 직무수행.

부록 제118호

육본훈령 제25호 1950. 08. 06.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금번 미 군사고문단장으로 부터 좌기 각서가 유하와 차를 시달하니 각급지휘관은 종전의 과오 제습를 일신하야 일층강대하고 종합적인 부대위력을 발휘할사.

기(원문 번역)

공병부대및공병참모의 운용

一. 야전에 있어서의 공병 운영기본원칙은 야전교범(FM5~5)에 기술되어 있으되 기왕에 있어 각급고급지휘관은 이런 원칙을 전연 무시해온것이 현저하므로 현성 작전별로 정당한 공병운용 기본원칙을 재인 식시키고저함이 차 각서의 목적임.

二. 공병참모와 지휘관과의 관계

가. 육군본부 공병감

육군본부 공병감은 모든 공병사항에 관하야 총참모장의 보좌역활을하며 후방계획에 관하야

일반참모에 협조하고 사단공병이 않인 군공병부대를 지휘함.

나. 군단공병부장

군단공병부장은 군단장에 대하야 참모의 역활을함.

공병부장은 공병사항에 관하야 군단장에게 건의하며 군단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야 군공병의 지원을 요청함. 사단공병이 병력과 자재의 지원을 얻으려면 그 청구는 군단공병부장을 통하여야함. 군단공병부장은 지휘권한이 없음. 군단에는 예속 또는 배속된 공병부대가 없으나 군단공병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공병에서 지원부대를 보낼수 있음. 현재 군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공병부대는 보다 군지휘하로 드러감.

다. 사단공병부장

군 군단에 대한것과 같이 사단장에 대하여 참모기능을 수행하고 사단공병대대를 지휘함.

三. 후퇴와 방어에 있어서의 공병부대

가. 후퇴에 있어서 사단공병은 지연작전을 위한 교통로 차단 장해물(지뢰) 설치 및 적이 유효하게 사용할만한 아군 중요시설물의 폭파에 사용됨 후퇴에 있어서 공병은 엄호부대에 배속될것임, 사단공병대대에서 최소 1개중대는 사단공병대대장의 지휘하에 남어서 후퇴로 유지를 하여야함. 사단공병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 가능한 군공병의 지원과 보조를 받을수 있음.

나. 방어에 있어서의 공병은 대개 사단공병대대장의 지접지휘하에 두고 사용함. 그 주요임무는 폭파장해물설치 지휘소 또는 감시소설치 교통로의보수유지 개량 및 후방 방어진지와 통신소설치등과 같은 특수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서 배속구분을 보조하는 것임. 공병은 포병대 기타중무기를 위한 토좌구축의 지원요청에 응할수 있으나 개인을 위한 차모작업등은 실시치 않음. 방어에 있어 공병은 긴급시에만 한하며 보병전투에 참가할때가 있음. 이런 경우에는 사단장이 참모격인 공병부장은 공병작업의 중지로 인하여 사단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지휘관에서 상신하여야 함.

四. 전진과 공격에 있어서의 공병부대

가. 전진과 공격에 있어서 사단공병대대의 주요한 임무는 지뢰가 있는 도로장애물의 제거 교통로의 보수확장급개량 및 교통순환에 대한 계획 및 상신등임 전진에 있어서 공병은 엄호부대 포의 경비 및 각주력전진부대에 배속됨. 공격에 있어서는 보통공병은 사단공병대대장의 직접지휘하에 둠.

군공병부대는 전진과 공격에 있어서 군단과 사단에 긴밀히 지원하는임무를 하며 공병감이 직접 지휘함

五. 모든 전투면에 있어 공병은 부단히 공병정찰을 하여 보급로 유지를 하는것이 중요한 임무임. 고로 전투지휘관은 공병을 공병본래의 임무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국한하도록 노력하여 유의할것임.

추이

(1) 본각서의 최중점

공병부대의 오용을 강력히 지적 당시한 것임.

즉 공병은 각종작전단계에 있어서 그 본래의 공병임무에 사용할 것이며 그와 임무에 오용 유용하야 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반적 불리를 초래함. 만부득기하야 자위적 보병전투에 투입할사에는 공병 본임무는 중지할수 없으며 또한 단시간내에 교대하야 공병본임무에 사용함이 유리함. 공병의 장비훈련이 차를 명시하고 있음

(2) 군단공병은 차를 분할하야 각각사단공병에 편입시킴. 요령은 별지에 의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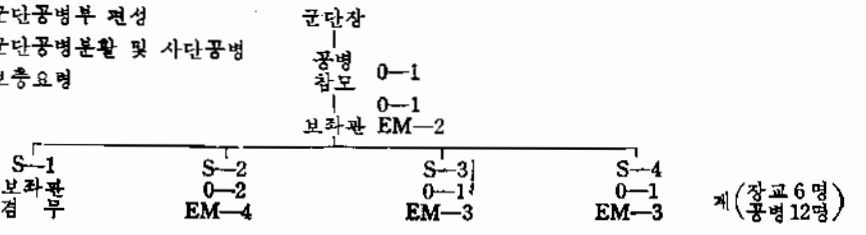
(3) 편입될 인원 명부를 즉시 제출할사

군단사단은 즉시 재편성을 개시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1. 군단공병부 편성
2. 군단공병분할 및 사단공병 보충요령



구별 / 군단별		현재인원	보충인원	신편성인원	잔여인원	비고
1군단	군단	0—32		0—6	0—24	一, 사잔여인원(후보생을포함)은 군공병단에 편입사
	공병	E—300		E—12	E—171	
	수도	0—19	0—1	0—20		二, 단공병보충은 군단공병에서 편입시킴
		E—291	E—109	E—400		
	8사	0—19	0—1	0—20		
		E—382	E—8	E—400		
2군단	군단	0—8		0—6		一, 잔여인원은 군공병단에편입
	공병	E—158		E—12	E—20	二, 사단공병보충은 군단공병에서 편입시킴
	1사	0—18	0—2	0—20		
		E—275	E—125	E—400		
	6사	0—20		0—20		
		E—399	E—1	E—400	13	

부록 제119호

육본훈령 제26호 1950. 08. 06.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미군제8군사령부로 부터의 지시사항 『전투의 전실성』을 별지와 여히 이첩하달하니 작전수행에 유감없기를 기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주한미제8군사령부 사령관실 APO 301

서기 1950년 8월 3일

건명 전투의 전실성

제1기갑(보병사단장) 제2보병사단장
제2단보병사단장 제25보병사단장
제1잠정해병사단장 부산후방관구사령관
제5보병전투연대장 한국군사고문단장
한국군총참모장

一. 전전선을 통한 적의 신속한 전진으로서 실증된 바이나 여하한 적의 진출을 아군의 주지능력을 다하여 지연시키는데 최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도로 교량 기타지물에 장애가 지연작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뢰매설이나 파괴물 장애물등을 설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진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적은 전진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여하한 것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적의 전진을 방지하려며는 용의주도한 계획이 있고 각개인에 그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동시에 지뢰파괴물및 장애물등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않된다.

二. 작일 미군은 처음으로서 서남지역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대성공을 이루었다. 적부대의 장구 포등이 고지 및 부락에 느러서 있고 도로에 난잡하게 싸여 있었다.
아반 공군은 맹렬히 공폭(空爆)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성공은 아군의 맹렬한 공격에 못견디어 적군이 개활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얻게된 것이다.

三. 전쟁이란 죽음을 결고하는 일이다. 종국의 성과는 부대의 일원으로서 전투하고 있는 각개인의 행동과 제부대의 견실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실에 있어서 본관은 각지휘자에게 자기부대의 제일원에 죽음을 결고 하는 전쟁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지도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군은 한국에서 절대로 퇴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四. 본관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이며 차서한의 내용을 전미군인원에게 전달하여 주의를 환기시킬것을 지시하는바이다.

미 제8군사령관 육군중장 W.H. 워카

부록 제120호
육본훈령 제27호

1950년 8월 6일 12.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미군제8군단사령부로부터 하달된 「하천선방어」에 관한지시를 별지와 여히 이첩시달함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주한 미 제8군사령부 APO 301

서기 1950년 8월 5일

건명 하천선방어

제1기갑(보병)사단장

제24보병사단장

제25보병사단장

제 2 보병사단장

한국군총참모장

一. 하천선 방어에 관한 하기 정보는 상기 각군지휘관의 참고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a. 각 하천을 적극적으로 정찰하여 각부대는 책임담당지역내의 현존하고 있는 또는 가능한 모든 천뢰(淺瀨)를 발견해 내지않으면 않됨

이와같이 중요지점의 실지방어는 과괴물 또는 장애물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그 효과를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b. 차량왕래에 적당한 천뢰(淺瀨)의 물을 깊게 하는데 폭팔물을 사용할수 있다. 그리고 대차량 지뢰를 물밑에 매몰해 두며는 그 효과야 말로 위대한 것이다.

이와같은 작전에는 특히 분화장진 및 탱갈로~수뢰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c. 개인왕래에만 적합한 천뢰에는 대인지뢰와 함께 매몰한 유자철선 장애물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을 자동화기로서 사격할수있을때 더욱 그 효과는 크다. 이러한 자동 화기는 야간에 드러가시 이지역에 효과적인 사격을 할수 있도록 주간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육군중장 워 카의 명에 의하여

고급부관보좌관 육군대위

부록 제121호
육본훈령 제28호

1950년 8월 9일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포병부대경계에 관하건

一. 포병부대에 대한 경계는 자대지휘관의 책임이며 그 경계는 포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않이다. 여사한 경계는 전체적으로 사단을 전개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포의 직접 지원을 받는 연대는 그러하다. 이 기본원칙은 공격행동에나 후퇴행동에나 다같이 적용되는 진리이다.

二. 포병은 전지점령시 혹은 행군시 적의 측면 혹은 포위공격을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함으로 인접보병부대와 지원부대는 적의 이러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파괴하여야만 한다 후퇴시에는 포병은 제일 먼저 후퇴하는 부대중의 하나 그와같이 후퇴함으로서 포병은 후방의 신진지에 계속 포지원을 할수 있는 때문이다. 포병의 후퇴는 일시에 1개중대식 수차적으로 실시함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쌍방에 공히 유리한 것이다.

三. 여사한 협동동작의 주요한 요소는 밀접하고 민활하고 계속적인 연락임으로 이것 또한 자대지휘관의책임인 것이다. 포병부대는 비록 긴박한 현실정이 허용치 않음으로 근거리 방어를 위한 자대 화기는 없으나 근거리 방어를 할수있는 부대이다. 한미양포병부대의 금번 작번 경험에 의하면 가능한 한 포진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소화기 공격을 받기전에 이동할 수 있도록 방어태세를 취하여야 한다.

四. 포병화기 및 차량을 보급할시엔 분실 혹은 파해등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포병은 보충하기에 장기간의 훈련을 요함으로 여하히 사소한 인적손실이라도 극히 다대한 타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으로 포병은 인원을 절대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투지구에 분산되여 있는 것이다.

장차 닥처올 공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속하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포병대를 여하한 손실도 없도록 엄호하여 주어야 한다. 인원 및 자재의보충은 현실정에 있어서는 구득할수 없는 것이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2호
육본부훈제29호

1950년 8월 10일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포병대의 운용에 관하여서는 포병창설이래 대장회동석상에서 참모회의 석상에서 또는 문서를 통하여 강조되었든바 금차 작전개시이래 그운용법의 적절을 결하여 보포협동의 성과를 추진하며 심지어는 전술적원칙을 탈각한 무리한 사격요구와 포병분대장의 전문적 기술적의견구신의 무시는 화포의 수명을 극히 단축시켜 참전후 2주일을 지나지못하여 벌써 2문의 사용불능포를 냈음은 장래 작전을 위하여 유감사임.

이하 포병의 운용에 관하여 보포각급지휘관에게 본관의 의도를 전달하오니 즉시 실행하여 작전의 봉공을 기하라. 만약 본훈령에 위반하여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과실부주의로 인하여 화포기재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함.

一. 일선지휘관의 무계획적인 후퇴는 포병으로 하여금 일선보병후퇴에 지원사격을 불가능케 하며 심지어는 적보병으로 하여금 아포병진침공의 기회를 주게함.

二. 각급 포병지휘관의 감독불충분은 포병각사병으로 하여금 일반분해에 속하지 않는 부분까지의 분해를 허용하야 화포기능 수명에 악영향을 줌

三. 피지원부대장은 지원포병을 위하여 포병관측소 포진지선정등에 적극 원조하지 않니하면 지원포병으로서는 충분한 전력발휘에 기를 실함.

四. 유무선 통신은 포병사격에 불가결의 중대요소임. 만일에 또 계급적으로나 직책적으로라도 포병통신망을 포병사격이외에 혹은 보병부대 연락용으로 사용한다던지 통신선을 공용하야 포병사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五. 포병대의 장교의 부족은 자연보포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고로 각급지휘관은 적시적절히 포병지휘관에게도 전반적 상황을 숙지케하여 전반적 지원에만 유감없기를 기할것. 사격의 가부는 포병지휘관만이 결정할수 있으며 기타 개인을 막론하고 사격의 강요는 천만부당지사임. 포병의 기술적 견지에서 즉 화포의 수명을 고려한 발사속도 사향 사각 탄약 관제등등으로서 포병장교는 사격의 가부를 결정함이니 일선고급지휘관들은 무리한 사격을 강요함이 없어야 함.

포병의 사격은대부분은 일선보병의 지원사격임 일선보병장병은 방관적태도를 버리고 포병사격을 가장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포병사격목표하에 있는 적의 전투력은 극히 축소되었음을 숙지하야 평시훈련된 공격을 차 시기에 충분히 발휘하야 혼란중에 있는 적진의 협격을 감행하여야 다대한 성과를 기할 수 있음.

六. 포병은 절대로 무관측사격을 실시하여서는 불가함. 또는 정도불량한 사격을 실시함으로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 포병을 뇌모케하고 아군 포병으로 하여금 포병에 대한 신뢰감을 감소시키며 탄약을 낭비함. 주간에 철저한 기점시사가 완료하여 표점사와 전이사의 준비가 되어 교회법관측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사격 및 주간 도상 제원사격을 엄금함.

七. 고장 기재기타를 수리제출혹은 반납시는 부속품일체를 같이 제출 혹은 반납하여야함. 또 사단에 배속된 포병의 병기기재 일체는 사단에서 직접병기감실을 통하여 수리정비교환을 실시하는 동시에 포병감실로 보고할 것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3호

육군훈령 제30호 1950년 8월 10일 08.00

慶北 大邱

영국비행기표지에 관한 건

현재 각전선에는 미국기 및 호주기등의 항공지원을 받고 있거니와 그외에 불원간 영국기가 한국에 도착하여 국군 및 연합군에 대하여 항공지원을 하게 됨으로 각급지휘관은 예하장병에 대하여 좌기에 의한 비행기 식별을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서 작전임무 수행에 만유감없기를 기할사.

기

一. 영국항공기 식별

각 익의 표위양면에 선단에서 후단에 이르기까지 一尺폭의 백선 3선 혹선 2선의 종선이 있으며 익표면 선상에는 원형의 영국표지로 되어있음.

二. 영국기의 개요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국기도형은 생략)

에 의한 비행기 식별을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서 작전 임무수행에 만유감없기를 기할 사
기

一. 영국항공기 식별

각익의 표리양면에 선단에서 후단에 이르기까지 일척폭의 백선 3선 흑선 2선의 종선이 있으며 익표면 선상에는 원형의 영국표식이 되어있음.

二. 영국기의 개요도

좌기 도면에 의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4호

육본훈령 제31호 1950년 8월 11일

慶北大邱

육 군 본 부

기술근무부대의 운영

기술근무부대의 제1일임무는 전투부대에 대한 후방지원이다. 후방지원의 중요성은 이미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전투면의 변경에 있어서는 더한층 주요한 것이다. 공격으로부터 방어 방어로부터 공격 이러한 변경되는 전투단계에 있어 여하히 기술근무부대를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벌써 그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우는 것이다. 기술근무부대의 제일임무는 기술에 의한 후방지원인만큼 전투부대로 사용하는 것은 최종방법이 아니면은 삼가해야 한다. 전투로 인한 기술병력의 손실은 그 보충에 수다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후방지원에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은 전투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지휘관은 항상 소속 및 배속된 기술근무부대의 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능력판단은 기술근무부대운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단 병기중대의 일일차량정비능력이 야전정비 5대임에도 불구하고 철퇴작전을 앞에 두고 10대의 요정비차량이 병기중대에 있었다면 또는 능력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기술근무부대운영에 있어 사단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능력이상의 요정비차량은 군단을 지원하고 있는 군경정비중대로 후송하여야 하며 능력이상의 임무를 기술근무부대에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공격시와 방어시는 기술근무부대 및 정비시설의 위치는 확실히 달려야 하며 그이동순서도 달려야 한다. 공격, 방어, 철퇴등 전투면의 변경에 있어 기술근무부대의 위치이동 순서 및 운영방법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만치 중요한 것임으로 지휘관은 격별주의하여야한다.

二. 교통관리

교통관리의 목적은 군사교통로상의 폭주를 방지하며 군사교통에 방해되지 않는한 최대한의 민간교통을 허가하여 군사수송의 촉진 편리를 도모함에 있음은 이미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상금 교통관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대가 있음은 심히 유감임. 특히 점점 자동차 수송은 증가되고 있으며 도로는 보수부족으로 험악한 상태에 있는 차제 각지휘관은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수송력의 촉진을

위하여 철저한 교통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관리상 주요할 것은 먼저 자기 부대지역내 도로망을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주보급로의결정 조도로의결정 도로능력의판단 교통정리점의결정 도로보수계획 암등사용선의결정, 표지 및 안내판의 설치, 도로사용상의 제한 및 적절한 현병배치등이며 종합적인 교통순환도의 작성과 배포는 교통관리상 가장 필요한 것이다. 지휘관은 교통관리의 계획과 실천을 위하야 군수참모 공병참모 헌병대장간의 효과적인 협조를 도모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감독과 교통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관리의 목적은 상기 한바와 여히 군사수송의 촉진 및 편리를 도모함에 있음으로 최소한의 제한과 관리방법의 간이는 교통관리의 생명임, 특히 배치된 헌병은 차제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이상의 제한을 금하여야 한다.

육군총참모장 丁 一 權

부록 제125호

육본작전훈령제32호

1950년 8월 11일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비행기와의 대공통신법을 여하히 규정한, 따라서 그 실시의 만전을 기할사

一. 사용 무전기 SCR 300

二. 통신제원 별 표

三. (1) 제2항 제원에 의하여 지상부대는 비행기를 호출하고 또는 비행기는 지상부대를 호출할수 있다.

(2) 비행기와 지상부대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공동용주파수로서 호출하고 지상부대명칭을 비행기가 지득하면 주파수띄를 해당부대에 할당된 주파수띄로 지상부대는 곳 변경한다.

(3) 비행기 호출부호는 처녀 1, 처녀 2, 처녀 3, 처녀 4, 처녀 5로 한다.

(4) 연대이하부대에서는 소속사단에 할당된 제원과 동일한다. 즉 주파수띄 「19」호출부호「모자」는 제3사단 예하 각 연, 대, 중대에 의하여도 사용된다.

(5) 할당된 주파수띄로서 불통하는 경우에는 당주파수띄에서 一을 감한 주파수띄로서 실시한다 즉 제3사단에서 상공 비행기와 19주파수띄로서 불통시는 18로서 실시한다.

四. 위에 관한 규정은 통신규정항목 번호로서 후달하며 그 변경에 관하여도 통신규정으로서 하달된다.

五. 위규정은 8월 14일 24.00부터 실시한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5 통신제원

부대명	주파수띄(다이얄메모리)	호출부호
제 1 군단	5	철모
제 2 군단	9	사과
제 1 사단	14	배나무
동포병대	14	나비 1
제 3 사단	19	모자
동포병대	19	나비 2
제 6 사단	25	책상
동포병대	25	나비 3
제 8 사단	31	안경
동포병대	31	나비 4
수도사단	35	도장
동포병대	35	나비 5
포항지구전투사령부	39	구두
동포병대	39	나비 6
공동용 (CQ)	2	토끼
비행기	/	치녀

부록 제126호

육본훈령 제33호

1950년 8월 14일 09.00

於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지뢰매설지대 표지에 관한건

각 군단 혹은 사단전투정면에 전술상 필요에 의하여 각종 대인 및 대전차지뢰등이 매설되고 있으나 해 매설지역에 하등의 표지 또는 보초배치가 없이 방치함으로 인한 각종불상사가 왕왕발생됨으로 극히 유감지사임. 과반 모전선에서 전황시찰차 현지에 출장하였든 모국요인 일행은 시찰행로중 대전차지뢰에 접촉폭발되어 불의에 상당한 중상자를 내었음. 또는 관계지휘관의 평소의 지도감독이 불충분한 소이라고 인정함 이후 사종 불상사발생을 미연방지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지뢰매설표식요령을 시달하니 이를 신속히 실천하여 금후 불상사 근절을 기할사.

기

매설지뢰의 표지요령

一. 개요

(1) 우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지뢰매설지역과 우군이 통과후하(通過後下) 또는 우군지역에 있는 모든 매설지역에 진우군이 인식가능하게 표지하여야 함.

(2) 매설지역에 우군이 들어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25야드의 거리를 두고 표지하여야 함.

二. 표지법

(1) 지뢰매설지역은 가급적 속히 철조망으로서 매설지역에 포위책(柵)을 설치할사.

(2) 매설지역전방에는 지상 18척되는 곳에 일조 철조책을 치고 약35야드 간격을 두고 철조망에 표지를 함(제1도 참조)

(3) 후방에는 일조 유자철선으로 충분히 포위하되 적색 삼각형 표시판을 25야드간격으로 거더 둘것. (제 1,2도 참조)

(4) 표지판은 우군측에서 인식이 용이케 하며 적이 탐지곤란케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설치할 것임.

三. 안전통로의 표지

(1) 공격 또는 진출에 있어서 현재 도로를 사용치 못하여 부득이 아군지뢰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안전표지를 하여야함(지뢰소제법 제1호 참조)(이상 야전교범 5의 31의 19페이지)

四. 기타

(1) 지뢰매설 기록대는 지뢰지역에 관한 모든 방법의 위치를 확실히 기록하여 사단 및 군단에 보고할것(8월 11일에 각사단에 배포한 보고양식 제1~7호에 의거할것)

(2) 전황에 따라 매설지역에 보초를 세울것.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7호

육본작전훈령제34호 1950. 8. 15. 15.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인접부대와 연락보지에 관한 건

전투간에 있어서 인접부대 및 예하부대의 상황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전술상의 원칙이며 반듯이 실전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일것임. 연이나 전군을 통하여 보건대 차에 대한 확고한 실천방법이 수립되여 잇지 않으며 실천요령이 극히 불충분 함으로 전투간 각 부대상호간에 예기치 못할 착오를 생기시키는 예 허다하며 아군에 유리한 상황을 도리혀 불리케 하는 사실이 왕왕유함. 차종사실의 결과는 군작전 반에 대하여 일대 혼돈상태에 함입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각급 지휘관은 정확히 인식하고 이후 좌기전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니 예하관계지휘관에게 철저히 실천시킬것을 엄격히 시달하는 바임.

기

一. 인접부대와의 연락유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의 수립. (각급대, 소단위 공통사항임.)

二. 예하부대는 물론 인접부대의 상황을 상시 파악하는 동시 계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함이 절대 필요하다.

三. 전화, 무전 연락장교 교환, 투명도교환 정찰등의 방법을 부절(不絶)히 이용한다.

四. 공지연락장교를 통하여 항공기로서 가능한 신호교환방법으로 계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五. 이상의 각종 수단방법으로 계속적인 연락및 접촉유지의 중요성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실천케 하여야 한다.

중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8호

육본훈령제35호 1950. 8. 16 1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대공포판사용 시간에 관한 건

1950. 8.18 부터 제일선부대는 매일 30분간식 좌기시간표에 의거 대공포판을 이용하여 제일선을 표시하라(시간엄수)

표지포판의 사용요령은 통신규정항목 번호 15~1에 준거하여 실시한 사

기

시간표(대공표식 실시시간)

일 별	실 시 기 간
월 요 일	09.00 ~ 09.30
화 요 일	10.00 ~ 10.30
수 요 일	11.00 ~ 11.30
목 요 일	12.00 ~ 12.30
금 요 일	13.00 ~ 13 30
토 요 일	14.00 ~ 14.30
일 요 일	15.00 ~ 15.30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29호

육본작전 훈령제36호 1950. 8. 18 07.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기습 방지에 관한 건

적의 기습은 주로 야음 02.00~04.30간에 행함을 상습으로 하고 있음

차는 금차(今次)사전발생이후의 수다한 실예에 의하여도 여실히 입증되는 것임

전투간 하시를 막론하고 기습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특히 전기 지적한시간에는 간단없이 ①순찰장교를파견하고 보초의 근무상태를 독려하며 요하면 보초의 경계심을 왕성케 하기 위하여 ②공중사격을 행하는 등등 백방수단을 다하여 기습방지에 적극 노력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0호

육본작전훈령제37호 1950. 8. 19 09.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축성공사실시에 관한 건

군은 작명제13호에 의거하야 별지투명도에 표시한 방어선에 강력한 축성공사를 실시하여 확보에 유감없기를 기함.

一. 제1군단

(1) 제8사단은 현재확보중인 선에 즉시공사를 실시할 사

(2) 수도사단은 Y선복구후 즉시 실시할 사

二. 제2군단

(1) 제6사단은 일부 현재확보중인 Y선는 즉시 실시하며 잔여는 Y선복구후 즉시 실시할 사

(2) 제1사단은 Y선복구후 즉시 실시할 사

三. 지휘관은 보포공병장교의 공동정찰결과에 의거하여 축성공사위치를 결정하되 특히 화망 구성에 유의하여 결정할 사

四. 지휘관은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특히 공병대는 전력을 차공사에 집중시킬사 또한 최대한의 민간인을 담당구내에서 동원하여 공사에 집중시킬 것이며 단 민간인을 직접전지구축에는 사용치 말고 자재적재 운반 각하등에 적절이 사용하야 그역량을 발휘할사

五. 군공병단장은 현재 별도로 실시중인 피교육자를 제외하고 전력으로 차축성공사를 지원할 사 또한 각사단에 축성자재를 보급할 사.

六. 축성공사는 별지 제1를 참조하여 실시할 사.

七. 투명지에 기입된 적선은 Y선 녹선은 축성공사선임.

적선 녹선이 일치치 않는 구역은 Y선 복구후 녹선에 공사를 실시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1호

육본작전훈련 제38호 1950. 8. 19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1. 과반(過般)하달한 통신규정항목번호 15~1 포판신호사용법의 불정확은 적접 자차(自車)에 치명상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독인쇠의 불충분으로 사용부정확한 일부 부대가 유함은 유감지사임 고로 차후하기에 일층 의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할사

기

(1) 항목번호 15~1 중 제4항에 표시된 신호탄(적과 적 녹과 황……운운)은 장차 사용될 또는 현재 연합군에서 사용하는 신호탄을 지칭하는 것임.

(2) 우측란에 표시된 포판  은 과반하달한 규정중 포판까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며 ▨은 적색이고 □은 황색을 표시함.

(3) 훈령 제35호로서 하달된 사용법은 이에 일시추가하는 것인바, 항목번호에 15~1 표시된 사용시간내에 포함됨으로 제35호에 규정된 시간에는 제1선부상공에 비행기유무를 막론하고 필히 깔도록 할 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2호

육본작전훈령 제39호 1950년 8월 21일 1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정찰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

각 지휘관은 책임담당구역내의 적극적인 정찰을 실시하여 아래와 여히 정찰보고서(투명도식)를 매일 14.00까지 필히 제출하라.

기

一. 보고기간 24시 (보고전일의 14.00부터 / 보고일의 14.00까지)

二. 보고서작성부수 2부

三. 작성요령 별지 예거한바와 여히 다음 4항과 여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2부중 1부는 정찰대라전개회을 기재하며 잔여의 1부에는 정찰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한다.

四. 정찰투명도에 포함할 사항

(1) 정찰경로

(2) 출발시간과 귀환시간

(3) 편 조

(4) 임 무

부록 제133호

육본작전훈령 제40호

1950년 8월 23일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육본작명 제138호(1550년 8월 17일 22.00부)수정

현재 大邱(1157~1438) 주둔중인 제7사단 제3연대 제1대대 및 제8연대 제1대대(1950.년 8월 19일 부일반명령 제49호 참조)는

(1) 육군본부명령이 있을시에 한하여 이동하라.

(2) 육군본부명령 수령후 1시간이하에 출동할수 있도록 준비하라.

(3) 이동용수송기간은 육군본부에서 제공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4호

육본작전훈령 제41호

1950년 8월 25일 0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제2군단장은 예하 제1사단을 1950年 8월 25일~26일 야간에 현재 미군 제27연대전투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제1사단내의 지구를 인수 차에 대한 책임을 담당케 하라.

제1사단과 미군 제27연대 전투부대와의 교대에 관한 세부에 관하야는 제1사단장과 미군 제27연대 전투부대장 상호협의 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5호

육본작전훈령 제42호

1950년 8월 25일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각종실탄절약 및 지휘소 선정에 관한 건

전투간 각급지휘관은 아래사항에 격별유의하라.

一. 각종실탄절약에 관하야

현재 사용중인 각종 실탄은 국내생산이 태무하며 국내재고의 감소로 말미암아 각종 실탄의 격별한 절약이 요구되는 바이며 특히 각종 포탄의 현상이 부족하여 젔음. 모든 소모에 대하야 감독을 실시하라.

三. 지휘소선정에 대하야

각급부대의 지휘소가 일선전투부대와 과도히 이격되어 있는 감이 유함. 가일층 더 전진하야 전투부대와 밀접한 연락과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6호

육본작전훈령제43호

1950년 8월 25일 15.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내공방어에 관한 건

현재 차각전지역내에 적공군의 활동이 무하다 하여 각부대는 대공방어 처치강구에 등한하여 졌음

一. 각급 지휘관은 하기요항에 대하야 즉시로 교육을 실천하라

(1) 인엄체 및 방이총좌의 은폐 혹은 위장 특히 四주방어준비 및 진지점령 적공군으로 부터 차폐와 동시에 지상관측등을 강조하라 .

(2) 자연엄폐가 가능한 차량 및 시설의 위장.

(3) 공사 차는 각개인 및 중요한 시설 지휘소 통화등을 지상 및 공중으로 부터의 공격에 대비케 하라.

(4) 부대및차량의 분산(특히 주간에 있어서).

(5) 간야에 있어서 차량및개인에 대한 도로통제 및 등관제.

(6) 지상인원이 적기를 사격하는데 관하여는 각부대간에 협조되고 완전히 이해된 작전규정을 세울것이며 대공부대를 제외한 지상의 진지 및 부대로 부터 적기로 부터 공격을 받기전엔 사격치 말것.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7호

육본작전훈령 제44호

1950년 8월 26일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훈령제33호 실시강조의 건

과반하달된 각전훈령 제33호로서 지뢰매설지대는 필히 지뢰지대표식을 실시하도록 엄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까지도 실시치 않는 부대가 유하야 불상사 빈발함은 심히 유감지사임. 차후로는 하기 각항을 엄수치 않는 부대는 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인즉 여기지사 전무를 기할사.

기

一. 현재지뢰를 매설한 지대에 표식을 하지않는 부대는 훈령제33호 요령에 「의거하야 즉시 표식을 실시할 사.

二. 차후지뢰를 매설하고자 할시에는 매설전에 훈령제33호 요령에 의거하야 표식을 실시한후 지뢰를 매설할 사.

三. 지뢰지대에는 특히 경계병을 배치하야 인원 및 차량의 교통을 안내할 사.

四. 지뢰를 매설하면 즉시 군단 및 육군본분공병감에게 보고할 사.

五. 지뢰매설과 동시에 인접부대에 연락 주지시킬사, 특히 전방아군부대와 후방보급관계부대에 연락주지 시킬사

六. 아군이 전방에 있을시 후방보급로에는 일체지뢰매설을 엄금하며 매설준비를 하였다가 전방아군이 완전히 후퇴한 후에 매설 작업을 실시할 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8호

육본작전훈령 제45호

1950년 8월 26일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훈령제45호 추진에 관한 건

육본작명 제134호에 작전훈령 제37호로 지시된 축성공사추진에 관하야 아래각항을 각 사단장은 예하부대에 일층납득시켜 엄수케 하는 동시에 전력을 다하야 축성공사의 완벽을 기할사

기

一. 각급지휘관은 만난(萬難)을 극복하야 최대한의 노력을 축성에 경주하야 조속히 실시완료할사.

二. 지휘관은 현지파견미고문관과 긴밀한 연락 협조하에 축성공사의 완벽을 기할 사.

三. 축성공사실시 위치를 선정할 시는 보, 포, 공병의 공동정찰에 의거하야 선정할것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확실성이 없음. 예를 들면 장애물설치 위치와 화망구성 위치와 상호간연결성이 없는 지점이 다유함.

四. 군단공병부는 축성자재의 계획적 확보수송에 진력하며 현지에 하하(下荷)한 화차는 철도수송부와 협조하에 효과적 운행을 기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39호

육본작전훈령 제46호

1950년 8월 28일 14.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통신의 양부가 직접 작전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줌은 이미 잘 인식하고 있는바이나 상금 그 사용의 불철저와 사용법의 오전으로 통신기재자체의 기능을 전무 또는 반감케 하고 있음. 현하 부족한 기재를 여지여사히 사용함으로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손해의 심대함을 고려하여 각부대에서는 급속도로 여좌히 실시할사.

기

一. SCR 193무전기는 필히 12볼트 밧데리를 구비한 3/4톤 추력에 설치운영할사.

二. 유선가설 및 철수용으로서 필히 3/4톤 추력을 준비할것이며 방차대를 차상에 장치하여 실질적으로 가설 또는 철수시에 유효히 사용할사. 우의 정확한 실시는 시간적으로 신속한 이동 및 전화선의 가설철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히 실천하여야 하며 각급지휘관은 최소한의 우에 차량을 통신용으로서 활당사용할것을 자에 강조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0호

육본작전훈령제47호 1950년 8월 28일 19.00

육 군 본 부 慶北 大邱

훈 령

미군 제8군사령부로 부터 하달된 유선통신망 정비에 관한 지시를 별지와 여히이 첨시달하니 차의 실시에 만전을 기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별지)

주한미제8군사령부

APC 301 서기 1950년 8월 27일

건명 유선통신망정비에 관한 건

一. 당사령부부 및 기타 고급사령부대표의 최근 방어진지 시찰결과에 의하면 도로양측에 까라놓은 통신선 및 전선등이 차량 특히 궤도차(전차)등 왕래로 인하야 허다히 감손 파손되고 있음. 이와같이 1지구의 시설이 파괴되면 즉시 이것을 복구해 놓아야만 될 것이다.

二. 각급 지휘관은 차점에 유의하여 즉시 통신선 및 전선등의 파손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도록 예하부대에게 철저히 이해시키는 동시에 특히 하기 사항을 강조.

(1) 자동차운전수로 하여금 이완되여 있는 통신선 및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함.

(2) 차량왕래가 격심한 곳에서는 선을 높이 가설하거나 혹은 지하에 매설할것.

(3) 차 지점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조정할사.

(4) 제차량상에 있는 장구 및 적재물은 얕게 놓겠금 강조할사.

(5) 파손된 개소가 유하면 그 위치를 최기부대에 즉시 보고할사.

(6) 항상유선통신망정비를 강조하며 적당히 이에 대한 훈련을 할사.

육군중장 위一카명에 의하야 고급부관

부록 제141호

육본작전훈령 제48호 1950년 8월 28일

육 군 본 부 慶北 大邱

훈 령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하달된 「정찰」에 관한 지시를 아래와 여히 이첩시달하니 실시에 만유감없기를 기할사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주한 미8군사령부

서기 1950년 8월 27일

건명, 정찰

한국군 육군총참모장

방어지구내 제부대로부터의 정찰보고를 보면 대부분의 정찰대의 임무가 수색에만 한정되고 있음 지휘관은 적당한 시기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정찰의 본의를 철저히 이해시켜 적으로 하여금 기군형을 잃게하고 적병을 사살하고 적을 포로로 할만한 강력한 정찰대를 이용할사.

이와같은 강력한 정찰을 하려며는 수색을 기초로 하는 정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며 또 작전도 가능한 한 아군의 손실을 피하고 적에게 최대의 손해를 입히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록 제142호

육본작전훈령 제49호 1950.08. 28 20.30

육 군 본 부 慶北 大邱

훈 령

소극적방공에 관한 건

一. 적의 공중활동이 사실상 존재치 않게된 까닭으로 각부대는 소극적 대공방어조치를 등한시하고 있음.

二. 적의 돌연한 공중기습이 있을 시에 인명 및 물질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지휘관은 하기 조치를 즉시 착수 실시할사.

기

(1) 개인엄폐및 방어포좌의 은폐

특히 4주방어준비 및 진지점령시에 있어서는 지상감시와 아울러 대공은폐에 주력할사.

(2) 자연엄폐로서는 은폐불가능한 제종차량 보급품 집적소및 기타시설의 위장.

(3) 지상및 공중, 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엄체 및 지휘소 포좌 같은 중요 시설은 지하에 만들사.

(4) 부대, 차량, 탄약집적소, 휘발유집적소등등의 주간의 산개, 특히 지휘소 소재지 주변에 있는 인원차량 및 보급품은 산개할사.

ㄱ. 주간에 있어서는 차량상호간의 거리를 50야드이내로 근접시켜서는 안된다(정지시일지라도 불가) 제차량을 정지시킬시에는 도로상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우측에 갈정지시킬사.

ㄴ. 야간에 있어서는 차량 및 차량내의 인원은 등화관제에 관한 규정을 엄수할사, 차량등화 담배불, 전지불등으로 인하여 암야에서도 능히 은폐할수 있는 부대이동을 적에게 발각당하게되는 것이다.

(6) 지상군은 공격을 받지않는 한 적기에 대하여 사격을 금한다.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3호

육본훈령 제50호 1950년 8월 29일 14.00

육 군 본 부 慶北 大邱

훈 령

각종실탄 절약에 관한 건

탄약보급이 전운을 좌우함은 재언을 불허하는 바이며 장차 장기전투를 계속할 것을 상기할 시 현재의 소모가 보급량을 초과함은 극히 불가함, 각급 지휘관은 예하장병에게 탄약절약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엄달할것이며 아래사항을 준수할것을 강조함.

기

一. 상시 예비대를 보유하여 탄약절약을 추진 시킬것.

二. 부대 예규(SOP)를 작성하여 예하부대의 탄약소모를 강력히 통제 할것.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4호
육본작전훈령 제51호

1950년 8월 29일 14,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예비대보유에 관한 건

공방을 물론하고 예비대의 공치(鐵置)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여유있는 작전과 작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바이며 한 전투의 경과에 따라 예비대를 사용할시는 즉시 신예비대편성에 노력 할것(작요령 제482호)은 요무령에 명시 된 원칙임.

작급 지휘관은 차조함의 정신을 일층활용할 것이며 공치 이동병을 사용하여 공사축성 방어자재의 수집등 작선에 유감없기를 기할사.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5호
육본훈령 제52호

1950년 8월 29일 15.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적과 접촉유지에 관한 건

군은 전장에서 주동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항상 적상황을 확실이 파악하여야 하며 적정을 명확히 접촉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적없이 공격후퇴 방어하는 전예가 다유함은 심히 한심지사임. 금후 작부대는 최소한 공중및 지상 수색기관 만이라도 적과 접적을 유지, 적정수집에 만전을 기할사.

특히 각연대 이하 부대에 있어서 수색기관의 운용 즉 연대정보주임 및 대대정보관 및 수색소대장의 사용법과 책후과견 특히 장교책후과견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취할사.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6호
육본훈령 제53호

1950.08.29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기습방지에 관한 건

근간 예하부대에서 기습을 받은 예가 불소함은 지휘관이하의 태만으로 인함이 대부분임. 군은 차후 기습방지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하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달하는 동시에 재 범시는 무조건 전원계급 강등 처분에 처할것이며 책임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함.

一.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수색과 경계를 여행(勵行)할 것이며 적의 수색방해를 실시하라.

二. 전기사항을 감독키 위하여 각 본부요원을 야간 최대한으로 제1선에 파견하여 확인 감독을 실시하라.

특히 가민구분 주야간병력배치 변경 수색경계계획을 검토 할것.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7호

육본훈령 제54호 1950.08.30. 0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병력파악에 관한 건

군은 개전최초의 혼돈과 부대의 착잡 무질서한 후퇴, 낙오등등으로 보각성이 불가하고 따라서 병력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을「감안」이래 각부대지휘관 및 인사장교의 비범한 노력으로서 근근히 현재병력만은 파악되었다 할지라도 유금까지 大田이전의 각종의 일인 손실수내지 매일의 누계, 손실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의거할만한 통계사료가 태무하여 막대한 곤난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차제인데도 불구하고 개전, 어언 2개월여를 경하여 전선도 완전히 정리되고 행정도 궤도에 승(乘)한 금일에 있어서도 각부대에서 제출되는 일보를 연구하면 각종의 모순과 허구에 역연히 발견되고 있으니 차는 실로 통탄할 일이며 간과 할수없는 사고라 아니할 수 없음 '사에 아래사항을 열거하여 특히 훈령으로서 엄달하니 금후의 병력보고에 있어서는 차를 명심하여 추호의 허위없음을 기하라.

一. 일보는 원래 전일 18.00부터 금일 18.00까지의 정확한 병력통계를 익조 06.00까지 군본부에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매일매일의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니 특히 그 시간구분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여하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우선 전화로라도) 06.00이전에 병력을 보고할것.

二. 일보는 실로 작전 및 인사계획의 제일의 기초이요 전투, 비전투에 의한 사상, 실종, 피체등의 손실통계는 인사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한 전사적 기록이고 재료나 인원손실 통계는 확실히 당일당일 것을 허위와 누락없이 기입 할것.

三. 각부대 특히 군단, 사단은 일선연대, 내대와의 거리관계 교통 통신망 및 기재의 불충분, 전입자, 미도착등등이 매일매일의 병력파악상 곤난한 원인이 될 것인바 금후는 획기적인 입안과 일층의 정비와 노력으로써 말단일선부대의 병력까지도 지시 지시 파악할수 있도록 할것.

四. 개전이래 제반통계에 나타난 병력의 계급 및 병과별환약 상태를 보면 일선부대보다 후방부대에 병력이 과다할 뿐 아니라 고병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일선부대에는 고병이 기하(幾何)도 못되는 것이 나마도 본부나 행정계통으로 돌고 있어서 전력은 상상 이상 약화되고 있음. 특히 각급지휘관은 고년병과 기 교육자를 최대한 전투에 활용하도록 인원을 재보직 할것.

五. 현하 각부대병력사용의 실정을 보면 제1선전투에 보다도 탄약식량운반등 후방보급근무로 다량을 사용하는 경향이 유하나 차후 여사한 근무는 일절 지방인을 징용하여 충당하고 병력은 오직 전투에만 사용하도록 할것.

六. 이상 5개조의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보고가 있은 부대는 금후 보충을 정지하여 그 시정과 실시를 촉진할 것임.

참모총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8호
육본훈령 제55호

1950.09.07 19.00
慶南 發11

육 군 본 부

훈 령

—후 송

전상자에 대한 조속하고도 안전한 후송은 각급 지휘관으로서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를 사단 치료소나 혹은 연대 구호소에서 장기간 지체시키거나 또는 무단 민간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등은 극히 삼가하여야 한다 후송은 조속하고도 안전히 후방으로 라는 기본원칙과 「전방제대의 환자후송은 후방제대가 담당한다」라는 동상적원칙에 의거하여 후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후송은 동상보급품 수령행의 공차량을 이용한다. 여기에 있어 특히 군수참모는 교통본부를 설치하여 보급과 후송의 연관적 차량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하기는 특히 준수하여야 할 후송상의 주의 몇가지다.

기

(1) 대대붕대소부터 연대구호소까지의 후송은 연대가 담당한다.

(2) 연대구호소부터 사단치료소까지는 사단이 담당한다.

(3) 사단치료소부터 후송은 지원하고 있는 군 외과치료반이 담당하며 지원이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사단의무대대가 담당한다.

(4) 사단치료소는 치료 10일 이상을 요하는 환자는 즉시 후송하여야 한다.

후송에 지체가 생길시는 즉시 차상급 지휘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방 그부대의무대는 자기담당외 일지라도 최선방도를 하여야 한다.

(6) 운송에 있어 환자수송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추기)

(1) 모사단에는 후송을 요하는 환자를 700명이나 사단치료소에 체류시키고 있었음. 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후송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함.

(2) 차후화자 후송에 있어 조속과 안전을 기하지 못한 부대에 있어서는 관계관에 엄중한 처난이 있을 것을 명심할 사.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49호

육본훈령 제56호

1950. 9. 1. 10.00
慶北 大邱

육 군 복 부

훈 령

전투간 교육실시에 관한 건

군은 창설이후 일천하며 여순반란사건과 연하여 계속적으로 출몰한 공비토벌에 사로잡혀 군교육은 불과 작전현지에서 습득한 미숙한 교육정도로서 금년도(1950년)를 기하여 획기적인 정규교육을 실시코저 년두초부터 토벌작전에서 귀환한 각부대의 단기 숙성을 위한 13주간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각종방법으로 교육을 촉진하고 있든바 금차 사변의 발발로 인하여 교육 계획이 수포화되고 소기의 교육을 실시치 못한채 전투가입하고 있는 현상임 개전이후 전장도처에서 교육불충분으로 인한 각종 실패 사실을 목격함은 실로 통탄지사임. 즉 군대교육이란 전투의 원동력이며 그 결과는 실전에 있어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을 명간하여 이후 각급지휘관은 치열한 전투간이라 할지라도 적시 적절한 각종 기회를 포촉하여 계속부단한 보충교육으로서 미숙한 전기를 향상시킴에 적극노력하여야 할것임 특히 각 군단장을 예하 각급지휘관으로 하여금 실전 즉 교육이란 철저한 관념을 견지케 하여 전투간에 전개되는 각종 상황하에 있어서 하기 사항에 세심유의하여 보수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케 하는 동시에 작전수행에 만전을 기할사.

기

一. 실전 즉 교육이란 관념을 전장병에게 인식시켜 전투간 계속 부단히 교육에 착안하여 군사기능을 연구향상하는 양식을 갖이게 할것.

二. 전투간 각종작전행동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행동후에는 강평하여 이후행동에 좋은 참고를 줄것.

三. 각급지휘관은 상시 각종 기회를 포촉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착안을 갖일것.

四. 교육은 즉 전투력을 배양하는 유일한 요소임을 각급지휘관은 명심하여 형식을 떠나 실지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것.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0호

육본훈령 제57호

1950.09.01. 17.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통신 공병협조에 관한 건

육본작전훈령 제47호로서 명시한 바 유하나 상급통신업무수행을 위한 소소한 협조심의 전무로 인하야 유선전화가, 불통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허다한 손해를 보고 있음은 심히 통탄지사임. 특히 공병과의 협조할 사항이 허다한 바 하기와 여히 재차 감조하니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할사.

기

一. 유선전화선이 도로상에 걸려 횡단되어 있을시는 매설할사.

二. 도로횡단가공선이 차량통과를 방해할시는 전주(벌목등) 구하여 높이하고 그 통과를 용이케 할사.

三. 파손 또는 이상발견시는 즉시 수리하고 수리불가시는 최기 통신내에 급속히 연락할사.

四. 통신병은 시초 가설시에 확실히 매설 가공설 지상로설을 구분하고 시간의 여유가 무할시라 할지라도 우구분에 의한 정확한 설시를 하며 가급적 타병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금 노력할 사.

五. 통신대장은 가설시 최기 공병대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할것이며 공병대장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상호협조하여 가설작업실시에 만유감없기를 기할사.

六. 기타 상식판단에 의한 세밀한 협력은 병과 여하를 막론하고 상시 실시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1호

육본훈령 제58호 1950.09.07 18.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공세준비에 관한 건

一. 공세이전의 시기가 긴박하였음에 감하야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동침이 유하였음으로 제1 및 제2군단은 최단시일내에 적을 격퇴하여 慶州~永川간의 도로를 적 포사격권외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二 제1, 제2 군단은 조속히 전선을 정리하여 재편된 제7사단의 제3 제5 및 제8연대를 원대에 복귀시킬 준비를 하라.

三. 제1군단 및 제2군단간의 접투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연락장교를 교환하는 동시에 그의 상황을 제속하여 보고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2호

육본훈령 제59호 1950.09.08

육 군 본 부

훈 령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함은 군의 유일한 임무임은 이미 전장병은 주지하는 바이나 특히 6.25 사변 발생이래 북한괴뢰군의 야수적인 침공으로 조국강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유린당하게 되자 우리 전 장병은 차를 응징섬멸을 기하여 용전분투하는 반면 일부장병은 (특히 후방근무장병)군의 사명을 망각하고 탈선행위를 행하는 자 불소하며 군풍기 소란과 민중에 끼치는 폐해로써 군에 대한 비난이 자자(藉藉)하여 차에 하기 사항의 엄수를 지시하니 전장병은 위반지사 전무를 기하라.

一. 장병의 요정 식당(지정 식당은 제외)출입을 엄금함.

평시에 있어서도 장병의 요정출입은 엄금되어 있으나 특히 전시에 수많은 전우의 고투는 물론 적피의 점령지역에 학대와 기아선에서 방황하고 있는 민족을 잔치하고 요정 식당에 출입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군인의 행위라고 불수없음.

차후 계급여하를 불문 장병의 요정 식당출입을 엄금한다.

二. 입원환자의 외출을 엄금한다.

입원한 전상(공 사상)의 장병은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치료군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장교라 하여 부상당한자가 진료의 규칙을 준수치 않고 외출을 하여 가두를 방황함은 용허못할 일이다.

진료상 군의가 허가하는 산보정도의 외출이외는 장병을 막론하고 일절 엄금한다.

三. 군인의 개인입장에서 가옥을 사용함을 금한다.

전시에 군인이 외박을 함은 위법이다. 가족이 유하다 하여 민간 가옥을 무리로 혹은 무료로 가옥을 차용하여 공공연히 거주하며 또는 외박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여차한 행위를 엄금한다.

공무로 출장시는 지정여관에 한하여 투숙을 허가한다.

四. 본부장교는 일절 영내거주하라.

육군본부를 위시한 각 군단사령부는 물론 각 본부근무의 장교의 외박은 일절 금하니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장병은 영내거주를 하라.

五. 헌병은 특히 야간순찰을 수행하며 사전적발에 철(徹)하라.

주간은 물론 특히 헌병은 야간의 순찰을 빈번히 실시하여 제반사고의 미연방지와 병(併)하여 군인이 범하는 비행자를 철저히 단속하라.

六. 공용이외 차량사용을 엄금한다.

작전임무를 위한 군용차사용이외 여하한 자라도 차사용을 엄금한다. 특히 징발된 차로서 정당한 수속없이 운행되는 차는 일절 차를 회수하는 동시 상응한 처단을 할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播

부록 제153호

육본훈령 제60호

1950.09.15 08.00

豐南 署川

육 군 본 부

훈 령

전국이 결전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공격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용병의 치밀를 기책코저 부대운용상 하기 사항을 지시하니 각급 지휘관은 병력의 다소를 불문하고 그 진퇴가 전군에 미치는 영향 다대함을 명심하고 그 시행에 만유감없기를 기하라.

一. 연대이상의 부대를 이동시킬시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득하라.

二. 연대이하의 부대라도 중요한 지점의 병력을 이동할시 역시 사전에 승인을 득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播

부록 제154호

육본훈령 제61호 1950.09.15 11.3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육본작명 제180(1950.9.13 12.00)일부

수정지연 지시

1950년 9월 13일 12.00부로 하달한 육본작명 제180호를 하기와 여히 일부수정 하달하니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하라.

一. 제2군단장은 제1군단장 및 제2군단장이 상호합의한 지점에서 수도사단과 접촉하기 위하여 동방에 대하야 공격을 실시하라.

二. 제7사단의 작전지휘권은 1950년 9월 15일 24.00부로 제2군단으로부터 해제하고 제1군단에 부여된다.

三. 제1군단장은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제7사단과 교대케하고 9월 16일~17일 야암을 이용하여 慶州부근으로 이동시키라. 慶州도착후는 육군본부의 작전지휘를 받는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5호

육본훈령 제62호 1950.09.15 20.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공격전에 있어서의 공병운용에 관한 건

육본훈령 제25호로 지시한바 유하나 목첩에 근박한 공격전을 앞두고 공병운용의 지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치열한 전투의 요청에 배치됨이 없도록 주도 치밀한 계획과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며 부하된 공병임무의 완수에 만유감없기를 기할사

一. 사단공병의 임무

(1) 지뢰소탕

사단공병은 장애물배제 특히 지뢰소탕에 완벽을 기하고 산악지대도로를 막론하고 사전 지도에 의하야 적이 시설가능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세밀히 검토하야 계획적인 소탕을 실시하여야 함.

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를 절무케 하기 위하야 누차 하달된 훈령지시를 무위 이행할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임.

(지뢰교본 5~31 참조)

(2) 가교의 범위

사단공병은 최전선의 장애물 제거와 아울러 전투부대의 공격을 위한 측성을 담당하고 필요

한 하천도하에 있어서는 도보교 및 중화기 및 포차의 도하를 위한 급조가교를 실시하여야함

(3) 「부비ー트럭」 경계

도, 읍, 촌부락 공격시에는 부비트럭의 경계와 소탕에 세심의 유의를 하여 특히 부대사용에 적합한 건물, 창고 혹은 정차중의 차량하부 추도내 교량하부등에 대한 수색을 철저히하여 소탕을 실시할사.

二. 군공병의 임무

(1) 보급유지

군공병은 공병감의 지시에 의하야 군단 사단을 지원할 것이나 항상 제보급소와 부대간의 보급로 개설 및 확보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간이 비행장설치——군공병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 착육용의 간이 비행장을 설치한다.

三. 전공병부대의 유의사항

(1) 모든 공병부대는 전작업을 통하야 항상 유선통신선의 보호와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가교를중심으로 공격전에 필요한 공병기구 자재는 각공병부대 인근에 집결확보함을 요한다.

(3) 방어에 비하야 공격에는 더욱히 보병과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한 즉 가일층 단연일체의 묘를 발휘함이 요청된다.

(4) 모든 작전부대에서 필요한 지도를 보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6호

육본훈령 제63호

1950년 9월 15일 21.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수색경계에 관한 건

一. 작전지도상 항시 적에 대하여 주동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의 기도를 간파하여 이를 미연에 분쇄하자면 수색과 경계에 만전을 기함을 요함.

二. 개전이래 각부대가 적의 불의 기습을 받어 혼란을 초래하고 실패를 거한 예가 비일비재한데 차는 모두가 하기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었다는데 인유하고 있다는 것을 각급 지휘관이하 특히 명심하여야 함.

三. 수색경계의 만전을 기하고 적정의 신속정확을 기하자면 주도면밀한 계획, 적절한 부서 강담, 기민왕성한 책임관념과 열성적인 수색의 실시에 있음. 고로 경계의 주요한 수단은 수색일것임.

四. 행군, 주군, 숙영시를 막론하고 수색경계의 소홀과 소호의 유안 일순의 불각으로 말미아마 전부대의 안위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건철을 밟는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강력한 실행을 요함. 차를 위하여 각급지휘관은 솔선수범 부하군대로 하여금 항시 경계를 왕성히 하고 수색경계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그 실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긴요하며 부대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전책임이 있음.

五. 각부대의 현황을 보건데 일반적으로 수색의 실시가 불충분한 감이 유하며 또한 각방면에 수색대를 파견하고 있으나 부서가 적절하지 못하고 실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관계로 그 실효를 득하지 못하는 예가 허다함. 차는 여러가지 원인을 거시할수 있으나 특히 수색계획의 소루부서의 부적절 교육의 불충분 수색대원의 정신적요소의 결함. 지도감독의 불철저등에 기인할것임. 특히 부대의 이동 후 퇴시 일기 천후의 부조시등에 여차한 결함이 현저함.

六. 수색행동은 우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함이 제일 조건이며 직접적인 시찰(목격)이 최량의 방법임 그리고 시찰은 근거리에서 복견할 수록 확실성이 있을 것임. 언술를 듣고 이것을 그대로 신용하고 자기목격한 것처럼 보고한다든가 원거리에서 명도불량한 시기에 목견한 것은 직감적 판단으로 단정해 버리는 폐는 특히 삼가함을 요함 고로 적정이 불명할시는 우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백방수단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단 접촉한 적은 그접촉을 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일단 접촉한 적과의 접촉보지는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임.

七. 적정에 대하여 한개의 난시를 포착하면 철두철미 적에 추미하여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세의와 노력이 긴요하며 필히 이것을 실행함을 요함.

八. 담당지구에 대한 수색은 계속부단으로 실시되여야 하며 수색목표의 선정 및 수색부대운영은 필히 수색중점의 확립을 요함.

九. 수색은 담당구역외 인접부대와의 간격에 대하여 특히 면밀한 수색을 요함. 아군 배비의 후방에 대하여도 요하면 수색을 실시하여야 함. 특히 주력 원격한 지역에의 독립적 행동을 하는 부대 야간등에는 그러할 것임.

十. 수색실시는 필히 치밀하고도 과감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점에서 위력수색은 특히 추장한는 바임.

十一. 수색실시중 적포로의 획득은 적정을 판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각부대는 당면의 적에 대하여 매일 최소한 일명이상의 포로를 획득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요함.

적의 전법과 대책

十二.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적은 보급로가 두절되여 일선보급에 지대한 혼란을 받고 주간행동에 대하여 완전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일절부대 행동과 보급실시는 야간행동에 국한되고 있음. 최근 적의 유일한 전법은 야간공격과 침투전법에 의한 감식적인 침공과 국부적인 전선추진술을 사용하고 있음.

十三 수일전에 괴뢰군 두목 김일성은 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음.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공격을 실시하고 특히 우천에는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성공을 보장하라」고 야간과 특히 우천에는 적의 내습이 빈번할 것을 예기하고 차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청구함과 동시에 역수를 이용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노력함을 요함.

야간공격은 공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는 동시에 훈련정도하고 준비주도한 방자에게는 공자에 비하야 더욱 유리한 조건이 혜여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할것임.

十四. 국군전법에 가장 큰 결함은 축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고 그 훈련이 미숙한 점임. 방어전투에 있어서의 공사실시는 물론 공격시에 있어서 공격축성에 중요성도 특히 이를 강조되여야 하며 그 실시에 대하여 철저를 기함을 요함.

적은 전투중 일 지점에 점지하면 5분간이내에 복사용 개인엄체를 완성한다함.

十五. 安康부근전투에서 적은 선음화기를 사용하여 산중에 이를 장치하고 기관총성을 발하여 아군을 기만하고 있음. 차종 적의 기만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十六. 적의 관용전법인 침투전법을 개전이래 도처에서 상투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아군의 대책이 불충분하였음으로 매차 불리한 전투를 하고 있었음. 적의 상투적인 침투전의 요령은 다음과 같음.

초기 주력을 후방에 공치하고 일부로서 아군진지의 각부분을 충격하여 보고 약점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아진지내에 깊이 침투하여 아 측배에 진출 후방을 교란하고 위협함. 동시에 해돌파구에 기를 일치않고 투입하여 돌파구를 확대하고 전과확상을 시도 동시에 국부적 포위를 감행. 아군으로하여금 현재선에서 후퇴를 강요함. 이것은 적의 관용전법이였음.

차전법에 대한 대책은 각구부대는 측면에 일부가 돌파당하고 적의 일부가 침투하였드래도 경경(輕輕)히 진지를 포기하지 말고 현시점을 확보하고 공치하였든 예비로 과감한 역습을 감행하여 적을 돌파구에 향하여 압박과 동시에 신속히 돌파구을 폐쇄하여 후속하는 적을 분리시켜 전내에서 집중적으로 포위 섬멸함을 요함.

최근 아군은 상기와 여한 방법으로서 침투한 적을 진내에서 포촉섬멸하고 혹은 적으로 하여금 침투후 활동이 불가능케하여 초기의 기도를 포기하고 역상하여 도주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음. 즉 9월 8일 아군 제3사단정면으로 침투하였든 적 5사단 10연대의 침투후 유동도피하다가 결국 아군의 배비간격을 뚫고 다시 북상도주한 예, 永川방면에서 永川이남지구에 무모하게 침입하였다가 후방이 차단되고 고립되여 섬멸당한 적15사단의 예 8월말경 城川渠山방면에서 아1사단의 간격으로 침투하였든 적1사단 10연대의 예 서남지구선선에서 UN군의 간격을 뚫고 후방에 침투하였든 적이 제일선의 배비가 점차 견고하여지고 후속 병력이 두절되자 각각고립되여 처처(處處)에 분산도주한 예 등은 각각 그 호적예(好適例)임. 차후 여차한 적의 침투 전법에 대하여서는 상기 전예를 교훈으로 삼여 더욱 창의와 연구를 거듭하고 왕성한 기도심을 발휘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함을 요함.

十七. 각급지휘관은 군기보호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와 방침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강구함을 요함.

9월 11일 永川방면전투에서 적15사단으로부터 노획한 문서중 대한민국 국군사단편제표 및 육군통신규정을 발견하였음. 여사한 군사기밀에 속하는 문서가 적수중에 입수되어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밀보지 상태를 가측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것임. 전군에 선포하여 일층 경계를 촉구하는 바임.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7호 1950.09.17. 11.30

육본훈령제64호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군대구분 배포지정 지시

서기 1950년 9월 13일 12.00부 육본작명 제180호로 하달한 군대구분(부록제1호)의 일부 인쇄착오를 수정하여 하기와 여히 재지시하니 군운용에 만전을 기하라.

육해공군 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육본훈령제64호 별지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一. 제 1 군단	군 단 장	육군준장	金	白 一
(1) 제 3 사단	사 단 장	육군대령	李	鍾 贊
제22연대	제11야포대대(배속)			
제23연대				
제26연대	제 3 야전공병대대			
(2) 수도사단	사 단 장	육군대령	宋	堯 讚
제 1 연대	제 1 기갑연대(보병)			
제18연대	제10야포대대(배속)			
	수도야전공병대대			
二. 제 2 군단	군 단 장	육군소장	劉	載 興
(1) 제 6 사단	사 단 장	육군대령	金	鐘 五
제 2 연대	제16야포대대(배속)			
제 7 연대				
제19연대	제 6 야전공병대대			
(2) 제 8 사단	사 단 장	육군대령	李	正 一
제10연대	제50야포대대(배속)			
제16연대				
제21연대	제 8 야전공병대대			
三. 군예비대				
제 7 사단	사 단 장	육군대령	申	尙 澈
제 3 연대	제18야포대대(배속)			
제 5 연대				
제 8 연대	제 7 야전공병대대			
四. 제17연대				

부록 제158호

육본훈령 제65호 1950.09.18 22.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지휘소 위치를 추진하야 선정함에 관한건 지시

군은 공세로 이전 맹렬한 공격으로 북진을 계속하고 있는 차제 각급전투지휘소는 가능한 제1선전투부대와 가장 연락지휘에 편리할 근거리에 위치하여 전투부대로 하여금 연락에 신속과 지휘의 민첩을 기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될 것임.

연이 현재 각전투지휘소의 위치는 그대부분이 상기요소를 고려치 않고 있는 현상으로써 전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앞으로 계속되는 결전수행에 격별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될것임 각급 지휘관은 명심하여 전투지휘소위치 선정에는 세심의 주의를 경주할 것을 강조하는 바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59호

육본훈령제66호 1950.09.18 23.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차기의 공세이전에 있어서 군은 전면적으로 광정면을 담당치 않으면 안될 것임으로 각부대는 충분한 예비대를 공치하여야 할 것이며 목표선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호한 보급로를 확보할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격에 있어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여야 적진지(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전면적 공격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여차시는 일부 병력으로 차 적을 견제하고 주력으로 우회포위 돌파하여 주공이외의 병력으로 하여금 섬멸(소탕)케 하여야 한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0호

육본훈령 제67호 1950.09.19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탄약사용절약에 관하야

작전수행상 탄약의 중요성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동시 총공격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철석같은 군인정신은 물론 탄약의 절약애호심이 중대요소임을 명심해야 됨

현재 아군이 사용중인 탄약은 아군 자신으로서는 1발도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전부 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금 은에비할 수 없는 귀중한 물품임 차를 정확한 목표없이 혹은 사거리등을 고려치 않고 난사하며 혹은 전황 급전으로 인하여 망실 유기등의 사실이 다유함. 차는 평소 사격교육의 불충분과 탄약에 대한 중요성을 몰각하고 있음에 기인됨.

전황에 의하야 탄약일일소요량 제한 혹은 기수변경이 누차 유하였으나 금반 미제8군사령부로 부터 또 좌기와 여히 일일소요량을 제한하게 되였음으로 종전과 여한 탄약소모 상태로서는 도저히 부족함과 동시 탄약보급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전상 지장 막대할 것임. 고로 최소량의 탄약으로서 최대한의 능력은 발휘하고 확대한 전과를 획득함은 지휘관의 전술이며 최 다량의 탄약을 소모망실하고서도 후퇴하게 됨은 역시 지휘관의 책임임으로 각급 지휘관은 탄약현황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 탄약절약사용, 탄약제한 요지에 대하야 심각히 고려 연구할 것이며, 예하 장병으로 하여금 탄약제한요지를 이해시키는 동시 탄약절약사용에 대하야 충분히 교육시켜 최소한의 탄약으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발 필중의 사격술을 배양시킬 것임.

一. 9월 20일 18.00부터 동월 25일18.00까지 아군(관구)에 허용되는 탄약지급량은

칼빙 300.000발	(총포수 17.03	일일소요 3,4발)	
60미리박격포탄 16,000발	(총포수 22.4	일일소요 10.2발)	
81미리 〃 23,000발	(총포수 307	일일소요 15발)	
75미리유탄포 9,000발	(총포수 62	일일소요 29발)	
105미리 〃 18,700발	(총포수 46	일일소요 81발)	

二. 90미리 및 76미리고성능포탄은 사용을 금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1호

육본훈령 제68호 1950.09.19 20.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훈 령

육본작명 제180호(1950.09.13 12.00부) 작전요도 일부수정의 건

1950년 9월 13일 12.00부로 하달한 육본작명 제180호 작전요도중 미 제1군단과 한국 제2군단과의 전투지경선을 1950년 9월 19일 24.00부로 별지 작전요도와 여히 일부수정하니 제2군단장은 미 제1군단장과 긴밀한 연락하 그실시에 만전을 기할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2호

육본작명 제180호제6호 1950.09.21 12.00

취급구분 군사극비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지도 대한 5만분지1

제 1,2군단장 귀하

一. 작전명령 제180호의 O일H시를 1950.09.22일 07.30으로 결정함

二. 제7사단(결제3연대)은 1950년9월21일 12.00부 육군본부 지휘로부터 해제되고 제1군단장의 지휘하에 입한다.

三. 제3연대는 慶州(1219~1438)부근에 위치하며 육군본부의 사전승인없이는 차연대를 사용할수 없다.

四. 제1군단장은 제3연대의 후방지원을 한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3호

육본작명 제191호 제1호 1950. 09. 25 24.00

취급구분 군사극비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육본작명 제 191호(1950.09.22.14.00)수정의 건

1950년 9월 22일 14.00부 육본작명 제191호 1부를 아래와같이 수정한다.

(1) 제3연대는 즉시 원대복귀하여 제7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2) 제7사단장은 제1군단장 지휘로부터 해제하고 즉시 淸河로부터 新寧경유~安東에 집결 육군본부지휘에 의하야 행동하라.

(3) 이동수송은 도보,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4호

육본훈령제69호 1950.09. 24. 10. 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통신망보호에 관한 건

공세이전에 따라 각급부대가 전진함에 있어서 유선가설은 극히 중요한 것이며 일방 그 가설과보호에 있어서는 극히 곤란한 것이다. 특히 절단된 전선의 보수와 파괴된 전주의 개수등은 통신장병의 당면한 급선임무임의 감하여 적은 패퇴시 지뢰 및 각종 폭발물장치등을 실시하야 살상, 파괴를 도모하고 있으니 관계 각장병은 차에 대한 긴밀주도한 주의와 대책을 강구하여 무모한 행동을 하는등으로 의외의 피해를 받지 안토록 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5호
육본훈령 제70호

1950.09. 24.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음료수 및 독물검사의 건

아군의 총공격에 의하여 격멸 단계를 자인하는 괴뢰군은 사력을 다하여 최후적 발악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수와 같이 음료수나 저수지 하천같은 곳에 독물 및 세균을 투입하고 도주함으로서 아군의 무미한 전력을 소모시키려하고 있음. 실예로서 유엔군정면에서 9월 21일 약 30명의 손실을 보았음. 군은 차에 대비코저 수질검수교육을 실시하고 검수기를 지급하였으며 의무감발 제1호(1950년 8월 2일)로 음료수에 대한 주의를 하달한바 유하나 가익(加益) 그 철밀를 기하기 위하여 하기와 여히 유의사항을 재시하니 전장병으로 하여금 철저히 주지시켜 금후불행 지사 전무를 기하라.

一. 음료수에 대하여

(1) 여하한 경우에도 적이 도주한지점에서 군의관의 인정치 않은 물은 음수치 마라.

(2) 물의 색, 냄새, 맛등에 이상이 유한 물을 발견할시는 군의관에게 연락하여 검수를 의뢰하라.

(3) 전우간에 있어 음수에 대하여 항상연락 하라.

(4) 정수기(하라존)은 세균에는 유효하나 독물에는 무효임을 주지 하라.

(5) 가급적 개인 수통을 휴대하라.

二. 독물검사에 관하야

진지에 있어 자기가 사용하는 음료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음료수에 대해서 그러하다. 고로 음료수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야 한다. 보통독물중에서음료수중에 투입할 가능성이 농후한것은 청산가리 및 청산조달(속명싸이나) 승공수염차산연 차산석회 등이다.

(1) 예비시험

가. 미각 보통음료수와 다른 미각(고산함미)

나. 취기 약품같은 취기

다. 색채 홍색 투명이외의 색채

(2) 본시험

차는 기술과 기구가 요함으로 다음같은 시험을 군의관에게 의뢰하라.

(가) 백림반응(伯林反應)

(나) KT반응

(다) NH_4OH 반응

(라) $AGNO_3$ 반응

(3) 각부대군의관은 육군본부의 연락하여 검수약품의 부족량을 보충보지하며 검사결과 및 기타 의심되는 물은 500~1000g를 육군본부 의무감실로 후송하라.

(4) 세균을 투입한 우려가 있는 물은 물론 기타여하한 음료수를 막론하고 자비(煮沸)하여 음료수로 쓰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附錄 제166호

육본훈령 제73호

1950.09 25. 24.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전화선가설 및 철수에 관한 건

전화선가설 및 철수에있어서는 자기사항을 엄수하여 군통신운영에 만전을 기하라.

一. 장거리구간에 W 1.1.0선으로 가설시는 반드시 1리까지 마라부하장치(로딩 코일)을 실시할 것.

二. 도로횡단, 가공선은 상당히 높게 가선하여 통행차량에 절처 절단되지 않토록 할것.

三. 지상 로출가선에 있어 도로면상의 가선은 30리이상매설 할 것.

四. 차량운행책임자는 가공선하를 통과시는 가설를 절단치 않토록 유의할것. 만일 절단하였을 때는 가장 가까운 통신부대에 그 사유를 보고할것.

우보고를 받은 통신부대는 자대소관선 여부를 불항하고 즉시 수리할것.

五. 가선에 대한 순회 감시를 철저히 감행하여 화선고장 및 도청방지에 무누를 기할것.

六. 부대이동시 불필요한 전화선은 완전철수할 것이며, 각부대지휘관은 부대이동시는 예하 통신대로 하여금 불필요한 전화선철수전업을 완전 수행하도록 적절한 처치를 강구할것.

七. 급속한 진격에 의한 지휘소의 빈번한 이동에 따라 각부대로부터 다량의 전화선보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획득이 점차 곤란하여 질 것임에 비추워 금후 지휘소 이동으로 인한 소요 전화선은 불필한 기설선을 철수 이용할것이며 특별한 사유(현지휘소와 신지휘소간의 거리가 종전지휘소 구단보담 특히 연장할시)가 없는 한 새로히 보급치 않을 것임

만일 급속적인 부대이동으로 인하여 철수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그 구간 및 가설종별을 육군본부통신감에 전보로 보고하면 통신대대로 하여금 철수케 할것임.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7호

육본훈령 제74호 1950. 09. 25.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사형금지에 관한 건

군의 반격목상에 응하여 피탈점령당하였든 실지를 점차로 회복할 것인바 국군장병은 군의 배경과 무기소지를 기화로 하여 불타는 적개심과 산적한 울분을 풀기 위하여 자기 고향등지나 혹은 타처에 지면 불지간의 지방인사를 사소한 감정과 선구의 사적감원으로써 불법가해를 자행할 우려유하니 각급 지휘관은 부하로써 여하한 망동(妄動)없도록 철저히 단속 감시할것이며 금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민간인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 않고 사적제재로서 형벌을 가함을 엄금하는 동시에 차에 위반하여 사형을 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것을 자이훈령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8호

육본훈령 제75호 1950.09.26 09.00
취급구분 군사극비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전투지경하달지건

제2군단과 미 제1군단과의 전투지경을 1950년 9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자 (1115~1505)서 尙州~咸昌 국도이북
지 (1115~1524)

咸昌~尙州 국도 및 咸昌은 미 제1군단의 책임구역임.

자 (1115~1524)
지 (1103~1542)

제2군단장은 미 제1군단장과 긴밀히 협조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69호

육본작명 제191호 작전훈령 제3호 1950.09.26 16.00
취급구분 군사극비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작명제191호(1950년 9월 22일 14.00)수정지 건

육본작명 제191호(1950년 9월 22일 14.00)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를 별지 3,4호와 여히 수정하라

별지 2매

(1) 작명 제191호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의 3

(2) 작명 제191호부록 제1호 작전투명도의 4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70호

육본훈령 제76호 1950.09.27. 12.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공지연락에 관한 지시

급격한 제일선부대의 진격으로 말미아마 유기적인 유무선통신연락의 불충분으로 작급부대의 진출선 파악이 지난(至難)함에 감하야 차후 작급부대의 진출선 및 진격로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아 항공기가 상공에 출현할시는 수시 각부대의 고유명칭을 상공에서 인식할수 있게끔 포판(평목)에 기입하여 표식을 실시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Ⅱ제171호

육본훈령제77호 1950.09.28 10.3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약탈등 엄금에 관하여

겨레의 끈임없는 땀과 수많은 전우들의 피, 그리고 평화의 사도 국제연합군의 절대적인 협전으로 말미암아 잃었든 수도서울을 다시 찾고 패주하는 잔존 공산도배를 무찌르며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의 총결전단계에 이르게 되매 공을 위하여 사를 잊고 대를 위하여 소를 돌보지 않은 군인정신의 발로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건국정신의 구현은 조속한 승전을 가져오매 있어서 일층 더 요청되는 바이다.

자고로 군인은 물질에 결백하고 국민에 겸손하라 함은 화랑정신의 기본이념의 하나이였으며 또한 공산도배의 불법남침이래 장병은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국가를 위한 혈전에 여념이 없었든 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제 피탈된 공지를 수호하고 있었든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다시 보호할 숭고한 의무를 착착 맞게됨에 따라 일부장병은 무질서한 현실에 몰입되여 전몰한 동지와 국가의 명예를 잊고 사욕

에 사로잡혀 물질을 탐내는 나머지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에 해를 끼치는 자가 발견됨은 실로 통탄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간 세계사상에 기록을 남긴 국군의 명예와 또한 전장병의 업적을 영원히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기사항을 특히 지적하는 바이니 전국 장병은 이를 명심하여 어김없이 존수할것을 명하며 아울러 만약 이에 위반하여 겨레의 자유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추호라도 해를 기치든지 또는 군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가 유하면 그 계급의 상하와 직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극형에 처할것을 경고한다.

기

一. 소유자의 재·무재를 불문하고 일절의 재물에 대한 약탈을 금한다.

二. 부여자에 대한 치욕행위를 금한다.

三. 정당한 가격을 지불치 않고 물자를 구입 또는 취식함을 금한다.

四. 부식물에 대한 증발은 이를 인정치 않는다.

五. 법에 의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사형 및 자유구속을 금한다.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72호

육본훈령제78호 1950.09.28

慶北 大邱

육 본 군 부

훈 령

추격전에 관한 건

아군의 총반격에 패북되어 전면적 퇴각을 개시한 적을 포착섬멸하기 위하여 진격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사항을 지시하니 그의 철저를 기하라.

一. 각급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판단하여 항시 적의 약점을 관별하라.

(1) 전전방면에 계속부단한 부대지향

(2) 요지요부의 점령

(3) 획득한 포로의 수 및 지기

(4) 적이 유기한 무기의 수

(5) 적의 시체

(6) 적포화의 감퇴

(7) 적의 반격정도

二. 각급지휘관은 타원한지휘와 상사의 기도를 명찰한 독단선행으로 적에게 재편하여 저항할 여유를 주지않도록 적을 맹진하여 철저한 공격을 속행하라.

三. 추격부대는 퇴각하는 적에 대하여 직접 압박을 하는 동시에 백방수단을 다하여 포위 혹은 우회함으로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라.

四. 추격은 광정면에 긍(亘)하여 실시하라. 자동차 및 기타 수송기관을 이용하여 민속히 기동을 하는 동시에 에비대를 이용하여 적의 측면을 위협하며 적의 수용대를 격퇴하도록 하라.

五. 직접압박부대와 우회부대에는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수있는 방면 전투지역 및 목표를 부여하라.

六. 야간을 이용하여 퇴각하려는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주간보다 일층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유의하라.

七. 포병은 퇴각중의 적에 대하여 계획적관측사격을 가할수 있는 한 일부를 탄지에 잔유시켜 원거리 목표를 사격케 하라. 진격부대에 배속된 포병은 그의 지원사격을 실시하는 외에 적의 수용부대의 배후에 있어서 종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대를 사격케 하라.

八. 추격시의 선두부대와의 연락은 무선통신에 의하여 실시하되 적의 무전통신의 방취(傍取)에 노력하라.

九. 공병은 직접압박부대의 전방에 위치하게 하여 진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가교의 만전을 기하게 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부록 제173호

육본훈령 제79호

1950.09.28.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훈 령

38선 선착부대에 대한 대통령상 수여에 관한 건

군은 공세이천을 계기하여 기습적인 仁川상륙작전후 10일만에 남북부대가 역사적인 연결로서 합세하였으며 전격적인 진격으로서 38선돌파는 목첩지사임에 감하여 각부대는 박차를 가하여 북진을 제속하고 있는 차제 금반 대통령각하께서는 38선까지의 선공부대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기념장 혹은 표창장을 하사하신다는 유시가 유하오니 각급지휘관은 부하장병으로 하여금 차지를 납득시켜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동시에 영예의 직상을 획득하여 부대전시에 찬연한 사적을 기록도록 영예의 원계관을 획득할사.

특히 각부대장은 부대내에 있어서도 차요령에 의거하여 부대및 개인에게 시상하여 사기를 가익앙양시킬사.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3. 戰 歿 者 名 單

육 군 전 몰 자 명 단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義城부근전투					
제 8 사단		대 령	15702	宋 堤 秀	1950. 8. 10
		대 위	12503	李 鍾 瑞	〃 8. 4
		중 위	13711	尹 湧 泰	〃 8. 1
		중 위	17379	李 元 坤	〃 8. 9
수도사단		중 위	16204	金 喜 哲	〃 8. 1
普賢山부근전투					
제 8 사단	제16연대	대 위	12665	朴 桂 米	1950. 8. 20
		〃	14176	金 龍 玉	〃 8. 30
	제21연대	대 위	12607	徐 鳳 敎	1950. 8. 28
		중 위	16539	表 榮	〃 8. 31
	소속부대불명	중 위	200535	金 致 烈	〃 8. 25
			204597	權 五 甲	〃 8. 30
		소 위	223594	俞 興 釗	〃 8. 26
龍基洞부근전투					
제 6 사단	소속불명	소 령	11065	金 昌 培	1950. 8. 9
		〃	11138	陳 雨 植	8. 9
		〃	11364	南 燕 九	8. 11
		중 위	201641	裵 相 欽	8. 6
		소 위	201566	金 虎 雄	8. 2
	제 7 연대		17357	許 志 秀	8. 3
	제19연대		13039	韓 殷 求	8. 6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6 사단	제19연대		15279	金泳煥	1950 8. 9

軍威·義興부근전투

제 6 사단	소속미상	중령	10585	金濟善	1950. 8. 22
		소령	13201	文成麟	8. 27
		〃	11091	金光海	8. 28
		〃	10850	金光旭	8. 29
		대위	11977	金庶熙	8. 20
		중위	17363	金鍾嶺	8. 16
		〃	17380	金炳善	8. 16
		〃	200158	金鍾九	8. 19
		〃	17376	康一泳	8. 20
		〃	16794	全泰植	8. 21
		〃	16702	金容一	8. 23
		〃	200152	黃錫基	8. 24
		소위	200161	柳明福	8. 15
		〃	223598	吳錫八	8. 19
		〃	223477	崔廣善	8. 21
		〃	204101	金海源	8. 24
		〃	200401	吳然燮	8. 26
	제 2 연대	소령	11693	李雲山	8. 26
		대위	12938	金德權	8. 13
		〃	15348	田應駢	8. 21
		중위	16409	李根鎬	8. 26
		〃	16400	盧時協	8. 26
		〃	17022	金奎完	8. 27
		〃	17019	盧尙勳	8. 29
	제 7 연대	소령	13441	李在亨	8. 21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6 사단	제 7 연대	대위	15907	安國鎬	1950. 8. 17
		〃	15928	徐容錫	8. 19
		〃	14183	趙英基	8. 21
		〃	14181	李炳昌	8. 28
		〃	15888	孫鐘俊	8. 17
	제19연대	중위	202492	姜星煥	8. 21
		〃	16901	李明九	8. 24
			202494	趙喜衡	8. 27
			15837	金鐘國	8. 28
		소위	202487	金道洲	8. 21
		〃	203616	方成海	8. 25
제 7 사단	제 5 연대	중령		李英日	8. 25
		중위	16809	朴鐘浩	8. 28
	기갑연대	중령	10378	金泳思	8. 24

多富洞附近 전투

제 1 사단	제11연대	중위	16442	金永俊	1950. 8. 14
		〃	201645	李雲學	〃
		〃	16016	許南洙	8. 16
		〃	200633	門萬善	〃
		〃	16713	李鍾昇	8. 18
		소령	11214	朴永敦	8. 21
		중위	16091	李宇建	8. 25
제 8 사단	제10연대	대위	13982	李再興	8. 13
		〃	14598	蔡泰默	8. 20
		〃	11816	康龍輝	8. 24
		〃	13900	孫東基	8. 26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8 사단	제10연대	중위	16109	鄭龍珠	1950. 8. 29
제 1 사단	제15연대	대위	13820	安正熙	8. 22

水岩山·遊鶴山附近 전투

제 1 사단	제12연대	중령	11606	朴炳洙	1950. 8. 19
		대위	14638	宋奉恩	8. 20
		중위	200288	李在守	8. 20
		〃	14361	金楚東	8. 22
		〃	15570	朴東均	8. 28

浦南洞·清溪洞附近 전투

제 1 사단	제15연대	대위	13007	申鉉祚	1950. 8. 14
		중위	15762	金學元	8. 30
		〃	200005	金直春	8. 14
		소위	200450	朴昌圭	8. 26
	미상	중령	11633	沈東朝	8. 18
		대위	13235	沈弘植	8. 28
		중위	16701	鄭鎬容	8. 25
		〃	17086	文靜虎	8. 18
		〃	16822	李容斌	8. 21

洛井洞·海平洞·浦南洞附近 전투

제 1 사단	제11연대	중위	200271	吳仁錫	1950. 8. 7
		〃	200274	許良	〃
		대위	13982	李周熙	8. 12
	제12연대	중위	15621	呂運澤	8. 3
		〃	14457	金奉坤	8. 8
		〃	16090	宋鎭文	8. 11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1 사단	제12연대	중위	200312	李燦永	1950. 8. 12
	제13연대	대위	12155	李承煥	8. 2
	〃	〃	118446	李元根	8. 3
	불명	대위	12076	姜基璿	8. 2

浦項부근전투

제 3 사단	제22연대	소령	12028	黃震祖	1950. 8. 6
		대위	13727	白敬基	50. 8. 12
		〃	15370	李世福	50. 9. 5
		〃	14255	鄭基永	50. 9. 12
		〃	16920	金容武	50. 9. 15
		중위	14728	閔逸東	50. 8. 20
		〃	15542	鄭周泰	50. 8. 22
		〃	203634	李相炯	50. 8. 23
		〃	202265	閔丙國	50. 9. 20
		〃	202298	朴貴淑	50. 9. 20
		〃	201433	李光頁	50. 9. 19
		〃	202284	朴文鎬	50. 9. 20
	제23연대	소령	11152	李康俊	50. 8. 23
		대위	15528	閔丙數	50. 8. 2
		〃	16456	金泰鎭	50. 8. 3
		〃	12631	權五卨	50. 8. 4
		〃	15350	高大彦	50. 8. 5
		〃	12655	李學出	50. 8. 10
		〃	14377	吳宗煥	50. 9. 9
		〃	12260	魯遷雨	50. 9. 10
		중위	14516	金淳旭	50. 8. 2
		〃	15555	崔昌洛	50. 8. 2

소속 사단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3 사단	제23연대	중위	200204	金 慶 光	50. 9. 9
		〃	203894	金 東 吉	50. 9. 11
		〃	12802	金 相 鉉	50. 9. 13
	제26연대	대위	11391	金 昌 洙	50. 8. 14
		중위	16067	黃 良 平	50. 8. 23
		〃	16823	韓 基 善	50. 8. 24
		〃	16707	俞	50. 8. 25
		대령	10119	禹 炳 玉	50. 8. 28
		중령	10181	金 鎭 恒	50. 8. 11
		소령	11243	金 濟 允	50. 9. 5
		〃	11593	金	50. 9. 6
		〃	11337	尹 錫 恒	50. 9. 10
		〃	11087	金 允 弼	50. 9. 1
		대위	12157	丁 海 玄	50. 8. 2
		〃	13461	黃 龍 浩	50. 8. 10
		〃	15880	朴 云 達	50. 8. 17
		〃	11878	金 漁 元	50. 9. 3
		〃	15415	朴 昌 遠	50. 9. 11
		중위	201707	權 善 泰	50. 8. 3
		〃	16135	申 敬 柱	50. 8. 21
		〃	208066	金 炳 文	50. 8. 25
		〃	200937	尹 榮 淳	50. 8. 25
		〃	203911	韓 碩 成	50. 8. 26
		〃	17162	金 壽 榮	50. 8. 29
		〃	201412	金 益 善	50. 9. 2
		〃	201708	柳 洛 鎭	50. 9. 10
		〃	201705	李 南 出	50. 9. 12
		〃	201701	安 大 洪	50. 9. 12
		〃	201366	金 承 煥	50. 9. 19

소속 사단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3 사단		중위	203627	任 遠 英	50. 9. 20
		〃	200213	張 斗 錫	50. 9. 20
		〃	15412	全 鎭 植	50. 9. 22
		소위	17184	李 相 浩	50. 9. 10
		〃	223576	朴 孝 川	50. 9. 11
		〃	201713	金 容 汰	50. 9. 12
	방위고문	준장	12449	金 盛 鎬	50. 9. 14
	獨步大隊	대위	14576	朴 東 洲	50. 9. 20
	영등포학원	중위	14247	李 昌 壽	50. 9. 12

杞溪·安康부근전투

수도사단	제 1 연대	소령	200022	崔 承 圭	50. 8. 15
		대위	12035	李 基 宗	50. 8. 19
		〃	13811	韓 載 江	50. 9. 3
		중위	201726	車 慶 鎬	50. 8. 25
		〃	203185	金 作 枝	50. 8. 26
	제17연대	소령	14314	鄭 相 煥	50. 9. 3
		〃	12624	孫 昌 遠	50. 8. 13
		〃	14559	金 鎬 京	50. 8. 19
		〃	13633	李 東 燮	50. 8. 20
		〃	13554	金 智 沈	50. 8. 13
		대위	15920	金 周 燮	50. 8. 25
		〃	15975	高 喜 慶	50. 9. 2
		〃	14242	金 道 雄	50. 9. 2
		중위	200178	全 學 萬	50. 8. 12
		〃	16019	全 顯 國	50. 8. 12
		〃	200964	全 聖 秀	50. 8. 31
		소위	226513	姜 信 泰	50. 8. 29
		〃	200984	安 大 福	50. 8. 23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수도사단	제17연대	소위	200980	李哲壽	50. 9. 3
	제18연대	중령	10315	朴四龍	50. 8. 25
		소령	11212	金福經	50. 9. 15
		〃	201406	宋殼世	50. 9. 16
		대위	14942	李翼燮	50. 8. 11
		〃	12958	李秀峰	50. 8. 28
		〃	14466	李法魯	50. 9. 22
		중위	17389	李學律	50. 8. 20
	기갑연대	중령	10378	金泳恩	50. 8. 24
		중위	12717	金鍾九	50. 8. 9
		중령	13158	李鎭龍	50. 9. 3
		대위	12504	張昌權	50. 8. 27
		〃	12523	李有讚	50. 9. 3
		〃	13968	朴治洽	50. 9. 3
		중위	110548	金德中	50. 8. 25
		〃	200450	朴昌玉	50. 9. 4
		〃		金澤松	50. 8. 28
		〃	171193	李仁善	50. 8. 20
		소위	11454	金魯施	50. 8. 18
		〃	223612	具輔吉	50. 8. 29

慶州北方전투

수도사단	제1연대	소령	12181	崔春三	50. 9. 18
		대위	13713	林義雄	50. 9. 18
		중위	200951	權寧洙	50. 9. 13
		〃	200952	崔文石	50. 9. 5
	제17연대	소령	13625	李敬燦	50. 9. 29
	제18연대	소령	12914	李海石	50. 9. 20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수도사단		대위	13536	劉 頲 鍾	50. 9. 20
		중위	200495	李 炳 學	50. 9. 17
		〃	200500	吳 琴 平	50. 9. 20
		〃	200815	尹 在 中	50. 9. 20
		〃	200487	李 鎬 根	50. 9. 10
		〃	200041	劉 仁 植	50. 9. 8
제 7 사단	제 3 연대	소령	12063	金 炯 天	50. 9. 22
		중위	201894	吉 榮 一	50. 9. 18
		〃	201880	李 泰 雲	50. 9. 18

架山·八公山부근전투

제 1 사단	제11연대	대위	13792	鄭 琦 和	50. 9. 3
		〃	13921	張 富 吉	50. 9. 29
		중위	15833	任 寅 奎	50. 9. 18
		〃	200634	李 鍾 石	50. 9. 19
	제12연대	중위	15189	申 晃 均	50. 9. 20
		〃	16798	權 東 斗	50. 9. 20
		〃	200308	卞 達 吉	50. 9. 21
		〃	200690	鄭 貴 申	50. 9. 20
		〃	200661	李 昌 鉉	50. 9. 20
		〃	201344	河 鋼 模	50. 9. 22
		소위	200280	姜 明 善	50. 9. 17
	제15연대	소령	11049	安 致 熙	50. 9. 1
		중위	200699	金 熙 彭	50. 9. 19
		대위	11750	康 基 錫	50. 9. 4
		〃	14758	申 鉉 大	50. 9. 1
		〃	13744	崔 淳 鎬	50. 9. 9
		중위	15667	金 仁 堂	50. 9. 20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I 사단		중위	200304	金建中	50. 9. 2

新寧부근전투

제 6 사단	제 2 연대	소령	13401	梁春植	50. 9. 9
		중위	16105	金鎔瑾	50. 8. 30
		〃	17577	邊海旭	50. 9. 8
		〃	201367	趙淵吳	50. 9. 22
		소위	201393	尹峰重	50. 9. 13
	제19연대	대위	14443	金澤源	50. 9. 27
		중위	201754	金萬起	50. 9. 4
		〃	202484	柳昌根	50. 9. 9
		〃	201747	鄭珍鎔	50. 9. 20
		대위	12130	李春芳	50. 9. 5
		〃	13661	尹勳	50. 9. 1
		〃	14540	洪淳甫	50. 8. 31
		중위	15590	尹甲重	50. 9. 10
		〃	17179	孫鉉淳	50. 9. 4
		〃	200165	李漢稷	50. 9. 22
		〃	200596	盧炳國	50. 9. 22
		〃	200713	柳王秀	50. 9. 3
		〃	200718	金春根	50. 9. 3
		〃	201310	尹大成	50. 9. 10
		〃	16715	都鎭換	50. 9. 3
		소위	200730	崔鎭復	50. 9. 3

永川부근전투

제 8 사단	제16연대	대위	13516	柳種培	50. 9. 14
		〃	16094	金善在	〃
		〃	15255	吳海鎭	〃

소속 사단	소속 부대	계급	군번	성명	년월일
제 8 사단	제16연대	중위	17608	金料協	50. 9. 6
		소위	203510	朴珍燮	9. 13
제 7 사단	제 3 연대	중위	16848	崔良鐵	9. 6
		〃	16856	張善泳	9. 12
		〃	201770	朴勝培	9. 14
		소위	201961	李桂龍	9. 12
	제 5 연대	대위	12059	安載輝	9. 5
		〃	14054	李良春	9. 7
		소위	303260	朴正湜	9. 13
	제 8 연대	소령	12047	丁相殷	9. 5
		중위	202947	金東根	9. 12
		〃	17309	金學順	9. 5
	소속불명	중위	60072	安錫主	9. 11
			202167	金基鉉	9. 12

해 군 전 몰 자 명 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몰년월일	비 고(장소)
통 제 부	중 사	8102201	金 殷 山	50. 8. 1	三千浦근해전사
포항경비부	상 사	8101331	李 元 大	8. 2	浦項지구 〃
함 대 518 정	중 령	80173	朴 昌 濱	8. 6	三千浦근해〃
〃	병 장	8111322	貢 泳 昌	〃	〃
해군사관학교	병 장	8111169	李 昌 淳	〃	〃
통 제 부	병 장	8112275	李 光 雨	8.10	統營지구 〃
〃	병 장	8104521	尹 奇 燊	8.11	〃
해 군 본 부	하 사	8104565	李 章 桓	8.12	鎭北지구 〃
함 대 704 함	하 사	8104266	李 二 宰	8.13	靈興島에서〃
함 대 306 정	병 장	8105417	申 命 根	〃	浦項지구 〃
〃	병 장	8105438	曺 德 炯	〃	〃
함 대 306 정	병 장	8111099	安 洪 遠	8.13	浦項지구 〃
통 제 부	상등병	8111887	崔 點 植	8.14	固城지구 〃
함 대 301 정	중 사	8105075	朴 東 鎭	8.15	德積島에서〃
포항경비부	병 장	8112017	權 憲 立	〃	安康지구 〃
통 제 부	상등병	5100586	金 漢 圭	〃	〃
〃	상등병	5100299	權 萬 奎	〃	〃
〃	상등병	5100574	李 相 浩	〃	〃
해 군 본 부	병 장	8112039	姜 洪 求	8.16	全南務安郡〃
포항경비부	병 장	8113126	金 漢 鶚	8.19	安康지구 〃
함 대 513 정	병 장	8105220	金 在 燮	8.20	靈興島에서〃
함 대 513 정	병 장	8105363	洪 熙 杓	8.23	〃
해 군 본 부	하 사	8112065	李 晋 元	〃	北青지구 〃
통 제 부	병 장	8112875	田 泰 鎬	8.25	統營지구 〃
〃	병 장	8105154	沈 敏 利	〃	〃
함 대 310 정	병 장	8104794	朴 宗 洙	8.27	忠南扶[illegible]지구〃
통 제 부	상등병	8112359	郭 植 錫	〃	鎭海병원 〃
〃	병 장	8111457	林 炳 大	9. 1	昌原郡北面〃
해군사관학교	소 위	80843	李 淳 根	9. 4	熊川수원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몰년월일	비 고(장소)
해군본부	상 사	8102551	金 奇 龍	50. 9. 6	大邱에서전사
〃	중 위	80750	林 炳 來	9.10	鎭與島 〃
〃	병 참	8104019	洪 時 旭	〃	〃
통 제 부	상등병	8111991	金 明 鎬	9.11	慶城지구에서 〃
연합함대	중 령	80120	張 南 奎	9.15	九山근해 〃
목포경비부	병 장	8111428	車 炯 匡	9.15	鎭與島에서 〃
〃	병 장	8111981	金 容 振	〃	〃
해군본부	중 사	8103104	成 相 益	9.16	全南完島 〃
통 제 부	병 장	8112382	金 明 植	9.18	昌原지구 〃
해군본부	하 사	8103430	吳 恩 鐸	9.19	慶北長沙洞 〃
통 제 부	상등병	5101110	金 炳 道	9.25	統營지구 〃
함대 704 함	병 장	8112731	朴 德 來	〃	譯島에서 〃
함대 509 정	준 위	8101333	崔 相 韓	9.26	江口근해 〃
함대 509 정	상 사	8101173	崔 ㄱ 根	9.26	江口근해 〃
〃	상 사	8101720	朴 希 道	〃	〃
〃	상 사	8101987	梁 容 秀	〃	〃
〃	상 사	8102517	李 今 萬	〃	〃
〃	중 사	8101952	林 四 村	〃	〃
〃	중 사	8102075	金 學 仲	〃	〃
〃	중 사	8103156	裵 鍾 達	〃	〃
〃	중 사	8103513	鄭 水 鉉	〃	〃
〃	하 사	8101483	李 昌 援	〃	〃
〃	하 사	8104404	李 在 源	〃	〃
〃	병 장	8104652	安 相 殷	〃	〃
〃	병 장	8104898	李 德 萬	〃	〃
〃	병 장	8111138	金 高 忠	〃	〃
〃	병 장	8111292	崔 玉 萬	〃	〃
〃	병 장	8111698	金 昌 玉	〃	〃
〃	병 장	8104621	朴 喜 完	〃	〃
〃	병 장	8111984	高 在 徽	〃	〃
〃	병 장	8112146	黃 殷 周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몰년월일	비 고(장소)
함 대 509 정	병 장	8112042	車 元 圭	50. 9.26	江口군해전사
〃	상 등 병	5100173	徐 昌 錫	〃	〃
〃	상 등 병	5100309	朴 商 伯	〃	〃
〃	상 등 병	5100172	安 玉 段	〃	〃
〃	병 장	5100328	閔 內 健	〃	〃
〃	병 장	5100231	安 致 雲	〃	〃
제 주 경 비 부	병 장	8112405	李 鎭 春	9.28	統營지구 〃
해 군 본 부	문 관		李 元 根	9.14	方興島해상〃
함 대 310 정	방위대위	50337	片 炳 根	8.12	忠南몽산포〃

공 군 전 몰 자 명 단

계 급	성 명	년 월 일	비 고
대 위	千 奉 植	1950. 9 1	軍城에서 피탄
〃	張 東 出	9. 10	鎭海비행장 이륙사고
중 위	徐 廷 錫	8. 28	전 사 확 인
〃	楊 萬 超	8. 28	〃
소 위	李 明 建	8. 28	〃
〃	崔 承 華	8. 28	〃
2 상	朴 天 錫	8. 22	서울에서 낙하산 강하시 피탄
〃	文 成 發	8. 22	〃
2 중	宋 堯 俊	8 월 중 순	湖南지구 낙하산 강하시 피탄
〃	玄 致 文	8. 24	慈川전투피탄
〃	金 昌 浩	〃	〃
〃	申 泰 龍	8. 21	전 사
하 사	韓 鳳 鉉	8. 21	〃
〃	崔 敏 植	〃	〃
2 병	朴 春 載	〃	〃

해 병 대 전 몰 자 명 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비 고
장 교					
3 대 대	2 准	8101062	金 義 鍊	50. 9.30	金 浦
5 〃	〃	8101506	南 奉 敎	9.23	도 한 산
1 대 대	中 尉	80583	李 弘 彬	9.23	京仁104고지
〃	〃	81004	李 再 鳳	9.23	〃
司 令 部	大 尉	80551	崔 齊 佑	9.20	京 仁
1 대 대	〃	80601	金 振 泰	9.21	〃
3 〃	〃	80662	鄭 重 鐵	9.21	〃
司 令 部	少 領	80236	吳 世 東	9.20	富 平
〃	少 尉	60075	吳 相 文	9.12	〃
〃	大 尉	80806	林 炳 輪	8. 3	〃
하 사 관					
司 令 部	兵曹長	9202489	黃 点 圭	50. 9.20	金 浦
1 대 대	〃	8102492	金 琪 永	50. 9.21	104 高 地
〃	2 曹	9100289	金 學 春	50. 9.16	仁 川
〃	〃	8105412	文 判 錦	50 9.26	서울孝昌洞
〃	〃	9100516	趙 明 濟	50. 9.23	104 高 地
〃	〃	9100248	姜 明 福	50. 9.16	仁川景義洞
3 대 대	〃	9100275	陳 福 龍	50. 9.16	〃
1 대 대	〃	9100403	金 應 佺	50. 9.23	京 仁 104
〃	〃	9100333	金 度 煥	〃	〃
〃	〃	9100309	金 靜 夫	〃	〃
〃	〃	9100409	田 昊 榮	〃	〃
司 令 部	3 曹	9102500	裵 秉 太	50` 9.20	金 浦
1 대 대	〃	8111177	權 在 連	50. 9.23	104 高 地
〃	〃	9100492	裵 鐘 世	〃	〃
2 대 대	〃	9100708	鄭 元 基	50.10.12	서 울 驛 前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일자	비고
〃	〃	9100665	金斗成	〃	서울野戰病院
3 대 대	〃	9100202	廬錫晩	50. 9. 21	金浦
3 대 대	3 曹	9100238	朴萬圭	50. 9. 21	金浦
5 대 대	〃	9200103	韓裕慶	50. 9. 26	北漢山
3 대 대	〃	8111301	朴漢錫	50. 9. 23	京仁地區
〃	〃	9208211	崔孝善	50. 9. 23	〃
1 대 대	〃	9202000	金德興	50. 9. 23	〃
헌병대	〃	9213005	李官王	50. 9. 19	富平
2 대 대	〃	9100637	安鍾辰	50. 9. 27	楊州
3 대 대	〃	9100608	金信雄	50. 10. 1	서울野戰病院
全部隊	병조장	8102573	李根永	83. 8. 19	統營地區
〃	2 曹	8104446	黃泰吉	〃 8. 9	晋州 〃
〃	〃	8113021	李章恒	〃 8. 10	鎭北 〃
〃	〃	8123021	羅昌石	〃 〃	〃
〃	〃	8111198	尹洙顯	〃 8. 19	統營 〃
〃	〃	9100312	安京熙	〃 〃	〃
〃	〃	8113062	元光植	〃 〃	〃 〃
〃	〃	9100363	李容雨	〃 8. 23	〃
1 大 隊	〃	9100469	金任吉	〃 8. 16	京仁 〃
152 部 隊	〃	9100444	崔永培	〃 8. 17	統營地區
151 〃 〃	〃	9100036	崔日寧	〃 9. 10	〃
全部隊	〃	9100522	李基秀	〃 8. 3	晋州 〃
3 中 隊	〃	9100523	朴尙旭	〃 8. 3	〃
全部隊	3 曹	9100151	李晉烈	〃 8. 3	浦項 〃
〃	〃	9100238	尹永麟	〃	〃
〃	〃	8104741	金鉉洙	〃	〃
〃	〃	9100738	李鎭東	〃 8. 7	鎭東 〃
〃	〃	9100336	俞斗鎭	〃 8. 9	〃
〃	〃	9100739	金泰錦	〃 8. 11	新村 〃
〃	〃	9100136	崔承煥	〃	〃
〃	〃	9100332	尹寅圭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비 고
〃	〃	9100534	高 在 滔	〃 8.19	統營 〃
〃	〃	8111787	金 東 吉	〃	〃
〃	〃	9100433	朴 根 赫	〃	長項 〃
1 大 隊	3 〃	9100605	康 德 鎬	83. 9. 5	〃
金 部 隊	〃	9100531	金 尙 圭	〃 8.10	鎭北 〃
〃	〃	9100742	姜 聲 葉	〃 8. 4	長項 〃
〃	〃	8112399	崔 正 峯	〃 8.28	統營 〃
제 5 대 대	〃	8112267	高 鍾 碩	〃 8.25	〃
〃	2 曹	9100350	金 陽 淑	〃 8.21	〃
〃	〃	469	金 任 吉	〃 8.16	〃
〃	3 曹	8104741	金 鐵 洙	〃 8. 4	〃
〃	〃	9100739	金 泰 鎬	〃 8.11	〃
〃	〃	8111787	金 東 吉	〃 8.19	〃
〃	〃	9100531	金 尙 圭	〃 8.10	〃
〃	曹 長	8102573	李 根 永	〃 8.19	〃
〃	2 曹	9100522	李 基 秀	〃 8. 3	〃
〃	〃	8113021	李 基 秀	〃 8.10	〃
〃	〃	9100363	李 章 恒	〃 8.23	〃
〃	〃	9100335	李 容 雨	〃	〃
〃	3 曹	9100738	李 鎭 東	〃	〃
〃	〃	9100151	李 背 烈	〃 8. 4	〃
〃	2 曹	8111800	朴 炳 植	〃 8.19	〃
〃	〃	9100497	朴 壽 萬	〃 9.1	〃
〃	〃	9100523	朴 尙 旭	〃 8.3	〃
〃	〃	9100036	崔 日 峯	〃 9.10	〃
〃	〃	9100444	崔 永 培	〃 8.17	〃
〃	8 曹	9100136	崔 承 煥	〃 8.11	〃
〃	2 曹	8111198	尹 洙 鎭	〃 8.19	〃
〃	3 曹	9100332	尹 寅 圭	〃 8.11	〃
〃	〃	9100534	尹 在 滔	〃 8.19	〃
〃	〃	8112267	高 鍾 碩	〃 8.25	〃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일자	비고
〃	〃	9100605	康德鍾	〃 9. 5	〃
〃	2 曹	8104445	黃泰吉	〃 8. 9	〃
〃	〃	8123021	羅昌石	〃 8.10	〃
〃	〃	8113062	允光植	〃 8.19	〃
〃	〃	9100336	俞斗鎭	〃 8. 9	〃

병

1	대	대	1 永	9100740	金	昌	學	50. 9.22	京 仁
	〃		〃	9100741	金	相	鎬	50. 9.21	104 高 地
	〃		〃	9201389	文	銀	守	50. 9.22	京 仁
	〃		〃	9201364	申	碻	中	50. 9.23	鞍 山
	〃		〃	9201392	高	秉	文	〃	〃
	〃		〃	9202367	秦	元	國	〃	104 高 地
	〃		〃	9200264	文	弘	欽	〃	〃
	〃		〃	9202350	徐	太	奎	〃	〃
	〃		〃	9202329	高	承	欽	〃	〃
	〃		〃	9201759	姜	太	用	〃	〃
	〃		〃	9201799	張	龍	俊	〃	〃
	〃		〃	9200360	吳	相	鎬	〃	〃
	〃		〃	9200306	金	應	權	〃	〃
	〃		〃	9201873	左	秦	允	〃	鞍 山
2	대	대	〃	8200057	河	相	根	50. 9.18	楊 州
3	대	대	〃	9201251	鄭	寬	燮	50. 9.16	仁川崇義洞
	〃		〃	9201207	金	成	文	50. 9.17	富 平
	〃		〃	9201306	金	海	鵬	50. 9.30	金浦新里
	〃		〃	9201384	李	秦	彦	50. 9.30	金浦西岩里
	〃		〃	9200932	李	守	進	〃	〃
1	대	대	〃	9200426	李	俸	煒	50.10. 2	金谷73高地
2	대	대	1 永	9200200	金	仁	九	50.10. 2	楊 州
	〃		〃	9200263	鄭	承	儉	50.10. 2	〃
	〃		〃	9200235	金	鎬	培	50.10. 2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비 고
〃	〃	9207291	金 用 鍾	〃	〃
〃	〃	9200292	鄭 永 吉	〃	〃
〃	〃	9200319	金 秉 珠	〃	〃
〃	〃	9200347	申 東 植	〃	〃
〃	〃	9200380	金 良 基	〃	〃
〃	〃	9200391	金 吉 龍	〃	〃
〃	〃	9200419	文 泰 吉	〃	〃
〃	〃	9200442	趙 東 海	〃	〃
〃	〃	9200454	崔 珍 化	〃	〃
〃	〃	9200774	韓 在 成	〃	〃
〃	〃	9200405	韓 泰 燮	〃	〃
〃	〃	9203766	方 成 彦	〃	〃
〃	〃	9200294	崔 泰 龍	50. 10. 3	서울야전병원
〃	〃	9200240	金 大 燮	〃	〃
〃	〃	9200282	李 鍾 參	〃	〃
3 대 대	〃	9201221	姜 國 柱	50. 10. 4	金浦下里
5 대 대	〃	9200595	高 星 吉	50. 10. 2	楊 州
1 대 대	〃	9201762	金 太 善	50. 09. 23	서울야전병원
〃	〃	9201789	白 斗 錫	〃	延禧高地
2 대 대	〃	9200324	金 錫 鉉	50. 10. 3	金谷高地
1 대 대	〃	9201588	李 良 萬	50. 09. 25	延禧高地
〃	2 수	9201717	高 成 泰	50. 09. 19	統 營
〃	〃	9201719	李 完 培	〃	京 仁
3 대 대	〃	9202679	任 萬 國	50. 09. 21	〃
1 대 대	〃	9201679	姜 元 梅	50. 09. 22	〃
〃	〃	9201700	金 大 旭	50. 09. 23	〃
5 대 대	〃	9201497	金 德 順	50. 10. 1	金 谷
〃	〃	9202546	李 晟 新	〃	〃
5 대 대	2 수	9202512	文 明 卓	50. 10. 2	金 谷
〃	〃	9202563	金 友 玎	〃	楊州砂龍里
〃	〃	9201679	金 炳 年	50. 10. 4	議 政 府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일자	비고
1 대 대	2 수	9202452	羅 鳳 來	50. 9.23	京 仁
〃	〃	9201792	吳 殷 鍾	50. 9.21	〃
金 部 隊	〃	9202782	文 庠 基	50. 9.15	統 營
1 대 대	〃	9201387	金 文 京	50. 9.20	京 仁
〃	〃	9201760	朴 有 逵	50. 9.23	〃
해병5중대	〃	9100210	丁 鍾 大	50.10. 5	河東地區
1 대 대	2 수	9201902	金 京 勳	50. 9.23	京 仁
〃	〃	9201794	李 炳 朝	50. 9.23	〃
2 대 대	〃	9201642	張 斗 準	50. 9.17	〃
1 대 대	見 수	9201843	李 庸 泰	50. 9.20	〃
金 部 隊	1 수	9200666	康 龍 一	83. 8.19	통영지구
3 大 隊	〃	9200803	金 致 華	〃 9.11	金浦 新里
〃	〃	9200812	趙 昌 先	〃	〃
〃	〃	9200898	玄 珠 煥	〃	〃
2 대 대	2 수	9201944	崔 仁 鳳	〃 9. 2	本家 奉送
1 대 대	〃	9201907	李 完 培	〃 9.12	京仁地區
3 대 대	〃	9201641	趙 元 昌	〃 9. 3	統營 〃
〃	2 수	91000742	姜 烽 業	〃 8. 4	〃
〃	1 수	9200898	玄 珠 煥	〃 8. 8	〃
17 연 대	少 領	13625	李 歡 壎	50. 9.29	面牧 里
17 연 대	中 尉	202328	李 炯 禹	50. 9.22	서 울
〃	〃	202346	金 炯 德	50. 9.29	〃

4. 拉北者人名錄 (북한총람에서 전재)

康 基 德

△전知事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6년 6월까지 교화소 분소에 구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의시 참석함 △1957년…이후 咸北방면으로 이주함 차후 행방불명

康 亘 福

△전 심계원차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석함 △1958년말경…반동으로 체포 구속되어 투옥되었음

姜 柄 順

△변호사 △1950년 6월…서울에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참석함 △1957년경…노동자로 平北방면으로 이주함

姜 旭 仲

△慶南출신 △민족청년단소속 △1948년 5월…慶尙南道 咸安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국회푸락치 사건으로 형을 받고 투옥중 6.25당시 탈옥하여 월북 △1954년 5월경…中和郡 과수농장 총무로 취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상무위원 △1959년초…平北의 농업협동조합 노동자로 추방함(숙청).

權 泰 羲

△慶北출신 △목사 △1948년 5월…무소속으로 慶北金泉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당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1년초…기독교 연맹의 설득으로 변절하여 金昌俊 기독교 연맹위원장 산하에서 종사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중앙위원 △1956년 8월…인민경제대학 재학 △1956년 10월까지 平壤에 있었음.

高 權 三

△사대교수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 甘興里수용소 수용중 △1956년 8月…平北 義州방면 강제이주되어 노동자로 전락함

高 斗 洛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 △1956년 8월경…平北 咸北 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케 함

高 元 勳

△慶北출신 △일제시 도지사 △1950년 9월…북괴남침시 납북 △1950년 11월경…江界근처 산중에서 강행중 사망하였다 함

高 周 奭

△의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되었음 △1959년초에 성분관계로 숙청되었음

丘 德 煥

△忠南출신 △1950년 5월…국민당 소속으로 2대 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9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겸 상무위원 △1956년 9월경…인민경제대학 특설반 입학 △1956년 3월…平壤근교의 협동농장으로 배치

具 滋 玉

△京畿道출신 △기독교청년회 총무 △1946년 2월…미군정당시 京畿道지사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0년 11월…북괴군 도주시 강행(납북)에 의하여 江界근처 산중에서 사망(동

행한 종교인 宋昌根씨의 증언에 의함)

具 中 會

△慶南출신 △1948년 5월…무소속으로 慶南 昌原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 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 3월경…江界방면의 목장으로 이주당하여 현재에 지함

琴 泰 淵

△중앙청 고급관리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9월경…咸北방면으로 이주강제노동에 종사함

奇 世 福

△목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滿浦鎭 도착(감금) △1951년초~1954년 5월경…북괴 平壤교화소 임시수용소 감금 △1955년 이후 행방불명

金 景 道

△慶南출신 △1948년 5월…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慶南 咸陽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0월…咸北 吉茂山노동자 수용소로 추방됨

金 庚 培

△京畿道출신 △무소속 △1948년 5월…京畿道延白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5월…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남침전쟁시 남북당함 △1954년 7월…교화소에서 감금중에 있었음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집행위원 △1959년초…반당 반혁명죄로 투옥 행방불명

金 奎 植

△정치인 △1919년…上海임시정부 외무부장 △1919년 9월…新韓청년당대표로 巴里 평화회의에 참석 △1921년…국제공산당국동회의 참가 △1943년 10월…重慶 한국임시정부 무주석 △1945년 11월…귀국 △1946년 2월…민주의원 부의장 △1946년 6월…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총재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의장 △1948년 7월…남북통일독립촉성회 결성 △1948년 7월…소위 남북협상에 호응하여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平壤에 도착 소위 남북회담 개최에 참가 △1950년 6월…남침전쟁시 납북됨 △1950년 12월경…북괴군 도주시 平北滿浦鎭근처에서 천식병으로 사망

金 起 濟

△의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되었음 △1959년초에 성분관계로 숙청되었음

金 大 泰

△중앙청 국장 △1950년 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시교화소 분소에 구속 △1956년 9월이후 平北으로 이동됨

金 德 烈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 △1957년초 平北 협동농장에 아주

金 成 玉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방청인으로 참석 후 平壤으로 이주함

金 東 元

△平南출신 △8.15후 미군정 고문 △한국민주당 집행위원 △1948년 5월…龍山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8년 5월~1950년 5월…국회부의장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6년 7월…질병으로 신음중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었음

金 東 哲

△목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滿浦鎭도착(감금) △1951년초~1954년5월경…북파 平壤교화소입시수용소 감금 △1955년 이후 행방불명

金 東 煥

△咸北道출신(巴人으로 칭호) △시인 △월간지 三千里 주간 시집으로는 〈國境의 밤〉 기행문으로는 〈나의 半島山河〉등이 있음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당함 △1953년 3월경…平南일보 교정원 겸 잡부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北 집단수용소로 추방되었음

金 秉 會

△全南출신 △무소속 △1948년 5월…全南 珍島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남로당 국회 푸락치 사건에 관여 체포 투옥 △1950년 6월…북괴 남침당시 형무소에서 월북 △1953년 7월경…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간부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상무위원 △1959년초…平壤시 생산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전락됨

金 尙 德

△慶北출신 △1919년…3.1운동후 上海에 도착 독립운동에 종사 △1943년 9월…重慶임시정부 문화부장 겸 의정원 의원 △1945년…11월 金九선생과 귀국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1948년 5월…민족통일당 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투옥 숙청당함

金 承 烈

△통신사 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평양교화소 분소 구금 △1956년 8월경…平北水豊 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하여 노동자로 이용됨

金 時 昌

△慶北출신 △경성제대 의학부졸 △1947년…서울대의학부 교수 의학박사 △1950년 6월 현재…서울대학 의학부 병원 외과과장 △6.25당시 납북 △1952년~1956년…북괴 平壤의학대학 교수 △1958년 12월경…平壤의대 교수 해임됨 △1959년초…平北 광산요양소에 배치(숙청)

金 若 水

△慶南출신 △8.15당시 중국에서 독립운동 △1920년…조선노동공제회 조직 △1923년…北星會 조직 △1923년 11월…北風會 조선청년동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운동에 종사 △8.15해방후 한국민주당조직부장 △1946년 10월…동당 탈당 민중동맹조직에 참가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1947년…민중동맹 분열후 조선공화당 창설 서기장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 당선 △1948년 8월…국회부의장 △1949년 7월…동부의장 면직 △1949년 6월…남로당 국회푸락치사건의 주모자로 검거 투옥 복역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탈옥 월북 △1955년초…인민경제대학 특설반 입학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겸 집행위원 △1959년 3월경…반당 반혁명분자로 단정 平北으로 이동되어 행방불명됨.

金 億

△시인 호는 巴曙 ◁東京慶應대학 졸 △〈創造〉〈廢墟〉의 동인 〈巴曙詩集〉있음△1950년 6월…남침전쟁중 납북됨 △1952년 5월경…문화인으로써 이용하려고 당시의 북괴 국립출판사 교정원 △△1953년 4월…신병으로 요양소생활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초…平北 鐵山지방의 협동농장으로 이주 그후 행방불명

金 永 東

△전치인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초…平北으로 이주함

金 沃 周

△全南출신 △무소속 △1948년 5월…全南光陽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남로당국회푸락치사건에 관여 체포되어 형을 받음 △6.25남침시 탈옥 월북함 △1954년 5월경…平壤가축병원 행정경리원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발기인겸 상무위원 △1959년 3월경…분산정책에 의하여 平北義州 협동농장원으로 추방됨

金 用 茂

△全南출신 △일본 중앙대학 졸 △법률가 △보성 전문학교장 역임 △1945년 10월 미군정청 대법원장 △1950년 5월…2대 민의원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1년~1956년까지 平壤 임시교화소에 감금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7년 10월 현재…병으로 인하여 수용소 요양원에 있었음

金 容 采

△통신사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金 禹 植

△慶北출신 △1948년 5월…慶北 達城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7년…노환으로 龍岡 양노원 요양소 생활 △1959년 3월초…대숙청당시 義州방면으로 이주후 행방불명

金 雄 鎭

△京畿道출신 △1948년 5월…무소속으로 京畿道 水原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5월…2대 민의원 당선(국민당 소속으로 京畿道 華城)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말까지 수용소에서 감금생활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咸北 茂山지구로 이주 감금생활

金 義 煥

△전치인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6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北義州방면으로 이주

金 演 鎔

△U.N한국위원 △1950년…6.25남침 당시 납북됨 △1954년말까지 북괴平壤교화소구금 △1959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 회의회원자격심사에 통과치 못하여 계속 구금중이나 그후 행방불명

金 寅 昌

△대통령 비서실 △1950년…6.25남침 당시 납북됨 △1954년말까지 북괴 平壤교화소 구금 △1956년 5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의 회원자격심사에 통과치 못하여 계속 구금중이나 그후 행방불명

金 日 璟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9월경…咸北방면으로 이주 강제노동에 종사함

金 長 烈

△全南출신 △全南 莞島에서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48년초 咸北으로 이주

金 仲 基

△全南출신 △무소속 △1948년 5월…全南 長興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

의회중앙위원 △1957년 3월…瑞安농장에 배치 1959년초…숙청사업시 咸北茂山방면으로 추방

金 中 正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 △1956년 8월경 平北咸北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노동함

金 七 星

△慶南출신 △무소속 △1950년5월…2대 민의원 당선 (慶南 釜山) △1950년 6월…북괴남침시 서울에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6년 8월…인민경제대학 특설반재학중 △1958년 3월경…平壤시 생산협동조합 사무원으로 배치되었음

金 菡 宰

△경찰인 △1950년…6.25남침 당시 납북 △1956년 6월까지 교화소 분소에 구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의시 참석함 △1957년 이후 咸北방면으로 이주함 차후 행방불명

金 憲 植

△忠南출신 △무소속으로 忠南 論山에서 1950년 5월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5년 북한인민경제대학 특설반 입학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93년 3월경…平北 江界로 이동협동농장에서 종사 △1961년 平壤시 모병원에서 의사로 종사

金 炯 元

△문화인(전공보처차장) △1950년…6.25남침 당시 서울에서 납북 △1953년까지 江界 滿浦鎭 平壤大同군 수용소에 감금됨 △1954년초에 출판사의 잡부및 교정원으로 있다가 1956년 咸北방면으로 이주됨

金 孝 錫

△慶南출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1949년 1월…내무부차관 △1949년 3월…내무부장관 △1950년 6월…북괴 남침당시 납북 △1954년 5월경…인민경제대학 재학중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겸 상무위원 △1959년 5월경…大同군 농업협동조합원 △1966년 4월…사망하였다고 북괴 선전함

南 國 熙

△전태양신문사 국장 △6.25당시 납북 △1956년까지 북괴 국립출판사교정원 △1959년초…咸北茂山炭鑛으로 移動

南 宮 赫

△기독교연합회 총무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4년경…平壤甘興里수용소에 수용됨

盧 九 玆

△법무부관리 △1950년…6.25남침당시납북됨 △1954년말까지 북괴 平壤교화소구금중 △1956년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회원자격심사에 통과치 못하여 계속 구금중이나 그후 행방불명

盧 益 煥

△全北출신 △1948년 5월…全北 淳昌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 9월…남노당국회프락치사건으로 투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탈옥월북 △1954년…인민경제대학 입학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상무위원 겸 협의회 조직부장 △1959년 3월 현재…조국전선사 선전부 위원으로 있었음

馬 寅 傚

△문화인 △1950년…6.25남침시 납북 △1953년까지 납치인사 수용소에 감금 △1954년초…平壤시 출판협동조합에서 출판업무에 종사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석함 △1957년5월경…咸南방면에 이주함

明 濟 世

△平北출신 △1908년부터 독립운동에 종사한 민

축주의자 △8.15해방후 국민당 부위원장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 △1948년 9월~11일…심계원장 △1949년 1월…대한독립촉진국민회 최고고문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58년초…노환으로 요양소수용 △1958년부터 행방불명

閔 丙 玉

△회사사장 △1950년…6.25 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朴 汶 根

△의사 △1950년…6.25 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됨 △1959년초에 성분관계로 숙청되었음

朴 寶 廉

△한국여자국민당 부위원장 △1950년 6월…북괴군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집행위원 △1962년이후 平壤시 양노원에 소속되어 있었음

朴 奉 石

△전도서관 부관장 △6.25당시 납북 △1954년까지 〈인민지〉사에서 잡부로 노동함 △1958년 12월경 咸南北青 과수농장노무자로 이주함

朴 性 宇

△慶北출신 △1950년 5월…慶北 尙州에서 제2대 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7년…협동농장으로 이주

朴 勝 哲

△전판사 △1950년 6월…남침시 납북 △1956년 7월…平壤大同郡임시수용소 수용중에 있으면서 심사중 1957년경 광산으로 이주함

朴 璨 浩

△대한부인회 위원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집행위원 △1958년 이후 신병으로 요양소에서 생활중이라함

朴 烈

△慶北출신 △8.15전 무정부주의자로써 1923년 9월 朴烈사건으로 무기징역중 8.15해방후 출옥 △1946년 2월…신조선건설동맹 위원장 △1948년 10월…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장 △1949년 5월…귀국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56년 7월…인민경제대학 재학중 △1962년…양요원 입소

朴 榮 來

△全北출신 △1950년 5월…全北 金州에서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9년 3월…咸北 농복장에로 이주

朴 尤 源

△慶南출신 △1948년 5월…慶南 南海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6년 3월경…平南安州 협동농장원으로 이주

朴 鍾 萬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 분소 구금 △1956년 8월경…平北 水豊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되어 노동자로 이용됨

朴 鍾 煥

△慶北출신 △1948년 5월…慶北청도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咸北古茂山으로 이주

朴 哲 圭

△忠南출신 △1950년 5월…忠南 論山에서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62년…平北鐵山군협동농장으로 이주되었다고 함

朴 泰 俊

△관사 △1950년…6.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 △1956년 8월경 平北 碧北咸南지방으로 강제이주노동함

朴 炫 明

△목사 △1950년…6.25 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만포진 도착(감금) △1951년초~1954년 5월경…북괴 平壤교화소임시수용소 감금중 △1955년 이후 행방불명

方 黨

△목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만포진 도착(감금) △1953년초~1954년 월경…북괴 平壤교화소 임시수용소 감금중 △1955년 이후 행방불명

裵 重 緯

△慶北출신 △1948년 5월…慶北奉化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 6월경…남노노국회무락치사건의 주모급관여로 투옥됨 △1950년 6월…북괴남침시 탈옥 월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1956년 8월…인민경제대학 재학중 △1659년 3월경…조국전선사 사원으로 배치 △1960년경…행방불명

白 寬 洙

△全南출신 △1936년 東亞日報사장 △1645년 9월…한국민주당 총무 △과도입법의원 △1948년 5월…한국민주당 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950년 6월…북괴남침으로 납북 江界 滿浦까지 납북되어 1952년 平南大同군 임시수용소에서 감금됨 △1957년…龍岡양노원으로 수용 감금됨

白 象 圭

△京畿道출신 △1950년 5월…2대민의원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平南安州방면 협동농장으로 이주됨

徐 承 灼

△대한중석이사 △1950년…6.25당시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 분소구금 △1956년 7월경平北水豊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하여 노동자로 됨

徐 廷 禧

△京畿道출신 △1919년…3.1운동 참가 투옥당함 △1929년…신간회 조직부장 △1948년 5월…한국민주당 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 당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7년 12월경 소위 반동이라 하여 구속 감금 그후 행방불명

薛 敏 鎬

△정치인 △1950년 6월…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9년 2월경…咸南 北清방면으로 강제이주함

蘇 完 壹

△변호사 △1950년 6월…남침시 납북 △1956년 7월…平壤 大同군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음

孫 晉 泰

△京畿道출신 △1927년…조도전대학 졸 △1933년…연희전문학교 강사, 보전 강사 △1945년…서울대학 교수 △1949년…서울대학사범대학 학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壤시 普通江구역 요양소에서 병중에 있

없음

宋 昌 根

△북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滿浦鎭도착(감금) △1951년초~1954년 5월경…북괴 平壤교화소 임시수용소 감금 △1955년 이후 행방불명

宋 虎 聲

△군인출신 △1919년경…풍간망명 독립운동에 종사 △1943년…광복군 제2지대장 △8.15해방후 1946년 1월…귀국 △국방경비대사령관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4년 북괴의거자학교교장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59년초…국제 산업협의 및 반혁명 분자로 체포됨

辛 鉉 斌

△全北출신 △1950년 5월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9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중앙위원 △1958년말경…平北으로 강제이주됨

申 成 均

△全北출신 △1948년 5월…全北全州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당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8년월 平北義州 협동농장으로 이주

辛 容 勳

△慶南출신 △1950년 5월…제2대민의원 당선(慶南 昌寧군에서)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6월…황해도농장에서 노동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咸北雄基지방 협동농장으로 이주됨

申 泰 桓

△전전매국장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6년 6월까지 교화소 분소에 구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의시 참석함 △1957년이후 咸北방면으로 이주함 이후 행방불명

沈 光 漢

△변호사 △1950년…6.25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석함 △1958년경…平北道 목장으로 이주되어 노무원으로 종사함

沈 相 湖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 △1956년 8월경…平北咸北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安 在 鴻

△京畿道출신 △일본 早稻田대학졸업 △1919년 3.1운동에 관여 3년간 복역 △1939년…조선어학회사건으로 2년 징역 △1945년 9월…국민당 당수 △1947년…민주의원 좌우합작위원회 우파대표 △과도입법의원 △1947년 2월~1948년 6월…미군정청 민정장관 △1950년 5월…2대민의원 △1950년…6.25동란중 납북 납북후 북괴가 조직한 재북 평화통일협의회(1956년 7월)의 최고위원겸 상무위원및 집행위원 △1963년…사망

梁 鳳 鶴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교화소에 수용 △1956년 8월경…咸北 청년탄광노무자로 강제 이주됨

梁 元 館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 교화소에 수용 △1956년 8월까지 咸北 청년 탄광 노무자로 강제 이주됨

嚴 恒 燮

△京畿道출신 △1919년…상해에서 철강대학 졸업 △1920년경부터 독립운동에 종사 △1943년

…重慶임시정부 선전부장 △1945년 11월…귀국 △한국독립당 중앙위원 겸 선전부장 △1946년 2월 민주의원의원 △1948년 4월…남북협상에 참가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됨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상무위원겸 집행위원 △북괴의 정치적 이용도구로 최초에 우대를 받음 △1955년경…인민경제대학 특설반에 입학 △1958년 11월경…북괴 안전부에서 반당음모 계획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동년말 조소앙과 같이 국제간첩으로 최를 날조시키자 체포직전에 자살설이 있으나 행방불명되었음

吳 世 權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 교화소에 수용 △1956년8월경…咸北 청년탄광 노무자로 강제이주됨

吳 鳳 彬

△회사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356년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吳 正 方

△1948년경…건국청년단장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8년 12월…平北의 농업협동조합에로 이주 △1958년말경…반혁명분자로 체포 그후 행방불명

吳 澤 寬

△京畿道출신 △목사 △1948년 5월…京畿道 甕津에서 한국독립당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5년까지 平壤에서 수용소에 감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강요 받았으나 거절 △1956년 9월경…平北 義州 벌목장으로 추방후 행방불명

吳 宅 烈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 △1957년초…광산지대로 이주됨

吳 夏 英

△京畿도출신 △3.1운동당시 33인중 1인 △1946년…정치대학장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1950년 5월…제2대민의원 당선(종로을구)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당함 △1956년 7월…북괴가 조직한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최고위원겸 상무위원 △1959년초 이후 병사설이 있으나 행방불명되었음

劉 錫 成

△통신사사장 △1950년 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이동됨

柳 瑾 秀

△京畿도출신 △1950년 5…2대민의원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咸北방면의 농목장으로 이주됨

柳 子 厚

△저술가 △1950년…6.25 남침당시 납북 △1953년 8월까지 북괴 平壤수용소에서 감금됨 △1953년 9월…국립출판사 노동자 겸 교정원으로 있었음 △1957년…咸南北清방면의 과수 농장노동자로 이주됨

柳 海 文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 교화소에 구금 △1956년 8월경…平北 咸北 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尹 琦 燮

△京畿도출신 △1919년…3.1운동시 중국에 망명 독립운동 종사 △1943년…重慶임시정부의정의 원

△조선민족혁명당 상무위원 △1946년 2월…귀국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동부의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집행위원 겸 상무위원 △1956년초…重慶파 숙청시 반혁명분자로 날조 구속되어 그후 행방불명

尹 炳 植

△심계원 관리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9월경…咸北방면으로 이주강제노동에 종사함

尹 炳 愿

△의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됨 △1959년초…성분관계로 숙청됨

尹 泰 彬

△전도지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756년 6월까지 교화소 분소에서 구금 △1956년 9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회의시 참석함 △1957년 이후 咸北방면으로 이주함 이후 행방불명

李 康 雨

△慶南출신 △1948년 5월…慶南 晋州에서 무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됨 △1954년경…黃海도 遂安목장 노동자 전락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0월경…분산정책에 의하여 平北義州 농업협동조합원

李 龍 洙

△慶南출신 △무소속 △1948년 5월…慶南 固城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한국동란시 서울에서 납치당함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咸北茂山으로 이동이주됨

李 源

△慶北출신 △중앙청 국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방청인) △1957년초…平北江界방면으로 이주

李 揆 源

△회사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李 萬 根

△忠北출신 △무소속 △1948년 5월…忠北 淸原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남침시 납북당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중앙위원 △1959년 5월…당시 咸北 鏡鄕농장으로 이주됨

李 明 圭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7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李 文 源

△全北출신 △1948년 5월…全北益山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당시자격심사 위원회 위원장 남노당 국회푸락치사건으로 투옥되어 6.25당시 탈옥월북 △1954년 6월경…大同군 농업협동조합 부위원장으로 배치되었음. △195년 6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의 발기인겸 상무의원 △1956년 9월…북괴인민경제대학 특설반입학 △1959년 3월경…北淸과수농장으로 추방됨

李 秦 柱

△전농림부 차관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6년 6월까지 교화소분소에 구금 △1956년 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의시 참석함 △1957년 이후 咸北방면으로 이주함 차후 행방불명

李 實 烈

<대학교수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

말까지 平壤 甘興리수용소 수용됨 △1956년 8월 平北 義州 방면강제이주 노무자로 전락함

李 相 慶

△慶南출신 △1950년 5월…2대민의원당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위원 △1959년 3월경…咸南지방으로 이주

李 聖 鳳

△平北출신 △京畿의전 졸업 △의학박사 의대교수 겸 병원 원장 △6.25당시 납북 △1952년초 平壤 소련적십자병원외과 의사 △1957년 5월경…平壤임상병원 의사 △1959년초…숙청되어 리전료소 의사로 전락됨

李 升 基

△全南출신 △京都제대공학부졸업 △공학박사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과학자로서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1957년 8월 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명 △1958년 1월…朝·蘇친선협회중앙위원 임명 △1961년 5월…조국평화통일위원회중앙위원 임명 △1962년 10월…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67년 11월…4기 최고인민회의대의원 △과학원 원사 △1967년 1월현재…과학원 咸興분원 화학연구소장 겸 소련과학원 명예원사로 이용당하고 있음

李 烈 宰

△판사 △1950년…6.25 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北 교화소에서 구금 △1956년 8월경…平北 咸北 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李 實 浩

△중앙청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분소 구금중 △1956년 8월경…平北 水豊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되어 노동자로 전락함

李 眞 淳

△방송국 간부(문화인) △1950년…6.25남침 당시 납북 △1953년 8월까지 柳子厚(납북)와 같이 文聖리수용소에서 감금됨 △1953년 9월경…북괴 국립출판사 노동자 겸 교정원 △1957년…平北방면으로 이주 노동자로 전락함

李 宗 聖

△京畿도출신 △무소속 △1950년 5월 京畿도 利川에서 2대민의원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당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0년 12월경…平北협동농장에 강제이주 노동자로 전락함

李 周 書

△慶南출신 △1932년경…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1948년 5월…慶南 密陽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의원 △1959년초…咸北 茂山농장으로 이주

李 重 熙

△회사 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李 河 榮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서 구금 △1956년 8월경…平北 咸北 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李 弘 洙

△전중앙청 주택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 분소에 구금 △1956년 9월경…平北지방으로 이주함 그후 행방불명

林 虎 鎭

△회사 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林 鍾 燮

△회사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 분소 구속됨 △1956년 8월경…平北 수풍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되어 노동자로 전락함

元 世 勳

△咸南출신 △1920년…대한민국의회 부의장 겸 재무부장 △1921년…金奎植 李靑天등과 민족 공산양파의 통일에 노력하였음. △1945년…8.15후 한민당 총무 △1946년 2월…민주의원의원 △1946년 7월…좌우합작위원회 우파대표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1950년 5월…2대민의원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중앙집행위원 겸 상무위원 △1956년 9월…인민경제대학 특설반 입학 △1959년말…중경파로 몰리어 趙素昻과 같이 국제간첩죄로 투옥당하여 金日成일파에 의하여 숙청됨

張 斗 植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 교화소 수용 △1956년 8월경…咸北 靑平탄광 노동자자로 강제 이주됨

張 連 松

△서울출신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1950년 5월…무소속으로 서울東大門구에서 2대민의원으로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6년 10월…사망함

張 炳 晩

△慶北출신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北龍州방면의 협동농장으로 이주

張 永 彬

△검사 △1950년 6.25남침당시 납북됨 △1954년 말까지 북괴 平壤교화소 구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의 회원자격심사에 통과치 못하여 계속 구금중이나 그후 행방불명

張 元 順

△의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 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되었음 △1959년초에 성분관계로 숙청되었음

張 熙 昌

△전재무부 차관 △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8월경…咸北방면으로 강제이주 그후 소식불명

全 德 尤

△회사 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무자로 이동됨

全 采 愚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교화소에 수용 △1956년 8월경…咸北 청년탄광 노동자로 강제 이주됨

鄭 光 好

△全南출신 △1948년 5월…한국민주당소속으로 全南 光州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北義州방면의 협동농장으로 이주

鄭 潤 燦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1년 1월부터 1956년 7월까지 平壤시 교화소에 수용 △1956년 8월경 咸北청년 탄광노무자로 강제 이주됨

鄭 寅 普

△역사학자 △전 심계원장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0년 11월…북괴군 도주시 妙香山 근처에서 사망하였다함.

鄭 仁 禎

△全南출신 △1950년…2월…全南 光州에서 2대 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平北義州농목장으로 이주

鄭 駿 模

△대학교수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 말까지 平壤 甘興리수용소 수용됨 △1956년 8월…平北 義州방면 강제이주노무자로 전락함

鄭 太 鼎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 교화소에 구금됨 △1956년 8월경…平北 咸北 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曺 圭 虎

△慶北출신 △1950년 5월…慶北 永川에서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6년 10월…병환으로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었음

趙 明 鎬

△의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1년 4월 平壤에서 후방부대 병원으로 배치되었음 △1959년초에 성분관계로 숙청되었음

趙 文 濟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9월경…咸北방면으로 이주 강제노동에 종사함

趙 炳 濆

△慶北출신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 당선(慶北 聞慶에서)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平北 江界방면 농장으로 이주함

趙 素 昻

△京畿도출신 △1919년…中國에 망명상해임시정부 참가 △1943년…重慶임시정부 외교부장 △1945년 11월…金九선생일행과 귀국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1946년 2월…민주의원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부위원장 △1948년 4월…소위 남북협상 참가차 平壤행 △사회당 당수(1948년 12월) △1950년5월…2대민의원 당선(1948년 12월)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 △ 1959년말…嚴恒燮과 같이 반혁명분자로 날조되어 구속됨

趙 秀 俊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까지 平壤교화소 분소 구금됨 △1956년 8월경…平北水豊발전소 근처로 강제 이주되어 노동자로 전락함

趙 玉 鉉

△全南출신 △1948년 5월…全南(順天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咸南北青과수농장원으로 이주 노동자생활

趙 琬 九

△1919년…3.1운동시 中國망명 독립운동에 종사 △1943년…重慶 한국임시정부 재무부장 한국독립당 상무위원 △1945년 11월…金九선생과 같이 귀국 △1950년…6.25당시 납북 △1952년 10월경…大同郡수용소에서 사망함

趙 鏞 勝

△忠北출신 △1948년 5월…忠北 丹陽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5월…2대민의원당선(국민당) △1950년 6월…북괴 남침시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중앙

위원 △1959년 3월경…平壤시 생산협동조합원

趙 重 顯

△京畿도출신 △1948년 5월…京畿도 長湍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咸北吉茂山으로 이주됨

趙 之 峰

△전재무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됨 △1956년 7월…平壤교화소 분소에 구금됨 △1956년 9월경…平北으로 이주

趙 春 大

△변호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됨 △1956년 8월경…平北咸北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노동함

趙 憲 泳

△慶北출신 △일본 早稻田대학 졸업 △신간회 동경지회장 △1932년…조선이료회(理療會)조직하여 비밀 결사 조직 △1945년 9월…한국민주당 조직부장△1946년 2월…민주의원 △1948년 5월…慶北 英陽에서 한민당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1950년 5월…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56년 3월경…통방한의 연구소 연구원 △1962년 5월…경락연구소원

車 周 弘

△중앙청 국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 현재…平壤化學興利수용소 수용중에 있었음 △1957년이후…平北으로 이동하였음

崔 奎 東

△서울대학 전 총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0년 10월 중순경…북괴군 도주시 平壤형무소에서 사살당함

崔 東 旿

△平南출신 △1919년…3.1독립운동시 上海에서 망명 독립운동 계속종사함 △1943년…重慶임시정부 법무부장 1945년 11월…金九선생과 비행기로 귀국 △1946년 12월…과도입법의원 동부의장 △1946년 7월…좌우합작위원회 우파대표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겸 상무위원 △1959년 3월경…重慶임시정부파를 반혁명분자로 낙지되어 투옥됨 이후 행방불명

崔 麟

△咸興출신 △1919년…3.1독립선언 33인중의 1인 △천도교 도령 △1950년 6월…북괴남침시 납북 1950년 8월부터 平壤형무소에 수용 △북괴군 도주시 江界까지 이동 △1952년 5월경…平壤시 大同군의수수용소 감금 △1956년 5월경…노환으로 신음중에 있었음 △1958년초에는 행방불명

崔 丙 柱

△全北출신 △1950년 5월…全北 扶安에서 무소속으로 2대민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 △1958년 12월경…平北 朔州지방의 농장으로 이동노동자로 전락

崔 乙 是

△회사 사장 △1950년…6.25당시 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함 △1956년 8월경…咸北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이동됨

崔 泰 奎

△江原도출신 △1948년 5월…江原도 麟蹄에서 무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9년 6월…남노당 국회부락치사건에 관여 투옥됨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탈옥 월북 △1952년 8월경…平壤시 소비협동조합중앙회 사무원으로 취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겸 중앙위원 △1959년 3월…平壤지방의 농업협동농

장의 농장원으로 전락함

韓 相 範

△판사 △1950년…6.25당시 납북 △1955년말까지 平壤교화소에 구금됨 △1956년 8월경…平北咸南지방으로 강제이동

韓 祖 洙

△건국회 총무국장 △1950년…6.25남침 당시 납북△1956년 6월까지 북괴 平壤 甘興리수용소 수용됨 △1956년 8월경…平北방면으로 이동함

韓 哲 勳

△검사 △1950년 ··6.25남침당시 납북 △1954년말까지 북괴 平壤 교화소 구금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회원자격심사에 통과치 못하여 계속 구금중이나 그후 행방불명

韓 致 明

△목사 △1950년…6.25남침당시 납북 △1950년 12월…滿浦鎭 도착 (감금) △1951년초~1954년 5월경…북괴 平壤교화소 임시수용소 감금 △1955년 이후 행방불명

許 南 洙

△慶南출신 △국회 총무과장 역임 △1950년 6월…납북됨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참석함 △1958년 9월경…平壤가금협동조합 노무자로 있음

許 永 鎬

△慶南출신 △1949년 1월…제헌국회의원 보결선거 당선 △1950년 6월…남침전쟁시 납북 △1956년 7월…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참석 △1958년 12월경…咸北농장으로 이동함

玄 相 允

△문학박사 △중앙고보교장 △1946년보성전문학교교장 △1947년…고려대학총장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6년 7월…병석에 있었으나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추천 △1956년 2월…龍岡양노원에 입원하여 신음중이었음.

荊 德 基

△전판사 △1950년 6월…납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참석 △1957년초…江界방면 노동자로 이주함

洪 淳 玉

△京畿도출신 △1948년 5월…忠北淸原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6월…북괴 남침시 납북 1959년 목장으로 이주

黃 潤 鎬

△慶南출신 △1948년 5월…제헌국회의원 당선 ▷1946년…남노당 국회투락치사건으로 투옥 △1950년 6월…탈옥 월북 △1956년 7월…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집행위원 △1959년 3월경…반혁명분자로 체포됨

5. 參 考 文 獻

陸軍本部編	**六·二五事變 陸軍戰史 第二卷** 軍史監室	1954
陸軍本部編	**五·二五事變 陸軍戰史 第三卷** 軍史監室	1954
陸軍本部編	**六·二五事變 陸軍戰史 第四卷** 軍史監室	1955
國防部編	**韓國戰亂 一年誌** 政訓局戰史編纂委員會	1951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一卷** 戰史編纂委員會	1967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二卷** 戰史編纂委員會	1968
憲兵司令部編	**韓國憲兵史** 大建出版社	1952
陸軍砲兵學校編	포병의 발자취 陸軍砲兵學校	1963
第一師團編	전진역사 政訓參謀部	1966
內務部治安局編	**警察10年史** 治安局	1958
苏瑄壽 趙奎東共著	**韓國의 動亂** 兵學研究社	1950
趙炳玉著	나의 回顧錄 語文閣	1963
陸軍本部編	유엔군전사 제1집 軍史處	1963
海兵隊司令部編	**海兵戰鬪史 第一輯(增補版)** 政訓監室	1962
國防部編	**韓國戰爭史研究 第二輯** 戰史編纂委員會	1966
空軍本部編	**空軍史 第一輯** 政訓監室空	1961
空軍本部編	**空軍發展略史** 政訓監室	1954
空軍本部編	날개의 聖地 政訓監室	1956
崔用德著	하늘의 開拓者 空軍本部	1956
空軍本部編	**空本作命起案綴(記錄文書)** 作戰局	1950
空軍本部編	**出戰記(記錄文書)** 監察監室 戰史編纂官室	1950
海軍本部編	**大韓民國 海軍史 (作戰編)** 編纂官室	1954
海軍本部編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編)** 政訓監室	1958
海軍本部編	**作戰經過報告書 第1 第2卷** 作戰參謀副長室	1954
內務部治安局編	**民族의 先鋒** 大韓警察戰史發刊會	1951
李基錫譯	**맥아더 回顧錄** 新太陽社	1964
國防部譯	**制限戰爭** 政訓局	1958
神谷不二著	**朝鮮戰爭** 中央公論社 東京	1966
陸戰史普及會編	**朝鮮戰爭 2** 原書房 東京	1967
陸戰史普及會編	**朝鮮戰爭 4** 原書房 東京	1969

朝鮮民族研究會編 **朝鮮戰爭史** コリア評論社 東京 1967

北傀科學院歷史研究所編 **朝鮮人民の正義の祖國解放戰爭史** 外國文出版社 平壤 196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A. Washington. 1961

Lynn Wontrooss and Nicholas A. Canzona;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Vol I** HQ USMC. Washington. 1955

Robert Frank Futrell; **The USAF in Korea (1950—1953)**
USAF Historical Division 1953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Korea**, Washington. 1962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1952

Aron Whitehouse; **Amphibious Operations**, NewYork. 1963

6. 年 表

1950. 8.1~9.30

월 일	중 요 사 항
8월 1일	**군 사**
	1. 安東철수
	2. 제7교육대를 육군중앙훈련소로 개칭.
	3. 7월 30일 蔚山에서 편성된 적 제7사단 서울통과 남하중
	4. 美 제25사단 倭舘에서 馬山으로 이동개시
	5. 美 제24사단 제19연대 晋州고개에서 掛榜山능선으로 이동
	6. 건국호(T-6) 15.00~17.00시까지 鎭海 해상에서 시험사격 실시
	7. F-51비행부대 鎭海와 金海기지에서 훈련개시(8.5~8.14)
	8. 美 제8군 및 韓國軍 洛東江 방어선으로 철수명령
	정치·경제
	1. 긴급국무회의 개최 국무원안에 전시대책위원회설치 위원 : 내국방, 趙내무, 崔재무, 金상공, 金교통 각부장관
	2. 비상시 향토방위령 폐기공포
	국 제
	1. 맥아더(Mac Arthur)원수 대만방문에서 日本과 國府간에 무역문제 협의
	2. 國府군 33,000명 대한 파견신청을 맥아더원수 거부
	3.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수상 멘지스씨 美 하원에서 전투부대 한국파견을 언명
	4. 뉴우질랜드(New Zealand)의「펜·드레공군사령관 지상군부대 한국파견 예정이라고 언명
	5. 美 국방성4개사단 병력소집을 단행
8월 2일	**군 사**
	1. 아군 제6사단지휘소 龍基洞에서 桃源洞으로 이동
	2. 美군 金泉에서 철수
	3. 美 해병제5여단 釜山에 상륙 馬山방면으로 진출
	4. 아군 제1사단 咸昌지구에서 洛東江 방어선으로 철수개시
	5.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수상대리 팟헨씨 재일(在日)오스트레일리아부대의 전시편성을 언명
	6. 필리핀(Philippine)지원군 한국파견 준비완료
	7. 英國, 韓國에 무관파견을 결정
8월 3일	**군 사**
	1. 洛東江유역의 교량파괴(洛東江철교, 倭舘橋, 草溪~日岬간 교량, 龍浦橋)
	2. 공군병원 東萊로 이동
	3. 美 해병제5여단 釜山에 상륙완료
	4. 아군제1사단 洛東江방어선으로 철수완료
	5. 적 제13사단 尙州에 집결

월 일	중 요 사 항
	6. 적 제13사단의 선발대(연대병력) 洛東里에서 도하하다가 아군 제12연대에 의하여 섬멸 당함
	7. 日本우편선회사에서 UN군 화물선 5척을 제공
	8. 英國국방성 韓國에 파견할 의용군 모집발표
	정치·경제
	1. 전시근로 의용단결성
	2. 慶南에 검문소와 특무대신설
	3. 트루맨(Truman)대통령 병력제한 폐지안에 서명
8월 4일	**군 사**
	1. 宜寧지구 南江교파괴
	2. 제8사단장후임으로 崔德新대령취임
	3. 美 해병대 항공대 처음으로 출격
	4. 제1사단 제12연대 上林洞으로 철수 사단 예비
	5. 洛東江上의 대부분의 교량 완전파괴
	정치·경제
	1. 비상시 향토방위령 긴급 명령 제9호 재차공포
	2.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45호) 공포
8월 5일	**군 사**
	1. 적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공격개시
	2. 적 제15사단 龜尾에 진출
	3. 적 제3사단 星州 若木일대에 진출
	4. 뉴우지일랜드(New Zealan)의 용군 9일간에 6,000여명 지원

월 일	중 요 사 항
	정치·경제
	1. 佐藤전 日本 참의원의장 日本 의용병으로서 UN군에 협력하여도 무관하다고 말함.
8월 6일	**군 사**
	1. 적 제4사단 靈山정면에서 烏頂나루터로 침입
	2. 美 해병 제5여단 미제25사단에배속
8월 7일	**군 사**
	1. 아군제17연대 大邱로 이동
	2. 美 해병제5여단 처음으로 적과교전
	3. 캐나다, 韓國파견 여단편성 완료
	정치·경제
	1. 필리핀(Philippine)국회에서 한국에 1개연대파견을 가결
8월 8일	**군 사**
	1. 아군 제19연대 적1개연대를 石酒幕北쪽으로 격퇴하고 36고지점령
	2. 아군제1사단제11연대 海平지구에서 적 전차 4대를 57mm 전차포로 파괴
	3. 軍威機中학도 호국대 전원학도병에 지원
	4. 타이(Thailand)에서 韓國파견 지원병 8,000명 돌파
8월 9일	**군 사**
	1. 首都사단 杞溪, 安康지구에서 격전(8.9~9.5)
	2. 아군 제3사단 江口에서 長沙洞으로 이동
	3. 아군제2연대 지휘소를 淸城洞에서 安嶺洞으로 이동

월 일	중 요 사 항
	4. 유격제1대대(鄭 獲소령) 日見洞에서 적2개중대섬멸
	5. 적 제4사단 靈山에 침입
	6. 적 제12사단 杞溪 침입
	7. 아군 제1사단 제12연대 특공대 石碏國民학교에서 적 전차 4내파괴 1대노획
	정치·경제
	1. 필리핀(Philippine)국회 한국전에 병력 5,000명 파견을 가결
8월10일	**군 사**
	1. 아군 제 17, 제26, 제25연대, 제1유격대대 해군육전대, 美 제18보병대대 C중대로 浦項지구 전투사령부를 창설
	2. 美 부래드리(Bradley) 특수임무부대, 浦項에서 전투(8.10~8.20)
	3. 아군 제8사단 적에게 반격전 전개
	4. 美 육군성 한국군 5개사단편성을 인가
	5.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 창설
8월11일	**군 사**
	1. 제8사단 제16연대장에 俞義濬중령 취임
	2. 제17연대 安康지구로 이동
	3. 美 해병 제5연대 固城을 탈환후 계속전진
	4. 美 제35연대 晋州고개 점령
	5. 적 게릴라(100명) 大邱南쪽 915고지 통신중계소를 습격
	6. 아군 제1사단 제13연대 369고지 201고지완전 점령

월 일	중 요 사 항
	정치·경제
	1. 비상향토 방위령세칙 공포
	2. 공보처 피난민 수용임시조치법 및 징발특별조치령 내용 발표
8월12일	**군 사**
	1. UN군사령부 작전계획 100-B를 발표, (상유지역과 상륙부대선정)
	2. 아군제1연대 및 제26연대 安康지구로 이동
	3. 아군제1유격대대 立岩에서 적차량 내 기습
	4. 아군 제6사단 鷹峰山과 山雲洞線으로 이동 배치
	5. 아군 제1사단, 11연대, 12연대, 13연대 Y선으로 철수
	6. 美 공군성 장교급소집 위관급 : 1762명 군의관 : 1532명
	정치·경제
	1. UN한국위원단 인도(India)대표 나얄대령 왜관 북방에서 지뢰사고로 순직
	군 사
8월13일	1. 아군제8사단지휘소 義城에서 伐田으로 이동
	2. 아군제6사단지휘소 華水洞으로 이동
	3. 美 해병 제5여단 주력 洑川 5km 전방까지 육박
	4. 기갑연대장에 白南壎중령취임
	5. 아군 제1사단 주력 Y선상에 전개 그러나 적 이미 水岩山遊鶴山 점령

월 일	중 요 사 항
	6. 아군제12연대 제2대대 水岩山점령
	7. 아군제12연대 제1대대 673고지 공격
8월14일	군 사
	1. 아군 제18연대와 기갑연대 立岩의 적을 공격한 다음 立岩점령
	2. 공군헌병대 浦項으로 출동 8월 21일 귀대
	3. 아군 제1사단 제15연대 328高地 피탈후 재점령
	국제·정치
	1. UN경제사회이사회 한국 피난민구제문제를 결의
	2. 美國대표 리총장에게 서한 발송. 포로 및 압류자에 대한 취급방법 조사차 적십자 대표 북한파견요청
	3. 영국 징병등록을 명령
8월15일	군 사
	1. 제18연대와 기갑연대 杞溪탈환전에 참가
	2. 제8사단 사령 伐田에서 玆川으로 이동
	3. UN사령관「카츄샤」병 증원계획을 승인
	4. 특별계획단본부를 설치(작전계획을 전담)
	5. 적 제8사단주력 義城에서 九山洞으로 남하
	6. 해군초계함 (海軍哨戒艦) 仁川근해에서 적범선 9척을 격침
	7. UN해군 육전대 清津부근에 상륙 터널폭파

월 일	중 요 사 항
	8. 공군 F-51비행부대 본격적으로 출격개시
	9. 아군 제1사단제15연대328高地피탈
	10. 제1사단 제11연대 정면 적제13사단의 일부 병력, 전차를 선두로 水学까지진출
	정치·경제
	1. 공보처장 金活蘭취임
8월16일	군 사
	1.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98대 倭舘지구폭격
	2. 카츄샤(KATUSA)병 훈련차 313명 日本으로 이송
	3. 아군 제15연대 328고지 탈환
	4. 아군 제12연대제1대대837고지점령
	5. 적 1개연대 架山바위에 집결
	정치·경제
	1. 중공대표단 23명 平壤방문
	2. 타이(Thailand)의 한국파견신청을 UN에서 수락
	3. 중·소(中蘇) 항공회사(北支, 滿洲, 外蒙古, 新疆비행)운영을 위하여 중 소합동이사회조직
8월17일	군 사
	1. 아군 제8사단 제10연대 大邱에서 普賢山지구로 이동
	2. 首都사단과 浦項지구전투사령부 安 康에서 적제766부대을 섬멸
	3. 아군 제3사단 獨石洞에서 九龍浦로 해상철수
	4. UN 제77기동부대 清津과 元山지구 폭격

월 일	중 요 사 항
	5. 공군통신대 주력 鎭海에서 大邱공군본부로 이동
	6. 아군 제15연대 제2대대 355고지 점령
	정치·경제
	1. 정훈국설치에서 여자의용군모집
	2. 필리핀한국에 군대파견을 UN에서 수락
	3. 미국무성에 국립신경작전국(國立神經作戰局) 설치
8월18일	**군 사**
	1. 美 제27연대 大邱에서 多富洞지구로 이동
	2. 関부대 浦項탈환
	3. 首都사단 杞溪탈환
	제1사단 遊鶴山부근전투(8.18~8.26)
	4. 아군 해병대 統營에 침입한 적주력을 섬멸
	5. 아군 해군德積島에 상륙
	6. 적제15사단 永川정면으로 이동을 시작
	7. 아군 제12연대 제3대대 517高地 점령
	8. 아군 제11연대 미27연대와 반격개시(多富洞지구) 2km전진
	정치·경제
	1. 大邱시민소개
	2. 정부大邱에서 釜山으로 천도(遷都)
	3. 북괴내각에서 남한에 「농업현물세 실시에 관한」 결정을 채택
	4. UN사무총장 특사 카진씨 한국이

월 일	중 요 사 항
	재민 구조기관을 UN군사령부에 이관설치를 언명
	5. UN군사령부에 150만명의 남한피난민 원조를 위한 기구설치
	6. 영국 소련주재 영국대사 소련정부에 북한에 억류중인 「홀트」대위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요구
8월19일	**군 사**
	1. 아군제3사단 浦項탈환, 수도사단 杞溪탈환.
	2. 関부대 大邱로 이동
	3. 美 제23연대 주력 密陽에서 多富洞방면으로 이동
	4. 美 제2사단 제38연대 密陽에 도착
	5. 美 해병 제5연대 昌原에 배치
	6. 아군 제12연대 제2대대 水岩山 피탈
8월20일	**군 사**
	1. 美 해병대 仁川부근 八尾島에 上陸한 다음 라디오 중계소를 파괴
	2. 釜山에 제2보충병 훈련소를 설치
	3. 関부대 제6사단에 배속후 大雲洞으로 이동
	4. 제7사단을 재편성(독립유격 1, 2대대 関부대)
	5. 美 8군 美 제24사단과 제2사단을 교체, 제24사단 慶山으로 이동한 다음 군예비로함.
	6. 아군 해군 水興島에 상륙
	7. 적 전선 사령관 金策, 각군에 제5차작전 명령하달
	8. 아군 제15연대 328高地에서 적 완

월 일	중 요 사 항
	전 격퇴
	9. 제10연대 제2대대 제11연대 2대대와 협동으로 741고지를 점령
	10. 아군 제11연대 제3대대 673고지를 9차의 공격끝에 완전 점령
	11. 적 제15사단 遊鶴山정면에서 永川방면으로 이동
	12. 중공 : 전략공업(戰略工業)의 지방분산을 지령
	정치·경제
	1. 美 하원의원 한국전선시찰
	2. 홍콩 : 영국부대 1부를 한국전선에 파견 결정
8월21일	**군 사**
	1. 기갑연대를 아군 제6사단에 배속
	2. UN군 제10군단을 창설
	정치·경제
	1. 정부 정발보상령공포
	2. 대한 경제원조 위하여 E.C.A. 기금(10,000000$) 설치
8월22일	**군 사**
	1. 아군 제8사단 제16연대 立岩北방 方興里에서 적을 격파
	2. 아군제12연대 1.3대대 遊鶴山완전 점령
	3. 적 제13사단 포병연대장 鄭鳳旭중좌귀순
	4. 英國 해병대 출발준비완료 공수대기중
	정치·경제
	1. 병역법 58조에 의하여 국민병소집단행
8월23일	**군 사**
	1. 東京에서 仁川 상륙작전에 대한 회담
	2. 적 제8사단 사령부 義城에서 靑路洞으로 이동
	3. 공군 군수국 釜山분실설치
	4. 처칠(Churchill)씨 영식 영지(英紙)특파원으로 한국에 도착
	5. 적 1개연대 架山南方 4km지점 570고지에 진출
8월24일	**군 사**
	1. 아군 제8사단장에 李成佳대령임명
	2. 적 제9사단 陜川에 집결, 洛東江도하준비
	3. 아군 제10연대 주력 570고지공격점령
	4. 아군 제11연대 및 미27연대 新酒幕선에 진출
	정치·경제
	1. 국무회의에서 피난민구호 5대원칙 결정
	2. 周恩來 UN안전보장 이사회에서 美 제7함대 대만 해협에서 철퇴를 요구
8월25일	**군 사**
	1. 아군 제2연대 지휘소 九知洞으로 이동
	2. 장춘단을 설치하고 전몰장병 영영안장
	3. 美 제27연대 新酒幕에서 馬山으로

월 일	중 요 사 항
	전진(轉進)
	4. 적13사단 新酒幕일대에서 큰 손실을 입고 공격능력 상실, 잔여병력 1,900명, 포10문 전차 7대
	정치·경제
	1. 북괴 공업시설을 滿洲로 철거
	5. 美 극동사령부내에 병참사령부를 신설하고 사령관에 위이불소장 임명
8월26일	**군 사**
	1. 美 제10군단장에 알몬드(Almond) 소장 임명
	2. 美 제34연대을 해체하여 제19연대와 제21연대에 편입
	3. 적 제1사단사령부 九知洞으로 이동
8월27일	**군 사**
	1. 아군 제5연대장 李暎奎중령 전사후임에 崔昌彦대령 임명
	2. 美 제8특수임무부대 浦項, 慶州지구에서 전투(8.27~9.7)
	3. 美 극동해군 및 극동공군 UN군사령부에 통합
	4. 적 義興점령
8월28일	**군 사**
	1. UN군사령부 제10군단을 편성 美 제1해병사단, 제7사단, 한국 제17연대, 韓國 해병대
	2. 미8군 서부전선에 이동통신대를 강화
	3. 한국 공군비행단장에 張德昌대령 임명
	4. 제12연대 제 2대대 水岩山 완전 탈환
8월29일	**군 사**
	1. 아군 제6사단 烏林山一帶에서 철수
	2. 영국 제27보병여단 釜山에 도착
	3. 美 제1해병사단 美 본토에서 日本 神戶에 도착
	정치·경제
	1. 피난민구호위원회구성 가설수용소 설치
	2. 전후(戰后)재건에 대비하여 토건, 건축, 항만기술자조사
8월30일	**군 사**
	1. 아군 제1사단 多富洞지구에서 新寧지구로 이동
	2. 아군 제6사단 烏林山부근에서 전투(8.30~9.4)
	3. 아군 제1사단은 328高地, 水岩山, 新酒幕에 이르는 전선을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新寧지구로이동
	정치·경제
	1. 白문교부장관 전시학교 운영·조치대책 발표
8월31일	1. 아군 제1사단 渠山지구에서 격전중(8.31~9.4)
	2. 적제1군단 23.30 洛東江 서부에서 공격개시
	3. 한국파견 오스트레일리아군 제1제대 日本에 도착
	4. 공산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영국 새로운 기동부대 편성
	군 사
9월 1일	1. 제1군단장에 金白一준장임명

월 일	중 요 사 항
	2. 아군 제3사단장에 李鍾贊대령 임명
	3. 수도사단장에 宋堯讚대령 임명
	4. 공군 浦項기지부대해편
	정치·경제
	1. 李大統領 제2국민병등록에 관한 담화 발표
	군 사
9월 2일	1. 美 제1해병여단 密陽에서 鎭山으로 이동
	2. 적 제2군단 18.00시에 北부에서 공격개시
	3. 林彪예하 중공군 5개군단 滿洲로 이동(15만명)
	정치·경제
	1. 申 국방장관 전시요원신고방식발표
9월 3일	**군 사**
	1. 鎭山정면에서 미해병대 반격개시(08.55)
	2. 적 제12사단 사령부를 烽山烽으로 이동
	3. 적 게릴라 약115명 馬山北쪽 大地山 통신중계소 습격
	군 사
9월 4일	1. 아군 제6사단 제19연대 특공대 新寧北방에서 적전차 8대파괴
	2. 아군 제7사단 제8연대 新寧에서 永川으로 移動(제8사단예비대)
	3. 제8사단제21연대 지휘소를 仙川洞으로 이동
	4. 적 제2군단장 제15사단장에게 永川점령을독전

월 일	중 요 사 항
	5. 여자의용군 처음으로 입영
	군 사
9월 5일	1. 아군 제2군단장 劉載興준장, 永川선방어에 관한 작전회의 개최, 2개연대 증원을 결정
	2. 아군 제1사단 八公山에서 격전중(9.5~9.15)
	3. 아군 제6사단 笔山부근에서 격전(9.5~9.15)
	4. 아군 제3사단 兄山江이남으로이동
	5. 아군 제1연대 虎鳴里에서 전투중(9.6~9.9)
	6. 아군 제7사단 공병대대(200명) 永川으로 이동
	7. 美 제5해병연대 鎭山정면 크로버잎고지까지 진출
	8. 적제15사단 永川北방에서공격개시
	9. 육군본부 釜山으로 이동개시
	정치·경제
	1. 전국 10만 소방서원 완전무장
	2. 불란서 보병 한국파병을 UN에 신청
9월 6일	**군 사**
	1. 미 8군사령부 釜山水產大學에서 업무개시(전방사령부 大邱에 위치)
	2. 아군 제19연대 18.00시에 永川으로 이동 아군제11연대 12.00시에 琴湖로 이동
	3. 아군제17연대 毘桑峰에서 격전(9.6~9.13)
	4. 제8사단 사령부 永川읍에서 五峴

월 일	중 요 사 항
	洞으로 이동
	5. 적 제15사단 永川점령 제8사단 제9공병대대, 제3연대1대대 永川탈환
	6. 美 제24사단 07.00 영산에서 慶州로 이동완료
	7. 해군 群山앞 도서에 상륙
	8. 美 제5해병연대 釜山정면에서 仁川 상륙작전을 위하여 釜山으로 이동
	정치·경제
	1. 國府, 日本과 통상협정 조인
9월 7일	**군 사**
	1. 아군 제7사단, 제5연대, 乾川방면에서 전진(轉進)하여 적제15사단 제56연대의 남진을 저지
	2. 아군 제19연대 적 후방부대를 기습 완전 섬멸
	3. 아군 제26연대 제3대대를 安康방에서 阿火로 이동
	4. 美 8군 처치(John H. Church) 특수 임무부대 慶州지구에서 전투 중
9월 8일	**군 사**
	1. 적 총참모장 姜健전사
	2. 아군 제8사단제10연대 兄山江전선에서 慶州를 경유 9일에 道溪里에 이동
	3. 首都사단 제18연대 제2대대 永川에서 慶州로 이동
	정치·경제
	1. 해군 釜山피난민을 加德島로 이송
	2. 제17차 국회본회의에서 9월분 비상경비 예산심의
	3. 국회에서 피난민수용 임시조치법 1부개정
	4. 전시외료요원 소집공고
9월 9일	**군 사**
	1. 美 합동참모본부 仁川상륙작전을 승인
	2. 아군 제7사단 제5연대 林浦洞南쪽에서 적제15사단 포병연대를 섬멸
9월10일	**군 사**
	1. 아군 제7사단, 제8사단 永川지구에서 적 제15사단에 반격개시 아군 제11연대 永川에서 원대복귀 아군제10연대 阿火에서 永川北쪽으로 이동
9월11일	**군 사**
	1. 해병대 仁川상륙작전을 위하여 釜山에서 출동준비 완료
	2. 美 제9군단장에 쿨터(John B. Coulter) 소장 임명
	3.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보병 500명 한국으로 출발
9월12일	**군 사**
	1. 美 제 1군단과 제9군단 편성착수
	2. 캐나다군 한국파견 1,500명 전육해공군에 전시근무를 명령
	정치·경제
	1. UN안전보장이사회 ① 滿洲폭격문제에 대하여 스위스(Swiss)인도(India) 조사단 파견안심의를 가결 ② 美國을 滿洲침략자로 비난하는

월 일	중 요 사 항
	소련 의결안부결
	2. UNESCO 대한원조비 175,000$ 인가
9월13일	정치·경제
	1. UN한국수석대표에 林炳稷외무장관 임명
	2. 주불공사(駐佛公使)에 尹致暎임명
9월14일	군 사
	1. 아군 제15연대 架山점령
	2. 아군 제11연대755고지 점령
	3. 美 제8기병연대 제2대대 570고지 점령
	4. 長沙洞기습상륙
	5. 재일(在日)한국청년 군사훈련개시
9월15일	군 사
	1. 제17연대 仁川상륙작전을 위하여 釜山으로 이동
	2. 仁川상륙작전 성공 上陸군 仁川시가에서 잔적섬멸
	3. UN군 群山상륙
	4. 美 제25사단 固城으로 진격
	5. 재일(在日)한국의용군 미제1기병사단에 편입
	정치·경제
	1. 朝鮮銀行券유통금지하고 교환실시
9월16일	군 사
	1. 상륙군 富平점령
	2. UN군 전 전선에서 총반격개시
	3. 공군정찰비행부대 美8군으로 부터 L-4 4대인수
	정치·경제
	1. 仁川(시정)市政정상회복
	2. 慶南지구 계엄사령관 업무중지
9월17일	군 사
	1. 美 해병 제1사단 제 5연대 20.00에 金浦비행장완전 점령
	정치·경제
	1. 美 국무장관 UN군대표들과 38선돌파문제협의
9월18일	군 사
	1. 首都사단 安康탈환
	2. 해병대 朴村里와 連喜里에서 잔적을 섬멸
	정치·경제
	1. 각 도지사와 경찰국장회의
	2. 국회에서 사형(私刑) 금지법 가결
	3. 중공군 병력 북한으로 이동
	3. UN안전보장이사회 유럽방위국제군창설을 승인
9월19일	군 사
	1. 金浦비행장 사용개시
	2. 아군 제3사단 浦項탈환
	3. 아군 해병대 金浦반도에서 제2단계 섬멸전전개, 미 해병 5연대와 한국 해병 제1, 제2대대 井谷에서 漢江 도하준비중 美 해병 제1연대 素砂를 점령하고 永登浦로 진격 중
	정치경·제국
	1. 李承晩대통령 한국통일 방해는 있을 수 없으며 국군은 한, 만국경까지 진격을 언명
9월20일	군 사
	1. 中共軍 계속 北韓으로 진입

월 일	중 요 사 항
	2. 해군 仁川 경비부 복귀
	3. 공군 F-51비행부대 鎭海기지에서 大邱기지로 이동
	4. 韓國 해병대와 美 해병 제5연대 第1 나루터에서 한강을 도하여 계속 水色으로 진격
	5. 美 마샬(Marshall)장관 중공군 북한에 이동하였다고 언명
9월21일	**군 사**
	1. 아군 제8사단 水川北方 九山洞을 점령
	2. 아군 제581부대 義興탈환
	3. 美 제해병사단 제1연대 永登浦에서 시가전 전개 해병 제1대대 104고지 점령
9월22일	**군 사**
	1. 아군 제2613부대 浦項北방 興海탈환
	2. 아군 軍威탈환
	3. 수도사단 杞溪탈환
	4. 美 해병 제1연대 永登浦점령 美 해병 제5연대와 한국해병대 서울 서측방에서 공격개시 美 제7사단 제31연대 水原비행장 탈환
	5. 육군본부 大邱로 전진
	정치·경제
	1. 義城, 軍威, 靑松, 溧谷, 경찰서 복귀
9월23일	**군 사**
	1. 美 제7사단 烏山에 돌입
	2. 美 제 1기병사단 尙州 탈환

월 일	중 요 사 항
	3. 韓國 해병대와 美 해병 5연대 서울 西측방에서 격전
	4. 공군비행단 鎭海에서 해상으로 서울로 이동
	정치·경제
	1. 스위스(Swiss) 야전병원 釜山에서 업무개시
	2. 慶南지구 계엄사령부 북구 사령관에 金宗元대령
9월24일	**군 사**
	1. 韓國 해병대와 美 해병 제5연대 서울에 돌입 美 해병제1연대 麻浦에서 한강을 도하
	2. 공군 F-51비행부대 大邱기지에서 汝矣島로 이동
9월25일	**군 사**
	1. 美 제7사단 제32연대와 제17연대 漢江을 도하하여 西氷庫로 진출
	2. 신병교육특별분대에 여자입대
9월26일	**군 사**
	1. UN군 총 공격을 개시한 다음天安 부근에서 간격적인 악수
	2. 韓國 해병대 南大門과 西大門일대에서 시가전 전개
9월27일	**군 사**
	1. 韓國 해병대 제2대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해병대 南海島점령
	2. 공군본부 大邱에서 서울로 출발
	정치·경제
	1. 행정요원 서울로 속속 복귀
9월28일	**군 사**
	1. 서울완전탈환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정치·경제		
	1. 북괴金日成 괴뢰군 38이북으로 퇴각하도록명령		
9월29일	군 사		
	1. 공군본부 永登浦 大方洞 城南중학에 설치		
	정치·경제		
	1. 정부서울로 환도		
9월30일	군 사		
	1. 金浦반도로 미제187공수부대 이동		
	정치·경제		
	1. 맥아더(Mac Arthur)원수 金日成에게 항복권유		
	2. 오스틴(Austin) 美國대표 38선폐지를 UN政委에 제안		
	3. 中·蘇우호동맹상호 원조조약 기타 5조 협정에 관한 비준서 교환		

人 名 索 引

(ㄱ)

姜 健 6, 207
姜起千 396, 416, 418, 451
姜文奉 63, 68, 96, 582,
姜福求 709, 741, 788
姜信昌 567, 601
姜琬宋 416, 434
姜致福 288, 512
康宗權 585
강대용 727
姜鎬倫 355, 357
桂仁珠 642
高根弘 49, 51, 52, 54, 55, 56, 60, 62, 67, 69, 72, 73, 175, 186, 387, 402, 556, 574
高吉勳 696, 705, 706, 708, 713, 717, 727, 734, 735, 740, 766, 772, 777, 787, 798, 807
高尙遠 598, 685
孔國鎭 392, 763
孔在鵬 586
郭洙若 4
具仙鎭 360
權五喆 597
權泰順 562
權泰日 59
金寬大 218, 491
金光植 288, 292, 296, 640, 757
金光燮 597
金光玉 331, 336, 337, 338
金光俠 3
金國柱 177, 179, 191
金基容 162, 165, 166, 167
金大植 454, 710, 757, 766, 777, 798, 806
金大玉 597
金東斌 125, 136, 139, 148, 175, 185, 192, 531, 556, 569, 574
金東成 13
金東洙 49, 55, 56, 57
金東俊 300
金斗滿 357
金得鍊 605
金晩圭 414
金萬壽 600
金萬益 125, 198
金明中 159
金명항 49, 107, 541
金武亨 5, 47, 49, 62, 99, 107, 324, 328, 387, 417, 434, 450, 467, 469, 541, 556
金文常 301
金文石 605
金白一 68, 73, 74, 96, 387, 402, 427, 434
金秉元 765, 793
金秉鎭 113, 541
金炳喆 99, 125, 162, 175, 210
金炳徽 309
金奉文 387, 417, 435
金鳳翔 416, 421, 434
金相德 59
金相鳳 605
金錫根 297, 337
金錫範 331, 336, 338
金錫源 387, 389, 390, 392, 400, 403, 411, 412, 413, 415,
金 聖 99, 100, 107, 109, 311, 541, 543 555
金省三 291, 292, 296, 331, 333, 335, 338
金成俊 471
金成龍 131, 134, 355, 357
金聖恩 251, 260, 264, 265, 279, 288, 289 295, 296, 298, 337, 640, 757, 774 806
金世傑 597
金 洙 175, 180, 531, 539

金 信 352, 361, 363
金陽春 107, 175, 531
金億淳 595, 597, 605
金英德 540
金容來 600
金容培 49, 51, 52, 53, 54, 56, 62, 67, 69, 71, 72, 73, 81, 556, 574, 575, 579, 584
金龍培 107, 110, 114, 120, 541, 553
金龍周 62, 67, 68, 74, 94, 97, 396,
金 宇 282
金尤榮 387, 398
金旭篆 107, 119, 123, 541, 585, 587
金 雄 324, 326, 330, 417, 434
金源湧 600, 605
金元熙 131, 134, 173
金潤根 696, 705, 706, 713, 714, 719, 757, 799, 807
金銀根 294
金應根 594, 599
金應祚 387, 413, 415
金益烈 107, 115, 116, 119, 124, 541, 556, 574, 587
金益興 594
金仁洙 752
金日成 3, 4, 5, 6, 7, 8, 47, 51, 100, 127, 147, 184, 204, 597, 603, 604, 782
金日貞 95
金一河 160
金壹鎬 390
金一煥 707
金在命 125, 175, 180, 190
金在儀 566, 575
金點坤 125, 128, 129, 131, 134, 162, 170, 171, 172, 174, 531, 540
金貞童 125, 198
金貞烈 352, 353, 354, 357, 363
金濟善 107, 110, 112, 117
金鍾甲 438
金鍾淇 696, 705, 706, 733, 734, 772, 774, 775, 779, 792, 798, 807
金鍾大 597
金鍾洙 107, 111, 112, 114, 118, 541, 553, 554
金淙舜 387, 415
金鍾植 763, 787, 802
金鐘五 56, 99, 100, 102, 104, 107, 108, 110, 116, 117, 123, 541, 547, 553, 561, 584
金俊植 129
金志赫 107, 113
金振暻 125, 142, 143, 152, 154, 159
金昌鳳 125, 198
金昌龍 765
金 喆 99
金 策 207, 324, 330, 492
金忠男 301, 331, 336, 337, 338
金致九 125, 162, 556
金七龍 791
金泰善 598, 605
金 學 417, 434
金學默 416, 434, 439
金顯基 251, 265, 280, 512
金弘一 49, 62, 64, 66, 68, 387
金活蘭 12, 606
金會東 596
金亨山 594
金厚進 257, 265, 280, 512
金 勳 651
金熙濟 62, 67, 97, 416, 431, 433, 434, 450, 640, 760

(ㄴ)

南相徽 331, 338, 392, 451, 453
盧載鉉 311
魯義享 697

(ㄷ)

崔鍾煥 593

(ㅁ)

馬相喆 387, 417, 434
孟憲永 77, 78
文起元 677
文錫濟 596,

文時哲 802
文鍾燮 172
文鎭容植 301
文正植 107, 119, 120
文鍾郁 598
文鶴東 598, 605
文亨泰 173
文興植 26, 107, 112, 122, 251, 252, 264, 265, 267, 274, 279, 337, 396, 397, 398, 589
文興丙權 99, 100, 103, 104, 106, 107, 112

(ㅂ)

朴企潤 588
朴基丙 125, 130, 131, 134, 150, 162, 171, 174, 309
朴道鎭 416, 434
朴東洙 583
朴東鎭 645
朴培根 764
朴炳秀 387, 417, 435
朴炳洙 125, 128, 130, 131, 139, 143, 144, 162, 172
朴福松 586
朴成哲 62, 125, 162, 556
朴成哲 774
朴聖煥 776, 789, 792
朴昇山 556, 574
朴勝照 537, 539
朴元錫 708
朴 영 49
朴榮錫 396
朴永善 649
朴永浩 125, 311
朴龍柱 150
朴在根 154, 155
朴正模 775, 778, 789, 791
朴定仁 585
朴正俊 598, 605
朴廷鎬 311
朴鍾東 387, 398
朴鍾淳 160
朴柱根 585
朴柱炫 598, 605
朴俊鎬 63, 95
朴浚鎬 434, 570
朴 철 585
朴晶川 416
朴忠根 508
朴致王 62, 72, 74, 75, 175
朴判同 173
박한렬 697
朴海民 251, 265, 280, 512
朴炫洙 309
朴孝善 497
朴厚俊 117
朴勳 651
朴熙東 355, 357
方孟松 583
方虎山 251, 253, 260, 265, 280, 512
裵聖燁 171, 172
白基祚 331, 336, 337,
白南權 62, 69, 71, 97, 107, 113, 115, 116, 118, 120, 421, 433, 434, 541
白南豹 296, 301, 331, 337
白樂默 59
白善燁 125, 130, 152, 160, 162, 173, 175, 181, 183, 191, 192, 208, 216, 531 560, 584
白性郁 12, 589
白仁燁 62, 67, 96, 416, 425, 432, 651, 697 756, 759, 760, 762, 763, 780, 793 794
白昌煥 605
卞性瑛 545, 552, 553
賓哲顯 440, 793

(ㅅ)

史 勞 49, 107, 541
徐延南 734, 776, 797
石鍾愚 151
石主岩 173
鮮于宗源 594, 603, 605
소광진 697
孫官道 387, 396

孫繼天 601, 605
孫元一 288, 298, 331, 333, 335, 338, 651, 656, 676, 699, 706, 707, 792
孫昌奎 391
宋堯讚 151, 416, 427, 433, 434, 589
宋寬洙 588, 589
宋大厚 107, 120
宋寅明 331, 335, 336, 337, 338
宋孝錫 131, 134
宋孝淳 786, 794
宋喜慶 391
申健善 556
申東雨 430
申律善 107, 118
申尙澈 556, 572
申性模 423, 534, 606, 608, 609
申永澈 300
申攸浹 288, 291, 292, 352, 357, 363
申鉉祥 160
申鉉玉 727, 802
申鉉俊 298, 640, 651, 656, 696, 699, 705, 706, 707, 708, 742, 752, 761, 781, 806
辛相默 593, 594, 597, 605
沈甫學 790
沈載益 585
沈亨澤 593, 594

(ㅇ)

安光榮 125, 142, 152, 175, 176, 177, 178, 179, 182, 191,
安敎一 416, 434,
安白成 125,
安正熙 179, 191,
安昌寬 288, 293, 296, 298,
梁炳洙 778, 790, 791,
梁炳守 741, 778, 790, 791,
楊鳳稙 180, 181, 182, 190,
梁在鐵 605,
梁仲錫 585,
楊弘植 594, 596, 597, 605,
嚴奉烈 118,
延明守 539,
延 碩 642,
廉鳳生 298, 300,
吳德俊 26, 396,
吳白龍 49, 62, 107, 541, 549,
吳世東 718,
吳允燮 49, 107, 541,
吳占石 352, 356, 358, 556,
吳振宇 62, 387, 417,
吳昌根 596,
禹熙道 337,
柳京洙 435,
柳安子 751
柳在哲 711
柳貞鐸 416, 418
柳昌燻 416, 428, 434, 443, 697, 762, 807,
柳忠烈 596, 597, 605,
柳恒博 416, 434,
劉達鵬 540
劉載成 152, 159, 539, 544
劉載興 99, 100, 107, 109, 123, 125, 181, 541, 548, 556, 560, 561, 562, 563, 572, 579, 584
劉興守 62, 66, 69, 96, 309,
俞海濬 62, 74, 396, 418, 419, 432,
俞鎭濬 49, 57, 59, 60, 62, 67, 69, 71, 72, 73, 74, 75, 76, 78, 79, 81, 84, 88, 95, 556, 557, 574, 582,
陸東旭 719, 727
유명욱 390
尹基炳 594, 599
尹明運 594, 601
尹泰日 62, 64
殷碩杓 434
李康學 597
李寬洙 434
李健武 218, 224
李圭三 311
李極星 765
李根複 598, 605
李根晳 352
李奇健 434, 588

李起東 583
李技雨 605
李南鎬 605
李東彬 600
李斗鎭 125, 175
李茂重 569
李芳雨 416
李白雨 387, 396, 420
李範順 6
李秉龍 677
李福鉉 359
李鳳出 288, 292, 296, 640, 747, 748, 754, 758
李三寧 645
李尙根 436
李相垂 355, 356, 357
李相喆 486, 487
李瑄根 606, 609
李成佳 49, 51, 52, 60, 62, 74, 78, 79, 81, 90, 389, 396, 557, 559, 575, 579, 584, 609
李成根 39
李成株 594
李成雨 588, 605
李成俊 99, 125, 162, 175, 210, 469,
李成浩 288, 290, 645,
李世鎬 583
李召東 387
李承晩 12, 36, 352, 589, 605, 609, 610, 761, 776
李勝虎 491
李信國 159, 359
李連燮 62, 125, 162, 556
李陝奎 107, 113, 117, 118, 122, 396, 398, 553
李永來 541
李英鎬 125, 152, 198, 207
李 龍 396, 442
李勇男 676
李龍文 707
李龍雨 122, 123
李雲山 107, 117, 553
李元根 159
李元純 586
李源益 53, 57, 62, 73, 77, 79, 87
李乙湊 62, 125, 162
李應俊 252, 260
李益成 282, 288, 512
李益興 604, 605
李一洙 434
李一龍 293
李再起 434
李在弼 512
李存-- 152, 175, 531
李鍾萬 556
李鍾潤 574, 584
李鍾鼎 160, 540
李鍾贊 309, 387, 403, 405, 412, 415, 571,
李宗勳 648
李鍾容 556
李鍾-- 560, 584
李桂享 107, 113
李周熙 139, 149
李俊植 310, 392
李昌權 175, 531
李昌鎬 62, 65, 89, 92, 387, 396, 397, 533,
李昌律 53, 54, 74, 76, 82, 84, 87, 92
李昌浩 159
李鐵英 556
李致業 387, 413, 415, 434
李澤根 53
李通祥 753
李夏榮 605
李學九 373
李學來 107
李韓林 560, 584, 588, 589
李弘熙 709, 714, 728
李喜敬 765
李熙晶 642, 676, 692,
林觀默 416, 434
林炳穫 13
林富澤 99, 100, 104, 107, 109, 113, 116 117, 119, 124, 541, 543, 553
任永信 13
林益淳 49, 53, 54, 55, 59, 61

任忠植 49, 61, 62, 67, 69, 71, 80, '88, 421, 433, 434
임원수 791
任鎬演 106

(ㅈ)

張瑾燮 644, 692
張大古 708, 751
張德昌 352, 363
張東出 355, 356
張 勉 12
張錫倫 588
張石鍾 117
張永福 605
張永鎬 158
張春權 416, 421, 432, 434, 450,
張春根 563
張澤相 13
田敬鈍 117
田龍書 580
田得秀 594, 603
田鳳秀 596
田鳳熙 357
全盛鎬 649
全禹榮 416
全璋湊 598, 605
鄭光鎬 734, 776
鄭圭永 173
丁來赫 403
丁滿鎭 747
丁永鎭 355, 357
鄭秉燦 554
鄭炳潤 711'
鄭鳳旭 125, 169, 175, 184, 185, 190
鄭祥萬 402
丁世鎭 416, 434
鄭順基 162
鄭淳珉 387
鄭昇和 416, 425, 556, 587
鄭時煥 605
鄭연범 791
정영록 387
鄭永朝 131, 134, 150, 172, 173
鄭永洪 125, 175, 178, 180, 190, 531,
鄭寅永 585
鄭寅晥 51, 62, 311
丁一權 68, 135, 150, 425
鄭立敬 123
鄭点峰 179
鄭重鐵 719, 727
鄭 濩 62, 63, 64, 65, 74, 81, 94, 95, 396 416, 556, 570
鄭昌龍 62, 64
鄭泰燮 594
趙 寬 285
趙光烈 556, 574
趙明山 137
趙炳玉 12, 135, 150, 313, 589, 598, 590 604, 606, 607, 609, 610
趙成來 125, 129, 130, 144, 162, 164, 165, 166, 531
趙性俊 788, 802
趙榮九 416, 434, 442
趙義正 802
趙在美 72
曺在容 600
曺在千 606
趙丁右 297, 298
趙俊泳 589, 594
趙漢燮 107, 109, 110, 113, 121
조현욱 541
曺鉉成 765
周恩來 5
池永祚 711, 728, 763
秦文燮 710

(ㅊ)

車甲俊 125, 149, 175, 178, 179, 185, 190, 531, 533, 569
車基鎬 118
車龍浩 92
蔡命新 49, 56, 62, 73 87
蔡榮植 605
蔡元植 597, 605
千奉植 159, 359

崔鎭方 778, 791
崔起德 793
최기찬 697
崔魯洙 150
崔德新 49, 52, 54, 60, 62, 67, 69, 72, 75,
崔東華 676
崔炳淳 125, 143, 152, 154, 157, 544
崔興道 179
최상준 387
崔 錫 309
崔泳龜 77
崔榮喜 125, 144, 150, 152, 153, 161, 531, 539
崔庸健 469, 697, 722
崔鏞鎭 99, 162, 175, 176, 184
崔容鎭 512
崔宇根 585
崔仁德 218
崔仁斗 417, 434
崔一鎔 149, 585
崔在潤 416
崔正得 516
崔鴻鈍 62, 63, 65, 95, 434
崔昌權 107
崔昌根 117
崔昌濟 707, 710, 741, 787, 789
崔昌彦 62, 89, 92, 98, 107, 118, 541, 542, 556, 565, 572, 586
崔昌倫 63, 95
崔 天 265,279, 599
崔哲鎬 601, 605
崔忠國 49
崔致煥 588, 591, 592, 598, 605
崔海龜
崔 基 49, 417, 434
崔 賢 491

(ㅌ)

太炳烈 99, 125, 162, 175, 210, 469

(ㅍ)

表良文 706

(ㅎ)

河炳來 62, 72
韓景錄 593, 594, 596
韓弼華 125, 130, 140, 162, 164, 166, 167, 179, 531
韓 信 62, 67, 97, 387, 420, 433, 434, 449,
韓鐵顯 361
韓日來 251, 265, 280, 512, 514
韓日海 512
韓植日 599, 605
한치찬 697
咸炳善 99, 100, 101, 110, 112, 117, 120, 124, 541, 542
咸成烈 697, 762
許順元 55
許容尤 107, 110, 541, 545
玄德輝 600
玄學奉
洪聖俊 440
洪 林 107, 175, 531
黃基相 77
黃 石107, 175, 531

(A)

Acheson, Dean G. 13
Allen, Levin C. 319, 478, 590, 607, 686,
Almond, Edward M. 20, 369, 458, 617,620 621, 627, 633, 634, 635, 637, 651, 653 677, 682, 686, 695, 696, 697, 723, 729 732, 735, 755, 766, 804, 806
Anderson, Andrew C. 511, 517
Andrews, William G. 339, 341, 627, 630 645, 651, 686
Austin, Bernard L. 13, 627, 651, 686
Ayres, Harold B. 218, 225

(B)

Barrow, Robert, 738
Barns, Peter W. 374
Barr, David G. 651, 696, 723, 740, 758
Barth, George B. 218, 265, 276
Barthholdi, Cyril S. 493
Baxter, Earl R. 490

Beauchamp, Charles. 218, 223, 226, 227, 320, 697, 723, 739, 756, 758, 759, 762, 769,
Blair, Melvin R. 251, 511, 523
Bohn, Robert D. 662
Bradley, Joseph S. 316, 385, 389, 456, 463, 494
Bradley, Omar N. 13, 319, 617, 623, 671, 689
Bridges, David W. 667
Brown, Melvin, L. 482, 483,

(C)

Carson, Eugene J. 251, 511, 521
Casgow, William G. 492, 493
Cates, Clifton B. 636, 637, 638
Champney, Arthur S. 251, 265, 280, 511, 512, 519, 521, 522
Chandler, Melbourne C. 475,
Check, Gilbert J. 210, 251, 257, 258, 259, 260, 345, 511, 516, 517, 519, 520, 521,
Church, John H. 220, 221, 224, 227, 228, 229, 230, 231, 235, 242, 254, 315, 320, 385, 455, 462, 463
Clainos, Peter D. 201, 314, 469
Clark, Eugene F. 633, 645, 646, 661
Clark, (sgt) 582,
Cocolan, 287
Cole, George R. 251, 286, 511
Collins, Lawton J. 167, 621, 623, 671, 689,
Conger, William. 511, 522
Cooper, (sgt) 648
Corley, John T. 251, 511, 522, 523
Coulter, John B. 455, 458, 460, 462, 611
Crabb, Jared V. 380
Craig, Edward A. 218, 239, 242, 637
Craigwell, 354
Crombez, Marcel B. 198, 469, 475
Currayr, 235, 473
Cushman, Thomas J. 629

(D)

qeɑney, John A. 479, 611
Darrigo, Joseph R. 457
Davidson, Garrison H. 17, 22, 455, 462 463
Deacon, E. T. 345
Dean, William F. 19, 220
DeChow, George H. 210, 251, 511, 516 522
Dew, Manes R. 494
Doyle, James H. 621, 624, 625, 626, 627 634, 637, 651, 656, 677, 685, 686, 723

(E)

Edwards, Idwal H. 671, 739
Eisenhower, Dwight D. 652
Ellis, Charles, 511, 518
Emmerich, Rolins S. 392, 393, 456, 461
Engle, Marshall G. 488
Ewen, Edward C. 339, 345, 627, 651, 686, 687

(F)

Faith, Don C. 697, 739, 760
Fern, Albert J. 500, 501
Fields, Joseph A. 488, 803
Fisher, Henry G. 251, 265, 280, 512, 514, 524
Forney, Edward H. 620, 633
Fox, Aronjo P. 653, 655
Freeman, Paul L. 491, 493,

(G)

Gallagher, M. D. 345
Galoway, Donald H. 620
Garvin, Crump. 36, 612
Gay, Hobart R. 198, 201, 467, 469, 470, 471, 480, 488
Gliph, (sgt) 480, 481, 482, 483
Goodney, Willard K. 339, 342
Graves, Donald J. 641
Guiraud, Rene J. 479

(H)

ɐHmpton, Henry. 740

Handrich, Melvin O. 287
Hannum, Calvin S. 740
Harris, Field. 638, 651
Hartman, Charles C. 339, 340, 341, 647
Hawkins, Jack. 666
Haynes, Royal M. 494
Henderson, George R. 627, 651, 686
Hess, Dean E. 352, 353, 355
Hickey, Dayle O. 367, 507
Higgins, John M. 339, 340, 341, 626, 630, 659, 660, 663, 686,
Hill, John G.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497, 498, 501,
Hitchner, Omar T. 474
Hohn, Kluck, 642
Holley, William C. 479, 482,
Holmes, Ernest V. 479
Holter, 483
Houghton, Kenneth J. 730, 731
Howard, Billie. 713
Hudson, 343
Hunt, Lewis A. 36
Hutchin, Claire E. 491, 493, 494

(J)

Jackson, Billy G. 343, 385, 455, 459, 460, 462, 463
James, Elwood F. 511
Jensen, Carl C. 218, 493
Johnson, Harold K. 484
Johnstone, Richard J. 244
Jones, Thomas T. 480, 485, 511,
Joy, Charles T. 339, 347, 350, 369, 379, 621, 624, 628, 629, 637, 680

(K)

Katz, Amon H. 641
Kaufman, Loren R. 508
Kean, William B. 197, 235, 251, 265, 266, 267, 269, 271, 273, 274, 276, 278, 279, 280, 282, 285, 286, 411, 467, 511, 515, 517, 519, 520, 522, 523, 525,
Keiser, Lawrence B. 319, 456, 467, 491, 493, 497, 498
Keisey, 228
Kennedy, John T. 479, 480, 481, 482, 483,
Kouma, Ernest R. 499, 500

(L)

Landrum, Eugene M. 611, 319
Litzenberg, Homer L. 696, 735, 758, 772, 799
Londahl, John E. 497
Lowe, Frank. 656
Luosey, Michael J. 642
Lynch, James H. 469

(M)

Mac Arthur, Douglas. 9, 19, 20, 22, 42, 207 208, 210, 252, 312, 314, 319, 342, 344, 347, 349, 367, 368, 369, 370, 376, 377, 381, 458, 485, 507, 605, 611, 612, 617,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7, 628, 635, 636, 637, 639, 645, 646, 653, 654, 656, 669, 671, 673, 677, 683, 685, 686, 687, 689, 691, 698, 713, 763, 783, 786
Majeske, LeRoy E. 511, 513
Mallick, 12
Marshall, George C. 13
McCall, Roye E. 488
McDoniel, Raymond J. 504
Mc Grail, Thomas M. 218
McIntyre, Niles J. 493
McMains, D. M. 455, 461
Meloy, Guy S. 455
Memorray, Houston M. 511, 518
Michaelis, John H. 179, 192, 210, 211, 212, 251, 265, 280, 511, 523
Milam, James T. 474
Miller, W. R. 641, 696
Moore, Ned D. 218
Mount, Charles M. 697, 739, 740, 758, 759
Murch, Gordon E. 210, 218, 233, 238, 251 511, 515, 516

Murray, Raymond L. 237, 233, 239, 272, 669, 696, 757, 767, 799

(N)

Newton, George R. 218, 272, 277, 696, 757, 772
Nimitz, Chester W. 621
Nist, Cecil. 198, 469, 473

(O)

O'Donnell, Emmett Jr. 209, 210, 364, 366, 368, 370, 375, 379
Ordway, Godwin L. 265, 511
Ovenshine, Richard P. 697

(P)

Palmer, Charles D. 198 469,
Palmer, Laymond D. 198, 469, 479, 480,
Partridge, Earle E. 210, 323, 347, 353, 364 368, 371, 372, 374, 378, 379, 457,
Peploe, George B. 319
Perez, Gines. 218, 223, 455, 461
Peterson, Robert. 480
Philbrick, Richard W. 641
Philip, John J. 483
Poovey, Junius. 513
Puller, Lewis B. 712, 720, 729, 737, 742, 756, 758, 767, 769

(R)

Ratt, James M. 207
Redford, A. W. 659
Rhea, R.L. 218
Ridge, Thomas. 696, 722, 736, 756, 769
Riversedge, Harry B. 638
Roach, George. 511, 513
Roberts, Paul F. 511, 518, 519
Robinson, Ralph R. 495
Rodriguez, Adam B. 500, 501
Roelofs, T.B. 274, 511
Roise, Harold S. 218, 233, 497, 696, 712, 713, 734, 757
Ruble, Richard W. 339, 349, 350, 658, 686
Ruffner, Clark F. 634, 635
Rusk, Dean. 13

(S)

Schmitt, Edward. 502, 503, 504
Sears, Wormun W. 661
Sebille, Louis J. 373
Shepherd, Lemul C. 339, 349, 621, 624, 637 638, 654, 732
Sherman, Forrest P. 617, 621, 623, 624, 636, 671, 677, 689
Shinka, Michael J. 241
Singer, Watson T. 668
Smith, Alvin E. 661
Smith, Charles B. 218
Smith, Oliver P. 345, 346, 355, 455, 625, 626, 630, 633, 634, 636, 638, 639, 651, 686, 687, 688, 696, 698, 704, 705, 707, 729, 732, 755, 759, 766, 767, 806,
Spier, Frank. 648,
Stalin, Joseph. 3,
Stephens, Richard W. 218, 455, 460,
Stratemeyer, George E. 210, 347, 349, 364, 365, 366, 368, 369, 370, 372, 373, 377, 381, 621, 627, 628, 629, 637,
Struble, Arthur, D. 339, 342, 344, 345, 368 379, 621, 625, 627, 628, 630, 634, 651, 652, 653, 656, 659, 660, 686, 687, 688, 735
Stuart, Clarence E. 277
Sutter, Alan. 665, 696, 720, 725, 756, 772,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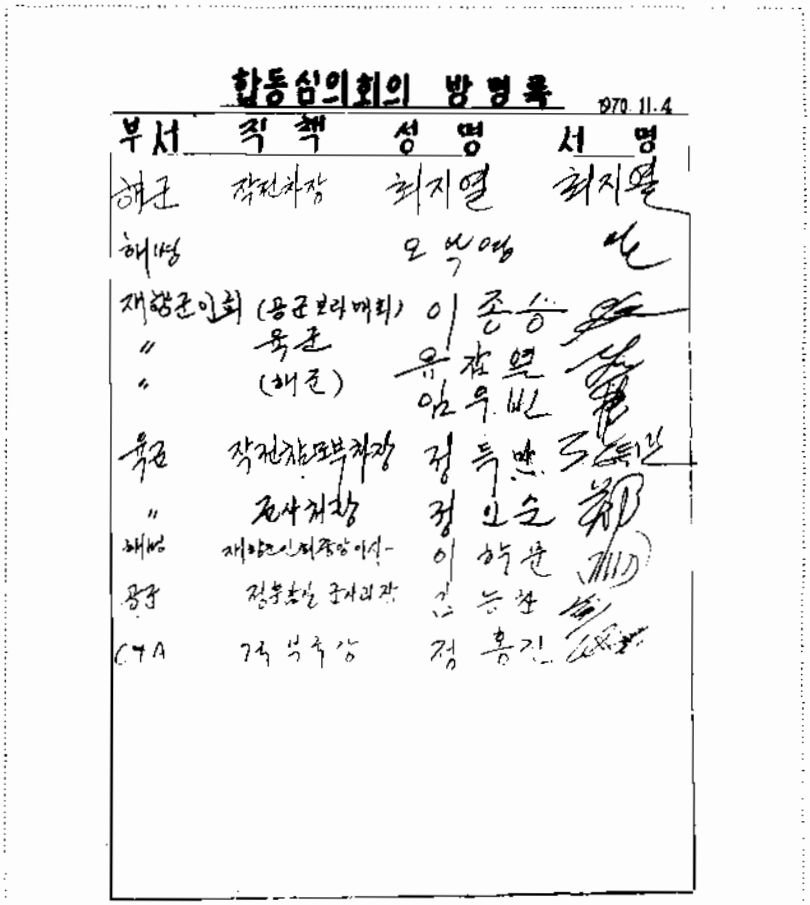
Taplett, Robert D. 218, 238, 248, 497, 662, 664, 696, 700, 701, 716, 734, 735, 757, 758, 767, 772, 777, 784
Teeter, Bernard G. 251, 511
Thackrey, Lyman A. 668
Throckmorton, John L. 271, 511
Torner, Charles W. 506
Truman, Harry S. 14, 42, 43, 617, 636, 638, 689
Tunner, William H. 364, 381

(V)

Vandenberg, Hoyt. 374, 381

(W)

Walker, Robert W. 488
Walker, Walton H. 18, 19, 20, 167, 201, 210, 214, 216, 228, 235, 236, 252, 254, 312, 313, 319, 320, 321, 368, 369, 392, 393, 394, 455, 458, 470, 473, 484, 489, 498, 507, 513, 523, 525, 590, 606, 607, 608, 609, 611, 612, 613, 614, 627, 673, 680, 682, 784, 795
Warkins, 503, 504
Webel, James B. 489
Weible, Walter L. 36
West, Herman L. 474
Weyland, Otto P. 369, 372, 377, 378
White, Horton V. 251
Whitney, Courtney. 654
Witty, Robert. 457
Wilkins, John L. 251, 511
Wilson, Vennard. 251, 511
Wilson, Wesley E. 251
Wolfe, James. 671
Wood, Ransome H. 239
Woolfolk, Robert L. 251, 511
Wright, Edwin K. 369, 634, 653, 677



합동심의회의 방명록

1970. 11. 4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해군	작전차장	최지열	최지열
해병		오익영	
재향군인회	(용군보리버티)	이종승	
〃	육군	유재흥	
〃	(해군)	안유비	
육군	작전참모부차장	정특영	
〃	전사처장	정일권	
해병	제1군사령부	이학균	
공군	정훈참모	고등관	
CIA	극동부장	정흥진	

韓國戰爭史 <第3卷>

1970年 12月 1日 印刷
1970年 12月 25日 發行

國 防 部 編 纂

發行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印刷 서울印刷株式會社

(無斷複製不許)